

옛 우리 이야기-2

베스

소개글

목차

1 도박 · 투전에 미친 사회 *8*

2 劍契와 왈자 *22*

3 群盜 *37*

4 민란의 시대 – 고종 때의 민란들 *51*

5 민란의 시대 – 고종 때의 민란들(2) *57*

6 민란의 시대 – 고종 때의 민란들(3) *66*

7 생존을 위한 싸움 – 1894년 동학농민전쟁(1) *71*

8 생존을 위한 싸움 – 1894년 동학농민전쟁(2) *79*

9 의적인가, 화적인가? – 활빈당 *88*

10 19세기의 대표적 변란 – 광양란과 이필제의 난(1) *95*

11 19세기의 대표적 변란 – 광양란과 이필제의 난(2) *101*

12 19세기의 대표적 변란 – 광양란과 이필제의 난(3) *105*

13 전국을 휩쓴 민란의 열풍 – 임술민란(1) *110*

14 전국을 휩쓴 민란의 열풍 – 임술민란(2) *118*

15 서북지방 최대의 민중항쟁 – 홍경래의 난과 여러 민란들(1) *130*

16 서북지방 최대의 민중항쟁 – 홍경래의 난과 여러 민란들(2) *136*

17 서북지방 최대의 민중항쟁 – 홍경래의 난과 여러 민란들(3) *145*

18 정치적 변란인가, 민중의 반란인가? – 영조 무신란 *153*

19 차별없는 사회를 꿈꾸었던 비밀결사 – 검계와 살주계 *159*

20 대규모 무장을 갖춘 도적들 – 임꺽정과 장길산(1) *164*

21 대규모 무장을 갖춘 도적들 – 임꺽정과 장길산(2) *170*

22 임진왜란 와중에 일어난 변란 – 송유진과 이몽학의 난, 임진왜란과 시대상 *174*

23 임진왜란 와중에 일어난 변란 – 송유진과 이몽학의 난, 임진왜란과 시대상(2) *180*

24 조선초기 최대의 반란 – 이시애의 난 *185*

25 왕위에 올랐다고 가통까지 이은 것은 아니다 – 예송논쟁(1) *191*

26 왕위에 올랐다고 가통까지 이은 것은 아니다 - 예송논쟁(2) 197

27 왕위에 올랐다고 가통까지 이은 것은 아니다 - 예송논쟁(3) 205

28 북벌의 시대, 대동법의 시대(1) 211

29 북벌의 시대, 대동법의 시대(2) 216

30 북벌의 시대, 대동법의 시대(3) 221

31 인조반정, 그 비극의 뿌리(1) 224

32 인조반정, 그 비극의 뿌리(2) 229

33 인조반정, 그 비극의 뿌리(3) 233

34 조선시대를 휩쓴 전염병의 공포 236

35 역사 속 지도자들의 마지막 모습 239

36 박지원의 열하일기 242

37 왕실 국장의 절차와 기록들 246

38 겸재의 예술혼 250

39 최초의 의병장 곽재우 253

40 잃어버린 문화재 '외규장각 의궤' 256

41 조선팔도에 퍼진 상평통보 259

42 소 이야기 263

43 서얼들의 신분상승 운동 266

44 옛사람들의 새해 풍속도 270

45 왕실 최고의 휴식처, 온천 273

46 종친들의 삶 276

47 기녀출신 거상 김만덕 279

48 조선 화원들은 어떤 그림 그렸나 283

49 역사의 흐름을 바꾼 '계유정난' 286

50 우리의 일부가 된 귀화인들 289

51 옛사람들의 활쏘기 293
52 조선시대 사람들의 여름나기 297
53 급사하고, 쫓겨나고...조선의 세자가 불행했던 까닭 300
54 조선시대 양반들의 성문화 305
55 잘못된 반정(反正)과 비운의 왕, 광해군 306
56 조선 후기 자주국방의 산물---수뢰포 317
57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왜선 한 척에 유린당하다 <2>| 318
58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왜인을 사로잡다 327
59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잔혹한 살인범인가 정치적 희생양인가 332
60 대금황제를 꿈꿨던 조선인 이징옥(李澄玉) 349
61 조선시대 연쇄살인범 순화군(順和君 353
62 고려 말 명장 이성계의 활약(1) — 동북면을 평정하다 356
63 고려 말 명장 이성계의 활약(2) — 압록강을 넘다 364
64 이인좌의 난 383
65 좌절된 정조의 친위쿠데타 385
66 [병자호란] (1) 10만 포로의 눈물 388
67 [병자호란] (2) 임진왜란, 누르하치, 그리고 조선 398
68 [병자호란] (3) 일본 만선사가들이 본 병자호란 408
69 병자호란] (4) 누르하치,명(明)에 도전하다 414
70 [병자호란] (5) 광해군과 누르하치,그리고 명나라 428
71 [병자호란] (6) 심하전역과 인조반정 442
72 [병자호란] (8) 인조반정의 외교적 파장 457
73 [병자호란] (9) 이괄의 난이 일어나다 468
74 [병자호란] (10) 모문룡의 작폐 479
75 [병자호란] (11) 명과 후금의 정세 484

76 [병자호란] (12) 정묘호란 일어나다 493
77 [병자호란] (13) 일본의 氣가 살아나다 509
78 [병자호란] (14) 모문룡의 죽음과 파장 514
79 [병자호란] (15) 自强論의 이상과 현실 519
80 [병자호란] (16)우여곡절 속 후금과의 관계 527
81 [병자호란] (17) 인조의 생부 정원군 추승 논란 536
82 [병자호란] (18) 대릉하성의 비극 548
83 [병자호란] (19) 반란자와 귀순자들 559
84 [병자호란] (20) 엎친 데 덮치다 568
85 [병자호란] (21) 유화적인 대일정책 579
86 [병자호란] (22) 후금관계 파탄의 시초 584
87 [병자호란] (23) 병자호란이 시작되다 601
88 [병자호란] (24) 남한산성의 나날들 609
89 [병자호란) -(25) 근왕병이 패하다 616
90 [병자호란](26) 다시 화친을 시도하다 624
91 [병자호란] (27) 인조의 절박함과 홍타이지의 절박함 643
92 [병자호란] (28) 강화도의 비극 653
93 [병자호란] (29) 三學士의 최후 667
94 [병자호란] (30) 가도의 동강진 무너지다 675
95 병자호란] (31) 포로들의 고통과 슬픔 683
96 [병자호란] (32.끝) 조선을 알았던 청, 청을 몰랐던 조선 693
97 왕위에 올랐다고 가통까지 이은 것은 아니다 - 예송논쟁(4) 696
98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706
99 조선전기 4대사화 719
100 임진왜란,420년 전 이 땅을 피로 얼룩지게 했던 슬픈 역사 737

도박 · 투전에 미친 사회

2013.06.20 13:48

섰다와 짓고땡으로 날 새는 줄 몰랐다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도박이 극성을 부린다. 조선사회에도 도박은 있었다. 도박이 횡행할 때 미래는 암담했고 백성들은 고달팠다. '쪼기' '도리짓고땡' 이 그 모습을 드러낸 조선시대 도박의 세계로 떠나본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로마 병사들은 주사위를 굴려 예수의 옷을 나눠가지자고 내기를 했다. 경주 안압지에서는 내기용 주사위가 출토되었다. '금오신화' 의 '만복사저포기' 에서 양생은 부처와 저포(樗蒲 · 쌍륙雙六)로 내기를 하여 미인을 얻었다. 도박의 종류는 무수하고 다양하다. 화투 · 포커 · 마작 · 슬롯머신 · 바카라 · 룰렛 등 우리는 아마도 그 명칭을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도박은 불법이 아니다. 라스베이거스, 모나코의 도박장, 경마 · 복권 등 제도화된 도박을 상상해 보라. 이처럼 도박은 시간과 지역을 초월한 인류의 공통적 경험이며, 골몰과 찬미의 대상이다.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도박에 골몰하게 하는가? 도박은 인간의 본성에 관계된 것인가?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도박에 탐닉하는 프로그램이 장치되어 있는가?

도박은 게임과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어떤 것(대부분 화폐로 환원된다)이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 가 결합했을 때만 도박이 된다. 아무것도 걸지 않은 고스톱은 도박이 아니다. 게임 없이 재물을 주고받는 것은 자선사업일 뿐이다. 게임의 종류는 한정이 없다. 위에 든 것 외에 동전의 홀수 · 짝수 맞히기도, 가위바위보도 도박이 된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 올리기

내 생각에 도박은 두 가지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 최적의 먹이획득이론. 생명체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먹이를 획득하려 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이 원리의 제도화다.

도박과 자본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노동과 합리적 경영을 필수적인 매개물로 표방하지만(표방만 한다. 실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도박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생략한다. 즉 도박은 노동과 합리적 경영을 생략한 채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획득하려 한다. 도박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 불확실성. 도박은 불확실한 미래에 운명을 맡긴다. 도박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필연과 확실성을 추구하지만,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과 불확실성일 뿐이다. 이것이 도박의 세계관이다.

도박의 역사는 아마도 인류의 역사와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도박의 유행 정도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손에서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낮은 생산력의 사회에서 도박이 성행할 확률은 높지 않다. 높은 생산력은 도박을 성행케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도박이 성행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경제적 후진사회에서도 도박은 성행할 수 있다. 이래서 둘째 조건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확실하게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도박이 성행할 수 없다. 도박은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성행한다.

이 글에서 나는 조선후기 사회와 도박의 관계를 검토한다. 경제적 변화가 역사학의 관심사라면, 그것이 인간의 구체적 일상적 삶과 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내 관심사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지방관들이 도박에 탐닉하는 것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것은 ①바둑 ②장기 ③쌍륙 ④투패(鬪牌 즉 마조馬弔인데, 보통 말로 투전鬪?이라 한다 · 원주) ⑤강패(江牌 즉 골패骨牌 원주) ⑥척사(擲柶 우리나라 풍속의 윷놀이 · 원주)이다. '대명률'에 '모두 장(杖) 80에 처한다'고 한 것은 어떤 놀이를 막론하고 재물을 걸고 도박한 자는 장 80에 처한다는 것이다. 무릇 놀이로써 재물을 취하는 자는 그 형률이 모두 같은데 오직 바둑은 천한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니 구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다산은 여섯 가지 도박을 들고 있는데, 여섯 가지 모두가 균등하게 유행한 것은 아니었다. 미리 말하자면 다산이 같은 글에서 지적했듯,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투전 · 골패 · 쌍륙이었고, 그 중에서 투전이 조선후기 도박계 제왕의 지위를 점하였다. 바둑 · 장기 · 윷놀이는 조선후기에 생겨난 종목이 아니라, 고래로 있었던 것이고 도박으로 특별히 유행한 것도 아니니 더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도박계 패권 차지한 투전

투전은 뒤에 본격적으로 살필 것이므로 우선 쌍륙과 골패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쌍륙은 체스판과 같은 장기판에 쌍방 16개의 말을 일렬로 배열하고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려 그 숫자에 따라 말을 전진시켜, 원래 자기 말이 있던 라인에서 모든 말이 먼저 다 벗어나는 쪽이 이긴다. 쌍륙은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보이니 고려 때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다. 쌍륙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 사이에 성행하였다. 지금도 안동지방 고가(古家)의 여인들 사이에 간간이 행해진다.

골패는 가로 1.2㎝~1.5㎝, 세로 1.8㎝~2.1㎝의 납작하고 네모진 검은 나무 바탕에 상아나 짐승뼈를 붙이고 여러 가지 수를 나타내는 크고 작은 구멍을 새긴 것으로 모두 32쪽이다(요즘의 마작과 비슷하다). 노는 방법에는 꼬리붙이기 · 포(飽) · 여시 · 골여시 · 쩍쩍이 등이 있다.

노는 방법은 매우 복잡해 여기서 다 설명하기 어렵다. '꼬리붙이기'를 예로 들면, 12짝을 갈라 한 사람이 패를 내면 상대방이 낮은 패를 계속 내 더 이상 낮은 숫자를 낼 수 없으면 진다(여기에도 더 복잡한 룰이 있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생략한다). 골패는 쌍륙보다 더 유행한 종목이었다. 민요까지 나왔을 정도다.

"얼싸 오날 하 심심하니/훗패 작패 하여 보자/쌍준륙에 삼륙을 지르고/쌍준오에 삼오를 지르니/삼십삼천이십팔수/북두칠성이 앵돌아졌구나"(경상도 민요 '골패타령')

조선후기 도박계의 패권을 차지한 것은 투전(鬪? 또는 投?이라고도 쓴다). 조선후기는 물론 19세기 말 화투가 수입되기 전까지 도박계를 완전히 석권했고, 화투가 수입되자 그 놀음 방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금 40대 이상이면 아마도 화투 2장을 쥐고 하는 이른바 '쪼

기’ 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쪼기는 고스톱이 화투판을 석권하기 전 오랫동안 유행하던 종목이다. 쪼기의 ‘땡’과 ‘족보’, 그리고 ‘짓고땡’ 종목은 모두 투전에서 유래한 것이다(유구히 이어진 민족의 전통! 거룩하다). 이국(異國)에서 수입해온 ‘화투’에 민족적인 정조를 불어넣는 데 혁혁한 공헌을 한 투전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정조(正祖) 때의 학자 성대중(成大中)의 ‘청성잡기(靑城雜記)’에 의하면, 숭정(崇禎 · 1628~44) 말년에 역관(譯官) 장현(張炫)이 북경에서 구입해 온 것이라고 하였다.

투전이 중국에 기원을 둔 것이란 말인데, 도대체 중국의 어떤 도박을 수입했던가? 투전은 원래 중국의 마조(馬弔)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는데, 19세기 인물인 조재삼(趙在三)의 ‘송남잡지(松南雜誌)’에 의하면, 마조는 원대에 시작됐으며 중국 고금의 인물을 품제(등급을 매김)한 120장으로 된 놀음이라고 한다(마조에 대해서는 이상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룰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 120장짜리 마조를 간략화한 것이 투전이다.

투전은 80장(혹 60장짜리도 있다)의 종이 쪽지로 구성되는데, 그 폭은 손가락 굵기만 하고, 길이는 15㎝정도이다. 한 면에 사람 · 물고기 · 새 · 꿩 · 노루 · 별 · 토끼 · 말 등의 그림이나 글을 흘려 적어 끗수를 표시한다. 같은 글자(그림)가 10씩 모여 80장을 이루는데, 이것을 팔목(八目)이라 한다. 각각의 명칭도 달라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에 의하면, 인장(人將)을 황(皇), 어장(魚將)을 용(龍), 조장(鳥將)을 봉(鳳), 치장(雉將)을 응(鷹), 성장(星將)을 극(極), 마장(馬將)을 승(乘), 장장(獐將)을 호(虎), 토장(兎將)을 취(鷲)라 한다고 하였으며, 사람 · 물고기 · 새 · 꿩은 노(老)로 사용되고, 별 · 말 · 노루 · 토끼는 소(少)로 사용된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는 어렵다. 투전목에는 손을 타도 훼손되지 않게 기름을 먹였다.

“1전으로 10전을 한꺼번에 따오네”

(그림1) 김양기가 그린 ‘투전도’. 투전에 열중한 네 사람과 음식상을 나르는 기생의 모습에서 조선후기 도박이 기방에서 주로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투전은 이에 쓰는 투전목이나 참가인원 또는 내용에 따라 ‘돌려대기’ ‘동동이’ ‘가구’ ‘우등뽑기’ 따위로 나뉘며, 한 가지 방법에도 몇 가지 세목이 있다. 가장 원형에 가까운 것은 80장 모두를 쓰는 ‘수투전(數鬪?)’인데, 노는 방식이 대단히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 현재 수투전에 대해서는 조지훈(趙芝薰)의 ‘수투전교(數鬪?巧)’란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집필할 때 이미 수투전은 조지훈의 고향인 경북 주곡(注谷)을 제외하고는 하는 곳도 없고, 또 노는 방식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나 역시 이 논문을 읽고 그 방식을 이해하려 하였

으나 실패하였다(또 알아 무엇하겠는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투전방식을 알아보자. 돌려대기(이것은 아마도 '짓고땡이 투전'과 같은 것으로 짐작된다)는 가장 널리 놀던 것으로, 40장의 투전목을 쓴다(60장을 쓰기도 한다). 선수가 판꾼 다섯 사람에게 한 장씩 떼어 모두 5장씩 나누어주면 판꾼들은 각기 3장을 모아서 10, 20, 30을 만들어 짓고 나서, 나머지 2장의 숫자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만약 3장을 모아도 지을 수 없는 사람은 실격하며, 2장의 숫자가 같으면 '땅'(혹은 땡)이라 하는데, 이 중에서 '장땅'이 가장 높으며, 9땅, 8땅의 순서로 낮아진다. '땅'이 아닌 경우에는 2장을 합한 것의 한자리 수가 9가 되면 갑오라 하여 가장 높고 9, 8, 7, …의 차례로 내려간다. 그리고 갑오가 되는 수 가운데 1과 8은 '알팔', 2와 7은 '비칠'이라 하고, 5가 되는 수 중에서 1과 4는 '비사'라고 부른다. 2장을 더한 수가 10처럼 한자리수의 끝이 0이 되는 경우에는 '무대'라고 하여 가장 낮은 끗수로 친다.
잠시 투전판에서 유행되던 족보의 이칭에 대해 간략히 감상하자. '삼팔돛대가보'는 3과 8과 8이 합하여서 가보가 될 때, '섰다 벗었다 안경가보'는 1과 8이 합하여서 가보가 될 때, '일장통곡하는구나'는 1과 10이 합한 가장 끝수가 낮을 경우, '기운센놈'은 10과 4가 합한 끗수일 때에 하는 말인데 흔히 '장사'라고도 한다. 재미있지 아니한가?

이 외에 널리 행해졌던 것으로 '동당치기' '가보치기' 등이 있는데, 동당치기는 투전 40장을 여섯 장씩 나눠가지고 같은 자를 두 장 혹은 석 장씩 맞추는 노름이다. 가보치기(갑잡골, 갑자꼬리, 가보잡기)는 40장씩 가지고 두 장씩 혹은 석 장씩 뽑아서 아홉끗을 짓는 노름이다.

이제 도박판의 현장을 볼 차례다. 정조 때 비정통적 산문체(散文體)를 구사하고 이단적 사상(천주교)에 물들었다 하여(사실은 아님), 죽임을 당했던 문인 강이천(姜彝天 · 표암 강세황의 손자)은 18세기 후반기 서울의 풍속을 상세히 묘사한 106수의 한시 '한경사(漢京詞)'를 남겼는데, 여기에 도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길게 자른 종이에 날아갈 듯 꽃모양 그려 / 둘러친 장막 속에 밤도 낮도 모를레라.
판맛을 거듭 보자 어느새 고수 되어 / 한마디 말도 없이 천금을 던지누나.
紙板長裁花樣? , 深圍屛幕沒朝昏.
賭來多局成高手, 擲盡千金無一言.

네 사람 마주앉아 도박판을 열고서 / 골패 여덟 짝 나누어 쥐었네 / 그중 한놈 좌중 향해 제 끗발 자랑하며 / 1전으로 10전을 한꺼번에 따오네.
四人相對戲場開, 牙骨分持共八枚.
獨向坐中誇牌格, 一錢賭取十錢來.
'하우스' 개설자는 엄히 처벌해야

앞의 작품은 투전판이고 뒤의 작품은 골패하는 장면이다. 좀더 클로즈업해 보자.

⑴ 천하 잡것 무숙이 아무런 줄 모르고서 이새 돈을 좀 아니쓰니 그날부텀 또 놀아나는데, 신명을 부쩍 내어 골패 놀음을 시작한다. 잡기 일수 오입장이 사오 인을 청좌하여 밤노름을 부쳐 놓고 좌우 쌍촉 돋우어 켜고 중두내기 판을 차려 순끗주기 시작한다. 홰홰 둘러 패를 친즉 무숙이는 관을 잡고 고나치는 제 사면을 둘러보니 삼칠이는 쌍기 잡고 좌우편 대사와 사십 이상 혹겨하니 다만 행전 무숙이라. 사오차 대격치르니 남은 돈이 얼마러냐, 톡톡 털어보니 두 돈 오 푼 남았구나.

⑵ 한편이서는 네 대갈수야 오구일성(五九一星)이로고다. 어렵다. 조장(鳥將)원 맞추기 반(半)씩 하자. 석류 먹든 씨나 그만 있소. 척척 쳐서 섞어 쥐어라. 셕조(夕鳥)는 하공정(下空庭)이로고나. 바닥 둘째 잎을 내소. 어데 갈까? 이 애 하자던 반이나 하자.

또 한편에서는 삼십삼쳔(三十三天) 바로 쳤다. 민둥이를 들이소. 당당홍의(堂堂紅衣) 증초립에 건양재(建陽峴)를 넘는구나. 벌거하다, 이사칠

(二四七) 들이소.

⑴은 판소리 열두마당 중 하나인 '게우사'의 일부인데, 골패하는 장면이고, ⑵는 '춘향전'의 이본인 '남원고사(南原古事)'의 일부로 투전하는 장면이다. 보다시피 알 수 없는 대목이 많다. 나는 이 부분에 각주를 달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어쨌건 도박하는 장면을 한번 본 것으로 만족하자.

도박의 성행과 함께 도박장에는 오늘날 우리가 전문도박꾼 내기 도박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행태가 벌어졌다. 도박에 미치면, 밤이고 낮이고 '본성을 잃어버리고 넋이 나간(失性喪魄)' 채로 봉두난발에다 눈이 시뻘게져서 귀신 꼴이 되는 것(윤기 · 尹愭, '無名子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7)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였다. 도박장을 개설해 돈을 뜯고 사는 인간도 물론 있었다.

"집에 투전(投?)꾼을 모으고 돈을 대주며 이자를 거두거나 또는 '방값(房價)' '기름값(油價)' '밥값(飮食價)' 등의 명목을 두어 생리(生理)로 삼는 자가 있으니, 이는 곧 뚜쟁이와 같은 부류라 내가 입에 올리기도 싫다" (윤기의 無名子集 중).

도박장을 개설하고 고리로 이자를 놓거나 자릿세를 뜯는 자들까지 나왔던 것이다. 다산이 "도박장을 설치하고 노름판을 주관한 자는 형률에는 비록 죄가 같을지라도 이는 원흉이니 그 벌이 마땅히 배가 무거워야 한다"며 가혹한 처벌을 요구한 발언으로도 전문적 도박장의 성황을 알 만하다.

김구 탈옥공작 벌인 투전꾼

사기도박도 있었다. 19세기 말의 자료지만, 김구의 '백범일지'에는 사기도박의 방식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일본인 밀정을 죽이고 투옥된 자신을 빼내기 위해 자기 가산을 쏟아부었던 김주경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인물이 사기도박꾼이었다.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주경은 원래 강화의 아전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도박에 몰두했다. 부모가 그를 징계하려고 곳간에 가두자 투전 한 목을 가지고 들어가 연구(?)에 골몰하여 묘법을 터득해 나왔다. 그 뒤 서울로 올라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한 투전을 몇 만 목 만들어서 강화로 돌아왔다. 친구들을 통해 투전을 판 뒤 투전판마다 뛰어들어 수십만 냥의 거금을 땄다. 이 돈으로 관청 하속배들을 매수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김구의 탈옥공작까지 벌였던 것이다.

자, 전문적인 도박판과 사기도박까지 출현했다면, 도박의 열기와 성황을 짐작할 만하지 않은가? 그러나 도박의 성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손도 대지 않았다.

이제부터 도박을 유행시킨 주체와 도박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던 상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다음 세 자료를 보자.

(1) 혹은 스스로 왈자(曰字)라 일컬으며, 도박장[博場]과 가방[娼肆]에 종적이 두루 미친다. 쓰는 재물은 죄다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것이다 (이규상, '張大將傳' '韓山世稿').

(2) 김양원(金亮元)은 …젊어서 유협(遊俠)이었는데, 계집을 사서 술청에 앉히고 술장수를 하였다. 몸이 살지고 생김이 사나와 기생방과 도박장[賭博]을 돌아다녔지만, 기가 사나와 남들이 업신여기지 못했다(조희룡, '金亮元傳' '壺産外記').

(3) 우리나라는 자고로 협객이 없었다. 왕왕 협객이라 일컫는 사람은 모두 기방에서 떼지어 놀며 칼로 맹세를 하는 옛날의 청릉계(靑陵契 · 미상)와 같은 부류였다. 혹은 가산을 돌아보지 않고 술이나 마시고 마조(馬弔 · 투전)를 일삼는 자들이었다(이옥, '張福善傳' : 李家源 編, '李朝漢文小說選').

위의 자료에서 박장(博場)이란 도박장이고, 또 이것은 주로 기방이나 술집에 개설되었던 것이다(복잡한 설명은 생략). 김홍도의 아들 김양기가 그린 투전 장면을 보자(그림 1).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벌인 투전판이다. 몇 사람은 한창 판을 벌이고, 한 사람은 이불에 기대어 노동(?)에 지친 심신을 가다듬고 있으며, 기생은 술상을 나르고 있다. 이것은 기방에서 벌어진 투전판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전문적 도박과 매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장면, 곧 도박장과 기방의 결합을 초시대적인 현상으로 범연하게 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치노예로서 기생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로서 기방의 존재는 조선전기까지 소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방이 도시민의 유흥공간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조선후기에 와서인 것으로 추정된다(양반은 기방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투전 퍼뜨린 장희빈의 당숙

기방 등에 개설된 도박판이 조선후기 도박 성행의 진원지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다면, 이 도박판의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앞서 인용한 '남원고사'의 도박 장면은 옥에 갇힌 춘향이를 위로차 찾아간 '왈자'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놀이 중 일부이다. '왈자'는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이다. 요즘 말로 하자면 깡패다. 하지만 단순히 깡패와 등치시킬 수는 없다. 왈자는 도박에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부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예술적 취향을 가진 축이기도 하였다. 왈자는 대개 역관을 비롯한 기술직 중인, 서리(胥吏) · 겸인(隶人 · 경아전층 · 京衙前層) · 액노(掖隷 별감 · 別監) · 시전상인(市廛商人) 등 중간계급이 주축을 이룬다. 조선후기에 와서 얼마간의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시정에 소비적, 유흥적 공간이 형성되었던 바, 이 소비적 유흥적 시정공간을 장악한 것이 중간계급으로 구성되는 왈자였던 것이다.

왜 중간계급이 유흥계와 도박판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인가? 앞서 투전을 수입했던 인물 장현(張炫)을 예로 들어보자. 장현은 인동장씨(仁同張氏)인데, 인동장씨는 역관가문으로 유명한 집안이다. 장현 역시 역관으로서 대단한 치부를 했던 사람이다(또 장희빈의 당숙인 관계로 한때 상당한 권세를 누렸다).

중인 장현이 투전을 퍼뜨렸다는 사실은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인들은 조선시대 최고의 사회적 가치인 고급관료로 진출하는 길이 봉쇄되어 있었다. 물론 이것은 중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양반을 제외한 사회구성원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중인들의 경우 양반에 필적하는, 때로는 양반을 능가하는 경제력과 문화적 역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갈등의 강도가 훨씬 강렬했던 것이다. 이들의 경제적(그리고 지적 문화적) 에너지는 정치적 출구를 찾지 못하고, 다분히 소비적인 데로 흐르게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문학 · 예술과 같은 생산적 방면으로 전이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도박처럼 낭비적인 데로 쏠리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을 19세기의 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른바 중인의 자제들은 독서를 전폐하고 방탕만을 일삼아 투전을 문장으로 알고 주색(酒色)을 승사(勝事)로 삼아 사람 모양을 갖춘 자가 거의 없다"('象院科榜' 수록 中人通淸運動 資料, '韓國學報' 45).

중인에 의해 수입되고 중간계급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투전이 시정공간의 오락에 머물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투전의 가공할 위력은 수입된 지 100년이 채 못되어 양반층까지 전면적으로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박지원(朴趾源)의 경우를 들어보자. '열하일기'에 연암(燕巖)이 밤에 역관(譯官) · 비장배(裨將輩)와 투전판을 벌여 돈을 따고 득의연하는 장면이 있다. 양반 명문가의 자손인 연암(반남박씨는 삼한갑족三韓甲族에 든다)이 투전이라니?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한 것인가?

양반사회에서 투전의 유행은 놀라울 정도였다. 다산은 앞서 인용했던 '목민심서'에서 "재상 · 명사들과 승지 및 옥당 관원들도 이것으로 소일하니 다른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소나 돼지 치는 자들의 놀이가 조정에까지 밀려 올라왔으니 역시 한심한 일이다"고 한탄한 바 있다.

시시콜콜 따지는 것이 우스꽝스럽지만 그래도 참고용으로 들어 보자. 재상이란 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 등 정승급 최고위 관료를 지칭한다.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나, 홍문관(弘文館 · 玉堂) 관원 등은 조선시대 관직체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관직으로 치는 청직 중의 청직이다.

이들이 도박에 골몰했다는 것은, 양반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 기대, 즉 양반을 유가(儒家)의 이데올로기에 의식화된, 그리고 금욕적 자기절제가 생활화된 인간이라는 생각에 반한다. 따라서 다산의 말은 사소한 일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다산 특유의 버릇 때문이 아닌가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전해지는 여러 자료들은 다산의 말이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증언한다. 앞서 인용했던 윤기의 말을 조금 더 인용해 보자.

투전계 최고수 원인손

"세속의 이른바 투전(投?)이란 것은 으뜸가는 패가망신(敗家亡身)의 물건이다. 그 해(害)는 주색(酒色)보다 심하므로 내가 이미 누차 언급한 바 있다. 위로는 부귀한 집안에서부터 아래로는 여대하천(輿?下賤)에 이르기까지 탐혹(貪惑)하지 않음이 없고 또 묘당(廟堂)에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와 경악(經幄 · 경연 經筵)에 출입하는 자들도 모두 풍속을 이루어 심지어 투전을 하지 않으면 행세할 수 없다는 말까지 할 정도이니, 심하도다! 속습(俗習)의 쉽게 물들고 이해하기 어려움이여, 그 폐단은 반드시 도적이 되고난 뒤에야 그칠 것이다."

묘당에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와 경악에 출입하는 자는 다산이 말한바 재상 · 명사와 승지 · 옥당관이다. 이 자료에서 보듯 양반사회의 최상층부까지 투전에 전염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볼 필요가 있겠다. 원인손의 경우다. 원인손의 아버지는 원경하(元景霞 · 1698~1761)로 병조판서 · 이조판서를 지낸 인물이다. 더욱이 원경하는 효종의 딸인 경숙옹주(敬淑甕主)의 손자다. 원경하의 아들 원인손(1721~1774) 역시 이조판서 · 우의정에까지 올라 양반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극한에 이르렀으니 원경하 가문은 명문 중의 명문이라 하겠다. 투전의 고수를 '타자(打子)'라고 하는데, 바로 이 원인손이란 인물이 18세기 투전계 최고의 타자였다.

원인손의 실력은 어느 정도였는가? 전설에 의하면 그는 투전목 80장을 한번 보면 섞어 뒤집어 놓아도 이면의 그림을 다 알아맞혔다고 한다.

아버지 원경하가 투전을 못하도록 후당에 가두자 원인손은 투전꾼을 불러모아 병풍으로 사면을 가리고 촛불을 켜서 투전에 골몰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투전패를 모두 읽어내는 그 탁월한 기량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던 원경하가 "이것은 하늘이 낸 재주이며, 귀신의 지혜다.(此乃天生也, 神智也)"라고 탄식하고 다시는 금하지 않았다고 한다.(李遇駿, '夢遊野談' 寶庫社)
투전의 유행은 양반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였다. 특히 과거준비와 학문에 열중해야 할 양반가의 자제들이 투전에 골몰한다는 것은 예사 문제가 아니었다. 18세기 산문작가이자 관료였던 유한준(兪漢雋 · 유길준의 5대조)은 자신의 친구(실명은 미상)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다.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잡기"

"잡기(雜技)의 경우 주색(酒色)에 비해 더욱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天下)에 없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주색입니다. 천하에 끝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있어 온갖 해를 만들어 내며, 없어도 하나 손해될 것이 없는 것은 잡기입니다.…그러므로 이것을 하는 자는 모두 여항(閭巷) 시정(市井)의 악소년(惡少年)으로서 난잡하고 부랑한 무뢰배(無賴輩)들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무리를 불러 모으고 한데 어울려 도박판을 벌이다가 먼데 귀양을 가기도 하여…크게는 집안을

망치고 작게는 자신을 망칩니다.

비록 그 일은 다르지만 끝내는 주색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몸가짐을 단속하는 선비들이 미워하여 피하는 바이며, 스스로를 수양하는 사람들이 피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족하(足下)는 깨닫지 못하고 용감하게 하여 거두지 아니하며, 즐거워하면서 돌아올 줄 모르니, 이런 까닭으로 친구로 사귀는 자들이 모두 글을 하지도 않고 무예를 닦는 사람도 아니고 농사꾼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닌 천지간에 이른바 어리석고 도깨비 같은 무리들이며, 함께 어울리는 자들도 모두 이상하고 잡되며 어리석고 패역(悖逆)한 부류들입니다" (유한준, 與或人書, '自著集').

편지의 수신자는 물론 양반이며, 그것도 지체 상당한 양반으로 짐작된다. 양반사회 내에서 도박의 유행은 실로 양반가의 자제를 시정잡배와 다름없이 타락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투전은 양반사회 내에 깊숙이 침투해 하나의 생활이 되었다. 18세기의 풍속지인 유만공(柳晩恭)의 '세시풍요(歲時風謠)'는 양반가에서 투전이 성행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자리에 둘러앉아 투전 쪽을 어지럽게 던지노니 / 어(魚) · 조(鳥) · 장(?) · 성(星)이 노(老) · 소(少)로 나뉘었다. / 자제(子弟)들 삼동(三冬)이면 무엇을 읽는가 / 세시(歲時)면 팔대가(八大家)를 숙제로 권하네.

紙牌圍席擲紛分, 魚鳥?星老少分.
子弟三冬何所讀, 歲時勤課八大家.
(지패紙牌를 八大家라 한다-원주).

팔대가(八大家)란 명나라 모곤(茅坤)이 엮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을 말하는 것으로, 17세기 이후 산문학습의 주 텍스트였다. 투전을 '팔대가'라 한 것은 투전목이 80장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화투치는 것을 '진도 나간다'고 하거나, 고상하게 '동양화 감상'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모와 종족의 걱정거리"

조선사회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투전은 이제 거대한 사회문제, 곧 병리적 현상으로 부각되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의하면, 투전은 "마음을 망가뜨리고 재산을 탕진하여 부모와 종족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었으며, "아전이 포흠(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소비하는 것)을 지고 군교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의 빌미가 되었다.

지방관들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동헌에 앉아 저리(邸吏)나 책객(冊客)들과 투전 · 골패에 골몰했다고 한다. "종손(이란) 핑계(로) 위답(을) 팔아 투전질을 생애로"(가사 '愚夫歌') 삼는 자가 속출했다. 윤기는 앞서 인용했던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대개 공채(公債) · 사채(私債)를 혹 갚지 못하는 자는 욕설과 독촉을 함께 받아 옥에 갇히고 곤장을 맞는 지경에 이르러도 오히려 견디어 나갈 수가 있지만, 투전빚은 갚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혹 갚지 못하는 경우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어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남을 속여 빚을 내야 한다. 그래도 또 부족하면 집안사람을 속이고 집안의 물건을 훔쳐 내며, 그래도 또 부족하면 남의 집을 터는 짓을 하게 되니, 이것이 반드시 도적이 되고 마는 까닭인 것이다."

투전빚은 얼마나 잔혹했던 것일까? 투전빚은 잊혀지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야차처럼 끝까지 사람을 따라다니며 개인과 가문을 결딴내었다. 도박의 유행에 대해서 금령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삼법부(三法司 형조 · 한성부 · 사헌부)에서는 도박장을 개설하는 자는 중벌에 처하게 되어 있었으나(그림2), 거리의 점포에서는 투전 · 쌍륙 등 도박 도구가 일상용품으로 공공연히 팔리고 있었다.

투전의 유행은 급기야 어전(御前)에서까지 거론되었다. 정조 15년 9월19일 신기경(愼基慶)은 도박의 피해 중에서 투전을 으뜸으로 꼽으며, "위로는 사대부의 자제들로부터 아래로는 항간의 서민들까지 집과 토지를 팔고 재산을 털어 바치며 끝내는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게 되고 도적 마음이 점차 자라게 됩니다" 하고, 투전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자도 엄히 금지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로 투전의 유행을 금할 수는 없었다. '포도청등록' 을 보면 도박에 관한 기사가 적지 않은데, 1860년 투전의 갑자골 · 가귀에 대한 금령이 내려진 이후, 1863년 · 1864년 · 1865년 등 해마다 금령이 반복되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이후 투전은 19세기 말 화투가 수입될 때까지 도박계의 패권을 차지하였으며, 화투 수입 뒤에도 화투의 놀음방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영향력은 지금도 미약하나마 '족보' 와 '땡' 에 남아 있다.

하필이면 조선후기에 이처럼 도박이 성행했던 것일까. 도박의 성행 역시 사회현상인 바 그것은 조선후기 사회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는 조선후기 경제성장. 이미 식상할 정도로 지적된 조선후기 화폐의 통용, 상업의 발달, 그리고 농업생산량의 증가 등은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은 소비생활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다. 도박의 성행은 이러한 소비수준의 향상에 근거한 것이다.

경제발달은 소비의 증가를 초래했는데 도박 역시 소비의 하나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앞서 시정공간에서 주로 중간계급 중심으로 도박이 성행하였다고 한 바 있는데, 이들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소비하는 인간의 등장

조선후기의 경제발전은 직접적으로는 상업 관련자(상인, 역관)와 또 이와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중간계급에 부를 축적할 기회를 제공했는데, 이것은 이른바 상업자본 등으로 재투자되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소비 수준을 높이게 되었다.

전자는 이미 상식이 되었으니 여기서는 후자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소비란 주로 조선후기 관찬사료에서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음식 · 거주(건물) · 복식 등의 사치가 되겠지만, 꼭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서화 골동 등 예술품의 수장(특히 북경에서 수입), 오가 서적의 집적, 그리고 음악 등에 대한 애호는 모두 조선후기 소비수준의 증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도박 역시 이러한 소비적 풍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중간계급에 새로운 인간형이 출현하는데, 그것은 생산하는 인간이 아니라 '소비하는 인간' 이다. 줄여서 '소비인간' 이라 할 수 있는 이 인간형은 18, 19세기 문학이 비상하게 주목했던 바다(이제까지 역사와 문학사 연구가 생산하는 인간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소비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림 2) 조선후기 화가 김윤보의 ‘형정도첩’ 가운데 ‘도박꾼 체포’ 장면. 도박에 몰두한 사내들과 이들의 범죄현장을 덮치는 포도청 나졸들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겨 있다.

⑴ 이 잡자식이 돈만 없으면 사람될 짓 초를 잡다가도 돈 곳 보면 도로 미쳐 일일장취 농창치며 안팎 사랑 친구 벗님 출일상종 못난이와 잡기 노름하는 분네 열냥내기 대강치기, 닷냥내기 수투전에 백냥내기 쌍륙치기, 가구놀음 순부동을 주야로 일삼으니, 사천 냥 넘는 돈을 사흘만에 다 없애니 세상의 이런 잡놈 산화로 난 놈인가, 실성발광 미쳤는가.

⑵ 춘풍이 오입하며 하는 일마다 방탕하고, 세전지물 누만금을 남용하여 없이할 제, 남북촌 오입쟁이와 한가지로 휩쓸려 다니며 호강하며 주야로 노닐 적에, 모화관 활쏘기와 장악원 풍류하기, 산영에 바둑두기, 장기 · 골패 · 쌍륙 · 수투전 · 육자배기 · 사시랑이 · 동동이 · 엿방망이 하기와, 아이보면 돈주기와, 어른 보면 술대접하여, 고운 양자 맑은 소리, 맛좋은 일면주며 벙거짓골 열구지탕 너비할미 갈비찜에 일일장취 노닐 적에, 청루미색 달려들어 수천 금을 시각에 없이하니, 천하 부자 석숭인들 그 무엇이 남을손가.

⑴은 앞서 들었던 ‘게우사’ 의 한 부분이고, ⑵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이춘풍전’ 의 일부다. 이 소설의 주인공 ‘무숙이’ 와 ‘이춘풍’ 은 상인 내지는 신흥중간층으로 모두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두 소설의 내용인즉, ‘무숙이’ 와 ‘이춘풍’ 이 축적한 재산을 끊임없이 소비하다가 마침내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이들과 도박의 관계가 짐작이 가는가.

화폐의 유통 역시 도박의 성행에 큰 몫을 하였다. 화폐는 도박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질적 가치를 단일한 단위로 환원하였는데, 이것은 도박의 실행(?)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편리를 제공하였다. 다른 예를 들자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화투가 거대한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성행했던 데에는 금속화폐보다 액면가가 높은 지폐의 유통이 일조를 했다고 한다.

“주색잡기는 남아의 상사”

도박의 성행은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부의 축적, 화폐의 유통 등이 일차적 원인이겠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경제적 후진국에서도 도박은 얼마든지 유행할 수 있으며, 또 사실이 그렇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도박을 화폐경제의 발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요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박은 불확실성을 원리로 하여 작동되는 게임이라고 했다. 생각할 수 있는 몇몇 변수로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도박의 성행은 사회 자체의 불확실성과 놀라울 정도의 상동성을 갖는다. 가사 ‘우부가’ 를 인용한다.

사람마다 도적이오 원(怨)하나니 산소(山所)로다 / 천장(遷葬)이나 하여 보며 이사나 하여 볼까? / …… / 주제넘게 아는 체로, 음양술수(陰陽術數) 탐호(貪好)하여 / 당대발복(當代發福) 구산(求山) 하기 피란(避亂)곳 찾어가며 / 올적 갈적 행로상(行路上)에 처자식을 흩어놓고

'우부가' 주인공의 삶은 불안하다. 사람마다 '도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피란곳'을 찾아다니며 '올적 갈적 행로상에 처자식을 흩어 놓고', 이 일에 가산을 소모한다. 이들의 행태는 앞날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조선후기 사회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피란곳'이란 무엇인가? 멀리 임병양란을 들 것도 없이 18세기 이후의 잦은 정변(政變)과 이인좌(李麟佐)의 난(亂)과 같은 봉건권력층 내부 반란, 그리고 장길산(張吉山)으로 대표되는 군도(群盜)의 횡행, 전에 없던 전염병(장티푸스, 콜레라)의 유행, 과도한 수탈,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민중저항(民亂), 홍경래(洪景來)의 난, 이양선(異樣船)의 출몰, 유언비어의 유포, '정감록(鄭鑑錄)'과 같은 비기류(祕記類)의 유행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으며 풍수론(風水論)은 사회의 혼란으로부터 도피할 곳을 찾게 하였으니 '피란곳'은 바로 그런 곳을 일컫는다. 사회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개인의 삶을 전혀 예측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과연 도박과 상동적 관계에 있는가? 도박에 골몰했던 이춘풍의 말을 들어보자. 이춘풍은 도박에 골몰하는 자신을 나무라는 아내에게 이렇게 답한다.
"자네 내 말 들어보소. 사환 대실이는 술 한잔을 못 먹어도 돈 한푼을 못 모으고, 이각동이는 오십이 다 되도록 주색을 몰랐어도 남의 집 사환을 못 면하고, 탑골 북동이는 투전·골패 몰랐어도 수천 금을 다 없애고 굶어 죽었으니, 일로 볼작시면 주색잡기 하다가도 못 사는 이 별로 없네. 자네 차차 내 말 잠깐 들어보소. 술 잘먹는 이태백도 노자작(劉伶酌)·앵무배(鸚鵡盃)로 백년 삼만 육천일 일일수경삼백배(一日須傾三百杯)에 매일 장취하였어도 한림학사(翰林學士) 다 지내고, 자골전 일손이는 주색 잡기 하였어도 나중에 잘 되어서 일품 벼슬 하였으니, 일로 볼지라도 주색잡기 좋아하기 남아의 상사(常事)로다. 나도 이리 노닐다가 일품 벼슬하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리라."

이춘풍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예측불가능하다. 이춘풍은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인과적 필연성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다. a란 조건에 대해 A란 결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현상에 적용된 도박의 원리

이춘풍의 발언은 반사회적이고 가치전도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이 살고있는 사회의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춘풍의 사고는 도박의 불확실성이란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런 사고가 이춘풍만의 것인가. 한 예를 더 들어보자. 19세기 문인인 최태동(崔泰東·1844~1877)은 '주·색·잡기(도박)'에 대한 세 가지 물음이란 뜻의 '삼문(三問)'이란 흥미로운 글을 남겼다. 그 중 도박에 관한 부분에서(이 작품은 도박꾼과 작자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도박꾼은 중국 역대의 탁월한 문인들이 그들의 빼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음을 상기시키고 각고의 노력으로 문학을 전공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니, 남들이 기한에 떨 때 비단옷과 고량진미를 먹을 수 있으며 배우기에도 아주 쉬운 이 기술(도박, 곧 투전)을 배우라고 권한다.

이 권고에 대해 작자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도박의 일반적 폐해를 들어 반박하지만, 그것은 도박의 폐해이지 애초 제기되었던 물음, 재능있는 인간들이 왜 사회적으로 좌절·실패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다.

예컨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절대적 가치인 관료로서의 출세는 과거라는 합리적 방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과거는 이미 체제가 약속한 프로그램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최태동의 답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정비례하지 않는, 사회적 성취란 부등식에 대한 답은 아니다. 그의 답은 도박꾼을 설득할 수 없다. 이춘풍 등의 세계관은 불확실성에 운명을 맡기는 도박의 세계관이며, 이 불확실성에 대한 신념은 조선후기 사회의 불확실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나는 도박의 원리인 불확실성은 조선후기 사회의 불확실성과 상동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두 불확실성의 접점을 세계관과 의식의 차원에서 찾았을 뿐 구체적인 사회현상을 들어 지적한 것은 아니다. 도박도 일종의 경제활동이니 내친 김에 경제적 현상에서 도박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었는가를 보기로 하자. 다시 '우부가'를 참고한다.

기인취물(欺人取物)하자 하니, 일갓집에 부자(富者) 없고 / 뜬 재물 경영(經營)하고 경향(京鄕)없이 싸다니며, / …… / 부자나 후려볼까? 감언이설(甘言利說) 꾀어보세. / 언(堰)막이며 보(洑)막이며, 은(銀)점이며 금(金)점이며

'우부가'의 '개똥이' 등은 재산을 다 날리자 '언(堰)막이' '보(洑)막이' '금점' '은점'으로 부자에게 사기를 치기로 한다. 이것은 과연 어느 정도 당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을까? '언막이' '보막이'부터 살펴보자. 앞서 인용했던 윤기의 글을 다시 인용한다.

"이(利)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제언(堤堰)을 쌓아 논을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 하며, '아무 곳에 공지(空地)가 있어 보(洑)를 만들 만한데, 만약 몇백민(緡 · 돈꿰미)만 들이면 몇 만석 추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면 참으로 이(利)가 있는 까닭에 돈이 있는 자는 다소를 가리지 않고 스스로 물주(物主)가 되며, 빚을 놓은 사람은 그 감언이설에 넘어가 토지를 팔곤 한다."

수리가 용이한 공한지에 제언을 쌓아 논으로 만드는 것이 '언막이' '보막이'인 바, 그 이면에는 "몇백민(緡)만 들이면 몇만석 추수를 얻을 수 있다"는 소액 투자에 최대한의 다액 보상이란 도박의 원리가 작동한다.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더러 오르는 '봉이 김선달 이야기'에서 김선달이 대동강 얼음 위에 짚을 썰어 두고 논처럼 보이게 하여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유포된 것이다.

은광 개발 열기도 일어

'금점(金店)' '은점(銀店)'은 금광 · 은광의 개발로 한몫 보려는 것이다. 금점 · 은점, 곧 금광 · 은광은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됐다. 은은 북경 무역의 주 결제수단이었는데, 일본과의 무역에서 받은 멕시코 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18세기 초반부터 일본이 중국과 직교역을 함으로써 중개무역이 위축되고 일본으로부터의 은 유입량이 격감하자 국내 은광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금광 · 은광의 개발은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이어서 불법채광인 잠채(潛採)가 유행했다. 조선후기에 금광 은광의 개발과 언막이 보막이가 대대적으로 성행했음은 남공철의 "세상에서 부랑(浮浪)한 파가(破家)의 자제라고 일컫는 자들은 늘 '광산을 개발하고 제언을 쌓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울려 애를 쓰며 종사하는 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는 말에서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南公轍, 同知中樞府事安君墓誌, '金陵集' 3, 國學資料院 1992).

이제 정말 이에 종사했던 인물을 예로 들어보자. 남공철이 쓴 '동지중추부사안군묘지(同知中樞府事安君墓誌)'의 주인공 안명관(安明觀)이 그 적실한 예가 됨직하다. 이 묘지(墓誌)는, 묘지란 장르가 일반적으로 대상인물을 미화하는 것과는 반대로 대상인물의 타락과 몰락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흥미롭다.

타락과 몰락 그린 묘비

"(안명관은) 사람됨이 호탕하고 시여(施與)를 좋아하였으며, 남을 자기처럼 믿었다. 복식(服飾)과 안마(鞍馬 · 안장을 얹은 말)를 호사스럽게 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 이 때문에 가산이 거듭 줄어들었다."

안명관은 이춘풍이나 무숙이와 마찬가지로 호기와 사치로 재산을 소모한다. 이 묘지는 서두의 짤막한 도입부를 제외하고는 안명관의 두 가지 행각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행각이란 다름아닌 은광개발과 '언(堰)막이'다.

안명관은 남의 말을 듣고 '가옥 1구(區)' 와 '전지(田地) 이백경(頃)' 을 팔아 수천금을 마련해 은광개발에 뛰어든다. 그러나 아무리 갱을 깊이 파도 은은 나오지 않았고, 약간 나온 은도 순도가 낮아 파산하고 만다. 그는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그 뒤 안명관은 강원도 인제현(麟蹄縣)의 침수지에 제언(堤堰)을 쌓아 논으로 만들면 오백 두 곡(斛)을 수확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여 화협공주방(和協公主房)의 도도(圖賭)와 호조(戶曹)에서 빚을 내 언막이에 뛰어들지만, 부근 묘지를 침수시킨다는 고발로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쌓았던 제언도 홍수에 무너져 다시 한번 파산한다.

언막이 등은 그 자체가 도박은 아니다. 그러나 '우부가' 의 주인공과 안명관의 언막이 · 광산개발 등이 사기와 불법으로 점철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성실한 노동과 합리적 경영을 생략하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노리는 도박의 원리에 철저히 의지한 것이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 도박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것이었다. 도박의 원리는 조선후기인들의 의식과 경제활동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인들은 합리성이 아닌 비합리성과 확실성이 아닌 불확실성의 바다에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 인간은 모두 합리성과 확실성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닐까?

우연과 불확실성이 똬리를 튼 세상

지금도 도박은 성행한다. 그러나 체제는 개인적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도박은 '심심풀이' (이것의 한계가 어디인지 의문이다. 돈 많은 인간들은 수억, 수십억 원을 심심풀이로 여길 수 있다)를 넘는 순간 불법이 된다. 왜 도박을 불법화하겠는가? 체제는 도박을 용인하지 않는가?

반대다. 수익이 큰 이 장사를 왜 외면하겠는가? 국가는 오로지 도박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이 허락한 도박 외의 것은 모두 금지한다. 대표적인 것이 복권과 경마다. 고스톱은 금지하지만 복권과 경마는 장려한다. 특히 후자는 '레저' 란 이름으로 권장한다. 복권은 체제에 의해 합법화된 도박의 전형이다.

증권도 권장되는 도박이 아니겠는가? 증권은 자본주의의 꽃이라지만, 실제 핀 꽃은 흉측한 데다 악취를 풍긴다(시세차익을 노려 덤비는 인간들의 추태를 상상해 보라). 체제는 증권 도박을 합법화한다. 증권회사는 도박장이며, 증권회사 직원은 딜러다. 증권의 특징은 아무도, 주가의 등락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등락이 예측가능하다면 증권시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도박이 그렇듯이 증권 역시 자신의 테크닉으로 돈을 딸 수 있다고 믿게 한다. 사기도박이 있듯이 증권에도 불법거래가 성행한다.

지금보다 도박이 성행한 시대는 없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로 나는 도박의 두 가지 원리 중 후자를 들겠다.

도박은 세계에 대한 인간 이해의 한 방식이다. 말하자면 도박은 모든 것은 확실성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의해 지배된다는, 세계에 대한 또다른 이해의 방식이다. 인간의 역사는 비합리에서 합리로, 불확실에서 확실로 진보했던가?

그렇게 믿고 싶을 것이며, 또 그러했다고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의심한다. 왜냐고? 내가 본 세상과 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하다. 세계의 밑바닥에는 우연과 불확실성이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

劍契와 왈자

2013.06.20 13:45

조폭 날뛰고 포주 설쳤다

조선사회에도 사회악은 있었다. 검계(劍契)와 왈자(曰字)로 불리던 문제집단이 그들. 군사조직에 가까운 조직과 규율을 갖췄던 검계, 사실상 기방의 운영자였던 왈자. 이들 때문에 조선은 조용할 날이 없었다.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말한 것은 누구던가? 지금 한국을 홍보하는 말로까지 쓰이는 이 센텐스가 나는 자못 불만스럽다. 조용한 아침이라니, 조용하지 않은 아침도 있는가? 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조용한 아침 운운하는 말이 어딘가 맥빠진 한국 역사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조용한 아침 운운 탓은 아니지만, 역사가들이 그려낸 한국사에서 인간들이 북적대며 살아가는 정경을 상상하기는 실로 어렵다. 어딘가 조용하다. 뭔가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왕실과 사대부에서다. 권력을 두고 죽고 죽였으니 그들의 세계에 얼마나 많은 곡소리가 났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만 늘 TV연속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리라.

역사란 단일한 실체가 아니다. 역사는 묘사하는 바에 따라 달리 그려지기 마련이다. 활기찬 역사를 그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그려질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조선의 깡패에 해당하는 인간 부류를 묘사해 보려고 한다. 양반님네들이 장죽을 물고 느릿느릿 팔자걸음을 걷는 점잖은 조선시대에 웬 깡패인가.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은 시대를 막론하고 비슷하지 않으랴? 먼저 숙종 때의 기록을 보자.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도하(都下)의 무뢰배(無賴輩)가 검계(劍契)를 만들어 사사로이 서로 습진(習陣)합니다. 여리(閭里)가 때문에 더욱 소요하여 장래 대처하기 어려운 걱정이 외구(外寇)보다 심할 듯하니, 포청(捕廳)을 시켜 정탐하여 잡아서 원배(遠配)하거나 효시(梟示)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신여철(申汝哲)에게 명하여 각별히 살펴 잡게 하였다(숙종실록 10년 2월12일).

서울 시내의 무뢰배가 결성한 검계(劍契)가 습진을 하여 서울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니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습진이란 진법을 익히는 훈련이다. 군사훈련인 것이다. 정식 군사가 아닌 무뢰배의 조직이 군사훈련을 하니 일반 시민들이 불안해 할 것은 당연한 이치다. 더욱이 이 시기 민간인이 불안해할 만한 정황이 조성되어 있었다.

도대체 이 기록에 등장하는 문제의 검계란 무엇인가? 검계에 관해서는 이 자료와 연속된 숙종실록의 자료가 셋이 더 있다. 관변의 공식 자료가 아닌 것으로는 '조야회통(朝野會通)'이 있고, 이것이 '연려실기술'에 다시 인용되어 있다. 또 하나는 홍명희가 인용한 '화해휘편(華海彙編)'에 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자해는 조폭문화

좌의정의 보고가 있고 난 뒤 임금의 명으로 포도청에서 검계의 도당을 체포한다. 그 결과를 2월18일 다시 민정중이 보고하는데, 포도청에 갇힌 검계 도당 10여 명 가운데 '가장 패악(悖惡)한 자'는 칼로 살을 깎고 가슴을 베기까지 하는 등 그지없이 흉악한 짓을 한다. 자해는 아마도 조폭문화(?)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데, 예컨대 영화 '투캅스'에서 조서를 받던 깡패가 자해소동을 벌이는 것을 상기해 보라. 민정중은 느슨히 다스릴 경우 그 무리가 불어날 것이고 그 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두머리는 중법(重法)으로 처결하고, 붙좇은 무리는 차등을 두어 처벌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민정중은 2월25일 다시 검계에 대해 보고하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검계는 원래 향도계(香徒契)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향도계란 장례를 치르기 위한 계를 말한다. 장례에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계를 구성하여 평소 얼마간의 금전을 염출하고, 구성원 중에 누가 상을 당했을 경우 평소 염출한 금전에 얼마를 더하여 비용을 마련해 주는 그런 계였을 것이다. 이 계는 원래 한국민의 독특한 풍습인 계와 다를 것이 없다. 민정중의 보고에 의하면 이 계는 서울 시내 백성들, 즉 일반 민중들 것이었으며 사대부가나 궁가에서도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것과 검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민정중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무리를 모을 때에 그 사람이 착하고 악한 것을 묻지 않고 다 거두어 들였으므로, 여느 때에는 형세에 의지하여 폐단을 일으키고 상여를 맬 때에는 소란을 피우면서 다투고 때리며 못하는 짓이 없으며, 또 도가(都家)라 하여 매우 비밀하게 맺어서 망명(亡命)한 자를 불러 모으는 곳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계의 관리조직인 도가 내부에 존재하는 검계다. 도가란 어떤 조직이건 조직의 중추를 이루는 관리 센터를 말한다. 향도계의 도가는 망명하는 자, 곧 죄를 지어 법망을 피하려는 자들을 거두어 숨겨주는 곳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도가 내부의 비밀 조직이 바로 검계였다.

숙종은 한성부(漢城府)에서 향도(香徒)를 뽑아 군정(軍丁)에 채우고 조례를 세워 폐습(弊習)을 고쳐달라고 청하자 그대로 따른다(숙종실록 10년 3월 22일).

이상에서 소개한 것이 유명한 검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정석종 교수에 의해 비상하게 주목받은 바 있다. 즉 민중 저항 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했던 것이다(정석종, '조선후기 사회변동 연구', 일조각).

검계가 민중저항운동?



하지만 나는 검계를 민중 저항과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 그것은 그렇게까지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 자료를 '조야회통'의 자료와 연관지어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자. '조야회통'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갑자년에 왜(倭)의 국서가 온 뒤로 소란이 날로 심해져 동대문으로 나가는 피난민의 가마와 짐이 꼬리를 물었다. 무뢰배들이 모여들어 계를 만드니, 혹은 살략계(殺掠契)라 하고, 혹은 홍동계(?動契)라 하고, 혹은 검계(劍契)라 하였다. 어떤 때는 한밤중에 남산에 올라가 태평소(角)를 불어 마치 군사를 모으는 것같이 하고, 어떤 때는 중흥동(重興洞)에 모여 진법(陣法)을 익히는 것같이도 하였다. 간혹 피난하는 사람을 쫓아가 재물을 빼앗기도 했는데, 어떤 경우 사람의 목숨을 해치기까지 하였다.

② 청파(靑坡) 근처에 또 살주계(殺主契)가 있었는데, 목내선의 종[奴] 또한 가입하였으므로 목내선이 즉시 잡아 죽였다. 좌우 포도청에서 7,8명을 잡아서 살주계의 책자를 얻었는데, 그 약조에 '양반 살육' '부녀자 겁탈' '재물 약탈' 등이 있었다고 한다. 또 그 무리는 모두 창포검(菖蒲劍)을 차고 있었다. 우대장 신여철(申汝哲)은 관대하게 용서한 적이 많고, 좌대장 이인하(李仁夏)는 자못 엄하게 다스렸다. 적당들이 남대문 및 대간(大諫)의 집에 방을 걸었는데, "만약 우리가 모두 죽지 않는다면, 끝내 너희 배에다 칼을 꽂고 말리라"고 하였다.

③ 광주(廣州)에 사는 과부 한 사람이 피난하다가 길에서 적한(賊漢) 일곱 명에게 잡혀 강간을 당했는데, 적당을 잡고 보니, 그중 하나가 과부의 서얼 사촌이었고 검계의 당원이었다.

④ 교하(交河)의 깊은 산골에 시골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한 사람이 "장차 난리가 일어나면 우리도 양반으로 마누라를 삼을 수 있다"고 하자, 숙수(熟手) 개천(開川)이란 자가 큰 소리로 "듣자니 양반의 음문은 아주 좋다는데 이제 얻을 수가 있구나" 하였다. 그 마을의 양반이 이 소리를 듣고, 50대의 볼기를 쳤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광주의 적한과 함께 목을 베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겼다.

⑤ 광주의 적당을 잡아 신문할 때 청탁의 편지가 분분히 날아들자, 과부가 날마다 관문(官門)에 와서 울부짖었다. 적한이 사형되자, 과부도 목을 매어 죽었다.

'반양반' 적인 조직들

먼저 갑자년(1684년 숙종10년) 왜의 국서라는 것부터 간단히 설명해두자. 이 국서는 한 해 전인 1683년 12월 대마도주가 보낸 것인데, 그 내용인즉 명이 청에 망한 뒤 반청(反淸)운동의 잔존세력으로 대만을 근거로 삼고 있던 정금(鄭錦)이 조선을 침입한다는 것이었다. 이 근거없는 말에 조야(朝野)가 발칵 뒤집혔고, 이 난리판에 불만세력들이 준동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의 해독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자료가 어느 한 조직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어떤 조직이 있는가. ①에는 살략계(殺掠契) 홍동계(?動契) 검계(劍契)란 세 가지 명칭이 나온다. 그리고 ②에는 살주계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 '조야회통' 은 적어도 둘 이상의 조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①의 살략계, 홍동계, 검계는 동일한 조직으로 보인다. 습진한다는 것이 숙종실록에도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주계는 살주란 말에서 보듯이 노비가 주인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검계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조직이 왜 같이 취급된 것인가. 이 조직들은 모두 양반 체제를 위협한다는 공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④의 조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백성의 이야기가 끼어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조야회통' 의 필자는 반양반적 조직과 의식이면 구분하지 않고 한 가지로 보았던 것이다.

이런 조직은 원래 그 성격이 비밀스럽다. 역사적인 대사건이 아닌 한 기록에 소상히 남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렇다면 검계는 숙종 때의 소탕으로 소멸된 것인가. 뜻밖에도 검계는 사라지지 않았다. '조야회통' 의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홍명희의 '비밀계' (임형택 · 강영주 편,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 자료', 사계절)에 수록되어 있다.

물론 원자료는 아니고, 이원순(李源順)이란 사람의 '화해휘편' 이란 책을 전재한 것인데, 모두 '조야회통' 과 같고, 다음과 같은 끝부분이 첨가되어 있는 것만 다르다. "검계는 영조 때에 이르러 다시 말썽을 피워 포도대장 장붕익(張鵬翼)이 그들을 다스렸다. 검계의 당은 모두 칼자국이 있는 것으로 자신들을 남과 구별했기에 몸에 칼자국이 있는 자를 모두 잡아 죽이자, 마침내 검계가 사라졌다(劍契至英祖朝猶作梗, 捕將張鵬翼治之, 其黨皆以劍痕爲別, 故凡身有劍痕者, 皆殺之, 遂息)".

영조대에 와서 검계가 다시 소란을 떨었기 때문에 포도대장 장붕익이 일망타진했다는 것이다. 이 자료의 기록자는 숙종의 검계와 영조대의 검계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아쉬운 것이다. 좀더 면밀한 자료 검색이 이루어진다면 혹 모르겠으되, 현재로서는 가망이 없다(향도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른다).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장붕익의 검계 소탕은 매우 잔혹하고 철저했던 것 같다. 장붕익의 일망타진으로 검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이런 비밀조직은 잘라도 없어지지 않는 법이다. 조폭이 어디 한번 소탕으로 사라지던가. 알 카포네의 죽음으로 마피아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순조실록에 검계는 다시 한번 몸체를 슬쩍 드러내고 있다. 순조 3년(8월9일) 사간 이동식(李東埴)은 상소에서 검계를 언급하고 있다.

검계의 끈질긴 생명력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게으르고 법강(法綱)이 해이해졌으며, '검계(劍契)의 이름' 이 나오기에 이르러 풍속이 허물어지고 세도가 무너짐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일종의 무뢰한 무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당(黨)을 이루고, 소와 송아지를 팔아서 검(劍)을 차고 다니며 하늘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돈을 추렴하여 개와 돼지를 잡지 않는 날이 없으며, 약탈하는 것을 가계(家計)로 삼고, 능범(凌犯)하는 것을 장기(長技)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문(朱門)에 횡행(橫行)하여 재상을 꾸짖어 욕보이고, 깊은 규방(閨房)에 돌입하여 부녀자를 때리는 등 분의(分義)를 멸절시키고 기강을 어지럽힘이 거의 여지(餘地)가 없으니 주머니를 털고 상자를 열어 물건을 훔치는 것은 단지 자질구레한 일일 뿐입니다."

이때의 검계도 과거 숙종 때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검계는 영조 때 사라진 듯하다가 되살아났던 것이다.

순조 3년에 검계의 이름이 다시 나온 것은 도하(都下), 곧 서울의 '무뢰배' 들이 떼를 지어 승지 최중규(崔重圭)의 집에 돌입(突入)하여 최중규의 아들과 연로한 부녀(婦女)를 구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순조실록 3년 8월1일). 형조 판서 채홍리(蔡弘履)는 범죄자들을 무겁게 의율(擬律)했어야 하는데도 심상하게 의율하여 파직되었다. 이동식의 상소도 아예 채홍리를 간삭(刊削)하고, 그를 추천했던 이면긍(李勉兢)을 귀양 보낼 것을 청하려고 쓴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검계란 조직이 적어도 숙종 때(1684) 발생하여 순조 때(1803)까지 120년간이란 장구한 시일에 걸쳐 존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순조 때의 검계가 숙종 때 검계의 직접적인 후신인지, 다시 말해 조직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이들이 모종의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알 수 있다.

이들의 소업은 '조야회통' 과 '순조실록' 에서 보듯, 약탈 · 강간 · 살인이다. 이들은 대개 폭력을 행동강령으로 삼는다. 몸에 칼자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칼을 차고 다니며, 칼로 자해를 한다는 것도 모두 폭력 숭상의 징표인 것이다. 이들은 순조 3년의 사건에서 보듯 양반 중심의 사회 자체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다. 극히 반사회적 반체제적 속성을 가진 조직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폭력이 정석종 등이 말하는 바와 같이 뚜렷한 반봉건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폭력성이 증식될 경우 결과적으로 봉건체제에 위협은 되겠지만, 뚜렷한 이념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검계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히 해보자. 영조 때 포도대장으로 유명했던 장붕익의 전기 '장대장전(張大將傳)' 에 검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맑은날엔 나막신, 궂은날엔 가죽신

"서울에는 오래 전부터 무뢰배들이 모인 것을 '검계'라 하였다. '계'란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모인 것을 이르는 말이다.

검계 사람은 옷을 벗어 몸에 칼을 찬 흔적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낮에는 낮잠을 자고 밤에는 나돌아다니는데, 안에는 비단옷을 받쳐 입고 겉에는 낡은 옷을 입는다. 맑은 날에는 나막신을 신고 궂은 날에는 가죽신을 신는다. 삿갓 위에는 구멍을 뚫고 삿갓을 내려 쓴 뒤, 그 구멍으로 사람을 내다본다. 혹은 스스로 칭하기를 '왈자'라고 하며, 도박장과 창가(娼家)에 종적이 두루 미친다. 쓰는 재물은 전부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것이다. 양가 부녀자들이 겁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개가 호가(豪家)의 자식들이어서 오랫동안 제압할 수가 없었다. 장대장이 포도대장으로 있으면서 검계 사람을 완전히 잡아 없애고 발뒤꿈치를 뽑아 조리를 돌렸다."(이규상, 張大將傳 중 '一夢集')

유난스럽지 않은가. 낮에는 자고 밤에 돌아다니고, 안에는 비단옷을 입고 겉에는 낡은 옷을 입으며, 맑은 날에는 나막신을, 궂은 날에는 가죽신을 신는다니, 일상적 행위를 철저히 뒤집는 것이다. 일견 저항의식의 소산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희한한 존재인 것이다.

검계 킬러 장붕익

위의 인용문은 18세기의 문인인 이규상이 쓴 '장대장전'의 일부다. 장붕익은 앞서 '화해휘편'의 영조 때 포도대장으로 검계를 소탕했다는 바로 그 인물이다. 장붕익은 1725~35년 사이에 포도대장을 지냈다. 포도청에 관한 자료로는 '포도청등록'이 있지만, 남아 있는 문헌들은 대개 19세기 것이고, 18세기 초반 것은 없다. 따라서 이 자료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조대의 유일한 검계 자료일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검계는 약 50년 뒤까지 그대로 존속했다. 이것은 아마도 검계 자체가 비밀 조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검계는 매우 비밀스런 조직인데, '장대장전'의 작자 이규상은 검계의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이규상은 물론 양반이며, 그것도 명문 중의 명문인 한산 이씨다.

이규상은 이 이야기의 소스를 밝히고 있다. 즉 검계의 구성원이었던 표철주(表鐵柱)가 그 정보원이다. 이규상이 만난 표철주는 '집주름'이었다. 집주름이란 요즘의 부동산중개업자다. 이규상이 표철주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 70여 세였으며, 귀가 먹고 이도 빠지고 등이 굽은 늙은이로 쇠로 만든 삽을 지팡이 삼아 짚고 다니는 초라한 몰골이었다. 철주란 이름 역시 쇠삽을 짚고 다녀서 붙은 것일 터다.

일흔이 넘은 표철주는 초라한 노인이지만, 소싯적에는 "용감하고 날래며 사람을 잘 쳤으며, 날마다 기생을 끼고 몇 말의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영조가 임금이 되기 전 동궁에 있을 때 호위하던 세자궁의 별감(別監)이었다. 늘 황금색 바지를 있었는데, 비가 와서 옷이 젖으면 새 바지로 갈아입을 정도로 깔끔하고 사치스런 사람이기도 하였다.

이규상이 표철주를 만났을 때 그의 미간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사납고 불평스런 기색이 있었다. 이규상이 표철주에게 물었다.

"너는 마치 미친 사람 같구나. 평생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표철주가 한참 귀기울이고 주름진 입술을 달달 떨더니 몸을 뒤집고 철삽을 세우며 말했다.

"장사또가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

또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죽지 않는 것은 장사또를 지하에서 만나기 싫어서지."

또 검계 사람들의 일을 상세히 전해주며

"적잖은 호한들을 장사또가 죄다 죽여버렸지."

표철주가 공포에 떠는 장사또는 다름아닌 장붕익이다. 이야기로 보아 표철주는 한참 외지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어쨌거나 장붕익이 포도대장으로 있을 때 검계의 인물을 잡아 죽인 일이 검계 구성원에게는 일대 공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편하게 말해 장붕익은 조폭을 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소탕해버렸던 것이다.

머리를 기른 중

검계에 관한 모든 정보는 여기서 끝난다. 그럼 이야기는 끝인가. 이규상은 검계에 대해 더 언급할 수 있는 중요한 여지를 남겨 두었다. 위의 인용문에 검계 구성원이 자신들을 '왈자(曰字)'라고 칭했다는 부분에 주목하자.

별 소용은 없겠지만, 왈자를 사전에서 찾아보자. 한글학회에서 펴낸 '우리말 큰사전'은 왈자를 '왈짜'라 쓰고, "①왈패 ②미끈하게 잘 생기고 여자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왈패" 항에서는 "말이나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고 수선스러운 사람. 흔히 여자에게 대하여 쓴다"라 정의하고 있다. ①의 정의는 주로 여자에게 한정되는 것이니,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②는 확실한가? 이건 오입쟁이에 한정된 것이다. 별 도움이 안되기는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왈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연암 박지원은 '발승암기(髮僧菴記)'라는 글에서 '왈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발승암'이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호다. 김홍연(金弘淵)이란 사람의 호가 발승암이고, 여기에 대해 그가 기(記)를 지어준 것이다. 재미있지 않은가? '머리를 기른 중'이라니.

김홍연은 기사(騎射)에 능해 무과에 급제한 인물이다. 힘은 능히 손으로 범을 잡고 기생 둘을 끼고 몇 장의 담을 넘으며, 녹록하게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집안이 본래 부유하여 재물을 분토(糞土)처럼 쓰고 고금의 법서(法書)와 명화, 금검(琴劍) 이기(彝器) 기화이훼(奇花異卉)를 모으되, 천금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언제나 준마와 명응(名鷹)을 좌우에 두었다.

어떤가. 재물을 분토처럼 쓰며 기방에 드나들고, 힘이 장사인 인간이다. 거기다 예술취향까지 있다. 김홍연은 개성 사람이다. 한말의 문장가 창강 김택영도 개성 사람이다. 조선시대에 개성 사람은 망국의 유민이라 출세를 할 수 없었다. 김택영 역시 이런 연고로 문한(文翰)에 탁월한데도 출세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개성인으로서 자의식이 매우 강했기에 개성 사람 중에 이름을 전할 만한 인물들을 골라 '숭양기구전'이란 전기집을 엮었다. 여기에 김홍연이 나오는 것이다.

김홍연의 집안은 부자로 묘사돼 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서적과 고서화를 많이 사주며 유업(儒業)을 권했다. 아버지는 아마도 부유한 상인이었을 터이고, 그게 한이 되어 자식에게 과거 공부를 권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홍연은 학업을 팽개친다. 이유는 과거에 골몰한다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무과로 옮긴다. 무예가 탁월했음에도 무과를 포기한다. 말인즉 "시골구석에서 무과에 급제한들 대장군의 인끈을 찰 수 있으랴"라고 하였으니, 개성 출신이라는 것이 출세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리라. 그는 천하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름을 남겨 놓는다. 조선의 차별적 체제가 낳은 불우한 인물인 것이다.

차별이 낳은 반항아들

연암은 김홍연을 '활자(闊者)'라 부르고, 활자에 대해서 다시 "대개 시정간에 낭탕우활(浪蕩迂闊)한 자의 칭호로 이른바 협사 검객의 부류와 같은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낭탕우활하다는 말에는 방탕하고 어리석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생업을 돌보지 않고 낭비벽이 심한 성격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왈자와 검계의 관계를 한번 더 따져보자. 김홍연의 경우, 분명히 기존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검계의 구성원처럼 반사회적 인물로 볼 수는 없다. 뒤에 소상히 언급하겠지만, 왈자의 활동공간과 검계의 활동공간은 일치한다. 즉 이규상의 '장대장전'에서 검계가 자신들을 '왈자'라고 칭하며, "도박장과 창가(娼家)에 종적이 두루 미친다"고 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 즉 검계나 왈자나 모두 도박장이나 기방, 술집 등 도시의 유흥공간을 주무대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은 김홍연의 경우 기생을 끼고 담장을 넘었다는 기록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왈자와 검계는 상호 완전히 일치하는 것인가?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표철주를 불러오자. 표철주는 연암 박지원의 글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 연암은 18세기 서울 시정의 거지 출신으로 상가에서 신용을 쌓아 신의 있는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던 '광문(廣文)' 이야기를 전으로 쓴다. '광문자전(廣文者傳)'이 그것이다.

표철주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광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광문 이야기는 한시(漢詩)로, 전(傳)으로 변형되어 기록에 남아 있다. 이름을 '달문(達文)'이라고 쓴 곳도 있다. 거지였던 광문은 나이가 들자 약국 점원이 된다. 하루는 약국 주인이 자신의 돈궤를 바라보다 또 광문을 쏘아보다 하며 무슨 말을 할듯말듯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눈치를 준 것이 여러 날이었다. 광문은 영문을 몰라 묵묵히 앉아 있을 뿐 그만두겠노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주인의 조카가 돈꾸러미를 가지고 찾아왔다.

"지난번에 돈을 꾸러 왔다가 안 계시기에, 제가 방에 들어가서 그냥 가져갔지요."

주인은 이 말을 듣고 광문에게 사과를 했다.

"내가 소인일세, 점잖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자넬 볼 면목이 없네."

주인은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친구와 거래하는 부자, 상인들에게 칭찬했다. 이로 인해 광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광문은 신용 있는 사람이라, 대금업자들도 광문이 보증을 서면 패물이나 가옥 따위의 저당물이 없어도 쾌히 돈을 빌려 주었다.

광문은 서울의 기생가에서도 이름난 사나이였다. 서울의 명기(名妓)로 제아무리 미색이라도 광문이 이름을 내주지 않으면 한푼의 값도 없었다. 밀양 출신 기생으로 검무를 잘 추었던 명기 운심(雲心)이도 내로라하는 오입쟁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로지 광문의 장단에 춤을 추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광문이 어느 날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하옥된다. 물론 무고였기에 다시 풀려난다. 광문이 풀려난 다음 이야기 역시 연암의 붓끝으로 그려지는데, 이것이 '광문자전' 끝에 붙인 '서광문전후'이다. 여기에 표철주가 등장한다.

광문이 옥에서 놓여 나오자 노소 없이 구경을 나가 서울의 저자가 여러 날 텅 빌 지경이었다.
광문이 표철주를 보고 말했다.

"네가 사람 잘 때리던 표망동이 아니냐. 이제는 늙어서 별수 없구나."

망동은 표철주의 별호였다. 이어서 근황을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했다. 광문이 묻는다.

"영성군과 풍원군은 무양하시냐?"

"이미 다 돌아가셨단다."

"김군경이는 지금 무슨 구실을 다니느냐?"

"용호영의 장교로 다니지."

"그 녀석 미남자였거든. 몸은 좀 뚱뚱했지만 기생을 끼고 담장을 뛰어넘고 돈쓰기를 똥과 흙처럼 했지. 이제 귀한 사람이 되어서 만나볼 수도 없겠구나."

광문이 옥에서 나와 맨처음 이야기를 건넨 사람은 표망동이다. 이어 두 사람은 공히 아는 사람들 안부를 묻는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이임이 분명하다. 그것도 그냥 안면만 있는 사이가 아니다. 둘은 한 그룹이 되어 어울린 사이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의 성격은 사뭇 다르다. 광문의 행동에는 반사회적인 속성이 없지만, 표철주에게는 반사회적인 속성이 있다. 광문의 "네가 사람 잘 때리던 표망동이 아니냐" 는 첫마디는 표철주의 성격을 '폭력성' 으로 집약하고 있다. 폭력이 사태 해결 수단이라고 믿는 것은 깡패와 조폭의 고유 성격 아닌가. 즉 검계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인 것이다.

검계는 왈자의 부분집합

나는 검계와 왈자는 집합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검계는 왈자에 포함된 부분집합이다. 즉 검계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왈자가 되지만, 모든 왈자가 곧 검계는 아닌 것이다. 즉 김홍연과 같은 사람은 왈자지만, 검계는 아닌 것이다. 왈자와 검계는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공유하지만, 그 폭력의 방향이 반사회적인 방향으로 향할 때, 즉 강간, 강도 등의 행위로 향할 때 검계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조직화할 때만.

그렇다면 다시 궁금해진다.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왈자가 된단 말인가. '게우사' 라 불리는 국문소설이 있다. 이것은 이름만 남아 있고 작품은 없어져버린 것으로 알려진 판소리 '왈자타령' 이다. 여기에 왈자들이 기방에 모인 장면이 나온다.

청루(靑樓) 고당(高堂) 높은 집에 어식비식 올라가니,

① 좌반의 앉은 왈자 상좌의 당하(堂下) 천총(千摠) 내금위장(內禁衛將) 소년 출신 선전관(宣傳官) 비별랑(備別郞) 도총(都摠) 경력(經歷) 앉아 있고,

② 그 지차 바라보니, 각 영문(營門) 교련관(敎鍊官)의 세도(勢道)하는 중방(中房)이며, 각사 서리(書吏), 북경(北京) 역관(譯官), 좌우(左右) 포청(捕廳) 이행군관(移行軍官), 대전별감(大殿別監) 울긋불긋 당당홍의(堂堂紅衣) 색색이라.

③ 또 한편 바라보니 나장(羅將)이 정원사령(政院使令) 무예별감(武藝別監) 섞여 있고, 각전시정(各廛市井) 남촌한량(南村閑良)

④ 노래 명창 황사진이, 가사 명창 백운학이, 선소리 송흥록이 모흥갑이가 다 있구나('게우사' : '한국학보' 65, 일지사, 1991년)

① ② ③ ④로 나눈 것은 이들의 신분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①은 무반으로서의 양반이다. 원래

양반이 기방에 드나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문반의 경우이고, 무반은 세상 물정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출입이 가능하였다. 이들은 양반 중에 왈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뭐라 해도 왈자의 중추 세력은 역시 ②와 ③이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기술직 중인이 있다. 북경에 드나드는 역관(譯官)인데, 이들은 의관(醫官)과 함께 중인의 대표적인 존재다. 역관 신분을 이용하여 북경에 드나들면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부자가 많다. 둘째 각사 서리(書吏)가 있다. 곧 서울 중앙관서에 근무하는 경아전(京衙前)이다. 경아전은 중인과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중간계급이다.

재물을 분토(糞土)처럼 쓰는 사람들

그 다음 '각 영문 교련관의 세도하는 중방' 이란 대개 군대의 장교를 말한다. '포청 이행군관' 은 포교(捕校)인 것같고, 나장(羅將)은 의금부 나장을, 정원 사령은 승정원 사령을 말한다. 나장과 사령은 원래 다른 관청에도 있고 또 천역(賤役)이지만, 의금부 나장과 승정원 사령은 사회적 위상이 경아전과 같다. 대전별감은 대전, 곧 임금 주위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며, 무예별감은 임금의 호위무사다. 각전시정이란 서울 시전의 상인이다. 상인들 역시 서리와 같은 사회적 위상을 지닌다. 남촌한량이란 서울 남산 기슭에 주거하며 무과를 준비하는 자란 뜻이지만, 그것의 정확한 사회적 의미를 밝히기는 어렵다.

어쨌거나 ②와 ③에 등장하는 부류는 거개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닌 조선사회의 중간계층이다. 여기서 꼼꼼히 따질 수는 없지만, 대개 서로 통혼(通婚)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류로 보면 될 것이다. 왈자는 대체로 조선시대의 중간계층을 모태로 하여 나온 존재들로 보면 무방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양반도 일부 끼어들고, 중간계층 아래의 상민도 일부 끼어들 것이다. 원래 그런 것이 왈자 패거리의 특징이다.

왈자는 조선후기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인가. '서광문전후' 의 광문과 표철주의 이야기를 다시 보자.

광문이 다시 표철주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제 늙었구나. 어떻게 먹고 사느냐?"

"집이 가난해서 집주름이나 하고 지낸다네."

"너도 이젠 살았구나. 어허! 옛날 집 살림이 여러 만금이었지. 당시 너를 황금투구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 투구가 어디 갔느냐?"

"이제야 나는 세정(世情)을 알게 되었다."

광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너도 목수질을 배우면서 눈이 어두워졌구만."

표철주는 이규상이 말했던 것처럼 집주름이다. 그러나 젊어서의 표철주는 살림이 '여러 만금'이었고, 별명이 '황금투구'였다. 표철주는 원래 갑부였던 것이다. 왈자를 언급하는 자료들은 왈자가 대체로 부유한 축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광문이 표철주에게 안부를 물었던 용호영, 장교를 다니는 김군경 역시 '돈쓰기를 똥이나 흙처럼' 하는 그런 인간이었다. 연암이 직접 왈자라고 불렀던 김홍연의 경우도 '집안이 본래 부유'하여 재물을 '분토(糞土)처럼' 쓰고, 골동과 서화를 수집했던 인물이었다.

'무숙이타령'('게우사' '왈자타령')의 주인공 무숙이는 '대방왈자'다. 이 소설은 무숙이가 새로 서울에 진출한 평양기생 의양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무진장 써대며 갖은 사치와 유흥판을 벌이다가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으나 의양이의 지혜로 회개한다는 내용이다. 대방왈자 무숙의 출신 성분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중촌의 장안갑부'다. 중촌은 지금 관철동 일대로 주로 역관 의원 등 중인과 시전 상인 등 서민 부자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어쨌거나 장안의 갑부 대방왈자 무숙은 유흥과 사치에 돈을 쏟아 붓는다. 그는 오로지 돈 쓰는 것 외에는 달리 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기생을 장악한 왈자

요컨대 왈자에게는 돈이 풍부하여 무진장 써대는 그런 속성이 있다. 물론 그들이 써대는 돈이 모두 자신만의 재산은 아닐 것이다. '장대장전'의 "쓰는 재물은 모두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것"이라는 증언에 의하면, 이들이 써대는 돈은 어떤 경우 살인 강도 행각으로 얻은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돈을 쓴다는 것은 사실 돈을 쓸 곳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사치와 낭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과 상품 따위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정인들의 사치와 낭비를 가능하게 했던 전제 조건이란 무엇인가. 앞서 '게우사'의 왈자들이 기방에 모인 것을 묘사한 대목을 인용했는데, 기방이 그 전제 조건의 하나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국가 소유다. 조전전기에는 오로지 양반만 그들의 예능과 성(性)을 소비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에 예속되어 있던 기녀는 전쟁 전의 제도가 붕괴하는 틈을 타서 시정으로 진출했다. 기녀들은 국가에 복역(服役)하면서 한편 시정에 기방을 열고 자신들의 예능과 성적 서비스를 팔았던 것이다.

이 기방을 장악한 것이 곧 왈자들이다. 이들은 기방의 운영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고객이기도 하였다. 다시 '서광문전후'의 광문과 표철주의 대화를 읽어보자. 앞서 김군경에 대한 언급에 이어지는 부분이다.

"분단(紛丹)이는 어디 갔지."

"이미 죽었다네."

광문은 한숨을 쉬고 말했다.

"전에 풍원군(豊原君)이 밤에 기린각(麒麟閣)에서 잔치를 하고 나서 오직 분단이만 데리고 잔 일이 있었지. 새벽에 일어나서 풍원군이 입궐(入闕)하려고 서두는데 분단이가 촛불을 잡고 있다가 잘못해서 초피 모자를 태웠것다. 분단이가 황공해서 어찌할 줄 모르자 풍원군이 웃으며 '네가 부끄러운 모양이로구나' 하고 즉시 압수전(壓羞錢) 오천 푼을 얹어 주더군. 내가 그때 수건을 동이고 난간 밑에 지키고 있었는데 시꺼먼 것이 우뚝 선 귀신처럼 보였겠지. 마침 풍원군이 지게문을 밀치고 침을 뱉다가 섬뜩 놀라 분단에게 몸을 기대면서 '저 시꺼먼 것이 웬 물건이냐' 고 소곤거리더군. 분단이 '천하에 누가 광문을 모르오리까' 라고 아뢰었지. 풍원군은 빙긋이 웃으며 '저 사람이 너의 후배(後陪)냐. 불러들여라' 하고 내게 큰 술잔을 주셨지. 그리고 당신은 홍로주(紅露酒) 일곱 잔을 마시고서 초헌(?軒)을 타고 가시더군. 이게 모두 지나간 옛날 일이야."

"서울의 기생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하지."

"소아(小阿)란다."

"그 조방(助房)군은 누구냐?"

"최박만(崔撲滿)이지."

기생이야기라니, 감방에서 이제 막 나온 인물이 나누는 이야기 치고는 좀 한심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바로 기방이었기 때문에 기생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후배' '조방군' 이란 말이다. 이건 바로 기부(妓夫)를 말한다. 기부는 기생의 서방으로 대개 기녀의 매니저 노릇을 한다. 조선후기의 기생은 대개 지방에서 올라온다. 기생이 서울에 올라오면 당장 의식주 해결에 곤란을 겪게 되는 바, 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생을 장악해 기생의 영업으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차지한다.

모든 사람이 다 기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전별감, 포도청 포교, 의금부 나장, 승정원 사령 등 몇몇 제한된 부류만 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기방의 고객이기도 하였다. 요컨대 왈자들이 곧 기방의 운영자이고 또 고객이었던 것이다. 앞서 김홍연은 기생을 둘이나 끼고, 김군경이 뚱뚱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을 끼고 몇 장의 담을 뛰어넘었다고 한 것은 모두 이들과 기방의 밀접한 관계를 암시해 주는 이야기다.

왈자와 기생 간 불가분의 관계를 말해 주는 증거가 '춘향전' 의 이본(異本)인 '남원고사' 다.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던 춘향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자 남원의 왈자들이 몰려들어 춘향을 찾아가는 대목이 나온다. 옥문 앞에서 왈자들이 소란을 떨자 옥사장이 나무란다.

옥사장(獄鎖匠) 하는 말이,

"여보시오. 이리 구시다가 사또 염문(廉問)에 들리면 우리 등이 다 죽겠소."

한 왈자 내달으며 하는 말이,

"여보아라 사또 말고 오또가, 염문 말고 소곰문을 하면 누구를 날로 발기느냐? 기생이 수금(囚禁)하면 우리네가 출입이 응당이지 네 걱정이 웬 일이니?"

남원의 왈자라고 했지만, 읽어보면 서울 왈자들이다. 그것은 "기생이 수금(囚禁)하면(옥에 갇히면) 우리네가 출입이 응당" 이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다. 기생과 왈자가 밀착된 관계가 아니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다.

오로지 노는 것이 소업

기방은 생산 공간이 아니라, 유흥 공간이다. 놀고 마시는 곳이다. 왈자들의 소업은 오로지 '노는 것' 일 뿐이다. 노는 것에서 도박을 빼놓을 수 없다. 이규상은 왈자에 대해 "도박장과 창가(娼家)에 종적이 두루 미친다" 고 하지 않았던가. 물론 도박장이라 해서 라스베이가스의 도박장이나, 강원랜드, 혹은 합법화된 호텔의 카지노는 아닐 터이다. 중국만 해도 송나라 때 전문 도박장이 생기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공식적 도박장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정식 도박장의 존재 여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도박판이 벌어지면 어디나 도박장이 된다.

조선후기는 도박이 비상하게 발달한 시대였다. 투전, 골패, 쌍륙 등 온갖 종류의 도박이 성행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숙종 연간에 수입된 투전이 엄청난 기세로 유행하였다. 저 지체 높은 양반에서부터 하인, 노비에 이르기까지 투전 열풍에 휩싸였음은 여러 문헌이 증거하는 바이다.

아니 투전은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갑오니 장땡이니 하는 것도 원래 투전의 족보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실례를 한번 보자. 김양원(金亮元)이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조희룡(趙熙龍)과 절친한 사이였다.

조희룡이 누군가? 19세기의 빼어난 서화가이자, 비평가이자, 시인이었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제자이기도 하였다. 이런 사람의 친구이니, 뭐 좀 고아한 사람으로 알겠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조희룡은 '호산외기(壺山外記)' 에서 '김양원전' 을 지었는데, 그 첫머리가 이렇다.

김양원은 그 이름은 잊어버렸고, 자로 행세했다. 젊어서 유협 노릇을 했는데, 계집을 사서 목록에 앉혀 술장사를 했다. 허우대가 크고 외모가 험상궂어 기생집과 도박장을 떠돌아다녔지만, 기가 사나워 누구하나 그를 업신여기지 못했다.

행태를 보아하니, 김양원은 왈자다. 그는 뒷날 시인으로 자처하고 시에 골몰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오로지 기방과 술집, 도박판을 쫓아다니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남원고사' 에도 왈자들은 춘향을 찾아가기 전에 골패노름을 한참 벌인다. 도박장 따위를 전전하는 왈자의 생리가 짐작이 되시는지.

주먹을 휘두르고 기방과 술집, 도박판을 쫓아다니는 왈자에 대해 시시콜콜 늘어놓는 것은 근엄한 도덕주의자들의 눈에는 정말 쓸데없는 언어의 낭비로 비칠 것이다. 하지만 왈자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왈자는 조선후기 민간 예능의 주향유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남원고사' 를 보면 왈자들이

춘향이를 찾아가면서 여러 행각을 벌이는 썩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민간예능의 주 향유자

왈자들은 먼저 노래를 부르는데, 선소리와 '신선가(神仙歌)' '춘면곡' '처사가' '어부가' 등이 주 레퍼토리다. 선소리는 '서울 중심의 경기요와 서도 소리의 속된 노래의 일종'이며, '신선가'는 경기잡가이고, '춘면곡' '처사가' '어부사'는 십이가사의 레퍼토리다. 이 노래들은 서울의 기방에서 오입쟁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것들이었다. 왈자들은 이런 민간 가요의 주 향유자였던 것이다. 나는 조선후기의 음악을 비롯한 예능이 이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실제 왈자들은 연예인을 지배하고 있었다. 앞서 인용했던 '게우사'에서 기방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래 명창 '황사진' 가사 명창 '백운학' 선소리의 '송흥록' '모흥갑'이었다. 황사진과 백운학은 알 길이 없지만, 송흥록과 모흥갑은 국문학사를 장식하는 판소리 광대들이다. 이들 역시 왈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 증거로 '게우사'의 주인공 무숙이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거창한 유흥판을 벌이면서 삼남의 제일가는 광대, 산대놀음을 하는 산대도감의 포수와 총융청 공인, 각 지방의 거사 명창 사당패를 모으고, 우춘대 · 하은담 · 김성옥 · 고수관 · 권삼득 · 모흥갑 · 송흥록 등 22명의 명창 광대를 불러들인다.

물론 과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장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그 증거로 가사 '한양가'의 '승전(承傳)놀음'을 들 수 있다. 승전놀음은 왈자의 한 부류인 대전별감이 서울의 기생을 총동원하여 거창하게 벌이는 놀이판인데, 별감은 금객, 가객 등을 불러 모으고 있다. 왈자들은 연예인의 예능을 소비하는 주체였으며, 돈 이외에도 그들을 불러올릴 권력이 있었던 것이다.

왈자는 책 읽고 공부하는 그런 세계와는 팔만구천리나 떨어진 존재다. 왈자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력 폭력이다. 말이 아니라 주먹이 통하는 세계에 살던 인간인 것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왈자와 검계는 집합의 관계다. 왈자가 전체집합이라면, 검계는 그 속에 포함된 부분집합이다. 그들의 폭력이 반사회성을 띠면 검계가 되었던 것이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이들은 주로 먹고 마시고 노는 데 골몰하던 부류다. 조선후기 시정 공간을 북적대게 만든 흥미로운 존재인 것이다. 왜 이런 부류가 나타나게 되었던가. 조선사회는 상업과 농업 분야의 발달로 약간의 경제적 잉여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경제적 잉여를 바탕으로 사치와 유흥이 발달할 소지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 살폈듯 왈자란 대개 중간계층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었다. 이들이 부를 축적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당시의 사회 체제로 보아, 과거를 통해 고급관료가 되거나 학문을 하여 명예를 누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그들이 유흥으로 빠진 것은 거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어쨌거나 조선은 조용한 아침이란 이미지와는 결코 맞지 않는 나라였다. 검계가 살인과 강간과 강도를 저지르고, 왈자가 술집과 기방과 도박판에서 왁자하게 야단법석을 떠는 곳이었다. 조용하긴 뭐가 조용하단 말인가.

群盜

2013.06.20 13:42

"백성을 도적으로 만드는 자 누구인가"

태조 이성계의 강화도 회군, 세종대왕의 치적, 단종애사, 연산군의 비극, 여인천하, 사도세자의 죽음, 그리고 강화도령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는 조선역사는 왕들의 역사요, 지배자의 역사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엄연히 민(民)은 살아 있었고 묵묵히 사회와 역사의 발전에 한몫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민(民)의 생활사나 애환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다. '신동아' 는 지배 중심의 역사가 철저히 무시했지만 면면히 살아있었던 서민들의 삶과 문화를 발굴해보기로 했다.

강명관 교수는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공간' 이라는 책을 저술한, 조선시대의 문학과 예술, 서민의 삶에 관심이 많은 소장학자다. 조선사회의 이면사 그 첫회는 사회의 골칫거리였지만 백성들의 영웅이기도 했던 군도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법은 절도를 금한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는 십계 중 일곱번째 계명이다. 고조선의 팔도금법에도 있다. "도둑질을 하면 노비로 삼는다." 절도가 용인되면, 즉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붕괴된다. 그러기에 절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사회적 금기다. 하지만 인간의 내부에는 절도에 대한 은밀한 욕망이 있다. 절도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먹이를 획득하고자 하는 생명체의 생존욕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금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절도를 향한 욕망은 거침없이 드러난다. 1992년 LA 폭동 때 우리는 그 야수적 욕망의 분출을 목도한 바 있다.

절도는 범죄지만, 인간은 한편으로 그 범죄를 합리화한다. 절도의 합리화는 부조리한 사회, 주로 재화의 분배에 있어 불공정한 사회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절도 행위자인 도둑을 찬미한다. 나는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축재와 부잣집 담장을 넘는 밤손님의 행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

만약 그 도둑이 넘었던 담장이 부정한 돈으로 쌓아올려진 것이라면, 월장(越墻)은 도리어 미화되고 찬양된다. 혹 그 도둑이 자신의 약탈물을 달동네에라도 던져주었다면, 그는 '의적(義賊)' 으로 다시 태어난다. 급기야 그는 전설이 되고 소설이 되고, 가난한 우리는 일지매에 빠져들고 장길산에 열광하게 되는 것이다.

도둑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다. 나는 조선시대의 도적에 대해 내가 아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조선시대 도둑에 관한 연구는 정치사, 경제사, 제도사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한국사 연구의 여담에 해당한다. 물론 몇몇 진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논문으로 쓰여진 것이라 너무 딱딱하고 근엄하다. 나는 그런 엄숙함이 싫다. 좀더 편하게 접근하고, 기존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조선시대의 도둑에는 여러 스타일이 있다. 혼자 활동하는 도적이 있는가 하면, 떼를 지어 다니는 군도(群盜)도 있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 일시적으로 도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 말로 수백년 유구한 전통이 빛난다는 그런 도적 집단도 있다. 구복(口腹)을 위해 고민 끝에 도덕심을 눌러버리고 칼과 도끼를 들고 나서는 생계형 도적이 있는가 하면, 기성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저항하는 각성한 도적도 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순진무구한 도적이 있는가 하면, 종적을 종잡을 수 없는 신출귀몰한 그런 도적이 있다.

전통 자랑하는 群盜

어느 쪽도 재미가 있다. 하지만 도둑도 일종의 직업이니만큼 좀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형태가 좋지 않겠는가? 굳이 예를 들자면 일지매(一枝梅) 같은 경우다.

조수삼(趙秀三 · 1762~1849)은 자신의 독특한 저작 '추재기이(秋齋紀異)'에서 일지매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아주 짧막한 것이기에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지매는 도둑 중의 협객이다. 매양 탐관오리들의 부정한 뇌물을 훔쳐 양생송사(養生送死)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처마와 처마 사이를 날고 벽에 붙어 날래기가 귀신이다. 도둑을 맞은 집은 어떤 도둑이 들었는지 모를 것이지만 스스로 자기의 표지를 매화 한 가지 붉게 찍어 놓는다. 대개 협의를 남에게 옮기지 않으려는 까닭이었다.

매화 한 가지 혈표(血標)를 찍어 놓고 / 부정의 재물 풀어 가난한 자 돕노라. / 때 못 만난 영웅은 예로부터 있었으니 / 오강(吳江) 옛적에 비단돛이 떠오놋다.

쩿오강의 비단돛이란 중국 삼국시대 감녕(甘寧)의 고사. 한때 적도(賊徒)로 횡행하여 오강에서 비단돛을 달고 다녔다 한다." (이조한문단편선(중), 일지사, 1978, 339면)

일지매는 잡히지 않는다. 완벽하다. 게다가 매화꽃까지 남겨 남에게 피해가 가게 하지 않는다니 멋있지 않은가? 나는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에서보다 본 적도 없는 일지매의 붉은 매화에서 '문자향(文字香) 서권기(書卷氣)'가 느껴진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떠신가. 또 탐관오리의 부정한 재물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니, 민중의 벗인 의적이다. 이런 도둑은 당연히 찬양의 대상이 된다. 조수삼은 그를 "때를 못 만난 영웅"이라고 하지 않은가.

일지매와 같은 유형의 도적으로 '아래적(我來賊)'이 있다. '어수신화(禦睡新話)'란 책에 있는 이야기다. 어떤 도적이 무엇을 훔치고 나면 반드시 '아래(我來 · 나 왔다 간다)'라는 두 글자를 적어놓았다고 한다. 하나 아래적은 일지매보다 한 등급 밑이다. 의적이 아닌데다가 포도청에 잡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뒤에 기지를 써서 탈출하지만 말이다.

일지매와 아래적은 혼자 활동하는 도둑이다. 그 건너편에 무리 도둑인 군도(群盜)가 있다. '모이면 도적이 되고 흩어지면 백성이 된다(聚則盜, 散則民)'는 말처럼 중세의 군도는 기본적으로 백성, 농민이다. 중세의 사회생산은 전적으로 농업생산이다. 농민이 농토를 떠나면 사회는 붕괴한다. 지배하는 자들은 언제나 거룩한 이념(조선으로 치면 주자 성리학)을 내세워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지만, 그 이념의 속내는 매우 간단하다. 그 이념이란 지배층은 일하지 않고 농민만 뼈 빠지게 일해야만 하는 '비합리'를 '합리'로 분식(粉飾)한 어려운 말의 덩어리다.

물론 이념은 언제나 지배층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켜진 시대는 유사 이래 없었다. 지배하는 자들의 욕망은 언제나 차고 넘친다. 그리하여 지배층의 욕망이 농민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달리 말해 농민을 지나치게 쥐어짜면 농민은 토지를 떠난다. 지주의 토지 침탈, 과도한 세금 등으로 인한 농민의 토지 이탈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항시 일어나는 일이었다.

왕조의 건국 초기 짧은 안정기를 벗어나면 농민의 삶은 언제나 괴로웠다. 여기에 흉년과 전염병이란 구체적 계기가 발생하면 토지로부터의 유리(遊離)는 필연적이다. 토지를 떠난 농투성이들은 갈 곳이 없다. 떠돌다가 죽든지 아니면 다시 고향을 찾기 마련이다.

이와는 달리 적극적인 저항의 형태가 있다. 도적이 되는 것이다. 유개(流丐)와 군도는 언제나 연관되어 있다. 18세기의 문인 이규상(李奎象)은 '우옹책(迂翁策)'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연래에 떠돌이 거지(流乞)들이 없는 때가 없었는데, 금년 가을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 허다한 떠돌이 거지들은 아마도 무리를 불러 모아 (도둑의) 근거지를 마련했을 것이다."

이처럼 토지로부터 이탈한 유민이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군도로 변하는 것이다. 농민이 토지로부터 이탈했을 때 조직하는 군도의 형태도 퍽 다양하다. 영조17년 조문벽(趙文璧)이란 사람이 영춘역(迎春驛)으로 귀양을 가는데, 이유인 즉 그가 숙천군수(肅川郡守)로 있을 때 평안도의 극적(劇賊) 지용골(池龍骨)을 잡았다가 놓친 죄 때문이었다. 이해에 관동(關東) · 관북(關北) · 관서(關西) · 해서(海西) 4도(道)에 기근이 들었고, 토지를 떠난 유민이 무리를 이루어 돌아다녔다. 서울에 있는 무리는 '후서강단(後西江團)' 평양(平壤)에 있는 무리는 '폐사군단(廢四郡團)' 재인(才人)이 조직한 무리는 '채단(彩團)' 돌아다니며 빌어먹는 무리는 '유단(流團)'이라고 불렸다. 이들이 기회를 틈타 도둑이 되어 부고(府庫)를 습격해 탈취하였으나, 장리(將吏)가 체포할 수 없을 지경이었으므로 조정의 근심거리가 되었으나 끝내 잡지를 못했다고 한다.(영조실록 17년 4월8일) 이 도적집단은 기근이라는 특정한 계기로 발생한 것이고, 또 그들의 출신지역이나 신분, 경제적 처지에 따라 각각 달리 집단화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습 도둑집단의 출현

대개 기근으로 발생하는 유민은 떠돌다 죽거나, 어렵게 살아남으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정한 근거지를 가진 세습적 도둑집단도 있다. 앞서 잠시 인용한 이규상의 '우옹책'은 도둑의 방지책을 서술한 것인데, 이 글에서 그가 든 근거지를 가진 세습적 도둑집단을 보자. 그가 지목하는 군도는 충청도 아산 근처의 한 큰 촌락이 근거지다. 다른 마을은 도둑이 침입해도 이 마을만은 안전하다. 농사도 짓지 않고 상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거주민은 늘 호의호식을 하면서 지낸다. 근래 도둑을 맞은 촌락들도 대개 이 마을의 근처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 이 마을 사람들이 절도와 관련되어 잡혀도 금방 풀려 나온다. 이규상은 이런 점들을 들어 이 마을이 도적촌이며, 철저히 추궁하면 도둑의 소굴을 소탕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우옹책'의 도둑촌은 군도의 한 가지 스타일일 뿐이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채가 있고 파수를 보는 그런 도둑집단과 다를 뿐이다. 실제 군도도 스타일이 여럿이라는 것만을 말해두려고 예를 들었던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군도에 관한 것이다. 일지매 같은 멋이 넘치는 도둑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워낙 종적이 묘연하다. 자료가 없는 것이다. 소설을 쓰기 전에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군도라면 다르다. 사료가 꽤 남아 있다. 이미 문학화된 군도 이야기도 많이 전한다. 홍길동 · 임꺽정 · 장길산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로, 소설로 유포되고 있다. 도둑도 홍 · 임 · 장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군도라야 역사적 중량감을 갖고 장편소설이 되는 것이다. 한국사학계에서 군도에 관한 연구물이 많지는 않지만, 읽어봄직한 것이 꽤 있다. 역사적 평가도 대체로 내려져 있다. 내가 여기에 무슨 말을 더할 것인가.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군도의 내부조직에 관한 것이다. 이건 아직 별로 보고된 적이 없으니 이야기해봄직하지 않은가.

먼저 한문 단편 '홍길동 이후'라는 작품을 읽어보자. 원 출전은 '청구야담'이다.(번역은 '이조한문단편선(중)'에 실려 있다.) 이 작품

의 주인공 심진사가 별난 인물이다. 명문 사족이었으나 진사에 오르자 과거공부를 폐해버렸다. 누가 이유를 물으면 껄껄 웃고 말 뿐이었다. 과거공부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라니, 정말 호쾌한 사람 아닌가.

과거를 폐한 심진사의 유일한 취미는 말 타고 경쾌하게 달리는 것이었다. 답답한 세상 시원하게 달려보자는 심사였던가. 그는 귀족 고관 집에 좋은 말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타보기를 청했고, 또 말 주인들은 심진사의 명성을 이미 들었던 터라 선선히 말을 빌려주었다. 어느 날 심진사는 자기 집앞에 좋은 말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 한번 타보자 하니 허락을 하였고, 말에 올라타자 말은 한달음에 황해도 금천(金川)까지 달린다. 집에 돌아올 길이 막연한데, 또 어떤 이가 말을 타고 간다. 심진사가 타보자 했더니 허락을 하였고, 올라타자 말은 정말 지도에도 빠진 그런 심산유곡으로 냅다 달려간다. 도착해보니 도둑들의 산채가 아닌가. 도둑들은 말 두 필로 심진사를 '초빙' 했던 것이다. 계략으로 심진사를 데려온 도적의 대표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홍길동의 후예"

"이 산채는 홍길동 대장으로부터 우금 백여 년을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 역대 대장들이 모두 지모가 절륜한 분들이어서 군민이 안온히 지내왔습지요. 그러다가 작년에 와서 전의 대장께서 작고하시자 군무가 계통을 잃었습니다. 저희들은 방방곡곡에 대장으로 모실 만한 분을 물색하였는데 나으리보다 훌륭한 인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준마 한 필로 나으리를 금천까지 유치해서 다시 이곳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나으리께서는 특히 이곳 산채의 수많은 무리들을 사랑하시와 충의대장군의 인끈을 맡아주옵소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심진사는 쾌히 청을 받아들여 도적의 두령이 되고, 지략으로 해인사와 안동 호곡의 김진사, 함흥성을 털어 산채를 안정시킨 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재미있는 군도담이다.

하지만 내가 정작 주목하는 것은 도적 입에서 나온 '홍길동 대장' 이후로 백여 년을 내려왔다는 산채의 전통이다. 물론 허구일 것이다. 하지만 이 허구에는 모종의 역사적 내력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보자.

'실천문학' 통권 7호(1985년 여름호)에 '민중사상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소설가 이문구의 글이 실려있다. 부제는 '김지하의 사상여행 제2회'다. 일종의 여행기다. 김지하와 함께 우리 땅에 서려 있는 민중사상의 저변을 찾아보자는 것이 기획의도인 듯하다. 7호의 여행을 함께 한 사람들은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분들이다. 천이두 · 송기숙 · 최창조 · 황석영 · 임진택 · 장선우 · 송기원 등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사람 둘이 더 있는데, 송명초 · 보원이란 스님 두 분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민중사상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두 분 스님네 입에서 흘러나온 '당취(黨聚)'의 존재에 마음이 비상하게 끌리는 것이다.

계룡산 갑사에 힘센 중이 많이 나와 그 기를 꺾으려고,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던 갑사를 중건하면서 절이 원래 있던 자리에 변소를 지었다는 보원 스님의 말에, 김지하는 힘센 중이라면 조선조 내내 산야에 출몰했던 당취, 즉 땡추들의 소굴이라도 됐단 말이냐고 묻는다. 이게 빌미가 되어 당취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보원 스님 이야기의 골자를 추리면 대충 이런 내용이다. 땡추(黨聚)에는 금강산 땡추와 지리산 땡추의 양대 산맥이 있다. 이 양대 산맥이 형성된 시기를 보원 스님은 조선초로 잡고 있다. 조선 초 강력한 배불정책으로 불교의 종파들은 세종 연간에 선 · 교 양종으로 정리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조계 · 천태 · 총남 · 화엄 · 자은 · 시흥 · 중신 등 7개 종파로 정리할 때 여기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버린 종파가 당취로 변했다는 것이다. 지리산 땡추는 선 · 교 양종의 통합에 순응했던 종파들 중에서도 조선의 불교정책에 대해 환멸을 느낀 나머지 금강산파에 통합을 희망했으나, 금강산파가 국책(國策)에 야합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따로 독립하여 지리산 당취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들 땡추는 반조선적, 즉 반체제적 조직이다. 보원 스님의 말을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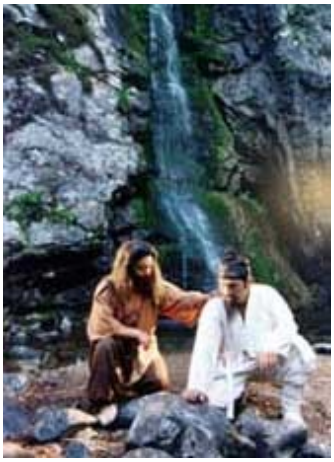
"창업 이래 배불정책만 더욱 확실해지니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음을 미리 내다보고 전조(前朝)의 전철을 밟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이지요. 말

하자면 왕권의 주변세력, 혹은 허울 좋은 호국불교 따위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평가에 따라 제도적인 종교정책을 무시하고 식읍적(食邑的)인 국토보다 중생의 불국토를 건설하자는 취지로, 일테면 재야불교(在野佛敎), 민중 속의 생활불교를 택했던 건데 이게 바로 금강산 땡추의 연원이에요."

다음은 송명초 스님의 말이다.

"땡추는 백집 이백집 죄일 쏘댕기메 동냥해갖구 술집에 앉어 한입에 털어넣는 것이 땡춘디 … 그러나 이전 땡추덜은 억불정책에 대한 반항, 심에 밀려 산중으로 쫓긴 자긔덜 자신에 대한 반성, 신앙적 열정의 민중 보급로 두절 등 암울한 환경에 대한 저항으로 결국 반체제가 된 무리였이유. 그래서 객승 비젓허게 꾸미구서 때로는 산적패의 통신망두 되어 주구 때루는 항간에 떠돌메 민중교화에두 나스구 … 일종의 시대적 불교의 의붓자식덜이었슈."

산적패의 통신망 땡추



조선시대에는 유난히 군도(群盜)의 출현이 잦았다. 사진은 드라마 '임꺽정'의 한 장면.

요약하자면, 당취는 조선체제를 부정하는 의식에 가진 자를 섬기는 귀족불교 · 호국불교가 아니라 민중을 위한 재야불교를 추구하는 반체적 승려집단인 것이다. 물론 보원 스님의 말에 나오는 땡추의 행실은 외견상 우리가 알고 있는 돌중, 스님에 대한 비칭인 땡추(땡초)에 가깝다. 또 땡추 혹은 땡초가 과연 당취란 단어의 음(音) 변화에서 온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문제는 일단 덮어두자.

그런데 군도 이야기를 한다면서 필자는 왜 뜬금없이 땡추를 들먹이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송명초 스님의 말 중에 땡추가 "산적패의 통신망도 되어주고" 라는 부분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땡초=산적이란 등식은 아니지만 양자간에 일정한 연관이 있음을 내포하는 말이다. 보원 스님의 말이 여기에 약간 덧붙는데, 다음과 같다. 즉 땡초는 민중교화만이 아니라 민중구제까지도 겸업했다는 것인데, 그 민중구제의 수단이 바로 산적질이다. 산적과 결탁해서 낮에는 동냥하며 떠돌다가 관가와 토호들을 염탐하고, 밤에는 자기가 낮에 동냥한 것을 고을의 없는 사람들에게 풀어먹이곤 했다는 것이다. 땡추는 적어도 산적의 통신망이 되거나 아니면 산적질을 하기도 했던 그런 집단인 것이다. 우선 이 점을 염두에 두자.

조선 체제에 대한 저항조직의 하나로 송명초 · 보원스님이 전하는 당취의 존재는 너무나 흥미롭다. 그러나 두 분 스님네 말이 얼마나 정확성을 갖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두 분 스님의 말씀 역시 전언에 의한 것일 테니 말이다. 보원 스님 자신도 "당취결사(黨聚結社) 자체가 비밀이었

으니 문헌이 남아 있을 리 없고, 당취들도 그믐에 달지듯이 증빙을 두지 않았으니 ……” 라며 스스로 문헌에 의한 증거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송명초 스님은 “시방 살아있는 최혜암 스님도 그 일당(당취의 일당)의 하나” 였고, 청담 스님도 한 3년 따라다녔다고 증언한다. 이 모든 것이 산중의 전승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혜암 스님 역시 송명초 스님이 이 말을 할 때 백세가 넘어 앉아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 하고, 청담 스님도 열반하신 지 오래다. 이제 산중에서 더 상세한 전승이 남아 있을까 의문이다.

나는 공부하는 틈에 이 전승을 입증하는 문헌 증거가 혹시 나오지 않나 하고 엉뚱한 기대를 하였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 ‘황성신문’에서 우연히 유관한 자료를 하나 찾게 되었다. ‘황성신문’ 1908년(융희 2년) 9월23일 자의 잡보에 ‘적단소탕(賊團剿蕩)’이란 기사가 그것이다. 내용은 경시청(警視廳)에서 2월7일부터 6월까지 화적당(火賊黨) 86명을 체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도둑을 잡은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의 화적을 하나씩 잡아들인 결과다. 이어 9월25, 26일 양일간에 ‘적단(賊團)의 전말(顚末)’이란 기사가 실리는데, 여기에 화적단의 조직에 관한 언급이 있다. 먼저 씨앗이 될 만한 이야기부터 인용한다. 현대어로 약간 풀어 쓰면 이렇다.

“경시청 신문계(訊問係) 순사부장(巡査部長) 삼육치(森六治)씨가 우리나라 화적의 뿌리를 상세히 알아내는 데 종사한 지 5, 6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2월7일 오후 3시에 중부(中部) 전동(典洞)에 사는 안만수(安晩洙)씨의 별실(別室) 생일에 강도 7명이 돌입하여 재산을 약탈한 일을 쫓다가 같은 달 28일에 남문 밖 동막(東幕) 객주(客主) 홍재현(洪在鉉)의 집에서 승도(僧徒) 송학(松鶴)과 같은 무리 20여 명을 체포하였다.”

왜 일본인 순사냐 하면 이때는 벌써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통감부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요는 안만수란 사람 첩의 생일에 강도 7명이 돌입해 재산을 털었던 바, 일본인 순사의 추적 끝에 같은 무리 20명을 체포했다는 것이다.

설렁탕 한 그릇에 들통난 조직

삼육치는 계속 추궁하였으나 도적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고문을 가했을 것은 뻔한 이치다. 그럼에도 함구로 일관하자 작전을 바꾼다. 순사부장 가납무평(加納武平)이 송학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옷을 벗어 입히고, 먹을 것을 시켜 먹이는 등 ‘인간적인’ 대우를 한다. 송학은 감동하여 입을 연다. 달리 말해 송학은 설렁탕 한 그릇에 동료를 판 것이다. 그의 배반으로 86명의 동료가 잡혔다. 어디서 많이 보던 수법이 아닌가. 송학이 설렁탕 한 그릇에 털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화적단의 조직이다. 이건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황성신문’이 지면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화적단의 조직은 내사(內社)와 외사(外社)로 나뉜다. 송학의 말에 따르면 내사는 “거금 500년 전에 강학(强虐)이 무쌍한 승려 홍길동이란 자가 5772명의 부하를 이끌고 의적이고 한 것” 이 그 시초라 한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5772명의 부하란 것도 과장된 것이려니와, 실제 홍길동이 활동한 것도 1500년경이니 연도도 맞지 않다. 하기야 이런 자료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송학을 타박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 조직이 오래되었을 가능성은 실제 있다. 내사는 모두 홍길동의 제자라 칭하고, 홍길동을 떠받들어 선생이라고 불러 존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서 본 한문 단편 '홍길동 이후'에서 도둑들이 심진사에게 자신들 산채의 유래를 홍길동 장군으로부터 100년을 내려왔다고 하고 있으니, 군도는 실제 조선조부터 홍길동의 후예임을 내세웠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자료의 강점은 내사를 당취와 관련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내사는 승려 출신으로 구성된다. 송학의 증언에 의하면, 승려 중에서 친자식에게도 자신이 내사의 조직원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관헌에게 체포되어도 내사의 비밀을 토설(吐說)하지 않을 '정신이 강고(强固)'한 승려를 가려 뽑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500년 동안 내사의 존재를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 즉 내사가 승려를 단원으로 뽑고, 대단히 강고한 내적 결속력과 비밀을 수호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이 당취를 떠올리게 된다. 그렇다고 내사=당취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섣불리 말하고 싶지는 않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보원 · 송명초 스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 곧 신빙성이 높은 전승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 개인적 견해는 내사=당취의 상동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외사의 기원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내사의 승려가 환속하여 역시 강도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사에서 그 조직의 발각을 우려하여 이들을 늘 엄중히 감시한다. 그러나 내사원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해지기도 한다. 이때 환속한 내사원이 내사의 규칙을 위반하고 속인으로서 화적단을 조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외사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 속인 출신의 저명한 강도가 외사에 가입하기도 해 적단의 구성원이 복잡해지게 된다. 외사의 기원 역시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른다.

'황성신문'의 자료는 아쉽게도 여기서 끝난다. 좀더 많이, 소상히 기록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거의 같은 시기의 자료가 남아 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는 독립운동사의 사료가 되는 저작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구한말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사회사 자료이기도 하다. 이중에 조선시대 군도의 조직이 소개되어 있어 더할 수 없이 고맙다.

김구가 만난 불한당의 괴수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신민회(新民會)가 결성되자 백범 역시 참여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이듬해 1월5일 일제 헌병대에게 체포돼 징역17년을 언도받고 서대문 감옥소로 이감된다. 백범은 이때 삼남 불한당의 괴수 김진사로부터 조선 전래의 '계통 있는' 다시 말해 역사적 유래가 있는 도적의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이하, '백범일지'는 도진순이 주해한 2002년 발행, 돌베개판에 의한다.)

김구 역시 양산학교 사무실에서 여러 교사들과 함께 지낼 때 이른바 활빈당이니 불한당이니 하는 비밀결사가 마을이나 읍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하던 것을 연구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활빈당과 불한당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는 식으로 민활하였기에 관에서 도저히 잡을 수 없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언젠가 독립운동에 필요한 견고한 조직과 민활한 훈련을 위해 그들의 결사와 훈련을 몇 달 동안 연구하였으나 소득 없이 실패하였다. 김구가 양산학교에 있었던 것은

1909년이다.

강재언의 연구(활빈당 투쟁과 그 사상, ‘근대조선의 민중운동’, 풀빛, 1982)에 의하면 활빈당은 1899년부터 1904년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활빈당이란 이름이 나온 문헌을 증거로 삼았던 것이고 실제로는 이후에도 계속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김진사의 자료는 앞의 ‘황성신문’의 자료와 불과 3년 정도의 차이가 나니, 비교해보면 좋을 것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조선시대 도둑의 조직과 관습을 추적해보자. 먼저 김진사의 말을 인용한다.

“조선시대 이전은 상고할 수 없으나, 조선시대 이후 도적의 계파와 시원은 이렇습니다. 도적이란 이름부터 명예스럽지 않거든 누가 도적질을 좋은 직업으로 알고 행할 자 있으리오만, 대개가 불평자의 반동적 심리에서 기인된 것이외다. 고려말 이성계가 신하로서 임금을 쳐서(以臣伐君) 나라를 얻은 후, 당시에 두문동(杜門洞) 72현 같은 사람들 외에도 고려 왕조에 충성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 많았을 것이오.

양대 도적 목단설과 추설

그러한 지사들이 비밀리에 연락 혹은 집단하여 가지고, 약한 자를 구제하고 기운 것을 붙들고자(濟弱扶傾) 하는 선의와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보복적 대의를 표방하고 구석진 곳에 동지를 소집하였습니다. 조선의 은총과 국록을 먹는 자, 백성을 착취하는 소위 양반이라는 족속과 부유한 자의 재물을 탈취하여 빈한한 백성을 구제하였는데, 나라에서 도적이란 이름을 붙여 가지고 500여 년 동안 압박 · 도살하여 온 것이외다.”

김진사는 두문동 72현 같은 반체제 세력을 군도의 시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보원 스님의 말과 아주 흡사하다. 보원 스님은 “땡추들이 힘을 모으게 된 것은 불국토의 현실화에 대한 열망 못지않게 고려 유민의 망국한이 조선조의 저변을 흐른 까닭”이라며 고려 유민의 망국한을 들고 있지 않은가. 고려 유민과 군도는 어떤 식으로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다만 김진사는 불교와의 관련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따지기로 하고, 김진사의 말을 더 들어보자.

김진사가 전하는 군도의 조직은 이렇다. 강원도에 근거를 가진 도적을 ‘목단설’이라 하고, 삼남 즉 경상도 · 전라도 · 충청도의 도적을 ‘추설’이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북대’라는 것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이 임시로 작당하여 민가나 털고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다. 목단설과 추설의 도당은 서로 만나면 초면이라도 동지로 인정하고 서로 돕지만, 북대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적대시하는 규율이 있어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사형(死刑)에 처했다고 한다.

추설과 목단설, 그리고 북대는 송학이 실토한 내사 · 외사와 일치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추설과 목단설을 승려를 중심으로 한 도적 조직으로 본다면, 이것은 송학의 내사에 해당하고, 북대는 외사에 해당한다. 물론 송학이 말한 외사는 원래 내사의 구성원이었다가 떨어져나온 자와 민간인 출신의 강도가 결합한 형태를 띠는 것이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 한데 목단설 · 추설이 북대를 적대시하

여 만나면 무조건 죽인다는 과도한 적개심은 아마도 그들의 조직에서 떨어져나간 존재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추설과 목단설은 앞의 보원 · 송명초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점이 있다. 목단설은 강원도에 근거를 가진 도당이고, 추설은 경상도 · 전라도 · 충청도의 도당이다. 지리산은 알다시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걸쳐 있으니, 보원 스님의 말과 일치한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할 때 도적단에 승려가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것, 또 그들이 중심적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추설 · 목단설이 승려로 조직된 것인데 반해, 김진사의 군도조직은 승려에 관한 말이 없다.

군도의 소굴이 된 사찰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연결시킬 꼬투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김진사는 추설과 목단설이 1년에 한 번 내부의 공사(公事)를 처리할 때 반드시 큰 시장이나 사찰에서 모인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이 사찰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또 김진사의 지휘로 하동(河東) 화개장(花開場)을 털었을 때 쌍계사에서 장물을 분배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하동 화개장과 쌍계사는 지척지간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쌍계사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절이 아닌가. 이곳은 원래 군도의 소굴이거나 아니면 군도세력과 협력의 관계에 있는 사찰임이 분명한 것이다.

여기서 나는 어렴풋이나마 김진사가 추설(그는 원래 삼남의 '불한당'이었다)이고, 곧 지리산계의 땡추와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찰과 군도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숙종실록'의 자료를 들 수 있다.

"대저 불가(佛家)의 학설은 사람의 심술(心術)을 무너뜨리고, 어리석은 백성을 속여서 유인하여 사찰(寺刹)이 팔도에 두루 차 있습니다. 양민(良民)의 아들이 군역(軍役)을 피하려고 꾀하여 다투어 모두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고, 흉년에 이르러서는 또 도둑 소굴이 됩니다." (숙종실록 23년 5월 18일, 이유제(李惟濟)의 상소)

양민이 군역을 피해 승려가 되고, 흉년이 들면 군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구한말에도 볼 수 있다. 김윤식(金允植)의 '속음청사(續陰晴史)' (광무 4년 10월 조)에 의하면, 활빈당이라 칭하는 양남(호남 · 영남)의 군도가 경주의 운문사, 양산의 통도사를 근거지로 삼고, 10명에서 100명씩 무리를 이루어 부민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곧 경주 운문사, 양산 통도사가 활빈당의 소굴이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백범일지'의 김진사의 조직이나 아니면 당취 조직과 어떤 구체적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찰과 평소의 모종의 협조적 관계가 없으면 사찰이 군도의 근거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소설 '장길산'으로 유명해진 사건을 들어보자. 숙종23년 승려 부운(浮雲)이란 자가 승려 수십명을 각도의 사찰에 파견하여 거병범궐(擧兵犯闕)할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정석종 교수의 숙종 연간 승려세력의 거사계획과 장길산, '조선후기 사회변동 연구' 일조각, 1983)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두 가지가 매우 흥미롭다. 첫째는 이들이 고려조의 충신인 정몽주나 최영의 후손에게서 새 왕조의 왕을 뽑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 땡추나 추설 · 목단설의 고려에

대한 충성 의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숙종시대의 대적(大賊) 장길산 부대와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소 승려 세력이 군도와 긴밀히 연통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땡추와 추설 · 목단설의 상관성은 이들이 단순한 생계형 도적이 아니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보원스님은 "땡추들의 명분과 과제는 단연 현실 개혁적이었으며 혁명사상의 성취"라 하였다.

김진사의 도당 역시 그런 체제 저항적 요소가 충만하다. 김진사는 백범에게 백범의 출신지가 황해도임을 상기시키면서 황해도 청단(靑丹) 장을 치고 곡산(谷山)군수를 죽인 사건을 자신이 영솔하여 한 일이라고 말한다. 양반의 행차로 가장하여 사인교를 타고 구종 별배를 늘어세우고 시장을 턴 뒤 질풍뇌우처럼 곡산군아를 습격하여 인민을 '짓밟아 어육(魚肉)'으로 만든 군수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땡추처럼 체제 저항적인 의적의 이미지가 뚜렷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도둑들의 입당식

군도를 소재로 한 한글소설 '홍길동전'과 '경국대전'의 도적에 관한 부분들

이제 군도의 조직 내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내사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장 큰 우두머리가 별유사(別有司), 별유사를 보조하는 자가 부유사(副有司)다. 이하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영감(令監) 제반 사항을 지휘함
중년(中年) 유사 영감의 지휘에 따라 활동하는 자
만사(萬事) 회계 사무
종도(宗徒) 졸병

별유사는 내사 조직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도둑들의 민주화!). 그외는 별유사가 추천한다. 다만 사중(社中)에 서류가 없어 상세한 것은 모른다고 한다.

목단설과 추설의 내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각 설의 최고 수령을 '노사장(老師丈)'이라 한다. 이것은 내사의 별유사와 같은 것이다. 그 아래의 총사무를 유사(有司)라고 한다. 내사의 부유사나 영감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목단설 · 추설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 이것이 내사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도 따라서 미상이다. 특기할 것은 목단설 · 추설은 지방의 하부 조직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 지방의 책임자가 있으니, 이들도 유사라고 부른다.

목단설 · 추설의 조직원은 이렇게 선발된다. 각 설의 도당은 소수정예주의다. 각 설의 노사장은 1년에 각 분(分)설에 자격자 1명을 정밀하게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자격자가 되는 조건은 첫째 눈빛이 굳세고 맑을 것, 둘째 아래(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맑고, 셋째 담력이 강실(强實)할 것, 넷째 성품이 침착할 것 등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 보고하면, 설의 지도부에서 비밀리에 조사하여 그 합격자를 도적으로 만든다.

노사장의 명령에 의해 책임 유사는 자격자에 접근한다. 자격자의 기호 술 · 미색 · 재물 등으로 극진히 환대하여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워진 뒤 어느 날 밤이 깊어진 뒤 어떤 집 문전에서 잠깐 기다리라 하고는 사라진다. 이내 포교로 변장한 자가 자격자를 포박하여 70여 가지의 악형을 가하며 도둑

으로 모는데, 스스로 도둑이라고 실토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끝내 아니라고 고집하면 결박을 풀고 따로 은밀한 장소에서 술과 고기를 먹인 뒤 입당식을 거행한다.
입당식 장면이 재미있다. 김진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

"입당식에는 책임 유사가 정석(正席)에 앉고, 자격자를 앞에 꿇어앉히고 입을 벌리라 한 뒤 칼을 빼 그 끝을 입안에 집어넣고, 자격자에게 '위 아래 이빨로 칼 끝을 힘껏 물라' 호령합니다. 그리고 칼을 잡았던 손을 놓고 다시 '네가 하늘을 쳐다보아라. 땅을 내려다보아라. 나를 보아라' 호령한 뒤, 다시 칼을 입 안에서 빼 칼집에 넣고 자격자에게 '너는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사람을 안즉 확실히 우리의 동지로 인정한다' 라고 선고합니다."

이렇게 신고식이 끝나면 정식으로 강도질을 한 차례 하고 장물을 분배해준다. 이런 식으로 몇 번 강도질에 동행하면 완전한 도적이 되는 것이다.

도적단은 어떤 방식으로 기율을 유지했는가. 김진사의 말에 의하면 4대 사형죄가 있다고 한다. 첫째 동지의 처첩과 간통한 자, 둘째 체포 · 신문 때에 자기 동료를 실토한 자, 셋째 도적질할 때 장물을 은닉한 자, 넷째 동료의 재물을 강탈한 자다. 이들은 발각되면 사형이다. 이들의 법은 극히 엄하여 포교를 피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어도 도적의 법에 사형을 선고받고는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고 한다. 만약 도적질이 하기 싫다든지 늙어서 도적단에서 빠지고 싶다고 청원을 해도 동지가 위급한 경우 자신의 집에 숨기를 요구할 경우 이 한가지만은 반드시 응한다는 서약을 받고 행락(行樂 · 도적질)을 면제해준다.

잔혹한 배신자 처단의식

이들이 수백년의 조직을 유지해온 것은 엄격한 내부 단속과 함께 외부의 권력기관과 연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각 설은 사환계(仕宦界 · 관계)에, 특히 포도청과 군대에 요직을 갖고 있다. 도적이 어떤 도에서 잡힌 뒤 그가 북대이면 지방 관청에서 처결하고, 설이면 서울로 압송하게 한다. 만약 도당을 털어놓으면 사형하게 하고, 자기 사실만 공술하면 기어코 살려 옷이나 음식을 공급하고 뒤에 출옥시킨다.

이상이 현재 도적의 입당식에 관한 유일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보원 스님의 말에도 땡추의 입당식에 관한 것은 전혀 없다. 대신 보원 스님은 땡추의 조직에 대해서 심진사보다 훨씬 더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땡추의 법을 어긴 자를 정죄하는 참회법이란 것이 있는데, 실정법을 초월한 제도로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 지리산계보다 금강산계가 더욱 엄격했다는 것이다. 지리산계는 당류(黨類)가 금기를 범했을 경우 신체에서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굴절시키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도벽이 있을 경우 손목을 자르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금강산계에서는 아량을 베풀어 범법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든가 그대로 타살을 강행하여 당류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 이문구는 보원 스님의 말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요약해보자.

갑이라는 당원이 파계를 범하면, 그것을 안 최초의 땡추는 여러 곳에 기별하여 사람을 모은다. 성원이 되면 재판이 열리는데, 만약 유죄 쪽으로 기울면 갑을 잡으러 두 사람이 떠난다. 편의상 두 사람을 을과 병이라 하자. 갑이 있는 절을 찾아가서 갑에게 접근하여 갑에게 세숫물, 빨래, 청소 마른

일, 진 일, 심지어 발 씻을 물까지 대령하는 등 무상(無償)의 봉사를 하여 갑의 환심을 산다. 을과 병은 서로 모른 체한다.

셋이 친숙해지면, 을과 병은 금강산 여행을 가자고 갑을 꾄다. 갑과 을이 금강산으로 떠나면 병은 각처의 땡추들에게 통문을 띄운다. 땡추들은 우연히 갑과 만나는 것처럼 한둘씩 시간을 두고 갑과 일행이 된다. 마침내 원래 정했던 장소에 도달한다. 이때까지 갑은 전혀 사정을 모른다. 갑을 처단하는 의식이 집행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그 처형의 방식이란 이렇다.

땡추의 일행 중에서 미리 돼지고기를 준비해온 사람이 돼지고기를 내놓으면서 "스님 원로에 공양이 부실하여 속이 허하실 텐데, 여기 성계육이나 좀 맛보시지요" 하면 갑은 비로소 사정을 알게 된다. 갑이 살아나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갑이 선승이라면 선문답을 통해서, 갑이 강백(講伯)이라면 '금강경' 이나 '화엄경' 등에 대한 물음을 통해 땡추들의 입을 다물게 할 능력과 품위가 있으면 용서받을 도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죽음이다.

"너는 양민의 피땀에 영글은 시주밥과 그들의 한숨이 날줄과 씨줄을 낳은 옷에 살이 찌고도 스스로 근본을 저버렸으니, 그로써 혜명(慧命)을 모독한 죄는 실로 하늘을 덮고도 남는다. 하물며 이승에 목숨을 붙여 백성들의 고달픔에 덤이 되게 할 것이랴. 마땅히 너로 하여금 오늘로써 이승의 자취를 거두게 함이 법당의 크나큰 자비로다.…"

이런 말을 마친 땡추들은 갑을 층암절벽으로 밀어넣거나 구덩이에 산 채로 묻는다. 세상과 영원히 하직시키는 것이다. 이런 잔혹스러울 정도로 내부 조직을 다졌기에 그들의 말대로 수백년을 전해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도의 일이 도둑질이니 이 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군도의 활동에 대한 자료는 조선시대의 관찬사료에 풍성하게 남아 있다. 우선 군도의 규모를 보자. 임형택 교수에 의하면, 성종 말년인 1489년 김막동 부대가 평안도를 중심으로 7년간 활동했고, 1500년경 홍길동이 경기 · 충청과 경상 북부에 걸치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1530년경 순석(順石) 부대가 전라 · 충청 · 경기 삼도에 걸쳐 투쟁했는데, 일당 39명이 관군에게 붙잡힌 뒤 연루되어 체포된 사람이 170여 명이었다고 하니 굉장한 규모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임꺽정 부대가 출현한다.

이건 조선전기의 기록이다. 조선후기에는 군도에 대한 보고가 더 많아지고, 내용도 상세해진다. 영조28년 3월 비변사에서 보고한 김포에 침입했던 명화적을 예로 들어보자.

"김포군의 명화적(明火賊) 수백명이 말을 타고 깃발을 세우고서 포를 쏘고 고함을 지르며 곳곳에서 도둑질을 하여 다친 사람이 많은데, 본군(本郡)에서 감영(監營)에 보고한 것이 지극히 더디었으니, 군수 윤득중(尹得中)은 먼저 파직시킨 뒤에 잡아오고 감사(監司) 및 토포사(討捕使)는 중추(重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포청(捕廳)으로 하여금 기찰(譏察)해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영조실록 28년 8월 3일)

명화적이 수백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또 영조41년에 조정에 보고된 군도의 조직원은 약 300~400 명이었다고 한다. (영조실록 41년 12월 27일) 조선후기의 군도는 수백명 단위로 조직되는 경우가 허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화적이 말을 타고 포를 쏜다고 한 것도 주목거리다. 포는 총을 말한다. 즉 기동성이 높은 말과 총으로 무장한 세력이었던 것이다. 이 정도로 무장한 조직을 움직이려면 당연히 엄격한 위계와 결속력을 갖지 않고는 안된다. 이쯤 되면 지방 관아 습격은 일도 아니다. 조선후기의 관찬사료에 지방관청을 군도가 공공연히 공격하였음에도 지방관이 변변히 저항도 못하였다는 숱한 기록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위에 예시한 내용이 도적의 외부에서 기록한 것이라는 흠이 있다. 이런 점에서 '백범일지'의 김진사의 자료는 도적 스스로 공개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화개장터 습격사건

설이 조직원을 모두 불러모으는 것을 '장 부른다'고 하는데, 만약 목단설과 추설이 공동으로 장을 부를 경우 '큰 장 부른다'고 한다. 각 설이 단독으로 조직원을 불러모으면 그냥 '장 부른다'고 한다.

큰 장을 부르는 것은 원래 설의 공사(公事)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그때에 큰 시위 삼아 도적질을 한 차례 한다고 한다. 큰 장을 부르는 통지에 도 각 지방 책임자에게 부하 누구누구 몇 명을 파송하라 하면 어김없이 시행되는데, 흔히 큰 시장이나 사찰로 부른다.

이때 각지의 도둑들이 모이는데, 모두 형형색색으로 변장을 한다. 돌림장수로, 중으로, 상제로, 양반행차로, 등짐장수 따위로 말이다. 김진사는 그 일례로 하동 화개장을 친 일을 들고 있는데, 흥미진진하기 짝이 없다.

화개장은 유행가 가사처럼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지점이다.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 속에 도둑들이 섞인다. 중장(中場)이 되면 상여를 비단으로 꾸민 호사스런 행상(行喪)이 장에 들어서는데, 상주가 삼형제고 뒤에 복상제와 호상하는 사람들도 많다. 상여를 큰 술집 앞에 내려놓고 상주들이 곡을 한다. 상여꾼들은 술을 먹는다.

이때 호상객 한 명이 '갯국' 즉 요즘말로 '보신탕'이요, 예전말로는 '개장' '개장국'을 사서 상주에게 권한다. 상주에게 개장국이라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망발 중의 망발이다. 하지만 근신중인 상주가 아닌가. 온건한 말로 거절한다.

"무슨 희롱을 하다못해 상제에게 갯국을 권하는가. 그리 말라."

호상객은 들은 척도 않고 계속 권한다. 그리하여 상주와 일대 전쟁이 벌어진다.

"아무리 무식한 놈이기로 초상난 상제에게 갯국을 먹으라는 놈이 어디 있느냐?"

"친구가 권하는 갯국을 좀 먹으면 못쓰느냐?"

다른 호상인들도 싸움을 말리느라고 야단을 치고, 이래서 장터의 장꾼들은 모두 싸움판에 집중되고

웃음이 낭자해진다. 이때 상주가 죽장을 들어 상여를 부수고 널판을 깨어 널의 뚜껑을 잡아 제치면, 시체는 없고 오연발 장총이 가득하다. 이때는 이미 총이 상용화된 때라 오연발 장총이다. 상주 · 호상꾼 · 상여꾼들이 총 한 자루씩 들고 사방 길목을 지키고 시장에 놓인 돈과 집에 쌓아둔 부상(富商)의 돈을 모두 탈취한다. 쌍계사에서 분배하였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도둑이 영웅되는 사회

한바탕의 도적질은 이렇게 끝난다. 김진사의 말에 의하면 계통 있는 도적들은 도둑질을 자주 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차례다. 장물을 나누는 것도 예로부터 정한 규칙에 의해서 한다. 백분의 몇은 노사장에게로, 그 다음 각 지방의 공용, 몇 분은 조난당한 유족의 구제비, 이렇게 몇 분을 제한 후 극단의 모험을 감수한 자에게 장려금까지 주고 나서 평균 분배한다. 따라서 장물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은 있을 리 없다는 것이다.

김진사는 옛날에는 해마다 큰 장을 한 번씩 불렀으나, 이 시기에는 재알이(왜놈)가 하도 심하게 구는 탓에 폐지하였다고 한다. 일제의 경찰력이 아마도 군도의 활동을 크게 제약했을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자 군도는 서서히 사라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양산박의 군도를 그린 '수호전' 은 지금도 읽힌다. 영화로 비디오로도 가공된다. '홍길동전' 은 조선시대에 이미 소설화되었으며, '임꺽정' 은 일제시대에, '장길산' 은 해방 이후에 모두 소설화되었다. 소설이 아닌 실제의 홍길동과 임꺽정, 장길산이 과연 의적이었을까. 그들은 과연 탐관오리만을 제거하는 그런 도둑이었던가. 사료를 보건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아름다운 것으로 남는다. 부정직한 체제, 지배자에 대한 저항만으로도 그들은 아름답게 기억된다. 도둑을 영웅시하는 사회는 어딘가 곪아 있는 병든 사회다. 병든 체제에 대한 저항이 군도가 형성한 이미지인 것이다.

임꺽정 부대가 활동했을 때 사신은 '실록' 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 도적이 생긴 것은, 도적질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기한(飢寒)이 절박하여 부득이 도적이 되어 하루라도 연명(延命)하려고 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니, 그렇다면 백성을 도적으로 만든 자가 과연 누구인가. 권세가의 문전이 시장을 이루어 공공연히 벼슬을 팔아, 무뢰한 자제들을 주군(州郡)에 나열(羅列)하여 백성들을 약탈하게 하니 백성이 어디로 간들 도적이 되지 않겠는가." (명종실록 16년 10월 17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윤원형(尹元衡)과 심통원(沈通源)을 두고 "물욕을 한없이 부려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 데도 못하는 짓이 없는" 대도(大盜)로 지적하고 있다.(명종실록 16년 1월3일) 조정에 있는 권세가가 대도란다. 뭐 생각나는 것 없는가. 신문이며 방송에 나날이 나는 소식을 보니, 과거 군도가 설치던 시대와 지금이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것 같다. 땡추와 김진사가 사뭇 그립다.

민란의 시대 – 고종 때의 민란들

2013.06.19 17:19

왜 민란의 시대인가? 19세기는 중세봉건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이행해가는 변혁기였다. 봉건사회 내부의 모순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 계층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면서 갈등, 대립이 격화된 시기였다. 특히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조선사회의 해체와 갈등이 더욱 급격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피지배층인 민중에 대한 수탈, 억압이 극심해지면서 민중들은 생존을 위한 자기 보호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제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이에 민중들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수탈을 벗어나고자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 민란, 곧 농민항쟁이다. 19세기 전반기는 민란 형태의 직접적인 봉기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862년 이후의 시기는 이른바 민란의 시대였다고 하겠다.

1862년의 전국적 농민항쟁을 경험한 뒤 농민들의 운동역량은 크게 고양되었다. 농민들은 다수의 힘으로 폭력적인 저항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데 매우 익숙해져 있었다. 축적된 항쟁경험들은 누군가의 지도에 이끌리지 않고서도 농민들 스스로 항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농민역량이 고양을 지배층은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여의치 않으면 무리를 지어 난리를 일으키고, 기강과 분수를 어기며 넘보는 일을 호쾌한 일로 여기고 있어 교화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여겼다.

고종 시대는 민란의 발생이 일상화된 시기였다. 1862년 농민항쟁이 폭발한 이후 대원군 집권기에는 상대적으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나, 1880년대 이후 다시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하여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끊임없이 일어났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민란을 예사로운 일로 여기기조차 하였으며, 민인들도 민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통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한 인식은 "백성들이 모두 덕을 생각하고 의리를 두려워하니 반드시 부들이해서 (민란을) 일으켰을 것"으로 인식하는 지배층의 모습에서나, "감히 관리를 죽이거나 성지를 약탈하지는 않고 오직 깃대를 세우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국왕의 회유가 있으면 곧바로 평정"되는 농민들의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고종 시대에 이처럼 많은 민란이 일상화되고 만성화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부적, 외부적 모순의 중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62년 농민항쟁은 봉건사회의 구조적 변혁을 추구하였다. 농민들은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토지를 소유할 것을 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농민의 요구를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곧 지주제를 해체시킬 만한 능력을 지니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지주제의 해체 대신 균등한 조세 부과를 통해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바로 삼정이정책의 시행이었다.

고종 또한 1862년의 농민항쟁에서 제기되었던 사회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왕위에 올랐다. 나이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실권을 장악한 대원군은 일련의 사회안정화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는 호포법, 사창제 등의 조세개혁을 실시하여 대내적인 위기를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토호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으나 농민들의 사회변혁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곧 농민들의 사회변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최

소한의 대응책밖에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고종 즉위 한달 만에 황해도 풍천의 민란(1863년) 발생을 시작으로, 칠원(1868년), 통영(1869년) 등에서 잇따라 민란이 일어났다. 이와같은 항쟁들은 철종 때 발생하였던 민란들과 마찬가지로 반봉건을 지향하였다. 결국 고종 때에 계속적으로 발생한 민란은 이미 해체기에 있던 조선 봉건사회의 해체를 더욱 촉진하는 한편 동학농민전쟁의 원류가 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전까지 고종 때 발생한 민란은 대략 59회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이며, 중앙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민란까지 합하면 100여 건에 달한다. 시기적으로는 유례 없을 정도의 한재가 발생한 1888년을 시작으로 1893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세기 중엽의 조선 사회는 외세의 침투로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 시기에 서구 열강의 조선 침투가 노골화되면서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라는 전쟁을 수행하였다.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음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척화비를 세우는 등, 구미 열강과의 수호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그러나 1873년(고종 10) 대원군이 실각하고 민씨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자, 조선정부의 국내외 정책에 수정이 가해졌다. 그러한 변화의 물결은 열강과의 수호조약 체결로 귀결되었다. 이제 조선 봉건사회는 반봉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세의 침략이라는 또다른 모순이 추가된 것이다.

대외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농민항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1870년대에는 경상도 울산부(1875년) 외에는 이렇다 할 민란이 없었다. 그러나 황해도 장연현(1880년)의 민란은 소강상태에 있던 민란의 재연을 예상케 하는 움직임이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민란 발생 양상은 1883년 이후 곳곳에서 재연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자본주의 열강의 침탈과 지배층의 극심한 수탈, 착취는 농민들의 삶에 최소한의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농촌 경제의 파탄으로 농민층의 불안과 불만이 더욱 팽배해갔다. 게다가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의 정치적 위기는 국가체제를 동요시키면서 농민저항의 움직임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888년을 계기로 민란은 더욱 격화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갔다. 민란은 해마다 일상적으로 일어났으며, 인접 지역으로 쉽게 확산되었다. 마침내 1890년대 초에는 민란 발생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일상화되었다. 특히 1893년에는 민란의 절정기라 할 정도로 민란이 발생하였다. 이 해에만 65건 이상의 민란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폭발적인 민란의 전개는 결국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민란형태의 농민항쟁은 조직적인 농민전쟁의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렇듯 민란이 폭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이 시기 조선왕조가 온갖 쌓인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제 국가권력은 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였다. 더욱이 거듭된 자연재해와 온갖 세금 징수 명목의 증가로 농민층의 납세 능력은 한계점에 달하였다. 그러나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는 극에 달하여 농민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었다.

또 한편으로 외세 자본세력의 침투로 인해 농촌지역도 급속도로 식민지적 무역구조인 미면 교환체제로 편입되어갔다. 일본으로의 미곡 수출로 인해 곡물 가격은 상승하였으며, 농민들은 등골이 휘도록 일하고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리하여 민심은 매우 흉흉해졌다. 이 시기 이씨왕조가 망한다는 참언이나 (정감록)의 후천개벽설이 유행하면서 민심은 빠르게 이탈되고 있었다.

한편 고종조의 민란은 전국 팔도에서 골고루 발생하였다. 이는 철종 때의 임술민란이 주로 삼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요컨대 민란이 전국적으로 확

산되고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철종, 고종 때 모두 민란이 발생한 곳은 울산, 성주, 함흥, 황주 등지이고, 고종 때만 두 번 발생한 곳이 수원, 낭천 지역이다.

이 시기 농민항쟁의 특징은 도 단위로 일정한 지역,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호 밀접한 연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1888년에는 함경도, 1889년에는 강원도, 1892-1893년에는 평안도 및 전라도 등 항쟁의 규모가 도 단위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1893년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련의 민주항쟁은 지역적으로 볼 때, 1894년 농민군의 활동지역과 대부분 중첩되어 농민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지작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한 민란의 지도자인 오지영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 농민군의 지도부가 되었다. 덕산에서 봉기를 주도한 나성, 이영탁 은 민란을 일으킨 후 도망하여 농민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같이 1893년의 민란의 주체는 곧바로 1894년 농민항쟁의 주체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대원군 집권기의 3대 민란

풍천민란

이 사건은 향촌사회의 권력을 놓고 향임층과 서리, 군교층의 대립이 수취제도 운영의 부정과 얽히면서 농민항쟁으로 발전한 것, 즉 향전이 농민항쟁으로 발전한 사례이다.

풍천의 조세 운영은 대부분 토지에 집중되고 있었다. 많은 조세가 모두 토지에 집중된 결과 토지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한 향임배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들은 조세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던 현직 유리(지방 관아의 이방 아전)와 상정색을 교체하고자 하였다.

향임들은 우선 향회를 열어 "고을의 폐단과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직 유리인 박인희와 상정색 이익주를 부민인 김낙기와 김용운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고 통문을 돌려 농민들을 동원하였다. 이때 농민들은 만약 기일을 어겨 나가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징수하고, 나아가 집을 부순다고 하여 공동체적 강제에 의해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동원된 수백 명의 민인들은 1863년 12월 26일 관아로 들어가서 유리이 교체와 더불어 7개 항에 달하는 읍폐의 혁파와 원장전의 반환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항쟁은 평화적인 시위로 끝나지 않았다 사태가 처음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자, 통문을 돌려 농민군을 동원한 윤장언은 "슬프다! 저 우매하고 완고한 무리들이 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통문을 발해 무리를 모았으나 우리들의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다' 면서 무수히 난타를 가했다. 겨우 살아서 집에 돌아왔다"고 애통해하였다.

이제 농민들은 향임층의 통제를 벗어나 폭력적인 저항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통문을 돌려 정소운도을 주도하였던 향임층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농민들을 동원하였으나, 농민들은 향임층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행동으로 나아갔다. 결국 향임층의 계획은 어긋나게 되었으며, 그들 또한 농민들의 공격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농민들의 저항이 자신들에 대한 교체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된 유리 박인화와 장교 안원봉 등은 사령들을 동원하여 모여 있는 농민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많은 농민들이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일단 관아에서 물러나와 해산하였다.

이때 동원된 민인들은 주로 "나이 어리고 어리석은 부류들"이었다. 읍내 공격을 주도하여 처벌된 황기장, 조여익, 조양록 등은 마땅한 생업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벌금

을 걷거나 집을 부수겠다는 향임들의 말에 이끌려 난에 참여하였다. 곧 민란에 참여, 동원된 사람들 대부분이 최하층 빈민이었던 것이다. 벌금을 낼 정도의 여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벌금을 내고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대부분 머슴이나 노비를 대신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민란 발생 후 중앙정부에서는 풍천부사 신명은을 파직하는 한편, 의금부에 압송하여 곤장을 치고 금갑도로 유배보냈다. 또한 항쟁을 유발시킨 유리 박인희, 향임 윤장언 등은 엄형 2차 후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되었다. 이러한 조처는 철종 때의 농민항쟁에 따른 처벌에 비해 아주 가혹한 조처였다. 결국 대원군 정권은 민란의 원인을 향촌사회 유력자층이 수령의 통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쟁에 가담한 농민층에 대해서는 철종 때보다도 훨씬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 철종 때에는 항쟁의 주도자는 효수되었으나, 풍천민란의 주모자로서 황기정 한 사람만 2차례 형장을 맞은 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되는 처분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 나머지 조여익, 조양록 등은 한 차례 형장을 맞은 후 석방되었다.

또한 수령과 책객(조선시대 고을 원의 비서 사무를 맡아보던 사람) 및 유리가 횡령한 원징전은 모두 반환조처하고 책객 송지겸은 황해 감영에 압송하여 풍천민들이 보는 가운데 엄형 1차 한 후 원악도에 유배보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조처로 풍천민란은 일단락되었다.

칠원민란

1868년 가을에 발생한 칠원민란은 현감 조현택의 부정, 탐학에 항거하여 일어났으나, 그 외의 항쟁 원인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밝혀져 있지 않다.

난의 주동자인 황상기, 이도여, 전홍이 등은 통문을 돌려 동리별로 농민들을 동원하고,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집을 부수는 등의 공동체적 의무를 강제하였다.

동원된 수천 명의 난민들은 우선 객사에 모여 통곡하고 등소를 올려 수령의 부정과 고을의 폐단을 혁파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 등소에는 일반 농민들뿐만 아니라 아전들도 참여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농민항쟁에서 아전들이 농민들의 공격대상이 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현감 조현택은 난민들의 공격을 받아 고을 경계 밖으로 쫓겨났다. 난민들은 감옥을 파괴하여 죄수를 석방하였으며, 항쟁에 불참한 사람들의 집을 부쉈다.

주모자 황상기는 통문을 발하고 농민을 모아 관청을 습격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여러 차례 감영에 소장을 올리느라 가산을 탕진한 자"였다. 이는 1862년 진주민란의 지도자인 유계춘이 "읍에 정소하고 감영에 정소하는 것으로 생애를 보냈다"는 것과 함평민란의 지도자인 정한순이 "여러 차례 감영과 중앙에 정소하고 심지어 격쟁까지 행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부세의 공납제적 운영에 따라 발생하던 수많은 정소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농민들을 대신해 소송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곧 농민적 지식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정소운동 과정에서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황상기는 1862년 농민항쟁 당시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농민 반란세력의 일부로 보이는 함안아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도여는 1862년 농민항쟁에 참여했던 자로서, 간신히 풀려나와 소상인으로 전전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회 저변에 변혁을 지향하는 저항세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농민적 지식계층이 농민항쟁을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농민항쟁은 보다 조직화되고 이념화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민란 발생 당시 무근동과 구산면에서는 한 사람도 가담하지 않았는데, 무근동은 주세붕의 후예가 대대로 사는 마을이었다. 농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통문을 돌리자, 그들은 엄중히 꾸짖으며 물리쳤을 뿐 아니라 동구 밖의 출입을 금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난민들이

현감을 내쫓은 후에 마을에 쳐들어와 집을 부수고 불태웠다. 그러나 민란 후에 중앙정부는 이 마을에 상을 내리고 무근동의 원로인 주희상을 참봉에 임명하였다.

난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은 풍천민란의 조처와는 달리 가혹하였다. 병인,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야기된 농민층의 동요를 우려한 중앙정부는 강력한 탄압책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황상기, 이도여, 전홍이, 윤달주 등 민란 주모자들은 모두 효수되었다. 그밖에 등소에 참가한 아전들과 다수의 민란 참여자들은 심한 형장을 맞은 후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민란의 원인을 제공한 현감 조현택은 파직된 후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고 강진현에 유배되니, 이는 통상적인 조처였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변이 일어난 것은 토호들의 무단을 막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곧 향촌사회의 유력자층이 주도하여 일어난 항쟁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칠원민란은 토호들의 주도로 일어나지 않았다. 항쟁의 지도자는 농민적 지식인층이었던 것이다.

통영민란

1869년 여름에 경상도 고성현에서 민란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그동안 고성민란으로 불린 이유이다. 그러나 민란의 발생이 고성현임에는 틀림 없으나, 고성현민 전체가 항쟁에 가담한 것이 아닐, 통제영이 소재한 춘원면민들에 의해 일어난 항쟁이었다.

이 민란의 발단은 고성현 호적감색이 엉터리 호적작성이 문제가 되었다. 천민이 유학으로, 유학이 사천으로 뒤바뀌고, 부와 조 혹은 성과 이름이 뒤바뀌기도 하고, 노와 상전이 구분되지도 않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살아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춘원면의 집강과 약정이 이를 시정하고자 했으나 고성현에서 군전 납부를 독촉하므로 잘못된 호적대장대로 징수를 강행하였다. 고성현의 행정집행기구라 할 수 있는 집강과 약정이 군전 징수를 강행하자, 춘원면민들은 향촌 자치기구로 보이는 민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사정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우선 춘원면 69동에 통문을 발하여 제1차 민회를 개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장을 작성하여 통제사에 올렸다. 이에 통제사는 호적감색을 대령케 하고 식년의 호적대장과 대조하여 잘못된 호적을 고치도록 제결하였다. 통제사의 제결에 따라 호적 수정 작업에 착수하였지만, 한가위 명절로 인해 수정 작업을 마치지 못한 채 민인들이 해산하였다.

8월 16일 다시 통문을 돌려 제2차 민회를 열었다. 이때는 이미 무르익은 무력봉기를 준비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었다. 각 기구마다 한 명의 장정을 출정토록 하고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집을 부수고 징벌하겠다며 농민들을 동언하였다.

민회 장소인 어변정에는 수만 명의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유학 이남준이 엉터리로 호적을 작성한 호적감색 이정권을 질책하는 것을 계기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었다. 난민들에 의해 호적감색 이정권과 그 아들 이인규, 색리 김탁호가 살해되고 그 시체가 불태워졌다. 그 다음 날인 8월 17일 시체를 불태워버린 후에 난민들이 자연스레 해산함으로써 통영민란은 일단 끝났다.

통영민란은 처음에는 민소판행과 공원 등이 중심이 되어 통문 발송과 정소운동 등 합법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폭력적인 봉기의 형태로 전환하면서 이들은 주도권은 상실하였으며, 빈민층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통영민란에서 주목할 점은 걸인이나 소상인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걸인 김원동은 "비록 떠돌아 다니는 걸인이라도 장작 하나를 가져오지 않으면 쫓아낼 것이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장작을 가지고 시체를 불태우는 데 가서 던지고 왔다"고 하여, 협박에 못 이겨 부득이 참여한 것처럼 발뺌하고 있지만, 이들은 실제 항쟁 과정에서 폭력적인 항쟁을 주도하였다. 호적에 입적조차 안되어 집적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이 항쟁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빈민층, 더욱이 향촌사회에서 유리한 계층이 반봉건 농민항쟁으로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제영은 난의 실상을 조사하는 한편, 난의 수창자로 지목된 김봉구, 윤보출, 김명필 등 3명을 효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걸인 3명은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고성현감 심의직은 파직되었고 전 현감 윤석오도 호적 일을 잘못 처리하여 난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죄로 의금부에 압송되었다. 통문을 발한 민소판행이나 공원 등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통제영의 조치가 매우 소홀함을 지적하고 다시 순영에서 재조사하도록 명령하였다. 순영의 조사에 의해 민란의 주모자와 원인 제공장들이 형장을 맞은 후 유배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고성현과 통제영의 관할구역간의 대립도 민란 발생의 한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1900년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통제영이 폐지된 이후에 통제영 소속과 고성군 인민들이 서로 원수처럼 바라보며 물과 불도 같이 쓰지 않는다"는 것처럼 고성현과 통제영에서 관할하는 지역주민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870년 고성현을 고성부로 승격시켜 통제영의 직할 기관으로 편제하였다.

민란의 시대 – 고종 때의 민란들(2)

2013.06.19 17:21

개항 이후 동학농민전쟁까지

개항 이후 동학농민전쟁 전까지 고종 때 발생한 민란은 대략 50여 회에 달한다. 이 시기 민란의 주요 목표는 반봉건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세 자본주의 세력의 침투로 인해 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울산민란

1870년대에 들어와 민란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는 대원군 정권의 반동정치 속에서 앞 시기의 민란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변혁적 국면이 침체된 까닭이었다. 그러나 1870년대에 발생한 유일한 민란이 있다. 바로 1875년 4월 경상도 울산부에서 발생한 민란이 그것이다.

울산민란은 아전 김양서의 공금 횡령이 발단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부정이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과중한 세금(결세)을 거둬들여 공금을 채워넣으려고 하였다. 울산부민들은 과다한 세금 징수에 항의하여 남창과 동천에서 두 차례 집회를 갖고 감영에 소장을 올렸다.

그러나 초기의 평화적, 합법적 집회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격화되었다. 난민들은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관아로 난입해 들어갔다. 그들은 관속들을 난타하고 부사를 고을 경계 밖으로 내쫓고자 하였다. 또한 감옥을 파괴하여 죄수들을 놓아주고 50여 호에 달하는 아전들의 집을 부수었다. 그후 난민들은 경상좌병사 정지용의 설득으로 해산하였다.

민란 발생 소식에 접한 중앙정부는 안핵사를 파견하여 실상을 조사토록 하였다. 안핵사의 보고에 따라 아전 김양서는 효수당했다. 울산부사 정기대와 전 부사 이희성은 아전에게 공금을 유용토록 방관한 책임을 물어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민란 수장자로 지목된 박남표, 김연암, 이층감 등 3인은 효수되었다. 그 외에 다수의 민란 참가자와 아전, 장교배들은 혹독한 형장을 다섯 차례 맞은 후에 외딴 섬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민란에 참가하지 않은 내성면, 상부면, 동면 세 면의 대표들에게는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와 같은 조처로 울산민란은 일단락되었다.

여주민란

1885년 2월 18일 발생한 여주민란의 원인은 1856년 이래 이방 윤보길 일파가 자행한 불법 행위에 있다. 직접적인 발단은 1884년 8월 의정부의 명으로 도결(각종 잡부금을 전세에 부과하여 징수하던 방법)을 혁파하고 환곡의 원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있었다. 원래 도결은 사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전결에 얹어서 징수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징수 방법은 주로 화폐가 이용되었다. 이 도결은 19세기 전반 삼정 문란의 집약적 표현이기도 하며, 1862년 농민항쟁 때 주요 혁파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의 경우 중앙정부의 도결 혁파가 반대로 농민들의 강한 반대를 초래한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화폐로 대납하던 것을 현물로 납부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인상되었음은 물론, 세금을 내어야 하는 호구가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도결 납부 때 납세의 부담이 없던 호구로서 주로 하층 빈농들이었다. 곧 개항 이후 곡물가의 상승과 실질 화폐 가치의 하락에 의한 급속한 인플레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세원이 미곡으로 되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었다. 반면에 실제 가치가 높은 미곡으로의 세입은 중간차익을 노리는 세금 징수자와 중앙정부에 유리하였다.

둘째 조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아전배들의 횡포가 극심하였다. 이들은 부호들과 결탁하여 납세액을 줄여준다든지, 세금이 면제된 전결이나 농사짓지 않는 땅에도 세금을 징수하였다. 더욱이 화폐로 대납할 때 쌀값을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세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을 자행하였다. 이는 결국 도결을 통한 안정적인 조세운영구조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정선민란

1889년 1월에 발생한 정선민란은 군수가 외지인 및 향임배들과 결탁하여 평민들에 대해 탐학을 자행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는 다른 지역의 민란이 아전배들이나 토호들의 불법 탐학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정선군수는 죄 없는 상인들을 붙잡아들여 벌금을 매겨 착취하기도 하고, 불효, 불경죄로 향촌민들을 얽어들이는 등 가렴주구를 일삼았다.

그러나 정선민란의 또 다른 원인은 채광에 따른 문제였다. 개항 이후 사금을 비롯한 광물의 일본 수출과 수공업의 발전으로 광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광무국을 설치하여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채광을 장려하였다. 광무국에서 채광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금맥을 찾기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파헤쳤다. 심지어는 남의 전답이나 묘지까지 파헤치는 등의 횡포를 부려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따라서 한번 광산이 개발되면 그 지역의 많은 전토가 황폐화되어 농민들의 소유권 행사가 침해당하였다. 더욱이 광산 개발로 농사짓지 못하는 전토에 대한 세금 징수가 행해져 농민들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물론 수령과 아전배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일쑤였다.

더욱이 광산 개발에 따른 급속한 인구팽창은 소규모의 안정된 사회를 운영하던 향촌사회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치안 부재에 빠른 도적의 횡행으로 광부와 지역 주민간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였다. 수령들은 이를 빌미로 광부들을 탄압하고 토색질을 자행하여 광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때로는 광부들이 수탈을 견디다 못하여 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888년에 일어난 초원민란이 대표적이다. 정선민란은 결국 광산개발에 따른 폐단으로 지역주민들이 봉기한 것이다.

함창민란

1890년 8월 3일 현감과 이방, 향임배들이 불법 탐학을 일삼는 데 항의하여 함창민들이 봉기하였다.

함창현감은 부호들을 무고한 혐의로 치죄하고는 석방시켜주는 조건으로 5-6만 냥에 달하는 거금을 수탈하였다. 또한 이방 김규목은 관수미 첨가를 통해 중간 수탈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란의 직접적 원인은 관청 근처에 있는 관남지의 준설에서 비롯되었다. 8월 2일에 시작된 준설에는 양반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각 면의 민정, 젊은이들을 모두 징발하여

수천 명의 민정이 동원되었다. 민란의 주모자들은 부역에 동원된 농민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항쟁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그 동안의 폐단을 바로잡자는 여론을 일으키고 실천에 옮겼다.

8월 2일 저녁 양범리에 있는 이장운의 유정점막에 관남지 준설역을 마치고 돌아가던 농민들이 모였다. 이곳에서의 논의에 따라 각 면과 동에 통문이 발송되었다. 8월 3일 아침 농민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정점 앞의 냇가에서 민회가 개최되었다. 민회에 모인 농민들은 "등소는 등소이고 향중에서 일을 보는 자들의 집을 우선 부수자"고 결정하였다. 직접 수탈을 자행한 아전과 향임배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처럼 민회를 통해 결집된 농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있는 것이 이 항쟁의 특징이기도 하다.

당시 항쟁을 주도한 남노선, 이장화는 모두 사족 출신으로, 이들은 읍폐를 감영에 등소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민회가 열리고 농민들이 폭력행사 주장에 따라 사태는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농민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몽둥이로 무장을 한 후 아전, 향임배들의 집으로 쳐들어가 부수고 불태웠다. 봉기 농민들의 모습은 "적병을 향해 나아가는 병사"처럼 조직적이었고 격렬하였다. 봉기 불참자에 대하여는 벌금과 벌책으로 위협하였다. 일종의 공동체적 강제가 동원되어 참여 농민들은 더욱 늘었다.

봉기 농민들은 이방 김규목의 집을 불태우고 관아 앞에 있던 관남지로 모여들었다. 남노선, 이장화는 이때까지도 등소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었다. 이들이 소장을 준비하고 있을 때 흥분한 농민들은 관아로 난입해 들어갔다. 농민들은 수령을 때리고 옷을 찢었으며 수령 임명장을 빼앗은 다음 고을 경계 밖으로 축출하였다. 농민들을 만류하던 남노선과 이장화의 지시는 먹혀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구타당하기까지 하였다. 8월 4일에도 봉기 농민들의 이, 향가와 지주들에 대한 습격, 파괴, 방화가 잇달았다.

5일 임시 겸관 문경현감이 도착하여 농민들에 대한 회유와 민란 주모자 색출에 들어갔다. 그러나 농민들이 각각 자신이 수창자라고 주장하여 주모자 색출은 여의치 않았다. 이때 봉기 농민들은 사건의 본말을 정소하고 세금 과다 징수 폐단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관군의 숫적 열세와 농민들의 심상치 않은 재봉기 움직임에 의해 함창민란 관련자 색출, 체포 작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9일 민란 주모자 남노선, 이장화 등 7명이 체포되고, 19일 조사관 이정재가 관련자 총 22명을 체포, 구금함으로써 함창민란은 일단락되었다.

제주민란

중국 및 일본 어민의 우리 연안에 대한 불법어업은 개항 직후부터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제주 지역에 대한 일본 어민들의 행패는 극심하였다. 1891년 3월에 발생한 제주민란은 일본 어민들의 행패에 대한 항쟁이었다.

일본 어민들은 발달된 어업기계를 이용하여 연안의 고기를 모두 잡아 제주도 어민들의 생업을 어렵게 하였다. 심지어는 일본 어민들은 조업 중이던 제주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빼앗고 그들을 묶어 물 속에 던지며 육지에 올라와 총칼로 주민들을 살해하고 노략질까지 자행하였다. 이러한 일본 어민들의 횡포에 대하여 정부는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여러 차례 일본 공사에게 일본 어민들의 불법행위를 항의한느 데 그쳤다.

결국 제주 어민들의 항쟁은 일본 어민의 침탈을 막아주지 못하는 봉건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항의 표시였던 것이다.

이 난을 통해 제주민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봉건정부에 대한 불만과 아울러 반외

세의 저항의식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제주도민의 반봉건, 반외세의 저항의식은 1898년과 1901년이 제주민란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표출되기에 이른다.

함흥민란

1892년 2월 24일 주남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봉기한 함흥민란은 감사, 아전배, 향임배들의 가렴주구에 의해 발생하였다. 관원과 아전들은 하나의 수탈집단을 형성하여 순영의 존문채 명목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제 징수하였다.

더욱이 쌀이나 곡물을 시중에 내다 팔면 곧바로 존문채를 비롯한 각종 잡세를 거둬들였으므로, 시중에 땔나무와 쌀이 반입되지 않는 등 상업활동이 마비될 정도였다. 더욱이 야간순찰을 하면서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발견하면 붙잡아다 벌금을 징수하여 착복한 것이 3400냥에 달했다. 제사나 아기 분만을 위한 경우일지라도 사정을 보아주지 않았다.

회령민란

1892년 9월 20일 회령부민들이 각사에 통문을 돌려 민회를 열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회령부사 홍시형은 부민들의 움직임을 진압할 목적으로 장교 이한회를 운두사에 파견하여 민회 참석자들을 일일이 조사해 오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이한회는 소기이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아무도 민회 참석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한회는 향도소임 2명을 붙잡아다 매질하여 12명의 이름을 작성할 수 있었다.

그날 운두사민 100여 명이 이한회의 집에 몰려들어 몽둥이와 낫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며 위협하였다. 그러나 이한회가 이름을 적은 명단을 찢고 선처를 약속하여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흩어졌다. 이들이 흩어진 틈을 타서 이한회가 읍내로 도망가자, 운두사민들은 관에 소장을 올리기로 하였다. 곧 이한회의 강압, 이중적 태도가 민란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운두사민 300여 명이 읍으로 출발하였으나, 통문이 전해지면서 수천 명에 이르는 농민들이 읍에 모여들었다. 민들의 처음 의도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겁을 먹은 회령부사가 피신하고 아전과 향임배들이 관아로 숨어들자, 부민들의 움직임은 점차 과격해졌다. 이들은 관아로 쳐들어가 관청 일부를 파괴하고 폐단을 일삼은 아전과 향임배들의 집을 부수었다. 분풀이를 한 후 곧바로 해산하는 다른 민란관느 달리 회령민들은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주도면밀한 항쟁을 계속하였다.

9월 29일 회령민란의 소식이 전해지자, 온성부사가 조사관으로 임명되었다. 회령부민들은 연명으로 상소하여 민폐를 바로잡아줄 것을 호소하였다. 여기에서 향교와 향임의 직책을 억지로 파는 폐단, 향리들의 공전 가렴주구, 중앙저우로의 공물 진상 폐단 등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회령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회령민들의 조직적 투쟁은 부사를 비롯하여 그들의 주된 공격목표였던 향교의 책임자들, 향임, 향리배들을 처벌받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민란은 앞서 전개된 다른 민란과는 달리 한층 게획적이고 조직적인 전개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민들의 의시이 한층 성숙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청풍민란

1893년 청풍민란은 주로 삼정 운영 과정에서 세금의 불법 인상과 과다 징수 등 수취제도

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다. 특히 잡역, 잡세의 징수 기구인 민고의 폐단과 고리대 성격을 가진 관청의 식리전은 지방관이나 아전배들의 자의적인 수탈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민고가 설치되어 운영되던 군현의 농민들은 막중한 세금 부담에 허덕이고 있었다.

"각 고을에는 관고나 민고가 있는데..... 설치된 이래 용도가 절제가 없고 거둬들이는 명목이 없어 백성들의 큰 고통이 되고 있다. ..... 가전 하던 것이 지금은 몇 냥에 이르니, 백성들이 어찌 곤궁하지 않을 것이며, 고을이 어찌 폐허가 되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관고와 민고의 폐단은 심각하였다.

황주민란

1893년 황주민란은 진전과 궁장토의 폐단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황주이 전폐는 다른 지역보다 특히 심하였다. 황주에는 수진궁과 순화궁의 막대한 장토가 있었고, 1890년 경에는 2000여 결이나 추가되고 있었다. 또한 이에 편승하여 기존의 민전이 궁결에 편입되기도 하고 궁결이 사유지화되는 양상도 빚어졌다.

문제는 이들 궁장토에 대해서는 잡역이 면제되는 데 있었다. 궁장토에 대한 면제액은 곧바로 민전을 가진 농민들에게 부과되었다. 그래서 한 농민이 10명 분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토지 수확량으로는 도저히 과중한 세금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궁장토를 경작하는 농민들 또한 도장배들의 과다한 소작료 징수로 인하여 생계조차 힘들 정도였다.

더욱이 1889년 큰 장마가 들어 농사를 짓지 못한 땅이 모두 980여 결에 달하였으나, 이들 땅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었다. 결국 이러한 세 부담은 농민들의 생계유지를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농민들은 이제 생활기반인 농촌을 떠나거나 이와 같은 수취구조에 대해 저항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고부민란

1894년 1월 10일 전라도 고부군에서 민란이 발생하였다. 이 민란은 동학농민전쟁의 전초였다. 이 난은 군수 조병갑의 탐학과 불법 자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당시 고부는 비옥한 농토와 서해안의 풍부한 해산물까지 유통되는 매우 번성한 공르이었다. 조병갑은 이곳에 부임해오자마자 온갖 불법과 탐학을 일삼았다. 핍박을 참다 못한 군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 관아에 몰려가 등소를 올려 폐단을 바로잡기를 호소하였지만, 붙잡혀 매맞고 쫓겨났을 뿐이었다.

군민들은 합법적, 평화적 시위는 폐단을 바로잡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등소 운동의 장두였던 전봉준을 중심으로 무력봉기를 준비하였다. 이 사이에 군수 조병갑이 익산군수로 전보되기도 하였지만, 그는 재취임 공작을 벌여 1894년 1월 9일 다시 고부군수로 재부임하였다.

1월 10일 저녁, 사전 연락에 의해 말목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전봉준의 지휘 아래 관아로 달려갔다. 그러나 조병갑은 이미 피신한 뒤였다. 이들은 관아를 점령한 후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었고, 무기고에서 꺼낸 무기로 무장하였다. 그리고 과다징수한 세금을 농민들에게 환급하고 민폐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만석보를 허물어뜨렸다.

고부민란의 소식이 전해지자, 중앙정부는 조병갑을 직위 해제하여 서울로 압송하고, 그 후임으로 박원명을 임명하였다. 2월 말쯤 신임 군수 박원명이 고부에 부임했다. 그는 조병갑의 잘못을 인정하고 군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폐단을 시정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같은 유화책에 따라 봉기에 참가했던 농민들이 하나둘 해산하기 시작했다. 민란 지도부 또한 다른 곳

으로 옮겨가 고부민란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이 해산한 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오지 않던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에 도착하였다. 그는 봉기 참가자와 주모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고을을 발칵 뒤집었다. 그들은 백성들을 동학교도로 몰아 붙잡아들이고 집을 불태우고 부녀자를 살육하는 등 온갖 횡포를 자행하였다. 결국 이용태의 횡포는 동학교도들의 봉기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반봉건, 반외세 항쟁 제주민란 - 방성철과 이재수의 난, 방성칠의 난

제주민란과 남학당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실패 이후에도 농민항쟁은 계속되었다. 그 항쟁은 종래의 자연발생적, 지역분산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혹은 농민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학당, 활빈당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농민항쟁의 주된 원인은 봉건적 토지소유 문제와 국가의 농민층에 대한 조세수탈, 그리고 이에 기생한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이었다. 요컨대 농민항쟁의 우선적인 목표는 반봉건의 문제였다.

시흥(1898년), 용인(1899년), 경흥(1900년), 임실, 은진, 영산 의령, 창녕(1903년) 등지에서는 과다 세금(결세) 징수와 흉년 때의 무자비한 납세 독촉 등이 원인이 되어 민란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환곡문제를 둘러싸고 제주(1896년), 함흥, 울진(1902년), 간성(1903년) 등지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이중 1898년과 1901년의 제주도 농민항쟁은 대표적인 민란이었다.

1898년의 제주민란은 이른바 '방성칠의 난'이라고 불린다. 방성칠은 본래 전라남도 동북군(현 화순군 동북면) 사람으로 남학교도였다. 그는 1894년 제주도로 건너가 화전민으로 정착해 살다가 1898년 민란을 주도하게 되었다.

남학은 동학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1860년대에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 유포되었던 신흥종교였다. 이 종교는 동학과 마찬가지로 유, 불, 선 3교와 민간신앙까지를 포괄하였으며, 후천세계와 무량낙원의 개벽을 기치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믿은 후천세계는 낮과 밤의 차이나 춥고 더움의 구별이 없으며, 빈부와 귀천의 차별이 없는 '이상향'이었다.

사람들은 800세까지 장수하며, 죄와 고통이 없는 이른바 지상천국이다. 특히 남존여비 의식이 팽배한 당시에 남녀평등이라는 파격적인 기치를 내걸었다. 그런데 후천세계로 가는 과정에는 3재와 8난이 있으며, 인간의 선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후천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남학의 무극대도를 닦아야만 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남학의 기본 교리로 일상사에서 겸허한 태도와 수양을 중시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남학교도들도 용담 대불리에서 봉기하였다. 그러나 남학교도들의 봉기는 농민군과 계획되거나 지원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 다만 자신들이 믿는 후천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독자적인 봉기였던 것이다. 이들은 누런 저고리를 입고 오방기 아래 집결하여 "남문 열고 바라 치니 계명 산천 밝아온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기세당당하게 대벌리까지 진출하였다. 봉기의 주도세력은 주로 교단의 하급 간부들과 일반 신도들이었다.

그러나 교단 지도부의 행태는 상당히 기회주의적이었다. 그들은 난세를 당해서는 오직 도덕을 닦고 안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도들의 집단행동을 극력 저지하였다. 결국 지도부의 방해로 봉기는 좌절되고 말았다. 동학농민전쟁이 실패로 끝난 후 신흥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졌다. 1895년 봄 교주 김광화를 포함한 남학 지도부 8명은 전주 서문 밖에서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

박해를 피해 제주도로 이주한 남학교도 일부는 당시 화전 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대

정군 광청리의 산간지대에 주로 정착하였다. 이들은 종교의식을 해하는 한편 주위 농민들에게 남학의 교리를 전파하는 등 포교활동도 조심스럽게 행하였다. 당시 사회적인 불안과 더불이 민심의 이반 등으로 이들은 정착지를 중심으로 교세를 점차 확대할 수 있었다.

등소에서 무력 항쟁으로

1898년 2월 7일 방성칠을 지도자로 한 광청리 일대 화전민 수백 명이 제주성 내의 관아로 몰려와 소장을 제출하였다. 소장의 주요 내용은 일찍부터 이곳의 농민들에게 불만의 대상인 화전세, 목장세, 및 호포의 과다징수와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제주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각 마을에 통문을 돌렸으며, 도민들은 제주목사가 억누르기 어려울 정도로 술렁대고 있었다. 당황한 제주목사 이병휘는 일단 소장을 받아들여 폐단 시정을 약속하는 등, 평화적인 시위로 해결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제주목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토착 양반들의 집단거주 지역인 조천에서 비밀리에 장정 60여 명을 모아 부족한 관군의 무력을 보충하는 한편, 격앙된 도민들의 움직임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장두인 방성칠을 잡아들이고자 하였다. 제주목사는 철저하게 위장된 술수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방성칠과 화전민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이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제 등소라는 평화적인 방법보다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게 이르렀다.

남하교도의 간부인 방성칠, 강벽곡, 정산미 3인이 지도자가 되어 육지에서 이주해온 화전민 남학교도 수백 명으로 친군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1898년 제주농민항쟁의 주체는 토착민보다는 남학당을 중심이었다.

이들은 각 마을에 통문을 돌려 집집마다 장정 1명씩 내보낼 것을 독려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인 난민들은 모두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몽둥이로 무장하는 등, 일전을 불사하는 대오를 정비하였다. 특히 남학당 출신의 친군은 모두 누런 색의 전립을 쓰고 남자를 써서 몸에 붙여 토착민들과 자신들을 구별하였다. 친군은 명령체계가 잘 짜여진 정예군이었다. 이들의 대오는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이었다.

2월 26일 친군 선도하에 난민들은 3대로 나뉘어 제주성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28일 제주성 밖에 도착한 난민들은 진을 치고 공격채비를 갖추었다. 이날은 동궁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는 목사와 3군수가 모여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방성칠은 중간 착취를 일삼은 향리들을 성 밖으로 내보낸다면 더 이상 사태를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당시 관군으로 수많은 이들을 제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런데도 목사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끝내 회답하지 않았다.

3월 1일 남학당 친군을 선두로 난민들은 성 안으로 쳐들어갔다. 이들은 목사와 대정군수 채구석을 구타하고 성 밖으로 내쫓았다. 혼란의 와중에서 목사를 지키던 이방은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난민들이 죄를 묻고자 했던 향리들은 이미 달아나서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3월 2일 민란 지도부는 관청 앞에 방문을 내걸어 민란의 성공을 알렸다. 그 내용은 "제주, 대정, 정의 3군수를 내쫓고, 환곡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었다.

독립국가 건설을 구상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성칠은 단순한 조세 거부가 아니라 정치적 병혁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제 제주민란은 농민항쟁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상향을 향한 독립국가 건설을 시도하는 단

계로 진행된 것이다.

그는 우선 새로운 왕조의 도래를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들을 인용하여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당설을 제시하였다. 제주도가 임금이 솟아날 방성분야라는 천문지리설과 자신의 성씨가 일치된다는 것, 그리하여 바로 이때가 진인이 해도에서 나타난다는 정감록설이 실현될 때라는 것이다. 나아가 제주도에서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외세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방성칠의 독립국가 건설 구상은 봉건적 수탈과 개항 이후 일본 어민의 침투에 시달려온 농, 어민들의 욕구를 구체화시킨 것이었다. 물론 이 구상은 근대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의 주장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정감록류의 예언서에 바탕을 둔 매우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으며, 제주도에 독자적인 왕국을 건설하려는 데에 그치는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는 정도령이 해도에서 솟아나 군사를 이끌고 육지로 건너가 조선왕조를 멸망시키고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여 새로운 왕조를 연다는 구상보다도 훨씬 제한적이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계획은 먼저 민란 지도부 수준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공식적으로 천명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목표 아래 민란 지도부는 우선 각 포구에 명령을 내려 배의 출입을 막아 육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제주도민의 민란 지도부에 대한 지지는 열성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란 지도부도 재구성되었다. 새로운 민란 지도부는 남학당의 방성칠, 강벽곡, 정산마와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던 김낙영, 최형순 등으로 이루어졌다.

민란 참여자에 대한 전열 재정비와 무장도 이루어졌다. 남학당만으로 구성된 어남군은 민란군의 핵심부대였다. 이들은 무기고에서 꺼낸 총검으로 무장하고 성 안을 장악하였다. 각 마을에서 차출된 장정들 가운데 2천 명을 선발하여 좌, 우 대장 김낙영, 최형순 휘하에 각각 천 명씩 배치하였다. 이들은 성 밖을 지키고 각 마을을 돌면서 무력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렇게 내, 외진의 편제와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한편, 훈련도 병행하였다.

3월 4일 민란 지도부는 제주도에 유배중이던 정병조, 황병욱을 지도부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5일 새벽에 성을 빠져나와 조천으로 도망하였다. 뒤이어 제주성 내에 있던 유배중인 사람들과 토착 양반 일부도 성을 빠져나와 조천으로 도망하였다. 그들은 조천의 토착 양반인 김씨 문중과 연합하여 6일 아침에 민란 대항군인 창의군을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창의군은 조천진 무기고에서 꺼낸 창 80자루로 무장하였다. 그러나 대항군으로 선발된 농민들과 포수들은 김씨 문중의 위세 때문에 억지로 모였을 뿐이다.

6일 낮, 대항군 형성 소식이 전해지자, 민란 지도부는 조천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행하였다. 억지로 모여 있던 대항군 대부분이 공격도 받기 전에 도망가벼려, 민란군은 별다른 싸움 없이 조천을 함락할 수 있었다. 이 와중에 양반가 7-8채가 불탔으며, 김씨 문중의 김희선 등이 죽음을 다하였다. 이렇게 조천 공격이 성공리에 이루어짐으로써 민란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민란의 종말

조천 공격을 성공리에 수행한 민란 지도부는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관군의 공격과 일본군의 내습 가능성에 대비하였다. 허물어진 성벽을 수리하고, 성벽 위에 돌 수만 개를 날라다 놓는 등 방어와 장기전에 돌입하였다.

한편 성 안에 있던 유배자들은 전직 교리 이용호를 중심으로 토착 양반 세력들과 합세하여 다시 대항군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용호는 최형순, 김낙영과 비밀리에 만나 민란 지

도부의 내부사정을 파악한 다음, 지도부 교란책을 제시하였다. 이용호가 내놓은 방안은 최형순, 김낙영이 방성칠에게 일본 복속을 제의하여 그들 세 명이 배를 타고 일본을 향해 가는 척하다가 도중에 방성칠을 죽인 다음, 대항군을 일으켜 구심점을 잃은 민란군을 격파한다는 것이었다.

최형순과 김낙영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나갔다. 중앙 정부군이나 일본군이 공격할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민란 지도부는 최형순, 김낙영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3월 12일 방성칠은 제주도민들에게 중앙정부에 사정을 알리려 상경한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배를 타기 위해 산저포로 갔다. 그러나 민중들 사이에는 일본 복속설이 유포되었다. 이는 대항군이 교란책동으로 이용한 계략이었다. 더욱이 일본 배를 타고 떠나는 방성칠의 행동에 민중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결국 민란 지도부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실질적인 지지기반인 민중들의 불신감을 초래하였다.

배를 타기 위해 포구에 간 방성칠 일행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려 승선하지 못하였다. 13일에는 배를 탔으나 거센 바람으로 배가 나아가지 못하여 되돌아와야만 했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김낙영과 최형순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더욱이 방성칠도 초조한 기색인 그들에게 점차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결국 김낙영과 최형순은 말을 타고 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이들이 성 안에 들어오자 대항군은 성문을 닫아걸고 창의를 선포하고 성 안을 장악하였다. 민란 지도부와 어남군 대부분이 방성칠을 환송하기 위해 포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성 장악은 손쉽게 이루어졌다.

상황의 급격한 변화는 민란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더욱이 일반 농민들조차 민란군에게 더 이상의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방성칠과 민란군은 성을 포기하고 성에서 서쪽 40리 밖에 있는 귀리로 퇴각하였다.

성을 장악한 대항군은 각 마을에 통문을 돌려 농민들을 징발하여 민란 토벌군을 구성하였다. 민란 토벌군은 전열을 갖춘 다음 귀리로 쳐들어갔다. 토벌군 5백 명은 관군 복장을 갖춰 민란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들의 작전은 성공하였다. 민란군은 정부군이 내려온 것으로 착각하여 별다른 저항없이 패주하였다.

민가로 숨어들었던 방성칠은 창과 칼에 찔려 죽었다. 강벽곡 등 민란 지도부 7명도 잇따라 죽임을 당했다. 또한 민란군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보복이 단행되는 등 아비규환의 살육이 자행되었다. 이로써 1898년 2월 7일 등소운동으로 시작된 제주민란은 30여 일 만에 일단락되었다.

1898년 제주민란, 즉 방성칠의 난은 실패로 끝났다. 민란의 주요 세력은 남학당이라는 종교 집단이었다. 민란 초기 일반 농민들의 지지는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다. 그러나 항쟁이 계속되면서 남학당 중심의 민란 지도부와 일반 농민간의 결속력은 약화되었다. 더욱이 민란 지도부는 민중들을 신뢰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민중들을 운동의 주체에서 소외시켰다. 실질적인 지지기반인 민중에 대한 불신은 곧바로 민중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으며, 민란 실패의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민란의 시대 – 고종 때의 민란들(3)

2013.06.19 17:23

이재수의 난

민란의 발생과 천주교

1898년의 방성칠의 난은 실패로 끝났지만, 제주도 농민들은 이 민란을 통해 조직화된 운동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험의 폭을 넓혔다. 동시에 운동의 실패과정에서 민란 지도부의 한계와 토착 지배층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등 모순된 현실을 점차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러한 측면은 3년 뒤에 발생하는 1901년의 제주도민란으로 이어졌다.

1901년 발생한 제주민란은 이재수의 란이라고도 한다. 이재수는 제주민이 2차 봉기 때에 서진장으로 비타협 무장투쟁을 전개한 인물이다. 그는 본래 대정현의 관노 출신이었다. 갑오개혁으로 노비제가 혁파된 이후 관아의 급사 노릇을 하다가 제주민란 당시 향장(좌수) 오대현의 하인으로 있었다. 당시 21세의 청년으로 제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항쟁을 주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제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역사적인 영웅으로 칭송, 구전되고 있다. 더욱이 대정 일대의 촌로들 사이에서 신나게 이재수의 영웅담을 토해내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1901년의 제주민란은 천주교의 교세 확장과 이에 따른 폐단, 정부의 조세 수탈에 의해 발생하였다. 천주교는 1886년 한불수호조약과 1896년 교민조약 등을 통해 선교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였다. 모진 박해의 시련이 지나간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는 1900년을 전후하여 특권 세력화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 국왕이 지방 관리들에게 "신부를 나처럼 대하라"는 엄명을 내렸으므로 신부의 위세는 거리낌이 없었다. 천주교는 조선의 고유한 가치체계나 토착종교 등을 교리에 위배된다 하여 전면 부정하였다.

제주도에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전래된 것은 1899년 5월부터였다. 1901년 봄까지 2년간의 포교로 242명의 영세자와 6-7백 명의 예비신자를 배출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당시 제주도 전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다. 그러나 입교자의 태반은 사이비 교도였다. 그들은 종교적 신앙심에 의해 입교하지 않았다. "관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서" "죄를 지어도 성당에 들어가면 못 잡아가기 때문에" 등등 천주교가 갖고 있는 특권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 입교자 대부분은 토착 양반세력과 제주도에 귀양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개 1898년 농민항쟁 당시 농민군을 토벌하던 집단이었다. 결국 양적 팽창에 주력한 선교활동이 필연적으로 드러낸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천주교도들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챙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심지어 사람을 붙잡아다 머리를 말꼬리에 붙들어 매서 끌고 다니는 등의 사형까지 자행하였다. 이 와중에 천주교를 박해하는 정의군 효돈 마을의 명망있는 유생을 성당으로 끌고가 고문을 하다 치사케 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지방관은 살인범을 구금하기는커녕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다.

제주도는 천주교도들에 의해 무법천지가 되었으며,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신부는 천주교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방관하거나 보호하는 입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치외법권을 남용하여 지방행정에까지 간섭하는 등, 제주도민의 반천주교 의식을 자극하였다.

특히 천주교인과 제주도의 경제적 전권을 장악한 봉세관의 결탁은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대한제국의 정부는 수취제도의 근대적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재정을 전부 중앙 재정에 편입시켜 일원화하였다. 그 결과 지대와 지세의 인상으로 농민에 대한 수탈만 가중되었다. 더욱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는 전에 없던 각종 잡세를 부과하였다.

잡세는 왕실재정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내장원에서 징수하였는데, 제주도에서 1899년 봉세관 강봉헌이 파견되었다. 그는 전권을 행사하면서 세금징수가 가능한 거의 모든 토지와 산물을 조사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는 철저하게 제주농민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국가와 왕실재정 확충만을 위해 종사하였다.

이에 따라 봉세관은 제주도민들에게 적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자신의 신변보호와 업무수행을 위해 천주교도인들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천주교인들은 프랑스 인 신부와 봉세관이라는 두 개의 절대권력을 바탕으로 법적, 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결국 침탈적인 봉세관과 천주교인, 귀양인 세력과 그에 대항하는 지방세력과 일반 민중의 적대적인 대립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등소에서 무력충돌로

1901년 4월 9일, 강우백을 중심으로 한 대정군민들이 군수에게 소장을 올려 봉세관 및 천주교도에 의한 수탈과 폐단의 시정을 호소하였다. 12일에는 정의군에서 이와 동일한 집단행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제주민들의 움직임은 봉세관과 이를 매개로 한 천주교인들의 경제적 수탈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자구책이었다.

분산적인 농민들의 움직임과 달리 4월 초에는 위로부터의 저항형태인 대정상무사가 조직되었다. 중심인물은 대정군수 채구석과 향장 오대현 등이었다. 이들은 자위조직을 결성하여 조직적인 반천주교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상무사이 주요 목적은 천주교인들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4월 29일, 반천주교운동을 해오던 상무사원 송희수에 대한 천주교인들의 구타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민심이 동요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팽배하는 등 불안이 가중되었다. 5월 6일에는 천주교인들과 상무사원들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때 천주교인인 전 이방 김옥돌이 향장 오대현이 기생첩을 간음한 사건이 일어났다. 대정군수는 두 사람을 태형에 처한 후 김옥돌은 수감하고 오대현은 석방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천주교인인 진사 김명현이 50여 명의 천주교인을 이끌고 와서 옥문을 부수고 김옥돌을 빼낸 후 상무사원들을 잡아갔다. 그러나 뒤쫓아온 상무사원들과 천주교인들 간에 충돌이 빚어져 천주교인 2명이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제주민란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상무사는 향촌조직을 통해 대정군민들을 집결시키고 인접 지역에도 통문을 돌려 민회를 개최하였다. 민회에서는 봉세관의 세폐와 천주교인들의 교폐를 성토한 후 제주성으로 가서 목사와 봉세관에게 등소하여 이들 폐단의 시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서래민 장두 오대현, 동래민 장두 강우백을 선두로 하여 제주민들은 두 길로 나누어 제주성으로 향하였다.

봉세관과 천주교도인들의 폐단에 시달리던 다른 제주도민들이 적극 호응하여 민중의 세력은 급격히 늘어났다. 민중의 위세에 놀란 봉세관 강봉헌은 서울로 피신하였다. 12일 민들이

한림동에 도착하자, 제주목사 김창수는 일체의 폐단과 교폐를 정부에 보고하여 혁파할 것을 약속하고 해산토록 종용하였다. 제주민들은 일단 5월 16일 등소절치를 밟은 후 제주목사의 약속을 문서화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산키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1901년 제주민란의 제 1차 봉기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등소운동이었다. 제주민들이 온건한 노선을 취한 것은 1898년의 방성칠란이 무력투쟁을 전개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대안이었다. 이는 수탈적 조세수취 구조의 변혁에 주안점을 둔 반봉건운동이었다.

그러나 신부와 천주교인들은 이를 폭도들에 의한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교도에 대한 성전을 선포하였다. 천주교측은 교인 천여 명을 소집하여 제주목의 무기고에서 꺼낸 총기 등으로 무장하였다. 5얼 14일 800여 명의 교인이 한림동 민회소에 가서 농민들에게 발포하고, 장두 오대현을 비롯한 6인을 체포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대정현으로 쳐들어가 인명을 살상하고 무기고를 열어 중무장하였다.

천주교측은 장두 오대현만 체포하면 민중이 해산할 것으로 오판하였다. 그러나 민회의 실상을 무시한 천주교측의 강경대응은 오히려 제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제 등소를 통한 온건노선은 무력투쟁에 의지한 강경노선으로 급선회되었다.

반봉건, 반외세 항쟁으로

무장한 천주교측에 의해 무참하게 진압된 민인들은 새로이 항쟁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들은 대정현에서 동진, 서진의 두 진으로 구성된 민군을 결성하였다. 지도체계도 개편되었다. 화전민 강우백과 관노 출신인 이재수가 동, 서진 대장이 되었다. 이들은 조총 300자루와 죽창으로 무장하는 한편, 3군에 통문을 돌려 봉기를 촉구하였다. 이에 제주도민 전체가 분연히 호응하면서 항쟁은 제주도 전역의 무장투쟁으로 확대되었다.

5월 17일 농민군은 신부가 지휘하고 있는 제주성으로 진격하여 성 밖의 황사평에 집결하였다. 이때 집결한 농민군은 수만 명에 달하였다. 제주성 내의 천주교측은 성문을 굳게 닫는 한편, 대포를 성벽 위에 설치하는 등 방어체제를 구축하였다. 17, 18일에는 천주교측의 선제공격으로 농민군 18명이 살해되었다. 농민군 또한 일본인에게 양총 50자루를 구하여 전력을 증강하였다. 이로부터 서로 공방전을 전개한느 가운데 신부는 20일 유배중이던 장윤선을 목포로 파견하여 프랑스 군함의 급파를 요청하였다.

농민군은 20일에는 동, 서, 남, 북진, 24일에는 동, 서, 남진, 27일에는 동, 서진으로 진을 나누어 제주성에 대한 철저한 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제주성 내로의 식량과 땔감 판매도 금지되었다. 한편으로 성내에 통문을 돌려 농민들의 봉기를 촉구하였다. 이때 제주목사와 대정군수는 5월 18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중재를 시도하지만, 난민들은 세폐와 교폐의 근절 및 민인들을 살상한 천주교도들의 처단을 요구하며 화해 요청을 거부하였다. 결국 그들은 위기 촉발의 상황을 인식하고 성 밖으로 피난하였다.

천주교측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프랑스 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23일에는 장두 오대현 등 12명을 풀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강화를 중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 또한 실패로 돌아가고, 오대현은 동진대장으로 농민군의 선봉에 섰다. 25일에는 제주성 내의 민인들까지 봉기하였다. 이들은 28일 옥문을 때려부수고 성내의 천주교도들과 충돌을 전개하였다. 결국 안팎으로 공격당한 천주교도측은 패배하고 농민군의 무혈입성이 이루어졌다.

입성한 농민군은 서진대장 이재수의 주도하에 천주교도를 색출하여 250여 명을 살해하였

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군이 덕에 힘입어 천주교인들을 모두 죽이니, 이로부터 3군의 민인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는 제주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다. 한편 정부군 파견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수는 3군민에게 통문을 보내 15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를 모두 징발하여 방어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방성칠란 당시 진압세력이었던 재지 양반과 유배중인 양반들, 관리들을 색출하여 처단하고 지방관아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천주교도와 양반 세력의 처단문제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였다. 동진대장인 오대현은 이재수의 강경노선에 반발하였다. 이는 출신 성분의 차이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이재수가 관노 출신이었던 반면, 오대현은 고을의 좌수로서 양반, 향임 등의 토호 세력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 결과 두 진이 서로 총을 겨누며 싸우는 내분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두 진의 내분은 진압군 파견 후에도 계속되어 봉기군의 통일된 대응전략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민란의 실패

5월 31일 270명의 프랑스 해군과 신임 제주목사 이재호를 태운 두 척의 프랑스 군함이 제주도에 입항하였다. 6월 2일에는 정부군인 강화도 진위대 100명과 궁내부 고문관인 미국인 산도가 급파되고 일본 군함까지 출동하였다.

이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프랑스 군함의 제독은 6월 1일 신임 제주목사로 하여금 전 대정군수 채구석을 포함한 난민의 지도자들을 체포하도록 위협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 군인들이 직접 토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인 고문관 산도도 무력진압을 희망하였지만, 정부의 정책에 의해 프랑스 군함의 철수를 주선하였다. 그리하여 정부군과 신임 제주목사는 난민들에게 선 해산, 후 민폐 혁파라는 조건으로 자진 해산을 종용하였다. 6월 2일에는 동진 대장 오대현과 제주목사 정부군 대장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이를 단지 사태수습을 위한 임기응변의 미봉책으로 간주하였다. 게다가 제주민들의 1차 봉기 때 도망갔던 봉세관 강봉헌이 대정군수로 부임하여 제주도민들을 자극하였다. 농민들은 통문을 돌려 "어찌 산포 4-500명이 농민군 수백을 다할 수 있겠는가"하며 제주도민들의 궐기를 촉구하였다. 더욱이 6월 9일 재차 입항한 프랑스 군함의 무력시위는 제주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운동 지도부의 노선은 통일되지 못하였다. 정부군의 파견으로 내부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동진은 중앙정부와 협상을 전개하는 한편, 합법적인 등소를 통해 운동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서진은 천주교인을 색출하여 모두 처단하는 강경노선을 취하였다. 6월 7일까지 살해된 천주교도는 600여 명에 달하였다. 난민들은 민폐 혁파와 천주교도들의 처단 및 도민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난민들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6월 10일 신식무기로 무장한 정부군 200명과 13명의 순검이 급파되었다. 정부군 대장 윤철규는 서진대장 이재수와 면담하고는 서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대신에 농민군측에게 다음날 제주성 내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였다. 6월 11일 약속대로 봉세관 강봉헌과 폐단을 일삼은 천주교인들을 체포하였다. 농민군 또한 약속대로 제주성 내로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군은 약속과는 달리 농민군 지도자 40여 명을 즉시 체포한 뒤 무력으로 농민군을 강제해산시켰다.

그후 제주민들은 집단시위를 통해 농민군 지도자들의 석방과 제주도에서의 공개재판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7월 18일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을 비롯한 40여 명의 민란 지도부가 서울로 압송되었다. 결국 이재수, 오대현, 강

우백 세 사람은 영사재판에 의해 10월 9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다른 민란 관련자들은 징역이나 곤장형에 처해지거나 무죄 석방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의 끈질긴 피해보상 요구로 배상금 6315원이 제주도민 전체에게 부과되었다. 1904년 6월 도민 1인당 15전 6리씩 갹출, 배상함으로써 제주민란의 사후 처리도 종결되었다.

한편 프랑스측 요구에 의해 피살된 천주교도들의 묘지도 황사평으로 설정되었다. 지금 현재 이재수의 묘지는 찾을 수 없다.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묻혀 있던 서대문 밖은 일제시대 택지개발로 일본인들의 고급주택으로 변하였다.

1901년의 제주항쟁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봉건적 모순을 계기로 제기되었으나 천주교 문제와 관련되어 확대되었다. 제주민들의 1차봉기는 봉세관에 의한 봉건적 수탈구조를 타파하려는 반봉건 농민운동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신부들의 오판으로 인해 항쟁은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제주민들은 천주교 세력을 하나의 침탈적인 외세로 간주하여 무력항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천주교인들을 "법국의 년놈"이라 하여 프랑스 인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천주교인들이 평소에 프랑스 인으로 자처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5월 28일의 무혈입성 수 "양인을 토멸하고 제주성을 회복하였다"는 기치가 내세워지기도 하였다.

한달간이나 계속된 민중항쟁을 통해 제주민들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6월 17일 세폐 혁파에 대한 17조항이 관철되었다. 또한 7월 2일에는 12조로 된 교민화의약정이 체결되어 교폐 문제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01년 제주민란의 가장 큰 의의는 세폐와 교폐의 혁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놓고 전 제주도민이 참가한 농민항쟁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하층민중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반봉건, 반외세의 민중항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01년의 제주민란은 19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반제국주의적 농민항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생존을 위한 싸움 - 1894년 동학농민전쟁(1)

2013.06.19 17:14

농민전쟁 유적지를 걷다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크게 바뀌어왔다. 우리는 같은 한 사건을 놓고 '동학란'에서부터 '동학농민봉기', '동학혁명', '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 등 여러 이름으로 불러왔는데,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를 다르게 만든 것이다. 농민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동비', '동도', '비도'였다가 이제는 '농민군'으로 크게 지위가 달라지게 되었다. 당시의 정권담당자들이나 개화파들은 농민군을 '동비', '동도' 등으로, 그 사건을 '동학란'으로 불러왔으나, 식민지시대에 민족주의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그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혁명성, 민중성을 강조하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학농민본기', '동학혁명', '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온 것이다.

동학농민전쟁 기념물의 기념 대상에 대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1894년부터 1996년까지 동학농민전쟁 기념물이 총 61건인데, 기념 대상에 있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보였다. 즉 1894년부터 1945년까지는 모두 관군, 수성군, 민보군으로 26건이었는데, 45년 이후에는 관군이나 수성군, 민보군으로 26건이었는데, 45년 이후에는 관군이나 수성군, 민보군을 기념하는 일은 것은 전혀 없어지고 농민군 지도자나 무명 농민군을 기념하거나, 봉기, 전투, 혁명 등 사건과 관련된 기념물이나 사적지가 기념물로 전환되었다(봉기, 전투, 혁명 등 사건과 관련된 기념물이나 사적지가 기념물로 전환되었다(박명규, 1997 봄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 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사회와 역사)51집). 이는 농민전쟁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념물이 상징한는 의미 체계도 45년 이전에는 국가권력의 힘이라든가, 유교적 충절을 강조한 데 대하여, 45년 이후에는 민중의 혁명성, 보국안민의 애국심 또는 동학 사상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그 사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난에서 봉기, 혁명, 전쟁 등으로 격상하고 있다. 1994년에는 동학농민전쟁 100주년을 맞이하여 농민전쟁을 기념하는 대회와 학술적 연구가 곳곳에서 열린 바 있다.

필자는 일찍부터 동학농민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고부민란이 발발했던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 그 지역을 답사하고 사료조사를 한 바가 있다. 민란의 무대인 고부군은 전라우도의 해안에 가까운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의 정읍시는 조선시대의 정읍현, 태인현, 고부군이 합하여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었다.

필자가 조사한 자료 가운데는 동학농민전쟁의 진원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수집한 것도 있다. 이제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농민전쟁의 역사를 풀어가 보려고 한다.

사료가 있는 곳은 고부군의 동북부에 소재하고 있는 수금면이라고 하는 곳이다(지금은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넓디넓은 수금들을 앞에 하고 동쪽으로는 정도산이라고 하는 나지막한 산이 있다. 비산비야의 넓은 들판 가운데에서는 꽤나 높이 솟은 산이다.

수금리의 뒤편 해발 151m의 정토산에 올라 남쪽으로 멀리 바라보니 5km쯤에 큰 거북이 서해에 들어가려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두승산이 있고, 그 산 너머에 고부 관아가 있었으며, 고부 관아 못 미치는 곳의 낮은 언덕이 농민군이 관군을 처음으로 격파한 황토재이다. 눈을 서쪽 정면으로 돌리니, 가을을 맞아 수확의 황금물결을 이룬 수금들이 펼쳐지고, 그에 이어 배들이 이어졌다. 들판 가운데 비산비야의 낮은 구릉지대에 의지하여 크고 작은 마을들이 취락을 이루고 있다. 들판을 4-5km쯤 건너 몇 개의 마을을 지나면 전봉준이 농민들을

불러모아 사자후를 토했던 말목장터가 있고, 말목장터에서 조그만 언덕을 넘어가면 전봉준이 살던 고가가 있다.

다시 눈을 서북쪽으로 돌려보면 멀리 동진강이 있는 듯 없는 듯 들판 사이를 흐르고 있고, 그 어딘가에 물세 다툼의 진원지인 만석보가 있다. 만석보를 지나 3-4km를 더 가면 농민군의 1차 봉기의 집결지 백산이 있는 둥 마는 둥 들판 가운데 버티고 있다. '앉으면 죽산이요 서면 백산'이라는 조그만 야산이 농민군 1차 봉기의 집결지인 것이다.

평야지대라는 자연적 조건

그 마을은 정토산의 서쪽 기슭에 고즈넉하게 자리잡은 무릉도원과 같은 곳이었다. 꽃이 한창인 때에 수금들에게서 멀리 바라다본 그 마을은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이었다. 수금마을은 단지 김해 김씨와 성주 배씨 두 성씨가 숙종대에 태인 쪽에서 이곳으로 들어와서 3형제를 낳았는데, 이 세 집이 번성하여 한창 대는 거의 100여 호를 헤아리는 마을을 이루었다.

수금 김씨 종가댁에 가서 그 선조들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기대한 것 보다 소득은 없었지만, 18-19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지초, 매매문서, 수표 등 몇 가지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농민전쟁 기간 중에 소모사로부터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증명서이다. 소모사이 서명, 즉 수결과 압인이 있는 이 증명서에는 종손의 증조부되는 이의 직역과 성명, 연령,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몇 장의 소지초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향교의 향전을 금지하라는 고부군수의 하첩과 그 이면에는 잡역을 면제해주고 면을 통폐합해서 역을 줄여달라는 수금면 민인들의 등장이 있었다. 또한 정읍천과 태인천이 압류하는 곳에 위치한 수금들의 제언 축조와 관련된 각 면민들의 갈등이 드러나는 소지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봉준의 재판기록을 보면, 민란의 원인을 고부군수의 가렴주구에 있었다고 하면서 가렴주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정을 말하였다.

1. 민보 아래에 보를 쌓고 강제로 민가에 전령을 내려, 좋은 논은 한 마지기에 2말의 수세를 하고, 나쁜 논은 한 마지기에 1두의 세를 거두어 모두 700석을 거둔 일.
2. 버려진 땅, 즉 진황지에 백성들로 하여금 갈아먹게 하여, 관가에서 문서를 주어 징세하지 않는다고 하고는 추수할 때에 억지로 거둔 일.
3. 부민의 돈 2만여 냥을 강제로 빼앗은 일.
4. 그의 아버지가 전에 태인현감을 하였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 비각을 건립하는 데 천여 냥의 돈을 거둔 일.
5. 대동미를 민간에서 징수할 때는 좋은 쌀 16말씩 거두고는 상납할 때는 나쁜 쌀을 사서 이득을 남겨먹은 일.

그중에 보세를 강제로 거둔 일이 가장 첫머리에 거론되고 있는데, 역시 그 시기에 호남지방의 평야지대를 범람하는 물길을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수령이 수탈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나 제언을 쌓는 일은 단지 관과 민뿐 아니라 각 면민들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제 새로 발굴된 사료를 매개로 하여 당시 제언의 축조를 둘러싼 문제들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새로 찾은 자료 중에서 제언 축조의 시비에 관련된 등장이 2매, 수금면 민인들에 부과된 잡역과 면의 통폐합에 관련된 등장이 1매 남아 있다. 이를 중심으로 만석

보와 그에 관련된 들의 수리 상황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수금들은 정토산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정토산의 서쪽으로 정읍천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태인천이 흘러 동진강으로 합류한다. 이 지역은 원래 홍수나 물이 많게 되면 범람을 하여 둑을 쌓고 관개를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사실 요즈음의 넓은 호남평야가 경작할 수가 잇게 된 것은 그다지 오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8세기 후반의 기록인 (택리지)에 요즈음의 평야지대로 일컬어지는 곳에서는 풍토병이 있다고 하여 사대부가 살 만한 곳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라도의 남원, 구례나 경상도의 성주, 진주와 같은 산곡간, 즉 요즈음의 지질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산록완사면 지역이 사대부의 살 만한 곳으로 지목되었다. 산으로부터 복류하여 흐르는 물을 마시고 계곡물을 이용하여 관개를 하는 곳에 일찍부터 마을이 생기고 사대부들이 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편 삼남 지방의 평야지대는 풍토병이 있어서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전라도에서 평야지대는 풍부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개, 개간이 되면서 농경지가 확대되어갔다고 생각된다.

(택리지)에서 전라우도 지역에 대하여 "태인, 고부 및 해안가의 부안, 무장 등 읍은 모두 풍토병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동학농민전쟁의 진원지인 배들, 수금들 등의 평야지대도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널리 개간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5만분의 1 지도를 잘 살펴보면 새말이니, 새터 등의 이름이 많이 보이는데, 이들은 이러한 강물의 범람이나 풍토병과 같은 자연적 조건을 극복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에 형성된 마을들로 추측된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수금들, 배들은 19세기 후반까지도 완전히 홍수의 범람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두 장의 제방축조에 관련된 민인들의 등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자연조건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민인들과 관과의 갈등관계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관권과 민권의 충돌의 현장-치수와 만석보

동학농민전쟁의 물세의 근원이 되었던 만석보는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여 동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에 있다. 먼저 수금들과 예동들, 북촌들, 장순들, 우일들을 둘러싼 분쟁을 보기로 하자.

우리들이 경작하는 수금들은 예동들과 북촌들 사이에 있어서 개벽 이후에 세 들이 원래 수해가 없고 산이 무너지거나 내가 막히는 일이 없이 물이 제길을 잘 따라 흘렀는데, 중년 이후에 산이 무너지고 내가 막혀 물이 제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예동들의 민인들이 긴 둑을 쌓으니 큰 물이 질 때마다 물이 북쪽으로 흘러드는고로 북촌들 민인들이 그에 이어서 긴 둑을 쌓았습니다. 이에 수금들은 두 들 사이에 끼어 서쪽과 북쪽의 긴 둑이 만나는 곳에 마치 항아리의 주둥이처럼 되어 물이 모이는 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류인 장순들에서 시작하여 우리도 긴 둑을 쌓아서 여러 물들이 폭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 우일면의 민인들이 전에 없는 일이라고 하며 세력을 끼고 터버렸습니다. 이에 저희들 세력이 없는 백성들은 어찌할 수 없이 500여 섬지기의 목숨이 달려 있는 들이 물구덩이가 되어 밥 먹을 희망이 없게 된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수금들을 경작하는 민인들은 예동들과 북촌들의 민인들이 먼저 긴 제방을 만드니 그 사이에 낀 수금들이 큰 물이 지면 물바다가 되어 그 물을 막기 위하여 장순들에 잇대어 둑을 쌓았는데, 그 둑을 쌓음으로써 피해를 보게 된 우일면의 민인들이 그 둑을 터버렸다는 것이다. 수금들의 민인들은 예동과 북촌의 둑을 이용한다면, 수금에서 장순들에 이어서 막은 둑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모든 제방을 터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대한 관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이 지역 평야지대의 관개를 둘러싼 마을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또다른 민장이 있는데, 이 경우는 수금의 민인들과 이선달이라고 하는 개인과의 분쟁이다. 선달이란 원래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조선후기가 되면 과거제도가 흐트러지면서 전쟁이나 큰 공사 때에 수백 몇 내지 수천 명의 무과 합격자를 뽑았기 때문에 무과 출신들을 천하게 여겼다. 따라서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는 19세기 말 즈음에는 선달이 무뢰배를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황현의 (매천야록)에서도 "매번 수백 인을 뽑다 보니 스스로도 천하게 여기고 관청 심부름꾼의 청사나 주막의 벽에까지 홍패가 걸리지 않은 곳이 없고 향곡의 무뢰배들이 약간 말을 잘 하고 술 몇 잔만 사도 얻을 수 있다. 이웃들이 우습게 알고 아무개 선달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 등장에 나오는 이선달도 그러한 무뢰배의 한 명으로서 고부 관아나 전주 감영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 이선달이 둑을 막는 일로 의송을 올려 특별히 향소를 파견하여 잘못을 조사하였는데, 저희들이 사는 세 면의 민전들이 해를 입는 것이 특히 크다는 것은 향소의 도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찌 함께 호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 세 면의 민전이 태인과 정읍 두 큰 물이 합해지는 곳에 있고 또 예동, 북촌 두 들판의 사이에 있는데, 두 촌의 민인들이 각각 긴 둑을 쌓아 이미 수해를 막아서 두 큰 물이 합해지는 구멍이 상처의 구멍처럼 좁아서 일시에 비가 오면 세 면의 민전은 도리어 물을 담는 곳이 되어 완연히 하나의 큰 강처럼 되는데, 저희들이 해를 입어 원망을 한 것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물 구멍 안에 크게 둥근 둑을 쌓아서 전에 상처 구멍과 같던 물구멍이 도리어 바늘구멍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읍, 태인의 두 큰 물이 흘러들어오게 되면 세 면의 민인만 홍수의 피해를 당하게 되니 장차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겠습니까? 또 이선달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사욕으로 진전을 기간할 계책입니다만, 세 면의 민전은 오래 전부터 원전인바 한 사람이 사사로이 기경한 것으로 만민이 경작하는 원전을 폐할 수 있으며, 또 이선달이 몰래 민인들의 의송이라고 사칭한 것으로서 관가에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관령으로 조역하여 둑을 쌓았으나, 저희들의 부역으로 도리어 그 해를 입는 것은 제 손으로 뺨을 때리고 돌을 안고 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 어찌 스스로 사지에 보낼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 민장의 초고도 관의 판결이 없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선달이라는 자가 태인과 정읍의 두 물이 합해지는 곳에 둥근 둑을 크게 지으려고 하고 또 민을 부역에 동원하는 것을 보면, 관권과 유착된 세력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선달이 전주감영에 의송을 올려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으니, 아마도 감영과 결탁한 세력으로 추측된다.

보통 백성들이 관에 청원할 일이 있으면 청원서를 올리는데, 그것을 소지라고 한다. 평민 이하가 올리는 소지를 발괄, 원정이라고도 하고, 여러 백성들이 함께 올리면 등장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관할 읍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상급 관청인 감영에 다시 소지를 올리게 되는데, 그것을 의송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선달이 의송을 올렸다는 것은 감영에 올린 것으로 이선달이 감영과 연결된 세력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수금면 민인들의 주장은 세 면의 민전이 태인현과 정읍현이 두 물이 흘러들어와 합해지는 곳에 있고, 예동들과 북촌들에 이미 둑이 있어 물이 빠지는 구멍이 좁은데, 기존의 둑 위에 다시 둥근 제언을 막아 홍수가 진다면 그곳은 저수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선달이 막은 둑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일대의 들판은 식민지시대 이후 여러 차례의 농지정리와 관개사업으로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장의 설명으로 추측해보건대, 이선달이 쌓은 둥근 보라는 것이 바로 만석보가

아닌가 생각한다. 설령 이선달이 만든 보가 만석보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만석보와 이선달이 쌓은 둥근 둑은 민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의 권력을 빌려 그 일대의 민인들을 동원하여 축조했다는 점에서 만석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보로 생각된다.

전봉준의 공초에서 농민봉기의 원인을 말하는 가운데, "민보 아래에 보를 쌓고 강제로 민간에 전령을 내려 좋은 논은 한 마지기에 2말의 세금을 거두고, 못한 논은 한 마지기에 1말의 세금을 거두어 모두 700여 석을 거둔 일, 진황지를 백성으로 하여금 갈아먹게 하여 관가에서 문서를 주어 징세하지 않는다고 하고는 추수할 때에 억지로 거둔 일"을 첫째로 든 것은 모두 그러한 정황을 말해준다. 만석보라고 하는 이름은 사료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후대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관의 수탈과 잡세

그런데 위의 두 장의 제언 관련 소지 외에 그곳에는 면의 민인들이 올린 또 하나의 소지가 있다. 이 민장에는 수금면민의 어려움이 그대로 요약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호가 모여서 리가 되고 리가 모여서 면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는 면은 가호수가 백 호에 못 미치고 리가 셋에 불과하니 이를 면이라고 하겠습니까? 대개 본면은 예전에는 실호가 200여 호에 가까워서 연요와 신역도 그 수만큼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잡역을 막기 위하여 지보에 의탁하여 매년 관에 납부하는 돈을 65량으로 정하고 가을 추수를 하면 비납하기로 한 것은 바뀔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근년 이래로 계속 수해와 한해를 입어 백성들이 점차 유산하여 마을도 빈터가 되어 당시에는 200여 호였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원호를 계산하면 70-80호에 불과합니다. 당초에 200여 호가 당하던 역을 70-80의 산락한 호에서 책출하니 면이 예대로가 아닌데, 역은 전일의 배가 되어서 민인이 어찌 지탱하겠으며 면은 어찌 능히 모양이 되겠습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대호가 4-5인, 소호가 10여 인이 계속 이산을 하고 혹 다른 읍으로 가거나 다른 면에 가서 살아서 지금 남아 있는 인인들도 안도하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흩어질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언필청 여기에서 떠야 되겠다고 합니다. 이러하니 비록 연역을 독촉해도 위령이 미치지 못하고 향악을 하려고 하여도 흩어진 백성을 합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태로 그냥 있으면 몇 년 이내에 한 호도 남아 있니 않을 것이니 이 어찌 공사간에 걱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대개 백성들이 조그만 역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수금면민 등장 '군수의 수금면 훈장집강에서의 하철 이면에 등시됨')

계속되는 수해와 한해로 백성들은 흩어지는데, 부과되는 잡역은 그대로이니 백성들이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잡역에서 수금면민이 어렵게 생각하는 잡역은 다음 네 가지였다. 첫째 한정 20여 명을 마을에서 징수하고 대정을 세우지 않는 것, 둘째 속오군 20여 명이 지금은 30명으로 증가하여 1인이 2-3명의 속오군역을 지고 있는 것, 셋째 지보전을 추수 후에 내기로 하였는데, 불시에 독촉하여 동임, 이서가 호미, 낫이나 단벌 옷을 빼앗아 가니 품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넷째 궁민이 거듭된 부역으로 도산하면 면임이 그 책임을 져야 하므로 풍헌, 약정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여 약정을 임명할 수 없고, 또 두민들을 침탈하여 안돈할 수 없어 유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고통에 대하여 수금면민들은 1)부공 한정 20여 명은 이미 감영의 판결을 받았으니 대정으로 분부해주고, 2)속오군 30여 명은 군안을 상고하여 10여 명의 부역을 분간하여 감해주고, 3)지보전은 보민청이 만들어진 후에 잡역을 면제하는 대신 만들어진 것인데, 본면에서는 하나의 혜택도 받지 못하니 지보전 60여 량이 오히려 무명 잡세가 되었다는 것, 그래

도 전의 규정에 따라 가을에 납부하게 해달라는 것, 4)면임은 아침에 차임하면 저녁에 도망하여 맡을 사람이 없으니, 전에도 면을 통합해달라는 정소를 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웃 장순면과 한 면으로 통합해달라는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한정, 속오군 등 신역과 지보전과 같은 잡역에 수탈당하는 민인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 이러한 면 단위의 신역과 잡역을 감당할 수 없는 면임마저 유망을 하게 되어 면임을 맡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웃 면과 통합하여 면임의 부담이나마 줄여보고자 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임금노동자나 하민들이 유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두민이라고 지칭되는 층들이 따라서 유망하여 결국 면임까지 유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완전히 마을을 이룰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한 장의 '사발통문'

이상에서 동학농민전쟁 진원지인 만석보 주변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몇몇 고문서들을 통하여 당시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민인들은 관에 민장을 올려 시정을 호소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감영에 의송을 올려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민장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그다지 쉽지는 않았다. 관의 문턱은 매우 높았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그것을 '혼권'이라고 표현하였다. 정약용은 따라서 관아의 하인들을 제대로 통제하는 것이 선정의 중요한 한 요인으로 보고 문졸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문졸들이란 "옛날의 이른바 조예로서, 관속 중에서 가장 교화에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문졸은 일수, 사령 혹은 나장이라고 불려졌는데, 그들이 손아귀에 틀어잡은 권리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혼권이고, 둘째는 장권(곤장을 치는 권한)이고, 셋째는 옥권(옥을 지키는 권한)이고, 넷째는 저권(면리의 일과 연락을 대행하는 권한)이고, 다섯째는 포권(범인을 체포하는 권한)이다. 혼권이란 백성이 소장을 가지고 관아문에 이르렀는데 그 호소하는 바가 이속에게 관계될 것 같으면 문지기는 백성을 막아버려, 여러 날 배회하여도 한갓 품을 버리기만 하여 그 백성은 마침내 울며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산은 수령이 된 사람은 모름지기 먼저 다짐하고 거듭거듭 경계하여 백성이 관정에 들어오기를 어머니 집에 들어오는 것 같도록 하여야 하고, 그래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최고형을 시행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산의 이와 같은 경고를 목민관들은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이다. 문졸들이 관아의 턱을 그렇게 높여놓으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관과 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대체 민원이 생기면 먼저 소지, 즉 민장을 제출한다. 그러나 민장 제출의 어려움은 앞에 말한 문지기들의 '혼권'에 부딪히면서부터 좌절을 하게 된다. 이에 민인들은 다중의 힘을 빌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게 된다.

19세기 이후에 많이 보이는 등장류의 민장은 관에 다중의 힘을 빌려 민원을 호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수의 민인들이 연명한 등장, 연판장 등이 등장한다. 등장이나 연판장은 의견을 같이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서명함으로써 다중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다. 청원의 대상은 다르지만, 예컨대 서얼들이 국가에 자신들의 관직 진출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한 상소에는 무려 천여 명, 순조 대에는 와서는 거의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을 하였다. 그 뿐 아니라 그들은 민장을 올린 우두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형으로 연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발 민장이라고 하였다.

한 고을의 관아를 상대로 한 민원의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중 등장이든 촌락 등장이든 수십 명에 이르는 다수의 민인들이 서명함으로써 관에 압박을 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등장에는 물론 주모자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주모자를 장두라고 하였는데, 관에서는 이러한 주모자를 잡아 처벌하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이러한 민원을 올리는 과정에서 장두로 나서 곤장을 맞고 장독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1936년 그 지역의 향토사가인 장봉선이 쓴 (동학란실기)에는 전창혁이 조병갑의 곤장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조병갑이 모상을 당하여 집으로 돌아가자 추세를 좋아하는 궁유이속들이 부조를 주창, 이천 량을 분배하여 향교의 장의 김성천과 전장의 전승록에게 수금을 의뢰한바, 김성천이 이를 흠용(떼어먹음)하고 말하기를, '병갑은 본군 재직중에 추호도 선치가 없었으며, 또 기생의 죽음에 무슨 부조냐'고 대언을 토하였다. ... 병갑은 고부 재임을 생각던 중에 이 말을 듣고 원한이 사무쳐 더 적극적으로 재임운동을 하였다. 재임해 와보니 김성천은 이미 죽고 없어 전승록만 잡아다가 곤장을 난타하여 보내니, 돌아온 뒤 장독으로 죽어...

여기에서 전봉준의 아버지가 향교의 장의를 하였는가 또는 천안 전씨가 고부 지역이 양반층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의 죽음에 대하여 많은 구전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소설가 송기숙씨의 고증에 의하면, 전창혁이 민소의 장두로 소를 올린 것이 빌미가 되어 장살되었다는 설과, 고부군수 조병갑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의 민부전 까탈로 장살당하였다는 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설 모두 관권의 폭력으로 살해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송기숙, 1983(동학농민전쟁의 발자취)(한국사회연구)1. 한길사)

민인들은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가 원형으로 연명하여 주모자를 은폐하게 된다. 수십 년 전에 농민전쟁이 발발된 지역의 한 농가에서 발견된 사발통문도 바로 농민들의 민원을 올리고 그것이 좌절되자 여러 농민 세력들을 규합하고 조직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발통문은 1893년 11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부분은 전봉준 등 발통자 20명이 둥근 원형으로 연명을 하였고, 다음에 '각 마을 집강 좌하'라고 하여 각 마을의 집강들에게 격문을 보내고 여론이 들끓어서 난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민중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서론 부분과, 동학 도인들이 고부군 서면 죽산리의 송두호의 집에 모여서 행동강령을 정하였다고 하는 본문이 있다. 행동강령으로는 1)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 효수할 것, 2)군기창과 화약고 점령할 것, 3)군수에게 아첨하고 인민을 침탈하는 탐리를 격징할 것, 4)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직향할 것을 결의하였다. 마지막 부분은 망실되어서 일부분만 남아 있는데, 추측컨대 군략에 능하고 서사에 민활한 사람을 영도자로 추대하자는 내용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 사발통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통문의 주도한 것은 동학도인들이라는 것이다. 연명에 참가한 20명이 모두 동학도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들 동학도인들로만 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관에 수탈당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민중들을 동원하였던 것이고, 민중들을 동원하고 거사의 의사를 전달할 대표로 각 마을의 집강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아직 사발통문에 대하여 그 위작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학자가 있다. 그러나 전후 정황으로 보아 사발통문이 위작이 아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발통문과 같은 동학도들의 움직임이 혁명적 거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1893년 보은 취회, 삼례 집회 등 교조신원운동과 농민운동 등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들은 이러한 집회를 통하여 각 지역의 동학 접주들이 서로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사발통문에서 "낫네 낫어 난

리가 낫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보은, 삼례 집회에서 동학도들과 민중들의 전투성, 투쟁성을 목격한 결과였다. 양집회를 통하여 서장옥 휘하의 남접 세력의 투쟁성이 확인되고 맹아적 형태의 지도부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에서의 집회는 아직 고부 관내의 문제가 초점이었다. 즉, 군수 조병갑의 탐학을 응징하고, 그에 빌붙어 위세를 부리는 이서들을 규탄하려는 것이었다.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하여 처음부터 무력투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던 것은 1893년 보은 취회, 삼례 집회 이래의 전투성을 계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전주를 함락하고 서울로 직향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방 정부, 특히 의송 처리에 있어서 감영 세력과 결탁한 이서들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고, 서울로 직향한다고 하는 것을 서울 함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최고의 의사 결정권자와의 연맹, 연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그것이 뒷날 대원군과의 결탁으로 전개되었다고 생각된다).

생존을 위한 싸움 – 1894년 동학농민전쟁(2)

2013.06.19 17:16

사발통문 참가층

사발통문에서 군수 조병갑을 효수하고 그에게 아부하여 인민을 침탈하는 이서들을 격징하자고 주장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문제가 한 고을 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물론 군수와 그에 아부하고 탐학하는 이서들을 징계하려고 했다고 하여 고부군 내에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었다. 수령과 이서들의 결탁에 의한 민인들에 대한 탐학은 어느 고을에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발통문에 서명을 한 통문 참가층의 정체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후대에 정리된 것이지만, 이들의 이명, 생몰년 등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통문 작성시 이들의 나이는 15세에서부터 65세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전봉준을 포함한 30대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3명, 10대가 2명, 50대, 60대가 각각 1명이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연령층이 통문의 주모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자는 15세밖에 되지 않은 송국섭의 참여를 들어 통문의 진위를 의심하기도 하는데, 당시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고, 또한 10대 후반이면 당시로서는 성혼을 하기도 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다지 적은 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발통문 참가층

순번	성명	이명(야명/자/호)	생년(통문시 연령)	졸년	비고
1	전봉준	초명 영준, 호 해몽	1855년생(39세)	1895년 3월 29일	서울 형사
2	송두호	자 윤칠, 호 서산	1829년생(65세)	1895년 1월 6일	나주 형사
3	정종혁	초명 종묵, 호 춘?	1862년생(32세)	1952년	
4	송대화	초명 주언, 호 삼하	1858년생(36세)	1919년	
5	김도삼	초명 진정, 호 도암	1856년생(38세)	1895년 1월 26일	전주 형사
6	송주옥	자 성문, 호 죽산	1853년생(41세)	1895년 1월 6일	나주 형사
7	송주성	자 정화, 호 성암	1863년생(31세)	1924년	
8	황공모	자 필수, 호 죽음	1855년생(39세)	1895년 1월 26일	전주 형사
9	최흥렬	자 도원, 호 덕암	1862년생(32세)	1940년	
10	이봉근	자 순구, 호 해암	1863년생(31세)	1930년	
11	황찬오	초명 학모, 호 지송	1852년생(42세)	1894년 12월 16일	전주 형사
12	김응칠	초명 두수, 호 입석	1858년생(36세)	1894년 12월 22일	나주 형사
13	황채오	초명 성모, 호 죽곡	1854년생(40세)	1894년 12월 16일	나주 형사
14	이문형	자 경언, 호 가암	1875년생(19세)	1917년	
15	송국섭	자 사심, 호 송은	1879년생(15세)	1945년	
16	이성하	초명 한하, 호 근암	1861년생(33세)	1926년	
17	손여옥	초명 성준, 호 하은	1860년생(34세)	1894년	나주 형사

18	최경선	초명 만석, 호 석암	1895년생(35세)	1895년 3월 29일 서울 형사
19	임노홍	자 응수, 호 운암	1855년생(39세)	1912년
20	송인호	자 수칠, 호 인암	1842년생(51세)	1918년

이들은 최연장자인 송두호의 집에 모여서 거사를 모의하였다. 이들이 동학도였을까 아니면 근처의 촌락조직의 책임자였을까? 또한 여기에서 동학도들이 호응을 바라 마지않던 집강들은 과연 누구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통문을 발송한 이들은 동학도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통문의 본문에 '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문의 받는 이들은 도인이 아니라 각 마을의 집강들이었다. 물론 동학의 조직에 집강이 있다. 따라서 각 마을에 있는 동학 집강들에게 이 통문이 돌려졌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집강은 각 마을의 이정집강, 즉 동학조직과는 관계가 없는 이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사실상 조선 후기 이래 촌락민들의 공동체 조직은 계속 성장해왔다. 16, 17세기 사족양반을 중심으로 한 농민 지배조직들은 점차 하층민들의 저항과 내부의 분열에 의하여 약화되고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한 촌계가 성장하게 되고, 국가도 공동납의 단위로서 면, 리를 파악하게 된다. 면과 리는 하나의 생존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동학도들이 저항의 단위로서 호응을 바라 마지않았던 것은 각 리의 집강들이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주로 농민전쟁의 진원지인 고부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사발통문의 배경을 검토하였다. 고부군 한 지역에만도 수 개의 면이 있고, 면에도 수 개의 리가 있는데, 사발통문의 회람 대상은 고부군의 한 면을 중심으로 각 리에 돌려졌다고 생각된다. 통문이 돌려졌던 당시의 면 이름은 답내면이었는데, 답내면은 정읍천과 태인천이 만나는 평야지에 위치한 곳이다. 고부군 자체가 큰 토호양반이 형성되기에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고 형성되지도 않았지만, 답내면은 사대부의 가거처로는 애초부터 적당한 곳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일반 평민들이 어느 정도 홍수의 범람을 각오하고 물과 가뭄과 싸우며 생존해온 민중들이 사는 곳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들 지역에도 비록 사서삼경을 읽고 도학자로 성장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통문을 작성하고 문서를 만들 정도의 '일을 아는 층'(해사층)이나 식자층들은 많이 성장하였다고 생각한다.

농민전쟁의 전개과정

고부민란 단계

동학농민전쟁 네 개의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첫째 단계는 고부민란의 단계, 둘째 단계는 민란이 확대되어 백산 봉기, 무장 봉기를 거쳐 제 1차 농민전쟁으로 확대되는 단계, 셋째 단계는 농민군과 관군 사이에 전주화약이 이루어지고 관민이 서로 협조하며 집강소 정치를 실시하던 시기, 넷째 단계는 일본군의 경복궁 침략 사건 이후 외세, 특히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제 2차 농민전쟁의 단계이다.

고부민란이 확대된 원인은 전반적인 부패구조, 즉 민씨 척족정치에서 비롯된 부정부패,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령과 서리, 향임층들의 체계적인 수탈구조, 나아가서는 국가적 지배체제의 모순에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항에 따른 외세의 침탈과 사상적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어 민중들은 외세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전통사상과 유교적 전례를 뚫고 서학이 침투해들어오고, 신구제품간의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학농민전쟁의 경과를 주요 사건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부민란 단계는 1893년 초부터의 교조신원운동을 통하여 동학의 사상적 자유를 위한 투쟁과 동학도 간부들 사이의 연대의식이 강화되었다고 한다면, 3월의 보은취회는 '척양척왜'의 기치를 내걸고 민중적인 집회와 투쟁의 예행연습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은취회에서 투쟁적인 민중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법포 주도하의 지도부는 정부의 탄압에 대하여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여기에서 민중적 투쟁의지를 반영하는 서포 중심의 투쟁적 농민군 지도부의 싹이 잉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포는 북적의 법헌, 즉 최시형의 지도하에 민중들의 생활보다는 동학의 종교적인 측면에 치중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서포는 남접을 중심으로 서장옥의 휘하에 있는 동학조직으로 민중의 투쟁의지의 실천을 요구하는 세력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고부군 내의 부정부패와 착취적인 상황은 민란으로 촉발하게 되고, 사발통문에서 '전주를 점령하고 서울로 직향할 것'과 같은 행동강령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전투적인 민란이 계획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석보이 수세 문제가 민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누적된 부패구조는 비단 수세 문제만은 아니었다.

농민군들은 고부 관아를 점령하고 군수와 이서들을 축출하였다. 농민군은 전주 감영의 군사 50여 명을 격파하고 백산으로 진을 옮겨 관곡을 분배하여 농민들의 사기를 앙양시켰다. 그러나 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파견되어온 안핵사 이용태의 가혹한 살육과 탄압은 민란을 전쟁으로 확대시켰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농민들이 기다려온 것인지도 모른다.

제 1차 농민전쟁 단계

안핵사 이용태의 가혹한 진압에서 다시 집결한 농민군은 백산에 진을 치고 사방에 격문을 돌렸다. 그것이 이른바 (백산격문)이다. 백산격문에서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멀리 무장의 손화중, 태인의 김개남 등에게까지 연결을 모색하여 적극 호응을 얻게 되어 이를 계기로 농민군 지도부가 형성되었으며, 적어도 호남 일도에 걸친 전쟁으로 전선은 확대되었다.

이들은 먼저 감영이 있는 전주를 지향하여 금구와 부안의 관아를 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우선 전라우도, 즉 법성포에 세곡이 수집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 적 전운사의 불법을 제기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균전사의 불법을 규탄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부, 김제, 부안, 흥덕, 무장, 고창 등 전라우도 민중의 전반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농민군 봉기 소식에 접한 전주에서는 감영 군사 800명과 보부상군 800명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주도면밀히 대응하고 준비해왔던 농민군에 대해서 감영군과 보부상군의 혼합군은 오합지졸이었다. 이들을 맞아 농민군은 황토재 싸움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어 농민군의 위력을 실감나게 하고, 다급해진 전라감사는 중앙정부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황토재 승리 이후 농민군들은 흥덕, 고창 등 여러 관아를 격파하고 무장에 진주하여 이른바 (무장포고문)을 발포하였다.

중앙정부군은 군산에 상륙하여 전주를 비워두고 남하하는 농민군을 뒤쫓았다. 초토사 홍계훈은 전주 감영에서 먼저 농민군과 내통한 혐의가 있는 전주 영장 김시풍 등을 효수하여 농민군과 협조하는 세력에 경고를 보냈다. 그리고는 전라우도 일대를 휘쓸고 있는 농민군을 뒤쫓았다. 농민군을 남하하는 정부군을 맞아 장성 황룡강 싸움에서 정부군을 격파하고 비어있는 전주성에 무혈입성하였다.

앞에서 고부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경제적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은 다만 고부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모순 구조,

부패 구조는 전국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고부민란이 전쟁으로 확대된 것은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고부민란이 단순히 고부군 내의 문제 제기에 그쳤다고 한다면, 이후 전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는 백산봉기, 무장봉기에서는 호남과 호서에 걸치는 농민군의 조직과 지도부가 결정되고, 봉기의 목표도 보다 분명히 하게 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조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동학이 조직이 매개가 된 것이었다.

백산봉기와 무장봉기를 계기로 동학농민군의 지도부가 확정되었다. 전봉준이 대장이 되고 손화중, 김개남이 총관령이 된 것이다. 그러나 부대 편성에 있어서는 전봉준, 손화중 부대와 김개남 부대가 상호협력 관계를 가지면서도 별개로 행동을 하였다. 전자가 주로 전라우도를 무대로 활동하였다면 후자는 주로 좌도를 담당하였다.

농민군들은 양반, 부호, 방백, 수령 들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민중들을 총궐기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3월 27일 백산에서 발포된 격문은 민중을 양반, 부호, 탐관오리의 수탈로부터 구하여 국가를 안정되게 하자는 것이었다.

(백산격문)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른 것은 그 본의가 다만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의 위에다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코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감사)과 수령의 밑에 굴욕을 받는 소소한 이서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갑오 3월 27일 호남창의대도소 재백산

4월에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의 명의로 발포된 무장에서의 격문도 기본적으로 (백산격문)과 뜻을 같이하지만, (백산격문)보다는 훨씬 가다듬어지고 봉기의 목표도 뚜렷해졌다. 즉 '보국안민'의 기치를 높이 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에게서 국왕에 반대하는 것을 볼 수는 없다. 다만 국가에 기생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탐관오리들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무장창의문)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은 인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부자는 인륜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곧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한 연후에야 집과 나라에 끝없는 복이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임금은 인효자애하고 총명한지라, 현량방정한 신하가 있어서 그 총명을 도울지면 요순의 덕과 문경의 선치를 가히 바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오늘날의 신하 된 자는 보국은 생각지 아니하고 부질없이 녹위만 도적질하여 총명을 가리고 아부와 아첨만을 일삼아 충간하는 말을 요언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라 하여, 안으로는 보국의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학대하는 관리가 많도다. 인민의 마음은 날로 흐트러져 생업을 즐길 수 없고 나아가 몸을 보존할 계책이 없도다.

학정은 날로 더해가고 원성은 그치지 아니하니,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명분은 무너지고 말았다. 관자가 가로되, 사유(인, 의, 예, 지)가 바로서지 못하면 나라는 멸망한다 하였으니, 오늘의 형제는 옛날보다 심하도다. 공경 이하 방백수령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난은 생각지 아니하고 부질없이 일신의 비대와 가문의 윤택만을 꾀하고, 과거의 문을 돈벌이와 길이라 생각하고 응시의 장소는 매매하는 저자로 변하고 말았다.

허다한 돈과 뇌물은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사보만 채우고 있도다. 국가에는 누적된 빚이 있으나 갚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와 음란한 일만을 일삼으니, 팔로는 어육이 되고 만민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도다.

수제가 탐학하니 백성이 어찌 곤궁치 아니하랴.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라. 근본이 쇠잔하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도다. 보국안민의 방책을 생산치 아니하고 밖으로는 향제를 설치하여 오로지 제 몸만을 위하고 부질없이 국록만을 도적질하는 것이 그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는가! 우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일지라도 나라에 몸붙여 사는 지라. 국가의 위망을 앉아서 보겠는가! 팔역이 마음을 합하고 수많은 인민들의 뜻을 모아 이에 의기를 들어 보국안민으로 사생의 맹세를 하노니, 금일의 광경은 비록 놀랄 만한 일이기는 하나 경동하지 말고 각자 그 업에 안착하여 같이 태평 세력을 빌고 함께 임금의 덕화를 입게 된다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노라.

갑오 4월 일 호남창의소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여기에서 우리는 농민전쟁의 한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국가를 새로운 체제로 만드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지는 못하고 다만 농민들을 중심한 정의로운 국가를 지향한 것이었다. 그것은 근대국가로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 한계를 가지는 것이긴 하였지만, 기존의 부패구조를 재생산하는 국가와는 다른 것을 지향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전주성을 빼앗긴 홍계훈은 다급해져 농민군을 뒤따라와 전주성을 포위하고 부내가 내려다보이는 완산에 진을 치고 포격을 가하였다. 농민군들은 적어도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영장이 있는 경기전이 있기 때문에 직접 포격을 가할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홍계훈은 그런 것을 가릴 정신이 아니었다. 183cm의 유리한 위치에 진을 친 경군은 부내를 향하여 몇 차례 포격을 가하니 경기전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경군의 포격을 받은 농민군은 반격에 나서 문을 열고 나와 경군을 공격하였으나 도리어 많은 사상자를 내고 성내로 후퇴하였다. 5월 3일에는 다시 북문으로 나와 용머리고개의 경군 기지를 공격하였으나 이번에도 많은 전사자를 내고 대장기와 500여 자루의 총검을 빼앗겼다. 이처럼 출격전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타격을 입자 농민군들은 전의가 크게 저하되었다. 또 농민군들은 모내기철을 맞아 하나둘 성을 빠져나갔다. 농민군 지도자는 협상에 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으로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군이 조선에 파견되어 오고, 뒤이어 일본군도 출동하여 사태가 복잡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로서도 빨리 농민군을 해산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은 선화당에 앉아 협상에 임하여 12개 조항의 폐정개혁을 약속하고 농민군을 해산하였다. 12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인과 정부 사이에는 숙혐을 씻어버리고 서정에 협력할 것.
2.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사득하여 일일이 엄징할 것.
3. 횡포한 부호배는 엄징할 것.
4. 불량한 유림과 양반배는 징습할 것.
5. 노비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6. 칠반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쓰는 평양립은 벗어버릴 것.
7. 청춘과부는 개가를 허할 것.
8. 무명잡세는 일절 거둬들이지 말 것.
9. 관리의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10. 왜와 관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11. 공사채는 물론이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할 것.
12.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케 할 것.

집강소 단계

난후 수습책을 찾던 전라감사 김학진은 전봉준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농민군의 도움 없이는 전라도 53읍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구금에 머물고 있던 전봉준은 감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당하게 감사와 협조하여 전라도 집강소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당시 감사와 협의하는 과정을 시종 지켜본 정석모는 전봉준의 풍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관찰사의 요청으로 전봉준을 감영에 맞이하였는데, 이때 수성군졸이 각각 총과 창을 들고 좌우로 정렬하고 있었다. 전봉준은 높은 관에 삼베옷을 입고 조금도 거리낌없이 위세당당하게 들어갔다. 관찰사와 관민이 서로 화합할 방책을 상의하여 각 군에 집강을 두기로 허락을 받았다.

이리하여 전라도 53개 읍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집강소는 일종의 농민 자치기구로서 농민군들이 자치적으로 집강소의 우두머리인 집강을 두고, 그 밑에 서기, 성찰, 집사, 도몽 등 임원을 두어 행정사무를 보게 하였다. 그리고 전주에는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를 두었다. 난을 피하였다가 돌아온 수령들은 형식상 자리를 지킬 뿐이고 서리들도 모두 동학에 입도하여야 자리를 보전할 수 있어서 모두 앞을 다투어 동학에 들어왔다.

그러나 모든 군현에서 다 순조롭게 집강소가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나주, 남원, 운봉의 경우는 보수적 유생층과 수령들의 저항이 극심하였다. 전주의 대도소에서는 격문을 보내어 설득하다가 끝내 듣지 않자, 급기야는 김개남, 최경선 등을 보내어 공격을 하였다. 나주목사는 민병과 합세하여 최경선이 이끄는 3000명의 농민군에 대항하였다. 이에 전봉준은 나주목사와 담판을 하기 위하여 위기에 처한 국내외의 정세, 전주화약의 내용, 집강소 설치의 이유 등을 설명하여 목사를 설득하여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남원과 운봉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김개남이 이끈 3000명의 농민군은 남원성을 함락시키고 부사를 잡아 처형하였다. 운봉도 김봉득의 계략으로 쉽게 함락시켜 각각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전봉준은 금구, 원평 등지를 근거로 하여 전라우도를 호령하였고, 김개남은 남원을 근거로 하여 전라좌도를 지배하였다.

제2차 농민전쟁 단계

농민군들이 전주화약 이후 전라도 각 지방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뒷수습을 하고 있는 동안 국내외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하여 민씨정권을 몰아내고 대원군을 옹립하여 새 정권을 세웠으며, 청과 일본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경복궁 점령 소식을 들은 전봉준은 일본인의 만행에 분개하며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다시 봉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추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9월에 기포하기로 하고 각지에 통문을 띄워 삼례에 집합하도록 하였다. 9월 18일을 전후하여 삼례 벌판에 모인 농민군은 10만 명에 이르렀다. 처음 봉기를 꺼리던 북접도 항일투쟁이라는 명분에 동의하고 함께 봉기하였다. 북접 동학군은 청산에서 집결하여 남접 농민군과 논산에서 합세하였다.

농민군은 이 여세를 몰아 충청도의 수부인 공주성을 점령하고 바로 서울로 직행하려고 하였다. 전봉준은 북상하기에 앞서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항일구국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주장하는 격문을 보냈다.

남북접의 동학농민군이 논산에 집결했다는 소식은 박제순에 의하여 정부에 보고되고 정부는 곧 호위부장 신정희를 양호도순무사로 임명하여 출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이미 조선군은 무장해제를 당하여 조선정부군은 이름만 남아 있

을 뿐 실제로는 일본군의 감독과 지휘하에 있었다.

사실상 일본군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에서 청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으므로 일본군의 주력 부대는 조선에 없었다. 새로 공사로 부임해온 이노우에 가오루는 9월 28일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일본정부에 증원군을 요청하여 독립제19대대가 급파되었다.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한 후, 10월 15일 3개 중대로 나누어져 3개 방면으로 남진하였다. 각 중대는 조선정부군을 앞세우고 서로는 천안 부근, 중로는 죽산 부근, 동로는 충주에서 농민군이 북상하기를 기다렸다.

논산에 집결한 농민군은 20여 만에 달하는 대군이었으나 사실상 무기도 변변치 않은 농투성이에 불과하였다. 자칭 20만이었으나 실제 병력은 만여 명을 헤아릴 뿐이었다. 일본군과 정부군은 목천 세성산에 포진하였던 북접의 김복명 군을 격파하고 공주로 향하여 농민군 북상의 길목인 우금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전봉준이 거느리는 농민군의 주력부대는 노성읍에서 경천점을 거여 치인으로 전진하였고, 다른 한 부대는 공주 동쪽 30리 지점인 대교로 나아가 공주를 포위하는 형국을 취하였다. 이인과 효포에서 몇 차례 정부군과 공방전을 벌인 농민군은 11월 15일에 웅치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엿다. 그러나 도리어 일본군의 반격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경천점까지 후퇴하고 말았다.

경천점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때, 김개남군이 다시 5000여의 병력을 이끌고 북상, 합세하여 농민군의 기세는 다시 충천할 듯하였다. 농민군은 정부군을 공격하여 우금치에 있는 일본군 진지로 격퇴시켰다.

서울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우금치에서의 대회전이 전개되었다. 농민군은 6, 7일간에 걸쳐 4, 50여 회의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우세한 화력을 가지고 정규훈련을 받은 일본군과 가슴에 부적을 붙이고 화승총을 든 농민군의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우금치의 격전 끝에 농민군은 많은 사상자를 낸 채 노성, 논산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10,000여 명의 병력 중에 남은 것은 500여 명에 불과하였다. 농민군은 일본군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계속 전열을 정비하여 저항하였으나 패배를 거듭할 뿐이었다. 전주, 금구를 거쳐 태인까지 후퇴할 뿐이었고,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깨달은 농민군은 뿔뿔히 흩어져갔다.

전봉준은 처참하였다. 같은 동족간에 총질을 하는 것이 너무도 분하였다. 봉기의 목적은 일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는 것인데, 11월 12일 전봉준은 경군과 영병, 서리, 시민들에게 고시를 하여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일본군을 몰아내자고 호소하였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추운 겨울날 드넓은 호남평야를 뒤로 하고 한 사나이가 걷고 있다. 서해의 짠 바닷바람이 일망무제의 들판을 가로지르며 길 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바쁘게 한다.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에는 지푸라기들만 바람에 흩날릴 뿐 회색의 죽음의 빛으로 변해 있다. 지난봄 새 생명이 약동할 때의 붉은 황토밭들도 이제는 다만 모두 회색일 뿐이다.

난리가 휩쓸고 지나간 들판에도 올망졸망 모여 있는 마을에도 언제 난리가 있었냐는 듯 조용하기만 하다. 동네 어귀에 모여 노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어느 사이엔가 파랑새 노래가 널리 퍼져 있었다. 파랑새 노래는 물론 난리 전부터 불려지던 것이었는데, 난리가 나던 한해 전부터는 더 많이 불려지더니 그즈음에는 숨죽여 부르는 노래가 되어버렸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백산의 언덕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전주 선화당에서 도배과 나란히 당당하게 정사를 논하던 녹두장군도 이제 서울의 일본군에 잡혀가 처형될 날만을 기다린다. 결국 일본군이 문제였다.

지난봄 1차 농민전쟁에서 파죽의 기세로 전라도의 여러 관아를 격파하고 전주성을 점령하였을 때만 해도 농민군의 기세는 충천하였다. 그러나 농민군들은 말 그대로 농민군이었다. 전주성을 점령하고 홍계훈이 이끄는 정부군이 전주성을 에워싸고 공격할 때, 이미 농민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농사꾼의 마음이야 농사를 빼놓고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둘 전주성을 빠져 나가 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봉준도 감사와의 담판을 통하여 이제 농민들의 의견을 국왕에게 전달하고 수령들도 이제 농민들을 얕잡아보지 않을 거이라고 판단하였다. 아니, 오히려 이제 올바른 정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령들이 동학농민군의 협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 전라도를 순행하고 있던 전봉준과 김개남에게 왜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국왕을 협박하고 국권을 좌지우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들은 이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였다. 부정부패 앞에 흔들리는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기 위하여 봉기하였던 농민군들에게 왜군의 침략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찍부터 대원군과 연락을 하며 중앙권력에 농민군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던 동학의 선배 서장옥도 전봉준, 김개남 등에게 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봄의 봉기에 좌시하고 있던 법포들도 반외세의 기치에는 적극 호응하였다. 추수가 끝난 삼례 벌판을 가득 메운 10만의 농민군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군이었다.

부적을 가슴에 차고 그렇게도 충천하던 농민군의 기세가 일본군의 신식 무력 앞에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패주하는 농민군들들 다시 되잡아 전열을 정비해도 농민군들 앞에 놓인 건 패퇴뿐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민중들은 거대한 철벽처럼 단절되어 놓여 있는 문명의 간격에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인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글 김현영

1894년 농민전쟁 연표

1893년

(1) 2월 11일 교조신원운동-서울 복합상소(소수 박광호)

(2) 3월 11일 보은취회(척왜척양)

(3) 11월 (사발통문) 집회(고부 송두호가)

(4) 11월 만석보 수세 감면 운동-구금 후 석방

(5) 12월 다시 수세 문제 제기-거부당함

1894년

(1) 1월 10일 고부관아 점령

(2) 1월 17일 주력부대를 고부 이평 마항 시장으로 이진

(3) 1월 22일 잠입한 전주영병 50여 명 격파

(4) 1월 25일 백산으로 이진-관곡 분배

(5) 3월 21일 백산에서 다시 기병(안핵사 이용태의 탄압에서 비롯됨) 3월 27일(백산격문)

(6) 4월 4일 금구현 원평에 진출, 금구관아 습격, 다른 일대가 부안관아 습격, 2통의 (동학군통문)을 법성포 등에 발송

(7) 4월 7일 황토현 전투에서 전주영병 800명, 보부상군 800명 격멸

(8) 4월 7일-8일 고부 삼거리에서 흥덕으로 진주. 흥덕관아 격파, 고창관아 격파.

(9) 4월 9일 무장에 진주. 농민군 1만 명을 헤아림. (무장창의문)

(10) 4월 13일 영광에 진주.

(11) 4월 17일 함평에 진주.

(12) 4월 22일 장성에 이동. 윤음을 가져온 초토사종사관 이효응, 배은환 체포

(13) 4월 23일 황룡강 전투에서 경군 격파(100명 격멸, 종사관 처단, 장태 전술)

(14) 4월 27일 전주성 점령 (방문) 개시

(15) 5월 1일-3일 전주성 방어전

(16) 5월 4일-7일 초토사와 협상

(17) 5월 7일 전주화약 성립. (폐정개혁안)

(18) 5월 8일부터 농민군, 전주성에서 철수.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 설치. 폐정개혁 단행.

(19) 9월 12-13일에 척왜기병을 위한 남북접 삼례회의

(20) 9월 18일 교주 최시형이 남접과 합작봉기를 허락함.

(21) 10월 초, 기병하여 충청도계에 이름.

(22) 10월 23일 공주 웅치 전투에서 관군(서산군수 성하영, 경리 청대관 윤영성, 참모관 구완희), 일본군 연합군을 격퇴

(23) 10월 24일 전주 유진의 김개남군에 후원을 요청, 군대와 식량 보급, 성하영의 관군 격파, 공주감영의 뒷산 봉황산 포위, 무넘이고개를 넘어 효포로 진격, 관군은 공주성에 웅거. 일본군 일개 대대 내원.

(24) 10월 25일 농민군 공주총공격. 우금치전투에서 패배. 30리 후퇴하여 경천점에 퇴각, 전선 재정비.

(25) 11월 2, 3일부터 다시 공격. 8일경에 다시 공주영에 육박. 농민군은 효포에서 웅치, 우금치 등 3면에 걸쳐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패배, 후퇴.

(26) 11월 12일, 동도창의소의 이름으로 (경병과 영병, 이교, 시민)의 국한문 고시.

(27) 11월 14일 논산으로 후퇴. 일군과 격전, 패배. 11월 15일 황화대에서 일군과 관군 연합군에 패배.

(28) 11월 25일 금구 원평과 태인 석현점에서 군대를 모집한 후에 다시 태인의 산삼에 웅거하여 최후의결전, 다시 패배.

(29) 전봉준은 11월 28일 정읍 입암산성을 벗어나 순창 복흥산 소의 피로리 김경천의 집에서 12월 2일 체포됨.

1895년

(1) 전봉준, 서울로 이송되어 2월 9일 1차 심문, 2월 11일 2차 심문, 2월 19일 3차 심문, 3월 7일 4차 심문, 3월 10일 5차 심문. (공초)

(2) 3월 29일 교수형 집행.

의적인가, 화적인가? – 활빈당

2013.06.19 17:11

홍길동의 후예들

활빈당은 (홍길동전)에 나오는 의적단의 이름이다. 그 시대적 배경은 조선초기 세종 때였다. 그들은 기지와 도술을 써서 탐관오리들을 습격하고, 그들이 토색질해간 재물을 탈취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빈민들에게 나누어주되, 그들을 추호도 괴롭히지 않는다. 양반 서얼이었던 행수 홍길동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며 조선 8도에서 출몰한다. 국왕의 체포명령으로 8도에서 잡혀온 홍길동은 300명이나 되었지만, 조정에서는 길동의 도술을 달하지 못하고 결국 그를 병조판서에 임명한다. 소원을 이룬 홍길동과 활빈당원들은 서해안의 율도국에서 이상향을 건설한다.

광해군 때 형조판서를 지낸 허균(1560-1618)이 꿈꾸었던 이 장쾌한 의적단이, 20세기가 문을 열자마자 우리 나라의 각처에서 봉기하기 시작하였다. 이 활빈당의 두목은 홍길동이 아니라, 맹감역 혹은 마중군이었다. 전국의 여기저기서 맹감역과 마중군이 신출귀몰하듯이 무리를 끌고 부호의 집과 절간을 습격하고 재물을 약탈하여 빈민들에게 나누어준다. 때로는 관아를 습격하여 옥에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고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한다. 허균이 꿈꾸었던 활빈당은 세종 때가 아니라, 300여 년이 지난 1900년대에 비로소 환생한 것이었다. 이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1900-1906년 사이에 우리 땅에 실재로 있었던 역사였다.

활빈당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본색이 화적단이었다. 그러나 이전이 명화적 무리와는 달리 빈민의 구활을 깃발로 내세웠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양반 부자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백성들에게 뿌리기도 하였다. 백성들은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두려워 하면서, 밥을 짓고 술을 빚어 그들을 대접하였다.

활빈당 중에는 본래 화적 출신들이 많았지만, 얼마 전까지 동학군에서 싸우던 사람들도 있었고, 먹고 살 것이 없어 새로 들어온 양민들도 있었다. 그들은 적게는 10-20명, 많게는 100여 명씩 떼를 지어 백주에 장시를 덮치기도 하고 절간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배를 타고 서해안 여러 곳을 습격하거나 지나가는 상선을 나포하는 해적질을 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다. 지방 고을의 허약한 군대는 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경찰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지역마다 유생들이 나서서 자위단을 만들기도 하고, 부호들은 자체 경비인들을 두기도 하였다.

그래도 그들은 활빈당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신고하기도 어려웠다. 복수를 당할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1904년 러, 일 전쟁을 겪으면서 일본 군대가 전국에 파견되어 경찰 노릇을 하면서 활빈당도 시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06년에 들어와 주요 간부들이 체포되거나 처형됨으로써 활빈당은 사라지게 되었다.

실체를 드러내는 활빈당

19세기 세도정치의 학정과 대원군의 쇄국정책, 그리고 개항기의 혼동을 겪으면서 조선의 국력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지고, 민생은 병들게 되었다. 인구는 폭증하는데 흉년과

기근은 연속되었고, 많지 않은 토지의 소출은 소수의 양반과 지주들이 독차지하였다. 여기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새로 유입되는 옷감이나 신발, 식기와 같은 양품들은 민간의 살림을 더욱 조이게 하였다.

농사를 지을 땅도 없어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 백성들은 떠돌이가 되어 품팔이 일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밑천 없는 고달픈 장사치 노릇을 해보기도 하지만 입에 풀칠하기는 역시 어려웠다. 그래서 그저 쉬운 것이 도적질이었다. 처음에는 좀도둑이 되었다가 간이 커지면 소도둑이 되고, 때로는 작당하여 강도짓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이 많아지면 화적이 되어 산 속에 소굴을 두고, 산과 강을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을 하게된다. 이러한 유형의 명화적은 조선시대에 내내 있던 것이었지만, 19세기 중엽부터 도처에 창궐하게 되었다. 그리고 1860년대부터는 전국 각처에서 헤아릴 수 없이 출몰하게 되었다. 그만큼 민중들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었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명화적들은 점차 주도적인 세력들을 중심으로 횡적으로 연계하여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게 된다. 그것이 더 발전하여 일정한 지휘체계나 나름대로의 규범을 가진 지역별 혹은 전국 규모의 단체로 조직화하기에 이른다. 전국적인 규모의 명화적 조직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대개 개항 이후의 한말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조직이나 결사의 관행은 백범 김구의 (백범일지)에 잘 묘사되고 있다.

백범에 의하면, 남한 지역에서 유명한 명화적으로는 크게 강원도의 '목단설'과 삼남 지방의 '추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한갈레에 나온 것으로서, 지도자를 노사장이라고 하였다. 양집단은 일년에 한 번씩 전국적인 집회를 가졌는데, 이를 '대장을 부른다'고 하였다. 그 장소는 큰 절이나 장시 거리였다. 그리고 이 모임이 끝나면 으레 큰 고을이나 장거리를 습격하여 세력을 과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조직이 빈민의 구제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미약하지만 사회개혁의 이념을 가지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과 연계를 가지고 발전한 것이 한말의 활빈당이라고 할 수 있다. 활빈당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을 '활빈당'이라고 칭하면서 도처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00년부터였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1890년대부터 여러 지역에서 도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 1885년부터 일부 화적의 무리들 중에는 '활빈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전례가 있었다. 그리고 1886년에는 잠시 조직적인 활빈당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활빈당은 극히 단편적이고 그 활동도 일회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활빈당의 명칭이 처음보이는 것은 1885년 3월 6일의 (고종실록) 기사이다. 이때 호남지방에서 활빈당이라는 비적이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 다음은 1886년 1월에 충청동 음성의 김덕원 집에서 오순철, 김몽돌, 박순길 등 7명이 활빈당을 결성하고 박순길을 선생으로 추대하였다고 한다. 그후 그들은 총칼을 들고 음성, 괴산 등지의 양반 집들을 습격 약탈하였다. 그러나 2월에 16명의 도당이 괴산의 김진사 집을 습격하다가, 그중 6명이 체포되어 곧 흩어졌다. 그렇지만 이를 계기로 삼남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비적들이 서로 연대하여 조직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1890년대에 삼남 지역의 명화적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윤동굴이었다. 그는 문경-금산 부근에 근거지를 두고 삼남 지방의 명화적들을 대체로 통합하여 조직하게 되었다. 윤동굴은 이러한 화적의 두목으로 직접 대장을 지휘하기도 하다 .그는 1897년 동료들과 함께 금산 부근에서 체포되었다. 그후에는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도사라는 인물이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1899년 4월 경기도 송파장에서는 팔도도감대민도사란 직함을 거고, 민도사의 지휘 아래 82명이 참가한 대도회가 열렸다. 도회를 마친 후에 그들은 오미동 신승

지 집을 습격하여 18,000냥을 탈취하였다.

경기와 충청도 일대에는 마중군이라는 인물이 유명하였다. 1892년경부터 보통 10-100명의 적당을 이끌고 경기도 광주, 음죽, 충청도 충주 등지에 출몰하여 약탈을 일삼았다. 때로는 경상도나 강원도에도 출몰하기도 했다. 그는 남한 일대의 여러 명화적 단체에 일정한 유대를 형성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890년 대 중반 남한 지역 명화적의 도괴수라고 지칭되었던 윤동굴이 지휘 아래서 여러 적당의 모임에 참여하고 부호가들을 습격하였다. 그는 독자적으로 경기,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도 장시의 약탈, 행상의 물화 탈취, 부호가의 습격 등을 일삼아 다른 명화적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마중군은 1900년 3월 경기, 충청도 일대의 활빈당 결성을 주도하게 되었다. 마중군은 1895년 2월에는 충주 장원에서 후에 맹감역이라고 불린 송종백 등 100여 명과 도회를 가졌다. 그리고는 여주 윤덕천의 집을 습격하여 귀금속과 돈 100원을 탈취하였다. 송종백은 1900년 전라도와 경상도 접경지대에서 악명을 날리던 활빈당 두목이었다.

1890년대 충청도 일대의 명화적 두목 중에서 또 하나이 중요한 인물로 맹사진을 들 수 있다. 그는 공주-충주 일대 5인의 두목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1896년 예산에서 백통진가의 분묘를 도굴하고 협박하여 400원을 갈취하기도 하고, 1897년 온양과 예산에서 부호들을 습격하였다. 또 1898년에는 내포 지방으로 이동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1900년에는 마중군의 적당과 연합하여 활빈당을 결성하였다.

숱하게 많았던 맹감역과 마중군, 그리고 그들의 종말

위에서 말한 큰 규모의 명화적들은 1900년 3월부터 활빈당이라는 공통된 명칭으로 조직화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통일된 조직은 아니었고, 서로 횡적인 연계를 가지는 그러한 조직으로 생각된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연락을 취하며 서로 협조하고 있었던지, 또는 공통의 이념이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활빈당이라는 공통된 이름하에 연계활동을 벌이던 집단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아래의 3개 조직이었다.

첫째는 3월 충청도 내포 지역에서 맹사진을 중심으로 조직된 적당이며, 둘째는 같은 시기 경상도에서 결성되어 8월경부터 청도 운문령을 중심으로 활동한 한세봉으로 추정되는 김창성 일파이다. 셋째는 소백산맥을 끼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접경지대에서 주로 활동한 송종백 일파였다.

맹사진의 충청, 경기 활빈당은 1900년 3월부터 활빈당을 칭하면서, 황주와 연산 등지에서 부자집들을 습격하여 은화와 곡식을 탈취하여 빈민들에게 나누어주곤 하였다. 그들의 수는 좀 과장하여 수천 명이라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맹사진은 도처에서 칭해지던 '맹감역'의 원조격인 인물이었다. 그들은 문의, 옥천, 회덕, 진잠, 연산 등지에서 40-50명씩 떼를 지어 부자들의 재산을 약탈했으며, 그들은 총과 칼을 휴대하고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면서 위세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내포에서 시작하여 충청북도 지방까지 세력을 넓혔던 그들 중의 일부는 경상도 상주 지역으로 진출하여 '활빈당대장의기'라는 깃발을 들고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 1900년 겨울 무렵부터는 연해로 진출하여 충청도와 경기 연안에서 해적으로 활동, 통진과 부평, 인천 등지에서 상선을 약탈하고 연해의 부자들이나 촌락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1901년에는 그들이 해적활동이 더욱 극심하였다. 그들은 1903년까지 태안, 비인, 남포 등지에서 노략질을 하였고, 전라도 일대에 출몰하기도 하였다.

경상도 동부지역의 활빈당 역시 1900년 3월경에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활빈당의 두목은 역시 맹감역으로 불린 김창성이었다. 그는 장기군 출신으로 한세봉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험한 산맥이 연결된 운문령을 중심으로 언양, 양산,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운문령은 청도, 밀양, 언양, 양산, 경주 일대를 첩첩이 연결

하는 산맥들이 교차되는 요해처이다(이 지역은 요즈음 등산객들에게는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고 있다).

그들은 그해 8월 17일-18일 양일에 걸쳐 대규모로 양산 통도사 일대를 습격하여 관원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들은 40-50호의 민가를 불태우고 수백 명이 통도사 경내에 활빈당기를 세우고 도회를 열면서, 언양성 침공을 논의하였다. 결국 그들은 이때 언양성을 습격하지 않았지만, 1905년 4월 18일에 다시 관아를 습격하여 관청 건물들을 파괴하고 무기와 재물을 탈취해갔다. 1900년 9월 15일경에는 마중군, 김운이, 배공원 등 각파의 활빈당이 경주 일대의 부호들을 약탈하였고, 1901-1902년에는 마중군 맹감역으로 불리는 두목들이 인솔하는 대소 규모의 적당들이 계속 노략질하였다. 1903년에는 의성 지역까지 활동무대를 넓히기도 하였다.

소백산 일대의 활빈당은 1900년 봄에 전라도 고산 지역에서 출몰하였고, 8-12월에는 운봉, 삼가, 창원, 함양, 안의, 무주, 산청, 함안 등지에 출몰하였다. 1904년에는 맹감역 등 80여 명이 영산, 의령, 삼가, 합천, 성주 금산 등지에 출몰하였고, 1905년 3월에는 맹감역의 지휘 아래 함안 관아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두목들도 맹감역과 마중군을 자칭하였는데, 경기, 충청의 그들과는 별개의 인물들이었다. 그는 1901년에 체포된 김지연의 진술에 의하여 송종백으로 판명되었다. 송종백은 1890년대부터 충주에서 개최된 삼남지방 대도회에 참석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1900년부터 경상도와 전라도 접경지대에서 맹감역이라는 이름으로 위세를 떨쳤다. 그는 충청, 경기 지역이 활빈당과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전국에는 맹감역 혹은 마중군을 자처하는 소규모의 비적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느 것이 활빈당 주류의 행동인지, 그들 상호 간에 어떠한 연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적지 않았다. 비적들 중에는 활빈당을 자칭하지 않은 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이 전혀 활빈당과 무관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주요 3파는 그 위에 상위의 지휘체계나 상하관계의 조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고, 상호 횡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 구성원의 일상적인 수는 대체로 100여 명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시기에 따라 체포되거나 탈락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충청도의 맹감역이었던 맹사진은 한때 그 일당의 수를 5772명이라고 한 적도 있었다. 이는 과장된 감이 있지만, 대체로 전국 활빈당의 총인원수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활빈당의 조직은 대체로 상하의 조직원들끼리만 연결되고 횡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종의 점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원래 명화적들은 입단시에 일종의 사제 관계처럼 계보를 형성하고 있었다. 단원의 직속 상사는 사장이라고 하였고, 그 위는 노사장, 또 그 위는 노노사장이라고 하였다. 그 이상은 알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1900년 활빈당을 공칭할 무렵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위계조직 대신 단원과 사장의 관계만으로 단순화되었다. 이는 조직을 단순화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조직 연줄은 층층의 상하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활빈당의 입단식은 명화적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삼엄하게 진행되었다. 신입단원은 선배 동당들이 둘러싼 가운데 칼을 입에 물리우고 결박당하여 땅에 꿇인 채 매를 맞으면서 충성 서약식을 진행하였다. 그것은 주로 조직의 기밀을 유지하고 체포되었을 때 동료들을 실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사장을 정해주기도 하고, 별명인 적호를 붙여주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활빈당 조직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고, 조직원들은 일반 민중들 사이에 섞여 살거나 약탈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그들의 조직을 지키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1900년부터 시작된 전국 활빈당의 활동은 1904년까지 극성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5가 작통법을 강화하고,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포군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백성들이 자치경비대를 두기도 하였고, 부자들 중에서는 자체 경비병을 고

용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의 소규모 군대 파견이나 경찰력으로는 그들의 활동을 근절할 수 없었다. 활빈당은 그들을 체포하거나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복수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보고서도 제지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1906년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해체되기 시작되었다. 1904년 이후에는 국내 치안을 일본 군사들이 담당하였고, 1906년에는 고문경찰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조선인 경찰의 수도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치안의 강화로 활빈당의 지도부가 대부분 체포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1906년 경상우도의 맹감역(송종백)이 경상북도 인동에서 부호가를 습격하다가, 동민들에게 붙잡혀 매장되었다. 그해 5월에는 충청도의 맹감역이었던 김성숙이 문의에서 부잣집 분묘를 파다가 체포되었다. 동부 경상도에서 역시 맹감역을 자칭하며 활빈당의 지도자로 활동하던 한세봉으로 추정되는 김창성은 그해 가을 울산에서 군대에 체포되었다. 그 지역에서 간부급이었던 강인원, 채순명, 진영달 등은 그 이전에 모두 체포되었다. 이리하여 활빈당의 지도부가 무너지면서 그들의 활동은 지리멸렬하게 되었고, 일부는 당시 전국에서 일어났던 의병운동에 흡수되기도 하였다. 1908년부터 1910년 사이에 봉기한 의병장들 중에서 30여 명이 출
신성분을 알 수 없거나 화적 출신자들이었다. 화적 출신의 의병들은 유생 의병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결국 그들끼로 독자행동을 하거나 평민 의병장들의 휘하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활빈당의 이념과 구호

단순한 비적을 넘어 의적을 자칭하였던 활빈당의 이념은 바로 (홍길동전)에서 온 것이다. 그들은 바로 허균의 (홍길동전)에 묘사된 활빈당을 계승했다고 자청하였다. 1902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활빈당발영'이라는 문건에 이러한 의식이 보이고 있다.

"우리는 경기 감악 이하 오천칠백일흔두 명 활빈유라. 옛날 고래지풍으로 길동 선생 이후로 이칠성, 그후로는 맹감역이니, 편답팔도뿐 아니라 열국에도 편답하고, 이제 궁궁에 거하노라. 우리도 막비군운이요. 천하를 얻은 후에는 이 허물을 면할 사"('활빈당발영')

여기서 홍길동이나 이칠성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맹감역은 바로 충청과 경기 일대에서 활동하던 맹사진으로서, 1906년 황간에서 체포된 김성숙이었다. 그는 보다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중군보다 지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종전의 단순한 화적단체를 의적을 표방하는 그럴듯한 이념을 계발하여 활빈당으로 발전시킨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이념의 근원이 바로 (홍길동전)이었다. 그는 마중군 등이 장시를 자주 습격한 데 비하여, 이를 삼가고 주로 부호들의 집을 약탈하거나 그들의 무덤을 도굴하여 흥정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빈민들에게 재물을 분배하는 방법도 주로 그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활빈당발영'에는 단순히 구민이나 사회개혁의 의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공담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천하를 얻는다"는 포부가 있다. 이는 "궁궁에 거한다"거나 "국운 아님이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이때의 '궁궁'은 동학의 '궁을가'의 한 대목인 "이재궁궁을을(이로운 것이 궁궁을을에 있다)"이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궁궁을을'은 해석이 구구하지만, 대체로 '궁궁'은 '무극'을 말하고, '을을'은 '태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곧 도교나 천도교에서 도덕의 본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궁궁은 무극의 최고 지위를 말한다. 이는 곧 관념적 입장에서나 주술적 입장에서 그 자신이 최고의 지위에 오름을 말하는 것이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임금의 자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국운 아님이 없다"거나 "천하를 얻는다"는 등의 말을 보면, 은연중 역성혁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영문의 말미에는 "우리는 세 가지를 하니, 돈 아니 주면 집에 불놓기와 유부

녀 겁탈하기와 파묘하기를 잘하는지라"한 것으로 보면, 그들의 야심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행동은 대단히 비루하고 교활한 것이었다. 이는 그들이 커다란 포부를 가진 듯 표방하면서도, 결국 명화적의 무리에 지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그들은 관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요구조건을 내걸기도 하였다. 그것은 이른바 '대한사민논설 13개조' 및 '활빈당격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이 두 문건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대한사민론설 13개조' 및 '활빈당격문'의 주요 내용

1. 요순의 법을 행할 것.
2. 사치하지 않은 선왕의 복제를 본받을 것.
3. 백성이 소원하는 문권을 임금에게 올려 일국의 흥인을 꾀할 것.
4. 무익한 개화 대신 민간 화목하고 상하 원없는 정법을 행할 것.
5. 방곡을 실시하여 구민법을 채용할 것.
6. 사전을 혁파하고 균전으로 하는 목민법을 채용할 것.
7. 곡가의 양등을 막기 위해 곡가안정책을 쓸 것.
8. 금광의 채굴을 엄금할 것.
9. 약형의 여러 법을 혁파할 것.
10. 세금을 경감할 것.
11. 도살을 금할 것.
12. 행상자에게 징세하는 패를 금할 것.
13. 통상무역을 금할 것.
14.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금할 것.
15. 타국에 철도부설권을 허여치 말 것.

이러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당시까지 매우 보수적인 유교적 전통 관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순의 법'이라든지 '선왕의 복제'를 추구하고 균전법을 지향한다는 것이 이러한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위의 구호들 중에는 당시의 현실적 민생문제와 관련된 조목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방곡령의 요구나 세금 경감, 외국 상인의 통제, 철도부설권의 양여 반대 등이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동학의 '폐정개혁안'과 일면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이 점이 그들을 사회변혁 의식을 가진 민중 저항세력으로 보는 주요 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활빈당이 이러한 자신들의 이념이나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한 흔적은 잘 나타나 있지 않다. 그들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할 만한 수단이나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불법자들이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언론이 그들의 선전을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의 불법적 약탈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내세운 명분이나 선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중들간에는 그들의 구호나 선전에 공감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민중 생존권에 대한 각성이 다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활빈당의 빈민구제 활동도 그 불법적 성격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부자들로부터 약탈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것은 민중들에게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를 주는 행사이기는 하였지만, 폭력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가 민중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이 역시 민중에 대한 그들의 선전행위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이었다. 사실 활빈당들이 약탈하여 분배하는 것은 주로 그들이 대량으로 운반하기 어려웠던 곡물류였다. 반면 돈이나 귀금속 또는 무기류를 민중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없었던 장물들을 '활빈'이란 이름 아래 민중들에게 나누어주었던 것이다.

20세기 초에 우리 나라의 각지에서 일어났던 활빈당은 당시의 사회적 모순 속에서 야기된 민중들의 일탈 행동으로서, 이는 누적된 대내외적 모순 속에서 고통받던 민중들의 항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민중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자활 노력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은 약간의 사회개혁적인 이념을 표방하기도 하였고, 비록 구호와 선전을 위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약탈물을 민중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또 봉건잔재적인 여러 특권을 이용하여 생산물을 독점하던 양반 부호들을 습격하고 약탈함으로써 반봉건적인 투쟁양상을 보이고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불법적인 도적활동은 당시 민중들로부터 진정한 동조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활빈당의 활동이 역사적으로 발전을 가져왔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활빈당 단원들 중 일부는 동학도들의 잔존세력이 흡수된 것이었다. 그들은 1906년 일본 경찰력의 힘으로 대부분 해산된 후, 일부 단원들이 의병운동에 투신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민족운동사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토벌당하여 궁지에 처했던 그들의 자구적인 처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항일 민족운동의 일화이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대표적 변란 – 광양란과 이필제의 난(1)

2013.06.19 16:59

광양란

오늘날 우리들은 광양이라는 이름으로는 광양제철소를 떠올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있어 가장 경쟁력을 갖춘 것은 제철과 반도체 부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철소가 위치한 광양은 우리 국민에게 적잖은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곳으로 기억할 수 있다. 그런데 130여 년 전 이 광양에서는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민중들의 저항, 즉 변란이 일어났다.

이때 광양에서 일어난 민중봉기는 당시 수없이 많이 기도된 변란 모의 가운데 처음으로 거사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변란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조직성과 연계성으로 이후 우리 민중운동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누차 강조되었듯이 19세기는 '민란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는 극에 달한 봉건왕조의 모순에 최대 피해자인 민중들이 그들의 권리를 찾고자 맹렬한 반봉건투쟁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용어이다.

물론 처음부터 농민들의 투쟁이 과격했던 것은 아니었다. 항조운동과 같은 온건한 방법으로 관권에 맞섰다. 그러나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농민들은 1811년의 홍경래난에서 보여지듯이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농민봉기를 전개하였다. 이를 기해 농촌의 농민과 도시의 영세상공인들은 새로운 변혁의 가능성을 점치고 조직적인 저항운동도 전개하였다. 아울러 곳곳에 흉서, 괘서가 나돌고, 양반이나 세도가 집에 돌팔매질을 하거나 불을 질렀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을 계몽하고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명분을 가지고 민중들을 규합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다. 곧 '직업적 봉기꾼들'이라 부르는 저항적 지식인들의 변란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의 투쟁 방략은 민란이 아닌 병란으로 지칭되고 있듯이 농민반란과 달리 조직적으로 무장을 하며, 지도부들의 성격도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지역간의 연계를 갖는 응집력을 보이고 있다. 그 선구적인 모델이 바로 1869년(고종6) 3월 전라도 광양현에서 발생한 광양란이다.

1869년 3월 24일 밤,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른 난민 70여 명이 총을 쏘아대며 성안으로 돌진하였다. 종전 민란처럼 몽둥이와 쇠창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총을 소지한 이들은 군기고와 창고를 열어 무기와 사창곡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현감 윤연신을 잡아 항복문서를 바치도록 위협하면서 관인(수령임명장과 군사지휘권)을 뺏으려 하였다.

이들은 성문을 굳게 지키고 군부에 따라 시간마다 군졸을 점호하였다. 성 안을 완전 점령한 것이다. 물론 갇혀 있던 죄수를 모두 풀어주고 백성들 중에서 건장한 사람을 뽑아 군복을 입혀 같은 패로 감아 세를 불리었다. 그러나 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위로하는 격문을 적어 곳곳에 붙여놓았다.

이상이 광양란 발생 첫날 밤 모습이다. 반군에 관청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조정에서는 현감 윤영신을 파직하고, 영광군수 남정용을 안핵사로 임명하여 즉시 현장으로 파견하고 동시에 정라병영과 5진영으로 하여금 정예의 장요와 나졸을 보내 난군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강진은 비바람과 함께 날아가고

사실 이 광양란 거사에 앞서 주모자 민회행, 전찬문, 강명좌, 이재문, 김학원 등 일당 25명 동지들은 강진에서 난을 일으킬 계획이었다. 이들은 거사를 위해 장례식을 위장하고 거짓 상여에 무기를 숨겼다. 이러한 방법은 당시 민중들이 관청의 눈을 속이기 위해 흔히 쓰는 위장술이었다. 즉 1868년(고종 5년) 9월 민회행은 전찬문, 강명재, 이재문, 권학녀 등과 함께 장흥에서 장례식을 핑계삼아 25명을 동원하여 위장한 상여에 무기를 숨겨 강진병영을 공격하고자 했다. 그러나 마침 그날은 날씨가 놓지 않았다. 이들이 강진에서 5리 정도 떨어진 주막에 이르렀을 때 난데없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자 좋지 않은 징조로 여기고 섣달 그믐날 다시 거사하기로 약속하고 일단 흩어졌다.

신사적인 난군과 책임을 다한 현감

이리하여 다시 후일을 기약한 것이 이 광양란이다. 원래 광양란은 하동장시 모임에서 비롯되었다. 장흥에서 거사에 실패한 민회행은 진주민란을 본받아 민란을 일으켜 읍폐를 바로잡는 데 그 명분을 두고, 이재문, 최두윤 형제, 금호도의 백내흥 등 14명과 결당하고 변란을 모의하였다. 그들은 필요한 전곡과 화약을 마련한 다음 3월 18일 하동으로 갔다. 18일 30여 인이 하동에서 일단 모여 배에 올라 장사꾼을 가장하고 섬진강을 왕래하다가 그 무리가 70여 명으로 늘어나자 우손도로 직행하였다. 당시 광양란에 대한 정부측 보고로 전라감사 서상정의 보고와 통제사 이현직의 보고가 있는데, 그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서상정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은 3월 21일 밤 흰 수건을 두른 백건적 100여 명(사실은 70명)이 2척의 범선에 나눠타고 순천부 하적면에 위치한 우손도에 침입하였다. 당시 그 섬에는 최영길한 집만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최씨 집에 있는 각종 농기구를 탈취하고, 호주 최영길과 품삯군 김총각, 낚시를 하려고 섬에 들어와 있던 하적동의 주민 2명 등을 협박해 갑옷과 죽창, 깃발 등을 만들었다. 거사에 앞서 이들은 산에 올라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낸 다음 우손도를 떠났다고 하였다.

이들은 21일 배를 타고 초남포에 도착하였고, 광양관아를 공격한 것은 2일 뒤인 3월 23일 밤으로 하루의 차이가 있다. 반군은 군부를 점열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관아를 공격, 군기를 탈취하여 화살과 총으로 무장하고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현감 윤영신이 갖고 있던 인부를 탈취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통제사 이현직의 보고는 보다 자세하였다. 흰 수건을 두르고 죽창을 든 반란군 70여 명이 총을 쏘며 동문으로 난입하여 군기고를 탈취, 활과 총을 뺏었다는 사실까지는 마찬가지이나, 수령임명권과 군사지휘권을 상징하는 인부를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에 관한 기록이 보다 생생하였다. 당시 반군 가운데 장수급은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졸병들은 활과 총을 나누어 가진 후 수령이 있는 동헌으로 달려가 현감을 잡아 온갖 공갈로 협박하여 인부를 탈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감 윤영신은 자기 몸에 인부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내어줄 수 없다고 버티어서 끝내 이를 빼앗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날 난리로 민가 25호가 불타버렸고, 신체가 건장한 사람 300명을 뽑아 강제로 반군에 가담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난군 두목은 그 휘하 사람들에게 만약 백성들을 살해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중죄로 다스리겠다고 호령하였기 때문에

난리통에도 한 사람의 평민도 살해된 자가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난도들은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춘궁기에 진휼해야 한다며 사창으로 되돌리고 창고문을 잠갔다고 한다. 그리고 동헌으로 돌아가 소를 잡고 밥을 지어 포식을 한 후 흰 띠와 죽창을 버리고 혹은 검은 옷, 혹은 사령옷으로 갈아입고 성문을 굳게 지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야밤을 틈타 짧은 시간 내 조직적으로 성을 점령했던 광양 거사였지만, 그 패배 또한 순식간에 이루어져 3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곤욕을 치른 다음 몰래 관아를 빠져나갔던 현감 윤영신이 이끌고 온 관군의 공격을 받아 25일 밤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틈을 타서 적지에서 탈출한 현감 윤영신은 25일 밤 수천 명을 이끌고 반란군에 반격하여 성을 수복하고 반란군 수십명을 잡아들이는 데 성공하였다. 반란군에 쫓겼던 윤영신에 의해 난군이 진압된 것이다. 이로써 윤은 오히려 벼슬이 높아졌다.

40대와 20대

주모자 민회행은 당시 44세로 전라도 광양에서 출생하였는데, 직업은 의술이고 천문지리에 밝았다고 한다. 그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남다른 뜻을 품고 영남과 호남 일대를 두루 다니며 뜻을 함께하는 동지를 규합했는데, 이때 만난 사람이 전찬문과 이재문이었다. 이들은 민회행의 충실항 동지가 되어 1년 전인 1868년(고종5)에도 강진 변란에 뜻을 같이하였다.

전찬문 역시 44세로 전라도 태인 사람이나 살기는 구례에서 터전을 잡았다 한다. 그 역시 전국을 돌아다니며 뜻을 같이한는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분주하게 전국을 누빈 전찬문은 강명좌 집에 모여 무기를 들고 난동을 일으키자고 하였으며, 강명좌와 함께 하동장시에서 민회행과 합류한 후 광양민란에서는 스스로 군무총찰이라 부르면서 난군을 지휘하였다.

이재문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어린 27세로 광양 사람이다. 하동장시때부터 민회행과 행동을 같이하여 광양민란에서는 현감에 욕을 보이고 죄수들을 풀어주고 군기를 탈취하는 등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였다.

23세의 권학녀는 남원 사람이다. 민회행의 오른팔이 되어 거사에 앞서 제사를 지내는 일부터 분위기 조성과 반란군의 대열정비 등 주장하지 않은 일이 없고 간섭하지 않은 일이 없다. 23일에 육지로 나올 때 군부를 점열하여 편대를 만들어 광양성으로 직행하였다. 강명좌는 41살로 강진에서 태어났고 생활근거지는 구례였다. 강진거사 때부터 하동장시에 모이는 일, 우손도에 가서 군비 마련하는 일 등을 민회행과 함께하였다.

민란이 진압되자 주모자 민회행, 전찬문, 이재문, 권학녀와 강명좌, 김문도 등 6인이 한양의 의금부로 잡혀갔다. 그리고 바로 네사람은 모반대역죄로 무교동 대로에 설치한 형장에서 능지처참의 형에 처해졌고, 그 가족들은 적몰하여 노비로 전락하였다. 당연히 광양은 읍으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김문도는 49살로 강진 태생의 향리인데, 난도들과 함께 장흥취회와 광양난 거사에 부화뇌동했다 하여 불고지죄로 서소문 밖에서 참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광양현에 잡혀 감금되었던 한경삼 등 44명의 난민들은 죄수영으로 압송되어 모두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김학수 등 2인은 섬으로 유배하고 그외 추종자들은 석방하여 난의 처리를 마무리지었다. 물론 이들과 달리 백성들을 불러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진사 유병오는 벼슬길에 올라 팔자를 고쳤다.

민란과 변란의 다리

이상이 고종 6년 3월 23일에 일어나 25일에 끝난 광양란의 전말이다. 시정 혁폐를 관철시키고자 무력으로 관아를 점령한 병란이었다. 그 주모자들의 출신을 보면 전라도 각지의 인

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장차 난리가 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동모자를 규합한 민회행 등의 행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오래 전부터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국을 돌며 동지들을 규합해왔다. 그들은 향촌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농민층이 아니라 '잔반파락호'로서 한결같이 천문지리나 술수에 능통한 이들이 전국적 거사를 의도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단순 농민반란이 아니라 변란인 것이다.

그러나 광양란은 전주민란을 본받아 읍폐를 시정하려 하였으며, 왕조를 무너뜨리려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민란적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다. 한마디로 변란과 민란의 교량적 위치에 선 광양란은 이로써 막을 내리고, 이필제란의 지향점을 제시해주었다고 하겠다.

이필제의 난

100여 년 전 그때 그 시절, 우리네 젊은이들 역시 눈앞에 전개되는 부조리를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었나 보다. 무능한 왕권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부패한 세도가들의 매관매직과 가렴주구... 말세로 치닫는 조선왕조와 이에 기생하는 관료집단들에 대해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민중들은 조선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당시 경제구조의 모순을 가장 무겁게, 가장 아프게 느끼고 있는 신분계층은 일반 농민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나설 엄두는 못 내었다. 대신 모순덩어리 사회구조 속에서 뜻을 펴지 못한 소외된 한유와 빈사들은 저항적 지식인이 되어 전국을 유람하며 농민들을 각성시키고,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규합, 사회구조를 그 토대부터 흔들어 놓는 '조선식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였다. 더구나 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서양세력의 침입이라는 전대미문의 양상을 보임으로써 조선사회는 언젠가 닥쳐올 서양 오랑캐의 침공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국내의 봉건적 모순의 심화와 양이침공에 대한 불안감은 현실도피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정감록 사상을 전국적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전국을 무대로 민중들과 소외된 지식인들의 한에 불을 지폈던 '직업적 봉기꾼' 이필제의 구호와 행동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현실을 극복하며 내일을 준비하다 좌절해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이필제란이라고 하면 1871년(고종 8) 3월 10일 이필제가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과 함께 경북 영해에서 봉기한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는 1869년부터 1871년 말 체포되어 처형당하기까지 3년간 진천, 진주, 영해, 문경 등지에서 4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필제가 처음 반정부 구호를 내걸고 거사한 것은 1869년 진천작변이었다. 하지만 첫 거사부터 내부 밀고자에 의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밀고자는 김병립이었다. 그러나 첫 거사 실패에 좌절할 이필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듬해 다시 진주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 모의에서 이필제 외에도 정만식, 성하첨, 양영렬 등 직업적 봉기꾼들도 함께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조용주 형제의 투서와 전낙운의 밀고로 발각되었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세 번째 이필제는 1871년 3월 영해에서 궐기하였다. 드디어 거사에 성공, 전 조정 관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특히 이 거사에서 이필제가 종전과는 다른 지도력과 조직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동학 창시자 최제우의 순교일인 3월 10일을 거사일로 잡고, 교조신원을 기치로 동학교도를 조직적으로 끌어들여 거사에 성공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운동사에서 이 영해란에 대한 평가는 바로 농민봉기의 맹아적 성격을 지닌 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난을 통해 반정부 인사의 주자로서의 자신감을 얻은 이필제는 다시 조령에서 난을 일으키려 하였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그의 편이 되어주지를

않았다. 네 번째 거사 실패로 2년간 4회에 걸친 이필제의 반정부 투쟁은 형장의 이슬과 함께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상이 바로 이필제난의 자취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필제를 직업적 봉기꾼 내지 전문 반란지도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4회에 걸친 반란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1871년 영해봉기이므로, 이필제의 난을 영해봉기로 달리 부르기도 한다.

이필제는 1824년(순조24) 충남 홍주에서 태어나 1871년(고종8) 조령거사 실패로 체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아버지는 이규묵이다. 태어난 곳은 홍주이나 성장기 대부분을 충북 진천에서 지냈다. 스스로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자랐다"한 것으로 보아 그의 신분은 잔반계층으로 이해하고 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이근수였으나 필제로 고쳤으며, 급제 후에는 이홍으로, 다시 주지문으로 성명을 바꾸었다. 진천작변에서는 김창정 또는 김창석, 진주와 거창에서는 주성칠, 주성필로, 영해에서는 이제발로, 문경에서는 진명숙 등의 가명을 쓰며 수색의 그물을 빠져나갔다.

이필제의 난

100여 년 전 그때 그 시절, 우리네 젊은이들 역시 눈앞에 전개되는 부조리를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었나 보다. 무능한 왕권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부패한 세도가들의 매관매직과 가렴주구... 말세로 치닫는 조선왕조와 이에 기생하는 관료집단들에 대해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민중들은 조선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당시 경제구조의 모순을 가장 무겁게, 가장 아프게 느끼고 있는 신분계층은 일반 농민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나설 엄두는 못 내었다. 대신 모순덩어리 사회구조 속에서 뜻을 펴지 못한 소외된 한유와 빈사들은 저항적 지식인이 되어 전국을 유람하며 농민들을 각성시키고,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규합, 사회구조를 그 토대부터 흔들어 놓는 '조선식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였다. 더구나 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서양세력의 침입이라는 전대미문의 양상을 보임으로써 조선사회는 언젠가 닥쳐올 서양 오랑캐의 침공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국내의 봉건적 모순의 심화와 양이침공에 대한 불안감은 현실도피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정감록 사상을 전국적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전국을 무대로 민중들과 소외된 지식인들의 한에 불을 지폈던 '직업적 봉기꾼' 이필제의 구호와 행동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현실을 극복하며 내일을 준비하다 좌절해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이필제란이라고 하면 1871년(고종 8) 3월 10일 이필제가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과 함께 경북 영해에서 봉기한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는 1869년부터 1871년 말 체포되어 처형당하기까지 3년간 진천, 진주, 영해, 문경 등지에서 4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필제가 처음 반정부 구호를 내걸고 거사한 것은 1869년 진천작변이었다. 하지만 첫 거사부터 내부 밀고자에 의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밀고자는 김병립이었다. 그러나 첫 거사 실패에 좌절할 이필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듬해 다시 진주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 모의에서 이필제 외에도 정만식, 성하첨, 양영렬 등 직업적 봉기꾼들도 함께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조용주 형제의 투서와 전낙운의 밀고로 발각되었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세 번째 이필제는 1871년 3월 영해에서 궐기하였다. 드디어 거사에 성공, 전 조정 관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특히 이 거사에서 이필제가 종전과는 다른 지도력과 조직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동학 창시자 최제우의 순교일인 3월 10일을 거사일로 잡고, 교조신원을 기치로 동학교도를 조직적으로 끌어들여 거사에 성공하였

다.

특히 우리 나라 운동사에서 이 영해란에 대한 평가는 바로 농민봉기의 맹아적 성격을 지닌 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난을 통해 반정부 인사의 주자로서의 자신감을 얻은 이필제는 다시 조령에서 난을 일으키려 하였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그의 편이 되어주지를 않았다. 네 번째 거사 실패로 2년간 4회에 걸친 이필제의 반정부 투쟁은 형장의 이슬과 함께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상이 바로 이필제난의 자취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필제를 직업적 봉기꾼 내지 전문 반란지도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4회에 걸친 반란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1871년 영해봉기이므로, 이필제의 난을 영해봉기로 달리 부르기도 한다.

이필제는 1824년(순조24) 충남 홍주에서 태어나 1871년(고종8) 조령거사 실패로 체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아버지는 이규묵이다. 태어난 곳은 홍주이나 성장기 대부분을 충북 진천에서 지냈다. 스스로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자랐다"한 것으로 보아 그의 신분은 잔반 계층으로 이해하고 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이근수였으나 필제로 고쳤으며, 급제 후에는 이홍으로, 다시 주지문으로 성명을 바꾸었다. 진천작변에서는 김창정 또는 김창석, 진주와 거창에서는 주성칠, 주성필로, 영해에서는 이제발로, 문경에서는 진명숙 등의 가명을 쓰며 수색의 그물을 빠져나갔다.

19세기의 대표적 변란 – 광양란과 이필제의 난(2)

2013.06.19 17:01

이필제의 난

100여 년 전 그때 그 시절, 우리네 젊은이들 역시 눈앞에 전개되는 부조리를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었나 보다. 무능한 왕권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부패한 세도가들의 매관매직과 가렴주구... 말세로 치닫는 조선왕조와 이에 기생하는 관료집단들에 대해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민중들은 조선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당시 경제구조의 모순을 가장 무겁게, 가장 아프게 느끼고 있는 신분계층은 일반 농민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나설 엄두는 못 내었다. 대신 모순덩어리 사회구조 속에서 뜻을 펴지 못한 소외된 한유와 빈사들은 저항적 지식인이 되어 전국을 유람하며 농민들을 각성시키고,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규합, 사회구조를 그 토대부터 흔들어 놓는 '조선식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였다. 더구나 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서양세력의 침입이라는 전대미문의 양상을 보임으로써 조선사회는 언젠가 닥쳐올 서양 오랑캐의 침공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국내의 봉건적 모순의 심화와 양이침공에 대한 불안감은 현실도피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정감록 사상을 전국적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전국을 무대로 민중들과 소외된 지식인들의 한에 불을 지폈던 '직업적 봉기꾼' 이필제의 구호와 행동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현실을 극복하며 내일을 준비하다 좌절해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이필제란이라고 하면 1871년(고종 8) 3월 10일 이필제가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과 함께 경북 영해에서 봉기한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는 1869년부터 1871년 말 체포되어 처형당하기까지 3년간 진천, 진주, 영해, 문경 등지에서 4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필제가 처음 반정부 구호를 내걸고 거사한 것은 1869년 진천작변이었다. 하지만 첫 거사부터 내부 밀고자에 의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밀고자는 김병립이었다. 그러나 첫 거사 실패에 좌절할 이필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듬해 다시 진주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 모의에서 이필제 외에도 정만식, 성하첨, 양영렬 등 직업적 봉기꾼들도 함께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조용주 형제의 투서와 전낙운의 밀고로 발각되었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세 번째 이필제는 1871년 3월 영해에서 궐기하였다. 드디어 거사에 성공, 전 조정 관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특히 이 거사에서 이필제가 종전과는 다른 지도력과 조직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동학 창시자 최제우의 순교일인 3월 10일을 거사일로 잡고, 교조신원을 기치로 동학교도를 조직적으로 끌어들여 거사에 성공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운동사에서 이 영해란에 대한 평가는 바로 농민봉기의 맹아적 성격을 지닌 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난을 통해 반정부 인사의 주자로서의 자신감을 얻은 이필제는 다시 조령에서 난을 일으키려 하였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그의 편이 되어주지를 않았다. 네 번째 거사 실패로 2년간 4회에 걸친 이필제의 반정부 투쟁은 형장의 이슬과 함

께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상이 바로 이필제난의 자취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필제를 직업적 봉기꾼 내지 전문 반란지도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4회에 걸친 반란 가운데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1871년 영해봉기이므로, 이필제의 난을 영해봉기로 달리 부르기도 한다.

이필제는 1824년(순조24) 충남 홍주에서 태어나 1871년(고종8) 조령거사 실패로 체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아버지는 이규묵이다. 태어난 곳은 홍주이나 성장기 대부분을 충북 진천에서 지냈다. 스스로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자랐다"한 것으로 보아 그의 신분은 잔반 계층으로 이해하고 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이근수였으나 필제로 고쳤으며, 급제 후에는 이홍으로, 다시 주지문으로 성명을 바꾸었다. 진천작변에서는 김창정 또는 김창석, 진주와 거창에서는 주성칠, 주성필로, 영해에서는 이제발로, 문경에서는 진명숙 등의 가명을 쓰며 수색의 그물을 빠져나갔다.

진천에서 중원으로 - 진천작변

이필제의 첫 번째 반정부 거사는 1869년(고종 6) 4월 자신이 살았던 충북 진천을 무대로 일어났다. 하지만 그와 함께 난을 모의한 사람은 진천 사람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필제는 목천에 사는 김낙균, 공주 사람 심홍택 부자와 양주동 등 충남의 인사들과 함께 제세안민을 위해 군사를 일으켜, 북으로 중원(중국)을 정벌한다는 기치 아래 거사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의 영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존을 위한 의병으로 자임하고 있었다.

진천거사의 명분이 단순한 조선왕조의 전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원정벌까지 외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예전과 다르다는 대외적인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다. 1861년(철종11) 영불연합군은 텐진조약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구실을 붙여 중국에 쳐들어왔다. 그런데 외침을 받은 중국은 무력하게 북경을 내주고 황제는 열하까지 피난가야 했다. 양이침공에 어이없이 무너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소식은 조선사회 전체에 엄청난 위기의식과 혼란을 가져왔다.

이필제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중국을 침략한 서양 오랑캐가 곧 조선 땅에도 쳐들어올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거사명분은 봉건 조선정부의 타도만이 아니라, 서양세력의 퇴치를 통해 제세안민에 두어져야 했다. 이처럼 그들의 봉기는 야심과 명분이 뚜렷한 거사였다.

여기에 19세기 중엽 이후 대외적인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던만큼 정감록이 그 어느 때보다 민중세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당시 팽배했던 피난사상 가운데에는 병란이 일어났을 때 보신을 위한 피난처로서 산에도 이롭지 않고 물에도 이롭지 않은 궁궁이 가장 좋다고 하고, 그 곳은 병화나 흉년도 들지 않는 보신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이필제 역시 임진송송지설을 내세웠다.

"궁이 2번 들어가니 피난처로 가장 좋은 곳을 뜻하는 궁궁이고, 필제가 태어난 해가 을유년으로 을을을 말하니(이필제의 운명은) 임진란 때의 이여송과 같다"는 논리로, 서양세력이 연합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한다면 당연히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명나라 장수 이여송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자처하고 있었다.

요컨대 진천작변은 정감록의 피병설과 서양오랑캐의 침공이라는 대외적 위기의식이 결부되어 동모자들과 함께 반정부 투쟁 내지는 신 왕국 건설을 실현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더구나 중원정벌이라는 기치는 조선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킨 것으로, 운동자금 마련에 더없는 명분이 되었다. 이들은 인척이나 평소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동지를 포섭하였고 거사

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을 끌어들였다. 이필제에 대한 말을 전해듣고 진천까지 찾아온 공주 진사 심홍택은 상당한 재력가였는데, 이필제의 수려한 외모와 청중을 압도하는 언변에 반하여 이필제를 위해서는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다.

서양세력의 침입이라는 국가 위기를 이용, 국가 보전과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던 진천작변이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동지 김낙균의 당숙 김병립의 고발로 사전에 발각되었다. 결국 심홍택과 양주동은 포도청에서 심문받다가 죽었으며, 이필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작금의 국가정세는 산 넘어 산이다 - 진주작변

진천에서 시도한 변란이 사전에 발각되어 도망한 이필제는 그해 12월 진주 일대를 무대로 두 번째 변란을 기도하였다. 주성칠 또는 주성필로 이름을 바꾼 이필제는 거창으로 가서, 전부터 알고 있던 양영렬과 그의 소개로 정만식, 성하첨 등을 만나 일단 남해에서 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남해거사는 자금부족과 동모자의 비협조로 중도에 포기하였다.

진천작변 이후 도망하게 된 이필제는 그해 여름 선산을 거쳐 거창으로 가서 김영구 집에 머물다 그 지방의 양영렬을 만나 진주작변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다. 양영렬은 정만식과 성하첨에 대해 자신은 이들과 일찍부터 알고지내는 사이로 두 사람은 병법에 능하며 만약에 일이 있으면 기꺼이 창의할 것이며, 두 사람이 사는 동네에는 함께 일을 꾀할 사람이 많다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양영렬 등은 이필제가 오기 전에 거사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영렬은 의병장의 후예로 알려졌다. 원래 평양에 살았으나 1852-1853년 북경에 난리가 났다는 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남쪽으로 내려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진주작변에서 그의 활약은 대단하였다. 이필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명을 쓰며 격문을 써 돌리고 동조자를 불러들였다.

정만식은 서울 사람으로 병법에 능하고 왕가의 종실 선춘군을 사칭하였다. 병인양요 후 피난차 고령으로 이사한 그는 이미 고종2년 무렵부터 만민을 구하기 위해 제주와 울릉도 등에서 큰일을 일으키려는 야심을 가진 반정부 인사가 되어버렸다. 창년 사람 성하첨 역시 병법과 술수에 능통하며 관운장에 비견될 담력의 소유자이다.

진주에서 정만식, 성하첨 등과 합세한 이필제는 기왕의 민란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며 거사에 완전을 기하려 하였다. 예를 들면 성하첨은 이필제에게 진주민란이 실패한 이유로 난군이 쉽게 모이고 쉽게 흩어지는 등 굳은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고종6년 3월 광양란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3-4개 읍을 공략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8월의 통영민란에 대해서는 주사와 군병이 모두 장교의 수중에 있어서 실패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계획을 보다 조직적으로 지도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의 거사 모의에는 (고산자 비기), (상주신도록 비기) 등의 비기가 인용되었다.

이필제는 당시 서구 자본주의 열강이 침탈과 일본의 침략성, 중국 농민란으로 인한 불안 등의 국제정세와 당시 국내 빈발한 명화적 등 대내외적 봉건 조선왕조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의리와 명분으로 창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차 조선이 동서남북 4개의 제후국으로 나누어질 것인바, 자신은 정만식의 얼굴빛이 예사롭지 않고 손바닥에 신비한 무늬(점)가 있다는 사실에 그를 정진인으로 내세웠다.

"지금의 시세는 양요가 자주 있고 북쪽이 소요하여 강을 건너올 우려가 있으며, 왜구가 엿보는 조짐이 있고 해도에는 또한 도적이 많으니 나라의 형편이 산 넘어 산이다. ... 만약

지금 한 곳에서 병사를 일으키면 사방에서 봉기하고 곳곳에 전쟁의 기운이 있어서 온 나라가 삼분사열되어 북요를 막기 어렵고, 군정(여러 명의 정진인)이 함께 나타나는 것 역시 저지하기 어려우므로, 나는 의병을 일으켜 해도로 들어가 안정을 도모하여 집과 나라를 함께 건지는 것이다."

진주거사에 필요한 병력은 평소 자신의 문명을 이용하거나 넉넉한 삯을 준다는 소문을 퍼뜨려 짐꾼을 모았다. 자금은 성하첨이 밭을 팔아 마련한 170냥으로 충당하였고, 남해로 들어가기 직전 부족한 배값을 충당하기 위해 명화적을 위장하여 인근 김부자 집의 재물을 탈취하려고도 했다.

이들이 거사에 착수한 것은 12월 11일이었다. 먼저 남해현에서 어사출두 형식으로 재물과 무기를 모으고 섬사람들을 동원하여 통영, 고성, 김해를 거쳐 육지로 나가 성을 공격하고 곧장 서울로 향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모군한 사람 가운데에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어사로 가장하여 남해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는다는 계획에 실망하고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또 남해 죽도로 가려 했으나 장교 하나가 함께 배에 오르자 그들의 계획이 탄로날 것이 염려되어 중도에 포기하고 모두 배에서 내렸다. 결국 이번 거사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남해거사에서 실패한 이필제 등은 다음해 2월 28일 또 다시 덕산에서 변란을 시도하였고, 그들은 나무꾼들을 모아 관청으로 들어가 관장을 둘러메고 읍촌을 돌아다니면 군정들이 모여들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선산, 진주, 거창 등지에 서찰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다니며 정감록의 내용이나 혹은 사회모순을 거론하여 동지를 포섭하고 자금과 장정들을 모으고자 했다. 그러나 동모자로 포섭한 조용주의 투서와 홍종선, 전낙운의 고발로 실패하였다.

내부 동지에 의한 밀고로 진주거사 역시 불발로 끝나고 이들은 진주병영에 수감되었다. 조정에서는 사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주모자를 비롯하여 더불어 모의하거나 적어도 거사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사람들까지 반란세력으로 규정하고 많을 사람들을 잡아 서울로 압송하여 신문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우두머리인 주성칠이 도망하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종용이나 협박에 의하여 음모에 가담한 종범들을 문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덕분에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없었다.

대신 정만식은 추자도, 양영렬은 흑산도, 양성중은 신지도, 성하첨은 김갑도, 박만원은 지도, 양경노는 임자도, 정재영은 사도, 정홍철은 위도, 어치원은 녹도, 최봉의는 여도, 박사원은 마도, 장경노는 고금도 등등 수많은 남해의 여러 섬에 흩어 유배되었다. 진주병영에 수감되어 있던 또다른 죄수들은 그 지방에서 재량권을 갖고, 죄의 경중에 따라 처리하게 하였다. 한편, 전 정언 김희국이 민란에 가담했다 하여 서울로 압송되었으나, 곧 혐의가 벗겨져 풀려나고 정언에 재임되었다.

19세기의 대표적 변란 – 광양란과 이필제의 난(3)

2013.06.19 17:03

교조 이름을 내걸어 거사에 성공하였는가? – 영해작변

이팰제가 세 번째로 기도한 영해작변은 1871년 3월 10일 동학교조 신원운동을 가탁하여 영해지방의 동학의 조직을 이용, 거사하였다. 특히 4차례 변란 가운데 유일하게 거사를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진주거사에서 실패한 이필제가 고종 3년(1866)부터 알고 지낸 영해의 이수용과 남두병을 찾아간 것은 고종 7년 10월 전후한 무렵이었다. 당시 이필제는 스스로 동학교도로 자처하며 영해지역의 동하교도들을 포섭한 다음, 최시형에게 사람을 보내 교조신원운동을 가탁하여 거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필제는 참여를 거부하던 최시형에게 최시형의 측근이던 이인언, 박사헌등을 여러 차례 보내 설득한 끝에 드디어 고종 8년 2월 최시형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최시형을 만난 이필제는 자신은 민족의 시조 단군의 영령으로서 이 세상에 나온 전지전능한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거사의 이유를 당당히 밝혔다. 한편으로는 교조의 치욕을 씻고, 한편으로는 민중을 온갖 재앙에서 구원하려는 뜻에서 중국에서 신왕국을 건설하려 한다는 의도를 전하였다.

"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고, 조정에서도 알기 때문에 5영이 모두 감응하고 6조가 머리를 돌린다. 이 어찌 천운이 아니겠는가. 그대들이 만약 기꺼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대들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렸으니 따르고 안 따르고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폐일언하고 선생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날이 3월 10일이다. 그날로 정하였으니 다른 말은 하지 말고 따르라."

아주 담대하고 구체적인 말로써 당시 동학교도의 최고의 어른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던 최시형조차 압도되었다. 이필제의 수려한 외모와 언변뿐만 아니라, 이필제가 취제우의 신원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최시형은 그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들은 세상이 어지러워 곧 왜선 수천 척이 쳐들어와 난리가 날것이니, 의병을 불러모은 연후에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퍼뜨려 민심을 동요시켰다. 그리고 이필제가 동해의 섬에 있는 정진인 혹은 이인이라는 말로 사람을 끌어들였고, 거사에 성공하면 관직을 주겠다는 말로 군량을 조달하려 하였다. 이러한 모의과정에서 맹활약한 것은 정치겸과 동학교도인 강수(다른 이름은 강사원 또는 강시원) 그리고 남두병이었다.

정치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합류시켰고, 강수는 친인척 등을 통해 5백 명을 모았다. 역시 동학교도인 정인철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사를 준비해왔다고 취시형에게 밝히면서 3월 10일의 거사를 다짐받고 있었다. 또 1866년부터 이필제와 교류가 있었던 남두병은 자기가 거느린 300여명을 이끌고 동참하기로 하였다.

거사일인 3월 10일, 1차 집결지인 우정동 박영관의 집에 모인 150명의 일행은 먼저 도록을 만들고, 중군, 별무사, 집사 등의 직책을 정하였다. 또한 성 안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염탐꾼을 파견하였다. 황혼 무렵 산에 올라 제사를 지낸 다음, 조총과 죽창, 칼 등으로 무장하고 관아에 쳐들어간 것은 밤 열시경이었다. 관아에 쳐들어갈 때 그 수는 5600명으로 늘

어났다.

광양란과 마찬가지로 난군은 먼저 무기 창고를 습격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부사를 죽인 다음 격문을 내걸었다. 격문에는 "이 거사는 다만 본관(영해부사)의 탐학이 극심하기에 그 죄를 성토하는 거시고, 읍민들을 해칠 마음은 없다"고 썼다. 이필제는 영해를 떠나 영양으로 가는 길에도 인근의 동민들을 모아놓고 위무하는 글을 써보내기도 했다. 또 격문과 함께 탈취한 돈 150냥을 다섯 동네의 우두머리를 통해 동민들에게 나누어주며 민심을 안정시켰다.

이필제는 그날 밤 여세를 몰아 영덕을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모자들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다. 원래 영해를 공격하고 서울로 직향하고자 다음날 일찍 영해 관청을 떠났다. 이필제는 영양으로 가는 도중 인근 동민들을 위무하였다. 주변의 주민들을 잡아다가 병사로 삼자는 주장도 반대하며 절대로 주민들을 동요시키지 말라고 하였으며, 부하들이 민가에 방화하자 명령을 듣지 않는다며 처벌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민인들의 힘을 얻어야 거사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전 변란 시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냉담하였다. 더욱이 인근 고을의 관군이 몰려오자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일월산 쪽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영해란에는 수많은 동학교도들이 참가했다. 체포된 자들 중에는 동학교도가 많았다. 또 거사 당일에도 참가자들의 복장을 청색과 홍색으로 표시하여 동학교도와 평민을 구분하였다. 이런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영해란의 기본 성격을 "교조신원원동" 또는 "동학란"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교도들은 기본적으로 동학교도의 입장에서 교조신원 운동에 자원 참가한 것뿐이다.

따라서 영해란은 기본적으로 진천에서부터 남해와 진주 등 이필제가 주도한 일련의 거사의 연장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영해란 이후 이필제는 교조신원 등 동학과 관련한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취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교조신원은 한갓 이필제 거사의 수단이었을 뿐이다. 이것은 이필제가 최시형을 만났을 때 자신은 천명을 받은 사람으로 뜻하는 바는 중국에서의 창업이라는 표현에서 확인된다고 한다.

물론 동학교도들도 이필제가 그들과 다른 뜻이 있었음도 알고 있었다. 당시 동학교도의 우두머리는 최시형이었지만, 박사헌, 이인언, 전동규들은 최시형에게 "우리가 그 무리에 들어가는 것은 사리에 가깝지 않고, 이필제가 교조신원이 아닌 다른 듯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교조신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따른다"고 하여 최시형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한편 이필제의 변란에 가담한 동학교도 가운데는 신향세력이 많다. 이것은 종교적 입장보다는 향권을 둘러싼 구향과의 대립에 동학교단의 힘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자도 있다.

이필제는 동학교도만을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진주거사 실패로 영해에 온 이필제는 진천이나 진주에서와 같이 그 지역 변란세력과의 담합을 꾀하였다. 대쵸적인 인물이 바로 남두병이다. 남두병은 경전에도 밝고 실무에도 능하였다. 1866년부터 이필제와 교류가 있었고, 휘하에 3백여 명을 거느리고 변란에 동참한 실력가이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변란에 끌어들였고, 영해 관아를 빠져나갈 때도 이필제와 함께 가마를 타고 갔다는 정치겸이나 점술에 밝고, 자칭 모사라고 한 이군협도 영해 일대를 근거로 한 반정부세력이라 할 수 있다.

드디어 1871년 3월 10일 수백 명이 영해부의 관문으로 난입하여 부사를 살해하고 인부를 강제로 빼앗았다. 부사 이정이 항의 질책하다가 피살되었다. 난 발생 보고에 접하자 조정에서는 즉시 부사과 이정필을 영해부사로 파견하는 동시에 안동부사 박재관을 안핵사로 파견하였다. 난의 진압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여 부호군 한치림을 영해부사와 접하고 있는

영덕현령으로 파견하고 전 부사 이정을 이조판서로 승진시켰다.

안핵사의 보다 자세한 보고에 의하면, 반란군은 100여 명으로 그 가운데에는 자칭 모사가 있고 또한 정탐꾼이 있어 동정을 사찰하기도 하였으며, 행동시에는 각각 대를 나누어 몇 사람이 이들을 통솔하고 허리에는 백기를 꽂은 자가 향도가 되었다. 난도들은 관문으로 돌입하자 먼저 무기를 탈취하고 이어서 옥문을 열어 죄수를 석방하고 부사를 살해한 후 인부를 탈취하고, 소를 잡아 무리에게 나누어주고 난도들의 일부는 철창을 들고 관문 밖을 감시하였다고 한다.

이상으로 볼 때 영해란도 광양란과 같은 성격의 변란이다. 무기를 탈취하고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배포해주는 등으로 볼 대 그렇다. 하지만 광양란의 경우 난군들이 성을 점거하고 있다가 현감을 이끌고 온 창솔군에게 소멸되었지만, 영해란의 난민들은 스스로 흩어졌다. 난민들의 그후 행동은 자세하지 않으나, 일부는 영양을 거쳐 조령관에 집결하여 변란을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영해란이란 진천, 진주작변과 마찬가지로 정감록을 이념적 무기로 한 변란이다. 다만 영해에는 오래 된 신향과 구향의 갈등, 이것과 깊은 관련을 가진 동학교도 조직 등 변란에 이용할 만한 좋은 자원이 있었고, 이필제는 이러한 자원을 잘 이용함으로써 거사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영해란은 동학이 변혁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확인해 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영해민란의 주모자는 이제발, 즉 이필제, 김운균, 강사원, 남두병, 박영관 등 5명이었는에, 일부는 도망가고 일부는 죽임을 당하였다. 조정에서는 안핵사의 보고에 따라 자진해서 참여한 김인철 난민들과 부화뇌동한 장성진, 모사를 자칭한 이군협, 스스로 염탐꾼이 되어 동정을 사찰한 박기준 난민의 심복이었던 박한용, 흉록에 이름이 들어 있는 권석중, 약속을 들어준 이병권, 분대를 지휘 감독한 정덕창, 정창학 한상엽, 군기를 탈취한 김천석, 이기수, 남기환, 동헌에 들어가 창호를 파괴한 신화범, 포도청으로 달려가 동정을 살핀 권두석, 철창을 들고 문 밖을 살핀 이재관, 허리에 백기를 꽂고 향도 역할을 한 최기락, 연환을 지고 다닌 황억대, 소를 잡아 동지들에게 나누어준 허성언, 부자, 형제가 함께 참여한 취준이, 박영빈, 불을 들고 선구가 되었으며 죽창을 들고 후원이 되기도 한 김창복, 박명관, 임영작, 손경석, 최영화, 김정환, 박한대, 박춘집, 김일언, 임욱이, 반군에 내응한 박영수 등32명은 관찰사로 하여금 군민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효수하게 하였다.

또 민란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명부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던 전제옥, 전종이 2인을 비롯하여 20여 명을 먼 외딴섬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정백원 이하 10명의 죄수와 김순록 이하 19명 죄수는 수령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불꽃이 타다 - 조령작변

이필제의 4번재 시도는 고종8년(1871) 8월 문경의 정기현과 도모한 조령작변이다. 이때 이필제는 진명숙이라는 또다른 가명으로 난을 주도하였다. 조령작변의 명분 역시 "동정서벌하여 제세안민한다"는 것이었다.

이 난의 원래 계획은 "전라. 충청, 경상의 3도 사람들을 모아 사원철폐에 대한 반대집회를 열어 이를 기회로 조관을 빼앗고, 이러 문경, 연풍을 차례로 공략하여 마침내 태원성을 파한 후 서쪽으로 향한다"는 것이었다. 역시 거사계획은 광양란을 모델로 하여 서울 진격을 그 최종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필제는 영해란 이후 영남인 권성거와 함께 그해 3월 정기현의 집으로 가서, 진천작변 때 동모했던 괴산 사람 임덕우와 최응규를 불렀다. 이들 두 사람은 이필제의 연락을 받고

정기현의 집으로 와서 정기현에게, 이필제는 권성인이 아니라 홍주에 사는 이홍임을 밝히고, 그에게 영웅호걸의 재주가 있고 손바닥에는 천문이 있으며 그의 뜻은 북벌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먼저 조선을 정기현에게 주고, 이필제와 김낙균, 초응규등은 정기현으로부터 많은 병력을 얻어 중원을 정벌하기로 약속하고 난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 요컨대 이필제는 진천작변과 마찬가지로 정감록을 이씨의 조선왕조를 부정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면서 이미 정감록을 이용하여 난을 계획하고 있던 세력과 제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은 정씨가 아니므로 자신의 목표는 조선 타도가 아니라 북벌에 있다고 하였다. 이필제는 정기현에게 "서호주인은 정가로서 조선을 경영하고, 동산주인은 권가로서 남경을 도모한다"는 참서를 들며 원대한 자신의 계획을 정당화시키고 사람들을 모았다. 동모자들에게는 조선은 정기현에게 맡기고, 그에게 병력을 빌려 전횡도를 거쳐 등주와 채주로 들어가 중원을 취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해에서 동학을 이용하여 거사에 성공항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지지집단을 찾았다. 그런데 마침 당시 대원군의 실정과 서원철폐령으로 전국 유림들이 집단 상소와 상경을 하고 있었다. 이에 이필제는 백성들의 고통이 오늘과 같은 때가 없었다고 천명하고, 다시 서원철폐의 최대 피해자인 유림들을 그의 지지자로 보고 서원철폐 반대 집회를 이용, 민중을 모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필제는 선비된 자의 도리고서 어찌 입을 다물고만 있겠는가 하며, 초곡에 유림들이 모여 복합상소를 하여야 한다는 조령유회의 통문을 돌려 변란을 꾀하고자 했다.

정기현은 이 통문을 권응일에게 전하여 내응을 약속받았고, 정기현의 심복으로서 경기 음죽에서 단양 산내로 이사한 최해진은 음죽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필제, 김낙균, 최응규 등은 충주, 괴산, 연풍 등지의 일을 담당하였다. 특히, 김낙균은 5,6년 전 토호사로 정배당한 적이 있는 연풍에 사는 정해청을 동지로 설득하면서 정감록의 참설을 인용하며 조선왕조의 국운이 이미 쇠하였음을 논하고 은근히 새로운 사회를 위한 거사라고 부추겼다.

또 이들은 "요즈음 영남의 선비들이 치송도회라고 일컫는 것도 실은 이런 심정을 표한 것이며 영남 전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 약속되었다"거나 "밖으로는 서양 오랑캐가 8월에 다시 오기로 약속되었다"는 말로 유림세력을 끌어모았다. 풍기의 권응일, 충주의 송회철, 상주와 김공선 등은 각기 백여 명씩 동원하기로 하였는데, 그 방법은 모두 유회를 가탁한 것이었다.

거사일을 8월 2일로 잡혔다. 원래 7월 29일을 거사일로 택하였으나, 한양 사람들을 동원하려던 계획이 늦어져 연기하였다. 일단 조령에 모여 먼저 문경읍을 탈취한 다음, 한패는 괴산, 연풍으로 직향하고, 또 한편은 충주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권응일은 대원수, 정기현은 진인, 정해창은 모사, 김원명은 선봉 등 각기 직책을 맡아 거사를 진해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들은 어이없이 붙잡히고 말았다. 김태일이라고 가명을 쓴 정기현이 동네사람에게 붙잡혀 거사계획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8월 2일 50-60명이 조령 주막에서 머물렀는데, 조령 별장이 군사를 풀어 군기고를 지키게 하였던 바, 야반에 이들이 주막을 출발하여 일제히 고성을 지르며 군기고에 난입하였다는 것이 보고된 이후 이들의 동정은 이미 관에서 주목되고 있었던 터였다. 그런데 주막에 있었던 김태일이 술에 취해 다리에 떨어지는 바람에 모든 것이 탄로난 것이다.

그런데 공초에서 정기현은 당초 수천 명이 모의하고, 조령에서 군기를 탈취하여 병란을 야기코자 계획한 지 오래 되었으며 군기탈취를 위하여 매복하고 있는 자들이 천여 명이라고 허풍을 떨었다. 결국 이들은 경상감사의 주관하에 상주진과 안동진에 나누어 수감되고, 주모

자들인 정기현, 정옥현, 진명숙 등 3인은 감영으로 압송되었다.

정기현은 35세로서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충청도 단양으로 이사하였는데, 그는 정몽주의 후예로서 유업에 종사하였다. 태백산의 요승 초운을 지나치게 믿어 남다른 야망을 갖고 이를 실현코자 300일 산중에서 기도하였다. 그러던 중 이필제를 만나 의기투합하여 작변을 꾀하고자 많은 무리를 모았던 사람이다.

정옥현은 38세로 정기현의 형이다. 동생 기현과 요승 초운의 감언이설을 믿고 이필제의 언번에 감명받아 조령 초곡에 참여하여 조령관 무기를 정탐하는 데 활약하였다.

김태일, 아니 정기현의 실수로 사전에 발각된 조령작변의 실패로 이필제는 더 이상의 변신을 할 수 없었다. 조령에서 이필제는 12월 23일 모반대역부도죄로 군기시 앞, 오늘날 무교동 길에 설치된 형장에서 능지처참되었다. 정기현은 모반대역죄로, 정옥현을 사실을 알고서 고발하지 않았다 하여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형에 처해지고 동시에 가산이 적몰되었다. 또 최응규는 이미 포도청에서 심문 도중 사망했으며, 그외 각 영에 나누어 수감되어 있던 난민들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효수되거나 유배되었고, 석방된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진천작변부터 이필제와 함께 행동했던 김낙균을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하였다.

이필제는 진천에서 이홍, 진주에서는 주성칠로, 영해의 이제발로, 그리고 조령의 진명숙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여러 민란을 조도하며 모순덩어리 조선왕조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진주나 조렬란의 목적이 금병도를 거쳐 중국으로 직향하려는 북벌계획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데서 이것이 증명된다. 이를 위해 이필제 등은 도참설을 이용하여 인심을 선동, 무리들을 불러모았다.

그러나 반봉건투쟁과 양이침입에 대항해 중국북벌론을 펼쳤던 이필제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 동학교도들은 정부의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관헌의 추적은 경상도뿐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나아가 경기도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기왕의 연구자들이 밝혔듯이 동일한 사람에 의한 연속적인 반정부투쟁이라는 점, 홍경래란 이후 임술민란을 거치면서 분산적 고립적이었던 민중운동이 비로소 그 괴리를 좁히고 그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필제의 난은 조선후기 민중운동사의 분명한 이정표임에 틀림없다.

전국을 휩쓴 민란의 열풍 – 임술민란(1)

2013.06.19 16:52

민란의 원인

1862년 2월 경상도 단성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농민항쟁의 물결이 진주를 거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그해 5, 6월에는 전라도와 충청도, 그리고 그해 말에는 북쪽지방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조선왕조는 19세기에 이르러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조선후기 이래 농사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와 상업 및 수공업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었다. 농촌에서는 양반지주층이나 부농들이 농지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부를 축적해간 반면, 가난한 농민들은 그들이 가지고있던 적은 농지를 지주들에게 팔고 소작농민이나 품삯 노동자로 전락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와 여러 요인들에 의한 신분질서의 문란으로 종래 양반 중심의 사회체제가 서서히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많은 농민층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울 좋은 양반 신분을 칭하기도 하였고, 반대로 기존의 양반 후예들이 경제 기반을 잃고 농민들과 다름없는 가난한 처지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신분질서가 점차 붕괴되어갔고,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하여 사회 변화의 주도계층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농민층의 성장에는 농업생산력의 증가와 함께 몰락한 양반들이나 농촌 지식인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경제 형편이나 심정적으로 농민층들과 상통하였고, 서당을 열어 농촌 자제들의 초급 교육을 담당하면서 농민들의 사회의식을 계도하고 향촌의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1862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란은 조선후기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와중에서 농촌 지식인들과 가난한 농민층이 연합하여 누적된 봉건적 수탈 체제와 부패한 관료들에 대항하여 일으킨 반봉건 투쟁이었다. 당시 가난한 농민층의 몰락은 지주층의 무거운 소작료에도 그 원인이 있었지만, 농민이 국가에 부담하는 각종 세금과 여러 명목의 잡부금이 큰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중한 세금과 잡부금의 징수 과정에는 부패한 관료들과 아전들의 농간이 심하였고, 이 때문에 농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

당시 국가의 수취체제는 보통 삼정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전세를 징수하는 전정, 군역 의무자들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군정, 각종 환곡을 관리하면서 이자를 거둬들이는 환정이다. 국가를 다스리고 군대를 유지하며 기근에 대비하기 위한 이러한 수취체제가 법에 따라 공평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면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없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자행되는 관리들의 착취는 가혹하고 끝이 없었지만, 정작 그것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은 커졌지만 국가재정은 오히려 고갈되어갔다. 거기에서 생기는 차액이나 이득은 모두 소수의 양반 관료들이나 아전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이러한 수취체제의 모순을 당시의 정부는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국왕은 무능하였고, 탐욕스러운 세도정권의 집권자들은 사리사욕에 빠져 국가통치의 원칙이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다. 말단 관원들은 기강이 무너지고 탐욕에 차 있었다. 거기다 세도정권은 거액

의 뇌물을 받고 지방관직이나 각종 이권을 팔았다. 매관매직과 이권의 매매는 전국에 만연해 있었다. 그것을 산 악덕관리들은 원금의 몇 배 혹은 수십 배의 이익을 챙기고 더 좋은 벼슬을 사기 위하여, 또 더 많은 뇌물을 바치기 위하여 갖은 방법으로 백성들을 수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패의 고리는 고질화되어 마침내 행정 관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 모든 부패는 국가 수취체제의 근간인 삼정을 두고 자행되었다.

전세의 경우에는, 공평한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20년마다 토지조사, 즉 양전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조선후기에는 그것이 오랫동안 행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토지의 소유관계나 생산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세금은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생산이 많은 땅에 적은 조세가, 생산이 적은 땅에 많은 조세가 부과되기도 하였다. 토호나 이서배들의 부정과 농간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작지, 즉 은결도 광범하게 있었다. 은결은 조세대장에서 빠진 것도 있고, 면세전으로 처리된 것도 있었다. 이들은 아전들이 실제로 조세를 거두어 착복하면서도 국가에는 바치지 않고 횡령하는 것이었다. 은결은 18세기에 비해서 19세기에 더 많아졌고 또 나날이 증가하고 있었다.

아전들은 이밖에도 조세를 거둘 수 없는 땅에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 명목으로 법정 세액보다 많은 조세를 거두었다. 토지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세목의 조세까지도 토지에 부가하여 징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각종 명목의 조세와 잡부금을 전세에 얹어 징수하던 관행을 도결이라고 하였다. 도결은 조세 난맥상의 원천이 되었다.

문제는 세목이나 세율의 증가에만 있지 않았다. 사실상 납세자의 빈부, 권력, 신분과 영향력의 차이에 따라 부정과 불공평이 자행되고 있었다. 양반과 부유한 지주층들은 아전들을 위협하거나 매수하여 그들이 내야할 세금을 농민들에게 전가하였다. 그리하여 힘없고 가난한 농민일수록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군정의 경우에는, 1750년(영조26) 균역법 시행 이후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군역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군포 1필씩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중 일부는 전세에 부가되어 1결당 쌀 2두가 부가되었다. 그러나 군역 자원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빠지는 사람도 태반이었다. 결국 그것은 고을마다 할당제로 지정되어 군현 단위로 납부해야 할 군포가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양반, 이서, 역리, 승려, 교생 등과 같이 양반이거나 특수한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군역이 부과되지 않았다. 결국 그것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피지배 계층에만 몰아서 부과되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사회변화와 함께 군역에서 빠져나가는 피역이 늘어나고 있었다. 피역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향교나 서원의 학생이 되기도 하고, 양반을 사칭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군역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그 부담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부과하거나(백골징포), 어린아이들에게 징수하였고(황구첨정),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전가하여 거두는 것이 관례화되어갔다. 동시에 군포 대신 돈으로 거두는 전납도 확대되었다. 이는 농민들에게 군포 대신에 군포값을 높은 가격으로 환산하여 납부토록 하고 그 차액을 중간에서 횡령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군역의 부과와 군포의 징수를 둘러싸고 지방관과 이서배들의 농간과 횡령이 자행되었다. 이서배들의 횡령으로 군포에 결손이 날 경우에는 그것을 토지에 부가하여 징수하였는데, 이를 결렴이라고 하였다. 군정의 폐단은 전정의 폐해를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었다.

환정의 경우에는, 원래 흉년에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진휼의 목적으로 춘궁기에 비축된 곡식을 분배해주고 가을에 받아들이던 제도였다. 그후 여기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받아 지방재정과 수령의 경비에 보태 쓰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환곡은 진휼곡 외에도 군량미와 세곡의 비축미 교환, 즉 개색이나 각종 기금을 증식시키기 위한 용도로 폭넓게 운용되었다. 그래서 지방관들은 농민들이 원하지 않더라고 억지로 환곡을 배급

해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갚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환곡의 규모는 턱없이 늘어났고, 온갖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게 되었다. 마침내 환곡은 빈민들을 위해서나 지방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쓰이지 않았으며, 탐관오리들의 축재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부담은 가난한 농민들에게 넘겨졌다.

환곡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환곡을 거두고 나누어줄 때 생기는 폐단, 환곡을 돈과 곡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단,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단, 아전이 환곡을 횡령하고 장부상에는 허위로 기재하는 폐단, 채무자가 죽거나 도망했을 때 친척과 이웃에 전가하여 징수하는 폐단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 가운데
서도 폐단의 핵심이 되었던 것은 이무와 작전이었다. 이무는 원래 지방에 따라 차이가 많은 환곡의 물량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액수가 많은 고을에서 돈으로 바꾸어 액수가 적은 고을에 넘겨주는 제도로서, 지역간의 공평하지 않은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와서 본래의 목적은 퇴색하고 오로지 돈으로 바꾸어 이자만을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그 피해는 언제나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환곡으로 인한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은 각 고을의 아전들이었다. 이들은 환곡을 분배하고 거둬들이는 실무를 맡아보면서 갖은 방법으로 횡령을 자행하였다. 횡령의 규모도 시기가 내려갈수록 커져서 19세기에는 그것이 수천 석에서 수만 석에 이르기도 하였다. 원래 환곡은 만약을 대비하여 일정 수량을 창고에 보존하여야 하고 전액을 대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관과 결탁한 아전들은 전액을 대출하여 이자를 받아들이고, 환곡을 이용하여 상업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결손이 나기도 하고 흉년이 연속되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도 많았다. 이렇게 결손된 환곡을 포흠이라고 하였다. 부패한 관리들은 이 결손을 채우기 위하여 부정하고 가혹한 방법으로 농민들을 수탈하기도 하고 곡식에 돌
이나 짚 등의 불순물을 섞어 수량을 늘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때 거두어들이지 못한 환곡은 장부에만 상환과 대출을 반복하여 결국 곡식은 없고 빈 장부만 남아 있는 일도 허다하였다.

19세기 이후 환곡은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환곡을 배급하지 않더라도 이자는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것을 백징의 폐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누어주지 않은 환곡에 이자를 거두는 백징이 결코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전세에 얹어서 징수하는 일이 보편화하였다. 이를 도결 혹은 가결이라고 일컬었다. 도결이나 가결은 환곡 폐단의 총괄적 모습이며 삼정문란의 표본이었다. 1862년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났을 때 규탄의 주대상이 되었던 것도 도결과 가결이었다. 환곡의 폐단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이 더욱 컸던 것은 그 부과와 징수가 신분간 빈부의 차에 따라 공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세가나 부유층들은 신분상의 우월적 지위와 관권을 배경으로 환곡의 분배에서 빠지고, 힘없고 가난한 농민들이 그들의 몫까지 부담해야 했던 것이다.

전정, 군정, 환곡 삼정의 문란은 이 시기에 진행되고 있던 농민층 분화를 촉진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농업기술의 발전과 유통경제의 발달에 힘입어 지주층을 중심으로 토지의 겸병이 확대되었다. 즉 이 시기의 농촌사회에서는 지주층이나 부농층의 토지 겸병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세한 자작농들은 영세농이나 소작농으로 전락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소작농의 경우에도 차등이 생겨 조금 형편이 넉넉한 소작 농민층과 품팔이 노동자로 나뉘고 있었
다.

계층분화는 양반 신분에도 일어나고 있었다. 즉 양반 중에서는 부유한 경제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층도 있었으나, 일부는 자영농의 지위마저도 잃고 소작농이나 품팔이 노동자로 전락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에는 1결(약 30두락)의 농지를 가진 부농은 천에 하나도 안되고 대부분이 그 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토지에서 완전히 쫓겨나 상업이나 수공업 혹은 품팔이로 목숨을 이어가는 몰락 농민층도 절반 정도나 되었다.

이 시기 소작 농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수취의 부담 때문만은 아니었다.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자 수탈의 방식이 군정이나 환곡을 합쳐 대부분 도결과 가결이란 이름으로 토지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들 전세는 원래 지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때에 이르면 거의 전적으로 소작농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삼정의 문란은 몰락해가고 있던 빈농층을 더욱 몰락시켜갔다. 1862년의 민란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농민들이 봉건정부의 수탈에 대항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며 일으킨 항쟁이었다.

농민항쟁의 꽃 진주민란

민란의 전야

19세기 중엽에 들어와 진주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삼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환곡의 폐단으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이 커져갔다. 이 지역은 진주목과 경상우병영이 부족한 재정을 환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므로, 그 부담이 날로 증가되어 이에 대한 고통을 하소연하는 일이 많았다.

조선시대의 법에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거주하는 관아에 소장을 올려 호소할 수 있었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상급 관아에 제소할 수 있었다. 즉 자기가 거주하는 지방 관아에 소장을 올려 들어주지 않으면 감영에 호소하고, 감영에 상소하여 들어주지 않으면 서울의 비변사에 호소하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면 꽹과리나 징을 치며 국왕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

진주 지역의 농민들도 처음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나갔다. 1850년에는 박수익등이 소를 올려 환곡의 양이 늘어나서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는 함부로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였다고 처벌받았을 뿐이다. 사실 이 무렵에 들어와서 진주에서는 관리들의 횡령으로 결손된 환곡의 수량을 채우기 위해 토지에 붙여 거두는 결렴이 빈번하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부담은 급격히 불어났다. 처음에는 1년에 한 차례씩 거두었으나, 이후 차츰 그 회수가 잦아져서 1년에도 여러 차례 거두기도 하였다.

진주 농민들은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고을에 상소하고 이어 감영에 상소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자 1859년에는 마침내 집단 상경하여 비변사에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결손된 환곡은 횡령한 자에게서 추징하고 문제가 된 결렴은 혁파하라고 조처했다. 그러나 환곡의 횡령 문제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결렴은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1861년 5월 당시 신임 진주목사였던 신억은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매결당 2냥 5전씩 거두고자 하였다. 이때 진주민들은 결렴을 거부하고 유계춘이 중심이 되어 비변사에 상소하려고 하자 목사는 결렴 징수를 포기하고 말았다.

1861년 겨울 부임한 신임 목사 홍병원은 다시 결렴 징수를 꾀하였다. 그는 결렴에 앞서 환곡의 보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47,386석이 진주민들에게 환곡으로 대여되었는데, 이중 60%에 해당하는 28,649석은 경저리 양재수와 전목사 박승규 등에 의해 이미 증발되었고, 나머지도 경저리에 의해 조운선을 운반하는 사공들에게 분배되어 실제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환곡은 거의 없었다.

이때 밝혀진 환곡 포탈의 범인은 주로 아전과 조운을 담당하던 사공들이었다.

당시 경상감사는 홍병원이 조사한 바에 따라 증발된 28,000여 석에 대하여는 그 이자를 탕감하고, 환곡 액수가 적은 읍으로 이송하여 거둘 것을 조정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비변사에서는 28,000석 중 8000석만을 탕감하고 나머지 20,000석은 반드시 거둬들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포탈한 범법자들은 사형하여 효수하거나 섬으로 유배하는 엄한 처벌을 지시하였다. 이처럼 나라에서는 환곡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처벌에만 중점을 두었고 실질적

인 예방책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횡령으로 부족하게 된 수량을 채워놓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이에 홍병원은 전임 목사들이 했던 것처럼 환곡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에 부담을 지우는 도결 징수를 시도하였다. 그는 향회를 소집하여 도결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각 면의 조세담당자들을 차출하여 도결을 결정하였다. 이때 1결당 부담 액수는 6냥 5전이었는데, 이는 그 이전의 결전이 2냥 5전이었음에 비하면 턱없이 무거운 것이었다.

1861년 12월 도결이 결정되자, 진주민들은 진주목과 경상감영에 다시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경상우병영에서도 진주목의 도결 결정을 틈타 우병영에서 운영해왔던 환곡 중 부족한 물량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병영이 운용해왔던 환곡은 모두 39,218석인데, 그 가운데 아전들에 의해서 약60%에 해당하는 24,154석이 횡령으로 증발되고 없었다. 이에 1862년 1월에 읍내 주민들을 불러모아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여 약 6만 냥을 가구별로 분담토록 결정하였다. 이를 통환이라고 하였다.

도결에 뒤이어 통환이 결정되자 진주민들은 충격을 받고 분노하였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진주 지역의 도결과 통환의 부당함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이 와중에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농민항쟁, 즉 민란의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무력봉기의 준비와 주동자들

진주민란은 처음부터 무장봉기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봉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을 두고 두 가지 견해가 나와 논쟁을 벌였다. 하나는 종래와 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호소하자는 주장이었다. 다른 하나는 철시와 같이 법이 금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견해였다. 논쟁을 벌이던 끝에 결국 후자의 과격한 방법이 채택되었다.

이후 항쟁은 삼정 문란을 주도한 아전들을 죽이고, 그 문란을 틈타 자기 배를 채운 토착 양반과 부유층들의 집을 부수고, 나아가 도결과 통환을 결정한 목사와 우병사에게 이의 철회를 요구하여 관철하였다. 민란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봉건적인 압박과 모순의 혁파를 요구하는 쪽으로 발전하였으나, 힘의 한계로 이를 관철하는 데 실패하였다. 진주민란은 비록 여기서 머물렀으나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진주목사와 우병사가 각기 도결과 통환을 결정하자 여기에 반발하여 처음으로 궐기를 촉구하는 통문을 돌린 사람은 1861년 5월에도 그것을 저지시키는 데 앞장섰던 축곡면의 유계춘이었다. 그는 1862년 1월 29일에 도결과 통환의 철폐를 위해 2월 6일 열리는 수곡장시에서 모이자는 통문을 돌렸다. 1월 30일에는 유계춘과 전직 관원이었던 이명윤 등이 산기촌에서 모여 도결과 통환을 철폐시킬 것을 논의하였다. 이명윤은 집회장소를 수곡장시로 정하고, 유계춘에게 통문을 발송토록 하였다.

2월 1일 유계춘은 별도로 모임을 준비하던 가서면 정원팔과 청암면 강천녀 등으로부터 그들의 통호나 철폐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편지를 받았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수곡집회를 준비하였다. 정원팔 등은 예정대로 시위를 하였으나 처벌만 받았을 뿐이었다. 다음날 유계춘은 이명윤과 상의 없이 철시를 요구하는 한글 통문을 진주 읍내에 붙이도록 하고, 박숙연의 집에서 정홍팔 등과 함께 모의하던 중에 이명윤의 방문을 받고 시위방법을 논의하였으나, 이명윤은 불법적인 시위를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들은 격렬한 논쟁 끝에 합의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후 유계춘은 계속해서 한글 통문을 읍내 여러 곳에 붙이고, 초군(나무꾼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집단)패의 두목격이었던 이계열의 요청에 따라 한글 가사체로 된 통문을 작성해 초군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이리하여 2월 6일 수곡장시에서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유계춘. 이계열 등 각 지역의 대표자 300여 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들은 군중대회를 열고 도결과 통환의 부

당함을 경상감영에 호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의 시위로 다음날 유계춘은 병영에 체포되었고, 결국 초군들을 중심으로 장시를 습격하는 등 무력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봉기에는 유계춘 등의 계획된 준비가 있었다.

이상의 농민들의 항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이명윤, 유계춘, 이계열 등이었다. 이들은 당시 신분상으로 보면 각각 명문 양반, 몰락 양반, 농민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명윤(1804-1863)은 정종의 15대 후손으로 왕실의 먼 일가였다. 그는 1838년(헌종4)에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 사헌부 감찰, 사간원 정원을 지냈고, 철종대에는 홍문관 교리 등에 제수되었으나 벼슬을 사양하고 향리에 은거하고 있었다. 그는 부유한 명문 출신에다 청요직을 지냈고 향촌에서도 명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세도가와 연줄이 없어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었고, 진주 지방의 향권에서도 멀어진 처지였다. 이런 이유로 그는 도결이 결정되던 향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결, 통환이 자신에게도 할당되자 직접 목사에게 면제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유계춘 등과 접촉하여 초기 항쟁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유계춘, 이계열 등과 달리 문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건하게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그것이 1월 30일과 2월 2일에 항쟁 방법을 둘러싼 유계춘과의 논쟁으로 나타났다. 그는 2월 2일 이후의 모의에서 탈퇴하였고 이후에는 항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주민란의 주모자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첫째 유계춘 등이 그가 민란의 배후지도자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고, 둘째 도회에 참석하지 않은 그를 향리들이 미워하여 주동자로 지목하였고, 셋째 안핵사로 내려온 박규수가 보고서에서 그를 주모자로 판단하여 처벌하도록 국왕에게 건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그를 진주민란의 주도층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 민란의 사실상의 주동자는 유계춘(?-1862)이었다. 그는 준비단계에서부터 민란을 주도하였다. 그는 신분이 양반이었으나 사회적 기반과 자신의 토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양산되고 있었던 몰락 양반 지식인으로 보인다. 유계춘은 민란 이전부터 향회나 이회를 자주 주동하여 환곡의 폐단을 지적하고, 여론을 주도하여 수시로 읍과 감영, 비변사에 해결을 호소한 경력이 있었다. 그는 항쟁의 초기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주도하였고, 주변 인물들을 모아서 항쟁을 준비하였다. 그는 항쟁이 전개된 이후에 우병사 백낙신과 진주복사 홍병원으로부터 통환과 도결의 혁파를 받아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유계춘 자신은 체포된 후 자신이 항쟁 주동자였음을 부인하였다. 안핵사 박규수 또한 유계춘이 토지 한조각 없는 농민임을 들어 앞장서서 항쟁을 주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박규수는 그가 일을 꾸며 한몫 챙기려고 했거나 명문 양반인 이명윤에게 조종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진주민란의 성격을 대표하는 인물은 이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계열은 이 지역의 명문 양반이었던 이명윤과는 6촌형제간이었으므로 몰락한 양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실상 가난하고 언문조차 모르는 무식한 농사꾼이었다. 이 점에서 학문적 소양이 있던 유계춘과는 차이가 있었다. 유계춘이 가난한 지식인이라면 그는 순전한 농민이었다. 그는 나무꾼패(초군)의 일원이었고, 나이가 많아 그들의 두목격이 되었다. 이계열은 항쟁초기 단계에서 초군의 대표로 초군들을 항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유계춘에게 통문을 만들도록 하였고, 항쟁 단계에서는 초군들을 지휘하여 진주목사와 우병사로부터 도결과 통환의 철폐 완문(관문서)을 받아내는 등 항쟁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박규수는 이계열이 무식한 농민이라는 이유로 그를 주모자에서 제외시켰다. 박규수는 그가 무식한 농민으로서 항쟁을 독자적으로 지휘하

였다기보다는 사족들의 사주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항쟁 준비과정에서 유계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항쟁을 준비한 점, 항쟁시 중심세력인 초군의 우두머리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봉기가 시작되다

수곡시장시의 집회가 있은 다음날(2월 7일) 유계춘은 전격적으로 병영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는 2월 13일 제사를 구실로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2월 14일) 수청가에서 회의를 하였다. 이 모임은 항쟁에 참여할 대중, 즉 초군패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 모임은 14일 새벽에 개최되어 초군들을 소집하는 통문을 유포하고 나서 바로 초군들이 모여 덕산장시를 공격하였다. 서쪽에 위치한 마동과 원당의 농민들은 수곡시장을 습격하여 장악하였다. 덕산에서 농민들은 도결 결정에 참여한 훈장 이윤서의 집을 파괴하였다. 세력을 확대한 농민들은 동쪽으로 덕천강을 따라 진주읍 쪽으로 진출하였다. 도중에 그들을 평소 농민 착취를 일삼아온 부유한 집 수십 호를 파괴하였다.

2월 18일에 초군들은 아침부터 대오를 정돈하고 읍에서 5리쯤 떨어진 곳에 모여 도결과 통환을 혁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진주목사는 사태에 놀라 배후조종자로 소문이 난 이명윤에게 농민들을 설득하여 해산시켜줄 것을 간청하는 한편, 농민들의 요구대로 도결을 혁파하라는 결정문(완문)을 발급하였다. 농민들은 도결 혁파의 결정문을 받아들였다. 소기의 성과를 얻은 초군은 기세를 올리며 다시 병영으로 향하였다. 가는 도중에 진주목의 아전들 집을 부수고 불태웠고, 그밖에 평소 아전들과 결탁하여 읍민을 착취한 서리, 상인들의 집을 부수고 물건을 빼앗았다.

2월 19일 아침에는 수만명의 농민들이 진주목 객사 앞에 모여서 통환 철폐와 통환 결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기세가 등등한 농민들의 요구에 당황한 우병사 백낙신은 통환 결정의 장본인으로 서리인 김희순을 지목, 책임을 전가하여 때려죽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병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계속하여 통환 철폐를 요구하자, 그는 할 수 없이 통환 철폐 완문을 발급하였다. 이리하여 도결과 통환의 철폐는 농민들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환곡 문란의 책임자들을 추궁하였다. 농민들은 서리로서 원성이 자자한 권준범을 처단하여 김희순과 함께 불태웠다. 권준범의 아들 권만두는 아버지를 구하려다 맞아죽었고, 권준범의 동생 종범과 진주 이방 김윤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였다. 농민들은 밤새도록 우병사를 풀어주지 않고 그의 탐학과 서리들의 부정행위를 추궁하였다.

2월 20일이 되자 농민들도 도망간 아전들을 추적하는 한편, 목사와 우병사에게 그들의 신병을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진주목사가 아전들을 옹호하고 나서자 농민들은 진주목사의 동헌에 처들어가, 이방 김윤구의 행방을 수색하는 한편, 목사를 교자에 태우고 우병사가 있는 객사 앞으로 갔다. 점심때 쯤 농민들은 봉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목사와 우병사를 풀어주었다. 이방 김윤구는 이날 끝까지 추적한 이귀재를 비롯한 용봉면 초군들에게 붙잡혀 불타죽었고, 그 아들은 심하게 구타당하였다. 봉기군들은 오후에 차후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그들은 진주 각지에 공격 목표를 정하고, 이들을 공격한 후 다시 진주읍성으로 회군할 것을 결정하였다.

진주민란은 초군의 난으로도 불린다. 여기에 초군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또 중심세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초군이란 원래 나무꾼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대부분은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그들은 공동 임야뿐만 아니라 벌채가 금지된 개인소유의 산과 주변 지역까지 집단적, 조직적으로 벌목하여 수시로 문제를 일으키곤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항쟁에 참여하게된 계기는 무엇일까? 초군은 빈한한 농민들로 환곡과 같은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었다. 초군의

우두머리였던 이계열은 초군을 농민항쟁의 주체로서 참여시키는 데 앞장섰고, 초기부터 모의에 깊이 관여하였다.

초군의 조직적인 활동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이방 김윤구에 대한 수색 체포 과정이다. 농민들이 진주목에 몰려갔을 때 그는 이미 도망쳐버리고 없었다. 그러나 그 일대를 초군들이 수색에 나서 결국 그를 체포하여 죽이고 말았다. 이처럼 초군은 진주농민항쟁의 중심세력이었다. 그들이 항쟁에 집단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민란의 폭발력이 커지게 되었고, 그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

전국을 휩쓴 민란의 열풍 – 임술민란(2)

2013.06.19 16:55

무력봉기의 확대와 해산

2월 20일 오후에 회의를 마친 농민들은 평소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던 각 지역의 부유층들의 집을 공격하기 위하여 동남쪽으로 진출하였다. 그들은 밤중에 교통의 요지인 소촌으로 나아가 밤을 지새우고, 2월 21일에는 여기서 시위를 벌였다.

2월 22일 새벽에는 남성동으로 나가 대여촌 성석주의 집을 파괴하였고, 또 개천면 청강 최운의 집도 파괴하였다. 이들은 부유한 양반으로 평소 농민들을 괴롭히던 자들이었다. 동시에 농민들은 개천리 주민이 민란에 참석하지 않은 대가로 200냥을 징수하였다. 한편 개천리 인근의 옥천사에서는 승려를 보내 농민군을 회유하고, 옥천사에 유숙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것은 농민군이 청강을 공격한 수 옥천사에 쳐들어올 것이라는 풍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농민군은 22일 밤 옥천사에 머물렀고 다음날인 2월 23일 오후에 해산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항쟁 열기가 식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다음달 3월 초에도 수만 명이 다시 성 아래에 진을 쳤으며, 박규수가 안핵사로 내려갔을 때도 약 70개 지역에서 모여 안핵사에게 조세 폐단 시정방안을 건의하였다. 이 단계에 오면 농민항쟁은 당면한 삼정문제의 해결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광범위한 봉건적 모순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었다. 농민들은 봉건적인 신분질서에 의한 양반들의 무절제한 농민 수탈을 거부하고 경제적인 특권을 누리던 부유층 지주들을 공격하였다.

이 단계는 농민항쟁이 확대된 시기였다. 농민군은 진주 주변 각 지역으로 진출하여 봉건적인 모순을 주도한 계층에 공격을 가하고, 농민 항쟁을 관망하던 사람들에게 적극 가담할 것을 선동하는 한편, 농민군을 재조직하여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농민 군은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첫째 봉건적인 모순에 대한 철저한 그들의 문제의식이 희박하였고, 둘째 농민항쟁의 목표였던 도결과 통환이 철폐되었으며, 셋째 지속적으로 농민항쟁을 이끌 주도층 및 조직이 취약했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진주농민항쟁에 나타난 대중적인 집회를 통한 조직적 연계성과 빈농과 초군의 주도성은 진주민란에 뒤이어 일어난 농민항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민란의 전국적 확산

경상도의 여러 민란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의 소용돌이는 곧 인근 지역에 파급되었다. 3월에는 함양, 거창에서 4월에는 밀양, 선산, 개령, 인동, 울산, 군위, 비안 등지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고, 이후 상주, 현풍, 신령, 영일, 경주, 창령 등지로 확산되었다. 농민항쟁의 열기는 잠시 주춤하다가, 11월에 창원에서 12월에는 남해에서 일어났다. 경상도 농민항쟁 지역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경상도 민란의 원인과 전개과정

지역	날짜	봉기의 직접적 원인	봉기의 주체 및 전개과정
단성	2. 4	결렴, 포흠 강제징수	사족과 농민주도, 읍권장악
진주	2. 14	도결, 통환	농민, 초군 참여, 철시 및 도결통환혁파
함양	3. 16	전세목가	초군참여
거창	3월 중순	환곡과 군역 폐단	초군중심, 읍권장악
성주		결가과다	농민, 사족 및 이서배집 공격
울산	4. 1	수령탐학	농민, 이서배집과 병영공격
선산	4. 2	결가과다	농민, 결가인하
개령	4. 7	도결 및 관리의 탐학	농민, 감옥과 이서배집 공격
인동	4. 9	도결, 결가과다	농민, 사족과 이서배집 공격
군위	4월	환곡의 폐단	농민, 집단항의
비안	4월	수령탐학	농민, 수령탐학 항의
함창	4월		사족, 주모자 체포로 실패
밀양	4월 초	환곡의 폐단	농민, 이서배집 공격
헌풍	4월 말		농민, 공격모의 중 체포
상주	5. 15	결가과다	농민, 사족과 이서배집 공격
경주	10월경	결가과다 및 수령탐학	농민, 땔나무 채취금지 항의
신녕	10월경	환곡의 폐단	농민, 수령과 이서배집 공격
연일	10월경	숫돌비용 호당 부과	농민, 진상비용 과다 항의
창녕	10월경		농민
창원		환곡의 폐단과 수령탐학	농민, 관아 및 이서배집 공격
남해	12. 21	환곡의 폐단	농민, 부민과 이서배집 공격

민란이 일어난 지역은 대개 경상도 안에서도 경제적 형편이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하는 곳이었다. 이런 곳일수록 지배계층이 몰려들고 부를 늘리기 위해 비옥한 토지와 산림까지 독점하는 반면, 대다수 농민들은 점점 더 가난한 처지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경상도에서도 농민층이 토지로부터 유리되고 있었고, 동시에 지방관리들에 의한 조세 수탈이 자행되고 있었다.

통영곡으로 인한 부담도 그 하나였다. 통영(삼도수군통제영)에서는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던 군량미를 각 고을에 나누어주고 환곡처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였다. 그 총량은 이 시기에 무려 167,397석에 달하고 있었다. 통영은 이를 봄에 돈으로 나누어주고 곡가가 싼 가을에 곡식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농민들에게 수탈하였다. 실제로 상주, 성주, 선산 등지에서의 민란은 이 통영곡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었다.

그러나 1862년 경상도 전역에 농민항쟁을 촉발시킨 것은 삼정 문란 가운데 특히 환곡, 도결, 결가, 저채 등으로 인한 부담 증가였다. 환곡으로 인한 폐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진주, 단성, 거창, 밀양, 상주, 성주, 군위 등지에서 민란의 원인이 되었다.

환곡으로 인한 폐해의 사례를 보자. 창원에서는 돈으로 환산하여 거둘 때 원래 책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시가로 거두어들여서 농민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단성에서는 원곡에 대한 이자외에도 잡다한부가세를 붙여 농민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도결에 따른 문제는 진주, 개령, 울산, 인동 등지에서 제기되었다. 도결은 관에서 필요한

세액이나 잡부금을 몽땅 토지에 얹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기도 편리하고 시세 차액을 이용하여 이윤을 남길 수도 있었다. 이 때문에 도결을 부정부패와 가렴주구의 방편으로 널리 성행하였다. 수령과 아전들은 그들이 횡령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수시로 도결을 시행하여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였다.

저채로 인한 폐단도 심했는데, 함양, 진주, 거창 등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저채는 서울의 경저리나 감영의 영저리들이 자기 고을의 수령이나 아전들에게 급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었다. 저채는 특히 이자율이 높아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저리들은 이를 대개 환곡의 본곡에서 우선적으로 받아갔다. 환곡의 원곡에 결손이 생기면 아전들이 횡령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항목의 조세 창곡을 훔쳐 임시방편으로 삼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환곡이 점점 없어져 장부상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처럼 경상도 지역에서는 수령과 아전들이 갖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갔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더욱 가난한 처지로 떨어졌다.

경상도 각지의 민란에서는 대개 항쟁 준비단계에서 통문이 발송되고,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다. 이는 지역의 여론을 집약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집회를 통해서 제시되는 해결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항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으로 관청에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방법이었다. 대개의 지역에서 참가자들의 처지에 따라 저항방법은 달랐다. 단성의 김인섭, 진주의 김명윤, 인동의 장응표 등은 모두 조관 출신의 명문 양반이었다. 관헌들은 이들을 주모자로 파악하였지만, 사실상 이들은 항쟁의 전개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그들이 주모자로 몰린 것은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난을 일으킬 수 없으리라고 잘못 판단한 때문이었다.

한편 진주의 유계춘, 창원의 김대종 등은 신분은 양반이지만 그 처지는 일반 농민들과 다를 바 없는 가난한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선도하였고 항쟁을 지휘하였다. 그러나 항쟁의 중심세력은 가난한 농민층이었다. 특히, 진주, 함양, 남해 등에서 나타나듯이 초군들이 크게 활약하였다. 이들은 항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켰고, 집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의식을 강화시켜나갔다. 이들은 면리를 단위로 편제하였고, 참여를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매기는 등 처벌을 가하면서 투쟁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러면 농민들이 공격한 대상은 누구였던가? 그 동안 농민을 억압 착취해왔던 수령과 아전, 부호들이 주요 공격대상이 되었다. 수령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의 농민들이 관아에 돌입하여 수령을 구박하고 끌고 다니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아전들은 조세의 실무 담당자들로서, 경상도에서는 특히 이들의 위세가 대단하였으므로 농민들에 가한 착취도 컸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다수의 아전들이 살해되거나 구타당했으며 집은 불타고 재산은 몰수되었다. 지주층들은 토지 겸병, 지대의 과도한 수취를 기회로 농민들을 파탄시켰고, 삼정의 수취에 간여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리대를 이용하여 농민들을 착취하였기 때문에 원한이 컸던 것이다.

민란의 항쟁기간은 대체로 수일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과를 얻고자 하였다. 어느 지역에서는 읍권을 장악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수령의 통치를 부정하고 향임과 이서배를 새로 선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완전히 읍권을 장악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계속 모여서 추이를 관망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차 봉기하는 곳도 있었다.

항쟁이 종결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였다. 하나는 수령이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읍폐 해결을 약속할 때였고, 다른 하나는 감영이나 진영에서 병력을 동원하여 주도층이 체포당할 때였다. 경상도에서는 대개 후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항쟁 세력은 관군의 힘을 극복하기 어려웠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중앙에서 군대가 파견된다는 소문에 흩어지고 말았다. 비록 많은 모순이 누적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조선왕조의 통치력은 농민들이

쉽게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전라도의 여러 민란

전라도 지역의 농민 항쟁은 경상도 지역의 농민항쟁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3월 27일 익산 지역을 필두로 4월과 5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가운데 임피, 장수, 용담, 고창, 무안, 화순, 진도, 순창, 태인, 구례, 진안, 금산 등은 농민항쟁이 발생하였으나, 감사나 수령이 자체 수습한 뒤 중앙에 보고하지 않은 지역이다. 전라도 농민항쟁 지역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전라도 민란의 원인과 전개과정

지역	날짜	봉기의 직접적 원인	봉기의 주체 및 전개과정
장수	3. 16 이후		함양으로부터 통기
영광	3. 16 이후	저채작환	농민, 구폐 절목 제시
익산	3. 27	도결	농민과 잔반, 군수 축출
능주	3. 29 이전	삼림금벌	초군, 읍내 공격
무주	3. 29 이전		농민, 체포된 주모자 탈취
함평	4. 16	환곡 및 군역세 과다	동헌습격, 폐막 10개조 시정 요구
고산	5. 4	군역세 과다 및 수령 탐학	농민, 동헌 진입
부안	5. 8	환곡의 폐단	농민과 양반, 이서배 타살
금구	5. 11	삼정의 폐단	농민, 폐막 12개조 시정 요구
강진	5. 12	군전 부과 과다	농민, 병사위협, 이서배집 습격
장흥	5. 13	전정의 폐단	조관주도, 관아 불태움
순천	5. 15	환곡의 폐단과 수령 탐학	관청과 이서배집 공격
화순		수령과 이서배의 부정	수령 자체처리
진안		이포 민간 징수	동헌습격
흥양		부세 징수 과다	
옥과		환곡의 폐단	수령공격
고창		부세 징수 과다	체포된 주모자 탈취
장성		도결	
여산			농민, 사족 및 향리집 습격
무안			농민, 동헌 습격
진산			농민, 주모자 체포
임피			수령 자체처리
순창		부세 징수 과다	동헌습격, 아전임명

전라도는 봉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다. 전라도의 민란은 지배층에 대한 투쟁을 바탕으로 조세 수취를 둘러싼 국가의 수탈, 아전의 탐학 및 향촌 사족들의 무단 지배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19세기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전라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비옥한 토지 등으로 유통경제가 크게 발달하여 다른 지역보다도 농민층 분화가 훨씬 진전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주와 부농층의 토지 겸병이 확대되었고, 대다수 농민들은 몰락하였다. 농민층 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향촌사회 내 각 신분 사이에 경제적 대립은 첨예화되었고, 결국은 민란을 야기한 구조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을 촉발시켜 항쟁에 나서도록 한 직접적인

요인은 수령과 아전들에 의해 행해진 수탈로서, 삼정의 문란과 관계된 문제였다.

전정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결가가 농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점이었다. 이는 민란시 도결의 시정요구에서 잘 드러난다. 도결은 빈농과 소작인들에게 더욱 심각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소작인들에게 전가하여 징수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농민들은 늘어난 부담에 대해 항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익산의 경우 종래 결당 22냥씩 거두었는데, 1862년에는 3배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하여 봉기가 일어났다.

전라도에서는 또 궁방전의 과다한 수세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봉기 당시 함평 지역 농민들은 육상궁, 선희궁, 어의궁의 소작료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데 항의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전주, 함열, 임피, 익산 등지에서는 제방을 쌓은 후 농민들에게 높은 가격의 수세를 징수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이밖에 양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틈을 타서 은결 등으로 수세 장부에서 지워버리고 횡령한 일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군역에 있어서는, 이 시기에 와서 5군영 이외에 각 사와 감영, 군현에 이르기까지 재정수입을 위해 규정 이상의 군역을 지정하자 이를 틈타 농민들의 피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군역 자원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고산현의 농민들은 전체 3820호에 비해 군역에 편입된 사람이 무려 2577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군역은 많고 백성은 적은 폐단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부안 김제, 금구, 익산의 농민들은 과도한 군역세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전라도에서는 환곡의 폐단이 다른 지역 이상으로 극심하였다. 환곡의 규모가 증대되고 그에 따른 각 농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농가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전들이 횡령한 것을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한 데 있었다. 함평에서는 경저리들의 저채와 아전들이 횡령했던 7400냥을 환곡 대장에 첨부하여 농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하였다. 순천, 진안, 흥양, 부안, 김제 등지에서도 아전들이 횡령한 것을 농민들에게 강제징수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밖에 관청에서 운영하던 고리채도 민란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조세의 화폐 납부가 진전됨에 따라 납세를 둘러싸고 고리채가 크게 성행하였고, 가난한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관청 고리채는 지방관아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의 수탈이 가혹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채도 고리채의 일종이었다. 저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경저리였다. 이들은 자기 고을의 서울 기관 상납물이나 관리들의 여비를 먼저 납부하고 후에 지방 관아에서 면제받았다. 이들은 이것으로 고리대를 운영하였는데, 주로 지방 수령과 아전들에게 대여해주고 있었다. 함평지역의 경우 1859년에는 5432냥 5전에 불과하였으나, 1862년에는 32,315냥으로 무려 6배나 증가하였고, 이를 민간에 전가하려 하자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전라도의 민란에는 수령과 아전들의 부정부패 행위가 크게 지적되었다. 전라감사 김시연은 익산 봉기가 중앙에 보고된 직후 곧 파직되었다. 익산민들이 제기한 도결세 시정문제가 감사의 책임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고창의 경우에는 수령이 대동미를 방납하였고, 화순의 경우는 결가 및 환곡을 돈으로 바꾸어 전용하였다. 임피에서는 수령이 비축 조창미를 개색(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꿈)한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취했고, 흥양의 경우 소송시에 뇌물을 강제징수했던 것이다.

토착 양반들과 사대부들의 향촌에 대한 무단지배도 봉기를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 익산, 고산, 임피, 함열 등지의 농민들은 사대부들의 사사로운 수탈 때문에 일어났고, 동복의 경우에는 초군들이 사대부들의 임야 독점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전라도 지역의 농민항쟁도 타지역과 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회를 소집하여 호소하는 단계와, 전면 봉기하여 무력으로 읍권을 장악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대체로 여러 차례 등소 운동(연명하여 관청에 호소함)을 거친 후에 전면 봉기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면 무안 지역은 박창응이 통문을 돌려 농민들을 모은 후에 영내로 몰려들어 갔고, 익산에서는 임치수, 이의식 등의 주도로 통문을 각 면에 배포하여 농민들을 동원하였다. 이 같은 대중적 모임에는 빈농 이외에도 농촌 지식인, 몰락 양반, 때로는 부유층들이 참여하였으나, 그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른 경우가 많았다.

전라도에서 항쟁을 주도한 계층은 일차로 농민을 조직하여 봉기로 나가도록 한 농촌지식인, 즉 몰락 양반들이었다. 전라도 함평과 익산의 봉기는 이들 향촌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주동자 정한순과 임치수는 등소운동에서부터 전면 봉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부유층들에게서 자금을 지원받는 등 주도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목표로 한 것은 삼정의 문란이나 수령과 아전의 탐학이었다. 이 때문에 농민봉기가 본격적으로 고양되어 빈농들이 부유층들을 습격하는 단계에 이르면, 원래 주동하였던 지식인들은 그 대열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라도 민란의 중심세력은 가난한 농민층으로서, 능주나 동복 지역의 봉기를 이끈 초군 또한 이 범주에 속하였다. 이들은 향촌 내 지배계층의 주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항쟁을 전개하였다. 농민들의 공격은 삼정의 수탈과 관련있는 수령과 아전 그리고 향촌 내 지배계층인 토호와 지주에게 주로 가해졌다. 봉기를 일으킨 농민들은 보통 동헌으로 몰려가 수령들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대개의 경우 수령들에게 별다른 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평, 익산, 옥과의 경우, 수령을 구타하고 가마에 태워 마을 밖으로 추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에는 이들 수령들의 통치를 전면 부정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다음으로 농민들은 동헌을 습격하여 관아를 불태우는 일들이 많았다. 순천의 경우 공공기관에 방화하였고, 농민들은 징세담당자인 아전들의 집을 부수거나 무자비하게 구타하였다. 농민들은 향촌지배층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격하였다. 함평 지역의 경우 농민들은 저채징수에 앞장섰던 토호 김상원과 이완헌의 집, 그리고 고리대나 고율의 소작료를 통해 농민을 수탈했던 지주나 요호 부민의 집을 부수거나 방화하였다.

농민들은 관아나 부호들의 집을 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했다. 특히 중앙에서 파견한 사신들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함평의 정한순은 안핵사 이정현에게 10개 조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고, 금구 농민들은 선무사 조구하에게 민폐 시정 요구 12개조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밖에 전면 봉기 이후 농민들에 의해 지방행정권이 장악되는 경우도 있다. 순창의 경우에는 농민들이 군수 이승백의 귀로를 막고 자신들이 향리를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하였다.

충청도 민란

충청도 농민 항쟁은 1862년 3, 4월에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일어난 민란의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5월에 집중되었다. 5월 10일 회덕, 공주, 은진을 시작으로 13일 청주, 14일에는 회인, 문의 그리고 17일에는 임천에서 농민 항쟁이 일어났으며, 5월 중순경에는 진잠, 연산, 진천에서 농민항쟁이 전개되었다.

농민항쟁이 일어난 지역은 대부분 공주와 청주 인근의 군현이었다. 이는 감영과 병영에서의 농민 수탈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충청도 농민항쟁 지역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충청도 민란의 원인과 전개과정

지역	날짜	봉기의 직접적 원인	봉기의 주체 및 전개과정
평택	4월 중순	제언 문제	행인에게 행패
은진	5. 10	환포 및 결렴	농민, 양반가 공격
공주	5. 10	환포 및 결렴	초군, 11개조 항의소지 제출
회덕	5. 10	환포	초군, 양반가 습격
청주	5. 13		초군, 양반가 습격
회인	5. 14	벌채 금지	초군, 양반가 습격
문의	5. 14	결가 및 군역 과다 부과	현감 모욕
임천	5. 17	양반 무단 지배 항의	폐정 개혁 조항 제시
진잠	5월 중순		초군, 인가 습격
연산	5월 중순		초군, 인가 습격
진천	5월 중순	결가 과다 책정 항의	농민, 관청 습격
옥천	5월 중순		수령에 의해 사전 해산
청안	10. 2	결가 과다 책정	양반가 습격

충청도 농민 항쟁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민층 분화의 심화, 삼정 수탈의 강화, 수령과 서리에 의한 탐학, 사대부들의 농민 무단지배 등이 요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농민층 분화는 지주와 소작, 부농과 빈농간의 대립을 격화시켜 민란을 유발한 큰 요인이 되었다. 특히 소작 빈농의 경작지 면적 축소는 부농과의 소작지 경쟁을 불러와 빈농과 부농 사이의 대립을 첨예화시켰다.

농민항쟁의 직접적인 요인은 역시 삼정의 문란에 있었다. 전정의 경우는 오랫동안 토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 따라 향리들이 농간으로 농민들의 원망이 크게 고조되고 있었다. 군정의 경우, 군역 부담자의 감소는 양반층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농민층 자신들이 군역을 기피한 결과였다. 부족한 군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렴, 도결 등의 방안이 강구되었으나, 도리어 농민 부담을 가중시켜 항쟁을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

환곡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를테면 임천의 경우 농민들은 한톨의 곡식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이자곡만을 내야 했다. 은진과 정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곡이 아전들이 횡령하여 남은 곡식이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군현에서는 군정의 경우처럼 결렴과 도결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 때문에 추가로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농민들은 날로 곤궁해져 급기야 농민항쟁으로 폭발한 것이다.

수령과 서리층의 부정 탐학 또한 충청도 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욱 심하게 항쟁을 유발한 요인은 사대부들의 농민들에 대한 무단적인 지배였다. 양반의 무단적인 지배에 대항하여 농민들의 항쟁이 일어난 곳은 공주, 회덕, 회인, 청주였고, 이밖의 지역에서도 양반층의 무단 지배를 성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충청도 민란의 주체 역시 초군과 농민들이었다. 항쟁이 발생한 11개 지역 가운데 공주, 회덕, 회인, 문의, 진잠, 연산, 청주 등지에서는 초군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나머지 4개 지역에서는 일반 농민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초군은 농민항쟁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조직이었다. 초군들은 통문을 돌리고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양반가나 관청을 공격하였다. 초군들은 주로 면 단위의 농민들로 조직화되었는데, 이는 당시 조세 상납 구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농민들의 공격 대상에는 관청이나 향리층만이 아니라, 향촌을 지배하고 있던 유력 양반들

도 포함되었다. 특히 은진, 진잠, 연산, 천안의 경우에는 관청에 대한 공격은 없고 양반들에 대한 공격만이 보고되었다.

충청도에서는 농민항쟁이 군현 단위의 국지적 규모에서 벗어나 이웃 군현까지 공격 목표로 확대되고 있었다. 은진 민란의 경우에는 농민들이 전라도 여산부를 습격한 것으로 보아, 그것이 이웃 군현간의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농민항쟁은 전국적 규모로 연대하여 발전되지는 않았으나, 농민들의 의식이 이웃 군현을 공격할 정도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항쟁은 군현 단위로 이루어졌으나, 항쟁의 발발은 이웃한 군현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면 5월 10일에 발생한 회덕 농민항쟁과 5월 14일에 발생한 회인과 문의의 항쟁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제주도 민란

삼남지방 이외에서 민란이 일어난 곳은 제주도와 경기도 광주, 그리고 함경도 함흥이었다. 제주지역을 제외한 두 곳은 다 같이 정부가 농민항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삼정이정절목을 마련한 후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다. 함흥 농민들은 환곡의 이자놀이를 폐지할 뿐만 아니라 이자놀이에 사용된 환곡도 탕감하라고 주장하였다. 광주 농민들은 환곡 혁파의 조건으로 토지에 2냥씩을 부가징수하는 데 대하여 항거하였다.

그런데 제주 농민들은 정부의 이정절목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제주도의 조세 수취제계가 육지와 크게 달라 정부의 이정절목이 제주도의 조세 폐단 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세 지역 중 항쟁이 가장 치열하였던 제주 지역의 경우만을 보기로 한다.

제주도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첫째 중앙정부에 바치는 것으로 진상과 공물로서, 이는 봄 가을에 3두씩 1년에 6두의 쌀을 평민과 천민 남자들이 부담하였다. 둘째는 제주도 관아의 재정에 충당되는 토지세였으나, 그 액수는 미미하였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원래 토지에 부과되어야 할 대동세마저도 전답이 적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부과되었다. 즉 바닷가 마을의 남정에게는 참깨 8홉, 산촌의 남정에게는 들깨 한 되, 그리고 모든 남정들에게 채종 한 되를 징수하였다. 이 같은 제주도의 독특한 조세 수취구조는 제주도 농민항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제주도의 민란은 1862년 9월, 10월, 11월에 한 차례씩 세 번에 걸쳐 봉기하였다. 그런데 그 이전 3월에도 이미 한 차례의 봉기가 있었다. 3월의 봉기는 조세 폐단의 시정을 요구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3읍의 공동 봉기라는 제주도 농민항쟁의 특징을 보여주었고, 9월 봉기의 선구가 되었다. 3월의 봉기는 제주도민의 생계에 관건이 되었던 갓양태 산업을 두고 일어났다. 즉 제주 관아에서 관권으로 양태의 원료였던 양죽을 무더기로 베어낸 횡포에 대하여 항의를 일으킨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제주도 3읍민들은 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고판관과 아전들을 징계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지켰다.

9월의 1차 봉기는 그 달 6일 대정현 덕수리에 사는 김석란이 광청리의 김두일에게 금년도 화전세를 터무니없이 높게 매기고 있다는 내용의 통문을 보냄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들은 9월 12일에 모여 관아에 등소하면 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의견을 모았다. 이때 중대리의 장환이 나서서 감관과 색리를 직접 응징하고 화전세 문서를 소각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천명하자고 주장하였다. 9월 13일에는 화전민 천여 명이 중장도에 모여 답험관 진경락의 집을 때려부수고, 그날 저녁에는 도내리로 직행하여 광천리 경내감관 강위진의 집을 파괴하였다. 9월 14일에는 이방 김종수의 집과 색리 정승수의 집을 때려부수고,

이러 목사에게 화전감세와 나이 많은 사람에게 거두는 군포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목사는 이의 시정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대가로 주모자들은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봉기가 끝난 후 목사가 경내를 순찰할 때 화전세를 다시 조사하도록 명령함에따라 1 차 봉기에서 내세운 요구는 어느정도 달성되었다.

2차 봉기는 제주목사가 제주민을 달래기 위해 3읍을 순시하는 도중에 발생하였다. 10월 6일 도민들은 제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던 제주목 장교와 아전들인 김종주, 송인원, 송응환, 김석룡, 김형량 등 다섯 죄인을 때려죽일 것을 제주목사에게 요구하였다. 목사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보고한 후 직접 타살하겠다고 달랬다. 그날 밤에 봉기군의 일부가 조천리로 향했다. 이때부터 봉기민들의 공격은 제주도의 토호층으로 확산되었다. 조천리는 제주도의 유력한 토호인 김씨들이 대대로 사는 곳이었다. 봉기꾼들은 조천리의 김정의의 집을 불태우고 다음날 자기 마을로 돌아갔다.

한편 조천, 북포, 함덕 등 제주도 북쪽 포구민들은 부근에 정박해 있던 충청도에서 온 상선을 공격하고 물건들을 약탈하였다. 배의 주인은 충청도 평택 사람인 배운서와 박현보 등이었다. 이들은 10여 년 전부터 쌀, 포를 싣고 와서 제주 특산물인 미역, 양죽 등과 무역하면서 이득을 긁어모아 제주도민의 증오를 받아오고 있었다. 이처럼 봉기민들은 제주목의 관리들과 함께 제주민의 주요산업인 미역, 양태 등의 상품화 과정을 독점해온 육지 상인, 포구 주인과 제주도의 토호 등을 직접 공격하였던 것이다.

2차 봉기부터 본격적으로 3읍민들의 공동투쟁이 시작되었다. 1862년의 민란 가운데서 제주도의 항쟁은 가장 대규모적이고 지속적인 항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목 관속배였던 다섯 죄인의 타살과 제주목 관속을 도민이 원하는 자로 교체하라는 요구조건을 내세워 목사의 승낙을 받고 해산하였다. 2차 봉기민들이 해산하자 목사는 대정현과 정의현에 공문을 발하여 봉기 참가자들을 잡아들이도록 명하였다.

11월에 들어오자 또 다시 도민들이 봉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목사는 3읍의 수령에게 백성들을 만류시키도록 하는 등 봉기를 막아보려고 분주하였다. 그러나 그달 15일에 3읍의 봉기민 수만 명이 강제검의 지휘 아래 동문 밖 연무정 앞에 모였다. 그들은 투쟁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참가하지 않는 마을의 집들을 부수었다. 봉기민의 기세를 두려워한 목사는 성문을 닫아버렸다. 17일 새벽에 봉기민의 한 무리가 남문으로 향했다. 해가 저물 무렵에 강제검, 김홍채, 조만송이 앞장서서 남쪽 수구의 석축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남문과 동문 양쪽으로 물밀 듯이 들어가 수만 명이 성안에 가득하였다. 아전들은 황급히 살길을 찾아 도망하였고, 봉기민들은 곧 관아에 돌입하여 목사를 압박하고, 그 인부를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목사가 완강히 저항하여 탈취하지 못하였다.

17일 밤 제주 성을 완전히 손에 넣은 봉기민들은 다섯 죄인을 색출하여 처단하기로 하였다. 그날 밤 포정문 밖에서 대회를 열고 이방 김종주를 타살하였다. 장교 김석룡은 두려워서 자살하였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 도민들은 18일에 석룡의 아들과 동생을 붙잡아 타살하였다. 제주목을 장악한 봉기민들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민폐 시정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장부를 조사하여 21일에 민폐시정규칙(구폐절목)을 완성하였다. 시정규칙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그들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에는 봉기로 피해를 본 조천 마을의 김정의 집안이 중심이 되어 제주목사로 하여금 제주목을 다시 장악하도록 부추겼다. 그리하여 연무정에 도착한 목사는 봉기민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항쟁 주도자 강제검을 포박하였으나, 성안에 있던 농민들이 그들을 공격하여 구출하였다. 12월 2일에 봉기민들은 목사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목 사령 이일성을 짓밟아 죽였다. 12월 9일에 대부분의 봉기민들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주도층만이 성내에 남게 되었다.

12월말에서 1863년 초에 신임 목사 정기운이 제주도에 부임하였다. 12월 14일에 제주도의 사태를 보고 받은 조정에서 시급히 목사를 교체한 것이다. 새 목사가 부임하고 7일째가 되던 날, 3읍민 180여 명을 인솔한 강제검은 그 동안 작성한 민폐시정규칙을 목사에게 주고 그대로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목사는 민폐의 시정을 약속하고 그들을 물리쳤다. 강제검은 시정규책의 이행을 신 목사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또 한번 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통문을 제주도 전 지역에 띄웠다. 그러나 이 사실을 포착한 목사 정기원이 강제검의 처소를 급습하여 강제검을 체포하였다. 2월 2일에 강제검 등이 처형당하면서 3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제주 농민항쟁은 종결되었다.

미봉적 정부의 대응

각 지역에서 발생한 농민항쟁은 해당 군현에서 아전들을 통해 즉시 감영에 보고되었고, 감사는 자체적으로 봉기를 수습한 후 장계를 통해 중앙에 보고하였다. 국왕이 민란에 대한 대응책을 지시하면, 비변사에서는 국왕의 명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하였다.

1862년 진주민란 때 경상감사 이돈영은 우병사 백낙신의 보고에 따라 진주민란이 통환과 도결 때문에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전라감사 김시연도 익산민란이 도결의 폐단에 대한 항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그후 일어난 다른 지역 민란의 보고도 대략 동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만으로는 농민봉기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핵사를 파견하여 봉기에 참여한 농민의 처벌과 제반 문제를 조사하였고, 선무사를 파견하여 국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의지를 표방하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조처를 취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지방 수령의 부정과 탐학을 조사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당시 각 지역에 파견된 중앙 관리의 명단은 (표4)와 같다.

(표4)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의 명단과 활동지역

지역	임무	성명	활동지역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	진주(단성)
	안핵사	윤태경	개령
	선무사	이삼현	상주, 선산, 인동, 현풍, 창녕, 의령, 진주, 단성, 함양, 거창, 성주, 대구 등
	도어사	이인명	진주, 함양, 거창, 창원
	우도어사	조병옥	상주, 선산, 성주, 창원
	좌도어사	임승준	위와 같음
전라도	안핵사	이정현	익산, 함평
	안핵사	이건필	제주
	선무사	조구하	익산, 금구, 부안
	우도어사	조병식	익산, 고산, 임피
	우도어사	이필선	태인, 장성, 영광, 진주
	우도어사	조성교	전주
	좌도어사	김원성	화순, 흥양, 진안
충청도	좌도어사	김익현	연풍, 보은, 진천, 영동
	우도어사	정기회	임천, 은진, 정산
기타	안핵사	이삼현	함흥

진주민란을 조사하러 내려간 안핵사 박규수는 민란이 일어난지 한달반이 지난 4월 4일에 장계를 올려 민란의 실상과 지방수령과 아전들의 탐학 사실을 열거하였고, 이어서 재차 장계를 올려 우병사 백낙신의 농민 수탈 상황을 나열하고 그것이 민란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 민란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였다. 정부 대신들은 민란이 환곡을 중심으로 한 농민 수탈과 탐관오리의 농민 침탈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중앙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4월과 5월에 들어와 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경상도 일대는 물론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잇따라 민란이 보고되었다. 극도의 위기감에 젖은 정부는 이제 각각의 농민봉기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강경 진압을 통해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봉기가 발생하면 감사나 수령이 자체 처리하고 선참후계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봉기에 가담한 농민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처벌하여 봉기의 주도자들을 예외없이 효수하였으며 추종자도 엄하게 처벌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농민봉기는 계속되었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로 그 방안을 제시한 사람이 안핵사로서 지방 실정을 관찰하고 난민의 동태를 살피고 온 박규수였다. 그는 진주민란을 조사한 후에도 각 지방으로부터 올라오는 보고서를 토대로 민란의 기본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 노력하였고 마침내 삼정문란이 그 원인이라고 확신하였다. 민란의 발생이 삼정 문란, 그 중에서도 특히 환곡에 있다고 파악한 박규수는 그 수습책을 삼정의 개혁에서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연구하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그 수습책을 마련하자고 건의하였다. 박규수는 자신의 생각을 국왕에게 건의하여 곧바로 채택되었다.

5월 25일 국왕 철종은 조세수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를 명하였고, 다음날 비변사에서 기구 명칭을 '이정청'으로 이름붙였다. 그리고 그 위원을 임명하였다. 이정청 총재관에는 정원용, 김흥근, 조두순 등이, 이정청 당상에는 김병익 등 정부 대신들이 임명되었다. 조정에서는 드디어 6월 10일 삼정 개혁안을 공포하였고, 6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재야유생층과 관료들에게 개혁 방안을 널리 모집한 후, 윤8월 19일에 삼정이정책을 발표하였다.

삼정이정책의 내용은 주로 삼정 운영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전정에서의 개선방안은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전세, 대동, 삼수미 이외에 신설 추가된 각종 부가세를 금지, 도결의 혁파, 저리 역가의 결렴 금지, 제방을 쌓은 이후 수리세의 징수 금지 등 수세상의 결함과 폐단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요컨대 조선왕조가 마련한 전제의 여러 규정을 재확인하고 법대로 운영하려는 것이었다.

군정의 개선방안은 5개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유아, 노인에 대한 부세를 금지할 것, 모칭유학자들의 탈역을 막을 것, 각 군현의 군액을 조정할 것 등이 그것이다. 전정과 마찬가지로 군정도 또한 군포의 징수를 나라에서 정한 규정대로 운영될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환곡의 개선방안은 23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핵심은 이자 증식의 기능만이 있는 환곡제도는 혁파하고, 그 대신 토지 1결당 2냥씩 걷어 그 동안 환곡이자로 운영되는 부분에 충당할 것을 명하였다.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기능이 마비된 환곡제도에서의 빈민구제 기능은 사창을 설치하여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계를 지닌 개혁 방안마저도 그후 이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수정되었다. 이정청에서는 삼정이정절목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사창 절목은 제외하였으며,

정부의 방안으로 채택된 것도 이 이정절목뿐이었다. 그리고 이 이정절목마저도 그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삼정이정책은 지배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실시가 유보되다가, 10월 29일부터 다시 개혁 이전의 제도로 환원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정의 집권자들은 삼정이정책이 너무 서둘러서 완벽하지 못하므로 옛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편리하다고 변명하였다.

당시 조정은 체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자 봉기과정에서 제기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처럼 하다가, 농민항쟁이 수그러들자 이를 재빨리 철회함으로써 농민들을 기만하였다. 더욱이 다음해 6월에는 우병사 백낙신과 전라감사 김시연을 비롯하여 처벌한 수령 등을 거의 사면함으로써 대응책의 허구성을 보여주었다.

민란의 의의

1862년 2월 초 경상도 단성과 진주에서 시작하여 그해 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을 조선말기의 가장 큰 반봉건투쟁이었다. 이를 통하여 농민들은 삼정의 조세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하였고, 수령과 아전 등 수취 담당자들에 대한 공격과 지방행정권 장악을 통해 봉건적 통치체제를 부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농민항쟁으로 야기된 체제붕괴의 위기를 삼정이정책의 시행을 통해 모면하고자 하였고, 농민항쟁이 수그러들자 다시 그 이전으로 환원하였다.

1862년의 농민항쟁은 결과적으로 보아 실패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으나 19세기 농민항쟁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첫째, 이전의 농민항쟁에서 나타난 고립성과 분산성은 여전히 이어졌으나, 민란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점차 극복되어가고 있었다. 둘째, 항쟁 주도세력의 주체적 역량이 점차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적극적인 항쟁을 위해 주동층이 구성되고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일정한 계획에 따라 목표물을 공격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지방행정권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셋째, 주도층은 몰락한 양반 또는 초군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전통 있는 양반이나 부호층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초군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단순히 항쟁의 확대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조직 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1862년의 민란이 가졌던 한계로는 첫째, 그들은 신분 또는 계급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모순 시정만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공격이 끝난 후에는 쉽게 해산을 하였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확실히 보장받지 못하였고, 곧 탄압을 받게 되었다. 둘째, 무장력이 미약하였다. 대개의 경우 이들이 지닌 것은 몽둥이가 전부였다. 같은 시기에 명화적들이 말을 타고 총을 갖고 다닌 것에 비하면 매우 빈약하였다. 셋째, 농민들은 조세수취체제의 개혁 즉 지주제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지주제개혁과 농민적 토지 소유의 실현에 대한 요구는 반봉건투쟁의 전반적인 강도와 수준에 비하여 미약하였다.

1862년의 민란이 갖는 이러한 한계는 1876년 개항 이후 새로이 민족 모순이 부가되면서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저항의 주체로서 결집되어, 이후 동학농민전쟁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농민항쟁을 통하여 극복되어나갔다.

서북지방 최대의 민중항쟁 – 홍경래의 난과 여러 민란들(1)

2013.06.19 16:44

저항의 세기

조선후기 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인 19세기는 저항의 시대, 민란의 시대로 불릴 만큼 민중의 사회적 역할이 컸다. 조선왕조를 유지해왔던 유교적 봉건체제는 민중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으나, 당시의 지배층은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구체제를 고수하고자 하였다.

민중의 움직임은 18세기인 영조, 정조 시대에도 있었지만, 이들이 조직화되어 변란이나 민란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세기 초기부터였다. 1800년 6월 28일에 남인들을 등용하여 변화의 시대에 맞게 대책을 준비해오던 정조가 갑자기 서거하고, 11세의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할머니인 정순대비가 수렴청정으로 왕권을 대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조선의 19세기는 그 벽두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정순대비는 영조의 두번째 왕비로서 경주 김씨이다. 그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그의 친정 인물들과 영조대의 집권세력이었던 벽파와 결탁하여 정조대의 집권세력이었던 시파를 몰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정조 때에 등장하여 활동하던 남인들이 천주교 박해에 연루되어 관직에서 몰려나고 죽임을 당하였다. 이가환과 정약종은 옥사당하였고,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는 전라도 지방으로 귀양갔다. 그리고 많은 천주교도들이 사형당하였다.

그런데 1802년에 시파였던 김조순의 딸이 순조와 결혼하고, 1804년에는 정순대비의 수렴청정이 끝나게 되자 다시 시파가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왕은 아직도 어리고 정치에 미숙하였으므로, 시파의 중심이었던 김조순 등 안동 김씨 일가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완화되었고, 그 이전인 1801년에는 왕실이나 관청 소유의 공노비들이 해방되었다. 순조대에는 가뭄과 홍수 등 천재지변이 자주 발생하였고 전염병이 크게 번져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였다. 이 때문에 도처에서 크고 작은 민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민란이나 반란들은 심정의 문란 등 조선후기의 누적된 사회 모순 위에 관직을 사고 팔던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폐단으로 촉발된 것이었다. 과거시험의 부정부패로 가난한 선비들은 과거에 합격하기도 어려웠고, 또 어렵게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벼슬을 얻기가 어려웠다. 문벌을 통한 굵은 줄이 있거나 수천 수만 냥의 뇌물을 쓰지 않으면 벼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던 것이다. 이 때문에 가난한 선비들은 중앙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없었고, 대다수는 향반이나 잔반으로 전락하여 명맥을 유지하거나 경제적 기반을 잃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과객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지식인들의 불만은 커지게 되었고, 그들의 선동에 의하여 사회적 불안도 고조되어갔다.

반면 매관매직으로 벼슬을 얻은 관리들은 갖은 방법으로 부정부패를 자행하고 민중들을 착취하는 데 핏발을 세웠다.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더 좋은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세가들

에게 더 많은 뇌물을 바쳐야 하기 때문이었다. 주로 전세나, 군역, 환곡의 행정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백성들에 대한 착취는 그들의 저항의식을 고취하였고, 자포자기적인 난동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 농민을 비롯한 일반민들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더욱 격렬해져갔다. 이같은 사회적 추세에 대하여 다산 정약용은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여 백성들이 작당하여 변란을 일으키면 그 누가 막을 것인가?"라고 걱정할 정도였다. 한 예언처럼 19세기가 시작되면서 민중들의 동요는 시작되었고, 그것은 한 세기가 끝날 때까지 내내 계속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811년의 관서지방을 뒤흔든 대대적인 반란, 즉 홍경래 난, 1862년의 진주민란을 비롯한 농민항쟁,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었다.

이 장에서는 19세기 초기의 대표적인 '변란'이었던 홍경래 난과 그에 앞서 일어났던 여러 차례의 작은 '민란'들을 살펴보면서 '저항의 세기'의 문을 열어본다.

인동에서 일어난 변란

유학자 장시경의 도전

1800년 8월 15일 경상도 인동의 유학자였던 장시경 형제들이 몇몇 마을의 농민들 수십 명을 동원하여 인동 관아를 습격하려다가 실패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비록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소규모의 변란이었지만, 19세기의 문을 여는 민중들의 몸부림이었다. 이 변란은 좌절과 불만에 가득했던 농촌 지식인들과 거기에 동조했던 농민들이 합작하여 일으킨 전형적인 소요사태였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서거하고 11세 어린 나이의 순조가 즉위하였다. 정조는 그가 급서하기 한 달 전인 1800년 5월에 탕평정책을 강조하고 남인을 등용하려는 의지가 담긴 하교를 내렸다. 이에 오랜 동안 정권을 잡아왔던 노론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후 한달 만에 정조는 갑자기 서거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일부 남인들 사이에서 그가 독살당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게하였다.

영남지방의 명망 있는 사림으로서 이러한 소문에 자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인동의 장시경이었다. 장시경은 인조 때의 대학자였던 여현 장현광(1554-1637)의 직계 후손으로서 남인 계열의 선비였다. 명문가의 후예로서 글 읽는 것을 일삼고 바깥 사람과의 접근도 많지 않았다. 장시경은 (주역)을 많이 읽었으므로 괘를 푸는 방법을 대강 알고 있었다. 그는 또 천문을 공부하여 28수의 별자리를 보고 다가오는 운세를 알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는 평상시 점을 치면 반드시 그 상을 해석하여 써서 상자 속에 보관하여 두었다 한다.

이 난의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는 상반되는 두 가지 기록이 전하고 있다. 먼저 인동부사 이갑회가 조정에 보고한 공식문서에 기록된 난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장시경은 7월 20일경에 서울의 국상 소식과 유언비어를 듣고 의심을 품은 것으로 보이며, 7월 그믐께는 동생 장시호의 아내에게 쌀 30되와 명태 30마리를 준비하게 하고, 또 8월 9일에는 술을 빚게 했는데, 그 용도를 알리지 않았다. 이때는 정조가 죽고 대비가 수렴청정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채 안된 시기로서, 정치권에서는 노론이 득세하고 남인이 밀려난 상황이었다. 장시경의 목표는 우선 인동 관아로 돌입해서 수령을 결박하고 차차로 전진하여 성루로 올라간 다음, 노론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여 좋은 벼슬을 차지하겠다는 것이었다.

8월 15일 저녁에 장시경은 그의 노비 이영태에게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으게 하여, 술을 주면서 나누어 마시게 하고 부근 묘향산 아래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지금 국가에서 임금님의 약을 과도하게 써서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어린 세자가 왕위를 계승하고 노론이 득세하게 되자 남인은 남김없이 쫓겨났으며 민생은 날로 고달프게 되었다. 이렇게 국세가 외롭게 되었는데 나와 너희들이 어떻게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봉기를 선동하였다. 그는 자신이 주역을 점친 결과, 근래에 반드시 난리가 있게 될 것이라 하고, 그러므로 군대를 일으켜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관아로 가서 본 고을의 수령을 결박하고, 계속 나아가 선산과 상주를 점령하고 서울에까지 육박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그는 참가한 무리들에게 상으로 돈 1백 냥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때 모인 인원은 약 20명 내외였고 그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장시경은 이들을 데리고 인근 각암촌으로 가서 무리 8명을 불러모았고, 다시 도토곡으로 가서 20인을 더 모았다. 그의 아들 장현경이 10여 명을 데리고 뒤따라왔다. 장시경이 이들을 데리고 출발하려 할 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촌 장시하와 친척인 장시정, 장시즙, 장시익 등이 소식을 듣고 와서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무리는 모두 61명이었는데, 열 명씩 대오를 이루어 각기 울타리나무 한 개씩을 가지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친족인 장시강과 장시려는 이 난을 중지시키려고 뒤쫓아갔으나 장시경은 이미 먼저 가버렸고, 장현경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탈락하는 자를 막고 있었다. 장시려 등이 "도망하여 흩어지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소리치자, 마을의 장정들이 일제히 도망쳐 흩어지고 앞에 있던 수십 인은 함께 관아 정문 밖에까지 갔다. 그때는 새벽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장시경 등 4인이 먼저 나아가 관아의 문을 두드리면서, 사촌이 남에게 맞아죽었으므로 관가에 고발하려 한다고 핑계하고,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지기가 완강히 거부하고 들여보내지 않았다. 서로 실랑이를 하는 즈음에 한 무리가 문 곁의 담장을 몽둥이로 뚫어 흙과 돌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고 때는 이미 새벽이 되었다. 뒤따라오던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고 겁이 나서 도망가버렸다. 일이 실패한 것을 깨달은 장시경 형제는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자살하였는데, 위의 두 형제는 죽고 장시호만 살아남았다.

다산이 들은 이야기

그러나 다산 정약용이 전하는 이 사건이 동기나 진행 과정은 변란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만큼 판이하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래 장시경과 부사 이갑회의 아버지는 먼 친척간으로서 가끔 관아에서 만나 세상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처지였다. 세상의 이야기들 중에는 당시의 정승이 의원 심인을 추천하여 정조의 병을 치료하였는데, 독약을 바쳐서 임금이 죽게 되었다는 말도 있었다. 이 때 장시경은 비분강개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갑회는 국상의 공식 애도 기간(25일간 일체의 정사를 중지하고 애도함)이 끝나기도 전에 부친의 회갑연을 열고 기생을 불러 가무를 질기면서 장시경 부자를 초청하였다.

이에 장시경이 심부름 온 아전에게 "임금이 돌아가신 이런 때에 잔치를 베풀다니, 세상 되어가는 꼬락서니를 알겠다"고 비난하였다. 이 말을 전해들은 이갑회는 자신이 탄핵될 것을 염려하여 장시경을 모함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감영에 긴급 보고를 올려 장시경의 장현경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조정의 악당들을 제거하려고 반란을 일으킬 기미가 있다고 고발하였다. 보고를 들은 관찰사였던 신기는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였다. 이갑회는 장교와 나졸 200여 명을 동원하여 횃불을 들고 장시경의 집을 포위하였다. 장시경 부자는 영문도 모르고 도망치다가 장시경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장현경은 달아나버렸다. 장시경의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은 잡혀 갇히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안핵사 이서구를 파견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장시경의 집에서 압수한 증거라고는 점치는 책 한 권과 점괘를 풀이한 종이 한 장이었다. 거기에는 '건마서분'이라고 씌여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안핵사 이서구는 비교적 온건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잡힌 사람들을 대부분 풀어주었다. 그래서 영남에서는 일을 잘 처리하였다고 안핵사를 칭송하기까지 하였다 한다. 다만 도망간 장현경의 아내와 자녀들은 전라도 신지도로 귀양을 보내었다. 거기서 그의 가족은 한 군졸에게 핍박을 받다가 아내와 큰딸이 바다에 투신자살하였다. 그때 마침 다산이 강진에 귀양가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막을 기록한 것이다.

결과와 영향

이 사건의 동기나 내막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기록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기록이 모두 미심쩍은 면이 없지 않다. 부사 이갑회의 보고는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난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또 앞뒤의 정황을 살펴보면 명문가의 학자였던 장시경이 그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난동을 일으켰을지 의심스럽다. 반면 다산의 기록은 순전히 전해들은 이야기로서 그 사건의 동기는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전모를 알 수 없다. 위의 두 기록을 종합해보면 장시경은 단순히 당시의 정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을 뿐만 아니라 모종의 행동을 기도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상민들 중에서 연루된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그의 아들 장현경이 도망한 것도 미심쩍기 때문이다.

어떻든 이 사건은 장시경 등의 주동과 부추김으로 농민들이 참여하게 된 소요사건으로서 매우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안핵사 이서구의 선처로 농민들은 불문에 부쳐지고 장시경 일가만이 처벌됨으로써 사건은 큰 물의 없이 처리되었다. 살아서 도망갔던 장현경은 10여 년 뒤에 경원 월명사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동부는 강등되어 현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인동의 소요사건 이후에도 경상도에서는 괘서 사건이 뒤를 이었다. 다음 해 8월 하동의 두치장에 대자보를 붙이는 괘서의 변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이진화, 정양선, 이방실, 정철손 등이었다.

이 괘서는 읍과의 거리가 5리쯤 되는 시장 가에 걸려 있었는데, 흰 명주를 한 자 남짓하게 대나무 장대에 종이 끈으로 꿰뚫어서 매단 것이었다. 명주 가운데에는 "문무의 재주가 있어도 권세가 없어 실업한 자는 나의 고취에 응하고 나의 창의에 따르라. 정승이 될 만한 자는 정승을 시킬 것이고, 장수가 될 만한 자는 장수를 시킬 것이며, 가난한 자는 풍족하게

해주고 두려워하는 자는 숨겨준다"라고 하였다.

창원 지방에도 흉서를 게시한 곳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알려져있지 않다. 그리고 의령에서도 괘서사건이 발생하여 집권층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 농민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단천과 북청의 민란

1808년(순조 8)에는 함경도의 단천과 북청에서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단천부의 향인 김형대 등은 좌수를 쫓아내고 관문에 들어간 다음, 지팡이를 가지고 관아에 올라가서 해당 수령을 쫓아내기까지 하였다. 또 북청부에서는 아전 김치정 등이 관장을 모해하고 떼를 지어 향청에 들어가서 아관을 불로 지졌다. 북청부사심후진은 모욕을 받고 비웃음을 샀으며, 단천부사 김석형은 겁을 먹고 피하여 숨어버린 것이다.

단천의 소요

1808년 1월 3일 함경도 단천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먼저 부사의 사주를 받은 한 무리의 고을 사람들이 향청에 모여 민폐를 의논하던 중, 지나간 일들을 들추면서 좌수 심지원을 몰아내고 말았다. 그러자 좌수의 편을 들고 나선 수백 명의 고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다툼이 일어났다. 그들은 관아 건물에 올라가 부사 김석형을 몰아내었다. 부사는 처음에 서재에 숨어 있다가 다시 장창으로 도망하여 5일 동안이나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그 후에 돌아온 부사는 이 사건을 향전(향권의 장악을 둘러싼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사건을 주동한 김형대 등을 묶어서 옥에 가두었다.

이 사건은 실상 단천부사였던 김석형이 향권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향회를 구실로 당시 향청의 책임자였던 좌수 심지원을 몰아내려고 한 데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기존의 향인층들이 백성들을 동원하여 부사를 축출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중앙정부의 대행자라고 할 수 있는 수령과 토착 양반 세력인 향청 사이에 자주 일어나던 수령권과 향권의 한 대립 양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더 깊은 원인이 있었다. 그 해 6월 17일에 함경도관찰사 조윤대가 올린 조사 보고서에는 단천부사 김석형의 탐학 불법한 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김석형은 원래 탐욕이 많아 불법한 짓을 많이 저질렀는데, 각종 명목으로 불법 착취한 돈이 18,148냥, 은이 831냥이나 되었던 것이다. 그의 죄목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향청의 임원인 좌수 향소 창고지기 중군(지방군 참모장)으로부터 천종(대대장급) 초관(중대장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책을 돈을 받고 팔았던 것이다. 또 나루에 운행하는 배들에 대하여는 상세를 부당하게 과외로 징수하였고, 광산에서는 소정의 세금을 무시하고 생산되는 은을 빼앗다시피 하였다. 그는 수령으로 있으면서 부유한 농민이나 상인층, 또는 광업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로부터 심한 착취를 해왔던 것이다.

김형대 등이 향인층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단천의 작변은 이런 부사의 수탈이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북청 아전들의 봉기

한편 북청에서는 아전인 전치정 등이 무리를 지어 향청에 들어가 그 책임자인 좌수와 풍헌을 불로 지지고 부사 심후진을 모해하려 한 사건이 일어났다.

부사 심후진은 북청에 부임한 후 창고 곡식 500여 석과 대동별수전 1만여 냥이 민간에 대출된 후 오래도록 걷히지 않아 떼어먹힌 지경으로 된 채 그때까지 덮어두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향청의 우두머리인 좌수 김원후와 창고감독 이인혁을 시켜 그 수를 조사케 하고 떼인 곡식과 돈을 거두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러자 이 곡식과 돈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며 이익을 보던 아전들이 원한을 품게 되었다.

1808년 3월 5일 백여 명 가까운 아전들이 이안(아전명부)에서 이름을 지우고 떼를 지어 향청에 돌입하였다. 그들은 좌수 김원후와 창고 감독 이인혁의 옷을 벗겨 구타하고 불태워 죽이려고 하였다. 그리고 부사 심후진까지 해치려고 하였다. 이것은 곧 부세 징수와 관리 과정에서 농간을 부리던 아전들과 이를 시정하려는 체 명분을 내세우면서 또 다른 이권을 챙기려던 수령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수령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데 대한 고을 사람들의 반발이라는 점에서 단천의 소요와 공통성을 가진 사건이었다.

함경도 변란의 성격

비변사에서는 단천의 백성들이 관아를 부수고 관장을 쫓아낸 일과 북청에서 좌수를 불로 지지고 고을 수령을 해치려던 사건을 변란의 일종으로 보고 모두 주동자들을 효시(목을 베어 매달아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벌)하여 사나운 불한당들을 징계하도록 처분하였다. 그들이 비록 무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무기를 들었다면 바로 반란이나 다를 바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1808년 함경도 단천과 북청에서의 변란은 그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수령들의 향촌 침탈에 대한 저항이었다. 조선후기 함경도나 평안도 지방은 삼남지방에 비하여 토착 양반들이 세력이 크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들의 권세는 절대적이었고 그들을 견제할 지방 세력이 확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삼남지방과는 달리 지방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향회나 향소에 참여하는 향임들은 대체로 수령의 명령에 잘 복종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고을 사람들이나 아전들이 향회나 좌수 향소 등을 공격하는 경우, 그들의 최종적 저항 목표는 이들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수령이었다.

"난민들이 세력만 강하였다면 그 저항의 목표가 수령을 넘어서 곧바로 감사와 병사에게 미쳤을 것이다"라고 표현한 재상 김재찬의 우려는 바로 그러한 형편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의 우려는 바로 홍경래의 난에서 중앙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현실화되었다.

서북지방 최대의 민중항쟁 – 홍경래의 난과 여러 민란들(2)

2013.06.19 16:47

곡산민란

부사를 들것에 실어 쫓아내다

1811년 2월 23일 새벽 곡산의 북면 사람 수백 명이 각각 곤봉을 둘러매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관아에 돌입하였다. 농민들은 관아에 있던 사환, 노비들을 몽둥이로 때려눕히고 이어 관문을 부수고 정당 안에 난입하여 수령의 병부와 인신을 탈취하였다. 이어 곡산부사 박종신을 끌어내어 빈 가마니로 만든 들것에 담아 마주 들고서 읍에서 30리 떨어진 참막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백성들은 관청 안채로 들어가 부녀자들을 몰아내고 옥문을 부수고 갇혀 있던 창고의 책임자들을 모두 석방하여 내보냈다. 이 와중에서 농민들은 박종신의 부정과 비리를 8조로 열거하여 폭로한 다음 다짐을 받아냈다. 곡산 사람들은 부사 박종신의 직인을 탈취하여 이웃 수안군으로 가지고 가서 바쳤다. 수안군수 오준상은 이를 황해감사에게 보고하였고, 감사 홍희신은 이를 다시 중앙에 급보하였다.

수령을 축출하고 죄수를 풀어주어 목적을 달성한 농민들은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들은 곤봉을 들고 고함을 치면서 좀처럼 해산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였다. 관리들은 농민이 기세에 눌려 이들을 적극적으로 진압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안군수 오준상은 난민들이 변란을 일으킨 뒤 두려움 때문에 해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농민들을 즉시 해산시키지 못한 데 대한 문책을 피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읍내에 모였던 농민들은 수령이 잡아들인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보기 위해 해산하지 않고 수령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은 농민들의 위세에 눌려 진압은 커녕 잡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조사조차 착수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봉기군에 의해 곡산부의 통치질서가 사실상 마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곡산 농민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시의 지배층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중앙정부는 난민들이 관아에 쳐들어가 수령의 직인과 지휘관의 병부를 탈취한 것을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보았다. 이는 관장을 살해하거나 아전들을 쫓아낸 것보다 죄가 큰 것으로 보았으며, 무리를 동원하여 고을을 함락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까지 생각하였다. 당시 지방관들은 이들 농민봉기를 매우 두려워하여 옛날 임꺽정이 관군에 저항하던 것을 연상하기까지 하면서 반란군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보고를 들은 왕은 주모자와 가담자를 막론하고 엄단하도록 명령하였다.

아전들과 상인들이 유착된 환곡 포탈

곡산부는 황해도 동북쪽에 깊숙이 위치한 작은 고을로, 수안, 신계, 토산 등과 함께 황주에서 개성으로 가는 직로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들 지방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험한 오지이며, 민심이 사납고 도적의 출몰이 잦으며 전통적으로 토착 양반들의 기반이 취약한 지

역이었다.

이 지역은 이미 18세기 말에도 군역문제를 둘러싸고 불만이 폭발한 적이 있었다. 수령이 군포를 함부로 징발하자, 분노한 곡산민 천여 명이 관청에 몰려가 일제히 호소한 뒤 성토하고 관장을 축출함 사건이었다. 조선 후기 수령의 착취나 온갖 부패는 전국적인 현상이었지만,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 지방은 그 지방 토착 양반들의 기반이 미약하여 수형의 횡포를 견제할 수 없었으므로 그 폐단은 더욱 심한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봉기의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되어왔던 것이다.

1809년 11월에 박종신이 곡산부사로 부임하자, 그는 1년도 안되어 고질적인 병폐였던 환곡의 운영상황을 조사하여 아전들이 떼어먹은 환곡이나 가마니에 불순물을 넣어 수량을 붙풀리던 폐단인 이른바 분석을 조사하였다. 곡산부에는 북쪽 사화방에는 세곡을 보관하는 서하창이라는 창고가 있고, 서북쪽의 화촌방에는 서상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박종신은 조사에 의하여 창고의 곡식이 크게 결손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서하창의 경우, 환곡을 나누어주고 거두어들일 때 창고 감독과 실무담당자 색리가 좁쌀을 훔쳐내어 각 마을의 부유층들 집에 쌓아두었다가, 해빙기가 되면 그것을 배로 평안도에 운반하여 팔아 이익을 착복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 이유로 박종신은 창고의 담당자들을 모두 옥에 가두어버렸다.

지방의 환곡을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창감색(창고지기)들과 아전들에게 맡겨져 있었는데, 곡산읍의 창고들은 관아에서부터 100여 리나 떨어져 있어서 통제가 미약하였던 것이다. 이들 창고지기와 아전들은 수상운수의 요충지대인 곡산부 화촌 일대의 부유층들과 결탁하여 곡식을 빼돌렸던 것이다. 이때 그들이 거래했던 곡물의 총량은 약 2천 석에 달하였다. 이들의 환곡을 둘러싼 농간에는 그 지역 부유층들과 상인들이 구조적으로 결탁되어 있었다. 부유층들은 아전들이 훔쳐낸 곡식을 몰래 보관해주고, 상인들은 봄이 되면 이 곡식을 인근 평안도 지방으로 내다 팔아 이익을 나누었던 것이다.

당시 평안도는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으며 강상들에 의해서 지역간의 곡물거래가 성행하여, 이를 틈타 지방 아전들이 환곡을 훔쳐내어 이익을 도모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1810년 박종신은 아전들이 훔쳐먹은 곡식을 천여 석이나 독촉하여 받아내었다. 뿐만 아니라 환곡에 불순물을 넣어 부풀리는 관행마저 금지시킴으로써 아전들과 부유층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당시 향리들에 의해 자행되는 환곡 포탈의 부담은 결국 가난한 농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황해감사 홍희신은 곡산사건의 보고에서 박종신의 치적을 옹호하였고, 포흠 환곡을 강제로 거둬들여서 빈민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두둔하였다. 즉 환곡 포탈로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은 일반 소농민과 빈민들이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포흠 환곡을 받아내었다는 것은 결국 다시 향리 아전들이 그 부담을 가난한 농민에게로 돌리게 마련이어서 그 후유증은 빈민의 몫이었고 이는 농민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었다.

부사 박종신의 과감한 조치로 모리 행위에 실패한 곡산의 향리들과 장평리의 부유층들은 농민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장평리 부유층들은 곡산의 아전인 한극일 등을 사주하여, 폭동을 일으켜 성공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보수금을 지출할 부유한 자의 명단과 그 액수를 기록한 수전기를 작성해주었다. 이에 고무된 한극일 등은 각 부락에 통지문을 보내 농민들을 곡산읍에 집결시켰다. 농민들은 통지문을 보고 격분하여 각기 몽둥이를 들고 모여들어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교활한 향리들과 부유층들에 의해 은밀히 사주된 1811년의 곡산 농민항쟁에서는 향리들과 농민들의 갈등이 묘하게 잠복되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령의 관권에 대해 저항을 꾀하였다. 조세부담 계층이었던 농민층은 읍리의 부유층이었던 향리들과 창고 담당자들 및 상인세력들과 연대하여 수령권에 대한 저항세력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 때 농민들을 앞장서서 이끈 사람은 한명홍, 장진, 박대성, 심낙화 등이었다.

부사의 가렴주구

곡산 폭동의 동기는 위와 같이 향리들과 결탁한 일부 모리배들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사 박종신은 그것을 적발하여 시정하려고 노력한 공권력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부사 박종신 자신에게도 있었다. 그 역시 전형적인 탐관오리였던 것이다. 그는 환곡을 거두어들인 후에도 현장감사라고 핑계하여 곡물의 품질이 나쁘면 그것을 부유층들에게 나누어주고 다시 품질 좋은 곡식으로 납부케 한 후 기일을 재촉하여 걷어들였다. 기한 내에 바치지 못하면 관속들을 풀어 집집마다 뒤져서 간직한 곡식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간혹 나눠준 미곡이 남아있으면 창고 곡식을 훔쳤다는 구실로 모조리 몰수해 창고에 쌓아놓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마을에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았다.

민란 직후 곡산민들의 참혹상을 목격한 사간원 헌납 유헌장의 보고서나, 곡산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이면승이 순조임금과 가졌던 대화에서는, 폭등의 직접적 동기를 곡산부사의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즉 이 사건이 직접적 원인은 부사가 곡식을 가혹하게 징수하여 모은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박종신이 창고의 재고조사를 하고 현장감사를 행한 것은 사실 읍폐와 민폐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를 핑계로 부유층들의 곡식을 수탈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환곡의 운영을 바로잡는다는 미명하에 향리와 향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방재정 운영권을 탈취하고 이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용하였다. 박종신은 부유층들로부터 곡물뿐 아니라 돈도 탈취하였다. 그는 재화가 많은 부민과 상인들을 주로 침탈하였으나 가난한 양민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형벌까지도 남발하였다.

정부의 진압과 처벌

곡산의 폭동을 보고받은 비변사에서는 2월 29일에 우부승지 이면승을 안핵사로, 좌변포도대장 오의상을 신임 곡산부사로 임명하여 내려보냈다. 안핵사를 파견하면서 왕은 난민들을 엄히 다스려 백성들이 저항심을 진압하라고 지시하였다.

곡산의 농민들은 봉기 이후 줄곧 상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그들이 수령을 축출한 이후 뚜렷이 공세를 취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관망하며 시일을 허비하고 있는 사이에 관군은 전열을 가다듬어 반격을 가함으로써 농민들을 패퇴시킬 수 있었다.

3월 6일 안핵사는 해주목에 도착하여 5진영 군대를 동원하였다. 그리고 약 한달 동안 5진영군의 봉기군에 대한 대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 마침내 윤 3월 9일 안핵사는 난민들의 토벌을 끝내고 최종 조사 보고서를 올린 후 관군을 철수하였다. 농민들이 5진영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인 기간은 안핵사가 부임한 3월 6일부터 3월 중순경까지의 약 일주일간이었다. 대부분의 농민이 체포 구금된 것은 3월 14일 이후이며, 5진영군대는 3월 중순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봉기군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5진영의 군졸들은 패퇴하는 농민들에 대한 잔혹한 살상과 토색질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관군의 공격에 맞서 농민 봉기군은 각지에 통문을 돌려 저항세력을 확충하였다. 이에 다른 지역의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그들도 수령의 가혹한 침탈에 깊은 원한을 품은 자들이었다. 패퇴한 농민들은 4월말까지 도처에서 무리지어 저항하였다. 잔류군의 항전은 필사적이었다.

안핵사 이면승은 사태를 진압한 후에 보고서에서 사건의 주모자로 한극일과 심낙화 등 4

명, 공모자로 최성덕 등 6명과 그들을 추종한 이동백, 김영철, 그리고 지방의 장교 이속 관노들을 열거하였다. 동시에 박종신의 죄도 함께 논죄하였다. 즉 그가 주민들에게 몹시 가혹하게 하고 수탈을 너무 혹독하게 하였으므로 멀리 귀양보내게 하였던 것이다.

곡산민들은 체포된 후 심문과정에서도 관찰사 홍희신과 안핵사 이면승이 수령의 비리를 묵인한 채 자신들만 일방적으로 치죄하는 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다. 토착 향임이나 토호들도 박종신을 경미하게 처벌한 데 불만을 품고 도내에 통문을 발송하여 그를 암살할 세력을 규합하기로 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이속들이 여기에 서명하였다. 이 점에 대해 당시 일부 고위직들도 박종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봉기에 가담한 130여 명을 잡아 강경하게 처벌하여 주모자 37명은 효수, 42명은 정배시켰다. 이렇게 하여 곡산민란은 일단락되었다.

안핵사의 최종 보고를 받은 비변사에서는 난을 일으키고 참여한 농민들은 죄의 경중을 가리지 말고 모두 처형할 것을 주장하였다. 난의 원인은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데 있는 것으로 보고 모든 책임을 봉기민에게 돌리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 한편 곡산부사 박종신을 백성들의 폭동을 야기한 책임자로 지목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후 처리책으로 곡산민들에 대한 위무와 삼정의 개선, 형벌 완화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농민항쟁을 계기로 삼정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개선을 촉구한 응교 이지연과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난민들이 처벌에 대해 강경론을 폈다가 곡산민의 동향을 접한 수에는 태도를 바꾸었다. 직제학 홍석주도 정부가 봉기민을 지나치게 혹독히 처벌하는 데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전헌납 유현장은 우연히 곡산부를 방문한 후 곡산민의 참상을 확인하고 수령의 탐학이 농민항쟁을 야기한 원인임을 입증키 위해 수령의 비리를 10개 조로 나누어 열거하면서 박종신을 사형에 처할 것을 상소하였다. 이는 곡산민이 절실한 요구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농민층을 옹호한 사람들은 항쟁의 원인을 수령의 침탈에서 찾았으며 박종신을 극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당시 예조판서 김이익, 좌의정 김재찬 등도 난의 원인이 박종신의 가렴주구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의 울산으로이 정배가 너무 미약한 처사였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왕은 김재찬, 김이익 등의 박종신 처벌론을 묵살하여다. 결국 곡산민들에게는 가혹한 처형이, 부사 박종신에게는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던 것이다.

정부의 강경진압 결과 곡산부의 형세는 극도로 피폐되었고, 곡산민의 유리 실업 또한 극심하였다. 이에 정부는 곡산민들에 대한 위무책으로 중앙 각사에 상납하는 당해 연도 공물을 이듬해까지 미뤄주었다. 그러나 곡산의 피해는 쉽게 복구되지 못하여 순조 12년에는 안변 고원의 곡식 1500석을 옮겨 진휼하게 하였고, 순조14년에는 환곡 신포 전세에 대한 중지 탕감조치도 취해주었다. 순조 14년 8월에는 황주의 531호와 곡산의 204호에 대한 감세조치가 내려지고 유배인을 전원 석방시켰다. 또한 밀려있던 환곡, 군역, 전세를 모두 탕감해 주었다. 이는 곡산부이 타격이 극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경래의 난

민중운동이 점차 잦아지는 19세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수많은 난들이 간헐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었다. 그중 서북지방 최대의 난이 바로 홍경래의 난이었다. 1811년, 즉 순조가 즉위한 지 11년이 되는 해 12월 18일 저녁, 평안도 가산 다복동에서 진사 김창시가 아래 격문을 낭독함으로써 홍경래의 난은 시작되었다.

"평서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니, 우리 관서지방의 원로들과 공사노비 천민들은 모두 이 격문을 들으시라. 무릇 관서는 기자의 옛터요, 단군시조의 옛 땅으로서 예의가 바르고 문물이 뛰어난 곳이다.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왕위에 있으니, 권세 있는 간신배가 날로 치성하여 김조순, 박종경의 무리가 국권을 멋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려 겨울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살별과 바람과 우박이 없는 해가 없다. 이 때문에 큰 흉년이 거듭되고 굶어 부황든 무리가 길에 널려 있으며, 늙은이와 어린이들이 구렁에 빠져서 산 사람이 거의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행이 세상을 구하는 성인이 청천강 이북 선천 검산 일월봉 아래 군왕포위의 가야동 홍의도에서 탄생하셨다. 그분은 나면서 신통함이 있었고, 다섯 살 때 승려를 따라 중국에 들어가셨다. 장성하여서는 강계와 여연에 5년간 머무르면서 황명의 세신유족을 거느리게 되었으며, 철기 10만으로 부정부패를 숙청할 뜻을 가지셨다. 그러나 관서 땅은 성인께서 나신 고향이므로 차마 밟아 무찌를 수가 없어, 먼저 관서의 호걸들로 기병하여 백성들을 구하도록 하였다. 의로운 기치가 이르는 곳이 어찌 참임금을 기다려 살아난 곳이 아니겠는가! 이제 격문을 띄워 먼저 여러 지역 군수들에게 알리노니 절대로 요동치지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이 격문을 다 읽자 홍경래가 참여자들에게 격문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자기는 선천 월봉산 아래 가야동에서 태어난 정진인의 지휘를 받아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강계의 폐사군 지역에서 봉기하여 철기 수만을 이끌고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에서 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모두들 공을 세우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그것이 끝나자 횃불을 앞세운 봉기군은 선천으로 진격하여다. 이제 그들은 10여 년의 오랜 준비 끝에 들고일어난 것이었다.

서북민들의 사정

흔히 "평안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평안감사'라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관직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을까!

평안도의 중심도시인 평양은 옛날부터 우리 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다. 고조선의 수도도 평양이요, 고구려가 만주벌판을 차지한 후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읍을 옮긴 곳도 이 지방이다. 한반도를 통일한 고려왕조는 개성을 수도로 하면서도 평양은 '서경'이라 하여 개경 다음 가는 중심도시로 삼았다.

고려태조 왕건은 수도를 정하면서 그 당시 새로운 사상체계로서 인기가 있었던 풍수지리설을 믿고 서북민들을 관직에서 배제시켰다. 이러한 불만은 고려시대 중엽의 묘청의 난에 투영되었다. 묘청은 승려였지만, 그와 함께 난을 일으킨 정지상은 서북 출신으로 불만을 품었던 인물이었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전통적인 관념은 변하지 않았다. 더욱이 세조대에 이징옥의 난, 이시애의 나을 거치면서 서북인들은 더욱더 관직에서 소외되었다. 조선후기 과거에서는 생원 진사, 또는 대과의 정원에서도 서북인은 삼남 지방에 비해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면 홍경래의 난은 과연 서북지방에 대한 편파적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일어난 것인가?

홍경래의 난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평안도 지방의 지역적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 평안도에는 일찍이 중앙정부의 차별로 인하여 사대부 즉 토착 양반층의 형성이 어려웠다. 따라서 양반층보다는 향인층이 향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중국과이 무역이나 수공업, 광산경영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세력들이 나타나 새로운 향촌세력, 즉 신향층을 이루게 되었다. 이들 신향층이 향촌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옛 향촌 세력은 뒷전에 밀리는 추세였다. 신향층은 경제적 상승을 전제로 하여 신분상승의 욕구를 이루려 하였으나 수령의 부유층에 대한 수탈행위에 의해 좌절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수령권 대 부유층의 대립이라는 갈등을 낳게 되었다. 이런 형편에서 부유민을 중심으로 한 서북민들이 저

항은 필연적이었다.

동지들을 규합하다

홍경래 난의 전후 사정을 비교적 잘 기록한 (진중일기)(홍경래 난의 진압과정을 기록한 책. 2권 2책. 필사본이다. 1811년 12월 18일부터 이듬해 6월 20일까지의 농민군 토벌과정을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 의병으로 자원하여 나갔던 정주군 남면 하월리의 현인복의 후손 현은우 소장본으로 그 원본은 규장각에 있다)에 의하면, 진압군 쪽에서 파악한 봉기군의 주동층은 다음과 같았다.

"홍경래는 괴수요, 우군칙은 참모였으며, 이희저는 와주요, 김창시는 선봉이었다. 그리고 김사용과 홍총각은 손발의 역할을 하였다. 그 졸개로는 의주에서 개성에 이르는 지역 거의 대부분의 부호와 대상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황해도와 평안도의 파락 난당이 모두 부하가 되어 횡행하고, 떠돌이 굶주린 백성들이 또한 많이 투속하였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봉기군의 지도층으로는 홍경래, 우군칙, 이희저, 김창시 등이 그 중심이 되었고, 호응 세력으로는 의주에서 개성까지의 부호와 대상들이 포함되었고, 말단 군사력으로는 황해 평안도이 떠돌이 파락호와 난당 그리고 떠돌이 기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도층은 평서대원수에 홍경래, 부원수에 김사용, 군사 또는 모사에 우군칙과 김창시, 도총에 이희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제초와 홍총각은 모의 단계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으나, 선봉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도층은 향촌 사회의 유력가들을 수령급의 유진장으로 임명하였고, 장사들은 군사지도자로서 장수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향촌사회의 지식인들은 종사관으로서 주로 북진군의 참모로 활동하게 하였다. 각 관아의 하급 관속들로서 내응한 자들은 감관 집사 등 행정실무자로 활동하였다.

홍경래의 본관은 남양이며 평안도 용강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조상들의 가계는 알 수 없으며, 4형제 중 셋째로 알려져 있다. 1811년(순조 11)에 일으킨 난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의 나이가 42, 3세라고 하였으므로, 그는 1770년(영조 46)생으로 추정되고 있다. 홍경래는 일반적으로 몰락한 양반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민이라는 설도 있다. 하층 양반이었든 상민이었든 전답이 없는 빈곤한 처지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홍경래는 4척 5촌의 단구로서, 얼굴이 희며 윤택하고 턱이 짧고 뾰죽하며 수염은 길었다. 그의 바른쪽 눈 위에는 작은 사마귀가 있었다.

홍경래는 젊었을 때 과거에 뜻을 두어 외숙 유학권에게서 유교 경전을 배웠고, 1798년(정조 22) 28세 때 소과인 사마시에 응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는 이 실패를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때문으로 생각하였고, 여기에 대한 반감과 선동이 이 난이 중요한 동기라고도 알려져 있다. 과거에 실패한 후 그는 집을 나와 풍수 곧 지관이 되어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였다. 홍경래는 과거를 볼 만큼 유교 경서에 대한 교양을 쌓았고, 병서나 풍수지리서 기타 여러 가지 술서 등을 익혔다. 특히 당시에 유행하던 (정감록)에 통달하였다. 그러한 교양을 바탕으로 홍경래는 상당한 경륜을 지닌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다.

홍경래는 상당한 용력과 무술 실력도 갖추고 있었다. 홍경래를 포함함 주동자들은 개인적 무술 실력뿐만 아니라 상당한 군사 지식도 갖추고 있었다. 관군이 각종 장비를 동원하여 공격하는 것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화공과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관군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홍경래는 당시의 전형적인 저항 지식인으로 군사지식과 지도력을 가지고 항쟁을 이끌어나갈 수 있었다.

당시 조선사회는 정치에서는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로 심각하게 부패해있고, 서울의 양반가는 주지육림의 생활을 하였지만 삼정의 문란으로 일반 백성들의 처지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홍경래는 풍수를 업으로 삼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현실을 체험하면서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개혁하려는 포부를 가지게 되었다. 그

는 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당시 서북인들이 벼슬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식자층의 불만과 불평이 팽배해 잇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 그는 진인설을 자기 행동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이 사상을 대외적으로 선전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폐악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로 변혁시킬 존재로서 진인 또는 정진인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고 그를 따르자는 것이다.

그러던 중 그는 가산에서 역시 풍수로 부호의 집에 드나들던 우군칙을 만났다. 홍경래가 우군칙을 처음 만나 친교를 맺은 것은 1800년(정조 24)이었다. 우군칙은 봉기 당시의 나이가 36세로서 태천 출생 양반의 서자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아주 미천한 신분이었던 것 같다. 외모는 5척 단구에 깡마른 몸매이고, 얼굴이 철색이며 빰은 좁고 길며 강팔랐다. 수염은 갓났으나 누르며, 하관이 빠르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시국을 논하면서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 홍경래와 우군칙은 다음 해에 이미 병란을 함께 논의할 정도로 의기투합하였다. 이때부터 그들은 시국에 불평과 불만을 품은 자들을 규합하여 동지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10년 동안 동지들을 규합하면서, 특히 평안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중간 지휘층을 널리 포섭하였다. 봉기군의 중심 인물로 홍경래가 정주목사에 임명하였던 최이륜도 봉기 7, 8년 전에 이미 포섭되었다. 홍경래는 지식층의 포섭을 위해 한때 홍삼장사를 한 일이 있으며, 상인층과 관계가 많았던 우군칙은 중간층 및 상인층의 포섭에 나서서 활약하였다. 우군칙은 우선 가산의 부호로서 자금원이 되어준 이희저를 끌어들였다. 그는 이희저의 부친 묘터를 잡아줌으로써 그를 포섭하게 되었다. 이희저는 봉기하기 수년 전부터 다복동에 큰 기와집을 짓고 우군칙과 어울리면서 준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그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몰래 광산을 채굴하고 잠상을 하기도 하였다. 이때 이희저의 자금이 바탕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또 벼슬이 막혀 현실에 불만을 품은 진사 김창시, 정주서이 거부 이침과 김속하, 안주의 상인 나대곤, 개성 상인 박광유와 홍용서 등도 끌어들였다. 또 힘센 장수의 발굴에 주력하여 홍총각, 가난한 평민 이제초 등을 끌어들였고, 지략과 무용을 겸비한 우군칙의 제자 김사용 등을 포섭하였다.

김사용의 본명은 김종각이고 사용은 자이다. 그는 태천 서면 송우리에서 살았고, 거사 당시의 나이는 38, 9세였다. 그는 태천에서 명망 있는 향임 가문 출신이었으나 매우 가난하였다. 그는 봉기군을 잡아가던 장교를 급습하여 구출하는 등 봉기 초기부터 활약하였다. 김사용은 짧은 기간에 부원수로서 관산, 정주, 선천, 철산, 용천 등의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관할함으로써 봉기군 지도자 중에서 가장 폭넓은 활동을 하였다. 그의 임무는 봉기군이 장악한 각 지역의 책임자나 행정담당자들을 임명하고 군사와 군량을 동원하는 일이었다.

김창시는 곽산의 양반 출신으로 봉기 당시 나이가 36세였다. 그는 일찍부터 과거 공부에 종사하였으며, 봉기 전해인 순조 10년 10월에 소과 식년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다. 봉기군 지휘자 중에서 가장 신분이 높고 학식이 있었다. 봉기군의 격문은 그가 작성한 것이다. 그는 내응자를 모집하고 봉기의 명분을 선전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는 의주 및 곽산의 상인들과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그들을 포섭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또 임신년에 병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었고, 봉기 이후에는 모사로 활약하였다.

이희저는 일명 이태번으로 가산에 살던 부호였다. 그의 친척들 역시 대부분 여러 읍의 실권을 잡고 있던 향리이거나 부유한 상인들이었다. 그는 평안도 여러 지역의 실력자들과 널리 교분을 맺고 있어서 봉기를 조직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본래 역졸의 신분이었으나 재산이 많아 무과에 합격하였고, 돈으로 향임직을 사려고 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는 다복동에 봉기군 기지를 마련하는 데 경제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하였고,

봉기 후에는 도총을 맡았다.

홍총각은 홍이팔이라고도 하고 본명은 홍봉의라고 한다. 당시의 나이는 당시 24세로 곽산 남면의 평민 출신이었다. 그는 생업에 종사하였지만 빈곤한 처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완력이 강한 장사로서 봉기의 핵심인물이었다. 남진군의 선봉장이 되어 혼자 가산을 점령하였고, 정주성 농성에서는 홍경래와 숙식을 같이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전투를 지휘하였다. 봉기군의 지휘관으로 홍경래와 더불어 가장 많이 활약한 인물이었다.

이제초는 개천군 군내면 사람으로서 봉기 당시에 35세였다. 그는 몰락한 양반이거나 향임층 신분으로서 역시 매우 빈한하였지만, 완력 있는 역사로서 북진군의 선봉장을 맡았다.

이처럼 홍경래난의 주동 인물들은 몰락 양반, 토호지주, 향임층, 상인, 관예, 읍속 농민 등 여러 부류의 신분 출신들이 섞여 있었다. 파락 난당은 곧 관예와 읍속을 말하는 것으로, 난의 봉기 과정에서 즉시 내응하여 반란군이 청북지역을 쉽게 장악할 수 있었던 주요한 동력이었다. 또 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부호와 상인들은 상업적 기반을 갖는 토호지주층과 큰 상인층들이었다.

준비 과정

난의 주동자들이 봉기를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1810년(순조 10) 11월 무렵이었다. 홍경래는 이때 우군칙을 만나 정진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봉기를 준비하게 하였고, 이를 들은 우군칙은 이희저와 함께 영변 묘향산 아래의 백령촌에 가서 은신할 것을 찾았다. 이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봉기군의 새로운 기지를 물색하였던 것이다.

이듬해 정월부터는 우군칙과 곽산의 진사 김창시가 나서서 청천강 이북 지역의 유력가와 부유층들에 대한 포섭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군칙은 4월에 이르러 다복동에 30칸의 기와집을 마련하였고, 이희저의 사촌 이명운도 새로 집을 구하여 중수하였다. 이리하여 가산 대정강 가의 요지인 다복동에 봉기의 본부가 되는 군사기지가 설치되었다. 다복동은 대정강 하류에 위치하여 청천강 이북 여러 지역으로 통하는 요충지였고, 평양과 의주로 가느 길목에 위치하면서도 산으로 둘러싸여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 곳이다.

홍경래는 그해 7월 평소 포섭해 두었던 각지의 장사들과 함께 다복동 우군칙의 집에 머물렀다. 홍경래가 모은 인물들은 다복동 외에도 넓은 지역에 끼리끼리 모여서 지내면서 봉기에 대비하였다. 다복동 이외의 비밀기지 중의 하나는 신도였다. 그것은 용천의 바닷가에 있는 섬으로서, 홍총각, 김창시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봉기를 논의하였다. 그들은 또 선천의 검산성에서 회합하기도 하였다.

순조 11년 9월에는 이미 거사 준비가 구체화되었던 것 같다. 이때 주동자 김창시가 곽산의 김대훈에게 와서 봉기의 준비상황을 선전하고 12월에 기병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기 때문이다. 10년 전부터 집을 떠나 유랑하던 홍경래는 9월에 고향에 돌아와 어머니와 형제 조카 등 친척 14명을 이끌고 박천 진두로 들어갔다. 10월에는 주요 참여자들이 모두 다복동에 모여 준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부원수 김사용이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었다.

11월 이후에는 진두 대정강이 추도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강수홍 부자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주전작업을 벌여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희전느 호피, 연철 등의 군수품을 사들였고, 선천의 유문제 최봉관이나 정주의 정진교, 철산의 정복일도 무기와 군수품 등을 다복동에 수송하였다. 한편 김창시는 다음해인 임신년에 기병이 있을 것이라는 요언을 퍼뜨려 민심을 교란시키기도 하였다. 용력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자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11월 중에 봉기의 주동자들은 거사의 맹약을 하고 서명식을 하였다. 그 숫자는 정부측이

압수한 (도록)이라는 문서에는 79명으로 나타나 있다. 그중에서 참여한 혐의가 없거나 정도가 미미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인물은 12명이었다. (진중일기)에는 5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봉기과정에서 중요한 활동을 했던 사람은 60여 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봉기는 처음부터 대단히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다. 11월에 들어서자 시장에 출입하는 일반인들 사이에도 병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서북지방 최대의 민중항쟁 – 홍경래의 난과 여러 민란들(3)

2013.06.19 16:49

봉기가 시작되다

순조 11년 12월에 이르러 주동자들은 군사를 더욱 활발히 모집하였다. 그리고 우군칙은 서울 물주의 자금을 받아 운산 촉대봉에 금광을 연다는 소문을 내어 광부들을 모집하였다. 이때 우군칙은 이희저와 박광유 등의 상인들에게서 나온 자금을 바탕으로 1냥 내지 3냥의 선금을 주어 사람들을 다복동으로 불러들였다. 봉기군의 일선 졸병들은 이들 광산 노동자층으로 구성되었다. 봉기군의 깃발을 그리기 위한 병풍수리공, 무기를 만들기 위한 대장장이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도 포섭되었다. 걸인을 비롯, 소상인 마부 등 다양한 업종과 향임층도 참가하였다. 가산 박천 지방의 땅 없는 농민이나 품삯 노동자들은 "가난하거나 굶주린 자들은 오라"는 말에 솔깃하여 끊임없이 모여들었다.

봉기 날짜는 당초 12월 20일로 잡았다. 그들은 출병에 앞서 12월 15일에 사람을 평양에 보내 대동관을 폭파하고 그곳에서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폭파장치가 물에 젖어 발화시간이 늦어지고 담당자도 도망하여, 그 계획은 단순 화재에 그치고 말았다.

17일에는 여러 지역의 반군들이 다복동으로 모여들어 크게 소란하게 되었다. 미리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이때 구성, 태천, 그리고 멀리 황해도 지역에서부터 다복동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소란한 사태는 곧 수령에게 포착되었다. 선천부사 김익순은 18일 아침 민간인 수십 가구가 일시에 도주하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이들을 잡아들여 문초하였다. 그 결과 곽산의 김창시, 박성신 등이 결당하여 난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희저, 김창순 등의 이름도 거명되었다. 곧 이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다. 일이 이렇게 다급하게 되자 홍경래 등은 거사일을 이틀 앞당겨 12월 18일에 봉기하게 되었다.

봉기군은 가산, 박천, 안주 방향의 남쪽 방향과 정주, 곽산, 선천, 철산을 거쳐 의주로 가는 북쪽 방향의 두 갈래로 나누어 공략하기로 하였다. 남진군의 지휘는 홍경래와 그 밑의 선봉장 홍총각, 모사 우군칙, 후군장 윤후검이 주도하였다. 정주에서 의주로 향하는 북진군의 지휘부는 부원수 김사용, 선봉장 이제초, 모사 김창시, 영장 김희련, 김국범, 이성항, 한처갑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도총 이희저는 남북진군의 군량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홍경래가 이끈 남진군은 12월 19일 새벽 3시경에 가산 삼교에 이르렀다. 고을 아전 이맹억과 김응석 등이 내응하여 봉기군은 마을로 들어갔다. 때마침 민가에 일어난 화재와 이 불을 끄라는 나팔소리로 어수선하였다.

가산군수 정시는 난리가 일어난다고 민심이 흉흉하고 군내가 떠들썩하며 백성들이 피난가려 하자, 홀로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타이르며 피난을 중지시키고 있었다. 남진군 선봉장 홍총각은 봉기군 50여 명을 이끌고 관아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정시에게 수령의 인신과 군지휘 표신인 부절 및 보화를 내놓고 항복문서를 쓰라고 요구하였다. 정시는 목숨이 다하기 전에는 항복할 수 없다고 버티고 그들의 대역부도함을 꾸짖다가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었다. 그의 아버지도 이 때 함께 죽었다. 정시 부자는 난이 진압된 후 그들의 의연한 태도와 충성으로 포상되었다.

남진군은 이렇게 쉽게 입성하여 윤원섭을 선천 주관장에 임명하여 지키게 하였다. 봉기군은 관아이 무기를 확보하고 창고의 곡식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민심을 얻고 군사를 더 모으기 위해서였다. 그와 동시에 봉기군은 각 지역의 수령들에게 격문을 보내 항복하고 봉기군에 가담하라고 위협하였다. 이때 남진군의 군사력은 중간지휘자였던 기마병이 30-40명, 보병 군졸은 100-150명이었다. 봉기군의 숫자는 곧 늘어나서 300여 명이 되었다. 그들은 19일 저녁 박천, 진두로 진격하여 다음날 새벽에는 박천읍에 도달하였다. 박천은 조그만 저항도 없이 함락되었다. 군수 임성고는 처자와 노모를 버려둔 채 서운사로 도망하여 은신하다가, 노모의 구금 소식을 듣고는 봉기군에게 항복하였다.

박천을 점령한 봉기군은 영변을 공격하고 이어 안주를 함락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박천을 점령한 후 직접 안주를 공격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즉 안주병영의 집사였던 김대린과 이인배 등이 안주를 먼저 치자는 건의를 한 것이다. 도원수 홍경래가 이를 승낙하려 하였으나, 모사 우군칙이 원래의 계획대로 영변을 친 후에 안주를 칠 것을 고집하였다. 안주, 영변의 진공을 앞두고 내분이 일어난 것이다. 김대린 등은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홍경래를 죽여 공을 세우려고 하였다. 그래서 김대린이 갑자기 칼을 뽑아 휘둘러 쳤다. 홍경래는 민첩하게 피하여 목숨은 건졌으나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무경 등 안주 병영에서 가담한 다른 인물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지도부는 홍경래의 회복을 기다리기 위해 21일에 가산 다복동으로 돌아갔고, 병졸들은 대정강가에 모여 있게 되었다. 홍경래가 부상을 당해 시일을 끌게 되자 진격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후 봉기군의 작전에 커다란 착오를 가져오게 하였다.

한편 북진군을 이끈 김사용은 선천부사 김익순의 체포령으로 붙잡힌 박성신을 구출하고 곽산으로 향하였다. 곽산군수 이영식은 벽장 속에 숨어 있다가 잡혀 옥에 갇혔고, 그의 아우는 칼에 맞아 죽었다. 이영식은 한 장교의 도움으로 8세 된 아들을 업고 야반도주하다가 추격을 받게 되자 중간에 아들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김사용은 이영식이 버리고 간 인신과 병부를 압수하고, 박성신을 곽산의 주관장으로 삼았다. 이어 김사용의 봉기군은 능한산성을 공격하고 정주성으로 향하였다.

정주성에서는 12월 16일에 벌써 난리가 난다고 흉흉하였다. 18일에는 좌수 김이천, 수성중군 이성천, 독진장군 홍하진 등과 기타 아전들이 모여 내응을 준비하였다. 봉기군은 정주성에서도 무혈입성하였고, 목사 이근주는 도망하여 향교로 피신하였으나, 곧 잡혀서 인신과 병부를 빼앗겼다. 김사용은 최이륜을 정주 주관장으로 임명하고 각지에서 모여든 군병 500명 가량을 봉기군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당시 지방사회의 지식층이며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좌수, 풍헌, 별감 등의 향임과, 별장, 천총, 파총, 별무사 등의 군사 계층을 흡수하여 봉기군의 지도부를 편성하였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중, 소 부농층 또는 경영형 부농층들이었다.

24일 아침에 김사용의 봉기군은 정주를 떠나 곽산을 거쳐 그날 저녁 선천에 입성하였다. 검산산성으로 피신하였던 선천부사 김익순은 25일 봉기군에 투항하였다. 이후 그는 봉기군의 참모가 되었다가 틈을 보아 도망쳐 나갔다. 김익순은 당시이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 출신이었으나, 난이 평정된 후 비겁한 죄로 처형되었고 가족들도 모두 연좌되었다. 그는 흔히 장렬하게 죽은 정시와 대비되었다. 그의 손자 김병연은 연좌를 피해 도망하였다가 후에 조부의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자, 세상에 뜻을 버리고 방랑하면서 시국을 풍자하는 시를 많이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후세에 사람들이 그를 그를 김삿갓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봉기군은 남진군, 북진군으로 나뉘어 군사를 일으킨 지 열흘만에 관군의 별다른 저항없이 가산, 곽산, 정주, 선천, 철산 등 청천강 이북 10여 개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것은 각지에서 내응세력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때문에 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때 각처에서 내

응한 자들은 주로 좌수, 별감, 풍헌 등의 향임과 별장, 천총, 파총, 별무사 등 군직을 가지고 있었던 부호들이었다. 이들은 부농이나 상인들로서 대부분 돈을 내고 향임 계층으로 올라간 자들이 많았다. 봉기군은 곧 관아의 곡식을 방출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한편, 민폐를 끼치지 않고 엄한 군율에 따라 행동하였으므로 민심을 얻었다.

정부군의 반격과 송림전투의 패배

한편 중앙정부는 12월 20일에 평안병사 이해우의 밀계를 받고 18일의 가산봉기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평안감사 이만수는 22일에야 순안현 장십부군 2초(1초는 1개 중대 규모로서 약 120명 내외)를 발동하여 안주를 구원하게 하였다. 이때는 이미 가산, 박천, 곽산, 정주, 희천 등 여러 고을이 차례로 함락된 뒤였다.

사태의 진전에 경악한 중앙정부는 신홍주를 정주목사로, 정주성을 가산군수로 각각 임명하고, 이들에게 편의대로 접전하고 모병할 것을 명령하였다. 23일에는 운산군수 한상묵을 파직하고 백경해로 교체하고, 곽산군수 이영식을 정경행으로 바꾸어 임명하였다. 이때 정경행은 벌써 봉기군에 가담하고 있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또 정주목사 신홍주는 하루만에 다시 영변부사로 임명하는 등 혼돈이 계속되고 있었다. 12월 27일까지 열흘도 채 안되는 사이에 이미 가산, 박천, 곽산, 정주, 희천, 선천, 철산 등 7개 지역이 함락되었다.

12월 24일, 정부는 금위영 안에 양서순무영을 설치하고, 이요헌을 양서순무사로 임명하여 반란의 진압의 전권을 부여하였다. 순무사 이요헌은 27일에 출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안주에서 봉기군이 주춤한 것을 알고는 순무사의 출동은 뒤로 미루고 우선 훈련도감과 금위영 개성부 등의 보군과 마군 일부를 차출하여 서북 지방에 출정토록 하였다. 그 동안 서울에서는 강도들이 부잣집을 습격하는 등 민심이 매우 흉흉하여 왕은 백성들이 동요되지 말도록 전국에 유시를 내렸다.

12월 28일 평안감사는 평양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방어진을 구축하였다. 관군은 비로소 전열을 가다듬고 봉기군과 본격적인 전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2월 29일 아침, 관군과 봉기군이 박천의 송림에서 대접전을 벌이게 되었다.

송림에는 홍총각의 부대 300여 명이 이미 24일부터 진을 치고 있었고, 26일에는 홍경래, 김창시, 우군칙 등이 500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합류하였다. 봉기군은 각지의 농민들이 합세하여 천여 명 이상이 모여들었다. 한편 관군은 평안도 일대의 군졸을 모아 2000여 명의 병력을 이루었으나, 그중 전투력을 갖춘 것은 약 9초의 병력이었다.

봉기군은 세 갈래로 진을 이루어 관군을 맞아 싸웠다. 그중 홍총각이 이끄는 선봉대는 병영 우후 이해승이 이끄는 진압군의 본대를 공격하였다. 평안병사 이해우는 백상루에 올라서서 양군의 전투를 조감하면서 작전을 지휘하였다. 봉기군은 중앙돌파에만 주력한 나머지 전체 군사의 2/3가 관군의 중앙을 대적하고 나머지가 우익군을 공략하는 결과가 되어 관군의 좌익에 대하여는 방치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병사 이해우는 관군의 중앙군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곽산 전군수 이영식으로 하여금 군졸 천여 명을 이끌고 출격한 봉기군의 후방을 치게 하였다. 이에 봉기군의 일부는 꼬리를 거두고 후퇴하게 되었다. 한편 선봉장 홍총각의 용맹으로 관군의 선봉이 의기를 잃고 후퇴하려 하자, 관군의 좌영장 오치수가 기세를 돋우며 봉기군을 진격하며 압박하였다. 이에 봉기군의 기병 3, 4명이 총을 맞고 말에서 떨어지자 봉기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전열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 전투에서 봉기군은 크게 패하여 머리를 베인 자가 수백명이고 생포된 자는 30여 명이나 되었다.

봉기군이 이 전투에서 패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관군과 봉기군은 비슷한 병력을 가지고 평야에서 전투를 벌인 점이다. 겨울이어서 은폐할 것이 없는 평야에서의 전투는 활과 총으로 무장한 숙련된 관군에게 크게 유리하였던 것이다. 둘째, 봉기군은 중앙돌파에만 주력한 나머지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하였다. 셋째, 봉기군의 지휘부는 평야에 있었고, 관군의 지휘부는 언덕 위에 있었다. 이 때문에 관군은 전체적인 전황을 파악하면서 지휘하는 반면, 봉기군의 작전지휘는 매우 국지적이었다. 이렇게 봉기군은 전술 전략면에서 관군에 비하여 훨씬 미숙하였던 것이다. 송림전투는 봉기군에게 재기불능의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

관군은 송림을 휩쓸어 봉기군의 근거지를 불태우고 진두에까지 봉기군을 추격하였다. 관군의 한 부대는 가산 다복동에까지 쳐들어가서 그곳 근거지도 불태웠고 이어 박천을 수복하였다. 관군이 밀고들어가는 곳마다 불지르지 않은 곳이 없었고, 남녀노소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도륙하였다. 이른바 초토전술로 봉기군의 근거를 없애는 전술이었다. 이때 관군의 초토전술은 정부 안에서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정도로 극심하였다.

이 같은 관군의 초토전술 때문에 홍경래의 남진군이 정주성으로 후퇴할 때 가산과 박천의 남녀노소 백성들이 많이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홍경래를 비롯한 봉기군 지휘부는 패주하면서 경황이 없는 중에도 봉기에 가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정주에 끌고들어갔다. 관군의 학살에서 그들을 구하고 항거의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600-700명 규모의 북진군은 구성 공략을 준비하던 중에 송림 본대의 패전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12월 30일에서 다음해 정월 초하루 사이에 군사들은 대부분 흩어졌고, 그 주동층과 남은 병력은 정주성으로 들어가 합세하였다. 태천을 점령하고 있던 봉기군은 영변 관군의 습격을 받아 해산되었고, 곽산에서도 1월 8일 진압군의 공격으로 패하였다. 곽산을 지키던 유진장 박성신은 패주하여 선천으로 가서 정부군의 북진을 알렸다. 1월 9일에는 정주성에서 김창시가 진압군과 싸울 것을 건의하여, 그곳에 있던 이제초가 기병과 보병 천여 명을 이끌고 곽산으로 내려와 시송야에서 싸웠으나 역시 패하고 말았다. 관군은 1월 15일에 쉽게 선천을 점령하였다.

부원수 김사용이 이끄는 북진군은 남진군의 패전 소식에 접하자 정주 이북을 완전히 석권하기 위해 1월 초하루 이후 작전을 개시하였다. 북진군은 힘들이지 않고 용천에 입성하고 이어 의주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의주 진공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관군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북진군 지휘부는 해체되고 말았다.

김사용은 용천 지방에서 진사급 중간 실력자들을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이들을 회유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 이임, 면임, 풍헌 들로 하여금 농민들 중에서 군대를 뽑아올리게 하였다. 이 때문에 하층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봉기군에게 가담하지 못하고 중간 향반층을 통하여 소집되었다. 이렇게 하층 농민층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장악하는 것은 중간 향반층이었으므로 이들을 통하여 병력을 소집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는 봉기군이 전열을 정비하는 데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정주성에서 농성하다

12월 29일 박천의 송림에서 관군에게 패하여 정주성으로 들어온 봉기군은 홍경래 이하의 지휘부를 정비하여 농성에 들어갔다. 정주성은 매우 견고하였고 군량이 풍부하게 비축되어 있었다. 홍경래는 김사용, 홍총각 등과 함께 서장대에 머물면서 대원수로서 총지휘를 하였고, 성내의 일반 사무는 동헌에 기거하는 유진장 김이대가 맡아보았다. 농성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성문의 수비는 김석하, 신덕관, 오용진, 이하유, 윤효검 등 장사들이 맡았다. 그

들은 진압군이 성에서 100보 밖에 있을 때는 활로 쏘고, 100보 안에 들어오면 총을 쏘며, 성 밑에 도달하면 돌을 던지는 전투법을 택하였다. 그들은 평상시에 성 밖에 복병을 배치하는 등, 관군의 공격에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비하였다.

진압군의 선발대는 1월 2일 정주에 도착하여 농성자들의 항보과 양반들의 의병을 권고하였다. 5일에는 곽산군수 이여식, 우후 이해승, 함종부사 윤욱렬, 소모장 제경욱, 순천부사 이유수, 순천군수 오치수 등이 이끄는 병력으로 정주성을 일차 공격하였다. 그러나 진압군은 봉기군의 반격을 받아 다수의 사상자를 내며 퇴각하였다.

한편 박기풍이 이끄는 순무영 군사는 12월 27일 서울을 출발하여 1월 10일 안주를 거쳐 정주성에 도착하였다. 여기에 송림전에서 승리한 안주 관군도 합세하였다. 그리하여 11일에 정주성을 포위한 진압군의 숫자는 서울과 개성에서 동원된 천여 명과 안주 평양 및 인근지역에서 동원된 군사들을 합하여 8천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진압군은 1월 16일 대포와 구름다리를 동원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봉기군은 응전하지 않고 있다가 관군이 성에 접근하자 맹렬히 반격하였다. 봉기군의 전술에 말려든 관군은 소모장 제경욱과 순무영 군관 김대택을 포함하여 21명의 사망자와 50여 명의 부상자를 내는 등 큰 타격을 입고 퇴각하였다. 이후에도 관군은 수차례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봉기군에 패배하여 물러났다.

봉기군의 농성전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정비되었다. 진압군의 야습에 대비하여 횃불을 밝히고 총을 쏘기도 하였고, 군악을 연주하여 기세를 돋우는 한편, 진압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장기농성에 대비하여 부유층들이 가지고 있던 곡식과 반찬을 징발하고 충분한 우물을 확보하였다. 그리하여 얼마 동안은 진입군이 봉기군이 사기에 압도되어 있었다.

정주성 내의 봉기군은 관군의 진격에 대비하여 성 밖 인가의 곡식을 실어들이고, 동남문 밖 수천호의 민가에 불을 질러 관군이 접근을 막았다. 이에 대해 진압군은 민간의 재물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방화와 살인을 계속하였다. 각 진의 관병들은 마을을 횡행하면서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군막 안에 쌓아두기도 하였고, 약탈시에 멋대로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진압군들 중에는 무고한 자의 목을 잘라 전과를 과장하는 일까지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단속하는 금령을 거듭 내려야만 했고, 심한 경우에는 난동자를 효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농성과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봉기군 지휘부는 '오랑캐 병력'이 구하러 올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민심을 이끌어갔다. 실제로 그들은 1월 말에 창성, 벽동 등지로 가서 원군을 이끌어올 사람들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2월 3일 진압군은 병력을 총동원하고, 특별히 만든 사다리차 5대를 앞세워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사다리차는 성을 내려다볼 정도로 높았다. 밖에는 두꺼운 널빤지를 대고 소가죽을 씌워서 그 위에 총수가 엎드려 있고 안에는 군졸들을 숨겼다. 이는 성에 육박하여 군졸들이 성을 넘게 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봉기군은 성루에 은신하여 총을 쏘는 데 비해 관군은 은신처가 없이 노출되어 싸우는 형편이었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하여 싸웠으나 관군은 봉기군을 당할 수 없었다.

이후에는 주로 봉기군이 선제공격을 하였다. 농성이 계속될수록 진압군도 초조해지게 되었다. 봉기군의 입장에서는 식량이 줄어들고 보급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포위를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 때문에 그들은 성 밖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활로 타개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압군은 2월 25일 또 한번 전군을 동원하여 공격을 가하였으나 별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3월에 들어오자 봉기군은 더욱 적극적이 되었다. 3월 8일에는 홍경래가 직접 천여 명을

이끌고 함종부사 윤욱렬과 의병장 허항의 부대를 불로 공격하여 사망 70명, 부상 137명의 피해를 입히고, 봉기군도 46명이 죽는 대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활로를 뚫을 수는 없었다. 3월 20일에는 봉기군 1천여 명이 북문으로부터 공격하여 나왔다. 이때 관군은 군량을 나르기 위해 포구에 많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오가 허약하였다. 봉기군은 이 같은 형편을 성 위에서 탐지하고서 목책을 부수고 돌격해들어갔다. 그리하여 의병장 허항과 관군 22명을 전사시키는 등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봉기군도 관군의 반격을 받아 48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피해를 입었다. 홍총각과 엄계량은 22일 다시 공격하여 17명의 관군을 죽였으나, 봉기군도 69명이 전사하고 87명이 포로가 되었다가 처형당하였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정주성 내의 사정은 점점 어려워갔다. 곡식이 떨어져 군병들에게 당초 하루 2되씩 주던 배급을 1되 5홉, 1되, 나중에는 6홉까지로 줄였다. 소나 돼지는 물론 나중에는 말도 10여 필을 남기고는 거의 다 잡아먹었고, 횃불을 올리기 위해 성채의 집도 부수지 않을 수 없었다. 3월 말에는 인구를 줄일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노약자와 부녀자 227명을 성 밖으로 내보냈다. 그런 가운데 이제초의 동생인 이제신을 중심으로 홍경래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유지되었다.

4월에 들어서도 관군의 공격은 봉기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관군은 봉기군의 양식이 고갈된 약점을 이용하여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봉기군은 관군의 공세에 대비하여 밤에는 한층더 많은 횃불을 성 주위에 밝히고 총소리와 함성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4월 3일부터 관군은 서의 동북 모퉁이에 모래를 쌓아 성 높이에 육박하고 사방에서 성을 공격하는 한편, 북장대 쪽으로는 땅 밑을 파기 시작하였다. 양동작전을 써서 성을 폭파하려는 것이었다. 굴착은 18일에 완료되었고, 인근 광산의 화약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화약 1800근을 장전하였다. 드디어 4월 19일 새벽, 화약에 불을 댕기자 1시간 뒤에 굉음을 내면서 폭발하였다. 성은 파괴되고, 진압군은 성 안으로 돌입하였다. 홍경래는 총에 맞아 전사하고, 홍총각, 김이대, 윤언섭, 양시위 등은 사로잡혔다. 우군칙, 이희저, 최이륜 등은 난군에 섞여 달아났으나 구성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모두 서울로 압송되어 처형되었다. 농성에 참여했다가 정주성에서 체포된 사람은 모두 2983명이었다. 이중 10세 이하의 소년 224명과 여자 842명을 제외한 1917명은 23일에 모두 참수에 처해졌다.

홍경래를 중심으로 한 서북지방의 민란은 이렇게 정주성에 고립된 채 병력의 수나 군비에 있어 몇 배 우세한 중앙군 지방군 민간의병의 진압군과 맞서 거의 4개월간 공방전을 펼쳤다. 관군의 초토전술에 피해를 입은 이 지역의 대다수 농민들이 정주성에 들어가 저항에 가담하였으며, 관군의 약탈에 피해를 입은 성 밖 농민들의 협조도 컸다. 정주성의 농성군은 주로 박천과 가산 일대의 농민들이었다.

이 난은 비록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조선사회에 큰 타격을 가하여 봉건사회체제이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홍경래는 죽은 뒤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민간이 의식 속에 남아 있었고, 이 난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광범한 소농, 빈민층은 이후 그후 임술민란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주도층으로 성장하였다

항쟁의 역사적 의의

홍경래 난은 근대 초에 일어난 민중항쟁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전반기이 소요들은 대부분 이를 모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난에서는 홍경래를 비롯한 '저항지식인'들과 장사층이 봉기를 조직하고 이끌었다. 이들

은 경제 형편과 사회적 처지에 있어서 농민과 별로 다를 바 없었으므로, 그들은 의식과 행동 면에서 농민들과 강한 친화력을 가졌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간 실력자들이 농민들 중에서 군대를 뽑아올리게 하였으므로,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봉기군에 가담하지 못하고 중간 향반층을 통해 참여하였다. 봉기군의 전세가 급격하게 약화된 것도 이런 주력부대가 가진 취약성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겠다. 빈민층의 자발적인 참여는 이후 민란의 단계로 발전되었다.

이 난은 정치적으로 보면 신흥 상공업세력과 기존 정치권력에서 배제된 몰락양반의 연합에 의해 추진된 반봉건 투쟁이었다. 이들은 군대를 조직하여 '이씨왕조'를 타도하려 하였으나, 그들 지도부 자체는 아직도 상당 부분 봉건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결국 홍경래 난이 지향한 것은 반봉건 투쟁이라는 측면보다는 지방행정권이나 세도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반정부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난의 모의나 진행 중에 토지개혁이나, 신분제 폐지, 삼정의 개혁 등 가난한 하층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무것도 구상되지 않았다. 격문에서는 단지 서북인에 대한 차별대우, 세도정권의 가렴주구, 정진인의 출현 등만을 언급하였고, 정작 소농과 빈민층의 절박한 문제는 대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난을 패배로 이끈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홍경래 난에는 신흥 상공업층의 참여라는 자본주의적 맹아기적 현상도 내포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이 누적되고 있었던 당시에 조선왕조 타도라는 기치를 내걸고 4개월 동안 항쟁을 지속한 일은 그후 반봉건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또 하층농민으로 하여금 전제왕권과 지배체제를 부정하는 정치적 각서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홍경래 난이 끝난 후 민간에는 정감록이나 해도진인, 미륵신앙과 함께 홍경래 불사설이 끊임없이 떠돌았다.

항쟁의 여파

1811년의 봉기는 서북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홍경래군이 가산, 박천 등지를 석권하고 있을 때, 그 영향을 받아 해주, 황주, 서울 등에서도 소규모의 소요가 일어나고 있었다.

먼저 12월 28일 해주의 귀락방에서 수백명이 무리를 이루어 창과 칼, 몽둥이를 들고 횡행하면서 난동을 일으켰다. 이에 감영의 군대가 나갔으나, 그들은 대항하면서 흩어지지 않았다. 그중 노인담, 김여철, 홍잉죽, 곽성즙 등 4인은 주동자를 자칭하면서 난민들을 지휘하였다. 이들은 관군과 싸우다가 노인담과 곽성즙 등 10여 명이 잡히고 나머지는 흩어져 달아났다. 붙잡힌 사람들은 당일로 현장에서 효수되었다. 이에 대한 황해병사의 장계에는 '관서의 적'과 서로 연결될 염려가 업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보면 그들이 홍경래군의 봉기 소식을 듣고 여기에 호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주 효진포에서는 1812년 1월 홍경래가 정주성을 지키고 있을 때, 뱃사람들이 마장리, 요암리 등 12포구에서 3백여호를 불질러 태우고 4명을 죽이는 등 난동이 일어났다. 그들의 괴수였던 뱃사람 김덕춘, 김사옥 등 3명은 체포되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효수되었다. 이 또한 홍경래군의 봉기에 호응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루에서도 민간에 흉흉한 말들이 유포되고 있었다. 홍경래 일당은 성루에 첩자까지 두어 조정의 정세를 탐지하고 성루의 동정을 일일이 입수하는 한편, 이들을 동원하여 민심을 선동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염탐꾼은 각 도의 감영과 고을에도 있었다. 각지의 요소마다 그들 동조자들을 배치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활동하였던 것이다.

서울에서는 김사용의 지시를 받은 유한순이 조정의 정세와 관군 소식을 탐문하고, 남문 기둥과 옛 장용영 대문에 괘서를 붙여 민심을 선동하다가 2월에 잡혀 처형되었다. 유한순은

본래 영유 사람이었는데, 서울과 지방을 출입하면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였다. 그는 한때 향리를 가칭하다가 백령도에 충군된 적도 있었다. 여기서 풀려난 이후 그는 김사용을 만나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는 김사용의 자금을 받고 서울에 잠입하여 아내를 얻고 정탐활동을 하였다. 그는 관군의 소식을 탐문하여 선천의 홍경래군에게 전해주었고, 다시 김사용의 지시를 받아 서울에 들어와서 궁성 부근에서 기밀을 정탐하다가 포교에게 잡혔던 것이다. 양반인 한기조는 서울에 살면서도 봉기 지도자들에게 글을 보내 거사에 가담했다가, 봉기군이 용천에서 패퇴한 후 그 문서가 알려짐으로써 처형당하였다.

또한 현직 관원이었던 박종일, 이진채 등도 봉기군에 은밀히 가담하여, 도성에서 난을 일으키려 했다는 죄로 처형당하였다. 박종일은 1812년 봄 홍경래 난으로 정국이 어수선해지자 사옹원 봉사로 있으면서 당시 백성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고 있는 참설을 이용하여 이진채와 더불어 사당을 만들었다. 그들은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던 은언군의 아들을 추대하기 위하여 강화도로 건너가 군량조달을 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조정이 홍경래에 쫓겨 남쪽의 공주나 안동으로 피난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때 성내의 포수 3백여 명의 호응을 얻어 봉기하면 내응이 있을 것이고, 또 분원의 군사가 돕고 전라관찰사가 협조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동조자들을 모았다. 그들은 "국가의 운수는 4백 년"이라고 하면서, 도참서의 말을 빌어 변혁이 올 것이라고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중인, 서민의 무리가 양반을 도륙하고, 액정서의 환관들과 결탁하여 내용을 받는다"고도 하였다. 그들은 3월에는 새로 수립된 정부군이 도성을 공격하여 서울의 지배층을 모두 살해한다는 등으로 민심을 선동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또 "2월에 화공, 3월에 기병"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군량미의 확보를 위해 미전인들과 자산가들을 선동했다. 이들 주모자인 홍주 출신의 이진채, 서울 출신의 고령인 박종일, 양주의 서얼 출신 한광우는 중인과 서얼로 주축을 이루고 포수와 환관들을 모아 거사하려 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자 "계략을 써서 재물을 빼앗을 모의"라고 했지만, 그 퍼뜨린 말들은 인심을 선동하기 위한 유언비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평안도'와 '황해도'의 소동을 틈타 평민층이 양반을 죽이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다소 비현실적인 거사계획은 농민층의 봉기와 성격이 상통되는 점이 많다. 다만 서울의 평민층을 중심으로 하여 난동을 꾀한 점이 이채롭다고 할 것이다. 서울의 민중들을 동원하려는 이러한 구상은 일찍이 그 전례가 없었던 것이다.

19세기 전반의 변란 가운데 대부분은 준비단계에서 고발당하거나 가담자의 배반에 의해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그것은 아직도 주도층이 광범한 농민들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봉기를 일으키는 데 성공하여 집권층과 직접 무력대결을 벌인 것은 '홍경래의 난'이 유일한 사례이다. 홍경래가 남긴 상징적 영향은 매우 커서 난이 진압된 1812년 이후에 일어난 변란들 속에는 이른바 '홍경래 불사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홍경래가 죽지 않고 섬에서 살고 있다는 것으로서, 당시 변란을 도모하는 세력들에게 홍경래는 고무적이고 모범적인 본보기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정치적 변란인가, 민중의 반란인가? – 영조 무신란

2013.06.19 16:41

노론과 소론의 갈등

1728년(영조 4)에 일어난 전국적 규모의 반란이었던 무신란은 흔히 '이인좌의 난'으로도 불린다. 이 반란은 당시 당쟁의 와중에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일부 소론 과격파 사대부들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정치적으로 몰락한 소수의 남인과 소북 계통의 당인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일종의 정권 쟁탈전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몰락한 하급 양반들이나 지방 토호, 좌수나 별감과 같은 향임층, 중인, 군교, 일반 상민들 및 노비, 도적(명화적)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가담하였다. 그러므로 이 반란은 민중봉기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이 난의 직접적 계기는 영조의 즉위 이후에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위협받게 된 소론 과격파들이 영조와 노론 정권의 타도를 꾀한 것이었다. 당초의 주모자들은 박필현, 이유익, 심유현 등 소론 과격파들이었다. 그들은 갑술환국 이후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실세해 있던 일부 남인들과 극소수 소북계 인물들을 끌어들여 반란을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역성혁명까지는 꾀하지 못하고 왕족을 추대하여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반정의 형태를 기도하였다. 이때 그들이 왕으로 옹립하려던 인물은 소현세자의 증손자였던 밀풍군 탄이었다. 그러나 밀풍군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측근들을 통하여 추대 의사를 전해 듣기는 하였지만, 반대나 찬성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다.

먼저 이 난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자.

1721년 경종이 즉위하자, 그 다음해에 노론은 왕위를 계승할 세제의 책봉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연잉군(훗날의 영조)을 경종의 후계자로 정하고, 또 몇 달 후에는 그에게 왕권을 대행시키는 대리청정을 하도록 정국을 몰아갔다. 그러나 대리청정은 소론의 극렬한 반대로 취소되고 말았다. 소론은 노론의 횡포를 공격하여 그해 12월에는 그들을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듬해(1772) 3월에는 이전에 연잉군의 집사 일을 보았던 목호룡이란 인물이 노론 명문가 자제들의 역모를 고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살륙을 동반한 대대적인 옥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를 '신임옥사'라고 한다. 이때 경종이 지위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지목을 받은 노론 4대신(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을 포함하여 60여 명의 노론계 인사들이 처형되거나 숙청되었다. 이로써 노론은 소론에 대하여 극도의 원한을 품게 되었다.

신임옥사는 노론이 너무 성급하게 영조의 계승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범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 또 일부 노론 명문가의 자제들이 작당하여 궁중과 내통, 모험적인 공작을 기도한 부도덕한 행태도 한몫 하였다. 여기에 김일경을 비롯한 소론 강경파의 집권 욕심으로 사태는 더욱 참혹하게 되었다. 이 일로 노론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1724년 경종이 갑자기 서거하고, 영조가 즉위하였다. 그러자 그의 후원 세력이었던 노론이 득세하여 신임옥사는 하루아침에 소론들이 꾸며낸 조작극이라고 번복되었다. 즉 노론 자제들의 모의는 역모가 아니라 충정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주장이었다. 이 때문에 소론들은 정권에서 실각하게 되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신임옥사를 준엄하게 처리하자고 주

장한 급진파들(이를 준소라고 한다)은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소론 급진파들은 당시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소수의 남인과 소북 인사들을 규합하여 영조의 세제책봉 부당성, 경종의 사인 의혹, 영조의 출생 배경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소현세자의 증손자였던 밀풍군을 옹립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이괄의 난 이후 최대 규모로, 한때 충청도 일대를 휩쓸었다. 영조의 계승권에 대한 의문과 그 세제책봉 과정에서의 노론 일파의 무리수가 신임옥사와 무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반란 주도세력

1728년의 무신란은 경종 때 김일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과격한 소론 이른바 준소에 속하는 박필몽, 박필현, 이유익, 심유현, 이하 등에 의하여 모의되었다. 이들은 1724년 8월 영조 즉위 후 김일경이 처형당하고 박필몽이 제주로 유배되면서 정치적 좌절과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 노론이 다시 등장하여 신축소(김일경이 노론의 처단을 주장한 상소)에 참여하였던 이진유 등 6인의 처형을 주장하는 가운데 극단적인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이들의 반역 모의는 김일경의 처형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박필현과 이유익이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점차 같은 소론계의 장수들을 포섭하고 오랫동안 정치적 진출이 막혀 있어 울분을 품고 있었던 남인 세력들과도 내통하였다. 또 이들은 당시 노론 중심의 중앙 정치 권력에 불만을 품고 있던 지방 양반들이나 토호들과도 결탁하였고, 지방의 중소상인이나 부호들 및 그들의 지원을 받던 토적들과도 연결되었다.

소론 급진파와 일부 남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모의의 주동자들은 모두 서울 명문대가의 후예들이었다. 참판, 강화유수, 도승지 등 화려한 벼슬을 역임하였던 박필몽과 사마시에 장원급제한 수 태인현감에 임명되었던 박유현은 인조 때 대사헌을 지낸 박황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대학자로 명성을 날렸던 박세당, 박세채와 같은 명문 반남박씨로 소론 핵심 가문이었다. 박필몽은 1727년 오명항 등의 구원으로 제주도에서 풀려나와 전라도 무장의 유배지에 있었다. 그는 당시 태인현감으로 와 있던 6촌 동생 박필현과 함께 모의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유익은 왕족이었던 전주이씨 익안대군파의 후예로서, 1701년에 장희빈과 세자(경종) 보호를 앞장서 주장했던 지평 이명세의 아들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모든 일을 지휘한 모방의 중심 인물이었다. 심유현은 경종의 첫 왕비였던 단의왕후의 동생으로서 이른바 왕실의 외척이었다. 한성참군 이하는 인조반정 일등공신 이귀의 현손자였다. 그들은 같은 소론계의 장수였단 포도대장 남태징, 평안병사 이사성과 선전관 이사필 종형제, 총융사 김중기 등을 포섭하였고, 또 당시 소론계 장수였던 훈련대장 이삼, 총관 이사주, 전라도관찰사 정사효 등과도 내통하고 있었다.

주동자들이 끌어들인 남인과 소북계 명사들로는, 남인 명문가인 좌의정 민희의 손자 민원해와 원보 형제, 우의정 민점의 손자인 민언량과 민관효 부자 등을 비롯하여, 숙종 때 형조판서를 지낸 이의징의 아들 이홍발과 그의 사촌형제들인 이인좌, 웅좌 등 4형제를 들 수 있다.

이인좌 형제들은 전주이씨 임영대군(세종의 아들)의 후예로서, 인조-효종 때 대사헌, 함경도관찰사 등을 지낸 남인 이응시의 증손자들이었다. 이인좌의 당숙이었던 이홍발은 이의징의 아들이었다. 또 이인좌의 할머니는 남인으로서 드물게 영의정을 지낸 권대운의 딸이었고, 그의 부인은 윤휴의 손녀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인의 핵심 가문에 속하였다. 또한 이덕형

의 현손이었던 이지인도 서울에서 병력모집의 주동자로 참여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갑술환국 이후에 숙청되어 벼슬에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울분을 품고 있었다.

소북계 명사로는 양명하, 정희량 일가 등을 들 수 있다. 정희량은 인조 때 척화파의 대학자 동계 정온의 후손으로서, 경상도 일대에 큰 명성과 재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무신란의 주모자들이 반란에 동원하고자 하였던 병력은 대부분 자신들의 집에서 부리고 있었던 하인과 노비 소작농들이나, 전라도 부안 경기도 양성 등지의 산악에 소굴을 가지고 있었던 명화적 무리인 녹림당 패들이었다.

녹림당은 이 무렵에 태인, 부안, 변산 지방의 전라도에 4-5백여 명, 용인, 양성 등지의 경기와 충청도 접경지역에 4-5백여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안 변산 지역의 녹림당은 그 지방의 부호였던 김수종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는 당시 태인현감으로 있던 박필현과 무장의 유배지에 있던 박필몽 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양성의 녹림당은 후에 반군의 부원수로 추대되었던 정세윤이 지휘하고 있었다. 녹림당의 무리들은 (정감록)의 정도령 출현을 믿고 있었는데, 정세윤은 성이 정씨였으므로 은근히 자신을 정도령인 것처럼 암시하면서 개인적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주동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병들은 매우 허약하였고, 실제로 동원하여 집결시키기도 용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의 주모자들은 이사성과 남태징 등의 장수들을 포섭하여 관군을 동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사성은 거사 전에 평안병사로 임명되어 외방으로 나갔고, 남태징은 인품이 졸렬하여 관군을 동원할 만한 영향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인좌 등이 청주를 함락한 후에는 인근 고을에서 모병을 하거나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한때 대단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반란의 준비와 봉기

1727년 겨울부터 전국 각처에서는 괘서(대자보)를 통한 유언비어가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주로 경종이 대비와 영조에 의해 독살되었으며, 영조가 숙종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노론이 거사하여 소론이 전멸될 것이라는 등이었다. 노론측의 관측에 의하면 이러한 유언비어는 심유현 박필현 이유익 등 소론 강경파에 의해 유포된 것이었다. 심유현은 경종의 원비 단의왕후의 동생으로 경종의 임종 때 측근에 있었는데, 그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는 설을 처음으로 유포시켰다. 이 때문에 그는 경종과 관련된 유언비어이 주모자로 지목되었다.

유언비어는 전라도의 전주, 남원, 임피 옥구, 부안 등지의 장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유포되었고, 1728년 1월부터 서울의 종루와 서소문 그리고 경상도 곤양 등지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유언비어는 대자보의 형태로 전국에 전파되었는데, 오래지 않아 삼남지방에서는 경종 시해설이 상식화되다시피 하였다. 이는 모반 주모자들의 교묘한 공작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그만큼 여조의 계승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인좌 일당은 청주를 점령한 후 서울로 진공하면서 충청도 일대에 뿌린 격문에서 경종 시해설을 과격하게 강조하였다. 이들은 모두 수거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당시의 민심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전국의 인심은 매우 흉흉해졌고, 특히 서울에서는 피난을 가거나 준비하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웠다.

반란의 주모자들은 밀풍군에게 처남이었던 조덕징과 그의 장인 이하를 통하여 추대 의사를 전했다. 밀풍군은 비록 응답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모의를 알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는 추대를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고, 끝내 고발하지도 않았던 점으로 보아 은근히 도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모반 주동자들이 억지로 추대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보고

있었다. 이유익 등의 주동자들은 밀풍군이 모르고 있거나 거부하더라도 억지로 추대하려는 생각마저 가지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밀풍군의 장남인 상대를 추대하자고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밀풍군이나 그의 아들을 추대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말하는 바 왕실의 "장파(큰 집)의 장파"라고 간주하였던 소현세자의 종손을 추대함으로써 반정의 명분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란 주동자들이 모두 영조를 축출하고 밀풍군을 세우려는 소론 급진파의 뜻과 합치했던 것은 아니었다. 반군의 부원수로서 녹림당을 지휘하고 있던 정세윤은 매우 걸출한 자였다. 그는 스스로 정도령을 믿고 대권을 넘보는 야심을 가졌다. 그는 반란군 부원수로 추대된 후에는 행민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그리고 이인좌 자신도 이 일을 이미 8년째 준비해 왔다는 말을 하고 있다.

"내가 평생 술을 좋아하였지만 이 일을 도모한 이후로는 8년 동안이나 술을 끊었다."

따라서 그의 모반은 단지 경종을 위해 영조를 축출하자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남인이었으므로 갑술환국 이후 정치에서 철저히 소외된 이후부터 정변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란 주동자들은 그 해 2월부터 호남 전역에 유언을 유포시키며, 그들의 노비나 하인들을 중심으로 부안, 고부, 순창 등지의 녹림당 및 일부 지방의 하급 군교들을 동원하여 병력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들 중의 일부는 경기도 양성 등지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청주의 이인좌와 양성의 정세윤 등은 1728년 3월 7일 각지의 병력 300여 인을 양성의 구만리와 가천 등지에서 집합시켰다. 그들은 12일 밤 야음을 타고 전군을 구만리에 집결하여 대기시켰다. 이들은 3월 14일 부근 소사에서 전군을 모아 거사하기로 하였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용인에 낙향해 있던 소론계 원로 대신 전 판서 최규서가 상경하여 이들이 모반을 고발하였다. 그는 모반에 참여했던 중인 출신의 지리학교수 안호와 그의 노비 막실에게서 정보를 입수하였던 것이다. 영조는 반란 소식을 들은 초기에도 이것이 일부 도적들의 난동쯤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양성의 반군들은 청주로 집결하여 이인좌 세력과 합세하고, 성내의 장교, 향리 등과 결탁하여 3월 15일 한밤중에 병영을 습격하였다. 그들은 병사 이봉상과 영장 겸토포사였던 남연년 등을 살해하고 청주성을 장악하였다.

청주 함락의 소식은 18일에야 서울에 보고되었다. 조정에서는 급히 서울의 방비를 서두르고 16일에는 총융사 김중기를 토벌대장으로 임명하여 청주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김중기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출정을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병조판서 오명항이 출정을 자청하였다. 그는 즉시 토벌대장인 사로도순무사에 임명되었고, 그날로 출정되었다.

이인좌와 정세윤 등은 청주를 점령하고 난 후에 각기 대원수와 부원수에 추대되었다. 그리고 최경우를 좌장군, 신천영을 충청병사 등으로 임명하였다. 그들은 곧 대원수의 이름으로 인근 각 고을의 수령들에게 공문과 격문을 돌려 거사의 취지를 밝히고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병력을 징발하여 보내도록 명령하였다.

반란군은 경종의 죽음을 영조에 의한 시해라고 선전하고, 그에 대한 복수를 거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들은 진중에 경종의 빈소를 설치하고 아침저녁으로 모여 곡을 하기도 하였다. 반란군은 삽시간에 황간, 회인, 청안, 목천, 진천 등을 점령하고 이들 지역에 임시 수령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되자 반군의 수도 삽시간에 불어나게 되었다. 청주 함락 후에 자발적으로 반군에 가담하거나 징병된 병력은 당초의 병력의 10여 배에 달하게 되었다.

한편 경상도의 정희량은 이인좌의 동생이었던 이웅좌와 함께 그이 세력 근거지였던 안음

에서 3월 20일에 거병하였다. 그들은 당일에 안음과 거창을 함락하고 22일에는 합천과 삼가를 점령하였다. 이들 지역의 점령에는 그곳 향청 좌수들과의 결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합천에서는 좌수 정상림 등이 변란을 일으켜 군수 이정필을 축출하였고, 삼가에서는 좌수 신만항이 현감 이정수를 축출하였다. 또 안동에서도 미리 그곳의 좌수와 결탁해 있었으나, 거사 직전에 동참을 거부하여 무산되었다. 그러나 거창의 좌수 이술원은 반군에 저항하다가 죽었다. 이 지역의 반란은 곧 경상우병사 이시번에게 보고되었으나, 그는 조정의 지휘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았다. 관찰사 황선의 진압 명령을 받은 주변의 수령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형세를 관망하고 있었다.

호남 지역은 유언비어가 가장 무성하였고 모의 참가자도 많아 분위기가 성숙되었으나, 거사는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무신란의 핵심 주동자였던 태인현감 박필현은 담양부사 심유현과 무장에 유배되어 있었던 박필몽 그리고 관찰사 정사효 등과 연락하여 예하의 관군을 동원하여 전주에 결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약속한 날 정사효가 거부하여 집결은 실패하고 말았다.

박필현은 3월 17일 반군의 진압을 명분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훈련시키고 25일 전주로 나아갔으나, 정사효는 그들의 전주성 입성을 막아 동참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군사들은 흩어지고 박필현도 도망하였다. 무장에 있던 박필몽도 잡군 30여 명을 데리고 합세하려 하였으나 태인의 실패를 듣고 역시 도망하였다. 이로써 호남의 봉기는 좌절되고 말았다.

난의 진압

조정에서는 장단, 개성, 춘천 등 각지에서 근왕병을 소집하는 동시에, 18일에는 오명항을 도순무사, 박찬신을 중군, 박문수를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토벌군을 출정시켰다. 영의정 이광좌는 영병조사를 겸직하면서, 조정의 모든 군사업무를 지휘하였다.

3월 20일에 반군의 일부는 이미 용인까지 진격해 있었다. 반군은 22일 진천에서 잔치를 벌이고, 23일에는 부대를 둘로 나누어 두 갈래로 진군하였다. 한 부대는 이인좌가 인솔하여 안성으로 향하였고, 한 부대는 부원수 정세윤이 인솔하여 죽산으로 향하였다.

오명항은 먼저 안성으로 내려가, 한밤중에 반군을 습격하여 대파하였다. 다음날 관군은 여세를 몰아 죽산으로 진격하여 아침밥을 해먹던 반군을 간단히 궤멸시키고 정세윤 등을 참살하였다. 이인좌 등은 생포하여 서울로 압송하였다. 26일에는 평안도에서 체포된 이사성과 서울의 주모자였던 이유익을 처형하고, 27일에는 이인좌 등을 능지처참하였다. 이날 청주에서는 반군들이 임시 병사로 임명하였던 신천영을 상당산성에서 결박하여 처형하였다. 이로써 충청도의 반군은 완전히 진압되었다.

경상도의 반군은 28일 함양으로 들어가 지리산을 넘어 전라도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봉쇄되어 지체하고 있었다. 그 동안에 경상도 각 고을의 관군이 도래하여 30일에는 성주목사 이진혁이 합천을 탈환하였고, 4월 2일 함양에서 거창으로 돌아온 반군을 선산부사 박필건 등이 격파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희량과 이웅보 등은 부하들에게 결박되어 관군에 넘겨져 처형되었다. 이로써 경상도의 반군도 완전히 진압되었다.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있었던 진압 작전에서는 사실상 단 한 명의 관군도 다친 사람이 없을 만큼 전투다운 전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관군의 용이주도한 작전과 회유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오합지졸로 이루어졌던 소수의 반군이 대규모 관군을 보자마자 스스로 흩어져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밀풍군은 반란의 초기부터 추대의 대상자로 거명되었다. 그는 3월 20일에 체포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으나, 자신의 관련을 부인하였다. 그는 처남인 조덕징과 이하 등을 통해 추대를 권유받았거나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반 주동자들의 심문과정에서 나온 말로서,

그들 내부의 논의였는지 밀풍군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유익 등은 미리 밀풍군에게 내통하지 않더라도 거사 후에 억지로 추대하면 그가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무신란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가담하였으므로 그들이 한결같이 밀풍군 추대에 합의하였다고는 할 수 없었다. 이인좌는 남인 중심의 반정을 꾀하였고, 정세윤과 같이 개인적인 야심을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역성혁명이란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으므로, 임시 방편으로라도 전주 이씨의 왕족들 중에서 한 사람을 추대하여 이른바 '반정'의 형태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밀풍군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국문과정에서도 다른 죄수들과 달리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영조는 그를 살려주고자 하였으나, 신하들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다음 해에 사사되었다.

무신란의 의미

1728년의 무신란에는 서울과 경기, 강원, 삼남 및 평안도의 각지에서 소론 남인 소북의 문무관, 명문 양반, 몰락 양반, 지방 토호, 향임층, 중인, 군교, 상민, 노비, 도적(명화적) 등 각계각층의 인물 등을 망라하여 동조세력이 규합되었다. 그들은 충청, 전라, 경상도의 3도에서 거의 동시에 거병하여 한때 기세를 오리기도 하였다. 이는 그만큼 노론의 장기집권 때문에 소외된 계층이나 집단이 많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경종에서 영조로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무리를 처사들이 전국적인 저항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물론 모반 주도자들의 교묘한 선전활동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당시의 왕위계승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전국적인 규모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특이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 시대에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하층민의 성장과 중세사회의 전반적인 붕괴에 따르는 복잡한 현상들에서 유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난의 직접적인 요인은 왕실의 계승과 종통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음모 및 노론 독제정치에 대한 여타 양반 계층의 오랜 불만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바닥에는 조선후기 사회의 성장과 함께 오래 누적되어 왔던 사회적인 모순과 민중들의 고통이 깔려 있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 여건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사한 반군들은 관군이 출동하자마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단시간에 진압되고 말았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의식에 비해 반군의 준비와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들 조직의 가담자들 중에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혼잡되어 있어 통일된 이념이나 목표를 설정하기도 어려웠다. 당시 소론계 주동자들이 내세웠던 경종 시해설과 복수의 의리는 어떻게 보면 하층민들에게는 별로 절실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선전도 기만에 가까운 것이어서 민중들이 생사를 걸 만한 힘을 도출해낼 수 없었다.

결국 당시의 조정은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율적이고 강력한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중앙정부는 지배계층의 보수적 봉건윤리와 비교적 잘 관리된 국가 조직, 그리고 신속한 대응으로 무난히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 이는 아직도 기층사회의 의식이나 실제의 역량이 무장봉기로 사회의 변혁을 가능하게 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성의 보수적 이념이나 사회체제가 당시까지도 완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차별없는 사회를 꿈꾸었던 비밀결사 – 검계와 살주계

2013.06.19 16:38

상투꾼들이 조직한 비밀결사

조선 후기에는 민중들이 궁궐이나 주요 관청, 서울의 4대문, 전국 각지의 주요 시장 등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벽보를 붙여 지배층의 비리를 공격하거나 체제를 비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이를 괘서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투쟁의 성격을 지닌 일종의 민중들의 대자보 투쟁이다.

숙종 때 정체불명의 일단의 무리들이 남대문과 대간의 집에 벽보를 붙여 "우리들이 모두 죽지 않는 한 끝내는 너희들 배에 반드시 칼을 꽂으리라"는 섬뜩한 말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사건이 일어나 조정 안팎이 발칵 뒤집혔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숙종 무렵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베일에 싸인 비밀조직들이 양반들을 공격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재물을 빼앗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들 조직들은 점차 검계와 살주계라는 이름의 비밀결사로 알려졌다. 그 조직의 이름부터 무시무시하고 심상치 않다. "검계"에는 자신들의 문제를 검, 즉 무기를 이용해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고, 더욱이 '살주계'는 글자 그대로 자신들의 상전을 죽이려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이로 보아 지배층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검계나 살주계의 조직원들은 최하층의 신분인 노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떠한 출신이었을까? 이들은 본래 향도계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향도'란 본래 남의 상여를 메고 그 품을 받는 자들로서, 흔히 '상두꾼'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향도계란 사람이 죽어 장사지낼 때 그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상례는 가장 중요한 의례였다.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부모의 상례를 도와주는 향도계를 무시해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궁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왜 향도계원들은 과격한 비밀결사를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해 정부에서는, 향도계는 원래 순수한 단체인데 그 선발과정을 엄격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의 무뢰배들이 끼어들면서 변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배층의 시각일 뿐이고,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시기에는 가뭄이나 홍수, 전염병 등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날로 더해가는 관리들의 수탈로 민중들의 삶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길거리에는 유민들, 즉 집도 절도 없이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녀자나 어린이와 노인들은 구걸을 하였고, 힘이 센 청년들은 화적떼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 무렵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만 해도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임진왜란의 참혹함도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민중들이 인육을 먹는 일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오죽이나 굶주림에 시달렸으면 부모가 병으로 죽은 어린 자녀들의 시체를 삶아먹었다는 기록이 버젓이 조선왕조실록에 올라 있을까?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던 민중들의 삶 속에서 상두꾼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들도 일반 민중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답습하였다. 이에 그들 가운데 일부는 집단으로 지

배층에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로 보아 상두꾼이 주축이 되어 비밀결사를 만든 것은 그들이 무뢰배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들은 평소 조직생활을 해오고 있는 터에 최악의 사회상황으로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을 비밀결사 형태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설명일 것이다.

여기에서 상두꾼들의 의식과 관련해 '향도'라는 말이 뜻하는 바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 상두꾼이라는 뜻까지 갖게 된 향도의 본래 의미는 불교, 특히 변혁의 세계와 평등한 세상을 상징하는 미륵불교와 관계가 깊은 신앙 결사체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는 신라와 고려시대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향도는 신라시대의 화랑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 화랑의 낭도를 '용화향도'라 부른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향도라는 말은 민중들의 변혁에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향도계의 구성원들을 주축으로 결성한 검계나 살주계는 단순한 무뢰배들의 집단이 아니라, 나름대로 변혁의 염원과 열망을 품은 민중, 특히 노비들이 모여 있는 비밀결사체인 것이다.

비밀결사의 행동강령과 활동

그러면 노비 신분으로서 상두꾼의 일을 하던 자들이 주축이 된 검계나 살주계는 어떠한 행동강령을 내걸고 어떠한 일들을 하였을까? 그들의 행동강령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살주계의 강령 몇몇 조항은 알려져 있어 눈길을 끈다. 그것은 "양반을 죽일 것", "(양반)부녀자를 겁탈할 것", "(양반의)재화를 탈취할 것" 등으로 그 이름만큼이나 직설적이고 위협적이다. 정부에서 보면 이 강령의 내용이야말로 반국가적이며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이 강령대로 행동하였을까?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검계원들은 밤에 남산에 올라가 나팔을 불어대며 군사를 모으는 것 같이 훈련하였으며, 중흥동에서는 진을 치는 연습을 하는 등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인명을 해치기도 하였다고 한다. 청파 근처에는 살주계가 있었는데, 그들 조직원들은 모두 창포검을 차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이들 검계나 살주계의 조직원들은 남산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비밀리에 또는 공공연히 활동하면서 부자들의 재물을 빼앗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키워가고 있었던 것 같다.

숙종 때 경기도 광주에서 검계 조직원들이 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는 곧바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광주의 길가에서 한 과부가 일곱 명의 무뢰한들에게 잡혀 겁간을 당했는데, 그 무뢰한 가운데는 과부의 서얼 사촌도 끼어 있었고 이들은 모두가 검계의 조직원으로 드러났다. 과연 살주계의 행동강령이 무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며 민심을 선동하기도 했다. 교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장차 난리가 일어나면 우리들은 양반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고 외쳤으며, 그 무리들 속에 있던 개천이라는 자는 "이제 우리는 양반의 처를 얻게 되었다"고 외쳐댔다. 사슬과도 같은 신분의 굴레를 일거에 타파하려는 민중, 특히 노비들의 몸부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유일하게 이름이 알려진 개천이라는 자도 노비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이들 대부분이 노비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향도계 조직원, 즉 상두꾼들의 신분이란 지체 높은 양반집의 노비들이었던 것이며, 이들이 검계나 살주계의 주축이었던 것이다.

숙종 때 남인의 명문대가인 목내선은 자신의 노복이 살주계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그를 잡아 죽였다. 또 남인이 집권했을 때 목내선은 노론의 대가들인 김석주, 김익훈, 이사명의

노복들 가운데서 향도계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이 많음을 알고 향도유대군을 금지할 것을 왕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냈다. 그만큼 그들이 작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정파간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향도계 조직원들의 조직력과 무장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이들 향도계 조직원들은 정권의 향배와도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숙종 때 일어난 갑술환국 때 소론측에서 서울 사대부집의 가노 동원 계획, 즉 노비를 동원하여 무력기반으로 삼으려던 계획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들이 바로 향도계의 조직원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향도계원들은 양반들과 신분에 따른 주종관계로 얽혀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 양반들과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검계나 살주계를 결성한 것도 주종관계의 모순을 깨뜨리려는 향도계원들의 고육지책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검계나 살주계는 매우 위험한 집단이 아닐 수 없었다. 지배층에서는 검계와 살주계 요원들의 행동이 워낙 패악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지배층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표방했기 때문에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좌의정 민정중은 "도하의 무뢰배가 검계를 만들어 사사로이 습진하니, 동네가 더욱 소란스럽게 되어 장래에는 외구의 침입보다 대응하기가 더 어렵게 될 것"으로 걱정할 정도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포도청으로 하여금 이들을 추적 조사하여 잡아들여 유배보내거나 효수형에 처하는 등 중벌로 다스리도록 조처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검계나 살주계의 조직원들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이를테면 1684(숙종 10) 2월에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지시가 내려진 후 약 5개월 동안에 겨우 검계원 10여 명이 잡혔을 뿐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체포당했다 하더라도 연루자를 말하지 않고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는 뚝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더욱 과격한 자들은 칼로 살을 긋거나 가슴을 베는 등 자해를 하며 거칠게 저항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오히려 심문을 맡은 포도청 관리들이 질리게 될 정도였다. 이처럼 동료들의 행방이나 신상에 대해 발설하지 않고 과격하게 버티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들은 단순한 저항단계의 차원이 아닌, 엄격한 조직의 강령에 따라 움직이는 '비밀결사체'임을 짐작케 해 준다.

검계는 19세기에도 존재했다

검계는 숙종 때인 17세기에 등장했다가 사라졌는지 18세기의 왕조실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9세기 기록인 (순조실록)에 검계에 대한 주목할 만한 상소문이 실려 있어 눈길을 끈다. 사간 이동식은 검계의 행패가 심각함을 예로 들어 법의 기강을 엄히 할 것을 상소했다.

"문무백관이 게으르고 법강이 해이해졌으며, '검계'의 이름이 나오기에 이르러 풍속이 허물어지고 세도가 무너짐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일종의 무뢰한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당을 이루고, 소를 팔아서 검을 차고 다니며 하늘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돈을 추렴하여 개와 돼지를 잡지 않는 날이 없으며, 약탈하는 것을 가계로 삼고, 남을 모욕하는 것을 장기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문에 횡행하여 재상을 꾸짖어 욕보이고 깊은 규방에 도입하여 부녀자를 때리는 등 예의를 끊어버리고 기강을 어지럽힘이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19세기의 검계도 17세기와 마찬가지로 위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 조직체이다. 더욱이 검계는 재상을 욕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신분제의 질곡에 대한 저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검계 조직원들의 폭력적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울의 백성들 가운데 검계에 들어가는 사

람이 늘어나는 데 있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사간 이동식은 병조와 의금부 및 포도청으로 하여금 검계의 조직원들을 강력히 단속하게 하는 한편, 이들의 행패와 백성들이 검계에 들어가는 이유가 술이 범람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서울에서 술빚어 파는 집들 가운데 큰 곳들을 단속하도록 건의했다. 그러나 체제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검계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명화적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렇다면 이들 검계나 살주계는 당시 서울과 지방에 자주 출몰하고 있던 떼도적인 명화적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들 조직이나 화적 조직은 모두 최소한의 생존조건도 보장받지 못하던 사회 현실 속에서 탄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행태, 즉 이들의 행위 또한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우선 무장을 하고 지배층을 공략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욱이 화적들도 규모가 크고 짜임새 있는 집단은 꽤 세련된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먼저 하나의 화적조직에는 그 조직을 대표하는 두목이 있었는데, 이자는 통상 '장군'으로 불렸다. 이자가 호령하면 무리들이 모두 복창하며 따랐다. 두목의 밑에는 몰락한 양반으로 추측되는 자가 조직의 모사를 맡아서, 약탈한 물품과 약탈대상 물품의 목록 등을 기록한 중요 문서를 관장하고 각종 모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를테면 조선시대의 대표적 도적인 임꺽정 집단에서의 서림과 같은 존재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약탈한 물품의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자는 흔히 도시에 거주하는 지정된 사람, 즉 단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거래하였다. 이는 명화적 집단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중간상인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화적 집단이 이처럼 잘 짜여진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규모가 비교적 큰 집단에서나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사실이 있다. 영조 때 명화적 관련 기록 가운데 조직의 이름, 즉 단호를 가진 조직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서울의 대표적 명화적 조직으로는 후서강단, 평양은 폐사군단, 유민이나 걸인들이 주축이 된 유단, 광대와 재인들이 주축이 된 채단 등이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명화적들이 이 같은 단의 이름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체계가 잘 갖추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검계나 살주계 조직도 화적, 또는 명화적으로 불러도 틀리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검계나 살주계 조직은 이들만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우선 이들은 양반에 대한 적대감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앞에서 본 괘서, 살주계의 행동강령 내용, 개천이라는 노비의 행동에서도 양반에 대한 적대감의 강도가 잘 나타나 있지만, 이들은 공공연히 "내일은 양반이 지배하는 세상은 사라지고 상민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체제변혁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마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활약했던 '활빈당'의 존재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요컨대 검계나 살주계가 현실사회의 신분구조 타파를 외치는 이러한 구호의 참뜻은 신분차별이 없는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하층민들의 몸부림인 것이다.

이것은 이들의 출신성분이 노비라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화적들은 대부분이 농촌사회에서 발붙일 것이 없어 고향을 등지고 각지를 전전하고 있던 유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호구지책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투쟁하였다. 반면에 검계나 살주계 조직도 호구지책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노비'라는 최하층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투쟁의 목표를 신분제

의 굴레라는 사회구조의 모순을 타파하는 데로 모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세밀히 관찰해보면, 두 조직 사이에는 미미해 보이나 그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들 조직의 주축이 된 향도계의 '향도'의 본래 의미는 미륵불이 다스리는 세계, 즉 만민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뜻하고 있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미륵신앙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계와 살주계는 겉으로는 명화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신분제도의 모순이 질곡의 현실세계를 타파하고 신분해방을 추구하는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무장을 갖춘 도적들 – 임꺽정과 장길산(1)

2013.06.19 16:34

조선시대 도적의 대명사 임꺽정

대도 임꺽정 탄생의 시대상

임꺽정의 활동은 1559년(명종 14) 3월부터 그가 처형당한 1562년(명종 17) 1월까지 3년 이상 황해도를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그의 활동은 그 기세가 엄청나서 가히 반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이처럼 임꺽정 일당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시의 정치 기강 문란과 군정의 해이로 인한 농촌사회의 피폐, 자영농민의 몰락해가는 시대적 배경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6세기(중종-명종-선조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의 도시화가 진전되고 훈척이나 지주세력들의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활동이 미미했던 지역을 개발하고 수탈하려는 욕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경제활동이 통제되었던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을 새롭고 주목하였던 것이다.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이 지역에 쌀 거래를 금지하고 소금의 생산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16세기부터 그것이 허락되자 훈척 세력들은 이 지역의 개간과 이권을 독점하여 수탈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이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해변의 이생지(개펄이 모여 평야가 된 땅)는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땅이었는데, 권세 있는 훈척 가문들이 이를 모두 빼앗아 점거하였으므로 백성들의 고통과 원망이 심화되었다.

당시에는 수령들의 가렴주구도 심하였다. 중앙의 훈척 고관들은 부패하여 뇌물 받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지방의 수령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권신들에게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지 않으면 관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세의 길마저 막혀버리기 때문이었다. 특히 윤원형과 심통원은 외척의 명문 거족으로서 권력을 전횡하고 있었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데 못하는 짓이 없었다. 조정에 이와 같은 대도
가 도사리고 있었으므로, 하급 관리와 수령들도 덩달아 휩쓸려 이익을 추구하였다. 그래서 저마다 남에게 뒤질세라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곤궁하여졌다.

이렇게 훈척 세력들의 횡포와 수령들의 포악함이 백성들의 살과 뼈를 깎고 기름과 피를 말리게 되자, 백성들은 호소할 곳도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어려워 도적이 되게 마련이었다.

임꺽정에 호응한 세력들

임꺽정이 양주의 백정 출신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머지 사람들의 출신 배경은 잘 알 수가 없으나, 각양각색의 하층민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백정을 비롯해 상인, 장인(수공업자), 노비, 아전, 역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

백정이란 고려시대 천민이었던 재인이나 화척의 후예로서 주로 도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들이었다. 이들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일반 백성들과 쉽게 어울려 생활하지 못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도적의 무리를 이루기가 쉬웠다. 임꺽정은 누이동생의 남편이었던 박장명과 함께 황해도 지방에서 백정의 무리를 모아 집단을 이루었다. 임꺽정의 패에는 일부 상인들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세상물정에 밝았고,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잘 알고 있어 임꺽정 패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한번은 봉산군수 윤지숙이 부임하는 길에 임진강 나루에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10여 명의 장사꾼들이 물건을 지고 달려와 배에 오르는 것이었다. 윤지숙은 노하여 그들을 잡아다 벌을 주려 하였다. 장사꾼들이 짐을 푸는 것을 보니 모두 활과 창, 칼 등 무기였다. 그들이 바로 임꺽정 일당들이었던 것이다.

임꺽정 일당은 10여 명 안팎으로 모여 활동하면서 일부는 상인들의 행장을 하고 다녔다. 이들은 교통의 발달과 장시의 확장을 배경으로 보부상으로 변장하고 장사도 하면서 도적질을 하였다. 그러나 임꺽정 집단 내부에 전업적인 상인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은 전문적인 상인이라기보다는 개성이나 서울의 상인들과 연계되어 훔친 물건들, 즉 장물을 파는 역할을 맡았던 것 같다. 이들은 당시의 상업 유통로를 중심으로 도적활동을 하면서, 상인으로 가장하고 노획물을 팔았을 것이다. 이들은 반농반상이었으나, 상인보다 오히려 농민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임꺽정의 무리에는 수공업자들도 있었다. 그들의 일당이었던 서림이 잡혀 문초를 당할 때 "평산 남면 마산리에 사는 대장장이 이춘동의 집에 모여서 신임 봉산군수 이흠례를 죽이기로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면, 대장장이와 같은 수공업자들도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공업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한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은 아전들을 들 수 있다. 임꺽정 일당을 쉽게 체포할 수 없었던 것은 경기로부터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각 고을의 아전들이 그들과 은밀히 내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관아에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면 그 기밀이 먼저 누설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아전들은 관청의 서리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교통로를 따라 배치되어 있었던 역리들이었을 것이다. 경기와 황해도 지역은 중국과 사신들의 왕래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인마의 왕래가 끊일 사이가 없는 분주한 교통요지였다. 여기에서 종사하는 역리들은 신분에서 차별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중한 부담 때문에 경제적인 곤란을 겪으면서 누적되었던 불만들이 임꺽정에게 동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임꺽정 난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던 것은 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무리 속에는 군사들도 있었다. 명종 16년 9월에 임꺽정을 잡았다고 하여 추국해보니, 해주군사 윤희정이었다. 그가 언제부터 임꺽정의 난에 가담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진압군으로 파견되었을 때 불만을 품고 임꺽정의 무리에 참여한 것 같다. 군사로 차출되어 도적의 진압에 동원된 백성들이 몰래 빠져나와 도적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임꺽정 난에 가장 많이 참여한 자들은 토지로부터 쫓겨난 일반 농민들이었다. "모이면 도적이 되고 흩어지면 농민이 되어 출몰이 일정하지 않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관군의 공격이 있으면 백성들의 사이로 흩어져 일반민들과 구별할 수 없었다. 이것은 백성들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농민들은 직접 간접으로 이 난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황해도에서는 갈대밭이 집중적으로 개간되어 권문세가나 내수사의 농장으로 편입되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노역에 동원되고 땅을 빼앗겨 살 곳을 잃고 유랑하다가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 도적은 대개 토지

로부터 이탈된 농민과 도망한 노비들이었다. 따라서 이 저항은 광범위하게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들의 도움을 받아 관군을 격파하곤 하였다. 그것은 일반민들이 품고 있던 불만을 임꺽정이 해소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임꺽정의 난에 참가한 계층에는 백정을 중심으로 상인, 장인, 향리, 역리, 군사 및 일반인들이 섞여 있었으나, 이들도 기본적으로는 농민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임꺽정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 것은 토지를 빼앗기거나 공납을 비롯한 각종 착취에 시달렸으므로, 지배층에 대해 다 같이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꺽정의 난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 이것을 확인할만한 통계 자료는 없다. 이들은 모였다 흩어지면 반드시 각자 행동하고, 민가가 조밀한 곳에서 붙어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명종실록)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파악된 수이지만, 그들의 두령급은 8-9개의 조직으로 나뉘어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도적들은 대개 몇 개의 소조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가끔씩 하나로 뭉쳐 연결되고 있었다. 즉, 도적들은 한 무리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기보다는 조를 나누어 흩어져 활동하다가 본거지에 모여 논의하고, 다시 흩어져 활동하는 형태를 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관군의 공격이 있을 때에는 크게 모여 대응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관군이 서흥에서 군사를 집결시켰을 때, 이에 대응해 싸운 임꺽정 집단의 수는 60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직접 관군과 싸우지 않고 뒤에서 지원하거나 몰래 도적활동에 동조한 자들까지 합치면 그 세력은 훨씬 컸을 것이다.

임꺽정의 활동지역과 활동내용

임꺽정은 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 강원, 평안, 함경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황해도는 사신이 왕래하는 길목이었으므로 농민들의 부담이 타도에 비해 무거웠다. 북쪽 국경으로의 수비군 파견과 조정에 진상을 바치는 번거로움은 황해도의 2대 민폐였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은 임꺽정의 난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황해도의 많은 땅이 훈척들의 농장으로 들어가고, 갈대밭이 내수사에 몰수되어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유랑하고 있었다.

또 황해도에는 도살업으로 살아가는 백정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도살업의 발생지로 알려져온 봉산이 임꺽정 난의 본거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종 8년 이래로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은 흉작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연이은 흉년과 여러 가지 조세부담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농가들은 농우를 팔아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평안도 지방의 농우들은 대개 황해도 지방으로 팔려가고 있었다. 평안도 지방의 소가 황해도에 집중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백정들의 일이 많아지고, 그 세력기반이 확대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황해도에서의 농민저항은 이전부터 산백정이나 도적들의 활동을 통하여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명종 12년 4월에는 황해도 일원에 걸쳐서 도적떼가 번성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서흥, 우봉, 토산, 신계현과 강원도의 이천현이 더욱 심하여, 주민들이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봉산은 도살업이 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리고 서흥에는 용천역과 신흥역이 있었고, 봉산에는 검수역과, 동선역, 소곶역, 관산역 등이 있었다. 임꺽정 집단이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은 백정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역참지대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역참은 교통로로서 공물이 운송되는 노선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도적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이들은 역로를 중간거점으로 하여 약탈한 장물을 운반하여 개성 등지에서 처리하였다.

요컨대 이 난의 지역적 특징은 백정의 본거지요, 갈대밭이 많은 지역이었다. 그것은 봉산, 서흥, 평산, 안성, 개성, 장단을 거쳐 서울에 이르는 간선도로에 연해 있었다. 특히 봉산에서

문화, 재령, 해주 및 구월산 지역에서 임꺽정 일당의 활동이 많았다. 그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황해도 주요지역 및 황해도와 인접한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동을 보면, 10월부터 4월까지의 농한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추수가 끝난 후, 조세를 걷어 수송하는 시기에 약탈을 노렸던 것 같다. 그들은 추수 후 공물의 약탈을 집중적으로 노렸으며, 약탈한 물건을 개성부나 서울 등지에 운반하여 판매하고, 그곳에 소굴을 마련해두기도 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조정의 관원이나 감사의 일가라고 사칭하면서 조정의 허실을 정탐하기도 하였다.

임꺽정 일당은 약탈, 살인, 방화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교통로를 장악하여 길 가는 나그네를 털었고, 성 밑으로 몰려들어 주민들을 살해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감히 고발하지 못하고, 관리들은 체포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 민가에 불을 지르고 소나 말을 약탈하였으며, 반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잔혹하게 사지를 찢어 죽여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기도 항T다. 그들은 명화적으로 살인, 약탈을 하다가 대낮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관아의 옥문을 부수고 형리들을 죽이기도 하였다. 또 때로는 양반으로 가장하고 관청에 출입하였고, 약탈한 물건을 타 지역에서 판매하는 등 대담한 활동을 벌였다.

임꺽정 일당의 잔혹상은 실록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적들이 곧 아비를 놓아주고 아들(신고자)을 결박하여 촌가에 데리고 가서 밥을 짓게 하고, 빙 둘러앉아 배를 갈라 죽인 뒤에 떠나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보복행위는 매우 잔혹하였다. 이렇게 잔혹한 활동에 대해 황해도의 관찰사들도 보복이 두려워 함부로 체포하지 못하였다. 관찰사 신희복은 부모의 무덤과 농장이 평산에 있었으므로, 그들의 보복을 염려하여 절제사에게 명령해 체포하도록 독촉하지 않다가 해임되기도 하였다.

그들은 관리를 사칭하며 수령들을 낭패시키거나 관권에 도전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한때 금부도사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봉산군수 박응천을 살해하기 위해 객관을 습격한 적도 있었고, 영접사신의 관군을 살해한 뒤에 그 마패를 관아의 문에 걸어놓고 고발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도 하였다.

임꺽정 일당은 동료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관아를 습격해 옥을 부수기도 하였다. 그들은 서흥부에 갇혀 있는 처자 및 죄수들을 옥을 부수고 탈취하였고, 임꺽정의 부인을 구출하기 위해 서울의 전옥서를 공격하는 등 대담한 작전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임꺽정 일당을 토벌하라

임꺽정 일당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조정에서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1559년(명종14) 3월부터였다. 조정에서는 황해도의 적세가 흉포하여 사람을 약탈, 살해할 뿐 아니라, 심지어 대낮에도 관청을 습격하여 수령의 나졸을 사살하며,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까지 출몰하자 이를 중대 사태로 간주하고 토벌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조정에서는 황해도 수령들에게 30-4-명의 용맹스런 장정을 뽑아 기동타격대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또 도적의 출몰을 신고하는 양민들에게는 군직을 주고, 노비 등 천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해방시켜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령으로 적의 우두머리를 체포하면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포상을 걸었다. 그런 한편 도적들에 대한 선무공작도 병행하였다. 그들 중에서 가난에 쪼들리거나 부역을 피하기 위해서 도적이 된 자들이 회개하고 자수하면 이전의 범죄를 불문에 부친다고 약속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방문에 써서 황해도의 큰 기이나 깊은 산 속의 사찰에도 게시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얻도록 하였다. 그러나 방문 게시의 효과는 없었고, 임꺽정 일당의 활

동은 더욱 거세었다. 이시기에 황해도의 관찰사들은 임꺽정을 체포하지 못한 문책으로 석 달이 멀다하고 해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1559년(명종 14)에 신희복이 해임당하고 그 후임으로 이탁이 임명되었지만, 그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정유로 교체되었고, 정유도 3개월만에 김덕룡으로 바뀌었는데, 그 역시 9개월 만에 김주로 대체되었다. 임꺽정 토벌의 책임자가 이렇게 자주 교체되었으므로, 토벌작전도 효과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웠다.

조정에서는 지방 수령들만으로는 도적을 막을 수 없었으므로 종2품의 고위직 무신 두 명을 뽑아 순경사의 직책을 주고, 황해도와 강원도에 내려보냈다. 황해도에는 이사증이, 강원도에는 김세한이 순경사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군사를 동원한 순경사의 파견은 역로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에게 부담만 줄 뿐이었고, 도적의 토벌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와 같이 민폐만 끼칠 뿐 도적 체포의 실효가 없자 조정에서는 순경사 대신 토포사 남치근과 순검사 백유검을 파견하여 도적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도적의 세력은 점점 강성해져 그 무리가 서울에까지 많이 숨어들었다. 이 때문에 도성의 모든 문을 닫고 각방 거리의 의심나는 곳을 빠짐없이 수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적에 대비한 도성의 경비 조목은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1. 도적을 잡는 기간 동안은 도성의 문들은 인정 전에 닫고, 날이 밝은 후에 열되, 병조에서 자주 살펴서 근무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수문장 5명 등을 엄히 다스릴 것.

2. 인정 후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는 아무도 통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공고하고, 5부에 명하여 각방에 알린 뒤에 시행할 것.

3. 대궐문을 열고 닫는 것은 평상시의 규정을 바꾸어, 일이 없는 날에는 날이 샌 후에 열고 해가 지면 닫을 것.

4. 도성 각문의 수문장은 성실하고 재간있고 용맹스러운 무신으로 임명하며, 황당인의 출입을 항시 살필 것.

순경사와 마찬가지로 토포사도 군대를 거느리고 오래 머무르자 군대와 백성들이 고달파서 원망하는 소리가 높았다. 그 사이에 임꺽정은 비록 잡지 못했지만 그들 무리 중에 두령급은 거의 섬멸하였으므로 토포사의 철수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특히 토포사 남치근은 평소 엄하고 포악한 장수로서, 도적을 잡는다고 마구 양민들을 살륙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원한과 고통이 극에 달하여 철수 주장이 계속되었다. 그러한 차에 남치근의 군관인 곽순수와 홍언성 등이 임꺽정을 서흥에서 사로잡았다.

임꺽정은 관군에 쫓겨 어느 촌가에 있었는데, 관군들의 포위망이 좁혀들어 도저히 탈출할 수 없게 되자 한 노파를 위협하여 "도적이야" 하고 외치며 달아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무기를 지니고 그 노파의 뒤를 쫓아갔다. 관군이 도착하자 그는 도적이 이미 도망하였다고 속였다. 관군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서 임꺽정은 재빨리 말 한 필을 빼앗아 타고 군중에 섞였다가 도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옛 부하였던 서림이 그를 알아보고 귀띔하여 임꺽정을 체포할 수 있었다.

조정에서는 즉시 선전관과 금부낭청 및 포도군관 등을 보내어 잡아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록에는 그 후에 그를 문초한 기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임꺽정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관군이 입은 피해도 컸다. 임꺽정은 국가의 권위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고, 수령을 죽이거나 죽이려고 계획하였다. 이들의 표적이 된 수령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 먼저 봉산군수 이흠례를 들 수 있다. 임꺽정의 무리는 명종 15년 11월에 새로 부임한 봉산군수 이흠례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흠례는 신계현령으로 있을 때 임꺽정 일당을 많이 체포하였기 때문에, 그를 살해하면 그들의 위신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환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흠례의 살해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대장장이 이춘동의 집에 모였으나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또 소탕하러 온 개성부 포도관 이억근을 쏘아 죽였다. 그 역시 임꺽정 일당을 추적하여 체포하는 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임꺽정이 매우 미워하였던 것이다. 이억근은 당시 군사 20여 명만 거느리고 새벽에 적의 소굴로 들어갔다. 그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일곱 대의 화살을 맞은 채 죽었다. 또 부장 연천령도 살해되었다. 그는 선전관 정수익과 이흠례 및 금교찰방 강여와 함께 5백여 군사를 거느리고 임꺽정을 체포하러 구월산으로 들어갔다가 사살되고 역마까자 빼앗겼다.

봉산군수 박응천은 일 처리에 빈틈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꺼려하였다. 이들은 참령 아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박응천을 잡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그들은 의금부 도사인 금오랑으로 변장하고 관인 유숙처인 객관에 몰려가 "군수는 나와서 영을 받으라"고 외쳤다. 박응천은 이를 미리 알고 군인들을 모아 잡으려 했으나 그들은 눈치를 채고 도망치고 말았다.

이외에도 부자나 부유한 상인들이 그들의 습격 대상이 되었고, 무고한 백성들도 많이 희생당했다. 그리고 황해도 각 지방의 백성들 가운데 도적을 고발했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었다.

대규모 무장을 갖춘 도적들 – 임꺽정과 장길산(2)

2013.06.19 16:36

임꺽정 활동의 성격과 영향

임꺽정의 활동은 반란으로 부를 만큼 당시로는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된 민중들의 저항이었다. 국왕이나 조정의 관리들은 이것을 매우 위급하고 중대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 '반란'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당시 왕과 집권 관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종 14년 3월 임꺽정의 활동이 처음 조정에 보고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대신들은 도적들을 모조리 잡아죽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명종 15년 11월 평산 어수동에서 관군들이 크게 패전하고 부장 연천령이 살해당하자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명종은 국위를 손상시키고 기강을 훼손한 한심한 노릇이라고 탄식하였다. 왕은 임꺽정 일당에 대하여 "이들은 좀도둑에 비할 바가 아니니 진실로 특별히 조치를 더해야 한다"고 하면서 임꺽정 집단을 "보통 도적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국왕과 관료들은 이들을 "반역질하는 악독한 도적"으로 지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임꺽정 일당을 체제도전적이 집단으로까지 느꼈던 것 같다.

임꺽정의 세력이 점치 확대대고 치열해지자, 명종은 마침내 임꺽정 일당을 '적국'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두려워하였다. 명종 16년에 들어서자 임꺽정의 저항이 해주에서 평산에 이르는 지역을 비롯해서 개성, 장단, 서울, 평양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명종은 임꺽정을 국사범으로 의식하고 체제도전적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임꺽정 일당이 국가전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 대응하는 조정으로서는 국가적인 위기로 파악하고 있었다. 물론 임꺽정 일당이 대부대로 전열을 갖추고 관군을 향해 정면으로 공격해온 적은 없었다. 그러나 당시 국왕과 관료들은 이들의 활동과 공격이 거세어지자 일종의 전쟁사태로까지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보위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대응했던 것이다.

임꺽정 일당은 봉건지배체제에 완전히 복속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체제 전반을 부정하고 나선 것도 아니었다. 비록 그들의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임꺽정의 무리는 군도의 성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군도란 농민들이 자기들의 생활기반을 벗어나서 무리를 지어 싸우는 형태의 집단을 말한다. 군도 형태는 국가적 지배체제로부터 이탈했다는 점에서 소극적 저항이었고, 또 집단적인 무장항쟁을 했다는 점에서는 적극적 저항이었지만, 대변혁을 이루기는 어려웠다.

임꺽정의 활동은 조선시대 민중저항의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민저항과 도적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임꺽정의 저항은 군도의 형태를 빌린 농민저항의 한 현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군도 형태는 중세사회에서의 민중저항의 한 현상으로 파악되는 것이고, 당시 관료들의 관점 역시 '모이면 도적, 흩어지면 백성'이라 한 것으로 보아 농민저항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꺽정의 난은 비록 도적의 활동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은 중세사회 민중저항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저항은 16세기 중엽에 들어오면서 격화된 사회경제적 모순을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훈구파 정권 말기에 만연했던 권세가나 내수사이 농장과 사유지 확대에 대한 저항이었다. 당시 기록에도 "도적이 생기는 것은 도적질하기 좋아해서가 아니라, 배고픔과 추위가 절박해서 부득이 도적이 되어 연명하려는 자가 많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천민층의 저항의식의 발로인만큼 봉건적인 지배질서에 저항한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교통로, 국가수취 운반로, 상업의 유통망 등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반란의 성격을 지닌 임꺽정의 활동은 하나의 민중적 저항의 한 모델이 되어 이후 군도의 형태를 띤 백성들의 저항운동에 지침이 되었다. 그 영향은 조선후기 장길산의 활동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신출귀몰한 장길산의 활동

소빙기의 자연재해와 도적의 발생

동, 서양학계를 막론하고 17세기 사회를 이해하는 주요 단서로 소빙기의 기후 환경을 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소빙기의 실제는 조선왕조실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670(현종11)의 대기근과 1695(숙종 21)부터 1699(숙종 25)까지의 대기근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시기에는 서리, 우박, 눈, 한파를 비롯하여 각종 냉해, 한발 혹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집중되었고, 연속적인 흉년으로 민중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1695년(숙종 21) 4월에 나라 전체에 큰 가뭄이 들었다. 거센 바람이 연이어 불고 서리가 여러 번 내려 보리와 밀이 여물지 않았으며, 파종 시기를 놓쳐 큰 흉년이 들었다. 그 해 가을에는 곡식을 추수할 계절이 되었는데도 곡식이 없어 떠돌아다나며 걸식하는 자가 길에 가득하였다. 다음해 봄이 오기도 전에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는 참혹한 지경이었다. 이렇게 되자 평안도의 굶주린 백성 이어둔은 실성하여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 또 용천부에서는 금춘과 예합이 양녀였던 기생을 짓눌러 죽이고 그 고기를 먹었다. 이억금은 초장을 파내어 시체의 옷을 벗겨 입고 그 고기를 먹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백성들의 굶주림이 날로 더해가자 조정에서는 서울과 각 고을에 진휼소를 설치하여 기민들을 구제하였다. 이곳을 찾아 먹으러 오는 자가 날로 늘어나 서울은 1만 명이 넘었고, 팔도에서 각각 수만 명이었다. 영남에서 올라온 보고는 기민이 56만여 명이라고 하였다. 굶어죽은 사람들을 합치면 수만 명이 되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겹치자 가을에는 물가가 150% 정도 앙등했고, 이듬해 보리 고개 철에는 600%로 폭등하였다.

1699년(숙종 25)에 완성한 호구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의 호구수는 129만 3083호이고, 인구는 577만 2300 명이었다. 이를 6년 전인 1693년(숙종 19)와 견주어보면 호구수는 25만 3391호가 감소되었고, 인구수는 141만 6274 명이 줄어들었다. 1695년(숙종 21) 이후 기근과 유행병이 참혹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청나게 인구가 격감된 것이다. 당시 인구의 25%-33% 정도가 자연재해로 희생된 것이다.

숙종은 온갖 노력을 다하여 백성들을 진휼하려고 노력하면서, "혹시라도 도적질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지만, 도적은 전국에서 벌떼같이 일어났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추위가 겹쳐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전국적으로 도둑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어 길에는 나그네가 거의 끊어질 지경이었다. 심지어 서울의 경복궁 신무문 밖에서도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의복

을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좌의정 유상운은 전국적으로 도적이 성하므로 토포사를 죽산에 더 설치하고, 강원도 토포사도 한 곳을 더 설치하자고 하였다. 영의정 남구만은 "황해도의 도적 피해가 타지방보다 심한데도 토포사가 없으니, 수령 중에서 토포사 몇 사람을 차출함이 마땅하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토포사만으로는 도적을 다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고체제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대폭 늘려서 도적을 잡고자 하였다. 병조에서는 도적을 잡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절목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적 5, 6명 이상을 잡은 평민과 한량은 권관에 제수하고, 무과 출신은 만호에 제수하며, 전직 조관은 그 자격과 명망에 따라 상당한 벼슬을 주고, 도적 중에서 자수한 자는 죽음을 면해주고 후한 상을 준다고 정하였다. 그후 조정에서는 포상규정을 고쳐 도적패 중에서 스스로 그 도당을 고발한 자들은 1-2명일 경우 고발한 자는 죄를 면하고 은 50냥을 주며, 3-4명을 고발한 자는 죄를 면제하고 명예직과 은 50냥을 주며, 5-6명을 고발한 자는 죄를 면제하고 명예직과 은 75냥을 주며, 7-8명을 고발한 자는 죄를 면제하고 명예직과 은 1백 냥을 주며, 10명 이상을 고발한 자는 죄를 면제하고 명예직과 150냥을 준다고 선포하였다.

장길산의 활동과 체포 작전

장길산은 광대 출신으로서, 광대놀이를 잘하고 용맹스러웠으므로 쉽게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가 있었다. 그는 처음에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하였는데, 조정에서는 1686년(숙종 12)에 특별히 신엽을 황해감사로 삼아 체포하게 하였다. 신엽은 그의 도당 한 명을 잡아 장길산의 은신처를 알아내어 체포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이 사실을 염탐하고 모두 달아나 실패하였다.

장길산은 1692년(숙종 18) 평안남도 양덕 부근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포도청의 장교를 파견하여 체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그의 행방은 묘연하였으나, 함경도 두만강 입구에 있는 서수라에서 활약한 것으로 보인다.

1695년(숙종 21)에는 명화적 수십 명이 기를 세우고 총을 쏘며 철원 읍의 인가에 돌입하여 약탈을 자행하였으나, 부사 황진문이 겁을 먹고 체포하지 못하였다. 이 명화적이 장길산 부대라는 확증은 없지만, 수십 명이 부대를 이루고 철원부사가 겁을 먹고 출동하여 잡지 못한 도적의 규모로 볼 때 장길산 일당이었을 것이다.

1697년(숙종 23)에 역적 모의의 고변이 있었는데, 이영창이라는 자가 금강산에 있는 승려 운부 및 장길산과 손을 잡고 거사를 도모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장길산은 서수라나 벽동 등지에서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마상으로 위장하여 무기를 뺏는 등 활동이 활발하였다.

숙종은 아연 긴장하여 장길산을 체포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극적 장길산은 날래고 사납기가 견줄 데가 없다. 여러 도로 왕래하여 그 무리들이 번성한데, 벌써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체포하려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교활함을 알 만하다. 지금 이영창의 초사를 관찰하니 더욱 통탄스럽다. 여러 도에 은밀히 신칙하여 있는 곳을 상세히 정탐하게 하고, 별도로 군사를 징발해서 체포하여 뒷날의 근심을 없애도록 하라." 조정에서는 여러 도에다 은밀히 밀지를 내려 감사와 장수들이 별도 방략을 세워 장길산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또 비변사에서는 은밀히 군대와 포도청에 명령하여 장길산을 잡으면 후한 상과 높은 벼슬을 아끼지 않겠다고 독려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지평에서 토포관이 살해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길산은

끝내 체포되지 않았다. 임꺽정은 체포되었는데, 장길산은 왜 잡히지 않았을까? 시대상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성호 이익은 조선시대의 3대 도적으로 홍길동, 임꺽정 그리고 장길산을 들었다.

임진왜란 와중에 일어난 변란 – 송유진과 이몽학의 난, 임진왜란과 시대상

2013.06.19 16:29

송유진의 난과 이몽학의 난은 임진왜란 도중에 일어난 반란이었다. 이 두 난은 임진왜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그 배경이 되었던 임진왜란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민중의 참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측면에서 왜군의 침입으로 야기되었던 임진왜란이야말로 조선시대 최대의 변란이었다. 이러한 미증유의 국난을 당한 당시 조정의 모습은 어떠하였던가? 왕과 신하들은 자신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이것이 전란 기간 내내 백성들이 조정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구실이 되었다. 조정에 대한 불신은 백성들의 저항운동으로 나타났다. 궁궐과 종묘를 불태운 것은 왜군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었다. 또 전국 도처에서 텅 빈 관아를 습격하거나 난동을 부리고 관물을 훔쳐가는 일도 많았다. 그들 중에서 본격적으로 조선왕실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혁명을 도모하였던 것이 송유진의 난과 이몽학의 난이었다.

일본은 조선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선조 25년(1592) 4월 14일에 28만 명의 대군을 동원하여 침략하였다. 선발대 1만 7천 명은 700여 척의 군선을 타고 4월 13일에 부산포에 상륙하였다. 부산첨사 정발과 동래부사 송상현이 죽음으로 항전하였지만, 중과부적으로 성이 함락되었고 그들도 장렬히 전사하였다. 적은 두 갈래로 나누어 진격하여 김해, 밀양 등을 함락시켰다. 조선은 2백여 년 동안 전쟁을 모르고 지냈으므로 관리들과 백성들은 왜적이 침입한다는 풍문만 듣고도 놀라 달아났다.

급보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조정에서는 이일을 순변사로 삼아 정예병을 이끌고 상주에 내려가 왜적을 막도록 하였으나, 이일은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패하여 혼자 달아났다. 조정은 다시 여진정벌에 공이 많은 신립을 삼도순변사로 삼아 왜적을 막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는 군사 요충지인 조령을 포기하고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항전하다가 처참하게 패배하였다.

충주 패전의 보고에 접한 선조는 서울을 버리고 파천하자는 말을 꺼냈지만, 대신과 중신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부당함을 진언하였다. 그들은 종묘와 궁궐이 있는 경성을 고수하면서 외부의 원군을 기다리자고 주장하였다. 우승지 신잡은 스스로 자결할지언정 선조의 뒤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수찬 박동현도 "전하께서 일단 도성을 나가시면, 인심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하의 연을 멘 인부도 길모퉁이에 연을 버려둔 채 달아날 것입니다"하고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상황을 말하였다.

선조는 "내가 여기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마땅히 경들과 더불어 목숨을 바칠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파천은 결정된 사실이었다. 6, 25사변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사수한다고 방송하면서, 정부는 이미 대전으로 천도했던 사실과 흡사하다.

4월 그믐날 선조는 평안도 쪽으로 피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호위하던 군사들은 모두 달아나고 궁문엔 자물쇠도 채워지지 않았다. 시각을 알리는 북소리마저 끊어졌다. 밤이 깊어 선조는 군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돈의문을 나가고 왕비는 걸어서 인화문을 나왔다. 밤

은 칠흑같이 어둡고 비까지 내려 지척을 분변할 수 없었는데, 도승지 이항복이 촛불을 잡고 앞을 인도하는 형편이었다.

선조의 행차가 지나가려 할 즈음 도성 안이 성난 백성들이 먼저 내탕고에 들어가 보물을 다투어 훔쳐갔다. 이윽고 선조가 떠나자 난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장례원과 형조를 불태웠다. 이 두 곳의 관서를 먼저 불태운 것은 공사 노비의 장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성이 창고도 크게 노략질하였고, 모두 불을 질러 흔적을 없앴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의 세 궁궐이 일시에 모두 타버렸다. 잔류 부대장격인 유도대장이 몇 사람의 목을 베어 군중을 경계시켰으나, 난민이 떼를 지어 일어나서 금지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새벽에 선조의 행차가 모래재를 넘었다.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려 일행이 비를 맞으며 벽제역에 이르러 벽제관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왕과 왕비의 반찬은 겨우 준비되었으나 급하게 임명되었던 동궁(광해군)은 반찬도 없었다. 병조판서 김응남이 흙탕물 속을 분주히 뛰어다녔으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따라왔던 많은 관리 중 다수는 도로 서울로 들어가 가족을 데리고 피난하기 바빴기 때문에 왕을 수행하는 관리는 백여 병도 되지 않았다.

선조의 행차는 저녁에 임진강 나루에 다달았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도선장을 밝혀줄 등불도 없었다. 마침 근처에 있던 빈 정자에 불을 질러 길을 밝힐 수 있었다. 파주 목사와 장단 부사가 임시로 주방을 마련하여 임금의 수라를 준비하였으나, 호위하던 군사들이 갑자기 난입하여 음식을 빼앗아 먹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선조가 굶게 되자, 장단 부사는 두려워 도망치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에 선조가 동파관을 출발하면서, 대신들을 불러 괴로운 듯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부르짖었다. "이산해야, 유성룡아!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꺼리거나 숨기지 말고 속에 있는 대로 털어놓고 말하라"하니, 여러 신하들이 엎드려 눈물만 흘리면서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도승지 이항복이 의주가 좋다고 건의하여 그곳으로 가기로 정하였다.

의주로 가는 도중에 선조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입국 허가를 요청하였고, 조정을 둘로 갈랐다. 젊고 건장한 신하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여 의주로 달아나고, 늙고 쇠약한 신하들은 세자인 광해군을 따르게 하여 전선에 투입하였다. 이를 분조라고 불렀다. 명나라에서는 선조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왕의 행차는 의주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와 같은 선조의 비겁한 행동과 조치는 관리들과 백성들의 비난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 선조가 세자에게 양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말로만 양위할 것처럼 하고 끝내 물러나지 않았다. 왕의 권위는 완전히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송유진과 이몽학의 난이 일어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임진왜란이었다. 임진왜란은 조선시대를 전, 후기 둘로 나누는 분수령이 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왜군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왕이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 파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권위와 통제력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몽학의 난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천안의 송유진이 난을 일으킨 것을 필두로, 각지에서 백성들이 반란을 꾀하였다.

둘째로는 국가 재정의 궁핍을 들 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관군만으로는 왜군을 막기 어려워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명나라의 원병들이 오게 되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탄난 형편에 많은 의병과 명군에게 군량미를 공급하고, 말먹이를 대는 일은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왜군에게 약탈당하고 국가에 수탈당하여 끼니를 이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면 당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기근이 극도에 이르러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굶어죽은 시체에 완전히 붙어 있는 살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을 도살하여 내장과 골수까지 꺼내 먹었다."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식인종화되는 사태까지 발생했겠는가?

셋째로는 신분 질서의 혼란을 들 수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국가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란을 막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왜군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서얼이나 양인, 노비를 막론하고 전공에 따라 파격적으로 신분 상승과 해방을 약속하였다. 또 국가에서는 부족한 군량미를 충당하기 위하여 납속(곡식 기부)을 받고 노비는 상민으로, 상민은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노비나 백성들은 신분 해방이나 상승의 호기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바람을 쉽게 성취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송유진이나 이몽학과 같은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호언장담으로 백성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송유진의 난

정권 장악을 기도하다

임진왜란 중에는 크고 작은 반란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선조 26년(1953)에 일어난 송유진의 난과, 29년(1596)에 일어난 이몽학의 난이 가장 두드러진다. 왜란 초기의 산발적인 소요는 신분해방을 위해 일어났다고는 해도, 전란을 틈탄 우발적인 사건이었으며 비조직적인 행동이었다. 또 이러한 행위는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던 적의 세력권 안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직접 왕정의 전복을 겨냥한 반란은 아니었다.

그러나 송유진, 이몽학의 난은 그 규모나 조직면에서 양상이 판이했다. 이 두 반란은 왜군이 화의를 조건으로 이미 남쪽으로 철수하여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던 충청도 지역에서 일어났다. 반란의 주모자들도 정면으로 왕권을 타도하고 새 나라를 수립하여 백성을 도탄에서 구제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송유진은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직 군량과 기계를 모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몽학은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임란 초기 감사 수령들의 수탈과 혹사에 불만을 품었던 민중들의 폭동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왜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바라만 보다가 흩어지는 관원과 장수들을 증오하였던 것이다.

송유진의 난은 당초 선조 27년(1954) 정월 대보름에 일당을 이끌고 거사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충청도 일대를 주무대로 한 이 반란음모는 본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다른 지역에까지도 상당한 동조세력을 갖고 있었다.

반란이 발각되기 전에 송유진 일당의 포진상황을 보면 1진은 청계산에, 1진은 지리산에, 1진은 속리산에, 1진은 광덕산에 포진하는 등 여러 산골짜기에 분포된 자가 2천여 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진술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여러 지역에 그들의 동조자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송유진과 같이 거사를 계획하다가 배반하여 그를 체포하는 데 앞장섰던 홍우는 선조의 문초에서 "유진의 흉칙한 정상으로는 그 군사가 10명이면 1백명이라 하고, 1백명이면 1천명이라고 일컫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방관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란세력들이 서로 연계되기 전에 발각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충청도 조도어사 강첨이 조정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반란군들 중에는 양반과 무관들도

섞여 있었으며, 이들이 반란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천안에서는 무기를 관리하던 관원이 송유진 일당에 사로잡히기도 하였고, 본 고을 사람 중에서도 자진하여 적중에 들어가는 자도 있었다. 중앙 정부는 천안의 군기감관 송망기 등이 반군에게 사로잡힌 사건을 중시하여, 선전관을 급히 파견하여 송망기의 거처를 탐지하는 한편, 병사 변양준과 순변사 이일 등에 명하여 비밀리에 탐문토록 하였다.

송유진은 충청도 천안과 직산 사이를 왕래하면서 서울의 수비가 허술함을 알았고, 의병장을 사칭하여 반란세력을 규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때 지리산, 속리산, 청계산 등지에 은신하고 있는 그들 일당의 수가 2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들은 군량미와 무기를 수집하여 양을 많이 비축하였다. 그들은 먼저 각처의 반란세력과 약속하고 군사를 움직여 아산, 평택의 무기고를 기습하여 명기를 탈취하였고, 그 뒤 서울에 침입하기 위해 언제 먼저 전주에 밀서를 보내 국가 전복을 꾀하였다

송유진의 체포와 사건의 마무리

조정에서는 송유진이 전주에 밀서를 보낸 같은 날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포고문을 지방에 선포하였다.

1. 수령이 사려가 깊고 담력이 있는 자를 가려서 반란세력에 침투시켜 적의 동태를 자세히 살필 것.
2. 충청도에 장수 한 사람을 고정 배치시켜 반적을 체포하고 토벌하는 일을 일임할 것.
3. 반적 중에 귀순하는 자는 죄를 면해주고, 반적의 두목을 체포하거나 목을 베는 사람은 후히 포상한다.

충청병사 변양걸은 송유진 등이 반도를 규합하여 무기, 군량을 갖추어 서울을 침입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를 인솔하여 온양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주모자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송유진 일당의 거사가 사전에 실패하게 된 것은 진천에 사는 무사 김응룡의 계책 때문이었다. 그는 조카뻘 되는 홍각이 반란 주모자이 심복이 되어 종사관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홍각을 직산의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 위협하는 한편, 이해타산을 따지며 그를 설득시켰다. 그리하여 반도들의 실상을 파악한 후 홍각으로 하여금 송유진을 꾀어내게 하였다. 송유진은 홍각의 거짓 초청에 응하여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함께 왔다. 김응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사 홍우 등과 함께 송유진 일당을 포박하는 데 성공하였다.

선조는 송유진 등의 체포 소식을 들었으나 안심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송유진이 스스로 판서라고 사칭한 때문에, 그 위에 괴수가 있으리라고 우려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선조는 서울의 각 성문을 철저히 지키게 하는 한편 한강의 경비를 엄격히 하게 하였다. 또 남산 위에는 장수와 병졸들로 대오를 짜서 주야로 망을 보게 하였다. 송유진 일당을 체포했다고 하여 반란세력에 대한 방비가 해이해지는 것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또 병조에 명하여 장사들을 모아 부대를 편성시켜 대기시켰고, 조경을 포수대장으로 삼았다. 이와는 별도로 금군대장을 두어 함께 입직시키게 하고, 좌우영에 있는 화기, 화약, 궁시, 검창 등을 모두 대궐 안 군기시로 들여놓아 방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용산창에는 용맹한 군사를 배치하여 항시 계엄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영의정 유성룡과 병조판서 이덕형으로 하여금 대궐 안에서 숙직토록 하고, 모든 일을 수시로 변통하여 대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송유진의 반란음모 이외에는 더 이상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된 송유진의 송치 문제를 두고 조정의 중신들간에 구구한 논쟁이 있었다. 현지에서 처단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로 압송하여 국문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많은 논란

끝에 송유진을 서울로 압송하기로 하고, 선전관, 금군, 도사 등을 보내어 뱃길을 이용하여 10여 일 만에 서울로 압송하였다.

그리하여 대궐 뜰에서 국문이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대신과 양사의 장관만이 참석토록 하였는데, 송유진 일당과 무관한 사람들의 억울한 옥사를 막기 위하여 전일 송유진 일당으로 자수하여 송유진을 포박하는 데 공을 세운 직산의 홍응기와 부장 송난생 등 7인을 입회하도록 하였다.

정월 24일 국문이 시작되자, 송유진은 처음 진술할 때 자신이 괴수가 아니고 적괴는 바로 이산겸이라고 둘러대었다. 그 자신은 홍근에게 의탁하여 아동들을 모아 훈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발뺌하였다. 그러나 주모자 격인 김천수, 오원종, 유춘복 등을 국문한 결과, 괴수는 송유진과 오원종으로 밝혀졌다.수원에 살았던 오원종은 침을 잘 놓는 한의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접촉하면서 그들을 포섭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정월 15일 반란을 일으켜서 서울로 침범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한다.

송유진은 나라가 위태하고 어지러운 시기를 틈타 관원들의 인신과 공문을 위조하여 백성들을 속이고 유혹하였다. 그리고 무기와 군량을 탈취하여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꾀하고 여러 곳에 반군을 결성하였다. 그는 오원종이 "서울이 허술하여 임금이 있는 곳은 모두 울타리로 둘러쳤으므로, 2백 명의 군졸만으로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을 믿고 서울을 침범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는 오원종과 함께 통유문을 돌리고 군대명부를 작성하고, 유춘복을 돌격대장으로 삼았다. 그들은 평상시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백동은 황동이라 부르고, 대동은 소동이라고 부르는 등, 암호나 중국어를 사용하여 비밀조직을 확대해나가다가 체포 처형되었다.

이 난에 연루되어 처형된 사람은 송유진을 비롯하여 오원종, 김천수, 유춘복, 김언상, 송만복, 이추, 김영 등 16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능지처참당하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가 1명, 추국을 받다가 사망한 자가 1명으로 모두 18명이었다. 그들의 가재, 전답, 잡물 등은 그를 체포하는 데 공을 세운 홍응기 등에게 분배되었다. 그밖에 이 난에 연루되어 추국을 받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들 중에는 송유진 일당에게 속아서 빠져든 의병장, 현직 관원, 양반 등 광범한 인물들이 체포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산겸, 여대로, 노일개, 조원, 신응희, 김달효, 조희진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석방되었으나, 이산겸만은 반란의 동모자라는 죄명을 입고 끝내 구제되지 못하였다.

이산겸은 충청도 보령 사람으로 이지함의 서자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조헌의 휘하에서 종사하였다. 조헌이 금산싸움에서 전사하자 흩어진 병졸들을 수습하여 평택, 진위 등지에서 싸웠고, 건의대장 심수경의 지휘를 받았다. 그는 여러 지역으로 의병을 이끌고 다녔으나 그리 큰 전과를 올리지는 못하였다. 그는 한때 의병을 해산시키고 본가로 돌아간 적도 있었으나, 송유진 일당에게 연루되어 잡혀올 때는 소수의 의병을 거느리고 전라도에 있을 때였다. 이산겸이 적괴라는 말은 송유진과 그의 일당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이산겸이 구속되자 그 영향이 중앙정계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부수찬 정엽은 군졸과 군량미를 수집하러 지방에 있을 때 의병장 이산겸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벼슬길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 신곡과 신기일 등은 이산겸의 장인, 처남 사이로 추국에 말려들었다.

이산겸이 반란에 가담했는지의 여부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적괴라는 진술을 끝까지 부인하였고, 송유진 일당을 잡아들이게 한 홍응기, 홍각 등도 이산겸과 대질한 결과 그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보면 그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듯싶다.

한편 송유진 일당 체포에 공을 세운 사람들은 많은 포상을 받았다. 적정을 고발한 직산 좌수 임달신, 송유진 등 10명을 체포한 홍응개, 홍난생, 홍우, 신계축, 홍찬, 김응추, 홍각 등에게는 차등 있게 관직과 상이 주어졌다. 그밖에도 충청병사 변양걸이 반적 체포에 공이 크

다 하여 승진시켰고, 국문을 담당했던 신하들도 모두 포상하였다. 그런데 홍각은 같은 해 12 월에 다시 송유진의 일당으로 지목되어 삭탈관직되고 노비와 전택은 몰수되었으며, 추국을 받다가 매에 못 견디어 죽었다.

임진왜란 와중에 일어난 변란 - 송유진과 이몽학의 난, 임진왜란과 시대상(2)

2013.06.19 16:31

이몽학의 난

이몽학은 어떤 인물인가?

필자는 어린 시절에 충남 부여 홍산에서 자랐다. 그곳에는 이몽학에 관한 전설과 유적이 많이 나아 있다. '이몽학 오뉘이의 힘겨루기' 전설이나, '이몽학의 용마 이야기', '이몽학이 축지법을 사용했다'는 전설 등이 그것이다. 홍산에는 여기저기에 패어 있는 연못이 많은데, 이것이 모두 이몽학이 반역했다가 역적으로 몰리자, 그와 일가 친척의 집이 모두 파가저택(역적의 집터를 헐고 그곳을 파서 연못을 만드는 것)당한 유적들이라고 하였다.

이몽학은 1596년(선조 29)에 충청도 홍산에서 군사를 모아 난을 일으켰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에도 그곳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며, 또 그 내용을 조금 아는 촌로들도 좀처럼 일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반역!"

역적으로 몰린다는 것은 온 동네가 시공을 초월하여 벌벌 떨 만큼 끔찍한 일인 것이다. 필자는 어렸을 때 이몽학의 전설을 들으면서 그를 영웅시하고 마음으로 동경하였다. 필자가 들었던 이몽학 오뉘이의 힘겨루기 전설은 다음과 같다.

"이몽학은 홀어머니와 누이 세 식구가 살았다. 이몽학은 힘이 장사였으나, 지혜는 누이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누이는 이몽학이 자기의 힘센 것만 믿고 언제나 거만한 점을 늘 걱정하였다. 반면 이몽학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누이의 지혜를 누를 수 있을까 궁금하였다. 그들은 종종 힘과 지혜 겨루기 내기를 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누이는 목숨을 건 내기를 하였다.

이몽학은 나막신을 신고 일주일 걸리는 서울 나들이를 하루 만에 다녀오고, 그 사이에 누이는 10리 성을 쌓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 내기에서 지는 사람은 목을 베기로 한 살벌한 시합이었다. 드디어 운명의 시합은 시작되었다. 해가 거의 질 무렵 누이는 쉽게 성을 완성하고 막 성문을 매달려는 참이었다. 옆에서 이를 구경하던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남매가 늘 경쟁상대였기 때문에 이 시합에서 지는 사람은 틀림없이 죽을 터였다. 어머니는 아들보다는 딸이 죽은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재빨리 팥죽 한 동이를 쑤어서 딸에게 먹으라고 권하였다. 딸은 어머니의 의도를 빤히 알았지만 어머니의 뜻대로 팥죽을 받아먹었다. 뜨거운 팥죽을 식혀서 조금 먹으려는데 이몽학이 들이닥쳤다. 이몽학은 누이가 성을 다 완성하지 못했음을 확인한 후 비정하게도 누이의 목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 지금도 은산에 가면 그의 누이가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렸다는 팥죽땅이 있다." 위 전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몽학은 힘이 세고 고집도 세었지만, 지혜는 모자랐던 것 같다. 누이는 이 점을 늘 걱정하고 마지막 목숨을 건 시합에서 이겨서 동생의 기를 꺾고 반역을 사전에 막아보려고 시도했던 것 같다. 아니면 이몽학의 재능을 아끼고 사랑하는 현지인들의 아쉬움에서 지어

낸 전설인지도 모른다.

거사를 일으키다

이몽학은 왕족인 전주이씨의 서자로서, 임란시 충청도에서 종군할 때 조련장관이 되었다. 그는 홍산 무량사에 머물면서 뒷날 반군의 선봉장이 된 한현 등과 친교를 맺었다. 이몽학은 힘이 장사였지만 지혜가 모자라 한현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는 꾀가 많고 세상일에 밝았다.

당시 조정에서는 (기효신서)의 속오법을 가지고 군사를 배치하고 기량을 훈련시켰다. 한현은 권인룡, 김시약 등과 함께 모두 서인으로 응모하여 함께 선봉장이라 호칭하였다. 그들은 어사 이시발에 소속되어 충청도의 군사훈련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민심이 이반하여 백성들이 탄식과 원망으로 차 있고, 크고 작은 고을의 방비가 모두 허술함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틈을 타서 난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때 한현은 마침 부친상을 당하여 홍주에 있다가, 우선 이몽학을 시켜 거사하도록 하고 자신은 내포에서 서로 호응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몽학은 무량사의 굴 속에서 중들과 함께 깃발과 무기를 만들었다. 충청도에는 흔히 동갑회를 만드는 풍속이 있었다. 동갑회란 노소와 귀천을 막론하고 동갑마다 깃발을 세우고 그 갑년을 써놓으면 무리들은 각자 그 동갑을 찾아 모여들어 술을 마시며 즐기는 친목 모임이다. 이몽학 등은 그들 패거리를 시켜 계를 만든다고 선전하고 사람들을 동네 어귀 들판으로 모이게 했다. 그리고 이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였다.

이몽학은 이와 같이 무량사에서 군대를 모은 후 출병하여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마치 대장군처럼 깃발을 세우고 의자에 앉아 뿔피리를 불고 북을 치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동갑 모임 중에서 미리 정한 장정이 나와 칼을 뽑아 들고 무리를 선동하였다. 이몽학은 그들에게 "이번에 일으킨 의거는 백성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이다. 거역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고 일장 연설을 하셨다. 무리들은 모두들 좋다고 환호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마다 스스로 고관대작이 될 것으로 여기고, 성불이 세상에 나왔다고 추앙하였다.

이몽학은 승려와 무기들을 장군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문관과 무관 등의 높은 관직을 멋대로 나누어주니 양반 자체와 무뢰배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사전 준비를 다 마친 이몽학은 1597년(선조29조) 7월 6일 밤에 김경창, 이구, 장후재, 승려 능운, 사노 팽종 등과 함께 1000여 명의 반군을 동원하여 홍산현을 습격, 현감 윤영현을 사로잡은 데 이어 또 임천 군수 박진국도 사로잡았다. 이들은 모두 항복하여 이몽학에게 붙었으므로 이몽학은 그들을 높은 빈사로 대우했다.

그들은 다음날 잇따라 정산을 함락하니, 현감 정천경은 몸만 빠져 도주하였다. 이어 8일에는 청양을 함락하자 현감 윤승서는 도주했고, 9일에는 대흥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반란이 일어난 지 3일 후에야 충청도 순안어사 이시발은 홍산에서 일어난 변란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보고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정산 현감 정천경의 보고에, '이달 7일 승려와 속인 및 군사 등 무려 1천여 명이 홍산 땅 쌍방축에 모여 진을 치고, 바로 홍산 고을로 가서 현감을 끌어내 군법을 시행하고 인신을 가져와 바치도록 했으며 군기를 수색해냈다. 심지어는 호각을 불며 기치를 들고서 임천까지 행군하였으며, 또한 관아로 돌입하여 군수를 끌어내 목을 묶고 조목을 받들게 하여 적들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고 했습니다. 보고 듣기에 지극히 놀라운 일이므로, 사실이고 아니고 간에 보고받은 대로 긴급 보고하는 한편,

가까운 고을의 포수와 살수들을 징발하여 토벌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접한 조정에서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합동작전을 펴서 반군을 진압하라고 지시하였다. 조정에서는 옛날부터 황건적이나 홍두적이 당초에는 별것 아니었으나, 나중에는 점점 불어나서 천하의 환란이 된 것
을 상기하면서 반란군을 조기에 일망타진하고자 하였다.
비변사에서는 반란군을 토벌하는 계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1. 반군들이 오랫동안 음모를 꾸미고 다른 도당들과 연합하였을 것이므로 치밀한 계획으로 대처해야 함.
2. 지난날 송유진의 난을 진압했을 때와 같이 그 도당을 이간시켜 자체 안에서 서로 도모하게 하여 체포하는 것이 용이할 것임.
3. 사람들은 상이 중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공을 세우게 마련이므로, 이러한 사람을 가려뽑아 다방면으로 계책을 마련해야 함.

이러한 건의에 대하여 선조도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반란군은 거사 3일만에 6개 고을을 함락시켰으므로 기세가 대단하였다. 수령들은 먼저 도망치고 아전과 백성들은 반란군의 호령에 따랐다. 그들은 술과 음식을 차려서 반란군을 대접하였고 다투어 그들에게 가세하였다. 이에 인근의 백성들은 소문만 듣고도 호미를 던지고 그들에게 투항하는 자가 줄을 잇게 되었다. 그리하여 반군의 수는 한때 수만 명에 달하였다. 반란군은 "충용장 김덕경과 의병장 이덕형이 서울에서 내응한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자 나라 전체가 놀라 민심이 술렁거리게 되었다.

부여 현감 허수겸 같은 자는 반란군이 경내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을 먹었다. 그는 부하들이 무기를 반군에게 반출하는 것을 알고도 막지 못하였고, 반군이 도착하자 모든 공문서를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또 서산군수 이충길은 그의 동생 3인을 반란군에게 파견하여 돕기도 하였다.

이몽학은 짧은 기간에 6개 군현을 점령하자 용기백배하여 "곧장 서울로 향한다"고 큰소리쳤다. 그래서 부근에서 제일 큰 고을인 홍주목을 공격하였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원래 이몽학의 모사였던 한현은 서얼 출신으로서 영악스럽고 꾀가 많았다. 그는 이몽학에게 "승승장구하는 바람을 타고 곧장 서울로 침공하는 것이 상책이요. 주위의 성곽 없는 약한 고을을 공격하는 것이 중책이요, 견고한 홍주를 진격하는 것이 하책이라"고 건의한 적이 있었다. 당시 한현은 초상을 당하여 홍주로 가고 없었는데, 이몽학은 그의 계책을 따르지 않고 곧장 홍주를 공격하다가 대패하게 되었다.

홍주성을 지키던 목사 홍가신은 일찍부터 명망이 높았으며, 행실이 청렴결백한 것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 있었다. 그는 홍주 목사에 제수되자 정성을 다해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군사를 훈련시켰다. 그래서 왜적이 홍주성에 쳐들어오자 단번에 무찔러 흩어지게 함으로써 충청도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낸 적이 있었다.

갑작스럽게 반란군의 침입을 당한 홍주 목사 홍가신은 민병을 모으는 한편, 그곳에 사는 무장 임득의, 박명현과 전 병사 신경행 등을 불러 성을 지킬 대비책을 논의하였다. 그들은 우선 성 밖에 연이어 있는 민간 초가집들을 불화살을 쏘아 모두 태워버렸다. 그대로 놓아두면 적들이 비를 피하고 밥을 해먹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때 홍주목 인근의 남포 현감 박도선은 변란 소문을 듣고 충청수사 최호에게 급히 알려 수군을 동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사 최호는 수군은 육지에서 싸우는 병사가 아니라고 난색을 표했다. 박동선은 큰 소리로 "지금이 정말 어느 때인데 수군과 육군의 다른 점을 따지는가"고 윽박지른 끝에, 드디어 수영에 있는 군병을 모두 동원하여 홍주목을 후원하였다. 또 보령 현감 황응성도 군사를 소집하여 함께 홍주성에 합세하였다.

홍주성은 이들 원병을 얻자 크게 사기가 오르게 되었다. 그들은 밤이 되자 성가퀴에 횃불을 벌려 세워 성 안팎을 환히 밝히고 군사력을 과시하였다. 반군들은 관군의 증원군이 속속 도착하여 기세를 올리자, 성을 함락시킬 수 없음을 알고 어둠을 타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몽학은 "한현이 오게 되면 목사의 머리를 베어서 깃대에 매달아놓겠다"고 큰소리치면서도, 이튿날에는 군대를 이끌고 덕산 길로 후퇴하였다. 그러면서 "장차 김덕령, 홍계남의 군대와 함께 합류하여 곧장 서울로 쳐들어가겠다"고 떠벌였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비로소 그의 말을 불신하기 시작하였고, 도중에서 도망치는 자가 속출하였다. 이 틈을 노려 박명현, 최호 등이 바짝 반군을 추격하여 압박을 가하였다. 또 전주 판관의 부하였던 윤성이 적진에 돌진하여 "적장의 목을 베어 오는 자는 화를 면하고 상을 받을 것이다"고 선무공작을 폈다.

연속적인 패배로 반란군은 더이상 이몽학의 말을 믿지 않고, 각자 자기들의 살 길만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중 김경창, 임억명, 태근 등 3인이 배신하여 이몽학의 막사로 난입해 누워 있던 그의 목과 사지를 베어 관군에게 헌납하였다. 그러자 반란군은 일시에 흩어졌다. 머리와 수족이 잘린 이몽학의 시체는 서울로 압송되어, 종로 철물전 앞에 3일 동안 효수된 후 사방으로 보내 전시되었다.

한현은 반군의 실패 기미를 미리 알고 몰래 면천군으로 도망쳤다가 면천 군수 이원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다. 그는 결국 능지처사당하였는데, 심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넣었다. 당시 쟁쟁한 의병장이었던 김덕령, 곽재우, 고언백, 홍계남 등을 모두 끌고들어갔던 것이.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 무고였기 때문에 불문에 부쳤는데, 김덕령만이 잡혀가 심한 고문 끝에 죽었다.

한현의 아들 한의연은 역시 당고개에서 교수형당했으며, 이몽학의 삼촌인 이익, 김양호의 삼촌인 김환생, 한현의 조카 한호연 등은 모두 삼수와 갑산 지역으로 귀양갔다. 이몽학이 살던 집은 파가저택되었고, 그가 살던 홍산현은 혁파되고 말았다. 이 때 능지처사당한 사람이 33명이었으며, 서울로 송치된 자는 1백여 명이었다. 처형된 자들의 가족은 모두 법에 따라 연좌시키고, 가산을 몰수당하였다.

반란군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던 수령들도 탄핵을 다하였다. 부여 현감 허수연은 역적들이 지경을 범하지도 않았는데도, 제 스스로 먼저 겁을 내어 그의 하인들이 반군들에게 무기를 실어보내는 데도 감히 손을 쓰지 못하였다. 반군들이 쳐들어와 문서를 펴놓고 읽을 적에도 그대로 듣고 있다가 마치 애걸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처벌을 받았다. 임천 군수였던 박진국과 홍산 현감이었던 윤영현 등은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었지만, 수령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반군에게 협조한 죄목으로 치죄하게 되었다.

홍산의 역모에 관련되어 체포된 반란군의 수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서울로 잡아오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조정에서는 도원수 권율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그가 현지에 머무르면서 반군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난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선조는 비변사의 건의대로 민심을 추스리기 위하여 승지 유희서를 보내 반군의 협박에 의해 협력한 사람은 죄를 다스리지 않겠다는 뜻을 선포하여 나머지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데 힘썼다. 민심을 위무하기 위하여 반란 지역을 다녀온 유희서가 보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가 부여와 임천 등 고을을 순회하며 백성들을 모아 놓고 조정의 선의를 전달하며 염려하지 말고 각기 생업에 전념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모두들 "역적의 변이 난 뒤부터 감사, 병사, 수사의 군관들이 역접을 잡는다는 핑계로 마을에 돌입하여 남자들을 무조건 결박해 가므로 모두 두려워서 산골짜기로 숨게 되었다. 집에 있는 재물은 역적의 장물이라고 닥치는

대로 모두 거두어가므로 동리가 쓸쓸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반란을 겪은 고을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 알 수 있다. 백성들은 또한 관원들이 말을 징발하는 폐단에 넌더리를 내고 있었다. 그 동안 죄인의 송치나 선전관 등의 연락을 위하여 도로 연변의 마을들은 민폐가 많았다. 그들은 적당들이 거의 모두 잡혔으므로 도시와 선전관을 요란하게 자주 내려보내지 않는다면 좋겠다고 하소연하였다.

대사령을 내리고 공신을 봉하다

난을 진압한 후 선조는 대사령을 내려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답답하게도 끔찍한 왜란을 당하여 큰 원수를 갚지 못하고 큰 치욕을 씻지 못하였다. 비록 너희들 신민의 위에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슬프고 답답한 심회가 마치 곤궁한 사람이 의지할 데 없는 것과 같았다. 이번 역적들의 변란은 이 어려운 때에 일어나니, 그 까닭은 진실로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린 탓이다. 마음이 아프고 얼굴이 부끄러워 진실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너희들 신민들은 골수와 고혈이 이미 모두 빠져버렸는데 세금은 더욱 높아갔고, 근력은 이미 지쳤는데도 징역은 더욱 급해갔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형편이 조금 낫다고 하나, 부역의 고통이 더욱 심하였고, 형벌을 사용함이 지나치고 혹독하였다. 백성들이 역적들의 간사한 말에 쉽게 빠져든 것이 어찌 그들의 본성이겠는가. 종범은 너그럽게 다스린다는 방침에 특별히 진념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선처하지 못하여 옥석구분의 화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거듭 백성들에게 죄를 얻었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슬프다. 앞으로는 일 하나 행동 하나에도 백성을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힘쓸 것이다. 백성에게 근심이나 해를 끼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부역이 가볍고 조세가 줄어들어 정치는 안정되고 백성은 편안해져서 융성한 정치로 함께 나아가게 하겠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정에서는 공신들을 대대적으로 봉하였는데, 이몽학의 난의 토버자도 모두 공신으로 봉하였다. 서울에서 의주까지 시종 왕을 호위한 관원들은 호성공신으로 봉하였고, 왜적을 토벌한 여러 장군들과 군량을 주청하러 간 사신들은 선무공신으로 삼았고, 이몽학의 난을 토벌한 관원들은 청난공신으로 봉하였다. 이들을 임란 3공신이라고 부른다. 공신은 모두 3등급으로 나누고 차등 있게 공신의 봉호를 내렸다.

이몽학의 난을 토벌한 관원들도 호성공신이나 선무공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중에도 청난공신은 1등에 홍가신, 2등에 박명현, 최호, 3등에 신경행, 임득의 등 모두 5인이었다.

이몽학의 난에 두목급을 체포하여 전공을 세운 사람들도 후한 상을 받았다. 그중에서 홍산 복병장 이수담은 능운을 잡았고, 홍주의 생원 이익빈은 팽종을 잡았다. 전 군수 이형남과 군공정 박모르금 및 청용관 김효남 등은 모천지를 잡았고, 전 판관 이용침은 정붕을 잡았다. 정산의 교생 김경서는 장후재를 잡았고, 전 현감 한덕수는 이구를 잡았고, 김경복은 강봉을 잡았다.

조선초기 최대의 반란 – 이시애의 난

2013.06.19 16:27

이시애의 난이란?

1467년(세조13년) 5월 10일 함경도에서 일어난 이시애(?-1467)의 난은 조선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반란이었다. 이 난에는 이시애를 중심으로 반란군 약 2만여 명, 조정의 토벌군 약 5만여 명이 동원되었고, 약 4개월 동안 한반도의 북부 일대를 진동시켰다. 이 난은 유향소를 중심으로 결집되었던 토호층들이 이시애의 선동에 따라 일으킨 것이며, 여기에 농민들이 호응하여 큰 세력을 이루게 되었다. 반란군은 10여 일 이내에 함경도의 남부 7개 읍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방관들을 살해하고, 홍원 이북 2만 명의 군민들을 결집하여 대규모의 반란 주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먼저 관군 약 3만여 명을 파견하여 일시에 진압코자 하였다. 그러나 반군의 위세와 교묘한 작전으로 고전을 거듭하다가 4개월 여를 지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몇 차례의 대전투를 치른 후인 8월 12일 이시애 일당을 처형함으로써 간신히 난을 진압할 수 있었다.

이 반란의 핵심 세력은 이시애와 이명효 등 함경도 각 지방 토호들이었고, 그들의 지배 아래 있던 예속민들과 일반 농민들이 호응하였다. 그러나 반란세력이 호응을 기대하였던 여진족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함경도 일대에는 토착 세력들의 향촌 지배력이 강하였고, 여진족 마을들과 인접하여 중앙중부의 통치권 행사에 많은 장애가 있었다. 그러나 이 난의 진압을 계기로 유력 토착세력이 거의 소멸되어 이후 조선왕조의 이 지방에 대한 통치에 안정을 가져오게 되었다.

중앙의 통제와 높아진 토호들의 불만

이시애 난을 바라보는 일부의 시각에 의하면, 이는 함경도 지방 농민들이 봉건지배와 가혹한 수취체제에 대항하여 일으킨 봉기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흔히 함경도 농민들의 과도한 조세 부담과 지배층의 착취론에 근거하고 있다. 즉 1465-1466년에 시행된 양전사업과 호패법으로 전세가 가중되고 군역이 확대되면서 양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또 중앙에 바치는 공납의 부담이 커지면서 농민들에 대한 착취가 심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신세포와 여진족을 위한 뒤치다꺼리의 부담 등, 다른 지방에 없는 부담까지도 더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과 수탈은 세조의 권력 찬탈과정에서 자행된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세조의 반대파 숙청과정에서 일어난 살인과 적몰을 속죄하기 위해 사찰을 창건하고 도첩을 실시하며 사원에 수세지를 할양하는 등, 불교를 지원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양민에게 전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난의 발생이나 전개 과정을 보면, 어느 곳에도 농민들의 봉기나 자발적인 참여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함경도 농민들의 부담이란 것은 다른 지역의 농민들에 비하

여 특별히 과중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선왕조의 주된 재정적 기반은 항상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즉 삼남지방에 있었으며, 그만큼 수탈도 이 지역에서 더 많이 행해졌다. 신세포와 같은 것이 강원도에도 있었던 것이며, 이런 종류의 잡부금은 다른 지역에서도 언제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함경도 농민들에 대한 조정의 수취나 부담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것이 그들을 자발적으로 봉기하게 한 요인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시애 난은 어디까지나 이 지역의 토호들이 결탁하여 일으킨 것이며, 그 원인은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이 지방 토호들의 중앙 정부에 대한 불만과 반감에 있었다.

함경도 지방은 고려시대 이래 중앙정부의 통치권이 잘 미치지 않았다. 이 대문에 이 지방의 토호들은 이성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지방민들을 그들의 사적 예속민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중앙의 통제가 적은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개국하는 과정에서 여진족과 함께 중요한 군사력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왕조가 개창된 이후에는 퉁두란 등 극소수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정치, 사회적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왕권이 점차 안정되어가면서 그들에 대한 통제와 압박은 심해지게 되었다. 특히 세조 때 전국적인 왕권의 확장과 중앙집권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지방의 토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커지게 되었다.

종전까지는 함경도 각 고을의 수령들을 이 지방의 명사들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조가 집권한 이후로, 특히 1453년 함길도도절제사 이징옥의 난이 일어난 이후에는 지방관들을 점차 중앙에서 파견하게 되었다. 이시애 자신도 회령절제사(부사)로 있다가 해임된 사람이었다. 이 때문에 토호들의 불만은 커지게 되었고, 남도 출신 지방관들과 은연중 반목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부는 초기에 일경수세법을 시행하고 군역의 배정을 적게 하여 가능한 한 함경도인들을 자극하지 않고 회유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그러나 15세기 중엽부터는 점차 중앙집권적 통치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455년에는 삼남지방에 대한 전면적인 양전사업이 시행되고, 1465-1466년에는 함경도에도 양전사업과 호패법이 시행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군역이 확장되고, 생산이 감소하면서 농민들이 견디지 못하고 유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함경도의 농민들은 사실상 그 대부분이 토호들의 예속민들이었으므로, 토호들의 사회 경제적 불안과 불만은 커지게 되었다. 토호들의 예속민들은 종전에는 군역과 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호패법의 실시로 인해 각종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는 토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토호들에게 국가부담을 급격하게 늘이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예속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었다.

호패법의 시행에 의한 군액의 증가는 농민들의 부담을 증대시키기도 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토호들의 지배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이 무렵 오랫동안 이성계 일가가 함경도에 가지고 있던 방대한 예속민들은 본궁(이성계의 생가를 개조한 사당) 노비로 개편되었고, 후에는 내수사에 속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들과 군 지휘관들은 토호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많아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 때문에 토호들의 아지트였던 유향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반정부 음모가 진행되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여진인들의 동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함경도 지방에는 조선초기부터 중앙정부에 대해 일정한 저항 내지 군사적 봉기의 전통이 있었다. 고려말 함흥의 토호였던 이성계가 발호하여 고려를 타도하고 새 왕조를 개창한 한 것은 군사적 성공의 가장 모범적인 선례가 된 것이었다. 그것을 위시하여 1402(태종2)에는

안변부사 조사의 등의 난의 일으켜 상당히 위세를 올린 적이 있었으며, 1453년에는 함길도 도절제사 이징옥이 난을 일으켰다가 패한 적도 있었다. 이징옥의 난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저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난은 함경도인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군사적 행동에 대한 선례가 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함경도를 휩쓸다

이시애는 길주의 토착 지배층으로서 검교문하부사의 직함을 가졌던 이원경의 손자이며, 함길도 첨절제사를 지낸 인화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대대로 길주에서 살아온 토호로서, 그 일족이 함경도 일대에 널리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도 처음에는 북방민 회유 정책에 따라 중용되었다. 1451년(문종1) 호군이 되었고, 1458년에는 경흥진 병마절제사를 거쳐 첨지중부부사 겸 판회령사를 역임하였다. 그러나 그는 세조의 즉위 이후 함경도 토호들에 대한 특혜의 축소와 통제책으로 불안과 불만에 차 있었다. 그는 1467년 모친상을 당하여 칩거하던 중 아우 시합과 매부 이명효 등과 함께 반란을 꾀하였다.

그들은 5월 10일 거사하기 이전에 함경도 전역의 유향소를 통하여 동조세력을 조직하고 민심을 선동하는 공작을 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각 고을 토호들에게 통지하여 지방관들과 남부지방에서 파견되거나 여행 온 사람들을 처치하고 봉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들이 유포한 유언비어는 대체로 "경성 후라도에 충청도 병선이 나타나 여진과 함께 하여 함경도를 공격하고 있다. 조정에서는 평안도 황해도의 병사를 보내어 설한령과 철령을 넘어 쳐들어와 함경도 사람을 다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전 공작을 한 다음, 1467년 5월 10일 이시애 등은 길주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함경도절도사 강효문과 길주 목사 설정신, 판관, 북평사 그리고 부령부사 김익수 등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함경도 전역의 백성들에게 이시애가 세조의 명을 받들어, 중앙관료들과 결탁한 반신들을 척결하였고, 자신이 왕명으로 신임 함경도절도사에 임명되었다고 거짓 선전하고 궐기를 요청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정에 사람을 보내어 본도 절도사 강효문이 한명회, 권남, 신숙주 등과 결탁하여 진장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자 이시애가 그들을 처형한 의거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별도로 사람들을 시켜 함경도 백성들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와언이 분분하므로, 본도인으로 수령을 삼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유향소의 토호들과 농민들이 대거 호응하여 성세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10여일 이내에 남부 7개 읍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방관들을 제거하고 홍원 이북 2만 명의 군민들이 결집되었다. 그들은 서울이나 삼남 지방에서 온 외지인들을 다수 살해하기도 하였다. 함경도 지방의 농민들은 일상적으로 무기를 사용해온 사람들이었으므로, 반군은 단번에 무시할 수 없는 전투력을 갖춘 군사 집단이 되었다.

난의 초기에는 조정이나 함경도인들이나 이 난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반란의 주창자가 강효문인지 이시애인지 혼동하기도 하였다. 함경도민들도 대부분 난이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이시애가 세조의 특명을 받은 관군 지휘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한명회와 신숙주 등이 강효문과 내통한 것인지, 이시애와 내통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그들을 엄중하게 감금하였다. 이러한 교묘한 기만작전은 이시애 일당에게 대규모 반군의 동원을 가능케 하였고, 초동 진압의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

결국 5월 17일에야 조정에서는 토벌군을 편성하였다. 왕족인 18세의 구성군 이준을 4도병마도통사에, 호조판서 조석문을 부총사에, 허종을 함경도절도사에, 강순, 어유소, 남이 등을 토벌대장에 임명하여 18일에 2만여 명의 관군을 출정시켰다. 그와 동시에 조정에서는 단천 사람 최윤손을 보내어 반군들을 달래고자 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조정의 기밀을 반군에게

상세히 전달하여 낭패를 빚기도 하였다.

반군은 단천 북청 홍원으로 남하하면서 지방관들을 죽이고 세력을 규합하였다. 그리하여 함흥을 점령하고 관찰사 신면을 죽이는 한편, 체찰사 윤자운을 사로잡으면서 기세를 올렸다. 관군은 철원에서 10여 일간 지체하면서 철령을 넘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었다. 이에 세조는 강순에게 평안도 병사 3천 명을 더 주어 영흥으로, 병조판서 박중선에게는 황해도 군사 500명을 주어 문천으로 진격하게 사고, 어유소에게는 서울 군사 1천 명을 추가 지원하였다. 그들은 5월 15일 회양으로 진출하여 해산 권유문을 반포하고, 반군 지휘자들의 체포에 현상금을 걸였다. 6월 1일에 윤자운이 도망해오자 구성군은 철령을 넘어 안변에 들어가고, 관군은 함흥에서 관망하며 차유령을 방어하고 있었다. 또 허종은 영흥으로 들어가 포위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동안 이시애군은 간간이 출몰하여 관군의 동태를 시험하고 있었다. 한때는 이시합의 군대 2400명이 홍원에서 관군과 정면 충돌하였다가 축출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시합이 종성 사람 차운혁에게 사로잡히기도 하였으나 계교를 써서 탈주하였다. 6월 중순에 관군이 함흥에 진입하게 되자, 세조는 비로소 이시애와 난의 정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숙주 등을 석방하였다. 또한 삼남에서 군사를 징발해 추가로 파병하고 친정을 호언하면서 독전하였다. 이시애 일당은 난의 중도에서 조정과 타협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강경하게 치닫는 진압책에 크게 당황하게 되었다. 그들은 결국 함흥에서 물러나 북청에 주둔하면서 시일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격전과 패주

6월 19일에 이시합과 이명효 등은 2만 명을 거느리고 북청읍으로 진출하였다가 여울고개로 퇴각하고, 이시애는 북청 두어소에 주둔하면서 관군을 유인하였다. 이에 관군은 6월 22일 북청으로 진출하여 목책과 녹각(사슴뿔 모양의 목제 장애물)을 설치하고, 참호를 파며 대비하였다. 6월 24일 밤에 이시애군은 3중으로 포위공격을 단행하여 10여 차례나 공격하였으나, 관군의 용이한 작전으로 실패하고 휴전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관군과 반군은 동시에 북청에서 퇴각하였다. 이후 이시애는 이명효를 시켜 홍원 서쪽 신익평에 주둔하여 관군의 진출을 막고, 이시합은 미어령을 넘어 2진을 형성하는 한편, 자신은 회령 이북인들을 이끌고 대문령을 넘어 열녀문평에 주둔하면서 관군의 자멸을 기다리고 있었다.

관군은 북청에서 후퇴하여 1, 2, 3진으로 나누어 장기전에 대비하게 되었다. 약 1개월간의 교착상태에서 이명효군은 북청에 재진입하였고, 이시애는 이성 방면에 주둔하면서, 마운령 단천 마천령에 부루를 쌓고 방어작전을 폈다. 7월 22일이 되자 관군이 먼저 석장령 방어선에 진입하고, 1진은 함관령을 넘어 홍원읍에 진출하였다. 그들은 25일 한밤중에 산개령과 종개령의 반군을 치고 넘어 북청으로 재진입하였다. 이에 이명효의 반군은 북청에서 퇴각하여 동쪽 만령으로 진을 이동하게 되었다. 만령은 15리의 장진으로서 남으로 동해, 북으로 태산을 등진 천험의 요새였다. 이곳이 마지막 결전장이 되었다. 이때 반군의 수는 많이 줄어 5천여 명이 이곳에서 웅거하고 있었다.

8월 4일 관군은 이원 거산역에 진출하여 목책을 치고 반군과 대치하였다. 며칠 후 그들은 만령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역로길 중봉, 큰길 종봉, 바닷가 동쪽 고개, 북산 아래로 5갈래로 나누어 진격하였다. 이시애는 중봉에 2천 명을 3중으로 배치하여 결전을 지휘하였다. 관군은 험난한 지형과 반군의 완강한 저항에 봉착하여 고전하였으나, 어유소군이 해안에 면한 동봉으로 몰래 진격하여 이시애군의 좌측 허를 찔러 방어선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반군은 대량의 희상자를 내고 동으로 퇴각하였다.

관군은 8월 1일 이성으로 추격하였고, 이시애 등은 마운령을 넘어 단천 쪽으로 달아났다. 관군은 계속 추격하여, 8월 8일 마운령을 넘어 영제원에 포진하면서, 반군과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이에 이시애는 몰래 단천으로 도망하였다가, 여진 지역으로 가기 위해 길주를 거쳐 경성으로 달아났다. 이때까지도 거의 부하들 중에는 그를 조정에서 임명한 절도사로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성의 건가퇴에서 이시애 등은 관군의 계략에 빠져 체포되었다. 즉 허종 휘하에서 종군하던 경성인 허유례가 거짓 항복하는 체하고 적진에 들어가, 이시애의 부하인 이주, 황생 등을 설득하였던 것이다. 결국 그들이 이시애와 이시합 등을 납치하여 관군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8월 12일 처형되고, 반군은 완전히 해산하였다. 달수로 4개월만에 겨우 진압된 것이다. 난의 진압에 참가하였던 구성군 등 41명은 전공에 따라 포상을 받고 공신에 책봉되었다. 이를 적개공신이라고 한다.

이 반란에서 이시애군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병력의 열세를 들 수 있다. 한 지역의 반군은 전국적 규모의 관군에 끝까지 대항하기 어려웠다. 반군은 다른 사례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대량 모집되었고, 그들은 또한 무기의 사용에 숙달된 전사들이었으나, 많았을 때가 2만여 명 가량이었다. 이에 비하여 관군은 출정 때부터 2만여 명의 규모였고, 점차 증강되어 마지막에는 거의 5만여 명에 육박하였다. 또한 10만여 명의 예비병력이 강원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우세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의 실패 원인은, 무엇보다도 반란의 명분이 정대하고 뚜렷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교사회에서는 도덕적 명분이나 대의가 표방되지 않으면 큰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시애 일당이 내세운 것은 남부지방 관료들의 책동에 의한 함경도인들의 말살과 편파적 착취라는 지역감정의 고취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왕에 충성한다는 기묘한 이중 구호를 가지고 지방민들을 기만하였다. 반란의 초기부터 교묘하게 적용하였던 선동과 현란한 기만술은 초동 단계에서는 성공하였지만, 기초적인 명분과 성실성을 상실함으로서 실패를 초래하였다.

셋째, 반군 지도부의 주축이 되었던 토호층과 농민층 군사들 사이에 공통적인 이념이나 공감대가 적었던 것도 하나의 실패 원인이 되었다. 토호들의 봉기는 점차 상실되어가던 그들의 기득권 쟁취를 위한 것이었고, 농민들이 이에 호응한 것은 과중한 수탈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러나 농민 자신들이 토호들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의 지휘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궁극적인 목표나 이해관계는 상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또 조정의 착취나 농민들의 부담도 그들의 불만을 폭발시킬 만큼 극대화되지는 않았다. 사실 농민층으로서는 당시까지도 봉기를 일으킬 만큼 모순이 극대화되어 있지는 않았고, 이 때문에 확고한 이념이나 구호가 성숙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토호층과 농민층의 유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웠다.

넷째, 반군 지휘자들의 무능에 의한 작전 실패나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 그들은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지 못하였고, 중요한 작전에서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시애 등은 조정과 향민들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기만적인 선동을 일삼는 한편, 애첩인 기생을 대동하고 다니는 등 도덕적 해이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반란의 궁극적인 실패 원인이 된 것이다.

함경도에서 혹심한 반란을 겪은 세조는 이 지역에 대한 통제책을 강화하는 한편 무마책도 아울러 시행하였다. 조정에서는 잔류 병력을 각 고을에 주둔시켜 이시애 잔당을 수색하여 처벌하는 한편, 함경도의 무기를 평안도와 서울로 옮겨 후환에 대비하였다. 세조는 중앙집권 정책을 가속화하여 북도의 유향소를 폐지하고, 함길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 관찰사와 병사 1인씩을 증파하여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길주는 길성현으로 강등되었다.

조정에서는 함경도인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존무사를 파견하여 민정을 시찰하고, 전세와 부역, 진상, 공물, 신세포 등을 면제하였다. 이러한 조정의 통제책과 무마책은 대체로 성공하여 이후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대규모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다.

왕위에 올랐다고 가통까지 이은 것은 아니다 - 예송논쟁(1)

2013.06.19 15:05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의 상복은?

효종의 시신을 둘러싼 이런 소동들은 모두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소동을 겪고도 효종의 시신은 조용히 땅속에 묻히지 못했다. 그가 세상에 남긴 북벌의 한이 너무 커서 그를 조용히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장장 전후 15년에 걸친 예송논쟁이 일어나는데, 그의 사후 15년째는 중국 남쪽에서 오삼계가 청나라 타도를 기치로 군사를 일으킨 해란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효종의 뒤를 이은 인물은 만 18세의 외아들 현종이었다. 그는 효종 사후 4일 만에 예조에서 새 왕의 즉위절목을 올리니 화를 내며 물리쳤다.

"지금이 어떤 때이고 이것이 어떠한 거조인데 분명히 계품하지 않은 채 감히 택일하여 들인단 말인가."

백관과 삼사에서 "성복하는 날 뒤를 잇는 것은 조종께서 이미 행해온 예법"이라고 주장하자 다시 사양했다.

"예법이 중대하기는 하지만 정 또한 폐할 수 없는 것이다. 경들은 어찌하여 나의 망극한 회포를 돌아보지 않는가. 결코 억지로 정리를 억제하면서 이를 거행할 수는 없다."

이런 실랑이를 거쳐 세자는 드디어 즉위하지만 그가 정작 싸워야 할 일은 선왕의 빈전 앞에서 즉위할 수 있느냐 여부가 아니라 예송논쟁이란 거대한 암운이라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효종이 승하했을 때 효종의 계모의 자의대비 조씨가 살아 있었던 것이 제1차 예송논쟁의 시발이었다. 그녀의 상복 착용 기간이 문제가 된 사건이 바로 제1차 예송논쟁이다. 인조는 반정을 일으키기 13년 전인 1610년 영돈녕부사 한준겸의 딸과 결혼했으니 그녀가 인렬왕후 한씨였다. 그녀는 소현,봉림,인평,용성대군 등 4남을 낳고 인조 13년(1635) 사망했고, 인조는 그 3년 후인 영돈녕부사 양주 조씨 창원의 딸과 재혼했다. 그녀가 바로 장렬왕후 조씨이다.

인조의 나이는 만43세였고 그녀의 나이는 만14세였다. 인조가 사망함으로써 대비가 된 그녀는 효종2년 자의라는 존호를 받아 자의대비가 되었다. 자의대비는 효종보다 5살이나 어렸다. 만30세의 효종이 즉위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만25세였다. 10년을 재위한 효종이 죽었을 때 겨우 만 35세였다. 나이는 어렸지만 인조와 국혼을 올렸으니 효종에게 법적인 어머니였다. 이 법적인 어머니 자의대비 조씨가 아들인 효종의 국상 때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 제1차 예송논쟁이었다. 1659년인 기해년에 벌어졌다 해서 기해예송, 상복문제로 논쟁했다 하여 기해복제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 이 예송논쟁 자체에 대해 냉소적 인식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식민지 시대일인 학자들이 이를 당파싸움 망국론의 중요한 전거로 사용한 데 큰 요인이 있다.

현재의 잣대로 보아 상복을 얼마 동안 입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선사회에서 종법은 현대국가의 헌법과 같고, 예는 현대국가의 공법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예송논쟁이 국가의 부강이나 백성들의 민생을 둘러싼 논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예론이 정권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게 대두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임진,병자 양란 이후 신분제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에 위기감을 느낀 사대부들이 수구적인 예론으로 지배질서를 계속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억울하게 비명에 간 소현세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왕가의 왕통은 일반 사대부가의 종통과 다른 차원의 질서인가 아니면 같은 성격의 질서인가 하는 서인과 남인이 시각차가 있었는데, 바로 이 점이 예송을 정권 차원의 논쟁으로 격상시킨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예송논쟁이 지닌 정치적 폭발력

조선의 예법은 조선의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 그리고 중국의 '주례', '주자가례' 등 중국의 예론을 복합해 만든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상복에는 다섯 종류가 있는데 3년복인 참최와 3년 또는 1년복인 재최, 9개월복인 대공, 5개월복인 소공, 그리고 3개월복인 시

마가 그것이었다. 부모상에 자식은 장자(맏아들), 중자(맏아들 이외의 여러 아들)를 막론하고 무조건 3년복이었으므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가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자와 중자의 경우 달랐고, 바로 이 점이 논쟁의 발단이었다.

맏아들인 장자상에는 부모도 3년복을 입게 되어 있었으나 차자 이하는 1년복을 입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가통을 잇는 장자를 그만큼 우대한 것이다. 며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장자부(맏며느리)의 상에는 1년복을 입게 되어 있으나 중자부(기타 며느리)의 상에는 9개월복을 입는 것이 예법이었다.

퇴계 이황이 '퇴계가훈'에서 이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 이를 보자.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상장을 짚고 한 해 동안 재최복(1년복)을 입고, 맏아들의 경우는 참최 3년을 입고, 맏며느리의 복은 한해 동안 재최복을 입으며, 다른 아들의 경우는 1년복, 다른 며느리의 경우 9개월복을 입는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1차 예송논쟁은 간단하게 말해 효종이 승하했을 때 모후 자의대비가 장자의 예를 따라 3년복을 입어야 하는지 아니면 차자의 예를 따라 1년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었다.

15년 후의 제2차 예송논쟁은 효종비 인선왕후가 승하 했을 때 역시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자의대비가 장자부의 예에 따라 1년복을 입어야 하는지 차자부의 예에 따라 9개월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었던 것이다.

임금이지만 장자가 아니니

효종이 승하했을 때 장례를 주관하는 예조판서 윤강과 참판 윤순지는 현종에게 자의대비의 복제 기간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이 물음이 장장 15년 간에 걸친 예송논쟁의 시발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의 질문은 소박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자의대비의 상복 착용 기간에 대해서 '국조오례의'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혹은 3년복이라고 하고 혹은 1년복이라고 하는데, 결정할 만한 예문이 없으니, 대신과 유신들에게 의논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시 만 열여덟 살의 현종으로서는 갑작스런 부왕의 죽음에 경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만큼 예론에 대한 지식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대신과 유신들에게 의논해 아뢰라고 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명령에 따라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심지원, 영돈녕부사 이경석, 연양부원군 이시백, 완남부원군 이후원, 영중추 원두표 등의 대신들이 복제 문제를 상의한 후 헌의했다.

"신 등이 옛 예법에 능통하지는 못하지만 시왕의 제도로 상고해 보니 대왕대비께서는 1년복을 입으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자의대비의 복제는 3년이 아니라 1년복이 맞다는 주장이었다. 현종은 국왕이 승하했는데 3년복이 아니라 1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대신들의 현의에 불만을 가졌다. 왕조국가에서 임금이 승하했는데 어째서 3년복이 아니라 1년복이냐는 생각이었다. 현종이 1년복으로 결정하기 전에 송시열과 송준길에게 다시 의논하게 한 것은 이런 불만 때문이었다.

현종이 생각하기에 양송은 유학으로 발탁된 유신자 예학의 계승자로서의 학문적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왕으로부터 지극한 총애를 받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3년설을 지지할까 해서 묻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양송에 대한 현종의 소박한 믿음일 뿐이었다.

송시열과 송준길은 현종의 하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여러 대신들이 이미 시왕의 제도로 결정하기로 의논했으니 신 등은 감히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1년복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의례'의 (상복소)에 '비록 승중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죽었을 때 3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대왕(효종)이 비록 왕통을 이었으나 다음 적자 서열이니 이번 국상에 대왕대비께서 입으실 복제는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증중이란 조상의 제사 받드는 중임을 이어받거나 장손으로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을 말하는데, 양송이 여기에서 쓴 승중이란 전자를 뜻한다. 즉 효종이 소현세자의 뒤를 이은 차자지만 역대 선왕 등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중임을 이어받은 임금이란 뜻이다. 그러나 결국 장자가 아니니 아무리 임금이라 해도 자의대비 복제는 3년복이 아닌 1년복이라는 의미였다.

송시열.송준길의 견해는 비록 임금이라 해도 예법에 초월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왕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남인들의 공세와 송시열의 사종지설

서인대신들은 물론 양송 같은 유신들도 1년설을 주장하자 자의 대비의 복제는 1년으로 결정되는 분위기였다. 대신들의 견해에 예학의 정통 대가들이 가세했으니 그 견해를 반박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쟁쟁한 대신들과 양송의 견해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인물이 있었다. 남인

의 논객 전 지평 윤휴였다. 그는 '의례주소'와 '상복참최장'의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 상복 입는 기간'에 대한 가씨의 주를 인용해 송시열의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를 가소라 하는데 이는 '의례'정현의 주에 붙인 당나라 가공언의 소를 말한다.

윤휴는 처음부터 상소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서인 이시백에게 편지를 보내 1년설을 반박했다.

"가씨 주에 '장자가 죽으면 적처소생의 둘째 아들을 대신 세워 역시 장자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왕대비께서는 당연히 3년복을 입으셔야 마땅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상 정태화는 송시열을 불러 의논했다. 송시열은 역시 윤휴가 인용한 '의례주소' '상복참최장'의 가씨 주를 들어 윤휴의 논의를 반박했다.

"'의례주소'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그 아래에 '적처가 낳은 둘째 아들도 역시 서자라고 칭한다'는 말이 있소. 즉 '서자"란 첩의 아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아닌 모든 아들을 뜻하는 말이오."

송시열은 이어서 '부모가 3년복을 입지 못하는 네가지 경우(사종지설)이 있다고 말했다. 그 유명한 사종지설로서 훗날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구절이다.

"첫 번째는 정체이나 승중(제사를 받드는 것)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장자가 병이 있어 제사를 받들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장자가 병이나 기타 사유로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차자나 손자가 제사를 승중했을 경우 장자가 죽었어도 부모는 3년복을 입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여기에서 '정'이란 적자와 적손을 뜻하는 말이고 '체"란 직접 혈통을 이은 것을 뜻하는 말이다.

"두 번째는 승중하였으나 정체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서손이 후사를 이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송시열은 문제의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다.

"세 번째는 체이부정이니 서자를 내세워 후사를 삼은 경우입니다."

바로 이 체이부정이 효종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선왕이자 현왕의 아버지인 효종을 '서자'나 '부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왕조국가에서 지극히 민감한 문제이고 그만큼 위험한 일 일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남인들은 바로 이 체이부정을 문제 삼아 송시열을 공격하게 된다. 송시열이 서슴없이 '체이부정'이란 말을 입에 담는 데 정태화는 경악했다. 이런 정태화의 놀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송시열은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네 번째 경에 대해 설명했다.

"네 번째는 '정이불체'로서 적손이 후사를 이은 경우를 뜻합니다. 즉 할아버지가 손자의 상에 3년복을 입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남인들이 편찬한 '현종실록'은 이때 송시열이 이런 말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조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소현의 아들은 바로 '정이불체'이고 대행대왕(효종)은 '체이부정'인 셈입니다."

그러자 정태화가 깜짝 놀라 손을 흔들며 말을 못하게 하고 말한다.

"예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소현에게 아들이 있는데, 누가 감히 그 설을 인용하여 지금 논의하는 예의 증거로 삼겠습니까? '예경'의 깊은 뜻은 나는 깜깜합니다만, 국조 이래로는 아버지가 아들 상에 모두 1년복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내 뜻은 '국제'을 쓰고 싶습니다."

정태화가 손사래를 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정태화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예로부터 왕가의 일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데서 비롯되더라도 나중에는 큰 화를 이룬 것이 한 둘이 아니오. 만일 훗날에 간사한 자가 나타나 '체이부정'이란 말을 가지고 화단을 만든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화를 당한 후에도 나라 일이 어디에 이를지 알 수 없소."

예송논쟁의 폭발성이 바로 소현세자의 아들과 효종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송시열이 기해독대 때 소현세자 빈 강빈의 신원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사건이었다. 이 당시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 석견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종법에는 장자가 죽었을 경우 동생이 아닌 장손이 종통을 잇게 되어 있었다. 적장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도 적장자의 동생이 종통을 잇지 않고 양자를 들여 종통을 잇는 것이 조선의 종법이었다. 이는 비단 일반 사대부가만이 아니라 왕가에도 적용되는 왕위 계승의 법칙이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동생인 봉림대군이 아니라 소현의 맏아들인 석철이 종통을 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인조는 소현세자를 죽인 지 6개월도 안된 1645년(인조23) 9월 봉립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그리고 그 4년 후인 인조 27년(1649)에는 봉림대군의 아들을 왕세손으로 책봉했다.

이는 자신이 죽은 후 종통 시비가 일어날 것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었으나 그만큼 봉림대군의 종통계승이 궁색했음을 말해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송시열과 송준길이 대표하는 살림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구나 이 뒤에 벌어진 강빈 사건은 산림이 볼 때 명백한 위법이었다.

송준길이 인조 23년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을 때 병을 청탁해 나아가지는 않으면서 상소를 올려 소현세자와 원손 석철의 문제를 거론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소현세자의 장례는 예법에 어긋났습니다. 또한 원손을 보양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인조의 수하는 봉림대군이 아니라 소현세자의 큰아들인 석철이 이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인조는 이 상소에 격분해 송준길에게 제수한 관직을 거두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아마 송준길이 산림의 영수가 아니었으면 호되게 처벌당했을 것이다.

앞서 소현세자의 사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설명했듯이 인조는 소현세자 상사 때 대신들이 1년으로 의정한 것을 역월법을 적용해 12일 만에 복제를 마치려 하다가 한 등급 더 감해 7일만에 상례를 마침으로써 송준길에게 뼈아픈 상소를 받았다.

송시열이 예로 든 인조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소현세자의 아들을 '체이부정'이라는 말은 민감하기 그지없는 사안이었다. 남인 장령 허목이 현종 1년 3월 올린 상소문에서 말한 대로

"서자를 후사로 세운 경우가 '체이부정'이고, 적손을 후사로 세운 경우가 '정이불체'였으니, 이 논리대로면 체이부정인 효종과 정이불체인 소현세자의 아들 석견 중 누가 정통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정이불체인 석견이 정통이라면 현 임금인 현종의 계위는 부당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예송논쟁은 효종뿐만 아니라 현종의 왕위 계승이 정당한가라는, 핵폭발에 버금갈 폭발력을 지진 민감한 문제였던 것이다.

예송논쟁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례 문제에 지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변칙적으로 왕위를 계승한 효종의 종통이 정당한가하는 문제이자, 당시 신분제 사회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현안으로 등장한 서얼허통 문제나 노비종모법 문제등 여러 가지 사회 개혁 현안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송시열의 '체이부정' '정이불체'에 놀란 정태화가 ''국제'을 쓰고 싶다'고 말한 것은 정태화 특유의 절충안이었다. '국제', 즉 '경국대전'에는 장자와 차자의 구별 없이 아들의 상사에는 부모가 모두 1년복을 입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태화는 소현세자의 아들이 살아 있는데 '체이부정'따위의 말을 쓸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송시열도 한발 물러섰다.

"사종지설을 인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그렇게 하지요. '국제'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대명률'도 장자.차자를 막론하고 모두 기년(1년)복을 입게 되어 있소. 이를 인용해 기년복으로 결정하면 근거도 있고 성인이 주나라를 따른 뜻에도 합당하지 않겠소."

즉 속마음은 효종이 인조의 적장자가 아니라는 '체이부정'을 들어 1년복을 주장하고 싶지만 이는 효종의 종통을 부인했다는 역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자.차자를 구분 않고 1년복으로 정한 '대명률'과 '국제(경국대전)'를 인용하자는 말이었다. 말하자면 일종의 편법으로 자의대비에게 1년복을 입히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로 한 것이다.

송시열은 이 편법이 15년 후에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성인이 주나라를 따른 뜻'이란 말은 공자가, "주나라의 문물이 하 나라나 은 나라보다 빛나므로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문물이 높은 명 나라의 '대명률'을 따르겠다는 뜻으로서 친명 사대주의자다운 발상이었다. 정태화와 송시열이 합의한 사실은 곧 서인의 당론으로 확정되었다. 새로 즉위한현종도'대명률'과 '국제'에 1년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또 집권당인 서인들이 모두 1년설을 주장하므로 그대로 따르게 했다. 그러나 남인 윤휴는 송시열 못지 않는 자기 이론이 있는 인물이었다.

게다가 유학의 경전 해석 문제를 두고 송시열과 사문난적 논쟁을 벌인 구원이 있던 터였다. 그는 이시백을 통해 송시열의 논리를 듣고 다시 자신의 논리를 가다듬었다. 윤휴는 '의례주소'의 '내종은 외종과 같다(내종유외종)'는 소를 인용하며 재차 반론을 펼쳤다.

"내종은 다 참최복(3년복)을 입으니 대비의 복은 마땅히 3년복이어야 합니다."

송시열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종의 부녀는 모두신하이다. 따라서 임금에게 감히 촌수를 계산하지 못하고 모두 3년복을 입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왕대비는 선대왕(효종)께서 신하로서 섬기던 분이다. 어찌 신하인 내종의 다른 부녀들처럼 참최복을 입는단 말인가? 당연히 1년복을 입어야 한다."

윤휴의 반박도 계속되었다.

"주나라 무왕은 어머니이자 문왕의 비인 문모를 신하로 삼았다."

주 무왕이 어머니를 신하로 삼은 전례가 있다는 말이었다.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이었다. 주나라 무왕은, "나는 열 명의 어진 신하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공자는 이에 대해 "그 중에 부인이 한 사람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무왕이나 공자는 그 부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아 후세의 학자들은 그 부인을 어머니인 문모로 보기도 하고 무왕의 아내인 읍강으로 보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던 조항이었다.

박학한 송시열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다. 송시열은 주자의 말을 인용해 반박에 나섰다.

"주자가 이미 유시독 말을 인용해 '아들이 어머니를 신하로 삼는 의리는 없다'면서 '옛글에 있는 그 말은 어머니인 문모가 아니라 자기 처

인 읍강을 뜻한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후세 사람이 어찌 감히 주자의 이 말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윤휴 또한 지지 않았다.

"임금의 예는 일반 사대부나 서인과 다르다" 논란이 격화되면서 곤혹스런 처지에 빠진 인물은 현종이었다. 그는 속으로 3년복이 맞다고 여겼겠지만 이 논란이 계속될 경우 왕실의 권위에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여겼다.

논란이 계속되고 논쟁이 효종의 정통성 여부에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우선 '국제'에 의거해 1년복으로 결정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또한 '국제'에 따른 1년복의 결정이 현종으로서도 크게 불리할 바 없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현종은 '국제'에 장자와 차자의 구별이 없으므로 효종이 적통과 종통을 이은 인물로서 1년복을 입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즉적통에 따라 1년복을 입는 것이라고 자위했던 것이다. 내심으로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송시열 등 서인은 효종이 차자이기 때문에 1년복을 입는 것이라고 여겼다. 즉 현종은 명실상부하게 '국제'대로 한 것이라고 믿은 반면 서인은 겉으로는 '국제'를 인용했으나 속마음으로는 차자의 복인 '고례'를 적용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같은 1년복을 놓고 서로 달리 생각한 이 계산법의 충돌이 15년 후의 제2차 예송논쟁이었다. 그러나 제2차 예송은 17년 후의 일이고 당장 제1차 예송논쟁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왕위에 올랐다고 가통까지 이은 것은 아니다 - 예송논쟁(2)

2013.06.19 15:06

적자라는 호칭은 임금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송시열의 정적들-예론의 대가 허목

자의대비의 복제가 서인들의 주장대로 1년으로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던 현종 1년 3월 한 남인 논객이 논쟁에 뛰어들어 예송논쟁을 재연시켰다. 정4품인 사헌부 장령 미수 허목이었다.

허목은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나이 50이 넘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로, 초야에 묻혀 제자백가에 대해 연구하다가 다시 예학에 몰두하여 이 방면의 일가를 이루
었다. 그가 학문의 고명함을 인정받아 조정에 나온 것은 효종 8년(1657), 그의 나이 만62세 때였다. 자신의 호대로 눈썹이 긴 늙은이 일때 조정에 나온 것이었다. 그는 처음 정5품 사헌
부 지평을 제수받았다가 이듬해 장령으로 승진했다. 그가 현종 3년 3월 고향에서 올린 상소문이 논쟁을 재연시켰다.

"신이 국상 성복의 예에 있어, '예관이 맡은 일이고, 당연히 예로부터 내려온 국가 전례가 있겠지'라고 여겨, 다만 동료들과 함께 국상의 잘못만을 논했었는데, 시골로 돌아온 후 본현을 통하여 대신들이 의논하여 정한 이어시(새 임금이 즉위하는 시기)의 절목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대왕대비께서 기년 복제를 입으시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초상 때라서 너무 황급한 나머지 예를 의논한 제신들이 혹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그러한 실수가 있었던 것인지요?"

자의대비의 1년복이 당황한 대신들의 실수가 아니냐는 대단한 자신감이었다. 허목의 논의는 크게 보아 두 가지였다. 하나는 왕가의 예법은 일반 사대부와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자가 죽으면 본처 소생의 차자가 장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의례' 주소에서 정현은 '장자는 위아래로 통하는 호칭이다. 적자라는 호칭은 오직 대부. 사에게만 해당되지 천자와 제후에게는 통하지 않고 또 태자라고 말하여도 위아래로 통하지 않는다. 장자로 적통을 세운다고 한 것은 적처가 낳은 자식은 모두가 적자로서, 만약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가 낳은 둘째 아들을 세우고 즉시 장자로 명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만약 적자라고 말하면 이는 오직 첫째 아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장자라고 말하면 적통을 장자로 세운다는 것을 통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위아래로 통하는 호칭이다' 라는 말은 장자가 맏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사를 이은 사람을 뜻한다는 말이다. 더구나 적자라는 칭호는 사대부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임금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니 장자와 서자, 또는 적자의 구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이었다. 자의대비의 1년복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적자에서 적자로 이어졌을 때 그를 일러 '정체'라 하여 3년복을 입을 수 있고, 중자로서 계통을 이은 자도 같습니다. 서자를 세워 후사를 삼았을 때는 그를 일러 '체이부정'이라 하고 따라서 3년을 입을수 없는데, 그는 첩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장자'이기는 일반인데 장자로 적통을 세웠을 때는 3년, 서자를 세워 후사를 삼았을 때는 1년을 입는 것은 적자에서 적자로 이어지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뜻입니다."

허목은 송시열 등 1년복으로 정한 서인들의 아픈 곳을 찔렀다.

"소현이 세상을 일찍 뜨고 효종이 인조의 둘째 장자로서 이미 종묘를 이었으니, 대왕대비께서 효종을 위하여 재최 3년을 입어야 할 것은 예제로 보아 의심할 것이 없는 일인데, 지금 강등을 하여 기년 복제로 한 것입니다. 대체로 3년의 복은 아버지를 위하여 입는데 아버지는 지극히 높기 때문이고, 임금을 위하여 입는데 임금도 지극히 높기 때문이며, 장자를 위하여 입는데 그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정통을 이을 사람이고 또 앞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종묘를 맡을 사람이므로, 그것을 중히 여겨 그런 것입니다. 지금 효종으로 말하면 대왕대비에게는 이미 적자이고 또 조계를 밟아 왕위에 올라 존엄한 '정체'인데, 그의 복제에 있어서는 '체이부정'으로 3년을 입을 수 없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으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일인지 신으로서는 모를 일입니다."

그의 논리는 본처 자식과 첩의 자식을 구분하는 말이 적자, 서자이고, 맏아들이 죽어 둘째 아들이 승중하면 그가 장자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효종은 당연히 장자이고 또 임금이니 당연히 자의대비는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국가의 큰 상사는 사체가 중하고 예제도 엄하니, 비록 말절에 불과한 의식일지라도 그를 문란하게 행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3년을 규정

하는 예제이겠습니까...바라건대 예관자 유신들로 하여금 예에 어긋난 복제에 대하여 그를 뒤좇아 바로잡게 하소서. 지금 대상사의 연제 (1년 후에 지내는 소상)가 다가오고 있는데, 연제를 마치고 나면 기년복은 끝나는데 그때 가서는 비록 후회한들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달이면 효종이 승하한 지 1년이 되는 소상을 지낸 후 자의대비가 탈상을 하게 되어 있었다. 막판에 다시 이의가 제기되자 서인들은 당황했다. 더구나 자의대비의 기년복은 효종을 '체이부정'으로 본 것이라는 허목의 지적은 서인으로서는 뼈아픈 것이었다. 송시열이 정태화와 나눈 대화는 왕통은 비록 효종에게 있을지라도 종통은 소현세자에게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었다. 송시열은 분명 효종을 인조의 서자, 즉 체이부정으로 본 것이었다.

현종은 대신과 유신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게 했는데, 기년복을 주장한 송시열이 반박에 나서야 했으나 그때 향리에 있었으므로 좌참찬 송준길이 나서서 허목의 이론을 반박했다.

"...이번에 장령 허목이 상소문에 경전을 인용하고 의리에 입각하여 매우 장황한 논설을 하였습니다. 신이 그외 논설에 대하여 비록 감히 할 말을 다해 가면서 서로 힐난할 수는 없으나, 의심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다. [의례]에서,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라고 한 것은 위아래를 통틀어 한 말입니다. 만약 허목의 말대로라면 가령 사대부의 직처 소생이 10여 명인데. 첫째 아들이 죽어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3년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죽으면 그 아비가 또 3년을 입고 불행히 셋째가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차례로 죽을 경우 그 아비가 다 3년을 입어야 하는데, 아마 예의 뜻이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허목은 다시 상소를 올렸다. 허목은 한술 더 떠 '의례주소'의 '장자를 위한 상복도'를 첨부하여 올렸다. 그는 여기에서 3년복을 입지 못하는 4가지 경우 '사종지설'를 비롯한 여러 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의례주소'의 상복도까지 첨부한 허목의 상소를 본 현종은 현재의 1년복이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느꼈다. 현종은 송준길이 면대를 청해 시사를 말하자 이렇게 물었다.

"좌참찬이 헌의한 후에 허목이 또 상소를 하였는데 그 소문을 보았는가?"

"신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우승지 이은상이 "허목 상소문부터 먼저 아뢸까요"라고 하자 현종은 그러라고 하여 송준길은 허목이 올린 상소문과 상복도를 보았다. 송준길이 입을 열었다.

"신 등의 주장은 비록 적처 소생이라도 둘째부터 '서자' 라는 것이 허목의 주장은 서자는 '첩자'라고 하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서로 상반되고 있는데, 신과 시열은 둘째아들이 비록 왕통을 계승하였더라도 3년의 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례' 주소가 보는 견해에 따라 그렇게 틀리다는 말인가?"

"지금 허목이 그의 상소문에서 항목을 조목조목 다 나열해 놓았지만...체이면서 정이 아닌'체이부정' 것은 적처 소생의 둘째아들을 이름이며, 정이면서 체가 아닌 '정이부체'것은 비록 적손이기는 해도 체는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대부 사이의 일뿐만이 아니고 제왕의 집까지 통틀어서 말한 것입니다."

자의대비 복제가 뒤늦게 문제되자 예조판서 윤강은 당황했다. 그는 '체이부정', '정이불체'같은 엄청난 말들이 횡행하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논쟁에 잘못 끼어들다간 자칫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고 느꼈던 것이다. 윤강은 복제를 재론하는데 송시열이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그를 다시 끌어들였다.

"당초에 예법을 의논할 때 우찬성 송시열이 대신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지금 그가 밖에 나가 있지만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종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는 다시 살아났다.

허목이 상복도까지 첨부해 거듭 상소를 올리자 기년복을 주장했던 서인들도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영돈녕 이경석은 "다시 널리 묻고 알아보셔서 행하심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물러섰다. 판중추 원두표는 아예 당초의 기년복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

"신이 원래 예법에 어두우므로 여러 대신과 함께 전례에 따라 헌의했던 것인데 지금 허목의 상소를 보면 모두 경전에 분명한 근거가 있는 글이니 어찌 다른 의논을 하겠습니까. 신은 당초 잘못된 주장을 고집해서 두 번 다시 막중한 예법을 그르칠 수 없습니다."

영의정 정태화도 한발 물러섰다.

"당초에 신은 다만 '국제'를 들어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오직 다시 예법에 밝은 신하에게 물어 처리하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예종이 돌아가셨을 해 정희왕후가, 또 인종이 돌아가셨을 때 문정왕후가 입으신 상복제도를 아울러 자세히 살펴서 정하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정태화도 1년복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예종은 효종처럼 세조의 차자였고. 문정왕후는 자의대비처럼 인종의 계모였으므로 이 두 경우를 아울러 참조하도록 권한 것이었다. 이경석과 원두표, 정태화 등이 이처럼 자의대비의 복제에 문제가 있음을 순순히 인정하고 나선 것

은 이들이 '체이부정설' 이 갖는 위험성을 감지한 까닭도 있었지만 이때만 해도 허목의 문제제기를 정치 공세라기보다는 학문적 견해의 차이로 여긴 때문이기도 했다.

경전 해석이 3년설이 옳다면 굳이 1년설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었다. 영의정 정태화마저 기년복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자 복제 변경 여부는 송시열에게 달려 있게 되었다. 송시열이 다른 신하들처럼 "예법에 어두워 잘못 헌의했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자의대비의 기년복은 참최복, 즉 3년복으로 다시 결정나는 것이고 곧 상복을 벗을 예정이던 자의대비는 늘어난 기간 동안 더 상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 예학의 정통을 이었다고 자부하는 송시열이 예법에 어두워 기년복으로 의정했다고 자인할 수는 없었다.

우찬성 송시열이 헌의했다.

"허목은 상소에서 많은 말을 했으나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자가 죽으면 제2장자를 세워서 역시 장자라 이름하여 부모가 그 제2장지에게 3년복을 입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자를 세워서 후사를 삼으면 3년복을 입을 수 없는데 이것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송시열은 일개 장령이 자신이 틀렸음을 공박하고 나온 데 자존심이 상했는지도 모른다.

"신이 일찍부터 의심하여 알고자 하던 것도 바로 이 조목에 있었습니다. 허목이 이 조목에 분명한 근거를 댔으니 지금이야말로 신이 의혹을 풀고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자신의 잘못을 자인한 것이 아니라 허목에 대한 조롱임은 다음 구절을 보면 명확해진다.

"'장자가 죽으면'이라고 했으나 언제 죽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어서 죽은 것이라면 그 아버지가 이미 참최복 3년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 다음 적자(차적자)를 세워 장자라 하였는데, 그 차적자가 죽으면 또 참최복을 입어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두 정통이 없고 두 번 참최복을 입지 않는다'는 예의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그것은 장자가 어릴 때 죽어서 아버지가 복을 입지 않아 적통을 이루지 못한 경우일 것입니다."

송시열의 반론은 역시 만만치 않았다. 허목의 말대로 한다면 두번 참최복을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론이었다. 송시열은 참최복을 두 번 입을 수 없다는 자신의 견해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만약 장자가 성인으로 죽었는데 차자를 장자로 이름하여 3년복을 입는다면 적통이 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된 자로서는 한 몸에 참최복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만약 세종대왕이 오래 사셔서 문종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세종이 3년복을 입고, 제1대군을 세워서 후사를 삼았을 것인데 제1대군이 또 불행히 세상을 떠나면 또 참최복을 입고 또 제2대군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제8대군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최복 3년을 입는다면 이것은 문종을 포함해 27년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평민이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존귀한 제왕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장자가 죽었을 경우 뒤를 이은 차자에게 장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하는 것이었다. 예송논쟁 1백여 년쯤 후에 남인 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문제를 정리한 것을 보자. 정약용은 '상례외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태자로 책봉한 장자가 죽으면 부모는 부득이 3년복을 입는다. 그 후 차자를 세워 태자로 삼는다면 적자라 이름하는 것은 괜찮지만 장자라고 이름할 수는 없다."

정약용은 송시열이 영수인 노론에 의해 축출당한 남인 정치가이자 학자였다. 그는 송시열과 허목이 논란을 벌였던 '의례주소' '가씨소'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주장을 펼쳤다.

"'가씨소' 원래 양면성이 있다. 하나는 장자의 이름으로서 차자나 삼자도 가 하다고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자가 전중을 한 것을 체이부정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모순으로서 양자는 반드시 서로 통할 수 없다. 우암 송시열은 뒤의 설을 취한 것이고, 미수 허목은 앞의 설을 취한 것이다."

소현세자의 비상한 죽음이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면 그리 다툴 문제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둘이 싸운 내용은 정약용의 말대로 같은 책의 서로 다른 조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한 세기 후의 해석이고 당시는 송시열과 허목, 그 누구도 물러설 수 없었다. 송시열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3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허목의 주장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소위 서자가 후사가 되면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것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래 '의례소'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첩의 아들이기 때문'이란 말은 허목 자신이 붙인 것으로서 의례소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의례소'에는 '서자는 첩의 아들이나, 적자의 제2자도 같이 서자라 이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효종대왕을 인조대왕의 서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서 라는 것은 천한 칭호가 아니라 여럿을 의미하는 중의 뜻입니다. 이는 대저 신이 의심하면서 결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송시열의 말에도 분명한 논리가 있었다. 서자란 말은 첩의 아들이란 뜻과 장자 이외의 모든 아들이란 두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자신은 후자

를 말한 것이라는 반론이었다.

"대게 제왕가는 사직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옛날에도 장자를 버리고 서자를 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법을 만들 때에는 장자와 차자의 구별에 주의했습니다. 주나라 문왕이 장자인 백읍고를 버리고 무왕을 세웠지만 주공이 예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장자와 차자의 구별에 힘썼습니다. 오늘 논란이 된 것도 바로 이 예문인데 주공이 예법을 정한 의사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송시열은 소현세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소현세자가 인조의 적장자임을 비유로 설명했다.

"'의례'가씨의 소는 제1자가 죽은 경우만을 말하고 제1자가 후손 없이 죽은 경우는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아마도 제1자가 미성년으로 죽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허목은 소의 본뜻을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기'에 나오는 단궁의 문도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궁의 말은 공의중자라는 사람이 장자가 죽었을 때 장손이 있음에도 차자를 세운 것을 비난한 것이다. 곧 인조가 소현세자의 아들 석철을 두고 효종을 세운 것이 잘못이라는 비유였다. 송시열은 후세 예가들의 심판을 기다리자는 휴전 제의로 상소를 마쳤다.

"옛날 이황이 군신의 복제를 수숙으로 하였다가 기대승의 반박을 듣고 놀라 소견을 고치면서 '만일 기대승이 아니었다면 천고의 죄인이 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신이 허목에게 바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대저 시비가 엇갈리는 곳은 정주(장자와 주자)와 같은 큰 안목과 역량이 없이 한때의 의견만으로 결단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의심나는 곳은 그대로 남겨 후세의 예가들이 바로 잡기를 기다리고, 우선은 명백하여 의심이 없는 곳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관은 현종에게 실록을 참조해 덕종. 인종. 순회세자(13세에 죽은 명종의 세자)의 장례 때 복제를 적어 바쳤다. 조 선은 원래 아들의 장례 때 3년복을 입는 제도가 없었다. 따라서 모두 1년복을 입었던 것인다. 정태화, 심지원 등은 모두 의논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실록에 실린 대로 따르자고 말했다.

현종은 "여러 대신의 의논대로 시행하라"고 명할 수 밖에 없었다.

송시열이 나름대로 근거를 세워 3년설을 반박했으므로 서인 대신들은 다시 송시열의 의견에 따라 1년복이 맞다는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현종은 드디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자의대비의 복제를 원래대로 기년복으로 결정하였다. 서인은 이것으로 예송논쟁이 종지부를 적은 것으로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탄 이는 착각이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왕가는 사가와 다르다는 윤휴와 허목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 점에 주목해 윤휴, 허목에 이어 예송논쟁에 뛰어 든 또 한 명의 남인 논객이 있었던 것이다. 바로 고산 윤선도였다.

종통과 적통이 어찌 다르랴 - 송시열의 정적들-시인 절객 윤선도

허목과 송준길이 기년복을 놓고 논란하던 무렵인 현종 1년 4월 남인 논객 고산 윤선도가 이 논쟁에 뛰어들어 파란이 재연된다. 윤선도는 효종의 장지를 수원으로 주장했다가 서인 송시열 등의 반대로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병을 청탁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무엄하다며 파직까지 당한 원한이 씻기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나마 국문해야 한다는 서인들의 거듭된 주장을 현종이 거부해 파직에 그친 것이었다. 이런 그가 마음먹고 올린 상소인 만큼 조정에 파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적통을 이어 받은 아들은 할아버지와 체가 되는데, 아버지가 적자의 상에 복제를 꼭 참최 3년으로 한 것은 자식을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조종 통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가 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국가이겠으며,..신이 선왕의 상사를 듣고 대왕대비 복제에 대하여 '예경'을 상고하였더니 성인이 예를 만든 사실은 천리에 근원을 두고 종통을 정하자는 뜻이어서, 당연히 재최 3년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일이요, 의심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선도의 논리는 서자가 첩자냐 중자냐를 넘어 그 초점을 조종에 맞춘 것이었다. 아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3년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조종의 계통을 이었기 때문에 3년복을 입는다는 논리였다. 즉 효종이 조종의 계통을 이었으므로 3년복이 마땅하다는 말이었다.

"전하께서 송시열에게 하문 하신 것은 유신을 우대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시열은 마땅히 이황이 기대승의 말을 듣고 놀라 깨달은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열은 도리어 잘못을 우기며 허물을 꾸미려 '예경'의 여러 구절을 주워 모으고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번거로운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윤선도는 송시열을 직접 지목해 공격했다.

"초상 때 당황하여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허목이 보인 최소한의 여유도 윤선도에겐 없었다. 그는 그만큼 송시열에게 숙원이 많았다.

그 뿌리는 선조 21년(1589) 발생한 정여립의 난 까지 소급된다. 동인 정여립의 난때 위관은 서인 정철이었는데, 이 때 죽음을 당한 이발은 윤선도의 할아버지인 윤의중의 사위였다. 이런 집안 내력 외에도 서인에 의해 여러 번 가로막힌 정치적 야망 송시열에 대한 윤선도의 원한을 크게 했다. 윤선도는 송시열이 그랬던 것처럼 광해군 때 이이첨을 탄핵하다가 유배를 간 일이 있었다. 송시열은 이이첨이 실각한 후 그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으나 윤선도는 유명수의 사주를 받고 한 일로 폄하되어 공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것이다. 윤선도도 송시열처럼 효종이 봉림대군이었을 때 사부로 있던 효종의 스승이었다. 자신이 보도한 왕자가 임금이 되면 그 사부는 중용되는 것이 판례이자 사람 사는 세상의 인지상정이지만 윤선도는 효종이 즉위한 후에도 별로 중용되지 못했다. 윤선도는 그 이유를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방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만큼 서인을 겨냥한 그의 상소는 과격할 수밖에 없었다. 윤선도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송시열을 역적으로 모는 내용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주장을 펼쳤다.

"아, 고공(고공단보, 주 문왕의 할아버지)이 비록 계력을 후계자로 세웠지만, 태백 (고공단보)이 자손이 있으면 고공의 적통은 그래도 태백의 자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라 안 백성들 마음이 일정치 못할 것인데 계력의 자손들이 어떻게 배겨나겠습니까? 문왕이 비록 무왕을 세웠으나 백읍고가 후사가 있었으면 문왕의 적통이 그래도 백읍고 자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까? 그리되면 천하의 마음들이 헷갈려서 무왕의 자손들이 어떻게 배겨날 것입니까? 시열은, 종통은 종묘 사직을 맡은 임금에게로 돌리고 적통은 이미 죽은 장자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적통. 종통이 둘로 갈리게 되는데 그러한 이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고공과 계력의 고사는 중국 고대 주나라의 태왕이 첫째 아들 태백과 둘째 아들 우중을 제쳐두고 막내아들 계력에게 왕위를 물려준 고사로서, 차자의 왕위승계가 정당함을 주장할 때 자주 인용되는 기사이다. 즉 효종이 소현세자의 아우로서 임금이 된 데 대한 정당함의 표명이다. '계력을 후계자로 세웠지만, 태백이 자손이 있으면 고공의 적통은 그래도 태백의 자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까? 라는 말은 효종을 후계자로 세웠지만 소현세자가 자손이 있으면인조의 적통은 소현의 자손에게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 '그렇다면 나라 안 백성들 마음이 일정치 못할 것인데 계력의 자손들이 어떻게 배겨나겠습니까' 라는 말은 그렇다면 효종의 자손, 즉 현종이 어떻게 배겨나겠느냐는 무서운 말이었던 것이다.

윤선도의 논리대로라면 송시열의 1년복 설은 효종의 종통과 정통성을 부인한 역적의 의논이었다. 효종을 적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미 죽은 장자의 자손', 즉 소현세자의 살아 있는 3남 석견을 적통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서인들은 효종이 아니라 석견을 임금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이었으니 이는 서인들이 역적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였다.

이 상소의 과격한 주장에 송시열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서인 전체가 크게 놀랐다. 이 상소의 과격한 주장에 송시열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서인 전체가 크게 놀랐다. 이는 송시열을 역적으로 처단하라는 상소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송시열이 역적이라면 그와 같은 당으로서 1년설을 주장한 대신과 유신들 모두가 역적이 되는 것이었다. 윤선도는 송시열과 송준일의 여럿인 아들이 계속 죽으면 아버지는 계속 참최복을 입어야 하느냐는 논리도 거칠게 반박했다.

"시열은, '아비 된 자 한 몸에다 너무나 많은 참최복을 지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심지어 세종조의 여덟 대군을 들어 변증을 하였는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세종의 수명이 비록 끝이 없고 여덟 대군 모두가 비록 단명했다 하더라도, 어찌 여덟 대군 모두가 각기 3년복이 되게 불행해질 이치가 있으며, 게다가 문종.세조 두 대왕까지 합쳐 3년짜리가 아홉이 될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비록 소진(변설가)의 궤변으로도 틀림없이 그리한 말로 감히 남을 꺾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송준길이 차자에서 말한 '가령 사대부 집의 적처 소생이 10여명 되는데, 맏이가 죽어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해 3년을 입고 둘째가 죽어 그 아비가 또 3년을 입고, 불행히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다섯째가 죽으면 모두 3년씩 입을 것인가?' 한 그 말과 함께 모두 있을 수 없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들 말이 그렇게 딱 들어맞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 두 사람 견해야말로 진자 형제지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효종의 장지 문제로 서인과 송시열에게 벼르던 윤선도가 예송논쟁을 맞아 올린 상소는 과격할 수밖에 없었다.

"대저 적이라는 것은 형제 중에 그 이상의 맏이나 대등한 사람이 없음을 말하는 호칭이고, 통이라는 것은 왕위를 받아서 모든 백성의 위에서 위로 계승하여 아래로 전하는 것입니다. 차장자가 왕위를 이었다 해서 어찌 별도로 적통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차장자가 아버지의 명과 하늘의 명을 받아 왕위를 계승했는데도 적통은 다른 사람(이미 죽은 장자)에게 있다면, 이는 가짜 세자란 말입니까? 섭정황제란 말입니까? 또 왕위에 오른 차장자는 이미 죽은 장자의 자손에게는 임금 노릇을 못하며 이미 죽은 장자의 자손 역시 왕위에 오른 차장자에게 신하 노릇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는 송시열이 효종을 적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야말로 "송시열은 효종의 종통을 부인한 역적입니다"라는 말이었던 것이다.

"아! 고공이 비록 태백이 아닌 계력을 세웠더라도 적통은 오히려 태백의 후손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한 나라의 인심이 안정되지

못할 것이니, 계력의 후손을 어떻게 보존하겠습니까?"

계력은 중국 고대 주 임금 고공단보의 막내아들이었다. 고공은 큰아들 태백이 아니라 막내아들 계력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 고사는 동아시아에서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이 후사를 이었을 경우 정통성을 입증하는 사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윤선도의 상소에서는 고공의 큰아들 태백은 인조의 장자 소현세자를, 막내아들 계력은 효종을 뜻한다.

"왕위에 오른 차장자는 이미 죽은 장자의 자손에게는 임금 노릇을 못하며"란 말은 송시열의 말대로라면 효종은 소현세자의 아들 석견 등에게는 임금 노릇을 모하며, 이들 또한 효종의 신하 노릇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물음이다. 나아가 "계력의 자손을 어떻게 보존할 것입니까?"라는 말은 효종의 자손, 즉 현 임금인 현종과 그 자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는 물음이었다. 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이 후사를 이었을 경우 이는 적장자가 아니니 그는 가짜 세자며 가짜 임금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나라 사람들이 충성을 바칠 것이며 정통이 아니니 그 자손을 어찌 보존할 것이냐는 반문이었다.

"시열이 종통은 종묘 사직을 계승한 임금에게 돌리고, 적통은 이미 죽은 장자에게 돌리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종통과 적통이 갈라 져서 둘이 되는 것이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종통과 적통을 둘로 나누려고 한다는 말은 결국 효종의 종통에 대한 부인이니 어찌 역적이 아니냐는 물음이었다.

"시열이 또, '효종 대왕이 대왕대비에 대하여는 군신의 뜻이 있는데, 대왕대비가 도리어 신하가 임금을 위하여 입는 복으로 대왕의복을 입을 것인가?'하였는데, 그것은 더욱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 말대로라면 성인이 예를 만들면서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참최를 입게 했는데 그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하여 입는 복이 아니며, 임금이 세자를 위하여 참최를 입게 했는데 그것은 신하가 임금을 위하여 입는 복이 아니랍니까? 어쩌면 그의 말이 이렇게도 사리에 당찮습니까." 조선 후기 이건창의 '당의통략'에는 윤선도의 상소에 "아버지의 명을 이어 천명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정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짜 세자란 말입니까? 가짜 황제(섭황제)란 말입니까?"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 선왕조 시절부터 믿고 소중히 여겨 모든 것을 맡겼던 자로 양송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도 그들을 유현으로 쳐주었고, 그 두 사람 역시 그 이름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야의 공론은 그들을 현자로 여기지 않으며, 신과 같이 어리석은 자도 그들을 현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맹자가 이르기를, '군자가 그 나라에 있을 경우 임금이 써주면 그만큼 안부존영을 누린다'하였는데, 이들 두 사람이야말로 임금의 신임을 그렇게 독차지했고 그리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그리하였으나, 자기 자신들 안부존영은 최고를 누렸다 할 수 있지만 임금을 안부존영하게 만들었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재궁(임금의 관)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일 같은 것은 국가를 가진 이로서는 만고에 없었던 이변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볼 때 편안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양송 자신들은 효종 밑에서 안부존영을 누리고도 정작 효종은 안부존영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었다.

"신은 오직 군부와 종묘 사직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있음을 생각지 않았기에 시대의 저촉을 범해 가면서 바른말을 올리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사람으로 하여 말까지 폐기하지는 마소서. 신은 이 상소가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이 말대로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주세가 굳건하고 못하는 여부와, 국조가 연장되고 안 되는 여부를 점칠 것입니다."

이 상소를 본 서인들은 깜짝 놀랐다. 승지 김수항. 이은상. 오정위등은 상소 내용이 "예를 논한다는 핑계로 마음 씀씀이가 음흉하였고, 어지러울 정도로 남을 속이고 허풍을 치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면서 호되게 물리치라고 주청했다. 현종은 상소문을 도로 내주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겠으나 죄주지 못할 사정이 있으니, 그냥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관작을 삭탈하고 시골로 내쫓으라."

서인들은 윤선도의 삭탈관작과 문외출송에 그친 데 반발했다. 이 상소문을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역적으로 모는 고변서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윤선도에 대한 서인의 공세

이 상소를 보고 서인은 비로소 1년설을 거듭 물고 늘어지는 남인의 속셈을 확실히 읽게 되었다. 남인의 의도가 예론을 바로잡자는 학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를 이용해 송시열을 죽이고 서인 정권을 몰아내는 데 있음을 명확히 알게 된 것이다. 즉 학문논쟁이 아니라 정치공세임을 알게 된 것이었다. 예송논쟁을 제기하는 남인의 속뜻이 서인 정권의 타도에 있음을 안 서인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윤선도를 공격했다. 부제학 유계, 교리 안준은 현종을 면대하여 윤선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주청했다.

"돌려준 윤선도의 상소를 가져다 조정에 보여서 그 죄상을 밝힌 후 상소를 불사르고 먼 변방으로 귀양보내야 합니다."

현종이 이를 받아들여 윤선도의 상소는 불살라지고 그 몸은 삼수로 귀양보내졌다. 그러나 귀양으로도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젊은 만큼

더 과격했던 성균관과 사학의 서인 유생들은 윤선도에게 더욱 엄한 국법의 적용, 즉 사형을 요청했다. 사간원의 대사간 이경억과 사간 박세모, 그리고 사헌부 정언 권격등은 합계하여 유생들 편에 가담했다.

"윤선도의 상소는 예법을 논한 상소가 아니라 고변서이니 엄하게 국문하여 법대로 처리할 것을 청합니다."

조선의 법은 남을 무고하면 무고한 그 죄를 대신 받게 되어 있었다. 이를 반좌율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송시열을 역적으로 무고한 죄가 인정되면 반좌율로 그 자신이 사형당하게 되어 있었다.

윤선도를 지원하는 우윤 권시

윤선도가 반좌의 위기에 몰렸을 때 그를 구원하고 나선 인물이 있었으니 우윤 권시였다.

"지금 윤선도의 상소문을 보면 식은 땀이 등을 적시는 것을 모를 정도입니다. 송시열.송준길을 국가를 쇠망으로부터 부흥시키고 난리를 평정할 수 있는 재목으로서 선왕의 뜻을 이어 무엇인가 해내려는 성상의 마음에 틀림없이 부응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신이 감히 믿지 못하겠지만, 요컨대 내리잡더라도 누구나 친근하고 싶어하는 선인임에는 틀림없고, 또 옛사람들 학문하는 요령을 이미 터득하였으며, 인자하고 진실하며 충성스럽고 알찬 마음씨는 이미 조야의 미쁨을 사고 있습니다."

권시의 상소는 양송에 대한 비꼼으로 시작되었다.

양송을 "선왕의 뜻을 이어 무엇인가 해내려는 성상의 마음에 틀림없이 부응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신이 감히 믿지 못하겠지만"이란 말은 양송이 북벌에는 정작 뜻이 없는 인물이라는 비유이기 때문이다. 그도 3년복이 맞다는 데 가세했다.

"신이 언젠가 말했듯이, 대왕대비 복제가 당연히 3년이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1백 세를 두고 질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애석하게도 시열. 준길. 유계가 그렇게 현자이면서도 당연히 3년으로 해야 한다는 그 사리를 사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에서도 말들을 하고 시골 마을에서도 논의가 분분하여 마음에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지 이미 오래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그 논의가 이미 조정 위에서 발발하였는데도 여러 사람들이 아직까지 미궁에 빠져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시열의 '선왕(효종)이 (인조의)서자가 되어 해로울 것 없다'는 말은 매우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말하는 자 없어, 그게 바로 선도의 참소를 부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선도가 현자를 헐뜯고 시기한 점은 매우 나쁜 짓임에 틀림없으나, 자기 신상에 틀림없이 화가 닥치리라는 것도 계산하지 않고 남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한 점으로는, 역시 할 말은 하는 선비입니다. ...조정 논의가 너무 과격하여 이 극한 상황까지 오게 되어 권세가 아래로 옮겨갔다는 참소를 사실화하고 말았으니, 까닭없이 선비를 죽인다는 그 말에 불행히도 가깝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선도는 일찌기 선왕의 용잠(임금이 되기 전의 사저)시절 사부였던 옛 은의가 있어, 비록 그가 착하지 못함을 아시고서도 그의 장점만을 취하여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여 작위도 중대부에까지 이르렀으니, 가볍게 죽여서 안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종은 윤선도를 지원하는 이 상소에 대해 좋은 뜻으로 비답한 뒤 면대하여 유시하겠다는유지를 내렸는데, 이는 현종도 권시의 말을 지지한다는 뜻이었다. 권시가 윤선도를 구하고 나서자 서인의 예봉이 이번에는 권시에게 향해졌다. 대사간 이경억과 사헌부 장령 윤비경 등이 권시를 탄핵하고 홍문관의 유계 등이 가세했으며 사헌부 정언 권격은 권시를 파직하자고 청했다. 모든 대간들이 권시의 파직을 청하자 현종은 그 말을 좇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종은 권시를 아꼈다. 권시가 도성 밖으로 나가자 현종은 사관을 보내어 유시했다.

"이런 선비들이 자꾸 조정을 버리고 나가니 내 마음의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형편으로는 가지 않을 수 없겠지만 곧 마음을 돌려서 돌아오기 바란다."

이는 현종이 속마음으로는 3년설을 지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승정원에서 유시의 환수를 거듭 청하여 권시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현종은 승지를 가둔 후에야 사관을 보내 유시를 전달할 수 있었다.

권시는 이처럼 윤선를 옹호한 까닭에 서인의 공박을 받았지만 사실상 그는 남인이라고 볼 수도 없었다. 그는 서인 윤선거와 사돈사이였던데다 윤휴와 허목의 공격을 당한 송시열이 조정을 떠나자 송시열을 만류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또 권시는 송준길에게도 조정을 떠나는 것을 만류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송시열과 송준길의 자존심으로 조정에 남아 있을 수는 없었다.

조선의 관료들, 특히 유신들은 옳든 그르든 공박을 받으면 사직하고 떠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자신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면 옳든 그르든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관례였다. 송시열이 먼저 조정을 떠나 고향인 회덕으로 돌아가 버렸고, 송준길도 창황히 조정을 떠나 고향에 내려가 처벌을 요청했다. 물론 서인 정권 아래서 이들이 처벌당할 리 만무하므로 이는 관례에 따른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남인은 실제적인 처벌을 당했다. 윤선도가 삼수로 귀양간 것을 비롯해 허목은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 당시 허목은 지방관을 할 나이가 아니어서 이조에 정장해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항의했으나 소용없었다. 이런 파문이 계속되자 우의정 원두표는 차자를 올려 현종의 결단을 촉구하

고 나섰다.

"이미 시행중인 1년복을 입든, 아니면 연제에 대왕대비가 길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상복을 입어 3년복을 입든 전하께서 결단하십시오."

현종이 예조에 하문해 유신들의 의견을 묻게 하자 서인 이유태는 양송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고, 영의정 정태화와 좌의정 심지원도 마찬가지였다. 영중추 정유성도 같은 견해였다.

"대왕대비의 복을 1년복으로 한 것은 예법에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선조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윤휴는 더 이상 적극적인 의결 개진을 하지 않고 현종의 뜻에 맡긴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것은 국가 대례로서 대소 제신들이 각기 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저마다 논설이 있었으니, 오직 성상께서 가리시어 정할 일입니다. 다만 그게 인심과 관계가 밀접하고 대경과도 관계되는 일이니, 선왕의 예에 어긋나지 않은 것을 골라 행하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현종은 결단을 내렸다.

"다수의 의논에 따라 결정하게 하라."

재론된 예송도 서인의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왕위에 올랐다고 가통까지 이은 것은 아니다 - 예송논쟁(3)

2013.06.19 15:10

거론 자체가 금지되는 예송

재론된 제1차 예송논쟁이 서인의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남인은 여전히 1년복이 틀리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현종 2년(1661) 4월 심한 가뭄이 들자 현종은 죄인을 사면하고 내외에 널리 구언했다. 행 부사직 조경이 구언에 응해 상소를 올렸다.

"전하께서 가뭄을 당하여 자기 몸을 낮추고 반성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원통한 옥사를 다시 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심에 윤선도만이 빠져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선도의 죄는 무엇입니까. 선도의 죄라는 것은 적통. 종통 논잉 있어 효묘(효종)을 두둔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전하께서 선도라는 사람은 물리치더라도 그 종통. 적통에 관한 말은 결코 버리실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크게 결단하셔서 적통. 종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왕(효종)의 실록에 분명히 실어서 훗날 예법을 논하는 자로 하여금 다른 말을 못하게 하신다면, 하늘의 뜻인들 어찌 인정과 다르겠습니까. 신은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것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 어찌 한 몸의 이해만을 생각해서 전하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현종과 승정원은 이미 길복으로 갈아입은 자의대비의 복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자 곤혹스러웠다. 이미 결정난 사안을 다시 거론하는 것도 그렇고 임금의 적통과 종통 문제가 자꾸 현안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승지 남취익, 원만석 등이 승정원에서 조경을 규탄하고 나섰다.

"조경의 상소는 윤선도를 위한 것입니다. 저 윤선도의 죄악으로 말하면 국인이 함께 분개할 뿐만 아니라 전하께서도 통촉하신 것인데 조경이 감히 윤선도의 말이 옳다면서 아무 기탄없이 말했습니다. 문서의 출납을 담당한 저희들이 무턱대고 아뢸 수도 없지만 그 상소 내용의 시비와 사정을 전하께서 가리실 수 있을 것이므로 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종은 더 이상 예송문제의 재론을 원치 않았다. 현종은 상소문을 도로 내주게 한 후 승정원에 하교를 내려 한탄했다.

"아, 전 판중추 조경은 세 조정을 차례로 섬겼으니 어찌 지식이 없겠는가마는, 애석하게도 소장이 내용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도록 잘못되었던 말인가."

심사에서 소를 돌려주는 것으로 끝낼 리가 없었다. 삼사가 곧 조경을 삭탈관직하여 시골로 추방할 것을 청하니 현종이 허락하는데, 서인 중진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강경대응은 또 다른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영의정 정태화는 경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경은 원래 시골에 살던 사람이니 시골로 추방한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고 나라의 체면만 손상될 것입니다."

좌의정 심지원도 마찬가지였다.

"조경은 세 조정의 원로대신인데 전하의 구언에 응하여 말하였다가 죄를 얻으면 이것이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젊은 서인이 포진한 삼사에서는 대신들이 조경을 두둔했다고 들고 일어서며 조경을 귀양보내야 한다고 탄했다. 현종은 한 달 이상 귀양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버텼다. 이런 와중에 효종의 2주기가 다가왔다. 제사에 참여해 곡배하기 위하여 서울에 온 송시열은 현종 2년 5월 임금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신은 뼛속까지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신이 시골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시열은 선왕이 태묘에 들어가는 것을 온당치 않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는데, 이 설이야말로 종통. 적통의 설과 서로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쓸데없이 그냥 개인적으로들 이야기하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상 정태화가 이를 듣고 크게 놀란 나머지 신의 아들과 서로 아는 사람을 불러 물어보았으므로 신의 아들이 이를 토해 신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긍익은 "연려신기술"에서 '양파시장'이란 글을 인용해 현종에게 했다는 말을 소개하고 있다.

"신이 처음 사종지설을 말하니 정태화가 듣고 크게 놀라면서 그설은 인용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태화는 반대당의 모함이 있을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견지명을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사실 예송논쟁은 다산 정약용이 "의례주소" '가씨소'의 양면성을 말하면서 3년복으로도, 1년복으로도 의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중 후한 예를 따라서 3년복으로 정했다면 아무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 송시열 등 서인들이 소현세자 일가의 억울함에 대한 신원을 당론으로 삼은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효종의 종통과 맞물린 민감한 문제였다.

효종의 종통 자체를 부인하고 인조반정 같은 쿠데타를 결심하지 않고 자의대비의 복제를 기년복으로 박하게 의정한 것은 스스로 시비를 초래한 측면이 분명 있었다. 왕조국가에서 임금의 국상을 기년복으로 정한 것은 반대당파인 남인의 시비를 자초한 격이었고, 사실 자의대비가 탈상한 후에도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현종 4년(1663)에 정6품 홍문관 수찬 홍우원이 또다시 윤선도와 남인을 옹호하며 올린 상소가 이런 상황을 말해준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와 같지 않은 자를 싫어하여 억지로 같이 만들려고 하는 형편이어서 사대부 사이에도 다른 의견이 생기면 반드시 함께 일어나 공격합니다. 윤선도는 변방 섬인 삼수에 안치되었다가 북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대간이 반대하여 다시 삼수로 되돌려졌습니다. 허목이 예법에 관한 소를 두 번 올리니 먼 삼척으로 내쫓았습니다. 허목이 그만두고 돌아온 후에도 다시 찾아서 벼슬을 주지 않았으며, 권시는 중한 탄핵을 받았습니다. 또 조경이 선도를 구하려 하자 간사하다고 지목하면서 그 아들까지 영구히 벼슬을 주지 않는 벌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면 선도는 원래 기개있고 할 말은 하는 사람으로서 광해조 때에도 바른말하는 상소로 절개를 세웠으며 선왕조(효종)에는 사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 서리 찬 지역에 귀양가 백발 날리는 늙은 몸으로 언제 죽을지 모를 형편입니다. 만약 갑자기 죽어 버린다면 조정에서 선비를 죽였다는 누명을 남길까 두렵습니다."

대간에서는 즉각 홍우원의 관직을 삭탈하고 시골로 추방할 것을 청하였으나 현종은 듣지 않았다. 현종은 선인의 세에 밀려 1년설로 정했지만 내심으로는 3년설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종 5년에 조경과 홍우원을 다시 서용한데서도 현종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재위6년 2월 현종은 윤선도를 고향 가까운 광양으로 유배지를 옮겨주면서 자신의 뜻에 반하여 금부에서 마음대로 안치했다고 꾸짖었다.

현종은 단지 그 지역에 정배하라고 했을 뿐인데 멋대로 안치라고 써 넣어 집에서 꼼짝 못하도록 했다는 꾸짖음이었으니 여기에서도 윤선도에 대한 현종의 속마음이 엿보인다. 현종 7년(1666) 예송논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이번 문제 제기는 서인 쪽에서 한 것이었으니 당초 기년복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분신한 서인 감상용의 손자 김수홍이 그 장본인이었다.

"서자는 첩자라는 허목의 예론이 맞는 것 같으니 자의대비는 3년복을 입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소현세자의 적통이란 것은 강빈의 옥사 때 이미 단절된 것 아닙니까?"

강빈이 역적이니 그 자손이 어찌 적통을 이을 수 있느냐는 반론이었다. 이는 서인 내부의 분열이었으나 이런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세력은 역시 남인들이었다.

같은 해 남인의 본거지인 영남 유생 유세철등 1,400여명이 연명으로 상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송시열을 격렬히 비판하면서 "상복고증"이란 책자를 함께 바쳤다. 책자의 내용은 윤선도의 말을 그대로 반복.부연설명한 것이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예에 '천자와 제후의 상에는 모두 참최복을 입고 기년복은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예기" '증자문'의 "천자.제후의 상에는 모든 신하가 다 참최복을 입는다."는 내용을 뜻했다. 서인 승지 김수항은 승정원에 상소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우려했다.

"이 상소는 전하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한 사람들을 모두 없애려는 것입니다."

"문장과 의사가 들락날락하여 일정하지 않고 동쪽을 말하나 실상 그 뜻은 서쪽에 있으니 선비들 풍습이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놀라운 일이다."

이에 양사에서 소두 유세철 등을 죄줄 것을 청했으나 현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사실상 현종의 속마음은 자신의 아버지 효종을 높이는 남인에게 있으니 서인 정권 아래에서 이는 어려운 일이었기에 상소는 물리치면서 처벌은 하지 않는 방법을 쓴 것이다. 남인 유생들이 상소하는데 서인 유생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 홍득우와 충청도의 서인 유생 윤택 등이 상소를 올렸다.

"송시열의 복제설이 바른데도 억울하게 반대당에게 배척당했습니다."

현종은 이들의 상소를 우대하는 형식적 비답을 내렸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현종은 예송 자체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결심했다. 예론으로 해가 저물고 달이 기우는 것은 나라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이다. 현종은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말했다.

"근래에 영남 유생들의 상소에 대하여 죄를 논하여 처벌하고 싶지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음날 분쟁의 폐단만 될 것 같으니 일정한 제도를 천백 년이 가도록 그대로 준행하는 것만 못할 것 같다. 기해년 국상 때 "국조오례의"에 따라 상복을 시행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고칠 일이 있겠는가. 차후에 다시 예론을 논하는 상소가 있으면 비록 많은 선비들의 상소라 해도 용서하지 않고 중형으로 다스리겠다. 이 뜻을 널리 중외에 알리라."

현종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 이때부터 예론은 거론할 수 없는 금법이 되었다. 서인은 이로써 예송논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알

았다. 그러나 예송논쟁은 지하에 잠복한 불씨일 뿐이었다. 자연적으로 보아도 당사자인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 조씨(1624년생)는 며느리인 효종비 인선왕후 장씨(1618년생)보다 여섯 살이 어렸으므로 며느리의 상사때 시어머니의 복제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같은 성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우려했던 상황은 실제로 다가오고 있었다.

서인과 남인은 어떤 철학적 차이가 있는가?

제1차 예송논쟁에서 서인이 1년설을 주장하고 남인이 3년설을 주장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들 당파의 철학적 견해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남인의 사상적 종주인 퇴계 이황의 사상은 이일원론이었다.

그의 이기이원론은 이일원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황은 "답정자중강목"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본래 항시적으로 실재하지만 기는 모여서 형체를 이룸으로써 실재했다가 흩어지면 소멸하니 무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항시적으로 실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황에게 있어 이와 기는 절대로 동등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는 절대적인 이 우위론자였다. 그의 주리론에 따르면 군신, 부자, 부부, 장유의 질서는 어길 수 없는 것이었다. 이들 사이의 귀천의 질서가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인간관계의 질서, 즉 예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가부장 중심의 종법질서를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이 종법질서는 비록 왕가라 하여도 어길 수 없는 근원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황의 이런 사상에 따르면 자의대비의 복제는 1년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효종이 비록 왕위를 이었다 하더라도 인조의 둘째 아들이라는 종법은 변할 수 없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황의 이런 사상과는 반대로 남인들은 3년설을 주장하였다.

남인들이 3년설을 주장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철학적 견해 때문이 아니라 정권에서 소외된 야당이기 때문이다. 즉 여당인 서인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3년설인 것이다. 서인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서인들의 사상적 종주인 율곡 이이의 사상에 따르면 서인들이야말로 3년설을 주장해야 했다. 이이는 이기일원론을 주장했다 해서 그의 사상을 주기론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또한 이가 우위에 있다고 본 점에 대해서는 이황과 차이가 없었다. 그는 "덥성호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가 아니면 기가 근거할 데가 없으며 기가 아니면 이가 의거할 데가 없습니다. 이는 두 개의 물건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의 물건도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이 아니니 하나이면서 둘이고 두 개 물건이 아니니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하나의 물건이 아니란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기는 상호 떨어지지 않을 수 없으나 신묘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 이이며 기는 자기 스스로 기이지만 분리도지 않으니 그 사이가 없습니다. ...이는 시초가 없으며 기도 시초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본적인 면에서는 이의 우위성을 인정했다.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이기는 시초가 없으니 실로 선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까닭(소이연)은 이가 추뉴이며 근저입니다. 따라서 이기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성현의 말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관건은 이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사물을 가지고 이를 관철한다면 분명히 이가 먼저 있고 기가 후에 있습니다."

이처럼 율곡도 근본적인 면에서는 이가 기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한 이 우위론자였다. 하지만 그는 이기의 형태와 운동능력에 대해서는 기의 우위를 인정함으로써 이황과는 다른 견해를 표출했다. 즉 이는 형태도 운동능력도 없으나 기는 모두 있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이가 형태는 없으나 운동능력은 있다는 이황의 견해를 비판한 것이다.

이이는 사람의 생사에 대해서도 이의 절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상대론적 태도를 보였다. 즉 사람이 살기 전에는 사람의 이만이 존재하며 죽은 다음에도 이만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 기가 있게 된다. 죽으면 기는 없어지지만 이는 남는다.

즉 이이는 인간의 생사와 독립하여 실재하면서, 생사를 지배하는 이의 절대성을 인정하지만 기의 상대성도 인정함으로써 변화의 여지를 남긴다. 그는 사단도 기가 발하고 이가 여기에 탄다고 하여 기의 세계성을 인정했다. 그의 이런 이기에 대한 상대성이 현실적으로는 개혁사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런 상대성을 예론에 대입한다면 자의대비의 복제는 3년설이 될 수도 있었다. 비록 장자가 우위에 있다는 종법은 변할 수 없지만 이는 때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물의 상대성을 인정한다면 자의대비의 복제도 경우의 특수성을 인정해 3년복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서인은 왕가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고 싶지 않았다. 자신들이 집권당이기 때문이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는 임금 혼자가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였다. 더군다나 자신들은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이었다. 인조반정 직후에 일어난 '원종추숭시비'도 그 한 예이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재야 예학자들은 인조가 선조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정세력들은 인조의 생부인 정원군(선조의 다섯째 아들)을 그대로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야 예학자들이 왕통 계승만을

중시하려는 견해를 지녔다면 후자는 혈통 계승의 기반 위에서 왕통을 세우려는 견해였다. 결국 혈통 우선의 명분을 내세운 반정세력들에게 승리가 돌아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승했는데, 이는 인조의 종법적 지위를 확립해 반정의 명분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서인들은 반정 후 왕통의 종법적 지위마저도 새로 확정지을 만큼 강력한 세력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왕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인조반정 후 관제야당으로 출발한 남인들은 예송논쟁을 이용해 야당의 지위에서 벗어나 권력을 장악하려 하였다. 남인들은 막강한 신권에 불만을 느끼는 국왕을 자당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3년설을 주장한 것이었다.

서인들은 왕권과 신군의 차별보다는 치자 계급인 사대부의 보편성을 중시한 데 비해 남인들은 신권에 대한 왕권의 우위를 극대화함으로써 왕실의 지지를 얻으려 한 것이다. 이는 또한 송시열. 송준길로 대표되는 주자예론과 윤휴. 허목. 윤선도 등으로 대표되는 반주자예론의 대립이기도 했는데, 정통 주자학이 신권 중심의 정치 운영을 통해 지주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수구. 보수적 견해를 나타낸 것이라면 반주자학은 군주권의 강화를 통해 농민들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진보. 개혁적 견해의 표출이었다.

예송은 이처럼 예론을 이용해 정권을 장악하려는 경쟁의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나아가 예론을 이용한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대립이란 측면도 지니고 있었다. 어쨌든 예송논쟁을 통해 인조반정 이래 유지되어 오던 서인과 남인의 상호 공존적 측면은 붕괴되었다. 당쟁의 악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어찌 감히 주자와 달리 해석하랴 - 송시열의 정적들-반주자학자 윤휴

병자호란 직후 속리산 복천사에서 만난 윤휴와 송시열은 통곡하면서 굳게 약속했다.

"혹시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결코 오늘의 치욕을 잊지 말자."

하지만 제1차 예송논쟁 당시 두 사람은 이미 정적으로 변해 있었다. 송시열과 윤휴는 이미 '사문난적'논쟁을 통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학문적. 정치적 적대자로 변해 있었다. '사문'이란 유학이나 성리학을 뜻하는 말로서 '사문난적'은 성리학을 어지럽힌 적자라는 뜻이다. 윤휴는 사실 송시열 못지 않은 저명한 학자였다. 윤휴는 송시열보다 10년 어리지만 일찍부터 학문으로 명성을 얻어 권시. 윤선도 같은 남인은 물론 송준길. 유계. 이유태 같은 서인과도 학문적 교류를 가졌다. 서인 중에서도 송시열과 미촌 윤선거는 한때 윤휴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인물들이었다. 송시열도 한때 윤휴를 칭찬한 적이 있었다.

"백호(윤휴의 호)는 학문이 높아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없으며 전인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이치를 발견해 낸다."

윤휴 사상이 독창적이란 칭찬이었다. 이런 윤휴를 송시열이 비판하게 된 까닭이 바로 윤휴 학설의 독창성에 있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윤휴는 "중용장구보록서", "대학설", "중용설", "주례설", "중용대학후설"등 많은 책을 펴냈는데 여기에 담긴 독창적인 사상들을 송시열이 문제 삼으면서 사문난적 논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윤휴는 학문이나 사상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연한 인물이었다. 그에게 어떠한 사상은 부분적인 진리만을 담고 있는 상대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율곡 이이나 퇴계 이황의 학설은 물론 주희의 학설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는 율곡의 '이선기후'나 퇴계의 '이통기국'설 등을 모두 비판하는 '기일원론'을 내세웠다. 나아가 그는 주희, 즉 주자의 학설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송시열이 금과옥조로 여긴 유학 경전은 "논어", "맹자"등 사서 자체가 아니었다.

송시열은 사서 자체보다도 사서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더욱 중시했다. "논어" 자체보다도 주희가 주를 달아놓은 "논어집주"를 경전으로 더 높이 생각했던 것이다. "중용"도 마찬가지로 주희가 해설해 놓은 "중용집주"를 경전으로 섬겼다. 그러나 윤휴는 달랐다. 윤휴는 주희의 "중용집주"를 개작하여 자신의 견해로 주석을 달겠다고 나섰는데 송시열은 바로 여기에 발끈했다. 송시열은 윤휴가 경전을 주희와 다르게 해석하자 격분했다.

"고금 천하에 어찌 악한 자가 없겠는가. 하지만 윤휴처럼 주자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자는 있지 않았다. 비록 중국의 왕양명이나 이탁오와 같은 양명학자들의 말이 불손하다 해도 윤휴보다는 덜했다."

송시열은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몰았다.

"하늘이 공자에 이어 주자를 내셨으니 참으로 만세의 도통이다. 주자 이후로는 일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없고 일서도 명확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윤휴가 감히 자신의 견해를 내세워 가슴속의 억지를 늘어놓으니, 윤휴는 진실로 사문난적이다."

송시열과 윤휴의 대립은 이처럼 주희의 경전주석에 대한 수용자세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송시열은 주희의 해석 자체를 경전으로 생각

했다. 그러나 윤휴는 주희의 해석을 뛰어넘어 독창적인 해석체계를 갖추려 했다.

송시열이 받아들인 주희의 주자학은 중국 중세의 유학이었다. 말하자면 북송과 남송 시대의 중국 유학자들이 바라본 세계관이 성리학이었고 송시열은 여기에 충실했다. 하지만 윤휴는 이를 뛰어넘어 한당 시대의 중국 고대 유학에 직접 접근하려 하였다. 주희를 뛰어넘어 직접 공자,맹자와 만나려 했던 것이다. 윤휴는 그 유명한말로 송시열의 공격에 반박했다.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르겠는가? 이제 주자는 그만 덮어두고 오직 진리만을 연구해야 한다. 주자가 다시 살아온다면 나의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가 살아온다면 내 학설이 승리할 것이다."

말하자면 윤휴는 고대 경전, 즉 공자나 맹자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윤휴와 송시열의 논쟁은 특정한 학문이나 종교가 교조화된 곳에서는 시대의 고금이나 동서를 떠나 존재했던 논쟁이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잇다는 중세 카톨릭의 교의에 대한 반발이었다. 윤휴가 주희에 반대하고 공자를 내세운 것은 루터가 중세 교회의 교조성에 반발하며 '오직 성서'와 '오직 신앙'을 내세워 예수와 직접 접촉하려 한 시도와 마찬가지였다. 종교개혁과 루터를 보호한 것이 황제의 경쟁자 작센 공의 현실적 힘이었듯 윤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도 주자나 공자가 아닌 현실적 힘을 가진 조선 유학자들일 수 밖에 없었다.

효종 4년 (1653) 충청도 강경의 황산서원(현 죽림서원)에 유력한 서인 학자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윤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아래로 금강의 지류가 흐르는 황산서원에서 송시열과 윤선거, 윤원거,권성원 등 10여 명의 서인학자들은 윤휴 문제를 두고 밤늦도록 논쟁을 벌였다.

논쟁은 주로 송시열과 윤선거 사이에서 벌어졌다. 송시열이 사문난적으로 규정한 윤휴를 윤선거가 옹호하고 나선 것이었다.

"윤휴는 성인에 가까울 만큼 학문이 고명한 사람이어서 나는 그의 학문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즉 윤휴가 성인의 경지에 이른 고명한 학자이므로 경전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었다. 송시열이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나는 그의 학문이 고명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사문난적임은 알고 있습니다."

윤선거는 다시 윤휴를 옹호했다.

"의리는 천하의 공도이므로 윤휴도 주자의 주석에 대해 논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불가하다고 공박하십니까?"

송시열이 다시 반박했다.

"주자 이후로는 일리,일자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무슨 의혹이 있다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또 문제가 있더라도 주자의 어느 구절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가 어찌 감히 주자의 '중용'를 일소해 버리고 자신의 학설로 대치 할 수 있습니까?"

윤선거가 대답했다.

"이는 윤휴가 고명하기 때문입니다."

송시열은 성내어 반박했다.

"주자보다 윤휴가 더 고명하다는 말입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고명하다는 식의 공세는 이미 학문적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윤선거는 한발 물러섰다.

"고명하다고 말한 것은 저의 실언입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러나 송시열은 이 정도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이미 난적이라고 말했으니 경솔하다는 말은 당치도 않습니다. 대저 군왕이 춘추의 법을펼칠 때 난신적자를 따르는 자를 다스린다고 했으니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공은 윤휴보다 먼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군왕이 춘추의 법을 펼칠 때면 윤휴보다 그를 따르는 윤선거가 먼저 죽게 되리라는 비이성적 발언이었다. 이는 이미 학문적 논쟁은 아니었다. 수준 높게 말하면 서로간의 세계관의 차이이자 낮게 말하면 감정 차원의 문제였다.

'법의 심판' 운운하는 판에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었다. 윤선거는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고 둘 사이의 논쟁에서 송시열은 외견상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는 학문적 토론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얻어진 승복이 아니라 '사문난적'이란 비이성적.교조주의적 논리와 '춘추의 법'이란 정치적 무기로 얻어낸 물리적 승리였다. 윤선거가 마음속으로 승복할 리 만무했다.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못할 때 논쟁은 재연되게 마련이다.

효종 4년(1653)에 시작된 이 논쟁은 12년 후인 현종 6년(1665) 동학사에서 재론 되었다가 끝내는 숙종 때 윤선거의 아들인 윤증에게 전수되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는 한 단초가 된다.

오늘날의 잣대로 바라보면 송시열의 완고함에 모든 잘못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사문난적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송시열과 윤휴의 사문난적 논쟁은 양란 이후 위기에 봉착한 조선사회에 대한 지배층 내부의 대응 방식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양란 이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송시열의 수구 사상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윤휴의 개혁사상 간의 충돌이 사문난적 논쟁이었다.

윤휴의 새로운 사상은 교조적인 주자학 지배 이념에 대한 지배층 내부의 반성이자 개혁 요구였다. 만물의 근원적 존재인 태극에 대해 주자학은 이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윤휴는 태극 자체가 기라고 설명했다. 주자학자와 윤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던 것이다. 윤휴는 '중용해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가 처음 생기는 것을 태극이라 하고 음양이 나뉘는 것을 양의라 하며 기가 합해서 형태를 이룬 것을 사상이라 한다. 태극이 생기면 음양과 양의를 주관하고, 나뉘면 태양.소음.소양.태음이 된다. 사상은 합해지면 음양과 체용을 겸하니 태극은 기이다."

태극을 기라고 규정한 것은 태극을 이라고 해석해 온 주자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윤휴는 만물의 근원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주희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독창적 사상가였다.

조선 사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더욱 주자학을 받들어야 한다는 송시열은 이를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상으로 받아들였다. 송시열은 당연히 '태극은 이'라는 주희의 이론을 신봉하는 인물이었다. 송시열은 '한 음과 한 양을 도라고 이른다(일음일양지위도)'란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주자는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고 정하여 음을 낳는다'고 하셨다. 태극이란 본연의 묘요, 동정은 여기에 탄 기란 기다."

즉 태극은 이란 말이었다. 이런 송시열에게 태극을 기라고 주장하는 윤휴는 '사문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송시열의 자리에서는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공격함으로써 그의 사상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게 해야 했다. 송시열은 이렇게 말했다.

"주자는, '사단(인.의.예.지)을 밝힌 것이 바로 국가 사직을 편안하게 한 공이요, 이단(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을 물리친 것이 바로 이적의 외침을 막아낸 공이다'라고 말하셨다. 또 '임금을 살해한 역적은 누구나 죽일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군사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셨으니 내가 오늘날 죽음을 무릅쓰고 이단을 물리치는 일이 다행히도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에게 이단을 막는 일은 사단의 고귀함을 지키는 일이자 국가 사직을 지키는 일이요, 국가를 외침에서 막아내는 일이었다. 그 객관적인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지라도 송시열 자신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흔히 송시열이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몰았기 때문에 윤휴가 죽음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윤휴가 죽은 것은 사문난적으로 몰린 효종4년(1653)이 아니 경신환국으로 서인들이 정권을 잡은 숙종6년(1680)이었고, 그를 죽음으로 몬 인물은 송시열이라기보다는 임금인 숙종 자신이었다.

효종 때는 송시열이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몰았다 해서 그를 죽일 수 있을 만한 권력이 없었다. 송시열이 윤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그의 제자인 권상하의 증언이다.

송시열이 권상하에게 물었다.

"윤휴의 죄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역모의 죄가 가장 큽니다."

권상하의 이 대답에 송시열은 빙긋 웃었다.

"그대는 아직 궁리에 대한 공부가 깊지 못하구나."

이에 권상하가 물었다.

"그렇다면 주자를 능멸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까?"

송시열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다. 사람이 진실로 성현을 능멸한다면 무슨 일인을 하지 못하겠는냐."

이처럼 송시열은 역모보다도 주자에 대한 능멸을 더 큰 죄로 생각했다. 사문난적 논쟁은 송시열에게 윤휴 한 사람의 생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정과 그릇된 사와의 싸움이라는 도에 관련된 문제였던 것이다.

사문난적 논쟁은 송시열과 당사자인 윤휴는 물론 같은 서인인 윤선거와 윤증, 박세채 사이를 갈라놓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12년 후인 현종 6년(1665) 이들은 동학사에서 만나 다시 사문난적 논쟁을 벌인다. 이때 이들은 이미 서로 정적이 되어 있었다.

북벌의 시대, 대동법의 시대(1)

2013.06.19 15:00

송시열, 드디어 출사하다

인조가 세상을 떠난 다음달인 효종 즉위년 6월, 송시열은 드디어 출사길에 올랐다. 김집, 송준길, 권시 등과 함께였다. 효종은 "송시열은 지난날 나의 사부였으므로 그리운 생각이 마음속에 간절하니 이런 내용을 갖추어 서술하여 부르라"면서 대군 시절 사부였던 최온을 함께 불렀던 것이다.

효종은 출사한 송시열과 송준길에게 세자시강원 진선을 임명하였으나 사양하자 3일 만인 효종 즉위년 6월 19일에 정4품인 사헌부 장령을 제수할 정도로 그들을 우대했다. 송준길과 송시열, 양송에게는 율곡의 학통을 이은 산림의 적자라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송시열의 나이 만 42세 때였다.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무려 12년 만에 출사한 송시열은 불과 20일도 안 된 6월 26일 벼슬을 내던지고 떠나고 말았다.

'효종실록'은 송시열이 입대를 청했는데 "이때 마침 상께 병이 있어 접견하지 않으니 시열은 대청에서 조복을 벗고 곧장 국문으로 나아가 상소하고저 떠났다"고 적고 있다. 송시열 문집인 '송자대전'의 '연보'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효종은 송시열이 유계 등이 이미 논란을 벌였던 인조의 묘호문제를 다시 거론할 것을 우려해 병을 핑계로 인견을 거부한 것이었다. 인조의 묘호에 어질 인자를 쓰려 하자 부수찬 유계가 이미 제12대 임금 인종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효종은 이 문제를 인종의 종 대신에 조를 씀으로써 해결하려 하였는데, '공은 조', '덕은 종'이란 말처럼 '조'자는 왕실의 시조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큰 공로가 있는 임금에게 내리는 시호였으므로, 유계 등이 '혐의를 분별하는 뜻'이 있어야 한다며 논란을 벌였던 것이다. 송시열이 사직하고 떠나자 효종은 평소 우암과 친한 동부승지 김익희를 보내 다시 불렀으나 송시열은 상소 한 장을 봉입한 채 떠나고 말았다. 이 상소에서 송시열은 "군사를 닦고 준비하여 외적으로부터 수모를 막을 것" 등 13개 조목을 역설했다. 나중에 다시 출사하여 이 13개 조목을 부연 설명한 것이 바로 유명한 '기축봉사'이다.

효종이 인견하지 않는다 해서 조복을 팽개치고 내려간 사건으로 송시열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효종실록'에도 그 비난이 기록되어 있다.

"임금이 시열을 알아주어 특별히 융숭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인견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관직을 박차고 귀향하니 듣는 사람이 다 지나치다고 여겼다."

사실 과거 급제자도 아닌 그에게 정4품인 사헌부 장령을 제수한 것을 파격적인 배려였다. 그럼에도 임금이 인견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벼슬을 팽개치고 돌아간 것은 지나치게 거만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던 것이다.

이런 비난에 대해 그의 당인 산당에서는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의 친구 이유태가 그를 변호한 데 이어 산당의 영수인 김집도 송시열을 거들고 나섰다.

"시열이 잠저(임금이 되기 전에 거처하던 사저)에서 오래 모셨으니 이 사람의 성품이 강하고 행동이 과감한 것을 전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좌우에 두고 다듬어 쓰시면 반드시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공조 좌랑 송시열의 동문인 이유태가 상소하고, 교리 유계, 소복양 등이 옥당에서 거듭 상차를 올려 송시열을 다시 부를 것을 주청하자 효종은 다시 그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송시열은 효종의 거듭된 권고를 받고 조정에 다시 나와 효종을 만났다. 효종 즉위년 10월 6일이었다. 출사를 둘러싼 효종과의 한판 승부에서 송시열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대군사부로 봉림대군을 교도한 이후 실로 13년 만의 만남이었다. 만 17세의 소년 봉림대군은 만 30세의 효종이 되어 있었다. 만 29세의 청년 송시열은 만 42세의 장년이 되어 있었다.

다시 조정에 나온 송시열은 그러나 어머니의 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청하면서 '봉사'를 올려 자신의 소회를 피력했다. 효종 즉위년인 1649년이 기축년이므로 '기축봉사'라고 부르는 글이다. 봉사란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임금에게 바치는 글을 뜻한다. 송시열이 굳이 봉사의 형식을 띤 것은 '정자와 주자의 소장이 황색으로 밀봉해 올렸기' 때문에 이를 본뜬 것이었다. 송시열은 '봉사'를 올리는 이유를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될 것이 매우 많기 때문"이라며 정자와 주자는 모두 황첩을 썼지만 효종이 상중이기 때문에 백첩으로 올린다고 말했다. 과

연 기축봉사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명나라의 은혜를 갚는 것이 북벌

흔히 송시열을 극단적인 북벌론자로 많이 이해한다. 사실상 그는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로 증오했다. 그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대신한 것을 '갓 대신 신을 머리에 쓴 것'으로 여겼다. 그가 청나라에 저항한 많은 인사들의 전기를 쓴 것도 그의 숭명의리의 표현이다. 그는 끝까지 척화론을 주장해 청나라에 끌려간 홍익한, 윤집, 오달제의 전기인 '삼학사전'을 비롯해 '임경업 장군전'을 썼으며, 임진왜란 때 순절한 '부호군 김종윤전', 의병장인 '증 병조참판 장윤전' 등 대의를 지킨 많은 인물들을 기렸다. 이순신 장군 전승비인 '남해노량 충무공 묘비'를 쓴 인물도 바로 송시열이다.

이는 그의 춘추대일통 사상을 구체적인 인물 속에서 기린 글들이다. 그가 이처럼 의리를 강조하고 또 북벌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실제 행적을 고찰해 보면 송시열이 실제로 북벌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한자 2만여 자에 달하는 '기축봉사'에는 북벌에 대한 송시열의 의중이 잘 드러나 있다. '기축봉사'에서 송시열은 시종일관 주의, 즉 주자를 칭송한다. 그 중 몇 구절을 보자.

"예전에 주자가 행궁에 나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났더니 그가 경계하기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말은 임금께서 듣기 싫어하는 바이니 말하지 마시오'라고 하자 주자는, '내 평생에 배운 것이라고는 정심성의 네 글자뿐인데 어찌 감히 간사하게 말을 돌려 우리 임금을 속이겠소'라고 거절했습니다. 이제 신도 감히 다른 말로 고명하고 순수한 성학을 저버리지 못하겠으므로, 감히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송시열에게 주희의 한 마디 한 움직임은 그대로 전범이었다. 송시열은 이런 기조 위에서 북벌을 피력했다.

"'정치를 바르게 닦아 오랑캐를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은 공자가 '춘추'에서 대일통의 의리로 천하 후세에 밝힌 바이므로 무릇 혈기 있는 사람치고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추하게 여겨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주자는 '인은 부자보다 큰 것이 없고 의는 군신보다 큰 것이 없으니 이것이 삼강의 요점이요' '군부의 원수와는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효종실록'은 송시열이 봉사란 비밀 상소문 형식을 띤 상소문을 올린 것은 '기축봉사'를 일관하는 대일통 사상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공자의 대일통은 중국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란 사상이었다. 고대 중국 주나라 이외의 모든 민족은 오랑캐요 금수이므로 중국과 주나라를 따라야 한다는 사상이다.

송시열의 기축봉사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서 모두 주희가 남송의 효종에게 올린 '임오응조봉사'를 본뜬 것이었다. 주희는 '임오응조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천하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는 한번 정하면 결코 바꾸지 못할 계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를 바르게 닦아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오랑캐 금나라는 우리와는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봉사'라는 상소형식과 "정치를 바르게 닦아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주장은 주희의 말에서 그대로 따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주희와 송시열은 수백 년의 세월과 수천 리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으나 기본 사상은 완전히 같았던 인물들이었다.

문제는 주희에게 대일통은 그대로 남송 자신이 천하의 주인이라는 자기 중심적 사상이지만 송시열에게 대일통은 조선 자신이 아니라 명나라를 높이는 타인 중심적 사상이라는 점이다. 사상면에서 볼 때 송시열의 북벌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명나라를 따르자는 대일통 사상이다. 송시열이 말한 군신의 의리는 인조의 삼전도 치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명나라는 천자의 나라요 조선은 제후의 나라이므로 제후의 나라인 조선이 임금인 명나라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 송시열의 대일통 사상이다.

"우리 태조 고황제께서는 우리 태조 강헌대왕과 같은 시기에 창업하시고 즉시 군신의 의를 맺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충정의 절개를 지킨 지 3백 년이나 되었습니다. 불행히 지난번에 추한 오랑캐가 방자하게 온 나라를 삼켜서 당당한 예의의 나라가 다 비린내 나는 더러운 것에 더럽혀졌으니 그때의 일을 어찌 차마 말하겠습니까?"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신하로서 명 태조 주원장을 임금으로 섬긴 것이 변할 수 없는 군신의 의리라는 주장이 송시열의 의리론이다. 즉 그에게 의하면 조선은 명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섬기는 것이 삼강의 의리이다.

"우리 나라는 실로 신종황제의 은혜를 입어 거의 빈 터가 된 종묘사직이 다시 있게 되고 생민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 나라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와 생민의 털 한 터럭에 황은이 미치지 않은 바 없습니다. 그런즉 오늘날 온 천하에서 명나라가 망한 것이 우리만큼 억울하고 분한 자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광해군이 이런 분함을 잊고 강홍립을 시켜 전군을 포로로 만들어서, 천하 사람들이 우리 나라도 오랑캐가 되어버렸다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행대왕(인조)께서 의를 주창하시고 반정하셔서 대의를 밝히시니 세상이 해와 달같이 밝게 되어, 온 나라 사람들의 후세에 할 말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듭 대행대왕께서 지성으로 위(명나라)를 섬기셔서 매양 은총과 칭찬을 받음이 종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묘호란 이후 갑자기 북쪽 오랑캐의 협박을 당해 충성된 절개를 밝히지 못했으니 그 이후의 일은 신자로써 차마 말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송시열은 이처럼 우리 나라가 치욕을 받은 사실보다 명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구구절절 더 슬프게 생각하고 있었다. 송시열에게 있어 북벌은 청나라를 물리쳐 명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이었다. 그에게 대일통, 즉 북벌은 청나라를 물리쳐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갚는 구체적인 수단이었다.

송시열의 북벌론과 효종의 북벌론

그가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명이 망한 후에도 명의 그림자만을 잡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명이 망한 후 중화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잡저'에 실린 그의 글을 보자.

"중국인들은 우리를 동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비록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또한 이유가 있다. 맹자는 '순은 동이 사람이며, 문왕은 서이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순 또한 성인이므로 공자와 맹자가 우리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을 근심할 것은 없다. 옛날 칠민은 남이의 지역이었는데 주자가 이 땅에서 일어난 후에 뒤바뀌게 되었다. 땅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이가 살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조선이) 중국으로 변한 것이다."

그는 중국이란 고정된 특정 지역이 아니라 도가 행해지는 지역을 뜻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서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가졌던 이른바 '소중화 사상'이 나오는 것이다. 송시열이 사대주의자인 점은 분명하지만 '소중화 사상'은 그를 단순히 맹목적인 사대주의자로 보는 시각에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송시열의 '소중화 사상'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이 그가 효종같은 군사적 북벌론자들과 사상적으로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군사적인 북벌에는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좋게 말하면 소중화 사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세치 혀로만 북벌을 높인 것이었다. 그는 군사를 동원하는 실질적 북벌에는 반대하고 있었다. 북벌에 대한 그의 실제 생각을 '기축봉사'에서 보자.

"오늘날 시세를 따지지 않고 강한 오랑캐를 가벼이 끊으면 원수를 갚기도 전에 화가 미칠 것이니 이는 역시 선왕께서 수치를 참고 몸을 낮추시어 굴복하심으로써 종묘사직을 연장시키신 본의가 아닙니다... 이런 독한 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원한을 차곡차곡 쌓으셔서 평소의 온화한 말 가운데에도 그 깊은 곳에는 분노가 더욱 쌓이게 하십시오. 또한 부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뜻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그리고 이러한 굳은 뜻을 5년, 7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결코 풀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우리 힘의 강약을 살피고 저 오랑캐 세력의 성하고 쇠함을 엿본다면, 비록 창을 들고 저들의 죄를 따지면서 중원을 깨끗이 쓸어 신종황제의 망극하신 은혜를 갚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오랑캐와 국교를 끊고 이름을 바르게 하고 이치를 밝혀서 우리의 의리를 지킬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기축봉사'에서 송시열의 말하는 북벌은 조선이 힘을 길러 청나라를 정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송시열은 이미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에게 가능한 북벌 의리는 청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라 청과 국교를 단절하고 명을 임금의 나라로 섬기는 의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즉 청과 국교를 끊고 명을 섬길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이 송시열이 바랐던 조선의 군사력이었다.

결국 송시열의 북벌론은 실제 무력으로 청나라를 정벌하는 무력 북벌론이 아니라 명나라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의 힘을 길러 청나라와 국교를 단절하자는 명분적 북벌론, 제한적 북벌론이다. 말하자면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는 현실을 뒤바꾸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정체성만은 끝내 지키자는 자기 정체성론이었던 셈이다.

이것은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정권의 이론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광해군의 현실 외교를 무도라고 비판하여 반정한 결과 삼전도의 치욕을 자초한 서인정권으로서 청나라의 실체를 인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청을 무력으로 정벌할 수도 없었다. 말하자면 진퇴양난이었다. 그 진퇴양난이 만든 묘수가 말하자면 '소중화 사상'이요 '대일통 사상'이었다.

하지만 효종은 달랐다. 효종은 명분론자가 아니라 현실론자였다. 효종에게는 송시열처럼 국력을 길러 청과 국교를 끊고 이미 망해버린 명을 섬기는 따위의 명분적 북벌론, 허구적 북벌론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효종에게 북벌은 군사력으로 청나라를 정벌하는 글자 그대로 '북벌'이었다. 효종은 명분만의 허구적 북벌이 아니라 실제적 북벌을 추구했다. 북벌의 수행만이 소현세자와 그 아들 대신 자신이 왕위에 오른 명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군사력을 키웠다.

산림이란 정치세력

효종이 즉위할 무렵 조선에는 특이한 성격의 정치세력 하나가 존재했다. '산림'이라 불리는 정치세력이었다. 시골의 서원 등에서 강학하는 도학자를' 산림학자', 도는 '산림양덕지사'라고 일컬은 데서 비롯된 말이 산림이었다. 이들은 과거를 통한 출사는 포기한 채 학물만을 닦았다. 인조반정 이후 정국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이 증대하면서 하나의 정치세력을 이루게 되었다. 어떤 측면에서 이들은 벼슬에 뜻이 없어서 과거를 보지 않았다기보다는 과거를 통하지 않고도 벼슬길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보지 않은 측면이 강했다. 조선 후기 들어 그만큼 이들 산림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들이었다.

산림의 의견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율곡 이이의 학통을 계승한 정통 서인 세력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조반정은 이이의 제자들이 주도한 정변이었다. 학파가 정파가 되는 조선 정치의 특성상 반정주도 세력으로서는 이이의 학통을 이은 산림 세력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수 밖에 없었다.

반정 직후 집권 세력들이 비밀리에 두 가지의 국정운영 원칙을 정해 놓았다는 소문이 조야에 나돌았다.그 하나는 국혼물실'이고 다른 하나는 '숭용산림'이라는 것이었다. '국혼물실'은 글자 그대로 '국혼'은 빼앗기지 않겠다, 즉 왕비는 서인 집안에서만 내겠다는 뜻이었고, '숭용산림'은 산림을 높여 등용하겠다는 뜻이었다. 바로 '숭용산림'이란 쿠데타 정권의 국정운영 원칙 덕택에 이들 산림들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도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산림의 종주인 사계 김장생은 과거를 보지 않았으나 인조반정 후 사헌부 장령, 집의 등 대간직을 제수 받았으며 그의 아들 신독재 김집도 과거를 보지 않은 몸으로 대사헌을 역임한 데서 알 수 있듯 이들 산림은 이미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효종 때 산림의 영수였던 김집 휘하에는 양송으로 불리던 송시열, 송준길과 초려 이유태, 유계, 윤선거 같은 쟁쟁한 제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송시열과 송준길은 쌍청공 소유의 자손으로 친척간이었다. 송시열은 여덟 살 때 한 살 위인 송준길의 아버지 송이창에게 사사하기도 했었다. 훗날 송시열과 함께 사사되는 김수항의 아들이자 양송의 제자였던 김창흡이 말하는 이들의 학문 태도를 보자.

"우암(송시열)과 동춘(송준길)과 초려(이유태)가 함께 강론할 때 우암은 5일 밤낮을 자지 않고도 정신이 여전하여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동춘은 3일 밤낮 후에는 반드시 하룻밤씩 실컷 자고 일어나는데 그러고 나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초려는 억지로 잠을 자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지만 낮이면 때로 손으로 턱을 괴고 꾸벅꾸벅 졸았으니, 여기에서 선배들의 정력과 학문의 깊고 얕음을 볼 수 있다."

인조반정 이후 인조와 효종은 이들 산림 세력에게 거듭해서 관직을 제수했다. 김집이나 송준길도 그랬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인 송시열을 예로 들면 첫 관직에 나서는 인조 11년(1633) 27세 때부터 사망하는 숙정 15년(1689) 83세 때까지 56년 간에 걸쳐 네 임금이 그를 부른 횟수는 무려 167회였다. 그러나 송시열이 이에 응한 것은 37회에 불과했다. 그는 제수되는 벼슬을 거듭 거부함으로써 그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한껏 높일 수 있었다. 벼슬에 뜻이 없어서 출사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송시열을 조선 역사상 최대의 당쟁가라고 말하지만 그가 조정에서 벼슬한 기간은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우상과 좌상에서 세 번 제수되었으나 그가 조정에 출사해 정승의 임무를 수행한 날은 49일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기간은 고향에서 학문을 닦고 문인들을 길렀다. 그리고 배후에서 집권당인 서인과 노론을 조종했던 것이다.

병자호란으로 결정적 타격을 입은 인조, 그리고 둘째 아들로서 소현세자의 장남 석철의 자리를 차지한 효종으로서는 산림의 지지 여부가 왕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지주가 되므로 이들에게 자주 벼슬을 제수한 것이다.

이런 정치적 필요 이외에 실제로 이들 산림을 현자로 여겨 적극적으로 천거한 조정 대신들도 있었다. 인조 때의 우의정 이경석이 그런 인물이었다. 이경석은 이조판서와 정승을 역임하면서 숨은 인재를 찾아 등용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명재상이었다. 송시열이 거듭 관직을 사양하고 나오지 않자 우의정으로 있던 이경석은 인조 23년 10월 이렇게 주창한다.

"김집은 일생 동안 성리학에 몰두하였고 송준길과 송시열 역시 학문과 품행으로 이름난 지 오래입니다. 이 두세 신하는 늙거나 병들었지만, 정성을 들여서 찾고 예의를 갖추어서 부른다면 분수나 의리로 보아 어찌 감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송시열도 초야에 있을 때는 이런 이경석을 고맙게 생각했으나 훗날 집권당의 배후 영수가 되면서 현종의 온양 온궁 행차를 계기로 이경석과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명분의 하자를 안고 즉위한 효종에게 산림의 지지는 중요한 것이었다. 효종이 즉위하자 당시의 시권자들인 김자점과 원두표, 이후원 등이 앞다투어 산림 인사들의 중용을 권유한 것도 자파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효종 즉위 초의 정국은 낙흥부원군 김자점의 낙당과 원성부원군 원두표의 원당으로 나뉘어 있었다. 원당과 낙당은 산림의 지지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산림을 추천한 것이다.

이런 이유들의 중첩되어 효종은 김집과 송시열, 송준길 등 산림을 대거 불렀고 이들은 드디어 사양하는 자세를 버리고 영수 김집을 필두고 대거 출사해 조정에 나왔다. 그러나 산당은 낙당이나 원당은 물론 국왕 효종의 들러리나 서기에는 이미 너무 커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당 자체의 정치적 야심도 이들보다 작지 않은 정치세력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성리학적 명분론으로 무장된 학자적 정객이기도 했다.

김자점의 낙당과 원두표의 원당은 모두 산림을 자파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막상 산림은 낙당과 원당 모두를 부패 정치세력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김집과 송준길은 사헌부, 사간원 등 자파의 대간을 동원하여 당대의 실세인 김자점과 그 당인들을 탄핵했다. "나라를 미혹케 하고 조정을 잘못 이끌었다는 이유" 였다. 이들은 김자점과 그 당인들인 전라감사 이시만 등을 몰아냈다.

산림은 김자점의 낙당뿐만 아니라 원두표의 원당에 속한 예의 이행진과 승지 이시해 등을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원두표의 집을 출입하면서 압객(서로 예의를 차리지 않는 친밀한 사이)으로 불려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처럼 출사한 산당은 마치 중종 때의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파가 그랬던 것처럼 거침없는 공세를 취했다. 초야에 있었다는 선명성과 이이의 학통을 이었다는 정당성을 무기로 산림이란 정치세력이 조정에 등장한 것이었다. 산림의 등장은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북벌의 시대, 대동법의 시대(2)

2013.06.19 15:02

기해독대...효종과 송시열의 담판

효종 10년(1659) 3월 11일은 태백이 낮에 나타난 날이었다. 이날은 효종과 송시열이 그 유명한 기해독대를 한 날이었는데, 사실상 이날 독대를 먼저 요구한 것은 송시열이었다. 효종이 바라던 바를 송시열이 먼저 제기한 것이었다. 송시열은 효종과 시사를 논하던 도중 효종에게 전가의 보도인 남송 효종의 예를 들며 독대를 요구한 것이었다.

"송 효종이 당초에 큰일(중원 수복)을 하려는 뜻을 품고 장남헌(남송의 장식을 부를 때에 만일 전상에서 만나보면 혹시 엿듣는 자가 있을까 싶어서 뜰 가운데다 장막을 설치하고 그를 보았는데 좌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가 이와 같아야만 큰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효종이 말했다.

"근래에 경의 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해 늘 매우 답답하였다. 오늘은 자못 조용한 듯하니 경은 나가지 말라."

효종은 승지 이경억에게 일렀다.

"오늘은 승지가 먼저 물러가라."

그리고 사관과 환관도 모두 물러가라고 분부했다. '효종실록'은 이때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송시열 혼자 입시하였는데, 외조에 있는 신하들은 송시열이 어떤 일을 말씀드렸는지 몰랐다."

효종은 이날 내관(내시)에게 문을 열어 놓은 다음 나가게 했다. 엿듣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조치였다. 독대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이다. 그러나 이 날의 대화를 송시열이 기록해 놓았으므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있으니 재연해 보자.

흥정당에는 효종과 송시열, 두 군신만이 남아 있었다. 임금과 신하가 단 둘이 마주하는 것, 바로 독대였다. 독대는 조선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독대는 이때의 기해독대와 선조 때 유경영과의 독대, 그리고 숙종 때 이이명과의 정유독대(1717)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조선에서 독대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정치는 떳떳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수행하는 공기이지 남이 볼까 두려워 밀실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사기가 아니라는 정치철학의 소산이었다.

독대가 금지되는 정치원칙은 공작정치의 씨앗 자체가 자랄 수 없는 토대이다. 해방 후 한국정치에 독대가 횡행하고 공작정치가 거리낌없이 자행된 것은 '오야봉'이 '꼬봉'을 불러 신임을 과시하는 일제의 무사풍토에서 나온 일제 무단통치의 유산에 불과할 뿐 조선에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던 일이었다.

효종과 송시열 두 사람 사이엔 긴장이 흘렀다. 비상한 상황임을 둘은 잘 알고 있었다. 효종이 입을 열었다.

"경과 조용히 대화를 하고 싶어 여러 달을 기다렸지만 끝내 기회가 없었다. 오늘은 내가 마음먹고 이 자리를 만든 것이다. 오늘은 나도 다행히 기운이 회복되었으니 내 뜻을 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시 말을 끊은 효종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현재의 대사(북벌)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저 오랑캐(청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될 형편에 처해 있다. 예전의 한(청나라 황제 세조를 낮춰 부르는 말)은 그 형제들이 매우 번성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예전의 한은 인재가 매우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 용렬하다. 예전의 한은 오로지 무예와 전쟁을 숭상했는데 지금은 점점 무사를 폐하고 중국의 문물을 본받고 있다."

송시열 자신이 독대를 요구한 명분인 '큰일'이 북벌임은 잘 알고 있었다. 효종은 계속 말을 이었다.

"오랑캐의 지금 상황은 경이 언제가 주자의 말을 빌어 말한 '오랑캐가 중원의 인재를 얻어 중국의 제도를 배우면 점점 쇠약해진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의 한이 비록 영웅이라고 하나 주색에 깊이빠져 있어 그 형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신하들은 모두 내가 군사를 다스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천시와 인사가 언제 맞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효종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권을 병조나 비변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지휘하려 했는데, 그 목적도 물론 때가 되면 북벌을 단행

하기 위함이었다.

효종의 계획...조선군이 들어가면 한족이 일어선다

"오랑캐의 일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정예 포병 10만을 길러 자식처럼 사랑하고 위무하여 모두 결사적으로 싸우는 용감한 병사로 만든 다음, 기회를 봐서 오랑캐들이 예기치 못했을 때 곧장 관(산해관)으로 쳐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면 중원의 의사와 호걸 중에 어찌 호응하는 자가 없겠는가."

효종의 북벌계획은 군사전략상으로 허황한 것이 아니었다. 포병 10만은 몇 십만보다 훨씬 위력이 있었다. 청나라는 겉으론 견고해 보여도 구조상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지배층은 만주족이지만 중하위 관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은 한족이었다. 지배층인 만주족은 피지배층인 한족에 비해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다. 현재의 인구비율로 따지면 약170분의 1에 불과하다. 중화사상을 지닌 피지배층 한족이 만주족에 대해 민족감정이 없을 수 없었다. 10만의 조선 포병이 기세를 올리며 선전하면 중국 각지에서 한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 소수의 만주족으로서는 조선군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한족을 상대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효종의 전략은 바로 이것이었다.

실제로 기해독대 15년 후인 현종 15년(1674)에 한족 오삼계가 군사를 일으켜 중국 남방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자, 유생 나석좌 등이 북벌하자는 상소를 올렸을 정도로 효종의 이 계획은 조선군이 힘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다. 효종의 설명은 계속된다.

"저들은 방비에 힘쓰지 않아 요동과 심양의 천 리 길에 활을 잡고 말을 타는 자가 전혀 없으니, 우리가 쳐들어가면 무인 지경에 들어가듯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저들이 우리나라의 조공품을 모두 요동과 심양에 쌓아두고 있다. 이는 이 물건들을 다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는 하늘의 뜻인 듯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붙잡혀 간 수만 명의 포로가 그곳에 억류되어 있으니, 어찌 내응하는 자가 없겠는가."

효종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오늘의 대사는 과감하게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뿐이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효종은 흉중에 감추었던 모든 계획을 말했다는 듯이 입을 다물었다. 이제 송시열이 답할 차례였다.

"전하의 뜻이 이와 같으시니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실로 천하만대의 다행입니다. 하나 제갈량도 뜻대로 되지 않자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세상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차질이 생겨 오랑캐에게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찌 하시렵니까?"

효종은 빙그레 웃었다.

"그것은 경이 나를 시험하는 말이다. 나는 내 능력이 대사를 수행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천리나 인심으로 보아 그만둘 수 없는데, 어찌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하여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으니 나는 나라가 망하는 불행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하늘이 내게 부여해 준 자질이 그리 용렬하지 않는 데다가, 나로 하여금 일찍이 환란을 당하게 하여 부족한 면을 채워주었고, 나로 하여금 일찍이 궁마와 진법을 익히게 하였으며, 나로 하여금 저들 속에 들어가 저들의 형세와 산천 지리를 익히 알게 하였고, 나로 하여금 적지에 오랫동안 있게 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하였다.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하늘이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겪게 한 뜻이 우연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가하고 있다."

소현세자의 심양 볼모 생활이 청나라가 주도하는 세상에 대한 화해 기간이었다면 봉림대군(효종)의 심양 생활은 청나라에게 복수할 정보를 수집하는 기간이었다. 봉림대군은 어떻게 하면 현실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 궁마와 진법을 익히고 요동의 지리를 익혔다. 북벌은 이런 노력의 소산이 확신으로 승화된 신념이었다.

"나는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10년을 기한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이면 내 나이 50이 된다. 10년 안에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나의 지기가 점점 쇠하여 다시는 가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도 경이 물러가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때엔 경이 물러 가도 괜찮을 것이다."

효종은 신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자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임금이었다. 그는 북벌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그는 몸의 기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자 관계도 삼가는 인물이었다.

"내가 내전에 들어가는 날은 혈기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지기 또한 해이해져서 일을 처리하는 데 온당치 못한 일이 많아진다. 옛 사람들이 요절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여색과 관계가 있으니 진실로 무일의 경계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주색을 끊고 경계하여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 늘 정신이 맑고 몸도 건강해졌으니 어찌 앞으로 10년을 보장할 수 없겠는가."

효종은 실제로 인선왕후 이외에 안빈 이씨라는 한 명의 후궁을 두었을 뿐이다. 효종은 대의를 위해 일상의 즐거움을 버릴 줄 아는 지사였다.

"하늘이 나에게 10년의 기간을 허용해 준다면 성패와 관계없이 한 번 거사해 볼 계획이니, 경이 은밀히 동지들과 의논해 보도록 하라."

효종은 각 신하들의 성향을 물었다.

"내가 보기에 송준길은 함께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함께 할 뜻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기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 허적은 굳세고 용감하여 일을 맡길 수 있겠으나, 주색에 빠져 자못 행실이 좋지 않다고 하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 내 일찍이 생각하기를 나와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오랑캐의 손에 죽은 집안의 자제들 뿐이고 그밖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송시열의 종형 송시형이 강화도에서 순절한 것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효종은 송시열에게 다른 신하들이 북벌에 무관심하거나 북벌을 두려워하는 것을 질타했다.

"내가 만수전을 지을 때 터잡는 일을 핑계로 몇 명을 만나 은밀히 시험해 보았는데, 모두 무관심하여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니, 이처럼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신하들이 모두 눈앞의 부귀만을 도모하면서 북벌을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듯이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말하면 모두 간담이 서늘해져서 놀라기만 하니, 나 혼자 부질없이 탄식할 뿐이다. 저들이 모두 자기 자손들을 위한 계획만 세우고 나를 도우려 하지 않고 있다."

신하들에 대한 효종의 질타에 송시열은 정면에서 반박했다.

"예로부터 제왕들은 먼저 자신을 닦고 가정을 다스린 뒤에야 법도와 기강을 세웠는데 이것이 일의 순서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혼잡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떨쳐버리지 못하시니 지기가 있는 선비들의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으며, 뭇 신하들이 제 집안을 살찌우는 데에만 힘쓰는 것도 전하를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심신을 깨끗이 하시어 잡다한 모든 일들을 일체 제거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한결같이 이 일만을 위주로 하신다면, 신하들도 어찌 감히 나라를 위해 제 몸을 바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송시열은 신하들의 부패와 안일을 효종의 책임으로 돌렸다. 효종으로서 이는 모욕에 가까운 말이었다. 그러나 효종은 송시열의 이런 말까지도 받아들였다. 북벌을 위해서는 송시열의 지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경의 말이 옳다."

효종은 이렇게까지 양보했다. 하지만 송시열이 제시하는 대안은 그저 치자의 근본도리는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린다'는 뜻의 '수기형가'이며 이것이 북벌의 선결조건이라는 말뿐이었다. 훗날 송시열이 반대당파로부터 '수기형가' 네 자로 북벌의 책임을 때우려 했다는 비난을 받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강빈은 과연 역적이었는가

송시열을 비롯한 산당이 출사하며 명분으로 삼았던 것은 소현세자 빈 강빈에 대한 신원이었다. 강빈이 역모로 몰린 것은 억울한 일이니 신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시열은 이 문제를 정면에서 거론했다.

"강빈의 옥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불평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효종으로서는 강빈이 무고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다. 이 경우 자신의 왕통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이 문제는 여러 차례 해명한 터였다. 효종3년 4월에 부교리 민정중에게 설명했으며, 5월에도 여러 신하들에게 해명한 터였다. 물론 강빈이 역적이라는 해명이었다. 이때 효종는 "지금 역강(역적 강씨라는 뜻)을 구하려 하는 자들은 어찌 반역을 꾀한 자와 동등한 자가 아니겠는가"라며 화를 내 '여러 신하들이 모두 겁을 먹고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효종실록'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7년 후에 송시열이 다시 거론한 것이다. 이때 효종은 송시열에게는 화를 내지 못했다.

"내가 늘 경과 그 일에 대해 말하려 했는데 틈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을 뿐이다."

효종은 강빈을 악녀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비화 하나를 공개했다.

"강씨의 못된 짓을 어떻게 한 입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내 한 예를 들을 테니 한번 들어보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짐승들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강씨는 그렇지 않았다. 소현세자가 돌아가셨을 때 대조(인조)께서 애통해 하시며, '이는 잠자리를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책망하시자, 강씨는 즉각, '모월 이후로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발악했다. 그 후 자식을 낳게 되자 모월 이후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을 실증하기 위해 곧 자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은닉하였다."

강빈은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였음을 짐작하고 있었던 듯하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여 놓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효종은 나아가 강빈이 역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성품이 이렇듯 악독하니 그가 역모를 꾸민 것이 어찌 괴이하다 하겠는가. 역모를 꾸민 것은 궁내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니 밖의 사

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이 일은 확연히 드러나 의심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밖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원통해 하고 있으니 내 가슴이 실로 아프다."

송시열은 강빈이 억울하게 죽은 증거로 인조의 전교를 들었다.

"선왕의 전교에, '흉한 것을 땅에 묻어 저주하고 독약을 넣은 것은 '필시' 강씨의 소행일 것이다'라고 쓴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시'라는 두 글자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것을 억지로 단정하는 말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없는 사람을 대역죄로 몰아 죽였는데 사람들이 원통해 하지 않을 리 있습니까? 지금 이 '필시'라는 두 글자 때문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않고 있습니다."

인조의 후궁 귀인 조씨의 자작극으로 의심받는 저주사건을 담은 전교의 허점을 송시열이 파고 든 것이다. 전교 자체가 강빈을 죄 없이 죽였음을 시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효종은 깜짝 놀라는 척했다.

"그 점은 내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는데, 과연 경의 말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강씨가 역모를 꾀한 일은 의심할 것이 없다."

효종으로서는 애매하게 말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 만약 강빈이 무고라고 말하면 종통은 자신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그녀의 아들, 즉 소현세자의 아들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송시열의 진퇴양난

독대라는 파격적 대우도 송시열을 북벌론자로 만들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송시열로서도 고민은 있었다. 효종이 이토록 북벌을 호소하는데 정권을 위임받은 신하로서 북벌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효종이 그에게 중대한 정치적 양보를 한 이유도 여기 있었다.

기해독대 때 효종은 심지어, "조만간 경에게 큰 임무를 맡기고 양전(이조판서와 병조판서)을 겸직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파격적인 대우에는 조건이 있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북벌을 수행하라는 조건이었다.

송시열이 북벌 자체를 반대한다면 효종은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미련 없이 그를 버릴 것이다. 송시열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실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북벌을 소리 높이 드높여야 했다. 하지만 송시열의 속마음에 북벌은 먼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다. 송시열이 영의정 정태화를 찾은 것은 이런 모순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송시열은 며칠 후 실제 군사를 이끌고 북벌에 나설 것처럼 호언장담했다. 한참 호언하더니 말미에 지나가는 말처럼 정태화의 의견을 물었다. 정태화를 끌어들여 북벌의 책임을 지우려 한 것이다. 하지만 정태화는 송시열보다 처세에 능수능란한 인물이었다. 효종 10년3월 제수된 영상을 사양하려 한 것도 북벌의 시기에 영의정을 맡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였는지 모른다. 정태화는 송시열이 자신을 끌어들여 북벌의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의도를 간파했다. 정태화의 대답은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공(송시열)의 지략이 성상의 위임을 받아 천하의 대의인 대사(북벌)를 경영하시니 무슨 일인들 못하겠고. 나는 이미 늙고 무능하여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대감이 비상한 공을 세우고 천하에 대의를 펴는 것을 한 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오."

정태화의 이 말은 물론 거절이었다. 송시열이 실망한 낯빛이 되어 돌아가자 정태화의 아들이 물었다.

"아버님은 지금 국제정세가 어느 때인데 북벌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에 정태화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언제 북벌한다고 말했더냐. 송대감이 북벌을 임무로 삼아 성상에게 무한한 위임을 받았으나, 시간이 흘러도 성공할 묘책이 없으니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그의 생각에 내가 북벌이 가망 없다고 하면 그 한마디를 구실 삼아 나에게 죄를 돌리고 자기의 발을 빼려는 것인데 내가 왜 남에게 팔린단 말인가. 그가 나에게 권모술수로 대하니 나 또한 권모술수로 답한 것이다.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고 하지 않더냐."

정태화와 그 아들의 대화는 북벌에 대한 조선 지배층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북벌을 효종 혼자만이 꾸는 꿈으로 여겼다. 청을 건국한 만주족이 조선보다도 인구가 적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효종처럼 청의 취약한 구조에 대한 분석도 없었다. 그저 북벌은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보편적 생각이었다. 송시열도 정태화와 마찬가지 생각이었으나 처지가 달랐다. 정태화는 북벌을 모른 척하면 되지만 송시열은 북벌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송시열은 대일통을 기치로 북벌을 소리 높이 외쳤지만 북벌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북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효종과 맺은 암묵적 연합전선이 깨지기 때문이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직접 챙기는 효종이 인사권과 행정권, 그리고 군사권까지 위임하며 맡긴 대임을 방기할 수는 없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었던 것이다. 이때 송시열을 위기에서 구해 주는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다.

북벌의 시대, 대동법의 시대(3)

2013.06.19 15:03

북벌의 군주 효종, 급서하다

효종이 급서한 것이다. 효종 10년 5월 4일, 송시열과 독대한 지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이었다. 불과 두 달 전의 독대 때 최소한 10년 살 자신이 있다고 호언하던 효종이었다. 그때 효종의 나이 만40세의 장년이었으니 허언은 아니었다. 처음 효종의 발병 증세는 사소한 것이었다. 머리 위의 작은 종기가 원인이었던 것이다.

'효종실록'에 병세가 처음 기록된 날은 그 해 4월 27일이었다.

종기의 독이 점점 퍼져 얼굴에까지 번졌으나 '의원들이 그저 심상한 처방만 일삼고 있다'고 효종이 불평할 정도로 큰 병은 아니었다. 효종은 산침을 놓아 독기를 배설시켜야 한다는 처방에 따라 산침을 맞았다.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한다. 문제의 어의 신가귀였다. 당시 병으로 집에 있던 그는 효종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입궐해 처방을 내린다.

"종기의 독이 얼굴로 흘러내리면서 농증을 이루려 하니 반드시 침을 놓아 나쁜 피를 뽑아낸 뒤에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른 어의 유후성이 말리고 나섰으나 효종이 침을 맞을 것을 결정했는데 신가귀가 침을 놓자 잠시 후 침구멍으로 피가 나왔다. 효종은 "가귀가 아니었다면 병이 위태로울 뻔했다"며 안도했다. 그러나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나왔으며 '효종실록'에는 침이 혈락을 범한 탓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결국 효종은 침 맞은 자리에서 피가 계속 솟아 나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종기에 침을 놓은 신가귀는 수전증, 즉 손이 떨리는 증세를 있는 의원이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신가귀가 일부러 효종의 혈락을 범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전증의 어의가 옥체에 침을 놓는다는 것은 왕조국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벌군주 효종은 이렇게 손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허무한 노릇이었다. 그 누구도 예견 못한 급박한 사태였다. 훈련대장 이완이 훈련도감의 군병을 거느리고 궁성을 호위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천추의 한을 남기고 떠나서인지 효종 사후에도 문제가 잇달았다. 첫번째 문제는 효종의 시신에 부기가 있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효종비 인선왕후 장씨가 송시열을 불러 전교했다.

"옥체에 부기가 있으니 어찌하리오."

그녀는 신풍부원군 장유의 딸로서 당시 효종보다 한 살 위인 만 41세였다.

"이는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보통 초상에 부기가 극도로 되면 도로 빠집니다. 이제 대렴할 날이 멀었으니 그 전에 반드시 바로 될 것입니다."

과연 다음날 저녁에 부기는 빠졌다. 이때 국상의 예법은 송익필->김장생->김집으로 이어지는 조선 예학의 계보를 이은 송시열의 자문을 받았다. 송시열은 소렴 때의 예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소렴할 때 끈을 매되 조르지 않고 그 얼굴은 덮지 않은 법입니다. 이는 효자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수시로 그 얼굴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가에서 끈을 졸라매는 것은 염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시신의 대소.장단을 재어 관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국상의 경우는 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전례에 따라 졸라매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 정태화와 송준길이 상의해서 끈을 졸라매되 단지 한두 마디를 빼어 효의 뜻을 표시하자고 절충해 그대로 시행했으나 문제는 끈을 졸라매느냐 아니냐가 아니었다. 송시열의 말대로 국상이므로 '관이 예비'되어 있었으나 그 관의 폭이 염한 시신보다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두번째 문제였다. 깜짝 놀란 송시열이 내시를 불러 말했다.

"이 관에는 옥체가 들어가지 않을 듯하니 가는 댓조각을 가지고 시신을 재어 오라."

내시가 재어 온 바로는 과연 시신이 관턱을 걸치고도 남았다. 임금의 관이 시신보다 작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송시열이 영의정 정태화에게 알리니 여러 신하들이 서로 돌아보며 놀랐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염한 옷이 너무 두터운 때문인지 모른다고 생각해 손으로 만져 보았으나 아주 얇았다. 시신 썩기 쉬운 한여름에 두터운 옷을 입힐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어깨가 관보다 넓었다. 정태화

가 세자에게 말했다.

"망극한 가운데 더욱 망극한 일이 생겼습니다."

망극하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결국 급한 대로 널판을 구해 잇대어 관을 크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연성군 이시방이 널판을 이어 이 문제를 겨우 해결했다. 국왕의 관을 재궁이라고 부른다. 관 자체가 궁이라는 뜻이다. 이런 재궁을 너덜너덜 하게 잇는 일이 성리학과 예학의 나라 조선에서 발생한 것이다. 훗날 송시열은 죽을 때 자신의 관도 덧붙인 널판을 이용하라고 유언했다. 효종의 관에 덧붙인 널판을 사용한 것이 미안하다는 뜻이었으나 그간 이 문제로 수많은 공격을 당한 결과이기도 했다. 뒤이어 벌어진 예송논쟁 때 남인 윤선도는 효종의 시신보다 관이 작은 연유나 시신에 부기가 있었던 까닭을 송시열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송시열이 효종 시신의 염을 빨리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공격들을 뼈아프게 생각한 송시열이 자신의 관도 널판을 사용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효종의 죽음이 가져온 파문은 시신의 부기와 시신보다 작은 재궁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장지도 문제가 되었다. 이세상에서 못다 한 일이 많은 효종의 한이 거듭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몰랐다. 처음 효종의 장지를 결정한 인물은 풍수에 능한 전 참의 윤선도였는데, 그는 수원부 청사 뒷산등성이를 명당이라고 지목했다.

"수원 호장 집 뒷산이 용혈로서 앞산과 물이 모두 좋아서 천 리 안에는 없는 명당이므로 영릉(세종의 능) 다음가는 곳이니 주자가 말한 바, 종묘의 제사를 영구하게 하는 계책은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지관들도 그곳이 길지라고 호응했다. 이에 따라 세자는 이곳을 장지로 삼기로 마음먹었으나 다른 대신들과 삼사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영중추부사 이경석도 반대한 대신 중의 한 명이었다.

"살아서 남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농사 짓지 못할 땅을 선택해서 장사 지내는 것이 인인과 군자의 마음입니다."

수원을 장지로 정하면 수원부를 옮겨야 하므로 군사들과 백성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는 이유였다. 장지를 결정하는 데 풍수설을 좇을 것은 없고 그 땅이 길이 되거나 집터가 되거나 수해가 있는 등의 문제를 뜻하는 오한만 없으면 된다는 송나라 사마광의 이론을 딴 반대였다. 판의금부사 송시열도 반대하고 나섰다.

"대행왕은 마음이 지극히 어질고 넓어서 두루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으나 그 중에서도 군사에 대해서는 특별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원을 7천 병력의 주둔지로 만들어 가장 훌륭한 장수와 군사를 뽑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을을 철거하고 그 농토와 가산을 파괴하여 그곳 사람들을 슬피 한탄하게 함은 결코 대행왕의 뜻이 아닙니다."

효종의 장지 문제에 대한 송시열 등 서인들의 반대는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군비확장에 안민론으로 맞섰던 것처럼 송시열은 효종의 장지 역시 백성들의 생활을 명분으로 수원으로 정하는 데 반대했다. 이 자리에는 공교롭게도 약 100여 년 후 정조에 의해 효종의 현손인 사도세자의 현릉원이 조성된다. 이때 정조가 내탕금으로 이주 비용을 마련해 주자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시행 의지의 문제이지 민생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더구나 정조가 현릉원을 이곳으로 옮긴 후 수원은 더욱 발전된 행정.군사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볼 때 군사를 빗댄 반대론도 근거가 있는 반대는 아니었다.

손 떨리는 어의가 침통을 잡는 것 하나 막지 못해 비명에 가게 하고 임금의 관 하나 제대로 마련 못한 신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반대할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서인의 세상이어서 효종의 능은 건원릉 오른쪽 산등성이에 정했다. 윤선도는 또 한번 정치적 패배를 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15년 후인 현종 14년(1673)에 효종의 능인 영릉의 석물에 틈이 생겨 빗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다 하여 세종의 능 옆으로 옮겼다.

이때 남인들은 이 모든 원인을 송시열의 탓으로 몰아 공격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해 송시열이 무너지는 제2차 예송논쟁이 일어났으니 송시열과 효종은 좋든 나쁘든 죽어서도 끊어지지 않는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어의 이기선과 송시열

그런데 효종 사망 다음달에 이기선이란 의관이 갑자기 엄형을 받은 일은 특기할 만하다.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 다름 아닌 효종의 뒤를 이은 현종이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난달 초삼일 밤 입진 때, 의관 이기선이 많이 부어 있는 것을 보고는 감히 꽁무니를 뺄 생각으로 진맥할 줄을 모른다고 아뢰었는데, 만약 그의 말대로라면 작년 편찮으셨을 때는 어떻게 맥을 논했다는 말인가? 그의 정상이 매우 흉측 교묘하여 엄히 징벌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를 잡아들여 국문 처리하라."

현종은 효종의 갑작스런 죽음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효종비 인선왕후 장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어의 이기선이 갑자기 발을 뺀 것이 효종의 갑작스런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여긴 후왕 현종은 이기선이 원래 맥 짚는 법을 모른다고 발뺌하자 화를 냈다.

"맥 짚는 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의원이 되었느냐?"

현종은 엄형을 가하도록 특명을 내렸다. 최고의 실력을 지닌 어의가 맥 짚는 법을 모를리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맥을 짚을 줄 모른다는 이기선의 말은 누가 들어도 어불성설의 변명이었다. 현종이 어의 이기선을 추궁한 것은 바로 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이기선을 옹호하고 나서는 인물이 송시열이었다. 이들은 현종 즉위년 6월 11일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 송시열과 정유성이 "이기선은 사실 맥 짚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옹호하고 나서서 그를 사지에서 구했다. 이기선은 송시열의 말대로 맥을 짚을 줄 모르는 의원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현종의 말대로 맥도 짚을 줄 모르는 인물이 어떻게 의원, 그것도 어의가 되었는지 의문이다. 이런 숱한 의혹들을 남긴 채 군사강국을 지향했던 효종은 세상을 떠났고 조선을 다시 송시열 등이 주도하는 극심한 문치의 나라로 돌아갔던 것이다.

인조반정, 그 비극의 뿌리(1)

2013.06.19 14:56

인조반정에 대한 허위 이데올로기

광해군 15년(1623) 3월 전부사 김류, 이귀, 이괄, 심기원, 최명길, 김자점등 서인들이 이끄는 6,7백여 명의 병력들이 서울 북쪽 홍제원에 모였다. 이들은 광해군과 북인정권을 무너뜨리려 모인 서인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추대받은 선조의 5남 정원군의 장남 능양군도 친병을 거느리고 장단부사 이서의 병력 700가 합류해 먼저 창의문을 돌파하고 창덕궁으로 향했다.

이때 광해군은 쿠테타에 가담한 김자점이 미리 총애하는 상궁 김개시에게 보낸 술과 안주로 궁인들과 연회를 베풀고 있다가 쿠테타군의 급습을 받고 무력학 무너졌다. 조선이 개국한 지 두 번째로 신하들이 임금을 내쫓는 반정이 성공한 것인데, 이를 인조반정이라고 부른다. 반정은 그른 것을 바른 것으로 되돌렸다는 의미지만 이는 쿠데타를 일으킨 서인쪽의 견강부회이고 인조반정은 조선의 운명을 비극으로 이끌어간 시대착오적인 사건이었다.

광해군은 재위 15us 동안 수많은 업적을 남긴 현군이었다. 우선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느 대륙 정세의 격변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선을 전란에서 비켜가게 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광해군은 한 족의 명나라와 만주족의 후금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등거리 외교정책을 펼침으로써 조선을 전란의 위기에서 구해냈던 것이다. 또한 안으로는 병기를 수리하고 군사를 양성함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임란 때 파괴된 농지를 복구하기 위한 양전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서인들은 오로지 권력을 장악할 야심으로 광해군과 북인정권을 끌어내리려 했다. 이들은 명과 청 사이에서 조선의 국익을 위한 광해군의 양면외교 정책이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내준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며 선왕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 김씨의 존호를 폐하고 서궁이라 칭한 것은 불효라는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명나라가 조선에 구원군을 파견한 것은 명나라 정벌의 기치를 내걸었던 왜군과의 전쟁터를 한반도로 국한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대비 김씨의 존호를 폐한 것은 그간 왕위를 둘러싸고 왕가에서 숱하게 있어 왔던 불상사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대비 김씨는 선조 말엽 친정 아버지 김재남과 함께 자신의 소생인 영창대군에게 후사를 잇게 하기 위해 광해군의 즉위를 반대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일방적으로 광해군의 잘못만도 아니었다.

게다가 광해군은 재위 2년에 선대의 숙원이었던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등 사림파 오현의 문묘종사를 단행했으니 사림의 처지에서 보아도 쫓겨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인조반정은 일어나서는 안 될 서인들의 명분없는 쿠데타에 지나지 않았다. 쿠데타 성공 후 이들은 명나라를 향한 의리란 뜻의 향명대의, 또는 명나라를 숭상하는 의리란 뜻의 숭명의리를 드높였다. 인목대비가 인조의 즉위를 허락하는 교서의 일부를 보자.

"우리 나라가 명나라를 섬겨온 것이 200년으로 의리로는 곧 군신이며 은혜로는 부자와 같다. 임진년에 재조해 준 은혜는 만세토록 잊을 수 없어 선왕께서는 평생 서쪽을 등지고 앉지도 않으셨다. 광해는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청)에게 성의를 베풀었으며, 황제가 자주 칙서를 내려도 구원병을 파견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나 명나라를 드높이느라 서쪽을 등지고 안지도 않는 것은 선조 같은 용렬한 군주나 사대주의자들인 서인들뿐이었다. 심지어 일반 백성들은 인조반정에 반발하면서 봉기를 일으키려고까지 했다.인조반정 일등공신인 이서가 반정 직후 남긴 회고를 보자.

"갑자기 광해군을 폐출하고 새 임금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나라 사람들은 새 임금이성덕이 있는 줄 알지 못했으므로 상하가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성패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터에 위세로써 진압할 수도 없어서 말하기 지극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 회고는 반정에 반대하는 백성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회고를 계속 들어보자.

"오리 이원익이 전 왕조 때의 원로로서 영상에 재수되어 여주로부터 입조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비로소 안정되었다."

영상에 제수된 이원익은 남인이었다. 국가적 이익이 아닌 당파적 이해를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킨 서인 정권에 대한 반발이 예상 외로 거세자 이원익에게 영상 자리를 제시하며 반대당파인 남인들을 끌어들였던 것이다. 이원익에게 제의한 자리가 다름 아닌 인신의 최고위직인 영상

이라는 점은 이들 서인들의 쿠데타가 얼마나 명분 업슨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명분 없는 반정 정권에 남인들을 관제 야당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이때만 해도 서인들은 훗날 남인들이 관제 야당의 테두리를 벗어나 정권을 장악하겠다고 나서고, 이들과 당운을 건 승부를 걸게 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어쨌든 광해군의 현실적인 외교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정변을 일으킨 서인들은 반정 후 급격한 친명배청 정책으로 선회했는데, 이것은 수많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떠오르는 해인 만주족의 후금을 배격하고 지는 해인 명나라를 추종하려는 친명배청 정책을 무리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후금보다 군사력이 강해야 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비극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뜨는 해' 만주족이 중원에 찬란히 떠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중원으로 쳐들어간 사이 명나라와 결탁한 조선군이 만주를 공략하면 이른바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금은 중원에 쳐들어가기 전에 조선을 우호국으로 만들든지 전쟁을 통해 속국으로 만들어야 했다. 우호관계를 수립하지 않는 한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인조5년의 정묘호란은 이런 연유로 발생한 것이다.

정묘호란은 양국이 형제관계를 맺는 정묘조약으로 종결되었으나 이는 미봉책이었다. 당시 후금은 명과 조선 모두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습책으로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정묘조약 9년 후인 인조 14년(1636: 병자년)에 후금이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바꾸자고 나선 것은 조선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인조와 서인정권이 군신관계를 거부하려면 정묘조약 이후 병자년까지 9년이란 기간 동안 군사력을 길러야 했다. 하지만 서인정권은 군사력 대신에 친명반청의 명분만 쌓았다.

드디어 인조는 8도에 후금과 싸우자는 선전교서를 내렸다. 조선백성보다도 '명나라를 향한 의리'를 더 큰 목소리로 주창한 이 선전교서는 명나라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 후금과 화를 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허세뿐인 명부론에 대한 후금의 대답은 구사공격이었고 그 결과는 삼전도의 치욕이었다.

인조가 삼궤구복의 예를 취해야 했던 삼전도의 치욕은 시대착오적인 인조반정이 낳은 귀결이기도 했다.

병자호란과 송시열

병자호란은 송시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송시열은 병자호란이 발생하기 3년 전인 인조11년(1633)에 생원시에 급제해 대과를 볼 기회를 얻었다. 그는 이 생원시에 장원을 하여 그 해 10월 경릉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면했다. 그는 2년 후에 대군사부로 임명됨으로써 관직에 모습을 드러낸다. 임금의 적자인 대군을 가르치는 대군사부는 학문이 높은 인물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관직이기는 했으나 그 품계는 종9품의 미관말직에 불과했다. 세자를 가르치는 세자시강원의 사부가 정1품이고 세손을 가르치는 세손시강원의 사부가 종1품인것과 비교해 보면 그 비중을 알 만하다. 그만큼 왕위를 이을 세자나 세손을 중요시한 것이다. 그나마 대군사부는 임시직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이 자리도 최명길의 추천으로 얻은 자리였다. 최명길은 인조 14년 6월 차자를 올려 송시열과 송준길등을 추천한다. 그런데 이 추천사는 송시열이 자신의 고향을 확실히 장악하고 이음을 보여준다.

"송준길,송시열은 모두 김장생의 문인인데, 신은 비록 서로 만나보지는 못했으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방의 사람들은 감히 멋대로 그른 짓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송시열은 이처럼 율곡의 학통을 이은 김장생의 문인이라는 점과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유학자라는 점을 인정받아 대군사부가 되어 조정에 진출하는데, 이때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바로 그가 가르쳤던 대군인 봉림대군이었다. 인조의 둘째아들인 봉림대군은 훗날 인조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는데 그가 곧 효종이다. 송시열은 봉림대군을 가르치는 대구사부로 관직에 첫발을 내디뎠던 것이다. 송시열의 나이는 만 28세였고 봉림대군의 나이 만 16세였다.

이 당시는 소현세자가 이미 세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송시열이나 봉림대군 그 누구도 봉림대군이 훗날 인조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암이 봉림대군을 가르친 기간도 불과 6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훗날 당쟁이 격화하면서 우암의 당파인 서인과 노론은 두 사람의 인연을 과대포장해 송시열이 효종의 충성스런 신하임을 강조했다. 뒤에 서술하겠지만 우암을 효종의 충성스런 신하로 포장해야 했다는 사실은 둘의 관계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송시열은 바로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된다. 송시열은 인조의 몽진 행렬을 따라 강화도로 피하려 하였으나 청나라 군사가 길을 끊는 바람에 실패하고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봉림대군은 인조의 비빈들과 함께 미리 강화도로 피신한 터였다. 조선 왕실이 남한산성과 강화도로 갈라지는 이산가족이 된 것이다.

이때 강화도로 피신한 인물 중에 송시열의 동문인 미촌 윤선거란 인물이 있다. 윤선거는 그의 아들 윤증과 강화도로 피신해 살아남는데, 남

한산성에서 살아남은 송시열이 훗날 이를 격렬히 비난함으로써 윤증과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회니논쟁이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것은 1636년 12월이었다. 청나라 군사는 남한산성을 포위해 일체의 보급을 끊었다. 강화도는 몽고침입 때 고려 왕실이 장기간 천도해던 데서 알 수 있듯이 농성의 적지지만 남한산성은 농성할 장소가 아니었다. 더구나 한겨울에 산성 꼭대기에서 농성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일기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한산성에서 농성하던 시절의 참상을 한 궁녀가 남긴 '산성일기'에서 살펴보자.

'12월24일에 큰비 내려,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이 다 젖고 얼어 죽은 이 많으니 상(인조)이 세자(소현)와 함께 뜰 가운데 서서 하늘에 빌어 가라사대,

"금일 이에 이르기는 우리 부자 득죄함 때문이니, 성안의 군민들이야 무슨 죄가 있으리까. 천도는 우리 부자에게 화를 내리시고 원컨대 만민을 살리소서."

군신들이 안으로 드시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니, 오래지 않아 비 그치고 날씨 차지 아니하니, 성중인이 감읍지 않은 이 없더라.'

하늘은 이때 겨울비는 멈추어 주었는지 모르지만 청나라 군사의 포위까지 풀어준 것은 아니어서 고통은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의 고립된 산중에서 45일을 버틴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고군분투였다. 산성의 인조가 믿는 유일한 희망은 구원군이었다. 하지만 다음해 1월 산성에 당도한 것은 구원군이 아니라 강화도가 함락되어 비빈들이 청군의 포로가 되었다는비보였다. 인조는 할 수 없이 삼전도로 나와 청태종에게 삼궤구복이란 신하의 예를 취하며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은 향명대의의 목청 큰 서인정권의 것이 아니라 오랑캐 청나라의 것이었다. 송시열은 이 고난과 치욕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송시열은 병자호란 당시 다른 유생들처럼 척화론을 소리 높여 외치지는 않았다. 물론 종9품 미관말직으로서 척화론을 주창할 처지가 아니기는 했지만 관직이 없는 유생들도 외치던 척화론을 그는 주창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병자호란이 끝난 후 속리산 복천사에서 백호 윤휴를 만나 서로 통곡하며 약속했다.

"혹시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결코 오늘의 치욕을 잊지 말자."

그러나 훗날 송시열은 정치를 하게 되면서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몰아 죽이는데 앞장선다. 이때만 해도 훗날 두 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는 정적 관계가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낙향한 송시열은 벼슬에 뜻을 잃어 더 이상 과거를 보지 않았다. 병자호란의 충격이 그마큼 컸던 것이다. 그는 향리에서 학문에만 몰두했다. 인조 17년(1639)에는 용담현령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으며, 21년 12월 세자시강원의 익위사좌우익위로 삼았으나 출사를 거부했다. 이런 송시열에게 인조는 계속 관직을 재수했다. 병자호란으로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인조로서는 산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율곡의 학통을 이은 기호유림의 계승자인 송시열과 송준길을 거듭 불렀던 것이다.

재위 22년(1644)과 23년 인조는 송시열과 송준길에게 정5품인 사헌부 지평을 제수하며 계속 불렀으나 모두 송씨라 하여 양송으로 불리던 이들은 역시 출사를 거부했다.

송시열이 거듭 출사를 거부하자 그에게 제수되는 벼슬은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서 그의 정치적 비중은 더욱 높아갔다. 종9품 한직인 대군사부를 제수받았을 때도 사양하지 않고 나왔던 그가 정5품 사헌부 지평을 제수해도 거부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인조실록' 23년 10월조는 "처음에 대군의 사부가 되었으나 병자호란 이후로 벼슬길에 뜻을 끊어서, 누차 벼슬을 주었으나 거절하고 부임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자호란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히고 이다. 그러나 출사를 거듭 거부하는 은둔정치는 그의 정치적,학문적 위상을 높여 주었다. 과장에 사람이 구름같이 몰리던 시절에 대간 직인 사헌부 지평을 제수해도 거절한 사실은 내외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수된 벼슬들을 거듭 거부하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동안 청의 수도 삼양에서는 소현세자 부처가 볼모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소연세자의 볼모 생활 도중의 처신은 훗날 발생할 거대한 비극적 사건을 잉태하고 있었다. 바로 예송논쟁의 뿌리였다.

볼모를 자청하는 소현세자

인조의 남한산성 농성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백성들은 정유재란이 끝난 지 불과 40여 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발생한 환에 분개해 의병도 거의 일으키지 않았다. 조선은 청군의 포위로 일체의 보급이 끊어진 겨울 산성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해야 했다.

조선은 청나라의 강화 사절로 가짜 왕자와 가짜 대신을 보냈다가 말썽이 되기도 했다. 최명길이 적지에 들어가 강화 조건을 묻자 청군은 왕의 동생과 대신을 인질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선은 주사대장 구인후 누이의 아들인 능봉군을 인조의 동생이라 속이고 판서 심집을 대신의 직함으로 가칭해 보았다. 이때 청군이 심집에게 "그대 나라는 지난 정묘년에도 가짜 왕자로 우리를 속였는데, 이 사람은 진짜 왕제인가?"라고 묻자 대답하지 못했다.

"그대는 진짜 대신인가?"

심집이 또 대답하지 못하자 박난영에게 물었다. 박난영은 광해군 시절 강홍립과 함께 명나라의 요청으로 나가 싸웠던 무장이었다. 박난영은 태연히 대답했다.

"이는 진짜 왕제이고 심집은 진짜 대신이오."

이에 화가 난 청군은 박난영을 죽이고 나서 말했다.

"세자를 보내온 뒤에야 강화를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 다음가는 이군이었던 세자를 보낼 수는 없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진퇴양난의 난국에 물꼬를 튼 사람은 소현세자 자신이었다. 소현세자는 비변사에 봉서를 내려 이렇게 말했다.

"태산이 이미 새알 위에 드리워졌는데, 국가의 운명을 누가 주춧돌처럼 굳건하게 하겠는가. 일이 너무도 급박해졌다. 나에게는 일단 동생이 있고 또 아들도 하나 있으니, 역시 종사를 받들 수 있다. 내가 적에게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내가 성에서 나가겠다는 뜻을 말하라."

소현세자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난국을 타개하고 조선 역사상 최초로 볼모가 되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었다. 동생인 봉림대군, 안평대군과 함께였다. 이들이 끌려간 곳은 당시 만주에 있던 청나라 수도 심양이었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이곳에 심양관소를 지어서 머물렀는데, 다시 조선에서는 이곳을 심관, 또는 심양관이라고 불렀다. 소현세자는 봉림과 안평 두 동생을 비롯한 판서 남이웅, 놔부빈객 박황, 우부빈객 박노, 보덕 이명웅, 필서 민응협 등 300여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심양관에 머물렀으므로 서울의 동궁이 심양으로 이주한 셈이었다.

소현세자는 이 심양관을 중심으로 청과 조선 사이의 모든 일을 처리했으므로 사실상 주청 조선대사였으며 심양관은 조선대사관이었던 셈이다. 청은 심양관을 통해 조선에 관한 일들을 처리하려 하였고, 인조 또한 청과 직접 상대하는 것이 껄끄러웠으므로 심양관의 소현세자에게 청에 관한 일들을 미루었다.

심양 생활은 소현세자에게 미래가 불투명한 위기였으나 역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비단 소현세자 개인뿐만 아니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조선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다. 당시 중국에서조차 끝나가는 성리학과 명분론을 금지옥엽으로 붙들고 있는 조선이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였던가를 깨닫고, 국제 정세는 명분이 아니라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현실을 깨우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처리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곤혹스러운 일은 청의 파병 요구였다. 청은 당시 명과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있던 때였으므로 명과의 전투에 사용할 조정군 파견을 요구했다. 숭명대의를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인조와 서인 정권에게 이는 심각한 자기부정이었으나 전쟁에서 패배한 이상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인조는 청의 요구에 쫓겨 재위 18년 4월에 주사상장 임경업, 부장 이완이 이끄는 조선 수군 6,000명을 파병했다. 임경업은 병자호란 때 청군이 서울을 점령한 틈을 타서 역으로 청의 수도 심양을 점령하겠다는 작전을 제안할 정도로 반청인사였으므로 그가 이끄는 조선 수군이 제대로 싸울 리가 없었다. 임경업의 수군은 전진하라고 해도 전진하지 않고 명의 전선을 만나도 발포하지 않았다. 발포하더라도 엉뚱한 곳을 향해 쏘고 배를 일부러 부수고 일부 군사를 투항시키는 등 노골적인 사보타주를 일으켜 청나라의 분노를 샀다.

청나라는 이를 조선의 배신행위로 규정짓고 청나라 장수 용골대 등을 조사단으로 삼아 의주에 파견했다. 조선은 병자호란 때 용골대에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용골대란 이름만 들어도 떠는 형편이었다. 이때 세자는 용골대의 동향을 미리 조선 조정에 알려주고 용골대에게는 조선의 처지를 설득하는 등 양자의 충돌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조선 대신들이 벌벌 떠는 존재인 용골대가 한 번은 '청과 다른 의논을 하는 자가 누구냐' 라며 세자를 협박하자 세자는 벌컥 화를 냈다.

"내가 비록 이역에 와 있지만 한 나라의 세자이다. 네가 어찌 감히 이토록 협박하는가?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려 있는 것이니 그 따위로 나를 협박하지 말라."

이에 용골대가 웃으면서 사과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소현세자는 배짱도 있는 인물이었다.

인조 20년에는 조선에 출몰한 명나라 배에 부사 이계가 감사 정태화의 명을 받아 몰래 쌀과 음식을 제공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때 용골대는 이계 등을 만주의 봉황성으로 불러 세자와 함께 관계자들을 심문했다. 이 자리에서 세자는 시종일관 조선 관리들을 옹호했다. 이에 용골대가 세자를 힐난했다.

"세자가 감사를 이처럼 비호해 주니 그와 한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자가 웃으면서 답했다.

"이렇게까지 의심하니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세자는 청과 조선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마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애썼다. 세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중요한 것은 성리학이 제공

하는 명분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현실 인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현세자는 심양과 북경에서 이런 현실 인식을 갖게 되었다. 물론 이런 현실 인식은 청이 아니라 조선을 위한 것이었다.

세자는 심양에 오기 전부터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이미 병자호란 5년 전인 인조 9년(1631)에 견명사 정두원이 가져온 서양의 화포와 천리경, 자명종 등을 보고 서양문물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가졌다. 심양에 와서 세자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성리학이 아니라 변화하는 문물과 그것을 만들어 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심양에서 소현세자는 중원의 대세가 이미 청으로 기울었음을 깨달았다. 만주에서 흥기한 청이 아니더라도 명나라는 이미 종말로 치닫고 있었다. 국가 생명의 사이클로 따지면 이미 쇠퇴기를 지나 소멸기에 접어든 국가가 명나라였던 것이다.

명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 즉위 후 가뭄과 흉년에 계속되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각지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 중 비교적 큰 세력은 유적이 되어 명을 위협했다. 명을 망하게 한 존재는 사실상 청이라기보다는 이들 농민반란군이었다. 농민반란군 중 가장 세력이 컸던 역졸 출신의 이자성이 명을 멸망시켰던 것이다.

출신을 따지지 않고 세력이 있으면 황제를 자칭하는 것이 중국 역사의 한 특징인데, 이자성 또한 세력이 커지자 스스로를 대순황제라 칭하고 명의 수도 북경을 공략해 함락시켰다. 북경이 함락되는 날, 황제의 외척이나 귀족, 재상들은 땅바닥에 꿇어앉아 유적의 흙발에 차이면서도 농민출신 이자성을 성천자로 받들고 자결한 의종 숭정제를 저주함으로써 목숨을 구걸했다. 조선의 사대주의자들이 받들어 모시는 명나라는 이미 명나라 황손들도 버린 나라였다. 아마 청이 없었다면 이자성의 순나라가 명을 대신해 중원을 지배했을지도 모른다. 명을 세운 주원장이 농민 출신이었으므로 이는 별로 이상할 것도 없는 행위였다.

북경이 함락되었을 때 명의 유일한 정예군은 오삼계가 이끄는 부대였다. 청군을 치기 위해 요동으로 진격하여 산해관을 돌파하던 그는 북경이 이자성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군사를 돌리기로 결심하고 청나라 진영에 편지를 보냈다.

"우리의 황제는 유적 이자성에게 돌아가셨다. 지금부터 나는 황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급히 북경으로 향하는 바, 차제에 귀국의 병력을 빌렸으면 좋겠다."

청과 연합전선을 결성해 북경으로 가자는 제안이었으나 자신이 치러가던 군사를 빌려달라는 이 말은 사실상 항복선언이었다. 소현세자를 볼모로 데려왔던 청의 구왕 다이곤은 즉각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다이곤은 당시 태종의 뒤를 이은 어린 청 세조를 대신해 사실상 섭정하는 중이었다.

"인의의 군대를 동원하여 유적 이자성을 멸하고, 중국 백성을 구원한다."

명목은 명.청연합군이었으나 사실상 청군이 명군을 흡수한 것이었다. 소현세자가 심야에 잡혀온 지 7년 째인 1644년(인조22)4월의 일이었다. 이때 구왕 다이곤은 자국의 왕과 장수뿐만 아니라 소현세자를 대동하고 남정 길에 올랐다. 소현세자의 대동은 구왕의 의도적인 행위였다. 남정군을 따라간 소현세자는 명나라의 마지막 정예군인 오삼계군단이 청나라에 항복하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다. 다이곤도 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현세자를 산해관에 데리고 갔던 것이다. 하지만 이 자면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소현세자는 중원의 정세가 이미 청으로 기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명은 도처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반면 청은 욱일승천하는 기세였다. 거기에다 목격한 오삼계군단의 항복장면은 조선이 취할 외교정책이 숭명대의가 아니라 청나라 중심의 현실외교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소현세자는 청군이 산해관을 넘어 파죽지세로 중원을 점령하는 것을 목격했다. 청군이 남진을 시작한 것은 4월인데 한 달로 안 되어 북경에 입성했던 것이다. 그야말로 군마가 달리는 속도가 청의 점령 속도였다. 청의 대군이 밀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자성은 항전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청은 명의 수도였던 북경에 무혈입성할 수 있었다. 이자성은 북경을 청에 갖다 바치기 위해 애써 함락한 셈이었다.

청의 파죽지세를 지켜본 소현세자의 심정은 담담했다. 그는 이미 7년 간의 볼모 생활을 통해 이런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다. 세자는 볼모 생활을 통해 현실적인 국제정세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세자의 이런 현실인식은 조선의 인조와 서인정권에게는 위험한 이데올로기로 비쳤다.

인조반정, 그 비극의 뿌리(2)

2013.06.19 14:58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소현세자

소현세자는 인조 22년(1644) 4월 청의 구왕이 이끄는 청나라군과 함께 북경으로 향했다. 하루 평균 120-130리에 달하는 빠른 속도였다. 세자는 구왕이 이끄는 청군이 파죽지세로 북경을 손에 넣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북경을 청이 차지한 것은 대세가 결정되었음을 의미했다. 세자는 북경에서 문연각이라 불리던 명 목적의 부마 후씨 집에 거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식량이 극도로 부족해 20여 일 만에 심양으로 되돌아 왔다가 그 해 9월 청나라 황제를 따라 다시 북경에 들어가 약 70일 동안 머물렀다. 청나라 황제는 북경을 청의 수도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소현세자를 대동한 것이었다. 이때 소현세자는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만나 새로운 사상과 문물의 세례를 받게 된다.

바로 예수회 선교사 아담 샬이다. 아담 샬은 1628년(인조6) 32번째의 예수회 신부로 북경에 부임해 해박한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명나라 신종의 신임을 받았다. 그는 북경 동안문 내에 거주하면서 역서와 대포를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청의 세조는 북경 점령 후 자신의 과학지식을 이용하기 위해 지금의 천문대장격인 흠천감정을 삼고 대청시헌력을 짓게 하였다. 아담 샬은 북경 남문인 선무문 내에 선교사 마테오 릿치가 세운 남천주당에 자주 머물렀는데, 소현세자는 동안문 내 아담 샬의 거주처와 남천주당을 자주 찾아 이 벽안의 선교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현세자의 북경숙소인 문연각은 아담 샬의 숙소와 가까운 동화문 안에 있었으므로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오가며 우정을 쌓았다. 아담 샬에게 소현세자와 만남은 조선에 천주교를 전교할 수 있는 호기였고, 소현세자에게 아담 샬은 서양의 문명과 천주교 사상을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머나먼 이국에서 온 푸른 눈의 손교사와 볼모로 잡혀온 남다른 처지의 불행한 세자는 서로에게 이색적인 감회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이 만남을 지켜봤던 당시 남천주당의 신부 황비묵은 '정교봉포'에서 이 만남을 기록했다.

"순치 원년에 조선국왕 인조의 세자는 북경에 볼몰 와서 아담 샬 신부의 명성을 듣고, 때때로 남천주당을 찾아와 천문학 등에 대해서 살펴 물었다. 샬 신부도 자주 세자 관사를 찾아가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깊이 사귀었다. 샬 신부는 거듭 천주교가 정도임을 말하였는데 세자도 자못 듣기를 좋아하며 자세히 물었다. 세자가 귀국하자 샬 신부느 자신이 지은 천문.산학.성교정도의 여러 서적 여지구(지구의)와 천주상을 선물로 보냈다."

소현세자는 곧 아담 샬에게 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귀하가 주신 여지구와 과학에 관한 서적은 정말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중 몇 권의 책을 보았는데 그 속에서 덕행을 실천하는 데 적합한 최상의 교리를 발견했습니다. 천문학에 관한 책은 귀국하면 곧 간행하여 널리 읽히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조선인이 서구과학을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이국 땅에서 상봉하여 형제와 같이 서로 사랑하여 왔으니 하늘이 우리를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인조가 세자에 대한 증오를 키우고 있을 때 세자는 왕조가 교체되는 도시 북경에서 '하늘이 이끌어준 만남'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다. 이 '증오'와 '감사'의 차이가 이후 두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극단으로 끌고가게 된다. 세자가 아담 샬과 교류할 때는 서기 1644년, 조선이 일본의 무력에 의해 개국하기 232년 전이었다. 일본이 미국의 페리제독에 의해 개국한 것은 이보다 211년 후였다. 소현세자의 개방적인 이 사고는 그야말로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만남이었던 것이다. 9년 간의 볼모 생활은 소현세자의 사고를 개방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아담 샬이 조선에 천주교가 전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자 신부를 대동하고 귀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아담 샬을 놀라게 했을 정도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다시는 중국도 신부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아담 샬은 신부 대신에 천주교 신자인 중국인 환관과 궁녀들을 데려가라고 제의했다. 이방송, 장삼외, 유중림, 곡풍등 같은 중국인 환관들과 궁녀들이 소현세자와 함께 귀국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들은 아마 임란 때 천주교 신자 소서행장이 조선땅을 밟은 이래 조선을 방문한 최초의 천주교 신자들일 것이다.

1644년 11월 1일 청의 세조는 북경의 천단에 제사하고 등극을 반포했다. 천하의 주인이 자신임을 선포한 것이다. 세자와 대군도 이 행사에 따라가 참예했다. 그 달 11일 구왕은 용골대를 시켜 말을 전했다. 세자가 꿈에도 그리던 말이었다.

"북경을 얻기 이전에는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의심하여 꺼리는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대사가 이미 정해졌으니 피차가 서로를 신의로써 믿어야 할 것이다. 또 세자는 동국의 왕세자로서 여기에 오래 머물 수 었으니 지금 의당 본국으로 영원히 보낼 것이다."

드디어 멀고 길었던 볼모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청에서 세자를 귀국시키는 이유는 구왕의 말대로 '북경을 얻어 대사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세자를 붙잡아 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귀국이었다.

비운의 소현세자 일가

그러나 귀국길에 오른 세자의 앞에는 볼모 생활보다 더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부왕 인조의 의심과 저주였다.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세계관을 가진 만큼 인조와 서인정권은 소현세자를 의심했다. 인조는 청나라가 자신을 폐하고 소현세자를 세우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소현세자를 의심했다. 청나라의 실제 의도를 떠나 이런 인조의 의심에는 근거가 전혀 없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었다. 인조 18년 인조의 병환이 심각하자 소현세자는 장남 석철을 대신 볼모로 와 있게 하는 조건으로 귀국한 적이 있었다.

일시 귀국하는 소현세자를 위해 청의 구왕뿐만 아니라 청 황제 태종이 직접 송별연을 열어 주었는데, 봉림대군도 함께 한 이 자리에서 용골대는 세자에게 안장을 한 말과 대홍망룡의를 주었다. 이를 본 세자는 깜짝 놀라 사양했다.

"이것은 국왕이 입는 장복입니다."

세자의 사양을 받아들여 청 태종은 대홍망룡의를 입지 않도록 허용했으나 이 사건의 파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조선까지 미쳤다. 세자빈객 신득연이 이 상황을 자세히 적어 인조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이후 인조와 서인정권은 소현세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인조 21년 10월 역관 정명수가 청에서 세자를 귀국시키려 한다고 전했을 때도 인조와 서인정권은 그 의도에 의혹을 품었다. 인조가 이 문제를 비국 당상에게 논의하자 정태화는, "청에서 먼저 말을 꺼냈는데 우리가 (세자의 귀국을) 청하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를 의심할 것입니다"라면서 받아들일 것을 주청하는데 이는 이미 세자를 보는 인조와 조신들의 마음이 달라져 있음을 뜻한다. 이때 인조는 이렇게 말한다.

"청인이 내게 입조를 요구한 것은 전한 때부터였으나 내가 병이 있다고 이해시켰기 때문에 저들이 강요하지 못하였다. 이제 듣건대 구왕은 나이가 젊고 강퍅하다고 하니 그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전일에는 세자를 지나치게 박하게 대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지나치게 후하게 대하니 나는 의심이 없을 수 없다."

인조는 구왕 다이곤과 세자가 결탁해 자신을 볼모로 불러들이고 세자를 조선의 국왕으로 봉하지 않을까 근심하는 것이었다. 인조는 세자의 귀국에는 '반드시 예측하지 못할 내막이 있을 것'이라며 전전긍긍했다. 인조의 이런 의심에 김자점이 "세자께서 나온 뒤에 만약 뜻밖의 변이 있다면 군신 상하가 어찌 손을 묶어두고 그들이 하는 대로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한 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뜻밖의 변'이란 청에서 인조를 폐위하고 세자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인조 21년(1643) 6월 세자빈 강씨의 부친인 영중추부사 강석기가 사망하여 세자 부부는 왕곡하기 위해 귀국해야 했다. 인조 22년 1월 세자 부부는 왕곡하기 위해 귀국해야 했다. 인조 22년 1월 세자 부부는 원손 석철을 비롯한 다른 아들들을 볼모로 불러들이고 대신 귀국했다.

볼모 생활 중에 부친이 사망했으므로 곡도 하지 못한 세자빈의 한은 컸으나 원손과 다른 아들들을 볼모로 잡히고 귀국한 세자빈은 부친의 빈소에 곡을 할 수 없었다. 곡하기 위해 수천 리 길을 달려온 며느리의 왕곡을 인조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심 많은 부왕의 이 가혹한 조치에 삼공이 모두 왕곡의 허락을 청했다.

"세자께서 귀국을 청할 때 세자빈의 부친은 주고 모친은 병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이유로 삼았는데 이제 찾아가 곡하고 모친을 살펴보는 절차가 없으면 저쪽 나라가 그 말을 들을 때 반드시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남과 며느리에 대한 증오를 이미 돌이킬 수 없었던 인조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세자빈 강씨는 빈소에 곡도 하지 못하고, 병중인 모친을 만나지도 못한 채 심양으로 돌악야 했다. 인조 22년 2월 초순이었다. 인조는 이때 세자 부부를 감시하기 위한 간자로 환관 긴엄겸을 동행하도록 명령했다.

인조의 이런 소견 좁은 냉혹한 처사는 사대부들의 많은 불만을 낳았다. 광해군이 법적인 모후 인목대비에게 불효했다는 것을 반정 명분으로 삼은 인조가 며느리 강씨의 친부 상에 왕곡을 막은 것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었다.

며느리 강빈의 왕곡을 끝내 허락 않은 인조의 처사는 급기야 인조를 끌어내리고 소현세자를 추대하려는 사건을 야기한다. 그 주모자가 인

조반정 일등공신인 청원부원군 심기원이란 데서 인조에 대한 당시 사대부들의 감정을 볼 수 있다. 심기원은 소현세자를 추대하려다가 효자인 소현세자가 추대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생각에 대신 회은군 이덕인을 추대하려 하였다. 세조가 영구 귀국하기 1년 전인 인조 22년 3월 발생한 심기원 모반 사건이 그것이다.

귀국한 세자의 급서

인조 23년 2월 소현세자는 장장 9년 간의 가슴 벅찬 기대를 안고 그리운 고국길에 올랐다. 이전의 두 번에 걸친 귀국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 귀국길이었다. 인조 23년(1645) 2월 이십대 초반의 나이로 심양에 잡혀갔던 세자는 삼십대 중반의 연부역강한 나이로 귀국했다. 인생의 황금기를 타국의 볼모로 보낸 34세의 비운의 왕세자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비운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에게 귀국은 비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 비운은 9년 간의 볼모 생활을 지혜롭게 보낸 데서 온 것이었다. 그는 치욕의 볼모 기간을 세상에 대한 저주의 나날로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간을 새로운 국제정세와 사상,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체화시키는 기간으로 삼았다. 명나라를 죽도록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행위인지를 깨달았고, 성리학 이념 체계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사상인지도 깨달았다. 세상에는 성리학뿐 아니라 천주교라는 새로운 사상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성리학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상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음을 느꼈던 것이다.

수많은 서양 물품을 휴대한 채 귀국하는 소현세자의 뇌리에는 조선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려는 이상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상을 펼치기 위한 공간으로의 조선이 아니라 상상못할 비극의 현장으로서의 조선이었다.

비극의 조짐은 인조가 귀국한 세자에 대한 신하들의 진하를 막은 것이었다. 의심 많고 용렬한 부왕 인조에게는 세자의 귀국자체가 의혹의 대상이었다. 명나라가 멸망했기에 더 이상 소현세자를 볼모로 잡아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사고는 멀리했다. 소현세자가 휴대한 수많은 서양 서적과 물품들도 새로운 세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 몸짓이 아니라 오랑캐에게 정신을 팔아먹은 증거물로 보았다.

인조는 시종 세자에게 냉담했고, 부왕의 이러한 냉대에 상심했다. 이런 상심 때문인지 세자는 귀국 두 달 만에 병에 걸려 누웠다. 세자가 병에 걸린 것은 귀국한 해 4월 23일로 어의 박군은 세자의 증세를 학질이라고 진단했다. 그다지 중병이라고 볼 수 없는 세자의 학질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한다. 의관 이형익이었다. 약방은 다음날 새벽에 인조에게 이형익을 시켜 침을 놓아서 학질의 열을 내리게 주청했고 인조는 여기 따랐다. 그날 '인조실록'은 '화성이 적시성을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형익은 인조의 명에 따라 세자의 발병 다음날인 24일부터 침을 놓았다. 다음날인 25일에도 세자는 침을 맞았는데 그 다음날인 26일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한 나라의 세자가 그야말로 약 한 첩 못 써보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소현세자의 급서와 문제 많은 장례 절차

세자의 갑작스런 죽음은 당연히 수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고, 세자에게 침을 놓은 의관 이형익에게 의혹이 집중되었다. 이형익은 원래 인조의 후궁 소용 조씨의 사가에 출입하던 의원으로 불과 3개월 전에 의관에 특채된 인물이란 점에서 의혹은 더했다. 그의 특채 시점이 세자의 귀국 시점이란 것과 그의 특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소용 조씨라는 점이 의심을 증폭시켰다. 소용 조씨와 세자 부부가 불편한 사이였음을 모르는 궁중 사람은 없었다.

세자가 죽은 후 인조가 시종일관 이형익을 옹호하고 나서자 의혹은 당연히 인조에게 쏠렸다. 왕이나 세자가 승하하면 잘못의 유무를 떠나 시의들을 국문하는 것이 관례였다.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양사에서 이형익을 탄핵하고 나선 것은 당연했다.

"의원 이형익은 사람됨이 망령되어 허탄한 의술을 스스로 믿어서 세자의 증세도 판단하지 못하고 날마다 침만 놓았으니 그를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

학질 걸린 세자에게 침만 놓다가 사흘 만에 사망케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인조는 국문을 반대하며 이형익을 옹호하고 나섰다. 양사에서 재차 국문을 청했으나 인조는 결코 따르지 않았다. 소현세자의 죽음에 인조가 관련되었다는 유력한 증거의 하나가 바로 이 점이다.

소현세자가 독살되었다는 증거는 정사인 '인조시록' 23년 6년 27일자에도 나온다.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 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얼굴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천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시신이 까맣게 변하거나 얼굴의 눈, 코, 귀 등 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독약을 먹고 죽은 사람의 시신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목격담은 소현세자의 생모 인열왕후의 서제인 진원군 이세완의 아내가 내척의 자격으로 세자의 염습에 참여했다가 시신의 상태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다.

인조가 세자를 죽인 주범이라는 사실은 장례 절차에서도 나타난다. 인조는 시신을 담은 관의 명칭에 '재궁(임금.세자의 관)'이란 호칭을 못 쓰게 하고 대신 대부나 일반 사서들이 쓰던 널 '구'자를 쓰도록 했다. 세자시강원의 보덕 서상리의 주장처럼 세자는 살아서는 동궁이요 죽어서는 빈궁이 되므로 재궁이라 쓰는 것이 예법에 맞는 것이었다.

무덤의 이름도 원자 대신에 묘자를 쓰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원자는 태자묘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태자만 쓸 수 있다는 논리였으나 황제의 무덤을 일컫는 능자를 역대 임금의 무덤에 써왔다는 점에서 이 또한 용렬하고 저주에 가득 찬 인조의 명분 없는 억지였다.

상복 착용 기간도 마찬가지였다. 고례에 따르면 장자의 상에는 부모가 참최복, 즉 3년복을 입는 것이 예법이었다. 그러나 영상 김류, 좌상 홍서봉 등 서인 중신들은 인조와 왕비의 복제를 기년복, 즉 1년복으로 의정해 올렸다. 이 자체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인조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 달을 하루로 계산하는 역월법을 적용해 12일 만에 복제를 마치려 했다. 역월법은 연산군이 할머니인 인수대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용했던, 성리학 사회에서는 패륜적인 예법이었다. 그나마 인조는 12일을 한 등급 더 감해 7일 만에 상례를 마쳤다. 3년상이 7일상이 된 것이다.

최소한 재최 1년복을 입어야 할 백관의 복제도 3개월 단상으로 결정했다. 옥당에서 3개월 단상은 부당하다는 차자를 올렸으나 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지평 송준길이 병을 이유로 벼슬을 사양하는 상소에서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유신 송준길의 이 비판은 인조에게 뼈아픈 것이어서 인조는 상소에 대한 비답도 없이 그를 체직하라고 명했다.

인조반정, 그 비극의 뿌리(3)

2013.06.19 14:59

원손 대신 동생을 후사로 세우는 인조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소현세자의 후사 문제였다. 당시 종법에 따르면 당연히 소현세자의 맏아들 석철이 뒤를 이어 세손이 되어야 했다.

세자시강원의 필선 안시현이 "원손을 세손으로 세우자"라는 상소를 올린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석철은 원손으로 불리고 있었다. 인조는 이 내용의 당연한 상소를 즉각 물리치면서 "이러한 소인의 행태는 내가 차마 똑바로 볼 수 없다"라면서 안시현을 파직시켜 버렸다. 원손이 뒤를 잇게 하지 않으려는 인조의 속셈은 소현세자가 비명에 급서한 석달 후인 재위 23년 윤6월 2일 드러난다. 인조는 대신 및 정부의 당상.육경.판윤과 양사의 장관 16명을 인접한 자리에서 폭탄선언을 한다.

"내게 오래 묵은 병이 있는데 원손이 저렇게 미약하니 성장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원손이 아닌 다른 인물, 즉 대군을 후사로 삼겠다는 충격발언이었다. 자칫하다가는 훗날 조정에 피바람이 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럴 때의 가장 좋은 처신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었다. 법과 원칙에 따르면 원손이 세손이 되어야 했으므로 당연히 반대가 잇달았다. 좌의정 홍서봉이 나섰다.

"옛 역사를 상고해 보면 태자가 없으면 태손이 뒤를 이었으니 이것이 바꿀 수 없는 떳떳한 법입니다. 상도를 어기고 권도를 행하는 것은 국가의 복이 아닐 듯합니다."

영중추부사 심열, 판중추부사 이경여, 원손 사부 김육 등도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인조는 영의정 김류를 끌어들였다.

"이 일은 오로지 영상에게 달려 있으니, 경이 결단하라."

후사를 정하는 일은 영의정의 권한이 아니라느 점에서 이는 인조와 반정 주역 김류 사이에 밀약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김류는 미리 계획한 대로 세조의 둘째 아들로서 보위를 이은 예종과 덕종의 둘째 아들 성종이 왕위를 이은 예를 들었다. 둘째 아들이 보위를 이은 예를 듦으로써 원손을 폐하고 대군을 세우려는 인조의 의중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우찬성 이덕형, 병조판서 구인후, 공조판서 이시백, 이조판서 이경석 등이 모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원손을 폐하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대다수 신하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인조와 사전 밀약한 또 한 인물 낙흥부원군 김자점이 인조의 의중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일은 성상의 깊고 원대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의당 속히 결정해야 할 일인데, 어찌 우물쭈물 미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조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 말이 옳다."

드디어 김류가 김자점과 한편임을 실토한다.

"지금은 신민들의 기대가 모두 원손에게 있는데도 전하께서 이러시는 것은 반드시 바깥 사람이 알 수 없는 궁중의 일입니다. 그러니 성상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면 신이 어찌 감히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조가 드디어 자신의 본뜻을 밝혔다.

"원손은 자질이 밝지 못하여 결코 나라를 감당할 만한 재목이 아니다."

원손 사부 이식이 이 말을 반박했다.

"진강할 때 보니 원손의 재기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의사는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우찬성 이덕형이 인조의 눈치를 보는 여러 신하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늘 성상께서는 비록 종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미 바로잡힌 원손의 명호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뭇 신하들이 모두 바람에 쏠리듯이 따라 보린다면 장차 저런 신하들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인조가 한참 동안 묵묵히 있다가 물었다.

"대신들의 뜻이 모두 일치하였는가?"

김류가 대답했다.

"이의가 없는 듯합니다."

원손을 폐하고 대군을 세우자는 말이었다. 인조가 물었다.

"자식이 둘이 남아 있으니 대신이 그 중에 나은 사람을 결정하라."

봉림대군과 인평대군 중에서 고르라는 말이었다. 신하들에게 다음 왕이 될 사람을 고르라는 이 한심한 하교에 홍서봉이 아뢰었다.

"대군은 조신들과 서로 접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우열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상의 간택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다 용렬하니 취하고 버릴 것도 없다. 나는 그 중에 장자를 세우고자 하는데 어떤가?"

김류가 맞장구쳤다.

"장자로 적통을 세우는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

"봉림대군(효종)을 세자로 삼노라."

이에 원손 석철이 폐위되고 봉림대군이 세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원손의 자리를 대군으로 바꾸는 데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나라 사람들이 후사로 믿고 있던 원손이 폐립된다면 이는 자리를 빼앗기는 데서 국한되지 않고 목숨까지 빼앗길 것이 분명한 일이었다.

며느리와 손자들을 죽이는 인조

원손의 지위를 빼앗았음에도 세자 일가에 대한 인조의 분노와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인조의 저주는 이제 세자빈 강씨에게 향했다. 인조는 강빈을 얽어 넣기 위해 강빈 소속의 궁녀들을 고문하고 강빈을 고립시키기 위해 오라비를 귀양보내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남편을 잃고 상심해 있는 며느리에 대한 인조의 저주는 급기야 인조 24년 정월 임금에게 올린 전복 구이에 독이 묻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절정에 달하게 된다. 인조는 이번에도 강빈에게 혐의를 돌려 궁인들을 내사옥에 하옥해 국문했으며 강빈을 후원 별당에 감금했다. 강빈의 일거수 일투족을 인조의 수하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강빈이 독을 넣는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조가 이미 "감히 강씨와 말하는 자는 죄를 주겠다"라고 엄명하여 강빈의 수족을 완전히 묶어 놓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도 인조의 자작극이었다.

이번에도 강빈의 궁녀들이 정렬과 유덕이 하옥되어 압술과 낙형(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들도 조작된 시나리오를 승인하기를 거부하고 고문 속에 죽어갔다. 그러나 인조는 연일 무고한 궁녀들이 죽어감에도 며느리의 목숨을 끊어 놓으려는 집요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전복 구이에 독을 넣은 사건도 오리무중에 빠진 후 인조는 비망기를 내리는데, 그 내용은 그 자신이 소현세자를 죽인 범인이며 저주사건과 독약 사건을 자작한 범인이라는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강빈이 심양에 있을 때 은밀히 왕위를 바꾸려고 도모하면서 미리 홍금 적의를 만들어 놓고 내전의 칭호를 외람되이 사용하였다. 지난해 가을에 매우 가까운 곳에 와서 분한 마음 때문에 시끄럽게 성내는가 하면 사람을 보내 문안하는 예까지 폐한 지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 이런 짓도 하는데 어떤 짓인들 못하겠는가. 이것으로 미루어 헤아려 본다면 흉한 물건을 파 놓아 저주하고 음식이 독을 넣은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예부터 난신적자가 어느 시대나 없었겠는가만 그 흉악함이 이 역적처럼 극심한 자는 없었다. 군부를 해치고자 하는 자는 천지에서 하루도 목숨을 부지하게 할 수 없으니 해당 부서로 하여금 품의해 처리하게 하라."

강빈이 역적이라는 이 비망기는 그러나 인조 자신이 이 모든 비극의 주범임을 실토하는 자백서나 마찬가지였다. 저주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죄가 비망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도 잊고 말았다.

신하들은 물론 인조가 주범이고 강빈이 무죄라고 생각했으므로 그녀를 역적죄로 품의해 올리라는 인조의 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인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기의식을 조장했다. 병조판서를 궁중에 머무르게 하고 김자점을 호위청에 입직시켰으며 포도대장에게 궁궐의 엄중한 경비를 명했다.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강빈을 처형하라고 명했다.

강빈을 처형하려는 이 명령에 대해 대사헌 홍무적 등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으나 인조는 요지부동이었다. 드디어 인조는 재위 24년 2월 강빈을 폐출하고 사사하라고 명했다. 이 명을 거두어달라는 상소가 빗발쳤으나 인조는 끝내 자신에 의해 과부가 된 며느리에 대한 증오를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사저로 쫓겨난 후 사약을 마셔야 했고 교명 죽책 등은 거두어 불태워졌다. 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빈의 형제들에게도 죄를 씌워 장살시켰다.

소현세자에 이어 강빈마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도 세자 일가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강빈을 죽인 후 인조는 이전의 저주사건을 재심해 궁

녀들을 고문함으로써 강빈의 친정 어머니까지 옥사를 확대시켰다. 결국 강빈의 어머니마저 처형당했다.

인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석철을 비롯한 세자의 세 아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냈다. 인조는 봉림대군의 세자 책봉을 반대해 제주도로 귀양갔던 이경여와 강빈을 죽이는 데 반발해 제주도로 유배다한 홍무적을 각각 남해현과 북쪽 변경으로 옮긴 후 세자의 아들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낸 것이다.

소현세자의 뒤를 이어 조선의 임금이 되어야 했던 석철은 인조 25년 7월 죄수의 몸으로 제주도에 도착했다. 이제 겨우 12세의 어린 나이였다. 이날 사관은 인조의 이런 처사를 개탄하는 글을 '인조실록'에 덧붙였다.

"지금 석철 등이 국법으로 따지면 연좌되어야 하나 조그만 어린 아이가 무슨 아는 것이 있겠는가. 그를 독한 안개와 풍토병이 있는 큰바다 외로운 섬 가운데 버려 두었다가 하루아침에 병에 걸려 주기라도 소현세자의 영혼이 깜깜한 지하에서 원통함을 품지 않겠는가."

이 사관의 우려대로 석철은 과연 다음해 9월 제주도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석철이 사망하자 사관은 인조를 직접 비난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석철이 역강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성상의 손자가 아닌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지친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풍토병이 있는 제주도에 귀양 보내어 결국 죽게 하였으니, 그 유골을 아버지의 묘 곁에다 장사지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슬플 뿐이다."

'인조실록'은 석철의 죽음을 풍토병 때문이라고 기록했으나 이 또한 독살의 혐의가 분분하다. 당시 지각 있는 사람들은 인조가 석철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현세자가 죽은 후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석철을 데려다 기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용골대가 석철을 키운 후 자신을 폐위시키고 그에게 왕위를 줄 것을 우려한 인조가 석철을 그냥 둘 리 없었다. 청의 사신들은 돌아갈 때는 꼭 소현세자의 묘에 들려 참배하는 등 소현세자의 죽음을 슬퍼했으므로 인조는 석철이 더욱 두려웠던 것이다. 비록 석철이 독살이 아닌 풍토병으로 죽었다 해도 이는 어린 손자를 사지로 몰아 넣은 인조에 의한 타살과 다름없다. 그리고 세자의 둘째 아들 석린도 석 달 후 형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사관이 이런 기록을 남겼을 정도이니 당시 사람들의 비난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자 인조는 그 책임을 나인 옥진에게 돌려 여러 차례 고문한 끝에 죽게 만들었다. 석철과 석린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인조는 강빈을 사사한 지 3년 만인 인조 27년(1649)에 세상을 떠나고 봉림대군이 뒤를 이었으니 이가 바로 효종이었다.

효종과 그 비의 죽음을 둘러싼 예송논쟁이 단순히 상복 착용기간을 둘러싼 이론논쟁이 아니라 정권의 정통성을 묻는 예각의 정치논쟁이었던 이유가 바로 인조의 종법을 무시한 이러한 후사책봉에 있었다. 소현세자의 뒤를 이을 적통은 봉림대군이 아니라 원손 석철이었다. 소현세자처럼 성인이 된 후 죽었을 경우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인조가 무리해가며 봉림대군을 후사로 결정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친 예송논쟁은 효종의 승통이 정당한 것이냐는 극도로 민감한 정치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소현세자 가족의 핏빛 참사 위에서 즉위한 임금이 효종이었기에 그와 그의 부인의 죽음을 둘러싼 상복 문제가 첨예한 당쟁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인조가 강행한 효종의 승통이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예송논쟁의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측면에서 조선말 당쟁을 말기적 증상으로 몰고 갔던 왕위 계승에 대한 논란은 인조와 서인정권이 자초한 것이었다. 증오에 휩싸여 종법을 무시한 왕위계승이 왕위계승의 적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이었다.

당시 송시열을 비롯한 산림은 소현세자와 강빈의 불행 뒤에는 조귀인과 낙당의 영수인 김자점이 있다고 믿었다. 조귀인과 김자점은 사돈지간이었다. 조귀인 소생이자 인조의 외딸인 효명옹주의 남편 김세룡이 김자점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김자점의 낙당 또한 서인의 한 갈래지만 김집.송시열.송준길 등이 주도하던 산림은 당시만 해도 이런 정치 공작에 반대했다. 이때만 해도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강빈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선명성이 무기였던 산림은 강빈의 한을 풀어주는 '강빈의 신원'을 당론으로 삼았다. 효종과의 한판 격돌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조선시대를 휩쓴 전염병의 공포

2013.06.19 12:58

영조 26년 역질로 10만명이상 숨져… “전쟁보다 끔찍”

◇김준근이 ‘기산풍속도첩’에서 묘사한 평양식 마마배송굿 장면. 마마(천연두)는 예로부터 가장 큰 공포의 대상으로 백성들에게 천연두는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가 달라”고 부탁하는 신의 존재로까지 격상됐다.

#1. 전쟁보다 무서웠던 전염병

전염병, 즉 역병(疫病) 또는 역질(疫疾)에 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15년 백제 온조왕 4년의 일이다. ‘삼국사기’ 온조왕에 관한 기록에는 ‘봄과 여름에 가물어 기근이 생기고, 역병이 유행하였다’고 기록하여 당시 전염병이 들끓었던 시대상을 짧게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역병이나 역질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 200여건 이상 달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최초의 기록은 1393년 3월 태조가 심혈을 기울여 창건한 절인 양주 회암사에 역질이 유행한 것이다. 회암사의 역질이 수개월간 계속되자 왕사(王師) 자초는 급히 거처를 광명사로 옮겼다.

“왕사(王師) 자초(自超)가 이르니 광명사에 거처하게 하였다. 처음에 자초가 회암사에 있었는데, 금년 봄에 이르러 회암사에서 역질이 발생했으므로, 자초가 연복사의 문수 법회(文殊法會)에 왔다가 법회가 파하고 난 뒤에 회암사로 돌아가지 않고 곡주의 불국장으로 가서 거처하였다. 여름에 회암사에서 역질이 크게 성하니 중들이 많이 죽었다.” (‘태조실록’ 태조 2년 7월 19일)

실록에는 이후에도 꾸준히 역질에 관한 기록들이 나온다. 태종 11년 5월에는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동안에 경외에 역질이 돌아 백성들이 많이 요사(夭死)하였다’고 하였고, 세종 4년 3월에는 ‘이달에 서울과 지방에서 큰 역질이 있어,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하는 등 역질의 유행은 끊이지가 않았다. 현종 12년 1월 3일에는 ‘경상도에 굶주리는 백성이 5100여명이었는데 역병이 잇따라 번져서 죽은 자가 200여명이었다. 소의 역질도 계속 심하게 번졌다’는 기록이 있고, 이해 8월에는 역질로 소 779마리가 죽었다.

전염병이 전쟁보다 무서웠음은 ‘현종실록’의 다음 기록에서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팔도에 기아와 여역(열병)과 마마로 죽은 백성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 삼남(三南)이 더욱 심하였다. 그리고 물에 빠지고 불에 타서 죽고 범에게 물려 죽은 자도 많았다. 늙은이들의 말로는 이런 상황은 태어난 뒤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서 참혹한 죽음이 임진년의 병화보다도 더하다고 하였다.” (‘현종실록’ 현종 12년 2월 29일)

◇조선 초 ‘악학궤범’에 등장하는 처용무의 한 장면. 처용무는 삼국시대 ‘역질’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1733년(영조 9)에는 전라도에 역질이 유행하여 2081명이 사망하였고, 1741년(영조 17) 7월에는 관서지방에 역질이 들어 3700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평안도 지역의 인구를 고려하면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이 희생된 것이었다. 1750년(영조 26)에는 전국에서 역질이 유행하였다. 실록에서는 ‘이때에 8도에 역질이 성하여 죽은 자가 즐비하였다’고 하여 당시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다. 영조는 즉시 하교를 내렸다.

"시신을 묻어 주는 것은 왕정(王政)의 큰 일이다. 더군다나 경외에 역질이 치성하여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아 해는 이미 바뀌어 만물이 모두 봄기운을 타고 있는데, 아 우리 백성들은 친척 · 형제 · 고아 · 과처(寡妻)가 울부짖고 서러워하니, 생각이 여기에 미치매 저절로 처절해진다. 경외에 분부하여 죽은 자는 방법을 다하여 거두어 묻어 주고 산 사람은 특별히 구원하여 살려내게 하라."

하교 사망자의 시신 수습과 산 자의 구휼 정책에 즉각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에도 사망자의 수는 급격히 늘어갔다. 경기에서 3487명, 강도(江都)에서 349명, 영남에서 1933명, 해서에서 46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전염병의 폭풍이 조선을 휩쓸고 지나갔다.

조선 후기의 주된 전염병은 콜레라, 두창, 성홍열, 장티푸스, 이질, 홍역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백성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콜레라와 마마라고도 불렸던 두창(천연두)이었다. 질병사 연구에 따르면 18, 19세기 전염병의 유행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조선 또한 이 유행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다.

#2. 신(神)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던 마마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을 꼽으라면 무엇일까? 아마도 지금도 진단을 받으면 곧 사형선고를 연상하는 암일 것이다. 암이라는 존재에 대해 거의 몰랐던 조선시대, 가장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병은 바로 천연두(天然痘)였다.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 되었길래 호환(虎患)보다도 무서웠고, 아예 '마마신'이라 하여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가 달라고 부탁하는 신이 되어버렸다. 천연두는 인공적인 인두(人痘), 우두(牛痘)가 생긴 후 천연적으로 생기는 병이라 해서 천연두라 불렀다. 두창(痘瘡), 두진(痘疹)이라 부른 것은 피부에 콩알만 한 돌기(疹)가 솟아 곪고 헐기(瘡) 때문이다. 마마가 무서웠던 것은 사망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겨우 살아나도 병의 후유증으로 얼굴이 얽기 때문이었다. 곰보 자국이 생기는 것이다.

◇고위관료들의 초상을 모은 화첩인 '진신화상첩' 중 일부. 화첩에 실린 22명 중 다섯 명의 얼굴에서 천연두의 후유증인 곰보 자국을 발견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일반 백성의 태반은 얼굴이 얽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는 '진신화상첩'이라는 선비들의 초상화첩이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려진 인물 22명 중 오재소 등 5명의 얼굴에 선명한 곰보 자국이 나타나 있다.
고위 관료까지 지낸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곰보였다면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일반 백성들이 곰보였을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의 초상화에도 마마 자국이 나타나며,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사진에서도 어렵지 않게 마마 자국을 찾을 수가 있다. 마마의 공포는 왕실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다. 세종이 총애했던 막내아들 성녕대군은 마마로 14세에 사망하였고, 선조는 역시 마마로 아들과 손자를 잃었다. 숙종은 왕으로 재위하던 시절 마마를 앓아 큰 곤욕을 치렀으며, 숙종의 첫 왕비 인경왕후는 마마로 세상을 떴다.

영조는 세제인 연잉군으로 있을 때인 1711년(숙종 37) 마마를 앓았다. 영조가 마마를 앓자, 영조와 함께 거처하는 중궁전(中宮殿:숙종의 계비 인원왕후)의 거처를 옮겼다. 결국 인경왕후는 마마에 걸렸으나 곧 회복되었다. 이를 기념하는 별시(別試)가 행해졌을 만큼 마마는 무서웠다.

일반적으로 못생긴 여자를 뜻하는 박색(薄色)이라는 용어는 원래 얽었다는 뜻의 박색(縛色)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을 보면, 마마를 앓은 사람은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천시를 받는 이중의 아픔을 겪었음을 알 수가 있다.

#3. 역병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유행하면 기본적으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양에 역병이 발생하면 환자나 시체를 도성 밖으로 추방하는 조처를 일단 취하였다. 성 밖에서 역병에 걸린 환자를 전담하던 곳은 활인서(活人署)였다.

동소문 밖에 동활인서를, 서소문 밖에 서활인서를 두고, 의원(醫員)과 의무(醫巫)를 배치하였다. 평소에는 무의탁 병자를 돌보는 일을 맡다가, 역병이 유행하면, 따로 여막(廬幕)을 가설하여 환자들을 보살폈다. 활인서에서는 약물 치료보다는 죽 등의 음식물을 공급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귀신을 겁주어서 쫓아내는 방법도 동원되었다. 무당이 나서서 굿을 해서 몸에 악귀가 붙지 않도록 부채와 방울도 흔들고 장구도 치곤 했다. '무당내력(巫黨來歷)'이라는 책에는 마마신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무당의 노력이 그림과 함께 실려 있다.

역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제(祭)가 상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베풀어졌다. 서울은 북한산에 여제단을 설치하여 청명, 7월 보름, 11월 초하루에 제사를 지냈다. 역병을 미리 예방하고자 함이었다. 역병이 유행할 때에는 국왕까지 나섰다. 1750년(영조 26) 전국에 역병이 돌아 사망자가 10만명에 이르자, 영조는 근신(近臣)에게 명하여 8도에 두루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숙종 역시 1708년(숙종 44) 3월 '역질이 치열하게 만연되었기 때문에' 중신(重臣)을 보내어 경도(京都)의 산천과 성황당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지석영은 1885년 '우두신설'을 저술해 우두법 등 천연두 치료에 큰 업적을 남겼다.

굿을 하고 제사를 지내도 역병의 유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결국은 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이 필요하였다. 허준은 광해군의 두창을 치료해 명의(名醫)의 반열에 섰으며, 숙종 때의 어의(御醫) 유상은 숙종의 두창을 치료한 공으로 종2품직까지 올랐다.

정약용은 천연두에 관한 이론을 집대성한 책인 '마과회통'을 남겼다. 정약용은 어린 시절 천연두를 앓았고 자식들도 천연두를 앓았던 아픔을 겪었던 만큼 천연두 극복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규장각에 근무하면서 최신 의학 서적을 볼 기회를 얻었고 이것이 '마과회통'의 집필로 이어졌다. 근대에 들어와 천연두 극복에 앞장선 인물은 우두법을 처음 시행했던 지석영이었다. 1885년 지석영은 '우두신설(牛痘新說)'을 저술하여 천연두 치료에 공헌하였다. 의학자들의 노력은 난공불락과도 같았던 천연두의 벽을 결국에는 무너뜨렸던 것이다.

역사 속 지도자들의 마지막 모습

2013.06.19 12:57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 얻으라" 왕건, 유훈 '훈요십조' 남기고 운명

#1.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

◇만월대에서 전시하고 있는 고려 태조 왕건의 영정.

우리 역사 속 지도자들 중에도 마지막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다. 왕건은 죽음에 임해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10가지로 정리한 '훈요십조(訓要十條)'를 남겼다.

1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서로 빼앗지 말 것, 2조 사찰을 지을 때는 도선의 풍수사상에 의거하여 지을 것, 3조 왕위는 맏아들 세습을 원칙으로 하되 맏아들이 현명하지 못할 때는 다른 아들이 여러 신하의 추대를 받아 왕위를 계승할 것, 4조 우리나라는 방토(方土)와 인성(人性)이 중국과 다르므로 중국 문화를 모두 따를 필요가 없으며 거란은 언어와 풍속이 다른 짐승과 같은 나라이므로 거란의 제도를 따르지 말 것, 5조 풍수지리사상을 존중하고 서경(西京:지금의 평양)을 중시할 것, 6조 연등의 불교행사와 하늘 · 오악(五嶽) · 대천 · 용신을 제사지내는 팔관(八關) 행사를 성실히 지킬 것, 7조 간쟁을 따르고 참언을 멀리하여 신민의 지지를 얻을 것, 8조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고 국부민안(國富民安)을 이룰 것, 9조 차령산맥 이남과 금강 이남은 산천과 인심이 배역(背逆)을 끼고 있으므로 그 지방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 것, 10조 경사(經史)를 넓게 읽어서 옛날을 거울삼아 현재를 경계할 것 등이다.

고려가 불교와 풍수지리사상에 기반한 나라인 점, 서경을 중심으로 북진정책을 쓰고 거란과는 대결구도로 간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왕건이 거란에 대하여 소위 '햇볕정책' 대신 강경정책을 고수한 것은 거란에 대해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민족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경령전 인근에서 발견된 청동상. 전문가들은 이 청동상의 모델을 왕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천년도 넘은 유훈(遺訓)이지만 전통문화의 존중이나 후계자 계승 문제, 언로의 수집과 세금을 가볍게 할 것 등 현재에 바로 적용해도 손색이 없는 내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태조의 유훈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다. 태조 사후 바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들 간의 전쟁이 잇따랐고, 4대 광종에 이르러서야 고려는 제국(帝國)의 기틀을 다질 수가 있었다.

#2. 조선시대 왕들의 마지막 모습

조선을 개국한 태조의 무덤은 특이하게 봉분에 잔디가 아닌 억새가 심어져 있다. 고향 함흥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위해 태종이 함흥의 억새를 가져와 봉분을 덮어준 것이라고 한다. 실록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전한다.

◇지난해 북한 개성 만월대 조사 도중 태조 왕건을 비롯한 역대 고려왕 5명의 어진과 신위를 봉안하던 경령전 터가 드러났다.

"홍서봉이 아뢰기를, '건원릉 사초(莎草)를 다시 고친 때가 없었는데, 지금 본릉에서 아뢰어 온 것을 보면 능 앞에 잡목들이 뿌리를 박아 점점 능 가까이 뻗어난다고 합니다. 원래 태조의 유교(遺敎)에 따라 북도(北道)의 청완(靑?:억새)을 사초로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른 능

과는 달리 사초가 매우 무성하였습니다. (…) 예로부터 그 능의 사초를 손대지 않았던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였던 것이니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고 하였다.” (‘인조실록’ 인조 7년 3월19일)

위의 기록에서 태조의 유언에 따라 아들 태종이 함흥 고향의 억새를 가져와 동구릉의 사초로 썼음이 나타나며, 이후에도 여러 왕이 태조의 사초는 특별히 관리한 정황이 나타난다. 생전에도 많은 갈등을 겪었던 아버지 태조와 태종. 태종은 무덤마저 아버지가 원치 않는 곳에 조성하였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왕비 신덕왕후의 곁에 묻히는 것을 반대하여 현재의 동구릉 자락에 건원릉을 조성하고 홀로 아버지를 모시는 불효(?)를 범했다. 그러나 고향 함흥의 억새를 덮어 달라는 마지막 유언만은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 건원릉의 억새는 아버지가 진정 원치 않는 곳에 묻은 불효를 만회하고자 했던 태종의 아픈 심정을 담고 있다.

◇정조의 국장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한 의궤 일부.

1452년 5월 죽음을 눈앞에 둔 문종은 마지막까지 믿었던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불렀다. 이제 12살이 갓 지난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이들에게 단종을 잘 보필하여 줄 것을 신신당부했다. 단종 즉위 후 이들은 문종의 유언을 충실히 따랐다. 그러나 너무 지나쳤다. 관리들의 인사를 할 때 자신들이 결정한 인물의 이름 밑에 노랗게 표시를 하는 황표정사(黃標政事)를 했고, 왕실은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이러한 상황에 분개했다. 1453년 마침내 계유정난이라는 쿠데타를 단행하였고, 김종서 · 황보인 등 신권의 대표 주자들은 제거되었다. 1455년 왕위에서 물러나 단종은 결국 유배지 영월 청령포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문종의 마지막 우려는 현실이 되어 왕실의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1607년 12월 선조는 병세가 악화하자 유영경 · 신흠 · 한응인 등 7명의 전 · 현직 대신들을 불렀다. 노년에 낳은 적장자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싶었지만 영창대군은 이제 겨우 두 살. 결국 선조는 대신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이미 왕세자로 책봉되어 있던 광해군을 후계자로 삼으라는 유교(遺敎)를 내렸다. 그리고 어린 영창대군이 마음에 걸린다며 자신이 죽은 후에도 여러 대신이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때 선조의 마지막 유언을 들은 사람을 유교칠신(遺敎七臣)이라 한다. 광해군에게도 역시 동기(同氣)인 동생 영창대군을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조선 태조 이성계를 모신 건원릉 모습.

1608년 2월 선조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허준을 비롯한 어의(御醫)들이 소합원, 개관산 등의 강한 약재를 처방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허준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진단했다. 선조의 뒤를 이어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지만, 광해군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못했다. 오히려 1613년 어린 동생 영창대군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 당파 간의 치열한 정쟁이 격화되면서, 왕권을 위협하는 적장자 동생의 존재는 광해군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광해군을 후계자로 정한 선조의 마지막 유언은 지켜졌지만 후대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사랑했던 막내아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

#3. 대학자의 마지막 모습들

1501년 같은 해에 출생하여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을 형성한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 이들은 ‘좌퇴계(左退溪) 우남명(右南冥)’ 으로 불리면서, 평생을 정치적 라이벌이자 학문적 동지로 살아갔다. 둘은 성리학의 이해를 둘러싸고도 실천 중시(조식), 이론 탐구(이황)라는 다른 입장을 보였으며, 현실을 보는 눈, 왜적에 대한 입장 등 모든 것이 달랐다. 이들의 학문을 계승한 제자들에 이르러서는 북인(조식 학파)과 남인(이황 학파)으로 갈리면서 더욱 치열한 학문적, 사상적 대립관계를 유지하였다.

두 사람은 달랐던 성향만큼이나 마지막도 달랐다. 이황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이 위치한 청량산을 그리워했다. 이제 더 이상 청량산을 오를 수 없었지만, 1570년 병석에서 청량산에 다녀 온 제자 권호문에게 청량산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죽음 직전 이황은 평소 사랑했던 매화에게 자신의 불결한 모습를 보이기 싫다면서 분재를 옮기라고 지시하였다. 12월 8일 이황은 ‘저 매화나

무에 물을 주라’ 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학문에 침잠하며 자연을 사랑한 대학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남명 조식 초상과 조선 태조 이성계 어진.

조식은 성리학의 실천을 무엇보다 강조하면서 평생 수양과 실천을 상징하는 ‘경의(敬義)’ 를 신념화했다. 조식은 차고 있던 칼에 ‘내명자경(內明者敬:안으로 밝히는 것은 경) 외단자의(外斷者義:밖으로 결단하는 것의 의)’ 라는 글씨를 새겨 놓았으며, 창과 벽 사이에도 경의 두 글자를 크게 써 놓았다고 한다. 조식은 임종시에 문인들이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청하자 ‘경의 두 글자는 지극히 긴요하고 절실하니 배우는 사람들이 공부가 익고 익으면, 가슴속에 일물(一物)의 가리움이 없게 되는 것인데 내가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다’ 는 유언을 남겼다.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정치가이자 학자인 율곡 이이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의 국방을 걱정했다. 1584년 이조판서였던 이이는 병조판서로 있을 때부터 생긴 병 때문에 자리에 누웠다. 선조는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하는 한편, 이때 서익(徐益)이 순무어사로 관북에 가게 되자 이이를 찾아가 변방에 관한 일을 묻게 하였다. 자제들은 병이 현재 조금 차도가 있으나 몸을 수고롭게 해서는 되지 않으니 응하지 말 것을 청했지만, 이이는 ‘나의 몸은 다만 나라를 위할 뿐이다. 만약 이 일로 인하여 병이 더 심해져도 역시 운명이다’ 하고, 억지로 일어나 맞이하여 육조(六條)의 방책을 불러주었다. 서익이 이를 다 받아쓰자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하더니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정치가로서, 학자로서 최후까지 조선의 국방을 걱정했던 이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2013.06.19 12:56

조선선비 3000리 길 열하에서 새 세상을 만나다

최근 연암 박지원의 아들 박종채가 직접 수정, 보완한 '열하일기' 가 발견돼 학계의 화제가 된 바가 있다. '열하일기(熱河日記)' 는 워낙 그 내용이 재미있어서 여러 종의 필사본이 나돌아 다닌 책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직접 수정한 '열하일기' 가 발견되었으니, 박지원이 일기를 쓴 진의를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0년 전 아직도 청나라에 대한 복수 의식이 팽배했던 시절, 박지원은 '열하일기' 를 통해 이념보다는 개방과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1. 국경을 건너면서

◇연암 박지원 초상.

'열하일기' 는 조선후기의 북학파 학자 박지원(朴趾源:1737~1805)이 1780년(정조 4) 청나라를 다녀온 후에 쓴 기행문으로 1783년에 완성되었다. 청나라 건륭제의 고희연을 맞아 재종형 박명원의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청나라에 들어갔다가 견문한 내용을 쓴 것이다.

청나라에 대한 복수 의식인 북벌(北伐) 이념이 여전히 지배하던 시대. 박지원은 청나라 곳곳을 견문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귀국 후 그의 충격적 경험은 '열하일기' 의 집필로 이어졌다. 애초의 목적지인 연경에 갔다가 당시 건륭제가 휴가를 취하고 있는 열하의 피서산장까지 갔기 때문에 제목을 '열하일기' 라 한 것이다.

1780년 여름 동지사 박명원 일행은 청나라 건륭제가 있는 북경을 향해 압록강을 건넜다. 일행 중에는 박지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청나라 여행에 임하는 박지원의 기분은 처음 한껏 달아 있었지만 막상 국경에 다다르니 고향 생각도 나고 약간의 착잡한 마음도 있었던 듯하다.

"멀리 앞길을 헤어볼 때 무더위가 사람을 찌는 듯하고, 돌이켜 고향을 생각할 때는 구름과 산에 막혀 아득한지라 사람의 정리도 이럴 때는 느닷없이 떠오르는 가벼운 후회가 없지 못할 것이다." ('열하일기—도강록' 에서)

◇ '연행도' 제13폭 '유리창(琉璃廠)' . 연경 유리창의 화려한 가게들과 번화한 거리를 묘사한 그림이다. 2명의 인물이 각각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가운데 아래)은 조선에서 구경하기 어려운 낯선 풍경이다.

박지원의 여행 준비물은 그의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고려하면 의외로 간단했다. "창대(昌大:박지

원의 마부 이름)는 앞에 서고, 장복(張福:박지원의 하인 이름)이는 뒤에 붙었다. 안장에 걸린 양쪽 걸랑에는 왼쪽은 벼루, 오른쪽은 석경, 붓 두 자루에 먹 한 장, 공책 네 권에 '이정록(里程錄)' 한 축, 행장이 이렇듯 간편하니 국경의 세관 검사가 엄하다 하더라도 염려 없었다." 요즈음으로 보면 여행안내서와 필기구, 메모지만 단촐하게 준비하고 여행에 임한 셈이다.

박지원은 국경에서의 소지품 검사 광경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하인들의 경우 윗옷을 풀어 헤치기도 하고 바짓가랑이도 내리 훑어보며, 비장이나 역관의 경우에는 행장을 끌러 본다. 이불 보퉁이, 옷 보따리들이 강가에 풀어 흐트러지고 가죽 상자, 종이 함짝들은 풀섶에 나뒹구는데 서로 흘깃흘깃 쳐다보면서 저마다 수습하기에 야단법석이다." ('열하일기—도강록' 에서)

압록강에서 국경을 넘을 때의 정경을 마치 현장을 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박지원은 수색을 당해 체면이 손상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순순히 수색에 응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바랐던 국경을 넘었다.

◇ '열하일기' 여정도.

#2. '천하의 두뇌' 열하로 가다

박지원이 열하까지 간 여정을 대략 살펴보면 압록강에서 연경까지 약 2300여리, 연경에서 열하까지 700리로 육로 3000리의 긴 여행이었다.

거리도 거리려니와 끝없이 펼쳐지는 중원의 변화무쌍한 날씨는 여행을 힘들게 하였다. 그러나 박지원은 뜻밖의 행운에 모험을 즐기며 가는 곳마다 세심하게 여행스케치를 했다.

열하는 강희제 이후 중국 역대 황제들의 별궁으로 활용되었으며, 여름 최고기온이 24도를 넘지 않는 시원한 곳이었다. 그러나 열하로 가는 길은 험준한 지세에다 황제의 불 같은 재촉이 이어지면서 사신단 일행은 하룻밤에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너는 강행군을 하기도 하였다.

열하는 당시 북방의 오랑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천하의 두뇌' 에 해당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박지원은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동물, 몽골, 위구르, 티베트, 서양 등 이국문명을 접하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른 문화충격을 받게 된다.

◇중국 청나라 황제들을 위한 휴양지였던 허베이성 청더의 피서산장. 연암 박지원의 청나라 기행기인 '열하일기' 의 열하가 바로 지금의 청더다.

여행 기간은 5월25일부터 10월27일까지 약 5개월간이었다. 한양→박천→의주→요양→성경(심양)→거류하→소흑산→북진→고령역→산해관→풍윤→옥전→계주→연경(북경)→밀운성→고북구→열하 등이 주요 행선지였다.

'열하일기' 는 독립적으로 전하는 경우 총 26권 12책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구성은 1책 도강록, 2책 성경잡지, 3책 일신수필, 4책 관내정사, 5책 막북행정록, 태학유관록, 6책 환연도중록, 경개록, 황교문답, 반성시말, 찰십윤포, 7책 망양록, 심세편, 8책 혹정필담, 산장잡기, 9책 환희, 피서록, 행

재잡록, 희본명목, 10책 구외이문, 옥갑야화, 금류소초, 11책 황도기략, 알성퇴술, 양엽기, 12책 동란섭필 등이다.

#3. '열하일기'에 녹아 있는 박지원의 사상

◇박지원이 '열하일기'의 일신수필에서 언급한 청나라의 수레를 묘사한 그림.

"무릇 수레라는 것은 하늘이 낸 물건이로되 땅 위를 다니는 물건이다. 이는 뭍 위를 달리는 배요 움직이는 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우리 조선에도 수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 못하고 바퀴 자국이 궤도에 들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선은 산과 계곡이 많아 수레를 쓰기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한다. 이런 얼토당토않는 소리가 어디 있는가? 나라에서 수레를 이용하지 않고 보니 길을 닦지 않는 것이요, 수레만 쓰게 된다면 길은 저절로 닦일 것이 아닌가? 거리가 비좁고 산마루들이 험준하다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걱정이다. (중략) 그래도 사방의 넓이가 몇 천 리나 되는 나라에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이다지도 가난한 까닭은 대체 무엇이겠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수레가 나라에 다니지 않는 탓이라 할 수 있다." ('열하일기—일신수필' 중 '수레 만든 법식(車制)'에 관하여)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열하일기' 곳곳에는 박지원의 북학사상이 진하게 배어 있다. '조선은 산과 계곡이 많아 수레를 쓰기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한다'는 변명에 대해 박지원은 "나라에서 수레를 이용하지 않고 보니 길을 닦지 않는 것이요, 수레만 쓰게 된다면 길은 저절로 닦일 것이 아닌가?"라 하여 수레를 만들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자세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의 교통망 확보와도 흡사한 점이 있다. 1970년대 경제개발 기간 중 산을 깎고 터널을 뚫어 고속도로망을 확보한 것이 여러 측면에서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과도 비슷한 이치이다. 수레를 단순한 교통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수레의 활용에서 비롯되는 도로망 건설 등 국가산업 전반의 발전을 꾀한 것이다.

청나라에 도착한 후에도 박지원은 가는 곳마다 보고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열하일기'에 담았다. 털모자에 대한 단상(斷想)을 담은 다음과 같은 글이 대표적이다.

◇박지원이 연경(베이징) 뒷골목에서 접한 뒤 크게 놀랐다는 요지경.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털모자는 다 이곳에서 나오고 있다. 털모자 점은 세 군데 있었는데, 한 점포가 40~50칸씩이나 되고 모자 만드는 장인바치들이 백 명씩은 족히 될 것 같았다. 의주 상인들은 벌써 이곳에 우글우글 모여 모자들을 계약하고 돌아가는 길에 실어갈 모양이다. (중략) 모자는 사람마다 겨울에만 쓰다가 봄이 되어서 해지면 버리고 마는데, 천 년을 가도 헐지 않는 은으로 한 겨울만 쓰면 내버리는 모자와 바꾸고, 산에서 캐내는 한정 있는 은으로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에 갖다 버리니 그 얼마나 생각이 깊지 못한 일인가?" ('열하일기—일신수필' 중에서)

당시 털모자는 청나라에서 만들어져 겨울철 조선에 인기리에 수입되고 있었지만, 박지원은 털모자 수입에 대해 은을 낭비하는 행위라 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최근에도 일부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수입업자들이 외국산 모피나 명품 의류나 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막대한 달러를 해외에 유

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박지원의 이야기가 결코 낯설지 않다.

◇ '열하일기' 박종채본과 청 건륭제의 초상.

#4. 조선후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열하일기'는 조선후기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현재 내용이 조금씩 다른 '열하일기' 필사본이 여러 종 남아 있는 것을 보아도 '열하일기'의 당시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열하일기'가 이처럼 유행한 것은 무엇보다 글이 재미있기 때문이었다. 어떤 지식인은 '열하일기'가 종종 턱이 빠질 정도로 웃도록 만드는 책이라고 평가한 바도 있다. 박지원은 조선의 토속적인 속담을 섞어 쓰기도 하였고, 하층 사람들과 주고받은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또 한문 문장에 중국어나 소설체 문체를 사용하는 등 당시 지식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판에 박힌 글과는 전혀 다른 글을 쓰면서, 특유의 해학과 풍자를 가미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또한 박지원의 글에는 당대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의식 있는 지식인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박지원의 글은 문체와 그 내용의 파격성으로 인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국왕인 정조 역시 패관잡기를 불온시하고 순정문(醇正文)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정조는 직접 하교를 내려 박지원의 문장이 비속함을 지적하였다. 양반 신분질서에 대해 저항적인 성격을 지닌 그의 글이 널리 퍼진다면 사회 기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열하일기'는 연암이 세상을 떠난 약 80년 후인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열하일기'는 1911년 조선광문회에서 활자본으로 출간되면서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북학사상의 선구자 박지원의 이름을 후대인들에게 깊이 각인시켰다.

한여름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230여년 전 북학사상을 전파한 선구적인 지식인의 삶을 음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왕실 국장의 절차와 기록들

2013.06.19 12:54

왕이 승하하면 신료들은 3일동안 머리 풀고 음식 끊어

◇최근 공개된 고종 황제 국장 모습. 죽안거마 등 국장 행렬이 종로 일대를 지나자 백성들이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 대한제국 첫 황제의 마지막 길을 참담하게 바라보고 있다.

#1. 국왕의 죽음에 관련된 의식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국왕이나 왕비, 태상왕(비), 세자(빈), 세손(빈)이 사망하면 그 장례를 국상으로 치렀다. 그렇지만 국상에 대한 표현은 대상자에 따라 달랐다. 국왕과 왕비의 장례는 국장(國葬)이라 일컬었고, 세자와 세자빈의 장례는 예장(禮葬), 황제의 장례는 어장(御葬)이라 했다. 또한 사망을 표현하는 말도 대상자에 따라 달랐다. '예기'를 보면 천자는 붕(崩), 제후는 훙(薨), 대부(大夫)는 졸(卒), 사(士)는 불록(不祿), 서민은 사(死)라고 규정했다. 조선의 국왕은 제후에 해당하므로 '훙'이란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통상 "상(上)이 승하(昇遐)하였다"고 표현했다. 왕이 가장 많이 사망한 공간은 왕의 침전이었다. 창덕궁의 침전인 대조전에서는 성종, 인조, 효종, 철종 등이 승하했다.

◇고종황제가 승하하자, 그의 아들이자 대한제국 두 번째 황제인 순종황제(가운데)가 상주 역할을 하고 있다.

왕의 병이 깊어 죽음에 임박하면 유언을 듣게 되는데, 이를 고명(誥命)이라고 한다. 대개 왕의 신임을 받는 측근 신하가 고명을 받아 왕의 유교(遺敎)를 작성한다. 고명을 받은 신하를 고명대신이라 하였다. 왕이 사망하면 머리를 동쪽을 향하도록 눕히고, 내시가 솜을 입과 코 위에 놓고 숨을 쉬는가를 살폈다. 사망이 확인되면 내시가 왕이 평소 입던 옷을 가지고 궁궐 지붕에 올라가 용마루를 밟고 세 번 "상위복(上位復)"이라 외친다. 이는 떠나가는 국왕의 혼령에게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이다.

왕이 사망하면 왕세자 이하 신료들은 머리에 썼던 관과 입었던 옷을 벗고 머리를 풀었다. 그리고 흰색 옷과 신발, 버선을 착용하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세종실록'에는 "졸곡(卒哭) 뒤에도 오히려 소선(素膳)을 하시어 성체(聖體)가 파리하고 검게 되어 여러 신하들이 바라보고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또 전하께서 평일에 육식이 아니면 수라를 드시지 못하는 터인데, 이제 소선한 지도 이미 오래되어 병환이 나실까 염려됩니다"(세종 4년 9월 21일)라고 하여 육식을 무척이나 즐겼던 세종이 국상 때문에 음식을 들지 못해 신하들이 걱정한 기록이 보인다.

졸곡 때까지 궁중의 모든 제사와 음악 연주가 중지되며, 이후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사직 제사만 올리고 음악은 대사(大祀) 때에만 연주하였다. 또한 민간에서도 국왕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해 5일

동안 시장이 열리지 않으며, 결혼과 도살이 금지되었다. 망자에 대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 것이다.

왕의 죽음이 확인된 후에는 왕의 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습(襲), 옷과 이불로 시신을 감싸는 소렴(小殮)과 대렴(大斂)이 진행되었다. 대렴이 끝나면 시신을 넣은 재궁(梓宮: 가래나무로 만든 왕의 관)을 빈전에 모셨다. 일반인의 상례 때에는 빈소에 관을 그대로 두지만, 국장에서는 '찬궁' 이라는 큰 상자를 만들어 그곳에 재궁을 모셨다. 찬궁의 사면에는 청룡(동) · 백호(서) · 주작(남) · 현무(북)의 사신도(四神圖)를 그려 넣었다. 국왕이 사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대신을 사직과 종묘에 보내 국왕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아뢰었다.

#2. 국왕의 장례 절차

◇능역 조성의 기본 풍수 설명도.

성복(成服: 상주가 상복을 입음)은 대렴을 한 다음날 거행하며, 새 국왕의 즉위식은 성복이 끝난 후에 치렀다. 새 국왕은 전 국왕의 장례 절차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 간략한 의식을 거쳐 왕위에 올랐다. 따라서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은 흔히 상상하듯이 매우 화려하고 기쁜 의식이 아니었다. 선왕의 장례식이 중심 의례였기에 오히려 슬픔이 교차하는 의식이었다. 새 국왕은 즉위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상복에서 면복(冕服: 예복)을 갈아입었다. 다만 태종이 상왕으로 있으면서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세종의 즉위식과 스스로 왕에서 황제임을 선포한 고종의 황제 즉위식은 활기 넘치는 즉위식이 되었다.

국왕이 사망한 다음 달에는 새 국왕이 전 왕의 묘호(廟號: 종묘에 신주를 모실 때의 호칭), 능호(陵號: 왕릉의 호칭), 시호(諡號: 생전의 공적을 칭송하는 호칭)를 정하여 올리게 하였다. 영조를 예로 들면, 묘호는 영종(英宗: 영종이 영조로 바뀐 것은 고종 때이다), 능호는 원릉(元陵)이었다. 또한 국왕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행장(行狀)과 책문(冊文), 비문(碑文), 지문(誌文)을 고위 신료들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이때에 작성된 글들은 '조선왕조실록' 각 왕의 기록 마지막 부분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발인(發引)이 시작되면, 국왕의 관은 궁궐을 떠나 노제(路祭: 길에서 지내는 제사)를 거쳐 장지에 이르렀다. 산릉도감이 미리 조성해 놓은 왕릉 자리에 도착하면 관을 정자각(丁字閣)에 모시고, 찬궁에서 관을 꺼내어 하관하였다. 하관에는 사전에 설치해 둔 녹로 등의 기계를 이용하였다. 왕릉 조성이 끝나면 우제(虞祭: 시신을 매장한 후 혼령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고, 가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왔다. 가신주를 안치하고 나면 왕실의 장례를 주관한 관청인 국장도감은 그 업무를 종결하고 해산되었다. 그러나 국장 의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가신주를 혼전에 모시고 삼년상(대략 27개월 정도)을 지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혼전에 모신 가신주를 꺼내어 종묘 터에 묻고 새 신주를 만들어 종 묘에 모셨다. 이를 부묘라 하였다.

◇고종 황제의 시신을 실은 대여가 동대문 인근을 지나고 있다.

국장이 끝나면 국장도감, 빈전도감, 산릉도감, 혼전도감, 부묘도감 등 각 도감(都監)에서 의궤를 작성하였다. 도감은 장례의 집행을 담당하는 임시 관청이었다. 국장 관련 도감으로는 장례를 총괄하는 국장도감(國葬都監), 시신을 안치하는 빈전을 설치하고 염습과 복식을 준비하는 빈전도감(殯殿都監), 무덤을 조성하는 산릉도감(山陵都監)이 설치되었다. 오늘날의 장례의식으로 말하자면 장례를

총괄하는 집행부는 국장도감,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는 일은 빈전도감, 능을 조성하는 작업은 산릉도감이 담당했던 것이다.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일부.

#3. 의궤에 기록된 국장의 모습

국장에 관련한 도감이 부서별로 설치되고, 의식이 끝난 후 관련 의궤가 다양하게 제작된 것은 국장을 엄수하는 것을 최고의 예법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국장도감의궤'에는 재궁, 각종 수레, 책보(冊寶), 각종 의장, 제기의 제작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말미에는 국장 행렬을 담은 반차도(班次圖)를 그렸다. '정조국장도감의궤'의 기록을 보면, 반차도는 발인하기 약 10일 전까지는 완성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엄숙하고 장중하게 치러야 하는 행사였기에 수많은 참가자들은 미리 반차도를 통해 도상연습을 하고, 행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숙지하였던 것이다. 1780년에 있었던 정조의 국장 행렬을 그린 반차도는 총 40면에 걸쳐 그려져 있고 1440명의 인원이 나타난다. 1897년의 명성황후 국장 반차도에는 총 78면에 2035명의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그려져 있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황실 행사였으므로 그 규모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 '정조대왕국장도감의궤' 중 '능행반차도'.

국장 행렬의 주요 장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렬의 중간, 화면의 중앙부에 향로를 실은 가마를 앞세우고 각종 의장물과 악대가 지나가며, 붉은 일산(日傘) 다음에 12명의 시위 별감이 인도하는 신연(神輦: 국왕의 가신주를 모신 가마)이 삼색의 촛불을 켜고서 지나간다. 장례가 끝나면 이 신연에 실린 신주는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된다. 다시 여러 개의 채색 가마가 지나가는데, 여기에는 각종 제기 및 장례에 사용하는 집기류를 싣고 있다. 그림 하단에 그려진 4인의 방상시(方相氏)는 악귀를 쫓는 역할을 하였다. 방상시 뒤로는 수십개의 만장이 늘어섰는데, 만장은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담은 휘장이다. 의장물인 죽산마(국왕과 왕비의 장례에 쓰인 말 모양의 제구)와 죽안마를 실은 수레가 지나가는 것도 보인다.

◇조선 정조의 장례 절차 등을 기록한 '정조대왕국장도감의궤' 중 반차도 일부.

행렬의 중심에 등장하는 것은 견여(肩輿)와 대여(大轝)이다. 140여명이 메고 가는 견여는 국왕의 시신이 들어 있는 재궁을 대여(大轝)에 올리고 내릴 때나 좁을 길을 갈 때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마이다. 견여 다음에 향로를 실은 향정자와 국왕의 이름을 밝힌 명정(銘旌)을 앞세우고 대여가 지나간다. 대여는 국왕의 시신이 있는 가마이다. 견여보다 규모가 크며, 행렬의 가장 중심이 된다. 대여의 양옆에는 24명의 군사가 등불을 밝히고 그 바깥에는 호위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앞에서는 12명의 별감(別監)이 호위하고 있다. 대여의 후미에는 국장도감의 각급 관리와 중앙 관청의 관리들이 따라가며, 다시 만장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곡(哭)을 담당하는 궁녀 10명이 지나간다. 행렬의 후반부에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관리들이 지나가고, 행렬의 맨 뒤에는 후미에서 경호를 담당하는 병력인 후상군(後廂軍)이 배치되어 있다.

국장 관련 기록은 '국장도감의궤' 이외에 다른 형식의 의궤로도 정리되었다. '빈전도감의궤'에는 염습 · 상복 · 빈전에 소용되는 물품 등을 기록하였고, '산릉도감의궤'에는 공조판서의 지휘 하에 왕릉 조성의 토목공사, 왕릉에 배치되는 각종 석물, 왕릉 주변의 식목(植木)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혼전도감의궤'에는 혼전의 조성에 관한 내용을, '부묘도감의궤'에는 국왕의 신주를 만들어 종묘에 부묘(?廟)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담았다.

조선시대 왕실의 국장은 최대의 예법을 다하여 엄수되었으며, 의식별로 의궤를 작성하였다. 당대에는 물론이고 현재 남아 있는 의궤 중에서도 국장에 관한 의궤들이 가장 많다. 이들 기록은 후대에도 널리 국장 의식을 계승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재까지 조선시대 국장의 현장 모습들을 생생히 접할 수 있게 한다.

겸재의 예술혼

2013.06.19 12:53

인왕산… 한강… 진경산수의 '진수'와 함께 古都 서울 여행을

◇겸재 정선 '경교명승첩'의 '청송당'.

#1. 진경산수화의 중심, 겸재 정선

이번 특별전의 중심인물은 겸재(謙齋) 정선(鄭敾:1676~1759)이다. 정선은 흔히 조선에 진경산수화풍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산천이 아닌 조선의 산천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진경시대란 양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조선 고유의 진경문화를 이루어낸 시기이다. 대개 숙종시대부터 영조시대까지인데 정선이 활동한 영조대는 진경시대 중 최고의 전성기였다.

정선은 아버지 시익과 어머니 밀양 박씨 사이에서, 현재 종로구 청운동 89번지 경복고등학교가 위치한 북악산 서남쪽 기슭에서 태어났다. 정선의 그림 중 가장 유명한 '인왕제색도'와 같이 인왕산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많은 것은 그의 근거지가 바로 인왕산 일대였기 때문이다. 정선은 인근에 살던 안동 김씨 명문가인 김창협, 김창흡, 김창업의 문하에 드나들면서 성리학과 시문을 수업 받으며 이들 집안과 깊은 인연을 쌓아갔다. 안동 김문은 그를 후원했고, 정선은 감사의 뜻으로 김문의 주거지인 '청풍계(淸風溪)'를 여러 번 그렸다. 청풍계는 정선의 그림 중에도 가장 걸작으로 손꼽힌다, 현재에도 청풍계가 위치했던 곳에는 '백세청풍(百世淸風)'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다. 청운초등학교 건너편 어느 주택 안 담벼락에 남아 있는 이 글씨에서 청풍계의 옛 자취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가 있다.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

정선은 안동 김문의 후원과 더불어 국왕인 영조의 총애를 받았다. 예술에 상당한 조예를 지니고 있던 영조는 정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꼭 호로만 부를 정도로 그 재능을 아끼고 존중했다고 한다. 1733년 영조는 정선을 경상도에서 가장 경치가 좋다는 청하현감으로 임명했다. 정선의 나이 58세 때였다. 65세 때에는 현재 서울에 편입된 경기도의 양천현령에 임명되어 서울 근교의 명승들과 한강변의 풍경들을 화폭에 담았다. 1747년에는 금강산 여행을 다녀온 후 '해악전신첩(海嶽傳神帖)'을 남겼다.

정선은 80세 이상 장수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 그의 붓끝에서 조선의 산하가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생생한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그가 80세를 넘길 즈음에는 거의 모든 집에서 그의 그림을 소장할 만큼 화가 정선의 위상이 높아졌다. 정선은 '인왕제색도'나 '금강산전도'와 같이 우람하고 힘찬 산수화는 물론이고 섬세한 붓 터치가 돋보이는 '초충도(草蟲圖)'에

이르기까지 회화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였다. 정선을 김홍도, 신윤복과 함께 조선후기 3대 화가로 손꼽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2. 정선이 그린 300년 전의 서울 풍경들

◇겸재 정선 '경교명승첩'의 '시화상간도'는 오랜 벗인 겸재와 사천 이병연이 마주앉아 시와 그림을 주고받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

정선이 그린 그림 중에는 18세기 한양과 그 주변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 돋보인다. 인왕산에 있던 자신의 집을 배경으로 한 '인곡유거(仁谷幽居)'와 이곳에서 쉬고 있는 정선 자신의 모습을 그린 '독서여가(讀書餘暇)'를 비롯하여 '백악산' '대은암' '청송당' '자하동' '창의문' '백운동' '필운대' '경복궁' '동소문' '세검정' 등은 300년 전 서울의 풍경화 그 자체이다. '청송당'의 그림에 그려진 큰 바위는 현재 경기상고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 정선의 그림이 진경산수임을 실감나게 한다.

제목 그대로 서울과 주변의 명승을 담은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한양의 주변 지역의 모습이 담겨 있다. 양수리 부근에서 한양으로 들어와 행주산성까지 이르는 한강과 주변의 명승지가 30여점의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림을 그린 배경도 흥미롭다. 65세인 1740년 정선은 양천현령으로 부임하면서 그의 벗 사천 이병연(李秉淵:1671~1751)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그대가 시를 지어 보내면 나는 그림을 그려 화첩(畵帖)을 만들겠다." 그리고 제안은 결국 1741년 '경교명승첩' 2권으로 완성을 보았다. 이 화첩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던지 정선은 "천금을 준다고 해도 남에게 전하지 말라(千金勿傳)"는 인장(印章)까지 남겨 두었다.

'경교명승첩'은 한강 상류의 절경을 담은 '녹운탄(綠雲灘)'과 '독백탄(獨栢灘)'에서 시작한다. '탄'은 '여울'이란 뜻으로, 현재의 양수리 부근으로 추정된다. 한강 상류에서 시작한 그림은 현재의 서울 중심으로 향한다. '압구정(狎鷗亭)'은 조선초기 세도가 한명회의 별장 주변을 담은 그림이다. 그림의 중앙부 우뚝 솟은 바위 위에 별장이 위치하고, 백사장이 길게 뻗어 나온 모습이나 돛단배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은 최고급 아파트가 들어선 현재와는 너무나 다른 평화로운 풍경들이다.

◇겸재 정선의 '독서여가'는 인왕산 자락 자택에서 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

'광진'과 '송파진', '동작진'의 그림들은 18세기에 이 지역이 포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작진'에는 18척의 많은 배가 그림에 등장하며 바다와 강을 왕래하는 쌍돛대를 단 배도 등장하고 있다. 물화(物貨)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한강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행호관어(杏湖觀漁)'에는 고깃배가 등장하는 점이 흥미롭다. '행호'는 지금의 행주산성 앞 한강으로 이 일대에 많은 고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한강의 명물이었던 웅어는 바닷물과 민물이 합류하는 곳에 살았으며, 웅어는 그 맛이 뛰어나 왕에게 진상하는 물품으로 사용되었다. '행호관어'에는 웅어가 뛰어놀았던 한강의 운치가 느껴진다.

남산의 풍광을 그린 '목멱조돈(木覓朝暾)'은 이병연이 보내온 '새벽 빛 한강에 떠오르니, 언덕들 낚싯배에 가린다. 아침마다 나와서 우뚝 앉으면, 첫 햇살 남산에 떠오른다'는 시에 맞추어 남산에 떠오른 일출의 장관을 그린 것이다. 정선과 이병연이 약속한 시화상간(詩畫相看:시와 그림을 맞바꾸며 감상함)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작품이다.

최초의 의병장 곽재우

2013.06.19 12:52

민족 국난기 맞아 '노블레스 오블리주' 온몸으로 실천

지금부터 457년 전 4월 임진왜란이라는 최대의 국난기를 맞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온몸으로 실천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최초의 의병장 곽재우였다.

#1. 최초의 의병장, 곽재우

1592년 4월 13일 일본의 함대가 부산포 앞바다를 까맣게 메우고 있었다. 이어진 조선군과의 혈전. 부산포 첨사 정발이 전사하였고, 동래부사 송상현의 장렬한 전사와 함께 동래성도 무너졌다. 왜적의 진군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전란 초기 관군의 거듭되는 패전 속에서 국왕이 국경선 지역까지 피난 가는 치욕을 맛보는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반격의 물꼬를 틔우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바로 지방 사림들이 중심이 되어 의병을 조직하여 저항한 것이다. 의병은 자발적으로 봉기한 군사들로서 전직관료, 유생, 일반 백성, 노비, 승려까지 의병에 참여하면서 조선 최대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중에서 곽재우는 가장 먼저 사재(私財)를 털어 의병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직후 의병이 전국에서 일어난 상황은 '선조수정실록'의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이때에 삼도의 신하들은 모두 인심을 잃고 있었다. 때문에 왜란이 일어난 뒤에 병기와 군량을 독촉하니 백성들은 모두 질시하여 왜적을 만나면 피신하였다. 마침내 도내의 거족(巨族)으로 명망 있는 사림과 유생 등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의(義)를 부르짖고 일어나니, 소문을 들은 자는 격동하여 원근에서 응모하였다. 크게 성취하지는 못했으나 인심을 얻었으므로 국가의 명맥은 이에 힘입어 유지되었다. 호남의 고경명, 김천일, 영남의 곽재우, 정인홍, 호서의 조헌이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선조수정실록' 선조 25년 6월 1일)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관군이 패전을 거듭하고 조정의 신하들이 인심을 잃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방의 명망 사족들은 백성들이 주축이 된 의병들을 조직하여 적극적인 저항에 나섰다. 이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곽재우(1552?1617)였다.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털어 의병을 모집했다. 당시 그의 휘하에 모인 군사가 1000여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니 평소에 그가 닦아 놓은 기반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의령에 사는 고 목사(牧使) 곽월(郭越)의 아들인 유생 곽재우는 젊어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하였고 집안이 본래 부유하였는데, 변란을 들은 뒤에는 그 재산을 다 흩어 위병을 모집하니 수하에 장사(壯士)들이 상당히 많았다. 가장 먼저 군사를 일으켜 초계의 빈 성으로 들어가 병장기와 군량을 취득하였다." ('선조실록' 선조 25년 6월 28일)

40세가 넘은 나이에 의병운동을 하는 그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거나 도적 노릇을 한다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곽재우는 민첩한 첩보활동과 신출귀몰한 게릴라전을 통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남강의 나루터 정암진(鼎巖津)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의령?삼가?합천 등을 수복하였고, 이어 현풍?창녕?영산의 왜군까지 섬멸하여 경상우도 지역을 평정하였다. 적지 않은 나이에 전 재산을 털어 항전에 나선 곽재우. 그는 위기의 시기에 사회 지도층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몸소 보여주었다. 최근 다시 회자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라는 용어가 곽재우에게 무척이나 어울려 보인다.

.

#2. 의병 정신의 뿌리, 남명 조식

의병장들은 대부분이 지역의 명망가로서, 이들을 따르는 농민과 천민이 자발적으로 합세함으로써 의병의 전투력은 향상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지역을 거점으로 게릴라전과 유격전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지리에 어두운 왜적들을 후방에서 교란시키면서 이들을 격퇴하는 데 선봉이 될 수 있었다. 의병에는 불법을 닦는 승려들도 참여하였다. 서산대사로 더 잘 알려진 휴정은 선조의 명을 받들어 팔도의 사찰에 격문을 보내 승병 결성을 독려하였다. 금강산 표훈사에 있던 휴정의 제자 사명당 유정은 휴정의 격문을 받고 다시 사방에 글을 띄워 무리를 모아 평양에 도착하였는데 거의 1000여명이나 되었다. 이들 승병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보다는 경비나 무너진 성의 보수와 같은 임무에 투입되었는데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아 여러 곳에서 이들의 지원을 받았다.

의병들은 관군과의 연합전도 전개하였다. 진주성 전투가 대표적으로 1차 진주성 전투(1592년 10월)에서는 진주목사 김시민이 지휘하는 관군과 곽재우, 최경회, 임계영의 의병 부대가 합류하여 왜적을 대패시키는 전과를 올렸으며, 2차 진주성 전투(1593년 6월) 또한 관군과 의병의 합작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적장을 껴안고 투신한 의기(義妓) 논개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8000여명의 병력으로 3만의 왜적을 물리쳤다. 이외에 서산대사, 사명당, 처영, 영규 등 승려들도 의병장이 되어 승군을 조직하여 전투에 적극 참여하여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국에서 의병의 봉기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지방의 수령과 무장들의 무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는 자발적 향토방위 조직이 사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국시로 채택된 성리학 이념의 충의(忠義) 정신 또한 한몫하였다. 의병 활동은 경상우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이 지역이 왜적의 주요 침입로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선중기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의(義)의 중요성을 강조한 남명 조식의 사상적 영향력도 큰 작용을 하였다. 곽재우, 김면, 정인홍, 조종도, 이대기 등 조식의 문하에서 최대의 의병장이 배출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식의 실천중시 사상은 이 지역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국난의 시기에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합천의 정인홍, 의령의 곽재우, 고령의 김면 등은 이 지역에서 배출한 대표적인 의병장이자 조식의 문인이었다. 곽재우는 조식의 외손녀 사위로서 조식에게 직접 병법을 배우기도 했다. 경상우도 지역 의병의 활약은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을 보호하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3. 의병장들의 씁쓸한 최후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장들의 활약은 전국 곳곳에서 조선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의병장은 활약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

하였다. 의병들의 공이 컸다는 것은 관군의 역할이 미미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권 담당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던 이들이 혹시 어수선한 시국과 전란으로 인한 불만을 틈타 모반을 꾸미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실제로 전란 중에 곳곳에서 도적이 일어나고 모반사건도 발생했는데 이들은 세력 규합을 위해 이름난 의병장의 이름을 파는 경우가 있어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의병장 김덕령은 대표적인 희생자였다. 김덕령은 전라도 광주 석저촌 출신으로, 유학을 익힌 데다 무예에도 뛰어나 '지혜는 제갈공명과 같고 용맹은 관우보다 낫다' 는 평가를 받았다. 무게가 100근이나 나가는 큰 철퇴 두 개를 허리 아래 좌우에 차고 다녀 '신장(神將)' 이라고 불렸던 그는 1593년 겨울 어머니 상중임에도 담양에서 의병 수천 명을 규합하여 의병전쟁에 뛰어들었다. 가는 곳마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그 이름만으로도 왜병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는 김덕령이었지만, 그의 활약을 견제하는 세력들의 집요한 모함을 받았다. 1596년 7월 전쟁의 와중에서 이몽학의 역모 사건이 일어났고, 관련자들의 공초(供招?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에 장수가 김덕령이며 함께 거병을 모의했다는 등의 진술이 나오면서 김덕령은 체포되었다. 결국 김덕령은 고문으로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한 후 산으로 들어간 것도 현실 정치에 대한 회의 때문이었다. 전후에 전공(戰功)은 왕을 호위했던 공신들의 손에 넘어가고 의병장에 대한 대접은 취약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정에서도 전쟁 초기 경상감사까지 죽이려고 했던 곽재우를 매우 위험한 인물로 인식하였다. 전란이 끝나자 조정에서는 은밀히 감시인을 파견하여 곽재우의 동정을 살피면서 그를 압박해 나갔다. 이에 곽재우는 관직에 뜻을 잃고 현풍의 비슬산으로 들어갔다. "고양이를 기른 것은 쥐를 잡기 위함이니, 이제 적이 이미 평정되었으니 나는 할 일이 없다. 이제 돌아갈 것이다" 는 말을 남기고 산으로 들어간 곽재우는 이곳에서 도가(道家) 사상에 심취하여 단곡(斷穀?곡식을 끊는 도가의 수련법)에 심취하면서 말년을 보냈다.

전란 후에 선조는 전쟁의 최고 공로를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군대의 공으로 돌렸고, 이 과정에서 선조와 함께 피난길에 오른 대신들이 전쟁의 최고 공로자로 보상을 받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실제 임진왜란 유공자에 대한 논공행상 과정에서 선조를 수행한 호성공신(扈聖功臣)은 86명이나 책봉한 데 비하여, 전공(戰功)이 있는 사람에게 준 선무공신(宣武功臣)은 18명에 지나지 않았다. 곽재우는 추천을 받았지만 생존해 있다는 이유로 공신에 책봉되지 못했다. 공신의 책봉 과정에서도 전쟁 영웅들에 대한 격하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위기의 순간 자신의 책무를 다했던 김덕령, 곽재우 등 전쟁 영웅들의 비참한 말로는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인물들과 그들의 후손이 별다른 평가를 받지 못했던 우리 현대사를 떠올리게도 한다.

잃어버린 문화재 '외규장각 의궤'

2013.06.19 12:51

돌아올 날 기다리는 조선 기록문화의 진수

최근 문화재 2점의 경매를 둘러싸고 중국과 프랑스 간 외교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쟁점이 된 문화재는 청나라 원명원(황실의 여름 별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제2차 아편전쟁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간 쥐머리상과 토끼머리상 등 십이지동상 2점이다. 중국 정부는 약탈문화재는 원래 소유국에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경매를 주도한 프랑스 측을 강하게 비난했고, 결국 중국인 수집상이 이 청동상을 고가에 낙찰받은 뒤 약탈문화재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1866년 프랑스가 약탈한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병인양요 때 불에 타 사라진 외규장각을 복원하기 위해 1891년 만들어진 '강화부 궁전도'.

#1. 외규장각의 설치와 어람용 의궤의 보관

규장각은 정조 이후 그 위상이 커지면서 열성조의 어제, 어필을 비롯해 국가의 주요한 행사 기록을 담은 의궤, 각종 문집 등 조선후기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을 간행하고 이를 보존해 왔다. 규장각을 중심으로 편찬활동과 서적 보관에 힘을 기울이던 정조는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지을 것을 명했다. 더욱 안전하게 왕실의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역사적 경험상 궁궐 내에 국가의 중요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1782년(정조 6년) 2월 '강화도 외규장각 공사의 완공'을 알리는 강화유수의 보고가 올라왔다. 1781년 3월 정조가 강화도에 외규장각의 기공을 명령한 지 11개월이 지난 즈음이었다. 이를 계기로 강화도 외규장각에는 어첩, 어필, 의궤 등 왕실 관련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보관했으며, 이후 외규장각은 100여년간 조선 왕실의 보물창고로 자리 잡게 됐다.

1784년에 편찬된 '규장각지(奎章閣志)'에 따르면 외규장각은 6칸 크기의 규모로 행궁의 동쪽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외규장각은 조선후기 문화운동을 선도했던 규장각의 분소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됐다. 이곳을 '규장외각' 또는 '외규장각'이라 이름을 붙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외규장각에 보관된 자료 중 현재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자료가 의궤(儀軌)이다. 의궤는 의식과 궤범을 뜻하는 말로, 조선시대 왕실 행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남긴 국가기록물이다. 의궤는 왕이 친히 열람하는 어람용 의궤와 사고에서의 보관을 위해 제작하는 분상용 의궤가 있었다. 어람용 의궤는 더욱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정조시대 이후 강화도의 외규장각에 보관했다.

왕에게 직접 바치기 위해 제작된 만큼 어람용 의궤는 표지와 종이 질, 선명한 글씨 등 문화재로서도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어람용 의궤는 종이로 고급 초주지(草注紙)를 사용하고 사자관(寫字官)이 해서체(楷書體)로 정성을 들여 글씨를 쓴 다음 붉은 선을 둘러 왕실의 위엄을 더했다. 어람용은 책을 엮는 장정 또한 철저했다. 놋쇠 물림(경첩)으로 묶었으며, 원환, 5개의 국화동(菊花童) 등을 사용하여 장정했다. 표지는 비단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서 왕실의 품격을 한껏 높였다. 분상용 의궤에는 초주지보다 질이 떨어지는 저주지(楮注紙)가 사용되었으며, 검은 선을 두르고 표지는 삼베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장정에는 정철(正鐵)과 박을정(朴乙丁) 3개가 사용됐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고려궁터에 복원한 외규장각의 모습.

#2. 1866년, 외규장각 의궤를 약탈당하다

외규장각의 책 중에서도 프랑스 군인들의 눈을 특히 자극한 것은 의궤였다. 채색 비단 장정에 선명한 그림으로 장식돼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이다.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을 방화하는 과정에서도 의궤는 불태우지 않았다. 화려하고 품격이 있는 의궤의 장정과 비단표지, 그리고 의궤에 그려진 채색그림이 지닌 가치와 예술성이 벽안의 눈에 번쩍 띄었기 때문일 것이다. 방화된 대부분의 책과 달리 300여책의 의궤는 프랑스군의 퇴각과 함께 약탈당했다. 당시 화염에 휩싸였던 외규장각은 아직도 조선왕실의 위용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에는 외규장각에서 유출된 의궤 297책이 보관돼 있다.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의궤의 현지 실제 조사, 반환 협상이 꾸준히 추진됐으며, 최근에는 외규장각 의궤의 디지털화 사업 등을 합의해 2008년 유일본 의궤 30책과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 반차도 50면, 원래의 비단 표지를 한 의궤의 앞뒤 표지 등에 대한 디지털화가 완료되기도 했다.

외규장각에 보관돼 있다가 방화로 사라진 의궤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광해군대 과학과 천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흠경각영건의궤'와 '보루각수개의궤'를 들 수 있다. 이들 의궤는 현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광해군대에 과학기기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의궤는 국가기록물인 만큼 불상이나 미술작품 등 감상을 주로 하는 물품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매우 필수적인 자료이다. 특히 계기적으로 조선 왕실의 행사 변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소중하다. 또한 어람용 의궤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표지나 장정이 뛰어나 의궤 제작의 형태를 연구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에 보관돼 있는 의궤와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의궤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이처럼 의궤가 한국에 있는 경우와 타국에 있는 경우,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공식 국가기록물이 타국에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겠는가?

◇프랑스군이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문화재 중 하나인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 반차도. 병인양요 당시 외규장각에 보관된 의궤 등을 발견한 프랑스군은 "우리는 이 책들이 뛰어난 양피지로 만든 것 같은 종이와 수많은 책을 경첩과 걸쇠와 구리로 된 쇠붙이로 장식한 제본기술을 보고 감탄했다. 이 책들은 비단천으로 싸여 있고 모두 붉은색과 금빛으로 칠한 나무상자 속에 들어 있었다. 잘 정리된 왕실도서였다" 고 평가한 기록을 남겼다.

#3. 파리에서 만난 어람용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의궤 중 필자가 가장 보고싶었던 의궤는 바로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였다. 필자가 규장각에서 처음 일하면서 목록과 색인 작업을 했던 의궤였고, 2001년에는 이 의궤를 바탕으로 '66세의 영조, 15세의 신부를 맞이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낼 만큼 이 의궤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 바로 이 의궤가 파리국립도서관 의궤 목록에 수록돼 있었으니, 여러 의궤 중에서도 이 의궤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분됐다.

총 5일간 의궤를 조사하기로 예정된 날 중 3일째 되는 날에 바로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가 프랑스 측 사서에 의해 필자에게 전달됐다. 묘한 흥분으로 책을 받았으나 먼저 실망이 찾아왔다. 표지가 모두 개정됐던 것이다. 조선시대 초록 비단 표지와 국화동 5개로 장정된 화려한 의궤의 표지는 온 데 간 데가 없고, 후대에 개장된 형태의 표지로 의궤는 다가왔다.

실망도 잠시였다. 의궤의 속을 한 장 한 장 펼치자 품위와 격이 느껴지는 종이와 정성들여 쓴 글씨,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으로 수놓은 화려

한 반차도는 어람용 의궤의 진가를 한눈에 보는 듯했다.

특히 규장각에 소장된 분상본 의궤의 반차도 그림의 상태를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어람용 반차도의 정밀함, 가마나 의장물의 섬세한 표시라든가, 인물의 눈매와 수염까지 뚜렷한 모습에 놀랐다. 이들 의궤가 국내의 분상용 의궤와 함께 비교 연구된다면 훨씬 큰 학술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섰다.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를 비롯한 1866년 이전의 어람용 의궤는 현재 대부분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현재 의궤 반환을 위한 노력들이 여러 경로로 진행중이지만, 하루빨리 조선의 최고 명품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의궤 반환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프랑스 정부 사이에는 몇 차례의 협상이 있었지만 명쾌한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재를 돌려받는 일에는 양국 간의 신뢰와 합의,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심, 국제관계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의궤와 같은 국가기록물의 가치를 알리는 연구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많은 연구자가 의궤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연구를 수행해갈 때 의궤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질 것이고, 의궤가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국내외 인식도 확산할 것으로 여겨진다.

의궤에 대한 연구의 확산과 대중적 보급은 반환 협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같이 문화재를 약탈당한 국가 간의 연대 협력도 필요하다. 외규장각 의궤 297책을 보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곳은 우리 대한민국임이 분명하다. 의궤를 통해 조선시대 기록문화와 왕실문화의 진수들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2002년 1월 필자는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을 찾았다. 병인양요 때 약탈 당해 파리국립도관에 소장된 의궤의 반환을 둘러싸고 이제까지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여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결국 양국 간에는 한국 측의 의궤 전문가가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의궤의 실물을 직접 조사하는 데 합의했고, 필자는 한국 측 실사단의 일원으로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의궤를 직접 조사했다.

정조시대 이후 외규장각은 조선시대 국가기록물을 보관하는 주요한 공간이 됐다. 그러나 외규장각은 정조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의 침공으로 철저히 파괴됐다. 강화도에 주둔했던 프랑스군은 조선군의 강렬한 저항으로 퇴각하면서 외규장각에 보관돼던 왕실의 기록물들을 파괴하였다. 당시 외규장각에는 약 6000점의 자료가 보관돼 있었다. 1858년에 작성된 '강화도외규장각형지안'의 '규9318'에는 당시까지 보관하고 있던 의궤류 등 서책들의 목록이 모두 기록돼 있다.

조선왕조는 19세기 후반 이후 국가기록물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큰 위기를 맞았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세력의 조선 침략으로 이제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돼 오던 조선왕조의 국가기록물 상당수가 훼손된 것이다. 조선왕실의 기록물 보존과 관리에서 그 영광과 수난의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강화도에 설치한 외규장각이다. 조선의 22대왕 정조가 1776년 왕위에 올라 제일 먼저 한 일은 규장각의 설립이었다.

조선팔도에 퍼진 상평통보

2013.06.19 12:49

숙종 상평통보 주조 전국에 유통… 광산 개발 · 상업 발달 촉진

우리 역사에서는 수차례 화폐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조선전기까지는 실제 유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로서 본격적으로 기능을 한 것이 바로 상평통보(常平通寶)이다. 조선후기 숙종 때 만들어져, 조선시대 화폐의 대명사처럼 된 상평통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1 조선 후기 화폐 주조의 배경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지폐인 저화(楮貨)와 세종대에 만들어진 조선통보, 세조대에 유사시에는 화살촉으로 사용하고 평화시에는 화폐로 사용하는 유엽전(柳葉錢)을 법화로 주조해 유통시켰다.

하지만 대체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 · 경제적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쌀이나 포(布)가 화폐의 주요 기능을 하고, 저화나 동전은 화폐로서 큰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경국대전' 에는 관리의 녹봉 규정에 쌀과 포와 함께 저화를 지급하는 규정까지 정했지만, 저화가 화폐로서 주요한 기능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부터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찾아왔다. 무엇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전란 이후에 찾아온 조선의 사회 · 경제적 변화들이 화폐 유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 17세기 전반의 조선사회에서는 전란의 후유증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가 재건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정책이 전개되었다. 대동법 · 호패법 · 호포법 · 양역변통 · 화폐 주조론 등이 이러한 사회경제정책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농업 중심의 조선사회가 점차 상공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적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거듭되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서도 가뭄이나 홍수에 취약한 산업인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의 육성이 요구되었다.

이처럼 17세기의 조선사회는 자연적 ·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 재건의 기반을 마련해가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여, 새로운 사회정책과 함께 관료 · 학자들의 다양한 경세론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에서 모형을 통해 설명한 조선시대 화폐 주조 과정. '엽전' 이란 용어는 동전이 주전틀에 나뭇잎처럼 매달려 있던 것에서 유래했다.

화폐의 주조와 유통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출현하였다. 17세기 화폐의 주조와 유통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로는 김신국 · 김기종 · 김육 등의 경제관료 학자들과 유형원과 같은 실학자를 들 수 있다. 화폐 유통은 전란과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부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업경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중상적인 방법으로 국부와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었다. 17세기 전반 선조대에는 이덕형 등에 의해 동전 주조 논의가 전개되었고, 17세기 중엽 인조 · 효종대에는 김신국 · 김육 등에 의해 화폐 유통 논의가 활발해졌다.

현종대에는 전국을 휩쓴 자연재해와 대기근 때문에 화폐 유통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갖지 못하였으나, 17세기 후반 숙종대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상을 반영하면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화폐의 유통에 대해서는 그것이 유발하는 폐단에 대한 논의도 아울러 진행되었지만 시대적 흐름은 화폐의 유통에 있었다.

#2. 조선시대 1푼은 오늘날 700원, 1냥은 7만원

1678년(숙종 4) 국왕 숙종은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가 모인 자리에서 화폐의 주조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화폐는 천하에 통행(通行)하는 재화(財貨)인데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누차 시행하려고 했으나 행해지지 못했던 것은 동전이 토산(土産)이 아니라는 점과 중국과는 달리 화폐를 유통시키는 분위기가 컸음이 지적되었다.

이어 허적 · 권대운 같은 대신들이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폐의 시행을 적극 건의하였고, 숙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재차 구했다. 참석한 신하 대부분이 화폐 유통의 필요성에 공감하자 드디어 숙종은 호조, 상평청, 진휼청, 어영청, 사복시, 훈련도감 등의 기관에 명하여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돈 400문(文)을 은 1냥의 값으로 정하여 시중(市中)에 유통하게 하였다. 따라서 400문이 은 1냥의 가치를 가지게 했으니 은 한 냥은 동전(상평통보)의 4배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셈이었다. 오늘날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만 화폐를 만들지만, 조선시대에는 여러 관청에서 화폐를 주조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상평통보 ‘는 나무처럼 생긴 주전틀에서 동전을 만들어 떼어내는 방식을 취했다. 요즈음도 흔히 쓰이고 있는 ‘엽전’이라는 용어는 동전이 주전틀에 나뭇잎처럼 매달려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상평통보가 주조됨으로써 조선사회는 본격적인 화폐 유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화폐 단위인 1문은 1푼이라고도 했으며, 10푼이 1전, 10전이 1냥이 되었다. 10냥은 1관으로서 관이 최고 화폐 단위였다.

조선후기 1냥의 구매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 1냥의 현재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쓰이는 물품을 통해 비교해 보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은 가장 적합한 비교 품목이다. 조선시대에는 상정가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한 공식적인 물품 가격이 있는데 쌀 1섬은 5냥이었다. 조선시대의 쌀 1섬은 지금의 쌀 144㎏ 정도가 된다. 2009년 현재 쌀 20㎏의 소매가격이 대략 5만원 정도이니 조선시대의 1섬은 현재의 화폐로 36만원 정도가 된다. 따라서 조선시대 1냥은 7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소의 화폐 단위인 1푼은 지금의 700원 정도의 가치를 띠고 있는 셈이다. 요즈음도 동냥하는 사람들이 ‘한 푼 줍쇼’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또한 조선의 화폐 단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동냥하는 사람이 ‘한 냥 줍쇼’라고 한다면 이것은 동냥이 아니라 거의 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상평통보를 주조한 호조를 묘사한 조선시대 그림.

#3.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된 까닭은?

상평통보의 유통 초기에 백성들은 조그만 동전으로 쌀이나 옷을 과연 살 수 있을지를 두려워하여 그 유통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전을 가져오는 자에게 직접 명목 가치에 해당하는 현물을 바꾸어 주는가 하면, 중앙 관리를 각 지방에 파견하여 동전 사용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가 직영하는 시범 주점과 음식점을 설치하여 화폐 유통의 편리함을 널리 홍보했다. 세금을 화폐로 받는가 하면, 한성부 · 의금부 등에서는 죄인의 보석금도 현물 대신에 동전으로 받으면서 화폐 유통을 촉진시켜 나갔다.

그러나 무엇보다 숙종대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게 된 배경에는 국가의 화폐 유통에 대한 의지와 함께 조선후기 농업 사회가 서서히 상공업 사회로 전환하는 시대적 상황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조선후기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은 이전까지 화폐의 기능을 하였던 쌀이나 옷감보다는 그 편리성 때문에 금속 화폐의 필요성을 대두시켰으며, 점차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는 조세의 금납제(金納制)가 시행됨으로써 화폐의 유통은 보다 촉진되었다. 마치 오늘날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훨씬 편리한 것과 유사한 기능을 한 것이다. 한편 국가의 입장에서도 농업 경제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국가재정을 위한 재원 확보 정책으로 상업과 수공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화폐의 유통은 동전의 재료가 되는 광산 개발과 상업의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그런데 18세기에 이르면 화폐를 유통하지 않고 집에 보관만 하면서 화폐의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전황(錢荒)이라 부르는 이 현상으로 화폐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동전을 아무리 많이 주조해도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화폐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양반 관료나 지주,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축적하였기 때문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8세기 실학자 이익이 폐전론을 주장했던 것도, 화폐 유통이 가난한 백성에게는 오히려 폐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4. 화폐에 도안된 인물과 그림 찾아보기

5만원권의 주인공 신사임당이 등장하기까지 우리나라 지폐에 그려진 인물들은 모두 이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순신, 이황, 이이를 비롯하여 세종대왕까지 모두 이씨였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해방 이후 만들어진 지폐에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그려져 있었고, 1970년대까지 사용된 500원 지폐의 주인공은 이순신이었다. 또 하나 현재 우리나라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순신을 제외하고 모두 학문으로 명망을 떨친 인물이라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화폐에 그려진 인물들은 대부분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로 세종대왕, 이이, 이황, 신사임당 등이 우리나라 지폐에 그려진 것에서 학문을 중시하는 전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동전이나 지폐의 그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동전의 앞면은 액면가가 표시되어 있고 10원짜리에는 다보탑, 50원짜리에는 벼이삭, 100원짜리에는 이순신, 500원짜리에는 학을 그려 넣었다.

또한 지폐에는 그 인물과 연관되는 장소나 물품이 그려져 있다. 1000원권 구권에는 이황을 배향한 도산서원, 신권에는 성균관 명륜당 그림, 5000원권에는 이이가 태어난 외가 오죽헌과 어머니 신사임당의 초충도, 1만원권은 앞면에 세종이 거처했던 용상 뒤의 일월오봉병, 뒷면에는 세종이 발명한 혼천의와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져 있다.

1만원권 구권에는 앞면에 측우기, 뒷면에는 경복궁의 경회루가 그려져 있었다. 이처럼 화폐의 그림들은 주인공과 깊은 연고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화폐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압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기회가 되면 세계 여러 나라 화폐의 그림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소 이야기

2013.06.19 12:49

불교 영향 살생 금지… 조선왕실 제사 · 잔치때만 식용

牛1. 고대 · 중세 농업사회 생산력의 으뜸

◇조선 전기 최고의 소 그림 대가였던 김식의 '고목우도'. 김식의 소 그림은 음영으로 표현된 소의 퉁퉁한 몸이나 X자형의 주둥이, 달무리진 듯 선량한 눈매, 평화롭고 따뜻한 그림의 분위기를 특징으로 한다.

소가 문헌에 기록된 것은 고대의 역사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에서도 소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희생(犧牲)으로부터 쓰였음이 '맹자' 등의 유가 경전에 등장한다. 중국 삼국시대 우리의 풍속을 기록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부여' 부분에 육축(六畜)을 기르고, 마가 · 우가 · 저가 · 구가 등 동물의 이름을 관직명에 사용하였음이 나타난다. 농경사회인 만큼 관직명에 소 등의 가축명을 쓸 정도로 가축이 중시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같은 사서에 "군사(軍事)가 있을 때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발굽의 상태를 관찰하여 그것이 벌어져 있으면 흉한 징조이고 합쳐져 있으면 길한 징조라고 여겼다"는 기록은 소가 희생용과 점술용으로 이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4세기 신라 눌지왕 때(438년) 백성에게 소로 수레를 끄는 법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나와서 우차(牛車)가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경주 98호 고분에서는 진흙으로 만든 우차가 출토되기도 했다. 6세기 지증왕 때(502년)는 우경(牛耕)이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인력으로 하던 농사를 소가 대체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이것은 결국 신라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불교의 영향과 화랑도의 세속오계 중 '살생유택'에서도 보이듯 살생을 금지하는 사회 풍조 때문에 소를 식용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법흥왕 16년(529)에는 '하령금살생(下令禁殺生)', 즉 왕명을 내려 살생을 금하기도 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소가 자주 등장한다. 안악 3호분 대행렬도에는 소가 수레를 끌고 2명의 수레꾼들이 소를 몰고 가는 그림이 있으며, 쌍영총의 '거마행렬도'에는 황소와 황소 옆의 젊은 차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외에 무용총, 평양 부근의 덕흥리 벽화에도 소의 그림이 보여서 고구려에서도 소는 친근한 동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야의 역사와 소의 인연은 '삼국유사'의 '수로부인 조'에 "소를 끌고 가던 견우노옹(牽牛老翁)이 벼랑 위의 철쭉 꽃을 꺾어다가 수로 부인에게 바쳤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삼국시대를 이어 소가 운반용, 농사용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고려의 국가 이념으로 채택된 불교의 영향으로 가축 살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2세기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의 풍속을 기록한 '고려도경'은 "그 정치가 심히 어질고 불교를 좋아하여 살생을 경계했다. 고로 국왕이나 높은 신하가 아니면 양과 돼지 고기를 먹지 않았다. 또한 도살하는 방법도 능숙하지 않았다(其政 甚仁好佛戒殺 故非國王相臣 不食羊豕 亦不善屠宰)"고 기록하고 있다.

牛2. 조선시대 소 식용은 엄격히 제한

◇김홍도의 '쌍겨리'. 쌍멍에에 소 두 마리를 지우는 쟁기를 쌍겨리라고 하는데 화전 같은 경사지나 단단한 땅을 갈 때 주로 이용된 방법이다.

조선시대에는 소의 식용이 일부 이뤄지기는 했으나, 농사를 짓는 대표적인 가축이었기 때문에 식용을 위한 소의 양육은 매우 제한되었다.

다만 왕실의 제사나 잔치 등 특수한 경우에 소의 식용이 이루어졌다. 1398년(태조 7)의 기록에는 "제주도 목장의 우마적(牛馬籍)을 조정에 바쳤다" 는 기록으로 보아 각 목장에 우적(소의 호적)과 마적을 비치하고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소가 왕실에서 식용으로 쓰인 주요 사례는 1795년 정조가 화성에 행차하여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회갑 잔치를 벌인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시 회갑연 때 혜경궁에게 바친 70종의 음식 중에는 완자탕 1그릇(쇠고기, 양, 돼지고기 약 4냥) 국수 1그릇(쇠고기 안심육 3냥), 저포탕(渚脯蕩) 1그릇(쇠고기 1근), 홍합탕(쇠고기 1근), 화양자(花陽炙, 적 · 쇠고기 안심육 7근), 꿩찜 · 숭어찜 · 어린돼지찜(쇠고기 1근), 해삼찜(쇠고기 3근), 각종 만두(쇠고기 각 2근) 등 쇠고기가 들어간 재료가 적지 않았다.

이외에 '조선왕조실록' 에는 소를 함부로 잡아먹지 말 것에 대한 기록, 큰 홍수 때 소나 돼지 등 가축의 피해 상황까지 기록하고 있다. 우역(牛疫)이라 하여 소의 전염병에 대한 대책에도 골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인조실록' 인조 15년(1637) 8월 8일의 기록을 보자.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소의 역병 우환은 팔도가 같아서 내년 농사가 매우 염려됩니다. 제주에는 소가 가장 많아서 그 값이 매우 싸다 하니, 본도의 감사를 시켜 공사의 소 숫자와 값이 얼마인지를 상세히 묻고 수송하는 방책도 생각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잠시 동안 소 역병이 그치기를 기다리라' 하였다."

◇경북 청도의 소싸움.

우역은 시베리아와 몽골 지방을 경유해서 들어온 소 전염병으로 3~4년 주기로 큰 피해를 주었다. 우역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인종 20년(1142년)에 우역과 마역을 기록한 것이며, '조선왕조실록' 에도 소의 역병은 자주 나타난다. 최근에 제기된 광우병 공포까지 고려하면 소는 인간에게 가장 친근하면서도 가끔은 경계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 '만물문' '우이(牛耳)' 에서 귀를 통해서 소의 온순한 성질을 기록하고 있다.

"육축(六畜) 따위를 상고해 보니, 말은 화(火)에 속한 까닭에 털빛이 붉은 것이 많고, 소는 토(土)에 속한 까닭에 털빛이 누른 것이 많으며, 돼지는 수(水)에 속한 까닭에 털빛이 검은 것이 많다. 이는 가장 분별하기 쉬운 까닭에 하루 12시간 중에서 말은 오(午)에 소는 축(丑)에 돼지는 해(亥)에 속하게 되었다. 또 그 생긴 모습을 보면 말의 귀는 위를 가리키고, 소의 귀는 가로 바르게 되었으며, 돼지의 귀는 아래로 처졌으니, 이는 모두 그 성질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 … 토(土)의 성질은 편편한 까닭에 그 귀가 위로 치켜들지도 아래로 처지지도 않고 가로 바르게 되었다. 이는 제대로 주장하는 것이 없고 성질이 순해서 여럿을 따르기 때문에 제후들이 모여서 맹세할 때에 반드시 소의 피를 갖고 서로 마신다는 것이다."

牛3. 성실함과 온순함의 대명사

◇강렬한 붉은색 노을을 배경 삼아 과감하고 단순한 필법으로 그려낸 이중섭의 1953년 작 '황소' 는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거친 한국 정서를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소에 대해서는 가족을 뜻하는 구(口)를 붙여 '생구(生口)' 라 부른 것에서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고 가족의 일환으로 여겼던 의식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황희 정승과 소에 관한 일화가 유명하다. 밭을 가는 농부에게 황희가 어느 소가 일을 잘하느냐고 묻자, 농부는 "미물일

지라도 그 마음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으니 한쪽 편을 들 수 없다" 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황희가 이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소의 마음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한 내용으로 마치 지금의 영화 '워낭소리' 와도 닮아 있다.

조선시대 충신 · 효자 열녀의 행적을 담은 '삼강행실도' 에는 '의우도(義牛圖)' 라는 그림으로 소의 의로운 행적을 전하고 있으며, 경상도에서는 호랑이와 맞서 싸운 의우(義牛) 이야기가 유행하였다. 상주군 낙동면에서 호랑이가 출몰하여 권씨라는 농부가 위기에 처하자 기르던 소가 호랑이와 맞서 싸우다 주인을 구하다가 죽은 이야기이다. 이 외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선산지도에는 '의우총(義牛塚)' 을 크게 표시하여 의로운 소의 기억을 영원하게 하였다.

소와 민속에 얽힌 이야기도 많이 있다. 일 년 중 정월 들어 첫 번째 맞는 축일(丑日) 즉 '소날' 이라 하여 이 날에는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여물을 잘 먹였다고 한다. 소를 사거나(納牛日) 외양을 짓거나 할 때에도 반드시 길일(吉日)을 정했다고 한다.

소와 관련된 대표적인 민속놀이로는 양주의 소놀이굿과 청도와 진주의 소싸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소싸움은 지금까지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하고 있다. 소와의 끈끈한 인연 덕분인지 소에 관한 그림도 많이 전한다. 조선시대의 화가 김식은 '고목우도(枯木牛圖)' 와 '모자섭우도(母子涉牛圖)' 를 남겼으며, 이경윤 역시 소 그림을 잘 그렸다.

불교에서는 선을 닦아 마음을 수련하는 순서를 표시한 그림인 '십우도(十牛圖)' 나 '심우도(尋牛圖)' 에서 사람의 진면목을 소에 비유하였다. 고려의 승려 지눌의 호 목우자(牧牛子) 역시 소와의 인연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소를 잘 그린 화가로는 이중섭(1916~1956)이 있다. 이중섭은 황소, 흰 소, 움직이는 흰 소, 소와 어린이, 싸우는 소 등 다양한 소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소귀에 경 읽기' '새끼 많이 둔 소가 길마 벗을 날 없다' '소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는다' 등 소에 관한 재미있는 속담도 많은데, 대개 소의 성실함과 소중함, 미련함 등을 비유한 것들이다.

서얼들의 신분상승 운동

2013.06.19 12:48

'呼父呼兄' 을 원했던 者 역사의 주역으로 서다

◇MBC 드라마 '이산' 의 한 장면. 정조는 서얼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 서얼 출신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발탁해 학문연구와 정책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케 했다.

#1. 서얼, 그 차별의 역사

서얼 차별의 문제가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였다. 그렇다고 조선시대 시작부터 그러하지는 않았다. 15세기까지만 해도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성리학 이념이 조선 사회에 강하게 정착되면서 이념과 명분이 강화됐고 그 과정에서 양반과 상민, 남자와 여자,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심해졌다.

양반이 첩을 두는 것을 관행으로 인정하는 조선사회의 구조 속에서 서얼들의 출현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양반들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얼 차별을 되레 강화하였다. 의식이 있는 서얼들은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되었다. 한 개인으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서로 간에 힘을 북돋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16세기에 들어와 서얼들은 기술직 중인, 관청 서리, 지방 향리와 함께 신분적으로 중인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홍길동은 소설 속 서얼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서얼 출신으로 역사의 현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적지 않았다. 서얼 출신으로 조선 전기에 명성을 떨친 인물은 유자광이다. 남이 장군의 역모 사실을 고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점과 1498년 무오사화의 실질 주모자로 사림파 선비들에게 큰 화를 입힌 장본인이라는 점 때문에 유자광은 간신의 전형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그가 지닌 출중한 자질은 서얼이라는 신분적 굴레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진출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외에 '패관잡기' 의 저자 어숙권, 초서와 문장으로 유명한 양사언, 양대박 등이 조선 전기에 이름을 떨친 서얼이었다. 조선 중기 서얼들이 조직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사건은 바로 '홍길동전' 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1613년 일곱 명의 서얼들이 주도한 은상 살해 사건이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도 서얼들의 신분상승 운동은 계속되었다. 서얼들은 관직에 차별 없이 등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서얼허통(庶孼許通:서얼들도 관직에 등용되도록 요구한 것)의 상소문을 계속해서 올렸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2. 서얼의 아픔을 형상화한 '홍길동전'

◇허균이 지은 한글 소설 '홍길동전' 의 표지와 본문. 허균은 1613년 박응서를 비롯한 7명의 서자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바꿔보고자 역모를 꾀했던 '칠서지옥' 에서 '홍길동전' 의 모티프를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소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서얼이 바로 홍길동이다.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 에서 서얼의 아픔이 가장 부각된 대목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설움을 표현한 아래의 대목이다.

"소인이 평생 서러운 바는 대감 정기로 당당한 남자가 되어서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가 깊거늘 그 부친을 부친이라 하지 못하옵고 그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까?"

이처럼 가족에게 호칭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서얼 차별의 현실은 가족의 범위를 떠나 사회에서 보다 큰 제약으로 다가섰다. 홍길동은 결국 이러한 현실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도적의 길로 들어선다. 홍길동이 연산군 시대에 실존했던 도적이라는 점과 허균이 크게 영향을 받은 소설 '수호전' 의 주인공이 도적인 점을 감안하면 서얼 출신 주인공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도적으로 변신시킨 점은 그만큼 서얼의 출구가 막혔던 사회적 상황을 보여준다.

도적의 우두머리가 된 홍길동은 부정축재로 재산을 모은 해인사나, 탐관오리가 수령으로 있는 지역 등을 집중 약탈하는 의적(義賊)이 된다. 그들 무리의 이름은 백성들을 살려준다는 뜻으로 '활빈당' 이라 하였다. 홍길동은 고통을 받는 민중의 편에 서서 탐관오리를 통쾌하게 물리침으로써 서얼이나 민중들에게 대리만족을 가져다준 것이다. '홍길동전' 은 작자 허균의 경험이 반영된 소설이기도 하다. 주인공 홍길동이 서얼로 설정된 것은 다분히 그의 삶의 체험과 관련이 있다. 허균은 아버지 허엽이 판서직을 역임하고 형, 누나 모두 학문으로 명망을 떨친 명문가의 기대주였지만, 스승인 이달이 서얼이라는 점 때문에 차별을 받고, 서양갑이나 심우영 등과 같이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단지 서얼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절하는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는 않았다.

'홍길동전' 의 구체적인 모델은 1613년(광해군 5)에 있었던 칠서지옥(七庶之獄)에서 찾을 수 있다. '칠서' 란 '일곱 명의 서자' 를 가리키는 것으로 칠서들이 현실개혁에 뜻을 품기 시작한 직접적인 동기는 1608년에 제기한 그들의 서얼허통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있었다. 1613년 봄 서인의 영수 박순의 서자 박응서를 위시하여 서양갑, 심우영, 이경준, 박치인, 박치의, 허홍인 등 7명의 서자들이 조령에서 은상을 살해하고 은 700냥을 강탈한 죄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국문 도중 이들이 무인들과 결탁해 역모를 꾸몄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서얼이라는 신분상의 하자 때문에 차별받는 현실을 바꿔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강변칠우 또는 죽림칠현을 칭하면서 서로 간에 교분을 형성하였고, 중앙 관리들과 교유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치권에 반영하려 하였다. 허균은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관리 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3. 허균, 서얼의 가능성을 발견하다

◇강원도 강릉 초당에 복원된 허균 생가. 허균은 '홍길동전' 에서 조선시대 불합리한 적서 제도의 모순을 폭로하고 서얼들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과 희망을 대변했다.

허균은 서얼의 처지에 크게 공감했으며 나아가 서얼들이야말로 자신이 추구하는 개혁 사상의 동반자임을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허균은 '유재론(遺才論)' 에서 서얼의 능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고금(古今)이 멀고 세상이 넓지만 서얼 출신이라 하여 그 현명함을 버리고 어머니가 개가했다고 하여 그 재주를 쓰지 않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아니하여 어머니가 천한 출신이고 개가(改嫁)한 자손은 모두 관직에 나아갈 수 없다. 나라가 양 오랑캐에 끼여 있어 모든 인재가 국가의 쓰임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야 할 판에 도리어 인재등용을 막고 ‘인재가 없다. 인재가 없다’ 고 하니, 이것이 남쪽으로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허균은 기본적으로 서얼의 차별이 나라에 원망하는 백성을 양산하게 하여 불안의 요인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한 부인이 원한을 품는 것도 걱정스러운데 원망하는 남정과 홀어미가 나라 안에 반이 넘으니 화평한 기운을 이루기는 또한 어렵다. (…) 하늘이 낳아주는 것을 사람이 버리니 이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늘을 거스르면서 하늘에 기도하여 목숨을 영원히 한 자는 없다.”

허균은 ‘유재론’ 에서 서출이라 하여 능력이 있는 인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점임을 지적하고, 서얼 차별의 문제점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1613년에 일어난 7명 서얼의 옥사 사건은 서얼들의 조선 정부에 대한 최초의 조직적 저항운동이었고 결국 ‘홍길동전’ 의 집필로 이어졌다. 허균은 ‘홍길동전’ 의 저술로 사회제도의 모순을 폭로하면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서얼들의 꿈과 희망을 대변해 주었던 것이다.

#4. 서얼들의 신분상승 운동

◇박제가, 유득공 등이 규장각 검서관 시절 펴낸 ‘무예도보통지’ 의 내용을 한 무예연구단체가 재현 하고 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서얼들의 신분상승 운동은 보다 적극적이었다. 국왕들 역시 서얼 문제를 피해가지 않았다. 서얼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국왕은 영조다. 영조는 어머니가 궁중의 무수리 출신으로, 서얼로서 왕이 된 전형적 인물이었다. 영조는 이러한 신분상 콤플렉스 때문인지 서얼에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1772년(영조 48) 통청윤음(通淸綸音)을 내려 서얼을 중요 관직에 등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서얼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으로 부를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법률로 다스리도록 한다는 조치를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서얼의 차별을 없애고자 했다.

영조의 서얼허통 정책은 정조대에 그 결실을 보게 된다. 1777년(정조 1) 마침내 ‘서얼허통절목(庶孼許通節目)’ 이 반포되어 서얼들의 관직 진출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학자 군주 정조는 특히 서얼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조가 개혁정치의 산실로 만든 규장각에는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등 서얼 출신의 학자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발탁되어 학문연구와 정책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신의 운명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던 서얼들은 조선중기 이후 신분사회의 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그것은 시대의 대세이자 역사의 흐름이었다. 보통의 양반들처럼 주요 관직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통청(通淸) 운동을 전개하고, 정조 때에 서얼의 관직 등용을 허용하는 '서얼허통절목' 이 만들어지면서 서얼들의 노력은 일부 결실을 맺었다. 조선후기 서얼들의 이러한 노력은 1859년 대구의 달서정사에서 간행된 '규사(葵史)' 에서도 확인된다. 해바라기를 뜻하는 '규(葵)' 자를 넣어 해를 향한 해바라기처럼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변함없음을 약속한 서얼들의 전기 '규사' 는 이제 서얼도 역사의 당당한 주인공임을 만천하에 공포한 기록이었다.

차별의 벽을 뚫고 마침내 최강국의 대통령 오바마를 배출한 미국 흑인의 성장과, 양반사회의 강고한 신분 차별의 벽을 뚫었던 조선시대 서얼의 모습에서 역사 속 소수자의 성장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옛사람들의 새해 풍속도

2013.06.19 12:02

조상 은덕 기리며 무병장수 기원 '민족의 잔치'

조선시대에도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의 의미는 컸다. 왕실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왕이 주관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고, 신하들은 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문과 함께 특산물들을 바쳤다. 왕은 신하들에게 세화(歲畵)라는 그림을 하사했고, 새해를 축하하는 시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민간에서는 세배를 하고 설빔을 입고 떡국을 먹는 풍습이 유행하였다. 16세기 학자 유희춘이 쓴 '미암일기(眉巖日記)'를 비롯하여 정조 때 학자 홍경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819년 김매순이 한양의 연중 행사를 기록한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조선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쓴 '경도잡지(京都雜誌)' 등의 책에는 새해 풍속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책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왕실과 민간에서 맞이한 새해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 본다.

1. 왕실의 새해맞이

새해가 되면 조선 왕실도 분주했다. 각종 의식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 왕실에서 행해지는 가장 큰 공식 행사는 정조(正朝) 의식이다. 요즈음으로 치면 신년 하례식이었다. 정조(음력 1월1일)를 맞아 왕과 문무백관의 신하들이 한데 모여 신년을 축하하는 조하(朝賀) 의식을 행하였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중심이 되어 관리들을 거느리고 왕께 새해 문안을 드리고 새해를 축하하는 전문(箋文)과 표리(表裏 · 옷감의 겉과 속)를 올렸다.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왕 정조는 새해가 되면 농사를 권장하는 교서를 친히 지어 8도관찰사에게 내렸다고 한다.

지방 관리들은 축하 전문과 함께 지방의 특산물을 올렸다. 왕은 신하들에게 회례연(會禮宴)을 베풀어 음식과 어주(御酒), 꽃 등을 하사하면서 지난해의 노고를 치하했다. 동시에 왕비전인 중궁전에서도 왕실 여성을 위한 잔치가 따로 베풀어졌다. 승정원에서는 미리 선정한 시종신(侍從臣 ·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 승정원,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예문관 소속의 관리)과 당하의 문관들로 하여금 연상시(延祥詩)라는 신년시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이때 홍문관이나 규장각 제학에게 운(韻)자를 내게 하여 오언절구나 칠언율시 등을 짓게 했다. 당선되는 시는 궁궐 안 전각 기둥이나 문설주에 붙여 많은 사람이 보게 하였고, 새해를 함께 축하했다.

조정 관리나 왕실 및 관리의 부인 중에서 70세가 넘는 사람에게는 새해에 쌀, 생선, 소금 등을 하사했다. 관리로서 80세가 됐거나 백성으로서 90세가 되면 한 등급을 올려주고, 100세가 되면 한 품계를 올려 주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장수 노인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 것이다.

화원들이 소속된 도화서에서는 수성(壽星 · 인간의 장수를 맡고 있다는 신) 및 선녀와 직일신장(直日神將 · 하루의 날을 담당한 신) 그림을 그려 왕에게 올리고 서로 선물하기도 하였다. 이를 세화(歲畫)라 한다. 또 황금색 갑옷을 입은 두 장군의 화상을 그려서 왕에게 바치기도 하였는데, 이 그림의 길이는 한 길이 넘었다. 이외에 붉은 도포와 까만 사모를 쓴 화상을 그려서 궁궐의 대문에 붙이기도 하였고, 역귀와 악귀를 쫓는 그림이나 귀신 머리를 그려 문설주에 붙이기도 하였다. 각 관청 아전과 하인들, 군영의 장교와 나졸들은 종이를 접어서 이름을 쓴 명함을 관원이나 선생의 집을 찾아 드렸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대문 안에 옻칠을 한 쟁반을 놓아두고 그 명함을 받아들였다. 이것을 세함(歲銜)이라 한다. 신년에 주고받는 명함이라는 뜻이다.

2. 민간의 새해맞이

◇조선 정조 때 학자 홍경모가 지은 '동국세시기'와 실학자 유득공이 쓴 '경도잡지' 표지 모습

백성들은 새해 아침 일찍 제물을 사당에 진설하고, '정조다례(正朝茶禮)'라는 제사를 지냈다. 남녀 아이들은 '설빔(歲庇陰)'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차례를 지낸 후에는 집안 어른들과 나이 많은 친척을 찾아가 새해 첫 인사를 드렸다. 세배 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세찬(歲饌)이라 하였고, 이때 내주는 술을 세주(歲酒)라 하였다. 떡국(湯餠)은 조선시대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었다. '멥쌀로 떡을 만들고, 굳어지면 돈처럼 얇게 가로로 썬 다음 물을 붓고 끓이다가 꿩고기, 후춧가루 등을 섞었다'고 '경도잡지'에 적혀 있다.

새해에 친구나 젊은 사람을 만나면 올해는 "과거에 합격하시오" "부디 승진하시오" "아들을 낳으시오" "재물을 많이 얻으시오"와 같은 덕담(德談)을 주고받았다. 또 초하룻날 첫 새벽에 거리에 나가 맨 처음 들려오는 말소리로 그해 1년간의 길흉을 점쳤는데, 이것을 청참(廳讖)이라 하였다.

새해에는 점을 치는 풍습도 유행하였다. 조선시대 민간에서는 윷점과 오행점이 유행했다. 오행점은 나무로 장기쪽같이 만들어 금 · 목 · 수 · 화 · 토를 새겨 넣은 다음 나무가 엎어지는 상황을 보고 점괘를 얻었다. 윷점은 지금도 유행하는 윷을 던져 새해의 길흉을 점친 것이다. 예를 들어 도가 세 번 나오면 '어린 아이가 엄마를 만나는 운세', '도 · 도 · 개'면 '쥐가 창고에 들어가는 운세' 등이었다. 그런데 요즈음도 새해 운세를 점치는 데 이용하는 '토정비결'에 관한 언급이 '동국세시기'나 '열양세시기', '경도잡지' 등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책은 빨라야 19세기 후반부터 유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토정비결'은 '주역'의 이치를 응용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든 책이지만 '주역'과는 다르다. 우선 '주역'의 기본 괘는 48개인데 '토정비결'은 32개다. 괘를 짓는 방법도 달라 이른바 사주 가운데 시(時)를 뺀 년(年), 월(月), 일(日)을 사용할 뿐이다. 조선시대 민간에는 시계가 없어 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토정비결'은 주역을 이용하면서도 조선의 특성을 십분 고려했다. 그러다 보니 점괘의 총수도 주역과는 다르게 됐다. 주역에는 총 424개의 괘가 있으나 '토정비결'은 총 144개뿐이다. 훨씬 간편한 셈이다.

'토정비결'은 열두 달의 운수를 시구(詩句)로 적어 놓았다. "동쪽에서 목성을 가진 귀인이 와서 도와주리라", "관재수가 있으니 혀끝을 조심하라"는 식이다. 간단명료한 글귀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은 점괘다. 항목마다 길흉이 적절한 비율로 배합돼 있지만 대체로 낙관적인 내용이 더 많다. 비관적인 괘라도 잘 극복하면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토정비결'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으며, 일마다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 처리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 그런 점에서 '토정비결'은 운수를 판별하는 데 중점이 있다기보다 일반 민중에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존재하는 듯 보인다. 비결의 이름을 가탁한 주인공 이지함의 민중친화적인 경향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민간에서 새해 길흉을 점치는 데 이용한 '토정비결'과 이지함 동상.

3. '미암일기'에 나타난 새해 풍속도

'미암일기'는 16세기의 학자 유희춘(1513~1577)이 쓴 일기로, 현재 남아 있는 일기는 1567년 10월1일에서 시작하여 1577년 5월13일까지 11년에 걸친 기록이다. '미암일기'는 임진왜란으로 사초(史草 · 실록의 저본이 되는 자료) 등 많은 사료가 없어졌을 때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자료이다. '미암일기' 1월1일자 기록을 보면 16세기 당시 새해 풍속도를 생생히 접할 수가 있다. 1568년과 1571년 1월1일의 기록을 보자.

"흐리고 눈이 오다. 새벽에 여러 사람이 와서 세배를 했다. 날이 밝기 전에 관대(冠帶)를 갖추고 부사 곽군과 더불어 망궐례(望闕禮)를 행하였는데, 나는 동편에 서고 곽은 서편에 서서 12배를 하고 산호(山呼 · 천세를 부름)를 하고 나왔다." (1568년)

"유협이 곶감 두 접과 건수어(乾水魚) 4미(尾), 참빗 10개를 내게 주었다. 심변도 왔다. 이른 아침에 윤충남을 시켜 광양으로 가서 최사인(崔舍人 · '표해록' 저자인 최부) 선생의 제사를 내 대신 지내게 하고 제문을 주었다. 나는 최인길에게 쌀 5두를 보내고 구비(舊婢)인 파치에게도 쌀 1두를 보냈다." (1568년)

"닭이 울자마자 대소의 사람들이 와서 세배를 했는데 모두 기록할 수가 없다. 박해(朴海)가 소 1마리와 떡을 보냈다." (1571년)

위의 기록에서 세배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던 풍습은 44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윤홍중이 신력(新曆) 1건을 보내왔다" (1571년 1월 3일)는 기록에서는 이때에도 새해를 맞아 달력을 받았음이 나타난다.

1573년 유희춘은 홍문관에서 관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조정의 관리로서 새해를 맞는 모습을 보자.

"이른 아침에 옥당(홍문관)으로 가서 입번을 한 다음 정언신 · 우성전을 데리고 대전(大殿 · 왕(선조)이 계신 곳)에 문안을 갔더니 술을 하사하셨고, 또 의성(懿聖 · 인종비 인성왕후)께 가서 문안을 드리니 또 술을 주셨다. 끝난 뒤에 본관(本館)에 별선온(왕이 궁중에서 빚은 술을 하사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잠시 옥당으로 가서 눈을 붙였다. 오시(午時 · 오전 11시~오후 1시)가 되어서 궁중의 사자가 선온을 가지고 왔다. (유)희춘 등 3인이 뜰에서 절을 하고 곧 당으로 올라가 사자와 더불어 편을 갈라서서 선온에 절을 하고 받은 뒤에 큰 잔으로 순차에 따라 잔을 돌렸다." (1573년 1월1일)

◇조선 정월에 민간에서 유행한 윷놀이와 연날리기를 묘사한 19세기 그림.

조정 관리였던 만큼 많은 선물도 받았다. 천언군수 김수걸은 산꿩 3마리와 말린 숭어 2미를 보냈고, 진안군수 박사우는 꿀 5승(升)과 말린 꿩 3마리, 포육(脯肉) 1첩(貼), 참깨 3두를 보내왔다.

허봉은 내사(內賜)받은 황감(黃柑)을 주고 갔다. 이어 유희춘은 신년에 명함을 준 사람 30여명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위의 기록에서는 요즈음 관공서에서 행해지던 신년 하례식의 모습이 연상된다. 이외에 1571년과 1576년의 1월1일에는 저자가 직접 지은 시를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시에는 지난해에 대한 감회와 새해의 다짐, 포부 등이 담겨 있다.

'미암일기' 의 새해 기록에 나타난 풍속도는 지금과 매우 흡사하다. 새해를 맞아 세배하러 다니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새해를 설계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져 온 전통임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일기의 기록은 당대 사람들이 살아간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새해를 맞아 독자에게 가능한 한 일기를 쓸 것을 권하고 싶다. 그중에는 유희춘의 '미암일기' 처럼 훗날 역사의 소중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왕실 최고의 휴식처, 온천

2013.06.19 12:02

목욕 · 신병치료 동시에…

◇조선 왕의 목욕 모습을 묘사한 영화 '음란서생' 의 한 장면.

조선시대 온천은 특별한 곳이었다. 특히 왕이 자주 찾는 온양의 온천에는 따로 행궁을 두고 이곳에서 정치 행위를 하기도 했다. 왕에 대한 특별한 목욕 시설이 여의치 않았던 시절, 온양온천은 목욕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기도 했다. 온양행궁에 대해서는 당시 모습을 그린 그림까지 남아 있다. 조선시대 왕들의 온천 행차 이야기로 들어가 본다.

#1. 온천을 자주 찾은 조선의 왕들

실록에는 첫 왕 태조부터 온천을 자주 찾은 기록이 나타난다. 태조가 즐겨 찾은 온천은 황해도 평산. 태조 때에는 평주로 불렸던 곳이다. 태조는 1392년 8월 대간 · 중방(重房) · 사관 각 1명씩과 의흥친군위 군대를 거느리고 평주 온천에 거둥(임금의 나들이 · 擧動)하였다. 1393년 4월에도 평주온천을 다녀온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왕들이 목욕을 즐기기 위해 행차한 온양행궁의 모습을 기록한 '영괴대기' 의 '온양별궁전도' .

"하찮은 병으로 온천에 목욕하고 돌아와서 몸이 몹시 피곤하다" 고 토로한 것으로 보아 신병 치료를 위해 온천에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에도 태조의 온천 행차는 계속된다.

일부 신하는 평주 온천이 한양과 300리나 떨어져 있으므로 자제할 것을 청했지만, 태조는 자신의 병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신하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1396년의 실록에는 '임금(태조)이 충청도 온천으로 행차하였다' 는 기록이 있다. 정확한 지명을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온양온천을 지칭한 것으로 짐작된다. 온양온천은 태조 때부터 왕실이 주로 이용한 대표적인 명소였다. 중종 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온양군' 의 '온천' 항목에는 '질병 치료에 효험이 있어서 우리 태조 · 세종 · 세조가 일찍이 이곳에 거둥하여 머무르면서 목욕하였는데, 유숙한 어실(御室)이 있다' 고 기록하고 있다.

태종은 아버지 태조를 뵙기 위해 평주 온천을 몇 차례 찾았으며, 자신 역시 풍질(風疾)이 심해지자 평주 · 이천 등지의 온천에 거둥하였다.

세종 역시 평산 · 이천 등지의 온천을 찾았으며, 서울과 가까운 경기지방에 온천이 있는 곳을 찾게 하여 찾은 자에게는 후한 상을 내릴 것을 약속했다. 1443년(세종 25) 3월1일 세종은 왕비와 더불어 충청도 온양온천에 거둥하였다. 평소 피부병과 안질로 고생하던 세종이 왕세자와 의정부, 육조의 대신 등 대규모 관리들을 거느리고 온양 행차를 결심한 것을 보면, 온천욕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양온천을 즐겨 찾은 태조 어진, 세종 초상, 영조 어진.(사진왼쪽부터)

조선시대 백성들도 온천에 갈 수 있었을까? 성종 1년 4월17일 성종이 충청도 관찰사 김필에게 내려준 하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도내 온양 온정(溫井)의 어실(御室) 및 휴식소와 세자궁의 침실 외에는 다른 사람이 목욕하는 것을 허락하고, 남쪽 탕자(湯子)는 재상 및 사족의 부녀에게 또한 목욕하는 것을 허락하라" 는 기사에서, 비록 사족의 부녀에게 한정되었지만 일반인도 온천욕을 할 수 있었음이 나타난다.

#2. 온천 마니아, 현종

조선시대 최고의 온천욕 장소로 각광을 받았던 곳은 온양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평산과 이천 온천에 왕들이 거둥하기도 했지만, 온양온천의 뛰어난 치료 효능과 지리적 여건은 이곳에 행궁을 조성하고 일부 정사를 보게 하는 공간이 되게 하였다. "평산 온천은 너무 뜨겁고 이천은 길이 험해 온양으로 정한다" 는 '현종실록' 의 기록에서 온양이 왕들의 온천으로 완전히 정착돼 갔음을 알 수 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온양 행궁에 행차하여 장기간 머물렀던 왕은 세종 · 세조 · 현종 · 숙종 · 영조 5명의 임금과 사도세자로 확인되고 있다.

세종과 세조 · 현종 등이 모두 피부병으로 고생한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면, 왕의 온양 행차는 질병을 치료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왕 중에서 온양행궁을 가장 많이 찾은 왕은 현종이었다. 재임 기간 내내 종기와 피부병으로 시달렸기 때문이다. 현종 6~10년의 실록 기록에는 왕이 온천에 머문 기사가 평균 50건 정도가 발견될 정도이다. '현종실록' 의 다음 기록에는 민폐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온천욕의 뛰어난 효능을 인정한 왕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조선 정조가 온양에 왔던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며 그 자취를 기록한 책 '영괴대기'.

"상이 의관을 시켜 약방에 말을 전하기를, '요즈음 부스럼이 온몸에 나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데, 온천에 목욕하는 것이 효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민폐가 염려되어 할 생각을 못하였다. 지금 눈병과 부스럼이 한꺼번에 발하여 약은 오래 복용하였으나 효험이 없고 침은 겨우 당장 위급한 것만 치료할 뿐이다. 일찍이 듣건대, 온천이 습열(濕熱)을 배설시키고 또 눈병에 효험이 있다고 하니, 지금 기회에 가서 목욕하였으면 한다. 여러 의원들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는데, 도제조 허적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성상의 몸을 돌보는 자리에 있으면서 보익(補益)한 바는 없이 마음 졸이며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상의 분부를 받들고는 즉시 여러 의관을 불러 물어보니, 여러 의관이 모두 '성상의 눈병과 부스럼은 모두 습열 탓에 생긴 것이다. 이런 때에는 온정(溫井)이 가장 좋다' 고 하였습니다.' " ('현종개수실록' 현종 6년 3월14일)

위의 기록에는 어의들이 현종의 눈병과 피부병에 온천욕만큼 효능이 뛰어난 것이 없음을 강조한 대목이 나온다. 실제 현종은 자신의 병에 침과 약이 효험이 없자 온천욕을 대안으로 찾았고 잦은 행차를 했다. 왕의 행차였던 만큼 그 규모도 대단했다.

"상이 온양온천에 거둥하였다. 인시에 상은 군복을 입고 칼과 활 · 화살통을 차고서 작은 수레를 타고 나가 인정문 밖에 도착하였다. 수레에서 내려 말을 타고 숭례문 밖에 도착하여서부터는 교자를 타고 출발하였다. 영의정 정태화, 우의정 허적, 병조 판서 홍중보, 호조 판서 정치화, 이조 판서 김수항, 한성 판윤 오정일… 각사의 관원과 종반(宗班) 숭선군 이징 등 8인, 의빈(儀賓) 익평위(益平尉) 홍득기(洪得箕) 등 5인, 침의(鍼醫) 윤후익(尹後益) 등 4인, 약의(藥醫) 이동형(李東馨) 등 4인이 따라갔으며, 영풍군 이식 등 형제 4인도 자원하여 어가를 수행하였다. 무예 별감(武藝別監) 30인, 어영군 1200명, 기병 50명, 군뢰(軍牢)와 잡색(雜色)이 합해 400명이었는데, 대장 유혁연과 중군(中軍) 유정(兪)이 이끌고, 금군 500명은 별장 이지원(李枝遠)이 이끌고, 마병 470명과 포수 800명은 별장 유비연(柳斐然) · 한여윤(韓汝尹)이 이끌었다." ('현종개수실록' 현종 6년 4월17일)

이렇듯 왕의 온천 행차에는 대신들과 대규모 병력이 수행하였다. 국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음도 물론이다. 현종 시대에 주목할 만한 업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한 원인을 현종의 잦은 온천행에서 찾을 수가 있다.

#3. 온양온천 모습이 담긴 '온양별궁전도'

조선시대 왕실 목욕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료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영괴대기(靈槐臺記)'라는 제목의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온양별궁전도'가 그것이다. '영괴대기'는 정조가 온양에 왔던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며 그 자취를 1795년(정조 19) 기록한 책이다. '영괴대'란 신령스러운 느티나무 옆에 설치한 사대(射臺)라는 뜻이다.

1760년 사도세자가 온양행궁에 행차해서 활을 쏠 때 그늘을 만들기 위해 심었던 세 그루의 느티나무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영괴대는 현재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동에 자리하고 있다.
'영괴대기'에는 온양온천의 모습을 담은 '온양별궁전도'가 그려져 있다. 지도에 하얗게 표시된 어도(御道)를 따라 들어가면 왕의 침소인 내정전(內正殿)과 집무실인 외정전(外正殿)이 눈에 들어온다.

초가지붕 또는 기와지붕으로 표시된 홍문관 · 승정원 · 상서원 · 사간원 · 수문장청 등의 건물은 온양행궁이 임시 궁궐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가장 넓게 표시된 수라간의 존재는 수행 인원이 행궁에 대거 머물렀음을 짐작하게 한다.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영괴대'가 표시되어 있어 이곳에 머물렀던 사도세자와 정조의 자취를 느낄 수가 있다.

화면의 중심에 온천이라고 표시된 큰 건물이 바로 왕이 목욕을 즐겼던 온천탕이다. '온궁사실'의 기록에는 그림으로 표시된 '온천'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타난다. 12칸짜리 온천 건물에는 욕실, 양방(凉房), 협실(挾室), 탕실(湯室)이 있었다.

탕실은 온천수가 솟는 곳과 욕조가 있는 곳으로 구성된 듯하다. 탕실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통로로 보이는 협루가 있고, 찬바람을 쐴 수 있는 방이 남북으로 하나씩 있었다. 온돌을 깐 욕실은 동서 양쪽에 있었음이 나타나 기본 구조는 현재의 목욕탕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4. 온천 행차에 관한 기록들

현재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는 왕들의 온양 행차에 관한 기록이 몇 건 소장되어 있다. '온행일기(溫幸日記)'는 1750년(영조 26)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영조가 온양온천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기록한 책이다. 영조가 피부병이 생겨 온천욕을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금을 감면하고 과거시험을 치르게 한 내용이 들어 있다.

1760년(영조 36) 사도세자가 온양에 행차한 사실은 '온궁사실(溫宮事實)'과 '온천일기'란 책으로 남아 있다. 1760년 7월18일 온양행궁에 도착한 사도세자는 16일간의 요양을 끝내고 8월1일 온양을 출발, 4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사도세자의 온양 행차는 세자의 다리에 종기가 곪아 터지자 여러 의원들이 습창(濕瘡)을 제거하는 데는 온천이 좋다고 하여 추진되었다. 사도세자가 온양행궁에 묵는 것을 대비하여 온양행궁에서는 건물을 보수하고 각종 준비물을 챙겼다. '온궁사실'에는 오동나무 바가지, 큰 함지박, 조그만 물바가지, 놋대야, 의자, 수건(14장) 등 사도세자가 목욕할 때 사용했던 목욕 용품들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의 왕들 역시 현대인과도 비슷한 용품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친들의 삶

2013.06.19 12:00

임금의 피붙이일수록 권력과는 멀어졌다

◇경기 과천시 문원동 연주암 효령각에 보관돼 있는 효령대군 영정(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1호). 조선시대 대군 초상화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귀한 예다.

조선시대 역사에서도 왕의 종친(宗親)들이 권력의 역사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또한 적지 않았다. 조선시대 왕실 친인척 종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1. 왕실의 반란, 왕자의 난

조선시대 역사에서도 그 시작부터 왕자들이 권력의 전면에 뛰어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서막을 연 인물은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 단서를 제공한 인물은 건국의 시조 태조 이성계였다. 태조는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방원을 비롯하여 왕실의 부계 친족인 종친의 군사력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태조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종친불임이사(宗親不任以事)'의 원칙을 무시하고 종친에게 관직을 허용했다. 이에 종친은 건국 초부터 관직과 함께 사병을 유지할 수 있었고, 특히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은 훗날 비수가 되어 왕실을 겨냥하게 된다.

이방원은 자신이 보유한 사병을 기반으로 하여 태조가 지명한 세자이자 동생인 방석을 제거하고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1차 왕자의 난, 1398년). 권력을 잡은 이방원은 왕위를 형인 방과(정종)에게 물려주었지만, 바로 위의 형 방간이 왕위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자, 또 한번 권력 투쟁에 나선다. 이것이 1400년의 2차 왕자의 난이며, 이후 방원은 태종으로 즉위하여 본격적인 왕권 강화에 들어갔다. 건국 초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왕자의 난은 왕자들의 정치적 야심과 군사력이 바탕이 되면 왕위는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경험이 반면교사가 되었을까. 이후 조선의 왕은 철저하게 종친을 권력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쓰게 되었다. 종친은 왕실의 부계친속(父系親屬)을 뜻한다. 종족(宗族), 본종(本宗), 본족(本族), 동종(同宗)이라고도 한다. 왕의 자손으로 4대 밖인 자로서, 동성을 '종'이라 하고, 부계를 '친'이라 일컬은 데서 유래한 용어이다. 모계나 처계의 친속을 '척(戚)'이라 표현한 데 대해 부계의 친속에 '종'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그만큼 부계 친속이 으뜸임을 표시한 것이다. 조선초기에는 종친의 범위가 넓었지만 세종 대에 와서 종친은 해당 왕의 4대손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정해졌다.

◇단종이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뒤 강원 영월로 유배돼 1457년 목숨을 끊은 장릉 장자각에 있는 단종 관련 그림.

#2. 종친부(宗親府)를 설치한 뜻은?

조선시대에는 종친들에게 품계를 부여하였다. 이를 종친계라 하는데 1443년(세종 25) 처음 실시하였다. 종친계는 정 1품 (현록대부, 흥록대부)부터 정 6품(집순랑, 종순랑)까지 쌍계로 되어 있었다. 품계만 있고 실직이 없는 명예직이었다. 종친계를 문신이나 무신의 품계와 구분한 것은 이들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해서였다. 종친들의 정치 간여는 국왕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양반 관리들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친은 친진(親盡)이라 하여 왕과 4대의 친분이 끝나면 그 지위에서 벗어나 관리로 나갈 수 있었다. '지봉유설'의 저자

이수광은 전주 이씨였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한동안 관리가 될 수 없었지만, 부친 이희검 대에 이르러 왕실과의 인연이 끊어져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종친을 위한 과거 시험도 있었다. 성종 대인 1484년 종친만을 위한 과거 시험을 따로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관리 임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친들의 학문 권장을 위해 실시한 것이었다. 사서삼경을 시험하고 1, 2, 3등 합격자에게 각각 3, 2, 1등급의 품계를 올려주었다. 그러나 명예직 성격인 까닭에 종친들의 호응이 그리 크지 않았고 결국 중종 대 이후에 폐지되고 말았다.

종친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는 종친부가 있었다.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제왕자부(諸王子府)가 조선에 이르러 재내제군소(在內諸君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 때인 1428년에는 재내제군소에 종부시를 두고 종친의 비위 규찰을 전담하게 하였다. 1430년 재내제군소가 종친부로 승격하고, 종친부는 정1품 아문이 되었다. 형식상으로는 최고 서열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 행사는 할 수 없는 기관이었다. '경국대전'에는 종친부의 역할과 품계가 법으로 규정되었다. 종친부에서는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의 제작, 왕실에서 사용하는 옷감 봉진(奉進) 등의 일을 맡았으며, 정치적 역할은 일체 금지되었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정독도서관 내에 위치한 종친부 건물(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호). 종친부 내 종부시는 종친의 비위 규찰을 전담했다.

결국 종친부 설치는 제도적으로 종친의 정치 참여를 막는 동시에 종친들의 비위까지 규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한 것이었다.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왕의 외척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것에 비하여 종친에 의한 정치 부정과 비리가 많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3. 대군의 원조, 양녕대군

장자 상속이 원칙인 조선 사회에서 살아있는 왕의 형님 존재는 그리 흔치 않았다. 그런 점에서 양녕대군의 이력은 특이하다. 부왕인 태종에 의해 왕세자의 자리를 박탈당한 양녕대군은 도성을 떠나 풍류남아로 주로 생을 보냈다. 그렇지만 살아 있는 형의 존재는 왕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왔다. 양녕대군에 대한 처벌 논의도 있었지만, 동생 세종은 그때마다 양녕을 감쌌다. 자주 서울에 불러 음식을 대접하면서 형제의 우애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소동파의 명작 '후적부'를 초서체로 쓴 양녕대군의 구곡병풍. 자유분방함이 묻어나는 작품이다(지덕사 소장).

양녕대군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간여한 사례는 단종의 폐출 때이다. 역시 대군의 위치에서 조카를 압박하여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에게 유배되기는 했지만 살아있는 전왕 단종의 존재는 최대의 부담이었다. 이때까지 살아있었던 양녕대군은 단종의 제거를 적극 주장하는 왕실의 원로로 화려하게(?) 정치에 참여한다. 실록의 기록을 보자.

"양녕대군 이제 등이 아뢰기를 '전일에 노산군 및 이유(李瑜 · 금성대군)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도 유윤(兪允)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속히 법대로 처치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제가 재차 아뢰기를 '큰 역모와 같은 일이 종사에 관계되는 것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청컨대 대의로써 결단하소서.'"('세조실록' 세조 3년 10월 19일)

위 기록이 양녕대군 스스로의 입장인지 세조 정권의 압박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양녕의 단종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주장이 세조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음은 분명하다.

#4. 시, 서, 화에 능했던 안평대군

능력은 갖추었으되 현실적으로 관직 진출이 좌절된 삶. 이러한 현실적 벽 때문에 종친들은 예술 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대표적 인물이 세종의 세 번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바로 아래 동생인 안평대군이다. 안평대군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특히 시와 서예, 그림에 뛰어난 자질을 보여 삼절(三絶)로도 칭해졌다. 서예가로서의 명성은 중국에까지 알려졌고 조선전기에는 그의 서풍이 널리 유행하였다. 현존하는 작품으로는 안견의 '몽유도원도'에 쓴 발문이 대표적이다.

안평대군은 불행하게도 예술적 재능과 함께 정치력도 갖춘 인물이었다. 단종이 왕위에 오른 후 힘을 얻게 된 김종서와 황보인은 야심가 수양대군보다는 안평대군을 그들의 왕실 파트너로 선택하였고 안평대군도 이에 적극 협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동거는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으로 산산이 조각이 났다. 안평대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갔다가 결국 이곳에서 사사되었다.

위에서 조선시대 종친들의 삶을 소개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종친의 정치 참여는 엄격히 제한되었다. 조선초기 왕자의 난이나 계유정난처럼 왕자들이 전면에 나서 권력을 잡는 상황이 거듭하자, 성종 대에는 법적으로 종친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였다. 이러한 장치 때문인지 조선중기 이후 종친들은 권력의 전면에 거의 등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에는 종친을 대신하여 모계나 처가의 외척들이 정권의 핵심에 등장하였다. 명종 때 윤원형을 비롯하여,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에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이 외척의 전성시대를 열기도 했다.

기녀출신 거상 김만덕

2013.06.19 11:59

굶주린 제주백성 재산 풀어 구제… 조선시대 기부 실천한 여성CEO

조선시대에 기부 문화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은 만덕이다. 특히 제주도 기녀 출신이라는 지역적, 신분적인 특이성도 그녀의 신비감을 더하게 한다. 만덕은 어떻게 그토록 많은 돈을 벌었으며 기부까지 했을까?

#1. 의기(義妓) 만덕은 누구인가?

"제주의 기생 만덕(萬德:1739~1812)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 ('정조실록' 정조 20년 1월 25일)

위의 기록은 1796년(정조 20) '정조실록'에 기록된 만덕의 기부 선행 장면이다. 조선시대 한반도 최변방 중의 한 곳인 제주에서, 그것도 기생 출신 여자가 재물을 풀어 백성을 구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국가의 공식 기록인 실록에 기록하였다는 점 또한 매우 이례적이었다. 실록에는 만덕에 관한 기록이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그녀의 행적은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과 정약용의 '다산시문집', 박제가의 '초정전서', 조수삼의 '추재기이' 등 조선 후기 개인의 저작물에도 소개되어 있다. 그만큼 만덕의 행적이 당시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만덕은 김해 김씨의 후손으로 아버지 김응렬과 어머니 고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2살에 풍랑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같은 해에 제주도를 덮친 전염병의 여파로 어머니마저 잃었다. 고아가 된 만덕은 바로 퇴기(退妓)의 수양딸이 되었다. 대개 기녀는 자신의 딸에게도 기예를 가르쳤고, 이 과정에서 만덕도 기예를 익혀서 15세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기(官妓)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만덕이 기생으로 알려진 것은 이러한 삶의 배경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만덕 스스로는 기녀로 자처하지 않았다. 양갓집 딸이라는 자존심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채제공이 쓴 '만덕전'에는 "만덕은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녀 노릇을 했지만 기녀로 자처하지는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2.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여성의 능력을 쉽게 발휘할 수 없었던 조선 후기. 당시 사회에서 만덕과 같은 여성의 성공 신화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러면 만덕은 어떤 방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 만덕이 살았던 조

선 후기 영조, 정조시대는 조선시대에도 대표적인 변화의 시기였다. 전통적인 사업인 농업 이외에 수공업이나 상업, 유통 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실천된 시기였다. 상업과 유통 경제의 발달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포구 무역과 객주업이었다. 만덕은 포구 무역과 객주업으로 큰 돈을 번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한편으로 제주도가 더 이상 경제적 소외지대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후기 어업과 해상 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제주도가 떠오른 것이다. 만덕은 그곳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직접 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만덕은 관기를 그만두고 건입 포구에서 객주를 차리고 장사를 시작했다. 제주목 관아에 인접한 이곳 포구에는 장삿배에서 관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배들이 드나들었다. 객주는 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일종의 중개 상인이었다. 요즈음으로 치면 호텔과 판매업을 갖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만덕이 객주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는 관기로 있으면서 관리들과 맺어진 친분도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그녀 특유의 장사 수완이 큰 몫을 하였다. 제주는 쌀 등의 곡물이 특히 부족한 곳이었다. 만덕은 외부에서 반입되는 쌀이나 제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금의 독점권을 확보하여 이를 미역, 전복 등 제주의 해산물과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쌀과 소금의 시세 차익을 이용하여 계속 부를 축적해 나갔고, 결국 제주도 최고의 여성 갑부가 되었다.

◇제주도 최고의 여성 갑부였던 김만덕이 천금으로 쌀을 사들여 제주 백성을 구제한 공로로 당시 국왕 정조를 알현해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는 소원을 말하는 상상도.

#3. 만덕과 '배비장전'의 도시, 제주도

만덕은 조선시대 제주도를 빛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인물이 알려지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사실 제주도는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최악의 유배지이기도 했다. 오늘날 비행기로 한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관광도시 제주도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절해고도(絶海孤島)였고, 모든 정보가 차단됐고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은 지역이었다.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세 고을로 이뤄
졌던 1872년 제주도를 그린 제주삼읍전도. 육지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그려 남쪽이 지도의 상단에 그려져 있고 오름과 10개의 목마장 경계, 최남단 마라도 위치도 뚜렷하게 표시했다.

현재 제주도를 대표하는 명문 오현고의 이름은 제주 오현단에 배향된 5명의 인물 즉 김정, 송인수, 김상헌, 정온, 송시열을 추모하는 뜻에서 유래한다. 이들 오현은 어사로 제주에 파견되었던 김상헌을 제외하면 모두 사화와 당쟁의 격동기에 유배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유배 기간 동안 당시 학문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제주에 학문을 진작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19세기 이후에도 제주도는 당대 최고의 명망가들을 유배자로 맞았다. 19세기의 학자 김정희는 1840년에서 1848년까지 8년 동안 제주도 유배생활 동안에도 꼿꼿한 선비정신을 잃지 않고 인격과 학문을 고양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그 유명한 추사체가 완성된 곳도 이곳이었으며, 유배지를 찾았던 제자 이상적에게 "추운 계절이 지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게 남아 있음을 안다"는 공자의 명언을 담아 그린 '세한도

(歲寒圖)’를 보내준 곳도 제주도였다. 근대의 인물 중에도 최익현, 김윤식 등이 무너져가는 조선사회를 일으켜 보고자 뜻을 세우다가 결국은 제주도로 유배되는 비운을 당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변모하여 휴양을 즐기는 현재의 모습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당대의 내로라했던 학자들이 재기를 위해 자신의 의지를 굳혀나가던 바로 그러한 공간이었다.

◇제주 건입동 모충사의 김만덕 기념관 인근에 위치한 김만덕의 묘비. 김만덕은 금강산 유람을 다녀온뒤 15년 후에 세상을 등졌다.

조선 후기에는 제주도가 소설 속의 주요한 배경으로도 등장한다. 배비장과 기생 애랑의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 ‘배비장전’의 무대가 제주이다. 소설은 김경이라는 양반이 제주목사에 임명되자 자신과 친분과 있던 배선달을 예방의 비장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한다. 본래 서강에 살면서 놀기 좋아했던 배선달은 기쁜 나머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제주도는 당시에 여색(女色)으로 소문난 곳이어서 아내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남편이 주색잡기에 빠지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소설의 첫머리는 아내와 굳은 약속을 하고 제주도에 도착하는 목사 일행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풍랑이 심해 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았다. 그만큼 제주도는 가기가 힘든 곳이었고 관리들이 기피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주도가 고전 소설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는 점은 그만큼 제주도가 역사의 공간으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4. 금강산 유람과 채제공의 ‘만덕전’

만덕의 기부 행위에 조정에서도 포상을 논의했다. 남자가 아니어서 쉽게 관직을 내릴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만덕은 조정의 이런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 준다. “다른 소원은 없으나 오직 하나, 한양에 가서 왕이 계시는 궁궐을 우러러 보는 것과 천하 명산인 금강산 1만2000봉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거액 기부자답지 않은 소박한(?) 소원이었다. 당시 제주도 여인들은 육지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주목사는 조정에 민원을 보고하였다.

◇화가 이명기가 1789년 그린 채제공의 초상. 채제공은 김만덕을 ‘고니 노닐 듯 빼어난 기풍’이라고 평했다.

정조는 흔쾌히 만덕의 소원을 수용하고 적절한 조처를 지시하였다. 1796년 만덕이 서울 궁궐에 오자 정조는 내의원 의녀반수(醫女班首)의 벼슬을 내렸고, 왕비 효의왕후와 함께 직접 만덕을 격려하였다.

이듬해 봄에는 평생의 소원이던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왔다. 18세기 이후 조선에 진경문화가 도래하고, 선비들의 여행도 활발해지면서 금강산이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선비들은 금강산 유람 경험을 기행록으로 남겼고, 김홍도나 정선과 같은 화가들은 화폭에 금강산을 담았다. 만덕 역시 금강산 유람이 활발하던 당시의 분위기를 접하였고, 조선에 태어난 이상 꼭 금강산을 둘러볼 것을 꿈꾸었다.

꿈을 이룬 만덕은 만폭동, 묘길상을 거쳐 삼일포에서 배를 타고 총석정을 둘러보는 것으로 금강산 유람을 마쳤다. 만덕은 그야말로 장안의 스타가 되어 있었다. '번암집'에서 "만덕의 이름이 한양에 가득하여 공경대부와 선비 등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두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보고자 하였다"는 기록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금강산 관광 후 만덕은 벼슬을 내놓고 제주도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다. 이때 정조의 최고 참모이던 재상 채제공을 다시 만났다. 처음 상경했을 때도 만난 바 있었던 채제공은 이별의 자리에서 직접 지은 '만덕전'을 그녀에게 주었다. '만덕전'은 채제공의 문집인 '번암집'에 실려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였다.

"만덕은 제주의 기특한 여인인데 예순 얼굴 마흔쯤으로 보이네. 천금 내어 쌀을 사들이고 백성을 구제한 덕으로 처음 바다 건너 궁궐을 찾아뵈었네. 다만 원하는 것은 금강산을 한 번 유람하는 것. (중략) 탐라는 저 멀리 고량부 신인(神人) 때부터인데 여인네가 이제야 나라 임금을 뵐 수 있었다네. 칭찬 소리 우레 같으며 고니 노닐 듯 빼어나니 높은 기풍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맑게 하겠구려." ('번암집' 중 '만덕전')

만덕은 제주도에 돌아온 후 15년 만인 1812년 세상을 떠났고, 유언에 따라 무덤은 제주 성안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가운이마루' 길가에 묻혔다고 한다. 만덕은 영원히 제주의 연인으로 남기를 원했던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해마다 만덕상을 제정하여, 또 다른 만덕을 현재에도 계속 배출해가고 있다. 제주 기녀 출신에서 성공한 CEO로 자리 잡은 여인, 나눔의 미덕을 실천한 기부 천사 만덕. 그녀로 인하여 조선시대 여성사는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

조선 화원들은 어떤 그림 그렸나

2013.06.19 11:58

#1. 우리의 산천과 풍속을 화폭에 담다

◇단원 김홍도의 '무동'

조선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큰 변화는 18세기 이후 일어났다. 영조, 정조 시대에 들어서면 중국에서 유행한 남종 문인화를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추어 토착화하려는 화풍이 일어났다. 이른바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가 그것이다. 진경문화 유행의 배경에는 조선 중화사상이 큰 몫을 했다. 이제껏 오랑캐라 멸시하던 청나라에 패배하여 왕이 항복까지 한 정치적 치욕을 문화적으로 회복하고, 문화의 중심은 명에서 조선으로 이어졌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그림에서 진경 문화의 주역은 겸재 정선이었다.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던 정선은 인근에 살던 안동(장동) 김씨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신이 살았던 인왕산 등 서울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금강산의 모습 등을 독특한 필치로 그려 넣었다. 정선이 그린 서울 도성과 한강 일대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사진작가가 당시의 모습을 찍어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정선의 뒤를 이어 산수화와 풍속화의 새 경지를 열어 놓은 화가는 화원 출신의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이다. 김홍도는 정조의 각별한 총애를 받아 궁중 화가의 중심인물이 되어 화성행차와 관련된 병풍과 행렬도를 비롯해 국가의 행사도와 각종 궁중 풍속화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집권기에 그의 치적을 화폭에 담았던 궁정화가 다비드처럼, 김홍도 역시 정조의 총애 속에 당대의 생활상과 국가의 주요 행사를 기록화로 담았던 것이다.

김홍도는 일반 사대부들의 감상을 위한 신선의 모습이나 산수화도 많이 그렸지만, 그의 그림의 백미는 무엇보다 서민 생활상을 담은 풍속화이다. 대장간, 씨름, 서당 풍경, 집짓기, 추수 등 그의 풍속화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그 자체를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홍도와 비슷한 화풍을 지닌 풍속화가 김득신, 김석신 형제도 정조대 화원으로 활약하면서 사대부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홍도와 같은 정조 시대에 활약한 신윤복은 주로 도시인과 부녀자의 풍속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인 필치로 묘사하여 풍속화의 또 다른 지평을 열었다. '바람의 화원'이라는 소설과 드라마, 영화에서는 김홍도와 신윤복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로 설정하고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신윤복은 아버지 신한평과 함께 부자가 화원으로 활약했으나, 그에 관한 기록은 19세기 오세창이 지은 '근역서화징'이라는 책에 짧게 전한다. 이러한 기록의 부재는 신윤복에 대한 갖은 상상력을 더해 아예 남장 여인으로까지 이르게 됐다.

◇혜원 신윤복의 '청금상련'.

김홍도와 신윤복 이 외에 18세기 조선 화단을 풍요롭게 장식한 화가들은 심사정, 변상벽, 최북 등이었다. 사대부로서 그림을 잘 그린 화가로는 이인상, 강세황 등이 손꼽힌다. 한편 민간에서는 민화가 유행하였다. 그림 수요가 늘면서 장시를 떠돌아다니던 화가들은 그림을 그려 생계를 유지하였다. 문자도, 까치호랑이, 책거리 그림 등 민간 풍속을 담은 내용이 민화의 주류를 이루었다.

글씨 분야에서도 우리 것에 대한 애정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전까지 중국 글씨를 모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동국진체'라 하여 우리 글씨를 독창적으로 쓰는 사조도 유행하였다. 윤순, 이광사 등이 이 분야에 일가를 이루었으며, 김정희의 추사체는 동국진체의 흐름을 계승한 바탕

위에서 청의 학문을 수용하여 완성한 서체로 이해된다.

#2. 기록을 만드는 역사가 또는 사진작가

우리는 조선시대 그림하면 김홍도와 신윤복 등의 풍속화를 떠올리지만 실상 주요 기록화와 초상화 등은 화원들의 붓끝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화원은 국가의 공식기구인 도화서(圖畫署)라는 관청에 소속되어 그림 그리는 일을 전문으로 하였던 사람들을 말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 미술가, 화가인 셈이다.

화원들의 활동은 도화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대개는 국가에 필요한 실용적인 그림이나 기록화를 그리게 되었다. 화원 이외에 화가를 부르던 명칭으로는 화공(畫工), 화사(畫師) 등이 있었다. 도화서는 조선 초기에는 도화원이라 불려졌으나, 격을 낮추는 과정에서 도화서가 되었다. '경국대전' 에 따르면 종6품 관청으로, 제조 1인, 별제 2인 외에 잡직으로 화원 20인이 있었다. 정조 시대에 편찬된 '대전통편' 에는 화원 수가 증원되어 30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담졸 강희언의 '인왕산도'.

화원들은 왕이나 명망가들의 초상을 그렸으며, 지도를 제작하는 일도 국초부터 화원들 몫이었다. 또한 기계류와 건축물의 설계도, 책의 삽화, 외교사절을 수행하면서 외국의 풍물을 그리는 일도 화원들이 담당했다. 즉 화원들은 오늘날 기록을 찍는 사진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결혼식, 장례식, 궁중 잔치 등 국가의 주요행사가 거행되면 '의궤' 를 제작했으며, 의궤에는 행사 장면이나 기물 등을 첨부하였다. 물론 그림 제작은 화원들이 담당하였고, 의궤에는 그들의 실명을 기록하였다. 이들에게 책임감과 함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왕의 혼례 의식을 그린 '가례도감의궤' 의 끝부분에 그려진 반차도에는 결혼식에 동원된 사람과 말의 모습, 복장과 깃발 등 당시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채색으로 표현된 그림은 선명도가 뛰어나 오늘날에도 생생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는 물감의 재료가 식물이나 광물에서 채취한 천연 재료여서 그 생명력이 오래갔기 때문이었다. 1866년의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 외규장각에 소장된 각종 도서 중에서도 유독 의궤류만을 집중적으로 약탈한 것은 의궤에 그려진 채색그림이 지닌 가치와 예술성이 눈에 번쩍 띄었기 때문일 것이다.

화원들은 조선시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된 지도 제작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조선시대 지도 중에는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뛰어난 작품이 많다. 조선 후기 우리 산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진경산수화가 널리 유행하면서, 이러한 화풍은 지도 제작에도 반영되었다. 18세기 서울의 모습을 그린 '도성도' 는 세련된 진경산수 화풍으로 도성 주변의 산세를 아름답게 그려내 뛰어난 예술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3. 화폭에 담긴 조선의 사회상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인 1872년 전국 460여 군현의 모습을 그린 지도는 지역별로 제작되어 지역마다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중 가장 회화적으로 그려진 전라도의 지도들은 음양오행 사상에 입각하여 색채를 적절하게 조화시켰으며, 예술적 가치도 가장 뛰어나다. 이들 지도에는 당시의 사회 모습이 영상자료처럼 담겨 있다. 대원군 시대의 국가정책인 쇄국정책이 지도에 반영되어 작은 군현에 이르기까지 척화비를 그린 모습이나, 남원 지도에 과장되게 표현된 광한루와 오작교, 해남과 진도의 지도에 표시된 거북선 모습, 천안 지도의 관아건물에 표시된 태극무늬 등은 130여년 전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는 듯한 착각을 안긴다. 조선시대의 화원들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개인적인 작품 활동보다는 의궤나 지도 제작과 같은 국가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연행사나 통신사와 같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사신단 명단에는 화원이 꼭 포함됐다. 화원들이 남긴 일반 감상화는 국가와 궁중의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남은 시간에 자신의 기량을 키우는

방편으로 그린 것이 많았다.

◇영조의 혼례의식을 담은 ‘가례도감의궤’ 일부. 조선 도화서 화원들은 왕실에 소속돼 결혼, 장례, 궁중잔치 등 주요 행사에 관한 기록화를 담당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공식 국가행사에서 차지하는 화원들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우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화원들은 국왕이나 유력한 벼슬아치들의 영정(초상화)도 직접 그리면서 그들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였다. 조선 후기 이후 화원들은 중인의 신분이 되었고, 그 직업은 세습되어 나갔다. 양천 허씨와 인동 장씨, 경주 김씨, 배천 조씨 등은 17세기 이후 영향력 있는 화원 가문으로 성장하였다.

화원들이 그린 ‘의궤’ 등의 기록화나 초상화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이 담겨 있다. 조선 후기에 고위직을 지낸 인물의 초상화에는 대부분 곰보 자국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이들이 어린 시절 홍역을 앓았다는 증거로서, 당시 벼슬아치들도 홍역을 앓은 것으로 봐서 일반 백성은 대부분 홍역으로 큰 곤욕을 치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조가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으로 가던 상황을 기록한 병풍에는 임금의 행차를 백성들이 자유롭게 구경하고 행렬 주변에 임시로 좌판이 벌어지는 모습, 정렬된 상태지만 자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 정조가 한강을 건너기 위하여 설치한 주교(舟橋 · 배다리)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처럼 화원들의 그림 속에는 살아 숨쉬는 역사 현장이 생생히 드러나 있다.

조선시대에는 당시의 역사적 흔적들을 더욱 생생하게 후대에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뛰어난 화원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화원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조선시대 화원들은 당대의 역사적 산물을 입체적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사진작가, 나아가 역사가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계유정난’

2013.06.19 11:58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55년 전인 1453년 10월10일. 조선 역사의 흐름을 바꾼 대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수양대군이 주도하여 일으킨 쿠데타, 계유정난(癸酉靖難)이 그것이다. 계유정난을 풀이하면 계유년에 일어난 ‘어려움을 평정한 사건’ 이다. 1453년 10월10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1. 단종의 즉위와 신권의 부상

세종의 사망 후 왕위는 장남인 문종에게 계승되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던 문종의 병약함은 세종의 근심거리였다. 세종 자신도 건강이 악화되어 대리청정의 형식으로 세자에게 정치를 맡겼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한 우려대로 1450년 2월 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문종은 대부분의 시간을 병상에서 보내다가 1452년 5월 사망했다.

사망 직전 문종은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세자가 걱정되었다. 문종은 고명대신(誥命大臣 · 왕의 유지를 받드는 대신) 김종서, 황보인 등을 불러 마지막으로 세자를 부탁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문종의 부탁은 새로운 비극의 싹을 잉태하고 있었다.

세자가 문종을 이어 단종으로 즉위하자 김종서가 좌의정, 황보인이 우의정이 되었고 왕은 형식적인 결재만을 한 채 모든 정사는 의정부에서 관할하는 이른바 의정부 서사제가 본격화되었다. 태종 때 신권의 비대를 우려하여 폐지한 의정부 중심의 정치체제가 단종의 즉위로 다시 그 빛을 본 것이다.

태종이 골육상쟁을 치르면서 확보한 강력한 왕권은 세종 시대에 이르러서는 왕권과 신권이 조화되는 형태로 나아갔지만 문종 단종과 같은 약한 왕이 연이어 즉위하면서 권력의 균형이 깨지고 신하가 주도하는 정치체제가 자리를 잡게 된다. 정도전이 그토록 희구하였던 재상중심체제로 회귀했고, 피를 보는 진통 속에서 겨우 왕권 안정을 다잡은 태종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의정부 대신들은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이유로 일명 ‘황표정사(黃標政事)’ 를 하였다. 이것은 조정에서 인사 지명권을 위임받은 신하들이 황색 점을 찍어 대상자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그만큼 신하들의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있는 제도였다. 김종서, 황보인 등은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의 3남인 안평대군과 손을 맞잡았다. 권력욕이 강하고 야심만만한 수양대군보다는 조정의 대신들과도 비교적 친밀한 교분을 가진 학자풍의 왕자 안평대군이 이들에게는 훨씬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2. 수양대군의 반격과 대호(大虎)김종서의 죽음

이러한 신하들의 권력 강화에 대해 수양대군은 칼을 갈고 있었다. 누구보다 김종서가 그의 주된 목표였다. 운명의 날 새벽, 세조는 측근인 권람, 한명회, 홍달손 등을 불러 구체적으로 김종서 제거 계획과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수양대군의 심복 임어을운이 김종서와 두 아들을 내리친 철퇴.

“오늘은 요망한 도적을 소탕하여 종사를 편안히 하겠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약속과 같이 하라. 내가 깊이 생각하여 보니 간당(姦黨) 중에서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자로는 김종서 같은 자가 없다. 저자가 만일 먼저 알면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한두 역사를 거느리고 곧장

그 집에 가서 선 자리에서 베고 달려 아뢰면, 나머지 도적은 평정할 것도 없다. (…) 지금 간신 김종서 등이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오로지 하여 군사와 백성을 돌보지 않아서 원망이 하늘에 닿았으며, 군상(君上)을 무시하고 간사함이 날로 자라서 비밀히 이용에게 붙어서 장차 불궤(不軌)한 짓을 도모하려 한다. 당원(黨援)이 이미 성하고 화기(禍機)가 정히 임박하였으니, 이때야말로 충신열사가 대의를 분발하여 죽기를 다할 날이다. 내가 이것들을 베어 없애서 종사를 편안히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사실 쿠데타 이전부터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신숙주 등 재사(才士)들과 양정, 홍달손 홍윤성 등 무사들을 심복으로 끌어들이면서 서서히 거사를 준비해 나갔다.

그리고 거사 1년 전인 1452년 9월 단종의 즉위를 인정하는 명나라 황제의 사은사를 자청하면서 자신에게는 권력욕이 없다는 것을 알려 대신들의 견제를 풀게 했다. 이때 사은사 수양과 함께 명에 갔던 것을 계기로 신숙주는 수양의 편에 서게 된다. 신숙주가 철저히 수양의 사람이 된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인연이 크게 작용했다.

귀국 후 본격적으로 휘하에 재사들과 무사들을 끌어들인 수양은 무엇보다 정국을 장악하고 있는 김종서의 제거만이 실추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믿었다. '수양대군의 장량' 으로 지칭되었던 모사꾼 한명회는 김종서와 황보인의 집에 염탐꾼을 들여 이들의 동선(動線)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충남 공주시 장기면에 조성돼 있는 김종서의 묘. 김종서는 1453년 두 아들과 함께 자택에서 격살되고 대역모반죄라는 죄명으로 효시된 계유정난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마침내 1453년 10월10일이 거사일로 정해졌다. 수양은 거사 당일 직접 김종서의 집을 방문하였다. 자신의 심복 군사 일부만을 대동하였기 때문에, 김종서는 크게 경계하지 않고 있다가 수양의 지시를 받은 심복들에 의해 아들과 함께 철퇴를 맞았다. 수양이 김종서에게 청을 드릴 것이 있다며 편지를 건넸고, 김종서가 편지를 보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임어을운이 재빨리 철퇴를 휘둘렀다.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김종서가 쓰러지자 아들 승규가 아버지의 몸을 덮었다. 그러나 다시 날아온 수양의 심복 양정의 칼을 맞고 두 사람은 쓰러졌다. 세종 때 북방 육진 개척에 큰 공을 세우며 오늘날 우리 영토를 확립하는 데 주역이 된 인물, 대호(大虎 · 큰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여진족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었지만, 수양의 계획된 기습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세종~단종 시대를 이끈 거물 정치인 김종서와 그의 아들 승규가 수양대군과 함께 온 자객들의 철퇴를 맞고 쓰러짐으로써 권력은 일순간에 수양에게로 넘어갔다. 계유정난 이후 단종은 왕의 자리를 지켰지만 실질적인 권력자는 삼촌인 수양대군이었고, 이제 단종은 허수아비 왕으로서 수양에게 왕위를 물려줄 시기만을 찾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실제 수양대군은 단종을 압박하여 1455년 조선의 7대왕 세조로 자리를 잡게 된다.

#3.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김종서 살해 후 수양은 왕명을 빙자해 황보인을 비롯한 조정의 대신들을 불러들이게 했다. 그리고 이미 한명회 등에 의해 작성되어 있는 살생부(殺生簿)에 따라 '김종서가 황보인, 정분 등과 모의하여 안평대군을 추대하려 한다' 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부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였다.

◇한명회의 수결(사인)과 세조 어필.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에 따라 황보인, 조극관, 이양 등 살부(殺簿)에 포함된 인사들은 처형되었고, 정인지, 신숙주 등 생부(生簿)에 포함된 인사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세조의 대표적인 참모가 되었다. 이날만큼은 염라대왕 못지않은 권세를 누린 한명회였다. 대군중에서 가장 큰 경

쟁자인 수양의 동생 안평대군은 강화로 유배한 후에 사사(賜死)되었다.

계유정난이 있던 날 단종은 수양에게 모든 군국(軍國)의 중사(重事)를 결정하게 했다. 수양이 정권과 병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43명의 정난공신은 단종이 책봉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모든 것이 수양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수양은 자신을 포함하여 거사에 가담한 정인지, 한명회, 권람 등 12명을 1등 공신에 포함한 것을 비롯해 43명을 정난공신에 책봉했다. 당시 성삼문은 3등 공신에 올랐다. 수양이 성삼문과 같은 인재를 포섭하려 했고, 성삼문 또한 김종서 등 노성한 신하들의 월권에 비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세조는 쿠데타 성공 이후 결국에는 왕위에까지 오른 후 집권의 명분과 도덕성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본정치와 강력한 부국강병책을 추진하였다. 세조의 참모로 자리를 굳힌 신숙주, 정인지, 양성지 등은 세조를 도와 조선전기 학술과 문화사업을 주도해 나갔다. 세조의 의지대로 태종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육조직계제가 회복되어 왕권의 강화되었다. '경국대전' 이나 '국조보감' '동국통감' 과 같은 편찬물은 왕권 강화와 함께 신하들의 역량을 적재적소에 투입한 세조 시대의 주요 성과물이었다.

세조 시대에 확립된 이러한 기반은 성종 시대 조선전기 정치, 문화를 완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조의 집권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는 논리는 세조에게도 과연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부평리에 있는 조선 세조의 능인 광릉. 사적 제197호로 지정돼 있다.

유교정치 이념으로 볼 때 세조의 집권에는 명분과 정통성, 도덕성에 하자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당시에도 사육신과 같이 수양대군에 직접 대항하다가 처형된 지식인을 비롯하여 벼슬을 버리고 재야에 은거하면서 비판활동을 전개한 학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렀고, 이들은 결국 조선전기 사림파의 뿌리가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공식 기록인 '노산군일기' 는 세조의 힘에 밀려 단종은 '노산군' 으로, 수양대군은 '세조' 로 기록하였고, 그 후의 어떤 왕도 세조의 집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었다.
단종의 묘호 회복과 사육신에 대한 복권도 200여년이 훨씬 지난 숙종 때에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1691년(숙종 17) 숙종은 사육신의 복작(復爵)을 명하면서, '이 일은 실로 세조의 유의(遺意)를 계승하고 세조의 큰 덕을 빛내는 것이다' 라고 하여 세조의 치명적인 아픔을 가능한 건드리지 않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숙종 시대에 단종과 사육신이 명예를 회복하면서 수양대군의 쿠데타에 대한 면죄부가 사라졌다.

우리의 일부가 된 귀화인들

2013.06.19 11:57

中출신 쌍기, 고려 광종때 과거제 도입 등 '개혁 전도'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장이 분석한 한국의 대표적 귀화 성씨들.

역사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귀화인이 있었다. 고려 광종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도입한 중국 출신 귀화인 쌍기,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의 일등공신이 된 이지란, 임진왜란 때 일본군 장수의 선봉이 되었다가 조선에 귀화, 모국인 일본 공격에 앞장선 김충선 등이 그들이다.

#1. 과거제도를 정착시킨 쌍기

◇과거제도를 고려 광종에게 제안한 쌍기의 활동을 기록한 '고려사 열전'.

현재까지 성공의 지름길로 인식돼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험. 관리 선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는 중국 출신 귀화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고려 광종 시절인 956년 후주인(後周人) 쌍기(雙冀)는 봉책사(封冊使)인 설문우를 따라왔다가 병이 나 고려에 머물게 되었다. 당시 개혁정치를 추진하던 광종은 쌍기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능력을 높이 샀다. '고려사' 쌍기 열전에도 "대답을 잘해 광종이 그 재주를 아끼게 되었다" 고 기록하고 있다. 광종은 후주로부터 신하로 삼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한림학사에 임명하면서 쌍기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958년 쌍기는 과거제도의 실시를 건의하였고, 그해 5월 처음 실시된 과거에서 지공거(시험을 주관하는 사람)를 맡았다. 과거제도의 도입으로 실력이 없는 개국공신이나 호족의 자제들은 점차 권력에서 멀어져 갔다. 그만큼 쌍기는 중국 출신으로서 별다른 정치적 이해가 없기에 고려의 내부인이 쉽게 시행할 수 없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이는 광종의 개혁정치와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최근 학계에서는 쌍기를 귀화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요즈음과 같이 국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던 시절, 귀화의 요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전근대사회에서는 왕이 중심이 되고 그 아래 주민은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쌍기는 광종의 교화를 입어 관직까지 받았으니 형식상으로 귀화인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쌍기 스스로가 고려인으로 생각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의 행적에서는 여전히 중국인의 생각을 가지고 중국인으로 살아간 면모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쌍기 이후 '쌍' 씨라는 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쌍기는 우리 역사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외국 출신 인물에 속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풍경을 기록한 한시각의 '북새선은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 이성계와 의형제를 맺은 여진인, 이지란

고려후기인 1380년, 왜구의 잦은 출몰로 고려 사회는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15세의 소년 장수 아지바두(阿只拔都)는 특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몽골어로 어린아이를 뜻하는 '아지' 와 대적할 수 없는 자를 뜻하는 '바두' 가 그 이름이 될 만큼 왜적의 어린 장수는 고려 곳곳을 누볐다. 그러나 고려에도 맞수가 있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 이성계와 그와 피를 나눈 형제처럼 친밀했던 여진인 출신 이지란(李之蘭)이다. 이성계는 아지바두를 제압하기 위해 이지란을 불러 자신이 활로써 그의 투구를 맞히면 이지란이 직접 달려가 그의 목을 치게 했다. 작

전은 성공했고, 장수를 잃은 왜적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 전투가 바로 황산대첩이다.

이성계와 함께 황산대첩의 주역이 되었던 이지란은 원래 여진족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성계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면서 그 뜻이 맞았고, 결국에는 조선의 건국에도 참여하였다. 이성계는 그를 개국공신 일등에 봉하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이지란은 이성계와 형제의 의를 맺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성계는 이지란을 그토록 신임했던 것일까?

◇전북 남원에 있는 황산대첩 기념비.

해답은 이성계의 출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성계의 고향은 영흥(지금의 함흥). 바로 여진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다. 당시 원-명 교체기의 혼란기에 동북방 지역은 원나라 선비 출신인 나하추 세력과 고려의 이씨 세력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원나라 때 쌍성총관부 설치 이후 100년 만에 공민왕이 이자춘 등과 합세하여 회복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성계는 나하추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북방에서 남쪽으로 이주해 온 여진족 세력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 여진족 이주민 이지란은 북청에 정착했고 이성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지란의 원래 이름은 '쿠란투란티무르' 였다. 쿠란(古蘭)은 성씨, 투란(豆蘭)은 이름이며, 티무르(帖木兒)는 남자 이름에 붙은 존칭이다. 성을 받아 청해 이씨의 시조가 되었고, 두란을 조선식 이름인 지란으로 바꾸었다.

고려후기 위기의 시기에 이지란은 타고 난 무공으로 이성계를 도왔다. 이성계는 자신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조카인 혜안택주와 혼인을 맺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왕자의 난으로 태종이 권력을 잡은 후 이지란은 고향인 동북면으로 돌아갔다가 사망하였다. 그의 졸기(卒記)는 그에 대한 이성계의 신임이 어떠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청해군(靑海君) 이지란이 죽었다. 이지란은 동북면의 청주부(靑州府) 사람이다. 옛 이름은 두란첩목아(豆蘭帖木兒)이다. 타고난 천성이 순후한 데다 무재(武才)가 있었다. 일찍부터 태상왕을 따라 정벌하는 싸움터에 나가 승첩(勝捷)하여 마침내 개국 공신의 반열에 올랐다. 태상왕이 이를 대접함에 특별히 두텁게 하고, 또 정사좌명공신(定社佐命功臣)을 주었다.

병이 더욱 위독해지자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은 본토의 사람으로 타국에서 죽은 즉, 시체를 불태워 도로 본토에 장사지내어 전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본토의 풍속을 따르게 하소서. 또 전하께서 조심조심 덕을 닦아 영원히 조선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매우 슬퍼하여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시호를 양렬(襄烈)이라 내렸으며, 장사지내기를 그의 청과 같이 하여 주었다. 세 아들이 있으니, 이화영(李和英)·이화미(李和美)·이화수(李和秀)이다." ('태종실록' 태종 2년 4월9일)

위의 기록에서 본토에 장사지내고 본토의 풍속을 따르게 하라' 고 유언한 부분은 영원히 조선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이지란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지란 초상(왼쪽)과 김충선 영정.

#3. 일본군 선봉장에서 조선 장군으로 변신한 김충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일본군 대장 가토 휘하에는 날랜 무술 솜씨를 지닌 선봉장 사야가(沙也加)가 있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며칠 후 사야가는 조국 일본을 향해 돌진하는 조선군 장수 김충선으로 변해 있었다. 사야가는 경상병사 박진에게 귀순한 후 경주, 울산 등지에서 일본군의 침공을 막아내는 데 공을 세웠다. 원래 적진의 선봉장으로 활약했던 만큼 적의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에 투항한 일본인을 '항왜(降倭)' 라 칭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는 조선 군대에 배치되었다. 김충선은 왜국의 무기는 화포와 조총인데 조선의 활과 화살로는 대적할 수 없으니 자신의 조총 제조 기술을 군중에 널리 가르쳐 전투에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이를 실천했다.

1597년 정유재란 때는 의령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으며, 전공을 인정받아 가선대부를 제수 받았다. 사야가의 뛰어난 전공을 인정한 도원수 권율 등은 그에게 성명을 내려줄 것을 청했고, 결국 사야가는 김충선으로 거듭 태어났다. 모래 사(沙) 자에서 금을 유추해 김씨 성을 받았고 바다를 건너왔다 하여 본관을 김해로 하였다. 선조, 광해군, 인조에 이르는 시기 김충선은 북방의 방어사로 임명되어 이괄의 난, 병자호란과 같은 국난의 시기에 전공을 쌓았다. 만년에는 달성군 녹촌(鹿村)에서 거주하였다. 목사 장춘점의 딸과 결혼하여 살면서 향약을 마련하는 등 조선사회에 동화된 생활을 했으며, 저서로는 '모하당집' 이 있다. 김충선은 조선에 정착한 성공한 일본 귀화인으로 꼽을 수 있다.

7년에 걸친 임진왜란 기간 동안 한 · 일 양국 간에 다수의 포로가 생겨났고, 이 중에는 김충선처럼 조국을 떠나 귀화한 인물도 많았다. 조선에서는 일본 출신 귀화인들에게 벼슬을 내리기도 하고, 성씨와 이름을 부여하여 조선에 정착하는 것을 적극 권하였다. 이름은 충선(忠善:충성스럽고 착함)이나 향의(向義:의를 향함), 귀순(歸順:순하게 돌아옴) 등으로 정해졌다.

옛사람들의 활쏘기

2013.06.19 11:56

예부터 명궁의 나라… 이유있는 양궁 강국

◇고구려 고분 무용총에 그려진 벽화 '수렵도'.

활과 우리 민족의 인연은 고대국가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이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였던 동이(東夷)라는 말의 '이(夷)' 자는 활 궁(弓)이 포함된 글자로 '동쪽의 활 잘 쏘는 민족' 의 뜻을 내포한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오래전에 주변국으로부터 활쏘기에 능한 민족으로 인식되었다.

#1. 태조 이성계의 활솜씨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이 활쏘기에 뛰어났던 사실이나 고구려 벽화에 기마 자세를 하면서도 뒤돌아 활을 쏘는 무사들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뛰어난 활쏘기 솜씨는 쉽게 접할 수 있다. 고구려의 뛰어난 활쏘기 전통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였다. '태조실록' 에서는 태조의 신기에 가까운 활쏘기 솜씨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다.

◇신하들이 쏘는 과녁에 그려진 푸른색 바탕의 사슴머리. 왕이 쏘는 과녁에는 붉은 바탕에 곰의 머리가 표적으로 그려져 있다.

"태조가 젊을 때, 정안 옹주 김씨가 담 모퉁이에 다섯 마리의 까마귀가 있음을 보고 태조에게 쏘기를 청하므로, 태조가 단 한 번 쏘니 다섯 마리 까마귀의 머리가 모두 떨어졌다."

"태조가 일찍이 한더위에 냇물에 목욕을 하고 난 후에 냇가 근방의 큰 숲에 앉아 있는데, 한 마리의 담비가 달려나오므로, 태조는 급히 박두(樸頭 · 조선시대 무과시험 때나 교습용으로 사용하던 화살)를 뽑아 쏘니, 맞아서 쓰러졌다. 또 한 마리의 담비가 달려나오므로 쇠살(金矢)를 뽑아 쏘니, 이에 잇달아 나왔다. 무릇 20번 쏘아 모두 이를 죽였으므로 도망하는 놈이 없었으니, 그 활 쏘는 것의 신묘(神妙)함이 대개 이와 같았다."

태조는 뛰어난 활솜씨로 고려말 왜구의 격퇴에 앞장서 구국의 영웅이 되었으며, 결국은 새 왕조를 건설한 주역이 되었다.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 에는 중국의 창, 일본의 칼과 견줄 우수한 무기로 활을 들고 있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부녀의 수절, 천인의 장례와 제사, 맹인의 점치는 재주, 무사의 활 쏘는 솜씨 4가지를 들고 있다. 이 기록 역시 우리 민족과 활의 불가분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활쏘기는 수양과 예의 회복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활쏘기는 단순히 무예만을 시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주례'에는 활쏘기(射)가 예(禮), 악(樂), 어(御), 서(書), 수(數) 등과 함께 육례(六禮)의 하나로 중시되었으며, '논어' '맹자' '예기' 등의 유교경전에는 '사(射)'가 무엇보다 심신의 수양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중시하였다. 예로부터 활쏘기가 수양과 예의 회복에 비중을 두고 있었음은 다음의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射)는 진퇴와 주선이 예에 맞고, 안으로 뜻이 곧고 밖으로 몸이 바른 연후에 궁시를 심고하게 잡아야 한다. 궁시가 심고한 연후에야 적중시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이로써 덕행을 볼 수 있다." ('예기' 제46편 사의(射儀))

"어질다는 것은 활 쏘는 것과 같다. 활 쏘는 것은 자신을 바로잡은 후에 발하는 것이다." ('맹자' 공손추 상)

한편 조선시대 활쏘기는 왕권의 강화나 국방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덕목이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국왕이 문무관리들과 정기적으로 활쏘기를 하는 행사인 대사례(大射禮)가 시행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에서 대사례가 시행되었던 것은 1477년(성종 8), 1502년(연산군 8), 1534년(중종 29), 1743년(영조 19) 등 4차례로 확인된다. 그러나 대사례 외에 어사(御射)·시사(試射)가 빈번하게 실시되었고, 지방에서 실시되는 향사례(鄕射禮)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

조선사회에서 사례(射禮)가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은 기록화에서도 확인된다.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에 행차한 모습을 8폭의 병풍으로 담은 '수원능행도' 중에는 정조가 득중정(得中亭)에서 활쏘기 시범을 보인 모습을 담은 득중정 어사도(御射圖)가 남아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잔치에 활쏘기가 빠지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영조 시대 대사례의 실시

1743년 영조는 성균관에서 대사례의 예를 행하였다. 영조는 대사례가 시행되는 날 200년 만에 조종의 구례를 회복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한편 자신의 나이가 50세가 되었을 때 이 행사가 열리게 되는 것을 매우 감격해하였다.

또한 200년 만에 맞는 대사례를 기념하기 위하여 각도의 관찰사 및 수령들에게 전국의 인재를 두루 뽑아 시상할 것을 명하고, 특별히 이 행사를 기록으로 남길 것을 지시하였다. 결국 이날 행사의 기록은 '대사례의궤'로 남아 조선시대 왕과 신하가 참여한 활쏘기 행사의 면모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단원 김홍도의 '필사궁'.

대사례가 성균관에서 열린 것은 국왕이 친히 성균관에서 행차하여 유생들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심신의 수양을 쌓을 것을 권장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조선시대에 성균관 유생들은 국가의 원기(元氣)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그만큼 국가에서 거는 기대도 컸다.

영조는 1743년 윤4월 7일 원유관과 강사포 차림으로 창덕궁 영화당에서 작은 가마를 타고 집춘문을 통해 궁궐을 나왔다. 궁궐을 나온 영조는 창덕궁과 연결된 성균관의 하련대(下輦臺)에 이르러 가마를 내렸으며 임시 숙소인 악차(幄次)에 들어가서 제복(祭服)인 면복으로 갈아입은 후 성균관 문묘에서 선현들을 참배하는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악차로 돌아온 영조는 익선관과 곤룡포 차림으로 성균관 명륜당으로 들어가서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신하들과 유생들을 격려한 후 본 행사인 대사례 의식을 행하였다. 대사례를 마친 후성균관 유생들을 격려하고 '희우관덕(喜雨觀德)' 을 시제로 주고 시험을 치게 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자 '희우' 로 그 기쁨을 표시하고 '예기' 에서 활쏘기를 표현한 '관덕' 이란 말을 시제로 삼은 것이다. '예기' 에는 "예로부터 활쏘기(射)는 덕을 보는 것(觀德)이며 덕은 그 마음에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활쏘기하는 것은 그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활쏘기의 목적은 마음의 수양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관덕' 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다.
영조는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활쏘기가 함축하고 있는 '관덕' 을 시제로 하여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인 것이다.

#4. '대사례의궤' 로 보는 활쏘기

영조 시대 대사례 행사는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라는 기록으로 남았다. 이 의궤에는 먼저 왕이 활 쏘는 장면을 담은 '어사례도' 와 신하, 종친들의 활쏘기 장면을 담은 '시사례도' 가 있어서 당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해 준다.

먼저 악차(幄次)에는 세 개의 단을 설치하였다. 제1단은 국왕의 자리, 2단은 순 자줏빛의 용문석(龍文席)을 깔아놓은 어사위(御射位), 3단은 종친 및 문무백관의 자리였다.

단의 동쪽에는 3개의 탁자가 놓였다. 제1탁에는 국왕의 깍지와 팔찌를 담고, 2탁에는 어궁(御弓)을, 3탁에는 어시(御矢)를 담았는데, 탁과 함은 모두 붉은색이었다. 동서 계단 아래에는 탁자 2개를 두었다. 동쪽 탁자에는 상으로 줄 표리(表裏)와 궁시를 놓았으며, 서쪽 탁자에는 벌로 줄 단술과 잔을 놓았다.

바닥을 높여 사단(射壇)을 만들고 90보 떨어진 곳에 과녁을 세운 다음 후단을 쌓았다. 임시로 설치한 어좌 앞으로는 문무의 관리들이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악차는 차일과 휘장으로 사방을 막아 국왕을 엄호하였다.

뜰의 동서에는 홍살문을 설치하여 대사례 의식의 신성함과 위엄을 더하게 하였으며, 홍살문 앞에는 헌가(軒架 · 악대)를 두어 행사의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홍살문 너머에는 과녁을 설치하였다. 왕의 과녁으로는, 붉은 바탕에 곰의 머리를 표적으로 한 웅후(熊候)를 설치하였다. 과녁은 어좌에서 남쪽으로 90보(步) 거리에 설치하였으며, 웅후로부터 동 · 서 각 10보 되는 지점에는 핍(乏:화살가림)을 설치하고 핍 안에는 좌측에 7명, 우측에 6명의 획자(獲者)를 배치하였다. 웅후와 핍은 훈련원에서 규격에 맞게 설치하였다. 훈련원 정(正)은 북 앞에 섰으며, 훈련원 정 뒤에는 국왕이 쏜 화살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배치되었다.

‘시사례도’ 는 시사자(활을 쏘는 사람)가 두 명씩 짝을 지어 활 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어사례도’ 와의 차이점은 과녁이 푸른색의 미후(사슴머리)로 바뀐 점이다. 핍 뒤에 서 있던 획자들은 화살이 꽂히면 해당하는 방위의 깃발을 들었는데, 중앙에 적중하면 적색, 상변에 맞히면 황색, 하변에 맞히면 흑색, 좌측에 맞히면 청색, 우측에 맞히면 백색의 깃발을 올렸다. 맞히지 못한 경우에는 채색의 깃발을 올렸다.

‘대사례의궤’ 에는 활을 잡은 손과 과녁에 맞힌 여부도 기록하고 있다. 전체 30명 중 왼손잡이가 12명(40%)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채롭다. 조선시대에도 생각보다 많은 왼손잡이가 있었던 것이다. 실명(實名)과 함께 적중 여부를 기록으로 남긴 것은 평소에 활쏘기를 연마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었다.

그럼 대사례는 영조에게 어떠한 의미로 담아왔을까? 탕평정치의 완성으로 강력한 왕권을 확립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백성의 교화에 진력하던 군주 영조에게 대사례는 단순한 활쏘기 행사가 아니었다.

대사례를 통해 관리들의 정신자세와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국왕의 교화가 만백성들에게까지 전파되도록 하려는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함축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행사였다. 조선시대 국왕부터 신하, 백성에 이르기까지 생활화되었던 활쏘기. 이러한 생활화의 전통이 은연중에 이어져 활쏘기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최고라는 등식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조선시대 사람들의 여름나기

2013.06.19 11:54

겨울 한강서 뜬 얼음 氷庫서 꺼내 " 어 시원타!"

푹푹 찌는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도 온갖 복장으로 위엄을 갖춘 왕실 사람이나 갓을 쓰고 도포를 차려입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모습을 떠올리다 보면 답답함이 먼저 와 닿는다. 체면상 옷을 벗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농민이나 노비처럼 시냇물에 '풍덩' 뛰어들기도 쉽지 않다. 부채를 부치면서 책을 읽으며 더위를 피해 보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가 않다. 한여름의 무더위는 조선의 왕실 사람이나 선비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더운 여름을 이겨 나갈 수 있었을까?

#1. 국가에서 관리한 한여름 얼음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었다뿐이지 선비들의 여름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네 여름나기와 비슷했다. 간편한 복장, 부채질하기, 등목하기, 서늘한 나무 그늘에서 쉬기 등등. 일부 잘나가는 양반들은 귀하다는 한강의 얼음까지 맛볼 수 있었다. 신라 시대 경주에 석빙고 유적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조상이 오래전부터 얼음을 이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겨울철 한강의 얼음을 떠서 동빙고와 서빙고에 보관하였다. 동빙고는 한강변 두뭇개, 지금의 성동구 옥수동에 있었고, 서빙고는 지금의 서빙고동 둔지산(屯智山) 기슭에 있었다. 19세기 서울의 관청, 궁궐 풍속 등을 정리한 '한경지략(漢京識略)'의 궐외각사(闕外各司) 조항에는 '빙고(氷庫)'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동빙고가 두뭇개에 있다. 제사에 쓰는 얼음을 바친다. 서빙고는 둔지산에 있다. 궁 안에서 쓰이고 백관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할 얼음을 공급한다. 이들 빙고는 개국 초부터 설치되어 얼음을 보관하고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 동빙고에 옥호루(玉壺樓)가 있는데 경치가 뛰어나다."

◇혜원 신윤복의 '주유청강'.

동빙고의 얼음은 주로 제사용으로 쓰고, 서빙고의 얼음은 한여름인 음력 5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종친과 고위 관료, 퇴직 관리, 활인서의 병자, 의금부의 죄수들에게까지 나누어 주었다. 네 치 두께로 얼은 후에야 얼음을 뜨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난지도 등지에서 갈대를 가져다가 빙고의 사방을 덮고 둘러쳤는데 냉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얼음을 뜰 때에는 칡으로 꼰 새끼줄을 얼음 위에 깔아 놓고 사람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였다고 한다. 얼음을 뜨고 저장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세종실록'에는 장빙군(藏氷裙)에게 술 830병, 어물 1650마리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나타나 얼음을 저장하는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했음을 알 수가 있다. 얼음을 빙고에서 처음 꺼내는 음력 2월 춘분에는 개빙제(開氷祭)를 열었다. 얼음은 3월 초부터 출하하기 시작하여 10월 상강(霜降) 때 그 해의 공급을 마감하였다고 한다.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여 얼음이 얼지 않으면 사한단(司寒壇)에서 추위를 기원하는 기한제(祈寒祭)를 올렸다. 영조 때에는 기한제 이후에 얼음이 꽁꽁 얼자 제관(祭官)들에게 상을 내렸다.

나라에서 설치한 빙고가 있었지만, 일반인들도 얼음을 이용하면서 점차 얼음의 수요가 늘어나자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18세기에 이르면 사적으로 얼음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한강 근처에만 30여 개소의 빙고가 설치되었다.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되어 버렸지만 1970년대까지도 얼음 채취의 명맥은 이어졌다.

#2. 산행하며 심신을 북돋운 옛 선비들

◇겸재 정선의 ‘독서유가’.

얼음 공급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위를 이겨내는 중요한 시스템이었다면, 선비들에게 일상화되었던 더위 극복 이벤트는 바로 산행이었다. 여름철 선비들은 더위를 피해 산수가 아름다운 인근의 산으로 장기간의 산행을 떠났다. 더위도 피하고 스승과 제자들이 회합하면서 학문과 현실을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산행에서 느낀 감흥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담아 기행문으로 남겼다. 선비들이 즐겨 찾았던 산은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지리산, 오대산, 묘향산, 속리산, 가야산 등 예나 지금이나 명성이 높은 산들이었다.

1558년 첫 여름 조식(曺植 · 1501~1572)은 제자들 일행과 함께 지리산 여행을 떠났다. 여름의 더위를 피해보고자 그의 제자들이 선생이 공부하던 지리산 근처에 모여 단체 산행을 한 것이다. 조식은 퇴계 이황과 같은 해에 태어나 당대에는 이황과 더불어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던 학자였다. 지리산 산행에 앞서 조식 일행은 칼국수, 단술, 생선회, 찹쌀떡, 기름떡과 같은 음식과 소합원, 청양유 같은 비상 구급약도 준비하였다.

◇경주 석빙고 전경.

조식은 산을 오르는 데만 만족하지 않았다. 지리산 곳곳의 유적들을 보고 역사 속 인물들을 떠올렸고, 신응사라는 절에 들렀을 때는 세금이 무거워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을 기록으로 남겼다. 갑자사화로 희생된 사림파 선배 학자 정여창의 거처를 지나면서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였다. 지리산 산행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라 선비로서의 위치 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재충전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기행문의 말미에서 조식은 지리산 산행을 떠난 것이 11번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만큼 지리산은 한여름의 피서처이자, 제자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공간이었다. 조식은 지리산 기행의 감상을 ‘유두류록(遊頭流錄)’이라는 기록으로 남겼다.

조식의 ‘유두류록’을 비롯해 남효온의 ‘금강산유람기’, 김창흡의 ‘오대산기행’, 채제공의 ‘관악산유람기’ 등 산행의 감흥을 기록한 선비들의 기행문은 문집 속의 기록으로 남았고, 상당수의 책은 번역까지 되어 있다. 올여름 국토와 산천의 아름다움, 그리고 역사를 노래한 선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더위를 쫓는 것은 어떨까? 우리보다 앞서 갔던 명산의 기억들을 정리한 기행문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3. 더위를 쫓는 부채의 미학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

조선시대 풍속화에도 일부 나오지만, 최근까지도 더위를 쫓는 일등공신은 부채였다. 휴대하기에 편리함과 더불어 선비들에게는 체면치레용으로, 부녀자에게는 장식품으로 부채는 활용되었다. 19세기의 학자 이유원이 쓴 ‘임하필기’라는 책에는 황해도 재령 등지에서 생산되는 풀잎으로 엮어 만든 부채인 팔덕선(八德扇)의 이야기가 나온다. 팔덕이란 바람 맑은 덕, 습기를 제거하는 덕, 깔고 자는 덕, 값이 싼 덕, 짜기 쉬운 덕, 비를 피하는 덕, 햇볕을 가리는 덕, 독을 덮는 덕 등 8가지로 부채의 실용성을 압축적이고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우리나라 문헌 가운데 부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 견훤조에 보인다. 고려 태조가 즉위하자 견훤은 사신 편에 대화살[竹箭]과 함께 공작의 깃으로 만든 부채인 공작선(孔雀扇)을 보냈다. 부채가 귀한 사람에게 주는 상징물로도 기능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조선시대 주요 왕실 행사에는 부채가 꼭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부채는 외국에도 인기가 있었다.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 부채는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몽고 등지에 국교품(國交品)으로 전달되었다. 명나라 사신들은 특히 조선의 부채에 관심을 보였다. 광해군 때인 1622년(광해군 14) 명나라 사신에게 백선(白扇) 224자루, 유선(油扇 · 기름 먹인 부채) 1830자루를 준 기록이 보인다. 일본의 도쿠가와 시대에는 조선의 부채를 모방하여 조선골선(朝鮮骨扇)을 만들기까지 하였다.

◇한겨울 강가에서 여름에 쓸 얼음을 뜨는 장빙 재연 행사.

우리 속담에 '단오 선물은 부채요 동지 선물은 책력(冊曆)'이라는 말이 있다. 음력 단오는 곧 여름이 시작됨을 의미하고 더위에 대비하여 부채를 준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조선말기까지는 공조에서 해마다 단오 부채를 만들어 왕에게 올렸고, 왕은 다시 신하들에게 하사하였다. 각 지방에서도 그곳 특산품으로서 부채를 궁중에 진상하였고, 도 관리나 친지들에게 선물하였다.

지방의 부채 중에서는 전주와 남평의 것이 좋은 부채로 인정을 받았다. 부채에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은 부채의 그림이다. 조선후기 서울의 풍속을 기록한 '경도잡지(京都雜識)'에는 '단오에 부채를 서울 관원에게 나누어주는데, 부채 면에 새나 짐승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여 부채에 그림 그리는 풍습은 오래도록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부채에 이름 있는 화가들의 그림이나 명필가의 글씨를 받는 풍습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부채 중에는 김홍도의 '서원아집' 정선의 '정양사' 최북의 '설경산수도' 등 명화(名畫)들이 많다.

◇각종 부채들

부채는 여름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숯불을 피울 때나 다리미질을 할 때 등 일상생활에 자주 활용되었다. 양반이나 부녀자가 체면용이나 얼굴을 가릴 때 쓰는 일도 흔하였다. 부채는 더위를 쫓는 가장 간단한 휴대품이자 각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품이었다. 최첨단 전자기기가 유행하는 현재에도 부채가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은 이러한 효용성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올여름 옛 선비들의 풍류가 묻어나는 부채를 들고서, 명산대천을 유람해 볼 것을 권한다. 옛 선비들의 기상까지 이어받는다면 쉽게 더위를 이겨나가지 않을까?

급사하고, 쫓겨나고...조선의 세자가 불행했던 까닭

2013.05.30 17:41

급사하고, 쫓겨나고...조선의 세자가 불행했던 까닭

[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

'세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몇 명 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로 태어나 이복형인 이방원에게 목숨을 빼앗긴 이방석. 태종 이방원의 아들로 태어나 14년간이나 세자 생활을 하다가 전격적으로 교체된 양녕대군.
선조의 서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냉대 속에 갖은 설움을 다 겪다가 임진왜란 때 세자가 되어 전쟁을 총지휘했으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아버지의 외면을 받은 세자 시절의 광해군.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간 뒤 아버지인 인조의 의심과 견제를 받다가, 귀국하자마자 의문의 죽임을 당한 소현세자.



▲〈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 표지.

ⓒ 돌베개

열 살 때부터 기득권층과 외척세력을 비판하다가 스물여덟 살 젊은 나이에 뒤주(곡식 상자)에 갇혀 사망한 사도세자. 세도가(권세가)의 힘에 밀려 왕권이 약해진 순조시대에,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며 기득권층을 긴장시키다가 스물두 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효명세자 등.

이처럼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세자들은 대개 다 불운했다. 우리에게 친숙한 세자들 중에서 잘 된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설이나 사극에서 불행한 세자들의 사례만 다룬 탓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렇지는 않다. 실제로도, 세자들의 운명은 행복보다는 불행에 더 가까웠다.

한국사 혹은 한국학 학자들인 심재우 · 임민혁 · 이순구 · 한형주 · 박용만 · 이왕무 · 신명호가 공동 집필한 〈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란 책에 나오는 세자들의 운명은 그다지 밝지 않다. 세자란 위치는 왕위를 보장받는 전도유망한 자리라기보다는,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는 불안한 자리에 더 가까웠다.

왕을 다루는 제왕학에 관한 서적은 쉽게 접할 수 있다. 각계각층에서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오피니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런 책들이 출판시장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 '미래의 왕'인 세자를 다루는 이른바 '세자학'은 아직은 낯설다. 〈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는 그런 낯선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책이다. 교양서와 학술서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세자 문제를 탄생, 책봉, 교육, 결혼, 대리청정(주상 직무대행), 문학 생활, 인간관계 등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세자에 대한 개론서 혹은 개설서를 시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자와 관련된 각종 의식이나 절차를 세밀하게 설명한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다. 또 어느 시기에는 세자 책봉을 먼저 하고 관례(성인식)를 나중에 했고 또 어느 시기에는 그 순서가 서로 뒤바뀌었는지 하는 식으로, 의식과 절차의 변천 과정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세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이 보여준 특징 중 하나는, 역사와 문학의 접목을 통해 세자들의 내면세계까지 들여다보려 했다는 점이다. 이 책 제5부에서 사도세자와 효명세자의 한시를 읽다 보면, 좁은 구중궁궐에서 바깥세상을 품으려 했던 그들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세자 문제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들여다보려고 한 것은 꽤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세자들은 왜 그렇게 '불운'했을까



▲조선 세자의 모습. 종묘의 세자재실에 전시된 밀랍인형이다.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소재.

ⓒ 김종성

세자 문제에 관한 개론서에 가깝기는 하지만, 세자들이 대체로 불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 책을 읽는다면 독서의 재미가 훨씬 더 배가될 것이다.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읽어보니, 필자의 주관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자를 선정하고 교육하고 보호하는 조선의 후계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조선의 세자 시스템 혹은 후계자 시스템은 실패한 시스템이란 느낌이 든 것이다.
조선시대에 가장 정통성 있는 군주는, 왕비의 몸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세자에 책봉된 뒤에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장남은 적장자로 불린다. 다시 정리하면, 적장자로 태어나 세자를 거쳐 왕이 되는 것이 군주의 정통성을 갖추는 코스였다.

27명의 조선 군주 중에서 이런 요건에 부합하는 왕은 문종 · 단종 · 연산군 · 인종 · 현종 · 숙종 · 순종 7명밖에 없었다. 정통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춘 군주가 전체의 25.9%밖에 안 됐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의 후계자 시스템이 정통성 있는 군주 후보자들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 289쪽에 제시된 표에 따르면, 사후에 왕으로 격상된 추존왕(예컨대 덕종 · 익종 등)의 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주상의 세자로 살았던 사람은 총 29명이었다. 이 중에서 왕이 된 사람은 65.5%인 19명이지만, 그중에서 정통성 있는 군주로 거듭난 인물은 위의 7명뿐이었다.

이것은 29명 중의 세자 중에서 34.5%인 10명은 왕이 되지 못한 채 죽거나 쫓겨났고, 왕이 된 19명 중에서 63.2%인 12명은 정통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의 후계자 시스템이 그만큼 비효율적이었던 것이다. '세자' 하면 불행한 인물들만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자들이 대체로 불행했던 이유는 아버지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득권층과의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외척세력을 포함한 기득권층과 갈등을 빚은 세자들은 대개 다 끝이 좋지 않았다.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도 그랬고,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도 그랬다.

〈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 259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기간에 외할아버지인 김조순의 계열을 숙청하고 친정체제 구축을 시도했다. 안동 김씨가 최고 권력을 잡고 있던 시절에 효명세자는 그 최고 권력에 도전했던 것이다.

이 책 190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득권층이 보기에 '싹수가 노란' 효명세자는 스물두 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피를 토하고 세상을 떠났다. 건강하고 젊은 세자가 이렇게 죽자 독살설이 제기됐지만, 진상은 파헤쳐지지 않았다. 기득권층이 진상 규명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기득권층과의 관계가 안 좋은 세자들은 하나 같이 불행했다는 점은, 조선의 후계자 시스템이 기득권층으로부터 세자를 보호하는 데 취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세자를 교육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정치 공세로부터 세자를 지키는 데는 무기력했던 것이다.

최고 권력은 자기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것



▲효명세자(익종 · 문조)의 무덤인 수릉. 경기도 구리시 동구동의 동구릉에 있다.

ⓒ 김종성

사실, 후계자 시스템의 취약성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밀어주는 인물보다는 의외의 인물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훨씬 더 많았다. 이기붕 · 장세동 · 박철언 · 강삼재 · 김현철 · 박지원 · 이광재 · 김근태 · 정동영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후원을 받으며 일찌감치 주목을 받은 인물들이 대통령이 된 예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최고권력은 남한테서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현직 주상의 보호를 전제로 하는 조선의 세자 관리 시스템이 결국 실패한 것은 이 같은 권력의 속성 때문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왕이 되는 것보다는 남(현직 주상)의 보호 하에 왕이 되는 게 어쩌면 훨씬 더 힘들 수도 있다. 왕이 될 사람은 세자가 안 돼도 왕이 되고, 왕이 안 될 사람은 세자가 돼도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를 덮었다.

한편, 이 책을 읽으면서 조선 후계자 시스템의 또 다른 기능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후계자 시스템이 세자의 자격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격자를 거르는 기능도 했다는 점이다. 이에 적합한 사례로 양녕대군을 들 수 있다. 학업을 소홀히 하고 툭하면 섹스 스캔들을 일으키다가 결국 신하들의 비판을 받고 물러난 양녕대군의 사례는, 세자 시스템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순기능도 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들이 앞으로 개정판을 낼 때 참고했으면 하는 사항을 세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의 세자 제도가 고려 후계자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조선의 제도가 조선시대에 처음 생긴 듯이 기술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조선의 국가제도가 기본적으로 고려의 제도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자 제도 역시 고려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둘째, 연도상의 오류가 군데군데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 책 166쪽에서는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이 1749년 1월 22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는 1749년 3월 10일이었다. 실록에는 이 날이 '영조 25년 1월 22일'로 표기되어 있다. 영조 25년 1월 22일은 음력이다. 이것을 양력으로 바꾸려면, 영조 25년만 양력으로 바꿀 게 아니라 1월 22일도 함께 바꿔야 한다.

셋째, 공동 저작이다 보니, 특정 문제에 대한 관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사도세자가 정신이상자였다는 〈 한중록 〉의 기록이 거짓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내용을 기술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사도세자가 실제로 정신이상자였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내용을 기술했다.

이런 '옥에 티'만 제거한다면, 〈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는 훨씬 더 유익한 세자학 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계기로 한국 역사학이 제왕학 위주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http://media.daum.net/culture/book/newsview?newsid=20130422171707850

조선시대 양반들의 성문화

2013.05.01 17:57

성욕은 식욕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고대 이래로 수많은 성의학서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방중술에 대한 사람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소녀경』이나 『옥방비결』 등의 책들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오늘날 이러한 책자는 온전하게 남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성문화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나라의 동중서 이후 유학이 뿌리를 내리면서 노골적인 성행위와 관련이 있는 책들은 퇴폐서라 하여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러한 영향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에도 미쳤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조선시대 방중술의 핵심은 정액은 타고날 때부터 한정된다고 보아 정액을 아끼는 것에 있다. 전기의 방중술을 대표하는 책으로 세종 때 편찬한 『의방유취』란 의학서가 있다. 이 책의 요점 또한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살기 위해서는 정액을 아끼라는 것이다.

"방중의 방법은 방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요구만 만족시키고 정액을 보존하는데 힘써 섭생의 범위를 넓히려 하는 것이며, 체력을 강하게 하고 여색을 가까이 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해서 병을 없애려는 것이다"

방중술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정액을 배설하는 것은 곧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라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기 위해서 정액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하였다. 상황이 이럴진대 쓸데없는 곳에 정액을 허비할 수 있겠는가.

유교가 자리를 잡은 중기 이후에는 절욕을 중심으로 한 방중술이 한층 강력하게 요구되었다. 광해군 때 이정창이 지은 『수양총서류집』을 보자. 그는 '기욕을 반성함'이란 편을 두어 성욕을 끊는 방중술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남녀의 화합이란 천지 만물 화생의 자연스런 과정이지만, 지나친 성욕은 원기를 갉아먹어 생명을 해친다" 더나아가 성교의 횟수와 합방을 해서는 안 되는 금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성교의 횟수에 있어 20세 이전은 이틀에 한 번, 20~30세는 사흘에 한 번, 30~40세는 열흘에 한 번, 40~50세는 한 달에 한 번, 50~60세는 7개월에 한 번, 60세를 넘기면 한 번도 하지 말라."

" 남녀가 합방해서는 안 될 때에 대해서는 술에 취했거나 화가 났을 때, 과식하였거나 몹시 덥거나 추울 때, 심지어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와 천둥번개가 치거나 무지개가 뜰 때도 금지하라"고 했다.

조선 후기에도 성욕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성문화의 관점은 변함이 없다. 홍만선은 『산림경제』에서 "사람의 욕심 중에 색욕보다 강한 것은 없다. 오직 도를 아는 선비는 아무리 아름다운 여색이 앞에 있어도 눈으로 즐길 뿐 성욕이 내키는 대로 움직여 생명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유학을 신봉한 선비들은 성이 인간의 본성임을 인정하면서도 즐거움에 앞서 절제하는 성문화를 유지해 왔다.

그렇지만 축첩제도를 인정하여 대개의 선비들은 부인 외에도 첩을 한두 명씩 거느리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잘못된 반정(反正)과 비운의 왕, 광해군

2013.05.01 17:53

광해군은 1637년(인조 15년)에 강화도에서의 오랜 유배생활 끝에 절도의 유배객으로 제주로 오게 된다. 광해군은 1623년, 재위 15년 만에 폐위되어 강화도에 유배된 후, 몇 번을 옮겨 다니며 강화도의 작은 섬 교동도에 있다가, 제주도로 옮겨졌다. 당시 조정에서는 광해군에게 유배 지역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널 때는 배의 사방을 모두 가려 밖을 보지 못하도록 하여 제주에 유배시키는 것을 비밀리에 행하였다고 한다.

배가 제주도에 도착한 후 비로소 장막을 걷어 경호역인 별장 이원로(李元老)가 제주도라고 말하자, 광해군은 매우 놀란 눈으로 "어째서 여기에! 왜 어째서!" 라고 되풀이 말하며 개탄했다고 전해진다. 1637년 6월 6일 어등포(구좌읍 행원리)로 입항하였고, 다음날 성내로 들어와 망경루 서쪽에 있는 적소에 위리안치하였다고 한다.



▲ 광해군 적소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현재 동문로 기업은행 자리와 중앙로 국민은행 중앙점 자리라고도 하는데, 제주시에서 세운 〈광해군 적소터〉 표석은 국민은행 앞에 서 있다.

1638년(인조 16년) 심연이 제주목사로 있을 때, 인조가 광해군에게 여름과 겨울에 의복을 보내도록 명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1640년(인조 18년) 9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시방이 광해군을 잘 돌보았으나, 결국 1641년(인조 19년) 7월 1일 적소에서 지난했던 생을 마감한다. 이때 그의 나이 67세였다. 광해군이 사망하자 제주목사 이시방은 제관을 적소로 데려가 직접 습렴(襲殮)하였으며, 제주도민들은 조정에서 예관이 도착할 때까지 예를 갖추어 호상(護喪)하였다.

인조는 예조참의를 제주에 파견하여 광해군의 시신을 수습, 빈소를 관덕정으로 옮겨 장례를 지내고, 8월 18일 제주를 출항, 경기도 양주에 묻었다. 《제주도민요해설》(성문사, 1963)에는 "칠월도 초하루는 대왕이 돌아가신 날, 볕이 쨍쨍한데도 비가 내리고 있다." 는 민요가 수록되어 있어, 광해군이 돌아간 음력 7월 1일에는 반드시 비가 내린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조선 영조 때의 실학자였던 이긍익(李肯翊: 1736~1806)이 지은 조선시대의 빼어난 야사집인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9권 〈폐주 광해군 고사본말(廢主光海君故事本末) 광해군〉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광해군의 휘는 혼(琿)이며, 선조의 둘째 아들이요, 공빈(恭嬪) 김씨가 낳았다. 을해년에 나서 처음에 광해군으로 책봉되었다가 만력(萬曆) 기유년에 왕위에 올랐고 천계(天啓) 계해년에 폐위되니 왕위에 있은 지 15년이었다. 강화에 방치되었다가 갑자년에 이괄의 난리로 인하여 태안(泰安)으로 옮겼고 반적(叛賊)이 평정된 다음 강화에 돌아왔다.

병자년(1636) 겨울에 교동도(喬桐島)에 옮겼다가 정축년 2월에 제주(濟州)로 옮겼다. 신사년에 죽었는데 인조 19년 67세였다. 양주(楊州) 적성동(赤城洞) 해좌(亥坐) 언덕에 장사 지냈는데 공빈의 무덤과는 소 울음소리가 서로 들릴 만한 거리였다.

○ 신해년에 존호(尊號)를 체천희운준덕홍공(體天熙運峻德弘功)이라고 올렸고 병진년에 존호를 서이입기명성광렬(敍彝立紀明誠光烈)이라고 올렸다.

○ 폐비(廢妃) 문성군 부인(文城郡夫人) 유씨(柳氏)는, 판윤(判尹) 자신(自新)의 딸로 병자년에 나서 계해년 10월에 죽었는데, 향년 48세이며 적성동에 장사 지냈다. 광해의 무덤과 같은 언덕이면서 무덤은 다르다.

○ 폐세자(廢世子) 지(?)는 무술년에 나서 경술년에 관례(冠禮)를 거행하고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계해년에 폐위되었다. 뒤에 강화에 보냈더니 7월에 땅굴을 파고 몰래 빠져 나왔으므로 사헌부에서 논계(論啓)하여 사사하였는데 나이는 26세였다. 양주 수락산(水落山) 옥류동(玉流洞)에 장사 지냈다.

○ 폐세자 빈(嬪) 박씨는 무술년에 났고 계해년 5월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한국고정종합DB, 고전번역총서)

폐위된 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행적과 일가의 시말을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글이다. 이 기록으로 보아 광해군과 왕비, 아들과 며느리까지 제명에 살지 못하고, 멸절당했음을 보여준다. 무엇이 이토록 철저히 이들을 파괴시켜야 했을까? 전쟁 상황이나, 민중의 혁명으로 혁파된 왕조도 아닌데, '광해', 그는 용맹과 지략을 갖춘 뛰어난 왕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한 조선의 왕으로 불명예스럽게 역사에 남았다.

역대 조선의 왕들 중 시대를 넘어 현대의 우리들에게까지 기억에 남는 왕들은 그리 많지 않다. 꼽으라면, 당연히 한글 창제자이자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과 개혁군주였던 정조 정도 아닐까? 필자는 조선의 왕 중 비록 재위기간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공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광해군 역시 그들에 견줄 만한다고 생각한다.

폐주(廢主), 소위 폐위된 국왕을 이르는 호칭이다. 폐주였던 광해군은 비운의 국왕이었지만, 재위기간 동안의 그의 공과(功過)는 요즘 날이 갈수록 새롭게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명청 교체기의 틈바구니에 낀 동아시아 대격변의 국제정세 속에 소위 '중립외교'로 알려진 그의 '등거리외교' 전략은, 요즘 강대국의 틈새에 끼인 우리나라의 현실과 대비되면서 재조명받고 있으며, 또한 재위기간에 경기도 일원에서 처음 실시한 '대동법'은 폐단이 극에 달했던 방납제(防納制)를 혁신하는 새로운 조세제도로서 위민군왕으로서의 광해의 면모를 다시 보게 하는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오항녕 교수(전주대 역사문화학과)는 최근 출간된 그의 책《광해군, 그 위험한 거울》에서 광해군의 재위기간을 잃어버린 15년이라 표현하면서, "그는 본보기가 될 거울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망칠 위험한 거울입니다."라고 정면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이처럼 광해군은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 그 평가가 극적으로 갈리는 문제적 인물이다. 과거에는 동복형과 이복동생을 죽이고 대비를 폐한 패륜을 저지른 폭군, 오늘날에 와서는 임진왜란 이후 명-청을 상대로 실리적인 중립외교를 펼쳤으며, 백성을 살리려는 애민성군으로 평가되는 두 얼굴로.

사실, 기록만을 통해 본 광해는 준비된 군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특히 역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주변 강대국들에 휘둘려 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외치(外治)에서도, 명(明)나라에 대한 국가적 자세를 '근사대지예(謹事大之禮)'라 떠받들던 사대국(事大國)의 국왕으로서의

한계를 넘어, 능란한 등거리외교를 구사했던 국왕이었다는 점에서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도드라진 국왕이기도 했다.

이러한 광해군은 조선시대 내내 폭군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는데, 광해군을 역사상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유감스럽게도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와 '다카와 고조(田川孝三)'라는 일본인 학자들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만선사관론자(滿鮮史觀論子)이자 청조옹호론자(淸朝擁護論子)들로, 중국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선이 만주와 일체라는 논리를 펴고자 그 근거를 찾다 보니 광해군을 평가하게 된 것이다.

후금, 즉 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광해군을 띄워서 만주와 조선 반도의 역사를 하나로 엮어보려 했던 것이다. 일제는 결국 만주를 침략한 후, 폐위된 청조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데려다, 만주국이라는 일제의 괴뢰국을 세운다. 이를 근거로 오항녕 교수(전주대 역사문화학과)는 광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친일식민사학의 폐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처음 광해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해서, 광해를 새롭게 해석해내고 평가해내는 것에 흠이 되는 일은 아니다. 문제는 광해의 역사적 실체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고 평가해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폐주(廢主), 광해의 시대, 그의 궤적

광해군 재위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동아시아 국제대전이라 부를 만한 〈임진왜란〉의 격동이 한차례 지나간 후, 급격하게 그 세력이 재편되고 있었다. 명은 황제의 태업과 환관들의 부패와 횡포, 그로 인한 잦은 민란의 발생, 밖으로는 북로남왜(北虜南倭), 즉 왜구와 몽골, 후금의 공격에 시달리며, 지방 세력들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군대의 부패, 또한 임진왜란에 무리하게 병력을 파견하여 국력을 소모한 후폭풍으로 나라가 급격히 쇠락해 가는 상황이었다.

후금은 임진왜란 당시 만주에 대한 명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건주좌위(建州佐衛)의 수장(首長) '누르하치'가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1616년(광해군 8년) 스스로 한(汗)의 위(位)에 올라 국호를 후금(後金)이라 하고, 흥경(興京-현재의 중국 랴오닝성 허투알라)에 도읍하면서 새로운 동아시아의 강자로 급부상하는 상황이었다.

일본은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중에 죽고, 한반도 원정에 실패하면서 다시금 중앙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다이묘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다이묘 중 유일하게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은거해 있으면서 군사를 비축해 두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에 나갔던 출병 다이묘들을 회유하여 자신의 휘하에 모으고, 각지의 다이묘들과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그 힘을 더욱 키워 전후 전국을 통일하고, 급기야 1603년 세이이타이쇼군(征夷大將軍)의 자리에 올라 마침내 250여 년간 일본을 통치하는 〈에도 막부〉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토는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그 피해에 손도 대지 못하면서, 백성은 도탄에 빠졌으며, 국가존망까지 치달았던 '대환란'을 겪었던 조선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는 후금의 성장을 주시하면서 북방의 성곽과 병기를 수리하는 한편, 조총청이라는 화기도감(火器都監)을 두어 총포를 제작하고, 조총부대를 새로이 창설해 군사적으로 방비하였다. 일기에 따르면, 광해군은 당시 조정대신들이 명분만을 쫓아 실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한다.

중국의 일의 형세가 참으로 급급하기만 하다. 이런 때에 안으로 스스로를 강화하면서 밖으로 견제하는 계책을 써서 한결같이 고려(高麗)에서 했던 것과 같이 한다면, 그럭저럭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인심을 살펴보면 안으로 일을 힘쓰지 않고 밖으로 큰소리치는 것만 일삼고 있다. 조정의 신하들이 의견을 모은 것을 가지고 보건대, 무장들이 올린 의견은 모두 (압록)강에 나가서 결전을 벌이자는 의견이었으니 매우 가상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무사들은 어찌하여 서쪽 변경은 죽을 곳이라도 되는 듯이 두려워하는 것인가. 고려에서 했던 것에는 너무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부질없는 헛소리일 뿐이다. 강홍립 등의 편지를 받아 보는 것이 무엇이 구애가 되겠는가. 〈이것이 과연 적과 화친하자는 뜻이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끝내는 반드시 큰소리 때문에 나라 일을 망칠 것이다.(《광해군일기》 신유년 6월 6일)

1616년(광해군 10년) 명과 후금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고 명의 원군요청이 있자, 그는 임진왜란 이후 나라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핑계를 대어 미루다가 조정대신들의 반발에 결국 강홍립에게 병사 1만을 주어 파병하면서

"우리는 대의명분상 어쩔 수 없이 출병하는 것이고, 우리의 힘은 약하니 후금을 적대해서는 안 된다.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

(《연려실기술》 권21, 〈폐주광해군고사본말〉

심하지역)는 밀지를 내려 후금에 어쩔 수 없는 전쟁임을 알려 투항케 하는 등 군사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중립외교를 펼쳤다.(이는 후에 인조반정의 중요한 명분 중 하나로 지목된다.)

또한 일본과는 1609년 기유조약(己酉約條)을 체결하여, 왜란 이후 중단되었던 외교관계를 재개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인을 귀환시켰다. 또한 그 와중에도 일본의 앞선 조총기술을 받아들인다.



▲ 조선 후기 김후신(金厚臣)의 그림으로, 강홍립 등이 금에 투항하는 장면을 그린 〈양수투항도〉. 『충렬록(忠烈錄)』의 일부분이다.

내치(內治)의 업적을 보면, 광해군 원년(1608), 양반층과 중간상인들의 폐단이 극에 달했던 방납제를 개혁하는, 조선시대 조세혁명이라 불리는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한다. 대동법은 그야말로 조세혁명이었다. 공납을 쌀이나 포로 받는 정책을 실현시킨 것인데, 특산물에 대해 양반들과 방납자들이 중간에서 취하는 '유통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돈 있는 자는 '더', 없는 자는 '덜' 내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당시로는 상상하기도 힘든 조세 개혁이었다. 대동법은 율곡 이이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였고, 광해군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던 것이다. 물론 경기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양반기득권층의 반발은 심했다. 찬반양론의 격돌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결국 숙종 때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른다.

또한 1611년에는 조세제도의 바탕이 되는 농경지의 실제 경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토지측량제도인 양전(量田)을 실시하여 국고를 튼튼히 했으며,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궁성을 중건했다. 이는 실추된 왕권 강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이기도 했다.(왜란을 겪으면서 정궁인 경복궁과 창덕궁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이 때문에 정릉의 양반가를 개조해 궁궐 대신 사용했다. 그러므로 궁성의 복원과 신축은 충분히 명분이 있는 일이었지만, 당시 전후의 피폐한 상황에서 무리한 궁성 복원과 신축은 국가적 역량을 소모하고 백성의 노역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임란부터 얻은 백성들의 군왕에 대한 신망을 거두게 하는 구체적 요인이기도 했다. 궁성의 중건은 인조반정의 또 다른 명분이 되기도 한다.)



▲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광해군이 복원했다고 전하는 창덕궁 〈인정전〉

특히,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간행한 것은 그의 애민의지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다른 왕이었다면 동의보감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광해군 즉위 직후인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망령되이 약을 써서 선조를 죽게 했다." 는 죄로 유배 길에 올라야 했다. 광해군은 신료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양 중인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할 수 있게, 도성을 출입하고 내의원의 의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동의보감》은 전란으로부터 시작된 굶주림과 전염병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선조의 명으로 시작되었다. 왕명을 받은 허준은 당대의 인재들과 함께 편찬 작업에 들어갔으나 나중에는 단독으로 작업했다. 14년에 걸쳐 총 240여 종의 의서들을 참고하여 쓴 책이 《동의보감》이다.

전란의 와중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전후에도 빈발하는 질병 때문에 의약 전반에 대한 수요는 높아졌지만, 그에 대한 의료진과 약재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중국산 약재는 값이 비싸 구하기 힘들었으며, 가난한 백성들이 의약의 혜택을 받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허준은 이 같은 현실에서 값비싼 중국산 약재 대신 조선의 토산 약재를 이용하여 치료하기 쉽게 하고, 구하기 쉬운 약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또한 지극히 방만하고 번잡했던 중국계의 의학서적을 짜임새 있게 우리나라에 맞게 정리했다. 그렇게 탄생한 《동의보감》은 광해군의 후원 없이는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임란 당시 병화로 소실된 서적의 간행에도 주력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을 재간하고, ≪국조보감(國朝寶鑑)≫ · ≪선조실록(宣祖實錄)≫을 편찬, 보급했다. 한편, 임란의 경험을 토대

로 후금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될 상황에 대비하여 실록의 보존을 위해 적상산성(赤裳山城)에 사고(史庫)를 설치하였다.

왕이 되기 이전의 '광해', 즉 '세자 광해' 또한 그 치적이 만만찮다. 조선의 정궁이었던 경복궁, 일제 때 훼철된 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복원 중에 있는 서울 한복판의 경복궁은 왜군이 불태운 것이 아니다. 서울을 버리고 의주로 몽진(蒙塵)을 떠나는 선조의 행차에 분개한 한양의 백성들이 태워버린 것이다. 어쩌면, 조선은 그때 멸망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도성을 떠나 피난지 평양에서, 그동안 선조가 내키지 않아 미루던 광해의 세자 책봉이 서둘러 이루어지고, 의주로 가는 길에 영변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분조(分朝)를 위한 국사(國事) 권섭(權攝)의 권한이 광해에게 위임된다.

도피해버린 국왕을 대신해 얼떨결에 세자에 책봉되어 졸지에 분조(分朝)를 경영하게 된 것이다. '분조'란 '조정을 나눈다'는 말로,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라는 왕명에서 나온 소조정(小朝廷)이다. 분조를 이끈 광해는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를 돌면서 의병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수행한다. 심지어 호남지역까지 몸소 내려가 독려한다. 국왕이 해야 할 일을 왕세자가 한 것이다. 이는 정말 위험천만한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해는 이 일을 훌륭히 해냈으며, 몽진으로 인한 백성의 민심을 다시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한다. 백성들은 이러한 광해를 크게 따른다.

여기까지가 국왕 광해의 통치행적이다. 도대체 조선의 왕 중 이만한 치적을 가진 왕이 몇이나 될까? 외교와 군사, 전후 복구와 정비, 전쟁 중의 분조활동 등 청년기부터 재위시기까지 일관되게 왕다운 왕이었으나, 그는 왕으로 죽지 못한 비운의 조선 왕이 되고 말았다.

광해의 발목을 잡은 적통승계의 명분론

이런 그의 비극은, 이러한 통치행위에도 불구하고 왕조시대의 적통승계논리에서 비롯된다. 이른바 정비(正妃)의 왕자가 아니라 후비(后妃)의 왕자라는 서자의 비극, 조선의 신분계급의 비극과 왕실의 적자승계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그 아비이자 조선시대 왕 가운데 가장 무능했던 왕으로 평가되는 선조의 적통콤플렉스에서 시작된 이 비극은, 결국 광해군의 정치생명을 끝내는 요인으로 작용, 끝까지 그의 발목을 잡아맨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27대 왕 중 적장자가 왕이 된 경우는 단 7명에 불과하다. 또한 적장자 승계자가 반드시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던 것도 아니다.

선왕인 선조는 중종(中宗)의 서자였던 덕흥군(德興君)의 셋째 아들이었으니, 서자의 셋째가 왕이 될 것은 꿈에도 모를 일이었다. 선조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선왕인 명종이 34세라는 젊은 나이로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후 선조는 재위기간 동안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약점을 늘 의식했는데, 세자인 광해가 왕재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끝내 적통왕자가 왕위를 잇기 바란 데서 비극은 시작되었다.

준비된 왕재보다 적자혈통에 혈안이 되었던 왕이 뿌린 씨였다. 선조는 죽기 직전까지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교체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하지만, 결국 선조는 광해군의 왕위계승을 인정하는 선위교서(임금이 자리를 물려주면서 내리는 교서)를 내린다. 당시 영창대군은 2살이었다. 하지만, 광해군은 선조 사망 직후 영창대군을 보위하려던 영의정 유영경의 모략 때문에 선조의 선위교서를 받지 못해, 인목대비의 언문 교지로 겨우 왕위를 넘겨받은 처지가 되고 만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른 광해군. 그는 늘 불안정한 왕위를 걱정해야 했다. 왕위 계승자로서의 정통성의 결여 때문에, 또 그것을 물고 늘어지려는 세력들 때문에 늘 전전긍긍해야 했다. 결국 이러한 정통성의 불안은 무리한 왕권 강화에 대한 강박관념을 지니게 했고, 그 결과 대북파의 정치적 야욕에 휘둘리면서, 소위 '폐모살제(廢母殺弟)'의 패륜을 저지른 폐주로 역사에 남고 만다.

'폐모살제', '부모를 폐하고 동생을 죽인다'는 이 살벌한 죄명은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폐비시킨 일을 가리킨다. 폭군 광해군의 근거가 되는 움직일 수 없는 빌미를 주고 만 것이다. 사실 '폐모살제'의 원조는 조선 3대 국왕인 태종 이방원이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위해, 태조의 뜻을 어기고 두 번이나 속칭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태조가 책봉한 이복형제인 세자와 그 아우, 조선의 설계자라 불리는 정도전과 개국공신들, 동복형제인 자기 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후에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들인 세종의 장인까지도 주살한다. 그런 그에 대해서는 성군 세종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는 조선 사대부들이 그의 후손인 광해군은 패륜으로 낙인찍고, 심지어 폐주로 만들어 왕조 말까지 한갓 광해군이란 명칭으로 남게 했다. 참으로 야속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광해군은 즉위 초, 자신의 왕위 등극을 직접적으로 엄호했던 대북파뿐만 아니라 서인과 남인, 즉 당파를 초월해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면서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복구하고 대동법을 시행하는 등 많은 업적을 쌓았다. 광해군은 당쟁의 폐해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초월하여 탕평의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남인인 이원익(李元翼), 서인이었던 이항복(李恒福), 남인이었던 이덕형(李德馨) 등 명망 깊은 인사를 조정의 요직에 앉혀, 실로 서인, 남인, 북인을 모두 아우르면서 어진 정치를 행하려 했다.

하지만 집권주도세력이지만 소수파였던, 이이첨과 정인홍 등이 주축인 '대북파'는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한 기관인 삼사(三司-司憲府 · 司諫院 · 弘文館)에 포진해 있으면서, 취약한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둬가면서 서인 및 남인 등과 당파적으로 충돌한다.

이들은 광해군의 왕위에 대한 불안감과 콤플렉스를 자극해, 지속적으로 정적들을 숙청해 나갔는데, 맨 먼저 1608년 광해군의 형인 임해군을 유배 보내 사사한다. 그리고 1612년(광해군 4)에 일어난 '김직재 옥사'로 선조의 손자인 진릉군(晋陵君)이 유배 후 사사되고, 김직재, 김백함 부자가 처형당했으며, 김제, 유열 등 1백여 명의 소북파 인사들이 대거 숙청당했다.

또한 1613년 '칠서의 옥' 또는 '계축사화(癸丑士禍)'라 불리는 사건을 통해, 광해군의 이복동생인 8세밖에 안 된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과 세 아들을 죽여 버리며, 이를 빌미로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하여, 1618년 인목대비를 폐비시키고 서궁에 유폐시킨다. 이 사건으로 즉위 초기 폭넓게 기용하였던, 영의정 이덕형, 좌의정 이항복을 비롯한 서인, 남인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고, 대북파가 정권정국을 독점하게 된다. 이후에도 '신경희 옥사'를 통해 능창군마저 제거해버린다. 이 능창군은 나중에 반정의 왕으로 옹립된 능양군(인조)의 동생이다.



▲ 경운궁(덕수궁)의 편전인 석어당은 궁 내의 유일한 2층 건물로 임란 당시 선조가 피난으로부터 환도하여 승하할 때까지 16년간 거처한 곳이다. 1618년(광해군 10년) 광해군은 인목대비를 폐위시켜 경운궁에 유폐시키고

경운궁을 서궁이라 낮춰 불렀다. 그러나 1623년 반정의 아침, 인목대비가 이 건물 앞마당에 광해군을 꿇어 앉혀 36죄목의 죄를 물어 폐위시킨 뒤 강화로 유배 보낸 장소이기도 하다.

대북파의 정적 제거를 위한 이러한 일련의 옥사들은 광해군을 '폐모살제'의 혼군(昏君)으로 몰아갔고, 이는 반정의 결정적 명분이 된다. 명에 대한 군사파병과 관련된 '재조지은'과 함께. 그러나 영창대군이나 능창군을 죽이는 일은 광해군의 재가 없이 이이첨과 그 수하들이 벌인 일들이었다. 인목대비만은 대북파의 지속적인 사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이 끝내 거부함에 따라 유폐로 마감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광해의 거부에 의해 목숨을 부지해 5년 동안 서궁에 유폐되었던 인목대비가 반정 직후 반정군의 대신 · 제장들이 달려가 인조의 왕위를 속히 결정할 것을 청하자, "먼저 이혼(李琿 - 광해군)의 부자의 머리를 가져와서 내가 직접 살점을 씹은 뒤에야 책명을 내리겠다." 고 일갈했다는 것이다.(《광해군 일기》, 계해년(1623년) 3월 13일자 내용 중).

뛰어난 왕재였던 광해를 끌어내린 것은, 그 왕재를 꽃피울 권력의 자리인 '왕위'의 불안감과 붕당(朋黨)의 시대였다.

반정(反正), 조선을 치세로 되돌려 놓았을까?

반정(反正)이란, 왕이 실정(失政)했을 때 그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을 말한다. 이때의 '반(反)'은 정통으로 돌아가는 것, 어긋난 정도(正道)를 회복한다는 뜻이다. 반정은 공자의 〈춘추(春秋)〉를 해석한 책인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나오는 '발난세반제정(撥亂世反諸正)', 즉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 바른 세상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구절에서 비롯된 말이다. 왕조를 교체하는 것을 역성혁명(易姓革命)이라 하고, 왕조의 정통성은 유지하되 왕위만 교체하는 것을 반정이라 했다. 조선시대의 이러한 반정은 1455년(단종 3년)의 세조 반정(또는 세조찬위), 1506년(연산군 12년)의 중종반정과 1623년(광해군 15년) 광해군을 축출한 인조반정이 있다.

1623년(광해 15년) 3월 12일 3경(밤 11시~1시), '이서(李曙)'는 장단(長湍)에서, '이중로(李重老)'는 이천(伊川)에서 군사를 일으켜 홍제원(弘濟院)에서 '김류'의 군대와 합류한 반정군(反正軍)을 '능양군(綾陽君)'이 친히 거느리고, '이괄(李适)'을 대장으로 하여, 문무장사 2백여 명, 군사 1천여 명이 창의문(한양도성의 북소문, 자하문)으로 들어가,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敦化門) 밖에 도착하니, 궁궐방어를 맡았던 훈련도감 대장 이흥립(李興立)은 이미 반정군과 내통하여 이들을 맞이한다.

그러자 궁 내의 대신 및 재신(宰臣)들은 군대의 함성소리를 듣고 모두 흩어져 도망갔다. 인정전 서쪽 뜰에 반정군이 줄지어 시위하자, 궁 안의 시위 장졸은 모두 흩어졌다. 광해군은 북쪽 후원의 소나무숲 속으로 나아가 궁인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사다리를 타고 궁성을 넘어갔는데, 젊은 내시가 업고 가고 궁인 한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여 사복시 개천가에 있는 의관 안국신(安國信)의 집에 숨었다. 광해군은 서인이 일으킨 반란임은 꿈에도 모르고, 정탐하러 갔던 국신의 처가 돌아오니 "혹시 이이첨이 한 짓이 아니던가." 하였다. (〈광해군일기〉, 계해(1623년) 3월 12일 기사 요약)

반정은 성공했다. 앞서 인용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상세히 나오듯, 광해군과 왕세자는 폐서인 되어 귀양길에 오르고, 측근 이이첨, 정인홍 등 대북파 대신들은 여지없이 목이 잘린다. 40여 명이 참수당하고, 200여 명이 숙청당한다. 이제 정국은 서인의 세상이 되었다.



▲ 인조반정을 그린 부분은 아니지만, 반정의 밤도 이와 같았으리라. 사진은 영화 〈광해〉의 한 장면

다음으로 반정 이틀 후인 1623년(광해 15년) 3월 14일, 인목대비는 유폐되었던 경인궁의 석어당 앞마당에 광해군을 꿇어앉혀 폐위시키면서, 그 죄목을 일일이 지적하며 교지를 내린다. 그 죄목 중, 앞부분에는 예의 '폐모살제(廢母殺弟)'에 대한 죄과 등을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진 '재조지은(再造之恩)'의 죄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보면, 가히 명의 왕녀에 버금가는 사대의 극치를 보인다.

(전략)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겨온 지 2백여 년이 지났으니 의리에 있어서는 군신의 사이지만 은혜에 있어서는 부자의 사이와 같았고, 임진년에 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는 영원토록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선왕께서 40년간 보위에 계시면서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시며 평생에 한 번도 서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으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광해는 은덕을 저버리고 천자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배반하는 마음을 품고 오랑캐와 화친하였다.

이리하여 기미년에 중국이 오랑캐를 정벌할 때 장수에게 사태를 관망하여 향배(向背)를 결정하라고 은밀히 지시하여 끝내 우리 군사 모두를 오랑캐에게 투항하게 하여 추악한 명성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중국 사신을 구속 수금하는 데 있어 감옥의 죄수들보다 더하였고, 황제가 칙서를 여러 번 내렸으나 군사를 보낼 생각을 하지 아니하여 예의의 나라인 우리 삼한(三韓)으로 하여금 이적 금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모면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가슴 아픈 일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천리(天理)를 멸절시키고 인륜을 막아 위로 중국 조정에 죄를 짓고 아래로 백성들에게 원한을 사고 있는데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자가 어떻게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으며, 조종의 보위에 있으면서 종묘·사직의 신령을 받들 수 있겠는가. 이에 그를 폐위시키노라.(〈광해군일기〉 계해년 3월 14일 기사 발췌)

글의 내용 대부분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죄악시하고 있다. 이는 반정 이후 정국을 주도할 서인집단의 시각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다가올 대전란의 서장이도 하다. "우리 군사 모두를 오랑캐에게 투항하게 하여 추악한 명성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다." 는 대목은, 자기 백성들의 목숨에 대한 애정은 티끌도 없는, 소위 숭명사대(崇明事大)의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선조가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시며, 평생에 한 번도 서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으신 적이 없었다." 는 이 사대의 극치를 '천리(天理)'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목대비의 정세판단은 서인을 중심으

로 한 인조정권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친명배금' 의 기치를 내건 반정파의 짝사랑과는 달리, 명은 의외의 반응을 나타낸다. 1623년(인조 1년) 4월, 반정이 일어난 사실을 명 조정에 알리고, 인조의 즉위를 승인받기 위해 정사(正使) 이경전(李慶全)을 대표로 하는 사절단인 주청사(奏請使) 일행이 파견된다. 하지만 북경에 도착한 그들은 경악한다. 사신들을 면대한 명의 대표가 "광해군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왜 명조에 알리지 않고 거사를 일으켰느냐?" 고 힐문하고 다그쳤던 것이다.

당시 명 조정은 광해군의 등거리외교의 속내는 모른 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1618년 명의 원군요청에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군대를 보냈던 것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또한 그 이후에도 이어진 재지원군 파견 요청을 실제적으로는 거부하면서도 명의 힐책을 피하는 수완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조반정은 그들에게 충성스런 광해의 왕위를 찬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명은 당장 후금과의 대결관계에 있었으므로, 조선을 확실히 자기 편으로 하는 한편, 조선을 명과 후금과의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실리를 택하여 인조의 즉위를 조건부로 승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서막이었다. 광해군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전란으로 조선을 밀어 넣게 된 것이다. 바로 정묘호란(丁卯胡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이 그것이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친명반청정책은 또 다시 조선의 국토를 전장터로 내주고,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트린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1637년 1월 30일 혹한의 한겨울, 조선 제16대 국왕 인조는 아침 일찍 말을 타고, 왕세자와 시종 · 대신들과 남한산성 서문을 빠져나와, 당시 경기도 광주 송파 나룻가 '삼전도' 로 향한다. 청 황제 '홍타이지' 에게 항복의 예를 갖추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다.

삼전도에 도착한 인조는 청장 용골대의 명에 따라 세 번 무릎 꿇고 아홉 번 절하는, 이른바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땅바닥에 세 번 부딪치기를 세 번 반복하는 것)를 행하며, 황제의 앞에 조아렸다. 역대 한반도의 군왕 중 가장 치욕적인 배례를 행한 것이다. 이어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는, 이른바 정축화약(丁丑和約)을 선언함으로써 45일간의 병자호란은 끝이 났다.



▲ 서울 잠실동 석촌호수 서호 언덕의 〈삼전도비〉. 1895년 이후 115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그 후 청나라는 수많은 백성들과 2만 5천의 조선 여인을 포로와 인질로 잡아갔으며, 소현세자, 봉림대군, 대표적인 척화파였던 3학사(윤집, 오달제, 홍익한)를 볼모로 끌고 갔다. 또한 삼전도 나루 입구에 소위 삼전도비(三田渡碑)라 불리는 거대한 〈대청황제공덕비(大淸皇帝功德碑)〉를 세우게 하였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치욕적인 기념비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격변기, 실리적 외교를 추구하여 보국안민하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명에 대한 맹목적 중화사대와 유교적 명분론에 매몰된 몽매한 국왕과 서인권력 중심의 신하들에 의해, 조선은 제대로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명의 재조지은의 굴레를 뒤집어썼다. 광해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상황을 스스로 재촉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 세력은 이후에도 중화사대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명이 멸망해버린 이후에는 아예 자기들의 중화라는 소중화의 왕국을 세워나간다. 왕조 말까지 말이다.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이후 조선이 멸망 할 때까지 300년 가까이 '조선의 권력'이 된다. 서인당파는 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는데, 인맥과 정책으로 보면, 서인의 주류는 노론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 노론의 중심세력이 정조 이후 세도정치의 주역이 되며, 조선 말엽 100년간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다. 더욱이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는데도 주역이 되어, 1910년 한일합방 시에 일제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고 일제하의 귀족이 된다. 은사금을 챙긴 일제수작자 명부를 보면, 총 76인 중 당파별로 본다면 북인 2명, 소론 2명, 기타 12명, 나머지 56명은 모두 노론이다.

조선 후기 자주국방의 산물---수뢰포

2013.02.27 22:15

조선 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개발된 수泯□(水雷砲)는 수중에 설치, 적 군함을 폭파시키는 무기다.
잠수부가 수중에 설치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폭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한폭탄형 무기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 무기체계와 비교한다면 기뢰(機雷)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수뢰포를 만들게 된 계기는 병인양요(丙寅洋擾) 때문이다.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점령하고 한강 하류에 진입, 수도 한양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프랑스 함대는 조선군의 완강한 저항에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지만 조선군도 프랑스의 신무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병인양요에 참전했던 천총(千摠) 양헌수(1816~1888)는 '프랑스군이 사거리가 길고 화승을 사용하지 않는 뛰어난 성능의 총을 사용했다' 는 경험담을 그의 일기인 '병인일기' 에 남기고 있다.
조선 수군의 함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한 프랑스의 군함들도 경악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서양 강대국들이 압박을 가해오는 현실 속에서도 조선의 실권자 대원군은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양의 장점인 과학기술을 도입, '서양 오랑캐' 를 제압코자 했다.
대원군은 1866년부터 76년 사이에 신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물 중의 하나가 바로 수뢰포다.
서양 군함을 격파할 신무기로 수뢰포를 개발한 것이다. 그 점에서 수뢰포는 대원군 시대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수뢰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과 장치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폭발하도록 만든 시한지연 장치이고, 둘째는 화약과 점화 장치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기술이며, 셋째는 폭파하게 하는 점화 장치였다.
시한지연 장치는 일정량 이상의 물이 수뢰포 내부에 차오르면 수압에 의해 작동되도록 만들어 해결했다. 기름과 횟가루 등을 이용, 방수도 해결할 수 있었다. 점화 장치는 쉽게 제작할 수 없었는데 중국산 뇌관인 동화모(銅火帽)를 수입해 장착했다. 핵심부품은 외국에 의존했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에는 1867년 가을훈련대장 신관호가 수뢰포를 제작, 노량진에서 실험을 실시했을 때의 기록이 남아 있다.
"강 가운데에 떠 있던 조그만 배는 수뢰포를 맞고 10여 길을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부서지면서 떨어졌다. 많은 구경꾼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고 신기하게 여겼다."
이렇게 실제 제작실험까지 거쳤지만 실전에서 사용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실물 유물도 없다. 하지만 수뢰포의 상세한 설계도는 '훈국신조군기도설' (訓國新造軍器圖說)이라는 책에 남아 있다.
이 책은 대원군 집권 당시 훈련도감이 제작한 신무기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으로 현재 육군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목판본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쓴 필사본으로 단 1권만 남아 있으며, 수뢰포뿐만 아니라 대원군 집권기에 제작된 각종 신무기 설계도를 담고 있는 귀중한 서적이다.
〈출처:국방일보〉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왜선 한 척에 유린당하다 <2>|

2013.02.26 12:01

잡아들인 왜인, 중림이 중국에 조공차 가는 길에 표류한 사람이라고 여겨
조정에서는 최대한 교린정책으로 상황을 풀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불만을 품은 부서가 하나 있지요.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격인 병조에서 팔팔 뛰며 그렇게는 안 된다고 고합니다.

'지금보니 황해도 관찰사의 장계에 '저 왜인들은 모두 갑옷을 입었고 칼을 들었으며 사람도 살해했다' 하였습니다.
왜인들이 아무리 미개하다고 해도 사람을 죽인 자는 죽는다는 이치를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저들을 타이르려는 성상의 뜻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공차 가다가 표류한 자들이라도 사람을 죽였으면 살려 보낼 수 없습니다.

이미 상(왕)의 뜻이 결정 되었으나,
병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은 타일러 용서하려 하지 말고 기회를 잡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여 포획해야하니 빨리 외부 장수들에게 알려 그들을 잡아들이도록 하옵소서.'

역시 국방을 맡고 있는 병조 측에서 나온 의견이라 그 내용이 상당히 과격합니다.
중국으로 조공차 간 왜인들이 정말 조선인을 죽였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종은 결국 도망간 왜인들을 회유하라는 남곤의 의견과 강제로 추포하여 죽이자는
병조의 의견을 각각 받아들여, 최대한 회유는 하되 만약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추격하다 죽여도 상관 없으니 무조건 잡아들이는 걸 우선으로 하라고 전교합니다.

며칠 뒤 인천 조방장인 박양준으로부터 왜선 1척이 인천 해상에서 조선 상선 하나를 겁탈했는데
배안의 쌀만 훔쳐가고 사람은 해치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중림이 타고 있었던 그 왜선이 분명한데, 사람은 해치지 않았다하고 훔쳐간 것이 쌀이라면
분명 배 안에 먹을 게 떨어져서 약탈을 하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 날엔 이미 왜선이 경기도도 지나 충청도나 전라도 쪽으로 간듯 하다 말하니
이대로 가다간 조선 해역을 지나 그대로 본국으로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만 집니다.
설사 그들을 용서해준다 하더라도 잡아들이고 용서를 해야지,
왜선 한척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인도 죽이고 상선도 약탈한 뒤 아무일도 없이 그냥 돌아가버리면 국가 위신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중종은 경기, 충청, 전라도의 모든 조방장, 병사, 수사 등에게 하유하여
왜선이 나타나길 기다리지 말고 모든 섬을 수색, 토벌해 절대 본토로 그냥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망망 대해에서 어떻게 왜선 1척을 수색해 찾을까 싶은데.....

찾았습니다-_-;;
문제는 충청도 수사 윤임이 왜선을 봤다는 보고를 듣고도
직접 군사를 통솔해 잡으려하지 않고 군관 두 명과 병사만 보내 잡으려 했다가
오히려 전투에서 지고 놓쳐버린데다 놈들이 도망가다가 비어있던 조선 측 배 한 척을 패몰시키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조정에선 난리가 나고 관련된 수사와 군관을 모두 추국하려합니다.
망신이 이보다 망신이 없습니다. 왜선 한 척에 서해 수군 전체가 농락당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알고보니 패몰한 조선측 배는 군선은 아니고
예전에 외부에서 들어오던 개인배라는 게 밝혀지긴 했으나 위안이 될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수군 입장에서도 참으로 갑갑한 게,
적들을 빠르게 추격하려면 소형선에 소수의 군사만 태워 따라잡아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추격하면 군대가 소수고 전투에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적을 섬멸하기 위해 대형선으로 많은 군사를 한 번에 데리고 가면
도망가는 적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올라온 보고에도 100명을 인솔해서 출발했는데 출동한 배가 병선과 포작선을 포함해 12척이나 됩니다.
배 한 척당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타고 있다는 말이죠.
그나마 병선은 느려서 제대로 추격하지 못했을테고,
제대로 추격가능한 건 포작선일텐데 포작선...이게 사실 군선이 아닙니다.
어선이죠. 그런데 가장 빠르다보니 급할 때 군사용으로 종종 이용하는데 이게 추격하는 덴 좋겠지만 전투하는 데는 최악이었겠죠.

그렇게 어설프게 추격에만 신경쓰다가 전투에 패하고 사상자도 2명이나 발생한 것입니다.

이쯤되니 교린정책이고 뭐고 전부 다 없어져 버렸죠.
삼정승은 잡아들인 중림을 당장 고문해 사실대로 불게 만들자고 건의합니다.
사실 조선 수군이 그들에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만 빼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그들이 정말 조공선이냐 왜적이냐를 알기 위한 화살이 중림에게로 쏠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기적적인 소식이 하나 올라옵니다.
전라도 우후 조세간이 왜적과 싸워 머리 13급을 베고 1명을 생포하여 섬멸한 것이지요.

조정에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한 보고라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거기에 한 명을 생포까지 했으니 그들이 정말 조공선인지 왜적인지 밝힐 수 있는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문중인 중림의 형신도 멈추고 생포한 다른 자가 올라오면 비교 심문하도록 합니다.

다음 날 전라도에서 자세한 보고를 위해 군관 나사향이 올라옵니다.
전투에서 어떻게 통쾌하게 이겼는지 전투에 직접 임한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전라도에서 올라온 나사향이 말하기를,

'6월 16일에 병사(兵使: 중2품 무관직)는 안마도로, 우후 조세간은 위도로 향하여 적을 수색했는데,
27일 첩보병이 서쪽에서 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이 조세간과 함께 추격하니
현감 신종이 이미 왜선 1척과 싸우다가 후퇴하다 하면서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 날은 접전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포위하고 있다가,
다음날 신종이 화전을 쏘아 그 배의 돛대를 부숴버리고 창을 잡은 자를 쏘아 맞혔는데,
즉시 꼬구라져 죽었습니다. 이로인해 왜놈들은 모두 배 안으로 숨은 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배를 조종하여 남쪽 바다를 향해 도망가므로 신 등도 그 배를 추격하여 갔으나,
왜선이 크고 높은데다가 방패를 설치하였기에 화살은 물론, 총통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세간이 영을 내리기를 '아군이 일시에 홰에 불을 붙여 왜선에 던지면,
왜인이 불을 끄기 위하여 나올 것이니, 그 때 돌을 던지고 활를 쏘자.' 하였고
모두들 약속에 따라 일시에 함께 불을 던져 그 배에 불을 질러 그와 같이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남곤이 묻기를,
'왜인의 수는 대개 몇 사람이나 되었는가?'

하니, 나사향이 말하기를
'배 밑바닥에 타서 드러난 뼈가 매우 많았는데, 대략 30여 명쯤 되었습니다.'

하여 남곤이 다시 물으니
'왜인 1명은 무슨 방법으로 생포하였는가?' 하니

'배를 모두 불태운 뒤 혹 숨어 있는 자가 있을까 의심스러워 또 불을 놓아 태웠더니,
왜인 하나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면서 살려달라는 식으로 말하므로,
신이 옷을 벗으라는 시늉을 보여주니, 왜인이 즉시 옷을 벗고 와서 항복하였습니다.'

타죽은 자만 30여명이고 참수한 자와 생포한 자가 14명이 되는데다

물에 빠져 죽은 자도 있다고 한다면, 그 수가 정말 적지 않게 많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배도 총통이 전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크다는 보고를 들으니
충청도에서의 패배가 어느정도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이 이어집니다.

'너의 배가 10척이고 신종의 배가 10여 척이었으니 추격하여 포위하면
왜선으로 하여금 달아나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어찌하여 큰 바다에까지 추적하여 갔었는가?' 하고 물으니

'왜선의 빠르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그날 순풍이 있었음으로 접전하였지
그렇지 않았다면 결단코 따라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곤이 다시 묻기를,
'왜인도 활을 잘 쏘던가?' 하니,

나사항이 '비록 쏘는 자가 있었으나 활이 강하지 못하여, 맞은 자가 다치지 않았습니다.'하고

이번엔 중종이 묻기를,
'각궁을 사용하여 쏘던가?' 하니

'왜인들이 방패 안에서 활을 쏘았으므로 무슨 활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남곤이 의아해하며,
'방패 안에 있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쏘아 맞혔는가?' 하니,

나사항이 대답하기를
'그 방패 위에 두 귀가 있었는데, 왜인들이 반드시 이를 통하여 엿보았으므로
그 틈을 이용하여 쏘아 맞힐 수 있었습니다.'

-_-;;; 믿어야하나요 이걸....

뭐,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을 섬멸하고 수급 13개를 가지고 온 건 정말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조선 수군의 문제점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은 살려준 셈이었죠.
기분 좋은 승전보에 조정에선 조세간과 승전한 수군들에 대한 상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생포한 왜인을 추문하여 대체 이놈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할 차례입니다.

이번에 사로잡은 왜인의 이름은 망고다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놈들의 정체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그들이 조공차 간 왜인인지 아니면 약탈을 위한 왜적인지는 역시나 알 수 없었으나
중국 영파부 지역에서 중국인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일로 중국인 8명과 같이 빠져나왔고,
그러다 배안의 식량이 떨어졌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바다 어딘가의 섬에
그 8명의 중국인을 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 조공선이어도 중국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데 이놈들이 중국에서 난리를 치고 중국인 8명을 데리고 왔다니
이 왜인들을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는 정말로 외교적 문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여하튼 버렸다는 중국인의 행방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중종은 잡은 왜인에게 중국인을 버린 그 섬이라는 게 대체 어디쯤인지 추궁하게 합니다.

7월 9일, 보고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망고다라의 초사에 '중국 사람을 둔 곳이 육지에서 내려 걸식하던 곳과 10여일 거리로,
네 개의 작은 섬을 지나 다섯 번째의 섬이다.' 하였는데 이미 그들을 버린 지 한 달이나 경과했으니,
생존하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비록 찾게하여 그들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중국으로 송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유치시킬 수도 없으니 처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난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고서도 사람을 시켜 찾지 않는 것은
또한 미안한 일이니, 이에 대해 영의정 남곤에게 의논하게 하라.'
라고 전교합니다.

참고로 중국으로 송환하는 일이 어렵다는 이유는,
만약 중국 영파부에서 왜변을 숨기고 황제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그 왜변으로 잡힌 중국인을 송환해버리면 진상이 들어나니
영파부 관청이 분명 처벌을 받을 것이기에 제후국인 조선 입장에서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남곤은 왜인들이 한 말을 다 믿을 수도 없고
사실이라 해도 버려둔 지 한 달이나 지났으니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다,
찾아도 송환하는 게 곤란하니 찾아나서는 게 무익할 것같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비추지만,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버려졌다는 말을 들은 이상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찾아 나설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회의적이긴 해도 영의정도 중종의 의견에 동의를 했으니 그들을 찾는 것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이에 선전관 여맹온과 중국어, 일본어 통역관을 한 명씩 보내 찾게 합니다.

'걸식한 곳에서 열흘 정도 떨어진 곳.'
이라는 단서 하나로 조선에 섬이 대체 몇 개인데 어떻게 그 중국인을 찾을까 싶지만....
한반도가 좁긴 좁나봅니다.

또 찾았습니다-_-;;;

영을 내린 지 11일 후인 7월 20일, 충청도 수사 황침의 장계가 올라왔고,
실록 기록에 누락됐지만 후의 이야기 맥락으로 봤을 땐 전라도에서도 일부 찾은 듯합니다.

일단 황침의 장계를 보면,
고기잡이 최임송이 조업을 위해 가외덕도에 들어갔다가 8명의 표류인이 있는 걸 발견하고는 배에 싣고 왔는데,
황침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필담으로 물으니 중국 영파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망고다라가 말한 그 중국인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표류하게 됐냐라고 물으니,
자신들은 소금을 굽는 사람들인데 황제가 삼근야륵(무엇인진 모르겠습니다ㅠㅠ) 4개를 구하므로 이를 굽다가
나무가 모자라 해산(海山:바닥 밑바닥에서 솟아올라 바다 한가운데에 이룬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베었는데,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나 배가 바람에 불러 밀려 나가 10인 가운데 8명만 목숨을 보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라?
뭔가 표류한 이유가 너무 이상합니다.
그들은 분명 납치되어 이리로 끌려와서 버려져야 하는데
중국 바다섬에서 나무를 하다가 조선까지 밀려와 표류를 하다니요.

일단 포획한 중국인 8명을 서울로 올려보내게 합니다.
남곤 등의 상소로 일단 이 중국인들을 추국하게 하는데 그래도 중국사람인지라 상당히 대우해줍니다.
추국하는 방식도 고문은 하지 않고, 음식도 장만해 먹이는 등의 호의를 배풀죠.

하지만 이런 호의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나무하다가 표류한 사람이라 말하니,
남곤이 이야기 하기를,

'중국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추문하였으나 다들 바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소금을 고는 일 때문에 섬 안에서 땔나무를 베다가 바람에 표류되었다.'고만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전라도로 표류해 간 중국 사람과 미리 입을 맞추었기에 그런 듯한데,
전라도에서 사로잡힌 중국사람은 글을 안다고 하니 태평관 관반청에 옮겨두고 직접 묻겠습니다.'

하니 중종은 끝까지 묻되, 승복하지 않으면 왜인과 면질시켜서 알아내도록 하게 합니다.

다음날 8월 3일 결국 중국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합니다.
중국인 한 명이 공초하기를

'5월에 왜적이 변방에 침범하여 영파부 태수가 곤사를 거느려 맞싸우고
태수가 왜적을 져부수니 그들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며칠 뒤 자신들이 소금 땔나무를 베는 일 때문에 바다 가운데 있는 도화산 밑에 있다가
바람을 만나 닻줄이 끊어졌고 표류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갔다가 왜선을 만났다.

10명 중 2명은 물에 뛰어들려다가 창에 맞아 죽고 8명은 사로 잡혀 굶주리다가
왜적에게 놓아달라 애걸하니 섬에 방치하였는데, 그러다가 귀국 사람을 만나서 나오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대체 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남곤은 우리나라에 와서 약탈을 했을 때 그들도 가담을 일정부분해서
조선 정부에 추궁당하고 벌을 받을까 두려워 숨기려한 것이 아닌가..하고 추측합니다.

뭔가 미심적은 구석이 없는 건 아니나 여하튼 사건의 전황이 들어난 듯 보입니다.
사실 조선 조정에선 중국인이 끼어있는 이상 정확한 사건 진상을 크게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미 왜적은 모두 섬멸 했고 중국인이 발견됨으로써 뭔가 일이 너무 커져버린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영파부에서 조공선이든 왜적이든 그들이 분탕칠을 친 것은 사실이었고
중국인들이 조선 영토에서 사로 잡힌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젠 이 일을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었죠.

중종은 일단 중국인은 중국으로 송환하는 걸로 결정 짓습니다.
문제는 포로로 잡은 왜인들인데
사실 마음같아선 조선 정부에서 처리하고 싶지만,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종은 경복궁 사성전에 나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호조판서, 병조판서, 공조판서, 판윤, 좌참찬, 우참찬, 형조판서, 이조판서, 예조판서를 죄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중국사람과 왜인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가에 대해 의논하게 합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중국사람을 찾았으니 송환하는 게 맞고,
왜인도 같이 보낸다면 평소 명나라에서 조선이 왜국과 가까워 몰래 교통한다고 여길 것인데,
이 왜인들을 중국으로 보낸다면 이런 의심을 없앴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분탕질을 친 왜적이니 조선이 처리해야하는 것이 옳으나
명나라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이상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었죠.

결국 중국인과 왜인, 그리고 섬멸한 왜인의 수급(잘린 머리)까지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고,
중국인과 왜인을 추문한 기록 문서를 정리해 보내는 것으로 결정짓습니다.

이렇게 중국 송환을 위한 일이 한창 진행되던 8월 15일,
몇 개월 전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조원기가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이 왜적들에 대한 약간의 정보가 옵니다.

왜인 종설과 송소경이라는 인물이 각기 중국으로 갔는데,
종설은 조공을 사칭하고 무언가 다른 일을 꾸밀 계획으로 중국 영파부에 갔으나
뒤에 온 소송경이 진짜 조공을 위해 와서는 종설의 거짓을 갖추어 말하니,
종설이 크게 노하여 난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조공선이 맞으면서도 아닌 것이었고
중림 등이 자신들이 조공선이라 주구장창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8월 29일, 형조참판 성세창을 명나라 수도로 보내어 중국인을 소환하게 하고,
황제에게 보내는 글을 같이 보내는데 그 내용이 대략,

'사방이 대대로 큰 은총을 받아왔으나 작은 공로도 보이지 못하였었는데,
이번에 왜노가 상국 지방을 교란하여 흉악을 부리고 관병을 죽이기까지 하고도
천벌을 받지 않고 살아남아 우리 지역에 이르렀음을 알고, 신(臣)이 황위에 의지하여 그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사로잡은 중림 등 2명도 죽여야 하겠으나, 죄가 상국을 범한 데에 관계되므로
마음대로 처치할 수 없기에 이제 적왜 2명과 수급 32개,
영파부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화살 2개와 왜선이 타고온 배의 선창을 성세상을 시켜 보내며,
아울러 탈환한 중국인 8명도 데려가게 합니다.'

이렇게 조선 서해안을 들석이게 만들었던 왜적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은 잘 마무리 된듯 보이나
조선엔 사실 여전히 숙제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명나라와의 관계엔 최상의 선택을 했으나 반대로 말하면 일본과의 관계는 당연히 좋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인들이 명나라와 조선에서 분탕칠을 친 건 맞으나 왜적 그 자체는 아니었으니까요.

15년이 지난 중종 32년(1537년) 일본 국왕(정확히는 쇼군)이 사신을 보내는데,
그 때 서신의 내용이,

'저희나라 백성 50여명이 역풍에 표류하여 귀국의 변방 포구에 닿았는데,
무슨 까닭으로 우리나라로 보내지 않고 도리어 중국에 아뢰고 바쳤습니까?
듣건데 유구국(오키나와)의 표류한 백성이 귀국의 바닷가에 닿으면 잘 돌보고 후에게 상주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한다하니,
한 나라에는 박하고 한 나라에 후하게 하는 것은 한가지로 인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따지듯 물었죠.

이에 답하기를 '중림 등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표류한 것이 아니라,
영파부에서 난을 일으켜 장수를 죽이기까지 하고, 또 우리나라 변방에 이르러
세 지역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 이는 표류한 백성이 아니라 도둑의 무리이므로
형구를 채워 중국에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긴 합니다.

오히려 일본 국왕보다 문제는.. 이 중림 일당이 대내전, 즉 오오우치 일족이 다스리는 지방 사람이었는데,
조선에선 대내전이 백제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쪽에서도 그것을 강조하였기에 상당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내전은 그 세력 면에서 대마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특히나 왜구들이 조선인을 포로로 잡아 본국에서 팔면 대내전이 찾아 조선으로 되돌려 주는 등의 일도 하였기에
이번 일은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후에도 계속 이 일을 잘 무마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조선이 가진 다른 숙제는 조선에서 난리치 왜인을 섬멸하긴 했으나,
조선 수군의 헛점이 그대로 들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왜인을 사로잡다

2013.02.26 11:58

중종 때는 왜적의 침입에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 유명한 삼포왜란도 중종 5년에 일어났으며, 그 이후로도 왜선 한두 척이
조선 남해안 근처에서 서성이며 조정의 신경을 긁는 경우가 잦았죠.

그래서인지 중종 시기는 이 왜구에 대한 방비에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꽤나 열심히 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종 18년 5월 27일, 황해도 관찰사 소세양이 치계를 하나 올립니다.
그 내용을 대략 보면,

'왜선 1척이 풍천에 정박하여 8~9명이 육지로 올라와 촌가에서 밥을 빌어먹고 다녀서,
부사 이계장과 사포 만호 허모와 함께 달려가 그 중 1명을 사로잡으니,
나머지 7~8명이 모두 칼을 뽑아 대항하다가 바다로 들어가 도망갔다 '는 보고였습니다.

이 일은 조정에 짐짓 충격을 주었는데 대부분의 왜적들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남해안에서 자주 출몰하였고 그 때문에 조정에선 남해의 방비는 많이 신경을 썼으나
서해안, 그것도 충청도도 아닌 황해도에 왜구가 출몰했다는 건 그들의 행동범위가
아주 넓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작년엔 회령포에 왜구가 출몰했을 때
왜구를 단 한 명도 죽이거나 사로잡지 못한데다
조선 수군이 허둥지둥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망신을 당한지라 조정에선 바짝 긴장한 상태가 되었죠.

때문에 비록 선박 한 척이 출몰한 것임에도 중종은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도망간 배가 연해로 들어갔다면 분명히 충청도나 전라도 등을 경유할 것이고
연해의 여러 진에 조치하여 혹시 모를 변고에 대비하라는 서신을 보내게 합니다.
또 사로잡은 왜인은 서울로 압송하게 하며,
병조(현재의 국방부격인 관청)에 이 모든 사안을 보고하게 하지요.

다음 날 이어 올라온 황해도 관찰사 소세양의 보고에
사로잡은 왜인에 대한 심문 내용이 대략 적혀있는데 그 내용인 즉,

생포된 왜인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필담으로 심문을 했는데

'배가 몇 척이며 사람은 몇 명이 여기에 왔느냐.' 하고 물으니
왜인이 대답하기를,

'배 1척은 50명이 탔고, 또 한 척은 40명이 탔으며 1척은 26명이 탔다.'
하였고,

또 다시 묻기를 '어디서 왔느냐.' 하고 지도를 보여주니
그는 손으로 평안도 덕도를 가리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적의 활동 범위가 평안도까지 이르렀다니... 예삿일이 아니었지요.

이에 삼정승인 남곤, 이유청, 권균과 육조가 모두 모여 의논합니다.

대신들의 의견은,

'지난해에도 왜구들이 회령포를 침범하였으나,
회령포는 대마도와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인데도 침략의 형태가
그렇게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남쪽 지방에는 병사, 수사가 있어서 항시 방비를 엄중히 하고 있으므로,
비록 조그마한 변란쯤 있다하더라도 특별히 장수를 파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황해도는 본디 방비의 계책이 없는데다 지금 왜변이야말로 너무 뜻밖의 일이어서
인심이 요동하니 후일의 걱정거리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변방의 일은 비변사(병조 내에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가 의당 참가하여 의논해야하니,
그들과 의논하여 방비에 대한 대책을 세움이 옳다 여겨집니다. '

이에 비변사로부터 구체적인 방비와 왜적 소탕 대책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황해도 풍천의 일로 대책 회의가 이루어지고 3일 후,
또 다른 소식이 전라도 수군 절도사 정윤겸으로부터 올라옵니다.

'5월 24일 남포도 관한일 초도에 왜선 1척이 정박하고 있다는 보고에
병선 10척을 정돈하여 출발하였고
25일 대묵도 서변에 왜선이 정박한 걸 발견하고
1백보 남짓한 거리까지 추격하여 전투를 벌였습니다.

(자세한 전투 내용은 생략하고)
왜적 20명이 배에서 뛰어나와 물로 뛰어들어 헤엄쳐 가므로 모두 쏘아 잡았고,
또 16명은 화살을 맞고 익사하였으며,

배 안에도 화살을 맞고 불에 타 죽은 자가 꽤 있었습니다.

혹시나 배 갑판 아래 살아 숨어있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어
배가 본판만 남도록 모조리 타버리기를 기다렸다가 그날 밤에야 회군하였습니다.
이에 왜인의 머리 20급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활과 칼 등을 함께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

시기를 보니 풍천에서 난리친 그 왜적은 아닌듯 보이나
사로잡은 왜인이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들려온 갑작스런 승전보였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회령포에서의 수치를 씻기에 충분한 승전보였지만
중종은 마냥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왜선이 나타난 시기가 풍천에서와 비슷한 것이 그들과 관련된 왜선일 수 있으며,
왜적이 침입이 빈번해지는 게 삼포왜란 이후 축소한 교역량을 늘리기 위해 화친을 유도하려는 수작으로 해석한 것이지요.
또한, 그들의 상당수가 타 죽었기 때문에
적이 원망하는 마음에 더욱 분탕질을 칠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에 전라 수군 절도사 정윤겸을 칭찬하면서도,
승전으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강조하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왜변에 대비하여 방비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해안가 조업활동까지 금지하도록 합니다.

이에 남곤이 아뢰기를,

왕명이 옳기는 하나 해변에 사는 백성들은 해산물을 채취하여 생활을 영위하는데,
왜변이 아직 급하지 않음에도 조업을 완전 금지 시키면
빈민의 생계가 막연해지니 일단 황해도에 일어난 왜변에 관한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다시 조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에 중종도 수긍하고 그리하게 합니다.

6월 4일 드디어 황해도 풍천에서 사로잡힌 왜인 중림(中林)이 서울로 도착합니다.

다음날 그에 관한 진술 내용을 남곤이 자신의 의견과 함께 올립니다.

‘포로된 왜인 중림의 진술서에
’ 중국에 조공을 위해 가다가 사나운 바람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 ‘ 하니,
그놈의 간교한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대답한 내용이 모두 온순하고 크게 어긋난 데가 없습니다.

마침 일본 사신이 서울에 와 있으니 도망간 왜인들에게
‘지금 너희 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니
만일 너희들이 정말로 조공차 간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너희 나라 사신과

함께 돌아가야 할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항복하라. ' 할 경우
저들이 정말 조공하러 간 사람이라면 반드시 순종할 것이고
이 일을 지금 서울에 있는 일본 사신에게 말하여 함께 돌아가도록 한다면 교린(交隣)하는 좋은 도리가 될 것입니다. '

의외로 왜선이 왜적이 아닌 중국으로 조공을 간 조공선일 가능성이 높은 거였죠.
사실 처음 올라온 보고도 왜적이란 느낌보다는 조난자라는 느낌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견을 들은 중종은 남곤의 생각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인 건 며칠 전 왜적으로 추정되는 일본 배를 불태우고 일본인을 전멸시켰는데,
만약 그 배가 중림의 일행 중 하나고 정말 그들이 조공차 간 사람들이라면
무고한 일본 조공선을 조선 군대가 박살낸 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하튼 중종은

'아뢴 바의 의도가 과연 온당하다. 왜노들은 교활하여 비록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으나,
그 진술의 대강을 살펴보니 조공차 가다가 표류된 자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전라도에 나타난 왜선의 경우 우리 국경을 범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명분 없이 그들을 섬멸하였으니 상황이 조금 난처해질듯 하나,
'우리 국경을 범하려 했기에 그렇게 했다.' 는 식으로 둘러댄다면 될 것이다.

만일 도망간 왜선이 우리 뜻을 믿고 항복하면 이유를 묻고 처리하되
비록 듣지 않고 그냥 가더라도 끝까지 추격하지는 말라고 황해도 관찰사와
경기도 및 하삼도에 유시하라. '

하니 정원(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혹은 임금에게 보고하는 직책)이 반대하기를,

'그들을 불러 타이르라는 뜻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만,
왜적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이때 추포하지 말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겨집니다.
지금 왜적들이야 궁한 도적이나 다름없으니 비록 남쪽을 향해 간다 하더라도
어찌 국경을 침범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하여 우리 장수에게 그들을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추적하지 말게 한다면 저들은 우리의 깊은 뜻을 모르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반드시 '조선의 국경을 지키는 군영은 방어가 해이하여 우리 배가 돌아올 적에
아무도 추적하지 않았다. ' 할 것이니, 그럼 우리나라를 가벼이 보고 다른 뜻을 품을까 염려됩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좋지 못할듯하니 각도(各道)에 하서하기를
'황해도에 지금 나타난 왜선은 일본 사신이 중국에 조공차 가다가 표류된 선박인 듯하니,
의당 추포는 해야 하나 꼭 죽일 것까지는 없다. ' 하는 게 옳다 여겨집니다.'

이에 삼정승도 동의하여

‘이미 방비를 튼튼히 하라고 각도에 유시했는데 갑자기 다시 추포하지 말라하면,
변방의 기강이 해이해질 뿐 아니라, 저들 역시 우리나라를 가벼이 여길 것이니
옳지 못한듯합니다. 지금 변방의 우리 장수들은 무사 안일에 젖어 방비에 대한 모든 일이 허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수들의 마음을 흐리는 전교를 내려선 안 됩니다. ‘

하니 중종 역시 그 의견이 맞다 여겨 따릅니다.

조정의 의견이 결정된 후 사로잡지 못한 왜선을 설득하기 위해 중림에게 묻기를
‘네가 황해도에 있는 너의 동류에게 글을 써 보내서 항복해 오도록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니 중림이
‘그렇게 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하며
그들을 설득하는 글을 중림이 친필로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화살에 매서 쏘거나 돌을 싸서 던져 전달하면 조선의 뜻을 알고 항복해올 거라는 계획인 거지요.

개인적으로 도대체 서해 바다에서 도망간 왜선을 어떻게 찾고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까 싶긴 하지만,
만약 성공만한다면 이보다 좋은 해법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잔혹한 살인범인가 정치적 희생양인가

2013.02.26 11:56

〈본 이야기는 100%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야기로 각색없이 구성하였습니다.〉

-1부-

때는 조선 최고의 태평성대 시절로 알려진 성종 시대.
13살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성종 9년 1월 11일
급박한 보고 하나가 올라옵니다.

황산수의 문이 와서 말하기를,
그의 집이 모화관(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곳. 서대문구 현저동에 위치) 동쪽에 있는데,
집 북쪽에 두개골이 상하고 깨어진 여자 시체가 버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성종은 속히 검시하고 조사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1월 13일 삼사(형조, 사헌부, 한성부)에서 함께 조사하라 명하지요.

여자 노비로 보이는 시체 하나로 이렇게 엄청난 부서가 한 번에 투입된 것은,
그 가해자가 상당한 권세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체가 발견되고 열흘이 조금 지난 1월 13일.
성종은 그 일대의 모든 집을 다 뒤지게 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왕족이었던 세조의 서자 창원군의 집이 끼어있었다는 거지요.

형조 좌랑 박처륜이 창원군 이성의 집을 수색하려하니,
창원군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찌 내 집을 수색하려 하느냐?' 하므로, '전지(왕의 명)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창원군이 자신의 신분을 앞세워 전지를 받았더라도
수색함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집으로 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색하러 간 사람들을
잡으려고까지 해 수색에 실패했으니 다시 전지를 받아 수색하기를 성종에 청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성종은
'이 여자를 죽인 자는 반드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수색하라고 명하였는데,
창원군이 거절하니 매우 옳지 않다. 국문하여 아뢰라' 라고 전교합니다.
사실 창원군은 평소 그 행실이 좋지 못해 많은 대신들로부터 죄를 주어야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으나,
왕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다음 날 1월 21일. 성종은 이 사건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곤 일종의 상격을 세워
현상체포해야한다 판단합니다.

이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임금의 큰 권한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마다 꺼림없이 임의로 (살인을)한다면
그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돈의문 밖에 버린 시체를 검사하니,
얼굴과 목 사이에 칼자국이 낭자하여 거의 완전한 살을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한다.
도성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내가 심히 통탄하다.

삼사(형조, 사헌부, 한성부)를 동원해도 죄인을 잡지 못하니, 마땅히 상격을 세워 현상 체포해야한다.
그 여자의 시체를 고하는 자는,
양인은 세 품계 올려주고 관직을 내리며, 천인은 양인으로 올려주고,
만약 사노비이면, 자신은 노비 신분을 면할 것이고 사촌 이상 친족은 공노비로 속하게 할 것이다.
또한, 진실을 고한 모두에게 면포 2백 필을 주라.

그러나 반대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하지 않다 발각되면,
양인은 천인에 속하게 하고 천인 및 사노비는 변두리 외각 지역의 공노비로 평생 머물게 하라.'고
의금부와 형조에 명하며 범인을 잡기 위한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노비가 자신의 주인을 고발하라는 말입니다.
당시 시대상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다음 날 신하들은 난리가 납니다.

영돈령 노사신은
노비와 주인의 사이는 신하와 임금의 그것과 같은데,
설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숨겨야지 서로 고소할 수 없다 말하며,
여자 시체 사건으로 노비가 상전을 고발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이야기 합니다.

그러자 성종은
사람을 죽인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므로 죄인을 반드시 잡아야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숨기기에 급급한 게 지금 실정이다.
그렇다고 의심가는 자 모두를 매질해 때리어 심문하면 한 사람의 범한 죄 때문에,
그 피해가 죄없는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니 안 될 일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임시적인 법을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주위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파천부원군 유사흔, 예조판서 이승소, 집의 이칙, 정언 성담년이 모두 말하기를,

이미 임금의 명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노비 아무개가 와서 우리 주인이 죽였다고 고발하면,
국가에서 공을 상주어 천인을 면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를 듣는 자들이 '아무개는 주인을 고발하여 양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노비들은 모두 두 마음을 품을 것이니, 이런 버릇을 자라게 할 수 없다며 반대합니다.

그러자 빡친 성종이 대답하기를

'내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살리고 죽이는 것은 임금의 권한인데,
사람마다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의로 살육을 행한다면 이것은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이니,
이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나라에 기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경 등은 이 사건에 마땅히 각각 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하는데,
오히려 나더러 잘못됐다 하는 것은 대체 무슨 소리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고 합니다.

그러자 이칙이

'이 여자 시체 사건은 죄가 크기에 밀봉(익명으로 봉한 고발)을 이미 허가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노비로 하여금 주인을 고하게 하는 것이고 충분히 불편한 상황인데,
아예 드러내놓고 신분을 면해주겠다하며 주인을 고발하게 하는 건 마땅치 못합니다.
밀봉과 면포를 상으로 내리는 것만 허가하시고 기다리면 죄인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니 더 빡친 성종이 말하기를

'이 사건은 분명히 거실(높은 문벌의 집안)이 한 짓이다. 사건에 대해 동네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밀봉이나 상따위로 잡을 수 있겠는가. 그댄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지금 권세 있는 신하가 위엄을 믿고 사람을 죽였으니 법에 있어 마땅히 다스려야할 터인데,
그대들의 비호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이칙이 다시 말하기를,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의혹이 오히려 풀리지 않습니다. 군신과 노주(노비와 주인) 사이는
크고 작은 것은 비록 다르나 분수는 한 가지입니다. 설령 중국 조정에서 우리 신료를 꾀기를,
'그대가 그대 임금의 일을 말하면 반드시 중한 상을 주겠다.' 하면 우리 신료가 된 자가 차마 말하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이 다시 말하기를,

'황제가 물음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하겠다. 어찌 그대들에게 묻기를 기다리겠는가.'

하니 이칙이 다시 반문하기를

'성상께서야 당연히 그러겠지만, 가령 임금이 스스로 고하지 않으면, 신하가 차마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합니다.

이 논의에서 우부승지 김승경과 동부승지 이경동만 빼고는 모두가 성종에 뜻에 반대합니다.

국가의 법과 기강을 잡기 위한 성종의 노력과 신분의 질서를 중요시하는 신하들의 대립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사실 두 의견 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론 신하들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당시는 왕조 시대였고 신하가 임금을 고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비가 주인을 고발한다는 것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종은 도성 안에서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일삼는 범인이 누구더라도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입니다.

-2부-

다음 날 경연에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어제 있었던 노비의 고소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언급됩니다.
당연히 사간(임금의 잘못을 언급하고 반박하는 직책) 경준도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면 강상이 무너진다 반대하고,

장령 김제신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아주 쉬워서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고 반대하고,

그 유명한 한명회 역시 사건의 잔혹함을 봤을 때 죄인을 잡아 징계함은 마땅하지만,
대간이 저렇게 간절히 여기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대합니다.

신하들의 완고한 반대에 성종은 숨이 막힐 것만 같습니다.
지금 궁안의 큰 어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한갓 노주(노비와 주인)의 의리만 알고
왕의 위엄은 무시하며 임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왜 생각치 않는가!
하며 화를 내지만...

신하의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말을 멈추고 경연을 마칩니다.

다음 날 경연... 수업을 마치자 아니나 다를까
노비가 상전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또 빗발칩니다.

신하들은 사건의 잔혹함은 인정하나 큰 근본이 무너질 것이라 반대하지만,
성종은 이 일은 분명 권세가가 일으킨 짓이어서 이웃 사람도 알지 못하고
유일한 단서는 그 집의 노비뿐이라며 법령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오직 성종의 편을 드는 건 영사 정상손 뿐이었는데,

'법령에 모반 대역(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내란 죄와 임금이나 아버지를 죽이고 종묘와 임금의 능을 파헤치는 일)을
제외하고는 노비가 상전을 고발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세종조에서도 이같은 큰 일은 또한 노비가 그 상전을 고소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특히 세종께서는 일찍이 부민이 고소하는 것을 금하였으나
(부민고소금지법: 하급관리나 일반민이 수령을 고발할 수 없는 세종 때 만들어진 법)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말하게 하였는데 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일은 노비가 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며 성종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위 신료들은,
지금 상전을 고발하여 범인을 잡으면 순간의 통쾌함은 있겠으나,
한 번의 통쾌함으로 강상을 무너뜨릴 수 없다며 입장을 고수하지요. (참 답답합니다 ㅠㅠ)

대신들의 입장은 이리 답답하지만, 다행이도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만한 단서가 하나 잡힙니다.

우부승지 김승경이 와서 보고하기를,

시체를 성벽 위에서 던져 버려졌을 거라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 시체를 놓아 둔 곳에서 가까운 성안의 집을 수색해보니
마지막에 창원군의 집이 있었고 그 집 뜰을 죄다 살폈으나 피자국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곧장 창원군 집 옆 동산에 다다라서 성 위를 돌다가 끊어진 머리털 약간과
끊어진 노끈을 찾았는데, 그 곳에 핏자국이 있었으며 찾은 머리털을 시체의 머리털과 비교해보니
길이와 가늘기가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어 노비 동량을 잡아보니 옷 속에 빗자국이 두어 점 보였고,
그 이유를 물으니 '주인에게 월형(빨꿈치를 베는 형벌) 당할 때 묻은 것이다.' 하여
그럼 월형을 언제 당한 때를 물으니, 이미 4~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라면 빨지 않았을리가 없으니, 최근에 더럽혀진 것이 분명하고
상당히 의심스러우니 형추(매질하여 신문하는 것)하는 것이 어떤가 성종에게 묻습니다.

대신들의 깝깝한 소리에 속이 꽉 막힐 거 같았던 성종의 숨을 틔워주는 보고였습니다.

성종은 기뻐하며, 버려진 시체 가까운 곳 성안을 수색하라는 것을 이미 수 일전에 명했는데,
이와 같은 증거를 왜 이제서야 찾았냐면서, 동량을 장문(곤장을 치며 신문하는 것)하면
실정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으나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일 수도 있으니
창원군만 치우쳐 지목하지 말라고 혹시 모를 수사 대상의 오류를 경계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마리는 아주 쌩뚱맞고 아주 결정적으로 풀립니다.
그렇게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후 3일 뒤 1월 27일 아침,
성종이 신하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도승지 신준이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손에는 익명의 고발장이 있었는데 원래 이런 익명서는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밀봉(익명으로 고발하는 것)하는 법이 있어 가져왔다 합니다.

그 내용은 '여자의 시체는 거평군(居平君) 부인이 질투하여 한 짓이니 가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는 것이었고
성종은 사건의 진위를 알고 있다는 가외라는 노비를 급히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가외는 금방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털어 놨는데, 그 내용이 대충

고읍지라는 여자가 창원군의 구사(벼슬아치가 행차할 때 길을 안내하는 노비)로 그 집에서 일했는데,
자신이 알기로는 창원군이 고읍지와 간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그 고읍지가 머리가 깨져 죽은 여자일 거 같다고 말합니다.

가외에게 고읍지의 신상에 대해 물으니 그 모습이 죽은 시체와 비슷했고
아예 가외에게 죽은 시체를 가져와 보이니, 고읍지가 맞다고 합니다.
죽은 시체가 고읍지가 맞다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처음부터 조금 의심스러웠던 창원군입니다.

이에 성종은 죽은 여인의 얼굴과 목에 사이에 칼자국이 낭자하였으니,
창원군 이성의 집으로 환관 조진을 보내 흉기로 사용되었을 칼을 찾게합니다.

그러나 창원군이 자신이 죽인 게 아닌데 어찌 범행도구가 여기 있겠는가 하며 발뺌하자,
성종은 의금부 사람을 보내 범행 도구가 아니라도 집에 있는 칼을 다 가지고 오라 명합니다.
그러자 창원군은 자신에겐 칼이 없다며, 칼을 내어주는 걸 완강히 저항하지요.
점점 더 의심스러운 모습니다.

3부-

창원군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사건의 전말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동부승지 이경동이 와 보고하기를,

창원군의 노비 원만, 석산, 산이를 신문해 자백을 받아냈는데 그 진술에 이르면,
홍옥형이란 자가 고읍지와 몰래 간통을 했었습니다.
고읍지는 창원군과 홍옥형, 두 사람 모두와 간통을 했었던 거였지요.
요즘으로 치면 양다리.

그런데 어느날 고읍지가 다른 여종 옥형에게 '내가 꿈에서 홍옥형을 보았다.' 라고 하니
창원군이 그걸 어떻게 듣고는 질투심과 배신감에 화가 치밀어
자신의 노비들을 시켜 고읍지를 처마에 매달아 놓고 칼로 죽이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_-;;; 평소 행실이 안 좋기로 유명한 창원군이었지만,
자신이 간통하던 여종의 꿈에 다른 남자가 나왔다고 사람을 죽이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왕의 경연이 있었고 당연히 이 사건이 언급됩니다.
성종이 우부승지 김승경에게,
'창원군의 집에 가 조사해보니 노비의 말처럼 정말 의심스러운 곳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벽 사이에 핏자국이 있었고 집에선 그곳이 개를 잡는 곳이라고 하지만,
집이 오래되어 확실치 않아도 충분히 의심스러움을 어필합니다.

이에 성종은 다시 창원군의 집을 다시 자세히 재조사 시키니,
집 안 땅에선 다량의 피가 흐른 흔적과 벽에선 피가 뿌려진 흔적을 발견하지요.
시체의 모습을 보았을 때 머리와 목사이에 살점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칼로 인한 상처가 심했고,
그렇다면 죽였을 당시 엄청난 피가 뿌려졌었을테니 노비들의 증언과 정황상 창원군이 범인임이 상당히 유력해졌습니다.

창원군의 범인이 거의 확실해졌지만, 문제는... 창원군이 서자라지만 세조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성종은 세조의 손자. 창원군은 성종과 나이는 비슷하지만 성종에겐 삼촌뻘의 어른이라는 거지요.

이에 압박을 느꼈는지, 성종은 밀성군(세종의 다섯 째 아들)과 월산 대군(성종의 친형) 등을 이 사건에 참가시킵니다.

2월 5일, 창원군 이성은 의금부 문밖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번 일은 자신의 종들이 고문이 두려워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죽였다면 피해자의 가족 중에서 어찌 원통함을 고하는 자가 없는 것이며,
죽여서 성밖에 던졌으면 시체가 어찌 그것밖에 상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발견된 시체가 형상과 나이를 보았을 때 고읍지인 건 맞는듯 보였으나,
창원군 말대로 정작 신원 확인을 확정지을 고읍지의 가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성종은 아직 시체가 많이 상하지 않아 얼굴을 알아볼 수 있으니 친척을 찾아 확인하게 했려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친지란 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체도 있고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는데 친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사건을 그대로 흐지부지 끝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2월 7일, 우부승지 김승경이 사건에 참가한 월산대군, 밀성군, 영의정 및 삼사의 뜻을 전하지요.
창원군의 노비가 증언을 했고 살인을 한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가 뚜렷한 편이니
창원군을 신문 해 죄를 결정하기로 하자는 거지요.

이에 성종은 만약 창원군을 신문하여도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증거에 의해 죄를 정해야할 것이라 말하고, 종부시(왕실 종친의 잘못을 규탄하던 관청)로 하여금
창원군을 신문하도록 명합니다.

2월 10일, 월산 대군과 밀성군은 성종에게 창원군을 처벌을 원하며,

'세종 때에 익녕군 이치(태종의 8남)가 그 노비의 불알을 깐 죄로(-_-;;;;) 제천현으로 부처(유배)되었습니다.
지금 창원군 이성이 한 짓은 참옥하기가 익녕군보다 심하고,
왕의 전교도 무시한 채 집의 수색도 거부하였으니 불경죄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창원군의 직첩(벼슬 임명서)를 거두고 먼 지방으로 유배 보내소서' 라 아룁니다.

이에 영의정 정창손, 부원군 한명회, 좌의정 심회 등등이
익녕군은 종을 죽이진 않고 불알을 깐 것만으로도 외지로 유배당했는데,
지금 창원군의 죄는 그보다 심하니 먼 지방으로 유배보내는 게 맞다고 월산 대군의 의견에 동조하지요.

다만, 영돈령부사 노사신은 의견을 좀 달리하여,

창원군의 죄가 중하긴 하나 노비를 죽인 것이고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니
법령을 그대로 적용해 처벌하긴 힘들다 반박합니다.
게다가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면 젊은 혈기에 창원군이 행실을 함부로하다 무슨 일을 당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
직첩만 거두고 집에 있으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의견을 전하지요.

논쟁은 익녕군의 사례를 들어 이 사건은 그것보다 더 한 일인데,
오직 세조의 친아들이라는 것만 믿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죄를 피하려하는 창녕군을 엄벌해야한다는 쪽과
그래도 왕실의 인물이니 용서하는듯 보이게 하면서 근처에 두며 감시하자는 쪽으로 나뉩니다.

이에 성종은 죄가 엄중하긴 하나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일도 아니고
만약 외방으로 귀양보냈다가 혹여 창원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후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그냥 직첩만 거두고 지금 집에만 머물게 하여 출입만을 그치는 쪽으로 하자며
월산 대군의 의견보단 노사신의 의견을 따르려 합니다.

이에 대간(임금이나 관료들의 과실을 언급하며 바로잡게 하기 위한 기관)들은
당연히 완강히 반대합니다.
지금 창원군의 죄는 그 정도가 중한데 이렇게 가볍게 처벌해버리다 후에 다른 큰 죄를 또 저지르면,
사람들이 전하께서 가볍게 처벌해 예방하지 못했음을 논할까 두렵다고요.

성종은 내일 저승들이 오면 다시 의논하여 분부하겠다 말하며 일단 판단을 보류합니다.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안의 중대함을 강조하며 범인을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는 성종의 의지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친족임이 밝혀지자 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

-4부-

다음날 아침 경연에서 당연히 창원군의 처벌을 어떻게 해야하나에 대해
주된 논의가 또 이루어집니다.

집의(사헌부 종3품) 이칙이 아뢰기를,

'친족을 친애함은 은혜로 이루어지고, 은혜를 행함은 의리로 이루어지는데,
은혜에만 치우치면 의리를 해치고, 의리에만 치우치면 은혜를 상함으로,
반드시 은혜와 의리를 겸해야 돈목(정이 두텁고 화목함)의 도(道)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창원군은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임금에 대한 불경죄를 저질렀으니,
신하의 죄로서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전하께서 친족을 친애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첩만 거두시면,
다른 날에 더 큰 죄를 범할 경우 그건 우연이라 보기 힘든 것입니다.
모름지기 창원군을 멀리 부처(유배)하소서.' 하고,

사간(임금의 잘못을 논박하는 것이 임무인 종3품 벼슬) 경준이 말하기를,

'자꾸 회남왕의 일을 인용하여 비유하는데, 그건 이와 똑같지 않은 사건입니다.
창원군의 죄가 중하니 법에 의거하여 죄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며 창원군을 유배보내야한다 합니다.

성종이 이에 다른 이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영사 심회, 동지사 서거정 등 역시
창원군의 죄가 가볍지 않으니 외방에 부처하는 게 적당하다 고하지요.

친족이라 보호해주고 싶은 성종의 마음과 별개로 주위 대부분 신하들은
창원군에게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한다는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성종은 '내가 다시 헤아려보겠다.' 하곤 경연을 파합니다.

성종이 자꾸 창원군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자,
월산 대군(성종의 친형) 이정 등이 모든 종친을 데리고 고하기를

'(익녕군이 종의 불알을 까 외방에 부처된 것을 언급하며), 창원군의 죄는 그보다 훨씬 더 중합니다.
모름지기 외방에 부처하시옵소서' 합니다.

이에 성종이 대답하길,
'왕자(王子)의 죄로서 직첩(관직 임명장)만 빼앗아도 족한데, 귀양까지 보내야하겠는가.
익녕군은 세종의 친아우이나 창원군은 나에게 삼촌뻘에 해당하니 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하니 월산 대군 등이 다시 아뢰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에 존속을 따질 수 있습니까. 부처하시옵소서.'

이날 또한 의정부에서도 사헌부 이계손, 사간원 김자정 등도 유배보내는 것이 맞다며
상소를 올리고 의견을 고합니다.

신하들 뿐 아니라 성종의 친형, 주위 모든 신하들이
창원군에 대해 중벌을 내리도록 압박합니다.
비록 왕이지만, 종친부터 신하까지 모두 저렇게 한 목소리이니 참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성종은 창원군에 대한 일은 유보하고, 창원군의 노비들에 대한 처벌만 완화합니다.
노비들은 자신이 여인을 죽이려해서 죽인 게 아니라 창원군이 시킨 것을 따른 것일 뿐이니,
처벌을 완화하는 게 맞다고하며, 일단 노비들은 처벌을 감형해줍니다.

이렇게 신하들은 창원군을 유배보내야한다 주장하고
성종은 창원군을 감싸주려고 하는 성종의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하지만 창원군을 깜싸주기엔 그 죄가 너무 중하니 성종으로서도 한계에 직면하지요.

그러자 성종은 사건에 대한 처리 흐름을 조금 비틀고자 합니다.
증거도 증언도 확실해보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찝찝했던 살해당한 고읍지라는 여인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창원군도 고읍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요.

이에 성종은 사안이 중대하니 사건의 처리함을 확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고읍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러니 창원군에 대한 신문을 자신이 직접하는 게 어떠하냐라고 주위에 묻습니다.

한 마디로 자신이 재판을 직접 담당해 이 사건을 밑바닥부터 처리해보겠다는 거지요.
이에 당연히 신하들은 난리가 납니다.
이를 구실로 창원군의 죄를 감해주려는 성종의 속셈을 모를리가 없을테니까요.

이에 월산대군은
'고읍지의 출처를 아는 유일한 인물이 박귀남인데, 박귀남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
더이상 물을 곳이 없습니다.' 라며 성종에 의도에 반대합니다.

밀성군 이침 역시 '이는 종묘사직과 관련된 일이 아니기에 임금이 직접 추문하는 건 옳지 않으며,
박귀남 역시 죽었으니 더이상 물을 곳도 없다. 불가합니다.' 합니다.

이외 정찬손, 윤필상, 홍응, 정효상 등 모든 인물이 임금의 직접 추문은 안 된다고 하니
성종은 참으로 답답한 상황... 이에 내일 경연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하지요.

다음 날 아침 정사를 보면서 성종이 묻기를

'창원군이 아직 자신의 죄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이니 억지로 죄를 주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내가 친히 물은 후 죄를 정하고자 하니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한명회 등이 한 마디로
'불가합니다.' 라고 딱 잘라 선을 긋습니다.

결국 창원군에 대한 직접 추문은 포기하고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추국하려하니
주위 신하들은 이마저도 반대합니다.

신준, 박숙진은
'신들로 하여금 묻게하면, 이 또한 성상께서 직접 물으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 자신들을 시켜 물으라 말하고,

손수효, 손비장도 말하기를
'재판 판결이 잘못되거나 미진한 곳이 있으면 다시 의금부로 회부를 해야하지,
이런식으로 마무리 단계의 사건을 무마하려고 들어선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를 쓰고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견에
결국 폭발해 버린 성종.

'내가 재판 결과를 의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창원군이 억울하다고 말하므로 조금이라도 미진함이 있는데,
증거에만 의거해서 죄를 정한다면 불가하거니와
내가 유감이 없게 하면 창원군도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들은 어찌하여 고집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임금이 조그마한 일에 너무 살펴서는 안 되겠으나,
이 일은 가볍지 않음으로 내가 친히 묻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경들의 말과 같다면 한 나라의 일은 다 관아에 회부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맞다는 건가?'

사건의 미진함을 근거로 창원군에 대한 죄를 줄여주고자 하는 성종과
그 의도를 알고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려는 주위 신하들.

이미 이 사건의 흐름은 더이상 살인 사건이 중심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종과 신하들의 줄다리기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죠.

-5부-

두개골이 깨진 여인이 처음 발견 된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이 사건은 범죄와 진상규명이 중심이 아닌,
왕과 신하의 정치적 힘싸움이 중심이 되는 느낌입니다.
한 달동안의 상당수 실록 기사가 이 창원군 이야기인 걸 보면,
당시 조정에서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원칙대로라면 신하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원군을 벌주는 게 맞는데,
신하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리는 성종을 보면 왠지 성종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성종 9년 2월 19일,
그 전의 논쟁의 연장선상으로 창원군을 빨리 처벌하자는 이야기와
성종의 고읍지 출처가 확실치 않아 자신이 마음이 결정되지 않으니 창원군에게 억울한 면이 없는지에 대한
경연에서의 논의를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한동안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2월 28일, 성종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창원군의 첩 옥금이 창원군의 죄를 승복하지 않는 것이지요.
한성 판윤 어세공은 옥금이 간사하여 쉽게 입을 열리 만무하고,
이미 형문(몽둥이로 때리며 심문하는 것)으로 지쳤으니 2~3일 지난 뒤 다시 심문하자 합니다.

그러자 헌납 김괴는, 죄 없는 사람을 자꾸 가두고 형문하는 게 옳지 못하다 반대하고요.

다 끝난 것 같아 보였던 창원군에 대한 재판이 자꾸 질질 끌리니
성종은 드디어 자신이 직접 심문하겠다고 하지요.
당연히 주위에선 반대하지만, 질질 끌기만 하는 재판에 성종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명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창원군 사건 관련 노비들을 성종은 친히 심문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눈앞에서 노비를 직접 심문하자 진실이고 뭐고가 있겠습니까.
창원군의 노비인 가외, 원만, 석산, 성금, 도질금, 무심 등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인이 고읍지를 죽인 것이 틀림 없습니다.'
하고, 돌양 산이, 부합 등은 처음엔 좀 망설였으나 결국엔 고읍지를 죽였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왕이가서 심문하니 원하는 답이 나온 것이란 걸 성종의 의심하지 않을리 없었습니다.
이에 성종은 창원군이 죽였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니,
고읍지를 죽이는 데 이용되었다는 노비들이 증언한 환도를 찾으라고 합니다.

내관 조진 등을 창원군의 집으로 보내 환도를 찾으려 하자, 창원군은 억울하다며

'당초 심문할 때 노비 원만이 환도의 모양을 거짓으로 말하였음으로 다른 노비도 또한
거짓으로 승복했을 뿐입니다. 어찌 환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고읍지란 자를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원만이 죽였다고 말하였으니,
오히려 원만에게 물으소서.' 라고 자신의 완전 무죄를 주장하지요.

노비들이 증언한 살해 도구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노비들이 그 환도의 모양과 장식을 일치되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노비들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질문해서 일치한 것인지
그냥 같이 모두다 심문했는데, 원만 한 명이 먼저 말하니 다른 사람들이 따로 말한 건지..현재로썬 알 수가 없습니다.
후자라면 노비들이 말한 진술이 사실 큰 의미가 없지요.

또한 창원군이 정말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살해도구를 그 때까지 집에 정말로 두었을 가능성이 만무합니다.
실제 사건 초창기 창원군의 집을 수색하려했을 때 창원군은 이를 거부했었고,
그 후 자신이 의심을 살만한 짓을 했다는 걸 모를리 없을테니 환도를 버릴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정황상 창원군이 의심을 살만한 행동은 엄청나게 했고
의심할만한 증거는 잔뜩 나온데다 주위 증언도 넘쳐나지만,
피해자의 신원과 살해도구라는 가장 중요한 두 단서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3월 11일. 첫 시체가 발견된지 딱 두 달째 되는 날입니다.

날도 이제 꽤 풀린 상태인지라 고읍지의 시체는 썩어버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시기일테고, 환도는 결국에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잔혹하게 살해되었고 유력 용의자는 왕족인 창원군.
재판에 관한 처벌은 어떤 식으로든 결정 지어야하는 상황이지요.
즉, 결전의 날인 것입니다.

종부시(왕실의 잘못을 조사 규탄하는 관청)에서 아뢰기를,

'창원군 이성이 고읍지를 죽인 것은 사건의 흔적(집안의 핏자국들)이 명확하고,
여러 사람의 증거가 명백하니 그의 죄가 확실한데, 창원군 스스로 말하기를,
'신은 본래 고읍지라고 일컫는 여인을 알지 못하며, 지금까지 여인을 살해한 일이 없습니다.
집안에 다만 삼인검과 삼진검이 각각 한 자루씩 있을 뿐이고, 환도 또한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비록 되풀이하여 추궁해 따져도 조금도 승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청컨데 성상께서 재단하소서.'

하니 성종은,
'증거에 의거하여 너희들이 조율하라.' 했다가 금방 말을 바꿔서,

'왕자를 담당 관아로 하여금 조율하게 하는 일은 그 사례가 없다.
내가 직접 판결하려고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이것을 정승에게 문의하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이 사건을 판결하겠다는 거죠.

이에 정인지와 윤사흔은,
성종이 죄를 결정하더라도 정부와 육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죄를 결정하자 건의합니다.

이어, 정창손, 한명회, 심회, 윤자운, 김국광이 성종에게 고하기를,

'창원군 이성의 큰 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인의 시체 사건의 발생하였을 때에 삼사의 수사관이 왕명을 받들고 그 집에 이르니,
창원군이 왕명을 거역하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으니, 그 죄의 첫째이고,

살인한 형적이 이미 드러나 성상께서 친히 심문하셨음에도
죄를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음이, 그 죄의 둘째이며,

칼로써 함부로 사람을 죽여 포학한 행위를 멋대로 하여 거리낌이 없었으니,
그 죄의 셋째이고,

그 흉학한 행위를 감행한 칼(환도)을 종들이 형체와 모양을 분명히 말하였는데도,
내관이 전교를 받들고 물을 때에 숨기고 승복하지 않았으니, 그 죄의 넷째입니다.

창원군은 비록 왕자이나, 이같은 큰 죄를 범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묘사직에 관련된 것이 아니니 성상께서 직접 판결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성종이 직접 판결하라 의견을 정합니다.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성종의 의견에 반대만 했던 대신들이,
처음으로..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권한을 성종에게 양보(?)합니다.
이렇게 사건의 결정권을 손에 넣은 성종은 의정부, 대간, 육조 등의 관원을 불러 의논을 하고 결국 판결을 합니다.

'창원군을 부처(유배)하라'

-마지막-

창원군을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했던 성종은 결국 창원군 유배를 허가합니다.

이에 의금부에선
창원군의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진상을 알았는데 고발하지 않은 노비의 경우 장형을 내리고
양인은 천민으로 사노비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고장의 관노비로 영속하자 합니다.
그에 성종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말한대로 처벌하지만,
사건을 알았지만 고발하지 않은,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요.

언제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신하 덕분에 성종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잘 해결되었고 관련자 처벌 역시 납득 가능할 정도로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틀 뒤, 3월 13일 성종은 금방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 이유는 대왕대비의 하교 때문이었지요.

'세조 대왕의 친자에 오직 창원군 형제만이 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외방에 방치한다는 것은 마음에 차마 할 수 없다.
하물며 창원군은 생계가 매우 어려우니, 만약 집을 떠나 생업을 잃는다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 우선 너그럽게 용납하여 개과 천선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성종에게 물은 것입니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이런 말을 하니 성종도 어쩔 수 없는, 한 편으론 창원군을 보호할 좋은 핑계 구실이 생겼죠.
이에 창원군의 부처(유배)를 멈추고, 그 뜻을 대간과 정승, 삼사를 불러 알립니다.

당연히 이 일을 가장 크게 반대하고 나선 건 대간들이었습니다.

사간부 김괴가 나서서 반대하나 성종이 뜻을 굽히지 않으니,
사헌부 이세광이 같이 나서서 원래 창원군의 죄는 부처가 아닌 더 큰 벌을 받아야함에도
왕의 친족이라 오히려 감형을 받은 건데 아무리 대비의 하교라도 그 벌마저 주지 않으면 말이 되냐고 따집니다.

하지만 성종이 그 뜻을 굽히지 않자 사헌부 대사헌과 사간원 대사간인 유지와 김자정까지 나서
창원군 이성의 부처 철회의 부당성에 대해 고하지만 결국 성종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연에 이 사건에 관련된 노비들에 대한 처벌까지 완화합니다.
고읍지를 죽이고 성 밖으로 내던진 직접적인 가담자들의 처벌은 필요하겠지만,
주인의 죄를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노비들은 그 죄를 줄여 관노비로 예속시킵니다.

이로서 두개골 깨진 여인 시체로 도성을 떠들석하게 했던 사건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자 가해자로 밝혀진 창원군은 결국 유배형조차 받지 않게 되고,
사건 관련자 몇 명만 외지의 관노비로 영속되는 것으로 사건은 끝납니다.
이 사건 전까지만해도 행실문제로 실록에 빼곡하게 거론 됐던 창원군은 그 후로 아주 조용히 살았는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종은 그 후에도 창원군을 잊지 않고 말을 한 필 보내준다거나 쌀이나 콩을 하사하지요.
또 성종이 사냥을 구경 나갈 때 따라가기도 하고 궁에 입시하기도 하지만,
창원군의 행실에 대해 상소하는 글은 전무합니다.

이는 창원군이 정말 사건의 범인이라면 더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생각했기에 얌전히 지낸 것이었거나,
창원군이 범인이 아니라면 자신의 행실을 문제삼아 없는 죄도 만들어 내 자신을 벌주려하는 상황이
또 올 수 있다 생각했기에 죽은 듯 조용히 살 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원군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6년후 2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의 시호는 여도(戾悼). 전의 허물을 뉘우치지 아니한다는 뜻이지요.
창원군 어머니인 근빈 박씨가 그 시호를 고쳐주길 원했지만 결국 대신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고종 때 가서야 장소공으로 추증됩니다.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땐 창원군이 왕실에 위협이 된다 생각하여
성종이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 내 죽이려든 게 아닌가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성종의 친형도 있는데, 서자인 창원군이 뭘 할 수 있겠으며 무슨 위협이 될까요.

게다가 창원군이 가장 유력한 범인이라고 지목된 상황부터 성종은 창원군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은,
창원군은 원래 행실이 아주 안 좋고 그 때문에 조정 안에서도 엄청난 말이 돌았던 인물이라
신하들이 어떻게든 벌주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종의 보호 아래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고 때문에 그의 행실은 더욱더 나빠진 것이죠.
그런데 마침 두개골 깨진 여인 살해사건이 발생하고,
창원군이 원래 평소 행실대로 함부로 행동하며 성종의 명까지 어겨가며 수사를 방해하자
신하들 입장에서 그를 처리한 아주 좋은 구실을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닌가 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의 결론은 어떤 식으로든 나야했고,
정치적으로 힘없는 인물 하나를 제거하기위해 증거를 꾸미는 건 일도 아닌데다
증언은 관련자들은 고문하여 심사하면서 대답을 끌어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물증이 미약하여 처벌한 근거가 애매모호하다면,
왕조시대의 최악의 폐륜인 왕명을 어긴 일을 빌미로 삼아도 됐고요.
흔히 이 사건을 평가하길 살인은 가볍게 취급하고 왕명을 어긴 건 무겁게 취급했다하여 비난하는데,
개인적으로 당시 왕명을 어긴 것이 더 중죄라 말한 건 정말 살인보다 그게 중죄라기 보다는
어떻게든 창원군을 벌주기 위한 구실이었다 생각합니다.

뭐, 이런저런 제 분석이 다 헛발질이며 창원군이 진짜 범인일 수도 있겠지만요. 흐흐
실록이 아무리 자세하다 한들 모든 정황을 다 알 수는 없기에 완벽히 추리기에는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대금황제를 꿈꿨던 조선인 이징옥(李澄玉)

2013.02.20 15:50

사대의 나라에서 황제를 꿈꾸다

북방을 지킨 조선 무인 이징옥, 수양대군과의 충돌에 얽힌 미스테리

태조 7년(1398) 요동정벌을 진두에서 지휘하던 정도전을 이방원이 주살한 뒤 명에 대한 사대(事大)는 조선의 가장 큰 외교정책이 되었다. 문종 사후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왕위를 꿈꾸던 수양대군은 단종 즉위년(1452) 8월 명나라 이부낭중(吏部郞中) 진둔(陳鈍)이 사신으로 왔을 때 하마연(下馬宴)을 주관하면서 사신의 자리를 임금의 자리인 북쪽에 설치하고 자신의 자리는 동쪽에 설치할 정도였다. 명 사신의 거듭된 양보로 동서로 대좌하게 되었으나 수양대군은 같은 해 10월 명나라에 사은사로 갔을 때도 일개 낭중(郞中)인 웅장(熊壯)이 전하는 물품을, "황제께서 내리시는 것이니, 의리로 보아 앉아서 받을 수 없다" 며 일어나서 공손하게 받아서 "조선은 본디 예의의 나라지만 예의를 아는 것이 이와 같다" 는 칭찬을 들었다. 수양대군은 자신이 중국을 극진히 섬기는 사대주의자임을 분명히 각인시켜 훗날 일으킬 정변을 추인받고자 한 것이다.



△ 이징옥은 무과에 급제한 뒤 생애의 대부분을 북방 지역에서 보냈다. 중국 지안 지방에 남아 있는 국내성 성벽.(사진/ 권태균)

명나라 사신의 횡포에 맞서다

이런 사대의 나라, 문약(文弱)의 나라 조선에서 경상도 양산(梁山) 출신의 이징옥(李澄玉)은 특이한 존재이다. 조선 중기의 문인 차천로(車天輅)가 쓴 〈오산설림〉(五山說林)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이징옥이 14살, 형 이징석(李澄石)이 18살 때 어머니가 '살아 있는 산돼지를 보고 싶다' 고 말하자 이징석은 그날로 산돼지를 활로 쏘아 잡아왔는데, 이징옥은 이틀 뒤 맨손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남들이 네 형의 용력이 너보다 못하다는데 맨손으로 돌아왔으니 웬일이냐" 고 묻자 이징옥은 "문 밖에 나와 보소서" 라고 답했다. 문 밖에는 큰 산돼지가 누워 헐떡거리고 있었다. 이틀 동안 산돼지를 쫓아 기운을 빼놓고 몰고 온 것이었다.

그는 국왕 호위를 담당하는 갑사(甲士)로 근무하던 중 태종 16년(1416) 무과 친시(親試)에 장원해 사복소윤(司僕少尹)으로 임명되었다. 이징옥은 급제 뒤 거의 모든 벼슬생활을 함경도에서 보냈다. 세종 13년(1431) 잠시 귀향해 모친을 뵙고 오라는 허락을 받은 이징옥에 대해 〈세종실록〉은 "이징옥이 9년 동안 귀성하지 못했다" 라고 적을 정도였다. 세종 6년(1424) 아산(阿山)을 습격한 여진족의 공격을 막아낸 공로로 정3품 경원절제사로 승진한 것을 비롯해 이 과정에서 그는 여러 번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세종이 재위 10년(1428) 7월 이징옥

에게 어약(御藥)을 내리는데, '풍질' 때문이라는 사관의 기록처럼 풍질도 갖고 있었다.

이징옥은 세종 14년(1432) 병조참판에 임명되어 오랜만에 서울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때 이징옥은 명 사신 윤봉(尹鳳)과 부딪치게 된다. 윤봉은 조선 출신의 환관인데, 중국 출신들보다 더 조선을 괴롭혔다. 윤봉은 태종에게 조선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벼슬을 줄 것을 요구해 형제 10여 명이 모두 서반(西班)의 사직(司直)·사정(司正) 등의 벼슬을 받았다. 세종 12년(1430) 사신으로 왔을 때는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소동을 부렸는데, 세종은 농사꾼 출신인 그의 아우 윤중부(尹重富)에게 당상관인 총제의 벼슬을 주며 달래야 했다.

세종 14년 윤봉이 다시 사신으로 왔을 때 접반사로 임명된 인물이 이징옥이었다. 그가 접반사가 된 것은 윤봉이 함길도를 거쳐 귀국하기 때문인데, 함길도를 거치는 이유는 해청(海靑), 곧 매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신들의 매 요구는 조선의 큰 골칫거리였다. 판서 신상(申商)이 "매년 매를 잡아 바치면 함길도 백성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쇠모(衰耗)하게 될 것"이라며 잡기 어려운 척하고 잡은 것도 몰래 놓아주자고 계청한 것이 사대의 나라 조선의 고민을 말해준다. 세종은 당초 이 계청을 받아들였다가 "내 지성으로 사대하였고, 철이 난 이래로 조금도 거짓된 일을 행함이 없었다"면서 정성껏 잡아 바치라고 명령을 바꾸었다. 이런 상황에서 접반사가 된 이징옥은 윤봉의 횡포에 분개하고 맞섰다. 경원에 도착한 운봉이 절제사 송희미(宋希美)에게 좋은 사냥개를 달라고 요청하자 이징옥은 "이미 뇌물을 주지 말라는 칙서가 있고, 또 나라의 명령이 있으니 사리에 비추어 좇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윤봉은 경성(鏡城)에서 수하를 시켜 백성의 개를 빼앗았는데, 이징옥은 개 주인에게 몰래 가져가게 했다. 윤봉이 이징옥에게 "재상(宰相)은 어찌 이처럼 사리를 알지 못하고, 개 한 마리를 아끼시오"라고 화를 내며 그 개를 다시 빼앗아왔다. 백성의 개 네 마리를 더 빼앗은 윤봉이 개 먹이를 요구하자 이징옥은 거부하면서 개 주인에게 일러 모두 가져가게 했다. 화가 난 윤봉이 개 주인을 핍박하자 개 주인은 개를 이징옥의 처소로 보냈고, 이징옥은 숨기고 내놓지 않았다. 윤봉의 부하들은 모피를 구하려다 실패하자 통역관 정안중(鄭安中)을 매질하고, 윤봉은 직접 탄자(彈子)를 쏘아 사람을 다 죽게 만드는 등 횡포가 말이 아니었다. 이런 윤봉과 맞서던 이징옥은 급기야 경성 사람이 잡은 해청 1연을 숲 속에 숨겨두었다가 몰래 놓아주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세종은 황희·맹사성 등의 대신을 불러 "내가 즉위한 이래로 사대의 일에서는 조금도 거짓을 행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이징옥이 대사를 그르쳤으니 어찌하여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징옥은 세종 14년 11월 의금부의 국문을 받고 외방에 부처(付處·유배형의 일종)되었다가 1년 뒤에야 풀려났다. 석방 뒤 영북진(寧北鎭) 절제사로 임명된 이징옥은 함길도에서 새로 관찰사로 임명받은 김종서(金宗瑞)를 만난다.

'어금니가 있는 큰 돼지'라 불려

세종은 재위 15년(1433년) 1월 최윤덕(崔潤德)을 평안도 절제사로 삼고, 그해 12월에 김종서를 함길도 관찰사로 삼아 압록강 유역의 4군(郡)과 두만강 유역의 6진(鎭) 개척에 나섰다. 김종서가 6진을 개척할 수 있었던 데는 이징옥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세종실록〉의 아래 글은 이징옥에 대한 평가를 전하고 있다.

이징옥이 회령을 지키고 있는데, 성질이 굳세고 용감하여 정령(政令)이 매우 엄격하였으며, 적변(賊變)이 있으면 즉시 무장을 갖추어 성 밖으로 나가서 적을 기다리니, 싸움에 크게 이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여러 부의 야인(野人·여진족)들이 매우 그를 두려워하고 꺼려서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그를 '어금니가 있는 큰 돼지'(有牙大?)라고 불렀다. 야인 중에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가 술 취한 틈을 타서 쏘아 죽이자"라고 모의하자 그 측근의 사람은 "비록 술에 취하더라도 범할 수가 없을 것이라"라고 말했다.(〈세종실록〉 18년 11월27일)



△ 18세기에 제작된 해동지도의 일부분. 지도 상단에 '오국성'이라고 표시된 곳은 이징옥이 나라를 세운 뒤 도읍지로 삼으려 했다고 알려지는 국내성이다.(사진/ 권태균)

그러나 그는 무력만을 앞세우는 인물이 아니었다. 세종 16년(1434) 영북진 남면 고산성(古山城) 근처에 250여 호(戶)가 경작할 땅이 있으니 군사와 백성을 이주시켜 국경 방어의 요충지로 삼자고 조정에 건의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둔전(屯田)을 갈아서 먹을 것을 있게 해야 북방 영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징옥이 세종 20년(1438) 3월 모친상을 당하자 세종은 100일 뒤에 기복출사(起復出仕)시키겠다고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김종서가 상언을 올려 "이징옥이 오랫동안 풍증(風症)을 앓고 있다"면서 "이징옥에게 2, 3년 동안 병을 치료하게 하자"고 청하자 세종은 이징옥을 경상우도(右道) 도절제사로 임명했다. 또한 80살이 넘은 아버지 이전생(李全生)에게도 첨지충추원사를 제수했다. 그러나 이징옥은 세종 22년(1440) 7월 중추원사(中樞院使) 겸 평안도 도절제사로 임명되는데, 여러 차례 부친을 모시게 해달라는 사직상소를 올렸지만 허락받지 못했다. 이징옥은 세종 29년(1447) 부친의 나이가 96살이라며 "관직에서 물러나 봉양을 허락해달라"고 계청해 허락을 받았으나 세종 31년(1449)에 몽골대군이 침공한다는 첩보가 잇따르자 다시 함길도 도절제사가 되었다. 이때 〈세종실록〉의 사관(史官)은 "이징옥이 무예(武藝)가 있어 양계(兩界)를 20여 년이나 진압했는데 야인이 외복(畏服)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문종 즉위년(1450) 8월 부친이 사망하자 이징옥은 3년상을 치르겠다며 사직을 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으며, 단종도 재위 1년(1453) "경이 북방에 머문 지 이미 30개월이 되었으니, 마땅히 교대되어야 하지만 변방의 숙장(宿將 · 경험 많은 장수)은 얻기 어렵다"면서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해 10월 계유정난이 발생하면서 운명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으로 흘렀다.

대금황제가 되려는 계획?

단종 1년 10월 계유정난으로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수양대군은 상호군 송취(宋翠)를 의금부 진무(鎭撫)로 삼아 함길도 도절제사 이징옥을 체포해 평해(平海)에 안치하라고 명령했다. 계유정난에 반발할 무장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직 도절제사를 체포할 경우 저항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종서와 양숙이었던 평안우도 도절제사 박호문(朴好問)을 함길도 도절제사로 임명해서 자리를 빼앗은 뒤 체포하려고 했다. 박호문에게 절제사 자리를 물려주고 귀향하던 이징옥은 휘하 장수를 불러 "새 도절제사와 면대하여 의논할 일이 있다"고 다시 돌아왔다. 여러 차례의 사직 요청을 거부하던 조정이 갑자기 사람을 보내 교체시킨 것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징옥이 다시 나타나자 당황한 박호문은 큰 돌로 문을 막고 문틈으로 활을 쏘며 저항했으나 이징옥 휘하의 장사가 쏜 화살에 되레 죽고 말았다. 이징옥은 박호문의 아들 박평손(朴平孫)을 붙잡아 "네 아비는 과연 조정에서 제수한 것이냐?"라고 다그치자 두려움에 질린 박평손이 조정에서 제수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박평손을 베어죽이려 하자 "어찌 조정에서 제수받지 않고 도절제사가 되는 자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이 절제사의 말을 따르면 뒤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라고 소리치자 병사들은 박평손을 죽이지 못했다. 이런 소동을 통해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켜 김종서 · 황보인 등을 죽이고 사실상 국권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징옥은 군사를 일으켜 수양을 토벌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 수양 쪽에서 작성한 〈단종실록〉은 종성(鍾城)에 도착한 이징옥이 종성 교도(敎導) 이선문(李善門)에게 "이 땅은 대금황제(大金皇帝)가 일어난 땅이다. 때에는 고금이 있으니 영웅도 다름이 없다. 내가 지금 큰 계책을 정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고 전하는데, '큰 계책' 이란 바로 대금황제가 되려는 계획을 뜻한다. 〈단종실록〉에는 이징옥이 "짐이 박덕하여 천명대로 한다고 보증하기는 어렵지만 감히 스스로 마지못해 위에 오른 지가 해가 넘었다. 지금 하늘이 다시 유시하시니, 내가 감히 상천(上天)의 명령을 폐하지 못하여 모년월일 새벽녘에 즉위하였으니, 경내의 대소 신민은 마땅히 그리 알라" 고 직접 즉위까지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징옥이 여진족 완옌씨(完顔氏)가 세웠던 금나라(1115~1234)를 이은 대금(大金)을 재건해 황제에 올랐다는 것이다. 〈해동야언〉 '세조조' 는 "이징옥이 글을 야인(野人 · 여진족)에게 보내서 대금황제라 자칭하고, 장차 오국성(五國城)에 도읍을 정한다고 하니 야인이 모두 복종하였다" 라고 전하고 있다. 오국성은 송(宋)나라 두 황제인 휘종(徽宗) · 흠종(欽宗) 부자가 금나라에 생포되어 구금되었다가 죽은 성이기도 한데, 고구려의 국내성 자리이다.

압록강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

이징옥이 대금황제를 자칭한 이 사건에 대해 〈단종실록〉의 조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선 정조 때의 채제공(蔡濟恭)은 〈번암집〉(樊巖集)에서 이징옥은 수양의 불법성을 명나라에 직소해 단종의 실권을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지 대금황제가 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명나라 사신들의 횡포에 분개하던 그가 명나라에 호소해 단종의 실권 회복을 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여 년간의 북방 생활을 통해 그는 기마민족인 여진족을 규합하면 수양을 무찌르고 나아가 명나라와 한판 대결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징옥은 단종 1년 종성 판관 정종(鄭種)과 이행검(李行儉)에게 살해당해 죽고 말았다. 과연 그는 사대의 나라 조선에서 대금제국 재건과 황제를 꿈꾸었을까? 광개토태왕비가 있는 국내성을 흐르는 압록강은 그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조선시대 연쇄살인범 순화군(順和君

2013.02.20 15:48

조선시대 연쇄살인범 순화군(順和君 ? ~1607)

순화군 이보는 순빈김씨(順嬪金氏)의 소생이며, 서열상 여섯째 왕자이긴 하지만 나이로 보면 1574년에 출생한 임해군(臨海君)과 그 다음해 태어난 광해군에 이어 세번째 정도는 될 것으로 추측된다. 임란 당시 장인 황혁등과 함께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하기 위해 강원도로 갔던 점을 볼 때 16세 보다 더 적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왜군이 강원도로 진입하자 임해군이 있던 함경도로 피난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재산강탈과 군민폭행이 매우심해, 국경인등에 잡혀 왜장 가토에게 포로로넘겨지는 굴욕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후 왜군과의 협상에의해 포로로 풀려난 후 신계(新溪) 라는 곳에 한동안 머물게 된다. 하지만 순화군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의로 형벌을 가하여, 1597년 정언 이이이첨이 선조(宣祖)임금에게 파직을요청하기에 이른다.

순화군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괴팍하였다는 기록등을 고려 할 때, 개인적인 견해로 그의 행동은 단지 심리현상에서 오는 일탈행동뿐 아니라 뇌 계통의 이상증상에 의해 오는 병리현상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의 의료수준상 그런 판단을 내리긴 힘들겠지만, 어려서 부터 이상증상을 보인만큼 각별한 관심과, 초기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선조임금은 순화군을 무조건 감싸주었고, 순화군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기라도 하듯, 임란이 끝난 1599년 부터 무차별적인 살인를 일삼기 시작한다.
만약 순화군의 보통 사람이었거나 설령 정승판서의 아들이었더라도 잘못나가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1599년 3월 이필영(李必榮)은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순화군에 대한 파직을 요청하였다. 내용은 순화군이 강가에 나가 살면서 이웃 사람을 타살(打殺)하였는데 피살자의 연고자가 위세에 눌려 소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비망록에는 살인을 여러차례 하였다고 나와있어, 그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한두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조는 모든것을 자기탓으로 돌리며, 순화군의 파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순화는 어머니인 순빈김씨를 모시던 궁인을 겁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에는 아무리 선조임금이라도 그를 옹호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는 살인보다도 오히려 폐륜과 강상죄를 더 중대범죄로 치급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화군은 왕이 총애하는 왕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원으로 유배하는 가벼운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순화군은 수

원으로 내려가서도 여전히 위세를 부리며, 각종 패악질을 부렸다.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그 곳 향리 두명에게 직접 형장을 가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순화군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서는 유배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가택연금으로 처벌을 강화시켰다.

연쇄살인을 가능케 한 권력의 힘

그런데 순화군은 가택연금을 당하였지만 수문(水門)을 부수고 나와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직접 형장을 치기를 수차례나 하였다. 그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1601년 2월에 있었던 한 사건을 살펴 보자.

당신 맹인을 남편으로 두고 있던 **무녀**는, **장석을시**라는 사람의 집에서 역병을 쫓기 위한 굿을 사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도 술에잔뜩 취한 순화군은 우연히 장석을시의 집에 들리게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묻지마 식의 잔혹한 살인 행위가 시작된다.

순화군은 먼저 무녀의 위아래 이빨 각 1개를 뽑고, 이어 **장석을시** 의 위아래 이빨 9개를 작은 쇠뭉치로 때려 깨고 또 집게로 잡아 뺐다. 곧 무녀는 유혈이 얼굴에 낭자하였으며 피가 목구멍에 차 숨을 쉬지 못하여 즉사하고 말았다. 장석을시는 이튿날이 되어서야 구조되었지만, 목숨이 위급하여 곧 죽을 상황이었다. 조선시대 의료사정으로 보았을 때 장석을시라는 사람도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순화군의 범죄는 점점더 흉폭해져 갔지만, 1601년 순화군의 군호(君號)를 박탈하여 더이상 위세 부리지 못하는 정도에 그쳤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순화군의 하옥및 단죄를 거듭 요청하였지만, 선조임금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선조는 모두 종들과 무뢰한 무리들이 종용했거나 유도한 탓일 것이라 며 여전히 순화군을 두둔하였다. 아버지로써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쩔 수 없지만,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 그 같은 범법행위를 옹호한 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로부터도 순화군의 무차별적인 살인행위는 그치질 않았는데, 실록에는 순화군을 **남대문(南大門)** 밖에 있는 인가(人家)에 안치했는데, 그 인가는 사통 팔달한 큰길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감히 그곳으로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나온다.

1604년 5월에도 길가던 두 여인을 아무 의유없이 살해하여 조정의 의견이 들끓었지만, 선조는 여전히 비호하여 재상들조차 더이상 말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헌부가 6월 말까지 집중적인 탄핵을 한 끝에 선조로부터 순화군에 대한 처결을 위임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순화군이 문앞에서 연좌농성하는탓에 봉쇄조치는 몇달이나 미뤄졌다.

또 10월 들어 날씨가 추워지자 좀 더 따뜻한 가옥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순화군의 부탁을 들어주는 척 다른 가옥으로 옮긴 후 재빨리 문을 폐하고 담장을 높이 치는 봉쇄조치를 단행하였다.그러나 그때에도 순화군은 화를 참지못하여 가옥봉쇄작업을 하고 있던 군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 할 정도였다.

이렇듯 살인과 패악질을 일삼던 순화군도 1607년 3월 30대를 전후한 나이로 사망하게 된다. 졸기에는 성질이 패망(悖妄)하여 술만 마시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것이 해마다 10여 명에 이르렀으므로 도성의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 호환(虎患)을 피하듯이 하였다고 나와있다.
1599년부터 순화군에 대한 파직상소가 올라와 1603년까지 절정을 이루었으니, 그의 손에 의해 직접 살해된 희생자만 해도 40여 명에 이른 것이다.

덧붙여 말해두자면 왕실의 범죄행위는 결코 조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민중에 대한 생명과 재산 존중의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선이 그시대의 다른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은 편이었다. 그러한 조선에서조차 이처럼 생명존중 열악하였으니, 그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는가?

어릴때 부터 분명한 이상행동을 보인만큼, 선조는 어쩌면 아버지로서 자식을 지나치게 방치하고 방관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울러 법 적용과 집행은 만인에게 절대평등해야 됨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고려 말 명장 이성계의 활약(1) — 동북면을 평정하다

2013.02.20 15:30



이성계는 고려말 제일의 명장으로, 북방과 남방을 가릴것 없이 고려의 전 영토에서 전쟁을 벌여 당시 동아시아에서 고려가 상대할 수 있었던 모든 적과 싸워 승리를 했던 경력의 지휘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은 위화도 회군 직후부터 태종의 왕자의 난까지의 이미지이기에, 그런 무장으로서의 경력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일국의 왕인데다 그 중에서도 왕조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개국 군주이기에, 그런 이성계의 능력을 포장하기 위해 기록을 과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으로 기록을 조작했다쳐도)그렇게 이성계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한 것이 다름아닌 무장으로서의 경력과 공으로 인한 입지라는것을 생각하면, 실제로 이성계의 전공과 능력은 대단했다고 보는것또한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 조정에서의 이성계의 커리어는 1356년입니다. 그 전해인 1355년에 오로사불화(吾魯思不花) 즉 이후에 환조가 되는 아버지 이자춘이 고려 조정에 내알하였지요. 이때가 이성계 나이 22세로, 젊은이의 용력이 절정에 달할 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격구를 해서 놀라운 재주를 부려 주위 사람들이 모두 기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전란이 없었기에, 이성계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본격적인 무장으로서의 입지를 쌓기 시작한것은 무려 5년아니 지난 1361년 부터였습니다. 독로강(禿魯江)의 만호(萬戶) 박의(朴儀)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킨게 문제였습니다.

박의는 천호(千戶)였던 임자부(任子富)와 김천룡(金天龍)등을 살해하였기에 고려 조정에서는 형부상서 김진(金縝)을 보내 토벌하게 했는데, 별로 싸움이 좋지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성계는 통의 대부(通議大夫) 금오위 상장군(金吾衛上將軍) 동북면 상만호(東北面上萬戶)가 되어 김란을 지원하러 떠났습니다. 상만호는 순금만호부에서 두번째 정도 되는 자리인데, 순금만호부가 "도적을 막고 반란을 금하는" 관청이라 박의의 난을 진압하러 간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성계가 이끈 병력은 1천5백여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박의의 난을 막았느냐, 하는건 어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곳에 가니, 박의는 이미 그 무리를 거느리고 도망하여 강계(江界 평안북도라고 합니다. 독로강이 평안북도 옆의 소백산에서 발원한다고..)로 도망하였으나, 다 잡아서 목을 베었다" 고 좀 모호하게 되어있는데, 이 문맥만 보면 이성계가 도착했을무렵 박의의 반란은 거진 실패하여 마침 도착한 이성계가 숟가락만 엎은 모양이 됩니다. 이성계보다 먼저 박의와 싸운 김진에 대해서는 "능히 제어하지 못했다" 라고 역시 애매한 표현인데, "실패했다"는 소리는 없으니 실제적으로 김진이 진압했을수도 있겠습니다.



홍건적의 침입

문제는 박의의 변란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1361년의 겨울에 이르면 저 북쪽에서 무려 20만명의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서 고려로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건적은 "우리 군대가 무려 110만임 ㅇㅇ" 하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 뒤의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이성계가 적의 왕 원수(王元帥) 이하 백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고 나옵니다. 뭐 어쩌다가 싸웠는지 그런것도 없이 그냥 죽였다고만 나옵니다. 왕원수라는것이 "홍건적군의 총대장" 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성이 왕씨고 그냥 왕원수로 불리었던 모양인데....무슨 별명이 그러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홍건적군이 도적때다 보니 다른 지휘관중에 한명은 아예 **관선생(關先生)**이고 다른 사람은 왕원수 비슷하게 주원수(朱元帥)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건적의 대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고, 11월 무렵 결국 공민왕은 수도를 버리고 경상북도로 달아났습니다. 11월 24일 되면, 홍건적은 수도 개경을 함락해서 궁궐을 불태우는 등 만행을 부렸는데, 도적 무리라 보니 별다른 작전이 없어서인지 개경에서 2개월만 머물며 전혀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 동안 고려는 급히 군사를 모집했는데, 노비였던 자들까지 싹싹 긁어모아 20만의 대군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차피 적군도 도적때니 병사 질이 중요한게 아니고....여하간 정세운을 총병관으로 삼아 개경을 포위, 대담하게도 적의 주력을 바로 공격해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성계도 친병 2천명을 거느리고 참전, 앞장서서 성으로 들어가며 적을 대파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사유와 관선생등 적의 우두머리들이 그냥 죽었다고 나오는데, 고려 사절요에서는 무려 이성계가 사유와 관선생을 베었다고 나옵니다.

고려군은 쥐가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칙때문에 일부러 성문을 열어주어서 홍건적이 도망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번은 포위중에 적이 달아나자 이성계가 곧바로 달려가서 적을 무찔렀는데, 복잡한 싸움끝에 이성계의 뒤에서 적병이 창을 내찌르는데 오른쪽 귀를 찌를 정도라 엄청나게 다급했습니다만, 직접 베고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前七八人인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7,8명을(직접)베었다고 하고,** http://osmstar.com.ne.kr/goreosajelo/kframe1.htm **여기서는 78명을 베었다 고 하네요.**

여기까지 이성계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아직 단독으로 사령관으로서의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란이 끊임없이 닥치면서 좋은 기회가 왔는데, 홍건적의 난이 간신히 진압되자마자 2월 경, 북방에서 또다른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홍건적보단 숫자가 적지만 군대의 질은 비할바 없는 상대였는데, 나하추의 공격이었습니다.

나하추와의 대혈투

나하추는 일종의 원나라 군벌 세력입니다. 일전에 명나라의 주원장이 세력을 키우면서 태평이란 지역을 점거한적이 있는데, 그곳에 있던 나하추를 주원장이 사로잡았다가 북방으로 보냈는데, 나하추는 당초에 주원장에게 충성을 하면서 요동에서 세력을 쌓다가 원나라가 북방으로 도주하자 자립해버렸습니다.

나하추를 끌고 온 사람은 조소생(趙小生)이었습니다. 조소생은 쌍성총관부의 총관으로, 고려의 공민왕이 이 지역의 수복을 시도하자 여진으로 도망갔다가, 이번에 나하추등의 다른 세력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나하추의 군대의 규모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으나, "수만"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동북면 도지휘사 정휘(鄭暉)는 당초에 나하추와 싸웠으나 계속 패전하였습니다.

이때 고려는 아직 홍건적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개경은 수복하긴 했는데, 도주하는 홍건적을을 도처에서 계속 공격했던 것이죠. 그런 혼란 속에 고려 조정은 4월 무렵에야 이성계를 상호군(上護軍) 동북면 병마사(東北面兵馬使)에 임명해서 보낼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이 "고려사절요"에서는 그냥 "태조를 보냈다" 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나하추에게 패배한 정휘가 "이성계를 보낼것은 요청"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7월 무렵에 나하추는 조소생등과 함께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와 진을 치고, 먼저 1천여명의 병사를 선봉으로 삼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병력이 덕산동이라는곳에서 이성계와 마주칩니다.

갑작스러운 전투에 나하추의 선봉대는 달아났고, 이성계는 함관령과 차유령의 두 고개를 넘어 맹렬히 추격, 적을 거의 섬멸했는데 워낙에 갑작스러운지라 나하추의 군대는 무기와 식량도 버리고 달아나야했습니다. 이성계는 승리 후에 우선 물러나서 답상곡이라는 곳에 진영을 쳤습니다.

아직 달단동이라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나하추의 본대는 이 소식을 들었고, 분노한 나하추는 군대를 움직여 이성계가 전투를 벌였던 덕산동으로 움직였으나, 고려군의 야습에 크게 당해서 다시 본래 있던 달단동으로 돌아가고, 이성계는 다시 진영을 사음동이라는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성계나 나하추나 우선 바로 전면전을 벌이는것은 피하고 상황을 재고 있었습니다.

대치가 이어지던중, 이성계는 척후병의 보고에 의해서 많은 숫자의 나하추군이 나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병법을 좀 보았는데, 마땅히 약한 적을 먼저 치는것이라더군!"

이성계는 즉시 기습을 하여 나무를 베던 적군을 섬멸하고, 다시 600명의 기병을 선발하여 적군을 급습했습니다.

이때 이색적인 기록이 있는데, 이성계가 기병 10기을 거느리고 적의 비장을 직접 죽였던 것입니다. 이성계가 처음 이 지역에 도착해서 상황을 살펴보면서 물어본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싸우기만 하면 거푸 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싸움이 벌어지는 한창 중에 적진에서 쇠갑옷에 붉은 기꼬리를 장식한 장수가 창을 들고 튀어나오는데, 병사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쳐서 싸울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적을 공격하다 일부러 힘에 부치는 듯 퇴각을 했는데, 적진에서도 들은바가 있었던 장수가 공을 탐냈는지 튀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적장은 창을 내질렀는데 이성계는 안장에 의지해서 이를 피했고, 무거운 창을 헛지르면서 적장도 굴러떨어져버렸는데, 이성계는 이틈에 화살로 그 장수를 쏘아죽였습니다. 장수가 죽자 나하추군은 금세 도망을 쳐버렸고, 이성계는 나하추의 본대가 진을 친곳까지 도달했지만 숫자가 적고, 밤이 오는 통에 별수없이 퇴각해야 했습니다.

무협지 같은 기록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날 이성계의 무용을 듣고 나하추의 아내가 나하추에게 간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세상을 이곳저곳 다닌지가 오래에요. 그런데 저런 장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피하는것이 낫지 않겠어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없지만 고려사절요에는 여기에 더해서 나하추의 **누이가 이성계를 보고 탄복해서 "저런 사람이 없겠다"** 고 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진짜 무협소설도 아니고....

싸움은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이성계는 대담하게 나하추가 진을 치고 있는 달단동까지 군대를 움직여서 양군은 바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하추는 대화를 요구하여 이성계와 나하추는 약간의 호위병만을 이끌고 만나게 됩니다.

"이보시오. 내가 이곳에 처음 온것은 사유, 관선생등의 무리(홍건적)을 잡으려고 뒤쫓아온것이지, 귀국을 침범하려 온것은 아니외다. 지금 나는 계속 패전을 해서 병사를 1만이나 잃었고 비장도 여러 사람 죽었소이다. 내 마땅히 싸움을 그만두고 다만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그런데 이성계가 판단하기에는 형세가 불리해서 항복하겠다는 군대가, 오히려 사기가 왕성했기에 아무래도 나하추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무협지 같은 기록은 또 이어집니다...나하추의 말을 믿지 않은 이성계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화살을 쏘아 나하추의 부장을 죽여버렸고, 그러면서 나하추의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나하추의 말까지 쏘아 죽여대는 것입니다. 나하추는 기겁해서 말을 바꾸어서 탔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바꾸어 탄 말까지 쏘아 죽였습니다.

이에 한참 동안 크게 싸우니, 서로 승부(勝負)가 있었다

이 말을 보면 이성계가 나하추와 **일기토** 를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성계는 나하추를 추격했고, 나하추는 기겁해서 소리쳤습니다.

"이 만호여, 어찌 우리 두 장수가 원수 진일이 없는데 어찌 이리 핍박하시오?"

그런데 이성계는 듣지도 않고 활을 쏘아서 나하추의 말을 또 쏘고, 나하추는 옆에 있는 병사의 말을 빌려타서 간신히 도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나하추를 추격하던 이성계는 날이 어두워지자 우선 퇴각을 했습니다. 양군이 진영을 친곳은 산길로 여러 길로 되어있고 구불구불했는데, 높은곳에 있던 이성계는 낮은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자(宦者), 즉 환관이었던 이파라실(李波羅實)이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사람 살려주시오! 사람을 살려주시오!"

상황을 내려다보니 갑옷을 입은 두 명의 적군이 이파라실을 쫓아 거의 죽이게 되었기에, 이 두명을 활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 다음이 가관인데, 혼자서 **적군 20여명을 순삭** 시키고는, 적군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적병이 창을 휘두르자 **말에서 떨어지듯이 누워서 피하고는, 말에 거꾸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적병을 죽이고, 적병이 화살을 쏘자 말 위에서 서서 말등에 올라 겨드랑이 사이로 화살을 피하고 다시 화살을 쏘아 적의 무릎을 맞추었습니다.**

안끝납니다. 강가로 간 이성계는 이번에는 온몸에 갑주를 입은데다 얼굴에도 투구에 턱갑옷까지 쓴 적병을 보았는데 화살을 맞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일부러 그 적병의 말을 쏘고, 말이 고통스러워하여 날뛰자 적병이 말의 고삐를 당기느라 **입이 벌려지는 틈을 타 그 입 안에 화살을 쏘아** 넣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성계는 철기병으로 적군을 다진고기로 만들듯이 공격했습니다. 적군은 고려군에 맞아죽고, 자기들끼리 엉키면서 죽고 난리통이었고 간신히 달아나는것만 성공합니다.

한바탕 대승을 거둔 이성계는 정주(定州)에서 진영을 치고 병사들을 며칠동안 푹 쉬게 한다음 다시 나하추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이성계는 병사를 셋으로 나누어 진격시키고 자신은 중군을 이끌었는데, 마침 또 함흥평야에서 나하추를 바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가 대치한 가운데, 또 다시 시작되는 무협지의 기록으로는 이성계가 **단기필마로** 적군의 앞으로 돌진해 적진을 살피자, 나하추의 군대에서는 세명의 장군이 이성계를 잡으러 뛰어나왔습니다. 이성계는 마치 당해낼수 없다는듯이 달아났는데, 갑자기 말을 오른편으로 돌렸고 적의 장수들은 미처 돌진하는 말을 제어하지 못해 계속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적의 뒤를 잡은 이성계는 화살을 거푸 쏘았고, 적장들은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_-

그러면서 사방에서 복병들이 공격을 하자 나하추는 도저히 이거 안되겠다 싶어서 달아났고, 싸울 마음도 싹 사라져 사람을 보내어 좋은 말과 비고(□鼓)등을 바치면서 물러났습니다. 나하추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자춘(이성계의 아버지)이 원나라 조정에서 조회할때, 나에게 "재주 있는 아들이 있다"고 자랑하더니 과연 거짓이 아닌걸!"

이러면서 나하추로 동북면의 난은 완전히 평정되었습니다.

최유 - 덕흥군과의 전투

숨가쁘던 1361년-1362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무렵 또다른 변란이 북쪽에서 도착했습니다. 일전에 공민왕은 개혁의 일환으로 기씨 일족을 주살했는데, 이것이 원나라에 있던 기황후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 기황후에게 붙어있던 인물이 최유였습니다. 최유는 전형적인 매국노로 고려인이었지만 원나라에 알랑거리며 권세를 얻었고, 여자를 마구 겁탈하고 다니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또한 원나라의 명령으로 고려에서 군사를 뜯어가기 위해 행패를 부렸는데, 공민왕은 그 자를 달래기 위해서 벼슬을 주어야 했습니다.

마침 최유는 기황후의 심정을 알고 아첨을 하기 위해 공민왕을 폐하고, 덕흥군이라는 인물을 대신 고려 왕으로 삼자고 말하여, 1만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최유의 군대는 압록강을 건너 의주로 쳐들어왔습니다. 도지휘사(都指揮使) 안우경(安遇慶)은 이런 최유의 군대를 일곱번 싸워 일곱 번 모두 무찔렀는데, 하지만 지원군이 없고 숫자가 역부족이라 최유가 일곱으로 군대를 나누어 포위를 하자 몹시 위태로운 지경에 몰렸습니다.

고려 조정은 이 문제에 대해 곧바로 대처하여 최영에게 정예병을 주어 보냈습니다. 또 동북면 병마사인 이성계 역시 1천여 명의 정예 기병을 모아 합류했습니다. 이에 기세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또한 안우경이 최유의 기병을 격파하여 적의 장수를 죽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고려군은 안우경등을 좌익으로, 이성계등을 우익으로, 다시 최영을 중군으로 하여 진격했습니다. 그 무렵에 이성계는 여러번의 패배를 보고 다른 장수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진건 그대들이 겁을 먹고 힘써 싸우지 않아서 그런것 아니오?"

그러자 다른 장수들이 불쾌하게 여긴것입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일은 자네 혼자 싸워보게!"

아무러한 이성계도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내심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적군은 세 방향으로 나누어서 쳐들어왔고, 이성계 역시 자기 수하의 노장 두명에게 병사를 주고 자신 역시 나서서 세방향으로 적군을 막았습니다. 혈투중에 이성계의 말이 진흙에 빠져 위험한 처지가 되는 불상사도 있었지만 빠져나오는데 성공했고, 적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본래 최유의 밑에 있던 몽고-한족 병사들은, 최유가 "우리 군대가 가기만 하면 고려왕은 항복할것이다!' 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쳐들어왔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변해가자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끼리도 뒤숭숭하여 후퇴하다가 고려군의 공격을 받고 문자 그대로 괴멸, 사방으로 흩어져서 당초 출발한 연경에 도착한 병사는 1만명 중에 고작 17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진족 삼선 – 삼개의 난 진압

원나라 장수 조무가 공주를 점거하자 이를 물리치고 조무를 항복시킨 이성계는 이제 동북면으로 돌아오면서 여진족의 난을 평정했습니다. 이성계의 할아버지, 도조는 자신의 딸을 다루가치 김방괘(金方卦)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삼선과 삼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선과 삼개는 이성계와는 친척입니다. 이성계하고는 이종형제이죠.

여진족 땅에서 살며 삼선과 삼개는 힘이 쎄고 불량배를 모아 행패를 부렸는데, 이성계에게는 쪽도 못쓰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여진지방에서 가지던 영향력을 볼수가 있는데, 어린시절부터 그 ㅎㄷㄷ함과 주위에 쌓아온 은혜가 엄청나게 많아 그 지역에서는 고려 백성들이나 여진인들이나 절대로 이성계에게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삼선과 삼개도 이성계때문에 가만히 숨을 죽이고 살았는데, 마침 이성계가 최유를 물리치는 일때문에 서북면으로 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틈을 탄 삼선과 삼개는 자기에게 호의적이던 여진족들 꾀어 함주를 함락시키고 화주까지 이르며 관군에 연전연승해습니다. 관군은 철관에 의지한채 이성계가 어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2월이 되고, 승리를 거둔 이성계는 철관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성계의 영향력이 어느정도인지, **이성계가 도착했다는 소식만으로 인심이 안정되고 병사들의 사기가 치솟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성계가 공격을 가하자 마자 삼선 삼개는 여진족 땅으로 도망쳐서 소식이 끊겼고 잃었던 고을도 한꺼번에 재평정되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도 이 공들을 높이 보아 이성계를 밀직 부사(密直副使)로 삼고, 봉익 대부(奉翊大夫)로 관계(官階)를 더하고 단성 양절 익대 공신(端誠亮節翊戴功臣)의 칭호를 내렸으며, 또 금대(金帶)를 내리게 됩니다.

고려 말 명장 이성계의 활약(2) — 압록강을 넘다

2013.02.20 15:46

1367년 무렵, 기새인티무르라고 불리는 사람이 요동의 동녕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황후의 조카이자 기철의 아들로, 원나라의 평장사(平章事) 노릇을 하다가 아버지 기철이 고려에서 주살되자 그것을 이유로 고려의 북변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대륙을 정세를 살펴보면, 장사성과 진우량이라는 경쟁자를 물리친 주원장이 1364년 무렵 오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유복통과 한림하는 파죽지세로 원나라를 격파하여 수도 대도를 압박했습니다. 원순제는 천도할것까지 고려했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그만두었고, 원나라 장수 차칸티무르(察罕帖木兒)는 역공을 가해 유복통을 죽이고 그 세력을 흩어놓았습니다. 한림하는 주원장에게 왔는데 그 후 죽었습니다. 주원장이 일부러 죽였다는 이야기가 유력합니다. 유복통은 실패했지만 원나라의 남은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서달과 상우춘에게 25만의 대군을 주어 북벌을 감행, 대도를 함락시키고 원나라의 세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망하고 북쪽으로 올라 북원이 되고, 명나라가 새로 대두하고, 고려는 이제 줄을 바꾸기는 해야 하는데 명나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여하간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조선왕조실록과 고려사절요에서는 고려왕이 북원과의 관계를 끊기위해, 동녕부 공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해의 12월 무렵, 고려 조정은 이성계를 동북면 원수(東北面元帥)로 삼고, 지용수(池龍壽)와 양백연(楊伯淵)을 서북면 원수(西北面元帥)로 삼아 공격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370년의 1월, 이성계는 출격을 하게 됩니다. 병력 규모는 보병이 1만이 기병이 5천으로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우선 동북면에서 함흥을 넘어 6백여리를 가고, 평북 강계를 넘어 7백여리를 가서 마침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는 기록으로 이성계가 압록강을 건넌 그날에 서북방 하늘에서 자줏빛의 기운이 올라, "용맹한 장수의 기운이다!" "내가 이성계를 보냈으니 그 때문이다!" 라고 좋아라 했다고 합니다.

동령부에서 버티고 있던건 이오르티무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항복해서 이원경이라고 불리는데, 그의 후손이 조선 세조때 반란을 한 이시애라고 하더군요. 여하간에 이오르티무르는 이성계가 이끄는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라산성(봉천성奉天省 회인현懷仁縣 동가강□佳江 지역)으로 군대를 이동시키고 험한 지형을 이용해 수비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성계의 고려군은 야돈촌(也頓村)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한것이, 이오르티무르가 이성계에 와서 좀 싸우는둥 하더니 느닷없이 "나는 본래 고려 사람인데, 원컨대 부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항복했습니다. 뭐 별다른 과정 설명도 없고 기록에서는 "이오르티무르가 도전하더니 무기를 버리고 두번 절했다." 고 합니다. 이 정도면 처음부터 항복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오르티무르는 삼백여 호를 거느리고 이성계의 군대에 항복했는데……우라 산성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여진) 추장이었던 고안위(高安慰)가 버티고 항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성계의 활 실력에 대한 온갖 기록 중에서도 가장 경악스러운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본래 활을 쏘려던 이성계는 마침 활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부하에게 활을 빌린다음 애기살을 매었습니다. 그리고 편전을 이용해서 산성에서 눈 앞에 보이던 적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적의 머리통을 꿰뚫어버렸습니다. 저쪽에서는 경악스럽지만, 이성계는 눈 앞에 적의 머리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족족 화살을 쏘아 꿰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죽인 사람이 **70여명** 입니다. 좀 심한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 이 기록을 믿는다면 정말 우라 산성에서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죠. 아무 반항도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족족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성안에서는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겁에 질린 고안위는 그 날 밤에 처자식도 버리고 줄을 타고 성 아래로 내려와 달아났습니다.

항전을 주장하던 고안위가 달아나자, 우라산성에서는 굳이 이성계의 1만 5천 대군과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날이 밝기가 무섭게 20여명의 지도자가 성문을 열고 나와서 이성계에 항복을 했고, 우라산성이 이렇게 떨어지자 **소문만 듣고** 요동의 여러 성들이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호가 무려 **일만호.** 기록을 보면 제대로 된 교전이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이오르티무르와의 싸움을 제외하면, **이성계는 병력이 피해를 입을만한 전투 한번 없이 이런 대공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뺏은 천여마리의 소와 수백필의 말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그때문에 민심이 크게 진동하여 고려로 귀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몇달 뒤, 고려 조정은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북면 원수 이성계와 서북면 원수 지용수에게 마침내 동녕부 공격을 명령한것이었죠.

명령에 따라 12월이 될 무렵, 이성계는 의주에서 다시 압록강을 건너 중국땅에 진입합니다. 부교를 만들어서 건넜는데 전병력이 건너는데만 삼일이 걸렸습니다. 군대의 이동이 끝난 그날의 저녁, 갑자기 천둥과 비가 내리자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병마사 이구가 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건 길조입니다. 우리 상원수의 이름이 지용수 아닙니까? 이름이 용인데 강을 건너는 날에 천둥 치고 비가 내리는것은 싸워 이길 징조지요."
공격하려는곳은 요성(遼城)이었는데, 그곳까지의 거리가 이틀 정도 되자 이성계는 전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딱 7일분의 군량만 가지고 공격하였습니다. 우선은 비장인 홍인계(洪仁桂) · 최공철(崔公哲)이 기병 3천여명을 이끌고 요성을 습격하게 했습니다.

요성에선 당초에 그 병력만 보고, "고려군의 숫자는 대수롭지 않은걸." 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선발대 였고 그 뒤로 강을 건너는데 삼일이나 걸린 고려군의 대군이 속속 도착하는걸 보자 절망에 빠집니다. 성 내에서 싸울 의지가 사라졌는데도, 그곳의 장수 처명(處明)이란 자가 홀로 대적하기를 원하자 이성계가 이오르티무르, 이제는 이원경이죠. 이원경을 시켜 살살 달래보았습니다.

"너를 죽이는 일이야 어찌 어렵겠느냐만은, 재주가 아깝구나. 살려서 쓰고 싶으니 항복하여라!"
처명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우라 산성에서 이성계의 지릴듯한 실력을 본 이원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우리 장군의 재주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화살이 네 가슴을 꿰뚫을 것이다!"

처명은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가만히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성계는 화살을 들어 처명의 투구를 살짝 스치게 쏘고는**, 놀라고 있을 처명을 다시 이원경을 시켜 설득했습니다. 처명이 그래도 버티고 있자, 이번에는 아예 다리를 맞추어 버리고 처명은 달아나고 맙니다.

아마도 응급치료 목적으로 보이지만,잠시 달아났던 처명은 다시 돌아와서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이성계는 다시 이원경에게 항복을 권하게 했습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네 머리를 향해 화살을 쏠 것이다!"

포스에 지려버린 처명은 결국 말에서 내려 항복하고 맙니다. 요성은 매우 높고 가파르며, 화살이 빗발처럼 내려오며 또 나무와 돌까지 섞여서 내려왔지만 고려군의 보병들은 이를 무릎쓰고 성에 가까이 접근하여 결국 요성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때 성 내의 주민들은 항복하려고

했지만 성을 지키는 장수가 강제로 싸우게 했던 것이라, 조금 더 일이 수월했습니다.
기새인티무르는 달아나서 잡을 수가 없었지만, 같은 패거리인 김백안은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하추 등에게 기새인티무르의 행방을 탐문하게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고려군이 후퇴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병량 문제가 컸는데, 거기다가 요성을 함락시킬때 하필 병사들이 창고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먹을 것이 없어 소와 말도 잡아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추격군도 염려하면서 사잇길등을 이용해서 돌아가는데, 잠도 들에서 자야 하는데 이성계는 변소와 마굿간을 만들것을 명령했습니다. 진을 칠만한 상황도 못 되었는데도 일부러 이런 명령을 내린것이었죠.

실제로 추격군은 있었습니다. 전에 복종을 표시했던 나하추는 이 무렵 군대를 이끌고 슬금슬금 고려군의 뒤를 따라붙고 있었는데, 고려군이 진을 쳤던 곳에서 마굿간과 변소가 다 만들어져 있는것을 보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맙니다.

"군사들의 행진이 정돈되고 가지런하군. 이래선 습격하기 어렵겠는걸."
나하추는 그리하여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때 고려군의 모습을 보고는, “성(城)을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게 됨은 고려와 같은 나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성계는 항복시킨 처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명은 나이가 많았는데, 이성계는 처명과 이원경, 이두란과 자주 사냥을 다녔습니다. 처명은 사냥을 하다 얼음때문에 미끄러지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이성계는 말을 타고 달려와 화살을 쏘아 곰을 죽였는데, 처명은 탄복하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은 여럿 보았지만, 공의 재주는 천하 제일이군요."

이 무렵 이성계는 그전의 공으로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가 되고, 화령의 부윤이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맡긴 임무는 왜적, 왜구를 감시하라는 이야기 였죠. 고려 말의 왜구는 이미 삼남지방은 물론이고 강화도, 황해도를 가리지 않고 전국을 공격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고려의 전 국토가 왜구의 칼날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왜구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다

짙은 부분이 고려 말 극성을 부렸던 전기 왜구들의 출몰 지역

건국 초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북방에서의 여러 전란과 혼란상을 경험한 고려였지만, 이번엔 남방이 문제였습니다. 악명 높은 왜구(倭寇)가 전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통 왜구라고 하면, 그저 사소한 해적때 정도로 생각할수 있지만, 이들의 한도를 모르는 약탈과 침략은 고려, 조선이 아닌 명나라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였을 정도였고, 그 과정에서 척계광이라는 전쟁 영웅까지 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왜구의 실체는 단순하게 열악한 무장을 갖춘 도적집단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쿠슈와 쓰시마, 이키 등의 세력들의 사병이나 사력함대 비스무리한 세력이기도 하다가, 반대로 그쪽 근방을 털어먹어 일본에서도 해적을 잡기도 하고, 구성원도 일본인에서 중국인, 한국인, 동남아인 아무튼 종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구의 역사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박혁거세 즉위 8년(BC 50년)**에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박혁거세의 신령한 덕을 보고 지리며 도망갔다고 하는데(-_-) 일본에서는 아시카가 타카우지가 고다이고 덴노를 요시노로 내쫓고 고묘 덴노를 세운 1336년부터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몰락한 사무라이들이 재기를 노리며 해적질을 한것이 고려 말 극심하던 왜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고려 말기의 해적들은 **국가적인 차원의 재난** 수준이었습니다. 훗날 이성계와 아기바투(兒只拔都)의 일전에서 보듯, 일정 수준 이상의 왜구들은 화살도 잘 들어가질 않을 정도로 무장 상태도 좋았구요. 고려 말 왜구가 얼마나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만한지, 공민왕때에만 쳐들어온 왜구들의 사례를 열거해보겠습니다.

1352년

내부소윤(內府少尹) 김휘남(金暉南)에게 명하여 전함 25척을 거느리고 왜적을 막도록 하였는데 풍도(楓島)에 이르러 왜선 20척을 만나 싸우지도 않고 퇴각하였다.
왜적이 파음도(巴音島; 경기 江華) 사람들을 도륙하였다.
왜선이 크게 몰려들었다. 김휘남은 군사가 적어 대적할 수 없어 물러나 서강(西江)에 머물러 급한 사정을 고하였다.
왜적이 전라도에 침입하니 지익주사(知益州事) 김휘(金輝) 등이 수군을 거느리고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왜적이 강릉도(江陵道)에 침입하였다.
왜적의 배 50여 척이 합포(合浦)를 침략하였다.

1354년

왜적이 전라도의 조선(漕船) 40여 척을 약탈하였다

1355년

왜적이 전라도의 조선(漕船) 2백여 척을 약탈하였다.

1357년

왜적이 교동(喬桐)에 침노하였다.
왜적이 승천부(昇天府)의 흥천사(興天寺)에 쳐들어와 충선왕(忠宣王)과 한국공주(韓國公主)의 영정을 가지고 갔다.

1358년

왜적이 각산수(角山戍)에 침략하여 배 3백여 척을 불태웠다.
왜적이 면주(沔州; 충남 唐津 · 용성(龍城 경기 振威)을 침범하였다.
왜적이 검모포(黔毛浦 전북 부안(扶安))에 침입하여 전라도의 세미 실은 배를 불태웠다.
왜적이 화지량(花之梁; 경기 水原)을 불태우고 인주(仁州; 仁川)를 노략질하였다.

1360년

왜적이 사주 각산(泗州角山)을 침범하였다.
윤달에 왜가 강화를 침범하여 선원(禪源) · 용장(龍藏) 두 절에 들어가서 3백여 명을 죽이고 쌀 4만여 석을 빼앗았다.
왜적이 교동현(喬桐縣)을 불살랐다.
5월에 왜적이 전라도 회미(會尾) · 옥구(沃溝) 등을 침범하고, 양광도 평택(平澤) · 아주(牙州) · 신평(新平) 등의 고을을 침범하였는데 용성

(龍城) 등 10여 고을을 불태우니 경성에 계엄(戒嚴)을 내리고.....

1361년

왜적이 남해현(南海縣)을 불태웠다.(이 바로 뒤에 기근이 들어 **사람을 서로 잡아먹었다는** 기록까지 보입니다.)
왜가 동래(東萊)와 울주(蔚州)를 불태우고 약탈하여 세미(稅米) 실은 배를 빼앗아 갔다. 또 양주(梁州) · 김해부(金海府) · 사주(泗州) · 밀성군(密城郡)을 침범했다.

1363년

왜선 2백 13척이 교동(喬桐)에 정박하니 경성을 계엄하고 안우경(安遇慶)을 방어사(防禦使)로 삼았다.
왜가 수안(守安)을 침범했다.

1364년

왜선 2백여 척이 하동(河東) · 고성(固城) · 사주(泗州; 경남 泗川) · 김해(金海) · 밀성(密城; 경남 密陽) · 양주(梁州; 경남 梁山)에 침범하였다.
왜적이 조강(祖江)에 쳐들어와서 관리(關吏)를 죽였다.

1365년

왜적이 교동과 강화에 침범하므로 동서강 도지휘사 최영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동강을 지키게 하였다.
왜적이 창릉(昌陵)에 침입하여 세조(世祖)의 초상을 가지고 돌아갔다.
왜적이 교동 · 강화동 · 서강에 침범하였다.

1366년

왜적이 심악현(深嶽縣)을 침략하였다.
왜적이 양천현(陽川縣)에 침범하여 조운선을 약탈하였다
왜적이 조운선 3척을 빼앗았는데 죽고 다친 사람이 매우 많았다.

1367년

왜적이 강화부에서 노략질을 하였다.

1370년

왜적이 내포(內浦)에 침범하여 여러 주의 조세를 약탈하고 선주(宣州; 평북 宣川)에 침범해 오니 양백연(楊伯淵)이 맞아 쳐서 적의 머리 50여 급을 베었다.

1371년

왜적이 해주(海州)에 침범하여 관청을 불사르고 목사의 아내와 딸을 사로잡아 갔다.
왜적이 봉주(鳳州; 황해 봉산鳳山)에 침범하였다.
왜적이 예성강(禮成江)에 침범하여 병선 40여 척을 불태웠으므로 병마사 김입견(金立堅)을 곤장을 쳐서 귀양보냈다.

1372년

왜적이 백주(白州)에 침범하였다.
왜적이 순천(順天) · 장흥(長興) · 탐진(耽津) · 도강(道康) 등의 군에 침범하였다.
왜적이 강릉부(江陵府)와 영덕(盈德) · 덕원(德原)의 두 현에 쳐들어왔다. 왜적이 쳐들어오니 **우리 군사는 풍문만 듣고 패하여 달아났다.**
왜적이 안변(安邊)과 함주(咸州)에 쳐들어왔다.
왜적이 동계의 안변 등에 쳐들어와서 부녀를 사로잡고 쌀 1만여 석을 약탈하였으므로 존무사 이자송(李子松)을 파면시켜 전리로 추방하였다.
왜적이 또 함주(咸州) · 북청(北靑)에 쳐들어오니 주의 만호 조인벽(趙仁璧)이 군사를 매복시켜 이를 크게 깨뜨리고 적의 머리 70여 급을 베었다.
왜적이 홍주(洪州)에 쳐들어왔다.
왜선 27척이 양천(陽川)에 들어와서 3일간 머물렀다. 여러 장수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웠으나 수전에 익숙하지 못하여 크게 패하였다.

1373년

왜적이 하동군(河東郡)에 침범하였다.
왜적의 배가 동 · 서강(江)에 모여서 양천(陽川)에 침범하여 **마침내 한양부(漢陽府)에 이르러** 가옥을 불태우고 인민을 죽이며 약탈하니 수백 리의 지방이 소란하고 서울이 크게 진동하였다.
왜적이 교동(喬桐)을 함락하였다.
왜적이 구산현(龜山縣)에 침범하니 경상도 도순문사 홍사우(洪師禹)가 적의 머리 수백 급을 베고 노획한 병기를 바쳤다.

1374년

왜적이 안주(安州)로 쳐들어오니 목사 박수경(朴修敬)이 힘써 싸워 물리쳤다.
왜선 3백 50척이 합포(合浦)에 침범하여 군영과 병선을 불사르니 죽은 사졸이 50여 명이었다.
최사정(崔思正)이 왜적과 목미도(木尾島)에서 싸우다가 패하여 죽었다.
왜적이 자연도(紫燕島)에 침범했다.
왜적이 강릉과 삼척에 침범하고 또 경주와 울주(蔚州) 2주에 침범하였다.

왜적이 안주(安州)에 침범하였다.

제가 본 기록만 53번

다른곳에서 본 기록으로는 115회라고 하고, 우왕 제위시에는 **무려 378번이나** 침공했다고 합니다.. 다른 왕때 기록까지 덧붙이는 너무 피곤할 정도고 -_-

왜구의 침공 사례도 많지만, 더 큰 문제는 왜구가 쳐들어와도 막지를 못한 것인데, 왜구가 이미 쓸고 빠져서 막을 도리가 없는 경우도 있는 반면, 왜구가 쳐들어온다는 **소문만 듣고 고려군이 달아나거나** 오히려 관군이 왜구에게 패배해버리는등의 일도 왕왕 있었는데, 격퇴한적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 사례의 숫자가 많은 편은 못 되었습니다.
왜구의 침입이 단순히 숫자만 많아서 위협적인 것은 아니라는 증거로, 실제로 고려 조정에서도 왜구를 경계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공민왕때 왜구에 관련해서 걱정스러웠던 언급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해구(海寇)가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변방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경이 왜적 10여 명을 사로잡았으니 매우 가상하게 생각한다. 이에 경에게 술과 은 50냥을 하사하노라. 휘하의 군사 가운데 공이 있는 자는 그 명단을 올리라. 내가 장차 채용하겠다." — 1355년 10월 경상도 도순문사에게 보낸 어지

정주부사(定州副使) 주영세(朱永世)와 전라도만호 강중상(姜仲祥)이 제 마음대로 자기 임지를 떠나 왕께 와 뵈니 왕이 노하여 이르기를 "지금 국가에 난이 많아 서쪽에는 홍두적(紅頭賊)의 우환이 있고 동쪽에는 왜노(倭奴)의 우환이 있어 바다 연변에 사는 백성들이 평안히 살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어찌 감히 이런단 말이냐." 하고 옥에 가두었다. — 1358년 3월

도평의사사가 아뢰기를 "요즈음 왜적의 침입으로 세미를 실은 배가 왕래하지 못하여 백관들의 녹봉을 주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백(伯)으로 봉한 모든 사람들 중에 시중(侍中) 벼슬을 지낸 이에게는 재 · 추의 녹과(祿科)를 주고 그 나머지 백에게는 이성 제군(異性諸君)의 예로 주도록 하소서." 하니 왕이 좇았다. — 1358년 4월
전라도의 조선이 왜적에게 막히어 운행되지 못하므로 왕이 동북면의 무사와 교동(喬桐) · 강화(江華) · 동강 · 서강의 전선 80여 척을 뽑아서 우도병마사(右道兵馬使) 변광수(邊光秀)와 좌도병마사 이선(李善)에게 명하여 나누어 거느리고 가서 엄호하게 하였다 — 1364년 10월





성준득(成准得)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새서(璽書)를 내렸다.
"요사이 사신이 돌아왔기에 국왕의 정사를 물으니 말하기를
'왕이 불도에만 힘쓰고 있으며 바닷가를 지나오는데 백성들이 바다에서 50리혹은 340리 떨어진 데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하기에 짐이 그 까닭을 물으니 왜놈들이 침범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어
'성곽이 어떠하더냐.'
고 물으니 백성은 있어도 성은 없다고 하며

'갑병이 어떠하더냐.'
고 물으니 엄숙한 기상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며
'왕의 거처가 어떠하더냐.'
고 물으니 거처는 있어도 정사를 청단(聽斷)하는 곳은 없다고 하였다.
짐이 이내 생각해 보니 만약 과연 이와 같다면 왕을 위하여 심히 염려된다. 짐이 비록 덕은 부족하지마는 중국의 임금이 되었으며 고려왕이 이미 신이라 일컫고 조공을 바쳤으니 사체가 옛날의 예절과 부합된다. 무릇 제후국의 형세가 위태롭게 되었는데 짐이 위태함을 붙들어 주는 도리로 왕에게 개유하여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없다. 안 될 것이다."

명나라 황제는 다름아닌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입니다. 고려가 왜구로 극심한 수난을 겪고 있는것을 주원장까지 알 정도였죠. 위의 언급에서도 나왔지만, 왜구가 너무나도 극심하여 도저히 백성들은 해안가에서 살 수가 없고, 50여리에서 혹은 300여리도 넘게 내륙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였는데, 그래도 왜구로 인한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왜구로 인한 피해는 도저히 줄어들지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지방의 세미를 배를 이용해서 실고 오기가 힘들 지경이었고,

급기야는 나중에는 **관리들의 녹봉도 주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왕이 수원에 행차를 하려는데, 신하들이 **"왜구가 올것이 두려우니 가지 마시라."** 고 말리기까지 합니다. 어디 삼남지방 가려는게 아닙니다. 수원입니다……그럴만도 한것이, 왜구가 **강화도까지** 털어버렸다는 기록도 두세번을 넘을 정도입니다. 전 국토가 왜구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성이 왜구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실시한것만 봐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물론 고려로서도 이런 저런 조치는 취했습니다. 우선 일본에 계속해서 왜구 근절을 위해 노력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봄 정월에 일본국에서 사신을 보내와서 답례하였다.먼저 왕이 왜구가 침범함을 근심하여 김일(金逸)을 보내어 왜구를 금해주기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 1368년

안길상(安吉常)을 일본에 보내어 왜구를 금지할 것을 청하였는데 길상이 일본에 도착하여 병들어 죽었다 — 1377년
(일본에서는 그 뒤에 답신을 하는데, 도망한 무리들이라 자신들로서도 어렵겠다는 요지였습니다.)
전 대사성(大司成) 정몽주를 일본에 보내어 답례하고 또 왜구를 금지하기를 청하였다. — 1377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런 저런 노력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해상에서 왜구를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왜구를 잡아내질 못하면 결국 상륙을 허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큰 피해가 올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대적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것에 있습니다. 기본 수십 척에서 많으면 수백척의 함선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왜구인데, 이에 대항하려면 강력한 수군이 필요하지만 계속 연해안에 상륙해서 털리는것을 전혀 막지를 못한것을 보면 성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우왕때도 왜구의 침략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대 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화약무기의 개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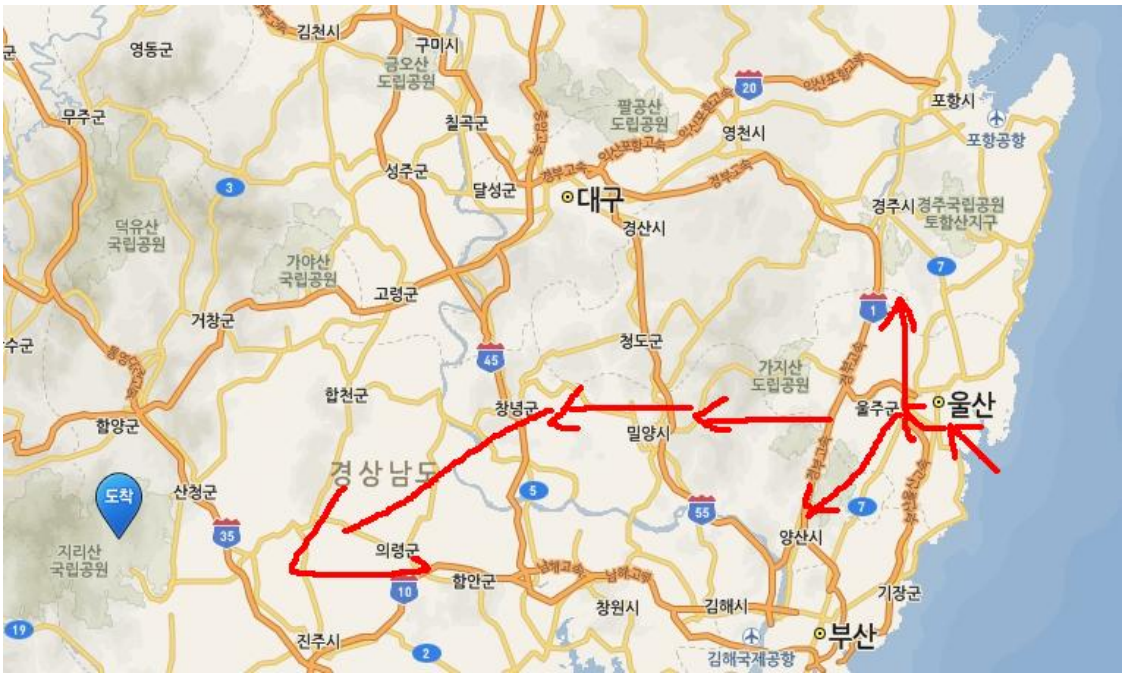


1300년 중후반쯤 부터 화포 무기가 유럽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고려도 재빠른 시기에 화포 무기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역시 최무선이며, 최무선은 "왜구를 막는 데는 화약만한 것이 없으나, 국내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고 항상 말하며 그 당시 가장 필요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무선의 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정확했다는것은 뒷날 증명이 되는데, 우선 이성계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371년 압록강을 넘어 요성을 점령하고, 1372년 화령부윤이 된 후의 이성계는 그 후 몇년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다가, 1375년쯤에 인천에 있는 덕종도와 자연도(지금 이름은 영종도입니다) 근처로 많은 숫자의 왜구가 몰려들고 있자 우왕은 전국에서 군사를 소집해서 이성계와 최영에게 이를 맡기면서 위세를 보여, 왜구가 들어오질 못하게 했습니다. 최영은 이미 1355년부터 원나라로 가서 승상 탈탈의 밑에서 그 유명한 장사성의 군대와 싸운적이 있는 역전의 명장이었죠.

1377년 3월에는 왜구가 강화도에까지 나타나자, 사방의 민심이 크게 요동쳐 이성계는 의창군(義昌君) 황상(黃裳)을 비롯한 10명의 원수(元帥)와 같이 군대의 위엄을 보이면서 방비를 했습니다.

6년동안 일선 전투에 나서지 못하던 이성계는, 그 해 5월에 다시 지휘관으로 출정하게 됩니다. 3월 경에 경상도 원수(慶尙道元帥) 우인열(禹仁烈)이 보낸 급한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왜적이 대마도에서부터 온 바다를 뒤덮고 오고 있습니다! 도와서 싸울 원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고려의 상태가 최악이라는것인데, 지원군을 보내야 하긴 하지만 또다른 왜구의 무리가 바로 코 앞인 강화도를 공격하고 있는것이었습니다. 강화도가 크게 당하면 너무나도 중대한 타격이기에 여기를 방비하는것만도 벅차 고려 조정은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금 뒤에 강원도 서강(西江) 쪽으로도 왜구가 몰려오는 극심한 혼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반쯤 손을 놓고 있는 사이, 4월 무렵 상륙을 마친 왜구 무리는 울주와 경주 등지로 침범하게 됩니다. 우인열은 언제 올지 모르는 원군을 기약없이 기다리며, 그 사이에 황산강(낙동강)에서 적군을 한번 물리치기는 하나, 왜구는 대단찮은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왜구는 울주의 언양현(현재 울주 언양면)을 공격하고, 그 주위를 모두 불태우면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 밀성(밀양)을 공격하자 우인열은 패배했는데, 다시 왜구는 창녕군 일대까지 나아갔고 우인열은 부원수인 배극렴과 더불어 율표에서 싸웠지만 또다시 대단찮은 피해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5월이 되어서야 고려군은 삼사우사 김득제(金得齊)와 지밀직 이임, 밀직부사 유만수을 이성계와 함께 경상도로 파견했습니다. 밀성에서는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고, 우인열은 그 사이에 5백의 정예 기병을 이용해 한번 힘껏 들이쳐 이번에는 꽤 그럴듯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적군이 바다와 섬 사이에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는지라, 제대로 된 규모도 알 수 없는 실정이었고 인심이 불안정하고 공포는 극에 달한 시점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우인열은 끊임없이 빨리 오라고 재촉을 했고, 이성계는 이틀 길을 단 하루에 주파하며 할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지리산 아래까지 도달하였을때, 왜구는 벌써 이쪽에까지 이르러서 곧바로 대치 상대에 들어갔습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자니 그 거리가 이백보가 되는데, 왜구들은 마음놓고 이성계의 군사들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왜구 중에 한 명은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욕설을 퍼붓는 수준이었습니다 -_- 그러자 이성계는 편전을 들더니, 그대로 한방에 그 녀석을 맞추어버립니다. 그러자 왜구의 무리는 혼비백산하여 얼이 빠지버렸습니다.
그 즉시 이성계는 군대를 움직여 적을 공격, 적의 무리를 크게 낭패시킵니다. 왜구는 이렇게 당하고 지리산으로 올라갔고, 깎아지른 낭떠러지

를 이용해 진을 치고 창칼을 고슴도치 처럼 내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고려군은 난감한 지경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우선 자신의 비장에게 군사를 주어 이를 치게 했는데, 비장은 싸우지도 않고 돌아와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안됩니다. 바위가 높고 가파라서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성계는 화가 나 비장을 꾸짖고,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인 이방과 — 즉 조선 2대 국왕 정종 —에게 특별히 휘하의 용감한 군대를 주어 공격하게 했는데, 이방과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비장의 말이 맞습니다. 안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보고 오겠다!"
이성계는 자신이 직접 가서 말을 채찍질하며 여기저기의 지세를 살펴보더니, 갑자기 칼을 빼들고 그대로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령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병사들고 서로 밀고 부딪히며 뒤를 따랐고, 이성계 휘하 고려군의 무지막지한 공격에 왜구들은 오히려 낭떠러지로 절반이나 되는 군사들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싸우자 나머지 절반도 무찌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던 왜구 무리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또한 김해 부사 박위(朴□)는 이 시점에서 황산강(낙동강)의 왜적을 물리쳤습니다. 왜구들은 순풍을 이용해 황산강을 거슬러 올라 밀양을 칠 생각이었는데, 복병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극렴은 적의 괴수 패가대만호(霸家臺萬戶)가 이끄는 왜군을 물리쳐서, 경상도에서 벌어졌던 왜구의 준동은 어느정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선 이렇게 승리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양광도(경기도 남부, 강원도 일부, 충청남북도)는 왜구로 인해 유린당하는게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 강화도는 정말 수차례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적의 준동을 막자, 그로 인한 피로감 때문인지 초전에 적의 진공을 막아냈던 우인열은 병을 이유로 경상도 도순무사 직을 사직하고 배극렴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왜구의 공격 루트는 사방을 가리는곳이 없었습니다.
우선 정리를 해보면, 경상도 쪽에서 적의 공격은 이성계와 우인열, 박위등이 활약해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강화도에 대한 공격이 오고, 양광도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규모는 적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전라도에서도 왜적이 순천을 공격해서 정지(훗날 관음포 대첩의 주인공입니다)가 적을 물리쳤는데, 그 후에 또 서해도(황해도)에 왜구가 대규모로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공격이 펼쳐진 것이었죠. 심지어 제주도에는 왜선 2백여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중 서해도로 온 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주(信州) · 문화(文化) · 안악(安岳) · 봉주(鳳州) 등 여러 곳이 공격을 받았지만, 원수였던 찬성(贊成) 양백익(梁伯益),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나세(羅世),지문하(知門下) 박보로(朴普老) · 도순문사(都巡問使) 심덕부(沈德符) 등은 연달아 패배해서 적을 막을 수 없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9월 이성계와 문하 평리(門下評理) 임견미(林堅味), 그리고 지난번에 이성계를 따라갔던 유만수에 박인열을 딸려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황해도 해주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임견미와 박인열은 달아나버립니다. 이런 형편이지만 이성계는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확신이 서질 않아, 투구를 세개 가져와 백보도 넘는 거리에 놔두고는 시험 삼아 화살을 세번 쏘아보았습니다.

물론, 세 발 다 명중이었지요.
"오늘의 승부는 알만하겠군."
그리하여 해주의 동쪽 부근에서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이성계는 난전중에 대우전(大羽箭)을 이용해서 17번의 화살을 쏴 17명을 죽였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적을 대파하고 여유가 생기자, 약간 거드름을 피우는 것인지 이성계는 수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인 녀석들을 다 살펴보라고. 모두 왼쪽 눈초리에 맞았을 테니."
그리하여 살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전투에서는 대략 승리를 거두었고, 남은 잔당들은 험지에 들어가 나무로 바리게이트를 치고 버텼습니다. 이성계는 그 앞에서 태연하게 앉아서 잔치상을 펼치면서, 풍악을 올리게 하고는, 고기에 술을 먹으면서 병사들에게 나무에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타죽게된 왜구들은 최후의 발

악으로 돌진해서 화살을 쏘아 이성계가 앉아있는 자리에 술잔이 깨지기도 하지만, 이성계는 계속 태연하게 술을 마시면서 부하들에게 시켜 이를 일망타진했습니다.

경상도와 황해도, 두 지역에서 펼쳐진 눈부신 전공으로 인해 왜구들의 귀에도 이성계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전까지 왜구들이 이름을 외우고 다니며 피하던 장군은 오직 고려의 최영 뿐이었는데, 이제 고려인 포로를 잡으면 "이성계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고 이성계가 있는곳은 피했다고 합니다.

최영은 1376년 — 그러니까 바로 전해에 홍산대첩에서 승리를 거두며 왜구에게 큰 타격을 준적이있습니다. 이즈음부터 몇년동안은 나라 전체가 왜구와의 총력전 형태로 들어가면서 전투는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시기를 보면 왜구와의 싸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해 1377년 10월,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최무선이 원나라 염초공장(焰□工匠) 이원(李元)의 도움으로 화약 병기 조제 방법을 습득하고 조정에 건의, 화통도감(火□都監)이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왜구와의 대혈전은 절정으로 접어들어, 마침내 수원 마저 왜구의 손아귀에 짓밟혔고, 승천부(昇天府 : 현재의 경기도 개풍군)에 모여든 왜선들은 개경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수준까지 됩니다. 그 즉시 전국에 비상 계엄이 떨어지고, 병력을 소집하고 궁궐에 호위를 강화하였는데 그때문에 인심이 흉흉해지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 최영은 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양백연(楊伯淵)등을 부장으로 삼고,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승천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최영의 주력군이 무너진다면, 저항할 도리가 없는 고려의 수도 개경은 드디어 해적들의 손에 떨어지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왜구들도 정탐을 하여 이 상황을 알아내었습니다.

“최영의 군사만 깨뜨리면 경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하여 왜구는 다른 병력이 주둔해 있는곳을 공격하는 대신, 그대로 최영의 군대가 있는곳으로 내달렸습니다. 최영은 비장한 각오로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이 한 싸움에 있다!"

드디어 대전투가 펼쳐졌는데, 왜구의 기세가 매서웠는지 한참 싸우던 최영은 패하여 달아나게 됩니다. 왜구는 그런 최영을 쫓아갔는데, 그때

마침 이성계가 등장,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양백연과 합세하여 왜구의 옆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왜구는 붕괴되기 시작했고, 후퇴하던 최영은 이 상황을 보고 다시 반격을 감행, 왜구는 완전히 괴멸되었고 고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전초전에서 최영의 패배가 과연 최영이 진짜로 패배해서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전부 협의된 계략이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모두 최영이 패배하였거나 후퇴했다고만 나오는데, 만약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성계와 비교해 최영을 낮추고 싶다면 이 경우엔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히 기록을 고칠 필요도 없고, 이것이 다 협외된 내용이었다는 기록만 지우기도 해도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런것까지 신경쓰기 시작하면 믿을 기록이 아무것도 없고……어찌되었건 최영과 이성계는 이 시점에서 **이미 나라를 구했고** 최영은 공로가 인정되어 안사공신(安社功臣)이 되었습니다.
이 승천부 전투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얼마나 급박했느냐 하면,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을때 조정에서 **우왕은 피난할 이미 준비를 마쳤고, 조정의 백관들도 행장을 다 꾸리고는 수학여행 버스가 오는걸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대궐에서 모여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처음에 최영이 패배했다는 소식만 전해 들어서 분위기는 흉흉해지고 어찌 할 바를 모르던 중, 좀 뒤에서야 승전 소식을 듣고 나라 전체의 계엄령을 풀었습니다.

물론 왜구의 기세 자체야 여전했습니다. 바로 직후에 또 수원이 털리는 불상사가 생겼고, 청주가 공격당할때는 조정의 관병들이 싸울 엄두도 못내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한반도 역사상 이렇게 끈질긴 적이 또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고려사절요를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게 되시면, 그전터도 왜구의 침략은 끊임이 없지만 1380년 이전까지 삼, 사년 정도를 보게 되면 거의 전체 기록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이 왜구와의 사투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노략질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했는데 최영, 이성계, 정지, 우인열, 배극렴, 박수경, 오언등은 거의 눈물겨운 사투를 계속했습니다(승천부 전투에서 나온 양백연도 공을 몇번 세웠으나, 성품이 교만해서 백성들은 **차라리 왜적을 만나는것이 낫다**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라도에서는 정지가 홀로 끊임없이 침투하는 왜적과 맞서 싸웠는데, 패배를 하자 최영이 분노해서 재상들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왜적의 침노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재상들은 어째서 걱정을 하지 않소! 정지 한 사람이 아무리 용맹한들 많은 도적을 어찌하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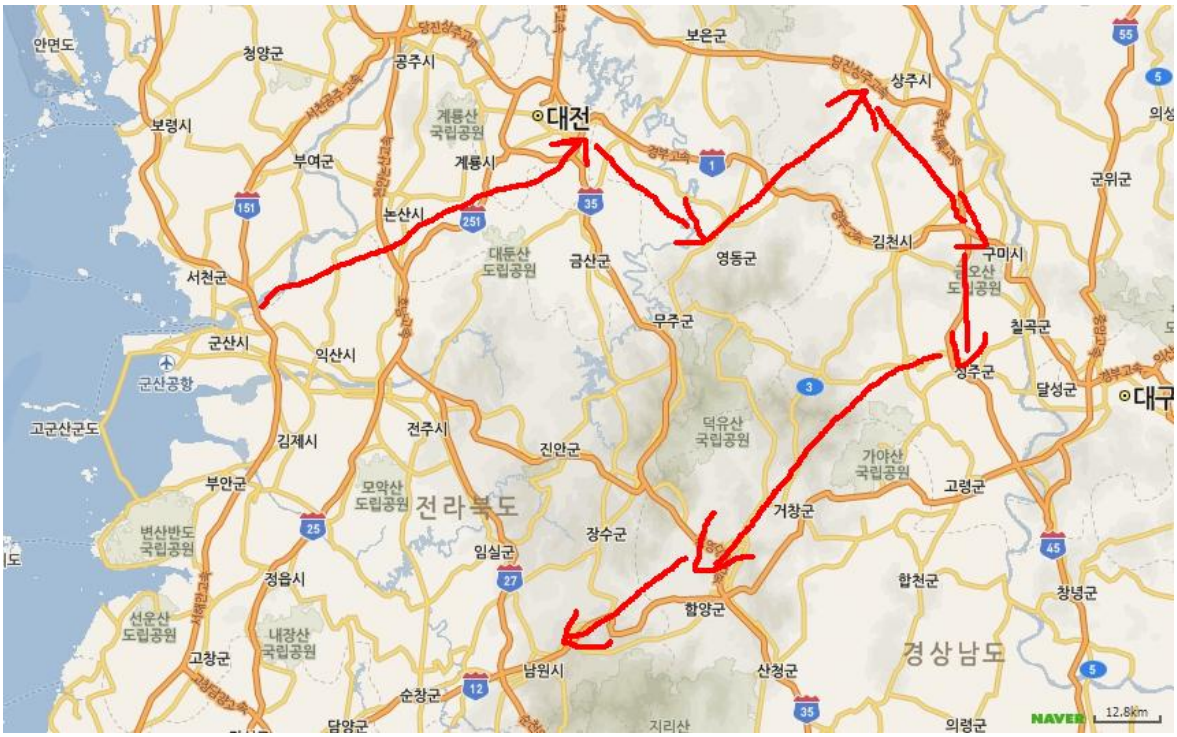
물리쳐도 물리쳐도 끝이 안보이는 전투는, 그러나 1380년 8월을 기점으로 대전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해도 원수(海道元帥) 나세(羅世),심덕부(沈德符), 최무선(崔茂宣)등은 왜적을 막기 위하여 백여척의 전함을 이끌고 진포, 지금의 군산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왜구의 숫자는 무려 전함 오백여척. 진포 어귀에 배를 댄 그들은 마음대로 내륙을 오가며 노략질을 하고 있었는데, 곡식들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죽은 시체들이 사방에 가득찼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드디어 신무기인 화포를 사용했고, 그 연기와 화염은 하늘을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해전에서 왜구를 상대할 엄두를 못 내던 고려군이, 무려 다섯배나 되는 왜구를 일방적으로 괴멸시킨 것입니

다.

왜구들은 경악하여 내륙으로 도망쳐 옥천군에 이르러 그 근방을 약탈했습니다. 전함은 불태웠지만 아직 오백여척이나 되는 배에 타고 있는 주력은 건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왜구는 지금의 영동군을 약탈하고, 인근 현을 불태우고는 마침내 상주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주(善州 현재의 구미시)로 이동하였고, 다시 성주까지 공격했습니다. 이 왜구의 무리는 숫자도 많았고 배도 전부 불타져서 기세가 흉흉해, 지나는 군현은 모조리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때문에 3도 연해의 땅은 전부 비워졌습니다. 기록의 표현으로는 **이같이 참혹한 일은 없었다.** 고 단언할 정도입니다.

고려군은 배극렴, 정지, 오언, 박수경 등 그동안 왜구 토벌로 이름을 날린 장수들이 출동하여 함양 부근에서 격전을 벌였으나, 오히려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박수경과 배언이 죽고 오백여 명이나 되는 관군과 장교가 죽을 정도로 저들의 숫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함양마저 왜구들의 잔혹한 노략질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왜구는 다시 전라북도 남원까지 이르러 그 현들을 불태웠고, 진을 치면서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제 광주 금성(전남 담양)에서 말을 먹이고는 북으로 올라가겠다(수도를 공격하겠다는 소리)!"
다시 한번 고려가 발칵 뒤흔들어진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구 무리의 어마어마한 행동 방경

그 당시 왜구 무리의 숫자는?

이렇게 벌어지게 된 황산대첩에서, 양측의 군사 숫자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숫자에 대한 언급은 최무선이 진포에서 박살냈던 500척의 전함과, "본래 적이 우리의 10배였는데" 라는 짤막한 언급 뿐입니다. 따라서 이 황산대첩에서 왜구의 숫자는 추론으로 짐작할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역개루 토코아 씨가 올리신 글을 참조로 해보면, 배 하나당 대략 30여명에서 35명 정도를 잡을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선원이나 기타 수용인원을 다 합치면 1만 5천여명에서 1만 7천 5백여명 가량의 숫자가 나올테고, 만약 왜선에 타고 있던 숫자가 평균 25명 정도에 이른다고 해도 1만 2천 500여명이 됩니다. 물론 전문적인 전투병력은 더 적었을테지만, 왜구들이 내륙으로 들어온 계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 진포에서 나세와 최무선등에 의하여 전함은 모조리 격침을 당했고, 왜구는 해전을 피해 내륙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당연히 전투병력 뿐만 아니라 기타의 인원들도 몸을 피했을테니, 이들도 고스란히 숫자가 들어갈 개연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고려군이 전투가 끝나고 1천 6백 필이 넘는 말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친구들이 말을?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기바투가 백마를 타고 싸우러 나왔다고도 하고……전투가 끝나고 잡은 말이 이 정도니, 실제 전투가 들어갈 당시에는 이보다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000필 정도로 잡고…… 보병과 기병의 비율을 4:1로 잡으면(해적에 관해서도 이런 일반적인 비율이 맞을지는 모르겠찌만) 8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기타 선원들을 합친다고 치면 1만 2천명 이상이라는 예상이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더구나, 2000필 정도의 말을 태우고 왔을 정도라면 500척의 배에 전부 골고루 말이 있다고 해도 한 배에 네척이 타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일반 병사들 타기도 좁은데, 그렇다면 세키부네 삘 나는 배 말고 좀 더 큰 거선들이 500여척에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대략 퉁쳐서 전투병 + 기타 합쳐서 1만 5천이라고 칩시다. 사실 말은 고려군이 캐발리고 도망가니까 고스란히 일본군이 탈취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성공을 해적 집단으로 보면 무려 20만의 대병력을 보유했던 사상 최강의 대해적이 되지만-_- 이 시대보다 인구가 비교도 안되게 많던 400년 뒤쯤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적 정일수의 해적 무리가 5만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전투병이 8천정도라고 해도 1만 5천 가량의 해적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것은 "본래 적이 우리의 10배였는데" 라는 언급입니다. 만명이 넘는 규모의 왜구가 내륙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개경까지 노리고 있는데, 고려 조정에서 동원 할 수 있는 병력이 고작 2천여명 이하? 잘못하면 국가 존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일인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4,5천 정도는 동원해야 말이 맞지 않나……싶을 수도 있습니다.
몇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냥 으례 이쪽이 숫자가 적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뜻으로 10배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편이 가장 자연스럽죠. 툭하면 황제들이 자기 군대가 백만이니 하고 하는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진짜로 그 당시 고려가 안습이라 병력을 동원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도 아니고, 바로 그 해, 4월에 해도 도통사(海道都統使)를 겸하게 된 최영은 우왕에게 푸념을 한적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전함이 백여척 밖에 안되고(진포대첩에 고려의 전 해군력을 쏟아부었다면, 딱 숫자가 백여척으로 맞아떨이집니다) 수군 졸병은 고작 3천여명입니다. 군사를 동원하면 1만명은 써야 할것인데, 창고가 모두 비었으니 어떻게 공급하란 말입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하도 많았고, 왜구의 침입이 너무 많아 병력의 숫자도, 물자도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최영의 말에 대해서 우왕의 대답은,
"1만명을 먹이기가 참으로 어려우니, 경은 3천명으로 **한명이 백을 당하게 하라**."
이게 당시 고려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았죠. 아무리 그래도 3,4천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성계가 사병 — 여진족으로 구성된 — 을 동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삼선 삼개의 난에서 보여주었듯이 여진족들에게 이성계의 이름은 대단했고, 실제로 친병을 동원했던 기록도 보입니다. 숫자도 천단위가 넘어 보이구요.

아무튼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에서 고려는 이성계에서 양광-전라-경상도 삼도의 도순찰사 자리를 맡기고, 이성계와 여러번 호흡을 맞춘 변안열, 그리고 역전의 장수 우인열등 여러 장수를 맡겨 이성계의 지휘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제 남원에 이르자 왜구에 패퇴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배극렴등은 나와서 모두 이성계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태의 전황을 설명했습니다.

"적이 험한 곳을 점거하고 있지요. 기다려서 그들이 나왔을때 싸우는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일으켜 적을 치는데, 적을 보지 못한 것이 한이외다. 이제 적을 만났는데도 치지 않는것이 어찌 올겠소이까?"

다음 날 고려군은 승전을 맹세하고 남원의 황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정산봉(鼎山峯)에 올라 지리를 살펴보던 이성계는 길 오른편의 험한 지름길을 보고 왜구가 이 길을 이용해 아군의 후미를 칠것이라고 판단, 본인이 좁은 길로 가서 기습을 막기로 하고 다른 장수들은 평탄한 길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적의 기세가 날카롭자 일단 후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날이 저물었는데, 이때 이성계는 좁은 길로 진군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과연 예상대로 왜구는 그 길을 이용해서 기습을 벌였는데, 미리 예상을 하고 있던지라 이성계는 당황하지 않고 세번 싸워 세번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들린 화살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대우전 20여발을 쏘아 적을 죽이고, 또다시 50여발을 쏘아 적군을 맞춰 거의 백에 가까운 킬수를 찍었습니다. 워낙 전쟁터가 여러 사람이 얽히고 섞혀서 싸우니 화살을 쏘아 맞추어 죽이는것 자체가 그럴수도 있는데, **50여명 모두 얼굴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마침 땅이 진흙탕인지라 어지럽게 양군대가 뒤엉키며 싸웠는데, 진흙탕에서 나와서 보니 당한것은 죄다 왜구고 이성계의 고려군은 단 한명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구는 이제 높은곳에 올라가 험지를 발판으로 삼고 고려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성계는 이대중(李大中) · 우신충(禹臣忠) · 이득환(李得桓) · 이천기(李天奇) · 원영수(元英守) · 오일(吳一) · 서언(徐彦) · 진중기(陳中奇) · 서금광(徐金光) · 주원의(周元義) · 윤상준(尹尙俊) · 안승준(安升俊) 등 10명을 시켜 싸움을 걸고, 적군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바, 제아무리 이성계라도 패퇴하고 맙니다. 고려군은 뿔뿔히 흩어지듯 내려왔는데, 이성계는 이 상황을 보더니 나팔을 불고 병사들의 전열을 가다듬은 뒤에,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즉시 왜구들의 공격이 이성계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곧바로 적의 장수 한명이 이성계의 뒤를 잡고 창을 내지르려 했는데, 편장 퉁두란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곧바로 말을 타고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공, 뒤를 보십시오! 영공, 뒤를 보십시오!"

하지만 워낙 정신이 없던 이성계는 그 말을 듣지 못했고, 이제 적의 창이 바로 이성계를 꿰뚫을 듯하자 퉁두란은 화살을 쏘아 그 적장을 죽였습니다. 정신이 없을만도 한것이, 몇백이 넘는 왜구들의 공격이 이성계에 집중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성계는 그 공격을 받아가며 싸웠는데,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 말이 화살에 맞으면 다른 말로 바꿔 타고, 다시 또 그 말이 죽자 다른 말로 바꿔탔는데, 기어코 화살이 다리에 맞아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를 뽑아버리고 싸우자 누구도 이성계가 화살을 맞은지를 몰랐습니다.

적군은 이성계를 두어겹으로 포위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마침 주위에 있던 기병 두명과 힘을 합쳐 포위를 뚫어내고는, 바로 선

자리에서 여덟명의 왜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왜구들도 이성계에게 다가오지를 못하였고 바로 그 자리,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이성계는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해를 가르키며 맹세를 하고**,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 상태에서 좌우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 겁나는 사람은 모두 물러가라! 그리하여도 나는 적과 죽을 것이다!"
만약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면, 생각해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려도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당연히 모든 병사들은 감동과 경외심에 사기가 하늘을 찌를듯이 되어 적군을 공격했고, 이성계의 포스를 보고 지려버린 왜구는 꼼짝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왜구 진영에서 한명의 소년 장사가 백마를 타고 나와 고려군의 사이를 헤치고 나가는데,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 소년 장사를 피했습니다.
"아기바투(阿只拔都)다! 아기바투다!"
이성계는 묘하게도 많은 장수들을 굳이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는데, 원나라 장수 조무가 그랬고 이오르티무르나 처명이 있었습니다. 아기바투를 보고 무인으로서 탐이 난 이성계는 퉁두란에게 생포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퉁두란은 자신없어 했습니다.

"저 자를 생포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다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이기로 한 이성계였지만, 화살을 쏘려고 해도 아기바투는 얼굴까지 갑옷을 입고 있어서 쏠 쑤가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퉁두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투구를 벗길 것이니, 네가 쏘아서 죽여라!"
이성계는 **그 즉시 화살을 쏘아 아기바투의 투구꼭지를 맞추었고**, 아기바투가 다시 고쳐쓰자 또 한번 화살을 쏘아 투구를 떨어뜨렸습니다. 퉁두란은 곧바로 화살을 아기바투의 머리에 맞춰 그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아기바투가 죽자 왜구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성계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적을 총공격, 그야말로 장엄하고도 끔찍한 대살육전이 벌어졌는데, 왜구들이 죽어가면서 우는 소리가 마치 수만마리의 소가 우는 소리 같았고, 하늘을 찌를듯이 사기가 고양된 고려군은 승리의 진군을 하며 북치고 달려가면서 미친듯이 기쁨의 소리를 치면서 왜구를 죽이는데 천지가 진동할 듯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진동할듯한 무시무시한 기세였는데, 그 과정속에 어찌나 많은 왜구가 죽었는지 강물이 피강물이 되어 일주일이 지나도록 맑아지질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만이명이 넘는 적들은 100명도 남지 않아 지리산으로 도망갔는데, 이성계는 거기까지 추격하는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같은 전투가 끝나고, 이성계는 씩 웃으면서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적군을 공격한다면야, 진실로 이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장수들은 모두 탄복하고 맙니다.

대승을 고려군은 합당하게도 군악을 크게 울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겼는데, 군사들은 모두 만세를 불렀고, 싸우지 않은 죄가 두려운 장수들은 벌벌 떨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요성에서 항복을 받아온 처명은 이때 미친듯이 싸워서 모두가 그에게 탄복을 하게 됩니다.
승전군은 위풍당당하게 도성으로 귀환했고, 도성에서는 문무백관이 나와 이성계를 기다렸습니다. 이성계는 곧바로 말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절하며 재배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최영이 앞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성계에게 재배를 하고는, 이성계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공(公)이 아니면, 누가 과연 이 일을 해냈을 것입니까!"

"삼가 명공(明公)의 지휘를 받들어 다행히 싸움을 이긴 것이지, 내가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이 적들의 세력은 이미 꺾였사오니 혹시 만약에 다시 덤빈다면 내가 마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늙은 고려의 충신은 진실로 감동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소리쳤습니다.

"공이여! 공이여! 삼한(三韓)이 다시 일어난 것은 이 한번 싸움에 있는데, 공이 아니면 나라가 장차 누구를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우왕 또한 상으로 이성계에서 금 50냥을 내려주었지만 이성계는 거절 했습니다.
"장수가 적군을 죽인 것은 직책일 뿐인데, 신이 어찌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은 시를 지어 이성계의 공을 칭찬했습니다.

"적의 용장 죽이기를 썩은 나무 꺾듯이 하니, 삼한의 좋은 기상이 공에게 맡겨졌네.
충성은 백일처럼 빛나매 하늘에 안개가 걷히고, 위엄은 청구 에 떨치매 바다에 바람이 없도다.
출목연의 잔치에서는 무열(武烈)을 노래하고, 능연각(凌煙閣)의 집에서는 영웅을 그리도다.
병든 몸 교외 영접 참가하지 못하고, 신시(新詩)를 지어 읊어 큰 공을 기리네."
전 삼사 좌사(三司左使) 김구용(金九容)도 이성계를 칭찬하는 시를 이색에 이어서 지었습니다.
"적의 기세 꺾기를 우레처럼 하니, 군사의 지휘가 모두 공(公)에게서 나왔네.
상서로운 안개 퍼져 나가 독한 안개를 없애고, 서리 바람 매서워서 위엄 바람 도왔도다.
섬 오랑캐 간담이 떨어지매 군용(軍容)이 성대하고, 이웃나라가 마음이 선뜩하매 사기(士氣)가 웅장하네.
온 나라 의관(衣冠)이 다투어 배하(拜賀)하니, 삼한 만세에 태평의 공이네."
라 하였다. 성균 좨주(成均祭酒) 권근(權近) 역시 뒤질세라 이를 받았습니다.
"3천 신하 마음과 덕이 모두 다 같은데, 군율(軍律)은 지금에 와서 모두 공에게 있도다.
나라 위한 충성은 밝기가 태양과 같고, 적을 꺾은 용맹은 늠름히 바람이 나도다.
동궁(□弓)은 빛나서 은영(恩榮)이 무겁고, 백우전(白羽箭)은 높다랗게 기세가 웅장하다.
한번 개선(凱旋)하매 종사(宗社)가 안정되니, 마상(馬上)에서 기공(奇功) 있을 것을 이미 알겠네."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영웅이 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이성계는 이 시점에서 고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최영도 이런 후배가 있다는것이 — 그리고 그 후배가 고려를 계속 지켜줄것이라고 생각했기에 — 감격스러웠던 것이구요. 둘의 사이는 상당히 친밀했는데, 이성계가 모함을 받자 최영이 이성계가 죄가 없음을 왕에게 말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 공은 온 나라의 주석이오! 그가 아니면 누가 있겠소!"
또한 평상시에도 이성계의 무예가 대단함을 (이성계가 없는 자리에서도) 높이 칭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1384년, 이성계는 (고려의 무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번에도 왜구였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고려의 두 명장 최영과 이성계의 위명은 고려를 넘어 왜구의 두려움이 된것은 물론, 그 이름이 명나라에도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왜구는 아직도 골칫거리지만, 이제 파해법이 나왔기에 예전만큼 부담스럽진 않았습니다. 당장 지난해인 1383년에만 해도, 정지가 관음포 해전으로 왜구를 크게 무찔렀던 것입니다. 왜구는 120척이라는 많은 전함을 끌고 왔지만, 이에 맞선 고려는 절반도 못되는 47척의 전함으로 화포의 위력을 이용해 적을 무찔렀습니다. 항상 힘겹게 싸우던 정지는 이렇게 시원하게 이겨버리자 기쁘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지 말했습니다.
"내가 왜적은 많이 죽였지만, 오늘처럼 쾌하게 이겨본적은 처음이군!"

그래도 이번에 온 왜구는 150여척이나 되는지라, 숫자가 상당히 많아 관군도 여러차례 패배하였습니다. 왜구는 간만에 세를 과시했는데, 이성계는 이 전투에는 자원해서 출정했습니다. 문제가 된곳은 함주였는데, 함주 관아에 도착한 이성계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70보 거리의 소나무를 가르키면서 말했습니다.
"저 중에서 몇번째 솔방울을 한번 쏘아보지. 봐 보거라!"
그리하여 일곱 발을 쏘아 일곱 발을 다 맞추니 병사들은 사기가 올라 춤을 추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음날이 되어서 적군과 교전할 즈음이 되자, 이성계가 왔다는 소식만으로도 왜군들이 지리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성계는 아예 몇백명 정도를 이끌고 앞으로 느릿느릿 나왔는

데, 코 앞에 적의 대장이 있지만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두려워서 왜구들은 공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성계는 너무나 태연하게 그 앞에서 걸상에 앉아 있고, 병사들도 말 안장을 벗기고 쉬게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성계는 일어서서 말에 다시 올라타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힐끗 멈추더니 백보 뒤의 나무에 화살을 세발 쏘아 모두 맞추었고, 왜구들은 이를 보면서 감탄하고 더욱 두려워 했습니다. 이성계는 일본말을 할줄 아는 병사에게 소리쳐 말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이성계 만호시다! 후회하기 싫으면 속히 항복하여라!"

그러자 이성계라는 이름을 들은 왜구의 우두머리는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머리를 맡대면서 고민을 하였는데, 의견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그런 기회에 적군을 공격하다가, 힘에 부치는 척 해서 돌아갔는데, 왜구 무리는 이를 추격했지만 함정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복병이 일어났고, 그 공격에 왜구들은 반항한번 못해보고 죽어갔습니다. 이 싸움에는 이성계의 여진군사들이 참여했다고 기록되어있는데, 그들이 왜구를 함부러 죽이자 이성계가 "불쌍하니 생포하거라." 라고 말 할 정도였습니다.

이인좌의 난

2013.02.04 20:58

1724년,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갑자기 죽게 된다.
이때 경종의 왕비 동생인 심유현이 임종을 지켜본 뒤 왕이 독살되었다고 증언했다.
왕은 구혈에서 검붉은 피를 쏟았고 안색은 까맣게 변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증언은 일파만파의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이리하여 영조가 즉위하였으나 전국 곳곳에 경종의 독살에 대한 벽보가
나붙고 충청도와 평안도에서는 반군이 군사를 모집하는 사태가 일어 난다.

이에 크게 놀란 영조는 삼군문에 비상령을 내려 도성을 방어하는 한편,
증오의 표적이 된 노론을 내몰고 소론을 등용하는 정미환국(1727)으로 민심을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다음해 3월, 소론과 남인의 연합군이 청주성을 점령하면서 반란이 시작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인좌의 난이다.

청주를 점령한 반군의 주력부대는 '경종의 복수와 역적의 토멸' 을 표방하며
군영 안에 경종의 위패를 설치하여 전군이 아침 저녁으로 곡배한다.
또 전국각지에 격문을 띄워 영조를 폐하고 경종이 애초에 세자로 입양하기로 했던
소현세자의 증손 밀풍군을 옹립할 뜻을 천명하고 의병의 궐기를 호소한다.

이리하여 남쪽에서는 경상도 거창, 안음, 합천, 함양, 상주, 전라도 태인이 반군에 가담되고,
북쪽에서는 평안병사 이사성이 군사를 일으켰으며, 서울에서는 창덕궁 방어를 맡은 금군별장 남태징이 호응하였다.
반군은 북상하여 목천, 청안, 진천을 거쳐 경기도 안성에서 병조판서가 지휘하는 관군과 부딪쳤다.
그러나 3월 24일, 하루 낮밤의 격전 끝에 반란군은 대패하였고, 주력부대를 궤멸시킨 관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거창의 반군을 소탕함으로써 진압을 마무리지었다.

반란은 평정되었으나 그 여파는 컸다. 반군이 전국각지에 뿌린 격문은
경종의 죽음과 영조의 즉위를 둘러싼 불미스런 일들의 전말을 낱낱이 까발리는 것이었다.
또 거기에는 왜 숙종이 끝까지 장희빈이 낳은 왕세자를 보호하고 연잉군을 멀리하였는지도 적혀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두가 80세로 죽을 때까지 영조를 평생 따라다닌 멍에가 되었다.
.
숙종이 영조를 꺼려한 것은 그의 어머니 최씨가 궁중 나인들의 빨래를 해주는 무수리였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다.
이미 관계를 가진 뒤에야 알게 된 것으로, 최씨는 처녀가 아니라 남편이 갓 죽은 과부였던 것이다.
신분의 비천함은 제쳐 두더라도, 과부를 후궁으로 맞이함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인좌의 반군들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조가 숙종의 친아들이 아니라 죽은 전남편의 씨라고까지 주장했다.
이는 물론 최씨가 궁중에 들어온 시기를 보아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영조는 이것으로 인해

평생토록 치유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얻은 것이다.

아무튼 이인좌의 난이 진압됨으로써 노론은 확실한 재집권에 성공한다.
경종조에 노론의 왕권교체 음모를 저지했던 김일경은 유배되어 아들과 함께 사사되고 그때 죽은 노론의 4인방은 복권된다.
그후 20여 년간 노론은 스스로 영조를 즉위시킨 충신들로 자처하면서 득의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좌절된 정조의 친위쿠데타

2013.02.04 20:58

1800년 즈음 장용영은 정조가 창설한 직속 경호부대였다.
정조 이전까지 조선군의 중심은 수도를 방위하는 훈련도감이었다.
훈련도감은 실질적인 군사력으로서 도성에 상주하는 군병들의 대부분을
통솔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과시험을 주관하고 , 일년에 두 번
서울 인근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군사훈련도 관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훈련도감과 어영청에 외척을 비롯한 노론벽파의 영향력이 속속들이
스며 있음을 간파한 정조는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국왕을 경호하는
친위부대, 즉 금군을 확대개편하여 '장용영'이라는 새로운 부대를 조직했다.
이 과정에서 이장오, 윤태연, 장지항, 구선복 등 노론 벽파에 속했던 훈련대장들은
'척신들에 부회하여 반란을 기도했다'는 죄명으로 차례 차례 주살되었다.

그리하여 1793년에 이르면 이전까지 500명에 불과하던 국왕의 금군은
내영직할군, 외영입방군, 외영협수군으로 증편되어 1만명이 넘는 군단급 부대로 재편되었다.
이로써 수도권 일원의 군 통수권을 장악한 정조는 1796년 수도권 방어를 명분으로 장용영의
외영 본부에 화성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수원이다.

화성 신도시가 완성되자 노론벽파에 대한 국왕의 친위 쿠데타는 조야가 다 아는
공공연한 소문이 되었다. 정조는 세자의 혼인과 더불어 보위를 물려주고,
스스로는 상왕으로 수원행궁에 물러가 군을 장악하고, 조정의 아들로 하여금
벽파토멸의 어명을 내리게 하리라는 것이었다.

체제공, 이가환, 정약용등 남인 탕평타들은 '천토'라고 부른 이 계획의 주동자들이었다.
수원유수가 맡아야 할 수원성 건설을 당대의 명재상인 체제공이 맡고,
당시 좌부승지이던 정약용이 자기 업무를 제쳐두고 기중기까지 발명해 가며
수원성 건설에 혼신의 정열을 기울인 것에는 이런 내막이 있다고들 했다.

지난 8년간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장용영은 이미 본 궤도에 올라섰고
왕세자 책봉도 끝났으며 몇 달 안으로 왕권파인 노론시파의 젊은 영수 김조순의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될 것이었다. 외척과 노론벽파의 집요한 공작에도 불구하고
왕세자는 스스로 세자빈을 선택했고 이는 정조의 의도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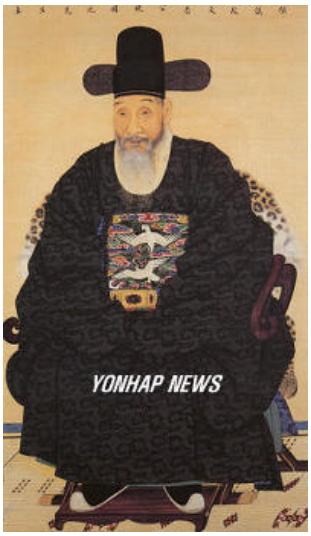
이제 정조의 양위 발표는 실로 오늘 아니면 내일의 일이었다.
그동안 사리사욕과 축재에 어두웠던 특권세력들은 남김없이 숙청되고
어떠한 신분의 차별도 철폐된 새 세상이 도래하고, 현명한 군왕 아래

만민이 평등하고 행복한 새 시대의 꿈이 실현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외척과 함께 아직까지 권력의 중심부를 장악하고 있던
노론벽파 일당은 이에 순순히 물러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1800년 1월 19일, 정조의 측근들이 의문의 죽음들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정조도 갑자기 병으로 눕게되고 얼마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이로써 일제가 조선을 침탈할때까지 약 100년 동안 이런 세도가들은
끊임없이 왕권을 약화시키고 조선의 국력을 갉아 먹게 된다.



정 조



노론벽파의 영수 심환지



정약용

남인의 영수 체제공

[출처 : 이인화, 영원한 제국중에서 요약 및 덧붙임]

이 글에 대한 정정과 반론들

1. 노론벽파가 조선을 갉아먹은게 아니라 정조가 키운 시파가 벽파를 몰살하고 세도정치를 펼쳤다.

2.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시초는 정조의 측근이던 시파 김조순이었긴 하지만

김조순은 무늬만 시파일뿐 원래 정치색이 없었던 박쥐였다.

3. 이번에 발견된 정조의 비밀서찰을 보면 굳이 정조가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필요성이 없어보인다.

이미 벽파수장인 심환지를 비밀리에 끌어들여 벽파가 정조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뭐하러 피의 혁명을 하겠는가

[병자호란] (1) 10만 포로의 눈물

2013.01.27 21:55

10만 포로의 눈물

조선은 왜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는 비참한 환란을 겪어야 했을까. 한마디로 17세기초 명 · 청 교체기의 격랑 속에 조선 지배층이 국제정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2007년은 병자호란이 끝난 지 370년이 되는 해이다. 북핵 문제를 놓고 6자 회담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듯,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팎의 정세는 예측불허다. 우리가 과연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 러시아 · 일본 등과의 숨가쁜 외교전에서 북핵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며, 미래를 당당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병자호란을 살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 ′ 를 되돌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한민족의 운명에 외교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되짚어보기 위해서이다. 명지대 사학과 한명기 교수의 눈을 통해 '병자호란 ′ 의 안과 밖을 살펴본다. 역사평설 '병자호란 ′ 이 매주 목요일 연중기획으로 독자를 찾아간다. 편집자 주

●준비 없이 전쟁을 선택하다

1636년(인조 14년) 봄. 조선 조정에서는 청나라를 황제국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같은 해 3월, 청의 수도인 선양(瀋陽)에서 누르하치의 여덟째 아들 홍타이지(皇太極)가 황제로 즉위한다는 소식이 조선에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척화파(斥和派) 신료들은 "개 · 돼지만도 못한 오랑캐 추장에게 황제 칭호는 가당치도 않다." 며 "정묘년(丁卯年,1627년)에 그들과 맺은 맹약을 파기하고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고 외쳤다. 그들은 이어 '황제 운운'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서를 가져온 청나라 사신 용골대(龍骨大)의 목을 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주화파(主和派) 신료들은 "청이 명을 능멸할 정도로 세력이 강해진 현실을 인정하여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사신을 박대해서도 안된다." 고 맞섰다. 최종 결정권자인 국왕 인조는 양자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척화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곧 이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조정이 청과 맺은 맹약을 파기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청의 침략에 대비하라는 내용으로 인조가 평안감사에게 보내는 극비교서(敎書)를 가져가던 금군(禁軍) 전령이 용골대 일행에게 교서를 빼앗긴 사건이었다. 자신의 목을 치라는 험악한 분위기에 놀라 황급히 달아나고 있던 용골대 일행에게, 다른 곳도 아닌 조선 영토 안에서 국왕의 밀찰(密札)을 빼앗긴 것이다. 척화냐, 주화냐를 놓고 정쟁만 무성했던 와



▲ 청태종 송덕비
병자호란 이후 청이 조선에 강요해서 세운 청 태종 송덕비. 병자호란의 전말을 적었다. 사진은 일제시대에 촬영된 것으로 당시 경기도 광주

중에 정작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정보 전달체계가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1636년 12월6일. 청군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질풍같이 내달렸다. 병자호란이 시작된 것이다. 모든 병력을 의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대로(大路) 바깥에 위치한 산성들 속으로 집결시켰던 조선군은 청군의 침입 사실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다. 청군이 조선군과의 접전을 피해, 곧장 서울로 진격하는 속전속결의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그 와중에 임진강 이북의 방어를 책임진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은 청군이 침입했다는 최초의 보고를 묵살하고 조정에 제때 알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적이 다가오자 싸우지도 않고 도주해 버렸다. 청군이 이미 개성을 지나 양철평(良鐵坪-지금의 은평구 녹번동)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진 12월14일. 서울 도성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군 중대면 송파리 삼전도에 있었다. 현재도 삼전동에 있으며 사적 101호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산성(사적 57호). 삼국시대 이래 전략적 요충이었던 남한산성은 둘레에 가파른 산을 거느린 천혜의 요새였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아이들과 노약자들, 부녀자들의 울부짖음속에 피란행렬이 줄을 이었고, 조정 신료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거렸다. 인조는 왕실 가족들과 종묘에 모셔져 있던 역대 국왕의 신주(神主)들을 강화도로 먼저 옮기도록 했다.

이어 자신도 강화도로 들어가려 했으나 청군이 이미 김포에서 강화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해 버렸다. 인조는 어쩔 수 없이 남대문까지 갔다가 강화도 행을 포기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 **'돼지'에게 무릎을 꿇다**

1637년(인조 15년) 1월 중순. 준비 없이 들어왔던 남한산성의 상황은 참혹했다. 청군이 산성을 완전히 포위했고, 삼남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군량이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청군은 연일 서양식 최신 대포인 홍이포(紅夷砲)를 쏘아대면서 항복하라고 종용했다. 조선 조정이 목이 빠져라 고대하던 지원군은 오지 않았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동상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을 지킬 의욕을 잃은 장졸들 가운데는 항복하자고 시위를 벌이는 자들까지 나타났다.

그 와중에도 신료들은 척화와 주화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인조는 눈물을 보이며 대책을 호소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있을 리 없었다.

1월26일.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청군은 바다에 익숙하지 못하여 수전(水戰)을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강화도 조선군 지휘부의 방심이 불러왔던 결과였다. 청군은 이에 앞선 1월22일, 조선에서 노획한 선박에 홍이포까지 싣고 강화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벌였다. 조선군이 변변한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강화도는 함락되었고, 피란했던 왕실 가족과 중신들은 전부 포로가 되었다.

강화도의 함락 소식은 남한산성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

1월30일. 인조는 남한산성의 서문을 나와 현재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삼전도(三田渡)로 향했다. 이윽고 그는

높다란 수항단(受降壇) 위에 앉은 청 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의 예를 바쳤다.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 세번 큰절을 올리고, 한번 절할 때마다 세번씩 머리를 바닥으로 조아리는 오랑캐식 항복 예식이었다.
원래 조선의 지식인들은 홍타이지를 포함한 여진족들을 인간이 아닌 '금수(禽獸)'로 경멸했다. 일부 인사는 심지어 청 태종을 '황태극(皇太極)' 대신 홍태시(紅泰豕)라고 불렀다. '붉고 큰 돼지'란 뜻이다. 그런데 인조가 '인간'도 아닌 '돼지'에게 무릎을 꿇는 치욕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청 태종 홍타이지

청 태종은 인조로부터 항복을 받은 뒤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끌고 철수길에 올랐다. 그러면서 인조에게 또 다른 다짐을 받아냈다.
"내가 끌고 가는 조선인 포로들 가운데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도망치는 자는 불문에 부친다. 하지만 압록강을 건너 단 한발짝이라도 청나라 땅을 밟은 뒤에 도망쳐 오는 포로는 조선 조정이 도로 잡아 보내야 한다."
무시무시한 약조였다. 날이 갈수록 영토는 넓어지는데 인구가 부족했던 청은 조선인 포로들을 보배로 여겼다. 그들은 훌륭한 노동력이자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청은 10만이 훨씬 넘는 조선인 포로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인조로부터 이같은 다짐을 받아냈던 것이다.
훗날 실제로 청에 끌려갔다가 탈출해 왔던 포로들은 이 '약조' 때문에 청으로 다시 박송(縛送)되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은 청군에 끌려가 발뒤꿈치를 잘리는 혹형에 신음해야 했다.
호란 후에도 인조는 어렵사리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의 통곡소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누가 안추원의 비극을 책임질 것인가?

1664년(현종 5년). 항복 후 27년이 지나 한 남자가 청에서 도망쳐왔다. 마흔한살의 안추원(安秋元)이 그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개성 부근에서 살았던 열세살의 소년 안추원은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피란했다. 하지만 이듬해 강화도가 함락될 때 그는 청군의 포로가 되었고, 선양으로 끌려갔다. 그는 선양에서 한족 출신 대장장이에게 팔린 신세가 되었다. 호란이 끝난 뒤, 포로로 끌려왔던 조선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몸값을 치르고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하지만 안추원은 그렇지 못했다.1644년 명이 멸망하자 청은 베이징에 입성한다. 베이징을 새로운 수도로 정한 청 조정은 선양의 거주민들에게 베이징으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스물한살이 된 안추원은 그의 주인에게 이끌려 베이징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18년이 지난 1662년(현종 3). 서른아홉의 장년이 된 그는 조선으로의 탈출을 결행한다. 산해관(山海關)을 통과하여 만주 벌판을 가로질러야 하는 일생일대의 모험이었다. 하지만 산해관에서 청군에 붙잡히고 말았다. 베이징으로 송환된 그는 이마에 글자가 새겨지는 묵형(墨刑)에 처해졌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의 비원(悲願)은 처절했다.
다시 2년이 지난 1664년, 안추원은 마침내 청을 탈출하는데 성공한다. 정확히 27년 만의 귀향이었다.
그가 사선을 뚫고 조선에 도착했을 때 조정은 고민에 빠졌다. 여전히 조선인 포로들의 탈출을 금지하고 있던 청의 존재 때문이었다. 하지만 27년만에 목숨을 걸고 탈출한 자국 백성을 어찌 차마 돌려 보내겠는가.
청이 알까봐 쉬쉬하는 가운데 안추원은 내륙으로 옮겨졌다. 안추원은 고향을 찾았다. 하지만 고향에는 아무도 없었다. 병자호란으로 그의 가족은 풍비박산 나고 말았다. 목숨을 걸고 다시 찾은 고향이었지만 그는 당장 생계조차 막막했다. 조정은 그를 받아주었을 뿐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지는 않았다. 귀향의 감격도 잠시 뿐 배고픈 그에게 아무런 피붙이도 남아 있지 않은 고향은 그저 또 다른 이역이었을 뿐이다.

안추원은 절망 끝에 베이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청으로의 귀환은 탈출보다 훨씬 위험했다. 1666년(현종 7). 그는 결국 고국을 탈출하려다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후 그가 어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아마도 처형되었을 것이다.2번이나 탈출을 시도했던 그가 온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백성 도탄에 빠뜨렸던 김자점 영의정까지 올라

안추원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다. 하지만 위정자들의 오판에 떠밀려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비극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

병자호란을 통해 수많은 '안추원'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비극'을 불러왔던 최고책임자인 인조는 왕위를 유지했고, 책임을 져야할 신료들의 상당수도 멀쩡하게 살아남았다. 전쟁 발생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적과의 싸움마저 회피하여 국왕과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던 김자점은 인조 말년 최고위직인 영의정까지 올랐다.

오늘날. 병자호란의 참상을 떠올리면서 현실을 돌아본다. 꼭 10년전 'IMF 외환위기'가 불러온 칼바람 속에서 스러져갔던 수많은 민초들. 비극을 초래한 책임자들의 과실 또한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수많은 생령들을 도탄에 빠뜨려 놓고도 자신의 과실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의 '무책임'은 시공을 초월하여 유전되는 것일까. 비극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내지 못하면 또 다른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했던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정치권의 난맥상과 민생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쌓여가고 있는 오늘, 370년전 병자호란의 비극을 되돌아보는 마음은 여전히 착잡하다.

여진족과 만주 I

조선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남긴 병자호란의 발발은 16세기 후반~17세기 중반 중국 대륙에서 벌어진, 이른바 명청교체(明淸交替)의 여파가 조선으로 밀어닥친 결과였다. 명청교체의 주역은 여진족(女眞族)이었다. 그들은 병자호란 7년 뒤인 1644년 베이징을 접수하고 마침내 중원을 차지하게 된다. 병자호란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먼저 여진족과 누르하치의 성장과정을 살펴본다.



▲ 허투아라 성의 왕궁 모습.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누르하치가 집무한 정전(正殿) 한왕전(汗王殿)이다.

●여진족, 만주, 그리고 한국사

여진은 상고 시기 숙신(肅愼), 말갈(靺鞨) 등으로 불리던 퉁구스 계통의 소수민족이다. 그들의 발상지이자 활동무대는 우리가 보통 만주(滿洲)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중국 동북지방이었다. 만주란 과연 어떤 곳인가?

많은 한국인들은 만주 하면 먼저 고구려를 떠올린다. 동시에 그곳은 독립운동가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말을 달리던 벌판이기도 하다.



▲ 건주 여진 무사의 수렵 복장.

해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고구려의 옛 수도인 지안(集安)을 찾고, 백두산 천지(天池)에 오른다. 한국인들은 광개토대왕비와 장군총을, 그리고 천지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고구려의 영광'을 추억한다.

한국인들에게 이렇듯 각별한 의미를 지닌 만주는 지난 1000년 동안 그야말로 풍운의 땅이었다. 고구려와 발해가 멸망한 뒤 만주는 한국인들과는 멀어졌다.

이후 19세기까지 만주에서는 거란, 여진, 몽골, 한족, 그리고 다시 여진족의 순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만주를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치열한 다툼을 벌였고,1945년 이후에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격전이 벌어진 뒤, 만주는 중국 땅이 되었다.

만주에서 일어나 대제국 청을 세운 여진족은 오늘날의 중국에 커다란 선물을 남겨주었다. 청나라가 차지했던 광대한 땅이 고스란히 오늘날 중국의 영토로 계승된 것이다. 명나라 시절, 한족 지식인들은 여진족을 야만인이자 '금수(禽獸)'라고 멸시했다.

하지만 청은 1644년 명을 접수한 이래 영토를 확장하여 신장(新疆), 티베트, 내몽골 지역을 자신들의 판도 속으로 집어넣었다. 청나라의 지배 아래서 중국의 영토는 과거 명나라 시절보다 거의 40% 가까이 불어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1644년 베이징을 접수할 무렵, 여진족의 인구는 대략 50만, 한족의 인구는 1억 50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었다. 이후 여진족은 자신들보다 300배 가까이 많은 한족들을 300년 가까이 지배한다. 좀처럼 믿기 어려운 사실이자, 동시에 여진족과 청조 지배층의 정치적 역량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오늘날 만주에서는 700만 정도의 여진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고유의 말과 문자를 말하고,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상 한족에게 동화되어 버린 것이다.

조선은 비록 병자호란에서 청에 항복했지만 한(韓)민족은 여전히 살아남아 독자적인 국가와 민족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을 굴복시킨 청 태종 홍타이지가 지하에서 이같은 사실을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병자호란은 비록 치욕의 역사였지만, 중국의 무시무시한 동화력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자부심만은 우리의 '엄청난 자산'이라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글을 이어간다.

●아구다(阿骨打)의 추억

오늘날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신빈(新賓)에 있는 만족(滿族) 자치현(自治縣)에 가면 허투아라(赫圖阿拉)라는 성이 남아 있다. 이곳은 바로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태어나고 자랐으며, 장차 청 제국을 건국하는 기반이 되었던 흥경노성(興京老城)의 옛터이다. 왕궁이 있었던 곳의 면적은 기껏해야 우리나라 시골의 여느 초등학교 넓이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과거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집무했던 한왕전(汗王殿)을 비롯한 몇 개의 건물을 복원해 놓았다.

왕성(王城)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박한 허투아라성의 모습은 16세기 후반까지 중화제국 명의 지배를 받으

며 만주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던 여진족들의 초라한 상황을 상징한다. 하지만 누르하치의 먼 조상들은 결코 초라하지도, 호락호락하지도 않았다.

926년 발해가 거란에 멸망당한 이후 여진족들은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만주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거란족은 요(遼)를 세워 10세기부터 12세기 초까지 만주와 화북일대를 차지하는 제국이 되어 남쪽의 송(宋)과 각축을 벌였다.

1115년 그런 와중에 여진족 내부에서는 아구다(阿骨打)라는 영걸이 나타났다. 그는 주변의 여진 부족들을 아울러 나라를 세웠는데 국호를 금(金)이라고 했다. 훗날 누르하치도 나라 이름을 한때 대금(大金)이라 지칭했는데, 사람들은 보통 후자를 아구다가 세웠던 금과 구별하여 후금(後金)이라고 부른다.

아구다의 금은 이후 더욱 세력을 키워 요를 멸망시키고 1127년엔 한족 왕조 송을 양자강 남쪽으로 밀어냈다. 송의 흠종(欽宗)과 휘종(徽宗)은 금의 포로가 되었고, 이후 남송(南宋)은 금에 세폐를 바쳐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한족들에게는 굴욕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금은 비록 1234년 몽골에 의해 멸망했지만, 이후 한족들에게 아구다와 금의 존재는 기억 속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368년 중원에는 다시 한족 왕조 명(明)이 들어섰다. 중원을 지배했던 몽골족의 원(元)나라는 베이징을 버리고, 북으로 도주하여 고비사막 방면까지 쫓겨갔다. 명은 다시 만주 쪽으로 세력을 뻗치면서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여진족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다.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하라

1279년 남송 멸망 이후 거의 백년 만에 중원을 되찾아 한족들의 자존심을 회복한 명의 여진정책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여진족을 통제하되 그들을 너무 강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섬세하게' 길들이는 것이었다. 명은 흩어져 있는 여진족들 사이에서 과거 아구다와 같은 패자(覇者)가 출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렇게 되면, 여진족이 다시 커다란 세력으로 뭉치게 될 것이고 송나라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여진족들을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명은 북으로 도망간 몽골의 원나라(보통 北元이라 부름)를 여진족을 이용하여 견제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명은 몽골을 견제하기 위해 이이제이(以夷制夷) 방식을 고려한 셈이다. 그러려면 여진족이 어느 정도까지는 강해질 필요가 있었다. 한마디로 명의 여진정책은 일종의 '딜레마'였다.

명은 고심 끝에 14세기 후반부터 만주의 여진족들을 분할지배 방식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명은 랴오허(遼河)를 기준으로 서쪽, 즉 오늘날 랴오닝성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요동도사(遼東都司)라는 기구를 설치, 지역의 한족들을 직접 통치했다. 그리고 요동도사가 관할하는 산하이관(山海關) 부근부터 관전(寬奠)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변장(邊牆)이라 불리는 담을 쌓았다. 여진족들은 이 담을 넘어 서쪽으로 올 수 없었다.

랴오허 동쪽, 오늘날 지린(吉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에는 노아간도사(奴兒干都司)라는 기구를 두어 여진족을 통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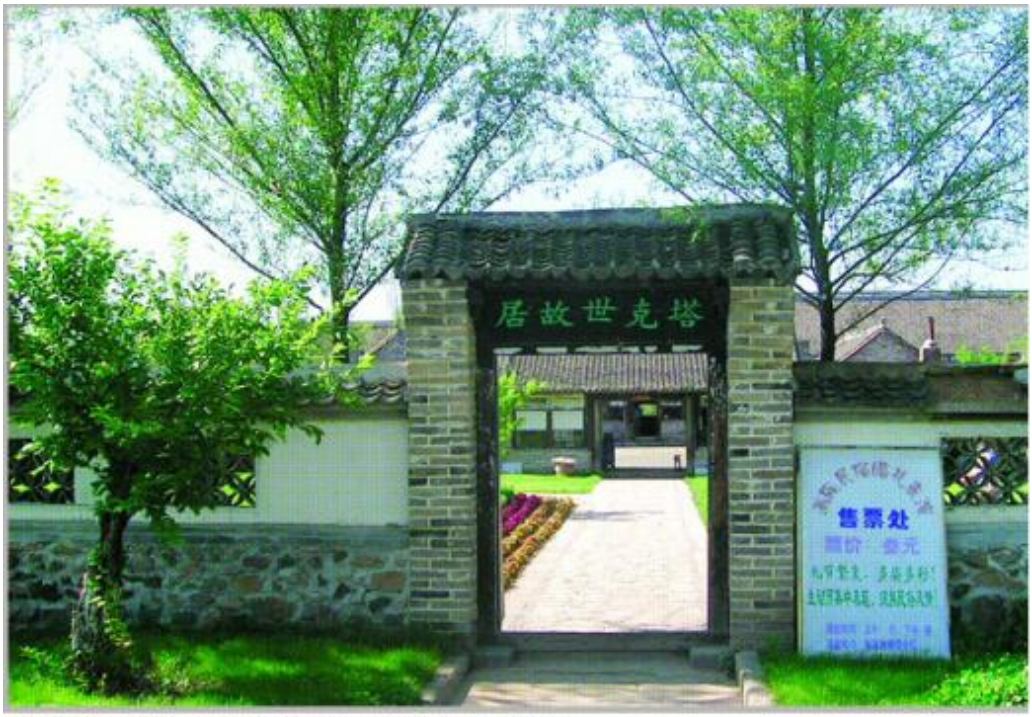
그 아래에는 위소(衛所)라는 기관을 두어 여진족 출신을 우두머리로 임명하고 자치를 허용했다. 하지만 위소의 우두머리를 임명할 때나, 여진족 내부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명의 지휘부가 개입했다. 여진족의 자치를 허용하되, 여진족 유력자들을 명의 행정체계에 포섭하여 통제하는 전형적인 '분할통치(divide and rule)'였다.

건국 직후부터 16세기 중반까지 명의 여진정책은 그럭저럭 성공적이었다.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은 명 내부의 정치가 그런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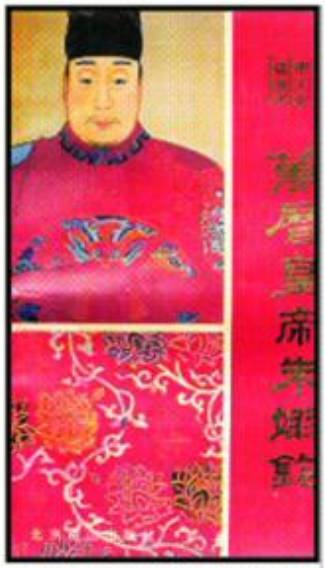
하지만 16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만력제(萬曆帝)의 정치적 태만과 무능, 그에 더하여 임진왜

란과 같은 명 외부의 격변까지 맞물리면서 여진정책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침 이 무렵부터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던 누르하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청나라의 시조 누르하치가 장차 동북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대격변의 첫걸음을 내디딘 해는 1583년이었다. 이 해부터 시작해 1626년 사망할 때까지 누르하치의 일생은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전쟁은 처음에는 여진의 여러 부족을 아우르는 단계에서 출발해 나중에는 직접 명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누르하치는 왜 군사를 일으키게 되었는가? 그리고 명은 왜 누르하치가 댕겼던 불씨에 휘말려 끝내 자신의 온몸을 태우고 말았는가?



허투알라 성 안에 있는 누르하치의 아버지 타쿠시(塔克世)가 살던 집.



♠명나라 만력황제(萬曆皇帝)

♦만주실록(滿洲實錄)에 실린 누르하치. 1599년 몽골족을 접견하는 장면.



●명, 건주 · 해서 · 야인 여진을 주무르다

명나라 시절 만주의 여진족은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건주(建州), 해서(海西), 야인(野人) 여진으로 구분되었다. 누르하치를 배출한 건주여진은 주로 요동에 가까운 조선의 압록강 너머 고구려와 발해의 고토 지역에 살고 있었다. 일찍부터 농경에 종사했다. 해서여진은 과거 금을 세웠던 아구다의 직계로서 오늘날 하얼빈 부근과 송화강 유역에 흩어져 살았다. 야인여진은 송화강 북방, 흑룡강 남쪽에 거주했다. 명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진 데다 주로 수렵에 종사했기 때문에 가장 미개한 종족으로 취급되었다.

여진족 내부에서 아구다와 같은 패자가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명나라는 정치적 통제 이외에도 경제적 통제 수단을 교묘히 활용했다. 당시까지 여진족들은 곡물을 비롯해 소금, 포목, 철제 농기구 등 생필품을 자

급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산물인 말(馬), 모피, 인삼, 진주 등을 주고 명나라 상인들로부터 생필품을 구입했다.

명 조정은 상인들끼리 교역하는 장소를 엄격히 제한했을 뿐 아니라, 명나라 황제 명의의 칙서(勅書:교역허가증)를 소지한 여진족 유력자에 한해서만 교역을 허가했다.

명이 정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명의 권위에 도전하려 할 경우 칙서는 가차없이 회수되었고 교역은 금지되었다. 생필품 공급이라는 '목줄'을 틀어쥠으로써 여진족들을 길들이려는, 명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지만 여진족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수단이었다.

그같은 명의 지배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한 인물이 건주여진 출신의 왕고(王)였다. 누르하치의 외조부로 알려진 왕고는 1574년, 부족의 병력을 이끌고 랴오양과 선양을 공격했다. 명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자신에게 교역을 금지시킨 데 따른 반감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다.

하지만 3000여명에 불과했던 왕고의 병력은 6만명에 이르는 명의 진압군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왕고는 겨우 탈출해 해서여진의 하다부(哈達部)로 숨어들었다. 그런데 하다부는 왕고를 포박하여 명군 사령관 이성량(李成梁)에게 넘겼고, 왕고는 다시 베이징으로 압송돼 능지처참형에 처해졌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피값으로 얻은 기반

이성량이 왕고를 진압할 무렵, 누르하치의 조부 교창가(覺昌安)와 부친 타쿠시(塔克世)는 이성량의 편에 서서 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 타쿠시는 장인인 왕고를 진압하는 명군의 작전에 협조했고, 그 대가로 명 조정으로부터 벼슬을 받기도 했다.

1583년, 더 참혹한 비극이 일어났다. 자신의 부친을 죽게 만들었던 하다부와 명군에 대해 원한을 품었던 왕고의 아들 아타이(阿台)가 복수에 나섰던 것이다. 아타이는 하다부와 대립했던 해서여진의 예헤부(葉赫部) 등을 끌어들여 하다부를 공격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성량이 걸림돌이었다. 이성량은 교창가와 타쿠시, 누르하치까지 이끌고 아타이가 쫓겨 들어간 고륵채(古勒寨)성을 향해 총공격을 감행했다.

성이 거의 함락될 무렵, 교창가와 타쿠시는 성안으로 들어갔다. 아타이의 아내가 교창가의 손녀(누르하치의 백부의 딸, 누르하치의 사촌)였기 때문에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아타이에게 항복을 권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타이는 항복을 거부하다가 부하에게 피살되었고, 성은 결국 함락되었다. 이윽고 명군은 성안에서 대학살을 자행했는데, 교창가 부자도 그 와중에 적으로 오인되어 피살되었다.

눈앞에서 조부와 부친이 피살되는 장면을 목도했던 누르하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명은 이제 그에게 '만세불공의 원수'가 되었다. 누르하치가 훗날 명에 선전포고하면서 일곱 가지 원한(七大恨)을 내세웠는데, 그 가운데 명군에 의한 부조(父祖)의 피살을 가장 먼저 거론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어쨌든 난감해진 것은 이성량과 명 조정이었다. 그들은 두 사람의 피살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누르하치에게 칙서 30통과 말 30필을 배상금으로 주었다. 동시에 그에게 타쿠시가 명으로부터 받았던 도독(都督) 직함을 물려주었다.

이윽고 1583년 5월, 누르하치는 부조의 원수를 갚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다. 그 대상은 명이 아니라, 명에게 협조적이었던 주변의 건주여진 부족이었다. 당시 스물다섯의 약관에 불과했던 누르하치에게 명은 아직 상대하기가 몹시 버거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명으로부터 받은 칙서 30통은 군사활동에 필요한 자금줄이 되었다. 칙서를 많이 가진 누르하치에게로 명 상인들과 무역을 원하는 여진의 인삼, 모피, 진주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인삼, 모피, 진주의 유통로를 장악했으며 무역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는 이제 군사 지휘관인 동시에 확실한 기반을 지닌 거상(巨商)이기도 했다.

1589년, 누르하치는 마침내 건주여진 부족 전체를 통일했다. 누르하치에게서 '아구다'의 재림(再臨) 조짐을 간파한 이성량은 경악했다. 그는 명 조정에 건의하여 누르하치에게 용호장군(龍虎將軍)이라는 직함을 내렸다. 그를 명의 관직체계 속으로 끌어들여 견제하기 위한 응급수단이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 '채수(債帥)' 이성량

이성량(1526~1618)은 임진왜란 때 명군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온 이여송(李如松)의 부친이다. 그의 조상은 본래 조선 출신으로, 명나라 초기에 요동으로 건너가 철령(鐵嶺)에 정착했다. 뒤에 군공을 세워 철령위 지휘첨사(指揮僉使)가 되었고 40세 이후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는 1570년부터 1591년까지 만주에서 여진과 몽골 세력을 견제하는 명의 최고 군사책임자를 역임했다.

승패가 무상하고, 그에 따른 상벌이 엄격할 수밖에 없는 무장의 세계에서 무려 22년 동안이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역사는 이성량을 '채수(債帥)'라고 부른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정의 고관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그들의 비호 아래 자리를 유지하는 장수를 말한다.

이성량은 누르하치와 결탁하여 만주에서 얻은 막대한 양의 모피와 진주를 밑천으로 명 조정의 중신들을 구워삶았다. 그 결과 그의 패전은 '없었던 일'이 되고, 시원찮은 승전은 '대첩(大捷)'으로 둔갑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의 아들 이여백(李如柏)은 누르하치 동생의 딸을 첩으로 맞이했다.

요동에서는 '오랑캐 추장의 사위가 요동을 지킨다.'는 비아냥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권력과 부를 한손에 거머쥔 이성량이 누르하치를 제대로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장기집권'으로 타락하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부패한 명 조정의 중신들이 있었으며, 다시 그 뒤에는 태만하고 무능한 만력(萬曆) 황제가 있었다.

이같은 배경에서 1583년은 역사적인 해가 되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성량의 군대가 좀더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누르하치의 부조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누르하치가 복수심에 불타 명과의 전쟁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궁극에는 조선도 병자호란과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며, 명·청 교체와 같은 대격변도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역사에서 가정이란 부질없는 것이지만 누르하치와 이성량의 행보를 보면 문득 '나비효과'라는 용어가 떠오른다.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한달 후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물리학의 비유말이다. 사소해 보이는 인간의 행동 하나가 엄청난 파국으로 이어졌던 역사의 거울 앞에서 문득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

[병자호란] (2) 임진왜란, 누르하치, 그리고 조선

2013.01.27 21:59

임진왜란, 누르하치, 그리고 조선 ■

조선이 中華에 빠진 틈타 누르하치 여진 통합

1592년의 임진왜란은 병자호란보다 44년이나 먼저 일어났지만, 두 사건은 역사적으로 밀접한관계가 있다.

1583년 군사를 일으켜 주변의 여진족 정복에 나섰던 누르하치에게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것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다. 여진족 안에서 아구다 같은 패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 했던 명이, 왜란 이후 관심을 조선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누르하치는 명이 한눈을 파는 사이 주변세력에 대한 정복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 조선 또한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누르하치의 실체를 목도하고, 그의 위력을 절감하게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假道入明을 내걸다

1592년 4월13일.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다. 조선 조정은 상주(尙州)와 충주(忠州)에 각각 이일(李鎰)과 신립(申砬)이 이끄는 병력을 보내 일본군의 북진을 저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병력수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데다 일본군이 지닌 신무기 조총(鳥銃)의 위력은 실로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더욱이 일본군은 16세기 당시 전국시대(戰國時代)를 치르며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데 비해, 조선군은 오랫 동안 이어진 평화의 시간을 보내면서 도무지 전쟁이란 것을 알지 못했다.

승부는 뻔한 것이었다.

4월28일. 믿었던 신립의 패전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울 도성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곧바로 서울을 버려야 한

다는 파천론(播遷論)이 등장했다. 이윽고 4월30일. 선조(宣祖)를 모신 행렬은 경복궁을 나와 북으로 피란길에 올랐다. 수행하는 신료들이 채 100명도 되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일본군이 거침없이 북상하고, 조선 국왕이 북으로 쫓겨오고 있다는 소식은 명에도 커다란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같은 해 6월. 조선이 청원사(請援使) 이덕형(李德馨)을 보내 원병 파견을 요청하기 이전부터 명 조정은 이미 일본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임진왜란을 도발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내세운 슬로건은 '가도입명(假道入明)'이었다. 조선에서 길을 빌려 요동(遼東)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 일본군의 궁극적인 공격목표가 명나라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명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왜란이 일어난 직후 요동을 비롯한 명 내부에서는 희한한 유언비어가 돌았다. '조선이 고의로 일본군을 끌어들여 요동을 차지하려 한다.' 는 내용이었다. 명 조정은 당연히 원병 파견을 망설였다.

명 조정은 임진왜란 무렵까지, 조선을 결코 만만한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조선은 '강국 고구려의 후예'였다.

그런데 그 막강했던 고구려의 후예인 조선 국왕이 일본군이 침략하자마자 도성을 버리는가 하면, 조선 어디에서도 일본군에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명의 의구심은 어쩌면 당연했다.

명은 심지어 피란길에 오른 국왕 선조를 '가짜'라고 의심했다. 명 조정은 과거 사신을 따라 조선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송국신(宋國臣)이란 인물을 불러들였다. 그가 선조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를 보내 선조의 얼굴을 다시 확인하는 '해프닝'까지 벌인 이후에야 명은 조선에 군대를 투입했다.





↑누르하치의 원수인 이성량의 장남 이여송.
←임란 당시 일본 선봉대장 가토 기요마사.

●명군, 조선에 들어오다

일본군이 평양에 입성한 직후인 7월. 명의 원군이 처음으로 조선에 들어왔다. 요동도사(遼東都司) 소속의 부총병(副總兵) 조승훈(祖承訓)이 이끄는 3000명의 병력이었다.

그들은 7월17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군이 지키던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참패했다.2만명이 넘었던 고니시의 병력에 비해 턱도 없이 모자란 전력으로 무모한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조승훈은 병력 대부분을 잃고 압록강을 건너 도주했다. 그는 명 조정에 '조선이 명군에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무리하게 진격을 종용한 것이 패인'이라고 보고했다.

명 조정은 조승훈의 패전 소식에 경악했다. 일본군의 전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그들이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건너오는 상황을 우려했다.

요동과 조선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였다. 요동이 이(齒)라면 조선은 그것을 보호하는 입술(脣)이었다. 만약 조선이 무너지면 일본군은 요동의 벌판으로 밀려들 것이고, 요양(遼陽)과 산해관(山海關)은 물론 북경까지 위협에 노출될 판이었다.

다급해진 명 조정은 병부시랑(兵部侍郞) 송응창(宋應昌)을 요동 방어를 위한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조선에 보낼 병력을 새로 충원하기 시작했다.

요동 출신의 기병만을 투입했다가 일본군의 조총에 혼쭐이 났던 조승훈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강남 출신의 화기수(火器手)들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복건(福建)이나 절강(浙江) 출신의 화기수들이 요동까지 오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일본군이 조선을 점령하고 압록강을 건너온다면?
명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명의 병부상서 석성(石星)은 응급 조처를 취했다. 일본인들과 도자기 무역을 했던 경험이 있는 심유경(沈惟敬)을 조선으로 보냈다. 일본군을 평양에 묶어두라는 것이었다. 심유경이 가진 것은 세치 혀뿐이었다. 평양성으로 들어간 심유경은 능수능란하게 유세(遊說)하여 고니시를 구워 삶았다.9월1일부터 50일을 기한으로 휴전이 이루어졌다. 당시 평양성의 일본군이 처한 상황도 열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명,李如松을 투입하고 누르하치를 이용하려 하다

명은 조선에 투입할 원정군의 사령관으로 이여송(李如松)을 지명했다. 이여송은 이성량(李成梁)의 장남이었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서북 내륙인 영하(寧夏)에 가있었다.1592년 3월에 일어난 보바이(拜)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영하의 반란은 9월에 진압되었다. 이여송은 부리나케 요동으로 달려왔다. 그렇게 분주했던 이여송을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무장으로서의 그의 성가(聲價)가 높았음을 시사한다.
1592년 12월. 조선에 다시 들어온 4만 8000명의 명군 가운데는 이여송 말고도 이여백(李如栢) 등 그의 동생들도 끼여 있었다. 송응창은 요동에서 조선으로 들어갈 원정군을 정비하면서 이성량에게 누차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자문을 구했다.22년 동안 요동에서 ‘오랑캐’들을 제어하는데 종사했던 이성량의 위상이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명의 원군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1592년 9월, 조선 조정은 북경에서 날아온 소식 때문에 술렁거렸다.
성절사(聖節使) 유몽정(柳夢鼎)이 가져온 자문(咨文)에 ‘누르하치의 병력을 조선에 원군으로 보낸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조실록’을 보면, 윤두수(尹斗壽)가 누르하치의 군대가 들어오는 순간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대목이 있다. 그는, 명의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심유경이 누르하치를 끌어들여 이이제이(以夷制夷)를 획책한다고 비판하고,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유성룡(柳成龍)의 기록은 조금 다르다. 그는 ‘서애집(西厓集)’에서 ‘당시 건주위(建州衛) 달로(撻虜)가 병력을 이끌고 와 조선을 구원하겠다고 장담했다’고 적었다. 유성룡도 누르하치의 원조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화근’이라 여겨 단호히 반대했다.
누르하치의 본심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을 통해 조선이 건주여진의 실체를 다시 인식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건주여진을 ‘달로’라 지칭한 유성룡의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조선 지식인들은 여진족을 ‘오랑캐’라고 멸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랑캐’의 원조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조선의 반대로 누르하치의 조선 원조는 실현되지 않았다. 누르하치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자신을 견제하고 감시해 왔던 이성량의 아들들이 조선으로 들어가고, 명의 관심이 온통 조선으로 집중된 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주변의 여진세력을 공략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무렵, 하늘은 분명 누르하치의 편이었다.

임진왜란 초 일본군에 밀려 의주까지 쫓겨갔던 조선은 누르하치의 원병 제의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

었다.

전쟁 이전까지, 두만강 너머에 살고 있던 여진족들로부터 간헐적으로 침략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조선은 그들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유성룡(柳成龍)은 1583년 선조(宣祖)에게 올린 차자(箚子)에서 여진족을 가리켜 '비록 종족은 다르지만 오랫동안 조선에 의탁해 살아온 자식'이라고 했다. 여진을 '자식'으로 여기고 있던 조선에, 원병 파견을 제의한 누르하치는 '괄목상대(刮目相對)' 그 자체였다.

그에 얽힌 역사적 사연을 알아본다.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경내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능(陵)인 건원릉(사적 193호).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성계와 퉁밍거티무르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여진, 그 가운데서도 건주여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누르하치의 직계 조상으로, 명에 의해 건주좌위(建州左衛)의 최초 우두머리로 임명된 퉁밍거티무르(童猛哥帖木兒)와의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퉁밍거티무르는 본래 만주의 송화강과 목단강이 만나는 지역 부근에 살다가 1385년쯤 조선의 회령(會寧) 지역으로 이동해 왔다. 건주좌위의 수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퉁밍거티무르가 이끌던 여진 부족은 오도리부(吾都里部,斡朶里部)로 불렸다.

몽골족의 원이 쇠퇴하고 명이 떠오르던 14세기 말, 만주 전역과 한반도의 동북지방에 거주하던 여진족들은 연쇄적인 부족 이동에 휘말려 있었다. 원말명초(元末明初)라는 국제정세 변화가 몰고 온 파장 때문이었다. 이성계의 친구로 잘 알려진 여진족 추장 퉁두란(李之蘭)도 이 무렵, 근거지인 북청(北靑)을 떠나 남쪽으로 이주했다.

태조 이성계는 원의 쇠퇴와 명의 굴기, 여진 부족의 이동 등이 나타났던 원말명초의 격동 속에서 발신한 인물이었다.13세기 중엽, 이성계의 고조부 이안사(李安社-穆祖)는 전주(全州)를 떠나 삼척(三陟)을 거쳐 북간도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안사는 원으로부터 다루가치 직책을 받고, 주변의 여진족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여진족들과 점차 불화가 생기자 증조부 이행리(李行里-翼祖)는 1290년 족당들을 이끌고 함경도 안변(安邊)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후 이성계 집안은 함흥평야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 마천령(磨天嶺) 이남의

동북면(東北面)을 관할하는 대세력으로 성장했다.

고려 말, 고려는 대략 마천령을 경계로 원과 접하고 있었다. 마천령 이북에는 주로 여진 부족들이 흩어져 살았다. 이성계와 고려 조정은 당시 명이, 고비사막으로 쫓겨간 북원(北元) 세력 공략에 집중하고 있던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성계는 1390년(공양왕 2) 길주(吉州)에 만호부(萬戶府)를 설치하고 여진족에 대한 초무(招撫)에 돌입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1391년 8월 이후, 건주여진 계열의 오도리와 오랑캐(兀良哈) 부족이 고려에 와서 조공을 바쳤다.

1392년 3월, 이성계는 여진인들을 자신의 사저로 불러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만호(萬戶)·천호(千戶)·백호(百戶) 등의 직책을 수여했다.

장차 조선이 여진족의 상국(上國)으로 발돋움하고, 두만강 방면으로 영토를 넓혀 나가려는 포석이었다.



▲ 태조 이성계 어진(御眞, 보물 931호)

●조선, 여진을 초무(招撫)하여 영토를 회복하다

1392년 7월, 이성계가 조선 국왕으로 즉위하자 여진족을 초무하는 행보는 더 빨라졌다. 태조는 이방원(李芳遠)을 경흥(慶興)으로 보내 고조부 목조(穆祖)와 그 부인을 모신 덕안릉(德安陵)을 수축했다. 조선왕조를 세운 시조의 뿌리가 함경도에 있음을 현창하고, 그를 바탕으로 주변의 여진족들을 확실히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1395년(태조 4) 윤 9월, 마침내 퉁밍거티무르가 한양으로 와서 태조에게 토산물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렸다. 태조실록의 사관(史官)은 퉁밍거티무르를 '오도리 상만호(上萬戶)'라고 기록했다. '상만호'는 조선이 준 직책이었다. 한양까지 온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퉁밍거티무르는 이제 '상국' 조선의 품에 안긴 것이다.

퉁밍거티무르가, 훗날 병자호란을 일으켜 인조(仁祖)를 무릎 꿇리고 항복을 받아냈던 청 태종의 직계 조상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역사의 전변(轉變)이 그저 무섭게 느껴질 따름이다.

태조는 이후에도 여진 세력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1397년(태조 6)에는 동북면도선무순찰사(東北面都宣撫巡察使) 정도전(鄭道傳)을 함경도로 보냈다. 정도전은 1398년 2월, 안변 이북에서 북청 이남을 영흥도(永興道), 단천(端川) 이북에서 경흥(慶興) 이남을 길주도(吉州道)라고 지칭하여 동북면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관할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다. 몽골의 침략 이래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던 전래의 영토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 서애 유성룡 영정. 서애는 선조에게 올린 차자(箚子)에서 여진족을 가리켜 "비

1403년(태종 3), 명에서 영락제(永樂帝)가 즉위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자신의 조카 건문제(建文帝)를 몰아내고 제위에 오른 그는 팽창주의자였다. 같은 해 6월, 영락제는 만주와 함경도 지역에 살고 있는 여진 부족들에게 칙유(勅諭)를 보내 명에 조공

하라고 요구했다.11월, 오랑캐 부족의 어허출(於虛出)이 조공해 오자 영락제는 그의 영역에 건주위(建州衛)를 설치하고 어허출을 수장으로 임명했다.

조선은 긴장했다.

함경도와 두만강 일대의 여진족들을 모두 초무했다고 여겼던 상황에서 '명의 간섭'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영락제는 여진을 이용하여 북원을 견제하려 했기에 여진이 조선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조선이 여진과 연결되어 만주에 대해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물론이었다. 조선은 이제 여진을 놓고 명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퉁밍거티무르를 놓고 벌인 줄다리기

1404년(태종 4) 3월, 퉁밍거티무르는 다시 한양을 찾는다. 조선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태종은 그에게 상호군(上護軍)이란 직책을 주고 극진히 대접했다.

이윽고 퉁밍거티무르를 포섭하려는 명의 손길이 뻗쳐오기 시작했다. 그가 한양을 다녀간 직후 영락제는 사신을 보내 퉁밍거티무르에게 만호(萬戶) 직책을 내리고 조공할 것을 종용했다.

조선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명사(明使)가 회령에 도착하기 직전, 신상(申商)이란 인물을 보내 명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고 설득했다.

명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퉁밍거티무르는 결국 명의 거듭되는 회유와 협박에 밀려 1405년 5월, 북경으로 입조(入朝)한다. 건주위 초대 수장으로 임명된 어허출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이번에도 조선은 보고만 있지 않았다. 조선은 경차관(敬差官) 조흡(曹恰)을 보내 퉁밍거티무르에게 북경으로 입조하라고 명령했다. 명으로 가겠다는 티무르의 결심이 이미 굳어진 상황에서, 마치 그가 조선의 관할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행동이었다. 영락제는 발끈했다.

명은 퉁밍거티무르를 건주위 도지휘사(都指揮使)에 임명하고, 여진족 초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진족을 둘러싼 조선과 명의 경쟁은 명의 승리로 귀결된다. 조선은 '패권주의자' 영락제와 그의 치세 아래 전성기를 누리던 명의 힘에 밀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퉁밍거티무르를 놓고 조선이 명에 맞서 물러서지 않으려 했던 것의 역사적 의미는 크다. 그 과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이후 지역의 여진족들에게 확실히 '상국'으로 군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무렵에 오면 상황이 달라졌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 이미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다시 누르하치의 위협에 직면한다. 그리고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의 전적으로 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동계 아시안게임을 생각한다. '백두산은 우리 땅'이라는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의 외침에 중국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백두산이 아니라 '장백산'이라고 주장하는 그들과 또 얼마나 지난한 실랑이를 벌여야 할까? '현실'을 놓고 '역사'를 돌아보는 마음은 도무지 가볍지 않다.

록 종족은 다르지만 오랫동안 조선에 의탁해 살아온 자식"이라고 했다.
서애선생 서세(逝世) 400주년기념사업회 제공

1405년 퉁밍거티무르가 입조(入朝)해 건주위도지휘사에 임명된 이래 명의 여진족에 대한 포섭작업은 가속이 붙었다. 영락제(永樂帝)는 1409년 흑룡강, 우수리강 유역의 광활한 지역을 총괄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노아간도사(奴兒干都司)라는 기관을 설치했다. 퉁밍거티무르를 비롯한 여진족 추장들은 노아간도사 아래 편제된 수많은 위소(衛所)들의 장(長)으로 임명돼 명의 신하가 되었다. 명은 위소 우두머리의 임명과 위소 상호간의 분쟁에는 개입했지만 위소의 통치는 여진족의 자율에 맡기는 체제를

만들었다. 만주에 대한 명의 지배는 점차 확고해져갔다. 이제 조선이 '고구려의 고토' 만주를 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명나라를 이용해 누르하치를 견제하는 방책을 제시한 조선 중기의 문신 이덕형.

●명 견제하의 조선-여진관계

영락제가 만주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고히 했던 뒤에도 조선과 여진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조선은 여전히 오도리, 오랑캐, 우디캐 등 여진 종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했다. 여진인들은 조선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한양에 와서 조공했다. 조선은 입조했던 추장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회사(回賜)라는 명목으로 각종 물자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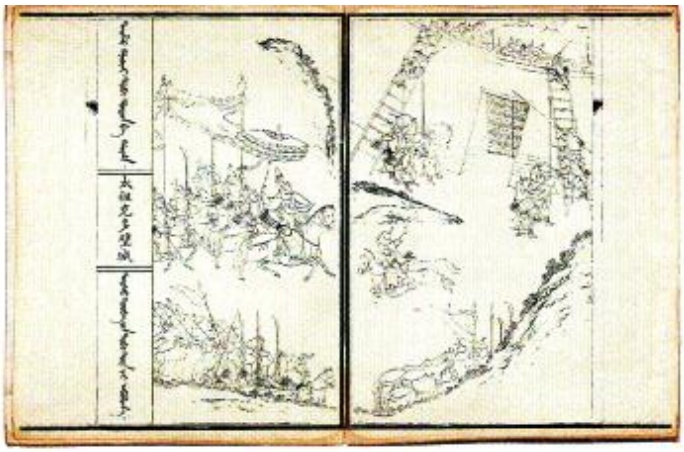
태조부터 성종(成宗) 때까지 여진족들의 조공 횟수는 거의 1100차례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여진족 가운데는 아예 조선에 귀화를 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조선은 귀화한 여진인들을 향화인(向化人)이라 부르며, 그들을 내지로 이주시켜 집과 땅 등의 생활기반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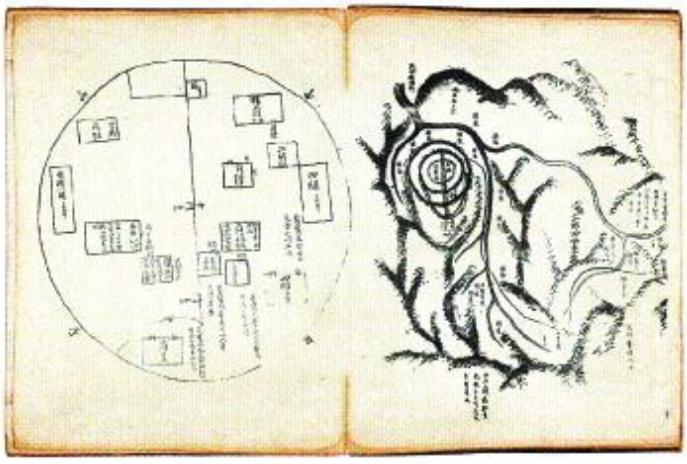
조선은 1406년 경원(慶源)에 무역소(貿易所)를 설치해 여진족들과의 교역을 허용했다. 여진족들은 말, 모피, 진주 등 자신들의 특산물을 가져와서 면포, 소금, 솥, 농기구, 소(耕牛) 등을 바꿔갔다. 주로 수렵이나 유목에 종사하다가 점차 농경의 필요성에 눈떠 가고 있던 여진족들에게 조선에서 구입한 소나 농기구는 매우 소중했다.

조선과 여진 사이의 이같은 교류가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일찍부터 조선과 여진의 교섭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명은 1458년(세조 4), 건주좌위 도독 동창(童倉)이 조선에서 벼슬을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자 양자의 접촉을 엄금했다. 하지만 여진족들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컸던 조선과의 관계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었다. 조선 또한 여진족들을 일종의 '울타리'로 생각했고, 그들을 초무(招撫)하여 몽골 침략 이래 보전하지 못했던 북방영토를 회복하고자 했다.

세종 연간 사군(四郡)과 육진(六鎭)을 설치해 압록강, 두만강 이남의 강역을 확보했던 것은 그같은 노력의 결실이었다. 조선은 또한 여진을 회유하여 스스로를 '상국'으로 자부하며 문화적 우월의식을 나타냈다. '조선의 문물(文物)과 교화(敎化)를 사모하여 귀화한 여진인'을 뜻하는 '향화인'이란 말 속에 그같은 의식이 담겨 있었다.



임진왜란 중인 1595년 해서여진을 공략하는 누르하치.



신충일의 건주기정도기(建州紀程圖記)에 나타난 누르하치 거성(居城) 평면도.

●왜란시 절감한 누르하치의 위협

16세기 이후 여진족에 대한 조선의 관심은 15세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명이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하고 조선의 여진 접근을 견제했던 영향이 컸다. 또 여진세력 자체가 조선 안보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다.

이성량(李成梁)이 활약하던 16세기 후반까지는 여진족 내부에서 조선을 위협할 만한 유력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껏 두만강 부근의 여진족들이 간헐적으로 침략하여 변경을 소란하게 하는 정도였다.
16세기 후반 선조대에 이르러 조선의 권력은 사림파(士林派)에게 돌아갔다.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지향하던 그들은 '고구려 고토의 회복' 과 같은 대외적 팽창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명에 대해 공손히 사대(事大)만 잘하면 대외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에게 여진이나 일본은 그저 교화시켜야 할, 조선보다 한 단계 낮은 '야만족' 일 뿐이었다.
그런 그들이 당시 한창 세력을 떨치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누르하치에 대해 정확한 정보나 인식을 가질 리 없었다. 정확하지 못한 대외인식의 귀결은 먼저 임진왜란으로 나타났다.
1592년 9월, 누르하치의 원병 파견 제의를 받은 조선이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야기한 바 있다.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선에 들어왔던 명군 지휘관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누르하치 군대의 '위력' 을 이야기했다.
'그들 기마군단의 위력은 가공할 만하다. 일본군에게 밀리면 도주하면 되지만, 누르하치 군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선조와 조정은 바짝 긴장했다.
그 와중에 1595년(선조 28), 산삼을 캐기 위해 평안도 위원(渭原)으로 잠입했던 건주 여진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이 조선 영내에서 소를 훔쳐가자 위원 군수 김대축(金大蓄)이 여진인을 사로잡아 죽인 것이었다.
조선 조정은 이 사건 때문에 누르하치가 침략해 오지나 않을까 우려했다. 실제로 누르하치가 격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같은 해 10월, 선조는 신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올 수 없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군과 맞서고 있는 현실에서 서북변 방어는 거의 방치돼 있었다. 그렇다고 남방의 병력을 빼서 서북쪽으로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신충일(申忠一) 허투알라로 보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은 고육지책을 생각해냈다. 명의 권위를 빌려 누르하치의 침략을 견제한다는 복안이었다. 그 계책은 병조판서 이덕형(李德馨)이 주도했다.
이덕형은 명나라 장수 호대수(胡大受)를 움직였다. 호대수의 참모 여희원(余希元)을 건주여진 지역으로 들여보내 누르하치를 선유(宣諭)하도록 했다. 조선 관원에게도 중국인 옷을 입혀 동행시켰다.
1595년 11월, 여희원은 누르하치의 부장(副將)을 만나 여진인들이 조선 영내로 잠입한 것을 힐책하고, 조선에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선은 여희원을 통해 응급조치를 취한 후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선조는 누르하치를 회유하기 위해 비단을 제공하고, 이후 산삼을 캐기 위해 넘어오는 여진인을 죽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그들의 침략에 대비해 들판을 완전히 비우고 성에 들어가 방어하는 청야책(淸野策)을 연구할 것을 강조했다.
조선은 나아가 남부주부(南部主簿) 신충일(申忠一)이란 인물을 허투알라로 들여보냈다. 조선인의 눈으로 누르하치 진영의 상황을 직접 정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처였다. 신충일은 1596년 1월, 허투알라를 다녀온 뒤 선조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올렸다.
유명한 건주기정도기(建州紀程圖記)가 그것이다. 이는 오늘날 청 초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료로서 평가받고 있다.
신충일의 보고서를 본 뒤 선조는 "천지의 기세가 바뀌고 있다." 며 탄식했다. 이어 신료들에게 누르하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북쪽의 '오랑캐', 남쪽의 '왜구' 이른바 북

로남왜(北虜南倭)에 의해 포위된 조선의 현실을 새삼 절감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정세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 임진왜란을 불렀던 것은 과오였지만, 선조 정권의 누르하치에 대한 대책은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누르하치를 견제할 만한 자체 역량이 없는 현실에서 명의 권위를 이용하고,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높이 살 만하다.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겪으면서 역설적이지만 조선은 외교적 감각을 키웠던 것이다.
6자회담이 어렵사리 타결됐지만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아직 갈길이 먼 오늘날, 선조대의 누르하치 정책은 소중하게 돌아보아야 할 역사의 거울이다.

[병자호란] (3) 일본 만선사가들이 본 병자호란

2013.01.27 22:01

일본 만선사가들이 본 병자호란,누르하치,그리고 만주 ㅣ

병자호란은 조선 사회와 민중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긴 대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학계의 병자호란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하기 어렵다. 그같은 상황은 병자호란뿐만이 아니라
조 · 청관계나 만주와 관련된 연구 전반에서 그러하다. 왜 그럴까.
호란 자체가 '가슴 아픈 역사' 인데다 이후의 조 · 청관계가 그다지 달가운 연구 주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병자호란, 조 · 청관계, 만주사 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이 일찍부터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이미 1930년대에 병자호란과 조 · 청관계 관련 연구들을 내놓았다. 만주사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더 오래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병자호란, 조 · 청관계, 만주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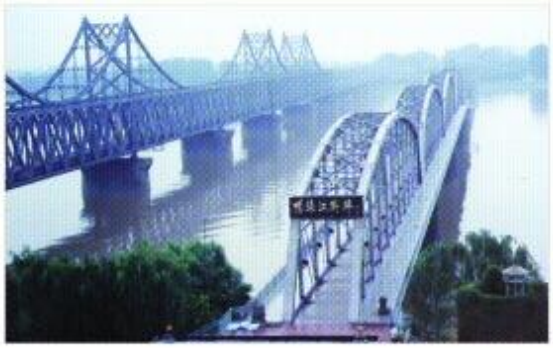
●만선사가(滿鮮史家)들의 역사인식

일본인 연구자들이 병자호란과 만주 관련연구를 중시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1894년 청일전쟁,1904년 러일전쟁에 잇따라 승리하면서 한반도와 만주에 진출하고,1931년 괴뢰국가 만주국(滿洲國)을 세우고,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대륙 침략에 나섰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롄(大連)에 있던 당시 만철(滿鐵) 본사 건물의 모습.

일본인 연구자들은 일제(日帝)의 한반도와 만주 침략을 옹호하고, 그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두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歷史地理) 연구에 몰두했다. 그 과정에서 도출해낸 것이 바로 만선사관(滿鮮史觀)이라는 역사인식 체계였다.



오늘날의 압록강 철교.

만선사가(滿鮮史家)들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정치 · 사회적 변동은 만주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서 촉발되었다고 설명한다. 한반도에는 대륙 만주로부터 정치 · 군사적 압력이 끊임없이 밀려들었고, 한반도는 그 압박 때문에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는 것.

조선 국왕이 청 태종에게 무릎을 꿇었던 병자호란 이야말로 그같은 인식 체계를 설명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례로 거론된다.

만선사가들은 이어 대륙의 압박에 신음하는 한반도를 '구원해 준 은인'으로 일본을 부각시킨다.
도리야마 기이치(鳥山喜一)는 193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대륙에서 한반도로 밀려오던 외력(外力)이 분쇄되었고 조선은 해방되었다.' 고 했다. 그에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한 일대 과업'이었던 셈이다.



이나바가 청조의 사료를 탐사하는 작업을 벌인 선양(瀋陽)의 고궁(古宮) 모습.

만선사관은 이렇게 한국사를 '만주역사의 부속물'로 치부해 한국사의 자주성을 부정했다.1910년 조선을 강제로 합병하여 '일본 영토'로 만든 이후,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를 한묶음으로 취급했던 만선사관이 던지는 메시지는보다 분명해진다. 만주도 이제 '일본의 소유물'이라는 것이다.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의 만주 체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본의 만주 침략이 본격화되자 만선사가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그 대표자는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岩吉)였다.
니가타(新潟) 출신인 이나바는 스물세살이던 1900년 봄, 청나라로 유학길에 올랐다. 베이징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사를 공부하고, 현지의 상황과 분위기를 익히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나바의 중국행을 격려했던 기시타(岸田吟香)라는 인물이 이나바에게 건넸던 말이다. 기시타가 이나바에게 중국행의 목적을 물었을 때, 이나바는 '정해진 것은 없고 지나(支那)를 알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기시타는 '우리가 지나로 건너가는 것은 대륙을 떼어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이나바를 놀라게 만들었다.
청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 조야(朝野)에서는 이렇게 '대륙 진출'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풍조가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청을 '중국'이 아니라 '지나'로 부르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있었다.
일본의 우익 가운데는 지금도 '지나'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에 대한 멸칭(蔑稱)이었다. 아편전쟁 이후 청이 쇠퇴해가는 모습을 목도했던 일본 지식인들은, '성인군자국(聖人君子國)'의 의미가 담긴 '중국'이라는 호칭 대신 '지나'를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실제 이나바는 자신의 저술에서 만주족의 '청국(淸國)'과 한족의 '지나'를 엄격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이나바는 이처럼 한반도와 중국으로의 침략 열기가 고조되고 있던 분위기 속에서 역사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1900년부터 1902년까지 베이징 유학을 마친 뒤 1904년 러일전쟁이 발생하자 육군 통역으로 지원한다.

이나바는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건너갔던 후비대(後備隊)에 소속되어 봉황성(鳳凰城), 선양(瀋陽), 푸순(撫順) 등 전장을 전전했다. 바로 과거 청나라의 핵심 거점이자 병자호란 이후 조·청관계가 전개되던 현장이었다.

1905년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이나바는 푸순 교외의 허투알라를 비롯한 청나라 초기의 발상지들을 직접 답사한다.

이나바는 좁고 보잘 것 없는 허투알라에서 출발한 누르하치와 그 후손들이 만주를 차지하고 끝내는 중원 전체를 집어삼킨 역사를 회고하면서 경이감을 느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만주를 차지하기 위한 침략전쟁에 동참했던 그의 역사연구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이미 예정돼 있었던 셈이다.

●이나바와 만철 역사지리조사실(滿鐵歷史地理調査室)

1906년 종군을 마치고 귀국한 이나바는 스승 나이토 고난(內藤湖南)을 따라 조선과 만주를 여행하고, 선양의 고궁(故宮)으로 들어가 청조의 사료를 탐사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이어 1908년 만철(滿鐵)에 설치된 만선역사지리조사실(滿鮮歷史地理調査室)에 들어간다. 만철은 1906년, 러일전쟁 승리를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넘겨받은 동청철도(東淸鐵道)를 기초로 세워진 일본의 국책회사였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모델로 삼은 만철은 당시 일본에서 가장 많은 자본금을 지녔던 회사이다. 만주, 내몽골 등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했던 '침략의 첨병'이었다.

초대 만철 총재였던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는 조선, 만주, 몽골 등을 지배하는 철학으로써 이른바 '문장적(文裝的) 무비(武備)'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식민지 지배는 단순히 무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 위생, 학술 등 문사(文事)를 활용해야 하고, 그를 통해 식민지인들이 일본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타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역사지리조사실은 바로 그 '문사'를 닦기 위한 핵심이었다. 만철은 학자나 연구원들이 조선, 만주, 몽골, 중국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보고서를 간행하도록 지원했다.

'만선지리역사연구보고(滿鮮地理歷史硏究報告)'라는 정기 간행물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나바는 1908년부터 7년 동안 바로 여기서 만선사관의 기반을 닦는다. 그는 당시 '만주역사지리(滿洲歷史地理)' '조선역사지리(朝鮮歷史地理)' '문록경장(文祿慶長)의 역(役)' 등의 저술들을 간행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 당시의 연구를 토대로 후일 '청조전사(淸朝全史)' '만주발달사(滿洲發達史)' 등의 저서를 내놓게 된다.

'침략 대상지역의 연구'라는 뚜렷한 목표와 전폭적인 지원 아래서 뛰어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실제로 당시 조사실에서 나온 논저 가운데에는 지금도 한반도와 만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노작들이 적지 않다.

만철 역사지리조사실의 설립 의도는 불순하고, 만선사관은 분명 식민사관(植民史觀)이었다.

그것은 비판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인문학 연구의 기반이 우리보다 튼실하고, 한국과 중국 등 '타자'를 연구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일본을 돌아보는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만선사관(滿鮮史觀)의 등장은 19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대륙 침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만선사가였던 이나바 이와기치는 1937년 자신의 회갑을 맞아 쓴 글에서 '자신은 학문을 위한 학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지나

문제’ 에 자극을 받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만주와 청의 역사를 연구하게 되었다.’ 고 술회했다. ‘시대적 요구’ 란 다름 아닌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조선과 중국 침략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만선사가들은 ‘일본이 옛날부터 만주와 맺었던 각별한 인연’ 을 거론하고, 일본의 대륙 침략은 ‘침략’ 이 아니라 ‘새로운 동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 이라고 강변했다.



만선사가의 대부 나이토 고난(사진 왼쪽)과 이나바 이와기치.



이나바 이와기치가 크게 찬양한 강희제.

●일본과 만주의 인연 강조

이나바 이와기치를 비롯한 만선사가들에게 대부(代父) 역할을 했던 인물은 나이토 고난(內藤湖南)이었다.

아키타(秋田) 출신인 그는 젊은 시절 오사카 아사히(朝日)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내는 등 주로 언론계에서 활동했다. 그는 1903년 만주를 시찰하고 돌아와 러시아와 일전(一戰)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고,1905년 러일전쟁 승리 이후에는 외무성의 촉탁으로 만주에서 행정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어 외상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의 고문이 되어 대륙 경영의 방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나이토는 교토(京都)제국대학에 사학과가 개설된 1907년부터 동양사 담당교수로 강의하는 한편 정세파악과 사료수집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조선과 중국을 방문했다.1925년에는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의 고문을 맡기도 했다. 일본의 만주침략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관학자(官學者)이자, 이른바 '교토 지나학(支那學)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의 영향 아래서 이나바 이와기치와 같은 만선사가가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나이토는 1905년, 이나바가 '만주발달사(滿洲發達史)'를 출간하자 서문을 써주었다. 그는 그 글에서 "부여는 남만주철도의 종점인 창춘(長春) 서쪽의 눙안(農安) 지역에 있었으며"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 일본과 지나의 세력이 처음으로 조선과 만주 방면에서 접촉했고, 그때부터 일본은 만주에 대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 고 썼다.

나이토는 또한 발해가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여가 남만주철도 종점 부근에 있었던 사실, 고대 일본이 고구려·발해와 접촉했던 사실 등을 일본과 만주 사이의 '인연'으로 강조했던 것이다.

만선사가들은 또 다른 '인연'도 끄집어냈다. 임진왜란 중인 1592년 12월, 함경도를 점령했던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는 두만강을 건너 여진족을 공격했던 적이 있다.1936년,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는 이 사실에 주목하여 '가토의 공격은 흉포한 야인들에게 일본의 무위(武威)를 과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나바 또한 이 사례를 일본이 만주와 맺은 각별한 인연으로 강조한다.

●만주사변과 이나바의 청(淸)찬양

1931년 9월18일, 봉천(奉天-선양)에 있던 일본 관동군은 중국 군벌 장학량(張學良)의 병영을 기습하여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관동군은 순식간에 창춘, 지린 등지를 점령하고 이듬해 2월까지는 진저우(錦州), 치치하얼(齊齊哈爾), 하얼빈 등 만리장성 바깥의 만주 전체를 손에 넣었다.

관동군은 1931년 11월, 톈진(天津)에 머물던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宣統帝)를 비밀리에 뤼순(旅順)으로 옮겼다. 푸이는 1932년 3월1일, 만주국(滿洲國)의 집정(執政)이 되고,1934년에는 황제로 즉위했다. 관동군은 치밀한 각본에 의해 만주를 탈취, 괴뢰국가 만주국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

만주국이 건국되자 이나바도 바빠졌다. 만주를 탈취한 데 대한 국제여론이 나빠지자 이나바는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냈다.1934년, 이나바는 '만주의 역사가 경(經·날줄)과 위(緯·씨줄)가 맺어지면서 전개되어 왔다.'고 전제한 뒤, 역사상 만주에서 '경(-주체)'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몽골족과 만주족이지 결코 한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나바는 특히 청을 만주 역사의 주역으로 평가했다.

이나바는 또한 청의 강희대제(康熙大帝)야말로 '300년 동양평화'의 기초를 다진 성군(聖君)이라고 찬양했다. 강희제가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견제했던 것을 들어 그를 '대제' '성군'으로 치켜세웠다. 만주의 안녕, 나아가 동양 평화의 기초는 만주족이 놓은 것이지 한족과는 관계가 없다는 인식이었다.

여러 민족의 '경위(經緯)작용'을 통해 발전해 온 만주의 역사에 이제 새로운 주체가 나타났다.

이나바는 그것이 바로 일본 민족이라고 강조했다. 만주국은 만주의 역사에 새롭게 등장한 '경'이므로 '위'에 불과했던 한족의 지나는 그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일본은 더욱이 강희대제의 핏줄을 이은 푸이를 황제로 앉혔으므로, 만주국의 등장은 '침략'이 아니라 '동양평화를 위한 대업의 계승'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이나바, 중일전쟁 그리고 한국사

이나바는 만주사변 직후 교토제국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다. 논문은 통과되어 1934년 서울에서 출판되었다. '광해군시대(光海君時代)의 만선관계(滿鮮關係)'가 바로 그것이다.

400쪽에 이르는 이 책에서 이나바는 조선과 만주의 관계사를 개관하고, 임진왜란 직후 명·청이 대립하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애썼던 광해군을 찬양했다. 나아가 서인(西人)들이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킨 것을 비판했다.

이나바는 왜 광해군을 찬양했을까? 물론 명청교체기(明淸交替期)에 광해군이 보인 외교역량은 볼 만한 것이었다. 문제는 이나바가 당시의 조선을 과연 독자적인 주체로 보았을까 하는 점이다. 광해군이, 이나바가 그토록 좋아했던 청과 청의 시조인 누르하치와 사단을 피하려 했기 때문에 찬양한 것은 아닐까? 이나바의 광해군 평가는 조선사를 만선사관의 틀에서 보려는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1937년 7월, 일본군은 베이징과 톈진, 상하이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했다. 중일전쟁의 시작이었다. 만주사변 때와는 달리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은 합작하여 항일(抗日)저항을 선언하고, 전쟁은 중원 전체로 확산되었다.

중일전쟁을 일지사변(日支事變)이라 불렀던 이나바는 다시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냈다. 역사상 한족이 아닌 이민족들이 중원에 들어가 새로운 왕조를 세웠던 사실과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일본군이 황하와 양자강 유역까지 전선을 넓히자 이나바는 '이민족의 중국 통치는 한족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는 언설을 들고 나왔다.1939년에 나온 '신동아건설(新東亞建設)과 사관(史觀)' 이란 책에서,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북위(北魏)의 예를 들어 '이민족의 중국 통치는 퇴폐한 풍조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고 썼다.

일본군의 침략을 '퇴폐한 중원' 을 정화시키는 '방부제' 로 정당화한 것이다.

이나바의 언설은 계속된다.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군이 조선에 들어왔고, 그 틈을 타서 누르하치가 만주지배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1934년 관동군은,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폐위된 선통제를 만주국의 황제로 앉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누르하치의 '은인' 이고, 관동군은 푸이의 '은인' 이 되는 셈이다. 나아가 누르하치의 후손들이 중원으로 진격하여 '강희대제의 위업' 을 이룬 것처럼 일본군도 이제 '새로운 동아시아(新東亞)' 를 건설하기 위해 중원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선사관에 의해 한국사의 자주성은 부인되었다. 한국사는 그저 일제가 집어삼킨 만주 역사의 부속물일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만주는 중국으로 돌아갔고, 다시 세월이 흘러 중국은 강대국으로 재림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사의 범주를 축소시키려 덤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만선사관과 동북공정이 지닌 패권적 아카데미즘을 넘어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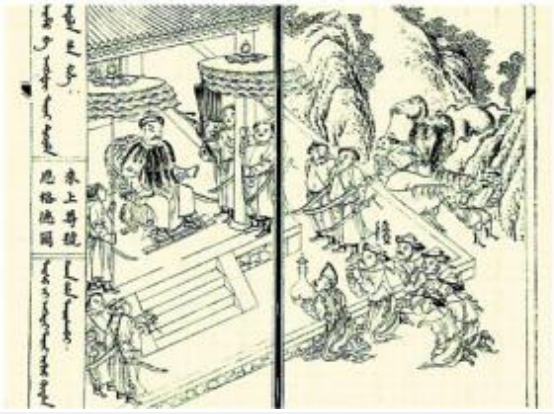
학자들의 분발과 위정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병자호란] (4) 누르하치,명(明)에 도전하다

2013.01.27 22:07

누르하치,명(明)에 도전하다 I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명의 지배 아래 있던 여진족은 크게 건주, 해서, 야인의 세 종족으로 구분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강했던 종족은 해서여진이었다. 해서여진은 다시 예허부(葉赫部), 하다부(哈達部), 호이파부(輝發部), 울라부(烏拉部) 등 네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졌다. 임진왜란이 벌어지던 무렵까지 가장 강한 부족은 예허부였다. 이렇게 여진족이 서로 갈라져 있던 상황 아래서 명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인 '이이제이(以夷制夷)'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것은 고만고만한 여진 부족들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듦으로써 패자(覇者)의 출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다. 1583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던 누르하치는 1589년 건주여진을 통일했다. 건주여진 내부에서 누르하치라는 '패자'가 등장하자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누르하치와 해서여진의 격돌로 나타났다.





●1589년 몽골족을 접견하는 누르하치. 몽골족이 공물을 바치고 있다. ●열하(중국 허베이성 승덕)에 있는 청나라 때의 행궁 피서산장(避暑山莊) 청황제는 이곳에서 만주·몽골을 견제했다.

●누르하치, 해서연합군을 물리치다

1593년 6월, 예허부의 지배자였던 부자이(布齊)와 나림불루(納林布祿)는 누르하치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다. 누르하치가 불손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자이는 하다부의 지배자 멩게불루(蒙格布祿), 울라부의 지배자 만타이(萬泰), 호이파부의 지배자 바인다리(拜音達)를 끌어들였다.

누르하치를 치기 위한 원정군에는 해서여진 뿐 아니라 몽골의 코르친(科爾沁)부족 등도 가담했다. 모두 아홉개 나라, 대략 3만 가까운 병력이 누르하치를 치기 위해 연합군을 구성했다.

누르하치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당시 한창 뻗어 오르고 있었던 그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자카(喀)라는 험준한 요새에 진을 쳤던 누르하치의 건주군은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연합군을 효과적으로 요리했다. 이 전투에서, 누르하치는 부자이를 비롯하여 연합군 4000여명을 죽이고, 말 3000필, 갑주 1000개를 획득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울라부의 지배자 만타이의 동생 부잔타이(布占泰)를 생포했다.

아홉개 나라의 연합군으로도 누르하치를 제압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자 상황은 급변했다. 여러 부족으로

분열되어 있던 몽골족 가운데서 누르하치에게 귀부(歸附)하는 종족이 나타났다. 연합군에 가담했던 코르친 부족과 다른 몽골부족 칼카부(喀爾喀部)가 누르하치에게 사신을 보내 복종을 다짐했다.

코르친과 칼카 몽골의 귀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후 몽골과 건주여진의 관계는 비록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건주여진이 더욱 성장하여 후금(後金), 청(淸)으로 변신하고, 중원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몽골과의 제휴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

훗날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가,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산하이관(山海關)을 우회하여 베이징의 명나라 황궁(皇宮)을 공략할 수 있었던 것은 몽골의 협조 덕분이었다. 곧 몽골 부족이 만리장성 외곽에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이같은 인연 때문에 명을 멸망시킨 이후 청은 이번원(理藩院)을 설치하고, 열하(熱河)에 행궁(行宮)을 두어 몽골족을 우호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단초는 바로 누르하치 시절에 마련되었던 것이다.

●해서여진, 누르하치에게 손을 내밀다

해서연합군의 공격을 물리친 뒤부터 누르하치는 만주 전체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자신감이 넘친 누르하치는 1595년 6월, 군대를 이끌고 호이파부를 공격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은 부잔타이를 주물러 울라부의 내정(內政)에까지 관여했다.

1596년 7월, 울라부에서는 내분이 일어나 만타이와 그의 아들이 피살되었다. 누르하치는 억류하고 있던 부잔타이를 송환했고, 부잔타이는 형의 뒤를 이어 울라국의 국주(國主)로 즉위했다. 누르하치에게 은혜를 입은 부잔타이는 누이 후나이를 건주여진으로 보냈고, 누르하치는 그녀를 동생 스르가치(舒爾哈齊)와 혼인시켰다. 당시 누르하치는 해서와 몽골의 여러 부족들을 공격하는 한편, 그들 부족과 혼인을 맺어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양면적인 전략을 폈다. 실제 누르하치의 첫째 부인인 나라씨(納喇氏)는 예허 출신이다. 누르하치는 16명의 부인들과의 사이에 모두 16남8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부인이 이렇게 많았던 것은 바로 혼인정책의 소산이었던 셈이다. 누르하치의 세력이 커지자 해서여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1597년 예허, 울라, 하다, 호이파부는 일제히 누르하치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들이 부도했음을 사과한 뒤 우호를 다시 맺자고 요청했다. 누르하치는 느긋하게 이들과 화약(和約)을 맺었다. 바야흐로 누르하치가 만주의 패자로 떠오르려는 순간이었다.

명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었다. 명은 개입하여 누르하치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처지가 못되었다. 바로 이 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조선을 침략했기 때문이었다.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났던 것이다. 잠시 랴오양(遼陽), 광닝(廣寧) 등지로 물러나 있던 명군은 대거 조선으로 들어갔고, 명 조정의 관심은 온통 일본군에게 쏠렸다.

이나바 이와기치가 '누르하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떠벌렸던 데는 이런 까닭이 있었다. 해서여진과 화약을 맺어 여유를 얻은 누르하치는 1598년 1월,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몽골의 안출라쿠(安楚拉庫)를 공격하여 1만여에 이르는 인축(人畜)을 획득했다. 정복 전쟁을 통해 인구도 늘고, 재물도 늘었다. 임진왜란 시기 누르하치의 행보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누르하치, 내실을 다지고 정체성을 강조하다

이미 말했듯이 누르하치는 뛰어난 군사지휘관일 뿐 아니라 탁월한 상인이기도 했다. 그는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모피와 인삼의 유통로를 장악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명나라라는 대시장(大市場)과 연결되었다.

처음에는 명 상인들을 통해 소금, 직물 등 생필품이 유입되다가 점차 은(銀)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은은 여진족 내부에서 화폐로 유통되었고, 유통경제에 눈을 떴던 누르하치는 1599년 만주 지역에서 금은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수렵과 채집 위주의 여진족 경제에 변화가 일어났고, 화폐의 확보를 위해서 주변국과의 무역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갔다. 어느 집단이나 국가든 규모가 커지고 힘이 강해지면 자의식도 따라서 커

지게 마련이다.

임진왜란 무렵, 누르하치는 자신이 통일한 건주 부족을 만주(滿洲)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만주' 의 어원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문수(文殊)' 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즉 만주는 '문수보살의 도(徒)' 를 의미한다.

누르하치는 이제 '만주' 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해서나 야인여진은 물론 명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싶어했던 것이다. 정체성을 찾고 싶은 열망은 문자(文字)를 만들려는 노력으로도 나타났다.1599년 누르하치는 만주 문자 개발에 착수한다. 당시까지 만주는, 서신을 주고받는 등의 일상생활에서는 몽골 문자를 사용했다.

명이나 조선 등과 주고받는 외교문서에서는 한문을 사용했다. 누르하치는 이같은 현실에서 몽골 문자를 토대로 만주 문자를 만들었던 것이다.

오늘날 석촌동에 남아 있는 삼전도비(三田渡碑)에 만주어, 한문, 몽골어 등 3개국 문자가 같이 쓰여져 있는 것은 이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났다. 일본군이 조선에서 물러나자 명군 역시 철수를 시작했다. 명은 다시 만주로 감시의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누르하치로서는 '좋은 시절' 이 끝난 것을 의미했다. 명의 압력이 누르하치에게 미칠 기미가 보이자 당장 세력판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화약을 맺은 이후 잠시 잠잠했던 하다와 예허가 누르하치에게 다시 싸움을 걸었다. 만주와 하다, 예허, 명 그리고 궁극에는 조선까지 얽힌 격변의 또 다른 막이 올랐던 것이다.

건주여진을 통일하고, 해서여진과 몽골의 연합군마저 물리친 누르하치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다. 누르하치는 하다, 호이파, 울라 등 해서의 여러 부족들을 강온(强穩), 양면으로 통제하여 가장 강한 예허부(葉赫部)를 고립시키는 정책을 취했다. 당시 해서여진이 누르하치에게 맞서려면 4부 사이의 단결이 절실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 사이의 알력 때문에 누르하치에 대해 연합전선을 펼 수 없었다. 하다, 호이파, 울라는 차례대로 누르하치에게 각개격파되었고, 혼자 남은 예허는 결국 명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누르하치는 예허의 그 같은 전략을 꿰뚫었다. 그는 해서여진을 공략하는 동안, 자신을 견제했던 명에 몸을 낮추었다. 명의 견제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여 명분을 축적하고, 내실을 다졌다. 결정적인 기회를 엿보기 위해 숨고르기를 했던 것이다.



●하다와 호이파를 멸망시키다

1599년 하다의 국주(國主) 멩게불루는 예허와의 갈등으로 전쟁을 하게 되자 누르하치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멩게불루가 셋째아들을 볼모로 보내자 누르하치는 200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하다를 원조하려 했다.

다급해진 예허는 개원(開原)에 주둔한 명군 지휘부를 움직여 멩게불루를 질책했다. 누르하치와 동맹을 맺은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멩게불루에게 자신을 딸을 아내로 주었다. 멩게불루는 예허의 요구를 받아들여 누르하치와의 동맹을 철회했다. 누르하치와 예허, 명 사이에 끼여 있는 약소국의 '눈치보기' 였다.

격분한 누르하치는 하다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멩게불루를 사로잡았다. 그러자 명이 개입했다.1601년 명의 만력제(萬曆帝)는 사신을 보내 누르하치를 질책하고, 하다의 유민들을 멩게불루의 아들 우루구다이(武爾古岱)에게 반환하라고 강요했다.

누르하치는 명의 요구에 따라 유민들을 송환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허가 하다를 공격하여 우루구다이를 자신의 세력권에 편입시켰다. 누르하치는 명에 서신을 보내 항의했다. 자신이 하다를 격파한 것은 문제삼고, 예허의 침략은 그냥 넘어가는 이중적 태도를 따졌다. 하지만 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은 삼갔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호이파를 정벌하는 과정도 하다의 경우와 유사했다.1607년 9월, 호이파의 신료들이 모반하여 예허로 귀순하자, 국주 바인다리는 누르하치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7명의 볼모를 보내왔다. 그러자 예허는 바인다리에게 "누르하치에게 볼모 보낸 것을 취소하면 귀순한 자들을 송환하겠다." 고 제의했다. 바인다리는 예허에게 속아 누르하치에게 다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누르하치는 결국 정벌에 나서 바인다리 부자를 살해하고, 호이파를 병합했다. 예허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울라 격파와 조선에 미친 파장

누르하치와 예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해서 부족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던 것은 울라였다.1596년, 울라에서 내분이 일어났을 때 누르하치는 자신이 억류하고 있었던 부잔타이(布占泰)를 송환하여 국주로 즉위시킨 바 있다.

부잔타이는 누르하치의 은혜에 감사하여 혼인 관계를 맺고 동맹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는 수시로 향배를 바꾸어 배신과 복종을 반복했다. 부잔타이는 국주가 된 이후 모두 7차례나 누르하치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했다. 누르하치 또한 자신의 딸을 포함한 세 명의 여인들을 부잔타이에게 아내로 주어 다독였다.

부잔타이는 끝내 누르하치와 예허 사이에서 양단을 걸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누르하치가 압박하여 곤경에 처하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조선에 손을 내민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1610년, 누르하치의 압박 때문에 위기에 처하자 부잔타이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직첩(職帖)을 하사해주고 교역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울라의 세력은 두만강 너머까지 미치고 있었는데 광해군(光海君)은 부잔타이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그에게 직첩을 주고, 관복을 하사했다.

광해군의 의도는 그들을 회유하여 두만강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던 상황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광해군의 의도는 맞아떨어졌다.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를 보면 당시 조선 조정은 누르하치와 해서 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던 격변의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1610년 2월14일의 경우, '이 오랑캐가 겉으로는 누르하치와 화해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사이가 좋지 않은 형상이 있다. 예허와의 중간 길이 끊기고, 교역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변방에서 교역하기 위해 우리의 의도를 떠보는 것이다.' 라는 대목이 있다.

참으로 정확한 정세 판단이었다. 광해군과 조선 조정은 이 같은 정보를 기초로 누르하치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했다. 나아가 곧 닥쳐올 '누르하치와 명의 대결' 이라는 파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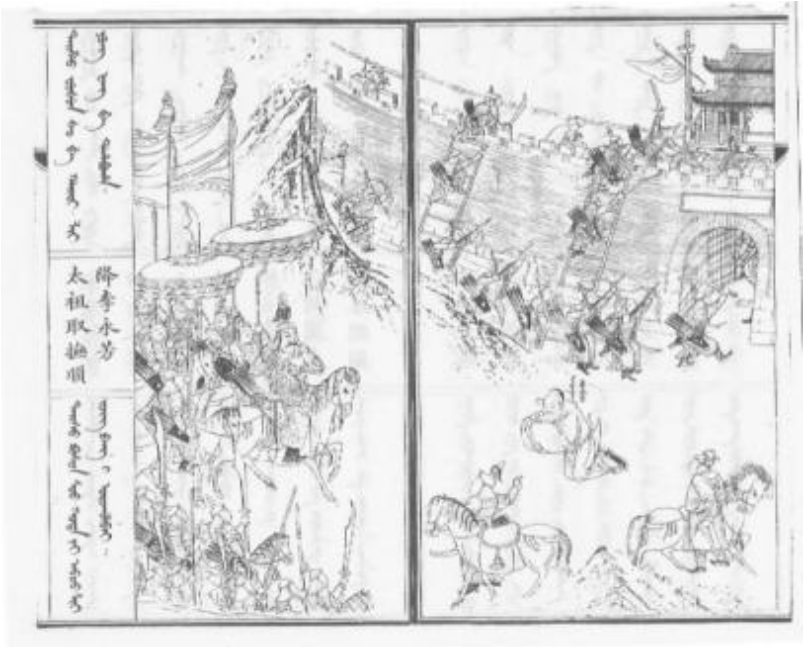
●팔기제(八旗制)를 완성하다

누르하치는, 향배가 무상했던 부잔타이를 공격하여 1613년 마침내 울라부를 멸망시켰다. 예허만 빼놓고 해서여진을 통합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누르하치는 이윽고 1616년, 국호를 아이신(金)으로 고치고, 칸(汗 · 한)으로 즉위했다. 바야흐로 12세기 한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아구다(阿骨打)의 위업을 계승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제 지배하는 종족이 다양해지고,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통치 체제가 필

요했다.
주목되는 것은 바로 팔기제(八旗制)였다. 팔기제는 니루(牛)라는 만주족 고유의 조직에서 기원했다. 만주인들은 수렵 등을 나갈 때 10명을 한 조로 삼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뽑아, 그를 니루라고 불렀다. '니루' 란 '큰 화살' 을 뜻한다.
누르하치는 성년 남자 300명을 1니루로,5개의 니루를 1자란(甲喇)으로, 다시 5개의 자란을 1쿠사(固山)로 편제했다.1쿠사는 결국 7500명인 셈인데 그것을 한자로는 기(旗)라고 했다.
'기' 는 군사조직이자 정치, 사회조직으로 모든 만주인은 예외 없이 여기에 소속되었다. 각 기에는 고유한 깃발이 있는데 황색, 백색, 홍색, 남색만으로 제작된 것을 정기(正旗), 황색, 백색, 남색 깃발에 홍색의 테두리를 두른 것과 홍색 깃발에 백색의 테두리를 두른 것을 양기(旗)라고 한다.
1616년 누르하치는 본래 4기였던 것을 8기로 확충했다. 해서여진을 통합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귀순해 오는 한족과 몽골족이 늘어나면서 한군팔기, 몽골팔기가 등장했다. "나가면 병사가 되고 들어오면 인민이 되는(出則爲兵 入則爲民)" '군민일체', '군정일체' 의 팔기제의 효용성은 엄청났다. 평소 일상 생활과 전쟁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게 편제된 팔기제 아래서 후금(後金)의 백성들에 대한 통제력과 전투 능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당시 쇠망의 조짐이 뚜렷했던 명군이, 조직화된 팔기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다. 실제 팔기는 1644년, 청이 베이징으로 입성한 뒤에도 중원(中原)을 제압하고 통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중원 장악 이후, 팔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기인(旗人)이라 불렀는데 그들은 별도의 호적에 편입된 특수 신분이 되었다. 그들은 기지(旗地)라 불리는 토지를 하사 받고, 그들만을 위한 독자적인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중원 입성 이후 기인들은 오로지 만주어를 익히고 궁술(弓術)을 연마하여 관리나 군인으로 등용되었다. 다른 농공상의 직업을 갖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특권도 컸지만 의무도 명확했다. 기인들에게 만주어를 익히게 하고, 궁술을 연마시킨 것은 결국 만주족이 지닌 정체성과 야성(野性)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수십만에 불과한 만주족이 1억 이상의 한족을 270여년이나 통치할 수 있었던 비책이기도 하다.
요컨대 1616년, 팔기제를 완성하면서 누르하치는 명과 일전을 겨룰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던 셈이다.

누르하치가 만주의 패자(覇者)로 등장하기 전까지, 명이 상대하기에 가장 버겁고 까다롭게 여긴 대상은 예허였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누르하치가 하다, 호이파, 울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예허는 고립되었다. 명은 이제 예허를 다독여 누르하치의 후금을 견제하려 했고, 위기에 처한 예허도 명에 의지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수밖에 없었다. 흔히 누르하치를 청 태조(太祖)라고 부르지만, 그가 애초부터 명에게 도전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명과 후금 사이의 현저한 국력 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과 맞서는 것을 애써 피하려 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 푸순성 성주 이영방(李永芳)이 누르하치에게 항복하는 장면.



▲ 명나라 군사 주둔지인 푸순성.

●명, 예허와 결탁해 만주 견제

누르하치에게 복종과 배신을 거듭했던 부잔타이는 1613년 울라가 망하자 예허로 망명한다. 같은 해 9월, 누르하치는 예허에 세차례나 사자를 보내 부잔타이를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예허가 자신의 요구를 일축하자 누르하치는 4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예허 정복에 나섰다.

다급해진 예허의 국주 긴타이시(錦台什)는 명에 사자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누르하치가 예허를 정복하고 나면 랴오양(遼陽)을 쳐서 수도로 삼고 개원(開原)과 철령(鐵嶺)을 목초지로 만들 것' 이라는 '경고' 까지 곁들였다. 명은 누르하치에게 사자를 보내 예허를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한편, 병력 1000명을 예허로 파견했다.

누르하치를 견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황제의 '명령' 을 접한 누르하치는 명에 보내는 국서에서, 과거 예허가 주동이 된 해서(海西)연합군이 자신을 먼저 침략했던 것과 부잔타이가 배신을 거듭했던 사실을 적고 자신의 예허 공격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명이 예허만 편드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했다.

주목되는 것은 누르하치가 국서를 들고 명군 주둔지인 푸순성(撫順城)까지 직접 가서 전달했던 점이다. 당시 누르하치는 명에게 여전히 공손한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명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으려는 누르하치의 바람과는 달리 명의 견제와 압박은 갈수록 커져갔다. 1615년, 명의 광녕총병(廣寧總兵) 장승음(張承蔭)은 시하(柴河), 무안(撫安), 삼차(三) 등지에 대대로 살았던 만주의 농민들을 내쫓고, 수확을 금지하는 조처를 취했다. 허투알라와 푸순 사이에 위치한 세곳은 누르하치가 공들여 경작하고 있던 땅이었다.

명은 경작과 수확을 막아 경제적 기반을 차단함으로써 누르하치의 숨통을 조이려 했던 것이다. 누르하치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사실 그는 격분할 만했다. 누르하치는 1608년 푸순 지역의 명군 지휘관들로부터 과거부터 대대로 살아온 자신의 거주영역을 존중해 준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백마를 잡아 하늘에 맹서하고, '만일 약속한 경계를 침범하면 침입자를 죽일 수 있고, 침입자를 그대로 두면 묵인한 사람이 재앙을 받을 것' 이라는 내용을 새긴 비석을 세웠다.

누르하치는 명의 사자를 만난 자리에서 장승음이 맹서를 어겼다고 성토하고, "대국이 소국이 될 수 있고, 소국이 대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하늘의 이치" 라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명과의 정면 대결을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 누르하치의 둘째 아들인 예친왕 다이샨(代善).

● '공격′ 주장 신료 말리며 역량 키워

1615년, 명이 일방적으로 예허의 편을 들고 경작까지 금지하는 조처를 취하자 누르하치의 신료들은 격앙됐다. 그들은 당장 명을 공격

하자고 주장했다. 누르하치는 신중했다.

그는 신료들에게 '명을 치려면 하늘이 우리를 인정하여 도울 때를 기다려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충분한 저축이 없기 때문에 명을 공격하여 약간의 승리를 얻어봤자, 백성들만 고달프게 될 뿐' 이라고 공격론을 일축했다.

스스로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자 평가였다. 당시 아무리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명은 여전히 대국이자 강국이었다. '썩어도 준치' 라고 했던가? 명의 인구는 만주보다 수백배나 많았고, 명의 대군은 만주가 갖추지 못한 화포(火砲)로 무장하고 있었다. 장승음의 '견제 조처' 가 나온 직후의 '만주실록(滿洲實錄)' 을 보면, 내실(內實)을 다지기 위해 애쓰는 누르하치의 모습이 부쩍 많이 나타난다.

만주의 각 니루(牛)에서 장정 열명과 소 네 마리씩을 내게 하여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경작에 힘쓰도록 한 것, 창고를 세워 식량을 저장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전담관원을 임명한 것, 신료들에게 쓸 만한 인재를 추천하라고 강조한 것, 백성들이 소송(訴訟)을 제기한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억울함을 없애라고 강조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 무렵 국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누르하치가 보인 행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몽골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굳게 했던 점이다.1614년 4월부터 1615년 1월까지 10개월 남짓한 기간 만주는 몽골과 모두 다섯 차례나 혼인관계를 맺는다. 1614년에는 홍타이지를 비롯한 누르하치의 네 아들들이 몽골의 자루트(特)와 코르친(科爾沁) 부족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다.1615년에는 누르하치가 코르친 부족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1617년 1월, 누르하치의 장인인 코르친 부족의 밍간(明安) 국주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소식이 오자, 누르하치는 왕비와 모든 신료들을 대동하고 허투알라에서 100리나 떨어진 곳까지 마중을 나갔다. 밍간은 누르하치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허투알라에서 한달을 머물다가 돌아갔다.

이렇게 중첩된 사돈관계를 통해 우호를 유지했던 것은 만주에게 큰 힘이 되었다. 실제 1618년 누르하치가 명에게 선전포고하고 푸순을 공략할 때, 원정군 가운데는 그의 몽골인 사위들도 끼어 있었다. 당시 몽골은 남쪽으로 명, 동쪽으로 만주 사이에 위치한 전략 요충이었다. 누르하치가 명에 대한 섣부른 공격 대신 몽골을 회유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취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 '7대 원한 ′ 내걸고 명에 선전포고

누르하치는 명과의 격돌을 피하면서 내실을 다지려 했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가 후금(後金)의 건국을 선포하고, 칸(汗)으로 즉위했던 1616년. 명 조정은 광녕 순무(巡撫)로 이유한(李惟翰)이란 인물을 임명했다.

광녕 순무는 사실상 요동의 군사업무를 책임지는 자리이자, 누르하치 등 여진 부족들과 교섭하는 최고위급 '채널' 이었다.

누르하치는 이유한이 새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자 신료 강구리(綱古里)와 팡기나(方吉納)를 인사차 파견했다. 그런데 이유한은 강구리를 비롯한 후금의 사절 11명을 쇠사슬로 묶어 구금해 버렸다. 이어 사자를 보내, 누르하치가 경계를 넘어온 한인(漢人)들을 죽인 것을 질책하고 '한인 살해' 에 가담한 자들을 넘기라고 협박했다. 누르하치는 과거 '월경한 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재앙이 자신에게 미친다.' 고 비석에 새겼던 내용을 상기시키며 사자를 설득하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 누르하치는 결국 광녕에 억류된 강구리 등을 살리기 위해 편법을 쓴다.

후금이 구금하고 있던 예허의 포로 10명을 '한인 살해자' 로 이유한에게 넘겼던 것이다. 강구리 등은 약속대로 풀려났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누르하치는 명을 공격할 결심을 굳히게 된다.1618년 4월13일. 누르하치는 신료와 장수들을 모아 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누르하치는 그 자리에서 명을 공격해야만 하는 '일곱가지 원한' , 이른바 칠대한을 제시했다.1583년, 이성량이 자신의 부조(父祖)를 살해했던 것이 첫 번째 원한이었다. 나머지 여섯 가지는 명이 예허를 편든 것, 맹서를 어기고 한인들의 월경을 방조한 것, 만주인들을 세 주거지에서 내쫓고 경작과 수확을 금지한 것 등이 골자였다.

명이 자신과 후금을 능멸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이윽고 제천의식이 끝나자 기병과 보병 2만명으로 편성된 원정군이 푸순성을 향해 진격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명청교체(明淸交替)의 서막이 올랐던 것이다.

1618년 4월15일 푸순성을 포위한 누르하치는 성주 이영방(李永芳)에게 항복하라고 종용했다. 이영방이 망설이자 후금군은 공격을 시작했고, 상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은 이영방은 항복했다. 푸순성을 접수한 누르하치는 성안에 있던 한인(漢人) 상

인들을 풀어 주었다. 그들에게 '칠대한' 이 적힌 문서를 들려주고, 고향으로 돌아가 내용을 알리라고 했다. 자신의 거병이 정당하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만력제의 무덤 정릉(定陵)의 내부 모습.

4월21일 광녕총병 장승음(張承蔭)이 푸순성을 구원하려고 달려왔다. 만주 주민들을 세거지에서 쫓아내고 수확을 금지시켰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병력은 1만명에 불과했고,6만명까지 불어난 후금군에 참패해 전사하고 말았다. '명실록(明實錄)' 은 '장승음이 힘이 다하여 죽었다.(力屈死之)' 라고 적었다.

'중화(中華)의 대국' 이 '오랑캐의 소국' 에 밀리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이후 누르하치가 요동의 명군을 공략하는 방식은 한결같았다. 각 지역에 분산배치돼 있던 명군을, 대규모의 병력을 집중시켜 격파하는 것이었다.

●명, 충격 속에 대책을 모색하다

푸순성 함락과 장승음 전사 소식에 명의 조야는 술렁거렸다. 특히 이영방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다는 소식은 '경악' 그 자체였다. 요동 전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요동이 무너지면 산하이관이 흔들리고, 궁극에는 베이징까지 위협받게 된다.

명 조정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것은 누르하치가 코르친 등 몽골 부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몽골 지역으로 진입하면, 명이 요동에 설치한 변장(邊牆)을 우회해 명군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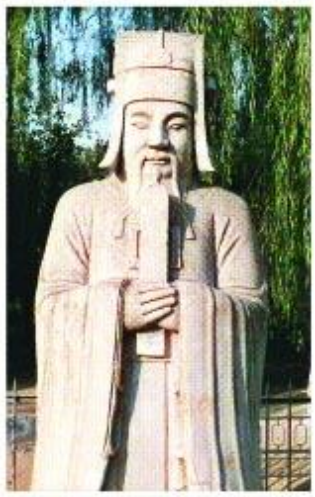
신료들은 상소를 올려 산하이관의 방어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사납고 건방진 오랑캐' 를 즉각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요동에 배치된 명군의 전력은 미덥지 못했다.1618년 6월 병부좌시랑(兵部左侍郞) 최경영(崔景榮)은 '요동의 방어선은 2000리나 뻗어 있는데 병력은 고작 8만~9만명 정도뿐' 이라고 했다.9만명이라고 해봤자 광활한 지역에 분산배치돼, 개별 지역이 팔기병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을 경우 위태롭기 그지 없었다.

더욱이 당시 요동의 명군은 군량 등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푸순 함락 직후, 병부상서 설삼재(薛三才)는 요동에 대한 군수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1617년 가을부터 당시까지 요동 방어를 위해 지출했어야 할 군비(軍費)가 은 50만냥인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향(遼餉 · 요동으로 보내는 군비)을 확보하고, 병력을 확충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염출해야만 했다.

설삼재는 호부(戶部)의 창고가 비었음을 실토하고 만력제(萬曆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황제의 '사금고(私金庫)' 인 내탕(內帑)에 쌓여 있는 은화를 좀 풀어 달라는 것이었다. 설삼재뿐만이 아니었다. 상소를 올린 신하들은 거의 한결같이 내탕을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만력제는 내탕에 수백만냥을 쌓아 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인색한 황제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짐의 내탕이 공허해 요동의 군사비를 대기가 곤란하다." 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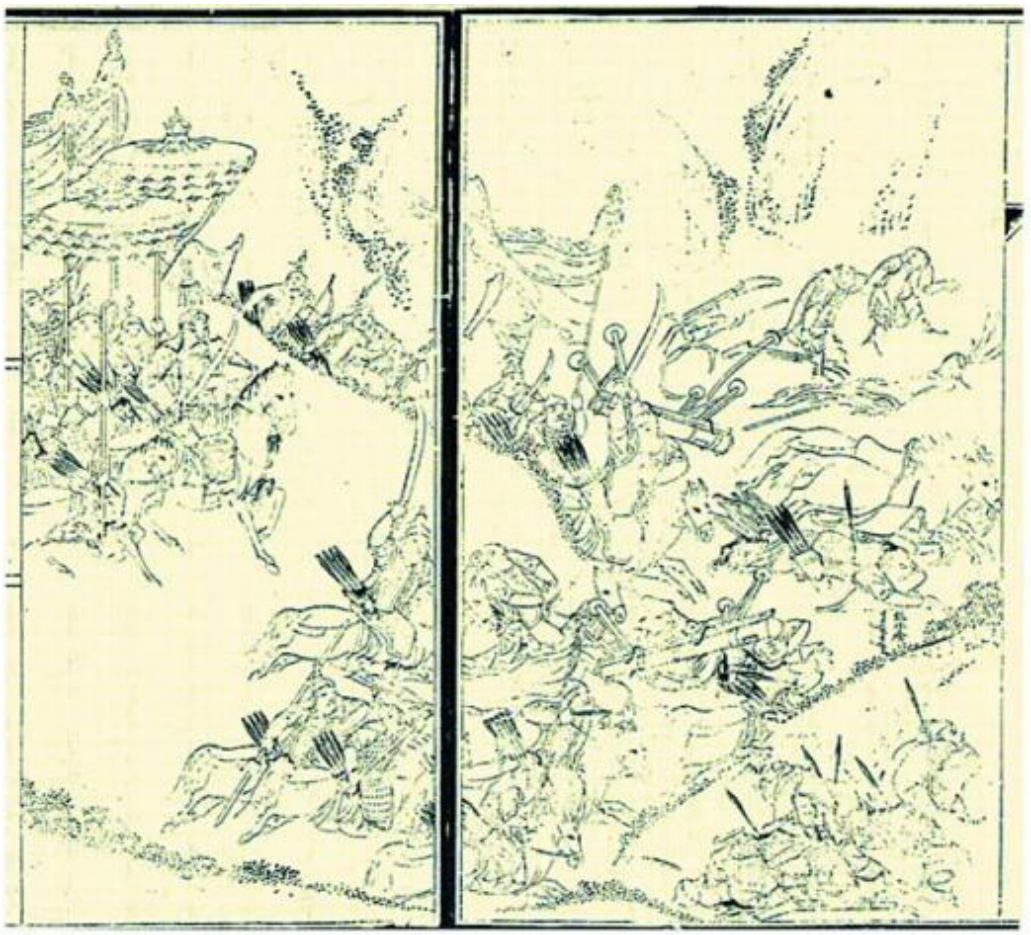
명 13릉 근처에 세워진 명나라 문관(위)과 무관의 석상.

●만력제란 인물은

역사가들의 만력제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다. '명은 숭정제(崇禎帝) 대에 망했지만, 망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만력제' 라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가들은 만력제의 정치적 행태를 '태정(怠政)' '파공(罷工)' 이라 부른다. '정사를 돌보는 데 게으르고, 황제의 역할을 포기했다.' 는 뜻이다.

만력제는 1573년 열 살에 즉위해 1620년 쉰여덟 살로 죽을 때까지 48년 동안 제위에 있었다. 그가 처음부터 정치를 팽개친 것은 아니었다.1584년 무렵까지는 뛰어난 재상이자 '스승' 이었던 장거정(張居正)의 보좌를 받아 상당한 수준의 치적을 이뤘다. 조정의 기강이 잡혔고, 세입(稅入)이 앞 시기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척계광(戚繼光)과 이성량의 활약으로 남방의 왜구(倭寇)나 북방의 몽골, 여진의 위협도 잠재웠다.



1618년 누르하치가 광녕총병 장승음을 패퇴시키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 청대의 대표적인 역사서 '만주실록(滿洲實錄)'에 실려 있다.

1584년 장거정이 죽은 뒤부터 만력제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왜 그랬을까? 중국인 역사학자 옌충녠(閻崇年)은 만력제가 즉위 과정에서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이 순조롭게 황제가 되었던 것,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비만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1599년까지 임진왜란을 비롯한 세 차례의 큰 전쟁(萬曆三大征)을 치른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만력제는 융경제(隆慶帝)의 셋째 아들이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위에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두 형이 유년 시절에 죽는 바람에 여섯 살에 황태자로 책봉됐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융경제 또한 재위(在位) 6년 만에 서른여섯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만력제는 황태자가 된 지 불과 4년 만에 자연스럽게 즉위했다. 누르하치나 홍타이지를 비롯한 청의 역대 군주들이 후계자로 선택되는 과정에서 왕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던 것, 조선의 광해군이 왕세자로 책봉된 뒤 16년 동안이나 부왕(父王)의 견제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만력제는 그야말로 '행운아'였다. 역경을 모르고 일찍이 권좌에 올라 안일에 빠지기 쉬웠던 데다, 비만과 신병(身病) 때문에 움직이기를 싫어했던 것, 나아가 만력삼대정에서 모두 승리함으로써 방종에 빠지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대신해 정사를 거의 도맡다시피 했던 장거정마저 사라지자 만력제의 한계는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 **'태정'의 실상은**

푸순성이 함락될 무렵 만력제가 보였던 '태정'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는 1600년 이후 20년 가까이 조정의 회의를 거의 주재하지 않았다. 신료들은 만력제에게 '조정에 나와 정사를 재결(裁決)해 달라.'고 수없이 주청했지만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었다. 최고 관직인 대학사(大學士) 가운데는 심지어 3년 동안 만력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만력제는 신료들이 자신에게 올린 상소나 건의에 대해 회답을 주지 않았다. 상소문은 '불보(不報)' '유중(留中)'이라 하여 회답

이 없는 상태로 궁중에 방치됐다. 당사자의 사망이나 사직 때문에 고위 관직이 비어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푸순성 함락 직후 대학사 방종철(方從哲)이 '누르하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비어 있는 관직을 채우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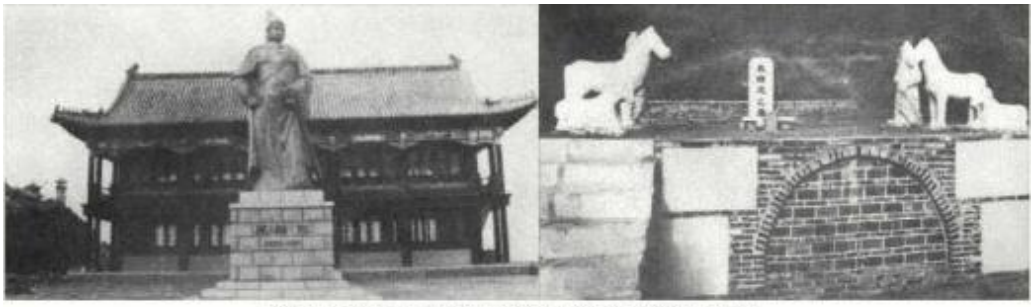
황제가 조정에 나오지 않고, 신료들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으며, 상소나 건의의 내용을 재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었다. 정사를 팽개친 만력제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주색(酒色)에 빠지고 토목공사에 몰두했다. 죽은 뒤에 묻힐 정릉(定陵 · 현재의 명 13릉 가운데 하나)을 미리 짓기 위해 은 800만냥을 쏟아 부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내탕이 축나는 것이 아까워 환관들을 전국 각지로 보냈다. 백성들로부터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서였다. 환관을 앞세운 마구잡이식 수탈에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다.

푸순성이 함락될 무렵 만력제가 보인 행보는 누르하치와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설삼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탕을 풀 수 없다.' 고 말하는 대목에서 이미 명의 앞날에 낙조(落照)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병력을 운용할 비용이 없으면 누르하치를 제대로 막을 수 없고, 그를 막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나라가 망하면 자신이 황제 자리에 있을 수도, 수백만냥의 내탕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던 것일까? 누르하치가 한창 떠오르고 있을 때, 최고 권력자가 만력제였다는 사실이 명에는 불행이었던 셈이다.

누르하치의 푸순 점령 직후, 명 조정의 신료들은 당장 병력을 동원하여 이 '괘씸한 오랑캐'를 공격하자고 했다. 하지만 명의 내부사정은 간단치 않았다. 만력제의 태정(怠政)과 황음(荒淫)에서 비롯된 난맥상은 명의 발목을 잡았다. 환관(宦官)들의 발호가 심각했고, 당쟁은 격화되었다. 재정은 고갈되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증세(增稅) 조처가 취해졌다. 민원(民怨)이 높아지고, 반란을 꾀하는 분위기가 퍼져갔다. 우여곡절 끝에 누르하치를 치기 위한 원정군은 편성했지만 영 미덥지 못했다. 명은 결국 조선과 예허에 손을 내민다. 병력을 내어 원정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누르하치의 도전으로 촉발된 불똥이 조선으로 튀기 시작했다.



16세기 후반 왜구를 소탕한 명장 척계광의 소상(塑像·사진 왼쪽)과 무덤

●광세(稅)의 폐단, 명을 병들게 하다

만력제가 오랫동안 조정에 나오지 않고, 신료들을 접견하지 않으며, 그들의 상소나 건의에도 답하지 않자 자연히 환관들이 득세하게 되었다. 황제의 생각이나 명령이 오로지 환관을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만력제는 향락과 토목공사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환관들을 시켜 긁어 모았다. 환관들에게 흠차태감(欽差太監)이란 직함을 주어 전국으로 파견했다. 광감(監), 세감(稅監), 염감(鹽監), 주감(珠監) 등 다양한 명칭의 태감들은 각지에서 백성들에게 명목도 없는 세금을 마구잡이로 강탈했다. 영세한 상인과 수공업자들에게 상세(商稅)를 긁어내고, 약간의 은화를 빼앗기 위해 민가를 철거했으며 무덤까지 파헤쳤다. 반항하는 백성들에게는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렀다.

환관들이 각지에서 참혹한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베이징에 갔던 사신들을 통해 조선에까지 알려질 정도였다.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다. 분노는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호북(湖北)에 파견되었던 환관 진봉(陳奉)의 패거리가 폭력을 휘두르며 수탈을 자행하자 백성들은 궐기했다. 그들은 진봉의 부하 16명을 붙잡아 강물에 던져버렸다. 운남(雲南)에서는 성난 백성들이 환관 양영(楊榮)의 숙소를 습격하고, 폭력을 자행한 양영의 패거리

200여명을 살해했다.

환관들의 발호는 요동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1603년 환관 고회(高淮)는 부하 수백명을 이끌고 요양(遼陽), 진강(鎭江), 금주(金州), 복주(復州) 등 요동 일대를 휩쓸었다. 그들은 민간에서 수십만냥의 은화를 강탈했고, 그 때문에 여염이 텅 비어버렸다.

17세기 초, 만력제가 환관들을 시켜 자행했던 수탈을 보통 '광세(稅)의 화(禍)' 라고 부른다. 무자비한 수탈 때문에 전국 각지의 상공업은 위축되고, 국가의 공적 세입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민심은 조정으로부터 떠나고, 민변(民變)이라 불리는 저항운동이 각지를 휩쓸게 되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의 건청궁(乾淸宮). 명나라 황제의 침실이 있었다.

●명, 고민 끝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꾀하다

푸순의 함락과 장승음의 패전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명 조정에서는 누르하치를 응징하기 위한 원정군 편성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광세의 폐' 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여의치 않았다. 나라의 공식 금고인 태창(太倉)이 비어버린 상태에서 병력을 징발하고 군수를 조달하려면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만력제는, 내탕을 풀어 군자금에 보태라는 신료들의 거듭된 요청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1618년 4월27일 직예순안(直隸巡按) 왕상항(王象恒)은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장수들 가운데 가정(家丁)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총병(總兵), 부장(副將) 등의 직책을 주어 요동으로 보내자고 했다. 가정이란 국가에 소속된 정규병력이 아니라 장수 개인이 사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군사를 말한다. 일종의 사병(私兵)인 셈이다. 임진왜란 당시 명군 사령관인 이여송(李如松)도 다수의 가정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 왔었다.

'퇴역 지휘관' 들이 거느린 가정을 활용하자는 왕상항의 주장은, 정규군 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하는 것이 어려웠던 명의 실정을 잘 보여준다.16세기 후반의 척계광(戚繼光)처럼 의지할 만한 현직 지휘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물러난 장수들이라도 불러들여야 했다. 윤 4월이 되자, 물러나 있던 지휘관들을 불러들이라는 만력제의 조칙이 내려졌다. 양호(楊鎬), 유정(劉綎), 이여백(李如栢), 왕국동(王國棟), 시국주(柴國柱) 등이 줄줄이 불려와 다시 기용되었다.

양호는 정유재란 당시 명군 사령관이었고, 유정과 이여백도 조선에 참전했던 장수들이었다. '어제의 용사' 들이 전투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같은 달 17일 호과급사중(戶科給事中) 관응진(官應震)이 '오랑캐를 제어하기 위한 세 가지 방책(禦奴三策)' 을 내놓았다. 그가 제시한 방책의 핵심은 누르하치를 제압하기 위해 조선과 예허를 끌어들이자는 것이었다.

관응진은 후금이 북으로는 예허와, 남으로는 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했다. 그는 예허가 과거부터 누르하치와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사실, 조선이 임진왜란 당시 명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두 나라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예허로부터 군사들을 빌려 후금의 오른쪽을 치고, 조선으로부터 조총수(鳥銃手) 3000명을 징발하여 후금



이이제이(以夷制夷)를 통해 청의 안보를 지키려 했던 이홍장.

의 왼쪽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이이제이책(以夷制夷策)이었다.

●조선과 예허는 고분고분한 오랑캐로 지칭

이이제이란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견제한다.' 는 것이다. 요코야마 히로아키(横山宏章)에 따르면 이이제이책은 중화(中華)가 와해될 위기에 처할 적마다 어김없이 나타났다고 한다. 막강한 북방민족의 공격에 시달렸던 송(宋)의 왕안석(王安石)과 사마광(司馬光), 서구와 일본의 군사적 도전에 쩔쩔맸던 청말(淸末)의 이홍장(李鴻章)은 물론 2차 대전 이후 소련을 이용하여 미국을 견제하려 했던 마오쩌둥(毛澤東)에 이르기까지 이이제이책은 중국의 전통적인 위기탈출 전략이었다. 관응진은 '어노삼책' 에서 조선과 예허를 가리켜 '고분고분한 오랑캐(順夷)' 라고 지칭했다. 명에 '고분고분한 오랑캐' 를 이용하여 '도전을 일삼는 사나운 오랑캐' 를 응징하자는 것이었다. 그같은 발상은 관응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1618년 푸순 함락 이후, 명 조정에는 조야(朝野)의 지식인들로부터 누르하치를 제압하기 위한 방책들이 빗발쳤다.

그 내용을 모아 책으로 묶은 것이 오늘날 전하는 '주요석획(籌遼碩)' 이다. '요동을 도모하기 위한 큰 계책' 정도의 뜻을 지닌 이 책에서도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조선을 이용하자고 강조했다.

이윽고 1618년 윤 4월27일 조선 조정에는 병부좌시랑(左侍郞) 왕가수(汪可受)가 보낸 격문이 도착했다. 왕가수는 먼저 명나라와 조선 사이의 '긴밀한 관계' 를 강조했다. '조선이 사람의 몸이라면 명은 그 머리이고, 조선이 나무라면 명은 그 뿌리' 라고 했다. 이어 임진왜란 시기 명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 일본군을 격퇴시킨 '은혜' 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임진왜란이 끝나갈 무렵부터 조선의 식자들과 명의 인사들 가운데는 '재조지은(再造之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명군이 원군을 보냄으로써 '망해 가던 조선을 다시 살린 은혜' 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왕가수는 '재조지은' 을 상기시킨 뒤, 본론을 이야기했다. 명이 베푼 '은혜' 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누르하치를 공격하는 데 동참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격문을 받는 즉시 군병을 정돈시켜 대기하다가 기일에 맞춰 나아가 토벌하는 데 실수가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다. 겉으로는 '요청' 인 것 같지만 사실상 '명령' 이었다.

왕가수의 격문을 받은 뒤, 광해군과 조선 조정은 고민에 빠졌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20년, 광해군이 즉위한 지 10년 만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 이었다. 왜란이 남긴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선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명의 요구를 받아들여 누르하치와 악연을 맺을 것인가? 거부하여 '재조지은' 을 배신할 것인가? 푸순성을 삼켜버린 누르하치의 불길이 바야흐로 조선까지 밀려왔던 것이다.

[병자호란] (5) 광해군과 누르하치,그리고 명나라

2013.01.27 22:14

광해군과 누르하치,그리고 명나라 I

누르하치를 치는 데 동참하라는 격문을 받았을 때 광해군(光海君)이 보인 반응은 신중했다. 아니 냉정했다.



▲ 임진왜란 당시인 1592년 4월 부산진 전투를 170년 뒤인 숙종때 화가 변박이 다시 그린 전투도. 부산진 성곽을 둘러싼 왜병과 왜선이 당시의 전력차이를 실감케 한다. 육군관물관 소장.

그는 누르하치가 '천하의 강적' 이기 때문에 미약한 조선군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왕가수가 격문을 보낸 것은 조선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명의 요구를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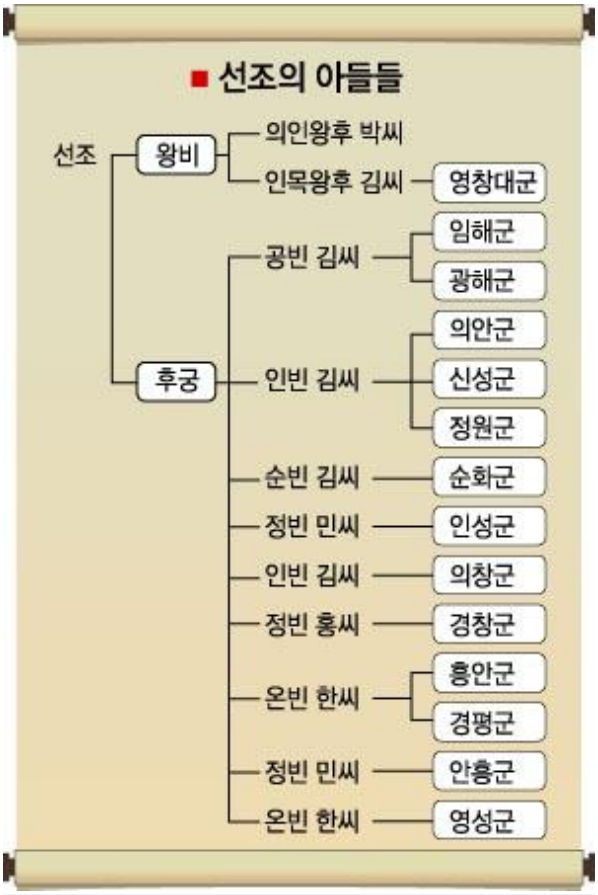
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비변사(備邊司) 신료들의 주장은 달랐다.
그들은 격문에서 대의(大義)를 내세워 '재조지은(再造之恩)'에 보답하라고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적어도 7000명 정도의 병력은 보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광해군이 일갈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대병을 동원하여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모험을 벌이려는 명군 지휘부의 수준을 알 만하다.'는 것이었다.
파병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광해군 정권의 존폐, 나아가 조선의 운명에 영향을 줄 만큼 격심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 광해군의 부인 류씨가 입었던 당의.
단국대 소장

●한반도에 강대국 입김 커질때마다 '부활'

몇해 전, 모 방송사에서 고등학교 역사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에서 다시 평가해야 할 인물들을 꼽아보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교사들은 '다시 평가해야 할 대상'으로 광해군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광해군이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폐위된 뒤 '폭군(暴君 · 포악한 군주)' '혼군(昏君 · 어리석은 군주)' 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것을 고려하면 뜻밖의 일이었다.
광해군(1575~1641)은 16세기 말엽과 17세기 초반을 살다간 인물이지만 오늘날 그는 하나의 '화두'가 되었다. 강대국 사이에 끼여 있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외교문제와 관련된 현안들이 불거질 적마다 그는 '부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라크에 파병하는 여부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었을 때도 반대론자들은 그를 불러낸 바 있다.
한반도에 미치는 강대국의 입김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에 대한 관심 또한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 첩자(妾子)이자 차자(次子)인 광해군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왕은 물론 왕세자가 되는 것도 꿈꿀 수 없었다.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다.

선조는 정비(正妃) 의인왕후(懿仁王后) 박씨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었다. 대신 후궁들과의 사이에 1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공빈(恭嬪) 김씨와의 사이에서 얻은 왕자가 임해군(臨海君)과 광해군이다.

선조는 54세 때인 1606년, 늘그막에 새로 맞이한 정비 인목왕후(仁穆王后)에게서 다시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얻었다. 하지만 선조가 죽은 뒤, 그의 아들들 가운데는 비명횡사하는 왕자들이 속출한다.

광해군이 즉위한 뒤 임해군과 영창대군이 역모 혐의를 받아 죽었다. 광해군은 인빈(仁嬪) 김씨의 손자인 능양군(綾陽君-정원군의 아들, 인조)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났다. 인조대에는 인성군(仁城君)이 역모죄에 걸려 죽었고, 이괄(李适)에 의해 국왕으로 추대되었던 흥안군(興安君)도 반란 실패후 비명횡사했다. 선조는 과연 이같은 상황을 예측했을까?

여하튼 첩자(妾子)이자 차자(次子)인 광해군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왕은 물론 왕세자가 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얼마 되지 않는 사료들 가운데는 '광해군이 총명하고 학문에 힘쓴다.' 고 유년 시절의 그를 칭찬하는 내용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총명' 과 '면학' 만으로 적자(嫡子)도 장자(長子)도 아닌 그의 태생적인 한계가 극복될 수는 없었다.

● "총명하고 학문 좋아해 세자 책봉"

광해군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은 임진왜란이었다.1592년 4월28일, 충주에서 배수진을 치고 일본군과 맞섰던 신립(申砬) 휘하의 조선군이 참패했다는 소식이 서울로 날아들었다. 일본군이 곧 들이닥칠 것이란 소문에 도성의 분위기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조정 신료들은 선조에게 파천(播遷)할 것을 건의했다. 뾰족한 대책이 없었던 선조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파천하기로 결정한 직후 우부승지 신잡(申)은 선조에게 빨리 왕세자를 책봉하여 민심을 수습하라고 건의했다. 그는

충주에서 전사한 신립의 형이었다. 선조는 대신들을 선정전(宣政殿)으로 불러모았다.
선조가 '왕세자로 누가 좋겠냐?' 고 물었을 때 대신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것은 전하께서 스스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선조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대신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신하된 처지에 '미래의 주군(主君)' 을 선택하거나 추천하는 것은 엄청난 불충(不忠)이기 때문이다. 선조의 고민과 대신들의 침묵은 낮부터 한밤까지 이어졌다. 영의정 이산해(李山海)가 지쳤는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신잡이 '오늘 끝장을 봐야 한다.' 고 잡아끌었다.
"광해군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니 세자로 삼고 싶은 데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선조의 이 한마디에 대신들은 "종묘 사직과 생민들의 복입니다." 라고 외쳤다. 광해군이 엉겁결에 왕세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4월30일, 선조와 광해군은 북으로 파천 길에 올랐다. 이윽고 조정이 평양에 머물고 있던 5월, 선조는 광해군에게 분조(分朝)를 맡아 함경도로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본군의 북상을 막아낼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조는 최악의 경우, 의주(義州)를 거쳐 명나라로 귀순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선조는 더 이상 '조선의 왕' 일 수 없었다.
분조란 바로 그같은 상황에 대비, '조정을 쪼개' 광해군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광해군은 왕세자가 되자마자 '나눠진 조정' 을 이끄는 왕이 되었다.
그에게는 전쟁으로 지친 민심을 위무(慰撫)하고, 근왕병을 모집하여 전란을 수습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조명연합군 승리뒤 明의 힘 통감

광해군의 분조 활동은 1592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2월까지 평안도 · 함경도 · 강원도 · 황해도 등지를 옮겨다니며 민심을 수습하고, 일본군에 대한 항전을 독려했다. 그가 순행(巡行)했던 지역의 주변에는 곳곳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어 경호 문제가 심각했다.
때로는 험준한 산악과 고개를 넘거나 노숙을 하는 것도 피하지 않았다.
광해군의 분조 활동이 남긴 성과는 컸다. 국왕 선조가 궁벽한 국경 도시 의주에 머무는 한, 황해도 이남의 사서(士庶)들에게 조정의 존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실제 당시 의주의 조정은 강화도를 매개로 서해(西海)를 통해 삼남지방과 겨우 연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군이 할퀴고 간 내륙지역의 백성들 가운데는 나라가 이미 망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바로 그때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고 나타나 조정이 건재하고 있음을 알렸다. 광해군의 출현은 백성들에게 '충성을 바칠 대상' 이 아직 살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592년 12월, 이여송이 이끄는 명의 원군이 들어오고 이듬해 1월, 평양전투에서 조 · 명연합군은 승리를 거두었다.
전세가 역전되고 일본군이 후퇴하자 전쟁이 곧 끝날 것이란 기대가 넘쳐났다.
하지만 명군이 벽제(碧蹄) 전투에서 일본군에 참패하면서 상황은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패전 이후 명군 지휘부는 입장을 바꾸었다. 일본군과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더 이상 조선을 위해 피를 흘릴 수는 없다고 했다. 지루한 강화(講和)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 시작 이후 명군 지휘부는 조선 조정에 대해 일본군을 공격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일본군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명군 지휘부는 자신들의 명령을 어기고 일본군을 공격한 조선군 장수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기도 했다. 조선군의 작전통제권은 명군 지휘부에 의해 박탈되었다.
선조가 명군 지휘부의 방침에 격렬히 반발하자, 명나라 조정에서는 국왕을 교체하겠다는 협박이 흘러나왔다.
'무능한 선조를 퇴위시키고 유능한 광해군을 즉위시킨다.' 는 것이다. '광해군 카드' 로써 선조를 길들여 자신들의 강화 방침을 관철시키겠다는 심산이었다.
이에 선조는 '광해군에게 양위(讓位)하겠다.' 고 맞불을 놓았다. 광해군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임진왜란을 통해 명나라의 실체와 권력의 속성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다.

광해군은 성공적인 분조 활동을 통해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위기를 맞았다. 부왕 선조의 견제 때문이었다. 왜란 초반,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의주까지 파천하기에 급급했던 선조는 지존(至尊)으로서의 위신이 크게 떨어졌다. 더욱이 강화협상을 통해 전쟁을 매듭지으려 했던 명군 지휘부는 '광해군 즉위'를 들먹이며 선조를 계속 압박했다. 위기에 처한 선조는 왜란을 치르는 동안 모두 15번이나 양위(讓位)하겠다고 나섰다. 물론 진심이 아니었다. 명의 압박에 맞서고, 광해군과 신료들로부터 충성서약을 받아내기 위한 정치적 몸짓이었다. 명의 이중적 태도도 광해군을 괴롭혔다. 명 조정은 광해군이 유능하다고 칭찬하면서도, 정작 그를 왕세자로 승인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광해군은 안팎 곱사등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1593년 1월 벽제전투에서 패한 직후, 명군의 최고책임자인 병부상서 석성은 심복 심유경(沈惟敬)을 서울의 일본군 진영으로 보냈다. 심유경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협상 끝에 일본군이 남쪽으로 철수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강화협상에서 드러난 명의 본심

이후에도 4년이나 더 계속된 강화협상에서 양측이 내세웠던 요구조건은 복잡했다. 고니시는 '명나라 황녀(皇女)를 천황의 후궁으로 주고, 조선 영토 가운데 4도를 떼어주고, 무역을 허락하고, 조선의 왕자를 일본에 인질로 보내야만' 조선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심유경은 '일본군이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해야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한다.'고 했다.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의 차이였다.

하지만 명군 지휘부는, 벽제전투 패전과 갈수록 불어나는 전비(戰費) 부담에 대한 명 내부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일본군이 서울에서 철수했다.'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다. 일본군 또한 일단 남해안 지역으로 물러나 숨을 고르면서 명의 태도를 지켜볼 심산이었다. 일본군의 서울 철수는 양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일시적 성과'였다. 이윽고 1593년 4월20일, 한강변에서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남쪽으로 철수하는 일본군을 '보호하기 위해' 명군 장졸들이 조선군을 막아서고 있었다. 명군 지휘부는 일본군을 추격하던 조선 장수 변양준(邊良俊)을 붙잡아 목을 쇠사슬로 묶은 뒤 난타했다.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고, 추격전을 지휘하던 전라감사 권율(權慄)은 이여송에게 소환되었다. 명군 지휘부의 지침을 어기고 일본군을 공격하거나 추격했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명군의 '에스코트' 아래 서울을 무사히 빠져나온 일본군은 남해안에 머물면서 철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명군도 삼남의 요충지에 병력을 배치하여 일본군을 견제하려 했을 뿐 전의(戰意)를 보이지 않았다.

전쟁은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었다.

●광해군, 무군사를 이끌며 민심을 파악

그것은 석성을 비롯한 명군 지휘부에게도 수렁이었다. 황제에게는 '심유경의 활약' 덕분에 일본군이 곧 물러나고, 전쟁이 끝나 동정군(東征軍)이 개선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일본군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삼남에 주둔해 있는 명군 지휘관들은 군량과 군수물자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이었다.

그 와중에 죽어나는 것은 조선 민중이었다. 싸울 의지는 없이 그저 장기 주둔에 들어간 명군의 민폐가 극심했다. 곳곳에서 군기가 풀어진 명군 장졸들에 의해 약탈과 강간이 자행되었다. 한편에서는 일본군에게 시달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명군에게 곤욕을 치러야 했다. '우리 편'으로 여겼던 명군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컸다. 민중들 사이에서 "명군은 참빗, 일본군은 얼레빗"이라는 한탄이 터져 나왔다. 명군 주둔지역의 민심은 불온해졌다.

지방에 주둔한 명군들이, 조선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자 명군 지휘부는 선조와 조선 조정을 쪼아대기 시작했다.1593년 10월, 명군 지휘부는 광해군에게 삼남으로 내려가 명군에 대한 접대업무를 총괄하라고 요구했다. 요구의 배경에는 '무능한 선조는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깔려 있었다.1593년 윤 11월, 광해군은 다시 남행길에 올랐다.

그는 1594년 8월,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무군사(撫軍司)라는 조직을 이끌며 충청도와 전라도의 곳곳을 순행했다. 특히 1593년 12월, 전주에서 왕자 시절 사부(師傅)였던 박광전(朴光前)으로부터 전라도 지역의 전황(戰況)과 민심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박광전은 광해군에게 위기에 처한 전라도의 실상을 알렸다. 일본군이 비록 거제도 일대에 주둔해 있지만 진해와 고성을 거쳐 섬진강으로 진입할 경우, 전라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박광전이 특히 강조했던 것은 '민심 수습'이었다.

그는 당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대부분 전라도에서 징발하고 있던 현실, 각종 세금과 노역 때문에 도망하는 백성이 속출하고 있던 상황을 알린 뒤, 포악한 지방관들을 처벌하여 지역 민심을 위로하라고 촉구했다. 비록 명군 지휘부에 떠밀려 이루어졌지만, 전란의 고통에 신음하는 민초들의 참상을 직접 보았던 것은 광해군에게 소중한 체험이었다. 그가 즉위 이후 명과 누르하치 사이의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 노력했던 것은 분명 그 같은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명, 광해군을 흔들다

무군사 활동을 통해 왕세자로서 광해군의 위상은 확고해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명 조정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조선은 1594년부터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해 달라고 명 조정에 주청(奏請)했다.
광해군이 전란을 극복하는 데 공을 세워, 온 백성들이 그를 추대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명 조정은 조선의 요청을 거부했다. 광해군이 맏이가 아니라 둘째이므로 그를 책봉하면 '장유(長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자 선조는 다시 보낸 주문에서 '맏아들 임해군은 자질이 평범한 데다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힌 이후 놀라는 증세가 생겨 왕 노릇을 하기 어렵다.'는 정황을 들어 광해군을 승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명은 다시 거부했다.1604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나 주청사(奏請使)가 베이징에 갔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명 예부(禮部)는 조선에 보낸 답신에서 '광해군은 현명하다. 현명한 사람은 차례를 뛰어넘는 참월(僭越)한 행위를 하지 않는 법'이라고 운운하며 광해군에게 왕세자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명 조정이 광해군을 거부했던 데에는 물론 속사정이 있었다. 당시 명의 신종이 정귀비(鄭貴妃)와의 사이에서 난 주상순(朱常洵)을 염두에 두고 맏아들 주상락(朱常洛)을 황태자로 책봉하는 것을 미루고 있던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다. 명 예부는 차자 광해군을 섣불리 승인해 줄 경우 신종이 맏아들을 밀어내고 주상순을 황태자로 책봉하는 데 명분을 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던 것이다.
명의 태도는 조선을 흔들기 위한 '의도된 것'이기도 했다. 이미 1418년 태종이 맏아들 양녕대군을 밀어내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뒤의 세종)으로 왕세자를 교체했을 때 명은 군말 없이 그것을 승인했었다. 충녕대군의 전례를 볼 때 명의 태도는 분명 이중적이었다.
조선의 요청대로 따라주는 것이 관행이었던 '왕세자 책봉' 문제에서도 '상국(上國) 행세'를 톡톡히 해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승인 요청을 계속 거부해 광해군의 애간장을 녹일 대로 녹인 뒤, 큰 은혜나 베푸는 것처럼 책봉을 허락하여 생색을 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군대를 보내 조선을 '구원'해 주고, '자격도 안 되는' 광해군을 인정해 준 자신들의 '은혜'를 강조하여 조선을 길들이려는 속셈이었다.
그것은 임진왜란 이후 명이 조선에 과거보다 훨씬 버거운 존재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실제 누르하치의 도전이 거세짐에 따라 '길들여진' 조선을 이용하고픈 명의 유혹도 커져만 갔다.

명 조정이 왕세자로 승인하는 것을 거부하면서부터 광해군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1604년, 명나라 제독주사(提督主事) 섭운한(雲翰)은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해 달라고 온 조선 사신들에게 극언을 퍼부었다. '임해군이 일본군에 포로가 된 것은 너희 국왕의 책임'이며 '맏아들 대신 둘째아들을 왕세자로 세우려는 너희들은 금수(禽獸)와 다를 바 없는 난신적자(亂臣賊子)'라고 매도했다. 신종(神宗) 황제는 명 조정의 신료들이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자 조선에 보낸 칙서(勅書)에서, 맏아들 임해군을 왕세자로 다시 세우고, 광해군에게는 물러남으로써 윤서(倫序)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광해군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이후, 과거보다 훨씬 대하기가 버거워진 명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명의 황제가 조선에 보낸 칙서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것의 정치적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었다.



▲ 선조의 어보(御寶 · 국새).

그 뿐만이 아니었다. 부왕 선조가 광해군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있었다.1600년(선조 33) 무렵부터 특히 그러했다.

●선조, 광해군의 아침 문안조차 냉대

당시 선조는 정릉동(貞陵洞) 행궁(行宮-오늘날의 덕수궁)에 거처했다. 광해군은 아침마다 선조의 처소로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선조는 좀처럼 그를 방으로 불러들여 접견하려 하지 않았다.

1600년 3월30일자 '선조실록(宣祖實錄)'에는 선조가 워낙 엄하게 대해 광해군은 문안할 적마다 처소의 바깥문에 머물다가 돌아가곤 했다고 적혀 있다. 선조의 냉랭한 태도에 광해군이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했다.1601년의 기록을 보면 광해군은 아침에 문안하고, 점심에도 문안하는 날이 있었다. 그것은 선조의 냉랭한 태도에서 비롯된 불안감, 그럴수록 더 인정받고 싶다는 초조함이 반영된 행동이었을 것이다.

1600년, 중전 박씨가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이듬해 10월, 예조(禮曹)는 중전의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음을 들어 선조에게 재혼하라고 건의한다. 선조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이를 받아들인다.



▲ 임진왜란이 끝난 뒤 1600년 무렵 선조는 현재의 덕수궁에 거처했다. 둘째아들 광해군은 아침마다 선조의 처소로 문안인사를 드렸으나 선조는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위 즉위를 둘러싼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덕수궁 중화전 전경.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왕세자 책봉 재건의 거부 · 논공행상 제외

1602년 4월, 조정 신료들은 명나라에 주청사(奏請使)를 보내 왕세자 책봉을 다시 요청하자고 건의한다. 선조는 그것을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중전의 책봉을 먼저 주청하여 국모(國母) 자리를 바르게 한 다음에 왕세자 책봉을 주청해야 인륜이 바로 선다.' 는 것이 이유였다.

임진왜란 시기 무려 15번이나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던 그 '선조' 가 아니었다.1603년, 왜란 당시 국난 극복에 노력했던 인물들을 공신(功臣)으로 책봉하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이 벌어졌을 때, 신료들은 광해군도 공신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분조(分朝)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자는 주장이었다.

선조는 그것도 거부했다.

선조의 태도는 분명 광해군에 대한 견제였다. 임진왜란 시기 지존의 권위에 흠집이 생긴데다, 명군 지휘부에 의해 '무능한 임금' 이자 '퇴위시켜야 할 대상' 으로 매도되었던 울분이 광해군에게 향한 것인지도 몰랐다. 권력이란 분명 부자(父子) 사이에도 공유될 수 없는 것이었다.

1602년 2월, 선조는 이조정랑(吏曹正郞) 김제남(金悌男)의 딸을 새로운 왕비로 맞았다. 광해군과 화동(和同)할 수 없는 악연을 맺었던 인목왕후(仁穆王后)였다. 다시 4년 뒤 인목왕후의 몸에서 아들(永昌大君)이 태어났다.

왕세자 광해군의 앞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왕세자 책봉' 을 주청하는 것에 선조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부 신료들은 그의 마음이 광해군에게서 이미 떠났다고 판단했다.

적자(嫡子)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아예 영창대군 앞에 드러내 놓고 '줄을 서는' 신료들이 나타났다.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1607년 3월부터 선조는 잔병치레를 하더니 10월에는 쓰러져 병석에 드러누웠다.10월11일, 선조는 병석에서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광해군에게 전위(傳位)하겠다고 했다. 여의치 않으면 섭정(攝政)이라도 맡기라고 지시했다.

유영경 등은 병석에 누운 선조에게 결사적으로 매달렸다. '이 상태로도 충분히 정사를 담당하실 수 있으니 전위나 섭정의 명을 거두시라.' 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조가 내린 비망기의 내용을 숨기려고 시도했다.

광해군 또한 선조가 쓰러진 뒤부터 궐내에 머물면서 시질(侍疾-병구완)에 들어갔다. 긴장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1608년 1월, 전 참판 정인홍(鄭仁弘)은 선조에게 상소하여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몸조리에 전념하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유영경이 정당한 전위를 방해했으니 처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돌발상황이었다. 선조는 정인홍의 상소 내용에 발끈했다. 다시 비망기를 내려 '명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전위하면 나중에 명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 고 했다. 쓰러진 직후에는 바로 전위하겠다고 하더니

정인홍의 상소를 접한 뒤 마음이 다시 흔들린 것이다.

●왕세자 16년… 국내외 견제 딛고 즉위

광해군은 바짝 엎드렸다.

'변변치 못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데 갑자기 전섭(傳攝)하라시니 죽으려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유영경이 전섭을 만류한 것은 제 뜻과 다르지 않은데 정인홍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만들어 냈으니 그저 죽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

격분한 선조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해군은 기로에 서있었다.

1608년 2월1일, 선조가 세상을 떠났다. 광해군이 즉위했다. 왕세자가 된 지 16년 만의 일이었다.

이윽고 2월6일, 연릉부원군(延陵府院君) 이호민(李好閔)을 고부청시승습사(告訃請諡承襲使)로 삼아 베이징으로 보냈다. 선조의 승하 사실을 명 조정에 알려 시호(諡號)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광해군의 즉위도 승인받아 오는 임무를 지닌 사절이었다.

명 조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이호민 일행이 4월12일, 광해군의 즉위를 승인해 달라는 주본(奏本)을 올렸을 때, 명 예부는 다시 차서(次序)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여전히 둘째아들 광해군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황한 이호민은 "임해군은 중풍에 걸려 왕세자 자리를 감당할 수 없었다." 고 따졌다. 그러자 명의 예부낭중(禮部郞中)은 임해군이 왕위를 사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주본을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명 조정은 랴오양(遼陽)에 있는 요동도사(遼東都司)를 시켜 조선에 들어가 직접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중풍' 운운한 것이 화근이었다.

6월15일, 명 차관(差官) 엄일괴(嚴一魁)와 만애민(萬愛民)이 서울로 들어왔다. 그들은 임해군을 직접 만나겠다고 우겼다. 당시 임해군은 역모 혐의를 받아 강화도 교동(喬桐)에 유배되어 있었다.

●銀 풀어 위기 넘겨

난감한 일이었다. 임해군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여차하면 명에 또 다시 결정적인 약점을 잡힐 판이었다.

그럴 경우, 또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 실랑이를 벌여야 할 것인가?

광해군과 조선 조정은 이 대목에서 은(銀)을 풀었다. 엄일괴와 만애민에게 은 수만냥을 주었다. '칙사 대접' 을 받은 그들은 임해군을 면담한 뒤, 조선 신료들에게 말했다.

"국왕에게 임해군을 잘 보호하여 박대하지 말라고 이르시오." 그리고는 은 궤짝을 챙겨 귀국길에 올랐다.

어느 새 광해군은 '국왕' 이 되어 있었다.

광해군은 정치적 곤경을 타개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은을 뇌물로 썼지만 그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엄일괴와 만애민이 다녀간 뒤부터 요동에 있던 명나라 관리들은 입맛을 다셨다. 엄일괴 등이 조선에서 한밑천 크게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조선에 오는 명사(明使)들은 예외 없이 손을 벌렸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누르하치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 명사들의 '경제적 위협' 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즉위했지만 국왕 광해군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다. 당장 그의 친형 임해군을 처리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았다. 사관(査官) 엄일괴 등을 은으로 구워삶아 위기를 넘겼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이 돌아간 뒤부터 신료들은 '역적' 임해군을 처단하라고 외쳤다. 즉위하자마자 혈육을 손봐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광해군은 거부했지만 끝까지 임해군을 지켜주지는 못했다.

명과의 관계 또한 꼬여가고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총명하고 능력 있다.' 고 추켜세우더니 막상 책봉을 요청했을 때는 외면했던 명이었다. 즉위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광해군과 명의 관계는 분명 '악연' 에서 출발했다.



▲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에 있는 광해군의 형 임해군 묘.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李成梁의 병탄 음모에 놀라다

즉위한 지 5개월 남짓 된 1608년 7월, 베이징으로 가고 있던 동지사(冬至使) 신설(申渫)로부터 비밀 장계가 날아들었다. 광녕총병(廣寧總兵) 이성량(李成梁)이 '조선을 정벌하고 군현(郡縣)을 설치하여 직할령으로 삼자.'는 내용으로 황제에게 주문(奏文)을 올렸다는 소식이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엄일괴 등이 돌아간 뒤 겨우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명이 조선을 직할령을 삼으려고 덤비는 것이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았다.

이성량의 혼자 생각이 아니라 도어사(都御史) 조집(趙)도 같이 상주(上奏)했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형제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이성량이 누구인가. 그는 이여송(李如松)의 부친이자, 요동의 막강한 군벌(軍閥)이었다. 워낙 오랜 동안 현직에 있어 '리타야(李大爺)'로 불린 그의 영향력은 컸다. 요동이나 산동(山東)의 무관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의 가정(家丁)이나 막객(幕客) 출신이었다.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조선의 내부 사정을 훤하게 알고 있었다.

광해군은 신료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병조판서 이정구(李廷龜)가 입을 열었다. 그는 이성량이 조선에 '군침을 흘리는' 것은 땅이 비옥하고 인삼과 은이 생산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정구는 그러면서 이성량과 연결되어 있는 누르하치가 더 문제라고 했다.

이성량의 본심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조선을 공격할 경우 누르하치의 군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정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누르하치의 땅과 잇닿아 있는 평안도 지역의 방어 태세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행히 이성량의 상주에 대한 명 조정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병과도급사중(兵科都給事中) 송일한(宋一韓)과 급사중(給事中) 사학천(史學遷)이 이성량의 주장을 일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선이 비록 흠이 있지만, 연개소문(淵蓋蘇文)처럼 임금을 시해한 죄가 없고 명나라를 섬겨 신하의 예절이 어긋나지 않았으니, 이성량의 주청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송일한은 이성량을 파직시켜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송일한 등의 반박 덕분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광해군이 둘째라는 이유로 명나라 신료들에게 계속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성량과 연결된 누르하치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 '정통성 시비' 잠재우려 책봉 서둘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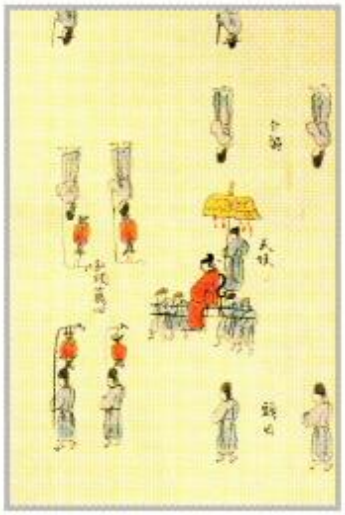
광해군은 '이성량 사건'을 계기로 요동에 대한 정탐을 강화하는 한편, 명 조정으로부터 정식으로 책봉(冊封)을 받아내기 위해 서둘렀다. 비록 임해군은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고 국왕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명의 책봉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즉위한 지 1년이 더 지난 1609년 3월까지도 명은 광해군을 조선 국왕으로 책봉하지 않았다. 조선에 보낸 외교문서에서는 '조선국 권서국사(權署國事) 광해군'이란 호칭을 썼다. '권서국사'란 '임시로 국사를 담당하는 사람' 정도의 뜻이다.

이윽고 1609년 6월, 명의 책봉사(冊封使)가 서울에 도착했다. 태감 유용(劉用)이 그였다. 태감이란 환관을 말한다. 내시(內侍), 초당(貂), 초시(貂侍), 엄인(人) 등 환관을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가지였다. 조선 전기에는 화자(火者)라는 호칭도 많이 썼다.

15세기 조선에 다녀간 명나라 환관들에 대한 기억은 좋지 않았다. 워낙 뇌물을 밝히고, 요구 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조선 출신이었다. 하지만 명나라 황제의 총애를 배경으로 더 위세를 떨었다. 세종 때의 윤봉(尹鳳)과 성종 때의 정동(鄭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런데 유용은 더 '막강한' 인물이었다. 수천명에 이르는 명나라 환관 가운데 서열 2위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조선에 도대체 왜 왔겠는가? 광해군은 그가 의주에 도착하여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 바짝 긴장했다.



조선시대 명사반차도(明使班次圖).

유용은 압록강을 건너기 전부터 공공연히 떠벌렸다. "조선 국경에 발을 들여 놓으면 기필코 10만냥의 은자를 얻으리라."라고. 그는 의주에 도착한 뒤 자신에 대한 접대는 오로지 은으로만 하라고 했다. 은만 주면 식사도 다례(茶禮)도 필요 없다고 했다. 은이 부족하면 움직이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거느린 수행원 중에는 한 밑천 잡으려고 조선에 들어온 상인들이 많았다. 그들 또한 이런저런 기완(嗜玩) 물품을 내놓고 강매했다.



중국에서 통화로 사용된 50냥짜리 은(일명 마제은·馬蹄銀).

유용은 결국 광해군을 책봉하는 황제의 칙서를 전하러 와서 6만냥의 은을 뜯어갔다. 조정의 언관들은 유용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아우성을 쳤다. 하지만 광해군은 그를 우대하라고 지시했다. 어떻게 해서든 정식으로 책봉을 마치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다.

●명의 貪風을 받아들이다

'오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돌아가면 여기저기에 상납해야 한다.' 6만냥을 뜯어낸 유용이 했던 이야기다. 엄일괴와 만애민이 조선에서 한 밑천 잡은 뒤, 명의 환관들은 조선에 서로 나오려고 했다.

17세기 전반 명에서 불고 있던 탐풍(貪風)은 엄청났다. 그 배경에는 은의 유통이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은 중국산 생사(生絲)와 도자기를 구입하기 위해 은을 싸들고 명나라로 몰려들었다. 그 은은 대개 신대륙 남미(南美)와 일본에서 채굴된 것이었다. 해마다 밀려드는 수십만 킬로그램의 은은 명나라 구석구석으로 유통되었다. 그것은 인삼이나 모피의 구입 대금으로 누르하치가 일어난 만주 땅에도 뿌려졌다.

은은 운반이 편리해 뇌물로는 그만이었다. 사실 15세기에 왔던 윤봉이나 정동도 엄청나게 뇌물을 챙겼지만 그것은 대개 토산물이었다. 호피(虎皮) 등 짐승가죽과 세모시 등 직물류, 말안장, 구리 제품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었다. 그것들을 운반하자면 엄청난 수의 궤짝이 필요했다. 뇌물 궤짝을 짊어진 행렬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초리가 좋을 리 없었다. 그것에 비하면 은을 운반하기란 너무 쉬웠다.

1610년에는 광해군의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기 위한 명사가 왔다. 염등(登)이란 인물로 역시 환관이었다. 그의 목표는 유용이 받아낸 액수보다 더 뜯어내는 것이었다. 개성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임진강의 다리가 홍수로 유실되자, 행차가 지체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은 1000냥을 받았다.

서울에 도착하여 보인 행태는 가관이었다. 은으로 된 사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천교(天橋)라 불리는 그것을 타고 남대문을 넘어가 책봉례(冊封禮)를 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도 결국 수만냥을 챙겼다. 우의정 심희수(沈喜壽)는 염등을 가리켜 사람도 아니라고 했다.

광해군은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다. 무려 17년 동안이나 왕세자로 있었으면서도 명의 승인을 받지 못했던 자신의 전철을 되풀이하기 싫었던 것이다.

수만냥의 은을 마련하려면 엄청난 고혈(膏血)을 짜내야만 했다. 임진왜란 이후 명을 상대하기란 그만큼 버거웠다. 하지만 명뿐만이 아니었다. 이제 그 명과 누르하치 사이에서 양단을 걸쳐야 하는 훨씬 더 버거운 과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성량(李成梁)이 병탄을 시도하고, 광해군과 왕세자를 책봉하러 왔던 명사(明使)들의 은(銀) 징색이 이어졌던 것은 광해군 시절 명나라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광해군대 누르하치의 건주(建州)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광해군과 누르하치의 관계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출발했다.1608년 2월, 광해군이 즉위한 직후 누르하치는 초피(貂皮)를 선물로 보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누르하치가 쳐들어 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그치지 않았다. 누르하치 진영 또한 '조선과 명이 합세하여 협공할 것' 이란 풍문에 긴장하기도 했다.



광해군은 재위(在位) 기간 내내 누르하치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명과 건주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한, 조선 또한 양자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누르하치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광해군이 취했던 대외정책에서 우선 돋보이는 점은 상대방과 관련된 정보수집을 위해 노력했던 점이다.

1608년 8월, 조선 조야(朝野)는 '누르하치가 배를 만들어 장차 조선을 공격하려 한다.' 는 소문에 긴장했다.1610년(광해군 2) 1월에는 허투알라 지역에 '조선이 명과 연합하여 건주여진을 토벌할 것' 이며, '이미 조선의 병마(兵馬)가 압록강변에서 대기하고 있다.' 는 풍문이 돌았다.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다

누르하치가 해서여진을 공략하여 전운(戰雲)이 감돌고, 명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있던 상황에서 만주 일대에는 갖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 곽재우 동상



왜인(倭人)들이 머물며 외교업무를 보고 무역을 관장하던 관사인 왜관을 묘사한 조선시대 왜관도(倭館圖).

조선과 건주여진 또한 자칫 정확하지 못한 정보에 휘말려 위험한 군사적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해군은 누르하치의 침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변사 신료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가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척후(斥候)를 제대로 하고, 간첩을 적절히 활용하여 누르하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광해군은 신료들에게 영리한 인물을 누르하치 진영으로 보내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라도 사자(使者)의 왕래가 중단돼서는 안된다.' 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1611년, 누르하치 진영에 포로로 억류되어 있다가 돌아온 하세국(河世國)에게 6품직인 사과(司果)를 제수하기도 했다. 그의 여진어 실력과 견문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이나 여진 등에 비해 상대방의 동향을 정탐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일본은 오랫동안 다이묘(大名)들이 패권을 놓고 다투었던 전국시대(戰國時代)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일찍부터 벌였던 왜구(倭寇) 활동과 왜관(倭館)에서 거주했던 경험 등을 통해 조선 사정에 대해 훤하게 알고 있었다. 왜란 당시, 조선어를 능숙히 구사하고 조선의 지리까지 숙지했던 쓰시마(對馬島)의 일본인들이 침략군을 이끄는 향도(嚮導) 노릇을 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누르하치의 건주여진 또한 인접 국가의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특히 간첩을 활용하거나 반간계(反間計)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능력은 탁월했다.

명나라 지식인들조차 "건주여진인은 간첩활동에 가장 뛰어나서 그 내응자들 때문에 견고한 성도 앉은 채 함락 당한다." 고 인정할 정도였다.

문치(文治)에 치중한데다 건국 이후 200년 동안 전쟁을 몰랐던 조선의 정탐 능력이 취약했던 것은 당연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일선에서 겪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정보 마인드' 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광해군이 건주여진을 조선에 비해 '열등한 존재' '오랑캐' 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의 다른 지식인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 또한 누르하치와 여진족을 가리켜 '노추(老酋)' '견양(犬羊)' 등 멸칭(蔑稱)으로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의 누르하치에 대한 정책은 유연했다.

'무식하고 사나운 오랑캐에게 인륜과 이치를 내세워 사사건건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 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그들을 자극하여 쓸 데 없는 화란을 부르지 말고, 적당히 경제적 욕구를 채워주면서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기미책(羈策)을 활용하다

광해군의 정책은 기미책에 가까운 것이었다. '기미' 란 굴레를 가지고 소나 말의 얼굴을 붙들어 매는 것을 말한다. 중국이 흉노(匈奴) 등 주

변 민족을 대했던 방식으로, 핵심은 견제하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는 것이다.
광해군은 누르하치와 관계를 유지하되 모험을 피하려 했다. 또 명과 누르하치 사이의 갈등 속으로 말려드는 것도 있는 힘을 다해 회피하려 시도했다.
임진왜란을 통해 처참한 상처를 입은데다 그 후유증이 채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전란을 만날 경우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광해군이 재위 중반까지만 해도 그같은 노력과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명과 누르하치의 관계가 아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던데다, 광해군 자신이 정치판을 그런대로 잘 이끌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비변사(備邊司)에 포진했던 신료들 가운데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베테랑'들이 많았던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원익(李元翼), 이항복(李恒福), 이덕형(李德馨), 이정구(李廷龜), 윤근수(尹根壽), 황신(黃愼) 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은 왜란 당시 체찰사(體察使),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면서 전쟁을 일선에서 수행했고, 명군이나 일본군 지휘부와 직접 대면했던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었다. 광해군은 그들을 자주 접견하여 변방 관련대책과 국제정세에 대해 식견과 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

●자강책(自强策)을 마련하다

정보를 수집하고, 기미책을 통해 누르하치를 다독이는 한편, 광해군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책 마련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광해군이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조총, 화포 등 신무기를 개발,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시 누르하치의 기마대는 철기(鐵騎)라 불릴 정도로 기동력에서 발군이었다. 그 '강철 같은 기마대'를 평원에서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에 들어가 화포를 써서 제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당시의 상식이었다.
광해군은 1613년(광해군 5), 화기도감(火器都監)을 확대개편해 각종 화포를 주조하는 한편, 화약원료인 염초(焰硝) 확보에도 각별히 노력했다.
무기 확보를 위한 광해군의 노력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그의 일본에 대한 태도였다.
그는 일본으로 떠나는 통신사 편에 조총과 장검 등을 구입해 올 것을 지시했다. 일본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萬歲不共之讐)'로 여기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도 일본산 무기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1609년(광해군 1), 주변의 반발을 물리치고 일본과 국교를 재개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누르하치 때문에 서북변(西北邊)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일본과 냉랭한 관계를 고집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이다.
광해군은 대외관계에 관한 한 분명한 현실주의자였다.
광해군은 병력을 확보하고 뛰어난 지휘관을 기용하는 데도 노력했다. 병력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호패법(號牌法)을 실시하려 했고, 수시로 무과(武科)를 열었다.
1622년(광해군 14) 이후로는 모든 무과 합격자들을 변방으로 배치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향리에 은거하고 있던 곽재우(郭再祐)를 불러 올려 북병사(北兵使)에 제수하기도 했다. 광해군은 누르하치의 침략으로 도성이 함락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강화도를 정비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그곳을 '최후의 보루'로 여겨 수시로 보수하고 군량을 비축했다.
하지만 정작 강화도를 피난처로 활용한 것은 인조대의 일이었다.
1623년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뒤 강화도에 유배되었다. '최후의 보루'가 자신의 유배지가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병자호란] (6) 심하전역과 인조반정

2013.01.27 22:19

심하전역과 인조반정 I

광해군은 노회한 명과 사나운 후금 사이의 대결 속으로 말려들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그가 정보를 수집하고, 기미책을 강구하며, 자강 능력을 배양하려 애썼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정세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비록 외교적 노력을 통해 누르하치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었다. 누르하치가 명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그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한, 조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1618년(광해군 10) 누르하치가 푸순성을 함락시킨 이후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광해군의 뒤를 이은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청군에 대항했지만 결국 청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남문 전경.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출병 여부를 둘러싼 갈등

명은 관응진(官應震) 등이 주장한 이이제이책(以夷制夷策)에 따라 조선도 병력을 내어 후금을 공략하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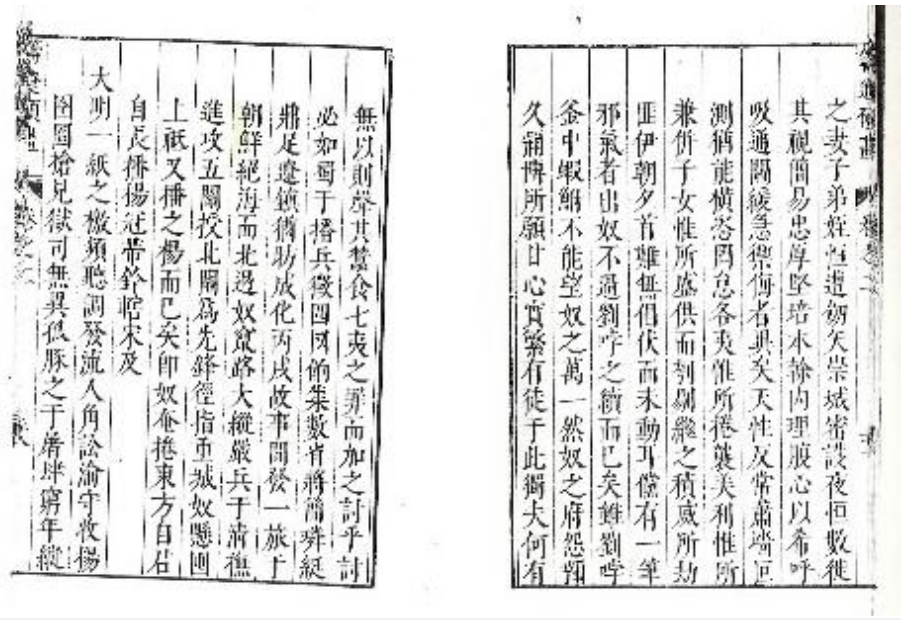
1618년 윤 4월, 명의 병부시랑(兵部侍郞) 왕가수(汪可受)는 조선에 보낸 격문(檄文)에서 병력을 뽑아 별도의 기별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고 요청했다. 형식은 요청이지만 사실상 '지시' 였다.

명의 통첩을 받았을 때 조선 조정의 의견은 확연히 갈라졌다.

광해군은 파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먼저 조선의 군사적 역량이 미약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1618년 5월1일, 신료들에게 내린 교시(敎示)에서 '병(兵)과 농(農)이 분리되지 않은 조선의 병력을 동원해 봤자 후금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굳이 병력을 보내야 한다면 수천명 정도를 의주(義州) 등지에 대기시켜 기각(角)의 형세를 이루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설사 군대를 동원하더라도 국경 바깥으로 출전시킬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광해군은 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후금의 군사력이 막강하므로 명의 원정군이 일거에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오랜 동안 후금 관련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이자 판단이었다.

광해군은 명에 보내는 회답서신 속에 "경솔하게 정벌에 나서지 말고 다시 생각하여 만전을 기해야 한다." 는 내용을 첨가하라고 지시했다.



▲ 요동을 수복하기 위해 조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요석획' 의 한 부분.

그러나 비변사(備邊司) 신료들은 반발했다. 그들은 명에 보내는 서신에 명에 대해 '충고' 의 성격을 담은 문구를 삽입하는 것 자체를 비판했다.

'조선은 소방(小邦)이자 명의 번국(藩國)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국(大國)인 명의 군무(軍務)에 간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저 명의 지휘에 따라 진퇴를 결정해야 할 뿐' 이라고 반박했다.

비변사 신료들은 또한 '명은 조선에 부모의 나라' 이며 '임진왜란으로 조선이 망할 뻔했을 때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를 베풀었다.' 며 이른바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상기시켰다.

'자식' 의 처지에서 '은혜를 베푼 부모' 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 그저 있는 힘을 다해 구원하려 노력해야 할 뿐, 자신의 강약(强弱)이나 처지를 따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광해군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대제학 이이첨(李爾瞻)조차 춘추대의(春秋大義)를 지키고, 재조지은에 보답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채근했다.

●굴레가 돼버린 再造之恩

'명이 재조지은을 베풀었고, 조선은 그에 보답해야 한다.' 는 생각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도 조선 지배층의 뇌리에 확실히 각인되었다.

왜란 초반,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밀려 나라의 존망 자체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명군의 참전은 그야말로 한줄기 '복음' 이었다.

더욱이 1593년 1월, 명군이 평양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세가 역전되면서부터 '재조지은' 은 조선이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지고(至高)의 은혜' 로 굳어졌다. 아예 '임진왜란' 을 '재조(再造)' 라고 부르는 인물조차 등장할 정도였다.

비록 명군이 일본군과 싸우는 것을 회피하고, 조선 백성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지은' 의 위상은 변하지 않았다.



▲ 임진왜란 후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선양하기 위해 지은 명나라 장수의 사당 선무사(宣武祠)의 현판.

그같은 분위기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선조(宣祖)였다. 선조는 임진왜란을 끝낼 수 있었던 모든 공로를 명군의 역할 덕분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조선 관군이나 의병의 역할은 평가절하했다.

임진왜란 최고의 영웅 이순신은 두개의 적과 맞서야 했다. 하나는 일본군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선조다.

이순신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할수록, 따라서 그에 대한 국민적 신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선조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의병장 곽재우와 선조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이 끝난 뒤 논공행상 과정에서 선조는 이순신을 제치고, 정곤수(鄭崑壽)를 1등 공신이자 원훈(元勳)으로 책봉했다. 그가 명군을 불러오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나마 곽재우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재조지은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조선군 영웅들의 위상은 낮아지고, 선조의 실추된 위상이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명나라 지식인들은 조선 내부의 그 같은 분위기에 반색했다.

푸순성 함락 이후 등장한 '주요석획(籌遼碩)'에서 요동을 수복하는 데 조선을 이용하자고 주장했던 인물들이 내세운 논리는 거의 똑같았다.

'임진왜란 때 우리는 모든 힘을 기울여 변변찮은 조선을 도왔다. 이제 그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해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는 것이었다.

조선의 신료와 명의 지식인을 막론하고 '재조지은' 을 강조하고 있던 분위기를 광해군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명에 보내는 회답서신에 '혈기를 갖고 있는 조선 백성은 누구라도 황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문장을 잘 다듬을 것을 지시했다.

외교를 위해 겉으로라도 '재조지은' 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외교적 노력이 물거품되다

'재조지은에 보답하려면 출병하라.' 는 안팎의 공세에 맞서 광해군은 외교적 '카드' 를 총동원했다.

광해군은 먼저 조선에 출병하라고 요청한 주체가 명의 황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자문을 보낸 왕가수는 명의 신료일 뿐, 황제가 아니므로 번국의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명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선의 어려운 사정을 황제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사신들을 줄줄이 베이징으로 보냈다. 황제에게 조선 사정을 제대로 보고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사신들이 소지한 국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조선은 아직 왜란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선의 미약한 군사력을 동원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것 등이었다.

명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명 조정은 후금에 대한 군사적 응징을 총괄할 경략(經略)으로 양호(楊鎬)를 낙점해 랴오양(遼陽)으로 보냈다. 임진왜란 때도 총사령관으로 참전했던 그는 조선 사정에 밝았다.

양호는 조선 사신들이 소지한 국서의 내용을 문제 삼아 베이징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조선이 은혜를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신 왕래를 통해 요행을 바란다고 질책했다.

광해군은 양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칙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파병할 수 없다고 버텼다.

양호는 조선 사신 **박정길**(朴鼎吉)에게 "북관과 연락하고 조선을 고무하라.(聯絡北關鼓舞朝鮮)" 는 문구가 담긴 황제의 칙서를 보여주었다.

'북관' 은 당시 누르하치의 후금에 밀리고 있던 해서여진의 예허(葉赫)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양호는 또한 당시 요동지역에 '조선이 후금, 일본과 내통하고 있으며 후금군 가운데 3000명이 조선인' 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음을 들어 협박했다. 박정길 일행은 양호의 협박에 밀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조선 영내로 돌아오고 말았다.

1618년 10월. '조선은 병력을 동원하여 오랑캐를 치는 데 협조하고, 양호의 지휘를 받으라.' 는 내용의 명 황제의 칙서가 날아들었다.

광해군의 입장에 반대했던 비변사 신료들은 힘을 얻었고, 출병하라는 채근 또한 더 심해졌다.

안팎으로 곱사등이가 된 처지에서 광해군은 소신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시기 명군의 참전을 통해 떠오른 '재조지은' 은 17세기 초에도 조선 정치와 외교 전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다.

후금을 치는데 동참하라는 명의 요구가 날아들었을 무렵, 광해군은 정치적으로 고비를 맞고 있었다. 외교적 감각이 탁월했던 광해군이지만, 내정(內政)에서는 적지 않은 난맥상을 드러냈다.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인(廢母殺弟) 패륜아' 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이 대표적이다. '폐모' 는 '살제' 로부터 시작되었다. 양자 모두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 는 광해군의 노심초사와 강박관념에서 비롯되었다.



▲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민심과 무너진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종묘 중건 등 국가 재건사업을 벌였다. 사진은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들의 신주를 모신 종묘.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1613년(광해군 5) 계축옥사(癸丑獄事)가 일어나 논란 끝에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이 살해되었다. 영창대군의 생모 인목대비(仁穆大妃)는 광해군에게 극단적인 원한을 품게 되었고, 이이첨(李爾瞻) 등 광해군의 측근들은 인목대비마저 폐위시켜 후환을 없애자고 부추겼다. 하지만 모후(母后)를 폐위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었다. '폐모 논의'를 둘러싼 내우(內憂)가 한창일 때, 후금 정벌에 동참하라는 명의 요구는 외환(外患) 그 자체였다.

●대동법 시행 · 창덕궁 수리 등 국가재건 앞서

광해군이 이룩한 치적(治績) 가운데는 볼 만한 것이 적지 않다. 그는 자기 시대의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안으로 임진왜란이 남긴 상처를 극복하고, 밖으로 명청교체(明淸交替)가 몰고 올 파장에 대비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광해군은, 그 같은 과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정치판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위 직후 광해군은 당파(黨派) 사이의 대립을 조정하는데 힘썼다. 비록 이이첨, 정인홍(鄭仁弘), 유희분(柳希奮) 등 북인(北人)들이 자신의 즉위 과정에서 일등공신이었지만 광해군은 그들만을 편애하지 않았다. 이원익(李元翼), 이항복, 이덕형 등 선조 이래의 중신들을 우대하여 그들의 경륜을 활용하려 했다.

이원익은 1608년 경기도에서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왕실이나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貢物)을 백성들에게서 현물 대신 쌀로 받아들이는 조처였다. 자기 고장에서 나지 않는 공물을 현물로 납입하라고 강요할 경우, 필연적으로 청부업자들이 중간에서 설치게 된다. 백성들은 결국 방납인(防納人)으로 불리는 청부업자에게 비싼 값을 치르고 물품을 구입하여 관청에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의 경제적 부담은 치솟고, 방납인들만 떼돈을 벌게 되어 있는 구조였다. 자연히 방납인 중에는 상인뿐 아니라 사대부와 왕실의 인척 등 온갖 모리배들이 섞여 있었다.

쌀은 백성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청부업자들이 농간을 부리기가 쉽지 않았다. 대동법의 실시는 경기도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방납인들에게는 기득권을 흔드는 '비보(悲報)'였다. 방납인들의 반발과 아우성을 일축하고 대동법을 밀어붙인 것만으로도 광해군은 '현군'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했다.

광해군은 왜란 중에 불타버린 창덕궁을 수리하고, 종묘(宗廟)를 중건하고, 사고(史庫)를 비롯한 여러 관청 건물들을 다시 세웠다. 이 같은 외형적인 재건 작업뿐 아니라 전란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심신을 다독이고, 무너진 사회질서를 다시 세우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반포하고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와 같은 윤리 서적을 간행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폐모살제 멍에로 내정에 난맥상

광해군은 분명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건과 외교에서 상당한 치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늘 정치적으로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첩자(妾子)이자 차자(次子)라는 이유로 왕세자 책봉이 지연되고, 부왕 선조로부터 견제받았던



'전력' 은 즉위 이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집착으로 표출되었다. 더욱이 역모 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당파 사이의 갈등과 대결은 재연되었다. 특히 선조의 적자(嫡子)인 영창대군의 존재는 광해군은 물론, 광해군 즉위에 앞장섰던 이이첨 등 대북파(大北派)에는 잠재적으로 왕위를 위협하는 요소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1613년 4월, 문경새재에서 은상(銀商)을 살해한 혐의로 국문(鞫問)을 받던 서얼 박응서(朴應犀)는 '엄청난 내용' 을 실토했다. "은상에게서 빼앗은 자금으로 역도들을 모아 대궐을 습격하여 인목대비에게 옥새를 바친 뒤 영창대군을 국왕으로 추대하려 했고, 역모의 우두머리는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金悌男)" 이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파의 정적이었던 남인(南人)과 서인(西人)들은 대부분 유배되거나 조정에서 쫓겨났다. 이것이 바로 계축옥사였다.

김제남은 사약을 마시고 죽었고, 여덟 살에 불과한 영창대군도 유배된 직후 살해되었다.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를 지켜 주지 못했다. 인목대비가 광해군에게 처절한 원한을 품은 것은 당연했다.

'광해군일기' 에는 박응서를 매수하고, 영창대군을 살해하는데 이이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계축옥사는, 우유부단하고 심약했던 광해군이 '왕권 강화' 에 골몰하다가 빚어진 비극이기도 했다.

이이첨 등은 이윽고 인목대비마저 '역모 관련자' 로 몰아 처벌하려 했다. 대북파는 '인목대비와 광해군의 모자(母子) 관계는 끊어졌기 때문에 따로 거처해야 한다.' 고 주장했고, 논란 끝에 인목대비는 결국 서궁(西宮-오늘날 덕수궁)에 유폐되었다.

하지만 광해군에 대한 충(忠)을 강조한 대북파의 '폐모' 시도는 재야 사림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그것은 효(孝)를 무시한 '금수(禽獸)의 행위' 라고 매도되었다.1618년 1월, 이이첨 등은 들끓는 비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정청(庭請)이란 것을 벌였다. 조정의 모든 신료들을 동원하여 '국왕에게 불충한' 인목대비를 폐위시키라고 광해군에게 요청하는 절차였다.

광해군은 '폐모 논의' 가 인륜에 관련된 사안이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이첨 일파를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다. 인목대비가 유폐된 상태에서 '폐모 논의' 는 결말을 보지 못했고, 그 와중에 명의 파병 요구가 날아들었던 것이다.





♠인목대비는 아들 영창대군을 죽인 광해군에게 큰 원한을 갖고 있다가 결국 서궁에 유폐됐다. 사진은 억울하게 죽은 친정아버지 김제남과 영창대군을 생각하면서 지은 인목대비의 칠언시가 적혀 있는 인목대비 친필족자.

문화재청 홈페이지

◆ 1608년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원익.

●무리한 토목공사에 민심은 등 돌려

왕권 강화에 대한 광해군의 집착은 토목공사에 몰두하는 형태로도 표출되었다. 그는 1611년 창덕궁을 중건했지만 연달아 다른 궁궐들을 짓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신문로에 경덕궁(慶德宮, 뒤에 경희궁으로 개명)을 지었고, 정원군(定遠君, 광해군의 이복동생이자 仁祖의 아버지)의 사저가 있던 인왕산 부근에 '왕기가 서렸다.' 는 말을 듣고 인경궁(仁慶宮)을 지었다.

단종과 연산군이 쫓겨났던 장소인 창덕궁을 꺼림칙하게 여겼던 광해군은 궁궐이 완성된 뒤 이 궁궐, 저 궁궐을 옮겨다니는 행태를 보였다. 그럴듯한 궁궐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원구단(圓丘壇)을 짓고 하늘에 교제(郊祭)까지 지내려 했다. 그것은 중국의 천자(天子)만이 할 수 있다는 제천의식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궁궐들을 짓고, 교제까지 지내려 했지만 토목공사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인경궁과 경덕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장대한 궁궐이었다. 당연히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민간에 전가되었다.

증세(增稅)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자 은이나 목재, 석재 등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관직까지 팔았다. 부족한 재원을 긁어모으기 위해 조도

사(調度使)란 직책을 지닌 관원들을 전국에 파견했다.

●삐딱한 여론… 외교발목 잡아

백성들로부터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세금 부담뿐 아니라 목재 등을 운반하는데 사역되는 백성들의 반발도 컸다. 계축옥사를 통해 쫓겨났던 남인이나 서인 출신의 신료들은 '말세의 조짐' 이라고 비아냥거렸다. '폐모살제' 때문에 얻게 된 '패륜' 의 멍에 위에 '민생을 망쳤다.' 는 비판까지 더해졌다.

광해군이 명의 파병 요구를 거부하려 했던 데에는 궁궐 건설을 비롯한 토목공사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자리잡고 있었다. 이미 토목공사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로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형편에 파병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외교와 내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리 빛나고 탁월한 외교라도 내정에 발목이 잡히면 그 '빛' 이 바랠 수밖에 없다. '폐모 논의' 와 토목공사 때문에 삐딱해진 여론의 시선이 광해군의 외교를 좋게 봐줄 리 없었다. 내정의 난맥상은 결국 광해군 외교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광해군이 명의 파병 요구를 거부하려 했던 것은, 폐모논의와 궁궐 건설 문제 등 내정(內政)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도 벅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명의 압력과 내부의 채근에 밀려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1619년(광해군 11) 2월, 조선군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들어갔다.1만 5000 가까운 병력이었다. 광해군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했던 심하 전역(深河戰役)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사에서는 이 전역을 보통 사르후(薩爾滸) 전투라고 부른다. 명군과 후금군 주력 사이의 전투가 벌어졌던 전장(戰場)이 사르후 지역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전투에서 명군은 거의 궤멸될 정도로 참패했고 두 나라의 향후 운명도 확연히 갈렸다. 사르후 전투는 명청교체(明淸交替)의 분수령이었던 것이다.

●광해군, 강홍립을 발탁하다


조선군 도원수 강홍립의 항복 모습.

광해군은 심하 전역의 향방에 대해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명군이 동북(東北)의 오지인 허투알라(赫圖阿拉)까지 장거리 원정에 나서는 것의 위험성을 간파했다. 실제로 명군 가운데는 내륙 지역인 쓰촨(四川)에서 출발하여 산하이관(山海關)을 통과하고, 랴오양(遼陽)과 선양(瀋陽)을 거쳐 허투알라에 이르는 수천㎞의 거리를 행군해야 하는 병력도 있었다. 장거리 행군에 지친 명군이, 가만히 앉아 대비할 수 있는 후금군을 상대하기란 버거운 것일 수밖에 없었다.

광해군은 또한 명군 지휘부가 조선군을 몹시 닦달할 것이란 사실도 예측했다. 그가 조선 원정군의 도원수(都元帥)로 문관 출신의 강홍립(姜弘立)을 임명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강홍립은 어전통사(御前通事:왕의 직속 통역관)를 역임할 정도로 중국어 실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명의 강요에 밀려 '내키지 않는' 출병을 단행한 이상, 병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명군 지휘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그래야만 작전권을 틀어쥔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다.

광해군은, 출정하기 직전 강홍립에게 지침을 주었다. '그대는 조선군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있으니 명군 지휘부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패하지 않도록 하라.' 는 것이었다.

명군 지휘부는 조선군이 평안도에 머물 때부터 닦달을 시작했다. 총사령관이었던 경략(經略) 양호(楊鎬)는 강홍립에게 조선군 화포수(火砲手)부터 속히 도강(渡江)시키라고 요구했다. 조선군 부대 가운데 명군 지휘부가 가장 크게 탐냈던 병력이 바로 화기수였기 때문이다. 강홍립은 양호의 명령대로 화기수 5000명을 미리 들여보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명군의 우익남로군(右翼南路軍) 사령관인 유정(劉綎)의 휘하에 배속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광해군은 강홍립을 질책했다. 명군 지휘부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자신의 지침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광해군의 질책은 당연했다.3월4일, 유정 휘하의 명군이 후금군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궤멸될 때 배속된 조선군도 대부분 전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낯선 땅에서의 행군, 또 행군

평안도 창성(昌城)을 출발한 조선군 본진은 1619년 2월23일 압록강을 건넜다. 조선군은 좌영(左營), 우영(右營), 중영(中營) 등 3개 진영으로

구성되었다. 조선군 가운데는 항왜(降倭)들도 참전했다. 항왜는 임진왜란 당시 투항했던 일본군 출신의 병사들을 말한다. 그들은 조총을 잘 다루고, 검술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용맹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정예 병력이었다.

압록강을 건넌 후 허투알라에 이르는 조선군의 행군로에는 산악과 강이 널려 있었다. 날씨 또한 좋지 않았다. 양마전(亮馬佃)이란 곳에 도착했던 25일에는 눈이 내리고 강풍이 불어 날씨가 몹시 추웠다. 병졸 가운데 얼어죽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는 군량 운반을 맡은 수송 부대가 본진을 제 때 따라오지 못하는 점이었다.

2월26일, 진자두(榛子頭)라는 곳에 이르러 강홍립은 유정을 만났다. 강홍립은 유정에게, 군량 운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고, 조선군의 행군을 잠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유정은 거부했다. '약속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군율은 지엄한 것이기에 허락할 수 없다.' 고 했다. 조선군은 할 수 없이 계속 걸었다.

2월27일, 진자두에서 50리 정도 떨어진 배동갈령(拜東葛嶺) 부근에 도착했을 때 조선군 3영의 장졸들은 모두 휴대했던 군량이 떨어졌다. 보병들 가운데는 행군에 지쳐 정강이와 발 뒤꿈치에 유혈이 낭자한 병사들이 많았다. 계속 행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명군 '고문관' 우승은(于承恩)이 달려왔다. 그는 강홍립에게 칼을 빼서 휘두르며 '조선군이 뒤처지면 자신의 목이 날아간다.' 고 소리쳤다. 당시 명군 지휘부는 '조선군이 군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망하려 하기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걷는 것' 이라고 단정했다. 그래서 유격 교일기(喬一琦)와 우승은을 고문관 겸 감시자로 붙여 강홍립을 계속 몰아붙였다.

3월2일, 허기와 명군 지휘부의 채근에 시달린 끝에 조선군은 심하에 도착했다. 허투알라까지는 60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 이곳에서 조선군과 명군은 약 600명의 후금군 기병과 조우한다. 적병은 높은 산 쪽에서 화살을 쏘아댔지만 조선군이 조총으로 응사하여 물리쳤다. 서울 포수 **이성룡**(李成龍)은 적장을 쏘아 맞혔고, 병사 한명생(韓明生)은 그의 목을 베어왔다. 조명연합군이 최초로 거둔 작은 승리였다. '만주실록' 에 보면 '토부(托保)와 에르나(額爾納)가 이끄는 병력이 유정에게 패했다.' 는 기록이 있는데 이성룡이 사살한 장수는 둘 가운데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강홍립의 투항

작은 승리의 기쁨도 잠시 뿐,3월3일 조선군은 다시 '굶주림과의 전투' 를 치러야 했다. 강홍립은 병사들을 풀어 주변의 후금인 부락을 뒤져 숨겨진 양곡을 찾아냈다. 그것을 돌로 빻아 죽을 만들어 병사들에게 먹게 했다. 3월4일 아침, 조선군은 계속 행군하여 부차(富車)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세 발의 대포 소리를 듣는다. 이윽고 교일기 등이 강홍립에게 달려와 유정이 이끄는 명군 본진이 궤멸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밤, 무리하게 행군을 감행하다가 귀영가(貴盈哥)와 홍타이지, 아민(阿敏)이 이끄는 3만 후금군의 매복, 습격에 휘말린 것이었다. 명군의 궤멸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조선군도 후금군의 공격에 휘말렸다. 좌영과 우영이 먼저 후금군 철기(鐵騎)의 공격을 받았다. 조선군은 조총을 쏘며 저항했지만 두 번 째 탄환을 장전하기 전에 철기는 두 영을 유린했다. 선천(宣川) 군수 김응하(金應河), 운산(雲山) 군수 이계종(李繼宗), 영유(永柔) 현령 이유길(李有吉) 등이 전사하고 두 영은 무너졌다.

이민환(李民)의 '책중일록(柵中日錄)' 은 '강홍립이 거느리던 중영은 좌우영과 불과 1000보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달려가 구원할 겨를도 없이 두 영이 무너졌다.' 고 당시 상황을 적었다. 후금군 철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후금군의 포위 속에서 중영의 조선군 지휘부에서는 '마지막 결전을 치르자.' 는 논의가 나왔지만 병사들 가운데는 아무도 움직이려는 자가 없었다. 눈앞에서 두 영이 무너지는 참상을 목도한 데다,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은 이미 전의를 잃었던 것이다. 싸울 의지가 없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포위를 뚫을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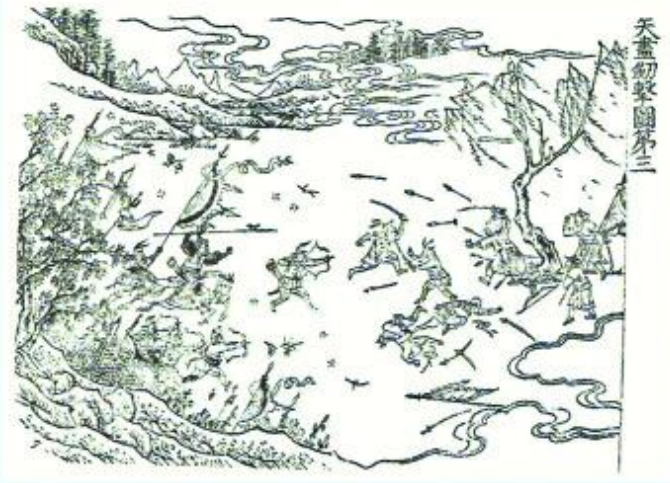
이윽고 강홍립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투항한다. 그런데 투항 상황에 대한 기록들은 서로 상당히 다르다. '광해군일기' 와 '책중일록' 은, 강홍립이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후금군이 먼저 통사를 보내와 항복을 종용했다고 적었다. '만주실록' 은, 후금군이 조선군 진영을 공격하려 할 때, 강홍립이 먼저 사람을 보내 항복을 제의했다고 적었다.

양자의 기록에는 분명 각각의 주관적 서술과 윤색이 가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쪽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적었는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강홍립이 남은 생령(生靈)들을 살리기 위해 항복을 선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3월5일 허투알라로 들어가 누르하치에게 항복했다.

곧 이어 항복 소식이 서울로 날아들었다. 조야를 막론하고 사대부들은 '매국노' 강홍립의 가족들을 수금하라고 아우성이었다. 광해군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강홍립의 항복과 함께 그의 정치적 운명도 조락(凋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홍립이 이끄는 원군이 심하전역(深河戰役)에서 패하여 누르하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은 조선 조야(朝野)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한편에서는 강홍립의 가족을 잡아들여 가두라는 아우성이,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항복 때문에 조선도 오랑캐가 되고 말았다

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명 일각에서는 조선군의 항복이 고의적인 것이라는 의구심과 조선에서 다시 원병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갔다. 광해군은 이 같은 안팎의 아우성을 잠재우고 패전의 후유증을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김응하 장군이 후금군을 맞아 분전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 출처 '충렬록'



조·명연합군의 공격 목표였던 허투알라 성의 토성 내부. 한명기

●명 원정군의 실상

누르하치의 후금군은 사르후(薩爾滸) 전역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1619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벌어진 전투에서 명군은 10만 가까운 전사자를 냈다. 후금군의 전사자는 고작 200명 정도였다. 청나라 사서인 '만문노당(滿文老)'에서는 '이 같은 전과는 하늘이 후금을 도왔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 라고 적었다.

후금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 '천우신조(天佑神助)' 였다. 하지만 광해군이 예측했던 것처럼, 명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참패였다.

명군은 우선 병력에서 후금군을 압도하지 못했다. 명군 지휘부는 47만의 대군을 동원한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순수 명군 병력은 10만이 채 되지 못했다. 당시 후금군은 6만 정도였다. 공격군의 병력이 수비군의 병력보다 3배 정도는 많아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병가(兵家)의 정설임을 고려하면 명군은 우선 원정군의 면모를 제대로 갖췄다고 하기 어려웠다.

명군 병사들의 자질 또한 열악했다. 원정군의 병력 가운데 상당수는 사르후 전역 직전에 끌어 모은 병사들이었다. 병사들 중에는 시정의 무뢰배나 비렁뱅이들이 많았다. 그들을 갑자기 훈련시켜 정예병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다. 심지어 '이 같은 병력 100만을 끌어모아도 적 한 명을 죽이기조차 어려울 것' 이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였다. 갑자기 끌어모은 오합지졸로 후금의 철기(鐵騎)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 광해군은 조선이 후금에 고의로 항복한 것이 아니냐는 명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심하전역에서 전사한 김응하를 띄우는 사업을 벌였다. 사진은 철원에 있는 김응하 장군 사적비.
철원군청 홈페이지

명군의 무기와 화력 역시 문제가 많았다. 강홍립의 보고에 따르면 조선군을 지휘했던 우익남로군(右翼南路軍)의 사령관 유정(劉綎)의 휘하에는 대포조차 없었다. 좌익중로군(左翼中路軍) 사령관 두송(杜松) 역시 조선군 화기수 300명을 끌어다가 선봉으로 삼았다. 변변한 화력을 갖추지 못한 채 객병(客兵)인 조선군 화기수들을 서로 먼저 끌어가려고 했다.

명군 지휘관들은 서로 전혀 인화(人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개 방면의 부대로 편제된 명군은 본래 3월1일을 기하여 일제히 허투알라를 향해 출발하기로 약속했는데, 주력군인 좌익중로군을 이끌던 두송은 약속을 어기고 하루 일찍 출발했다. 공명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대는 후금군의 정탐에 걸렸고, 고지를 선점한 후금군의 돌격전에 말려 참패하고 말았다. 두송의 패배 이후 마림(馬林)과 유정이 이끄는 나머지 부대들도 각개 격파되고 말았다.

●광해군의 전후 수습책

병력, 병사들의 자질, 무기, 지휘관의 인화와 지휘 능력 등 승패를 결정하는 모든 측면에서 명군은 후금군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조선 내부에서는 패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강홍립과 조선군에게 돌리고 있었다. 심지어 '명이 요동 전체를 누르하치에게 빼앗기게 된 것은 순전히 강홍립 때문'이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는 신료들도 있었다.

전쟁 직후 명 조정과 요동에서는 미묘한 소문이 돌았다. 명군 지휘관들 가운데는 조선군이 고의적으로 후금군에게 항복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그들은, 투항한 강홍립이 후금 진영에 머물고 있는 사실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조선 조정이 강홍립의 가족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시했다.

명은 강홍립의 투항을 계기로 조선이 후금 측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했다. 서광계(徐光啓)는 조선과 후금이 연결되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자신이 조선으로 가서 조선 군신(君臣)들에게 유시(諭示)하여 그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청했다. 서광계는 임진왜란 당시의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상기시키고, 조선을 다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야흐로 명의 압박이 다시 가중되고 있었다.

광해군은 명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서광계 등의 재징병 요구를 막아내기 위해 부심했다. 그는 우선 강홍립의 항복을 '고의적인 것'으로 여기는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김응하(金應河)를 현양(顯揚)하는 사업을 벌였다. 김응하는 원정군의 좌영장(左營將)으로 출전했다가 전사한 인물이었다.

후금군의 공격으로 진영이 함몰된 상황에서도 항복을 거부하고 싸우다가 순국한 용장이었다. 화살이 다 떨어지자 칼을 빼들고 적과 맞섰고,

오른손에 화살을 맞자 왼손으로 칼을 바꿔 잡고 끝까지 저항하여 후금군조차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광해군은 명나라 사신들이 의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에 김응하를 모시는 사당을 짓도록 했다. 또한 그의 전공(戰功)을 찬양하는 시집 '충렬록(忠烈錄)' 을 편찬했다. 편찬 이후 충렬록을 요동 지역까지 유포시켰다. 조선군 전체가 김응하처럼 용맹하게 싸웠다는 사실을 명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강홍립의 항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명의 재징병 요구를 거부하다

1619년 4월 이후, 명에서는 조선을 설득하여 후금을 치기 위한 원병을 다시 동원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명 조정은 조선에 누차 사신을 보내 병력의 지원을 다시 요청했다. 물론 그 명분으로 '재조지은에 대한 보답' 이 거듭 강조되었다. 오랑캐 하나를 제압하지 못하여 또 다른 '오랑캐' 조선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것은 분명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명은 체면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광해군의 입장은 단호했다. 더 **이상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광해군은 조선의 화기수들이 심하전역에서 대부분 전사했다는 것, 거듭된 흉년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재징병 거부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이 다시 군대를 보내면 누르하치는 의주까지 쳐들어 올 것이고, 의주에서 배를 이용하여 명의 전략 요충인 뤼순(旅順)을 공략할 것' 이라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그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조선은 평안도를 확실히 지키는 것이 최상이고, 그것이 궁극에는 명을 돕는 계책이라고 설파했다. 명의 재징병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광해군의 단호한 태도는 신료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광해군은 "나는 이미 출병 이전부터 패전을 예견했다." 고 상기시키고 자신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료들의 반발을 묵살했다. 그는 강홍립과 연락을 취하는 것을 비판하는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홍립으로부터 밀서(密書)를 전달받아 후금의 내부 정세를 파악했다.
신료들은, 강홍립의 투항 직후 후금이 보내온 국서를 소각하여 명으로부터 의심을 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해군은 국서에 속히 응답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들을 질타했다. '우리에게 털끝만큼도 믿을 만한 형세가 없는 처지에 고담준론(高談峻論)만으로 적을 제압할 수는 없다.' 고 강조했다. 대의(大義)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오랑캐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신료들이, 출병과 패전 때문에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음을 들어 궁궐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일축했다. '궁궐 공사를 중단하면 누르하치의 목이라도 베어올 수 있느냐?' 고 비아냥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자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병을 채근하여 패전을 초래했던 신료들에 대한 반감의 표시였다.
자신의 예측대로 맞아떨어진 심하전역 패전을 계기로 외교정책에 대한 광해군의 자신감은 커졌다. 명의 재징병 요청을 거부하고, 신료들의 궁궐 공사 중단 건의를 묵살했다.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부작용을 부르는 법이다. 이미 폐모논의 때문에 광해군을 삐딱하게 보고 있던 재야의 신료들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양단을 걸치는 광해군에 대한 반감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심하전역 이후, 외교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와중에 인조반정의 조짐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1623년(광해군 15) 3월13일 새벽, 광해군은 다급하게 창덕궁의 담을 넘었다. 내시의 등에 업힌 채 궁인 한 사람만을 대동한 초라한 몰골이었다. 자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반정군(反正軍)의 함성 소리를 뒤로하고 그는 안국방(安國坊)의 여염으로 숨어들었다. 궁궐 담을 넘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광해군' 이 되었고, '폐주(廢主)' , '혼군(昏君)' 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쫓겨난 임금' , '어리석은 임금' 이란 뜻이다.



▲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남아 있는 창의문(자하문).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폐주' 는 몸을 숨긴 지 하루도 못되어 체포되었다. 이윽고 강화도를 거쳐 제주도로 옮겨졌다. 유배지 제주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19년. 광해군이 '인생무상' , '권력무상 '을 곱씹어야 했던 그 시간,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역사도 요동쳤다.

●인조반정, 성공하다

광해군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1623년의 쿠데타를 보통 인조반정(仁祖反正)이라 부른다. '반정' 이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올바른 곳으로 돌아간다(發亂世反諸正)' 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광해군을 몰아내려는 모의는 162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이서(李曙), 신경진(申景), 구굉(具宏) 등 무신들이 먼저 발의하고 김류(金), 이귀(李貴), 최명길(崔鳴吉) 등 문신들을 끌어들이면서 급진전되었다. 신경진과 구굉은 모두 능양군(綾陽君 · 인조)의 인척들이고 김류와 이귀, 최명길 등은 광해군대 조정에서 쫓겨났던 서인(西人)의 명망가들이었다.

그들은 왜 정변을 기도했을까? '인조실록(仁祖實錄)' 은 '윤리와 기강이 무너져 종묘사직이 망해 가고 있었기 때문' 이라고 반정의 명분을 기록하고 있다.1613년 '은상(銀商) 살해 사건' 에서 비화된 계축옥사(癸丑獄事)를 통해 영창대군(永昌大君)이 살해되고, 곧 '폐모논의(廢母論議)' 가 일어났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폐모논의' 는, 그것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불효(不孝)의 극치' 이자 패륜으로 인식되어 광해군 정권에 치명타가 되었고, 반정 주도 세력에는 '거사' 를 정당화하는 절호의 명분이 되었다.



▲ 광해군의 폐위를 논의하고 칼을 씻었다는 세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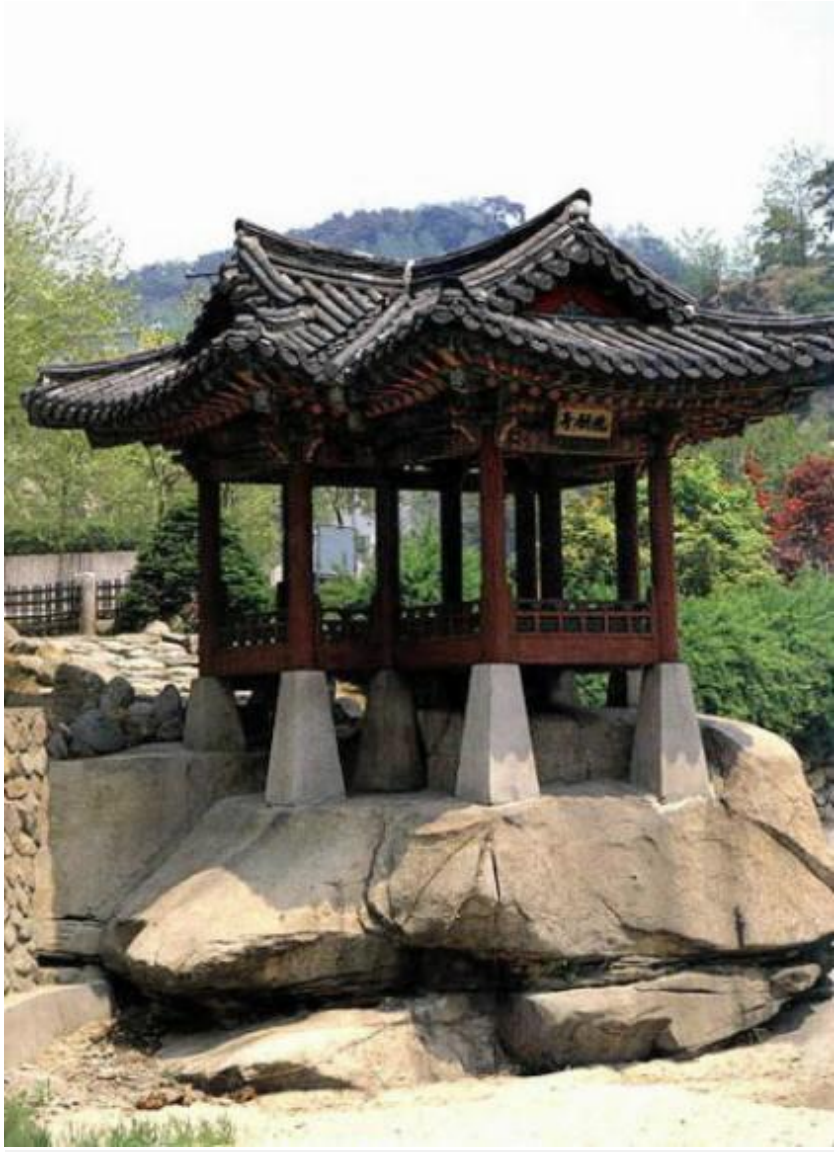
하지만 인조반정 주도세력들이 거사를 성공시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고변(告變) 때문에 거사 계획이 몇 차례나 누설되었지만 용케도 토벌을 피했다.1622년 가을, 평산부사(平山府使)로 임명된 이귀는 신경진과 함께 거사를 도모하려 했는데 기밀이 누설되었다. 체포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김자점(金自點)과 심기원(沈器遠) 등이 광해군의 후궁에게 청탁을 넣어 겨우 무마되었다.

1623년 3월의 거사 계획도 마찬가지였다. 거사 하루 전날인 3월12일, 북인(北人) 김신국(金藎國)은 자신이 입수한 서인들의 거사 계획을 정승 박승종(朴承宗)에게 알렸다. 곧바로 역모 관련자들을 심문하기 위한 추국청(推鞫廳)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관련자들을 잡아들이라는 왕명이 떨어지지 않았다. 추국청이 설치될 무렵, 광해군은 후궁들과 연회를 벌이려던 참이라 재가를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반정 주도 세력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운(天運)이었다. 이윽고 홍제원(弘濟院)에 집결했던 반정군은 3경 무렵 창의문(彰義門)을 깨부수고 창덕궁으로 들이닥쳤다.

●광해군, 폐위되다

인조반정의 거사를 이끌었던 반정군의 전력(戰力)은 사실 보잘것없었다. 병력은 1000여명에 불과했다. 그 가운데 장단부사(長湍府使) 이서가 이끄는 700명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이었다. 홍제원에 집결했던 군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유생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이었다. 무기를 잡아보거나 전투를 치른 적이 없는 그들이 기율이 있을 리 만무했다. '일사기문(逸史記聞)' 의 저자는, "웃고 떠들고 소란을 피워 제대로 통솔되지 않았다." 고 당시 상황을 적었다.



▲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 있는 세검정 정자.

반정군이 그나마 대오를 갖추고 기율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장 이괄(李适) 덕분이었다. 그는 당시 광해군에 의해 북병사(北兵使)에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려던 직전에 반란군에 가담했다. 이귀가 그의 장재(將才)를 알아보고 대장을 맡긴 것이었다. 이서 등 몇몇을 빼면 백면서생(白面書生)에 불과했던 반정군 지휘부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정군이, 광해군에 대한 경호를 책임지고 있던 훈련도감(訓鍊都監)의 정예병과 대적하기에는 무리였다.

하지만 반정군은 창덕궁으로 거의 무혈입성(無血入城)했고, 광해군은 반역세력에 대한 진압 한번 시도하지 못한 채 궁궐의 담을 넘어야 했다. 왜 그랬을까? 문제는 항상 내부로부터 불거져 나오기 마련이다. 즉위 말년의 광해군이나 그의 측근이었던 대북파(大北派)는 정치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었다. 대북파의 핵심인 이이첨은 정치적 반대파인 서인과 남인(南人)을 모두 축출한 이후 권력이 극도로 비대해졌다. 그는 대외정책에서 광해군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광해군 또한 권간(權奸)이 되어버린 그를 불신하고 견제했다.

광해군은 폐위되기 전 6년 동안 자신의 경호 책임자인 훈련대장을 11차례나 교체했다. 평균 1년에 두 차례나 바꾼 것이다. 제대로 믿을 만한 신료가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불신감의 표출이었다. 그 같은 상황에서 거사가 일어날 당시 훈련대장이었던 이흥립(李興立)은 반정군에게 포섭되었다. 광해군을 배신한 이흥립은 반정군이 창덕궁으로 난입하는 것을 방관했다.

광해군은 또한 말년에 김개똥(金介屎)이란 상궁을 총애했다. 그런데 그녀는 이귀, 김자점 등 반정 주도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귀가 역모를 꾀한다.' 는 투서가 수차례나 들어왔음에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비호 때문이었다. 말년의 광해군은 정치적 판단력에서 분명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폐위의 명분이 된 외교정책



▲ 조정에서 쫓겨난 이귀, 김류, 최명길 등 '서인' 명망가들은 광해군의 '폐모논의' 등을 명분으로 삼아 인조반정을 꾀했다. 사진은 이귀 영정.
서울육백년사 홈페이지

인조반정의 성공과 함께 인목대비(仁穆大妃)는 부활했다. 인조는 반정 성공 직후 덕수궁에 유폐되어 있던 그녀를 찾아뵙고 반정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대왕대비의 자격으로 인조에게 옥새를 넘기고 그의 즉위를 선언했다. 그로써 인조는 선조(宣祖)의 왕통을 잇는 계승자로 자리매김되었다. 이윽고 광해군이 끌려와 인목대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광해군에 대한 그녀의 원한은 처절했다. 인목대비는 "10여년 동안 유폐되어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오늘을 기다린 것"이라며 광해군의 목을 베려고 시도했다. 인조와 신하들은 '폐출된 임금이지만 신하들이 그에게 형륙(刑戮)을 가할 수는 없다.' 고 결사적으로 방어했다.3월14일,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죄악' 10가지를 제시하고 그를 폐위한다는 교서를 공식적으로 반포했다. 당연히 '폐모살제(廢母殺弟)' 가 먼저 언급되었다. '궁궐 공사를 대대적으로 일으켜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것', '선왕조의 구신(舊臣)들을 모두 쫓아낸 것', '뇌물로 인사를 단행하여 혼암(昏暗)한 자들이 조정에 넘치게 한 것' 등의 '악행' 들이 차례로 거론되었다.

인목대비는 이어 '외교 문제' 를 언급했다. '선조는 임진년의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잊지 못하여 죽을 때까지 명나라가 위치한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않았다. 광해는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으며, 심하전역 때는 전군을 오랑캐에게 투항시켰고, 황제가 칙서를 내려도 구원병을 파견하지 않아 예의의 나라인 조선을 오랑캐와 금수가 되게 만들었다.' 고 성토했다. 한마디로 '재조지은을 배신했기 때문에' 폐위한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광해군 시절의 대북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다. 이이첨, 정인홍 등 핵심 인물들은 대부분 처형되거나 조정으로부터 영구히 축출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거사가 성공한 당일, 인조가 도원수(都元帥) 한준겸(韓浚謙)에게 평안감사 박엽(朴燁)과 의주부윤(義州府尹) 정준(鄭遵)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점이다. 박엽과 정준은 서쪽 관방(關防)인 의주와 평양에 머물면서, 광해군의 지시대로 명 및 후금과의 외교 교섭을 전담하고 있던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처형한 것은, 향후 인조정권의 대외정책이 바뀔 것임을 암시하는 조처였다. 바야흐로 인조반정의 성공과 함께 조선과 명, 조선과 후금의 관계 또한 격렬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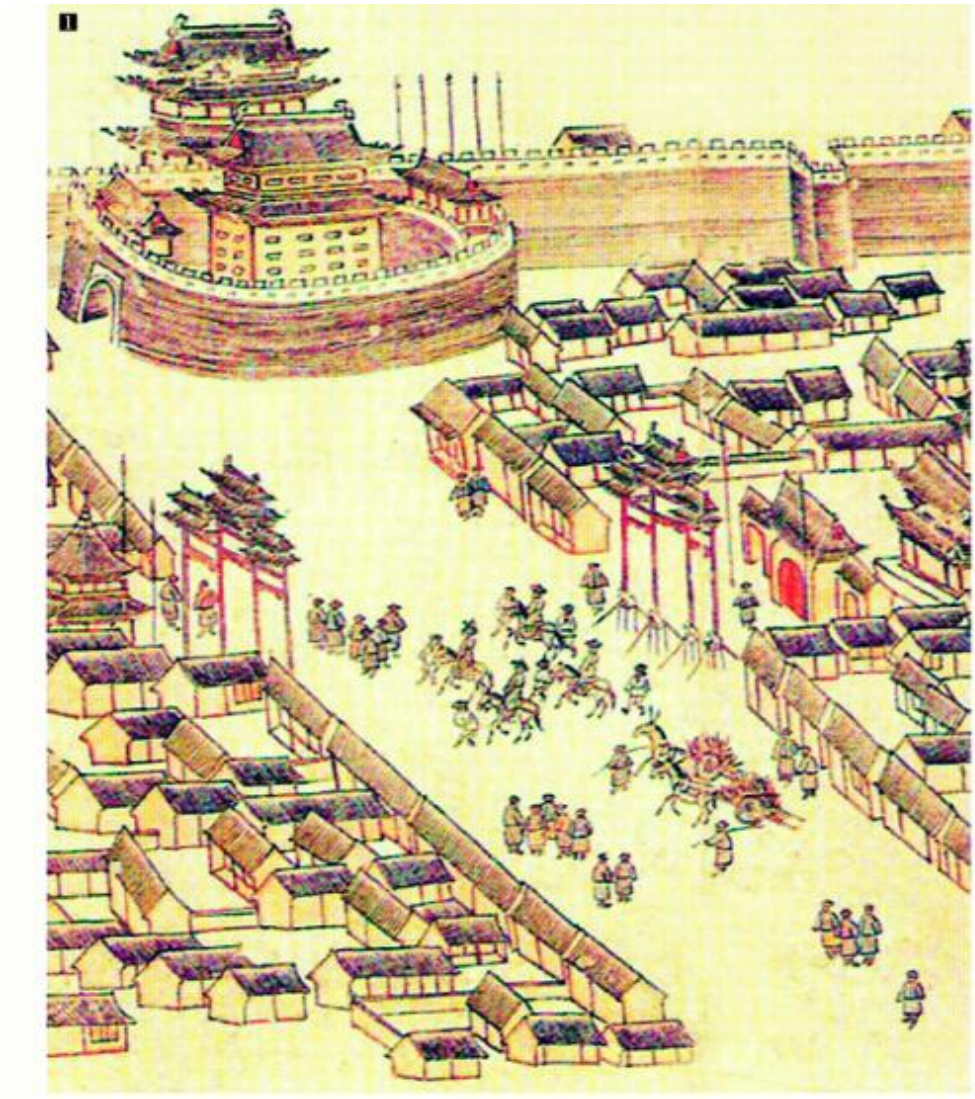
[병자호란] (8) 인조반정의 외교적 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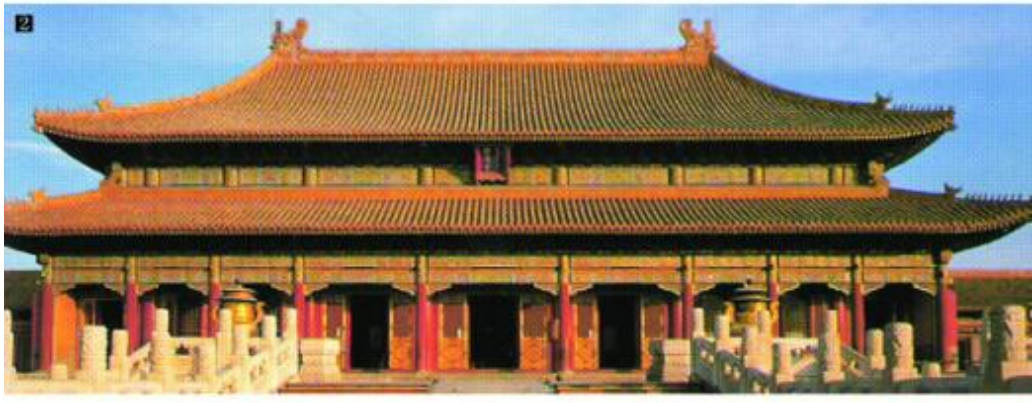
2013.01.27 22:24

인조반정의 외교적 파장 I

인조반정의 발생과 성공은 대외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조선에서 정변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는 소식에 명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당시 후금의 군사적 압박에 밀려 수세에 처해 있던 명에 조선은 가장 중요한 번방(藩邦)이었기 때문이다.

명은 조선을 이용하여 후금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 들어선 인조 정권이 자신들의 대후금(對後金) 정책에 순응할 것인지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명은 조선의 정국(政局) 향배를 주시하는 한편 조선의 새 정권을 '길들이기' 위한 묘책을 마련하려고 부심했다.





●원가립의 ‘찬탈(簒奪)’ 인식

정변을 통해 집권에 성공했던 인조와 서인 반정공신(反正功臣)들 또한 명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조선의 ‘상국’으로 군림해 온 명으로부터 자신들의 집권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 시급했다. 광해군이 비록 ‘폐모살제’ 등의 패륜 행위를 자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하 된 처지에 쿠데타를 일으켜 임금을 폐위시킨 행위 또한 명분적으로



쉽게 정당화될 수 없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거사와 집권을 정당화하고, 이후의 통치를 원활히 하려면 명의 인정이 절실했다.

1623년(인조 1) 4월26일, 반정이 일어난 사실을 명 조정에 알리고 인조의 즉위를 승인받기 위한 사절단이 서울을 출발했다. 주청사(奏請使) 일행은 정사(正使) 이경전(李慶全), 부사(副使) 윤훤(尹暄), 서장관(書狀官) 이민성(李民宬)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5월22일, 평안도 철산(鐵山)의 선사포(宣沙浦)에서 명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당시 요동의 대부분이 후금에 점령되었던 상황에서 조선에서 명으로 이어지는 육로는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일행은 선사포 맞은편의 가도를 거쳐, 요동반도의 연안을 따라 항해하여 산동반도(山東半島)에 상륙하는 해로를 이용했다.

1 조선 후기 조선의 사신이 중국 북경으로 가던 모습을 그린 연행도(燕行圖). 숭실대 박물관

2 조선의 주청사 일행은 북경에 도착, 명 조정이 광해군 폐위에 대해 질책하자 당황했다. 사진은 명나라 역대 황제들의 침실로 이용된 자금성 건청궁.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3 반정 직후 인조의 즉위를 승인받기 위해 명으로 떠난 사신은 후금이 이미 육로를 모두 점령한 상태여서 평안도 철산부에서 배를 타고 산동반도로 향했다. 평안도 철산부의 선사포와 가도 지도. 서울대 규장각

주청사 일행은 산동반도에 상륙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괜찮았다. 도중에 들렀던 섬에서 만난 명군 지휘관들이 인조반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광록도(廣鹿島)에서 만난 이씨 성을 지닌 지휘관은, 조선의 새 정권이 의주부윤 정준(鄭遵)을 처형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주청사 일행에게 '정준이 전적으로 오랑캐(후금) 편으로 기울었다.' 고 지적했다.

6월13일, 일행이 산동반도의 등주(登州)에 도착하면서부터 명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산동성의 지방장관인 순무(巡撫) 원가립(袁可立)은 주청사 일행을 힐문했다. 그는 '무슨 이유로 광해군을 함부로 폐위했냐?' 고 힐문했다. 원가립은 조선에서 일어난 정변의 성격을 '찬탈' 로 인식하고 있었다.

당연히 '반정' 으로 인정해 줄 것으로 믿었던 명의 고위 신료가 '찬탈' 이라는 평가를 내리자 주청사 일행은 경악했다. '찬탈' 로 평가하는 한 주청사 일행은 '난신적자(亂臣賊子)의 앞잡이' 로 매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북경의 험악한 분위기

북경에 도착하여 목도한 명 조정의 분위기는 훨씬 싸늘하고 심각했다. 주청사 일행은 명의 예부(禮部)에 나아가 반정의 전말을 설명하고 인조의 즉위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정문(呈文)을 제출했다.

당시 명 조정 주변에는 조선의 정변과 관련하여 '경악할 만한' 풍문이 돌고 있었다. '조선의 반정세력은 거사가 일어난 당일 궁궐에 불을 질러 광해군을 살해했고, 일본군 3000명까지 끌어들였다.' 는 것이 골자였다. 사신들을 면대했던 병부우시랑(兵部右侍郞-국방 차관)은 "광해군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고 힐문한 뒤, '무슨 이유로 먼저 명 조정에 알리지도 않고 함부로 폐위했냐.' 고 다그쳤다.

주청사 일행은 난감했다. 그 같은 험악한 분위기에서 인조의 즉위를 승인받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명 조정은 왜 인조반정을 '찬탈' 로 인식하고 주청사 일행을 다그쳤을까. 그와 관련해서는 반정 소식이 알려

진 직후, 절강도어사(浙江都御史) 팽곤화(彭鯤化)가 명 조정에 올린 상소의 내용이 주목된다. 그는 상소에서 '광해군은 십수년 동안 명에 충순(忠順)했고 별다른 과오가 없었다.' 고 평가하고, '그런 그를 하루아침에 쫓아낸 불충한 자들이 명을 도울 리가 있냐?' 고 반문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명 조정의 신료들이 대체로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광해군이 보여주었던 절묘한 외교적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1618년 명이 후금을 치는 데 동참하라고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군대를 보냈던 것은 명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심하 전역' 이후, 광해군은 명의 재징병 요구를 실제적으로는 거부하면서도 명의 힐책을 피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광해군은 '외교는 때로 사술(詐術)을 피하지 않는다.' 는 지론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는 그 같은 지론과 수완을 통해 적어도 명 조정으로부터 '충순하다.' 는 평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명 조정이 광해군의 폐위 소식을 접했을 때 당황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명, 조선을 길들이려 하다

명 조정의 신료들 가운데서는 인조반정을 '찬탈' 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조선의 난신적자들을 토벌하고 광해군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이는 강경파까지 나타났다. 예과도급사중(禮科都給事中) 성명추(成明樞) 같은 이가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명 조정의 가장 큰 관심은 조선의 새 정권을 '길들여' 그들을 후금과의 대결 구도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었다. 그러려면 조선의 정정(政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실제로 명의 신료 가운데는 휘하의 인물을 장사꾼으로 가장하여 조선에 들여보내 정세를 정탐하는 자도 있었다.

조선의 주청사 일행도, 이이제이(以夷制夷)를 위해 조선을 활용하려 했던 명의 속내를 정확히 읽었다.1623년 9월께까지도 명 조정이 인조를 승인해 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주청사 일행은 새로운 '카드' 를 빼어들었다. '조선은 후금과 대치하고 있고, 명의 원수(怨讐)인 그들을 토벌하려는 강한 의지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인조의 책봉이 늦어져서 그들을 토벌하려는 명령 등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효과는 당장 나타났다. 명 조정에서는 조선을 다독거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위기가 점차 높아갔다. 각로(閣老) 가운데 한 사람인 손승종(孫承宗)은 '조선 문제를 섣불리 처리하지 말고 형세를 보아 명에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선의 난신적자들을 토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금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조선에 대해 '종주국' 을 자처하는 명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승인도 받지 않고 국왕을 갈아치운 반정세력의 행위는 명분적으로 분명 커다란 하자였다. 하지만 조선의 새 정권이 지닌 '명분적 약점' 을 적절히 활용하면 조선을 확실히 후금과의 대결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했던 명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인물은 호부시랑(戶部侍郞) 필자엄(畢自嚴)이었다. 그는 희종(熹宗)에게 올린 상소에서 인조반정을 '불법 행위' 라고 분명히 정의했다. 그러면서 인조에게 스스로의 '허물' 을 거듭 인정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후금을 토벌하게 한 뒤에야 그를 국왕으로 책봉하자고 주장했다. 그것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하려는 절묘한 방책이었다. 필자엄의 상소 이후 명 조정에서는 인조정권의 명분적 약점('찬탈' 행위)을 이용하여 조선을 후금과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그것은 향후 조선과 후금 사이에 긴장이 높아질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인조반정은 이렇게 명청교체기(明淸交替期) 동아시아 정세에 미묘한 파장을 몰고 왔다.

인조반정을 ‘찬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조선을 후금과의 대결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절실했던 명은 고민을 거듭했다. ‘찬탈’을 자행한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을 응징하여 상국으로서 명분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미 바뀌어버린 조선의 현실을 수용하여 실리를 택할 것인가? 인조와 반정공신들 또한 초조했다. 반정 직후 명에 보낸 주문(奏文) 속에서 ‘광해군이 명에 대한 사대(事大)를 소홀히 하고 배은망덕했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명 조정이 ‘찬탈’을 운운하자 그들은 바짝 긴장했다. 명 조정이 만일 ‘명분’을 선택하여 인조에 대한 책봉을 거부할 경우, 집권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좌초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모문룡은 명 조정이 인조를 승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모문룡은 진강을 점령하는가 하면 휘하를 이끌고 의주, 철산 등을 옮겨다니며 ‘요동 수복’을 꾀했다. 사진은 의주성 남문.

●명, 실리를 택하다

‘조선 사태’에 대한 처리 방향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던 명 조정은 절충안을 내놓았다.1623년 8월 명의 예부상서(禮部尙書) 임요유(林堯兪)는, 신료를 파견하여 조선 신민(臣民)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인조에 대한 책봉 여부를 결정하자고 건의했다. 여론 조사를 통해 ‘명에 대한 광해군의 배은 망덕’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인조반정을 ‘찬탈’로 규정하여 성토하자고 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고 인조가 명에 협조하여 후금과의 싸움에 앞장서겠다는 자세를 보일 경우, ‘찬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명 조정은, 당시 가도(島)에 주둔하고 있던 모문룡(毛文龍)의 부하 진계성(陳繼盛)을 서울로 들여보냈다. 진계성은 조선에서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광정(李光庭)을 비롯한 831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일제 점령 시기의 단둥 시가지 모습. '만주고사진첩'(일본 신인물왕래사刊)

진계성이 면담한 사람들의 의견은 거의 한결 같았다. 그들은 '1619년 심하전역에서 유정(劉綎) 등이 전사하고 명군이 패한 것은 조선군이 후금군에게 군사 기밀을 누설했기 때문'이고, '광해군은 후금과 화친했다.'고 진술했다.

또 '광해군이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 명 사신들을 숙소에 억류하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반정 당일 일본군을 끌어들이고 궁궐에 방화했다.'는 소문은 유언비어임을 지적하고, 인조의 인품이 훌륭하고, 광해군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예부상서 임요유는 1623년 12월8일 황제에게, 인조를 승인하여 책봉하자는 내용으로 상주(上奏)했다. 그는 진계성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광해군의 배은망덕'과 인조의 '충순'을 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일단 인조를 국왕으로 인정하되 그가 모문룡과 합세하여 후금을 공격하여 공적이 드러난 뒤에 정식으로 책봉하자고 주청했다. 말하자면 '조건부 책봉'이었다. 후금의 도전 때문에 곤경에 처한 명의 현실을 고려하여 명분이 아닌 실리를 택한 것이다. 그런데 그 실리의 크기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모문룡, 인조반정을 찬양하다

비록 '조건부 책봉'이지만 인조가 명으로부터 조선 국왕으로 인정받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은 모문룡이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의 부하 진계성이 서울에 들어가 '조선 사태'의 전말을 조사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주청사 일행이 가도에 들렀을 때 모문룡은 반정의 발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명 조정에 보낸 주문에서도 인조를 책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으로 연결되는 육로가 끊어진 상황에서, 조선과 가장 가까운 가도에 머물던 모문룡의 의견은 명 조정이 인조를 승인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모문룡은 무슨 까닭으로 인조반정을 긍정하고 인조를 책봉하자고 했을까?

모문룡의 존재는 1620년대 조선과 명, 조선과 후금, 명과 후금 사이의 관계를 결정했던 '아킬레스건'이었다. 한마디로 모문룡 때문에 조선과 후금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궁극에는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그는 달리 말하면 '시한폭탄'이었던 셈이다.

모문룡은 1621년(광해군 13년) 7월,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요동으로 잠입하여 진강(鎭江)을 탈취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의 의주를 마주보고 있는 진강-오늘날의 단둥(丹東) 부근-은 전략 요충이었다. 육로를 통해 선양 등 만주 내륙으로, 수로를 통해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등지로 연결될 수 있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모문룡의 진강 점령은 명과 후금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1618년 푸순성이 함락된 이후 명군은 후금군에 연전연패했다. 승전보에 목말랐던 명은 모문룡의 진강 점령을 기첩(奇捷)이라 불렀다. 마치 요동 전체를 수복이라도 한 것처럼 고무되었다. 후금은 자신들의 안마당에서 허를 찔린 것에 격앙되었다. 후금은 곧 대병을 동원하여 반격에 나섰다.

모문룡은 도주하여 조선의 미곶(彌串)으로 상륙했다. 그가 상륙했다는 보고가 날아들었을 때 광해군은 경악했다. 광해군은 모문룡이 조선과 후금 관계에서 화근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예상대로 모문룡은 휘하를 이끌고 철산(鐵山), 용천(龍川), 의주(義州) 등지를 옮겨다니며 "요동을 수복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때로는 압록강 너머의 만주 지역으로 포를 쏴대며 후금군을 자극했다. 모문룡 때문에 후금군의 침략을 받을 판이었다.

실제 1621년 12월, 후금군은 모문룡을 처치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와 의주와 용천을 기습했다. 모문룡은 조선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탈출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다. 그의 휘하 578명이 피살되었다. 그가 '화근'임을 분명히 입증한 사건이었다.

광해군은 이후 모문룡을 설득하여 철산 앞 바다에 있는 가도로 들어가게 했다. 그가 육지에 있는 한 후금군의 침략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문룡이 가도로 들어간 뒤에는 가능한 한 그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다. 모문룡은 가도에 동강진(東江鎭)이라는 군사 거점을 마련했다. 거점을 유지하기 위해 '군량 보급' 등 조선 조정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내밀었다. 광해군은 최소한만 수용할 뿐 그에 대한 지원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후금과 사단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모문룡이 광해군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했다.

●인조정권, 모문룡에게 코가 꿰이다

명은 모문룡을 높이 평가했다. 그가 가도로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명 조정은 가도의 동강진을 후금의 서진(西進)을 견제하는 거점으로 활용하려 했다. 그러려면 가도에 대한 군량과 군수 물자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했다.

당시 천진(天津)이나 산동에서 가도로 가는 해로가 있었지만 거리가 만만치 않은 데다 파도가 험악 했다. 자연히 명은 조선의 도움을 받고 싶어했다. 하지만 광해군은 모문룡에 대한 지원을 기꺼워하지 않았다. 열 받은 모문룡이나 명 조정이 조선을 손봐주고 싶어도 육로가 끊어진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차에 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집권했다. 모문룡은 신이 날 수밖에 없었다. '책봉승인'에 목을 맨 주청사 일행에게 인조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공짜란 없는 법이다. 모문룡은 명 조정이 인조를 승인하도록 애써주는 대가로 가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 했다. 그는 반정이 성공한 직후 부하 응시태(應時泰)를 서울로 보내 사정을 탐색했다. 인조는 응시태를 접견한 자리에서 '광해군이 명의 은혜를 망각하고 모문룡의 지원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문룡과 합심하여 이 오랑캐들을 소탕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문룡의 입장에서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였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조 스스로 광해군을 성토하고 자신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었다. 모문룡으로서는 표정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의 새 정권은 반정에 대한 명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모문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마다 엄청난 양의 양곡을 가도로 보냈다. 가도에 머물던 명의 난민들이 수시로 평안도 지역으로 상륙하는 것도 묵인했다. 자연히 후금과의 군사적 긴장은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인조는 자신의 집권을 승인 받는 대가로 모문룡이라는 '시한폭탄'을 끌어안았던 것이다.

명 조정이 인조반정을 '찬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조선의 새 정권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 자신들이 처한 수세(守勢)를 염두에 둔 결단이었다. 명 조정은 마치 '모문룡의 은혜' 때문에 인조를 책봉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인조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모문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함으로써 조선으로 하여금 모문룡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지원에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현재의 양화진(절두산 성지).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後金과의 대결 열기가 고조되다

모문룡 또한 선수를 쳤다. 그는 1623년 4월, 서울로 사람을 보내 인조에게 망의(衣)와 옥대(玉帶)를 선물했다. 그것은 모두 국왕을 상징하는 물품이었다. 당시는 명 조정이 아직 인조를 책봉하기로 결정하기 한참 전이었다. 인조에게는 분명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 고무되었던 것일까? 인조는 명나라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명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 모문룡이 보낸 응시태(應時泰), 시가달(時家達)은 물론 명 조정이 파견한 맹양지(孟養志)를 접견했을 때, 후금에 대한 적개심을 피력하고 장차 있을 명의 정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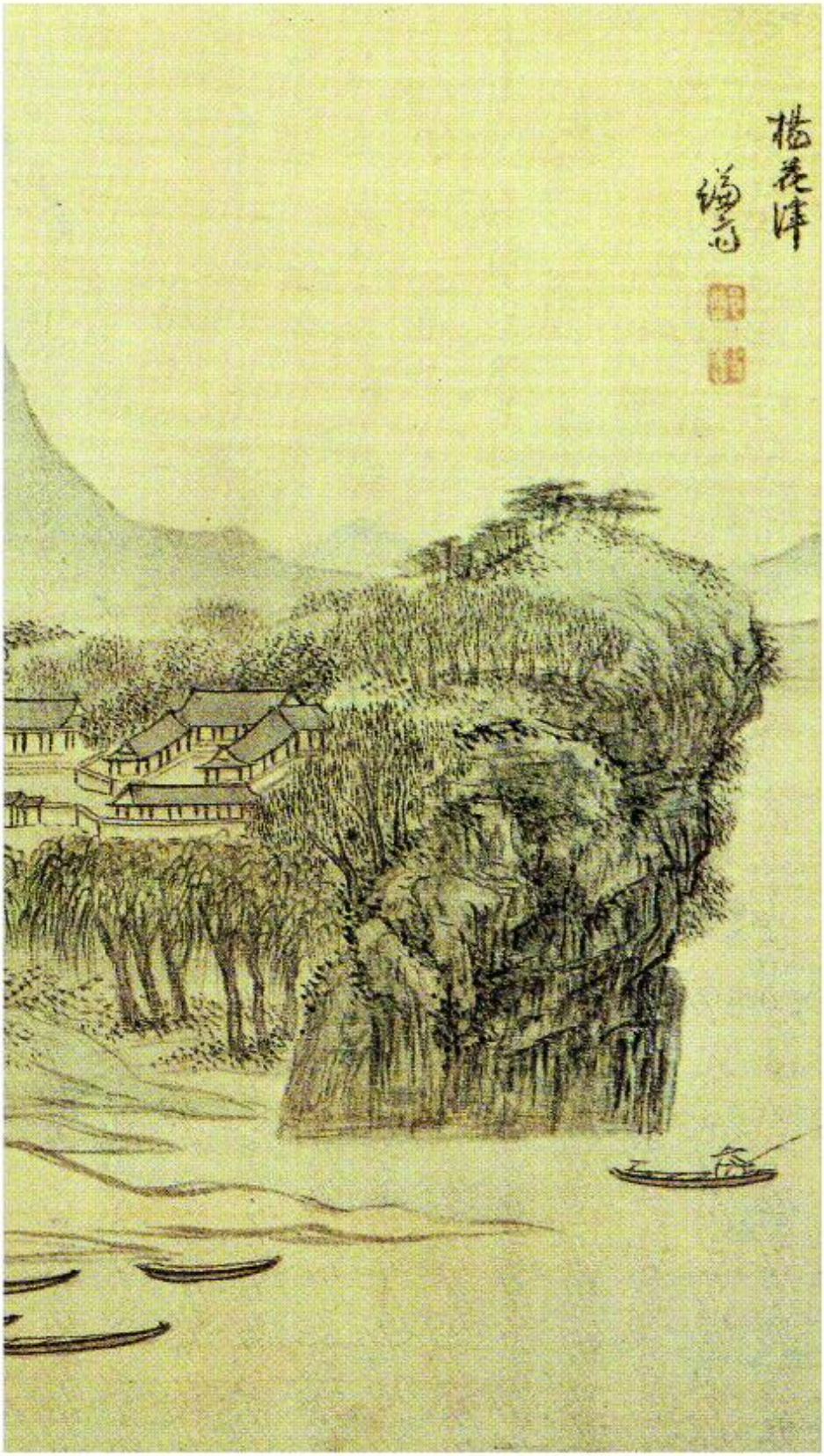
신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은 '백성들이 군신(君臣)의 대의는 잘 몰라도 임진년에 명나라가 베푼 재조지은(再造之恩)에는 감격하고 있다.' 면서 후금을 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반정공신 이귀(李貴)는 한술 더 떴다. 그는 "모문룡과 합세해야만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 고 한 뒤, 자신이 직접 가도(島)로 가겠다고 나섰다. 모문룡을 감동시키고 서울로 초청하여 인조와 만나도록 주선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친명(親明)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던 상황과 맞물려 후금에 대한 적개심과 자신감은 고조되었다. 인조는 서북변의 방어를 책임질 도원수(都元帥)에 무장 장만(張晩)을 임명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장만은 선봉을 이끌고, 자신은 뒤에서 3군을 거느리고 후금에 대한 친정(親征)에 나서겠다.' 고 다짐했다.

1623년 4월24일, 도원수 장만이 임지인 안주(安州)를 향해 출발하는 날이었다. 인조는 모화관(慕華館)까지 거둥하여 그를 환송했다. 당시 인조는 융복(戎服) 차림이었다. 모화관에는 조정의 백관들과 종실(宗室)들까지 모두 도열해 있었다. 인조는 장만에게 상방검(尙方劍)을 하사했다. "명령을 어기는 자는 이것으로 처치하라." 는 주문도 빠뜨리지 않았다. 인조반정 성공 직후, 명을 도와 후금을 정벌하겠다는 조선의 의지만큼은 결연했다.

이윽고 6월1일, 명의 등래순무(登萊巡撫) 손원화(孫元化)는 군사 원조를 요청하는 자문(咨文)을 보내 왔다. 비변사는 "우리는 지금 군사를 징발하고 양식을 마련해 군문(軍門)의 영을 기다리고 있다." 며 "모문룡과 합세해 요동을 회복하겠다." 는 내용으로 답신을 보냈다.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광해군이 취했던 애매한 태도와는 영 딴판이었다.

이같은 조선의 태도에 고무되었는지 모문룡은 "조선과 합세해 요동을 정벌할 것" 이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흘리고 있었다.



한강 북안(北岸)에 있던 나루터 양화진. 조선 조정은 명 황제가 인조의 책봉례를 주관하기 위해 보낸 사신들을 접대하기 위해 이곳에 유람선을 대기시켜 놓기도 했다. 겸재 정선의 그림.

●책봉례 주관 明환관 은 13만냥 뺏어

조선에서 후금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가고 있던 1625년 6월, 명의 태감(太監) 왕민정(王敏政)과 호양보(胡良輔)가 서울로 들어왔다. 명 조정이 인조를 조선 국왕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책봉례(冊封禮)를 주관하기 위해서였다. 조선 새 정권의 숙원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모두 환관(宦官)이었던 왕민정과 호양보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조선에 왔다.1624년 2월, 명 조정이 인조를 책봉하기로 결정했을 무렵부터 명의 환관들은 입맛을 다셨다. 조선으로 서로 가겠다고 다투었다. 두 사람이 선발된 것은, 당시 명의 실권자나 마찬가지였던 환관 위충현(魏忠賢)에게 수만 냥의 은을 뇌물로 바쳤기 때문이었다.

명의 천계(天啓) 황제는 두 사람에게 은 3000냥을 여비로 하사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은을 징색하여 원한을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본전을 뽑으려고' 덤볐다. 왕민정 등은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매일 1만 냥씩의 은을 달라고 요구했다. 조선 조정이 접대를 위해 준비한 한강 유람 등의 일정도 거부했다. 오로지 은이었다. 조정은 그들을 위해 양화진(楊花津) 등지에 선박을 미리 대기시켜 놓았다. 그들이 유람을 거부하자 배를 강제로 차출당했던 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이들이 은 5000냥으로 인삼 500근을 구입해 달라고 하자 호조판서 심열(沈悅)은 개성부(開城府)로 하여금 바꾸어 주게 하였다. 개성 유수(留守) 민성징(閔聖徵)은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국 가호(家戶)마다 강제로 징수했다.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체포되었고, 그 때문에 개성부의 옥이 가득 찼다. 독촉과 닦달 때문에 결국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였다. 왕민정 등은 인삼을 얻은 뒤에는 지불했던 은을 유유히 회수했다.

조선 조정은 접대를 위해 은 13만 냥을 준비했다. 조선 내부의 은만으로는 모자라 모문룡에게 빌린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13만 냥이란 액수는 광해군대 조선에 왔던 환관들이 수탈했던 양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다. 조선 조정은 무리인 줄을 알면서도 왕민정 등의 요구를 들어주었다.2년 가까이나 끌어왔던 책봉을 마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광해군대의 '과거'를 비판했지만 인조정권 역시 명의 태감들이 자행한 수탈을 피해 가지는 못했던 것이다.

●지워지지 않은 '흔적'

왕민정 등이 와서 책봉례를 거행함으로써 인조는 공식적으로 '조선 국왕'이 되었다. 인조와 새 정권은 이제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명 조정 일각에서는 여전히 인조를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존재했다.1627년(인조 5) 명의 예부상서는 북경에 왔던 조선 사신 일행에게 미묘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광해군의 생존 여부와 인조가 조선 팔도를 확실하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당황한 조선 사신 **김지수**(金地粹)는 인조가 조선 내에서 만인의 추대를 받았다는 것과 명 조정으로부터 정식으로 책봉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환기시켜야 했다.

인조반정을 삐딱하게 보는 명의 태도는 역사서 속에도 흔적을 남겼다.1623년 조선에서 정변이 일어났음을 기록했던 명의 '희종실록(熹宗實錄)'과 사찬(私撰) 사서(史書)인 '양조종신록(兩朝從信錄)'에는 여전히 인조반정을 '찬탈'로 기록하고 있었다. 조선 조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인지했다.

병자호란 직전 북경에 갔다가 우연히 '양조종신록'을 구입한 고용후(高用厚)는 '찬탈이라는 기사를 보는 순간 머리털이 거꾸로 서고 간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이후 조선 조정은 명 조정을 상대로 교섭하여 '찬탈'이라는 용어를 제거하려 했으나 1644년 명이 멸망하면서 무산되었다.

'찬탈' 운운하는 기사를 고치는 것은 효종대 이후에도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인조의 뒤를 이은 역대 왕들은 전부 '난신적자'가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찬탈'이라고 적어 놓은 당사자인 명은 사라지고 없었다. 조선 조정은 하는 수 없이 청(淸)을 상대로 교섭에 나섰다. 그런데 그것은 그다지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에도 조선은 여전히 청을 '오랑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오랑캐'에게 명나라 시절에 만

들어진 ‘과거의 흔적’을 지워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청 또한 조선의 수정 요청에 그다지 기꺼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현종대 이후 역대 왕들은 대대로 청 조정에 변무사(辨誣使)를 보내 사정했고, ‘양조종신록’ 기사의 수정 작업은 영조 대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하지만 ‘희종실록’의 기사는 끝내 고치지 못했다.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 때문에 인조를 책봉하긴 했지만, 인조반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명의 이중적 태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

[병자호란] (9) 이괄의 난이 일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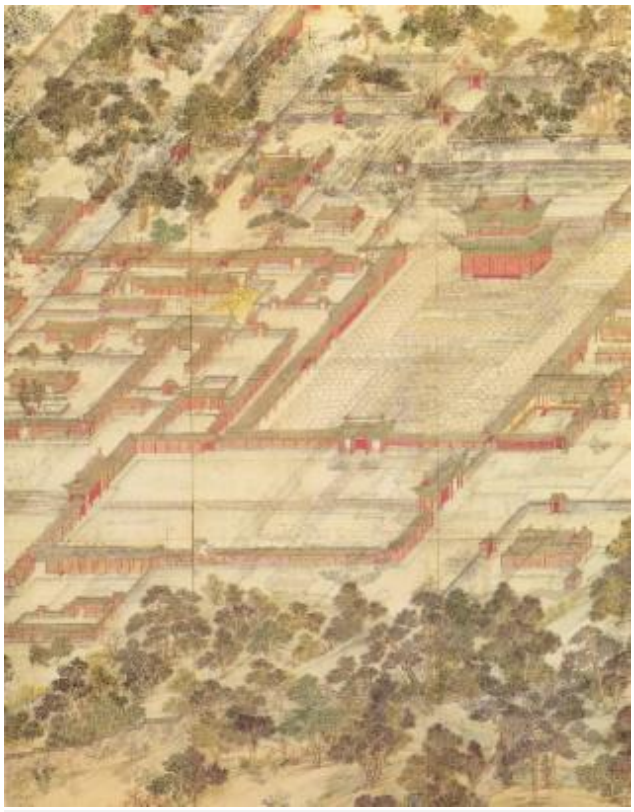
2013.01.27 22:28

이괄의 난이 일어나다 I

반정 직후 인조정권이 명에 대해 충성을 다짐했던 것과 맞물려 후금에 대한 적개심도 높아져 갔다. 인조와 신료들은 후금과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상하고 작전과 승패 향방을 자주 논의하곤 했다. 하지만 후금과의 군사적 대결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여의치 않았다. 우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은 정권 교체 이후 극히 불안해진 민심을 수습하는 문제였다.

●불안한 민심

예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뀌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더욱이 반정처럼 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무력을 동원한 쿠데타일 경우, 그 후유증은 결코 만만할 수 없었다.



▲ 인정전. 창덕궁의 중심 건물로 태종 연간에 창건된 이후 인조반정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 소용돌이의 중심이 됐다. 이래 창덕궁을 그린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동궐도(東闕圖 · 아래)에서도 오른쪽 상단에 인정전이 보인다.

인조정권은 대북파(大北派)를 비롯한 북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반정군은 창덕궁으로 진입했던 직후부터 '살생부' 에 올라 있던 인물들을 줄줄이 처형했다. 입궐하라는 명패(命牌)를 받고 가장 먼저 달려 왔던 병조참판 **박정길**(朴鼎吉)이 최초로 참수되었다. 이윽고 광해군 정권의 핵심이었던 이이첨과 정인홍을 비롯한 32명의

관인들이 복주(伏誅)되었다. 죽음을 겨우 면한 인사들도 대부분 멀리 유배되거나 조정으로부터 쫓겨났다. 복주된 자들의 '적산(賊産)'은 몰수되었다. 북인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북인 정권'이 몰락하면서 도성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죽음을 당하거나 관직을 잃은 자들뿐 아니라 하루아침에 실직하게 된 모리배들도 적지 않았다. 자연히 불평과 원망이 높아갔다. 살벌하고 뒤숭숭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날뛰는 자들이 출현했다. 무뢰배들 가운데 '인조 호위'를 핑계로 몰려 다니면서 재물 약탈에 재미를 붙이는 자들이 횡행했다. 유생들 가운데는 반정공신들의 종사관(從事官)이란 직함을 갖고 설치는 자들이 있었다. 바뀐 현실 속에서 상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반정공신들은 민심 수습을 꾀하는 한편 인조에 대한 호위를 강화했다. 특히 이귀의 노심초사가 컸다. 그는 무엇보다 '반혁명(反革命)'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우려했다. 그는 종실(宗室)들의 동향을 주시했다. 인조에게 흥안군(興安君)을 잘 감시하라고 강조하고, 능원군(綾原君)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고 보고했다. 흥안군은 인조의 숙부이고, 능원군은 동생이었다.1623년 7월29일, 우려했던 '반혁명'의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났다. 전 현령 유응형(柳應泂)이 역모가 일어났다고 고변(告變)했다. 관련자의 진술 가운데 '지금 반정한 사람들은 천명(天命)이 돌아간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했다. 그런데 금상(今上)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은 옳지 않으며, 조정의 사대부들이 하는 행위도 지난날과 다름이 없다. 우리들이 다시 거사하려 하는데, 성공하지 못해도 사육신(死六臣)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란 내용이 나왔다. 인조가 왕위에 오른 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되돌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8월25일에도,10월1일에도 고변이 터졌다.10월1일의 공초에서는 '지금 하는 짓은 광해군 때보다 더 심하고, 인사가 불공평하고 부역이 무거워 원망이 자자하다.'라는 진술이 나왔다.

● '정권 안보'를 위한 노심초사

불과 석 달 사이에 세 번이나 고변이 발생하자 인조와 반정공신들은 경악했다. '정권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다.

인조와 반정공신들은 기찰(譏察)을 강화했다. 기찰이란 '반혁명 세력'을 색출하려는 목적으로 감시와 사찰을 벌이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사찰 리스트'에 올랐다. 광해군때 벼슬에 있었다가 쫓겨난 인물들이 일차적인 대상이었다. 반정에 동조했던 남인(南人)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찰의 방식이 문제였다. 반정공신들은, 의심되는 인물에게 자기 휘하나 심복을 접근시켰다. 심복들은 '사찰 대상자'에게 반정 이후의 변화된 상황에 대해 불평을 늘어 놓거나 스스로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먼저 고백한다. '미끼'를 던지는 것이다. 대상자가 동조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그를 잡아다가 족치는 방식이었다. 한마디로 공작정치의 냄새가 짙었다.

기찰이 남긴 후유증은 컸다. 불신 풍조가 심해졌다. 병력을 거느리고 있는 무장들은 '감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을 사렸다. 훈련을 목적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려 해도 반정공신들이 보낸 밀정들의 감시를 의식해야만 했다. 자연히 군사 훈련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반정공신들은 휘하에 사병(私兵)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반정이 성공한 뒤에도 사병을 해산시키지 않았다. 민심이 불안하기 때문에 인조에 대한 호위(護衛)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런데 사병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군관(軍官)들의 폐해가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사실상 반정공신들의 개인적인 집사(執事)나 마찬가지였다. 호위를 명분으로, 반정공신들의 위세를 빌려 백성들에 대한 침학을 자행하기도 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급하는 급료는 국고에서 충당되고 있었다.

남인들은, 횡행하는 기찰과 군관들의 폐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당장 기찰을 중지하고, 군관들을 해산시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반정공신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반발하는 신료들에게 '반혁명 분자'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어렵게 잡은 정권이 또 다른 쿠데타에 의해 붕괴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괄이란 인물

잘 알려진 것처럼 인조정권은 1624년 이괄의 반란 때문에 전복될 뻔했다. 겨우 진압되긴 했지만 이괄의 반란군은 서울을 점령했고, 인조는 공주(公州)까지 쫓겨가는 수모를 겪었다. 반정에 참가하여 광해군 정권을 뒤엎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공신' 이괄이 '반란군의 수괴(首魁)'로 변신하게 되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반정을 성공시키던 당일뿐 아니라 성공했던 직후, 이괄은 인조에게 가장 믿음직한 무장이었다. 이괄 또한 인조에게

후금군을 방어하는 대책을 아뢰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권 보위에 나섰다.

인조는 이괄을 서북 변방으로 보내 후금 방어를 맡기려 했다. 그러자 이귀가 반대했다. 그는 '이괄을 서울에 남겨 의지 삼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괄에게 호위를 맡기자는 것이었다. 이괄은 1623년 5월, 좌포도대장(左捕盜大將)에 임명되었다.

포도대장 이괄은 5월27일, 군관들을 이끌고 전 부사(府使) 박진장(朴晋章)의 집에 난입했다. 박진장을 '반혁명 분자' 로 의심하여 기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괄의 군관들은 박진장을 끌고 나오면서 그의 노모까지 구타하는가 하면 집을 부수고 재물을 탈취했다. 적어도 1623년 5월까지 이괄은 인조 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변방의 정세가 수상해지자 인조는 8월16일, 이괄을 부원수(副元帥)로 임명하여 서변(西邊)으로 내려가게 했다. 인조가 송별을 위해 그를 접견했을 때, 이괄의 태도는 태연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인조에게 '신의 재주가 없는 것을 아시면서 변방의 중임을 맡기시니 은혜를 갚으려고 할 따름' 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적이 쳐들어 올 경우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 고 다짐까지 했다. 그의 휘하에는 1만 5000의 병력이 주어졌다.

녹훈(錄勳)이 문제였다. 이괄이 임지로 떠난 지 세 달 여가 지난 윤 10월18일, 인조는 김류와 이귀를 불러 반정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논의했다. 정사공신(靖社功臣) 53명을 선정했다.

1등 공신이 10명,2등이 15명,3등이 28명이었다. 김류와 이귀 등은 1등공신이 되고, 이괄은 2등공신 가운데 첫머리에 놓여졌다.

임지에서 소식을 접한 이괄은 불만스러웠다. 더욱이 서울에서는 '이괄의 아들이 반란을 꾀했다.' 는 소문까지 들려오고 있었다. 자신을 옹호했던 이귀가 '이괄을 속히 잡아들여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소식도 날아들었다. 이윽고 1624년 1월17일, 이괄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친 금부도사 일행을 살해하고 병력을 일으켰다. 인조정권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또 다른 쿠데타' 가 일어났던 것이다.

인조반정을 일으키던 당일, 대장 김류는 미적거렸다.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2경에 모이기로 했던 약속을 어겼고, 그가 나타나지 않자 반정군 진영은 동요했다. 바로 그 때 군사들을 다잡아 대오를 안정시킨 사람이 이괄이었다. 반정 성공 직후 '이괄이야말로 병조판서 감' 이라는 칭송이 있었지만 병조판서는커녕 궁벽진 변방으로 발령이 났다. 이등공신으로 녹훈하여 불만을 돋우더니 '역모를 꾀하고 있으니 잡아들여야 한다.' 는 소식까지 날아들었다. 이괄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것이다.



▲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피난 가 머물렀던 충남 공주 공산성(公山城).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괄군의 승승장구

자신을 잡아가려고 금부도사가 영변(寧邊)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이괄은 구성(龜城)에 있던 순변사(巡邊使) 한명련(韓明璉)을 시켜 자산(慈山)으로 출격하게 했다.

이윽고 금부도사와 선전관이 당도하자 그들을 난자한 뒤 불 속에 집어 던졌다. 이어 자신도 병력을 이끌고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괄은 안주를 우회했는데, 그곳에는 상관인 도원수 장만(張晩)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산에서 한명련의 부대와 합세했다. 당시 삼남에서 선발된 병력과 평안도 군병의 대부분이 이괄의 휘하에 있었다.1만이 넘는 대군이었다.

안주의 장만은 허를 찔린 셈이 되었다. 반란군을 정면에서 막지 못하고 뒤에서 추격해야 하는 형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반란군은 1월28일 상원(祥原)을 지나 2월1일에는 수안(遂安)으로 접어들었다. 황주(黃州)의 신교(新橋)에 이르렀을 때 정충신(鄭忠信)과 남이흥(南以興)이 이끄는 진압군이 막아섰다. 두 장수가 역순(逆順)의 도리를 내세워 반란군을 선무하자 이괄 진영에서는 동요가 일어났다. 하지만 선봉을 맡은 항왜(降倭)들이 칼을 휘두르며 돌격하자 진압군은 싸우지도 못하고 흩어지고 말았다.

항왜란 임진왜란 시기 조선에 귀순했던 일본군과 그 후예들을 말한다. 검술이 뛰어나고 조총을 잘 다루는 데다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하는 용맹한 자들이었다. 이괄 휘하에는 수백명의 항왜가 있었는데 그들이 선봉을 맡음으로써 반란군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인조와 조정은 당황했다. 내응을 우려하여 서울에 남아 있던 이괄의 인척들을 잡아들여 처형했다.2월6일에는 이괄의 장인 이방좌(李邦佐)를 참수했다. 이방좌는 이괄이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사위의 올해 운이 한 번 외치면 만인이 응답하는 형상이라 자신도 부원군(府院君)이 될 것' 이라 자랑했다고 한다.

관군은 평산(平山)의 마탄(馬灘)이란 곳에서 다시 막아섰지만 또 패하고 말았다. 방어사 이중로(李重老)가 전사하고 병사들은 대부분 항복하거나 도주했다. 이괄군은 이제 임진강까지 거칠 것이 없었다.

●仁祖, 파천길에 오르다

마탄의 패전 소식이 날아들었던 2월7일, 인조는 밤중에 신료들을 불러모았다. 대사간 정엽(鄭曄)이 서울을 버리고 파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좌우의 신료들은 서로 돌아만 볼 뿐 다른 말이 없었다. 대신들은 세자에게 분조(分朝)를 이끌게 하자고 건의했다. 이윽고 장유(張維)는 공주(公州)로 가자고 주장했다. 공산성(公山城)이 있는 데다 금강이 흐르고 있어 방어하기에 편리하다는 것이었다.

반정 성공 이후 맞이한 최대의 위기였다. 인조는 훈련대장 신경진(申景)에게 훈련도감의 병력을 이끌고 가서 적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신경진은 미적거리면서 명을 따르지 않았다. 당연히 군율로 다스려야 할 사안이었지만 인조는 그러지 못했다. 그가 인척인 데다 반정공신이었기 때문이다.

2월 8일 반란군이 임진강을 건넜다는 보고가 날아들었다. 이괄은 관군이 개성에서 저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항왜 수십명을 앞세워 개성을 우회하여 파주로 진격하게 했다. 파주에서 임진강의 방어를 맡고 있던 목사 박효립(朴孝立)은 이괄의 회유에 넘어갔고 병사들은 달아나버렸다.

밤에 인조는 궁궐을 나섰다. 숭례문에 이르렀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승지 홍서봉(洪瑞鳳)이 하인을 시켜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한강변 나루에 도착했지만 배가 없었다. 강 건너편에 몇 척의 배가 있었지만 사공을 불러도 오지 않았다.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무사 우상중(禹尙中)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는 헤엄쳐 건너가서 사공 한 사람을 베고 배를 저어 건너왔다. 곧 이어 전라병사 이경직(李景稷)도 배 한 척을 구해왔다. 배가 도착하자 수행원들이 서로 먼저 타려고 우르르 몰려들었다. 위기의 순간에는 임금의 존재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법이다. 이경직이 칼을 뽑아들고 위협하자 비로소 뒤로 물러섰다.

이윽고 인조가 배에 올랐지만 배는 한참 동안 강물 가운데 떠 있어야 했다. 인조를 경호할 군사들이 강 건너에 상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겨울 밤의 습기가 몹시 차가웠지만 황망한 와중에 장막도 준비하지 못했다. 인조가 탄 배가 강 가운데 이르렀을 때 도성 쪽에서는 불꽃이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난민들이 궁궐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이괄, 서울에 입성하다

인조의 피난길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반란군이 어가를 쫓아올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다.2월9일 아침, 인조 일행은 양재역(良才驛)에 도착했다. 유생 김이(金怡) 등이 콩죽을 쑤어 갖고 나와 인조를 마중했다. 김이는 이 때의 공으로 뒷날 의금부 도사(都使)에 임명되었다. 당시 인조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컸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2월9일 한밤중에야 인조 일행은 수원에 도착했다. 위기 상황에 몰리자 대신들은 응급책을 내놓았다. **이정구**(李廷龜)와 오윤겸(吳允謙)은 항왜들의 공격을 도무지 막아낼 수 없으니 동래의 왜관(倭館)에서 왜인 1000명을 빌려다가 적을 치자고 했다.

평소 품고 있던 일본에 대한 원한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인조도 동의했다. 즉석에서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경험이 있는 이경직을 청왜사(請倭使)로 임명했다.

이경직은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군을 요청하려면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나마나 시간이 지체될 것이고, 또 일본군이 대거 몰려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인조는 일본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없었던 일로 하라고 지시했다. 위기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해프닝이었다.

2월11일 피난 행렬은 직산(稷山)을 거쳐 천안에 도착했다. 천안까지 밀려왔음에도 도원수 장만으로부터는 이렇다 할 진압 소식이나 승전보가 전해지지 않았다. 더욱이 경기도 일원에서는 명령도 통하지 않았다. 호남에서 강화도로 이어지는 조운로(漕運路)를 탈취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터져나왔다. 인조는 급히 지방의 관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괄이 지방관을 임명하여 파견할지도 모르니 그들을 베어버리고 보고하라.' 는 내용이었다.

2월10일 이괄의 반란군은 마침내 서울에 입성했다. 반란군이 서울을 점령한 것은 조선시대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괄은 경복궁의 옛 터에 사령부를 설치했다. 이윽고 인조의 숙부인 흥안군(興安君)을 국왕으로 추대했다. 흥안군은 일찍이 이괄로부터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인조를 수행하다가 중간에 도주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이귀가 반정 성공 직후부터 '흥안군이 수상하니 감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진 셈이었다.

이괄이 승승장구 끝에 도성으로 들어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휘하로 몰려들었다. 수원부사 이흥립(李興立)도 그 안에 끼어 있었다.

한번 배신하면 계속 배신한다고 했던가? 인조반정이 일어나던 당일, 반정군이 창덕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관하여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그였다. 그런 그가 이제 다시 이괄에게 붙은 것이다. 이괄은 지인들을 끌어모아 조정을 꾸리기 시작했다. 반정 이후 세력을 잃거나 소외되었던 인물들이 모여들었다.

이 대목까지는 일단 이괄의 거사가 성공한 셈이었다. 인조 일행은 이미 서울을 버리고 떠났고, 진압군의 존재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1624년 2월, 조선에서는 또 다른 정권교체가 임박한 것처럼 보였다.

1624년 2월10일 이괄이 서울로 입성한 직후, 도원수 장만은 관군을 이끌고 서울을 향해 달렸다. 장만은 초조했다. 반란군에게 도성을 내주고 국왕으로 하여금 파천 길에 오르게 만든 일차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장만은 파주 혜음령(惠陰嶺)에 이르러 부원수 이수일(李守一)과 남이흥, 정충신 등 장수들을 불러모아 작전 회의를 열었다. 장만은 두 가지 계책을 제시했다. 서울로 달려가 결전을 벌이든가,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남쪽에서 원군이 오기를 기다려 세력을 키운 뒤 공격하자는 안이었다. 그는 사실 지구전을 생각하고 있었다.

●관군 승기 잡자 관망하던 민심 돌아서

정충신은 지구전에 반대했다. 그는 즉시 서울로 달려가 안현(鞍峴)을 장악하자고 주장했다. 높은 고개를 차지하여 진을 친다면 도성을 내리누르게 될 것이고, 관망하고 있는 도성 백성들도 관군 편으로 붙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반란군이 공격해와도 지형의 이점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만은 정충신의 계책을 받아들였다. 관군은 안현을 향해 내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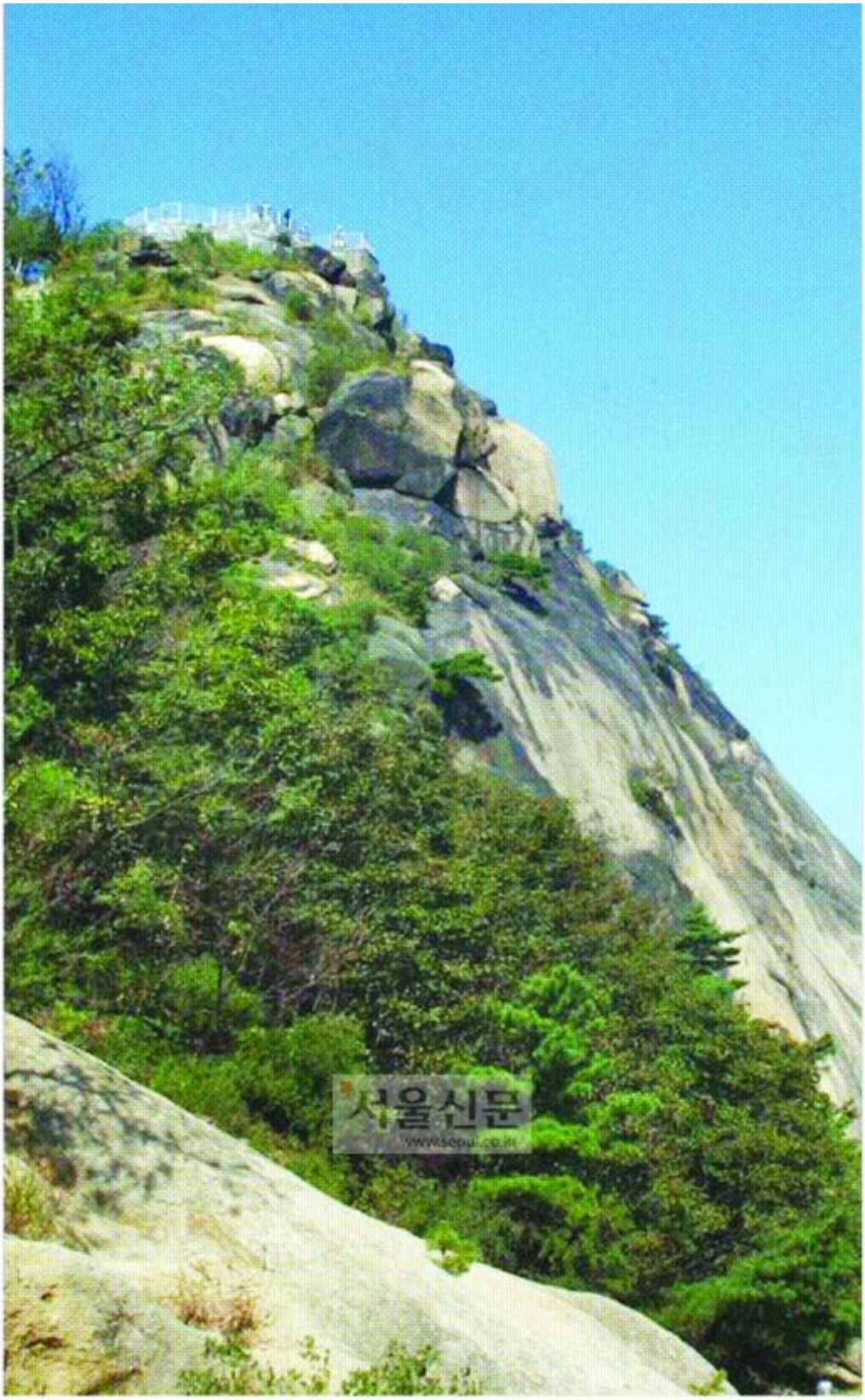


이괄이 패전병을 이끌고 빠져나간 서울 광희문(속칭 수구문).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정충신이 제일 먼저 연서역(延曙驛, 지금의 은평구 역촌동)을 통과하여 안현에 도착했다. 그는 정상으로 달려 올라가 봉수대를 지키는 병사를 생포했다. 정충신은 평상시의 봉화(烽火)를 올리도록 하여 이괄의 진영에서 안현이 탈취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이윽고 관군의 병력이 속속 안현으로 집결했다. 때마침 동풍이 크게 불어 이괄 진영은 관군이 안현으로 모여드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에야 이괄은 관군이 안현을 접수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느긋했다. 이미 승승장구해온 터라 관군을 가볍게 보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다. 이괄은 항왜들을 이끌고 연서역으로 나아가 장만을 생포하려는 계책을 세웠다. 한명련(韓明璉)은 도성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안현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둠으로써 민심을 얻어내자고 건의했다. 이괄의 반란군은 부대를 둘로 나눠 안현을 향해 진격했다. 한명련이 항왜 수십 명과 정예 포수를 이끌고 선봉에 서고, 이괄은 중군이 되어 싸움을 독려했다. 아침 6시쯤부터 격전이 벌어졌다. 도성의 백성들은 성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 두 진영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전황은 밑에서 위쪽으로 공격하는 반란군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화살과 총탄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 더욱이 장만 등은 도성을 내준 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도 분전했다. 오전 11시쯤까지 이어지던 싸움의 중간에 바람의 방향마저 바뀌었다. 반란군 쪽으로 서북풍이 불었다. 관군은 승기를 잡았다. 반란군 진영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많은 수가 안현을 향해 기어오르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다. 한명련도 화살에 맞은 뒤 퇴각했다.

전투 장면을 구경하던 도성 백성들은 반란군이 수세에 몰리자 돈의문(敦義門)과 서소문(西小門)을 닫아 버렸다. 관망하던 민심의 향배가 정해진 것이다. 퇴로가 막힌 반란군은 숭례문 쪽으로 향하거나 마포 서강(西江) 방면으로 도주했다. 여염으로 숨어 들어간 자들도 있었다.



이괄의 반란군이 패퇴한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안산(鞍山).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기익헌 등이 반란군 지휘부 9명 죽여

2월11일 밤 아홉시 무렵, 이괄과 한명련은 패잔병을 이끌고 수구문(水口門)을 통해 서울을 탈출했다. 다음날 새벽 삼전포(三田浦)를 경유하여 광주(廣州)까지 달아났다. 이괄은 광주목사 임회(林檜)를 살해하고 경안교(慶安橋)라는 곳에서 병력을 수습하려 했다.

12일 아침, 정충신 등이 병력을 이끌고 추격해 왔다. 안현에서 패한 이후 반란군은 이미 기세가 꺾였다. 얼마 되지 않는 관군의 공격에 변변하게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괄은 고작 60여명 정도의 기병만 거느리고 다시 이천(利川) 쪽으로 달아났다. 이괄을 따라가던 흥안군은 광주 소천(昭川) 쪽으로 도주했다.

관군 또한 지쳐서 추격을 멈추고 있을 때, 이괄의 진영에서 포수 한 사람이 도망쳐 왔다. 그는 반란군 내부에 이괄과 한명련의 목을 베려고 시도하는 자가 있다고 알려 주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자중지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튿날 새벽 정충신이 관군을 이끌고 이천 묵방리(墨坊里)에 당도했을 때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다. 반란군 가운데 기익헌(奇益獻) 등이 이미 이괄과 한명련 등 지휘부 아홉 명을 살해한 상태였다. 한명련의 아들과 조카만 간신히 달아나고 반란군은 궤멸되었다.

흥안군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여염으로 숨어들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서울로 압송되어 돈화문 앞에서 살해되었다. 한남원수(漢南元帥) 심기원(沈器遠)과 훈련대장 신경진(申景)이 '흥안군이 선조의 아들이고 인조의 숙부지만 참역(僭逆)에 가담했으니 아무나 죽일 수 있다.' 는 명분을 내세워 죽였던 것이다. 흥안군은 이괄에 의해 추대된 지 불과 4일 만에 몰락하고 말았다.

인조 일행은 안현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천안에서 들었다. 하지만 13일 새벽, 도주하던 적이 달려들 것을 우려하여 공주로 들어갔다.2월15일, 참수된 이괄의 머리가 공주에 도착했다. 인조와 신료들은 군용(軍容)을 벌여놓고 이괄의 수급(首級)을 받는 의식을 거행했다. 반정을 일으켜 어렵사리 잡은 권력을 1년이 채 못 되어 내놓을 뻔하다가 다시 잡는 순간이었다.

●난의 후유증

인조는 2월18일 공주를 출발하여 22일에 서울로 귀환했다. 난민들이 불을 질러 창경궁이 불탔기 때문에 인조는 경덕궁(慶德宮)으로 들어갔다. 도성은 엉망이었다. "모든 재물이 바닥나서 열흘 먹을 저축도 없는 상황" 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민심이 흉흉한 것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였다. 며칠 사이에 궁궐의 주인이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면서 처참한 살육전이 벌어졌다.

이미 파천하기 직전인 2월7일, 인조 정권은 옥에 갇혀 있던 정치범들을 즉결 처분했다. 광해군때 정승을 지냈던 기자헌(奇自獻)을 비롯하여 역모 가담 혐의를 받았던 37명의 목을 베었다. 이들은 의심은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데다 심문도 채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이원익이 "기자헌은 반역에 가담한 죄상이 없는 데다 폐모론에도 반대했다." 고 애써 변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반정공신들의 여유를 빼앗아 갔다.

격변의 와중에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백성들도 적지 않았다. 안현 싸움에서 패한 이괄군이 도주하기 전에 80여 명을 학살했고, 관군이 서울을 접수하면서 다시 처참한 학살이 빚어졌다. 좌의정 윤방(尹昉)은 인조에게 '적에게 붙었던 백성 가운데 자신이 처단한 사람만 200명' 이라고 보고했다. 백성들 가운데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여 '반란군의 머리' 라면서 수급을 가져다 바치는 자들이 있었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이괄이 도성을 점령했던 동안 서울의 민심은 인조정권에 몹시 적대적이었다. 백성들은 이괄군을 맞이하고, 창경궁에 불을 지르고, 내탕(內帑)을 훔치고, 반정공신들의 저택을 점거했다. 인조반정 성공 직후 자살한 박승종(朴承宗) 집안의 노비들은, 대가가 서울을 나가자마자 반정공신 김류의 집을 접수했다. 박승종의 며느리는, 역시 공신 가운데 실세였던 이귀의 집에 들이닥쳐 문을 봉해버렸다. 반정 직후 김류가 박승종의 저택을, 이귀가 박승종의 아들 박자흥(朴自興)의 저택을 차지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인조가 환도한 뒤 또 다른 보복이 자행되었다. 서울을 비운 사이에 피해를 당한 관인이나 사대부들은 환도하자마자 의심나는 대상자들을 포도청에 고발했다. 그 때문에 '포도청의 감옥이 가득 찼다.' 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아예 직접 대상자들의 집으로 쳐들어가 재물을 약탈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괄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인조정권은 여러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논공행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괄로 하여금 거병하게 만든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였다.

후금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와중에 내란을 치르면서 조선의 군사적 역량은 심하게 훼손되고 말았다. 인조정권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민심을 수습하고 국방력을 재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괄(李适)의 난(亂)이 끼친 영향 Ⅳ

이괄의 난을 계기로 인조정권의 취약점과 한계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조정권이 구상하고 있던 계획들을 흐트러뜨렸다. 인조반정 성공 직후 '후금을 정벌하여 명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고 호기롭게 내세웠던 표방은 물거품이 되었다. 흔들리고 있는 내정을 추스르기에도 겨를이 없는 처지에 정벌을 시도한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우선 땅에 떨어진 인조의 권위를 회복하고, 질서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괄의 난 때 인조가 피난가 머물렀던 충남 공주시 공산성(公山城) 북문.

●실추된 권위, 동요하는 민심

인조는 서울로 돌아온 직후 무신 김응창(金應昌)과 임박(任)을 처형했다. 당상관이었던 두 사람은 이괄이 입성했을 때 각각 좌우변 순장(巡將)이 되어 이괄을 경호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무신만이 아니었다. 문신들 가운데도 이괄의 난을 맞아 심각하게 동요했던 자들이 있었다. 부호군(副護軍) 이안눌(李安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이괄의 난 당시 공조참의 김덕함(金德)과 함께 가도(島)에 파견되어 있었다. 김덕함이 모문룡에게 원군을 청해다가 이괄을 토벌하자고 했을 때 이안눌은 동의하지 않았다. 얼마 후 '인조가 저자도(楮子島)로 피난 가고 이괄이 인목대비를 모시고 있다.' 는 풍문이 들려오자 이안눌은 거침없이 인조에 대해 불경한 말을 내뱉었다. '자전(慈殿-인목대비를 지칭)을 모셨다면 또한 우리 임금의 아들일 것이다.' , '저자도에서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는가?' 등등 인조는 이미 끝났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안눌은 그 밖에도 '반정 이후 개혁이 지지부진했고 공신들의 운이 좋지 않다.' 는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 겸재 정선이 그린 '안현석봉' (1740년). 간송미술관 소장.

동요했던 것은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안현 전투에서 관군이 승리할 기미를 보이자 도성 문을 닫아걸어 반란군에게 타격을 주기도 했지만, '이괄이 입성했을 때 도성 백성 대부분이 이괄에게 붙었기 때문에 법으로 논하면 죽여야 한다.' 는 논의가 나올 정도였다.

우의정 신흠(申欽)은 백성들의 '불충(不忠)' 을 불문에 부치자고 했다. 그는 "나라의 형세가 당당할 때는 조정에 문제가 있어도 백성들이 감히 원망하지 못하지만, 쇠약한 때에는 한 가지 잘못만 있어도 원망이 일어나는 법" 이라고 했다. 당시를, '늙고 병들어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급박한 상황' 이라고 규정하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자고 했다. 정경세(鄭經世)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반정 직후부터 조정이 신의를 잃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한다.' 고 진단했다.

하지만 민심은 쉽사리 안정되지 않았다. 난이 진압된 지 한달 여가 지난 1624년 3월 중순, "장차 큰 변란이 다시 일

어날 것” 이라는 풍문이 퍼지는 와중에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밤에 여염을 돌아다니며 피란하라고 소리치며 선동하는 자들도 나타났다. 조정이 민심 수습을 위해 ‘과거를 불문에 부치겠다.’ 고 했지만 이괄 치하에서 부역(附逆)했던 사람들의 불안과 의구심은 좀체 가시지 않았던 것이다.

● ‘정권 안보 ’ 에 올인

이처럼 불안한 상황에서 인조와 반정공신들은 우선 인조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1624년 3월, 비변사(備邊司)는 ‘숙위(宿衛)하는 병력이 적고 약하다.’ 며 외방의 출신들 가운데 재주 있고 용맹한 자들을 뽑아 경호 병력의 숫자를 늘리자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반정공신 네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군관(軍官)의 숫자를 4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자고 했다.

그것은 당시의 민심과는 거리가 먼 조처였다. 인조와 반정공신들은 군관의 수를 늘리면 정권의 안보가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심은 달랐다. 군관들이 자행하는 폐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료를 국고에서 지급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관은 사실상 반정공신들의 사병(私兵)이었다. 언필칭 ‘인조 호위’ 를 강변했지만 실제로는 공신들의 집안 일을 건사하는 집사였기 때문이다. 유사시에도 공신 집안을 호위하고 재물을 운반하는 등 사사로이 부려졌다. 실제로 반란 당시 인조가 피난길에 올랐을 때 대가를 호위했던 군관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또 군관을 거느리고 있던 신경진은, 나아가서 적을 막으라는 인조의 명령도 무시했다. 이제 그런 군관의 숫자를 더 늘리자고 하는 판이었다. 이괄의 반란으로 혼쭐이 난 인조는 이후 반정공신들에게 더 의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명령을 어긴 신경진을 불문에 부치고, 군관의 수를 늘리는 데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 같은 분위기에서 반정공신들의 권세는 더 높아졌고, 이런 저런 비리가 터져 나왔다. 자연히 ‘광해군대의 폐정(弊政)을 개혁하겠다.’ 는 구호는 힘을 잃어 갔다.

정권이 바뀌면 무언가 과거와는 확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인조정권도 광해군대의 ‘과거’ 를 청산하기 위해 재생청(裁省廳)이란 기구를 설치하고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괄의 난을 계기로 ‘개혁’ 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었다. ‘정권 안보’ 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인조정권의 실세였던 김류와 이귀가 박승종 부자의 저택을 불하(拂下) 받은 것에서 드러나듯이 반정공신들의 탐욕스러운 처신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다만 주인이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 는 냉소가 번져갔다.1625년(인조3) 6월, 도성에는 상시가(傷時歌)라는 노래가 떠돌고 있었다.

아, 너희 훈신들이여(嗟爾勳臣)
잘난 척하지 말라(毋庸自誇)
그들의 집에 살고(爰處其室)
그들의 토지를 차지하고(乃占其田) 그들의 말을 타며(且乘其馬)
또 다시 그들의 일을 행하니(又行其事)
너희들과 그들이(爾與其人)
돌아보건대 무엇이 다른가(顧何異哉)

●반란의 대외적 여파

이괄의 반란은 나라 밖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인조정권은 이괄의 반란군이 도성을 압박해오자 가도의 모문룡(毛文龍)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원병을 요청했다. 모문룡은 조선의 보고를 접한 뒤, 유격(游擊) 왕보(王輔)에게 선사포(宣沙浦)에서 군사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왕보는 자신이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진격한다.’ 고 큰소리쳤다. 조정은 다급한 마음에 원병을 요청했지만 당시 모문룡의 접반사(接伴使)였던 윤의립(尹毅立)은 신중했다. 그는 모문룡의 군대가 육지로 나온 이후의 상황을 우려했다. 왕보의 말대로 1만이나 되는 대군이 나올 경우, 그들에게 군량을 지급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그들이 자행하는 민폐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다. 윤의립은 왕보를 만나 ‘이 적은 얼마 안 가서 주벌될 것이니 천병(天兵)을 역적 토벌에 끌어들여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다.’ 며 원병 요청을 취소했다.

결과적으로 윤의립의 판단은 정확했다. 반란이 곧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모문룡의 병력이 나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에 대한 접대와 그들이 자행하는 민폐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을 것은 분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후금을 군사적으로 자극하여 또 다른

사단이 발생했을 것이다. 앞으로 서술하겠지만, 반란 종식 이후 모문룡과 그의 군대가 보여주었던 행태를 보면 윤의립의 '결단 '이 얼마나 빛나는 '혜안' 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반란의 여파는 후금에도 미쳤다. 한명련의 아들 한윤(韓潤)이 조선을 탈출하여 후금으로 투항했던 것이다. 한윤은, 당시 후금에 억류되어 있던 강홍립(姜弘立)을 만나 "강씨 일족이 다 죽었다." 고 무고했다. 강홍립은 격앙되었다. '새로 들어선 인조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는 정보도 후금 측으로 건네졌다. 한윤의 투항은 정묘호란이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괄의 반란을 계기로 조선은 명과 후금의 대결 구도 속으로 점점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병자호란] (10) 모문룡의 작폐

2013.01.27 22:31

모문룡의 작폐 I

인조반정 성공 이후 조선이 표방했던 대외정책의 성격은 '친명배금(親明排金)' 이었다. 그런데 '친명' 은 분명 실천했지만 '배금' 은 쉽사리 실천할 수 없었다. '배금' 을 실천하려 할 경우 필연적으로 후금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선의 존망까지 걸어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괄의 난을 비롯한 내부 변란을 겪었던 와중에 조선은 후금과 군사적 모험을 벌일 능력도 여유도 없었다. 조선이 1627년 후금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모문룡(毛文龍)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모문룡과 가도
(島)의 동강진(東江鎭)은 인조반정 이후부터 병자호란 직후까지 조선, 명, 후금 삼국관계의 '키워드 ' 였다.



▲ 요동 지역 명나라의 군사적 거점이었던 광녕(현재 요녕성 북녕시)에 있는 북진묘(北鎭廟)의 모습

●모문룡과 가도의 존재 의미

1618년 누르하치에게 무순(撫順)을 빼앗긴 이후 명은 요동에서 연전연패했다.1619년 사르후에서 참패한 직후 개원(開原)이 무너졌고,1621년에는 요양(遼陽)이,1622년에는 광녕(廣寧)이 넘어갔다. 정치, 군사적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이었던 요양과 광녕이 함락됨으로써 명은 사실상 요하(遼河) 이동의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
만주의 상실은 조선과 명을 연결하는 육로가 사라진 것을 의미했다. 이제 조선과 명이 연결되려면 철산(鐵山)에서 요동반도 연해를 거쳐 등주(登州)로 이어지는 해로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것은 육로에 비해 불편하고 위험했다. 실제 조선과 명의 신료들은 험악한 해로를 두려워하여 상대방 국가로의 사행(使行)을 꺼리게 되었다. 한 예로 1626년 조선에 왔던 한림원(翰林院) 편수(編修) 강왈광(姜曰廣)은 이 위험한 바닷길을 '고래 아가리(長鯨之口)'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요동 길이 사라진 것은 조선에 대한 명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과거에는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북경 정부는 요양의 요동도사(遼東都司)를 통해 바로 조선을 견제할 수 있었다. 해로를 통해서는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이 모문룡이다. 앞에서(25회) 언급했지만 광해군은 모문룡을 '화근'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를 설득하여 섬으로 밀어 넣었다.1622년 철산 앞바다에 있는 가도(島)로 들어갔던 모문룡은 가도와 주변의 목미도(木彌島) 등을 아울러 동강진이라는 군사 거점을 만들었다. 일개 섬에 불과한 가도를 거점으로 요동을 수복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 조정은 가도를 매우 중시했다. 후금과 조선을 견제하는 전략 거점으로 보았던 것이다. 특히 1626년 명의 주문욱(周文郁)은 가도의 존재 의의를 명확히 정의했다. '조선은 비록 약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조선이 후금에 넘어가면 우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도는 바로 조선이 반역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점이다'.

● **'찬밥'에서 '은인'으로 변신**



▲ 요동 지역 명나라의 행정 거점이었던 요양의 현재 시가지 모습

가도는 농토가 적고 척박한 섬이었다. 식량을 자급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모문룡이 가도로 들어간 이후 수많은 요동 출신 한인(漢人), 즉 요민(遼民)들이 가도로 몰려들었다. 모문룡을 '비빌 언덕'이자 의지처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도에 식량이 없어 굶주리게 되자 요민들은 다시 조선에 상륙했다. 이미 광해군 말년부터 철산, 용천, 의주 등 청천강 이북(淸北)지역은 요민들로 넘쳐났다.

요민들은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식량을 구걸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아를 습격하거나 민가를 약탈했다. 조선 백성들의 피해가 급격히 늘어났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요민들 때문에 후금의 침략 위협이 높아지는 점이었다. 자신들이 점령했던 요동 지역에서 노비로 부렸던 요민들이 줄지어 가도와 조선 영내로 탈출하자 후금은 격앙되었다. 이미 1621년 12월, 후금은 모문룡을 제거하기 위해 조선을 침략한 적이 있거니와 후금은 조선 조정에 거듭 경고했다. 모문룡을 축출하고, 요민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광해군은 후금의 침략을 우려하여 모문룡을 채근했다. 휘하 병력을 육지에 상륙시키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요민들을 속히 산동(山東) 지역으로 이주시키라고 요구했다.

모문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광해군 또한 식량과 군수 물자를 제공해 달라는 모문룡의 요구를 회피했다. 모문룡은, 자신의 요구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광해군에게 이를 갈았다. 광해군때 '찬밥' 신세였던 모문룡은 인조반정을 계기로 '은인'으로 변신했다. 그가 인조가 명 조정으로부터 승인받는 데 힘을 썼던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인조대의 모문룡은 광해군때보다 조선에 훨씬 버거운 존재가 되었다.

인조와 조선 신료들은 모문룡이 보낸 차관(差官)을 융숭하게 대접했고, 그때마다 거의 빠짐 없이 '인조가 책봉된 것은 모야(毛爺)의 덕분'이라는 상찬을 빼놓지 않았다. 더욱이 이괄의 난 때문에 정권을 잃을 뻔했던 뒤로 모문룡에 대한 의존 심리가 더 높아졌다. 이미 반란 초기에 모문룡에게 원병을 요청했다. 문제는 정권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난을 겨우 진압한 다음이었다. 반란 진압으로 힘이 거의 고갈되자 인조 정권은 후금이 침략해 오는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연히 유사시 모문룡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조 정권은 모문룡의 공적을 기리는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조선을 오가는 명나라 사신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인조반정의 원훈(元勳)이었던 김류(金)가 붓을 들었다. 그는 비문에서 먼저 모문룡이 진강(鎭江)에서 이룩한 승리의 전말을 기록하고 찬양했다. 이어 '모문룡의 은혜를 배신한 광해군의 배은망덕'을 질타했다.1621년 12월, 후금군이 모문룡을 공격한 것은, 실상 광해군의 밀지(密旨)를 받은 의주부윤 정준(鄭遵)이 모문룡을 제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류는 나아가 '모문룡이 조선을 후금으로부터 지켜주고 동방의 백성

들을 보호해준 덕과 은혜가 하늘과 같다' 고 찬양했다. 그러면서 모문룡이 '요동 수복' 의 대업을 이룰 것이라며 그의 앞길을 축원했다.

●격화되는 모문룡의 폐해, '은인' 의 실상

김류의 찬양과 기대는 오산(誤算)이자 부질없는 짓이었다. 모문룡은 '요동 수복' 은커녕 조선을 도울 역량이나 의지도 없는 인물이었다. 가도로 들어간 이후, 그가 보였던 행태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모문룡은 가도와 목미도의 이름을 제멋대로 뜯어고쳤다. 본래 가도와 목미도는 엄연히 조선 땅이지만 모문룡이 점거한 이후 명에 임대되었다. 모문룡은 가도를 피도(皮島)로, 목미도를 운종도(雲從島)로 고쳤다. 순전히 미신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문룡은 자신의 성인 '모(毛-터럭)' 는 '가죽(皮)' 이 없으면 붙어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가도를 피도로 바꾸었다. 또 자신은 '용(龍)' 인데 '용은 구름 속으로부터(雲從) 나온다.' 는 속설에 따라 목미도를 운종도로 바꾸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급급했던 인물이었다.

인조와 조선 조정이 모문룡을 '은인' 으로 인식하면서 그 휘하의 병력과 요민들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광해군때와 달리 그들이 조선 영내로 상륙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방임했다. 그것을 계기로 10여만 이상의 요민들이 청북 지방을 휩쓸었다. 휘하의 병력들은 용천, 철산 일대에 둔전(屯田)을 설치했다. 기세등등한 그들의 횡포 앞에 조선의 지방관들은 움츠러들었다. 떼를 지어 다니며 민가를 약탈하고 백성들을 구타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청북의 백성들은 그들의 횡포를 피해 이주했다.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조정은 연일 대책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모문룡을 '은인' 으로 여기는 한 뾰족한 방도는 없었다. **이정구**(李廷龜)는 요민들을 '새로운 홍건적(紅巾賊)' 이라 지칭하고, 방치할 경우 청북은 조선 영토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조반정 이후 조선 조정이 모문룡을 '은인' 으로 여겨 송덕비까지 세우게 되자 모문룡은 기고만장했다. 그는 조선에 군량을 비롯하여 전마(戰馬), 조총, 병선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더 큰 문제는 그 휘하의 장졸(모병:毛兵)과 요민들이 끼치는 민폐였다. 모병과 요민들은 청북으로 밀려들었고, 후금을 자극했다.1627년의 정묘호란은 그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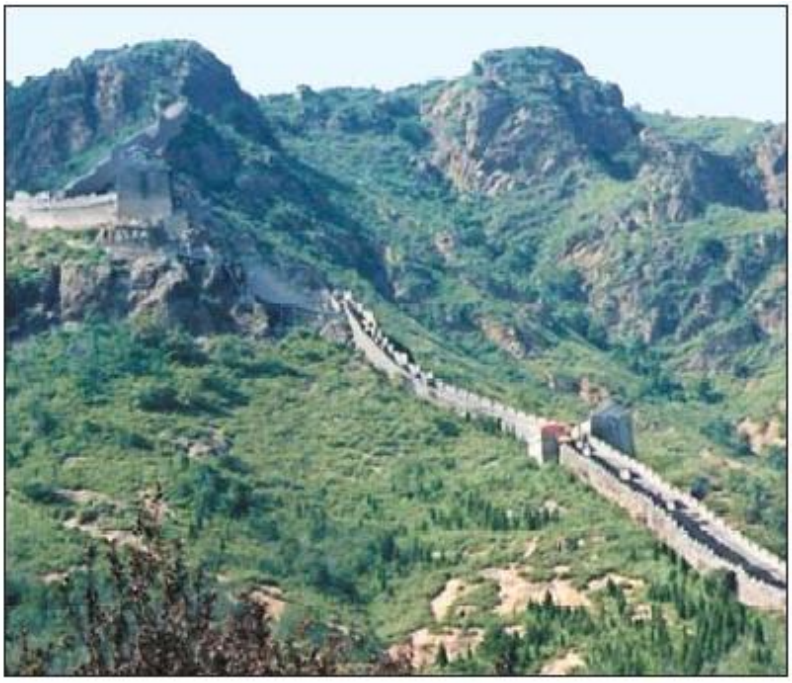


▲ 산해관의 관문인 천하제일관.

●밀려드는 遼民과 毛兵들

조선 조정은 모문룡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두 가지 난제에 직면했다. 하나는 모문룡의 진영에 막대한 양의 군량을 보내주어야 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시로 조선으로 들이닥쳤던 모문룡 휘하의 명군과 요민들에게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모문룡은 수시로 차관을 서울로 보내 양곡을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인조반정 직후 조선 조정은 그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었다. 책봉 과정에서 모문룡의 '은혜' 를 입었던 데다 그가 내세운 '요동 수복' 이라는 슬로건에 공감했기 때문이다.1623년에만 6만석 이상의 양곡이 가도로 운반되었다. 조선을 길들여 모문룡을 지원하는 배후기지로 삼으려 했던 명 조정의 계산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



산해관으로 이어진 만리장성의 모습.

당시 요동의 한인들은 계속 가도로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하면 철산 등지로 상륙했다.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나 청북 지방의 방어가 허술해지자 요민들의 유입은 극에 이르렀다. 요민들 가운데는 가재도구나 청람포(靑藍布) 등을 가져와 조선 사람들과 식량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는 빈 손으로 무작정 몰려왔다.

조선은 후금을 탈출해온 요민들을 가달(假)이라 불렀다. '가짜 달자(子-오랑캐)' 를 줄인 말로 한족 가운데 후금에 귀순하거나 포로로 잡혀가 머리를 깎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고향을 떠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들은 거칠고 난폭했다.

1624년 3월 의주부윤(義州府尹) 유비(柳斐)의 보고 내용은 끔찍했다. 당시 날마다 수많은 가달들이 청북 지역으로 밀려들었다. 그들은 수십명씩 떼를 지어 들녘에 흩어져 봄갈이 한 곡식과 보리 싹을 죄다 캐 먹었다. 마을로 들이닥쳐서는 약탈하거나 밥을 지어달라고 떼를 썼다. 어느 가난한 백성이 음식을 내어주지 못하자 그들은 가달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집에 내팽개쳤다. 그러고는 '조선인들이 그를 때려죽였다.' 고 한 뒤 온 마을 사람을 죄다 묶어놓은 뒤 재물을 빼앗아 갔다. 유비는 심지어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으면 서로 뜯어먹는다.' 는 내용도 보고했다.

철산, 가산, 선천, 정주, 곽산 등 청북 지역은 몸살을 앓았다. 가달뿐 아니라 가도에서 상륙한 모문룡 휘하의 장졸들이 끼치는 민폐도 심각했다.1625년 2월, 모병들의 작폐를 참다 못한 의주부윤 이완(李莞)은 실력 행사에 나섰다. 그는 난동을 피운 모문룡의 부하 주발시(朱發時) 등을 붙잡아다가 곤장을 쳤다. 모문룡의 부하들은 '이완이 상국인을 몰라보고 재조지은을 배신했다.' 며 그를 잡아가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다. 조선 조정은 결국 이완의 직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조처를 취했다.

●모문룡의 불장난

모병들은 때로는 청북 지역을 벗어나 함경도 지방까지 몰려들었다.1623년 4월 모문룡은 조선 조정에 사람을 보내 '회령(會寧)을 경유하여 오랑캐 지역으로 원정할 것' 이라며 군량을 제공해줄 것과 길 안내를 위한 향도(嚮導)를 붙여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회령 너머 두만강 건너편의 여진 부락들은 거의 비어 있었다. 일찍이 누르하치가 조선과의 접경에 살던 여진인들을 포섭하여 내지로 이주시켰기 때문이다. 두만강을 건너 며칠 동안 깊숙이 들어가야만 여진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모문룡이 그럼에도 원정 운운했던 것은 진짜 후금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스처' 이자 '쇼' 였다. 당시 명 조정에서 조선으로 사신이 올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모문룡은, 가도에 들를 사신 일행에게 자신이 가만히 앉아 군량만 축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후금 원정' 을 내세워 조선으로부터 군량 등을 얻어내려는 목적도 있었다. 조선 조정은 고민에 빠졌다. 당시 함경도 지역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 모병들을 접대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이 행군하는 도중에 민폐를 자행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장만(張晩) 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함경도 행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우려에 귀 기울일 그들이 아니었다.4월16일, 이미 모병들이 함흥까지 들어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5월15일에는 군량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경도 수령들을 포박하고 구타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날아들었다. 수령들은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 민간에서 곡물을 징색하고, 승사(僧舍)까지 뒤지는 형편이었다.

조선 조정의 예상대로 모병들은 후금 지역으로 원정은커녕 함경도 각지에서 노략질만 자행했다. 그들이 왕래했던 행군로 주변에 거주하는 조선 백성들은 민폐 때문에 몸서리를 쳤다.

모문룡 휘하들이 보였던 이 같은 행태는 1637년 가도가 청군에게 함락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들은 '오랑캐 지역 정탐' 등을 내세워 수시로 압록강을 건너 후금의 점령 지역까지 출몰했고, 그곳에 살던 요민들을 불러모았다. 더욱이 청북의 곳곳에는 모문룡이 설치한 둔전까지 널려 있었기 때문에 요민들은 계속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조정은 후금의 보복을 우려했지만 모문룡을 견제할 이렇다 할 방도가 없었다.

● **'해외천자(海外天子)'의 사기 행각**

모문룡은 '요동 수복'을 표방했지만 사실 그는 그럴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다. 그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후금으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산해관(山海關)의 울타리' 역할을 할 뿐이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모문룡은 그저 '군량을 축내는 존재', '밀수 왕초'로 변해갔다.

가도는 척박한 섬이었지만 해상 교통의 요충이었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산동(山東), 절강(浙江) 등지에서 상선들이 몰려들었다. 해로는 험난했지만 명 조정이나 조선 조정의 감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곳에서 벌이는 밀무역의 이익이 짭짤했기 때문이다. 조선 상인들은 가도에서 은과 인삼으로 비단과 생사(生絲), 청람포 등 중국 물화를 구입했다. 조선 상인들은 그것을 후금 상인들에게 넘기거나, 부산의 왜관으로 가져가 일본 상인들에게 전매하여 이득을 챙겼다. 한족 상인들과 후금과의 사이에 밀무역이 벌어지기도 했다.

모문룡은 가도에 세관(稅關)을 설치하여 왕래하는 상인들로부터 통행세를 징수했다. 때로는 그 자신이 직접 무역을 벌였다. 모문룡의 창고에는 은을 비롯하여 중국의 비단과 직물, 조선 인삼, 후금의 모피 등 온갖 물화들로 넘쳐났다.1624년 3월, 모문룡은 사람을 보내 이괄의 반란이 평정된 것을 축하했다. 그런데 그가 인조에게 보낸 예물 가운데는 춘의(春意)라 불리는 여인의 나체상도 있었다. 조선은 그것을 도로 반송했지만 당시 가도로 온갖 물건들이 유입되고 있었던 실상을 보여준다.

모문룡은 때마다 환관 위충현(魏忠賢)에게 두둑한 뇌물을 보냈다. 천계(天啓) 연간 명의 실권자나 마찬가지였던 위충현은 그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었다.

기록에 따르면 '모문룡은 한 번에 오륙십 가지로 차려진 성찬(盛饌)을 들고, 식사 때마다 여덟 아홉 명의 미희(美姬)들로부터 시중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바다 밖의 천자(海外天子)'였다. 명 조정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고, 수군을 갖추지 못한 후금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했다. 더욱이 조선은 그를 '은인'으로 섬기고 있었으니 그의 '현실 안주'는 어쩌면 당연했다. 모문룡은 노회한 인물이었다. 평소 안락을 즐기다가도 명 조정으로부터 '모문룡을 감사(監査)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움직였다. 조선 땅에 상륙하여 후금을 공격하는 시늉을 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에 민폐를 끼쳤고, 궁극에는 후금을 자극했다. 정묘호란 직전, 모문룡은 분명 후금의 침략을 불러들이는 '인계철선'이었다.

[병자호란] (11) 명과 후금의 정세

2013.01.27 22:36

명과 후금의 정세 I

조선이 모문룡의 작폐에 시달리고 있던 정묘호란 무렵 대륙의 정세는 어떠했는가? 1621년 누르하치의 후금군은 요동 전체를 장악했다. 후금은 요동 벌의 중심인 심양(瀋陽)으로 천도하여 산해관까지 넘볼 기세였다. 명은 분명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명의 내정은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당쟁은 격화되었고 환관들은 날뛰고 있었다.



▲ 동림서원 자리에 세워진 패루(牌樓).

●격화되는 黨爭

1620년 7월 명의 만력제(神宗)가 죽었다. 제위에 오른 지 48년만이었다. 장남 주상락(朱常洛 : 1582~1620)이 즉위하여 연호를 태창(泰昌)으로 고쳤다. 길고 긴 세월 동안 만력제의 암우(暗愚)와 태정(怠政)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태창제(光宗)에게 기대를 걸었다.



태창제는 즉위 직후 내탕(內帑)에서 100만냥의 은을 풀어 누르하치를 방어하고 있는 요동의 장사들에게 지급하고, 악명 높았던 광세사(鑛稅使) 등의 파견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조야는 감동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태창제는 즉위한 지 한달 만에 급사하고 말았다. 다시 태창제의 아들 주유교(朱由校)가 즉위하니 그가 곧 천계제(天啓帝) 희종(熹宗)이다.

만력 중반부터 천계 연간까지 명 조정의 당쟁은 격렬했다. 비운의 황제였던 태창제의 존재와 급사는 당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다. 만력제는 정비(正妃)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었고 후궁들에게서 얻은 5명의 아들이 있었다. 장남 주상락은 왕(王)씨 성을 지닌 궁녀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만력제는 왕씨와 주상락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만력제는 정귀비(鄭貴妃)와

의 사이에서 난 삼남 주상순(朱常洵)을 총애했다.

그는 주상순을 황태자로 세우려고 했다. 신료들은 '장유(長幼)의 순서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며 격렬히 반발했다.



▲ 즉위 한달 만에 급사한 태창제.

이미 언급했지만 당시 명 예부가,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해 달라는 조선의 요청을 계속 거부한 것도 이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 '차남' 광해군을 승인할 경우, 만력제가 '삼남' 주상순을 책립(冊立)하는 것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주상락의 황태자 책립은 19년 동안이나 미루어졌고, 그는 1601년에야 비로소 황태자가 되었다.

황태자가 된 이후에도 그는 파란의 한 가운데 있었다.1615년 장차(張差)라는 괴한이 주상락의 거처에 몽둥이를 들고 난입하여 그를 위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벌어졌다. 황태자를 해치려 했던 엄청난 사건임에도 재상 방종철(方從哲) 등은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려 들지 않았다. 사건의 배후에 정귀비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동림당(東林黨) 계열의 신료들은 방종철 등을 탄핵했다. 이 사건을 '정격안(梃案)' 이라고 한다. '안(案)' 이란 사건을 가리킨다.

태창제의 급사 원인을 둘러싼 당론(黨論)도 치열했다. 태창제는 병석에 누운 뒤, 이가작(李可灼)이란 관인이 바친 붉은 환약(紅丸)을 복용했다. 홍환 복용 후 황제가 급사하자 다시 치열한 논란이 빚어졌다.

동림당 관인들은 시약(侍藥)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방종철을 공격했고, 방종철을 옹호하는 관인들은 황제의 죽음이 홍환과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1625년(천계 5)까지 이어진 치열한 논란을 '홍환안(紅丸案)' 이라 부른다.

태창제 사후, 그가 총애하던 후궁 선시(選侍) 이(李)씨는 황자 주유교를 자신의 거처인 건청궁에 감추었다. 주유교가 아직 어리다는 것을 빌미로 환관 위충현(魏忠賢)과 연결하여 조정을 좌지우지하려 했다. 동림당 계열은 그 같은 기도에 반발하여 주유교를 이씨에게서 떼어내고, 이씨를 별궁으로 옮기게 했다. 이 과정에서 또한 격렬한 정쟁이 빚어졌는데 그것이 '이궁안(移宮案)' 이다.

●東林黨과 奄黨

'정격안' , '홍환안' , '이궁안' 을 아울러 삼안(三案)이라고 한다. '삼안' 을 놓고 명 조정의 관료들은 수많은 장주(章奏)를 올려 논쟁했고 그 과정에서 당쟁은 격화되었다. 천계 연간(1621~1627) 명 조정에는 절당(浙黨), 초당(楚黨), 선당(宣黨), 제당(齊黨), 곤당(昆黨) 등 여러 당파가 있었지만 당쟁의 중심은 동림당과 엄당이었다.

동림당은 만력 초기 재상이었던 장거정(張居正)의 전횡에 반대, 도전했던 청의파(淸議派) 관료인 고헌성(顧憲成), 추원표(鄒元標), 조남성(趙南星)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장거정이 죽은 뒤에도 내각과 환관들의 비정을 비판했다. 동림당은 강소성(江蘇省) 무석(無錫)에 있는 동림서원(東林書院)을 거점으로 삼았다. 주자학 강학(講學)을 통해 자파 세력을 결집하는 한편, 조정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그들이 황태자 책립, 인사, 요동 방어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내각이나 환관들과 대립하게 되면서 당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엄당은 환관들의 무리를 가리킨다. 일본의 동양사학자 미타무라 다이스케(三田村泰助)는 환관을 가리켜 '만들어진 제3의 성(性)' 이라고 표현했다. 환관 가운데는 종이를 발명한 후한(後漢)의 채륜(蔡倫)이나 명 초기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대원정(大遠征)을 주도했던 정화(鄭和)처럼 기념비적인 족적을 남긴 인물도 있었다. 하지만 환관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

환관이 맡은 일은 천한 것이었지만 때로 천자나 후궁과의 연결을 통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기도 했다. 궁극에는 국가의 명운마저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휘두른 자들도 나타났다. 명대에 특히 환관의 폐해가 심했다. 왕진(王振), 유근(劉瑾), 위충현 등이 대표적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삼안' 처럼 궁정의 문제가 정쟁의 현안이 될 경우, 환관들이 그 과정에 개입하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높았다. 천계 연간 위충현이 엄당을 이끌며 조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은 유명하다.

●끔찍한 魏忠賢의 시대

위충현(?~1627)은 하북성(河北省) 숙녕현(肅寧縣) 출신이었다. 젊은 시절 무뢰배였던 그는 도박에 모든 것을 탕진

한 뒤, 스스로 환관이 되었다. 본래 이진충(李進忠)이었던 이름도 위충현으로 바꾸었다. 천계제가 즉위하면서 위충현의 권세는 날로 높아졌다.1621년 사례감(司禮監)의 병필태감(秉筆太監)이 되었다. 환관들의 수장 격이었다. 그는 황제 직속의 비밀 경찰인 동창(東廠)의 책임자도 겸했다.

1624년, 동림당원 양련(楊漣)은 위충현을 탄핵했다. 그에게 스물 네 가지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위충현은 동창의 책임을 사임하는 등 일단 몸을 낮춰 위기를 벗어났다.

이윽고 천계제의 신임이 회복되자 보복이 시작되었다. 위충현은 1625년 동림당의 핵심 인물인 양련, 좌광두(左光斗), 원화중(袁化中), 위대중(魏大中), 주조서(周朝瑞), 고대장(顧大章) 등 6인을 '수뢰' 혐의로 탄핵했고, 곧 이들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다. 위충현의 심복 허현순(許顯純)은 이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혹독한 고문을 가했다. 고문을 못 이겨 고대장은 자살했다. 차라리 그가 행복했다. 나머지 5명의 시신은 전부 문드러졌다.



▲ 고헌성과 고반룡(홀을 들고 있는 사람)

위충현은 1626년에도 옥사를 일으켰다. 고반룡(高攀龍), 주순창(周順昌), 황존소(黃尊素) 등 7명에게 체포령이 떨어졌다. 고반룡은 물에 몸을 던져 자살했고, 나머지 6명은 예의 혹형을 받았다. 환관들이 금의위(錦衣衛)에서 행한 고문은 잔혹했다. 끌려온 자들에게 5가지의 도구를 이용하여 혹형을 가한 후 가죽을 벗기기도 했다고 한다. 주순창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위충현을 비판하다가 이를 모두 뽑혔다.

동림당을 탄압하면서 위충현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다. 그 배경에는 천계제의 방임이 자리잡고 있었다. 동림서원을 비롯한 동림당의 근거지는 파괴되었고, 각 지역에는 위충현을 모시는 생사당(生祠堂)이 세워졌다. 모문룡도 가도에 위충현을 기리는 생사당을 세웠다.

위충현의 전횡에 절망한 관료들은 사직했고, 변방의 지휘관들 상당수는 누르하치에게 귀순했다. 누르하치의 철기(鐵騎)는 달려오고 있는데 명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천계 연간 격렬한 당쟁이 빚어지고 결국 위충현을 비롯한 엄당이 국정을 장악하게 되자 그 불똥은 곧바로 산해관 바깥으로 튀었다. 요동, 요서(遼西)의 방어를 책임진 최고위 지휘관들 또한 당쟁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어느 당파에 속하느냐가 경략(經略), 순무(巡撫) 등의 운명을 결정했다. 설사 뛰어난 전공이 있더라도 엄당의 눈밖에 나면, 비명횡사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동림당과 연결되어 있던 웅정필(熊廷弼)과 원숭환(袁崇煥)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 오늘날 남아 있는 영원성과 문루의 모습.

●당쟁에 희생된 웅정필과 원숭환

웅정필(1569~1625)은 1619년 명의 대군이 사르후 전투에서 참패한 이후 요동경략으로 흐트러진 요동 지역의 방어태세를 수습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친히 무순 지역까지 순시하면서 요동의 형세와 후금의 동태를 파악한 뒤, 후금군의 서진(西進)을 막기 위해 이른바 삼방포치책(三方布置策)을 제시했다. 산해관 지역의 방어를 굳건히 하고, 천진(天津)과 등래(登萊) 등지의 수군을 활용하고, 조선의 도움을 받아 후금을 배후에서 견제한다는 복안이었다.

웅정필의 계책은 광녕순무(廣寧巡撫) 왕화정(王化貞)의 반대에 밀려 실현될 수 없었다. 왕화정은 병부상서 장학명(張鶴鳴)의 지원을 받았고 엄당 쪽에도 줄을 대고 있었다. 웅정필과 왕화정의 대립은 결국 동림당과 엄당의 대립이었던 셈이다. 두 사람의 불화 속에 1622년 광녕이 함락되었다. 패전의 책임을 지고 두 사람 모두 체포되었지만 1625년 웅정필만 사형이 집행되었다. 참수된 웅정필의 목은 변방으로 조리돌려졌다. 광녕이 함락된 데는 왕화정의 과오가 훨씬 컸음에도 정작 웅정필만 처형된 것은 엄당의 농간 때문이었다. 당쟁, 그리고 엄당의 전횡이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였다.



비명횡사한 요동경략 웅정필.

웅정필이 사라진 이후 나타났던 영웅이 원숭환(1584~1630)이다. 원숭환은 명과 후금 사이의 군사적 대결, 궁극에는 명청교체(明淸交替)라는 격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천계 연간 명이 엄당의 전횡에 휘말려 안으로 휘청거리고 있을 때, 밖에서 후금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냄으로써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동량(棟樑)이었다. 승승장구하던 누르하치도 원숭환이 버티고 있던 영원성(寧遠城 · 오늘날 요녕성 興城市 소재)을 넘지 못했고, 끝내는 패전의 후유증으로 죽었다.

원숭환이 1626년 영원성에서 승리를 거두자 명의 조야는 감격했다.1619년 사르후 전투 이후 연전연패했던 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원숭환은 일약 '하찮은 여진 오랑캐' 때문에 구겨진 중화(中華)의 자존심을 살린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이 '중화의 영웅' 또한 1630년 비명횡사했다. 전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명 조정이 스스로 죽였다. 후금의 반간계(反間計)와 명 조정의 당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나타난 결과였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사학자 옌충녠(閻崇年) 등이 중심이 되어 원숭환을 추모하고 그의 시대를 재조명하려는 분위기가 자못 활발하다. 일찍이 마오쩌둥(毛澤東)도 민족의 기절(氣節)과 애국주의를 선양하려는 차원에서 원숭환 관련 사적을 정비하라고 직접 지시했을 정도였다.

●영원성에 방어의 거점을 마련하다

원숭환은 호(號)가 자여(自如), 자(字)가 원소(元素)로 광동성(廣東省) 출신이다. 그는 1597년(만력 25) 수재(秀才)가 되고,1606년(만력 34) 향시(鄕試)에 합격하여 거인(擧人)이 되었다. 원숭환은 36세 때인 1619년(만력 47) 북경에서 과거에 최종 합격하여 벼슬에 진출했다. 그가 조정으로부터 처음 임명된 관직은 복건(福建) 소무현(邵武縣)의 지현(知縣)이라는 자리였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의 군수급 관직이었다.

일개 지방관에 불과했던 원숭환의 운명이 바뀐 것은 1622년이었다. 지현 재직 시의 근무 성적에 대한 고과(考課)를 위해 북경에 왔는데, 그의 능력을 알아본 어사 후순(侯恂)이 원숭환을 천계제에게 추천했던 것이다. 후순은 동림당 계열이었다. 천계



제는 원숭환을 병부 직방주사(職方主事)로 발탁했다. 지방관에서 일약 중앙관으로 변신시킨 파격적인 인사였다.

1627년까지 승진을 거듭한 원숭환은 이후 요서 지방의 방어 대책을 마련하여 북경과 산해관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활약하게 된다.

산해관 방어를 위해 고심하던 원숭환은 영원을 주목했다. 영원은 산해관에서 2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산해관의 현관' 이었다. 요동, 요서 지역에서 육로로 산해관이나 북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전략 요충이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동쪽으로는 발해만에 접해 있어 방어에 용이했다. 더욱이 해안에서 15리 정도 떨어진 바다에 각화도(覺華島)라는 섬이 자리잡고 있어서 배후의 지원 기지로 활용할 수 있었다.


원숭환을 지원했던 손승종.

원숭환은 산해관을 지키려면 영원에 제대로 된 중진(重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명 조정의 관인들 가운데는 산해관 바깥의 방어를 포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1618년 이래 거듭되었던 요동에서의 패전 때문에 병력이 격감하고 성지(城池) 등 방어 시설이 퇴락한 데다, 주민들이 이산했기 때문이었다. 영원을 방어해야 한다는 원숭환의 주장은 왕재진(王在晋) 등의 반대에 밀려 채택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반대를 무릅쓰고 황제를 설득하여 원숭환의 손을 들어준 사람은 대학사 손승종(孫承宗)이었다. 손승종의 지원을 얻어낸 원숭환은 1623년 영원성 수축에 감독관으로 직접 참여했다. 그는 조대수(祖大壽)와 만계(滿桂) 등을 지휘하여 담장을 높이고, 포대(砲臺)를 개수하는 등 성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1624년 9월, 영원성의 수축 공사는 완료되었다. 원숭환은 이후 성 외곽의 유민들을 불러모아 농경지를 개간토록 하고, 산해관과 해로를 통해 상인들도 끌어들여 성에 대한 물자 공급도 원활하도록 조처했다. 버려졌던 영원성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물자가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아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살상력 뛰어난 홍이포(紅夷砲)를 거치하다

영원성을 정비한 이후 원숭환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명군의 화력을 증강시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홍이포였다.

명 조정에는 일찍부터 서양의 새로운 화포인 불랑기(佛狼機)나 홍이포 등을 활용하여 후금군을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관료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선구자는 유명한 서광계(徐光啓 · 1562~1633)였다. 일찍이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를 통해 천주교에 입교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에 눈을 떴던 그는 서기(西器), 그 가운데서도 서양식 화포의 활용을 열렬히 주장했다. 천계제는 서광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포르투갈 상인들의 근거지였던 마카오(澳門)로부터 30문의 홍이포를 구입하여 북경의 도성과 산해관 등지에 배치했다.

홍이포는 기존의 중국식 화포에 비해 사정 거리가 길었을 뿐 아니라 살상력이 월등했다. 영원성 전투 이전에 요동에서 벌어진 후금군과의 전투에서도 명군은 화포를 사용했지만 그 위력은 신통치 않았다. 처음 사격 후, 두 번째 포탄을 발사하기 전에 후금군의 날쌘 기마대는 이미 명군 진영을 덮쳤다. 그런 전철을 뒤풀이하지 않으려면 훨씬 강력한 위력을 지닌 화포가 필요했다.

원숭환은 손승종과 상의하여 산해관에 배치되어 있던 홍이포 11문을 영원성으로 옮겼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성밖이 아닌 성루(城樓) 위로 옮겨 배치했다.

원숭환은 병사들에게 홍이포를 조작하는 기술을 숙달시키기 위해 손원화(孫元化) 등을 불러들였다. 훗날 등래순무(登萊巡撫)로 활약했던 손원화는 당시 손꼽히는 화기 전문가였다. 그는 일찍부터 포르투갈 기술자들에게 홍이포를 다루는 기술을 배웠다. 손원화는 영원성의 포병들을 훈련시켰다. 원숭환의 혜안과 손원화 등의 노력을 통해 영원성의 방어 태세는 일신되었다.

1626년 1월, 누르하치는 팔기군을 이끌고 요하(遼河)를 건너 영원성을 향해 진군했다.1618년 이후 거침없이 승전을 구가해 왔던 누르하치였다. 하지만 곧 그의 머리 위로 홍이포의 불벼락이 날아든다. 누르하치의 운명이 종착역에 이르렀던 것이다.

1626년(인조4, 천계6) 1월23일 누르하치는 영원성으로 들이닥쳤다. 그가 이끄는 병력은 20만이라는 설도 있고,13만이라는 설도 있다. 어쨌든 누르하치의 대병력이 나타나자 영원성의 전면에 머물던 명의 관민(官民)들은 경악했다. 대릉하(大凌河), 소릉하(小凌河), 행산(杏山), 탑산(塔山) 등지의 명군 지휘관들은 가옥과 곡식을 불태우고 도주했다.



홍타이지가 묻힌 심양의 소릉(昭陵).

●영원대첩(寧遠大捷)의 실상

누르하치는 영원성에 대한 공격에 앞서 자신이 데리고 온 한인(漢人) 포로를 풀어 성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를 통해 누르하치는 원숭환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20만의 대군이다. 성은 분명히 함락될 것이다. 여러 관인들이 항복한다면 높은 관작을 주겠다." 고 했다. 원숭환의 회답은 간단했다. "그대는 무슨 까닭으로 갑자기 공격해 왔는가? 나는 성을 사수할 것이다."

1월23일, 누르하치는 공격을 명령했다. 후금이 자랑하는 철기(鐵騎)의 돌격이 시작되었다. 방패를 손에 쥔 경보병(輕步兵)들을 비롯하여 후금군 병사들이 성을 향해 개미 떼처럼 몰려들었다.20만이라고 큰 소리치는 대병력이었다. 영원성의 원숭환 병력은 대략 1만 정도에 불과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병력 수만 보면 승패는 이미 끝난 셈이었다.

성으로부터 홍이포의 포격이 시작되었다. 사격은 정확했다. 포탄은 벽력같은 굉음을 내며 돌격해 오는 누르하치 병사들의 대열 중간으로 떨어졌다. 사방으로 피가 튀었다. 성벽을 기어오르던 병사들도 쏟아지는 화살 앞에 나가 떨어졌다. 후금군의 사상자가 속출했다.

1월24일, 누르하치는 전차(電車)를 투입해 다시 총공격에 나섰다. 포격을 피하기 위해 참호를 파야 했지만 날은 춥고 땅은 꽁꽁 얼어 있었다. 다음날에도 후금군은 희생을 무릅쓰고 돌격을 계속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누르하치는 흥분했다. 그는 병사들의 선봉에 서서 전투를 독려했다. 홍이포의 포탄은 누르하치라고 해서 피해가지는 않았다. 굉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누르하치는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스물 다섯부터 전장을 주유했던 누르하치였다. 그동안 누르하치는 명군보다 몇 배나 많은 병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연전연승했다. 거기에 철기의 기동력이 더해지면서 명의 오합지졸들은 후금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1619년



청실록에 실린 후금군의 영원성 공격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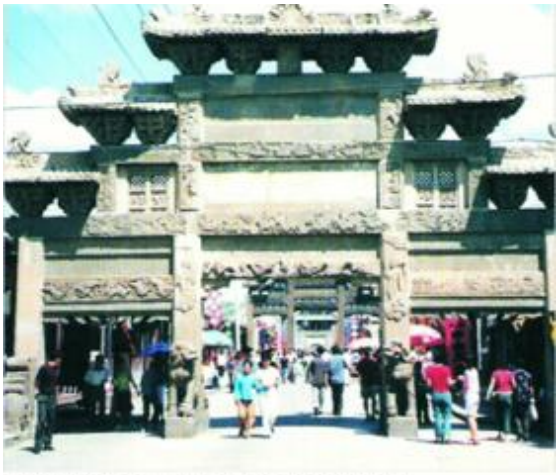
사르후 전이 그러했고, 이후 줄곧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달랐다. 홍이포의 가공할 위력 앞에서는 후금군의 신속한 기동과 병력의 집중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 더욱이 원숭환은 그동안 상대했던 명군 지휘관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물이었다. 그 스스로 영원성을 점찍어 성벽을 수축하고 군량을 비축해온 '준비된 지휘관' 이었다.

그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 여러 장수들과 혈서를 써서 수성(守城)을 맹세했다. 원숭환의 탁월한 영도 아래 만계(滿桂), 조대수(祖大壽) 등 부하 장수들도 선방했다.

연이은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자 누르하치는 병력을 거둬 심양으로 철수 길에 올랐다. 청실록에서는 유격(遊擊) 2명, 비어(備禦) 2명이 전사하고 500명의 병사들이 죽었다고 적었다.

영원성의 승리가 남긴 영향은 컸다. 이후 후금은 함부로 산해관을 넘보지 못했다.1641년(崇禎 14) 홍승주(洪承疇)가 송산과 행산전투에서 무너질 때까지 산해관 앞의 영원을 거쳐 금주(錦州)에 이르는 요새와 성채들은 후금의 서진(西進)을 차단했다.



영원성 안에 있는 명나라 장수 조대수의 패루.

●전투 부상 후유증으로 누르하치 사망

1626년 8월, 누르하치는 영원성에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윽고 후금의 버일러(貝勒)들은 홍타이지(皇太極)를 새로운 한(汗)으로 옹립했다. 그는 누르하치의 여덟번째 아들이었다.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지만 여덟 번째 아들이 최고 권력자로 즉위했다는 사실 자체가 명이나 조선의 눈으로 보면 이채로운 것이었다. 무조건 장자가 계승하는 관행으로 보면 말이다.

홍타이지(1592~1643)는 잘 알려진 것처럼 훗날 제위에 올라 태종(太宗)이 되고, 병자호란을 일으켜 인조에게서 치욕적인 항복을 이끌어냈던 인물이다. 그의 모친은 몽골족 여자였다. 누르하치가 1615년 황(黃), 홍(紅), 남(藍), 백(白) 등 사기(四旗)를 확대하여 팔기(八旗)를 창설했을 때, 스물 두 살의 홍타이지는 정백기(正白旗)를 관할하는 버일러가 되었다. 그는 이 무렵부터 다이샨(代善), 아민(阿敏), 망굴타이(莽古爾泰) 등 그의 형들과 더불어 '사대 버일러(四大貝勒)' 로 불리면서 정무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홍타이지는 누르하치를 수행하여 전장을 누비면서 탁월한 전공(戰功)을 쌓았다. 특히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 그가 세운 전공은 혁혁하여 누르하치는 '내 아들 홍타이지는 사람들이 의지하기를 인체로 치면 마치 눈과 같은 존재' 라고 찬양했다. 홍타이지는 무략(武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여진족의 지도자로서는 드물게 한문에도 능통했다.

홍타이지가 개인적으로 탁월한 인물이고, 추대에 의해 한으로 즉위했지만 즉위 직후 그의 위상은 보잘것이 없었다. 일견 만장일치에 의해 옹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즉위 직후 당장 그의 사촌형 아민이 삐딱하게 나왔다. 아민은, 홍타이지를 한으로 인정하지만 자신은 소속 기인(旗人)들을 이끌고 독립하겠다고 통보했다. 홍타이지는 긴장했다. 아민의 독립을 허락하면 나머지 각 기들도 전부 이탈하려 들 것이고, 그럴 경우 후금의 연맹 조직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즉위 직후 그는 아민을 설득하는 데 진땀을 흘려야 했다.

●권력강화를 위한 홍타이지의 노력

아민을 겨우 설득했지만 홍타이지의 앞길은 첩첩산중이었다. 누르하치 시대 만주족은 분권(分權), 합의제(合議制)에 기초한 전통적인 부족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누르하치의 권력이 강화될수록 각 버일러들은 자신의 권력이 왜소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당연히 누르하치를 견제하려 들었다.

부족제의 전통이 강한 상황에서 홍타이지는 더욱이 서열상 사대 버일러 가운데 맨 꼴찌였다. 나머지 버일러들이 누르하치의 후계자로서 막내인 홍타이지를 옹립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한의 권력을 억제하고 전통적인 부족제 본래의 통치체제로 돌아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즉위 직후 홍타이지는 백관들로부터 조하(朝賀)를 받을 때 세 명의 형들과 나란히 앉아 남면(南面)했고, 제례(祭禮)를 거행할 때도 그들과 동렬(同列)에 섰다. 그것은 사실상 공동 집정이었다. 홍타이지는 이름만 한일 뿐 실제 가지고 있는 권력 면에서는 세 명의 버일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홍타이지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인(漢人)과 몽골인들에게 주목했다. 당시 후금 사회에는 많은 한인과 몽골인들이 있었다. 정복 과정에서 포로로 획득하거나 귀순해 온 사람들이었다. 누르하치는 한인들을 좋게 봐주지 않았다. 그들을 복속시키려고 위해 탄압을 일삼았다. 만주인들이 그들에게 약탈을 자행해도 그다지 문제삼지 않았다. 자연히 만주인들과 한인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한인들은 침학을 피해 도망치는 것은 물론, 만주인 관인들을 암살하거나 우물에 독을 풀기도 했다. 무리를 지어 반란을 일으켰다.

홍타이지는 한인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을 바꾸었다. 만주인 귀족이나 관원들이 한인들을 함부로 약탈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인과 만주인들을 분리시켰다. 한인들의 거주 지역에 만주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한인 관리들을 시켜 그들을 통제하도록 했다. 능력 있는 한인들을 발탁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홍타이지의 포용정책에 힘입어 많은 한인들이 관직에 진출했다. 한인 관료들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홍타이지의 권력은 강화되었다.

1627년 무렵, 홍타이지는 산해관을 향한 서진을 잠시 멈추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힘썼다. 동시에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 그것은 조선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병자호란] (12) 정묘호란 일어나다

2013.01.27 22:42

정묘호란 일어나다 I

후금군 파죽지세… 인조 강화로 피난갈 궁리만

홍타이지는 1627년 1월8일 대패륵(大貝勒) 아민(阿敏)에게 조선을 정벌하라고 명령했다. 홍타이지는 "조선이 오랫동안 후금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한 뒤 모문룡도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모문룡이 조선의 비호 속에 가도에 머물면서 후금을 탈출하는 반민(叛民)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의주 · 정주 · 안주성 차례로 함락



동국여도(東國輿圖)에 실린 강화도 지도.

후금군은 1월13일 압록강을 건너 의주성으로 들이닥쳤다. 당시 후금군은 다국적군이었다. 만주족 병사들뿐 아니라 한족과 몽골 출신 병사들도 있었다. 사령관은 아민이었고, 한족 출신의 이영방(李永芳), 조선 출신의 강홍립과 한윤(韓潤)도 지휘부에 끼어 있었다. 이영방은 1618년 누르하치가 무순을 공격했을 때 투항했고, 강홍립은 1619년 심하(深河) 전역에 참전했다가 투항했다. 한윤은 이괄과 함께 난을 일으켰던 한명련(韓明璉)의 아들이었다.

후금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한윤은 변장하고 몰래 의주성으로 들어왔다.14일 새벽 후금군이 성을 포위하여 전투가 시작되자 한윤은 병기고에 불을 질렀다. 혼란한 와중에 후금군에 내응하는 자들이 성문을 열었고 후금군은 수월하게 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성을 지키던 의주목사 이완(李莞)은 사로잡혀 피살되었다.

의주성 함락 후 후금군은 정주(定州)의 능한산성(凌漢山城)을 포위했다. 성을 지키는 조선 병사들은 일제히 조총을 쏘았지만 다시 탄환을 재기도 전에 돌격해 들어간 후금군에 의해 제압되었다. 선천부사 기협(奇協)이 전사하고, 정주목사 김진(金搢)과 곽산군수 박유건(朴惟建)은 포로가 되었다. 성 함락 후 후금군은 저항했던 군사들을 전부 살해했다. 백성들은 적에게 포로로 잡힌 뒤 전부 머리를 깎였다. 머리를 깎은 것은 포로들이 이제 자신들의 소유가 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후금군은 1월21일 청천강을 건너 안주(安州)로 들이닥쳤다. 안주는 당시 청북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 조선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방어태세를 점검해 왔던 곳이었다. 성 안의 군민도 3만 6000이나 되었다. 평안병사(平安兵使) 남이흥(南以興)은 성 밖의 민가를 불태우고 결전을 준비했다. 적의 돌격이 시작되자 대포와 화살을 일시에 발사하여 저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삼남(三南)의 농민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던 조선군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후금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후금군의 대병력이 순식간에 성을 넘어왔고, 조선군은 우왕좌왕했다. 방어선이 붕괴되어 성의 함락이 임박하자 남이흥은 부하들과 함께 불붙은 화약 더미 속으로 몸을 던졌다. 장렬한 순국이었다.

안주 함락 후 아민은 병사들에게 4일간 휴식 시간을 주었다. 그들은 느긋했다. 반면 안주성이 함락된 후, 숙천(肅川)과 평양의 조선 관민들은 풍문만 듣고도 무너졌다. 후금군의 승승장구였다.



김윤겸의 호병도(胡兵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당황하는 조선 조정

후금군의 침략 소식이 서울의 조정으로 날아든 것은 1월17일이었다. 인조는 급히 신료들을 불러보았다. 인조는 신료들을 보자마자 "이들이 모문룡을 잡아가려고 온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온 것이냐?" 고 물었다. '모문룡 문제' 를 빼놓으면 후금과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료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쟁 자체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이 있을 리 없었다. 장만(張晩)은 속히 하삼도에서 병력을 징발하고, 황주(黃州)와 평산(平山)에 별장(別將)을 보내 방어 태세를 갖추자고 촉구했다. 이귀(李貴)는 황해도를 방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강화도를 피란처로 정해 놓았다가 안주에서 패전 소식이 들어오면 곧바로 강화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패전을 이미 기정사실로 설정해놓고 대응하려는 자세 같았다.

최명길은 임진강을 방어할 계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비변사 신료들도 무신 신경진(申景)을 임진강으로 보내자고 했다. 하지만 인조의 마음은 이미 강화도로 들어가 있었다. 인조는 강화도 방어를 위해 삼남 지방에서 1만의 병력을 동원하고 수사(水使)들을 시켜 수군을 이끌고 강화도로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했다. 인조의 우선 관심사는 자신의 호위(扈衛:궁궐을 지킴) 문제였다. 인조는 아마도 '이괄의 난' 당시 권력을 잃어버릴 뻔했던 아찔한 기억을 떠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들은 강화도로 들어가려는 계획에 반대했다. 그들은 궁벽한 강화도로 들어가면 조정의 명령이 통하지 않고, 조운(漕運)도 어렵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굳이 강화도로 들어가려면 분조(分朝)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조는 강화도로 가되, 왕세자를 삼남으로 보내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흠(申欽)은 인조에게 민심 수습을 위해 백성들에게 '애통해 하는 교서(敎書)' 를 내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종의 '사과 성명' 을 발표하라는 것이었다. 인조는 건의를 받아들여 장유(張維)에게 교서를 짓도록 했다. 인조는 교서에서 '반정 직후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 채 백성들을 기만한 것', '옥사(獄事)가 빈발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들 때문에 화기(和氣)가 손상된 것', '모문룡을 접대하기 위해 세금을 혹독하게 거둔 것', '호패법(號牌法)을 가혹하게 시행하여 백성들을 괴롭힌 것' 등 '실정' 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자신을 '임금답지 못한 임금' 이라고 자책한 뒤 '부디 열성(列聖)의 은혜를 생각하여 기댈 곳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 고 백성들에게 호소했다.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사과하는 굴욕까지 감수했던 것이다. 인조는 10년 뒤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1637년 병자호란이 항복으로 끝난 뒤에도 백성들에게 다시 사과 성명을 발표했던 것이다.

●강화도 이외의 방어를 포기하다

조정이 강화도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여타 지역에 대한 방어는 거의 방기되었다. 인조는 신료들과 가졌던 대책 회의에서 장만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했다. 방어를 총괄하는 직책이었다. 장만은 황해도의 임지로 떠나기에 앞서, 적과 조우할 경우에 대비하여 어영군(御營軍) 가운데 사격술이 뛰어난 포수 100명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조는 거부했다. 호위에 충당할 어영군의 병력을 덜어낼 수는 없다고 했다.

비변사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반정공신들 또한 극도로 몸을 사렸다. 강화도로 피란하기로 결정한 직후 논란이 된 것은 임진강을 방어하는 문제였다. 훈련도감과 어영군의 병력을 호위에만 투입하게 되자 임진강 방어에 충당할 병력을 차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김류는 이시백(李時白) 휘하의 수원부 군사들을 임진강 방어에 투입하자고 했다. 그러자 이귀가 발끈했다. 이귀는 '군량이 궁핍한 상황에서 수원의 병력을 임진강으로 보내면 오직 죽음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시백은 이귀의 아들이었다. 이귀는 수원의 병력도 인조를 호위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류는 반박했다. '적병이 이미 깊숙이 들어왔는데 장강(長江)의 요새를 버리고 나라를 도모할 수 있겠냐?' 고 힐문했다.

인조는 결국 이귀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원의 군병도 강화도로 들여보내라고 했다. 보다 못한 보덕(輔德) 윤지경(尹知敬)이 상소를 올렸다. 그는 "적이 아직 천리 바깥에 있음에도 먼저 도성을 버릴 궁리만 하고 있다." 고 통탄하고 인조에게 경솔히 파천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병력 500명만 주면 임진강을 사수하겠다고 다짐했다.

1월26일 인조는 결국 강화도로 가기 위해 노량(露梁)으로 거둥했다. 하지만 배가 부족하여 강을 건너기가 여의치 않았다. 인조는 말에서 내려 모래밭에 앉았다. 이괄의 반란군을 피해 한강변으로 나왔던 이래 두 번째 맞는 파천이었다. 다음날 인조는 김포를 경유하여 저녁에 통진(通津)에 도착했다.

조정이 강화도로 옮겨가면서 임진강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방어는 거의 방기되었다. 평안도와 황해도를 포함하여 한강 이북 지역의 백성들은 후금군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그들은 사실상 정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만 했다.

1627년 후금이 갑자기 정묘호란을 도발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합적이었다. 조선과 후금, 명과 후금, 그리고 조선과 명(-모문룡 문제를 포함) 사이의 문제점들이 서로 얽혀 있었다. 특히 누르하치가 죽은 뒤 추대 형식으로 즉위했지만 한(汗)의 위치에 걸맞은 권력과 권위를 갖지 못했던 홍타이지는 전쟁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했다.



고려왕조가 39년간 머물렀던 강화도 고려궁지. 조선시대에는 정묘호란을 피해 인조가 수개월 동안 이 궁궐터에 머물렀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조선과 무역 통한 식량 확보도 전쟁 도발 배경

홍타이지는 조선에 대해 강경론자였다. 그는 일찍부터 부친 누르하치에게 조선을 공격하라고 청했다. 특히 1619년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이 심하 전역에서 패하여 투항한 뒤에는 '후금과의 화의에 미온적인 조선의 장졸들을 전부 살해하자.' 고 주장한 바 있다. 누르하치나 홍타이

지의 형 다이샨(代善)의 입장은 달랐다. 두 사람은 '조선이 명의 배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대하지 말고 포용해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결국 조선을 삐딱하게 보고 있었던 홍타이지가 한으로 즉위한 것 자체가 조선에는 재앙이었던 셈이다.

홍타이지는 조선 정벌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즉위 당시 홍타이지의 권력은 미약했다. 그는 명목상으로는 한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형제들과 연정(聯政)을 펼 수밖에 없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사촌형 아민은 홍타이지 추대에 반발하여 자신의 기(旗)를 이끌고 독립하려고 시도했다.



한국 천주교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강화도 갑곶(甲串)성지.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면 홍타이지가 조선을 치러 가는 원정군 사령관으로 아민을 임명한 것은 시사적이다. 아민에게 원정의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그의 충성심을 시험할 수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다. 아민은 실제 원정 도중 홍타이지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독단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홍타이지의 '기대' 에 부응한 바 있다. 후금이 전쟁을 도발했던 원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제적 문제였다. 홍타이지의 즉위 직후 만주 지역에는 심각한 기근이 닥쳤다. '청태종실록' 에는 '굶어죽는 자가 속출하여 사람이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고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할 수 없다.' 는 기사가 실려 있다. 점령 지역은 늘었지만 농작에는 아직 서툴렀던 후금은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명나라 상인들과 곡물 무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명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심각한 기근 때문에 위기에 처한 후금에 조선의 존재는 특별했다.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유일한 나라였다. 후금은 정묘호란을 일으켜 조선으로부터 식량을 무역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고자 했다.

후금의 전쟁 도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모문룡 문제' 였다. 모문룡이 가도에 머무는 한, 후금의 서진(西進) 시도는 언제나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모문룡의 존재 때문에 한인들이 계속 후금을 탈출하고 있었다. 모문룡이 군사적으로는 미약했지만 후금에는 '목에 걸린 가시' 였다. 그 '가시' 를 제거하여 '후고(後顧)의 여지' 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일으킨 결정적인 배경이었다.

●아민, 홍타이지에 증원군 긴급 요청

조선 조정은 황해도 이북의 방어선이 붕괴되자 전열을 다시 정비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도원수 장만과 부원수 정충신(鄭忠信)에게 평안도 지역의 패잔병과 함경도, 강원도 등지의 병력을 모아 임진강을 방어토록 했다. 총융사(摠戎使) 이서(李曙)에게는 남한산성을 본거지로 삼아 하삼도 군사를 통괄 지휘하여 한강을 방어토록 했다. 그리고 통제사 구인후(具仁)가 거느리는 수군 병력으로써 적의 강화도 상륙을 저지하도록 조처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역시 인조가 머물고 있는 강화도를 수비하는 문제였다.

전쟁 초반의 전체적인 전황(戰況)은 조선이 일방적으로 몰리는 상황이었지만 후금군은 의외로 신중했다. 후금군은 의주성을 함락시킨 직후 총사령관 아민의 명의로 평안감사 윤훤에게 서신을 보내 화의(和議)를 제의했다. 윤훤은 후금 측에, 조정에 품의(稟議)한 후 회답을 주겠다고 했고 1월18일 조정은 윤훤의 장계를 통해 후금이 화의를 제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승승장구하던 시점에 후금이 갑자기 화의를 제의한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당시 후금군의 병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다. 후금은 조선 침략에 약 3만명의 병력을 동원했는데 아민은 그 숫자로는 서울까지 진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다.

그는 청천강 이북을 점령했던 직후, 이미 홍타이지에게 사람을 보내 증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3만명의 병력으로는 한편으로 전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점령 지역을 방어하고 그곳의 조선 관민들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은 원숭환의 위협이었다. 정묘호란 당시 후금군이 조선으로 쳐들어가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명군이 자신들의 배후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미 살폈듯이 1626년 누르하치가 영원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한 이후, 후금군의 서진은 좌절되었고 오히려 영원성에 주둔하는 원숭환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정묘호란 당시 명의 병부는, 후금군이 조선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후금 지역을 공격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산해관과 영원의 병마와 모문룡의 병력을 동원하여 배후를 협공함으로써 조선을 원조하자는 내용이었다.

●답장 내용 놓고 설전

후금이 화의를 제의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조선 조정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양사(兩司) 관원들은 '평안감사 윤훤이 엄한 말로 오랑캐의 서신을 물리치지 못하고 답장을 주겠다.' 고 응답한 것을 비난하고 인조에게 신중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이윽고 후금 측은 강홍립의 종자인 언이(彦伊) 등을 다시 윤훤에게 보내 '화의를 논의하기 위해 사람을 서울로 보내겠다.' 고 협박했다.

윤훤의 장계를 통해 두번째 화의 제의를 받자 인조는 비변사 신료들을 불러모았다. 인조는 "서신을 받자마자 화친을 허락하면 우리가 겁을 내서 그런다고 여길 것" 이라고 우려했다. 신흠(申欽)은 '명나라도 그들과 화친하려는 판에 우리만 화친을 피할 수 없다.' 고 했고, 이귀는 '적이 평양으로 진격해 오면 사태 수습이 불가하다.' 며 답서를 꾸며 강홍립의 아들 강숙 편에 부치자고 했다.

최명길의 의견은 달랐다. 그는 먼저 서신을 보낸 주체가 후금의 한 홍타이지가 아니라 사령관 아민임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도체찰사 장만의 명의로 답하되, 무고하게 침략하여 군민들을 도륙한 허물을 따지고 '위협적인 맹약은 죽어도 따를 수 없으며 침략 사실을 명에 알리겠다.' 는 내용을 집어넣자고 했다. 명을 이용하여 후금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의견이었다.

인조와 반정공신들은 후금 측의 화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사헌 박동선(朴東善), 사간 윤황(尹煌) 등 삼사 신료들은 인조가 강화도로 떠나기 전부터 반정공신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윤황 등은 '전하께서 총애하는 김류 이귀 이서 신경진 김자점 등 반정공신들은 해도(海島)로 들어가거나 산성으로 올라가고, 혹은 호위(扈衛)를 칭하거나 검찰(檢察) 직책을 맡아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고 오로지 힘없고 배경이 없는 장만만을 맨손으로 적진에 보냈다.' 고 성토했다.

그들은, 맨 처음 도성을 떠나자고 주장한 자의 목을 베고 인조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친정(親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여하튼 강숙 등은 조정의 답서를 가지고 1월27일 후금군 진영에 도착했다. 후금군은 이미 중화(中和)까지 남하해 있었다. 답서의 핵심은 이러했다. '조선은 명을 200년 이상 섬겨왔고 임진왜란 때 명에서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는 것이었다. 아민은 조선의 답서 내용에 반발했다. 그는 '조선은 명의 은혜만 강조하는데 과거 후금도 조선에 커다란 은혜를 베푼 적이 있다.' 고 맞받았다. 바야흐로 '은혜' 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조선 사신이 '재조지은을 배신할 수 없다.' 며 침략을 힐문했을 때 아민은 즉각 반박했다. 반박의 핵심은 '조선이 명의 은혜만 기억할 뿐 자신들이 베푼 은혜에는 눈을 감고 있다.' 는 것이었다. 아민은 과거 울라(烏拉)의 부잔타이(布占泰)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자신들이 부잔타이를 설득해 침략을 중지시켰던 것, 심하 전역 때 포로로 잡은 조선 병사들을 송환해 준 것 등 '은혜' 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조선이 모문룡을 편들고 군량을 제공했던 것, 누르하치가 죽었을 때 조문(弔問)하지 않은 것 등을 침략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 조선 인조 때의 문신인 김상용 선생의 충의를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세운 강화도 김상용 순절비(殉節碑). 김상용은 청군이 강화도를 함락하자 강화산성 남문루 위에 화약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순국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형제관계를 받아들이다

아민은 자신들이 군사를 일으킨 것이 정당하다고 강변하면서, 조선 사신들에게 계속 싸울 것인지 화약(和約)을 맺을 것인지 택일하라고 요구했다. 자신들은 조선의 토지와 백성에 아무런 욕심이 없으며 조선이 화의를 바란다면 국왕이 신임하는 사람을 속히 보내라고 닦달했다. 아민은 사신인 강숙 일행이 돌아가는 편에 자신의 사자 아본(阿本)과 동나미(董納密) 등을 동행시켰다. 그들이 떠난 뒤 전진을 멈추고 중화에서 1주일을 더 머물렀다. 휴식을 취하면서 조선의 답변을 기다리자는 심산이었다. 당시 후금군이 화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월28일 아민이 보낸 사신 일행이 강화도 건너편의 풍덕(豊德) 부근에 당도했다. 조선 조정은 '오랑캐 사신(胡差)'을 어느 길로 들이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인조는, 조선인들이 평소 이용하지 않는 샛길로 호차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호차가 전하는 국서를 직접 받지 않겠다고 했다. 화약을 맺어 후금군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급하기는 했지만 '오랑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도무지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2월2일, 호차가 갑곶(甲串)을 통해 강화도로 들어왔다. 그가 소지한 국서에는 '명과의 관계를 끊되, 후금이 형이 되고 조선이 아우가 되는 형식으로 화약을 맺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조는 신료들을 불러모았다. '명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대의에 어긋나는 것이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되었다. 인조는 형제의 명칭은 다툴 필요가 없다고 했다.

조선은 후금 측이 조선과 명 사이의 기존 관계를 용인해 준다면 화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척화파들이 들고 일어났다.2월3일, 태학생 윤명은(尹命殷) 등이 상소를 올렸다. '오랑캐 사신의 목을 베어 명나라로 보내고 의병을 일으켜 성을 등지고 결전을 벌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예빈직장(禮賓直長) 강유(姜瑜)도 비슷한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인조와 반정공신들이 주축인 비변사는 뜨끔했다. 비변사는 '오랑캐와 화친하려는



▲ 강화도 고려궁터의 강화유수부 동헌 모습.

것은 전쟁을 완화시켜 종사(宗社)를 보전하려는 부득이한 계책' 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외방에서는 '조정이 대의를 망각하고 더러운 오랑캐와 우호를 맺으려 한다.' 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조는 여론을 의식하여 다시 교서를 반포했다. '종사의 위기를 늦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랑캐와 화친하지만 명과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만은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오랑캐와 화친했다' 는 명분을 내세워 광해군 정권을 타도하고 들어선 인조정권은 광해군대의 '화친' 을 반복하는 데에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강홍립과 유해의 화의 주선

2월5일 조정은 회답사 강인(姜絪)을 임시로 형조판서에 임명하여 적진으로 보냈다. 그가 가져간 국서에서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 는 뜻을 거듭 밝혔다. 또 의연히 천계(天啓) 연호를 사용했다. 후금 측은 반발했다. 그들은 '천계' 의 '계(啓)' 자 대신 '총(聰)' 자를 쓰라고 종용했다. 자신들의 연호를 사용하라는 요구였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까지 진격하여 1년 동안 머물며 철수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후금군 지휘부는 계속 전진할지의 여부를 놓고 의견이 서로 달랐다. 총사령관 아민은 다른 장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로 전진할 것을 고집했다. 귀순한 한인(漢人) 출신 장수 이영방(李永芳)이 반대하자 아민은 이영방에게 "내 어찌 너 같은 오랑캐 놈을 죽이지 못할까?" 라고 면박을 주었다.

졸지에 '오랑캐' 로 전락한 이영방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아민의 동생 지르갈랑(濟爾哈朗)과 다른 장수들이 모두 나서서 설득한 뒤에야 아민은 전진하겠다는 고집을 꺾었다.

2월9일, 후금 측이 보낸 강홍립과 박난영(朴蘭英), 호차 유해(劉海)가 강화도로 들어왔다. 후금군 지휘부는, 천계 연호를 포기하지 않는 조선 측의 태도가 불만스러웠지만 화친을 깨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다.

2월10일, 인조는 강홍립과 박난영을 접견했다. 두 사람 모두 심하 전역에서 투항했던 이후 9년 만의 귀환이었다. 상당수 신료들은 강홍립의 목을 쳐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다. 하지만 인조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강홍립은 인조에게 "모진 목숨 죽지 못하고 9년 만에 전하를 뵈니 드릴 말씀이 없다." 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면서 인조에게 후금 측의 내부 사정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강화를 맺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유해는 본래 한인(漢人)으로 후금으로 귀순한 인물이었다. 후금 측이 그를 사신으로 보낸 것은, 조선이 한인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처였다. 실제로 유해는 조선 조정으로부터 과거 명의 칙사들처럼 대접받고 싶어했다. 그는 '조선이 오로지 명분에만 집착하여 종사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어 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며 화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정은 원창부령(原昌副令) 구(玖)를 원창군(原昌君)으로 삼아 그를 왕제(王弟)라고 칭하여 후금군 진영으로 보내기로 했다. 일종의 볼모였다.2월15일에는 목면 1만 5000 필, 면주(綿紬) 200 필, 백저포(白苧布) 250 필 등을 후금군 진영에 보냈다. 일종의 세폐(歲幣)였다. 원창군을 파견하고 세폐를 보냄으로써 화친을 위한 기본 토대는 마련되었다.

●인조, 맹세 의식에 태연

조선과 후금의 화의 과정에서 마지막 걸림돌은 화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하늘에 고하고 맹세(盟誓)하는 문제였다.

후금 측은 국왕과 후금 사신이 동참한 가운데 흰말(白馬)과 검은 소(黑牛)를 잡아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식을 거행하자고 요구했다. 조선 조정은 그것을 비루하게 여겨 거부하려 했다. 언관(言官)을 비롯한 상당수 신료들은 '존엄한 천승지국(千乘之國)의 임금이 개돼지와 더불어 맹세하는 것은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격렬히 반대했다.

후금 측은 완강했다. 아민은, 맹세를 기피하는 것은 겉으로만 화친하려는 것으로 끝내 거부한다면 다시 싸워 승부를 가리자고 협박했다. '청실록' 이나 '만문노당(滿文老)' 을 보면 누르하치가 주변 부족들을 복속시킬 때마다 희생을 잡아 회맹(會盟)하는 장면이 나오거니와 만주족의 입장에서 맹세는 서로의 신의(信義)를 담보하는 의식이었다.

신료들과는 달리 인조는 맹세 의식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맹세는 대의와는 무관하다. 두 마리 가축을 아끼려다가 위망(危亡)을 초래할 수는 없다." 며 맹세와 관련된 책임은 자신이 모두 지겠다고 나섰다.

3월8일, 인조는 대청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는 예를 몸소 거행했다. 조선 신료들과 호차들이 각각 동쪽과 서쪽 계단에 도열하여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인조가 예를 마치고 행궁으로 돌아가자 만주인들이 흰말과 검은 소를 잡아 피와 골을 그릇에 담았다. 조선 신료들과 호차들은 새로 만든 서단(誓壇)에 서서 맹세문을 낭독했다. '조선이 향후 후금을 적대시하여 나쁜 마음을 품으면 이와 같이 피와 골이 나오게 되고, 후금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역시 피와 골이 나와 하늘 아래서 죽게 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묘호란이 화친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괄의 난이 남긴 후유증을 비롯한 내정을 추스르기에도 여유가 없었던 조선과 잠시 서진(西進)을 멈추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절실했던 후금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인조실록’과 장유(張維)의 ‘계곡만필(谿谷漫筆)’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정묘호란 당시 강화도의 분위기는 흉흉했다. 불과 100리 밖까지 적의 대병이 압박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 신료들은 대개 화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척화(斥和)파들도 큰소리를 쳤지만 속으로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론이 무서워 자기 입으로 화의를 말하지 못했는데 유독 최명길(崔鳴吉)만이 주저하지 않고 화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것이다.

●화의 후에도 전투가 벌어지다


인조정권의 정신적 지주 김장생의 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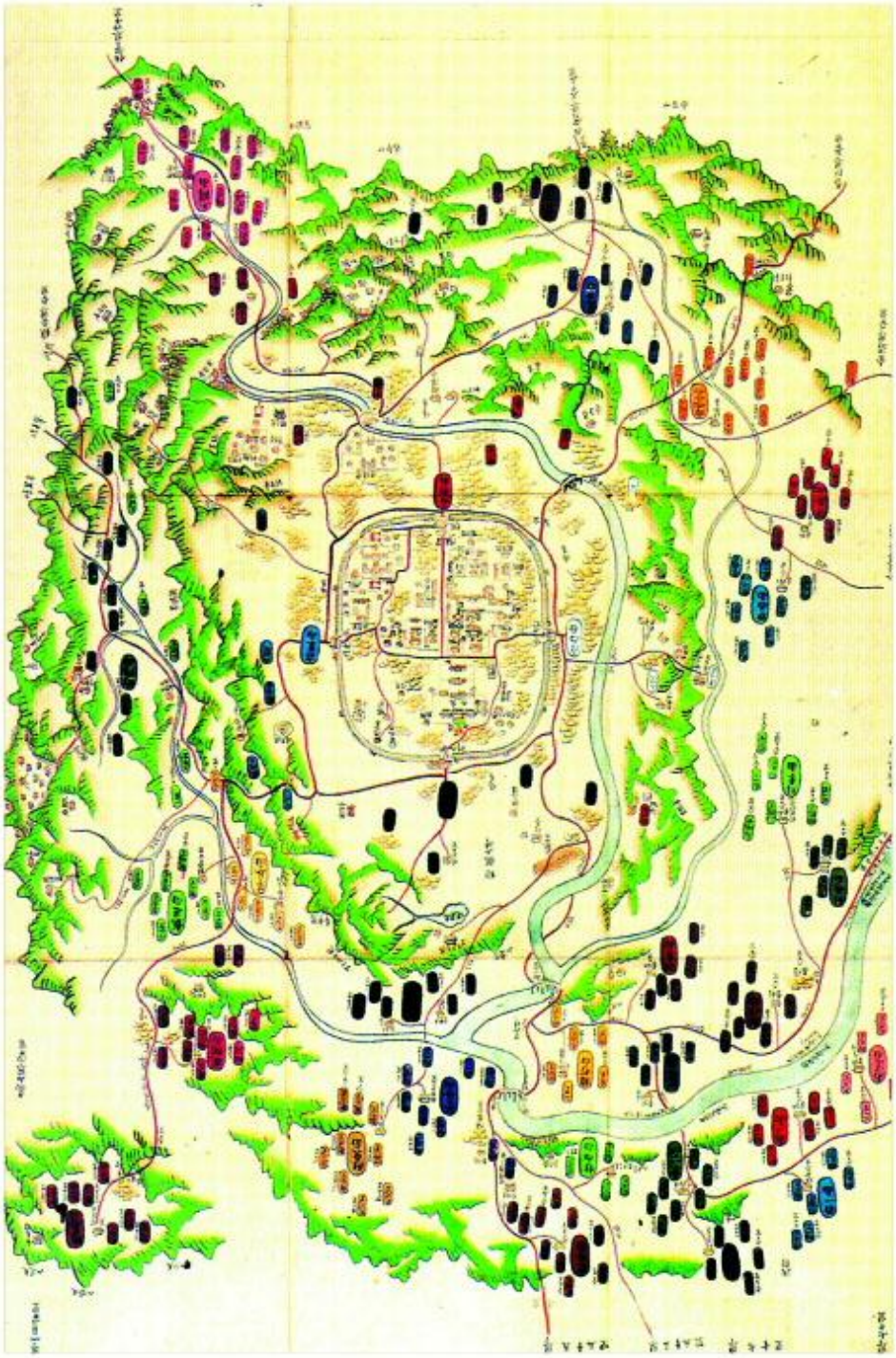
1627년 3월3일, 화의를 맺은 사실을 하늘에 고하고 그것을 준수겠다는 맹세 의식을 치름으로써 정묘호란은 일단 끝났다. 후금군은 철수 길에 올랐다. 어렵사리 전쟁을 끝내게 되었지만 인조와 신료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오랑캐’에게 세폐를 제공하고 화의를 맺은 것도 그랬지만 적이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변변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래서였을까? 화의가 성립된 직후 비변사 신료들은 인조에게 ‘적이 철수할 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지방 지휘관들에게 기회를 보아 공격하라.’고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후금군은 예상대로 곱게 물러가지 않았다. 그들은 철수하는 길에 각지에서 약탈을 자행했다.3월13일에 날아든 보고에 따르면 후금군의 약탈 때문에 평산, 서흥, 봉산, 해주, 문화 등 황해도의 여러 읍들이 텅 비었다고 했다.3월9일 조정은 선전관을 후금군 진영에 보내 약탈을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강홍립에게도 서신을 보내 후금군 지휘관들을 설득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서북 지방의 조선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철수로 주변에 매복했다가 후금군을 습격하여 병사들을 살해하거나 마필(馬匹) 등을 빼앗는 소규모 유격전을 도처에서 벌였다. 평안도 순안에서는 삭주부사 이명길(李明吉), 평양판관 권이길(權 吉), 좌척후장 정지한(鄭之翰) 등이 이끄는 조선군과 후금군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운산에서는 우후(虞侯) 이직(李)이 경상도 포수 등 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후금군 1000명을 야습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후금군에 연행되고 있던 포로들이 탈출하고 가축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

조선군의 공격이 계속되자 후금군 지휘부 역시 조선 조정에 서신을 보내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선 조정은 “귀국의 기마병들이 곳곳에서 노략질과 살육을 일삼기 때문에 촌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수하려고 일어선 것”이라고 응수했다.3월17일 총사령관 아민이 다시 서신을 보내왔다. 그는 ‘서울을 점령하여 팔도를 다 차지할 수 있었고, 조공을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조선을 위해 자제했다.’며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청천강 이북 지역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조선과 후금의 화의는 체결 직후부터 이렇게 삐걱거렸다. 하지만 평안도 지역의 전투는 쉽사리 멈추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의병들이 있었다.



소현 세자와 김장생이 이끄는 의병이 머물렀던 전주성 지도. 규장각 소장

●충청도와 전라도의 의병

정묘호란 시기에도 의병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의병들이 일어난 지역과 활동의 성격이 임진왜란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임진왜란 시기에는 조선 팔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지만 정묘호란 당시 의병 활동의 중심지는 주로 양호(兩湖) 지방과 평안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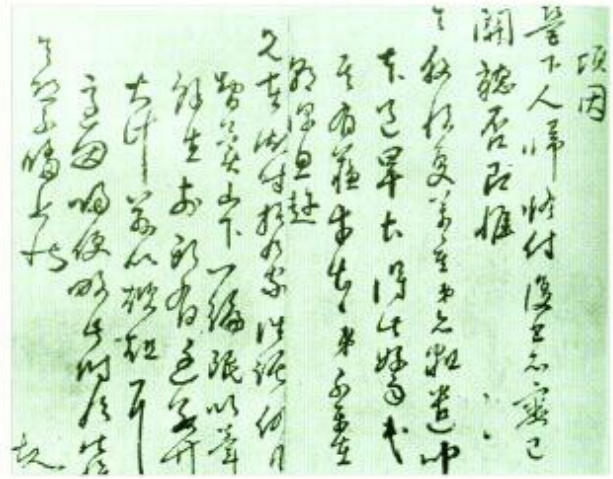
인조는 정묘호란이 일어난 직후인 1627년 1월19일, 정경세(鄭經世)와 장현광(張顯光)을 각각 경상좌도 호소사(號召使)와 경상우도 호소사로, 전 호군(護軍) 김장생(金長生)을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로 임명하여 그들에게 의병을 모집하여 근왕하라고 지시했다.

김장생(1548~1631)은 당시 여든 살의 고령으로 인조정권의 '정신적 지주' 였다. 서인들 학통(學統)의 정점에 있던 이이(李珥)의 수제자인 데다 인조반정 성공 직후 반정 주체들에게 전체적인 시정의 방향을 제시한 인물이 김장생이었다. 그는 1월23일 향리 연산에 의병 본부를 설치하고 각 고을에 격문을 띄워 의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했다. 그의 호소에 호응하여 연산의 이복길(李復吉), 니성의 윤전(尹), 회덕의 송국택(宋國澤), 전주의 송흥주(宋興周), 보성의 안방준(安邦俊), 광주의 고종후(高從厚) 등이 병력을 이끌고 모여들었다.

김장생은 호남의 의병들을 전주로 모이도록 한 뒤, 자신도 호서의 의병들을 이끌고 전주로 내려갔다. 당시 전주는 분조(分朝)를 이끌고 남하했던 소현 세자 일행이 머물 곳이기 때문이었다. 김장생 휘하의 의병은 이후 소현 세자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았다. 후금군이 임진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분조의 신료들은 소현 세자를 모시고 영남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분조를 옮긴다는 소식에 의병 진영은 동요했다. 그러자 김장생은 분조 신료 가운데 최고위 인물인 이원익을 만나 이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주를 굳게 지키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록 후금군과 직접 전투를 치르지는 못했지만 김장생의 의병 활동은 인조정권의 체면을 살려 주는 것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경상도에서는 정묘호란 시기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그것은 인조정권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과 관련이 있었다. 경상우도 지역이 광해군대 집권세력의 정치적 근거지였던 것을 고려하면,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린 인조정권을 위해 지역의 사대부들이 궐기하는 것은 정서상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실 김장생이 궐기를 호소했던 충청도 지역의 민심도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김장생의 회고에 따르면, 청주 등지에서는 익명서 등을 통해 사족들에게 "의병 활동에 호응하지 말라." 고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정도였다.



정묘호란 당시 화의를 역설한 최명길의 필적. 옛 선인들의 글씨 모음집 '근묵(槿墨)'에 실려 있다.

●평안도의 의병

조정으로부터 종용을 받은 양호 지역 의병과는 달리 정묘호란 시기 평안도 의병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적의 침입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데다, 조정이 사실상 임진강 이북의 방어를 포기해 버린 상황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정묘호란 시기 평안도 지역 의병 활동의 중심에 정봉수(鄭鳳壽 · 1585~1668)가 있었다. 그는 철산(鐵山) 출신으로 본래 사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은 용천 용골산성(龍骨山城) 전투에서의 빛나는 활약 때문이다.

후금군이 의주를 함락시킨 직후 용천부사였던 이희건(李希建)은 휘하 병력 500명과 용천 백성들을 용골산성으로 이주시켜 적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러나 그가 후금군의 이동을 탐지하여 유격전을 꾀하려 나갔다가 전사되자 그의 부하 장사준(張士俊)은 스스로 머리를 깎고 후금군에게 투항해 버렸다. 후금군 지휘부는 그를 용천부사에 임명했고, 그는 용골산성을 나가 백성들을 선동하여 후금군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바로 그 무렵 정봉수가 용골산성으로 들어왔다. 그는 남은 백성들을 효유하는 한편 인근의 용천, 의주, 철산 출신 피난민들을 불러들여 약 4000명의 병력을 모았다.1월16일 장사준이 후금군 수백 명을 이끌고 와서 항복하라고 협박했다. 정봉수는 성 밖에 미리 매복시켜 둔 의병들을 이끌고 그들을 공격하여 장사준을 참수했다. 장사준을 처단하여 사기가 오른 의병들은 곧이어 벌어진 전투에서도 후금군의 공격을 물리쳤다.

화의가 이루어진 뒤인 3월17일, 후금군의 대병력이 다시 공격해 왔다. 아침 7시경부터 10시간 이상에 걸쳐 모두 5차례의 큰 전투가 벌어졌다. 정봉수 휘하의 의병들은 활과 조총, 돌 등으로 일제히 공격하여 적 기병 수백 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다. 물러났던 후금군은 4월13일에도 청북 지역의 병력을 끌어 모아 공격을 퍼부었으나 끝내 용골산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공격을 포기하고 의주로 철수했다.

용골산성 싸움은 정묘호란 시기 조선군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였다. 조정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고립된 산성에서 처절한 사투 끝에 이뤄낸 승리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것이었다.

정묘호란과 모문룡

1627년 4월21일, 용골산성의 영웅 정봉수로부터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평안도 구성부터 곽산까지 후금군사들이 가득 차 있고 용골산성은 고립되어 있다. 성안에는 7000명 가까운 군사가 있지만 양식이 다 떨어져 굶어 죽은 자가 이미 30명이 넘었다. 후금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해 오는 백성이 무수히 많지만 그들을 먹여 살릴 방도가 없다.' 고 했다. 정봉수는 죽어 가고 있는 평안도 백성들을 살릴 진휼(賑恤) 대책을 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 태종이 사용하던 말 안장(왼쪽)과 허리에 차던 칼.

●서북 백성들의 비극

정묘호란 시기 평안도와 황해도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는 끔찍했다. 조정에서 버림받은 채 후금군의 칼날 앞에 가장 먼저 노출되었던 그들이었다. 많은 이들이 후금군에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되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을 버리고 피란을 떠났다. 피란길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해에 있는 섬으로 들어갔다. 후금군이 바다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섬으로 들어가면 목숨은 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갑자기 들어간 섬 안에 식량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을 리 없었다. 후금군을 겨우 피했지만 섬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강화가 맺어져 전쟁은 끝났지만 서북 백성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어느 고을을 가든 굶어 죽기 직전까지 몰린 사람들로 넘쳐났다. '황해도의 마을들은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비어 있고, 평양성 안에는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다.' 고 했다. 압록강 부근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처참했다. 후금군에 끌려가던 포로들이 압록강을 건널 때 강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후금군은, 투신을 막으려고 포로들을 결박하고 배에다 울타리를 치기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강으로 뛰어들어 압록강이 시체로 뒤덮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비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묘호란이 일어났던 초기, 평안도 백성들 가운데는 후금군의 앞잡이가 되어 모문룡 휘하의 명군(모병:毛兵)을 공격하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난이 일어나기 이전 모병들이 자행했던 극심한 민폐 때문에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었다. 강화가 이루어지고 후금군이 철수하자 모병들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곽산, 구성, 삭주, 선천, 창성, 철산, 의주 등 모병의 주둔지 부근에 살고 있던 무고한 양민들까지 모병들에 살해되었다. 정묘호란 직후 모병들의 살육과 약탈은 극에 이르렀다.1627년 4월19일 무렵, 모문룡의 부하 모유후(毛有厚)는 안주에 정박해 있던 조선 선박 3척을 나포했다. 조선 피란민들이 타고 있는 배들이었다. 모유후는 배들을 기습하여 건장한 남자들과 노약자들은 모두 살해하고 여자들과 화물만을 남겨 끌고 갔다. 중군(中軍) 진계성(陳繼盛)이란 자는 조선 조정이 황해도 장연의 선박들을 쇄환하려는데 불만을 품고 조선인 역관을 잡아다가 곤장을 치고 귀를 자르는 악행을 저질렀다. 서북 지역에서 조선의 행정 체계와 공권력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모병들은 마구잡이로 날뛰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화살과 화살통. 성균관대 박물관 소장.

●정묘호란 중의 모문룡

후금의 홍타이지가 정묘호란을 일으키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운 것은 모문룡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조선에 대한 공격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모문룡은 후금군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가도에서 다른 섬으로 도피하여 용케 목숨을 보전했다. 그는 이후 평안도 연해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관망했다. 조선 조정은 그가 배후에서 후금군을 공격하거나 견제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선 정부의 통제력이 사라진 틈을 이용하여 청북(淸北)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시도했다. 실제로 정묘호란 당시 평안도 지역의 조선 의병이나 백성들 가운데는 모문룡에게 의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용골산성 싸움에서 공을 세웠던 중군 이립(李)과 품관 장희범(張希範)은 자신들이 벤 후금군의 수급(首級-머리)을 모문룡에게 가져다 바쳤다. 용천(龍川)의 군관 김여의(金汝義)는 수급뿐 아니라 후금군에서 노획한 말을 바쳤다. 모문룡은 그들에게 은이나 식량 등을 상으로 주었다. 적과 싸워 군공을 세워도 그에 합당한 포상을 받지 못하던 서북 지역 의병들의 입장에서는 모문룡이 상으로 주는 식량 등이 아쉬운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모문룡에게 수급을 바친 사람들 가운데는 조선인의 머리를 후금군의 것으로 속이는 자들도 있었다. 모문룡은 그렇게 얻은 수급을, 마치 자신이 적과 싸워 얻은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명 조정에 군공으로 보고했다. 청북 지역에 대한 조선 조정의 통제력이 사라진 데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조선 조정은 강화가 성립된 후 모문룡에게 문안사(問安使)를 보냈다.1627년 4월27일, 문안사 신달도(申達道)는 모문룡을 면담했다. 신달도가 "수로와 육로가 모두 막혀 이제야 노야(老爺)를 찾아 뵙게 되었다." 고 공손히 안부의 인사를 전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다. 문제는 신달도가 가져간 자문(咨文)의 내용이었다. 자문 속에는 '귀하의 진영에서 조선을 돕기 위해 한 무리의 군대도 동원하지 않아 섭섭하다.' 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자문을 읽은

뒤 모문룡은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조선이 후금군을 끌어들여 명군을 도살했고, 의주부윤 이완(李莞)은 후금군이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그들을 방임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선이 후금과 강화를 체결한 것은 명의 은혜를 배신한 '패륜행위' 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신달도가 '강화를 체결한 것은 조선의 본심이 아니며 적을 기미(羈-어르고 달래는 것)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득이하게 선택한 것' 이라고 변명했지만 모문룡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조선 백성들을 죽이거나 약탈하지 못하도록 부하들을 단속해 달라.' 는 신달도의 요청도 묵살했다. '조선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부하들에게 적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보복한 것' 이라며 입을 막았다.

●모문룡에 미곡 5만석 · 은 10만냥 하사

4월28일, 정묘호란의 전말을 명 조정에 보고하기 위해 북경으로 가고 있던 주문사(奏聞使) 일행이 가도에 도착했다. 주문사 일행은 모문룡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그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만나 주지 않았다. 모문룡은 부하들을 시켜 조선의 주문사 일행이 명나라로 가는 것을 저지하도록 했다. 주문사 일행의 보고를 통해 정묘호란 중 자신의 행적이 탄로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모문룡은 아예 주문사 일행에게 명 조정으로 가져 가는 보고서의 내용을 뜯어 고치라고 강요했다. '조선이 후금군의 침략을 받아 망하기 직전까지 몰렸는데 모문룡의 활약 덕분에 적이 크게 패하여 철수했다.' 는 내용으로 고치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북경으로 가는 해로를 열어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주문사 일행은 북경으로 가기 위해 결국 그의 요구대로 따랐다.

정묘호란 직후 명의 천계제(天啓帝)는 모문룡의 사기 행각에 완전히 넘어갔다. 요동에 파견되었던 태감(太監) 유응곤(劉應坤)은 정묘호란과 모문룡에 관련된 보고서를 조정에 올렸다. 그것은 한마디로 '소설' 이었다. '오랑캐 군사 6만이 조선을 공격했는데 모문룡이 기책(奇策)을 내어 제압하여 그들이 심양으로 도망쳤다.' 는 내용이었다. 모문룡은 다른 경로로 올린 보고서에서는 '자신이 세 차례 대승을 거둠으로써 조선이 보전되었다.' 고 허풍을 치는가 하면 '조선이 요민들이 끼치는 민폐에 불만을 품고 후금의 첩자 노릇을 하고 있다.' 고 무고까지 했다.

1627년 5월 천계제는 모문룡의 '군공' 을 치하하고 그에게 미곡 5만석과 양곡 구입 자금으로 은 10만 냥을 주도록 재가했다. 평소 위충현을 비롯한 환관들을 뇌물로 '구워 삶았던' 모문룡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동시에 최고 지도자가 환관과 간신들에게 철저히 농락 당하고 있던 명의 앞날이 어떤 모습일지 예감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묘호란의 후유증

인조는 1627년 4월12일, 서울로 돌아와 경덕궁(慶德宮)으로 들어갔다.1624년 이괄의 난을 맞아 서울을 버렸다가 되찾았던 경험을 3년 만에 되풀이했던 것이다. 이번에도 어렵사리 정권은 지킬 수 있었지만 그 후유증은 컸다. 청북에서는 의병들이 계속 저항하는 와중에 모병과 후금병 사이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명은 '조선이 오랑캐와 화친했다.' 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고 후금은 '속히 모문룡을 잡아 죽이라.' 고 채근했다. 민생 문제가 시급한 와중에 조정 신료들은 후금과 화약을 맺은 것에 대해 시비와 논란을 멈추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1 청태종이 사용하던 옥새. '황제태이지보'라고 쓰여진 글씨가 선명하다.
2 김상헌의 필적.
3 이인거의 반란 전말을 기록한 소무영사녹훈도감의궤(昭武靈社錄勳都監儀軌)의 첫 장(규장각 소장).

●모문룡, 후금과 화친 빌미 자신의 발호 정당화

화의가 체결되면서 후금군 대부분은 철수를 시작하여 압록강을 건넜다. 하지만 홍타이지는 의주를 조선에 반환하지 않았다.

후금군은 의주 부근에 주둔하면서 모문룡을 체포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몽골병을 포함하여 수천 명에 이르렀는데 아예 농사를 지으면서 장기간 주둔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다. 조선은 사자를 보내 완전히 철수하라고 종용했지만 후금 측은 듣지 않았다. "조선이 모문룡을 제거해 주면 철수하겠다." 는 말을 되풀이했다.

모병들은 그들대로 청북 주변의 섬과 육지를 오가며 마구잡이로 날뛰고 있었다. 간헐적으로 후금군을 습격하는가 하면 조선 관아와 백성들에 대한 약탈을 멈추지 않았다. 조선 조정은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모문룡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모문룡은 '조선이 후금과 화친했다.' 는 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발호를 정당화하려 했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정묘호란 이후 청북은 훨씬 더 위험한 '화약고' 가 되어 버렸다. 모병과 후금군 사이의 충돌은 다반사가 되었고, 그 와중에 조선은 '샌드위치' 의 처지로 몰렸다. 화약을 체결하면서 조선과 후금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사자의 왕래가 빈번해졌다. 문제는 사자들이 서울과 심양을 오가면서 모병들이 득실대는 청북 지역을 지나야 한다는 점이었다.

모문룡은 후금 사자를 체포하여 '한 건 올리려' 덤볐고, 후금 사절들은 그들대로 모병들과의 충돌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1627년 5월, 심양을 왕래했던 이홍망(李弘望)의 보고 내용은 '샌드위치' 가 되어 버린 조선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 준다. "후금 군인이 한인 네 명과 조선인 네 명을 붙잡아 제게 데려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인이 조선 사람들을 살해하기에 잡아 왔으니 그대가 직접 한인을 죽이라.' 고 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말했더니 후금 군인이 말하기를 '조선은 한인과 마음을 같이하고 있으니 도리상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침내 한인을 죽였습니다."

●화친에 대한 비판이 격화되다

종묘사직을 지키려고 화의를 맺긴 했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오랑캐' 후금을 '형' 으로 받드는 것은 도무지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그와 함께 인조와 화의를 주도한 신료들을 특히 힘들게 했던 것은 명의 반응이었다. 이미 정묘호란이 일어난 직후 명 일각에서는 노골적으로 조선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흘러 나오고 있었다.1627년 5월, 성절사(聖節使)로 명에 갔다가 귀국했던 김상헌(金尙憲)은 명에서 '조선이 누르하치에게 양곡을 원조했던 사실이 있다. 조선이 후금을 두려워하여 명과 후금 사이에서 관망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1627년 6월, 요동에서는 '조선이 오랑캐와 혼인을 맺었고, 오랑캐에게 땅을 내주고 거주하는 것을 허용했다.' 는 풍문마저 돌았다.

인조와 조선 신료들은 명의 그 같은 태도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미 '오랑캐와 화의를 맺은 것 때문에 인조반정 당시 내세웠던 명분이 크게 훼손되었다.' 고 스스로 찜찜해 하던 차였다. '광해군이 후금과 화친했기 때문에 타도해야 한다.' 고 외쳤던 인조정권의 입장에서 명의 비난은 극심한 굴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인조는 이미 척화파 윤황(尹煌)의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바 있다. 윤황은 강화도에 있을 때, 화의에 반대하면서 '오늘의 화친은 이름만 화친일 뿐 실제로는 항복입니다. 전하는 요행을 바라는 간신들에게 넘어가 더러운 오랑캐 사자를 접견하고도 부끄러워 할 줄을 모르십니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었다.

'항복' 이란 말에 격분한 인조는 '유식한 그대들은 오랑캐에게 항복한 임금을 섬기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황을 잡아다가 국문하라고 지시했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논란은 재연되었다.7월1일, 생원 이흥발(李興浡) 등이 상소를 올렸다. '명나라 장수가 우리 경내에서 피살되었음에도 전하는 오랑캐 사신을 객관에 머물게 하고 극진히 예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적 사신의 목을 베어 명나라로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 중국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마땅히 대꾸할 말이 없었던 인조는 '그대들이 가상하다. 나도 후회하고 있다.' 며 물러섰다.

화의에 대한 자괴감과 명에 대한 미안함은 신료들에게 엉뚱한 자격지심을 촉발시켰다. 후금군은 철수하면서 강홍립이 조선에 남도록 허용했다. 이어 강홍립이 후금에 억류되었을 때 거느리던 사람들도 조선으로 송환했다.

화의가 이루어진 데 대한 만족감의 표시였다. 송환된 사람 가운데는 강홍립이 후금에서 재취(再娶)했던 부인도 있었다. 그녀는 한족 출신 장군 동기공(奇功)의 딸이었다. 신료들은 그녀가 강홍립에게 가겠다고 하자 아우성을 쳤다. '오랑캐에게 항복하여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를 섬긴 자에게 한족 여인을 다시 거느리게 해 주는 것은 참람하다.' 는 것이 반대 명분이었다.

인조는 그녀를 강홍립에게 보내라고 했지만 신료들은 반대했다. 그들은 그녀를 명나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기공의 딸은 '조선에서 살 수 없으면 죽어 버리겠다.' 고 호소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논란이 한창이던 7월27일 강홍립이 세상을 떠났다. 자신을 '매국노' 로 매도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그의 죽음과 함께 논란은 종식되었다.

●이인거, 창의중흥대장 칭하며 병권 요구

화의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던 1627년 9월, 모반 사건이 터졌다. 강원도 횡성(橫城)에 살던 유학(幼學) 이인거(李仁居)가 주도했던 사건이었다.

이인거는 9월26일, 원주목사 홍보와 강원감사 최현(崔晛)을 찾아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계획을 털어 놓았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조정에서 오랑캐와 화친했으니 내가 의병을 일으켜 곧바로 서울로 올라 가겠다. 전하께 주화파 간신 한 사람의 목을 베도록 청한 다음 서쪽으로 달려가 오랑캐를 토벌하겠다.' 최현 등이 미심쩍게 여겨 반신반의하고 있던 9월29일, 이인거는 군사를 일으켜 횡성현의 무기고를 탈취한 뒤 스스로를 '창의중흥대장(倡義中興大將)' 이라 칭했다.

10월1일, 이인거의 상소가 조정에 도착했다. 이인거는 '전하는 호란을 맞아 몸소 갑옷을 입고 와신상담하는 자세로 적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랑캐 사신의 접대나 일삼고 눈치만 살폈으니 천지와 귀신이 공분(公憤)하고 나라가 견융(犬戎)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일갈한 뒤, 자신에게 병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인조와 조정은 경악했다. 급히 선전관을 보내 강원감사 최현을 잡아들이게 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의 병력 수천을 동원하여 전진시켰다.

비변사는 궁성의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호위대장이 군관들을 거느리고 대궐 밖에서 숙직하도록 하고, 동대문에서 횡성에 이르는 길의 요소 요소마다 정탐병을 배치했다.

이인거가 거느렸던 병력은 고작 70명 남짓이었다. 그는 9월30일, 횡성읍에서 벌어진 가벼운 교전 끝에 체포되었다. 싱거운 '해프닝' 이었다.

하지만 처벌은 참혹했다. 심문 과정에서 모두 20명이 죽고 14명이 유배되었다. 진압 이후 인조는 모든 책임을 윤황에게 돌렸다. 윤황이 '항복' 운운하는 바람에 이인거 등이 민심의 불만을 틈타 일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인조와 화의를 주도한 신료들의 마음은 도무지 편치 않았다.

이인거의 시도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후금과의 화의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묘호란 직후 조선의 분위기는 그렇게 어수선하고 착잡했다.

[병자호란] (13) 일본의 氣가 살아나다

2013.01.27 22:45

일본의 氣가 살아나다 I

정묘호란의 발생은 조선과 일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쓰시마(對馬島)와 도쿠가와(德川) 바쿠후(幕府)는 동원할 수 있는 채널을 모두 가동하여 전쟁의 추이와 승패를 파악하려 했다. 그들은 조선과 후금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전쟁이 자신들에게 미칠 파장을 따져보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다. 후금의 침략 때문에 곤경에 처한 조선의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점이다. 그것은 우선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완강한 거부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던 왜사(倭使)의 상경(上京)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조선 중종의 능인 정릉(靖陵).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이 왕릉을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 사람들의 대일 감정은 격앙되었다. 무고하게 침략하여 처참한 살육과 약탈을 자행한 데 대한 원한과 적개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특히 선릉(宣陵)과 정릉(靖陵) 등 왕릉을 파헤쳤던 일본군의 행위에 격분했다. 왜란 직후의 기록에는 일본을 가리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萬世不共之讐)' 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등장한다. 심지어 1607년(선조 40) 일본에 갔던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가 소지했던 국서 속에도 '의리상 귀국과는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다.' 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정도였다.

● "日은 같은 하늘 이고 살 수 없는 나라"

이 같은 적개심을 고려하면 임진왜란 직후 조선이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쓰시마는 절박했다.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없었던 그들은 조선과의 교역이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국교를 다시 열고 교역을 재개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매달렸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599년 쓰시마는 국교 재개를 요청하기 위해 가케하시 시치다유(梯七太夫)와 요시조에 사콘(吉副左近) 등의 사절을 조선에 보냈다.1600년에는 유타니 야스케(柚谷彌介)를 다시 보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살아서 귀환하지 못했다. 쓰시마는 한편으로는 왜란 당시 잡아간 조선인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등 '성의' 를 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이 국교 재개 요청을 계속 거부하면 다시 침략이 있을 것' 이라고 협박했다. 실제 1603년, 사쓰마(薩摩)에 억류되어 있다가 송환되었던 하동(河東) 출신

의 유학(幼學) 김광(金光)의 보고 내용은 심상치 않았다. 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조선과 다시 화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는 것과 '화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재침이 있을 것' 이라고 진술했다.

조선은 긴장 속에서 승려 유정(惟政)을 탐적사(探賊使)란 명칭으로 파견하여 일본의 정세를 살피도록 했다.1605년 4월, 유정은 후시미성(伏見城)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화친에 대한 그의 의도를 탐지하고 조선인 포로들을 데리고 귀국했다. 조선은 이어 '일본이 먼저 화친을 요청하는 국서(國書)를 보낼 것', '선릉과 정릉을 파헤친 범인(犯陵賊)을 묶어 보낼 것', '조선인 포로들을 돌려보낼 것' 등을 국교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쓰시마는 조선이 제시한 요구에 신속히 응답했다. 그들은 1606년 9월, 이에야스 명의의 국서와 범릉적을 조선에 보냈다. 국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범릉적 또한 날조된 인물들이었다. 조선은 '진실' 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를 덮어두었다. 이윽고 1607년 조선은 강화(講和)를 위해 회답겸쇄환사라는 명칭으로 통신사(通信使)를 일본에 파견했다. 임진왜란으로 단절된 양국의 국교가 회복되는 출발점이었다.1609년(광해군 1)에는 기유약조(己酉約條)를 맺어 쓰시마와의 교역을 허락했다.1617년에는 2차 회답겸쇄환사를 보내 도쿠가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잔당 세력을 소탕한 것을 축하했다.



▲ 일본 시즈오카시 유메히로바(夢廣場)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박물관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상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조선이 이렇게 적개심을 억누르면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우선 일본측의 간청과 협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더하여 북방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던 누르하치의 위협을 염두에 둔 조처이기도 했다. 누르하치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서북방과 동남방 양쪽 모두를 적으로 만들 수 없는 지정학적 조건이 작용했던 것이다.

●누르하치 세력 커지자 일본과 국교재개

국교를 재개하고 교역을 허용했지만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의식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았다. 조선 정부는, 쓰시마에서 왕래하는 교역선의 숫자를 왜란 이전에 비해 대폭 줄였고 일본인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특히 왜사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은 엄격히 금지했다. 과거 그들에게 상경을 허용함으로써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산천형세와 지리 정보가 모두 유출되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처였다. 쓰시마는 상경을 불허한 조선의 조처에 답답해했다. 그러나 조선은 요지부동이었다. 정묘호란의 발생은 상황에 변화를 몰고 왔다. 조선은 후금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서북방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을 때부터 그 사실을 왜관(倭館)의 일본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전쟁이 일어난 판국에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조선은 1627년 2월, 정묘호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왜관에 통보하고 전란이 끝날 때까지 사선(使船)의 파견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묘호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쓰시마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쓰시마 도주(島主) 소오 요시나리(宗義成)는 조선에 사람을 보내 '이미 파견한 선박을 회항(回航)시키는 것은 어렵고, 그럴 경우 조선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그는 또한 조선을 돕기 위해 병력을 보내고 조총(鳥銃) 등의 무기를 원조할 수 있다고 제의했다. 쓰시마는 정묘란을, 위기에 처한 조선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일본은 여진을 달단()이라 불렀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집권 무렵부터 만주의 정세와 여진의 동향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이미 1592년 여름, 함경도를 점령했던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두만강을 건너 여진 마을에 침입하여

그들과 군사적으로 접촉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후 달단이 더욱 강성해져 후금을 건국하고 요동을 점령하자 일본의 위기의식은 높아갔다. 도쿠가와 바쿠후는, 후금이 1621년 요동을 점령했다는 정보를 당시 나가사키(長崎)에 왕래했던 중국상인들을 통해 알고 있었다.1623년 새로 쇼군이 된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는, 후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여 보고하지 않았다고 쓰시마의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를 질책했다. 다급해진 소오 요시나리와 야나가와 시게오키는 조선에 조총 등을 보내는 한편, 요동 사정을 탐문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조선이 여전히 상경을 허용하지 않자 쓰시마 측의 조바심은 높아갔다.

● "상경길 안 열면 문제 생길 것" 공갈치는 일본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쓰시마 측은 위의 전례를 흘려 조선을 압박했다. 즉 '전에도 바쿠후가 요동 사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는데, 만일 이번에 야나가와가 잘 주선하지 않으면 바쿠후가 요동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조선과 쓰시마가 피해를 입을 것' 이라는 내용이었다.

1627년 11월, 소오 요시나리는 에도(江戶)로 가서 정묘호란과 관련된 전후 상황을 바쿠후에 보고했다. 조선과 대륙 정세 변화에 민감했던 바쿠후는 요시나리에게 조선과 대륙 정세를 상세히 조사하여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1628년 11월, 쓰시마로 돌아온 요시나리는 승려 겐포(玄方)를 차출했다.

1629년 윤 2월, 겐포는 '조선과 대륙 정세 파악' 이라는 중책을 안고 부산에 상륙했다. 요시나리는 이미 조선에 서계(書契)를 보내 겐포 일행의 상경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은 여전히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겐포 일행도 물러서지 않았다. 상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공갈을 쳤다. 정묘호란으로 수세(守勢)에 처한 조선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1629년 겐포(玄方) 일행은 상경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도쿠가와 막부 장군의 명령을 받아 온 사자(國王使)라고 강변했다. 조선 조정은 그들이 진짜 국왕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홍명(鄭弘溟)을 선위사(宣慰使)로 왜관에 보냈다. 하지만 겐포 일행은 국왕사가 마땅히 지참해야 할 국서(國書)를 갖고 있지 않았다. 조선은 당연히 상경을 다시 거부했다. 겐포는 국왕사라고 우기며 협박을 계속했다. 임진왜란 이후 최초의 상경을 둘러싼 실랑이는 쉽사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진 전장(戰場)의 현재 모습.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전투

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일본은 500여년 간의 긴 중세시대를 마감하고 근세, 즉 에도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외교전문가로 길러진 겐소의 제자 겐포

겐포(1588~1661)는 17세기 초반 조·일 관계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승려였다. 그의 정식 이름은 기하쿠 겐포(規伯玄方)였고 호를 백운(白雲) 또는 회계(晦溪)라고 했다. 규슈 하카다(博多)에서 태어난 그는 출가한 이후 쓰시마로 건너갔는데, 출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겐포에게 외교술을 가르쳐준 스승은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였다. 본래 하카다의 성복사(聖福寺) 주지였던 겐소는 1580년 쓰시마로 건너갔다. 겐소는 뛰어난 한문 실력을 바탕으로 쓰시마에서 조선과의 외교 교섭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활약했다. 조선과의 교역이 경제적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였던 쓰시마의 입장에서는 능숙하게 외교문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절실했다. 문화적으로 일본인들을 '한 수 아래'로 보았던 조선 관인들과 접촉하려면 한문 실력뿐 아니라 시문(詩文) 등을 수작(酬酌)할 수 있을 만큼 문학적 재능도 필요했는데 겐소는 바로 그 같은 임무에 적격이었다.

겐소는 임진왜란에도 참전했다. 왜란 당시 명군 지휘부는 그를 일본군의 모주(謀主)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하여 그의 목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겐소의 활약은 왜란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 승리를 통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한 이후 쓰시마의 소오씨(宗氏)는 겐소를 내세워 조선과의 강화를 성공시켰다. 겐소는 조선 사절의 도일(渡日)을 이끌어내고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선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겐소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외교관이었던 셈이다.

겐포는 17세부터 쓰시마의 이정암(以酊庵)이란 곳에 머물며 겐소를 보좌하면서 조선과의 외교를 배웠다.1611년 겐소가 세상을 떠나자 스승을 이어 쓰시마의 외교문서를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소오씨는 겐포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을 고려하여 그를 교토(京都)로 보내 좀더 학문을 닦도록 했다. 겐포는 1619년부터 쓰시마의 외교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1621년에도 국왕사라는 직함을 갖고 부산에 왔던 적이 있었다. 요컨대 겐포는 스승 겐소와 쓰시마 당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길러진 외교 전문가, 조선 전문가였던 셈이다.

●조선, 논란 끝에 상경을 허용하다

겐포가 상경을 고집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조선 조정은 고민했다. 인조는 강경했다. 그는 '왜놈들은 우리의 원수'라고 전제한 뒤 일단 금제(禁制)를 풀면 이후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는 것과 대의(大義)를 고려하여 상경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상경을 허용하면 공갈과 협박에 굴복하는 셈이 되고, 일본은 분명 조선에 사람이 없다고 여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료들의 의견은 사뭇 달랐다. 병조판서 이귀(李貴)는 '선조(宣祖)께서도 일본을 이웃나라로 대우했는데 이웃 사신의 상경을 불허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현실론을 내세웠다. '호란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현실에서 왜인들의 비위를 거스를 수는 없으며 유순한 태도로 강자를 제압하는 것이야말로 보국(保國)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신료들의 생각도 대체로 이귀의 주장과 같았다. 하지만 인조가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여 결론은 쉽사리 내려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겐포가 왔을 무렵 안팎의 사정이 너무 뒤숭숭했기 때문이다.1629년 2월, 후금 사신 만월개(滿月介)가 서울에 들어왔고, 같은 달 후금군은 선사포에 있는 모문룡의 둔전을 습격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는 후금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면서 피란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3월에는 홍타이지가 국서를 보내와 '조선이 맹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질책하고 '모문룡과 관계를 끊으라.'고 다시 협박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계속되는 와중에 명화적(明火賊) 등이 발생했다. 이정구(李廷龜)는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시의 조선을 가리켜 '공허한 나라(空虛之國)'라고 표현했다.

이귀가 다시 나섰다. 그는 '후금과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사단을 만들 수는 없다.'는 논리로 상경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정구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는 겐포 일행 가운데 몇 사람만 '특소(特召)'라는 명목으로 상경을 허용하되 나머지 인원은 부산에서 접대하자고 주장했다. 인조도 상황 논리에 밀려 결국 신료들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조정의 절충안이 부산으로 전달되었다. 조선 조정은 겐포 일행에게 상경을 허용하면서 그들을 국왕사가 아닌 바로 아래의 거추사(巨酋使) 급으로 대우하기로 결정했다.

국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왕사의 사절 정원은 25인이었는데 거추사의 정원은 15인이었다. 겐포는 반발하면서 거추사의 인원에 수행원 4인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강청했다. 또 자신이 '보행이 불편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가마를 타고 상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홍명은 겐포 일행의 집요한 요구에 밀려 타협안을 받아들였다. 이윽고 1629년 4월6일,19명으로 구성된 겐포 일행은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했다. 임진왜란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상경 길이었다.

●돌아갈 때 목면 600동까지 챙겨

겐포 일행은 4월22일 서울로 들어왔다. 그들은 4월25일, 경덕궁(慶德宮, 오늘날의 경희궁)에서 인조에게 인사를 올리는 숙배(肅拜)를 행하고 5월21일 출발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서울에 머물렀다. 그들은 인조를 알현할 때 진상품으로 조총 20정을 비롯하여 화약 원료인 유황(硫黃)과 염초(焰硝) 수백 근을 바쳤다. 조선이 후금과 막 전쟁을 치렀던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이었다. 전쟁을 치른 조선이 가장 아쉬워 할 수밖에 없는 무기류를 헌상함으로써 쓰시마의 존재 가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도 했다.

겐포가 이끄는 사절단의 본래 목적은, 막부의 명령을 받아 정묘호란 이후의 조선과 대륙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겐포 일행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조선 내부 사정은 물론 명과 후금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심했다. 조선인들을 통해 얻어들은 정보를 기행문 등에 꼼꼼하게 적었는가 하면, 대동했던 화가들을 시켜 목도했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기록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겐포 일행은 실리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쓰시마 도주(島主)가 특별히 보낸 스기무라(杉村采女)는 무기류 등을 헌상하여 조선의 환심을 사는 한편, 당시 이런저런 이유로 조선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목면(木棉)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기무라가 요청한 목면의 양은 600동(同)이었다. 자그마치 3만 필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다.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조선 조정은 당연히 거절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겐포 일행은 5월21일 서울을 뛰쳐나갔다. 조선 조정이 쓰시마 도주에게 보내는 서계(書契)의 접수도 거부했다.

조선 조정은 난감했다. 최명길 등은 남변(南邊)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달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결국 목면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왜관에 머물며 조선의 수락 소식을 들은 겐포 일행은 6월12일 유유히 귀국선에 올랐다. 정묘호란을 겪은 직후 '공허지국' 조선의 외교를 이끌던 당국자들의 고뇌가 눈에 밟힌다.

[병자호란] (14) 모문룡의 죽음과 파장

2013.01.27 22:48

모문룡의 죽음과 파장 1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묘호란이 벌어지는 동안 모문룡은 조선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다. 보탬은커녕 그의 부하들이 끼친 작폐 때문에 청북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그럼에도 모문룡은 명 조정에 보낸 보고서에서 '자신의 활약 덕분에 후금군을 물리치고 조선이 위기에서 벗어났다.' 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옛날처럼 '해외 천자' , '밀수 왕초' 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모문룡의 본질



모문룡이 가도로 들어가 동강진(東江鎭)을 건설했던 해가 1622년이므로 정묘호란이 끝날 무렵이면 햇수로 5년이 지난 셈이 된다. 모문룡은 그동안 '요동 수복' 을 외치며 엄청난 군량과 군수 물자를 소모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간혹 배를 타고 서해에서 압록강을 오르내리며 게릴라 활동을 벌이고, 봉황성(鳳凰城) 등지에 출몰하여 후금군과 소소한 규모의 전투를 벌였지만 그것은 '요동 수복' 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오히려 후금을 자극하여 조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일 뿐이었다.

일찍부터 모문룡의 활동과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1622년 12월, 명의 어사(御史) 하지령(夏之齡)은 황제에게 올린 상소에서 모문룡을 본토로 철수시키라고 건의했다. 모문룡이 고립된 병력을 이끌고 바다 바깥의 조선 땅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를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학사(大學士) 섭향고(葉向高) 또한 당시 어려웠던 명의 재정 형편을 내세워 하지령의 의견에 동조했다. 하지만 당시 희종(熹宗) 황제는 모문룡을 적극 옹호하며 섭향고 등의 건의를 일축했다.



▲ 원숭환은 산해관 바깥의 방어를 책임진 사령관으로, 최전선인 영원성에서 후금군과 대치했다. 사진은 모문룡에게 종말을 안겨준 원숭환이 지키던 영원성을 끼고 발달한 시가지의 모습.

희종 황제가 제위에 있는 동안은 모문룡의 '안전'에 별 문제가 없었다. 환관 위충현이 그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문룡 또한 위충현에게 결사적으로 매달려 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피해 갔다. 그는 위충현을 지극 정성으로 섬겼다. 가도의 동강진에 위충현을 조각한 석상(石像)을 세웠을 정도였다.

명 조정에서 조선으로 사신이 올 때마다 그는 위기 의식을 느꼈다. 사신들이 조선을 왕래하려면 반드시 동강진에 들러야 하는데 행여 그들을 통해 자신의 본질이 탄로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1626년 윤 6월, 조선 방문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올랐던 한림원 편수(編修) 강왈광(姜曰廣)이 동강진에 들렀을 때,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흥미롭다. 모문룡은 만주 지도를 꺼내 놓고 강왈광에게 자신의 작전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강왈광이 관심을 보이며 "이제 장군이 공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맞장구를 치자 모문룡은 본심을 드러냈다. '공을 세우고 싶지만 군량이 없다.'고 하소연했던 것이다. 강왈광도 물러서지 않았다. '군량이 부족하면 정예병만을 추려내서 싸우면 된다.'고 충고했다. 강왈광은 더 나아가 '군량이 없다는 이유로 조선에서 계속 뜯어내려 한다면 조선이 필시 딴 마음을 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서울에 머물면서 조선의 피폐한 실상을 파악했기 때문에 했던 충고였다.

●모문룡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

모문룡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었다.1626년 5월, 총독 염명태(閻鳴泰)는 '바다 바깥에 병력을 배치한 것은 적의 배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인데 모문룡은 오히려 후금에 견제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며 그를 속히 여순(旅順)으로 철수시키라고 촉구했다. 원임 등래순무(登萊巡撫) 무지망(武之望)도 '모문룡은 후금군이 두려워 물러나려고만 하고 조선 군신들과 갈등을 일으켜 나라를 욕되게 하고 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바야흐로 '모문룡 문제'가 정쟁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순간이었다.

모문룡의 문제점을 들어 철수시키라는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명 조정이 그와 동강진을 계속 유지시키려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물론 희종 황제와 위충현이 모문룡을 비호했던 것이 중요했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 명의 신료들 가운데는 모문룡이 지닌 효용 가치를 다른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바로 조선을 견제하기 위한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1626년 주문욱(周文旭)은 황제에게 올린 게첩(揭帖)에서 모문룡이 후금을 제대로 견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진영을 여순으로 옮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이 후금에게 시달리면서도 명을 배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문룡이 철산에 머물면서 견제하기 때문'이라며 모문룡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풍성

후(豊城侯) 이승조(李承祚)도 비슷한 의견을 폈다. 그는 '모문룡의 진영을 옮기자마자 조선이 후금에 병탄될 것이고, 그러면 후금은 더욱 거리낌 없이 명을 공격할 것' 이라고 했다. 그는, 모문룡의 진을 옮기는 대신 감독관을 보내 군량을 감독하고 그에게 전진하도록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모문룡에 대한 감사(監査)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 정묘호란 이후 모문룡이 보인 태도는 가관이었다. 거짓말로 가득 찬 보고서를 올렸음에도 환관들의 비호 덕분에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자 그는 더 대담해졌다.

그는 호란 이후 후금 측과 사절을 왕래하면서 사실상 내통하고 있었다. 양측의 사절들이 창성(昌城)을 경유하여 심양을 왕래하는 것은 조선의 수령들에 의해서도 빈번히 목격되었다.1627년 12월, 서울에 왔던 후금 사신 용골대(龍骨大)도 양측이 '화친' 운운하면서 사절을 서로 왕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모문룡은 그러면서도 정작 조선에 대해서는 딴 이야기를 했다. 그는 12월26일 조정에 도착한 서한에서 조선이 후금과 화친한 것을 질책한 뒤, '자신은 군사를 이끌고 후금을 일망타진할 것이니 조선도 두려워하지 말고 협력하라.' 고 촉구했다. 조선으로서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언동이었다.

●원숭환, 모문룡에게 쌍도로 오라고 명령

정묘호란 이후에도 '감시의 사각 지대' 에 머물며 희희낙락했던 모문룡에게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문룡에게 종말을 가져다 준 당사자는 다름 아닌 원숭환이었다.

원숭환은 모문룡을 극도로 혐오했다. 그가 가도에 '퍼질러 앉아' 군량만 축내며 정작 후금군에 대한 공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데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원숭환의 반감은, 모문룡을 싫어하는 조정 신료들의 '관념적인' 반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산해관 바깥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사령관으로서, 최전선인 영원성에서 후금군과 대치하고 있는 무장으로서 그가 모문룡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훨씬 구체적이고 엄중한 것이었다.

백기종(柏起宗)의 '동강시말(東江始末)' 에 따르면 원숭환은 일찍부터 모문룡을 '처리'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조정에 상소를 올릴 때마다 매번 '모문룡 문제' 를 거론했다고 한다. 문관을 파견하여 모문룡을 견제하도록 건의하는가 하면 그 스스로도 가도에 대해 해금(海禁) 조치를 취하려 했다. 여순을 차단하여 모문룡의 진영으로 장정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한편, 명으로 오는 조선 사신들이 가도에 들른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성을 거치도록 했다. 모두 모문룡을 견제하려는 조처였다.

천계(天啓) 연간에는 모문룡을 제거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희종 황제, 그리고 그와 연결된 위충현의 비호 때문이었다.1627년 7월, 희종이 세상을 떠났다. 희종의 죽음은 위충현의 종말을 의미했다. 모문룡에게도 불길한 소식이었다.

이윽고 1629년(崇禎 2) 5월22일, 원숭환은 가도로 전령을 보냈다. 전령은 요동 경략 원숭환의 명령서를 내밀었다. 원숭환은 모문룡에게 쌍도(雙島)로 오라고 명령했다. 쌍도는 여순에서 육로로 80리, 해로로 4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5월25일, 동북풍이 불자 모문룡은 쌍도를 향해 출발했다. '해외 천자' 의 마지막 항해가 시작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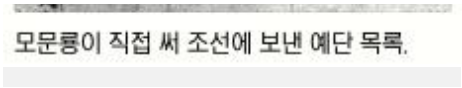
모문룡은 쌍도로 향하면서 엄청난 수의 병력을 대동했다. 수백 척의 선박에 2만 8000명의 병력을 싣고 갔다고 한다. 말하자면 3만 명 가까운 경호원을 대동한 셈이다. 원숭환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북경 조정과 조선, 그리고 후금 사이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는 분위기 파악의 귀재였다. 하지만 수만명의 경호원들도 모문룡의 목숨을 지켜주지는 못했다. 원숭환은 그만큼 치밀하게 모문룡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12가지 죄악 들어 모문룡 단죄



모문룡은 1629년 5월26일 쌍도에 도착했다.6월3일 모문룡은 술자리를 마련하여 원숭환을 초청했다. 술자리가 깊어가자 원숭환은 모문룡에게 '공이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어찌 병권을 내놓고 향리로 돌아가지 않느냐?' 며 은근히 은퇴를 종용했다. 모문룡은 '내가 귀향하지 못하는 것은 요사(遼事)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 이라며 응수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사가 끝나면 조선을 기습하여 차지하겠다.' 고 떠벌렸다. 평소 조선에 대해 품고 있던 솔직한 생각

을 원숭환 앞에서 토로한 것이다.


모문룡이 직접 써 조선에 보낸 예단 목록.

두 사람은 6월5일에도 만났다. 원숭환은 자신의 휘하와 모문룡이 거느리고 온 병사들에게 활쏘기 시합을 시켰다. 그리고 섬의 산꼭대기에 설치해 둔 장막으로 모문룡을 불렀다. 장막 부근에는 복병을 배치하여 모문룡 부하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장막에서 원숭환은 앞으로 자신이 동강진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동강향부(東江餉部)라는 것을 만들어 영원으로부터 군량을 공급하되 그 회계 내역을 엄격히 감시하겠다는 내용을 통고했다.

이윽고 원숭환은 부하들에게 모문룡을 포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모두 12가지의 죄악을 들어 모문룡을 질책했다. '병마(兵馬)와 전량(錢糧)을 사용하면서 전혀 감사를 받지 않은 죄', '제대로 적과 싸우지 않았으면서도 공을 세웠다고 황제를 속인 죄', '사사로이 시장을 열어 오랑캐와 내통한 죄', '상인들을 약탈하여 장물을 쌓아두고 스스로 도적이 된 죄', '부하와 여염의 부녀자들을 빼앗아 첩을 삼고 음행을 일삼은 죄', '위충현을 아비처럼 섬기고 환관배들과 결탁한 죄', '진(陣)을 연 지 8년이 지났지만 한 뼘의 땅도 수복하지 못하고 관망한 죄' 등이 그것이었다. 결국 엄당(奄黨)의 비호 아래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밀수 왕초'가 되어 흥청망청 '해외 천자'처럼 군림했던 과오에 대한 단죄였던 셈이다.

모문룡은 겁에 질려 말도 못했다고 한다. 원숭환은 북경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면서 "신이 문룡을 주벌하는 것은 삼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폐하께서 또한 문룡을 죽인 죄로 저를 주벌하실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이어 상방검을 뽑아 모문룡의 목을 베었다. 수많은 모문룡의 부하들이 장막 아래 있었지만 그들도 겁에 질려 엎드린 채 감히 위쪽을 쳐다보지 못했다. 원숭환의 일갈이 추상같은 데다 워낙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원, 목벤 후 예를 갖춰 장사 치러줘

이튿날 원숭환은 예를 갖춰 모문룡의 장사를 치러 주었다. 그는 제문에서 "어제 그대를 죽인 것은 조정의 대법(大法)을 밝힌 것이고 오늘 그대를 제사함은 동료의 사정(私情)에서 나온 것"이라며 눈물을 뿌렸다. 자신이 모문룡을 죽인 것이 결코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원숭환은 모문룡을 처단하면서 황제로부터 재가를 받지 않았다. 모문룡 같은 '거물'을 황제의 허락도 없이 처단한 것은 분명 엄청난 문제였다. 실제 원숭환은 모문룡을 군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지만 그 배후에는 치열했던 당쟁의 여파가 자리잡고 있었다. 모문룡의 죽음과 관련하여 당시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었다.

모문룡의 생일을 맞아 어떤 사람이 그에게 수장(壽帳)을 보냈다고 한다. 수장이란 오늘날로 치면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하 '카드'에 해당한다. 수장에는 당시 명의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진계유(陳繼儒)와 역시 석학이자 화가로도 잘 알려진 동기창(董其昌)이 쓴 글이 들어 있었다. 모문룡은 수장에 대한 답례로 동기창에게는 인삼 1근을, 진계유에게는 인삼 반 근을 보냈는데 그것이 화근이었다. 진계유는 모문룡이 자신을 경시한 데 분노하여 깊이 유감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자신의 문인 원숭환이 계요경략(遼經略)으로 승진하자 진계유는 "터럭 하나(一毛)를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일모'란 물론 모문룡을 가리키는 것이다.

원숭환이 모문룡을 처단하는 데는 대학사(大學士) 전용석(錢龍錫)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전용석은 동림당(東林黨) 계열의 문신으로 천계 연간 예부시랑(禮部侍郞)까지 올랐지만 위충현의 눈 밖에 남으로써 벼슬에서 쫓겨났던 인물이다. 숭정제가 즉위하면서 조정으로 복귀한 전용석은 위충현 실각 이후 엄당(奄黨)을 제거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다. 전용석의 고향 선배였던 진계유는 전용석에게도 '일모를 제거하여 천하를 이롭게 하라.'고 풍유(諷諭)했다고 한다.

전용석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북경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 문인 원숭환이 그에게 '모문룡 처리' 문제를 자문했다는 것이다. 그제서야 '일모 제거'의 뜻을 간파한 전용석은 원숭환의 '거사'에 동의했다. 요컨대 원숭환이 모문룡을 제거하는 과정에는 천계 연간 명 조정에서 빚어졌던 동림당과 엄당 사이의 격렬한 상쟁과 복수의 여파가 자리잡고 있었다. 환관들의 당파인 엄당에 대한 혐오가, 그들과 밀착되어 있던 모문룡의 죽음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엄당의 잔여 세력들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들도 동림당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엿보게 된다. 뒤에서 다시 서술하겠지만, 그들의 복수는 원숭환의 비명횡사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조선, 후금정벌 파병 요구에 고심

원숭환이 모문룡을 제거한 것은 조선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 청북 지역을 자신의 앞마당처럼 횡행하면서 징색을 일삼았던 그가 사라진 것은 일견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



▲ 원숭환의 유상(遺像, 죽은 사람의 초상화). 사진 오른쪽은 원숭환의 유고 부록에 쓴 양계초의 제사(題詞).

원숭환은 모문룡을 처단한 직후 조선에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모문룡을 처단하게 된 전말을 설명하고, 과거 모문룡과 부하들이 조선에 끼쳤던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동강진의 명군이 조선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다짐했다. 문제는 그 다음의 언급이었다. 원숭환은 후금을 공격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조선도 병력을 동원하여 같이 협공하라고 종용했다. 그것은 상황이 급변한 것을 의미했다. 원숭환은 모문룡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물이었다. '요동 수복' 을 공언하면서 뒤로 피하기만 했던 모문룡과는 달리 원숭환은 '오랑캐를 제거하고 요동을 수복하는 것' 을 비원(悲願)처럼 가슴에 새기고 있는 장수였다. 그는 철두철미한 '중화(中華) 민족주의자' 였다. 그런 그가 조선에 협공하라고 요구한 것은 결코 범상한 문제가 아니었다.

모문룡은, 조선이 그의 욕심을 일정 부분 채워주기만 하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갔다. 자신이 후금과 군사적 대결을 벌일 의지가 없는지라 조선에 대해서도 싸우자는 시늉만 할 뿐 후금과의 결전을 강요하지 않았다. 비록 사회경제적으로는 괴로웠지만 조선은 그 와중에서 후금을 자극하지 않고 군사적 대결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숭환은 달랐다. 실제 원숭환의 편지를 받았을 때 조선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최명길은, 원숭환이 당장 군대를 보내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 만큼 마치 시기에 맞춰 파병할 것처럼 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민 끝에 조정은 원숭환에게 답서를 보냈다. '명의 은혜를 잊지 않았지만 몹시 피폐한 처지에 있다.' 는 것, '어쩔 수 없이 후금과 화친했지만 명이 후금을 정벌할 때는 돕겠다.' 는 내용을 완곡하게 담았다.

모문룡은 죽었지만 조선은 또 다른 선택의 기로로 내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병자호란] (15) 自强論의 이상과 현실

2013.01.27 22:52

自强論의 이상과 현실

우여곡절 끝에 후금과 화친함으로써 정묘호란은 끝났다. 인조 정권은 어렵사리 종사(宗社)를 보전할 수 있었지만 남겨진 과제는 참으로 버거웠다. 먼저 후금군과 이렇다할 전투 한 번 변변히 치러보지 못하고 강화도로 피란했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반성론이 제기되었다. 병력을 뽑아 조련시키고, 조총을 비롯한 무기를 확보하며, 군량을 마련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바야흐로 조정에서는 자강(自强)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었다.

● "후금에 복수" 군비 강화론 급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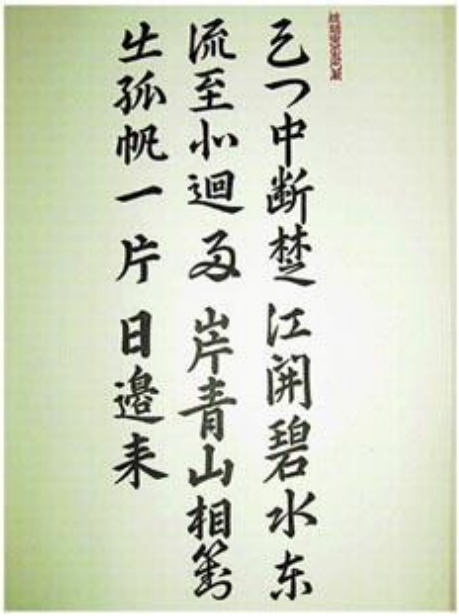
신분증 구실을 한 호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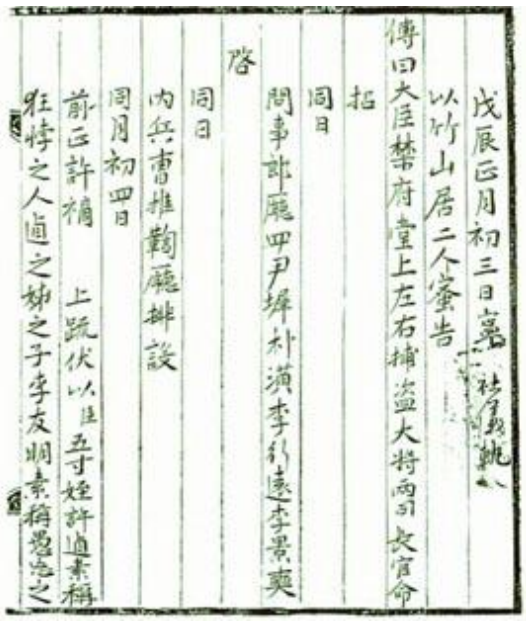
1627년 4월 1일, 서울로 돌아오기 직전 인조는 신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내가 좋아서 오랑캐와 화친했겠는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화친한 것은 적의 기세를 늦춰 설욕하려는 것이니 그대들은 빨리 장수를 선발하여 병사들을 조련시켜라." 화친한 것 때문에 척화파 신료들로부터 '항복한 임금' 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던 인조는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려면 군대를 길러 적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실제 정묘호란 직후 인조는 과거와 달리 부쩍 상무(尙武)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조는 '우리 장사들이 갑옷 착용을 기피한다.' 고 비판하고 갑주(甲冑)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유시했는가 하면,1628년 10월에는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사들을 시험하고 기예가 뛰어난 자들을 시상하기도 했다. 인조의 지시를 계기로 호란 직후부터 후금에 복수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방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1627년 4월, 병조판서 이정구는 전국의 모든 주(州) · 부(府) · 군(郡) · 현(縣)에 지휘관을 파견하여 정예롭고 건장한 장정들을 뽑으면 최소 5만~6만의 병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방의 병사(兵使)나 수령들에게 능력 있는 무신을 수시로 천거토록 하여 지휘관을 양성하고, 서울에 도체부군문(都體府軍門)을 설치하여 지휘관들을 집결시켰다가 유사시 지방으로 파견하여 현지의 병력을 지휘토록 하자는 방책을 제시했다.

부제학 정경세(鄭經世)를 비롯한 홍문관 관원들은 무기와 군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그들은 기동력이 탁월한 후금군의 돌격을 막으려면 조총수(鳥銃手)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지에서 1만의 장정을 뽑아 조총을 교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습이 끝난 뒤에는 사격 시험을 치러 3발을 쏘아 2발 이상을 명중시킨 자를 선발하자고 했다. 또 성능이 뛰어난 일본산 조총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을 왜관(倭館)이나 대마도로 보내 수입해 오자고 건의했다. 비변사 또한 각 도에 비축된 군기(軍器)들을 점검하여 병사들의 수와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고, 감사와 병사들을 채근하여 수시로 점검토록 하자고 강조했다. 정경세 등은 군량과 군수 확보를 위한 방책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군량 마련과 관련하여 인조와 비변사가 제시한 대책들을 비판했다. 그는, 몇몇 하급 관리와 서리의 숫자를 줄이고 왕실의 제수(祭需)와 어공(御供)을 감축하여 절약된 비용으로 군량에 보태자는 논의는 명분만 그럴 듯 할 뿐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 역대 임금의 필적을 모아놓은 열성어필(列聖御筆)에 실린 인조의 필적(사진 왼쪽 · 규장각 소장). "천문산 끊긴 곳에 초강이 열리고/동쪽을 흐르는 푸른 물은 북쪽에서 돌아드네/두 언덕의 청산은 마주보고 솟았는데/한 조각 외로운 배 태양 가로 나오네." 라는 시구가 인조의 고단한 심경을 말해 준다. 유효립 모반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영사공신도감의궤(寧社功臣都監儀軌 · 사진 오른쪽).

●군포 징수등 근본 대책 싸고 논란

정경세는 반정공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관(軍官)들을 아예 혁파하고, 왕자나 공주 등 궁가(宮家)에서 독점하고 있는 토지와 어장(漁場), 염전(鹽田) 등의 면세 특권을 없애고, 인조의 사금고나 마찬가지인 내수사(內需司)를 없애라고 요구했다.

정경세 등은 더 나아가 군사 재정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양반들에게도 군포(軍布)를 거두자는 주장이었다. 조정의 대신들은 물론, 여염의 품관(品官)이나 사대부들에 이르기까지 직접 군역을 지지 않는 양반들에게서 포를 징수하면 1년에 수십만 필을 거둘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재정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군사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정경세 등은 그러면서 '전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려는 자세를 보이면 외방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 요구되는 주문이었다. 인조는 물론, 궁가들과 반정공신, 그리고 일반 양반들까지 지배층 전체가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개혁안이었다.

인조는 궁가의 특권을 폐지하고 내수사를 없애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신료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그가 내세운 명분은 '조종(祖宗)의 옛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정경세 등은 '군사와 군량이 없어 나라가 보존되지 못하면 궁가의 재산도 결국 적의 소유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인조는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광해군 때 궁가들이 점유했다가 인조반정 이후 국가로 소유권을 넘긴 토지와 어장을 본래의 궁가들에게 반환하는 것을 묵인하기도 했다.

전쟁 때문에 빚어진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려면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막상 무엇부터 손을 대고, 어떤 특권부터 혁파해야 할지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이 정묘호란 이후 조선의 현실이었다.

●개혁 부진속 흔들리는 민심

1628년 8월, 광주(廣州)의 선비 이오(李晤)는 인조에게 상소를 올려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당시를 '기강이 무너지고 탐풍(貪風)이 치성하여 염치가 사라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역모가 빈발하고, 오랑캐의 공갈 속에 인심이 흉흉한 상태'라고 표현했다. 그는 호패법(號牌法) 폐지 이후 도망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정들을 군적(軍

籍)에 올리기 위해 친족과 이웃까지 닦달하면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적이 물러간 지 1년이 지나자마자 비변사 신료들은 끽연과 우스갯소리나 일삼고, 지방의 지휘관들은 기생을 끼고 앉아 술타령을 벌이고 있다.' 며 직격탄을 날렸다.

상황이 정돈되지 않고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역모 사건이 빈발했다.

이인거(李仁居)가 일으키려 했던 반란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1628년 1월, 유효립(柳孝立) 등이 모반을 기도한 사건이 발각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제천에 유배되어 있던 북인 잔당 유효립 등은 "반정공신들이 포학하여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 있다." 는 등의 명분을 내걸고 거사를 도모했다. 그들은 광해군을 복위시켜 상왕(上王)으로 모시고 인성군(仁城君,宣祖 7子)을 추대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공초(供招) 과정에서는 '환관을 시켜 인조를 시해하려 했다.' 는 진술까지 흘러나왔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50여 명이 자복(自服) 후에 처형되는 참극이 빚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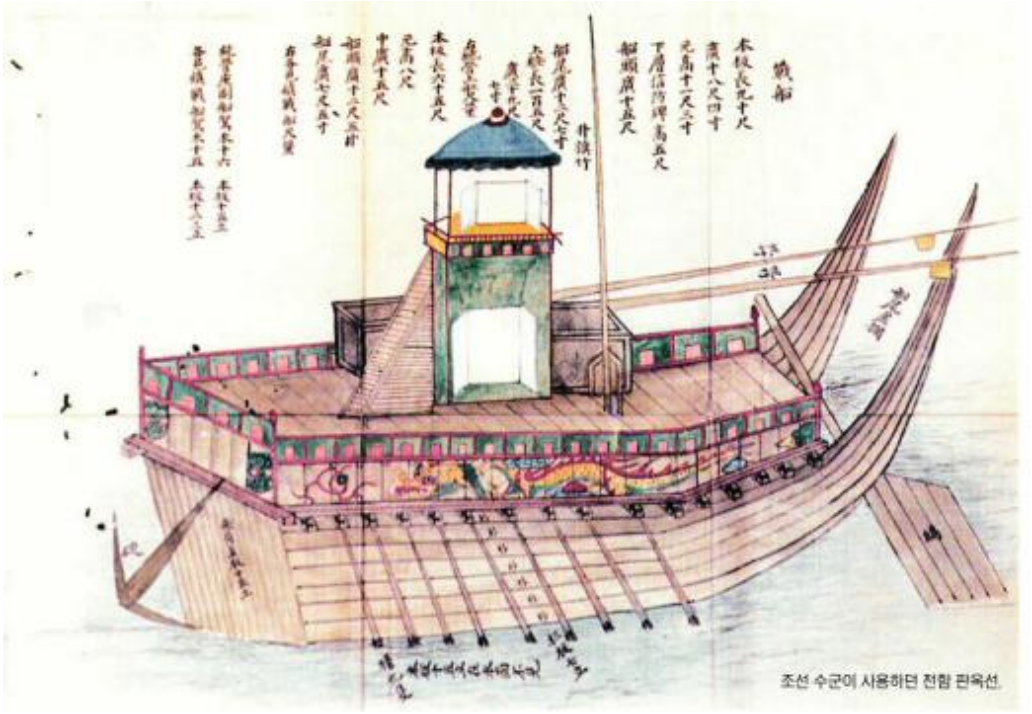
1628년 3월에는 유학(幼學) 임지후(任之後)의 고변(告變)이 이어졌다. "공신들을 모두 죽이고 광해군을 복위시킨 뒤 인성군에게 전위토록 한다." 는 내용으로 '유효립 사건' 과 거의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있었다. 관련자 심길원(沈吉元)은 심지어 "반정 당시에도 200명으로 성공했는데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을쏘냐?" 고 진술하여 인조정권을 경악케 했다.

정묘호란 이후 인조정권은 분명 기로에 섰다. 전란으로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집권 이후 줄곧 내세웠던 명분을 실천하려면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 하지만 '군비를 강화하여 후금에 복수하자.' 고 외치면서도 정작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근본 대책은 마련하기 어려웠다.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조가 내수사를 움켜쥐고 궁가들의 특권을 비호하는 한 양반들에게 군포를 거두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다. 실제 양반들에게 군포를 거두자는 논의(戶布論)는 이후 200년이 훨씬 더 지난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가서야 실현된다.

정묘호란 이후, 자강의 방책을 둘러싼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親明意識(친명의식)의 고양과 가도 정벌

모문룡을 제거한 이후 원숭환은 가도(島)에 대한 정비 작업에 나섰다. 부총병 진계성(陳繼盛)에게 임시로 가도의 군병들을 지휘토록 하는 한편, 유해(劉海)를 시켜 진계성을 보좌하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의 휘하인 부총병 서부주(徐敷奏)를 가도로 보내 주민들을 위무(慰撫)하고 군병을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 모문룡과 결탁했던 인물들을 제거하고, 노약자들을 찾아내어 등주(登州) 등지로 이주시켰다. 바야흐로 가도는 후금을 공격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개편되고 있었다.


조선 수군이 사용하던 전함 판옥선.

●변화하는 가도 상황과 조선

가도의 노약자들을 명 내지로 옮긴 원숭환의 조처는 조선의 숙원이었다. 그들이 먹는 식량의 대부분을 조선이 공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이미 광해군 시절부터 '전투 병력만 남기고 노약자들을 색출하여 등래(登萊) 지역으로 옮겨달라.' 고 간청했지만 모문룡은 조선의 요청을 무시해 왔었다. 원숭환은 또한 가도 군병들이 조선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으로서는 기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원숭환의 이 같은 조처들은 일견 조선에 대한 '배려' 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는 조선을 통제하려는 조처도 빼놓지 않았다. 원숭환은 조선 사신들이 북경으로 갈 때 이용하는 해로를 바꾸었다. 가도에 들렀다가 여순(旅順) 근처의 섬들을 지나 산동반도의 등주로 상륙하는 기존의 길을 폐지하고, 각화도(覺華島)를 거쳐 자신이 머물던 영원에 들러 가도록 했다. 북경을 왕래하는 조선 사신들을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였다. 조선이 모문룡의 작폐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모문룡에게 길들여져 후금과 싸울 의지가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원숭환은 조선을 철저히 견제하여 후금과의 결전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실제로 원숭환이 가도를 장악한 이후, 조선이 운신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후금과 결전을 벌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던 원숭환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이다.1629년(인조 7) 8월, 추신사(秋信使) 박난영(朴蘭英) 일행이 후금에서 돌아올 때, 아지호(阿之好)와 중남(仲男) 등 후금의 사절단도 서울을 향하고 있었다. 당시 가도에 와 있던 원숭환의 부하 서부주는 후금 사절단 일행을 공격하여 죽이려고 시도했다. 진계성 등이 적극적으로 뜯어말려 미수에 그쳤지만, 서울을 왕래하는 후금 사신들은 청북(淸北) 지역을 지날 때마다 명군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자연히 그들도 자위(自衛)를 위해 더 많은 병력을 대동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명군과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져 갔다. 조선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명과 후금 모두로부터 '은혜를 저버렸다.', '맹약을 어겼다.' 는 등의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親明,主戰의 분위기가 높아가다

조선은 '후금을 공격하는 데 동참하라.' 는 원숭환의 압박 때문에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명분을 생각하면 원숭환의 종용에 당장 따르고 싶었지만 당시 조선의 현실은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후금에 적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어렵사리 유지되고 있는 후금과의 화친이 깨질 경우 평화는 물론, 모든 것이 결딴날 판국이었다.

이 같은 와중에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어정쩡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다.1629년 10월, 후금의 홍타이지는 심양을 출발하여 명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그는 원숭환이 절벽처럼 버티고 있는 영원성으로 향하지 않고 몽골족들이 살고 있는 만리장성의 외곽으로 우회하는 길을 잡았다.

홍타이지는 장성 동북쪽의 희봉구(喜峰口)라는 곳을 통해 북경 부근으로 진입하여 황성(皇城)을 기습했다. 영원성과 산해관을 거치지 않고도 북경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명 조정은 경악했고 북경 주변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뒤에 다시 서술하겠지만, 당시 영원성에 있으면서 홍타이지의 장성 돌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원숭환은 소환되어 처형되었다.

1630년(인조 8) 1월, 평안병사의 장계를 통해 황성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선 또한 경악했다. 인조는 번국(藩國)의 신하로서 숭정(崇禎) 황제의 안위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정전(正殿)에 머물지 않고 월랑(月廊)에 거처하면서 신료들을 불러모았다. 신료들은 가도에 사람을 보내 정확한 정보부터 탐지하자고 했다. 인조는 "장계를 보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며 "우리나라에 약간의 병력만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오랑캐의 본거지로 쳐들어가 뒤엎어 버릴 적기" 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료들도 후금에 대한 적개심과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을 계속 쏟아냈다.2월에 열린 경연 자리에서 이귀는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의리로 보면 군신(君臣)이고 은혜로 보면 부자(父子)" 라며 "군부(君父)가 환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 있냐?" 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아예 병력을 이끌고 오랑캐의 소굴을 짓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현(金光炫)은 "오랑캐가 황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의리를 보여주기는커녕 조정은 풍정(豊呈, 잔치)의 명목으로 풍악을 울리며 춤추고 있다." 고 통탄했다.

홍타이지의 황성 기습은 엉뚱한 방향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후금군의 배후에 있으면서 황성이 포위되었음에도 팔짱만 끼고 있다.' 는 명 조정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도의 서부주 등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1630년 3월, 오랑캐의 사자를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명군 병력을 이끌고 의주에 잠입했다. 명군은 의부부윤 이시영(李時英) 등을 마구 구타하고 물건을 약탈했다. 이시영은 당시 의주에 머물던 호차(胡差) 중남 등을 탈출시켜 창성(昌城)으로 안내하여 압록강을 건너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 건너에서는 후금 장수 용골대 일행이 군대를 이끌고 건너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

●가도의 반란

가도를 '요동 수복의 전진기지' 로 재정비하려던 원숭환이 하옥되자 가도의 정세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섬 전체를 장악할 만한 지휘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원숭환에 의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진계성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사람이 본래 무른데다, 딸이 모문룡의 첩이었기 때문에 원숭환의 부하들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비해 유해는 민완하고 눈치가 빨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도의 모든 권한은 유해와 그 형제들에게 집중되어 갔다. 1630년 4월, 유해의 동생 도사(都司) 유흥치(劉興治)는 반란을 일으켜 진계성을 살해하고 가도의 권력을 장악했다. 원숭환이 사라진 여파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가도에서 일어난 변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인조와 조선 조정은 격앙되었다. 인조는 4월 21일 비변사 신료들을 소집했다. 인조는 이 자리에서 유흥치를 '명 조정의 반적(叛賊)' 이라고 규정하고 조선이 군사를 일으켜 토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의정 김류(金)도 유흥치가 분명 오랑캐에게 투항할 것이라며 속히 토벌하자고 동조했다. 부원수 정충신(鄭忠信)은, 수군 3천명을 동원하여 유흥치 일당의 배를 불태우면 역도들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류를 비롯한 일부 신료들의 동조 속에 인조는 토벌대의 대장에 총융사(摠戎使) 이서(李曙)를, 수군 사령관에 정충신을 지명했다. 반대하는 신료들이 의견을 채 제시하기도 전에 원정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인조는 고무되었다. 그는 '유흥치는 항우보다 나쁜 자' 라며 '토벌은 명분이 바르고 정당한 것'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묘호란을 맞아 오랑캐와 화친하고, 황성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자괴감을 유흥치 토벌을 통해 한꺼번에 씻어버리려는 것 같았다. 바야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도 정벌이 시작

되고 있었다.

가도 정벌이 유야무야되다

가도 정벌 방침이 전격적으로 결정되자 신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먼저 병조판서 이귀가 나섰다. 그는 '주장(主將) 진계성을 함부로 살해한 유흥치를 토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면서도 '바다 건너 정벌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리고, 중국 조정과 상의하지 않을 경우 의심을 살 우려가 있다.' 며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인조는 노기 띤 목소리로 "이 자리는 반역자 토벌을 논의하는 자리지 군대 해산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며 이귀의 주장을 일축했다. 유흥치의 반란을 응징하겠다는 인조의 결의는 확고해 보였다.

●인조의 토벌 강박증

이귀는 다시 '훈련도 안 된 병력을 하루아침에 멀리 보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 걱정' 이라고 했다. 그러자 인조는 '병조판서가 그렇게 말하면 병사들의 맥이 풀린다.' 며 계속 반대할 경우 처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군법으로 처벌하려 한다면 기꺼이 죽을 것' 이라며 이미 죽음을 목전에 둔 자신의 충고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이귀가 '죽음' 운운하자 인조는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회의를 파해버렸다.



별황자총통(위·別黃字銃筒)과 중백자총통(中百字銃筒).



조선 장수들이 사용하던 칼.

1630년 4월27일에도 인조와 신료들 사이의 갑론을박은 지속되었다. 이정구(李廷龜)는 먼저 황제에게 주문(奏聞)한 뒤 성지(聖旨)를 받들어 토벌하자고 주장했다. 인조는 배반한 적은 누구나 토벌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명 조정에서 회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인조가 워낙 강하게 나오자 신료들은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끼리 비변사(備邊司)에 모여 회의할 때는 출병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이었던 신료들도 인조 면전에서는 태도가 달라졌다. 최명길은 '비변사에 있을 때는 반대하다가 주상 앞에서는 순종하기에만 급급하니 신하의 도리가 어디로 갔냐.' 며 이서와 정충신의 태도를 비판했다.

인조는 토벌에 관한 한 강박증에 걸린 것 같았다. 그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돕기에는 역부족이지만 맹세코 이 적을 섬멸하여 황은에 보답하고 싶다. 무기는 흉한 물건이고 전쟁은 위험한 것인데 나라고 좋아서 하겠는가?" 라며 신료들의 감성에 호소했다. 김류는, 출정 날짜가 다가오는데 논의가 계속 분분하면 장수들이 동요할 것이라며 성사를 기약하려면 군법을 엄격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류가 자신에게 영합하는 태도를 보이자 인조 또한 "의심을 품으면 성공할 수 없다." 고 맞장구를 쳤다.

4월28일, 이귀는 인조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혹시라도 불리할 경우 원한을 사서 화를 재촉할 것이니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이어 홍문관과 양사(兩司)의 신료들이 나서 출정 명령을 거두라고 촉구했다. 인조는 "향후 망령되이 반대하는 자는 중률(重律)로 처단하겠다." 고 배수진을 쳤다.

곧 이어 출정을 앞두고 인사하러 온 총융사(摠戎使) 이서에게 갑주(甲冑)와 궁시(弓矢)를 하사했다. 그럼에도 병조판서 이귀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자 인조는 그를 파직시켰다.

●토벌군의 출정과 상황의 변화

비변사는 병선 열 다섯 척을 징발하여 격졸(格卒)과 군량 등을 싣고 5월15일 이전까지 강화도 교동(喬桐) 앞 바다에 대기하도록 조처했다.4월29일에는 정벌에 즈음하여 가도의 중국인들에게 보내는 격문(檄文)이 만들어졌다.



"지금 역신(逆臣) 유흥치는 스스로 사사로운 불화를 조성하여 가슴에 음모를 품고 승냥이나 이리 같은 흉악한 세력을 끼고 벌이나 전갈처럼 독기를 뿜어대었다. 붙잡혀 온 달족(族-후금 투항자)들을 불러모아 감히 반란을 일으켜 주장을 멋대로 해쳤는가 하면 통판(通判) 등과 각부(各部)에서 파견한 관리도 아울러 죽여 반역의 기운이 하늘에 닿았다.(중략) 이에 우리 전하가 한 번 크게 성내시어 군사를 대대적으로 동원한 것이다. 본관이 나라의 명을 삼가 받들어 삼군을 이끌고 바다와 육로로 일제히 진격하며 동서에서 동시에 포위하려 하는데, 의기에 격동되어 사기가 저절로 배나 치솟고 있으니, 탄환(彈丸)만 한 너희 일개 섬이 어떻게 빠져 달아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반역의 변고가 호로(胡虜)보다 심하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유흥치를 묶어 군문 앞으로 끌고 오라."



▲ 조선 육군 장수의 갑주(甲冑).

반란을 일으킨 유흥치 일당에 대한 토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조선군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4일 인조는 도승지를 서쪽 교외로 보내, 가도를 향해 출정하는 총융사 이서와 부원수 정충신의 장도(壯途)를 축원하는 송별식을 열어 주도록 했다. 이서는 어영군 병력을 이끌고, 황해감사 이여황(李如璜), 병사(兵使) 신경인(申景)과 함께 황해도 안악(安岳)으로 나아가 주둔했다. 부원수 정충신은 전라도와 충청도의 수군 병력을 이끌고 황해도 은율(殷栗)로 나아가 명을 기다렸다.

조선군이 이렇게 가도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상황은 엉뚱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유흥치가 전함 49척을 이끌고 가도를 떠나 등주(登州)를 향해 출발했던 것이다. 평안감사 김시양(金時讓)의 장계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조정은 당황했다. 토벌의 1차 대상인 유흥치가 섬을 비웠기 때문이다. 김시양은, 유흥치가 없는 이상 가도로 진격하여 그의 심복들을 사로잡고 창고를 봉한 뒤 황제의 명령을 기다리자고 했다. 총융사 이서는, 소굴이 비었으니 가도 공격이 무익해졌다며 아군의 대선(大船)을 숨기고 선봉을 접근시켜 유흥치를 유인해야 한다는 계책을 제시했다. 유흥치가 섬을 비우는 바람에 조선의 정벌은 자칫하면 '싸움을 위한 싸움',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전락할 판이었다.

비변사 신료들은 인조에게 먼저 가도 사정을 철저히 정탐하라고 촉구했다. 유흥치가 병력을 이끌고 섬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명 본토를 공격할 것인지, 후금에 투항할 것인지, 요동 반도 연안의 여러 섬들을 노략질할 것인지, 명의 아문으로 가서 귀순할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류 또한 공격을 멈추고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프닝으로 끝난 토벌

분위기가 바뀔 조짐을 보이자 인조가 다시 선을 그었다. 그는 '유흥치가 우리의 공격 기미를 눈치채고 일단 섬들 사이로 피했다가 우리의 자세가 해이해지기를 기다려 공격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가도로 들어가 그 심복들을 죽인 뒤 병력을 선천과 철산 사이에 주둔시키라고 지시했다. 또 이서에게도 밀서를 보내 섬을 반드시 토벌하고 항복한 달족들을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가도에 대한 공격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던 6월, 후금 사신 일행이 서울로 들어왔다. 그들은 조선이 여전히 가도에 쌀을 공급하고 있다고 힐책하고, 과거 자신들이 무역했던 청포(靑布)를 유흥치에게 빼앗겼다며 그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실제 의주의 압록강 건너편에서는 후금군 3000명이 청포를 내놓으라고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참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가도 정벌에 신경 쓰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인조는 그럼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가도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벌을 그만두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졌다. 토벌군 병력들은 한창 더운 여름철에 무작정 해상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원성이 터져나왔다. 1630년 6월28일, 부원수 정충신은 조정에 보낸 장계에서 군사를 파하라고 촉구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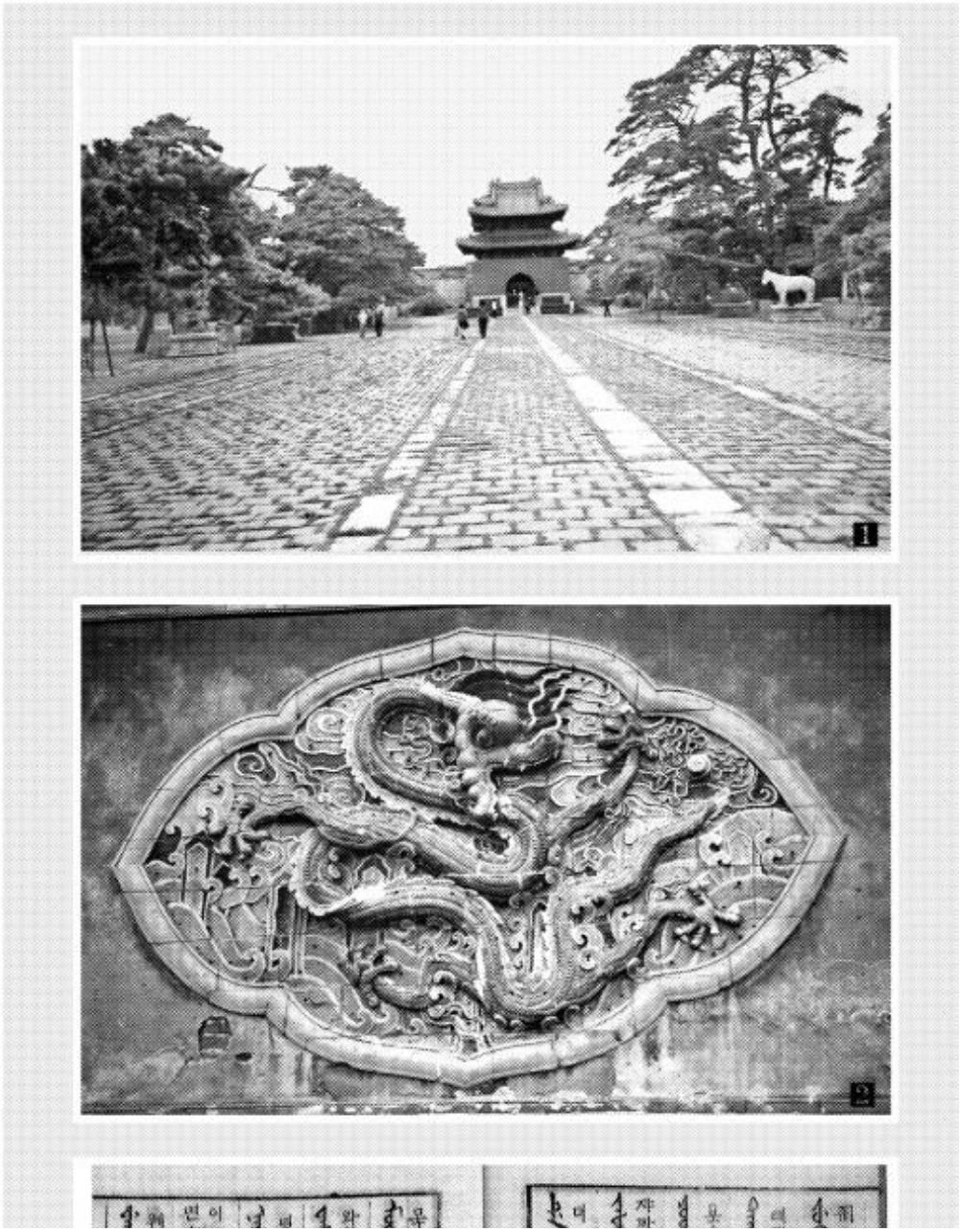
다. 일선 지휘관으로부터 파병(罷兵) 의견이 제시되자 비변사 신료들은 속히 정벌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오직 김류만이 토벌을 중지하는 데 반대했다. 인조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을 때 최명길이 나섰다. 그는 '해상에서 노숙하느라 지쳐 쓰러진 병사들이 많은데 장수들은 그들이 도망갈까 염려하여 상륙을 금지하고 있다.' 며 현지 상황을 전했다. 놀란 인조는 결국 수군만 남기고 육군은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 가도 정벌 시도가 결국 유야무야 되는 순간이었다. 나라 안팎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전후의 맥락을 제대로 헤아려 보지 않고 내렸던 인조의 '결단' 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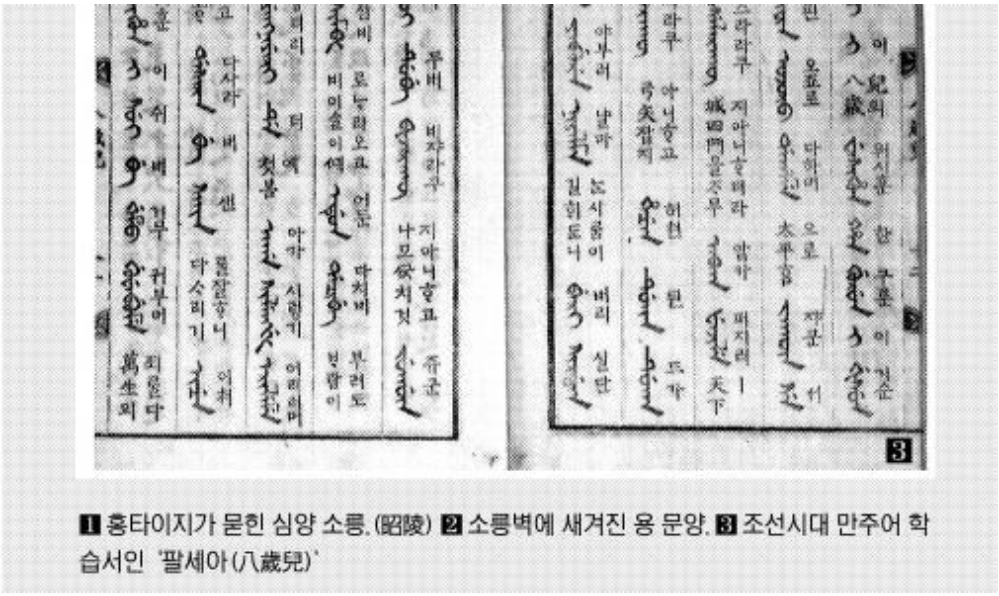
[병자호란] (16)우여곡절 속 후금과의 관계

2013.01.27 22:55

우여곡절 속 후금과의 관계

정묘호란 직후 조선은 후금에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 모문룡을 비롯한 한인(漢人)들의 비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후금 사자에 대한 접대나 그들과의 무역에 성의를 보였다.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후금과의 우호관계는 그다지 내키지 않는 것이었다. 조선이 후금을 '오랑캐' 로 인식하고 있는 한 '내키지 않는 관계' 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1 홍타이지가 묻힌 심양 소릉.(昭陵) 2 소릉벽에 새겨진 용 문양. 3 조선시대 만주어 학습서인 '팔세아(八歲兒)'

●후금, 병력 철수하고 조선과 사신교환

정묘호란이 끝난 뒤에도 의주 등지에 병력을 주둔시켰던 후금은 1627년 9월경부터 병력을 철수시켰다. 두 나라의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당시 조선과 후금은 정기적으로 사신을 교환했다. 인조는 신료들에게 호차(胡差 · 후금 사신에 대한 멸칭)들을 우대하여 환심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후금 또한 호란 직후에는 조선에 매우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 때문에 심양을 왕래하는 조선 사신들의 후금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다.1627년 5월 심양에서 돌아온 원창군(原昌君) 일행은 인조를 만난 자리에서 '후금 사람들이 매우 친절했다.' 고 보고했다. 인조가 홍타이지와 후금 신료들의 인물됨을 묻자, 호행관(護行官) 이홍망(李弘望) 등은 모두 뛰어난 인물들이라고 칭찬했다.

인조의 우호적인 태도는 후금 사신들을 접견할 때 잘 나타났다.1627년 5월 서울에 왔던 후금 사신 용골대는 인조를 만났을 때 '전하께서는 극진하게 대우하시는데 관리들이 삼가지 않는다.' 고 불만을 드러냈다. 조선 관리들이 그를 인조에게 인도하면서, 대궐 문 앞에서 말에서 내리게 하고 인도자도 없이 한참 걷도록 만든 것이 불만이었다. 인조는 즉각 사과하고 용골대 등이 나갈 때 어로(御路)에서 말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당시 봉산(鳳山)에 살던 백성 박응립(朴應立)과 황하수(黃河水)가 서울로 올라가던 용골대 일행을 가리키며 '죽여야 한다.' 고 소리친 사건이 있었다. 용골대 일행이 불만을 터뜨리자 조정은 봉산에 이문(移文)하여 곧바로 그들을 붙잡아 하옥시키고 후금 사신 일행의 경호를 강화하는 조처를 취했다.

비변사 신료들은 '호인들과 기미(羈)하기로 작정한 이상 원하는 물품을 많이 주어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인조와 신료들을 막론하고 정묘호란 직후 후금을 대하는 조선의 자세는 유연했다. 그런데 병자호란 무렵이 되면 이 같은 유연함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開市에 대한 후금의 열망

정묘호란 직후 후금이 조선에 가장 강하게 바라던 것은 무역이었다. 그들은 시장을 열어 쌀을 공급해 달라고 간청했다. 쌀뿐만이 아니었다. 생필품과 사치품을 막론하고 후금이 요구하는 물품은 참으로 다양했다.1628년 1월 서울에 왔던 후금 사신들은 홍시와 대추, 알밤 등 과일과 약재 등을 요구했다. 중국산 비단과 청포(靑布), 일본에서 들여오는 후추를 비롯하여 단목(丹木), 칼과 창 등도 그들의 관심 품목이었다.

명과 적대 관계가 지속되면서 과거와 달리 만주 지역으로 몰려오던 중국 상인들이 끊겨 버린 상황에서 후금이 원하는 물품을 공급해 줄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선은 후금과의 교역에 소극적이었다. 일단 교역의 문을 열어줄 경우, 후금 측의 요구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김상헌을 비롯한 일부 신료들은 특히 중국산 물화를 후금 상인들에게 파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하찮은 오랑캐에게 천조(天朝)의 물품을 넘겨주는 것은 예가 아니다.' 라는 것이 명분이었다.

1627년 12월 심양에 갔던 회답사(回答使) 박난영(朴蘭英) 일행은, 중강(中江)에서 속히 시장을 열어 교역하자는 후금 측의 재촉에 시달려야 했다. 박난영은 '전쟁 때문에 평안도와 황해도가 극히 피폐해졌다.' 는 것, '명나라 산물자는 조선이 구하기 어렵다.' 는 것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지만 후금 측은 집요했다. 후금 측은 '조선과 후금이 이미 한집안이 되었으니 어려움을 서로 구제해야 한다.' 며 '모문룡은 값도 치르지 않고 조선으로부터 쌀을 공짜로 빼앗았지만 우리들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라며 회답사 일행을 압박했다. 조선 측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이후 쌀과 과일, 약재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산 물품 등도 후금 측에 공급했다. 중국산 물품은 가도를 통해, 일본산 물품은 왜관을 통해 입수되었다. 당시 가도에는 명의 강남 등지로부터 수많은 상선들이 모여들었다. 조선 상인들은 은이나 인삼을 갖고 가도로 가서 비단과 청포 등을 구입하여 그것을 다시 후금 상인들에게 판매했다. 사실상 후금에 중국과 일본산 물자를 공급하는 중개자 역할을 했던 셈이다.

조선은 또한 후금과의 개시를 통해 피로인(被擄人)들을 속환(贖還)하려고 시도했다. 피로인이란 정묘호란 당시 후금군에 사로잡혀 끌려갔던 포로들을 말한다. 호란 당시 무방비 상태였던 서북 지방에서는 엄청난 수의 포로가 생겨났다.1627년 5월 평안도 평양, 강동(江東), 삼등(三登), 순안(順安), 숙천(肅川), 함종(咸從) 등 여섯 고을에서 파악된 포로 숫자만 4986명이었다. 같은 해 6월의 기록에 따르면 심양에서 도망쳐 오는 포로의 숫자가 매일 40명에서 50명에 이른다고 할 정도였다. 이것을 토대로 계산하면 당시 후금군에 끌려간 피로인의 수는 최소 수만 명을 넘는 수준이었다. 조선은 개시에서 후금 측에 쌀을 공급하는 대가로 피로인들을 넘겨받고자 했던 것이다.

●피로인 송환 등 둘러싸고 분열양상

1628년 2월 후금 측은 개시가 열린 중강에 200여명의 피로인을 데리고 왔다. 그들 가운데 조선에서 우선적으로 속환하려 했던 사람들은 귀의할 수 있는 부모나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포로들의 몸값을 정하는 것도 문제였다. 결국 개시 장소에 왔던 200여명 가운데 70명 정도만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행운을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후금 상인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데려온 피로인들을 모두 구입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고국 귀환을 애타게 고대하고 왔다가 후금 병사들에게 이끌려 도로 심양으로 돌아가는 피로인들은 조선 국경 쪽을 쳐다보며 통곡했다. 처참한 광경이었다.

후금과의 개시는 유지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파열음을 냈다. 우선 개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사뭇 달랐다. 조선은 봄가을 두 차례 개시할 것을 원했다. 후금 측은 봄, 여름, 가을 세 번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하면 제한을 두지 말자고 맞섰다. 그들은 중강 이외에 함경도의 회령에서도 개시하자고 요구했다. 개시할 때 후금 측이 데리고 오는 인원의 숫자도 문제였다.

1628년 2월 중강에서 개시할 때 용골대 일행은 자그마치 1300명의 인원을 데리고 왔다.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마초는 전부 조선 측의 몫이었다. 조선은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후금 측은 조선과 명의 전례를 들고 나왔다. '과거 조선이 명과 개시할 때는 소와 돼지까지 증여했는데 우리에게는 식량과 마초만 주는데 무엇이 부담스러우냐?' 는 식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선이 계속 식량 공급을 거부하면 서울로 올라가서 소 몇 백 마리와 군사들이 한 달 먹을 식량을 얻어 내고야 말겠다고 협박했다. 조선은 결국 용골대 일행에게 쌀 2000섬을 그냥 주기로 약속했다.

후금에서 도망쳐 온 피로인들을 송환하는 문제도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후금은 수시로 조선에 국서를 보내 조선이 고의로 피로인들을 숨겨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로인들을 '피 흘려 얻은 대가' 로 여겨 송환을 요구하는 후금과 '살겠다고 도망 온 혈육' 을 송환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조선의 갈등은 필연적이었다. 양국 관계는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자멸의 길로 들어서다

우여곡절 속에 조선이 후금과의 관계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을 무렵 명의 정세는 어떠했는가? 후금의 위협

이라는 커다란 외환(外患)을 앞에 두고 명은 이런저런 내우(內憂)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극복은커녕 망하는 길로 확실히 접어들고 있었다.1630년 9월, 원숭환(袁崇煥)이 북경의 저잣거리에서 처형된 것은 명이 자멸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 베이징 광거문(廣渠門) 부근의 성벽.

●홍타이지, 명의 허를 찌르다

1629년 10월2일, 홍타이지는 몽골의 코르친(科爾沁) 부족을 길잡이로 앞세워 북경 공략에 나섰다. 홍타이지는 원숭환이 굳게 지키고 있던 영원성과 산해관을 우회하여, 영평(永平) 관할의 용정관(龍井關)과 준화(遵化) 관할의 대안구(大安口), 희봉구(喜峰口)를 통해 직접 북경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했다. 산해관에서 영원성으로 이어지는 주공로(主攻路) 방어에 집중하고 있던 명군은 허를 찔리고 말았다. 일찍부터 혼인 정책 등을 통해 몽골 부족을 회유하여, 산해관 동북의 장성 외곽을 돌파하려 했던 후금의 시도가 성공했던 것이다.

그 같은 사태는 원숭환이 이미 예견했던 것이다. 그는 일찍이 황제에게 올린 상소에서 산해관을 제외한 장성 외곽 지역의 방어 태세가 몹시 취약하다는 것, 후금이 몽골을 회유하여 쳐들어 올 경우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10월26일, 후금군은 황성(皇城) 코앞의 경기(京畿) 지역까지 들이닥쳤다.

영원성에 머물던 중에 홍타이지의 공격 소식을 접한 원숭환은 당황했다. 그는 병력을 끌어 모아 그야말로 미친 듯이 북경을 향해 달려갔다. 원숭환은 산해관에 도착한 직후 참장(參將) 조솔교(趙率敎)에게 병력 4000을 주어 준화를 구원하도록 명령했다.11월4일, 후금군은 준화성 공격에 나섰다. 왕원아(王元雅)가 이끄는 명군은 힘껏 저항했지만 곧 무너지고 말았다. 성안에서 후금군에게 내응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준화를 향해 달려오던 조솔교는 중간에 복병을 만나 전사하고 말았다. 성 함락 후 준화에서는 후금군에 의해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준화 함락과 대학살 소식에 북경은 전율했다. 11월17일,9000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밤낮으로 달려온 원숭환은 북경 광거문(廣渠門) 앞에 이르렀다. 병사와 말 모두 굶주림도 잊고 휴식도 없이 달려온 길이었다. 부총병 주문욱(周文旭)은 일단 휴식을 취하고 상황을 보아 북경으로 들어가자고 했지만 원숭환은 듣지 않았다. 황성이 포위되려는 마당에 휴식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11월20일, 원숭환의 명군은 광거문 앞에서 후금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6시간 이상 벌어진 10여차례의 사투 끝에 후금군은 뒤로 물러났다. 무리한 행군과 굶주림 속에서도 정신력으로 버틴 끝에 얻은 승리였다.

●홍타이지 원숭환에 패해 후퇴하다

11월23일, 후금군을 물리친 뒤 원숭환은 숭정제에게 장거리 행군과 전투, 그리고 노숙에 지친 병사들이 성안으로 들어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했다. 숭정제는 허락하지 않았다. 원숭환이 분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숭정제는 이미 원숭환에게 노여움을 품고 있었다. 후금군이 북경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 원숭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원숭환 휘하의 병력은 엄동에 다시 노숙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11월27일 좌안문(左安門)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도 원숭환은 후금군을 격파했다. 원숭환이 있는 한 북경을 도모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홍타이지는 병력을 북경 외곽의 남해자(南海子)란 곳으로 철수시켰다. 그는 북경에서 물러나면서 숭정제에게 서신을 보내 화친을 맺자고 요구했다. 일종의 양동작전이었다.


袁崇煥像

▲ 원숭환의 전신(全身) 모습.

홍타이지는 이후 북경의 상황을 관망하면서 북경 주변의 여러 지역에 병력을 풀어놓았다. 후금군은 영평(永平), 준화, 난주(州), 천안(遷安) 등지의 성과 촌들을 마구잡이로 겁략했다. 그들은 도처에서 사람과 가축, 각종 물자를 약탈하고 저항하는 인원들을 도륙했다. 황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명군은, 후금군이 외곽 지역에서 벌이고 있던 약탈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후금군은 통주(通州) 등지에서 1000척 가까운 조운선(漕運船)을 불태웠다. 수만 명의 포로를 획득하고, 후금군 병사 한 사람에게 1필씩 돌아갈 만큼의 우마를 획득했다. 잔혹한 학살과 방화, 그리고 약탈 속에서 북경 주변은 초토화되었다. 비록 황성은 어렵사리 지켜냈지만 명은 심장부가 유린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홍타이지는 원정을 통해 또 다른 명의 장성(長城)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리게 된다. 그 '장성' 이란 다름 아닌 원숭환이다. 후금군은 광거문 전투에서 원숭환에게 패했지만 귀중한 포로 두 사람을 사로잡았다. 마방태감(馬房太監) 양춘(楊春)과 왕성덕(王成德)이 그들이었다. 홍타이지는 이 두 사람의 포로를 활용하여 원숭환과 숭정제를 이간시킬 수 있는 반간계를 구상했다.

양춘과 왕성덕을 감금해 놓은 방 바로 옆에서 홍타이지의 부하 고홍중(高鴻中)과 포승선(鮑承先)이 밀담을 나누었다.

밀담은 '원숭환이 이미 홍타이지와 몰래 약속하여 북경을 공취(攻取)하기로 했고 곧 함락될 것' 이라는 내용이었다. 겨우 벽 하나로 나뉘어진 옆 방에서 환관 두 사람은 고홍중과 포승선의 밀담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홍타이지와 후금군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그 같은 상황을 연출했음은 물론이다.

11월29일, 홍타이지의 명을 받은 고홍중과 포승선은 태감 두 사람을 고의로 풀어주었다. 자금성으로 달려온 두 환관은 숭정제에게 그 사실을 고했다. 홍타이지가 북경을 기습한 직후부터 명 조정에 있던 엄당(奄黨)의 잔당들은 원숭환을 제거할 함정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다. '원숭환이 오랑캐를 일부러 사주하여 북경으로 끌어들였다.' 는 참소가 주된 내용이었다. 또 '원숭환이 병력을 이끌고 북경 옆의 통주에 다다를 때까지 후금군과 한번도 접전하지 않았다.' 는 등의 이야기도 떠돌고 있었다.

●원숭환, 하옥되다

당시 19세에 불과한 데다, 대국(大局)을 볼 수 있는 역량이 없었던 숭정제는 홍타이지가 던진 '미끼' 를 덥석 물었다.1629년 12월1일, 황제는 원숭환을 황성으로 불렀다. 명목은 '군량 문제를 의논하자.' 는 것이었다. 이미 '원숭환이 오랑캐와 내통하고 있다.' 고 믿었던 숭정제는 혹시라도 원숭환이 낌새를 채고 오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

에 ‘군량 문제’를 운운했던 것이다.

원숭환이 황성 앞에 도착했을 때 문지기들은 성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오랑캐’에게 북경 주변이 포위된 계엄 상태였기 때문이다. 문이 열리는 대신 성 위에서 밧줄에 달린 바구니가 내려왔다. 당시 계요총독(遼總督)이자 병부상서 직책을 갖고 있던 원숭환은 바구니에 실린 채 황성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것 자체가 치욕이었다.

황성으로 들어선 직후 원숭환은 금의위(錦衣衛)의 감옥에 투옥되었다. 반면에 그와 동행했던 총병 만계(滿桂)와 흑운룡(黑雲龍) 등은 황제로부터 칭찬을 듣고 승진했다. 내각 대학사 성기명(成基命)이 원숭환을 구명하기 위해 애써 숭정제에게 호소했지만 황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동림당(東林黨)에게 복수하기로 작심했던 엄당의 신료들은 원숭환을 죽이라고 아우성이었다. 원숭환은 동림당 계열의 대학사 전용석(錢龍錫)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원숭환의 ‘죄’를 물고 늘어지면 동림당 계열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홍타이지의 반간계는 완벽하게 성공했다.1618년 누르하치가 무순성을 공격하여 선전포고했던 이래 후금군은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그 승승장구에 제동을 걸고 끝내 누르하치를 비명횡사시킨 장본인이 바로 원숭환이었다. 그가 영원성과 산해관을 막아서는 한, 아니 그가 존재하는 한 중원 정복이라는 목표는 실현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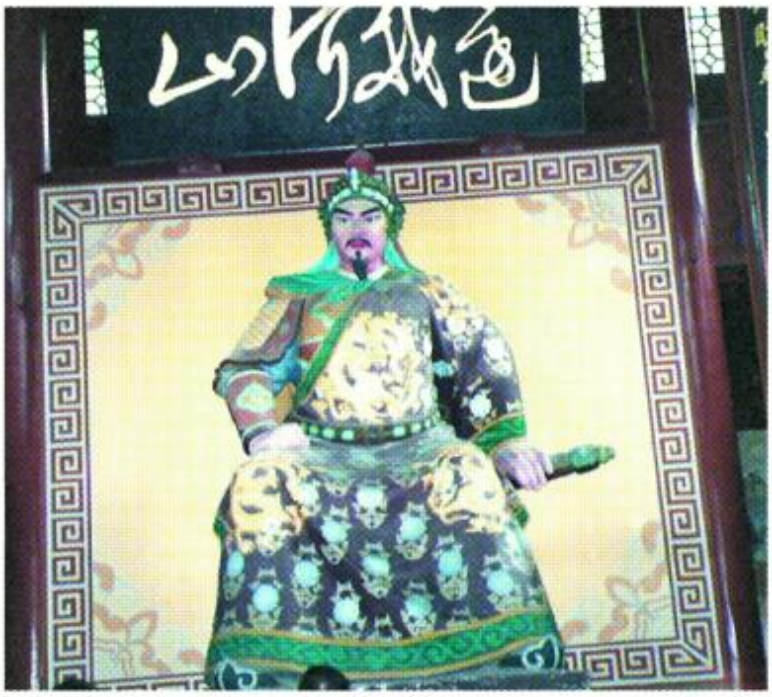
원숭환은 바로 명의 장성이었다. 그런데 그 ‘장성’이 반간계 한 방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요컨대 홍타이지는 탁월했고, 숭정제는 암우(暗愚)했다. 지도자의 차이가 후금과 명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원숭환의 죽음과 그 영향

홍타이지의 반간계에 휘둘리고, 엄당의 참소가 겹들여져 원숭환에 대한 반감과 증오가 높아 가던 분위기 속에서 엄당 계열의 온체인(溫體仁)은 다섯 차례나 상소를 통해 원숭환을 죽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동림당 계열의 신료들은 ‘적이 성 아래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장성(長城)을 허물 수는 없다.’며 숭정제에게 구명을 호소했다. 원숭환의 생사는 바야흐로 동림당과 엄당 대결의 핵심 현안으로 등장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숭정제는 엄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숭환의 필적.



원숭환과 비견된 송대의 명장 악비(岳飛) 초상화.

▲ 숭정제가 평소 시기심과 의심이 많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타이지는 결국 이신 범문정을 활용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의 간성(干城)을 제거할 수 있었다.

●원숭환의 죽음과 그 배경

1630년 9월22일, 원숭환은 북경 서시(西市) 거리에서 '임금을 속여 모반을 꾀한 죄'로 처형되었다. 원숭환은 책형(刑)이라 불리는 가장 잔혹한 형을 받았다. 기둥에 묶어 놓고 형리들이 달려들어 칼로 온몸의 살점을 발라내고, 나중에는 두개골까지 부숴 버리는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형벌이었다.

후금이 파놓은 반간계에 휘말려 원숭환을 처형했던 사람은 숭정제였지만 그 일련의 과정에서 원숭환을 죽이고 동림당 계열을 제거할 음모를 주도한 자들은 온체인과 왕영광(王永光)이었다. 이들은 숭정제 즉위 후 약화된 자신들의 권세를 만회하기 위해 엄당의 잔당들을 규합하려 했다. 온체인은 모문룡과 같은 고향인 절강 출신이었다. 위충현을 찬양하는 송가(頌歌)를 지을 만큼 엄당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온체인은, 모문룡을 살해한 원숭환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다. 이부상서 왕영광 또한 위충현의 잔당으로서 동림당에 대한 보복을 늘 꾀하고 있던 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숭환을 제거하려 했던 것과 '모문룡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을까? 이미 언급했지만, 모문룡은 가도에 위충현의 소상(塑像)을 세웠을 만큼 그와 밀착해 있었다. 모문룡은 해마다 자신에게 공급되는 막대한 요향(遼餉 · 명 조정이 요동으로 보내던 군량) 가운데 상당한 양을 횡령했고, 그렇게 착복한 자금을 바탕으로 위

충현 등 엄당의 요인들에게 뇌물을 바쳤다.

조선과 후금 상인들을 통해 흘러들어 온 인삼, 모피, 진주 등의 보화도 철철이 엄당 신료들에게 보내졌다. 엄당은 뇌물을 챙기는 대신 모문룡의 뒤를 든든하게 봐주었다. 그런데 그 모문룡이 죽었다. 때마다 쏠쏠하게 들어오던 뇌물도 뚝 끊어졌다. 당연히 모문룡을 죽인 원숭환에 대한 반감과 그와 연결된 동림당에 대한 적의(敵意)는 높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타 조정 신료들 중에도 원숭환에게 반감을 품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북경 주변의 경기 지역에 원림(園林)이나 정사(亭舍)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후금군이 장성을 넘어와 경기 지역을 유린하자 그들이 소유한 원림이나 정사가 망가지거나 파괴되었다. 자연히 그들은 원숭환을 원망하게 되고, 궁극에는 그가 후금군을 고의로 끌어들였다고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원숭환 추앙에 앞장섰던 장백정(張伯楨).

●원숭환, 반청흥한(反淸興漢)의 영웅으로 추앙

원숭환의 죽음을 계기로 명은 확연히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 원숭환을 죽이고 전용석 등 동림당 관인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온체인 등은 숭정제를 주무르며 정권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상황 파악이 어두운 황제와 그에게 달라붙은 간신들의 발호 속에 후금에 대한 방어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리 없었다. 한 예로 원숭환을 믿고 따랐던 부하 조대수(祖大壽)는 주장(主將)의 투옥과 죽음을 통탄하다가 결국 후금으로 투항하고 말았다.

명에 대한 후금의 도전이 본격화되었던 만력 연간부터 숭정 연간까지 원숭환은 명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런 그가 너무도 어처구니없이, 허망하게 죽자 많은 사람들이 비탄에 잠겼다. 원숭환은 자연스럽게 과거 송(宋) 시절 금(金)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분투하다가 주화파 진회(秦檜) 등에 의해 제거되었던 명장 악비(岳飛)에 비견되었다.

청나라 말엽 반청흥한(反淸興漢)의 열기가 높아갈 무렵 '한족의 영웅'으로서 원숭환을 추모하는 분위기도 고조되었다. 변법자강 운동에 가담했던 지식인 양계초(梁啓超)는 원숭환을 기려 '원독수전(袁督師傳)'이라는 글을 썼다. 광서(光緖) 연간 일본에 유학했던 장백정(張伯楨)은 누구보다도 열렬한 원숭환 찬양론자였다. 원숭환과 같은 광동(廣東) 출신이었던 그는 원숭환이 남긴 시문(詩文)을 수집하여 문집을 만들고 그를 추모하는 사업을 주도했다. '원숭환유집(袁崇煥遺集)'의 발문에서 그는 '원숭환이 죽음으로써 명이 드디어 망했고 애신각라씨(愛新覺羅氏)가 중원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썼다.

장백정은 원숭환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명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궁극적으로 반간계를 써서 원숭환을 죽게 만든 것은 청'이라고 하여 청에 대한 반감과 복수심을 드러냈다. '반청흥한'의 분위기 속에서 원숭환이 재발견되었던 것이다.

원숭환에 대한 추모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다.1952년 북경시 정부가 도시 정비 차원에서 원숭환의 묘를 외곽으로 옮기려 할 때, 북경의 지식인들은 모택동에게 원숭환의 묘를 보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모택동은 당시 북경시장 팽진(彭眞)에게 원숭환 묘를 원위치에 보전하도록 지시했는데, 모택동 또한 원숭환을 '민족영웅'으로, 후세 사람들을 감동시킬 '애국주의의 화신'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신(貳臣)들 홍타이지 명령받아 반간계 실행

원숭환이 투옥되고 결국 처형되었던 것은 명이 스스로 무너져 가는 과정이었다. 명이 이렇게 자멸하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역할을 담당했던 부류가 이신(貳臣)들이다. 이신이란 '두 조정을 섬긴 신하', 즉 명에서 벼슬하다가 후금으로 귀순하거나 투항하여 벼슬했던 한족 신료들을 가리킨다. 명이나 한족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배신자'였지만 후금이나 만주족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존재였다. 특히 홍타이지는 이신들을 중용(重用)하여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후금의 국가 제도와 체제를 정비하는 데 활용했다.

실제 당시 원숭환을 제거하기 위한 반간계를 제시했던 사람도, 홍타이지의 명을 받아 반간계를 실행으로 옮겼던 사람도 모두 이신 출신이었다. 홍타이지의 명령을 받아, 사로잡은 명의 환관들이 있던 옆방에 머물면서 '원숭환이 후금과 내통했다.'고 말하며 반간계를 실행했던 고홍중(高鴻中)과 포승선(鮑承先)은 모두 한족 출신이었다.

홍타이지에게 원숭환을 제거할 반간계를 기획하여 제공한 사람은 한족 출신 범문정(范文程)이었다. 그는 심양의 명문 출신으로 증조 범총(范總)은 명 조정에서 병부상서를 지냈고 조부 범심(范瀋)은 심양위지휘동지(瀋陽衛指揮同知)를 역임했다. 범문정은 1618년 누르하치가 무순을 공격했을 때 자발적으로 투항했다. 홍타이지는 그의 재주를 높이 사서 자신의 책사(策士)로 중용했다.

범문정은 1629년 홍타이지의 관내(關內) 원정에 수행했는데, 원숭환 때문에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그를 제거할 반간계를 구상했다. 숭정제가 평소 시기심과 의심이 많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타이지는 결국 이신 범문정을 활용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의 간성(干城)을 제거할 수 있었다.

범문정은 뒤 시기 순치(順治) 연간에도 시정(施政)의 계책과 방향을 제시하여 청이 중원을 원활히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병자호란 이후 청이 조선을 '제어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많은 이신들이 청으로 귀순했던 이유는 제각기 다양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명으로부터 무엇인가 '상처'를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북경까지 달려와 사투 끝에 적을 물리쳤지만, 간신들의 참소에 넘어가 원숭환을 처형하는 숭정제를 보면서 조대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신들의 후금으로의 귀순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명의 목줄을 겨누게 되었다. 원숭환의 죽음과 이신들의 존재 앞에서 '자멸한 왕조' 명이 던지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병자호란] (17) 인조의 생부 정원군 추승 논란

2013.01.27 22:58

인조의 생부 정원군 추승 논란

명 조정이 후금의 반간계에 넘어가 원숭환을 처형하는 등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던 무렵, 조선에서는 인조의 생부(生父) 정원군(定遠君)을 국왕으로 추숭(追崇:돌아가신 분의 지위를 뒤 시기에 올려 주는 것)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반정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즉위했던 인조는 자신을 낳아준 부친을 국왕으로 추숭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높이고 싶어했지만, 명분과 종통(宗統)의 의리를 강조하던 신료들은 인조의 그 같은 시도에 격렬히 반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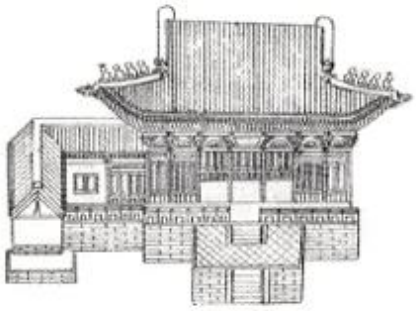
▲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조선 인조(仁祖)와 그의 비 인열왕후의 능인 장릉(長陵). 반정이라는 정변을 통해 즉위한 인조는 자신을 낳아준 부친을 국왕으로 추숭(追崇)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계운궁(啓運宮) 상례(喪禮)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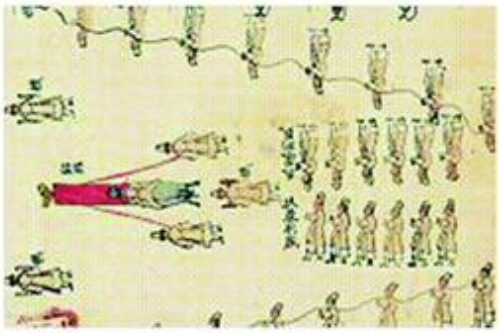
병자호란을 겪을 때까지 인조 정권은 안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 주된 까닭은 인조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등극하지 않은 데 있었다. 인조는 반정이라는 정변을 통해, 신료들의 추대를 받는 형식으로 즉위했다. 그 때문에 인조는 늘 국왕으로서 정통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시달렸고, 그 과정에서 신료들과 갈등을 빚었다. 정통성 확보와 관련된 첫 현안은 인조의 생부모(生父母)를 왕실의 종통 속에서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인조는 숙부 광해군을 몰아내고 즉위했기 때문에 왕실의 법통상 조부인 선조를 계승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따라서 인조의 생부인 정원군(1580~1619)과 생모인 계운궁(啓運宮) 구씨(具氏,1578~1626)를 사친(私親)으로 대접할 것인지, 아니면 인조의 왕통 속으로 끌어들여 '왕' 과 '왕비' 로 대접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인조는 당연히 후자를 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료들은 정원군과 구씨를 사친의 예에 따라 대접해야 한다고 맞섰다.

논란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1626년 1월, 인조의 생모 계운궁이 경덕궁 회상전(會祥殿)에서 세상을 떠났다. 인조가 계운궁을 위해 몇 년 상을 치러야 하는지가 당장 논란이 되었다. 인조는 당연히 어머니를 위해 3년 상을 치르겠다고 나섰다. 대신들과 예조판서는 '인조가 선조를 계승한 이상 멸사봉공의 입장에서 사적인 예는 축소해야 한다.' 며 3년 상에 반대했다. 그들은 1년 상을 치르되 '상주가 지팡이를 짚지 않는(不杖期)' 상례를 적용하라고 요

구했다. 이귀를 비롯한 일부 신료들은 '인조의 생부 정원군이 선조의 대통을 계승할 위치에 있었다.' 는 것을 내세워 3년 상을 치러도 무방하다며 인조에게 영합했다. 대신들과 예조는 인조가 상주(喪主)가 되는 것에도 반대했다. 그들은 '인조는 왕통으로 볼 때 이미 선조에게 출계(出系)했기 때문' 에 생모를 위해 상주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인조는 자신이 상주가 되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신료들의 공론을 무시했다. 예조판서를 비롯한 반대하는 신료들은 사직을 요청했다. 영의정 이원익은 '상주가 되려 하고 사친을 위해 국상(國喪)을 고집하는 것은 참월할 뿐 아니라 나라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고 강력히 반발했다. 인조는 결국 신료들의 반발에 밀려 상주 역할을 동생 능원군(綾原君)에게 넘겼다.



인조의 생모 계운궁이 세상을 뜬 장소인 경덕궁 회상전.



조선 왕조의 장례절차를 묘사한 의궤.

●신료들 "인조 아버지는 선조"

인조가 상기(喪期)와 상주 문제를 놓고 신료들과 논란을 빚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계운궁의 상례를 '왕비' 의 예로써 치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조는 실제로 5일 만에 빈소를 차리고(成殯),6일 만에 상복을 입고자(成服)했는데 예조는 그것이 '왕비의 예' 라며 반대했다. 신료들은 3일에 '성빈' 하고 4일에 '성복' 하라고 촉구했다. 인조는, 자신의 명을 듣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신료들을 위협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시간을 끌면 어차피 자신의 의도대로 5일 '성빈',6일 '성복' 을 관철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계운궁의 상례와 관련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목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계운궁의 관을 궁궐 안에 두는 문제, 반혼(返魂) 의식을 궁궐에서 하는 문제, 인조가 산소까지 따라가는 문제 등도 논란이 되었다. 인조는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운궁을 모신 김포의 산소 이름도 육경원(毓慶園)이라고 명명했다. '사친을 왕비의 예로 대접하면 안 된다.' 는 신료들의 반발과 공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추대된 왕' 으로서 자신이 지닌 정통성의 약점을 만회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인조는 더 나아가 작고한 생부 정원군을 '왕' 으로 추숭하고자 했다. 신료들은 훨씬 더 격렬하게 반발했고 당연히 그것을 둘러싼 논란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추숭을 둘러싼 논란은 정원군과 인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예학(禮學)의 권위자였던 김장생(金長生)은 '인조가 선조를 계승한 이상 왕통으로 볼 때 인조의 아버지(考)는 선조' 라고 못박았다. 왕통은 사적인 혈연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내세워 정원군을 '아버지' 로 대접하려는 인조의 의도를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예조판서 이정구(李廷龜)는 '선조와 인조를 부자 관계로 하면 정원군과 인조는 형제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김장생의 의견에 반대했다. 대다수 신료들이 '왕통은 사적 혈연보다 우선한다.' 는 김장생의 의견에 동조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귀와 박지계(朴知誡) 등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인조는 선조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아들' 이라고 거리낌 없이 주장하여 정원군을 '왕' 으로 추숭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았다. 인조에게 철저히 영합했던 것이다.

정원군을 '왕' 으로 추숭하는 논의는 1624년경에 제기되었다가 정묘호란 때문에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630년(인조 8) 8월, 음성(陰城) 현감 정대붕(鄭大鵬)이 다시 제기했다. 그는 '계운궁의 상례를 국상으로 치르고도 정원군을 추숭하지 않는 것은 문제' 라고 했다. 인조는 그의 의견이 반가웠지만 대다수 신료들은 반발했다. 정대붕의 상소를 계기로 이귀는 정원군을 추숭하고, 그를 모시는 묘(廟)를 세우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이귀는 무리를 동원하여 추숭을 요청하는 상소를 연달아 올리게 하는 등 '여론 조작' 까지 시도했다.

이원익, 김류, 오윤겸 등 대부분의 신료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대신들은 모든 대소 신료들을 이끌고 인조를 압박했

고, 성균관 생도들까지 나서 인조에게 '공론을 따르고, 비례(非禮)'에 집착하지 말라.' 고 외쳐댔다. 정치판은 바야흐로 인조, 이귀, 박지계, 최명길 등 소수의 '추숭 찬성론자' 들과 대다수의 '반대론자' 들로 나뉘어졌다.

●1632년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숭

정원군을 '왕'으로 추숭하려는 인조의 시도는 무리한 것이었다. 집권 이후, 과거 광해군이 생모 공빈(恭嬪)을 공성왕후(恭聖王后)로 추숭하고 무덤을 성릉(成陵)이라 했던 것을 비판하고 성릉의 석물 가운데 참월한 것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도 했다.

인조는 반대하는 신료들을 '시정잡배'로, 성균관 유생들을 '괴물'이라고 매도하면서 추숭을 강행하려 했다. 이귀는 그 과정에서 솔선해서 '총대를 멨다.' 그는 경연(經筵) 자리에서 추숭을 주장하다가, 반대하는 신료가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바닥을 치면서 성토하고 모욕을 주었다. 인조의 존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추숭 문제를 놓고 신료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인조는 결국 1632년(인조 10) 2월, 추숭도감(追崇都監)을 만들어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켰다. 이어 5월에는 정원군을 '왕'으로 추숭하여 원종(元宗)이라는 묘호(廟號)를 올렸다. 원종과 계운궁을 모신 산소는 장릉(章陵)으로 승격되고,1635년에는 그 위패를 종묘에 모시는 데도 성공했다. 신료들의 반대와 조야의 공론을 모조리 무시하고 밀어붙여 얻어낸 '성과'였다.

당시 조선은 가도의 유흥치(劉興治)를 토벌하려 시도했고, 유흥치는 곧 심세괴(沈世魁)에게 피살되는 등 서북 변경 상황이 몹시 심각했다. 후금 또한 조선에 대해 이런 저런 경제적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남방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우려 역시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인조는 원종 추숭을 통해 왕권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었지만 물경 10년 가까이 계속된 '추숭 논란'은 신료들 사이에 불신의 벽을 높이고 국력을 갉아먹었다.

그 와중에 민생을 추스르고 국방력을 제고해야 하는 긴급한 과제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끝없는 가도의 風雲

인조가 원종 추숭을 위해 골몰하고 있을 때 가도의 상황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반란을 일으켜 조선의 정벌 대상이 되었던 유흥치(劉興治)는 조선에 대한 물자 징색(徵色)을 멈추지 않았다. 유흥치를 토벌하려 했던 '원죄' 때문에 조선은 그의 보복을 받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 병자호란 당시 유일한 승전인 김화 전투를 이끈 평안병사 유림(柳琳) 장군을 모신 강원도 철원 충렬사(忠烈祠).1630년 인조는 총융사 휘하의 경포수와 어영군을 유림 장군에게 배속시켜 유흥치 일당의 노략질에 대비하도록 했다.
철원군청 홈페이지

1630년(인조 8) 8월, 비변사는 총융사 휘하의 경포수와 어영군을 평안병사 유림(柳琳)에게 배속시키고 도내의 정예병을 안주, 정주, 구성 등지에 배치하여 유흥치 일당의 노략질에 대비할 것을 청했다.

●가도 정벌 시도의 후유증



명군(明軍)이 사용하던 철제 화포.

1630년 8월 유흥치는 차관 이매(李梅)를 서울로 보내, 조선이 자신을 공격하려 했던 까닭을 힐문하려 했다. 인조는 처음에는 그와의 면담을 회피했다. 하지만 결국 그를 만나 토벌 시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유흥치는 9월에도 차관 이현(李見)을 보내왔다. 그는 먼저 '정충신이 가도 사람들이 배 만들고 숯 굽는 것을 방해했다.' 고 비난했다. 정충신이 토벌에 나섰을 때 유흥치의 정탐꾼들을 체포하고 한인들을 살해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유흥치는 이어, 굶주리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양곡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뻔뻔함의 극치였다. 인조는 이현에게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같은 해 10월, 인조는 문안관 정유성(鄭維城)을 가도로 보냈다. 유흥치는 '기공대첩(奇功大捷)' 이란 글자를 쓴 깃발을 세워놓고 정유성을 만났다. 그는 정유성에게 자신이 섬 안의 훼방꾼들을 제거했는데 조선이 자신을 왜 공격하느냐고 힐문했다. 그러면서 '조선이 천조(天朝)를 범하는 오랑캐는 토벌하지 않으면서 명나라 장수를 향해 군사를 들이대는 까닭이 무엇이냐?" 고 다그쳤다. 정유성은 대꾸할 말이 없었다. 머쓱해진 정유성에게 유흥치는 본색을 드러냈다. 섬 안에 군량이 부족하니 조선이 그것을 공급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조선은 군사를 일으켜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하고 힘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유흥치에게 약점을 잡혀 코가 꿰인 셈이었다. 유흥치는 정유성을 만난 직후, 평안도 일대에 부하들을 보내 곡물을 운반해 오도록 했다. 그들은 조선 관민들에게 수천 석의 군량을 빨리 운반하라고 독촉했다. 유흥치는, 압록강이 얼기 전에 군량을 보내주지 않으

면 군사들을 평안도에 풀어놓겠다고 협박했다.
유흥치가 가도로 돌아온 뒤 조선에 보낸 게첩(揭帖)에는 모욕적인 언사가 많았다. 김상헌이 회답서를 썼는데, 유흥치의 무례함을 질책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 인조는 유흥치가 노여워할까 우려하여 내용을 고치라고 지시했다. 김상헌은 인조의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인조는 김상헌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김상헌은 홍문관 부제학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맞섰다. 도무지 일관성이 없는 인조의 태도도 유흥치의 작폐를 조장하고 있었다.

●유흥치의 수탈이 격화되다

유흥치가 반란을 일으킨 뒤 명 조정은 가도에 대한 군량 공급을 중단했다.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가도의 한인들은 조선에서 토색질을 벌였다. 조선의 관민들 가운데는 한인들의 작폐에 시달리다 못해 그들을 습격하는 경우도 있었다.1630년 12월, 중화의 대장(代將) 양덕위(梁德渭)는 노략질을 일삼는 한인들을 공격하여 17명을 살상했다. 조정 일각에서는 유흥치가 알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양덕위를 처벌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평안감사 민성휘의 의견은 달랐다. 양덕위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면 한인들이 더욱 거리낌 없이 난동을 피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 관민들의 '자구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역시 같은 해 12월에는 황주의 백성들이, 배를 수리하기 위해 왔던 한인들을 습격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가 난 한인들은 황주 관아로 몰려가 주동자 색출을 요구했다.
자신들의 작폐에 대한 조선 관인들의 태도가 과거와 달라진 것을 절감한 유흥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는 우선 서울 등지에 정탐꾼을 들여보냈다. 정탐꾼들은 사대부가와 여염을 돌아다니며 조선 사정을 파악하려고 골몰했다.
그들이 무엇보다 관심을 가졌던 것은 조선과 후금의 왕래 상황이었다. 정탐꾼들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흥치는 잔꾀를 부리기 시작했다.1630년 11월, 전국해(錢國海)라는 자가 등래순무(登萊巡撫) 손원화(孫元化)의 차관이라 칭하며 조선으로 출발했다. 그는 '조선에서 군량 2만석과 전마 3000필을 얻어 유흥치에게 공급한다.'고 떠벌렸다. 가도에서 그를 만났던 조선 접반사 이경헌(李景憲)은 '조선에서는 전마를 키우지 않고 평안도는 이미 황폐화되어 군량을 더 이상 마련할 수 없다.'고 조선행을 만류했다. 전국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서울로 올라왔다.
전국해는 본래 유흥치의 부하였다. 유흥치는 그에게 위조한 자문(咨文)을 주었다. 자문의 내용은 가관이었다. '명 조정은 이제 유흥치를 용서했다. 감격한 유흥치는 공을 세우고 싶지만 식량과 전마가 부족하여 이웃에 의지해야만 한다. 듣건대 조선이 후금을 돕고 한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소문이 있다. 부득이하게 후금에게 머리를 숙인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조선이 명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곡식과 전마를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즉시 전마 2000필을 가도로 보내고 한인들을 핍박하지 말라'. 조선이 후금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을 빌미로 군량과 전마를 뜯어내려는 수작이었다.
조선 조정은 전국해의 정체를 금세 알아차렸다. 과거부터 등래 군문(軍門)이 바다 건너 조선으로 사람을 보내 군량과 전마를 청했던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국해는 인조를 만났을 때, 자신이 손원화가 보내서 온 차관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인조는 양곡과 전마를 보내달라는 그의 요구를 거부했다. 비변사는 서울에 있는 한인들을 모두 색출하여 가도로 돌려보내자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상인과 역관들이 가도에 들어가 무역하는 것을 엄격히 제재하자고 했다. 그들을 통해 조선 사정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바야흐로 조선과 유흥치 사이의 긴장이 높아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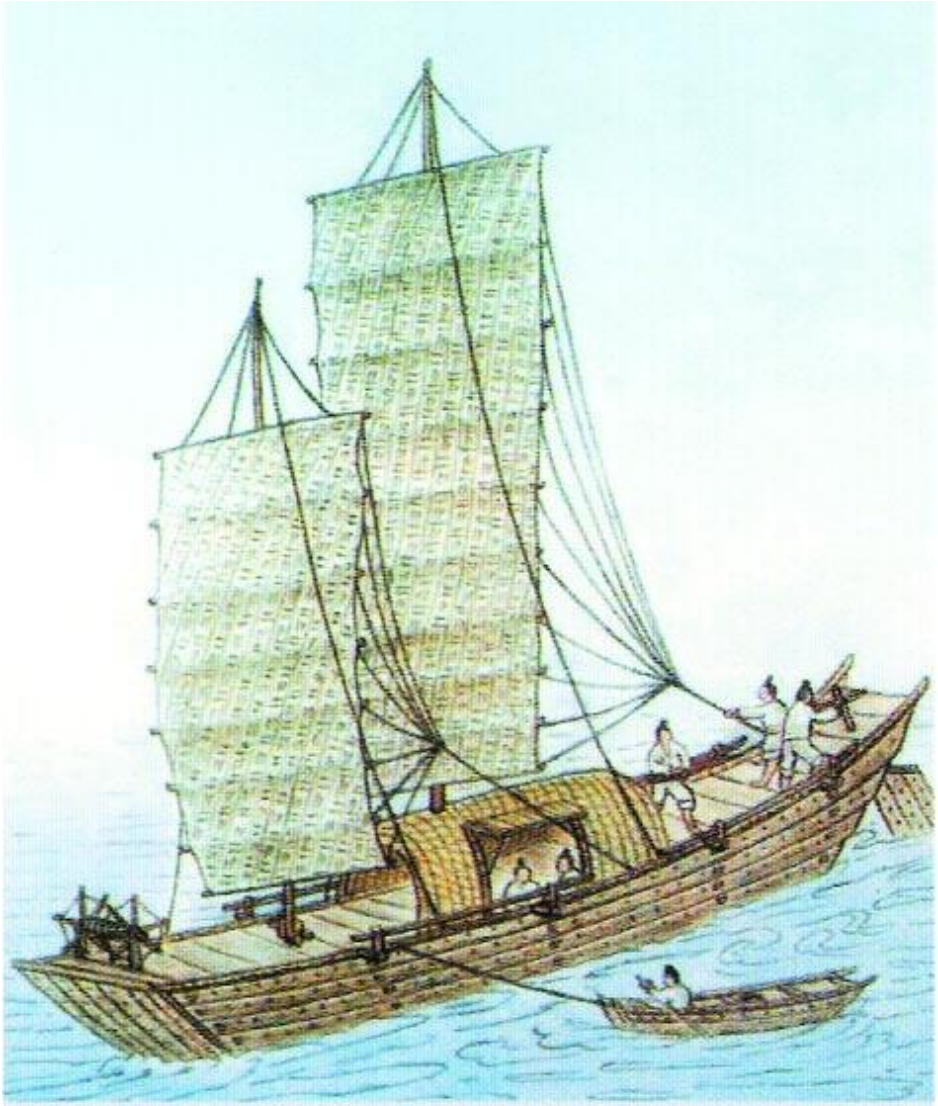
●계속되는 가도의 변란

1631년(인조 9) 1월, 가도로 들어간 조선 문안관을 만났을 때 유흥치는 다시 길길이 뛰었다. 그는 한인들을 살해한 범인을 체포하여 자신에게 묶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러지 않으면 병력을 풀어 자신이 직접 살인자를 찾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유흥치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명 본토로부터 군량 공급이 여의치 않은 데다 조선 또한 과거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흥치는 결국 1631년 3월, 부하 장도(張濤)와 심세괴(沈世魁) 등에게 피살되었다.
유흥치는 가도를 통제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후금으로 투항을 시도하다가 심세괴 등의 반발을 사서 죽은 것이다. 모문룡과 원숭환이 죽은 뒤, 사실상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가도의 난맥상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가도에서 다시 일어난 변란의 불똥은 조선으로 튀었다. 인조는 유흥치가 후금으로 투항을 시도하다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가도 정벌'을 다시 운운했다. 그런데 당시는 '가도 정벌'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었다.1631년

5월, 후금의 홍타이지는 조선 사신을 만난 자리에서 협박을 늘어놓았다. 그는 우선 조선이 보낸 방물(方物)의 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굶주린 유흥치가 자신에게 귀순하려고 했는데 조선이 식량을 공급해 주는 바람에 귀순을 거부했다.' 고 따졌다.
그는 조선이 이후에도 가도에 식량을 대주면 병력을 의주로 보내 차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조선의 원조가 없으면 가도는 쉽사리 자신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협박이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조선이 가도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한, 후금과의 관계는 안정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락가락했던 인조의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조선의 가도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결국 후금과의 원한을 쌓아 가는 과정이었다.
파국이 다가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던 것, 바로 거기에 조선의 비극이 자리잡고 있었다.

후금,조선에 배(船)를 요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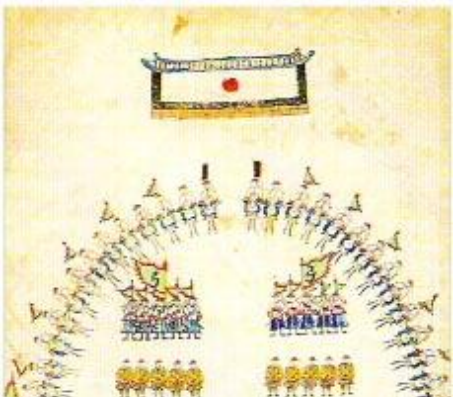
정묘호란이 끝난 뒤부터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까지 조선과 후금의 관계는 아슬아슬했다. 조선은 후금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바로 명과 가도라는 바깥 변수 때문이었다. 유흥치가 피살된 뒤, 가도를 탈출하여 후금으로 귀순한 자들 가운데는 홍타이지에게 가도를 빼앗을 기회가 왔다고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다. 홍타이지는 그럴듯하게 여겼고 그 파장은 곧바로 조선으로 밀려들었다.



쌍돛을 단 조선의 전통적인 범선

1631년(인조 9) 6월8일, 평안병사 유림(柳琳)이 보낸 장계가 조정에 도착했다. 호차(胡差) 중남(仲男)과 아지호(阿之好) 등이 군사 1만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와 가산(嘉山)의 서쪽 지역을 차단했다는 소식이었다. 같은 날 도착한 장계에서 평안감사 민성휘(閔聖徽)는 '호인들이 조선에서 배를 빌려 가도를 습격하려 한다.' 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변 고을의 수령들과 장수들을 불러모아 방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했다. 소식을 접한 비변사는 '부원수 정충신(鄭忠信)을 평안도로 보내고 금군(禁軍)과 포수(砲手)를 평양으로 파견하고 황해도의 병력도 동원하라.' 고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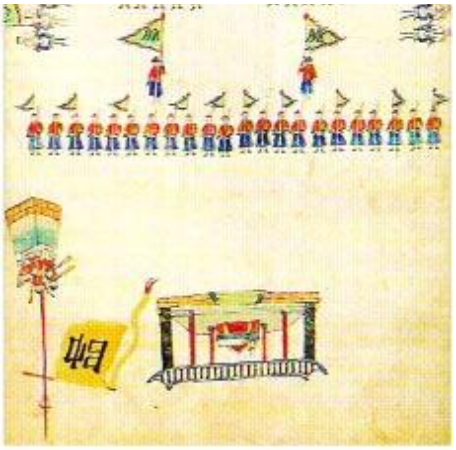
정묘호란 이후, 이렇게 많은 수의 후금군이 압록강을 건너온 적은 없었다. 그것은 사실상 침략이었다. 다만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배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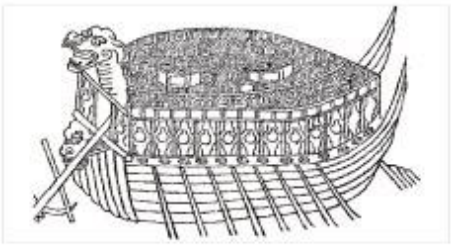
인조는 황급히 비변사 신료들을 불러모았다. 영의정 오윤겸(吳允謙)은, 후금군이 배를 빌려 가도를 습격하려는 목적에서 침략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명에 대한 의리를 고려할 때 배를 빌려줄 수는 없다며 속히 황해도를 비롯한 각도의 군사들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최명길의 분석은 좀 달랐다. 그는 후금군이 쳐들어 온 것은 조정을 협박하여 식량을 구하려는 수작이라고 보았다. 최명길은 후금군이 깊숙

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군사 징발 때문에 민심을 소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6월10일 호차 중남이 홍타이지가 보낸 국서를 갖고 서울로 올라왔다. 홍타이지가 보낸 편지는 조선에 대한 불만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홍타이지는 먼저 '조선이 양곡을 주는 바람에 가도가 존속하고 있다.' 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조선이 용천, 철산 지역의 땅을 가도 주민들에게 경작지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그는 정묘호란 당시 서울 이북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반환했음을 상기시킨 뒤 조선은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홍타이지는 '잘못을 사과하는 차원에서 배를 빌려 달라.' 고 요구했다. 배를 빌려주기 않으면 의주와 철산을 점령하겠다고 위협했다.



충무공 팔진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거북선 그림

중남이 입경한 그날, 명에서 온 사절도 서울로 들어왔다. 등래순무 손원화(孫元化)가 보낸 도사(都司) 왕순신(王舜臣)과 이매(李梅) 두 사람이었다. 그들은 인조를 만났을 때 조총, 구리 냄비와 배 100척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명 사절들도 배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당시 손원화는 바람 잘날 없는 가도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배가 필요했다. 그는 조선에서 배를 구입하여 섬 안에 있는 인원과 전마(戰馬), 군수 물자 등을 등래(登萊) 지역으로 수송하려고 했던 것이다. 손원화의 요구는 조선에게 무척 버거운 것이었다.100척이나 되는 배를 새로 건조하기도 어렵고, 각 지역의 화물선들을 갑자기 차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또 섣불리 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후금이 알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조선 조정은 결국 배를 제공하라는 요구는 완곡히 거부했다. 대신 조총 500자루와 구리 냄비 100개를 보내겠다고 확약했다. 명에 대해서는 참으로 충성스런 조선이었다. 청북 지역에 후금군 1만명이 주둔해 있고, 호차가 서울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명 사절들에게 조총 500자루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 아슬아슬한 모험이었다. 조정은 실제로 왕순신 등이 중남과 조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했다.

중남 또한 배를 빌려줄지 여부를 빨리 밝히라고 닦달했다. 조정은 중남에게 '명은 우리의 부모 나라이므로 너희에게 배를 빌려주는 것은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다. 부자(父子) 사이에 차마 못할 짓을 할 경우 형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잔인하게 명을 저버리면 뒷날 너의 나라로부터도 의심을 받을 것' 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리와 천륜을 강조하여 중남의 '심금을 울려 보려는' 의도였다. 그러면서 후금군의 침략을 비난하고, '형제 사이의 의리를 생각해서 며칠분의 군량을 제공할 것이니 빨리 철수하라.' 고 촉구했다.

배를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중남 일행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다. 조정은 접대하는 신료를 보내 그들을 달래서 다시 데리고 들어왔다. 그들에게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회유했지만 중남 등은 배를 빌려 달라는 요구를 접지 않았다. 조선 측이 다시 거부하자 중남 일행은 다시 일어나 귀국하겠다고 나가버렸다. 조정은 다시 사람을 보내 이미 녹번동까지 가 있던 중남 일행을 달래야만 했다.

후금은 왜 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을까? 당시까지 후금은 바다에서 작전할 수 있는 수군 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요하(遼河)와 같은 내륙 지역의 강에서 운항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배들은 있었지만 그것을 갖고 바다로 나가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바다에서 배를 조종하고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수군 병력이 없었다. 후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들의 육군은 철기(鐵騎)라 불릴 정도로 막강했지만 바다나 수군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철산의 바로 코앞에 있는 가도에서 모문룡이 '발호' 를 해도 수군이 없는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모문룡은 바로 그 같은 후금의 약점을 파고들어 8년 가까이 '해외 천자' 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후금은 조선의 수군과 항해술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홍타이지는 심지어 '조선 수군이 명 수군보다 강하다.' 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조선에서 배와 수군을 빌리면 자신들의 전력은 배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수군만 있으면 코앞에 있는 가도를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 일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후금의 서쪽을 철옹성처럼 막아 버티고 있는 산해관도 해로로 공격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수군이 강한 나라' 로 인식되었다. 왜란 초반 조선 육군은 연전연패했지만 수군은 달랐다. 일본군의 서해 진출을 막아 그들의 수륙병진(水陸竝進) 전략을 좌절시킴으로써 궁극에는 명의 안보까지도 지켜낸 것이 조선 수군이었다. 이순신(李舜臣)의 탁월한 영도와 거북선 등 조선 전함들의 활약상은 명 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626년 조선에 왔던 명사 강왈광(姜曰廣)은 '조선 사람들이 배를 조종하는 것은 빠르기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다. 만일 그들이 오랑캐에게 넘어가 오랑캐들이 조선 수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산동이나 강남 지방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 이라고 했다. 명청 교체기 명 관인들이 조선의 향배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우려했던 대목이 바로 수군이었다.

조선 또한 명과 후금의 대결 상황에서 '수군 문제' 가 갖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후금의 강요대로 배나 수군을 제공할 경우, 가도가 곧바로 위험에 처하고 산해관을 비롯한 명의 내지까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후금에 배를 넘겨주는 것은 '부모의 나라' 에 비수를 꽂는 것이었다.1631년 6월, 배 때문에 명과 후금 모두로부터 '코너에 몰려야 했던' 조선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었다.

후금,조선을 떠보다

후금군이 침략해 오고, 사신을 보내 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조선의 위기 의식은 높아졌다. 조정은 김시양(金時讓)을 도원수로, 이완(李浣)을 평안병사로 임명하여 서북으로 내려보내고 전국에 징병령을 내렸다. 하지만 후금과 맞설 수 없는 처지에서 계속 강경책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조선은 다시 기미책(羈策: 오랑캐를 다독이는 정책)으로 돌아갔다.1631년(인조 9) 7월, 조선의 '태도' 와 '능력' 을 확인한 후금은 서쪽으로 명 원정길에 올랐다.



금주시(錦州市)에서 바라본 오늘날의 대릉하 모습.



▲ 인조는 강화도에 10만 군사가 먹을 수 있는 양곡을 비축하도록 지시하는 등 강화도를 정비하는 데 골몰했다. 그러나 1636년 정작 병자호란이 터지자 인조는 강화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후금 수군은 상륙작전을 감행해 강화도를 함락시키고 말았다. 사진은 눈덮인 강화성의 모습.
강화군청 홈페이지

●때 아닌 斥和 · 主和 논쟁

1631년 6월13일, 배를 빌려줄 수 없다는 통고에 불만을 품고 호차 중남 등이 뛰쳐나간 직후 입직 포수(砲手) 이덕탁(李德卓)이 승정원에 나타났다. 그는 '오랑캐 사신들은 우리의 허실을 엿보기 위해 왔으니 그냥 돌려보내면 후환이 있을 것' 이라며 빨리 그들을 억류하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18일에는 후금군의 침략 소식에 놀라 이원익이 조정으로 달려왔다. 이원익은 당시 이미 은퇴한 데다 여든다섯의 고령이었다. 그는 인조에게, 하삼도의 군병을 동원하여 민심을 소란케 하지 말고 어영군(御營軍)을 비롯한 서울에 있는 정병을 평안도로 내려보내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선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후금군과 일전을 불사해야 한다.' 는 이덕탁의 건의를 계기로 때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지평 심연(沈演)은 식량을 주지도, 회답사(回答使)를 보내지도 말고 후금을 공격할 계책을 의논하라고 촉구했다. 사헌부의 다른 신료들도 심연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들은 '정묘호란 이후 오랑캐와 서로 왕래한 것은 화호(和好)를 굳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들이 이유 없이 쳐들어와 맹약을 어겼다.' 고 지적하고, 더 이상 미봉책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문관 신료들은 한 발 더 나갔다. 그들은 '오랑캐가 부모의 나라를 짓밟고 가도를 공격하려 한다면 갓을 쓰고서라도 달려가 구원해야 한다.' 며 강약과 승패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일부 신료들은 '조정이 아예 안주 이북의 방어를 포기했다.' 고 통탄하고 군사를 총동원하여 싸우자고 주장했다. 삼사(三司) 신료들은 이참에 후금과의 우호관계를 끊고 척화(斥和)의 길로 나아가라는 주장을 폈던 것이다.

비변사(備邊司)의 입장은 달랐다. 비변사는 '후금과의 화의(和議)를 언제까지나 믿을 수는 없지만, 싸우려 해도 병마가 모이지 않고 군량도 제대로 댈 수 없는 처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후금을 다독거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인조는 비변사의 의견에 동조하여 박로와 오신남(吳信男)을 회답사로 임명하여 심양으로 보냈다. 화친을 계속 유지하려고 결심한 것이다. 삼사 관원들은 굴욕적인 사신 파견을 당장 중지하라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인조, 훗날 대비 강화도 정비 '올인'

조선이 기존의 화친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후금군은 철수 길에 올랐다. 당시 후금군은 조선군이 쉽게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이미 1629년과 1630년 이른바 기사전역(己巳戰役) 당시 만리장성의 외곽을 넘어 북경을

비롯한 명의 심장부를 유린했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었다. 잘 훈련된 병력이 많은 것은 물론, 실전 경험까지 풍부하게 갖추고 있었다.

6월28일, 후금군이 철수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조정으로 전해졌다. 철수 소식을 들은 인조는 신료들에게 강화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실 인조는 후금군이 쳐들어 왔던 직후 강화도로 피란할 계획을 세웠었다. 또 강화도로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삼남에 독운어사(督運御史)를 파견했다. 혹시라도 강화도의 군량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미리 양곡 운반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후금군이 물러가자 본격적으로 강화도를 재정비하려는 깜냥이었다.

인조는 강화도에 10만 군사가 먹을 수 있는 양곡을 비축하라고 지시했다. 강화 읍성(邑城)과 갑곶성(甲串城)을 개축하고, 화기와 각종 장비들을 미리 옮겨 놓으라고 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방물(方物)을 목면으로 바꿔 강화로 수송한 뒤, 나중에 군량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쓰려는 계획도 세웠다. 또 강화도 연안의 병력 주둔지에 큰 창고들을 지을 것을 주문했다. 측근들을 강화도로 보내 방어 상태와 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했다.

인조가 강화도 정비에 '올인' 하는 자세를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우선 조정에서 방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청북(淸北) 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높았다.1631년 7월, 영유현령(永柔縣令) 정기수(鄭麒壽)가 상소했다. 그는 '청북은 포기할 수 없는 조종(祖宗)의 강토인데 조정에서는 청북을 지키려 하기는커녕 사람들을 지역에서 빼내려 하고 있다.' 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청북 사람들은 정묘호란 당시 후금군에게 당한 원한을 갚기 위해 모두 싸우다가 죽으려는 결의가 넘친다.' 며 조정의 지원을 촉구했다.

우의정 이정구는 다른 측면에서 인조의 '강화도 정비론' 에 반대했다. 그는 서울이 팔도의 근원이며, 근원이 흔들리면 민심이 무너져 변경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먼저 서울 서쪽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정구는 또한 강화도는 들어가려고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요새로 정비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 때문에 불가능하고, 섣불리 강화도 정비에만 몰두하면 원망이 일어나 민심을 동요시킬 우려가 있다.' 고 경고했다. 그는 강화도 주변의 연도(沿島) 방어에도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인조는 이정구 등의 경고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인조뿐 아니라 당시 많은 관인들이 '후금군은 수전(水戰)에 약하기 때문에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는 안전하다.' 는 '고정관념' 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1636년 병자호란이 터졌을 때 인조는 강화도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후금 수군은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강화도를 함락시켰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고정관념' 에 집착할 때,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후금군, 대릉하성 공략 나서

조선 조정이 위기의식 속에서 강화도를 정비하는 데 골몰하고 있던 1631년 7월, 후금은 다시 명에 대한 원정에 나섰다. 이번 원정의 공격 목표는 대릉하성(大凌河城)과 금주(錦州) 등지였다. 모두 영원성과 산해관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명군의 전초 기지였다.

홍타이지는 원정 시작에 앞서 소규모 정예 병력을 수시로 대릉하 주변으로 보냈다. 명의 장졸들이나 민간인들을 납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단순히 '인간 사냥' 이 아니라 명군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찰의 일환이었다. 당시 후금의 정탐(偵探) 능력은 탁월했다. 이미 건주여진 시절부터 명 관인들은 누르하치의 간첩 활동과 정보 수집 능력에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었다. 명 관인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건주여진인은 간첩 활동에 가장 뛰어나다. 내응하는 자들 때문에 견고한 성도 앉아서 무너지고 만다." 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홍타이지는 '인간 사냥' 을 통해 명의 총병(總兵) 조대수(祖大壽) 등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산해관 바깥에 대릉하성을 비롯한 여덟 개의 성을 수축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후금군이 공격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치려고 밤낮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홍타이지는 원정을 결심하고, 후금에 귀순한 몽골의 여러 패륵(貝勒)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명령했다. 마침내 8월5일, 홍타이지의 대군은 대릉하 부근까지 전진했다.

대릉하 원정에 앞서 조선에 병력을 보내 위협하고, 배를 빌려달라고 한 것은 사전 정지작업이었던 셈이다. 받아들이기 곤란한 요구를 내세워 조선의 반응과 능력을 시험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서정(西征)하는 동안 조선이 배후에서 공격해 올 우려가 없다는 확신이 생기자 비로소 군대를 움직였던 것이다.

[병자호란] (18) 대릉하성의 비극

2013.01.27 23:03

대릉하성의 비극 (1)

1631년(인조 9) 8월5일 밤, 후금군은 대릉하성을 포위했다. 당시 성안에는 사령관 조대수(祖大壽)를 비롯하여 1만 5000명 남짓한 명군이 있었다. 성의 치첩(雉堞)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미처 돌아가지 못한 인부가 3000명, 상인이 2000명 정도 있었다. 후금군은 만주병과 몽골병, 그리고 한인으로 구성된 포병대를 합쳐 모두 4만명 가까운 병력이었다. 누르하치 시절 이래 후금군은 요동 지역의 명군을 공격할 때마다 항상 수적 우세를 유지해 왔다. 명군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병력을 집중시키는 작전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는데 대릉하 원정에서도 어김없이 그 원칙을 지켰다.



▲ 심양 고궁에 남아 있는 후금군의 화포.

●홍타이지,4만 병력으로 1만5000 대릉하성 포위

휘하 병력의 수가 명군에 비해 월등히 많았음에도 홍타이지는 신중했다. 그는 과거 누르하치가 영원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했던 전철을 뒤풀이하지 않으려고 했다. 병사들을 성을 향해 돌격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격할 경우, 후금군의 인명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명군이 갖고 있는 화포의 위력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홍타이지는 성을 포위한 뒤, 성 주위에 두 겹으로 참호를 파라고 지시했다. 참호의 바깥에는 담을 쌓았다. 성과 후금군의 참호 사이의 거리는 약 3리(里) 정도였다.3리 정도면 명군 화포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리였다. 대릉하성에서 금주로 이어지는 대로에는 만주와 몽골군 분견대(分遣隊)와 한인 포병대를 배치하여 바깥 지역으로부터 명의 지원군이 오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성을 완전히 고립시킨 상태로 장기전을 펼침으로써 명군을 고사시키겠다는 작전이었다.

8월8일과 9일, 포위망을 뚫어 보려고 명군 기마병 600여 명이 성 바깥으로 나왔다가 모두 패하여 도주했다. 후금군은 명군의



출격에 대비하여 곳곳에 복병을 배치했다. 이후에도 명군은 간헐적으로 병력을 내보냈지만 그 때마다 후금군에 격퇴되었다. 홍타이지는 물 샐 틈 없는 포위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대릉하성 바깥에 위치한 명군의 독립 성보(城堡)들을 각개 격파하려고 시도했다. 대(臺)라고도 불리는 개별 성보들을 향해 홍이포를 비롯한 화포들을 쏘아 타격을 가한 뒤, 점령하는 방식이었다. 작전의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각 대에 머물던 많은 명군 장졸들과 백성들이 포격을 받고 전사하거나, 투항해 왔다.10월12일에는 대릉하성 주변의 성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우자장대(于子章臺)가 함락되었다. 후금군은 홍이포 6문, 대장군포 54문을 이용하여 3일 동안 맹렬한 포격을 가했다. 성첩이 무너지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와중에 남녀 587명이 투항해 왔다. 우자장대가 무너졌다는 소식은 주변의 각 대들에도 연쇄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겁을 집어먹은 장졸과 백성들의 도주와 투항이 이어졌다.10월14일에는 대릉하성 외곽의 마지막 보루였던 진흥보대(陳興堡臺)마저 무너졌다.


산해관의 성과 문루의 모습.

●명 대규모 지원군마저 참패

포위를 통해 명군의 목줄을 조여들어 가는 한편, 홍타이지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8월13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 조대수에게 편지를 보내 화친과 투항을 촉구했다. 때로는 투항한 한군(漢軍) 장수들을 성으로 보내 항복을 종용했다. 처음 홍타이지로부터 화친과 투항을 요구받았을 때 조대수는 애써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시간과 상황은 조대수의 편이 아니었다.

8월15일, 포위된 대릉하성을 구원하기 위해 송산(松山) 방면에서 명군 지원군 2000명이 달려 왔지만 기다리고 있던 후금군 병력에 의해 격퇴되었다.25일에도 금주성으로부터 6000명의 원군이 출격했지만 역시 후금군에 차단되어 도주했다.

대릉하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병력이 번번이 패퇴하자 9월24일 명군은 마지막 카드를 뽑아들었다. 산해관으로부터 대규모의 구원군을 다시 보낸 것이다. 감군도(監軍道) 장춘(張春), 총병 조대락(祖大樂) 등이 병력 4만명을 이끌고 출동했던 것이다. 명군은 소릉하(小凌河)를 지나 주둔지에 참호를 파고 화기 등을 정렬 배치하는 등 후금군과 전면전을 벌일 태세였다. 하지만 3일 뒤에 벌어진 전투에서 명군은 병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다시 패하고 말았다. 전투 도중 후금군 진영 쪽으로 불던 바람이 역풍으로 바뀌었다. 날씨도 철저히 후금군 편이었다. 명군은 결국 사령관 장춘을 비롯한 33명의 지휘관이 포로가 되는 등 참패하고 말았다. 전투를 감독하던 대학사 손승종(孫承宗)은 산해관으로 패주했다.

구원군이 오는 족족 패주했던 데다 외곽에서 전초 기지 역할을 하던 각 대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자 대릉하성의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외부로부터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식량과 땔감, 마초(馬草)가 고갈되고 있었다. 땔감을 구하기 위해 성밖으로 몰래 나오는 명군 병사들은 매복하고 있던 후금군에 살해되거나 체포되었다.8월24일, 포로로 잡힌 명군 병사로부터 '성을 쌓는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 가운데 이미 30명 가까이 굶어 죽었다.' 는 진술이 나왔다.9월19일에는 '성안에 남은 곡식이 불과 100석뿐이고, 탈 수 있는 말은 70마리밖에 없다. 인부들의 절반이 굶어 죽었고, 살아 남은 병사들은 말고기로 버티고 있으며 말 안장을 쪼개 불을 피우고 있다.' 는 형편이었다.

장춘이 이끄는 구원군이 패하고 우자장대마저 무너진 10월 이후의 상황은 절망과 처참 그 자체였다.10월10일, 성을 탈출하여 후금군 진영으로 투항한 왕세룡(王世龍)의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성안의 양식은 다 떨어졌고, 인부와 상인들은 모두 죽었으며, 남아 있는 병사들은 서로를 잡아먹고 있다.' 는 것이었다. 대릉하성은 마침내 '서로를 잡아먹는(人相食)'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고립된 명군과는 달리 후금군은 금주를 거쳐 심양까지 이어지는 대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양으로부터 병력과 군수 물자를 수시로 실어올 수 있었다. 조대수의 항복은 이제 '시간문제' 가 되고 말았다.

● '부메랑' 된 홍이포

대릉하성의 명군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당시 후금군이 보유하고 있던 화포의 위력이었다.1626년 영원성을 공격하다가 명군의 홍이포(紅夷砲) 공격 때문에 누르하치가 끝내 절명했던 '아픔' 을

겪었던 후금은 이후 명군의 화기를 획득하기 위해 부심했다.
처음에는 전장에서 노획한 명군의 화기를 활용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후금은 마침내 1631년 1월과 3월, 대장군포(大將軍砲)와 홍이포를 각각 자체 제작하는데 성공한다. 대장군포는 16세기 전반, 포르투갈 상인들이 명에 전해준 불랑기포(佛狼機砲) 가운데 제원이 큰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홍이포는 17세기 초반 역시 마카오를 통해 명에 전해진 최신 화포였다. 포신이 길어 사정 거리가 길 뿐 아니라 탄환이 날아가는 속도와 파괴력이 당시 그 어느 화포보다도 발군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홍이포를 주조하고 그것을 전장에서 활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주역이 대개 명과 관련이 있거나 명에서 귀순한 한족(漢族)들이었다는 점이다. 홍이포 주조의 총감독이자 나중에 한인으로 구성된 포병대를 이끌었던 동양성은 원래 무순(撫順)에서 한족 상인들과 오랫동안 거래했던 인물이다. 절반은 한족이나 마찬가지였던 그는 이후 누르하치에게 귀순했다. 홍이포 주조의 실무를 감독했던 정계명(丁啓明)은 원래 명군 부장(副將)이었다가 기사전역 당시 후금군에 투항했던 인물이다. 주조를 직접 담당했던 장인(匠人) 왕천상(王天相)과 두수위(竇守位) 등도 기사전역 당시 후금군이 획득했던 한인들이었다. 홍타이지는 화포 주조의 공을 인정하여 이들 장인을 노비 신분에서 모두 해방시키고 많은 상을 내렸다.
귀순한 한인들의 협조 덕분에 대릉하 공격 당시 후금군은 명군보다 더 많은 수의 대형 화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명 출신 장인들이 만든 홍이포에서, 명 출신 포병들에 의해 발사된 포탄은 견고한 대릉하의 성보들을 파괴하고 용장(勇將) 조대수를 궁지로 몰아 넣었다. 무너져 가고 있던 명으로부터 유출된 인력과 최신 기술들이 '부메랑'이 되어 명군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것이다.

명이 조대수를 시켜 대릉하성을 쌓은 목적은 명확했다. 산해관의 방어를 확고히 하면서, 후금에 빼앗긴 요서(遼西)와 요동을 수복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후금군은 성의 방어 시설이 채 완공되기도 전에 들이닥쳤다. 조대수는 분투했지만 성은 결국 함락되었다. 집요한 포위 끝에 대릉하성을 무너뜨린 후금의 자신감은 더욱 커졌다. 명의 수세(守勢)와 낙조(落照)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말았다.


산해관의 해신묘(海神廟).


오늘날의 금주 시가지.

● **祖大壽, 투항을 결심하다**

1631년 10월 7일, 홍타이지는 한인 출신 장수 강계(姜桂)를 대릉하성으로 보냈다. 그는 홍타이지에게 투항한 23명의 한인 장관(將官)들이 직접 작성한 투항 권유서를 들고 있었다. 조대수에게 투항하라고 설득할 참이었다. 조대수는 그를 성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강계는 할 수없이 성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외쳤다. 투항 권유서를 쓴 사람들이 누구누구며, 원군을 이끌고 왔던 장춘(張春)도 이미 후금군에 참패하여 투항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조대수는 완강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자신의 옛 부하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성에서 죽을 것이니 다시는 오지 말라." 고 외쳤다. 병사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어도 조대수는 좀처럼 투항하려 들지 않았다.
조대수의 태도를 확인한 홍타이지는 10월 20일, 편지가 묶인 화살을 성안으로 날렸다. 그는 편지에서, 명 지휘관들이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 부하들에게 참혹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명 병졸들에게 '너희는 죽어봤자 이름도 남기지 못하는데 왜 다른 사람의 고기가 되느냐.' 며

'상관을 죽이고 귀순하는 자에게는 벼슬을 주겠다.' 고 유혹했다. 명군 진영을 흔들기 위해 심리전을 폈던 것이다.

심리전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10월 25일 조대수로부터 회답이 왔다. 조대수는 홍타이지에게 한인 출신 장수인 석정주(石廷柱)를 보내달라고 했다. 조대수는 석정주를 성안으로 들이면서 자신의 아들 조가법(祖家法)을 후금 진영에 인질로 보냈다. 조대수는 석정주에게 항복을 결심했다고 말한 뒤, 깜짝 제안을 했다. '나는 이미 나라에 충성하기는 틀린 몸인데 목숨을 비록 구하더라도 처자를 볼 수 없으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대들이 대사를 도모하려 한다면 먼저 금주성을 함락시켜 내 처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앞장서서 금주성을 함락시킬 복안이 있으니 홍타이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당시 조대수의 가족들 대부분은 금주성에 있었고 둘째아들은 북경에 있었다. 어차피 상황에 떠밀려 항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피붙이라도 챙겨야겠다는 결심이 섰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 후금 팔기병의 갑옷

●조대수의 변신과 홍타이지의 배포

10월 28일 조대수는 마침내 성문을 열었다. 조대수는 투항하기로 결심했지만 부하 하가강(何可綱)은 그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 하가강은 사실상 부사령관으로 성을 쌓는 공사를 감독했던 주역이었다. 그는 조대수에게 "공과 저는 모두 요동 사람입니다. 공이 나가지 않으면 요동 사람의 마음을 묶어 둘 수 없고, 제가 죽지 않으면 요동 사람의 의리(義理)를 밝힐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제문을 지은 뒤 주변 사람들에게 "죽게 되면 죽어야 하는 것이거늘 어찌 성을 나가서 영원히 비웃음을 사겠는가?" 라고 했다. 조대수는 사람들을 시켜 그를 성밖으로 몰아냈다.

성밖에는 이미 후금군 장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가강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얼굴색을 바꾸지 않았다. 그저 웃을 뿐이었다. 후금군에 의해 그의 숨이 끊어지자 그의 시신을 차지하기 위해 굶주린 명군 병졸들이 달려들었다. 끔찍한 장면이었다.

조대수는 후금군 지휘관들과 하늘에 맹서하는 의식을 치렀다. 조대수는 '홍타이지에게 몸을 맡겨 영원히 배신하지 않겠다.' 고 서약했고, 후금군 지휘관들은 '귀순한 한인들을 온전히 보양해 주겠다.' 고 약속했다.

이윽고 조대수는 홍타이지의 장막으로 인도되었다. 홍타이지는 관원들을 1리(里) 밖까지 보내 그를 환영했다. 조대수가 장막 앞에서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리겠다고 하자 홍타이지는 극력 만류했다. 대신 그를 끌어안았다. 홍타이지가 포견례(抱見禮)를 행한 것은 그동안 귀순해 왔던 어느 누구보다도 거물이었던 조대수에 대한 배려의 표시였다.

조대수는 자신에게 기회를 주면 직접 금주성으로 들어가 명군을 무장해제시켜 투항하도록 하겠다고 제의했다. 마치 후금군의 포위를 뚫고 대릉하성을 탈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주성의 명군을 속인 다음 '거사' 를 이루겠다는 복안이었다. 대릉하성을 포위하느라 지쳐버린 홍타이지는 조대수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조대수의 '변신' 도 놀랄 만한 일이었지만 홍타이지의 '배포' 역시 대단한 것이었다.

11월 1일 조대수는 출발하면서 '금주성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면 입성한 다음날 포 한 발을 쏘고, 성을 접수하는데 성공하면 11월 4일까지 역시 포를 쏘아 신호를 보내겠다.' 고 말했다. 그리고 홍타이지에게 '성공' 했다는 포성을 들으면 병력을 이끌고 즉시 금주성으로 오라고 했다.

11월 2일, 금주성에서 포성이 울렸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되었지만 더 이상의 포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홍타이지는 조대수가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여겼다. 그는 대릉하성에서 새로 얻은 명군 장졸들과 노획한 화기들을 챙겨 철수 길에 올랐다. 대릉하성에서 새로 얻은 명군 병력은 1만 1000이나 되는 많은 수였다. 노획한 대소 화기는 3500문이 넘었다. 병력과 무기는 고스란히 후금군의 새로운 전력(戰力)으로 보강되었다. 홍타이지는 끝까지 치밀했다. 그는 철수에 앞서 대릉하성의 성첩과 시설물들을 모두 파괴하라고 지시했다.

●홍타이지, 자신감이 더욱 커지다

대릉하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홍타이지의 자신감은 더욱 커졌다.11월 10일, 홍타이지는 조선 사신 일행에게 대릉하 승리의 전과(戰果)를 설명하고, 자신들이 조대수에게 보냈던 초항장(招降狀, 항복 권유서)을 보여 주었다. 당시 대릉하의 후금 진중에는 오신남(吳信男)을 비롯한 조선 사신 두 명이 심양으로부터 와 있는 상태였다.

홍타이지는 명군을 굴복시킨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사신들에게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상국' 으로 섬겼던 명의 장졸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조대수가 항복하는 장면을 직접 보면서 오신남 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분명 착잡했을 것이다. 또 어렵사리, 근근이 유지되고 있던 조

선과 후금 관계의 장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상상을 했을 것이다.

조대수의 투항은 조대수 개인의 비극일 뿐 아니라 명 전체의 비극이기도 했다. 조대수는 일찍이 자신의 상관이자 누구보다도 열렬한 애국자였던 원숭환이 숭정제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상황을 목도했다. 원숭환이 처형된 직후 북경의 분위기에 실망한 그는 산해관을 떠나 금주성에 틀어박혔었다. 조대수도 인간인 이상 간신과 소인배들의 참소 앞에서 대국을 볼 줄 모르는 숭정제와 조정에 대해 정나미가 떨어질 법도 했다.

하지만 조대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대릉하성을 수축하자고 건의했다. 조정에서는 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어디에 먼저 성을 쌓고, 어디를 먼저 방어하느냐를 놓고 벌어진 논란이었다. 결국 대릉하성을 쌓으라는 재 가는 떨어졌지만 공사 기간은 충분치 않았다. 갑론을박하다가 공사 착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치첩이 완공되기 전에 후금군은 들이닥쳤고 조대수는 고립된 성에서 3개월 이상 사투를 벌여야 했다. 이미 망조(亡兆)가 완연한 명의 분위기에서 조대수의 분투는 그나마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홍타이지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대릉하 원정에서 돌아온 직후인 1632년 4월, 홍타이지는 대군을 이끌고 차하르(察哈爾) 몽골 정벌 길에 올랐다. 대릉하성에서 새로 합류한 명군 장졸들도 원정에 동참했다. 원정이 거듭될수록 후금의 힘은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젠가는 조선을 향해 다가올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전운 그림자에 불안, 막막한 현실

후금이 대릉하 원정에 앞서 평안도 일원에 병력을 보내 위협하자 조선의 위기의식은 바짝 높아졌다. 인조는 강화도 정비에 몰두하는 한편, 후금의 침략에 대비한 군사적 방책 마련에도 신경을 썼다.1631년 8월, 인조는 서쪽 교외로 나아가 무사들의 훈련을 참관하는 열무(閱武)를 행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후금의 침략이 임박했다는 위기 의식 속에서 상무(尙武)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를 띄우는 것만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 '청북 포기론' 떠돌자 민심 흉흉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정충신 장군 사당. 문화재청 홈페이지

인조와 조정이 강화도 방어와 정비에만 몰두하는 자세를 보이자 청북(淸北) 사람들의 위기 의식이 높아져 갔다. 조선 전기부터 '서북인 차별'의 굴레 때문에 내내 불만을 삭이고 살던 그들이었다. '조정이 청북 방어는 이미 포기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평안도 전역으로 퍼졌다. 청북의 민심은 흉흉해졌다.

조정에서도 청북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1631년 10월, 사간 김세렴(金世濂)은 평안도, 그 가운데서도 의주 방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안도는 '나라의 문호(門戶)'라고 강조한 뒤 청북을 포기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백성들의 원망이 팽배해 있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김세렴은 이어 '나라를 지키려면 백성들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조정은 도리어 백성들의 원망만 사고 있으니 위기를 맞으면 누구에게 손을 벌릴 것이냐?'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당시 청북 주민들의 불만과 위기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후금과 지척에 있는 데다 정묘호란 당시 막심한 피해를 온통 뒤집어썼던 그들이었다. 정묘호란 이후에도 조정에서 별다른 방어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자 그들의 불만과 우려는 높아만 갔다. '용골산성(龍骨山城)의 영웅' 정봉수(鄭鳳壽)도 서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일찍이 절규했던 적이 있다.

청북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우선 자신들의 고을 인근에 있는 산성(山城)을 손봐달라고 조정에 요구했다. 산성은 후금군이 들이닥쳤을 때 그나마 자신들의 몸을 숨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이다.1631년 8월 이후, 청북 지역의 요충지에 산성을 새로 쌓거나 수리해 달라는 건의가 봇물처럼 밀려들었다.8월12일 의주사람 백광종(白光宗)은 의주성을 수축하자고 했다.15일에는 곽산에 사는 김은정(金殷鼎) 등이 능한산성(凌漢山城) 안의 태초봉(太初峯)과 사인봉(舍人峯) 사이에 성을 쌓고 곡식을 저장하여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21일에는 철산 백성들이 정충신(鄭忠信)을 통해 운암산성(雲巖山城)을 수축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9월 7일에는 운산 백성들이 용각산성(龍角山城)을 쌓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백성들 스스로 나섰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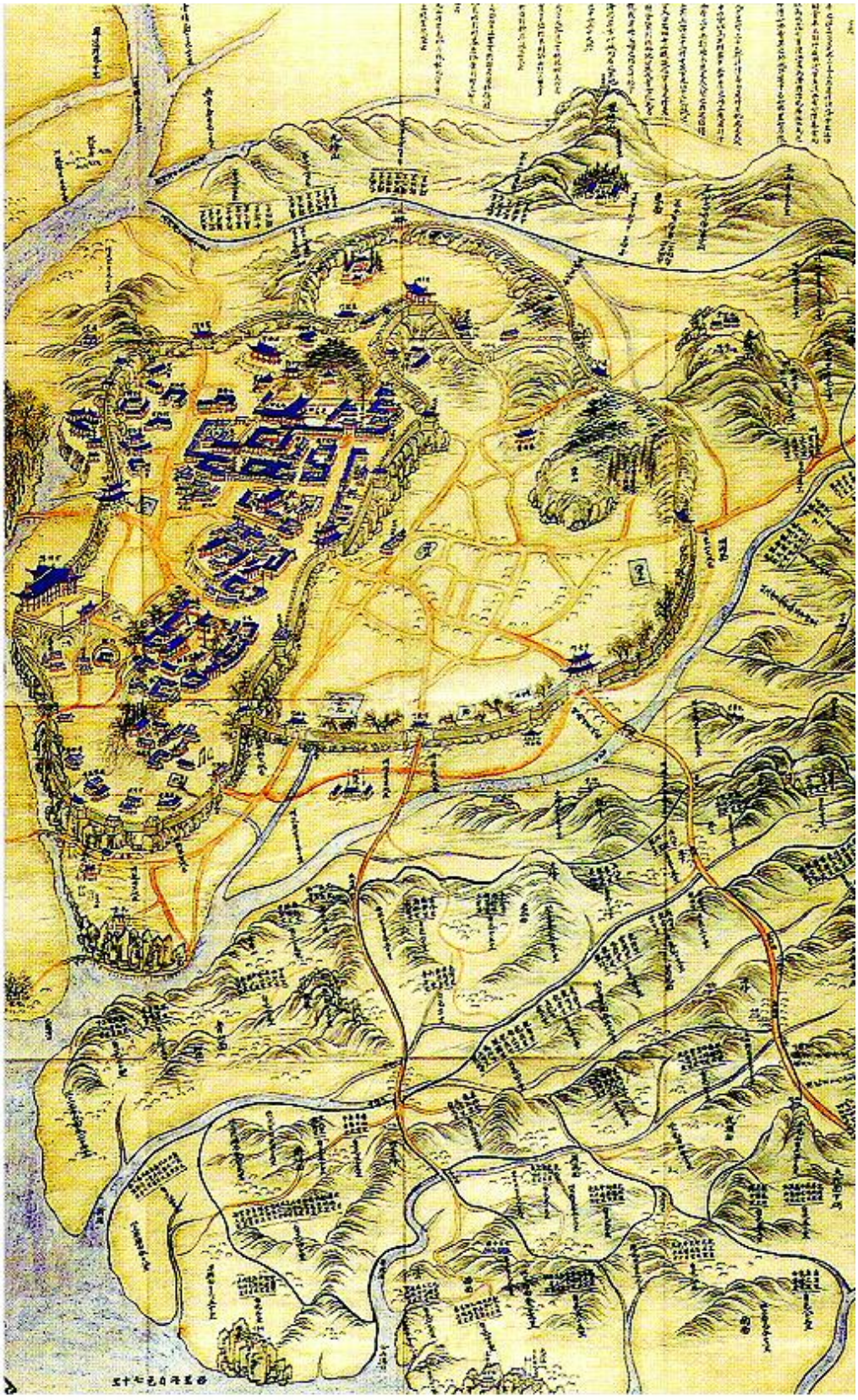


정충신 장군 교지. 서산시 홈페이지

●서북 방어, 재정궁핍이 발목 잡아

성을 수축해 달라는 청북 백성들의 바람은 절실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문제는 성을 쌓는 비용과 완공 이후 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병력과 군량을 마련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 있었다.9월3일, 부원수(副元帥) 정충신이 차자를 올렸다. 청북 사람들의 축성 요구를 현장에서 직접 접했던 그였다. 하지만 정충신은 냉정했다. 그는 의주성을 쌓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했다. 성을 쌓는 것도 문제지만 완공 뒤 들여보낼 병력과 군량이 없는 현실에서는 우선 시세를 관망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비변사는 '정충신의 말대로 하면 청북의 민심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되어 어렵게 모인 백성들이 모두 흩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비변사 또한 병력과 군량을 마련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원칙론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조선시대 안주 지도(규장각 소장).

1631년 9월5일, 도체찰사 김류( )는 평안도 방어와 관련하여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의주를 지키려면 최소 1만 명의 병력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군량이 5만석이라고 추산했다. 또 의주 방어에 필요한 용골산성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병력을 미리 들여보내면 군량이 없어 견디지 못하고, 그렇다고 적의 침입을 맞아 들여보내

면 시간에 맞출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어차피 의주를 방어하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안주와 황주 방어에 신경을 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주를 지키든, 안주와 황주를 더 중요하게 여기든 병력과 군량을 확보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당시 서북 지역에서 조정이 가장 신경을 썼던 곳은 안주였다. 안주에는 약 7000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군량은 겨우 몇 개월도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김류는 경기도와 황해도 사이에 진을 만들어 강화도를 바깥에서 응원하는 거점으로 삼자고 청했다. 김류의 대책이란 결국 '강화도 방어론'과 다름이 없었다. 위기를 맞아 서북 지역의 방어책 마련이 절실했지만 군량과 재정의 궁핍은 대책 마련에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조선이 이렇게 자기를 추스르기에도 겨를이 없는 처지에 명 장수들은 여전히 수시로 들락거리며 양곡을 지급하라고 떼를 썼다. 직접 서울로 올라와 양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아예 배에다 중국산 재물을 싣고 황해도 연안 등지로 몰려와 양곡 무역을 요구하는 자도 많았다. 그들이 몇 개월씩 머물며 돌아가지 않자 연안 주민들은 그들의 등쌀에 몸살을 앓았다.

1631년 10월26일, 가도의 도독 황룡(黃龍)은 군량을 독촉하는 자문을 다시 보내왔다. 그 내용이 가관이었다. '자신이 가도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 후금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다.' 고 떠벌렸다. 후금과 가도 사이에 낀 조선의 처지 역시 가관이었다.

●다시 '화친' 상태로 돌아가다

1631년 윤 11월22일, 후금 사신 영아이대(英俄爾岱) 일행이 도착했다. 조선에서는 보통 용골대(龍骨大)라고 부르던 그는 홍타이지가 보낸 국서를 내밀었다. 홍타이지는 먼저 조선 백성들이 후금 지역으로 넘어와 산삼을 캐가고 있음에도 조선 조정이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가도 사람들을 계속 상륙시키고, 형제국이 빌려달라고 요청한 배도 내어 주지 않는 조선은 이웃을 사귀는 데 정성이 없는 나라' 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가도의 명장수들이나 조대수(祖大壽)가 후금을 이길 수 있다고 믿어 교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앞으로 언행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양국의 맹약이 유지될 수 없을 것' 이라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인조는 이튿날에는 대릉하전을 직접 목도하고 돌아온 추신사(秋信使) 일행을 접견했다. 추신사 박로는 대릉하 싸움의 전황을 설명한 뒤, 홍타이지가 자신들에게 후금군의 병세(兵勢)를 과시했다고 보고했다. 후금군의 병력이 7만 정도 되고, 명군 사령관 장춘(張春) 등도 후금군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윽고 윤 11월24일, 조정의 고관들은 형조(刑曹) 앞마당에 모였다. 국경을 넘어가 산삼을 캐다가 잡힌 안덕간(安德幹)과 김태수(金太水)를 처형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용골대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의 목을 베었다. '채삼인(採蔘人)의 월경(越境)을 금지해 달라.' 는 후금 측의 요구에 대한 성의 표시였다. 비변사는 이어 인조에게 후금 측이 요구하는 물자를 넉넉히 보내주자고 건의했다.

대릉하 전투 시작 직전 급격히 고양되었던 후금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는 어느새 가라앉고 있었다. 적개심에 맞물려 위기의식은 높아졌지만 그것을 돌파할 '현실' 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었다.

사실 조선 조정의 신료들은 1627년 정묘호란을 당한 이후부터 모두 융복(戎服)을 입었다. 조복(朝服) 대신 융복을 입은 것은 고난과 치욕을 잊지 말자는 의미였다.1631년 12월까지도 계속 융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융복을 착용하고 정신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는 후금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었다. 막막한 현실을 돌파할 특단의 조처가 절실한 시점이었다.

곤혹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다

조선이 후금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다.1630년 무렵부터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까지 후금이 요구했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자신들과의 교역에 성의를 보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도(島)의 한인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에게 물자를 공급하지도 말라는 것이었다. 특히 후자는 후금이 조선을 '평가' 하는 핵심 관건으로 사실상 명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였다. 인

조정권은 곤혹스러웠다. 정묘호란 당시 조야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루어졌던 화친은 '명과 조선의 부자(父子) 관계만 유지할 수 있다면 후금과의 형제 관계는 받아들일 수 있다.' 는 전제 위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북경으로 가는 육로가 끊긴 상황에서 조선과 명의 관계는 가도와의 왕래를 통해 유지되고 있었다. 바로 거기에 조선의 고민이 자리잡고 있었다. 가도는 모문룡 시절이래 내내 조선를 들볶았고, 조선 또한 '부자 관계의 상징' 인 가도를 외면하지 못했다.



오늘날 봉황성 부근의 모습

●영원한 애물단지, 가도

후금도 한동안은 양측의 관계를 묵인하는 듯이 보였다. 조선을 거쳐 가도에서 들어오는 명나라 물자가 필요했던 데다, 수군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도를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금이 1629년 기사전역(己巳戰役),1631년 대릉하 전투 등을 통해 명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상황은 크게 변했다. 본토 방어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명은 가도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다시피했고, 그 때문에 가도의 고립과 곤궁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럴수록 가도의 한인들은 조선에 더 결사적으로 매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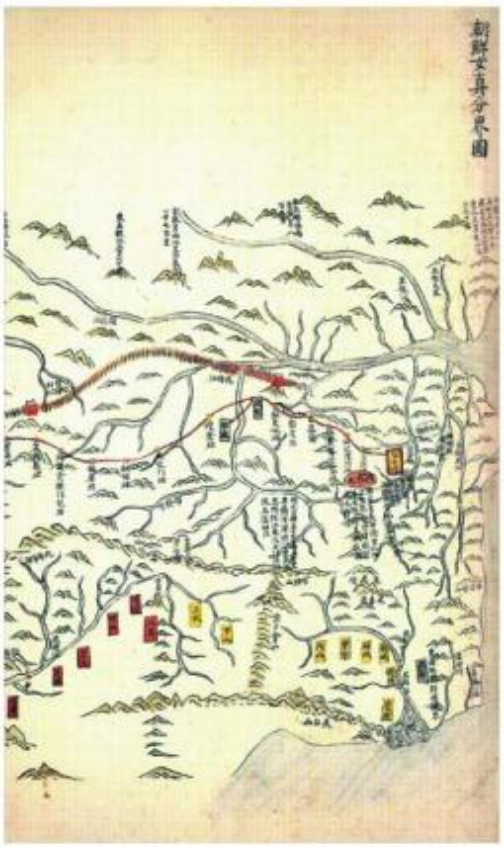
가도를 이미 '손안에 들어온 물건(掌中之物)' 이라고 여겼던 후금이 조선에 대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했다. 조선의 지원만 없다면 가도의 한인들은 대거 후금으로 투항할 것이고, 가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 가 되기 때문이었다. 가도가 무너진다면 후금은 얼마나 홀가분할 것인가. '뒤를 돌아보아야 할 걱정(後顧之憂)' 없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산해관으로 나아가 명과 최후의 결전을 벌일 수 있었다.

후금이 조선을 공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에 대한 공격을 구상하면서 후금은 명이 자신들의 배후를 역습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하지만 산해관 바깥이 후금군에 의해 봉쇄된 상황에서 명의 육군이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명이 조선을 지원하려 할 경우 천진(天津)이나 등래(登萊)에서 수군을 동원할 것이고, 명 수군은 분명 가도를 중간 거점으로 삼아 조선을 지원하거나 요동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 후금의 판단이었다.

'가도를 내버려 두라. '는 후금의 압박 속에서도 조선은 끝내 가도에 대한 은밀한 지원을 멈추지 못했다. 명과의 '부자관계' 를 차마 끊지 못한 데다, 유사시 명의 지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점' 이라는 실낱같은 기대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경원(慶源)지도. 규장각 소장



조선여진분계도(朝鮮女眞分界圖). 규장각 소장

●조선 사정에 정통한 후금

조선은 가도에 대한 지원을 은밀하게 한다고 했지만 후금은 그 전말을 거의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조선 사람 가운데 후금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1632년 12월, 철산(鐵山)의 아전 이계립(李繼立)은 조선이 가도의 한인들에게 물자를 대주고 있다는 사실을 용골대에게 밀고했다. 후금 자체가 본래 첩보 활동에 뛰어난데다 청북 지역에 대한 조선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일이었다.

이 같은 사정은 함경도 쪽에서도 비슷했다. 조선의 북변 거주자들과 호인들 사이의 교통을 통해서도 조선 정보가 새 나가고 있었다. 누르하치가 요동을 장악하기 이전부터 두만강 부근에서는 번호(蕃胡)라 불리는 호인들과 조선인들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번호들이 국경을 넘어와 조선인들을 납치해 가기도 했고, 그들 자신이 조선으로 귀순하기도 했다. 물론 강을 건너 여진 지역으로 도망가는 조선 사람들도 있었다. 누르하치가 두만강 유역의 번호들을 모두 평정한 뒤에도 양자의 접촉은 끊이지 않았다.

실제 1629년 11월의 '양경홍(梁景鴻) 역모' 는 이 같은 접촉 배경에서 빚어진 사건이었다. 양경홍은 북인의 잔당으로 인조반정을 맞아 한옥(韓玉), 신상연(申尙淵), 이극규(李克揆), 정운백(鄭雲白) 등과 함께 경원(慶源)으로 귀양 갔다. 양경홍 등은 현지에 살던 양사복(梁嗣福) 양계현(梁繼賢) 부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이용하여 후금군을 끌어들여 모반을 시도했다고 한다. 양계현은 젊었을 때 포로가 되어 여진 지역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인물이었다. 공초(供招) 과정에서는 '정운백이 한윤(韓潤)에게 서신을 보내, 만약 오랑캐를 이끌고 오면 마땅히 앞장서 인도하고 투항하겠다.' 고 했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 담당자들을 놀라게 했다. 한윤은 이괄(李适)과 함께 반란을 주도했던 한명련(韓明璉)의 아들로 당시 후금에 망명 중이었다.

우습구나 삼각산아 (笑矣三角山)
옛 임금은 지금 어디 있나 (舊主今安在)
지난번에 강도 만나 (頃者遇强盜)
강화도에 가 있다네 (往在江華島)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양경홍이 지었다는 시의 내용이다. 반정으로 쫓겨난 지 6년 이상이 지났지만 인조정권을 '강도' 로 표현할 만큼 적개심이 여전히 높다.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처형되었지만, 조선 조정은 이 사건 이후 후금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함경도 주민들의 동향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후금은 실제로 평안도와 함경도 등지에 살던 불평 불만자들을 끌어들여 조선어 역관으로 활용했다. 양계현은 부친 양사복이 처형된 뒤에 후금으로 귀화하여 조선을 왕래하는 역관이 되었다. 양계현을 통해 조선의 민감한 내부 사정이 후금에 알려졌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1630년대 조선을 드나들면서 악명이 높았던 중남(仲男), 정명수(鄭命壽) 등도 비슷한 계기로 역관이 되었다. 후금은 이래저래 조선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후금, 명을 흉내내기 시작하다

명을 능멸할 정도로 힘이 커진데다 조선 사정까지 훤하게 알고 있었던 후금의 요구 수준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1632년 9월, 용골대는 추신사(秋信使) 박난영(朴蘭英)을 만났을 때 홍타이지의 '불만' 사항을 전달했다. '조선은 명의 사신이 오면 모든 관원이 말에서 내려 영접하면서 왜 후금 사신에게는 말 위에서 읍(揖)만 하느냐?' 는 힐문이었다. 이제 후금 사신도 명 사신과 동동한 수준으로 영접하라는 요구였다.

1632년 10월에 왔던 후금 사신 만월개(滿月介)는 한 술 더 떴다. 그는 평양에 이르러, 조선이 후금에 보내는 예단(禮單)의 수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은 뒤 다시 명을 거론했다. '명에는 봄가을의 사신말고도 성절사(聖節使)까지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고 따졌다. 그는 더 나아가 '명 사신들을 접대할 때는 금은으로 된 그릇을 쓰면서 후금 사신들에게는 사기 그릇을 쓴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곧 이어 서울로 향하던 후금 사신 소도리(所道里) 일행은 봉황성(鳳凰城)에 이르러 '명사 수준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조선 국경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고 으름장을 놓았다. 비변사는 '부자관계와 형제관계가 같을 수는 없다.' 고 설득하는 한편, 만월개 일행에게 푸짐한 선물을 안겼다. 어떻게든 명과 후금 사이에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

1632년 무렵, 조선이 취한 대외정책은 일견 절묘했다. 명과 후금 모두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름대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조선은 삼국 관계에서 '독립변수' 가 아니었다. 명이나 후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조선은 곧바로 '선택의 기로' 로 내몰렸다.1632년 명에서 일어난 공유덕(孔有德)의 반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공유덕의 반란' 때문에 조선과 후금의 관계는 다시 위기를 향해 치닫게 된다.

[병자호란] (19) 반란자와 귀순자들

2013.01.27 23:08

반란자와 귀순자들 I

明장수 공유덕 · 경중명 수군과 함선 이끌고 후금에 투항

후금이 명을 압박하면서 조선과 후금의 관계 또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던 1633년 무렵, 세 나라의 관계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반란을 일으켜 등주(登州)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명나라 장수 공유덕(孔有德)과 경중명(耿仲明) 등이 후금으로 귀순해 버린 것이다. 공유덕 등은 후금으로 가면서 185척의 선박과 수만의 병력을 대동했다. 뿐만 아니라 배 위에는 홍이포(紅夷砲)까지 싣고 있었다. 후금은 그토록 열망했던 함선과 수군을 보유하게 되었다. 후금은 이제 바다까지 장악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후금은 바다까지 장악할 기회 잡아

공유덕과 경중명 등이 반란을 일으켜 후금으로 귀순하게 된 사연은 모문룡의 가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반란을 주도했던 공유덕과 경중명, 이구성(李九成) 등은 모문룡의 부하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요동 출신으로, 누르하치가 요동을 장악하게 되자 가도로 들어가 모문룡에게 몸을 맡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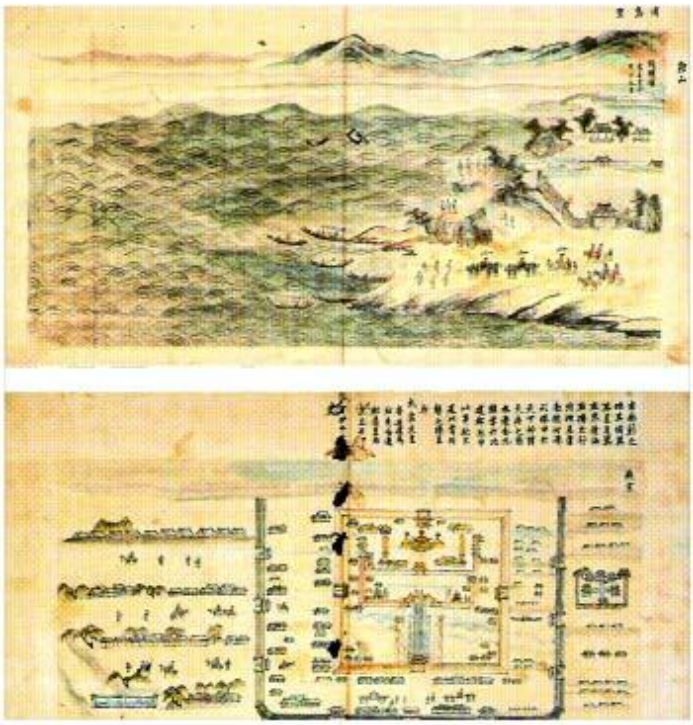


홍타이지의 무덤인 심양 소릉(昭陵)의 원경.

모문룡은 이들을 우대하여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 이들은 성을 모씨(毛氏)로 바꾸고 이름도 고쳤다. 공유덕은 모영시(毛永詩)로, 경중명은 모유걸(毛有傑)로, 이구성은 모유공(毛有功)이 되었다. 공유덕과 이구성은 활 쏘고 말 타는 데는 뛰어났지만 일자무식(一字無識)의 인물들이었다. 경중명은 자신의 이름을 겨우 쓸 수 있는 정도였다. 모문룡은 공유덕과 이구성에게는 군사들을 관리하게 하고, 경중명에게는 재물과 군기(軍器)를 관리하도록 했다.



소릉(昭陵) 안에 있는 석물.



1624년 등주(登州)로 출발하는 조선 사신 일행을 그린 항해조천도(航海朝天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문룡 휘하에서 그런 대로 안온한 시절을 보내던 이들의 처지는 모문룡이 원숭환에게 죽음을 당한 이후 크게 바뀌었다. 원숭환은 모문룡을 제거한 뒤, 자신의 측근들을 가도로 보내 동강진(東江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모문룡 측근들에 대한 숙청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모문룡과 부자관계를 맺은 데다 안팎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었던 공유덕과 경중명 등의 입지는 당장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졸지에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이들을 받아들여 준 사람은 등래순무 손원화(孫元化)였다. 평소 요동 출신 장졸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손원화는 공유덕과 경중명을 데려다가 유격(遊擊)으로 임명했다.1631년 8월, 후금군이 대릉하성(大凌河城)을 포위하자 조대수(祖大壽) 등은 손원화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등래(登萊) 지역의 수군을 이끌고 후금군의 배후를 견제해 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손원화는 공유덕 등에게 병력 1000여명을 주어 해로를 이용하여 대릉하 쪽으로 달려가게 했다.

하지만 공유덕 등은 손원화를 기만했다. 그들은 역풍이 분다는 핑계로 배를 띄우지 않고 육로로 영원(寧遠)까지 이동할 계획을 세웠다.1631년 11월 공유덕 일행은 오랜 행군 끝에 직예(直隷)의 오교현(吳橋縣)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피로와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은 먹을 것을 찾았지만 오교현의 시장은 이미 철시한 상태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

다.

자연히 병사들 가운데서 민폐를 끼치는 자들이 나타났다. 공유덕은 민원(民怨)을 야기한 병사들을 처벌했지만 병사들의 불만도 덩달아 높아졌다. 급기야 지역의 식량 창고를 약탈하고 현지의 관원을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구성은 병사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졌음을 핑계로 반란을 꾀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면서 공유덕에게도 자신과 행동을 함께하라고 협박했다.

공유덕이 동참하면서 영원을 향해 가던 '구원군'은 '반란군'으로 돌변했다. 공유덕과 이구성 그리고 진계공(陳繼功) 등은 병력을 돌려 산동(山東) 주변의 여러 고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공유덕 등을 따르는 병력은 수천 명으로 불어났고, 산동의 임읍(臨邑) · 능상(陵商) · 하청(河靑) 등 여러 고을이 반란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후금군이 대릉하를 공격했던 것의 여파가 엉뚱한 곳으로 미쳤던 것이다.1632년 1월 승승장구하던 공유덕의 반란군은 등주성 공략에 나섰다. 당시 경중명은 이미 성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는 성안에서 요동 출신의 두승공(杜承功) 등과 함께 사람들을 불러모아 공유덕 등의 공격에 내응했다. 안팎이 호응하는 상황에서 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였다. 이윽고 1월13일 등주성이 함락되었다. 성안에 있던 요동 출신 병사 3000명은 고스란히 공유덕 등의 수중에 떨어졌다.



요동의 중심부인 요양(遼陽)의 백탑(白塔).

●홍이포 등 엄청난 수량의 무기도 넘어가

등주성이 반란군에게 떨어진 여파는 심각했다. 등주는 전략 요충이었다. 육로로는 북경, 산해관 등지와 연결되고 수로를 통해 천진(天津)과 요동, 가도 등지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다. 이미 산해관 동쪽이 후금군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현실에서 등주는 수군을 이용하여 후금의 배후를 칠 수 있는 거점이기도 했다. 공유덕이 등주를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여순구(旅順口) 참장 진유시(陳有時)와 광록도(廣鹿島) 부장 모승록(毛承祿) 등이 병력을 이끌고 등주로 와서 반란군에 합류했다. 모승록 또한 원래 가도에 있다가 모문룡이 죽은 뒤 광록도로 탈출했던 인물이었다.

등주 함락은 다른 측면에서도 명에게는 커다란 타격이었다. 등주성 관할의 육군과 수군이 공유덕에게 넘어간 것은 물론 명이 자랑하는 다양한 화기(火器)도 반란군의 차지가 되었다. 당시 등주성의 무기고에는 엄청난 수량의 화기들이 비축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는 홍이포(紅夷砲)도 있었다. 일찍이 등래순무를 지냈던 도낭선(陶朗先), 손원화 등이 애써 제작하여 비축해 놓은 것이었다.

등주 함락 직후 내주(萊州)도 떨어졌다. 산동의 거진(巨鎭) 두 곳이 모두 반란군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에 놀란 명 조

정은 토벌군을 동원하려 하는 한편, 공유덕 등에게 면사패(免死牌)를 보내 귀순을 종용했다. 하지만 공유덕 등은 '이미 내주를 함락시킨 이상 북경까지 진군하겠다.' 고 하면서 기세를 올렸다. 한편에서는 후금군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입장에서 내란까지 진압해야 했던 명 조정의 처지에서는 대규모의 진압군을 동원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이 같은 배경에서 공유덕 등의 등주 장악은 8개월 이상 이어졌다.

반란군의 군세(軍勢)가 커지면서 등주성의 제장(諸將)들은 공유덕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 공유덕은 고사하다가 결국 스스로 도원수(都元帥)를 칭했다. 이구성이 부원수가 되어 병력을 지휘했다.

북경의 지척에 있는 산동이 소용돌이에 휩싸이자 명 조정은 고기잠(高起潛), 조대필(祖大弼) 등에게 대군을 주어 진압에 나섰다.

공유덕 등은 힘써 싸웠으나 중과부적이었다. 당시 명 조정이 동원한 진압군은 7만명에 이르는 대병력이었다. 성 전체가 포위된 상황에서 공유덕과 이구성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여러 차례 돌격전을 감행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구성은 돌격전 과정에서 죽고 말았다.

1632년 9월 수차례의 실패 끝에 공유덕은 포위를 뚫고 바다로 나가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공유덕 등은 여순(旅順)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의치 않았다. 여순구에서 명 총병(總兵) 황룡(黃龍)에게 차단 당한 데다, 영원 등지에서도 명군이 추격해 오자 공유덕 등은 광록도, 장산도(長山島) 등지의 연해 지역을 전전했다.

●조선 또다시 고래싸움에 휘말릴 위기에

당시 후금은 공유덕 등이 일으킨 반란의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홍타이지는 공유덕 등이 해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책사 범문정(范文程)을 그에게 보냈다. 범문정은 홍타이지가 조대수에게 투항을 종용할 당시에도 활약했던 인물이었다. 공유덕 등은 범문정을 만난 뒤 후금으로 귀순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명 조정에는 비상이 걸렸다. '오랑캐' 에게 수군과 홍이포가 통째로 넘어갈 판이었기 때문이다. 명 조정은 수군을 동원하여 도주로를 차단하려 하는 한편 조선에도 '급전(急電)' 을 날렸다. 홍타이지는 홍타이지대로 병력을 진강(鎭江) 지역으로 보내 공유덕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바야흐로 조선은 또다시 '고래 싸움' 에 휘말릴 위기 속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공유덕과 경중명이 이끄는 반란군이 후금으로 도주하려 하자 명에는 비상이 걸렸다. 명 조정은 주문욱(周文郁)에게 수군을 이끌고 공경(孔耿) 일당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 주문욱은 나름대로 분투했지만 반란군의 도주를 차단하지 못했다. 급기야 공유덕 일당이 계속 달아나 압록강 쪽으로 갈 기미를 보이자 명은 조선을 끌어들이려 했다. 병력을 동원하여 공경의 도주로를 막고, 군량을 마련하여 추격하는 명 수군에게 공급하라는 요구가 날아들었다.

주문욱은 1633년(인조 11년) 1월부터 수군을 이끌고 반란군을 추격했다. 그는 수차례의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공유덕 일당을 완전히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압록강에 인접해 있는 구련성(九連城) 팻말.

우선 가도 등지에 있는 다른 명군 부대와의 협력 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와 함께 요동반도 연안에 흩어진 섬 지역에, 명에 반기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똬리를 틀고 있었던 것도 걸림돌이었다.

상가희(尙嘉喜)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었다. 상가희는 본래 모문룡의 부하였다가 모문룡이 죽은 뒤 요동반도 연해의 도서 지역을 전전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주문욱으로부터 공경 일당을 공격하는 데 동참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사태를 관망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상가희는 오히려 공경 일당이 후금으로 귀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동참하기로 결심한다.

●주문욱, 끝내 조선을 끌어들이다

3월30일, 주문욱이 이끄는 명군은 공경 일당을 추격하여 장자도(獐子島)까지 이르렀다. 장자도는 동쪽으로 가도(

島)를 거쳐 조선의 평안도와 압록강으로 연결되고, 서남쪽으로는 녹도(鹿島), 석성도(石城島), 장산도(長山島)를 거쳐 여순(旅順)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공유덕 등은 장자도에서 여순으로 가는 길이 명군에 의해 차단되자, 압록강을 통해 후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굳힌다. 주문욱은 조선에 글을 보내 병력을 동원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평안도의 지방관들이 공유덕 일당에게 양곡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주문욱은 장자도 부근에서 공경 일당을 차단하려고 분전했지만,4월4일 공경의 반란군은 주문욱의 저지를 뚫고 압록강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공경 일당이 명군의 추격권에서 벗어난 4월5일에야 오안방(吳安邦)과 도증령(陶曾齡)이 수군을 이끌고 각각 등주(登州)와 천진(天津)으로부터 합류했다.

그것은 전형적인 '뒷북치기' 이자 당시 명군이 처해 있던 총체적인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공경 일당이 압록강으로 진입하자 주문욱 등은 조선을 들볶아대기 시작했다. 공유덕 일당이 후금군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조선에 강요했다.



임경업 장군 영정(충주시 소재. 문화재청 홈페이지·사진 위)과 비각(순천시 낙안면 소재. 문화재청 홈페이지).

●후금과의 절교(絶交) 가까스로 막아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공유덕의 반란' 사건이 일어날 무렵까지 조선과 후금의 관계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했다. 후금으로부터 '명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대접해 달라.' 고 요구받았을 때, 조선은 '내키지 않는 형제관계' 를 당장 파기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주문욱 등으로부터 참전을 요구받기 직전인 1633년 1월에도 조선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건이 있었다.1월25일, 심양에서 돌아온 회답사 신득연(申得淵)은 홍타이지의 국서를 내놓았다. 홍타이지는 먼저 '조선은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명에는 공손히 예물을 바치면서 후금에는 약속한 수량도 채워주지 않는다.' 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는 이어 자신이 곧 가도를 정벌할 것이라며 큰배 300척을 빌려주고 의주에 있는 포구(浦口)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선이 거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배를 빌려달라고 다시 요구한 것은 사실 조선으로부터 더 많은 세폐를 받아내기 위한 포석이었다.

인조와 조정은 격앙되었다. 후금과의 화호(和好) 유지를 강조했던 비변사조차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인조는 후금과의 관계를 끊고 선전포고할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조정은, 세폐를 더 내놓으라는 후금의 요구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내용으로 답서를 썼다. 배를 빌려줄 수도, 세폐를 늘려줄 수도 없다는 답서의 내용은 사실상 '절교 선언' 이나 마찬가지였다.2월2일 회답사 김대건(金大乾)이 답서를 가지고 심양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김대건은 압록강을 건너지 못했다. 도강 직전 사도체찰사(四道體察使) 김시양(金時讓)과 부원수 정충신(鄭忠信)이 김대건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김대건을 의주에 대기시켜 놓고 인조에게 상소를 올렸다.

'1년 동안 군사를 동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년 동안 오랑캐에게 세폐를 보내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 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었다. 김시양 등은 이어 '세상일을 통쾌하게 하려고만 하면 후회가 따르는 법' 이라며 후금과의 절교 방침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인조는 격노했다. 그는 두 사람을 붙잡아다가 하옥시키라고 지시하면서 '무신들은 춥지도 않은데 떨고, 문신들은 천장만 바라보며 날을 보낸다.' 고 통탄했다. 사실 당시 비변사도 처음에는 격앙되었지만 속으로는 김시양 등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면전에서는 인조의 명을 어기지 못하고 '회답사를 즉시 출발시켜야 한다.' 고 동조했지만, 속으로는 후금과의 절교

가 몰고 올 파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유독 최명길(崔鳴吉)만이 '후금의 원한을 사서 화를 재촉해서는 안 된다.' 고 공개적으로 말할 뿐이었다.

그러던 차에 김시양 등이 김대건의 도강을 저지하자 비변사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일선에 있으면서 우리의 방어태세가 형편없는 것을 알고 있는 김시양 등의 조처를 존중하자.' 는 것이었다. 비변사는 홍타이지에게 보내는 국서를 부드러운 내용으로 수정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시양 등에게 '무장은 화의(和議)를 말하지 않는다.' 는 대의를 어긴 죄만 묻자고 했다. 사실상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이었다.

인조는 불만을 터뜨렸지만 결국 비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조 또한 후금과의 전쟁까지 감내할 자신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후금과의 관계가 또다시 한 고비를 넘는 순간이었다.



중국 단등에 남아 있는 유서깊은 호산장성(虎山長城)의 모습.

●유보된 척화론(斥和論)에 불을 붙이다

하지만 '첩첩산중' 이었다. 비변사가 인조를 다독여 후금과의 파국을 가까스로 막았던 직후 명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날아들었다.3월13일, 가도의 심세괴(沈世魁)가 '공유덕 등이 등주의 반군을 이끌고 여순 쪽으로 도주하고 있으니 조선 해안으로 숨어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는 내용으로 표문(票文)을 보내왔다.

4월6일에는 공경의 반군이 장자도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조선도 병력과 군량을 보내 협공하라는 내용을 담은 주문욱의 자문(咨文)이 도착했다. 주문욱은 '수군과 전선(戰船)이 후금의 수중에 들어가면 조선도 위험해 진다.' 는 경고를 곁들였다.

실제로 4월9일에는 후금 기마병 50명이 중강(中江)에 나타났다. 공유덕 등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한편, 조선의 동향을 탐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주문욱의 자문은, 어렵사리 유보되었던 후금에 대한 조선의 적개심에 다시 불을 붙였다. 조선은 임경업(林慶業) 등이 이끄는 화기수를 압록강 연안으로 보냈다.

당시 후금군은 압록강에 닿아 있는 구련성(九連城,鎭江)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공유덕 일행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4월10일, 압록강 부근의 탁산(卓山)이라는 곳에서 주문욱 휘하의 명군과 공유덕의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주문욱 군이 밀어붙이자 공유덕 등은 천가장(千家庄)을 거쳐 마타자( ) 쪽으로 물러났다. 천가장은 압록강에서 후금 본토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후금군은 두 곳에 홍이포를 비롯한 중화기를 배치하여 주문욱의 공격에 대비했다.

4월13일 주문욱이 마타자를 공격할 때 조선군도 동참했다.300여명의 조선군 화기수들은 공유덕의 반군을 향해 진격하면서 조총을 쏘았다. 후금군 진영으로부터 홍이포의 포탄이 날아 왔다.
조선군은 어느 순간 명과 후금과의 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김대건의 도강을 멈춰 '절교'를 유보시킨 지 불과 두 달 남짓이었다. 조선과 후금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조명연합군의 필사적인 저지 작전에도 불구하고 공유덕과 경중명은 후금으로 귀순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중간에 다소의 손실이 있었지만 공경(孔耿)이 끌고 갔던 전함과 수군의 대부분은 후금군으로 넘어갔다. 후금의 홍타이지는 공경이 가져온 전함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며 환호했다. 공경의 귀순으로 불안하게 유지되어 왔던 명과 후금의 군사적 균형은 깨졌다. 후금은 기존의 철기(鐵騎)가 지닌 막강한 위력에 더하여 수군까지 확보함으로써 군사력이 배가되었다.



청 태종 홍타이지의 능이 있는 소릉. 선양의 북쪽에 있어 북릉(北陵)이라고도 불린다.

●후금, 공경의 식량을 조선에 요구하다

1633년 4월, 공경이 이끄는 반란군의 선단은 장자도를 거쳐 압록강으로 들어갈 때 후금군의 인도를 받았다. 진강(鎭江)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의 저지를 뿌리치는 데 성공한 뒤부터 후금은 전함들을 간수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그들은 압록강 연안을 파서 물길을 낸 다음 전함들을 진강 근처의 마이산(馬耳山) 부근으로 예인했다. 전함 주변에는 병력을 배치하여 경계를 강화했다. 혹시라도 명군이 몰래 들어와 배들을 태워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
4월28일, 후금 사신 용골대(龍骨大)와 녹지(只)가 서울로 들어왔다. 용골대 일행은 공경이 귀순한 전말을 설명한 뒤, 그 일행들에게 먹일 식량을 달라고 요구했다. 용골대가 내민 국서에서 홍타이지는 '공유덕 등이 명군 신분으로 가도에 머물 때는 식량을 주다가 후금으로 귀순했다는 이유로 주지 않는다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급량(給糧)을 강하게 요구했다. 공경 일당이 상륙한 지역이 심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자신들이 식량을 운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도 조선에 손을 내미는 명분으로 제시했다.
난감한 일이었다. 조선은, 공경을 추격해 온 주문욱 일행으로부터 급량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후금까지 식량을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후금 사신 접대를 맡고 있던 구관소(句管所) 신료들은 용골대에게 '공경은 중국의 반장(叛將)이자 유흥치(劉興治)와 함께 조선을 도모하려 했던 원수'임을 내세워 식량을 내어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이 요구를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용골대 등은 다시 '형제의 도리'를 들고 나왔다. 그들은 '명에 붙으면 식량을 주고, 후금에 붙으면 주지 않는 것은 형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조선을 압박했다. 조선은 주문욱 일행에게는 이미 3000석의 양곡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임경업 등을 보내, 공경 일행과 합세한 후금군과 전투까지 치른 상황이었다.
이미 확실하게 명 측으로 기우는 태도를 보인 터라 후금의 식량 요구까지 거부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후금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내심 찜찜해하고 있던 5월6일, 명 황제의 칙서가 도착했다.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어머니 구씨(具氏)를 왕비로 각각 추봉(追封)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었다. 신료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오매불망 추진해 온 인조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인조는 고무되었고, '명의 은혜를 배신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번지면서 후금의 급량 요구는 거부되었다.

●홍타이지, 공경을 극진히 예우하다

공유덕과 경중명이 수군과 함선을 이끌고 귀순해 오자 홍타이지는 고무되었다.1633년 5월6일, 홍타이지는 공유덕 등

에게 줄 양마(良馬)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 관리들에게서 말 100마리를 차출했다. 그 가운데는 자신이 아끼는 내구마(內廐馬)도 포함되어 있었다. 홍타이지는 공유덕 등을 각별히 대우했다. 그들을 바로 심양으로 부르지 않고, 일단 휘하 무리들을 거느리고 요양(遼陽) 근처에 머물도록 배려했다. 공경이 자신의 부하들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도 주었다.

이윽고 6월3일, 공경이 귀순한 무리들을 이끌고 심양으로 들어왔다. 홍타이지는 백관을 이끌고 궁궐 밖 10리까지 나아가 공경을 맞았다. 홍타이지는 공경과 포견례(抱見禮)를 행했다. 서로 얼싸안는 것이었다. 만주의 신료들은 누구든지 칸에게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세 번 큰절을 올리고 한 번 절할 때마다 세 번씩 머리를 조아리는 방식이었다.

후금의 신료들은 '투항자와 포견례를 행하는 것은 참월하다.' 며 홍타이지를 만류했다. 홍타이지는 '공경은 등주(登州)를 장악했던 세력가로서 수많은 무리와 전함을 이끌고 귀순했으니 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신료들의 반대를 뿌리쳤다. 공경은 홍타이지의 형 다이샨(代善)과도 포견례를 행했다.6월5일에도 홍타이지는 공경을 다시 불러 옆자리에 앉히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과거 조대수(祖大壽)가 투항했을 때보다 더 극진한 대접이었다.

홍타이지는 공유덕을 도원수(都元帥), 경중명을 총병관(總兵官)으로 임명하고 칙인(勅印)을 하사했다. 이윽고 두 사람에게 내린 유시문(諭示文)에서, 공경이 군민(軍民)과 무기, 전함을 갖추고 귀순한 것을 '위적풍공(偉績豊功)' 이라고 찬양했다. 두 사람에게 '부귀(富貴)를 영원히 보장하고 죄를 지어도 전부 사면해 주겠다.' 고 약속했다. 파격적인 환대였다. 이 같은 환대가 뒷날 이른바 삼번(三藩)의 난(亂)이 일어나는 '씨앗' 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함선과 수군을 얻게 된 홍타이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웅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후금, 명을 자유자재로 '요리' 하게 되다

공경이 후금으로 귀순한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1633년 6월, 후금은 악탁(岳託) 등에게 병력 1만을 주어 명의 여순구(旅順口)를 공략하도록 했다. 공유덕과 경중명도 휘하 병력을 이끌고 이 원정에 동행했다. 공경의 안내를 받은 후금군에 의해 여순은 힘없이 함락되었고, 후금군은 5302명의 포로와 2만냥 이상의 은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여순의 함락 소식은 당장 가도와 조선에 파장을 미쳤다. 가도를 지키던 부총병(副總兵) 심세괴(沈世魁) 등은 후금군의 공격을 우려하여 가도를 포기하고 본토 쪽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 이르렀다.8월16일, 홍타이지가 보낸 국서가 서울에 도착했다. 그는 먼저 자신들도 전함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은근히 과시했다. 이어 '우리가 배를 띄우면 가도를 차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조선이 놀랄까 삼가고 있다.' 며 '향후 가도를 돕지 말라.' 고 경고했다.

가도를 비롯하여 명 본토가 후금 수군의 위협 앞에 노출되자 명 조정의 조바심은 더욱 커졌다. 그들은 혹시라도 조선이 후금에 굴복하여 양자가 연합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들은 수시로 사람을 보내 조선을 견제하려 했다.10월에는 가도의 부총병 정룡(程龍)이 조선에 들어왔다. 그는 '여순이 함락되었다고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고 조선을 다잡으려 했다. 그러면서 '조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도의 명군에게 군량을 공급하라.' 고 채근했다.

공경의 귀순 이후 조선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후금의 '협박' 과 명의 '호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전함과 수군을 보유하게 된 후금의 '변신' 에 대처하지 못했다.

다시 언급하겠지만,1637년 1월 조선의 왕실과 중신들이 피란해 있던 강화도는 공유덕이 이끄는 후금군의 상륙작전 앞에 맥없이 무너졌다. 강화도 수비를 책임졌던 조선군 지휘부는 '후금이 수군을 갖고 있다.' 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공경의 귀순은 '명의 비극' 이자 '조선의 비극' 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병자호란] (20) 엎친 데 덮치다

2013.01.27 23:11

엎친 데 덮치다

공유덕과 경중명 일당의 후금 귀순은 조선에 치명적이었다. 조선은 명의 강요 때문에 '공경 사건' 을 놓고 벌어진 명과 후금의 싸움에 말려들었다. 하지만 공경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후금으로부터 원망만 사고 말았다. 후금은, 공경의 귀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보인 적대적인 태도를 통해 조선의 '본심' 을 확인했다. 조선이 결코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후금의 조선에 대한 공격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다만 '조선 정벌' 은 우선순위에서 잠시 비껴나 있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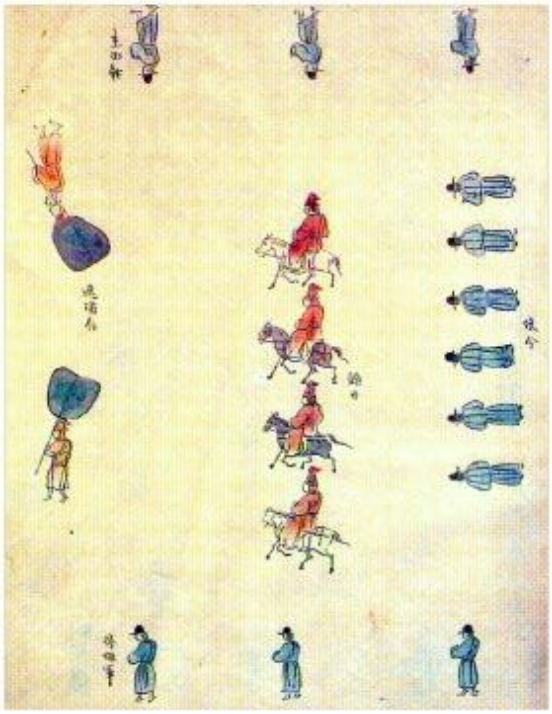
● **'공경 사건' 의 파장**

'공경 사건' 때문에 조선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았다. 당장 명의 추격군에게 군량과 군수 물자를 제공하고 조선군을 압록강 부근으로 파견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공경 일당과 그를 저지하려는 조 · 명연합군, 그리고 후금군이 맞닥뜨렸던 지역에서 가까운 의주, 용천(龍川), 철산 등지의 피해는 극심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전란의 와중에 농작을 전폐하다시피 했고, '상황' 이 종료된 뒤에는 굶어죽기 직전까지 몰리고 있었다.



조선시대 명과의 교섭을 기록한 소화외사(小華外史). 장서각 소장





조선시대 명 사신의 수행원 모습을 묘사한 그림. 규장각 소장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더 심각했다. '공경 사건' 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은 후금과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우호 관계' 를 유지했다. 그런데 명의 강요에 떠밀려 병력을 보내 공경을 저지하기 위해 전투를 벌였다. '공경 일당에게 식량을 공급해달라.' 는 후금의 요구도 거부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명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는 조선의 '본심' 을 노출시킨 사건이었다. 후금 내부에서는 당연히 '조선을 손봐주어야 한다.' 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1634년 무렵까지 홍타이지를 비롯한 후금 지휘부는 '조선 정벌' 을 우선적인 과제로 꼽지 않았다. 명과 차하르(察哈爾) 몽골을 정벌하는 것이 먼저였다. 조선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우선순위' 에서 밀렸을 뿐, '공경 사건' 을 계기로 후금의 조선 침략은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다. 후금은 '공경 사건' 이후 조선과 가도(島)를 '손 안의 물건(掌中之物)' 으로 여겼다. 이미 수군을 확보한 상황인데다, 공유덕 등이 가도의 배후 기지 격인 여러 섬의 주민들을 대거 데리고 온 터라 가도의 역량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홍타이지는 이제 조선과 가도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여겼고, 우선적인 정벌 대상에서 잠시 뺐던 것이다.

그렇다고 홍타이지가, 공경의 귀순을 저지하려 했던 조선에 대한 '원한' 을 결코 접은 것은 아니었다. 홍타이지는 1636년 12월, '공경의 귀순을 저지하려고 후금과 적대했던 것' 을 병자호란을 도발하는 주요한 명분의 하나로 분명히 제시했다.



조선시대 명나라 사신들이 드나들던 영은문 모습. 출전 정선 '경기감영도'

● '호랑이' 가 나타나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조선은 '공경 사건' 의 의미와 그 파장의 끝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읽어냈어야 했다. 조선은,1619년 명을 도와 후금을 공격했던 것(심하전역 · 深河戰役 참전) 때문에 후금에 정묘호란을 일으키는 명분을 제공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았어야 했다.

하지만 조선은 그러지 못했다. 조선은, 후금이 '공경 사건' 에 조선이 개입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조선은 후금의 '수군 보유' 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후금은 이미 1631년(인조 9) 5월, 조선에 보낸 국서에서 '조선은 우리가 쳐들어가면 보나마나 섬으로 도망칠 것' 이라는 내용으로 조롱한 바 있었다. 사실 조선은 후금의 침략이 있을 경우, 강화도로 들어가는 것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후금이 수군을 보유함으로써 강화도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가 없어질 판이었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했다. 병력과 무기를 확보하고, 청북 일대의 성지(城池)를 정비하고, 강화도의 해방(海防)을 확고히 하는 것이 시급했다. 재정이 문제였다. 하지만 '늑대를 피하고 나면 호랑이가 나타난다.' 고 했던가.

방어 대책 마련을 위해 몰두했어야 할 1634년(인조 12) 3월, 명으로부터 '호랑이' 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숭정제가 환관 노유녕(盧維寧)을 조선에 보낸 것이다. 그가 서울로 오는 명목은 '왕세자 책봉례(冊封禮)' 를 주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조선행을 자원한 인물이었다. 책봉 조사(詔使)로 낙점되기 위해 이곳저곳에 뇌물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인조와 조정 신료들은 바짝 긴장했다. 왕세자 책봉은 인조의 왕통(王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더없이 절실했지만 시기가 문제였다. 더욱이 인조를 당혹스럽게 한 것은 '노유녕이 청렴하지 않다.' 는 소문이었다. 인조는 비변사 신료

들을 불러모았다. 노골적으로 '한 밑천 잡겠다.' 고 조선까지 오는 그를 어떻게 대접할지 방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인조와 비변사 신료들의 우려와 푸념은 한결같았다. '왜 하필 국고가 바닥난 지금 오느냐?' 는 것이었다. 인조는 신료들에게 과거에 왔던 조사들을 접대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을 물었다. 노유녕은 보나마나 과거 조사들이 받았던 액수보다 더 많은 은화를 요구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1610년(광해군 2), 왕세자 책봉을 위해 왔던 염등(登)은 4만 냥을,1625년(인조 3), 인조 책봉을 주관하러 왔던 왕민정(王敏政)과 호양보(胡良輔)는 물경 13만 냥을 뜯어갔다. 전례를 보면 노유녕도 최소한 10만 냥 이상의 액수를 요구할 것이 명확했다. 비변사는 백성들에게 토지 3결마다 포(布) 1필씩을 거두고, 왕실에 바치는 방물(方物) 값을 모두 쓰자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은화 5만 냥도 마련할 수 없었다. 조사가 달라고 할 것이 뻔한 인삼과 잡물(雜物)까지 마련하려면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 비변사는 지방의 관원들에게 은과 포를 할당하고, 호남의 수군들에게 군역을 면제해주고 그 대가로 포를 받아들여 비용을 대자고 했다. 무리가 따르는 일이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후금 사신도 인삼값 받아내려 서울로

노유녕은 예상했던 대로 만만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 '그의 목표는 왕민정과 호양보가 받은 액수를 채우는 것' 이라는 보고가 날아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벽제(碧蹄)까지 이르렀지만 은과 인삼이 적다는 이유로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경기감사 이성구(李聖求)가, 책봉례를 행할 때 은 2000냥을 더 주겠다고 하자 비로소 서울로 들어왔다.1634년 6월20일의 일이었다. 노유녕은 결국 왕세자 책봉례를 마칠 때까지 10만 냥 이상의 은을 뜯어냈다.

노유녕이 서울에 머물며 은 징색에 광분하고 있던 6월26일, 평안병사의 장계가 날아들었다. '후금 사신(胡差) 마부대(馬夫臺) 일행이 인삼 값을 받아가기 위해 서울로 오려 한다.' 는 내용이었다. 노유녕과의 조우를 우려한 조정은 그들을 만류하라고 지시했지만 마부대 일행은 안주까지 남하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마부대 일행이 안주로 오자 이번에는 가도의 총병 심지상(沈志祥)이란 자가 조선의 처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심지상은 노유녕에게 무공(武功)을 과시할 목적으로 마부대 일행을 공격하려 했던 것이다. 마부대 일행 역시 심지상과 일전을 벌일 태세였다. 심지상을 만류하자니 '오랑캐를 편들어 중국을 배신하려 한다.' 는 힐책이, 마부대 일행을 설득하자니 '한인들을 끌어들여 후금 사신을 제거하려 한다.' 는 비난이 따를 판이었다. 조정은 서둘러 마부대 일행이 요구한 인삼 값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을 빨리 귀환시켜 심지상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조선은 겨우 또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악순환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후금의 침략을 피하려면 조선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노유녕에게 끌려다니는 것에서 보이듯이 명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병자호란을 코앞에 둔 1634년, 조선은 느긋한 후금과 초조한 명 사이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외환(外患) 속의 내우(內憂)

재원 문제 때문에 청북(淸北) 지역의 성곽 수리와 군량 공급마저 여의치 않았던 상황에서 노유녕에게 십만 냥 가까운 은화를 뜯겼던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었다. 하지만 인조는 노유녕이 다녀간 뒤 상당히 고무되었다. 명 조정이 왕세자를 책봉해 주었으니 이제 자신의 생부 정원군(定遠君,元宗으로 추숭)의 신주를 종묘(宗廟)에 모실 수 있다고 여겼다. 신료들이 인조의 의도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조정에는 다시 소용돌이가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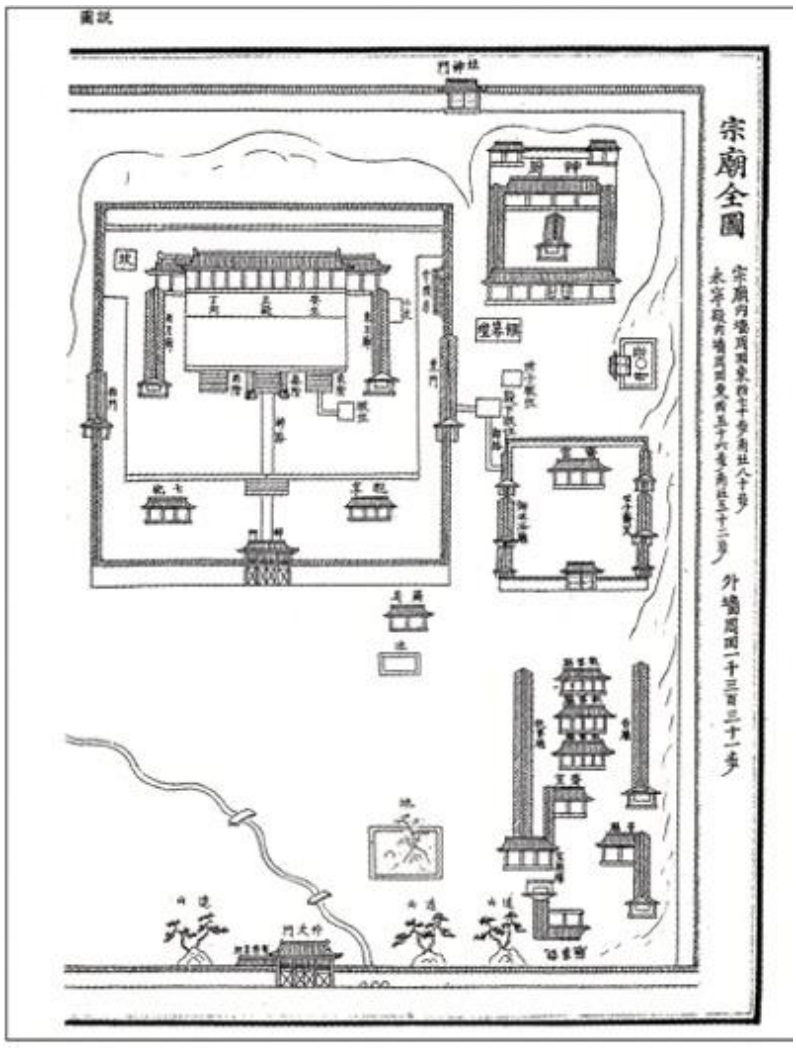
●너무 비싼 책봉의 대가

왕세자 책봉례를 주관하려고 왔던 노유녕을 접대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유녕에게 줄 은과 인삼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은 전라도 수군들에게서 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부역(赴役, 군역을 지기 위해 지정된 근무지로 나아가는



것)을 잠시 면제해 주는 조처까지 취했다.

비록 잠시 동안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라도 수군을 스스로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사이에 일본이 침략이라도 해 올 경우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당시 일본과의 사이에 이렇다 할 사단이 없었기 망정이지 참으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조선시대 종묘전도(宗廟全圖).

노유녕을 접대하는 문제 때문에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하층민들에게 전가되었다. 특히 시전(市廛) 상인들의 피해가 극심했다. 노유녕이 데려온 수행원 가운데는 중국 상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조선 측에 교역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공정한 거래를 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조선 상인들이 선호하는 비단과 명주를 내놓기도 했지만, 쓸데없는 잡물들을 내놓고 조선 상인들에게 은과 인삼을 요구했다. 상인들은 말도 안 되는 늑매(勒賣)에 몸서리를 쳤지만, 조정의 강요로 이 정치적인 거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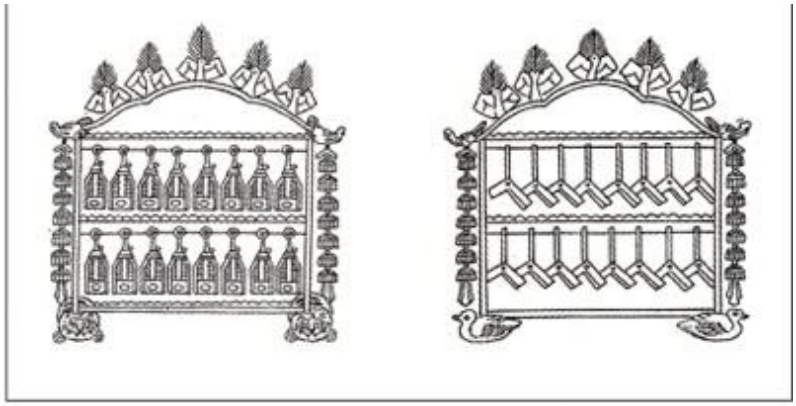
1634년 7월, 노유녕 일행이 숙소로 돌아가는 것을 목도했던 시전 상인들은 그의 행렬을 바라보며 일제히 통곡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비롯된 소극적인 저항의 몸짓이었다. 이 '중원의 대도(大盜)'는 통곡 소리에 짜증이 났는지 조선 측 역관과 수행원들에게 짜증을 냈다. 보고를 접한 인조는 시전 상인들 가운데 주동자를 색출하여 하옥시키고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평시서(平市署) 관원들을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칙사의 심기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탐욕스러운 노유녕을 접대하는 과정은 몹시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인조에게는 참으로 중요했다. 명 조정이 세자까지 책봉해 준 이상, 자신의 왕통은 이제 확실해졌다고 여겼다. 그러니 자신의 아버지 원종의 신주(神主)를 종묘에 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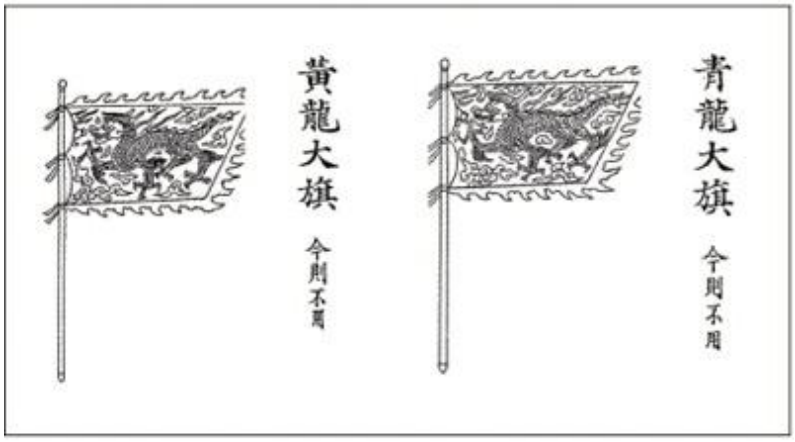
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인조 "원종은 선조의 아들" 배향 지시

노유녕이 귀국한 직후인 1634년 7월22일, 인조는 신료들에게 원종의 신주를 속히 종묘에 모시라고 지시했다. 부묘(廟, 종묘에 신주를 모시는 것) 업무를 주관하는 예조의 관원들은 곤혹스러웠다. 그들은 '별도의 사당을 세워 신주를 모셔도 전하의 효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막중한 전례(典禮) 문제를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며 대신들과 상의하라고 권유했다.



종묘제례 때 사용한 편종(왼쪽)과 편경.



제례 때 사용한 황룡(왼쪽)과 청룡 깃발.

삼사의 관원들도 들고일어났다. 대사헌 강석기(姜碩期) 등은, 임금 자리에 즉위한 적도 없는 원종의 신주를 종묘에 들이는 것은 불경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종의 신주를 종묘에 들이면, 대신 다른 임금의 신주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조는 격노했다. 명 조정에서 이미 승인한 이상, 원종은 '선조(宣祖)의 아들' 이 되었다며 종묘에 들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료들이 동의하지 않자 인조는 강석기 등의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으라고 지시했다. 인조는 승지들이, 강석기 등을 쫓아내라는 자신의 명을 즉각 거행하지 않자 '승지 또한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 며 격한 비난을 쏟아냈다. 인조는 원종의 부묘를 관철시키기 위해 '오버' 하고 있었다.

●예조 · 삼사 "전례없고 불경한 일" 반발

사실 인조로서는 그럴 만도 했다. 자신의 생부를 추숭하고, 그의 신주를 종묘에 들이는 것은 인조반정 이후 11년 동안의 숙원 사업이었다. '반정' 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즉위했던 그로서는 왕권의 확립을 위해 절실한 사업이었다.

보다 못한 영의정 윤방(尹昉)이 한마디 거들었다. '삼사의 논의는 곧 온 나라의 여론인데, 삼사 관원들을 쫓아내면 조정이 붕괴될 수도 있다.' 며 반대하는 신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요청했다. 윤방의 완곡한 간언(諫言)에 대한

인조의 대답은 한껏 날이 서 있었다. '옛말에 꼬리가 커지면 움직이기 어렵다고 했는데, 서인(西人)들이 오래 정권을 잡다보니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었다.' 며 쏘아붙였다.

인조가 이렇게 서인들을 대놓고 비난한 것은 유례가 없었다. 그들은, 한낱 왕손(王孫)에 불과했던 자신을 지존(至尊)의 자리로 추대한 은인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인조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서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 것도 서인이라고 여겼다. 윤방에게 쏘아붙인 말은 '추대된 임금' 으로서 인조가 지녔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인조의 '강공(强攻)' 은 멈추지 않았다. 원종을 부묘하는 것에 반대하는 신료들을 변방으로 유배하라고 계속 지시했다. 인조반정의 원훈(元勳)인 김류(金)마저 부묘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호위대장(護衛大將) 직에서 해임했다. 또 김류가 거느리고 있던 군관(軍官)들도 전부 빼앗아 다른 장수들의 휘하로 편제했다.

인조는 서인에 대한 견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온(鄭蘊)을 도승지로, 이성구(李聖求)를 대사헌으로 삼았다. 정온은 광해군 시절 북인(北人) 출신으로 서인 반정공신들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비난해 온 인물이었다. 이성구는 부묘에 대해 찬성하는 인물이었다.

●姜鶴年, 인조에게 직격탄을 날리다

부묘에 대한 인조의 집착은 정치판에 파란을 몰고 왔다.1634년 8월에는 성균관 유생들까지 나서서 인조를 비난했다. 전 군수 홍무적(洪茂績)은 상소를 통해 '전하의 독단 때문에 멸망의 조짐과 광해군 시절의 혼란이 닥쳐오고 있다.' 고 성토했다. 인조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인들이 자신의 당파만 감싸고 모든 잘못을 임금에게만 전가하여 백성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고 반박했다.1634년 윤 8월, 인조는 결국 원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것을 관철시켰다. 인조는 자신의 왕통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다. 부묘 논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신료들과 감정의 골이 몹시 깊어졌다. 조야의 사대부들로부터 '공론을 무시하는 임금' 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1634년 11월, 강학년(姜鶴年)은 인조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인조가 자신을 장령(掌令)으로 임명하자 서울로 올라오는 대신 상소를 올렸다. 그는 상소에서 인조의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특히 광해군의 아들을 죽인 것, 숙부 인성군(仁城君)을 죽인 것, 생부 정원군을 추숭하여 부묘한 것 등을 통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곧이어 '반정을 일으킨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반정 이후 전하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포악한 자가 포악한 자를 갈아치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고 통박했다.

'포악한 자가 포악한 자를 갈아치웠다(以暴易暴).' 라는 표현은 충격적이었다. 인조반정의 정당성, 나아가 인조정권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상소 내용이 알려진 직후, 조정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강학년을 죽이고 강화도에 있는 광해군까지 죽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타났다.

강학년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지만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을 보면 '발언' 때문에 흥분할 여유가 없었다. 이미 가도를 무력화시킨 후금의 마수가 야금야금 조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조선은 또 다른 '내우' 에 휘말려 '외환' 의 실체를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전란의 전조

1634년 말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정은 강학년(姜鶴年) 발언의 파장 때문에 뒤숭숭했다. '포악함으로써 포악함을 제거했다.' 며 인조반정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했던 강학년의 직격탄은 인조와 조정 신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인조와 반정공신들의 실정(失政)을 문제 삼았던 신료들조차 강학년의 발언에 격분했다.1635년 1월 홍문관 신료들은 '강학년의 죄는 목을 베어야 할 사안'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언관 자리에 있던 신료들이 동료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목을 베어야 한다.' 고 운운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다.



▲ 선조의 능인 목릉 전경
문화재청 제공

●강학년과 이기안, 인조에게 도전하다

강학년의 발언을 계기로 신료들은 자신들이 인조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조정에 나아가 벼슬을 하고 권세를 누리게 된 출발점은 인조반정이었다. 그들이 반정을 성공시킨 순간부터 광해군은 '극악무도한 패륜아(悖倫兒)'이자 '걸(桀) 임금이나 주왕(紂王)보다도 더한 폭군'으로 치부되었고, 광해군을 쫓아낸 반정이야말로 '천명(天命)과 인심의 호응 속에 무너진 윤리와 기강을 바로잡은 거사'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강학년이 홀연 백이(伯夷) 숙제(叔齊)처럼 '이폭역폭(以暴易暴)' 운운하면서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한 방에 날려 버렸다. 신료들은 강학년을 엄벌하지 않으면 신인(神人)의 공분(公憤)을 풀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강학년을 조정에 추천했던 최명길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관직에서 물러났다.



▲ 서울 역촌동에 있는 인조 잠저(潛邸) 기념비.
문화재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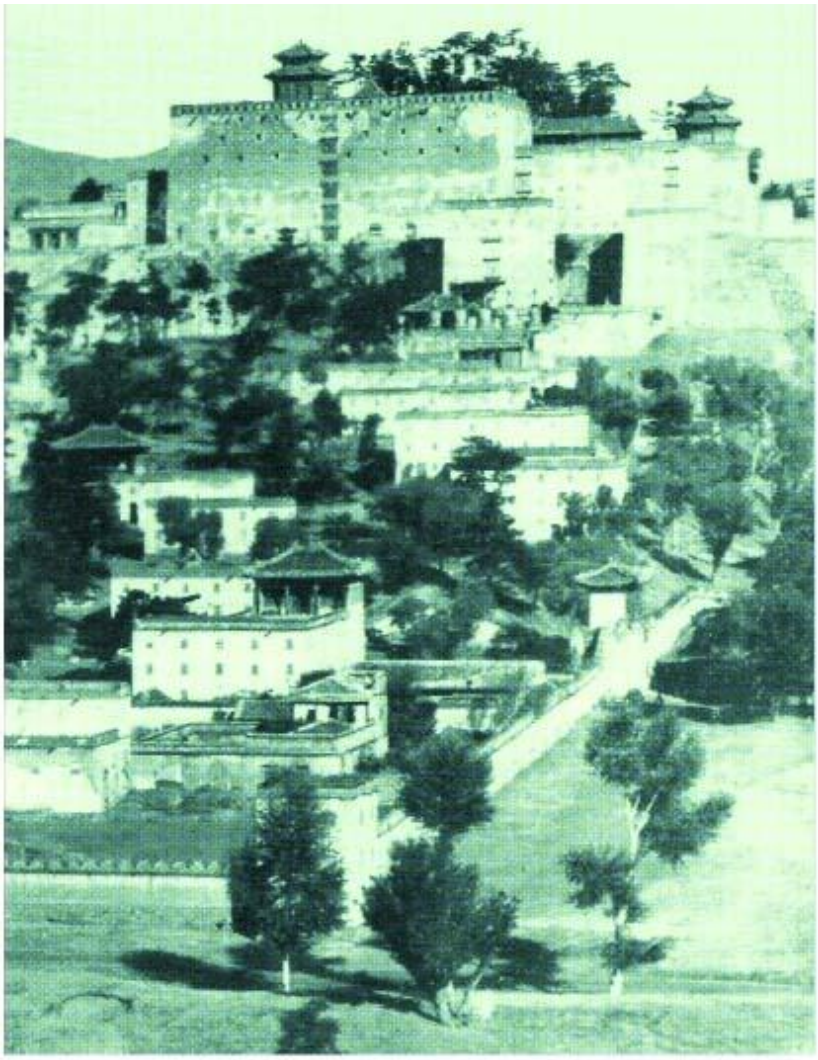
인조반정과 인조의 권위를 허무는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1635년 2월 전라감사 원두표가 보내온 보고는 다시 조정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보고 내용은 삼례(三禮)에 사는 생원 이기안(李基安)이 인조에 대해 무도한 말을 퍼뜨렸다는 내용이었다. 이기안이 사근찰방(沙近察訪) 김경(金坰)과 이야기를 하면서 '능양군은 믿을 수 없다. 그가 오래갈 수 있을까?' 라고 불경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기안은 서울로 끌려왔고, 그를 심문하기 위해 추국청(推鞫廳)이 설치되었다. 추국 과정에서 '일본인들을 끌어들여 난을 일으키려 했다.' 고 말하는가 하면, 남인과 과거 대북파의 잔당들과 연결하여 역모를 꾀하려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기안은 처형되었지만 '역모 사건' 의 파장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능양군은 인조의 잠저(潛邸) 시절 군호(君號)였다. 이미 강학년의 발언 때문에 조정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기안이 '능양군' 운운한 것은 충격을 배가했다.

● '천변' 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

강학년의 충격적인 발언과 이기안의 역모 기도 사건을 계기로 인조에 대한 신료들의 비판은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였다. 특히 강학년이 인조가 저지른 3대 실책 가운데 하나로 꼽은 '부묘(廟)기도' 에 대한 비판도 잠잠해지는 것 같았다.



청이 몽골인을 회유하기 위해 지은 열하의 사원. 출전 만주고사진첩(신인물왕래사)

인조는 '강학년을 죽여야 한다.' 는 신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를 엄벌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말 때문에 죄를 얻은 자를 죽이는 군주가 아니다.'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흘리는 등 '강학년 문제' 로 빚어진 신료들의 격앙된 모습을 은근히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인조는 '서인들의 집권이 오래되고, 그들이 사사건건 왕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기 때문' 에 궁극에는 강학년의 발언이 나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인조와 신료들은 다시 충돌하고 말았다.1635년 3월 14일 선조의 능(穆陵)에서 능침(陵寢)과 석물(石物)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간밤에 번개와 천둥이 요란한 상태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이튿날 선조와 왕비의 능침 일부가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보고를 받은 예조는 서둘러 위안제(慰安祭)를 지내고 대신을 보내 봉심(奉審 · 무너진 능침을 살피는 것)한 다음 개수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목릉이 무너진 원인에 대한 진단을 놓고 긴장이 다시 촉발되었다.

사헌부 신료들은 인조에게 목릉이 무너지는 변고가 부묘를 시행하려는 즈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중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대(先代)의 혼령(魂靈)을 위로하기 위해 부묘를 연기하라고 건의했다. 인조는 부묘를 연기하라는 건의는 순순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신들이 목릉이 무너진 것을 '하늘이 내린 변고(天變)' 라고 규정하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조는 '봉분을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비가 미친 듯이 퍼부어 스며든 물 때문에 무너진 것' 이라며 대신들의 '천변' 주장을 일축했다. 또 원인을 정확하게 구명하지도 않은 채 '천변' 으로 몰아가려는 대신들의 저의가

불순하다고 질타했다.

부묘를 둘러싼 논란, 강학년의 '폭탄 발언', 이기안의 역모 사건 등이 중첩되어 일어나면서 인조와 신료들은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인조는 특히 목릉 붕괴의 원인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천변' 운운하는 신료들을 계속 파직하는가 하면, 능에서 무너져 내린 사토(莎土)를 다른 곳으로 실어 옮긴 선공감(繕工監) 제조(提調) 신경진(申景)을 나문(拿問 · 잡아다가 취조함)하라고 지시했다. '무너진 흙에 벼락이 내리친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 고의로 흙을 옮겼다.' 는 것이다. 인조는 신료들이 목릉의 붕괴를, 국왕의 실정에 대한 하늘의 경고 때문에 빚어진 '천재' 로 몰아가면서 자신을 압박하려는 것을 차단하려 했던 것이다.

●홍타이지 "조선 신료들 탐욕 · 부패" 직격탄

목릉 붕괴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수그러들 무렵인 1635년 8월 후금 사신 동덕귀(董德貴)가 평양에 도착하여 국서를 올려보냈다.

홍타이지는 먼저 조선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후금 영내로 진입하다가 체포되는 사례가 많다고 항의했다. 그는 법을 어기고 월경하는 백성들이 많은 것은 '조선 신료들이 탐욕스럽고 부패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기 때문' 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로부터 신하가 국권을 쥐고, 사실(私室)을 강하게 하고 군주를 업신여기면 나라의 정사가 망가지게 된다.' 고 충고했다. 이어 '후금은 형제국이므로 직언으로써 충고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의 국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다. '권세가 강한 신료들은 조심하라.' 며 조선의 내정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서인들의 권세가 너무 커졌다.' 고 인조가 푸념했던 것이 어느새 홍타이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후금은 이제 조선 내정에 '충고' 까지 하려고 덤비고 있었다.

사실 이 무렵 홍타이지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다.

차하르(察哈爾) 몽골 원정에 나섰던 도르곤(多爾袞) 등이 차하르의 릭단한(林丹汗)이 가지고 있던 원(元)의 옥새(玉璽)를 노획해 왔던 것이다. 릭단한은 몽골에서 칭기즈칸의 정통성을 잇는 권위를 지닌 인물이었다.

일찍이 원의 마지막 황제 순제(順帝)는 주원장(朱元璋)의 명군을 피해 달아나다가 죽었고 그 와중에 원의 옥새는 행방이 묘연했다. 옥새는 200년이 지난 뒤에야 양치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우여곡절 끝에 릭단한의 손으로 흘러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옥새가 홍타이지의 손에 들어갔던 것이다.

'제고지보(制誥之寶)' 라는 글자가 새겨진 옥새를 얻었을 때 홍타이지는 향불을 피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역대 제왕들이 사용하던 옥새를 짐(朕)에게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며 감격해했다. 마치 자신에게 천명(天命)이 돌아왔다고 여길 법도 한 일이었다. 실제로 홍타이지는 사람을 시켜 조선에도 자신이 옥새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런 사연에서 얻어진 자신감 때문일까? 홍타이지의 국서 내용은 조선의 신경을 더욱 거스르게 만들었다. 거듭되는 천재지변을 둘러싼 논란, '충고' 운운하는 후금의 국서에 대한 찜찜함을 뒤로하고 1636년 병자년이 밝아 오고 있었다.

[병자호란] (21) 유화적인 대일정책

2013.01.27 23:13

유화적인 대일정책 I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635년 후반 무렵, 조선은 또 다른 난제를 안고 있었다. 다름 아닌 '일본 문제' 였다. 조선은 갈수록 높아지는 후금의 군사적 위협과 명의 요구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처지였다. 당연히 일본과의 관계 안정이 절실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바쿠후(幕府)와 쓰시마(對馬島)에서는 이른바 '야나가와 이켄(柳川一件)' 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파장은 당연히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고, 조선은 '서북(西北) 방면의 난제' 에 집중하기 위해서도 일본을 다독이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 **'야나가와 이켄' 의 발생**



조선 사신 김성일이 머물렀던 쓰시마의 절. 작은 사진은 소오 요시나리의 묘.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야나가와 이켄' 은 1633년(인조 11), 쓰시마의 가로(家老)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가 자신의 주군(主君)인 쓰시마 도주(島主) 소오 요시나리(宗義成)의 비리를 바쿠후에 폭로하면서 비롯되었다. 그 '비리' 의 핵심은 소오가 1621년과 1629년 조선에 보내는 사신을 자기 휘하의 사람으로 멋대로 파견하고 그 과정에서 바쿠후의 국서(國書)까

지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이었다.1629년에 조선에 보낸 사신이란 겐포(玄方)를 가리킨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그는 조선이 정묘호란으로 수세에 처해 있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서울까지 상경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실제 쓰시마 도주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의 교역을 재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과정에서 사절 명칭을 과장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일을 다반사로 저질렀다. 쓰시마 차원에서 조선에 보내는 사절을 국왕사(國王使, 바쿠후 장군이 보내는 사절)라고 가장하거나 아예 조선이 내려준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시게오키는 왜 요시나리의 '비리'를 폭로했을까? 쓰시마 내부의 관계와 서열을 보면 그는 분명 요시나리의 부하이자 집사(執事)였다. 더욱이 그는 요시나리의 이복 여동생과 결혼하여 혼인 관계로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 그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시게오키가 자신의 주군을 고발하는 '배신'을 저지른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야나가와 이켄'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시게오키는 기본적으로 요시나리에게 미묘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요시나리에 대한 우월감이기도 했고, 경쟁심이기도 했다. 시게오키는 요시나리보다 한 살이 많은데다, 에도(江戶)에서 태어난 이후 쇼군(將軍) 주변에서 생활했다는 자부심이 컸다. 권력의 중심지인 에도에서 잔뼈가 굵었고 쇼군의 측근들과도 친하다는 자부심이, 궁벽한 쓰시마의 연소한 주군을 가볍게 보는 자세를 만들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시게오키는 바쿠후와의 관계, 조선과의 무역 문제 등을 놓고 요시나리와 갈등을 빚게 되었고 궁극에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달았다.

● **'야나가와 이켄'의 결말**

양자의 갈등이 극에 이르자 시게오키는 급기야 소오의 집사 역할을 그만두겠다는 의향을 비쳤고, 끝내는 요시나리의 '비리'를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시게오키의 폭로 내용에 놀란 바쿠후는 1633년 5월부터 '야나가와 이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요시나리와 시게오키는 각각 에도로 불려가 국서 위조와 국왕사 파견 건에 관련하여 심문을 받았다. 바쿠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쓰시마에도 중신들을 파견하여 두 사람과 관련된 인물들을 수사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인들을 에도로 연행했다.

바쿠후는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쇼군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이자 조선과의 외교 문제와도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바쿠후는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쓰시마에서 조선으로 가는 무역선의 파견을 중지시켰다. 뿐만 아니라 쓰시마의 어선들이 조선 근해로 나아가 조업하는 것도 중지시켰다. 그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에 대한 바쿠후의 조사는 2년 가까이나 계속되었다. 1635년 3월, 쇼군의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은 일반의 예상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쇼군은 요시나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쇼군은 '국서 위조'와 관련하여 요시나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쓰시마의 영주(領主)이자 다이묘(大名)로서 요시나리의 위치를 다시 인정하고, 당시까지 해오던 것처럼 조선과의 외교도 계속 담당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쇼군은 또한 요시나리에게 이듬해까지 조선으로부터 통신사를 초치하라는 명령도 아울러 내렸다.

국서 위조와 관련된 모든 죄는 시게오키의 것으로 판결되었다. 쇼군은 시게오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측근들의 일부는 사형에 처해졌다. 당시 쇼군 주변의 바쿠후 실력자들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었음에도 시게오키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바쿠후는 왜 '국서 위조'와 관련된 최고 책임자인 요시나리 대신 '고발자'인 시게오키를 처벌하는 조처를 취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소오 가문을 매개로 이어져온 조선과의 기존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국서를 제멋대로 뜯어고친 것은 분명 커다란 허물이었지만, 중세 이래로 조선과의 관계를 능숙하고 원만하게 이끌어온 소오 가문의 노련한 능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바쿠후가 '야나가와 이켄'과 관련하여 소오 요시나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그렇다고 요시나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바쿠후는, 요시나리의 측근이자 외교승(外交僧)으로서 조선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담당했던 겐포를 유배에 처하는 조처를 내렸던 것이다. 요시나리에게는 조선과의 관계에서 '외교 참모'를 잃는 아픔이었다. 바쿠후는 겐포를 제거한 후 대신 교토(京都)의 다섯 사찰(五山)들로부터 승려들을 쓰시마에 파견하여 외교문서의 작성과 감독을 맡기는 조처를 취했다. 소오가 외교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막고 조선과의 외교를 직접 감독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 **'야나가와 이켄'과 조선의 고민**

'야나가와 이켄' 이 요시나리의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그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조선은 상당히 긴장했다. 사건이 조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일찍부터 쓰시마 내부에서 소오 요시나리와 야나가와 시게오키 사이에 알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1617년(광해군 9) 일본에 다녀왔던 이경직(李景稷)은 '시게오키는 교활하고 민첩한데 요시나리는 우직하나 기력이 없어 보인다.' 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1624년 일본에 회답사(回答使)로 다녀온 강홍중(姜弘重) 또한 쓰시마에 머물면서 양자를 관찰했다. 그는 조선 사절단을 접대하는 요시나리와 시게오키의 선단 규모까지 비교할 정도로 세심하게 양자를 살폈다.1632년에도 양자가 서로 싸운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조선은 왜역(倭譯) 최의길(崔義吉)을 보내 상황을 탐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야나가와 이켄' 이 터지고, 바쿠후가 사건의 전말을 수사하면서 조선으로 오는 무역선과 어선들의 출항을 금지시키자 조선의 의혹은 더 증폭되었다. 조선은 당시 명과 후금으로부터 전선(戰船)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던 데다, '공경(孔耿) 사건' 과 관련하여 서북변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다. 바로 이 때 쓰시마로부터 와야 할 세견선(歲遣船)이 오지 않자 조선은 일본과 쓰시마 내부에 중대한 변고가 일어났다고 여기게 되었다. 자연히 남방 지역의 해방(海防)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쓰시마와 에도의 사정을 탐문하고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문이 줄을 이었다.

정묘호란 이후 '후금 문제' 에만 주로 매달려왔던 상황에 또 다른 난제가 추가된 것이다. 인조와 조정의 당국자들은 서북과 동남, 양쪽에서 위협받고 있는 조선의 냉혹한 현실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서북으로부터의 위협이 더 급박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유화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야나가와 이켄(柳川一件)' 에 대한 최종 판결은 1635년(인조 13) 3월15일에 내려졌다. 도쿠가와 쇼군은 소오 요시나리(宗義成)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요시나리에게 그것은 '찜찜한 승리' 였다. 주군인 자신을 배신하고 사지(死地)로 몰아 넣으려 했던 야나가와 시게오키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고, 자신의 심복이었던 외교승 겐포(玄方)를 곁에서 떠나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또한 '조건부 승리' 이기도 했다. 바쿠후(幕府)는 요시나리를 선택하면서 그의 역량을 시험하고, 동시에 조선을 떠보는 조건을 달았다. 조선은 쓰시마의 소오를 다독거리며 바쿠후와의 관계도 안정시킬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했다.



▲ 조선통신사가 쓰시마에 배를 정박시켰던 '오후나에' 유적.

●바쿠후의 의도

'조선과 주고받은 국서를 멋대로 고쳤다.' 는 혐의에도 불구하고 바쿠후가 요시나리를 처벌하지 않은 데는 까닭이 있었다. 당시 바쿠후는 점차 쇄국(鎖國)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기독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과의 무역을 나가사키(長崎)로 집중시키고, 동남아 등지로 가는 무역선(朱印船)의 출항과 일본인의 도항(渡航)을 금지시키는 조처를 구상했다.

바쿠후는 그 같은 흐름 속에서 조선과의 관계도 다시 정비하려고 했다. 무역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국가들을 통한 기독교 유입을 차단하려 했

던 바쿠후에게 조선과의 관계는 중요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이 유일하게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였다.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조선과 국교를 유지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쇼군과 바쿠후의 권위를 높이는데 필수적이었고, 조선과의 교역 또한 매우 중요했다.



▲ 쓰시마에 세워진 조선통신사기념비.

바쿠후가 요시나리를 '선택' 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 가까스로 재개시켜 놓은 조선과의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래 일본에 대해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진 데다, 왜란을 겪으면서 일본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萬世不共之讐)' 로 여기고 있는 조선을 상대해 왔던 소오 가문의 경험도 무시할 수 없었다.

바쿠후는 요시나리의 손을 들어 주면서 '1636년까지 조선으로부터 통신사(通信使)를 초치(招致)하라.' 고 명한 것은 요시나리의 조선에 대한 교섭 역량과 조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조건이었다.1635년 8월, 바쿠후는 향후 겐포를 대신하여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할 승려들을 직접 선택했다. 교토(京都) 동복사(東福寺)의 승려 인서당(璘西堂)과 소장로(召長老), 천룡사(天龍寺)의 승려 선장로(仙長老)가 그들이었다. 이제 이들 세 사람이 번갈아 쓰시마로 들어가 머물면서 조선으로 보내는 외교문서 작성을 맡게 되었다. 교토에서 온 외교승들이 바쿠후의 지휘 아래 쓰시마의 대조선 외교를 직접 관장하고, 동시에 감시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야나가와 이켄' 이 종료된 뒤 인서당이 맨 먼저 쓰시마로 건너왔다.

● **'일본위협론' 이 다시 제기되다**

이미 언급했듯이 '야나가와 이켄' 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바짝 긴장했다. 후금의 위협과 명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마저 악화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 또한 소오 요시나리를 매개로 유지되어 왔던 조일(朝日)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야나가와 이켄' 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일본이 쳐들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론이 퍼지고 있었다. 특히 1635년 연말에 재이(災異)가 거듭되면서 '일본위협론' 은 더욱 힘을 얻었다. 창덕궁 정전(正殿)에 벼락이 내리치고, 한성부 연못의 물빛이 붉게 변하는 변고가 나타났다.11월6일에 열린 경연 자리에서 사간 민응형(閔應亨)은 "옛날부터 나라가 망하려면 괴상한 변고가 이어지는 법" 이라며 "선조의 능침(陵寢)이 무너지고, 큰바람 때문에 나무가 뽑힌 것은 장차 전쟁이 일어날 징조"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임진왜란 무렵을 예로 들었다. 신묘년(1591년)에 풍재(風災)가 극심하더니 이듬해 왜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재이가 거듭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징조' 라는 민응형의 발언에 조정은 술렁였다. 누가 쳐들어 온다는 것인가? 민응형을 비롯한 삼사(三司) 신료들은 일본의 침략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11월7일, 인조는 비변사 당상과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인조는 대신들에게 일본이 과연 위험하냐고 물었다. 오윤겸(吳允謙)은, 뚜렷하게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일본인들의 성정(性情)이 남에게 지기 싫어한다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만일 야나가와 시게오키가 '조선이 일본보다 후금을 우대하고 있다.' 고 쇼군에게 참소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 시게오키가 비록 패했지만 쇼군 주변에 시게오키를 두둔하는 자가 많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이홍주(李弘胄)와 신경진(申景)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수군을 잘 정비하여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자.' 고 했다.

11일에는 김상헌(金尙憲)이 차자(箚子)를 올려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거론했다. 그는 조정이 오로지 서변(西邊)을 막는 데만 급급하여 남변(南邊)의 방어는 거의 팽개쳐 버렸다고 비판했다. 남쪽의 군병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다 무기도 엉성하고, 백성들은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시달려 조정을 원망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정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을 유사시에 전장으로 내모는 것이 가능하겠냐?' 고 반문했다. 김상헌은 남변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통제사영(統制使營), 경상 좌수영(左水營)과 우수영(右水營)에 감군어사(監軍御史)를 파견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사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재침 가능성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위협을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조정은 후금의 동향이 불온하다고 느낄 때마다 주로 강화도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삼남에서 수군과 전선(戰船)을 차출해 강화도 방어에 투입하기도 했다. 심지어 명사(明使) 노유녕(盧維寧)을 접대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도 수군의 입방(立防)을 면제해 주고 대신 포(布)를 받기도 했었다. 일본의 위협을 고려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위험천만한 방책이었다.

●신료들과 달리 인조는 日에 대해 낙관론

신료들과는 달리 인조는 일본에 대해 대체로 낙관론을 폈다. 그는 '관백(關伯)이 전쟁에 싫증을 내서 백성들에게 총포를 쏘지 못하게 하는데다, 반란을 걱정하여 장수들의 처자를 인질로 삼고 있으니 다른 나라를 넘볼 근심은 없다.' 며 '일본위협론' 을 일축했다.

이렇게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정은 수군을 점검하고 방어 태세를 정비하자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거의 모든 신경이 서북변 쪽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고식책(姑息策)이었던 셈이다.

이제 일본에 대한 대책은 유화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알아 차렸는지 일본은 조선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왔다. 겐포를 대신하여 쓰시마에 부임한 인서당은 1635년 12월, 조선에 보낸 문서에서 명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명분은 '일본은 명의 신하가 아니므로 그 연호를 쓸 수 없다.' 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 쓰시마가 조선의 예조를 '합하(閤下)' 라고 부르던 것도 '족하(足下)' 로 바꾸겠다고 했다.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나라이고 쓰시마 역시 예조와 동등하니 합하라고 할 수 없다.' 는 것이었다. 인조는 관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인서당이 기초한 문서를 받지 않으려 했다. 쓰시마는 '합하' 문제를 거론하여 조선이 자신들을 '족하' 라 부르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비변사 신료들은 일본과 사단이 생길까 우려하여 그냥 넘어가자고 했다.

조선은 결국 이후부터 쓰시마 도주를 '족하' 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조선은 통신사의 파견도 수락하고, 바쿠후가 요청한 마상재(馬上才 · 말 위에서 곡예를 펼치는 유희)를 벌일 인원도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측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 준 것이었다. 모두 소오 요시나리의 낯을 세워 주어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병자호란 직전, 조선은 이렇게 후금의 위협을 의식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부심하고 있었다.

[병자호란] (22) 후금관계 파탄의 시초

2013.01.27 23:18

후금관계 파탄의 시초(Ⅰ)

‘야나가와 이켄’ 에서 비롯된 일본과의 긴장도 대충 해소되고 있던 1635년 12월, 인열왕후(仁烈王后 · 1594~1635) 한씨가 세상을 떠났다. 출산으로 말미암은 후유증 때문이었다.12월4일에 태어난 대군은 곧 사망했고, 한씨 또한 닷새 뒤에 숨을 거두었다.42세, 아까운 나이의 죽음은 애처로웠지만 인열왕후는 정확히 1년 뒤 조선으로 밀어닥쳤던 전란의 소용돌이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후금이 그녀의 상에 조문사(弔問使)를 보내 문상(問喪)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후금의 관계는 끝내 파탄을 향해 치닫게 된다.

●이상한 조문 사절단

국상(國喪) 때문에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1636년(인조 14), 연초부터 흉흉한 소식들이 보고되었다.1월, 대구에서는 황새들이 서로 패를 갈라 진을 치고 싸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월 초에는 안산에서 황당한 보고가 올라왔다. 바다 속에 있던 바위 세 개가 저절로 움직여 육지로 옮겨왔다는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바위들이 지나온 곳에 거의 40여 보(步)나 되는 길까지 만들어졌다고 했다.

2월8일과 10일, 대사헌 윤황(尹煌)은 연달아 인조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가 망하려면 요상한 변고(요변 · 妖變)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의 나라 상황은 망하기 직전’ 이라며 인조에게 자세를 낮추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요변’ 의 경고가 맞아들어가는 것이었을까? 2월16일, 후금 사신 용골대와 마부대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의주로 들어왔다. 조선의 국상에 조문한다는 명목이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사절단의 구성이 이상했다. 후금의 여진족 말고도 서달(西)이라 불리던 몽골인 지휘관들이 77인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의아해하는 의주부윤 이준(李浚)에게 용골대는 까닭을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이미 대원(大元)을 획득했고 또 옥새를 차지했다. 몽골의 여러 왕자들이 우리 한(汗)에게 대호(大號)를 올리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조선과 의논하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대원을 획득했다는 것은 후금이 차하르(察哈爾) 몽골을 정복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옥새는 바로 차하르 몽골의 마지막 수장이었던 릭단 한(林丹汗)의 옥새를 말하는 것이다. 대호를 올린다는 것은 홍타이지가 황제로 즉위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준의 보고를 들은 조정 신료들은 경악했다. 사간 조경(趙絅)은 몽골인들을 국문(國門)으로 들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장령 홍익한(洪翼漢)은 상소를 통해 인조를 통박했다. 그는 ‘태어나



후금의 패륵들이 홍타이지에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고 거듭 상주했지만 그는 "조선도 형제의 나라이니 마땅히 같이 의논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사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조선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길 원했을 것이다. 사진은 그에 앞서 황제에 올랐던 누르하치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으로 만주실록에 실려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서 지금껏 대명천자(大明天子)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정묘년에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여 명령을 따르는 바람에 지금 저들이 우리를 신첩(臣妾)으로 삼으려고 덤비고 있다.' 며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용골대 일행을 처단하여 그 목을 함에 담아 명나라로 보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문관 신료들도 서달을, 명을 배신하고 후금에 붙은 반역자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속히 의주의 감옥에 가둬 상경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몽골을 복속시킨 후금의 자신감

후금이 용골대 일행을 조선에 조문사로 보내면서 몽골인들까지 대동시킨 것은 무슨 까닭일까? 거기에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다.

1634년 6월, 홍타이지는 대군을 이끌고 명을 공략하는 원정에 나섰다. 당시 공격 목표는 주로 선부(宣府)와 대동(大同) 지역이었다. 오늘날 허베이성(河北省)에 속하는 선부와, 산시성(山西省)에 속하는 대동은 모두 몽골로부터 북경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 요충이자 중진(重鎭)이었다.

홍타이지는 당시 명을 공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부와 대동 주변의 차하르 몽골 부락들을 초무(招撫)했다. 후금이 일찍이 1632년 차하르 몽골을 공격했을 때, 릭단 한이 황하를 건너 서쪽으로 도주하면서 차하르 지역에 대한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1634년 5월, 원정 출발에 앞서 홍타이지는 명 변경에서 유목하고 있던 차하르 몽골 부락들에 유시문(諭示文)을 보내 자신에게 귀순하라고 촉구했다.

원정은 성공적이었다. 명군은 후금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들이 몇몇 성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던 사이 후금군은 주변 지역을 자유자재로 유린, 약탈했다. 당시 홍타이지의 원정에는 후금에 우호적인 코르친(科爾沁), 나이만(柰曼) 몽골 등이 동참했다. 선부와 대동 주변 차하르 몽골의 잔당들도 원정 기간 동안 속속 투항해 왔다. 더욱이 1634년 윤 8월, 도주했던 릭단 한이 사망했고 이후 그 아들들과 대신들이 나머지 국인(國人)들을 이끌고 홍타이지에게 투항해 왔다.



홍타이지는 황제 즉위에 앞서 조선의 동의를 받고 싶어 했다. 그래서 국상을 맞은 조선에 조문사를 보내면서 몽골지휘관 77명을 포함시켰다. 사진은 몽골 전통 기마대 복장을 재현한 몽골인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홍타이지는 원정을 통해 사실상 몽골을 평정했다.1634년 12월, 원정군이 개선했던 직후 홍타이지는 태조 누르하치의 사당을 찾아 자신의 승첩 사실을 고했다. 그는 직접 읽은 축문에서 '누르하치의 신령(神靈)에 힘입어 자신이 차하르를 비롯한 몽골 부락들을 모두 복속시켰다.' 고 보고했다. 또 '조선도 과거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이제 아우를 칭하며 납공(納貢)하고 있다.' 며 자신에게 남은 적은 이제 명나라뿐이라고 했다.

13세기 이래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존재였던 몽골을 정복하게 되면서 후금의 자신감은 결정적으로 높아졌다. 더욱이 1635년에는 '칭기즈칸의 정통 후계자' 였던 릭단 한의 옥새를 손에 넣었고, 요양(遼陽)의 옛 절터에서 출토된 금불상까지 획득했다. 불상은 쿠빌라이 칸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릭단 한에게 돌아갔고, 다시 홍타이지의 손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홍타이지는 이제 천명(天命)이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여길 법도 했다. 실제 금불상을 얻은 직후, 홍타이지는 조선에 사람을 보내 안료(顔料)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사찰을 새로 지어 불상을 봉안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홍타이지의 오판

후금의 넘치는 자신감은 조선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1635년 11월, 홍타이지는 릭단 한의 옥새를 조선 사신에게 보여주면서 은근히 위세를 과시하려고 했다. 청 측 기록에는 조선 사신 박로가 옥새를 보고 '진정 하늘이 내린 보물' 이라고 감탄했다고 되어 있다.1636년 1월, 조선에 보낸 국서에서 '하늘의 돌보심으로 우리 대군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공경(孔耿)이 귀순했으며, 차하르 몽골이 복속하여 주변이 모두

우리 소유가 되었다.' 고 과시했다. 홍타이지는 그런데도 조선은 자신들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비난했다.
이윽고 1636년 2월, 후금의 여러 패륵(貝勒)들은 홍타이지에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고 상주(上奏)하기로 의결했다. 그들은 '차하르 한의 아들이 투항해 오고, 대대로 전해오던 몽골의 국새를 얻은 것은 하늘의 뜻이 정해진 것' 이라며 속히 황제가 되어 신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홍타이지는 신료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아직 대업(大業)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먼저 황제가 되는 것은 하늘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타이지가 고사하자 여러 패륵들을 비롯하여 만몽한(滿蒙漢) 출신의 신료들이 모두 나서서 속히 대호(大號)를 정하여 하늘의 뜻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신료들의 강청은 이틀 동안 계속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홍타이지의 친형인 대패륵(大貝勒) 다이샨(代善)까지 나섰다. 그는 여러 패륵들을 이끌고, 죽을 때까지 홍타이지에게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맹서했다.
고사와 강청이 거듭되는 와중에 홍타이지는 조선을 거론했다. '만몽한 출신 신료들이 한목소리로 권하니 거부하기 어렵다. 조선도 형제의 나라이니 마땅히 같이 의논해야 한다.' 조선의 뻣뻣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던 것일까? 홍타이지는 황제 즉위에 앞서 조선의 동의를 받고 싶어했고, 그 때문에 용골대 일행에게 몽골인들을 동행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 오판이었다. 조선은 후금과 화친하고 형제관계를 맺었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홍타이지는 조선의 추대를 원하고 있었다. 홍타이지가 순진했던 것일까? 조선이 무모했던 것일까? 양국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용골대와 마부대 일행은 다목적 사절이었다. 새해가 밝았음을 축하하는 사절이자, 인열왕후의 죽음에 문상하기 위한 조문사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이 조선에 온 가장 큰 목적은 홍타이지를 황제로 추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선의 동참을 촉구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홍타이지 명의의 국서말고도 후금의 여덟 버일러(貝勒, 만주 팔기의 우두머리)들과 몽골 출신 마흔 아홉 버일러들이 작성한 서신을 각각 1통씩 소지하고 있었다. 서신들은 한결같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창경궁 명정전의 모습.
문화재청 홈페이지

●용골대 일행 명버리고 후금 선택 강요

후금의 버일러들이 보낸 서신은 먼저 몽골 각부의 버일러들이 심양에 모두 모여 홍타이지에게 복종을 다짐하고 존호(尊號)를 올리려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 후금군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둔 것은 이미 천의(天意)와 민심이 후금

으로 돌아갔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우인 조선국왕도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자제들을 보내 홍타이지를 추대하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동참하라?' 그것은 한마디로 '김칫국부터 마시는' 행동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몽골 버일러들의 편지가 좀더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200여년 동안 사귀었던 명과 결별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명의 관리들은 우리를 속였고, 나라에는 뇌물이 성행하고 간신들이 총명을 가려도 황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인심이 이미 해체되고, 장졸들은 유약하여 싸울 때마다 무너지고 있으니 명의 운명은 이미 다한 듯하다.' . '하지만 우리 만주 황제는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갖추셨고, 법도와 기강이 엄숙하며 장졸들은 강하여 가는 곳마다 무적이다. 민심이 사모하니 천명(天命)이 장차 돌아가려 한다.'



▲ 대사간 정온은 병자호란 당시 대표적인 척화파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사진은 정온선생문집책판(文集冊板).
문화재청 홈페이지

몽골 버일러들은 아예 '우리 황제'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당시를 명이 망하고 후금이 떠오르는 혁명(革命)의 시기로 규정했다. '지는 해인 명을 버리고 떠오르는 해인 후금을 선택하라.' 몽골 버일러들이 조선에 보낸 편지는 대충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2월22일 용골대 일행이 입경하여 문제의 서신들을 내밀었을 때 조선 신료들은 접수를 거부했다. 후금의 버일러나 몽골의 버일러를 막론하고 신하된 자가 다른 나라의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용골대와 몽골 버일러들의 안색이 바뀌었다. 용골대는 '우리 한(汗)의 공업(功業)이 높아 안팎의 모든 신료들이 황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몽골 버일러들은 '조선이 형제국이라 금한(金汗)이 황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기뻐할 것으로 여겼는데 거절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따졌다. 조선 신료들이 군신의 대의를 내세워 계속 거부하자 용골대는 바로 돌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후금의 서신 거부 용골대 일행 쫓겨나

그럼에도 조선 신료들은 몽골 버일러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용골대 등의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이 몽골 버일러들을 조선에 데려올 때는 조선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어 자신들의 낯을 세워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 신료들이 '명을 배신한 서달(西)' 운운하며 그들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자 용골대 일행의 낭패감은 컸다.

조정에서 회답하는 여부를 논의하려 할 때 삼사의 신료들이 들고일어났다. 대사간 정온(鄭蘊)은 서달은 부모 나라의 원수이니 사절단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 우물쭈물하는 자세를 보이면 조선도 홍타이지를 추대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균관 유생들도 빨리 용골대 등의 목을 베고 서신을 소각하라고 촉구했다.

안팎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최명길(崔鳴吉)이 진화에 나섰다. 그는 후금과 몽골 버일러들의 서신 내용이 문제지 홍타이지의 글에는 별 문제될 내용이 없다며 분리해서 대응하자고 했다. 버일러들의 서신에는 엄정히 대처하되, 그들을 박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대의와 원칙에 따라 용골대 일행을 대하되 임시 방편으로 화를 늦출 계획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화도 전도.

2월26일 용골대는 자신이 가져온 버일러들의 서신을 받아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궁궐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조정은 파장을 우려하여 역관 박난영(朴蘭英)을 모화관(慕華館)까지 보내 그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허사였다. 한편 마부대는 같은 날 10시 무렵, 종자들을 이끌고 인열왕후의 빈소에 조문했다. '승정원일기' 에는 이들이 명정전(明政殿)에서 조문했다고 되어 있으나 '병자록(丙子錄)' 의 기록은 좀 다르다. 조선 조정이 전각(殿閣)이 좁다는 이유로 금천교(禁川橋) 위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조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막 조문하려는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 장막이 걷혀버렸다. 마부대 일행은 조선의 푸대접에 성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불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훈련도감 포수들이 궁궐로 모여들었고, 인조를 숙위하는 금군(禁軍)들도 무기를 소지한 채 장막 근처에 있었다. 장막이 걷힐 때 마부대 일행은 무기를 든 병사들을 보고 기겁을 했다. 자신들을 해치기 위해 잠복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마부대 일행도 놀라 허겁지겁 달아났다.

후금 사신들이 도성을 빠져나갈 때 구경꾼들이 길을 메웠다. 아이들은 일행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기와 조각과 돌을 던지기도 했다. 청나라 기록에는 당시 용골대 일행이 너무 급한 나머지 민가에서 말을 빼앗아 타고 돌아왔다고 적었다.

그것은 사실상 조선과 후금의 관계가 끝장났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몽골 버일러들의 편지까지 들이밀며 조선을 협박하려 했던 후금의 오만도 문제였지만, 조선의 대응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조문할 장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 고의였는지 분명치 않지만 조문 장소 부근에 병력을 배치하여 의심을 산 것 등은 분명 실책이었다. 더욱이 '호차(胡差)들을 참수하라.' 는 주장까지 난무하는 상황에서 용골대 일행의 의구심은 클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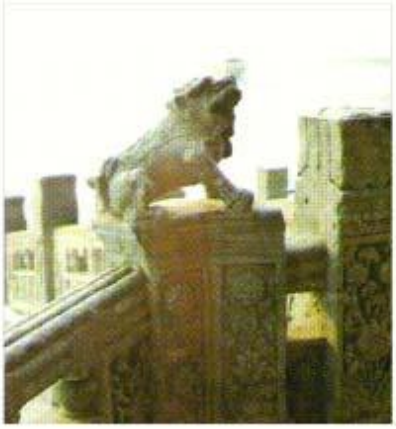
●평안행 전령, 용골대에 잡혀 방어대책 들켜

용골대 일행이 도주한 뒤 오히려 조선 조정이 공포에 휩싸였다.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긴장과 불안감이 엄습했다.2월29일, 인조는 신료들을 불러모았다. 윤방(尹昉)은, 오랑캐 사신이 성을 내고 갔으니 침략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리 강화도로 들어가 방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승지 김경징(金慶徵)이 말을 끊었다. '지금

마련해야 할 것은 방어 대책이지 피란 대책이 아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은 방어 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해졌다. 김류(金)는 포수(砲手)가 아니면 오랑캐를 막을 수 없다며 어영군과 훈련도감의 포수를 뽑아 안주(安州)로 보내자고 했다. 화약을 증산할 대책이 제시되는가 하면 서쪽으로 방수(防戍)하러 간 병사들의 신역(身役)을 감해주라는 명령이 내렸다. 인조는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희성(文希聖)을 안주 조방장(助防將)으로 임명했다. 일찍이 1619년 심하 전역에 참가했다가 후금군에게 항복했던 전력이 있는 장수였다. 인조는 반대하는 신료들에게 ‘지금은 장수로서 재주가 중요하지 과거 전력을 문제삼을 수 없다.’ 는 명분을 내세웠다. 급박한 상황임이 분명했다.
3월1일, 인조는 팔도의 백성들에게 유시문(諭示文)을 내렸다. ‘정묘호란 때는 부득이하여 임시로 화친을 허락했다. 하지만 오랑캐의 욕구는 날로 커져 이제 우리 군신이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로 협박하고 있다. 이에 강약(强弱)과 존망(存亡)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니 모든 사서(士庶)들이 힘을 합쳐 난국을 헤쳐나가자.’ 는 호소였다.
대의명분을 위해 국가의 존망까지도 걸 수 있다는 의지는 결연했다. 하지만 3월7일, 오랑캐와 단교한다는 사실과 방어 태세를 확고히 하라는 인조의 명령서를 갖고 평안감사에게 가던 전령이 용골대 일행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방어 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떠는 와중에 서울에서 변방으로 이어지는 통신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조선은 속마음을 온전히 들키고 말았다.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홍타이지,황제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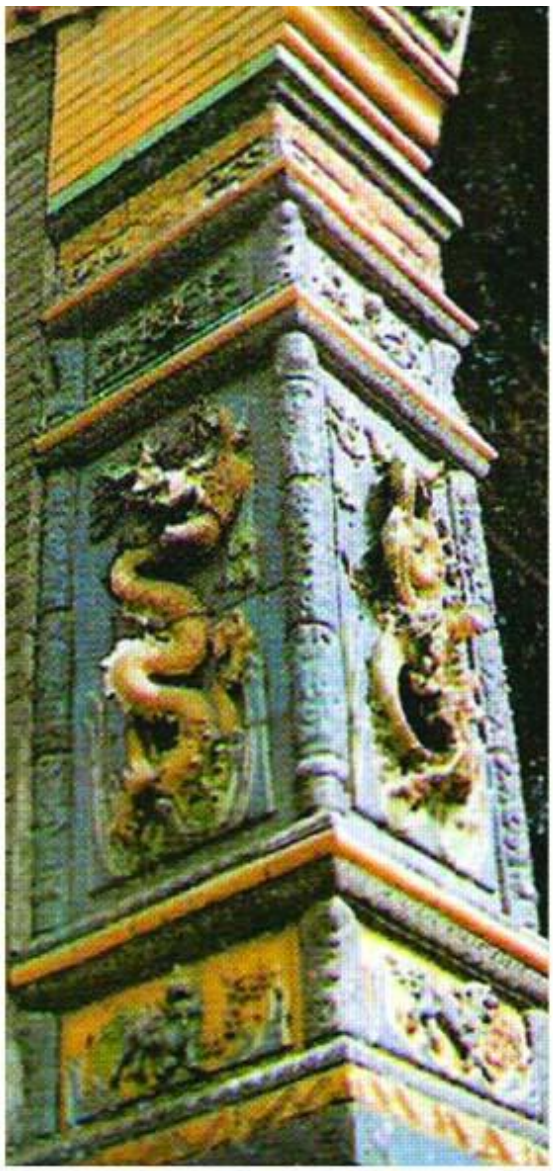
평소 여진족을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조선이 홍타이지를 황제로 추대하는 데 동참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후금의 힘이 이미 명마저 넘어선 상황에서 조선의 선택은 국가의 존망까지 걸어야 하는 모험일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신중하고 주도면밀한 대응이 필요했다. 하지만 평안감사에게 보내는 인조의 유시문(諭示文)을 조선 영토 안에서 용골대 일행에게 빼앗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국가 운영 체계에 나사가 풀려 있다는 방증이었다. 반면 조선의 ‘본심’ 을 간파한 홍타이지는 느긋하게 조선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황제 위엄 갖추는 홍타이지

홍타이지가 즉위한 뒤 집무한 숭정전(崇政殿·아래)과 그 내부를 장식한 용상과 금룡(시계방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1636년 홍타이지,帝位에 오르다

인조가 평안감사 홍명구(洪命耉)에게 보낸 유시문의 내용은 대충 이러했다. '정묘년에 부득이 하여 강화를 맺은 것

도 부끄러운데 지금 그들이 황제를 칭하려 하니 존망을 돌보지 않고 절교(絶交)할 수밖에 없다. 팔도의 관찰사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 죽기를 맹서하고 싸워 원수를 갚을지어다. 각처의 백성들에게도 알려 용사들을 격려시키고 서로 도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

용골대가 가져온 인조의 유시문을 보았을 때 후금의 여러 버일러들은 당장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섬멸하자며 흥분했다. 홍타이지는 차분했다. 그는 버일러들을 만류하며 먼저 조선에 사람을 보내 속내를 떠보라고 지시했다.

이윽고 1636년 4월11일 여명, 홍타이지는 백관들을 이끌고 심양성의 천단(天壇)으로 나아갔다. 자신이 제위에 오른다는 사실을 천지에 고하기 위해서였다. 홍타이지는 대신들과 함께 제단에 삼궤구고두례(三九叩頭禮)를 행했다. 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이었다. 홍타이지가 북쪽을 향해 꿇어 앉은 상태에서 제관이 축문을 읽었다.

'유세차 병자년 4월11일, 만주국 황제 신(臣) 홍타이지는 황천후토신(皇天后土臣)에게 고하나이다…. 제가 대위(大位)를 이은 지 10년, 하늘의 도움으로 조부의 기업(基業)을 어깨에 메고 조선을 정복하고 몽골을 통일하여 다시 옥새를 얻었습니다…. 이제 내외 신민의 추대를 받아 천자(天子) 자리에 올라 나라 이름을 대청(大淸), 연호를 고쳐 숭덕(崇德) 원년으로 삼았음을 삼가 아뢰옵니다.'

연호를 천총(天聰)에서 숭덕으로 고치고 대청제국의 황제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만 '조선을 정복' 운운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직 병자호란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조선은 명분상 분명 형제국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을 정복' 했다고 한 것은 당시 조선이 이미 자신들의 수중에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또 자신들에게 도무지 고개를 숙이려 들지 않는 조선에 대해 그만큼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조선사신, 황제즉위식서 고개 숙이기를 거부하다

천지에 고하는 의식을 마친 뒤 천단 동편에 즉위 식장이 꾸려졌다. 홍타이지는 단상에 놓인 금 의자로 올라가 앉았고 여러 버일러들과 대신들은 좌우로 줄을 지어 늘어섰다. 이윽고 찬례관(贊禮官)의 외침에 따라 만몽한(滿蒙漢) 출신의 신료들은 일제히 홍타이지에게 삼궤구고두례를 행한 뒤 꿇어 앉았다.

곧이어 만주, 몽골, 한인들을 대표하는 신료들이 각각 만주어, 몽골어, 한문으로 된 표문(表文,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받들고 단(壇)의 동쪽에 섰다. 여러 무리들을 향해 표문의 내용이 낭독되었다. '우리 황상께서는 하늘의 뜻과 백성의 여망을 따르고, 덕을 닦아 조선을 복종시키고 몽골을 통일하여 다시 옥새를 얻으셨다…. 큰 이름과 업적이 천하에 드날리니 한마음으로 추대하여 관온인성황제(寬溫仁聖皇帝)라는 존호를 올린다.' 낭독이 끝나자 신료들은 다시 삼궤구고두례를 행한 뒤 기립했다.

여기서도 '조선을 정복' 했다는 내용이 반복되었다. '관대하고 따뜻하며 어질고 성스러운' 황제의 조선 출병이 머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을까?

당시 식장에는 조선에서 온 춘신사(春信使) 나덕헌(羅德憲)과 이확(李廓)도 있었다. 두 사람은 즉위식이 진행되는 내내 홍타이지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조선은 아직 형제국이지 청에 신속(臣屬)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주와 몽골인들은 물론, 조선이 상국으로 섬기는 명 출신 신료들까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던 식장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행동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다.

●홍타이지 "깨깨하게 사신죽이지 않겠다"

같이 도열해 있던 청의 신료들이 발끈했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 두 사람을 죽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홍타이지는 만류했다. 그는 '이 일은 조선 국왕이 양국 사이에 틈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꾸민 것이다. 내가 만일 사신들을 죽이면 조선 국왕은 내가 맹약을 어겼다고 할 것이다. 나는 한 때의 하찮은 분노 때문에 사신을 죽이지 않겠다.' 고 신료들을 다독였다.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은 나덕헌과 이확의 용기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조선에 먼저 절교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려 했던 홍타이지의 외교적 안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홍타이지는 두 사신이 귀국할 때 인조에게 선사하는 초피(貂皮)를 비롯하여 은과 인삼 등을 들려 보냈다. 의외였다. 군사를 일으키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예의를 차리려는 수순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확과 나덕헌에게 들려준 국서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선 용골대 일행이 서울에 갔을 때, 조선이 몽골 출신 버일러들을 만나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에게 허락을 받고 들어갔던 사람들을 만나 주지 않은 것은 두 나라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두 나라 사이에는 본래 원한이 없었는데 1619년 조선이 명을 도와 후금을 공격하는 군대를 파견했던 것, 이후 명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식량을 준 것 때문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또 정묘호란 당시 가짜 왕제(王弟)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볼모로 보낸 것, 자신이 강홍립과 함께 돌려 보낸 한인들을 명으로 압송해 버린 것, 맹약을 맺은 이후에는 명나라 사람들을 조선 영토로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것을 어긴 것 등등. 홍타이지의 불만은 이어졌다.

● **"인조 자제 볼모로 안 보내면 공격하겠다"**

홍타이지가 특히 맹렬히 비난한 것은 공유덕, 경중명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그들이 귀순해 올 때 조선이 명을 도와 그들을 차단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전쟁의 단초를 여는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 신료들을 비난하고 조롱한 점이었다. 그는 인조의 신료들을 가리켜 '책을 읽었지만 백성과 나라를 위해 경륜을 발휘할 줄은 모르면서 한갓 허언(虛言)만 일삼는 소인배들' 이라고 매도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들 서생(書生)들이 10년 간 이어져온 화의를 폐기하고 전쟁의 단서를 열었다고 비난했다.

작심한 듯한 홍타이지의 발언은 이어졌다. '왕은 지금 덕과 의리를 닦지 않고 해도(海島)의 험준함만 믿고 있으며 서생들의 말을 듣고 형제의 화호를 깨뜨리고 있다.' 홍타이지는 훈계를 늘어 놓았다. '몽골의 차하르(察哈爾) 한도 덕을 닦지 않고 간신들의 말에 따라 내게 전쟁을 걸었다가 쫓기는 몸이 되고, 끝내는 신료들에게 배신당했다.' 고. 이어 조선이 '후금을 원수' 라고 한 이상 자신은 전쟁을 통해 강약과 승부를 겨룰 뿐 사신들을 죽이는 쩨쩨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조에게, 스스로 죄를 깨우쳤다면 자제를 볼모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 가겠다고 협박했다. 홍타이지는 자신이 군대를 움직이는 날짜까지 명시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다. 조선이 홍타이지의 요구대로 볼모를 보내지 않는 이상 전쟁은 피할 수 없었다. 전쟁이 터지면 강화도로 들어가는 것말고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던 조선, 그나마 그 계획조차 이미 청에 읽혀 버린 조선의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높아지는 명분론,어정쩡한 방어대책
홍타이지의 '조선 비난' 국서에 조정신료 決戰論 들끓어

몽골 버일러들을 이끌고 왔던 용골대 일행이 도주하고, 청과 관계를 끊겠다는 인조의 유시문마저 용골대 일행에게 빼앗긴 뒤 조선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나덕헌과 이확이 홍타이지에게 배례(拜禮)를 거부하여 청을 자극했다는 소식까지 날아들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 커졌다. 빨리 방어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묘 이후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어져온 '10년의 평화' 에 익숙했던 조정이었다. 급작스럽게 내놓은 방어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빚어졌다.





나덕헌을 모신 광주의 무양서원(武陽書院).



정온 선생의 유품.



구리시에 있는 나만갑 신도비(神道碑).
문화재청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나덕헌과 이확의 목을 쳐라"**

홍타이지의 즉위식장에서 나덕헌과 이확이 보였던 행동은 어쨌든 대단한 것이었다. 나만갑(羅萬甲)의 '병자록(丙子錄)' 에 따르면, 나덕헌 등이 무릎을 꿇지 않고 버티자 격분한 청나라 관원들은 두 사람을 마구 구타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머리 숙이기를 끝내 거부하자 식장에 있던 한인(漢人) 신료들 가운데는 부끄러워 눈물을 보이는 자까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청실록' 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덕헌과 이확의 행동이 안팎으로 충격을

주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나덕헌과 이확은 심양을 떠나 서울로 향할 때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오랑캐 ' 홍타이지의 즉위식장에서 목숨을 걸고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과연 조선 조정의 신료들이 자신들이 보였던 '기상'과 '절개'를 곧이곧대로 믿어 줄지 의문이었다. 그들은 더욱이 홍타이지에게서 받은 국서까지 휴대하고 있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홍타이지의 국서는 조선을 맹렬히 비난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협박,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국서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조정의 명분론자들로부터 어떤 비판이 날아올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나덕헌과 이확은 결국 귀국 길에 만주 통원보(通遠堡)란 곳에 이르러 홍타이지가 준 국서를 버리고 말았다.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머물던 숙소에 몰래 던져 놓고, 대신 내용을 등사하여 조정에 올렸다.
이들이 의주에 도착하자 당장 평안감사 홍명구(洪命耉)가 상소했다. 그는 홍타이지의 국서 내용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통곡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나덕헌 등이, 참람하고 말도 되지 않는 오랑캐의 서신을 받은 즉시 던져 버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빨리 나덕헌과 이확의 목을 베어 그것을 홍타이지에게 보여 주라고 촉구했다. 추상(秋霜) 같은 일갈(一喝)이었다.
●명분론이 높아지고,決戰論이 대두하다
홍명구의 상소를 통해 홍타이지가 보낸 국서의 내용이 알려지자 조정은 다시 들끓었다. 비변사 신료들도 나덕헌과 이확이 자결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그들이 통원보에 이르러서야 국서를 몰래 버리는 바람에 홍타이지에게 '조선 사신이 국서를 기꺼이 받아갔다.' 는 인상을 주고 말았다고 통박했다. 조정의 분위기를 보면 두 사람은 이제 자결해야만 할 것 같았다.
나덕헌과 이확을 성토하는 조정 신료들의 명분론은 극에 이르렀다. '개돼지만도 못한 오랑캐의 국서를 받고서도 멀쩡하게 가지고 돌아온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는 것이었다. 나덕헌과 이확은 결국 평안도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비변사는 통원보의 청나라 관리에게 나덕헌 등의 명의로 서신을 보내자고 주장했다. 나덕헌 등이 홍타이지가 보낸 국서를 중도에서 뜯어 보고 버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려 주자는 것이었다. 대사성(大司成) 이식(李植)이 붓을 들었다. 이식이 쓴 국서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우리들은 귀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졸지에 갖은 곤욕을 다 당했다. 우리가 귀국하려 할 때 굳게 봉함된 국서를 받았다. 우리는 전례에 따라 뜯어 보려 했지만, 용골대와 마부대가 방해하여 그럴 수 없었다. 결국 한참 말을 달려 중도에 이르러 뜯어 보니 서면(書面)의 칭호와 말미에 찍힌 인문(印文)이 과거와는 크게 달랐다. 또 우리나라를 '이국(爾國)' 운운하며 공경하기는커녕 노예처럼 여기고 있었다. 조선의 신하된 도리 상 차마 볼 수 없어 통원보에 이르러 숙소의 잡물 속에 던져 놓고 왔다. 원컨대 그 것을 가져다가 홍타이지한에게 전해 주기 바란다.' 요컨대 조선은 이식이 쓴 국서를 통해 홍타이지가 칭제건원(稱帝建元)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던 셈이다.
'황제' 홍타이지와 '제국' 청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못을 박은 이상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이미 용골대 일행이 도주했던 직후부터 청의 침략에 대비한 대책들은 쏟아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던 사람은 단연 부제학 정온(鄭蘊)이었다. 그는 용골대 등이 도주한 직후 올린 상소에서, 원수(元帥)를 선발해 보내고 빨리 압록강을 방어할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조에게 개성까지 나아가 신료들을 독려하고 군율(軍律)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록강을 방어하고 개성으로 진주(進駐)하라? 여차하면 조정을 강화도로 옮기는 것만 생각하고 있던 다른 신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장이었다.
정온은 그러면서 인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진정으로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반정공신들이 거느린 정예병들을 원수에게 배속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는 온 나라의 정예병과 무사가 전부 반정공신들 휘하에 배속되어, 평소에는 그들의 농장(農莊)을 관리하다가 유사시에는 호위(扈衛)를 핑계로 편안함을 취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정묘호란 당시에도 멀쩡한 정예병들이 적과 싸움은 포기한 채 강화도에 머물면서 '내란이 있을까 걱정스럽다.' 는 말만 되뇌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헌부 관원들도 정온과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정예병이란 정예병은 모두 반정공신 휘하 군관들에게 사병(私兵)처럼 편제되어 있는 것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정쩡한 인조의 태도

정온과 사헌부 신료들의 주장은 정곡을 찌른 것이었다. 그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훈신(勳臣)들이 '호위'를 핑계로 정예병을 사병처럼 틀어 쥐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실제 당시 평안병사 유림(柳琳)이 금군(禁軍) 가운데 10명을 데려가 군관으로 삼으려 했는데 호위청(扈衛廳)에서 거부하여 문제가 되었다. 사간원 신료들은 "변방 방어가 충실하면 서울이 편안해지고 서울이 편안하면 굳이 호위하는 무사가 많을 필요가 없다."며 호위청 군관 가운데 500~600인을 뽑아 변방으로 내려 보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인조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마뜩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호위하는데 중요한 훈련도감이나 어영청 병력을 덜어 내자는 주장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개성으로 전진하고 정예병을 과감하게 내어 주라.'는 정온의 요청에 대해 "그대의 차자(箚子) 내용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사간원 신료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연소한 대간들이 사체도 모르면서 군사와 군량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시가 엄청난 위기 상황이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인조는 여전히 안이했다. 강화도로 들어가, 수많은 정예병들을 시켜 자신의 주변을 호위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병자호란 직전 인조는 분명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1636년 4월25일, 스스로를 통렬히 비판하는 하교를 내렸다. '내가 용렬하여 시비(是非)를 분별하지 못했고, 게으른 데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력하겠으니 모든 신료들도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눈물겨운 호소였다.

하지만 근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인조는 병자호란 직전 '오랑캐와 일전을 불사하자.'는 명분론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실제로 '일전을 불사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던 정온 같은 신하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인조의 책임은 컸다.

절체절명의 시간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 인조는 나름대로 분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자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서를 반포하여 실책을 사과하고, 내외 신료들에게 구국의 방책 마련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신료들도 인조의 호소에 답하여 이런저런 개혁안과 방책들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는 노비의 수를 줄여 군역에 충당해야 한다는 등의 근본적인 개혁안도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이 문제였다.



▲ 충북 청원에 있는 최명길의 신도비.

●청과의 관계에 못을 박다

1636년 5월26일, 인조는 다시 교서를 내렸다. 나름대로 자신감이 넘치고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결의가 엿보였다. '우리는 수천 리의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어찌 움츠리고만 있을 것인가? 지난 번 용골대를 보니 겁 많고 꾀가 없는 것이 우리보다 더하더라.'

인조는 이어 수령들에게 안민(安民)의 정치를 펼 것과 변방의 장수들에게 군졸들을 무휼(撫恤)하라고 촉구했다. 청렴하고 능력 있는 수령과 장수들은 상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 논산에 있는 윤황의 고택.

이어 내탕(內帑, 왕의 개인 금고)에서 목면 1000필을 풀어 평안도에서 장졸들을 선발하는 비용으로 쓰라고 지시했다. 평소 내수사(內需司)와 관련된 비판만 나와도 고개를 돌리던 그가 스스로 내탕을 푼 것은 이례적이었다.

6월17일 홍타이지의 국서에 답하는 글을 의주로 보냈다. 격문(檄文) 형식이었다. 정묘년에 맺은 맹약이 깨지게 된 것은 조선 탓이 아니라 청나라 탓임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귀국은 군사강국이지만 우리는 궁벽진 곳에 위치한 농업국가일 뿐이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귀국을 능멸하고 스스로 맹약을 깨겠는가?' 라는 반문으로 시작되는 국서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먼저 조선이 명을 섬겨 배신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묘 당시 합의된 약속임을 상기시켰다. 그러므로 조선이 한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문제삼는 청의 태도는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은 이어 변방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청 영내로 몰래 들어가 산삼을 캔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차하르(察哈爾) 버일러들은 이미 망한 나라의 포로들이니 청과 똑같이 예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선은 '명나라의 동번(東藩)' 으로서 강약(强弱)과 성패(成敗) 때문에 신하의 절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지막 내용이 흥미롭다. '군사도, 재물도 없는 우리는 오로지 대의와 하늘만을 믿는다. 과거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말로를 보라. 자중지란이 일어나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조선을 침략했던 그의 부하들은 다 죽었다. 반면 우리와 우호를 유지한 도쿠가와씨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청의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이었다.

●황손무의 충고

방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던 7월, 가도에서 명군 부총병(副摠兵) 백등용(白登庸)이 서울로 들어왔다.7월27일 인조는 남별궁(南別宮)으로 직접 거둥하여 그를 만났다. 평소 같으면 아무리 명나라 관원이라도 부총병 급의 인물을 국왕이 숙소까지 직접 찾아가 만나는 경우는 드물다. 아마 답답한 마음에서 그랬을 것이다.

침략은 예고되어 있는데 신료들의 의견은 분분하고, 대책 마련은 여의치 않았다. 백등용은 인조에게 조선이 비록 오랑캐와 절교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을 기미(羈)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면 노력하라고 충고했다. 조선의 사정이 딱하게 보였던 것일까?

사실 조선은 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절화(絶和)를 선언했지만 일각에서는 다시 화친을 도모하는 것에 미련이 없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실마리를 과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8월27일 주강(晝講)이 끝난 직후, 지경연(知經筵) 최명길이 입을 열었다. "병법에는 권모술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추신사(秋信使)는 보내지 않더라도 우선 역관을 들여보내 청 내부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역관이라도 보내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풀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시독관(侍讀官) 조빈이 당장 제동을 걸었다. 그는 '정묘호란을 겪은 뒤 자강(自强)하지 못한 것은 화의(和議)가 병이 되었기 때문이며, 강화를 하더라도 어차피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대의를 밝히고 절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명길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 창덕궁 인정전의 천장 모습. 문화재청 홈페이지

9월1일, 명의 감군(監軍) 황손무(黃孫茂)가 황제의 칙서를 받들고 입경했다. 인조는 인정전(仁政殿)에서 황제의 칙서에 절을 올렸다. 칙서는 조선이 청의 협박에 굴하지 않은 것을 찬양한 뒤, 속히 명과 협력하여 오랑캐를 토벌하라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틀 뒤 황손무는 인조에게 글을 보내 이런저런 훈수와 요구를 늘어놓았다. 그는 조선이 청과 가까운 몽골 세력을 회유할 것과 간첩을 보내 청의 내부 사정을 정탐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또 조선은 수천 리나 되는 큰 나라라고 강조한 뒤, 의주의 옛 성을 다시 쌓고 가도의 동강진과 협조하는 태세를 유지하면 오랑캐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슬쩍 청에서 귀순해 오는 한인들을 조선이 받아줄 것과 명에 말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인조는 황손무에게 조선이 군사력이 약해 오랑캐를 막기 어려우니 '부모의 나라' 에서 구원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손무는 조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선이 지독한 숭문주의(崇文主義)에 빠져 무비(武備)를 갖추는 데 소홀했고, 병농(兵農)이 구별되지 않아 군사력이 약해졌다고 진단한 뒤,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힘쓰라고 촉구했다.

●최명길, 평안도에 지휘본부 설치를 촉구

9월5일, 최명길이 차자를 올렸다. 그는 사간원 관원들이 '청과 척화하되 직접 나가서 싸워 이길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인조에게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쟁을 피할 계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사간원 신료들의 주장대로 직접 나가서 싸울 계책을 마련하든지 속히 택일(擇一)하라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고 우물쭈물하면서 적의 침략을 맞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경고했다.

'하루아침에 적의 기마병이 휘몰아오면 체찰사는 강화도로 들어갈 것이고, 원수는 황주(黃州)의 정방산성(正方山城)으로 물러날 것이니 청천강 이북의 모든 고을은 적의 수중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안주성도 온전할 수 없으니 생령(生靈)은 어육이 되고, 종사는 파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명길의 예측이었다. 당시 의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적의 진격 루트 가운데 방어 준비를 그나마 갖추고 있는 곳이 안주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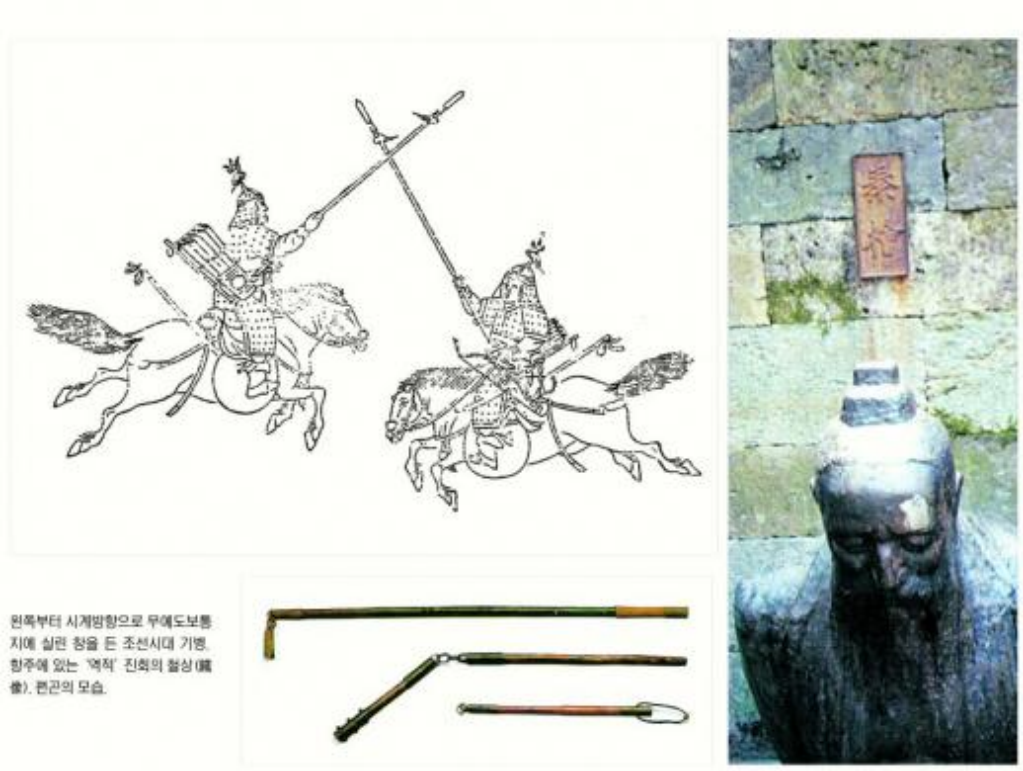
하지만 전쟁 지휘부가 강화도로 들어가고, 도원수가 산성으로 들어갈 경우 안주성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명길의 생각이었다. 실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최명길의 예언은 거의 그대로 들어맞았다.

최명길은 이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계책을 진언했다. 먼저 도체찰사와 도원수를 평안도로 보내 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평안병사를 의주로 들여보내 장졸들에게 오로지 진격만 있을 뿐 후퇴는 없다는 결의를 보여주라고 촉구했다. 그런 다음 심양에 국서를 보내 군신의 대의를 밝히고, 추신사를 파견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고, 청 내부의 정황을 탐지하라고 건의했다. 만일 그들이 혹시라도 답장을 보내오면 그 내용을 살핀 다음 우리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자고 했다. 청이 우리의 충심을 받아주면 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국경에서 결전을 벌여 승부

를 내자는 주장이었다.
인조는 답하지 않았다. 전진하여 승부를 내는 것이 겁났던 것일까? 인조는 입을 다물었고, 삼사 관원들이 들고일어났다. 절체절명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최후의 주화-척화 논쟁

최명길의 주장은, 척화(斥和)하여 청과 싸우겠다는 결심을 굳혔으면 '공세적' 으로 하자는 내용이었다. 말로만 '척화' 를 외치며 미적거릴 경우, 청군의 철기(鐵騎)를 조선 영토 깊숙이 불러들이게 되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한 계책이었다. 압록강 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과 싸울 경우, 설사 패하더라도 피해의 범위를 줄일 수 있었다. 인조와 조정 또한 운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인조는 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언관들이 들고일어나 최명길을 처벌하라고 외쳤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창을 든 조선시대 기병, 항주에 있는 '역적' 진회의 철상(鐵像), 편곤의 모습.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尹煌과 鄭蘊의 결전론

최명길의 주장은 척화파의 거두 윤황(尹煌)이나 정온(鄭蘊)의 생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대사간 윤황은 1636년 8월에 올린 상소에서 인조에게 척화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백성과 장졸들을 분기(奮起)시키려면 강화도로 들어가려는 생각부터 버리라고 요구했다.

'임금과 종사(宗社)를 안전한 곳에 모신 뒤에야 국사를 도모할 수 있다.' 는 생각 때문에 인심이 흩어져 나라가 망할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윤황은 강화도에 배치한 병력을 모두 평안도로 보내고, 강화도에 지어놓은 행궁(行宮)마저 태워버림으로써 결전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정온은 윤황보다 더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인조에게 결전을 벌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도원수를 의주로 보내 압록강을 방어하고, 의주에서 효사수성과(效死守城科-죽기를 각오하고 성을 지키겠다는 용사를 선발하는 과거)를 실시하여 결사대를 뽑고, 인조도 개성에 진주하여 장졸들을 진두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정온은 결전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까지 제시했다. 그는 조선의 사수(射手)와 화포병(火砲兵)을 '천하 무적'이라고 평가하고 그들을 활용하면 후금군 기병의 돌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투가 벌어질 곳에 먼저 진을 칠 장소를 정합니다. 포수 4000명을 4대로 나눠 2000명은 앞에 진을 치고,2000명은 지형을 살펴 좌우에 진을 칩니다. 포수 뒤에는 사수를, 그 뒤에는 살수(殺手)를, 그 뒤에는 편곤군(鞭棍軍)과 기사병(騎射兵)을 각각 배치합니다.(중략) 적이 학익진(鶴翼陣) 형태로 공격해 오면 아군의 전대(前隊) 1000명이 먼저 조총을 쏩니다. 쏜 뒤에는 앉아 화약을 장전하고 후대 1000명이 다시 쏩니다. 적이 만약 장사진(長蛇陣)으로 공격해 오면 좌군(左軍)이 전대가 했던 방식처럼 먼저 쏘고, 적이 40~50보 안에 들어오면 사수들이 포수가 쏘던 방식대로 화살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포성이 그치지 않고, 화살은 비 오듯이 쏟아질 것이니 비록 저들의 견갑철마(堅甲鐵馬)라 할지라도 어찌 궤멸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온의 계책은 병자호란 무렵 제기된 결전론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논리 정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청군에 지레 겁을 먹고 '천하 무적'의 궁수와 포수들을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했다는 점이었다.

최명길의 주장이 이들과 다른 점은 '결전에 돌입하기 전에 한번 더 심양으로 사람을 보내 청의 속내를 파악해 보자.'는 것이었다. 실제 최명길의 주장이 나온 직후인 1636년 9월8일, 비변사는 심양으로 역관 권인록(權仁祿) 등을 보내 청의 내부 사정을 탐문하자고 주청했다. '오랑캐의 정세를 탐지하라.'는 명나라 감군 황손무(黃孫茂)의 충고도 비변사의 주청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갈팡질팡하는 인조

인조는 비변사의 주청을 받아들였다. '결전'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그러자 수찬 오달제(吳達濟)와 헌납 이일상(李一相) 등이 들고일어났다. 그들은 황손무의 충고를 따르는 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며 인조가 '우리는 이미 오랑캐와 절교하여 사자(使者)가 통하지 않으니 간첩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황손무에게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이일상 등은 더 나아가 청에 사자를 다시 보내는 것은 위로는 명을 배반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대부분의 삼사 소속 언관(言官)들이 비변사를 비난하는 와중에 사간 정태화(鄭太和)는 소신을 내세웠다. '옛날부터 교전(交戰) 중이라도 사자를 왕래시키고 국서를 교환했다.'며 비변사의 주청은 일리가 있다고 반기를 들었다.

인조는 정태화의 주장에 힘을 얻은 듯 비변사의 반간책(反間策)을 받아들였다. 역관 박인범(朴仁範)과 권인록을 심양으로 들여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삼사(三司)의 언관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인조와 비변사는 다시 동요했다. 박인범 등에게 압록강을 건너지 말고 일단 의주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언관들과의 논의가 아직 결말을 맺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최명길이 보다못해 다시 나섰다. 그는 먼저 연소한 언관들이 군사 기밀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개탄한 뒤, 정묘호란 때 일부 언관들이 '야간에 적을 습격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앞으로는 국가를 위한 대사를 대신과 밀의(密議)하여 결정하되 승지와 내관들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인조가 비변사 중심의 주화론과 언관 중심의 척화론 사이에서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 안쓰러웠던 것이다.

공격의 화살은 최명길에게로 날아들었다. 오달제는 최명길이 기필코 중론(衆論)을 배척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조빈은 더 강경했다. 그는 '우리의 국시(國是)는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하는 것인데 광해군이 오랑캐와 화친했기 때문에 쫓겨났다.'며 인조반정의 명분까지 거론했다. 그러면서 '청에 다시 사자를 보내면 반란을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구실을 줄 수 있다.'고까지 했다.

그것은 사실상 인조에 대한 협박이었다. '광해군이 오랑캐와 화친했기 때문에 쫓아낸다.'고 했던 인조반정 당시의 명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조의 입장을 자극하는 주장이었다.

● '秦檜보다 나쁜 최명길'

1636년 9월27일 사간원의 언관들은, 최명길이 중론을 무시하고 국가 정책을 밀실에서 추진하려 했다며 파직하라고

요구했다. 인조는 언관들을 비난하고 최명길을 두둔했지만 11월6일, 최명길은 판윤(判尹)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11월8일, 부교리 윤집(尹集)이 최명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임진년에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신종(神宗) 황제의 구원 덕분에 조선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며 예의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오랑캐와의 화의를 내세워 재조지은을 배신하고 나라를 망치려 하는' 최명길은 진회(秦檜,1090~1155)보다도 나쁜 자라고 매도했다.
진회는 남송(南宋)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금(金)과의 화의를 주도하여 세폐를 바치고 명장 악비(岳飛)를 제거하는 데 앞장 선 인물이었다. 이후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간신의 전형'이자 '매국노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던 인물이었다. 청에 사자를 다시 보내자고 주장했던 최명길은 이제 관인으로서 최악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던 것이다.
인조와 비변사는 논란 끝에 역관들을 심양으로 보냈다. 홍타이지는 조선 역관들을 퇴짜 놓았다. 심양을 정탐하고 돌아온 역관 일행은 청의 분위기를 보고했다. '군대를 일으키려는 기미도 보이지만 우리와 꼭 절교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헷갈리는 내용이었다.
비변사는 사신을 보내 다시 화친을 도모하자고 했다. 삼사의 언관들은 저들의 본심이 드러났다며 다시 반대했다.
1636년 12월 초, 인조는 다시 사신을 출발시켰다. 사신이 심양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도 귀환시킬 것을 요구하는 언관들의 항의는 빗발쳤다.
그러나 이미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다. 홍타이지는 11월 25일, 신료들을 모아 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조선을 공격하겠다는 결심을 고하는 제사였다.
바야흐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병자호란] (23) 병자호란이 시작되다

2013.01.27 23:21

병자호란이 시작되다(ㅣ)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조정에서는 청과의 관계를 복원할지, 그것과 관련하여 사신을 보낼지를 놓고 격심한 논란이 빚어졌다. 척화파는 명분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절교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주화파는 이렇다 할 준비 없이 전쟁을 벌이는 것의 위험성을 들어 끝까지 청을 기미(羈)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람들은 대체로 척화파의 논의가 높고 깨끗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높고 깨끗한 논의' 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갈팡질팡하는 사이 전쟁은 결국 터지고 말았다.



심양 고궁의 당자(堂子).



임경업을 모신 충주의 충렬사.

●준비 없이 갈림길에 서다

당시 '명분' 과 '현실' 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던 조선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인물은 명 감군 황손무(黃孫茂)였다. 그가 귀국 길에 보낸 서한이 10월24일 조정에 도착했다. 그는 청천강과 압록강, 그리고 평안도의 험준한 지형은 하늘이 준 것이니 병사들을 조련하고 화약과 총포 등을 제대로 갖추면 적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 신료들이 현실을 모른다고 야유했다. '경학(經學)을 연구하는 것은 장차 이용(利用)하기 위한 것인데 나는 귀국의 학사와 대부들이 읽는 것이 무슨 책이며 경제(經濟)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소. 뜻도 모르고 웅얼거리고 의관(衣冠)이나 갖추고 영화를 누리고 있으니 국도(國都)를 건설하고 군현(郡縣)을 구획하며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세금을 경리하는 것은 과연 누가 담당한단 말이오?'

황손무의 비판은 신랄했고 진단은 냉정했다. '귀국의 인심과 군비(軍備)를 볼 때, 저 강한 도적들을 감당하기란 결단코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장유(獎諭)에 이끌려 그들과의 화친을 끊지 마십시오.' 조선을 찬양하고 청과 싸움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황제의 유시문을 들고 왔던 그였다. 조선을 다독여 청과 싸움을 붙이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

지만, 황손무가 본 조선은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오히려 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말라고 충고했던 것이다.

청 역시 마지막까지 조선의 본심을 떠보려고 시도했다. 역관 박인범(朴仁範) 등이 들어갔을 때, 용골대는 새로운 제안을 내밀었다. 자신들에게 협력하여 명을 공격하는 데 동참하고, 화친을 배척한 신하를 넘겨주고 왕자를 볼모로 보내라는 요구였다. 박인범 등은 반발했다. 그러자 용골대 등은 왕자와 척화신만 보내주면 청군이 비록 압록강에 이르더라도 침략을 당장 중지하고 두 나라가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제의했다. 박인범 등이 '예의의 나라로서 차마 들을 수 없고, 또 전달할 수 없는 말' 이라고 거듭 반발하자 용골대 등은 돌아갔다. 좀처럼 좁히기 어려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했던 것이다.



▲ 남한산성의 수어장대.

●홍타이지, 침략 결심을 하늘에 고하다

1636년 11월25일 홍타이지는 신료들을 이끌고 환구에서 제사를 지냈다. 황천(皇天)과 후토(后土)를 향해 자신이 조선 정벌에 나서게 된 까닭을 고하는 자리였다. 홍타이지는 축문을 통해 조선이 '저지른' 잘못들을 열거했다.1619년 명을 도와 자신들을 공격하는 데 동참한 것,1621년 이후 자신들이 요동을 차지했을 때 도망하는 한인들을 받아들여 명에 넘긴 것, 정묘년에 맹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누차 그것을 어긴 것, 후금으로 귀순하는 공유덕과 경중명 일행을 공격했던 것, 명에는 병선(兵船)을 제공했으면서도 그것을 빌려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는 거부한 것, 인조가 평안감사 홍명구(洪命耉)에게 유시문을 보내 자신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운운 한 것 등이었다.

조선에 대해 품었던 불만이 모두 나열되었다. '청의 힘과 역량이 명 못지않게 커졌는데 조선은 명만 편들고 자신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는 것이 불만의 요점이었다. 공유덕 등의 귀순을 저지하려 시도하고, 명에만 병선을 제공한 것에 대한 불만이 특히 도드라져 보였다. 홍타이지는 곧이어 누르하치의 신주를 모신 태묘(太廟)에도 나아가 자신의 결심을 고했다.

홍타이지는 11월29일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유시문을 내렸다. 조선을 정벌해야 하는 까닭을 다시 강조했다. 위에서 언급한 '허물' 에 더하여 조선이 청에서 보낸 국서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도 추가했다. 조선 조정이 몽골 버일러들이 내민 편지를 퇴짜놓았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홍타이지는 평안감사 홍명구에게도 '유시문' 을 보냈다. '조선이 패만하고 무례하므로 어쩔 수 없이 의병(義兵)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병' 들에게 조선에서의 행동 지침을 하달했다. '인명을 함부로 살상하지 말 것, 대군이 통과하는 지역의 사묘(寺廟)를 파괴하지 말 것, 저항하지 않는 자를 죽이지 말 것, 항복한 자를 죽이지 말고 치발(髮)할 것, 망명해 오는 자를 받아들여 보호할 것, 사로잡은 백성들의 가족을 서로 이산시키지 말 것, 부녀를 폭행하지 말 것' 등이 그것이었다.

12월1일 조선 원정에 동참할 몽골 버일러들이 병력을 이끌고 심양에 집합했다. 홍타이지는 이날, 정친왕(鄭親王) 지르가랑(濟爾哈朗)에게 심양에 남아 도성을 방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아지게(阿濟格)를 우장(牛莊)에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조선을 공격하는 와중에 혹시라도 명군이 배후에서 역습해 오는 상황을 우려한 조처였다. 우장은 압록강과 발해만으로 연결되는 전략 요충이었다. 당시 청은 명이 수군을 이용하여 발해만으로 들어와 내지에 상륙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조선 침략에 나서면서도 여전히 명의 위협을 염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2월2일 오전 홍타이지는 대군을 출발시키기에 앞서 당자(堂子)에 나아가 삼배구궤두례(三拜九頭禮)를 행했다. 당자는 까치를 신성시하는 만주족 샤머니즘 신앙의 상징물이었다. 이어 팔기의 깃발들을 도열해 놓고 주악을 울리며 다시 배천례(拜天禮)를 행했다.

홍타이지는 이어 도도(多鐸)와 마부대 등에게 병력 1300명을 따로 주었다. 그들 가운데 300명은 상인으로 변장시켰다. 그들을 신속히 서울로 진격시켜 궁궐을 포위하려는 깜냥이었다.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홍타이지의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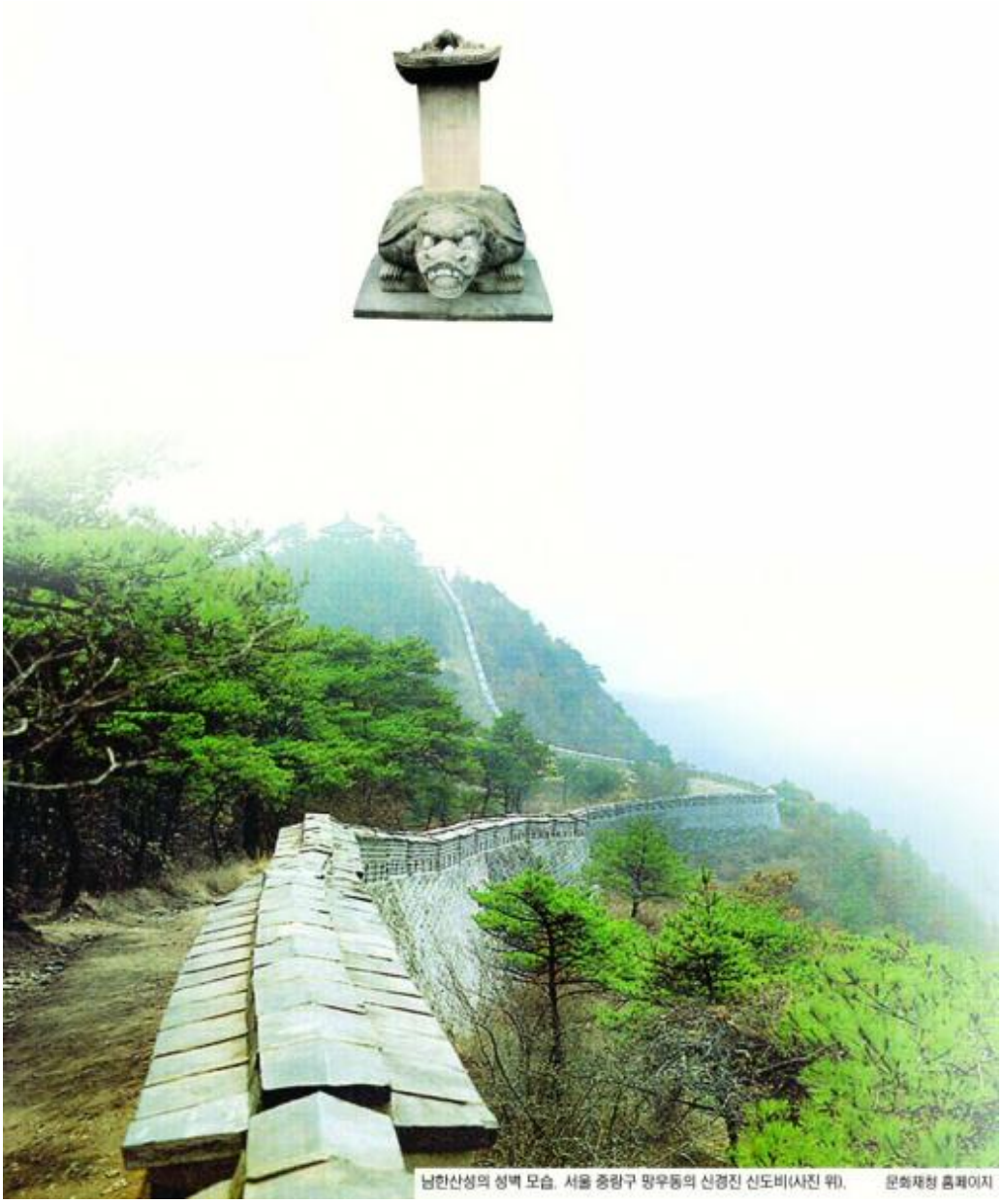
●무너진 통신체계

조선 침략에는 만주와 몽골군뿐 아니라 명에서 귀순한 한족 출신 장졸(-漢軍)들도 대거 동참했다. 공유덕, 경중명, 상가희(尙嘉喜)를 비롯하여 석정주(石廷柱), 마광원(馬光遠) 등 한군 지휘관들이 그들을 이끌었다. 청은 조선을 공략하기 위해 만몽한(滿蒙漢)의 모든 역량을 사실상 총동원했던 것이다. 한군들은 특히 홍이포(紅夷砲), 대장군포(大將軍砲)를 비롯한 중화기의 운용과 운반을 맡았다.

12월9일 의주부윤 임경업(林慶業)은 청군이 압록강을 건너 몰려오는 상황을 인지했다. '병자록' 에 따르면 이미 12월6일부터 청군과 관련된 이상 징후를 알리는 봉화(烽火)가 여러 차례 올랐지만,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은 그 상황을 서울에 제때 알리지 않았다. 그는 적이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 봉화가 알려질 경우, 서울에서 소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9일 적군이 이미 순안(順安)을 통과하여 안주를 향해 내달리는 상황에서야 김자점은 장계를 올렸다.

청군은 질풍같이 내달렸다. 조선은 청군의 철기(鐵騎)와 야전에서 맞서서는 승산이 없다고 여겨 주로 산성에 들어가 방어하는 전술을 구상했다. 하지만 청군은 조선군이 대비하고 있는 산성을 공격하여 시간을 허비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서울로 돌격하는 전술을 택했다. 사실 의주 부근의 백마산성도, 평양 부근의 자모산성도 서울로 이어지는 대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대로에서 적 기병을 차단하려 들지 않았던 것은 치명적이었다. 그나마 봉화마저 제때 올리지 않았고, 평안도 각지에서 올린 변보(邊報)는 청군 기마대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인조와 조정은 강화도는커녕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시간적 여유조차 가질 수 없었다. 전쟁은 이렇게 시작부터 음울했다.

1636년 12월10일 압록강을 건넜다. 이렇다 할 저항이 없었다. 그들은 곽산(郭山)과 정주(定州)에 사실상 무혈 입성했다. 홍타이지는 투항해 온 곽산과 정주의 군민들을 해치지 말라고 유시하는 한편, 그들의 머리를 깎아 치발(髮)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버일러 두도(杜度)에게 정예병을 뽑아 철산(鐵山)과 가도, 운종도(雲從島) 일대를 공략하라고 지시했다.15년 동안 목에 걸린 가시처럼 청을 배후에서 위협했던 가도의 동강진(東江鎭)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남한산성의 성벽 모습.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신경진 신도비(사진 위). 문화재청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동요하는 조선 조정

청군이 이미 안주를 지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김자점의 장계가 조정에 들어온 것은 12월13일이었다. 인조는 대신들을 불러모았다. 영의정 김류는 경기 일대의 군사를 빨리 불러모아 어가(御駕)를 호위하여 강화도로 들어가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인조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청군이 깊이 들어올 리가 없다며 좀더 기다려 보자고 했다. 김류가 다시 재촉하자, 인조는 신하들 가운데 늙고 병든 사람들을 먼저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청군의 철기(鐵騎)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조의 판단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무슨 근거로 적이 깊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우선 청군의 침입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도원수 김자점의 책임이 컸다. 또 청군 침입 직전, 격렬하고 지루하게 이어졌던 척화 · 주화 논쟁을 거치면서 인조의 판단력이 흐려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튿날 청군 철기가 이미 개성을 지났다는 보고가 다시 날아들었다. 다급해진 인조는 원임 대신 윤방(尹昉)과 승지 한흥일(韓興一)을 시켜 종묘에 모셔진 역대 선왕들의 신주(神主)를 수습하고, 빈궁(嬪宮)과 왕자들을 호위하여 강화도로 들어가게 했다. 한성판윤 김경징(金慶徵)을 검찰사(檢察使)로 삼아 강화도의 민정과 방어 문제를 책임지게 했다. 또 이민구(李敏求)를 부검찰사로 삼아 강화도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선박의 관리와 왕실 인척들의 배행(陪行)을 맡도록 조처했다.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가려 했던 때는 날이 이미 어두워지고 있던 무렵이었다. 인조 일행이 숭례문(崇禮門)에 도착했을 때, 청군이 이미 양철평(良鐵坪)까지 왔다는 보고가 날아들었다. 양철평은 지금의 은평구 녹번동 부근이다. 인조 일행이 당황하고 있을 때 마부대(馬夫臺)가 이끄는 청군 선봉은 이미 홍제원(弘濟院)을 지나고 있었다. 인조는 숭례문 문루로 올라가고 훈련대장 신경진(申 景)을 시켜 모화관(慕華館)으로 나아가 적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청군이 코앞에 들이닥치자 도성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로 빠져 들었다. 인조 이하 신료들이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와중에 피난하려는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최명길의 용기

인조는 결국 강화도로 들어가지 못했다. 청군 선봉이 시시각각 도성을 향해 옥죄어 오고 있는 데다 강화도로 이어지는 뱃길도 이미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광해군 시절부터 유사시의 피난지로 점찍어 준비해 왔던 강화도였다. 상당한 양의 식량과 화약도 비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인조는 정작 가장 절실했던 순간, 강화도로 들어가지 못했다. 허망한 일이었다. 당시 강화도까지 가려면 대략 이틀 정도가 걸렸다. 인조가 김자점의 장계를 받자마자 강화도행을 시도했으면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면 전쟁의 양상은 또 달라졌을 것이다. 청은 병자호란을 도발하기 전부터 조선을 깊이 연구했다. 그들은 유사시 조선 조정이 강화도로 들어가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모문룡(毛文龍)이 바로 자신들의 코앞에서 약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수군과 전함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던 그들이었다. 그들은 정묘호란 당시에도 비슷한 체험을 했다.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가는 바람에 맥이 빠져 버렸다. 이번에는 달랐다. 아예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던 것이다.

길이 막혔다는 소식에 인조와 조정 신료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댔다. 바로 그때 최명길이 나섰다. 자신이 청군 진영으로 나아가 담판을 벌이겠으니 그 틈을 타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라고 건의했다. 인조는 최명길에게 강화(講和)를 청하면서 시간을 벌어 보라고 지시했다. 절박한 위기의 순간, 인조는 다시 주화론 쪽으로 돌아섰다.

적장을 만나 시간을 벌겠다고 자청했던 최명길의 용기는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는 분명 전시(戰時) 상황이었다. 막 무악재를 넘어서려 하고 있던 마부대 일행에게 최명길의 출현은 '시간 끌기' 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았다. 가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최명길은 적진으로 나아갔고, 그가 마부대와 담판을 벌이는 사이 인조 일행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화친으로 나라를 망친 자' 라고 매도당했던 최명길이지만, 위기의 순간 신하로서 그가 보인 용기와 충성심은 참으로 대단했다.

최명길은 마부대에게 청군이 깊숙이 침입한 까닭을 물었다. 마부대는 '조선이 까닭 없이 맹약을 어겼으므로 새로 화약을 맺기 위해 왔다.' 고 둘러댔다. 조선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배후에서 홍타이지가 대군을 이끌고 내려오고 있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포석인지도 몰랐다.

한편 인조가 도성을 빠져나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처연했다. 도성을 버리고 피난하는 것이 이괄의 난, 정묘호란의 뒤를 이어 벌써 세 번째였다. 구리재(銅峴)를 넘어 수구문(水口門)으로 이어지는 파천 길에는 어가 행렬과 백성들의 피난 행렬이 서로 뒤엉켰다. 인조를 호위하던 군사들부터 갈팡질팡하여 대오가 흩어졌다. 혼란의 와중에 가족과 떨어져버린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넘쳐났다. 빨리 적을 피해야만 하는 황망한 상황에서 말이 제대로 준비될 리 없었다. 신료들 가운데는 말이 없어서 도보로 수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날은 어두워지고, 기온은 더 떨어지고 남한산성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강화도로 가자는 논의가 다시 등장하다

인조 일행은 저녁 9시가 다 되어서야 남한산성에 도착했다. 산성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논란이 벌어졌다. 영의정 김류는 인조에게 강화도로 가자고 다시 강청했다. 홍서봉(洪瑞鳳)과 이성구(李聖求)도 김류의 의견에 동조했고, 이홍주(李弘胄) 등은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김류는 강화도로 가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산성은 고립되어 양식과 말먹이가 부족하다. 강화도는 우리에게는 편리한 곳이나 저들에게는 침범하기 어려운 곳이다. 또 청의 본래 의도는 명을 치는 데 있으니 우리를 상대로 지구전(持久戰)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강화도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김류는 청군이 공유덕(孔有德) 등의 귀순을 통해 수군과 함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 청군이 함선을 갖고 있고, 수군을 지휘했던 경험이 있던 공유덕 등이 이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도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인조는 김류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다. 인조는 귓속말로 김류에게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물었다. 김류는 수행 인원을 단촐하게 줄여 과천과 금천(衿川 · 시흥)을 경유하면 강화도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대제학 이식(李植)은 일단 인천까지 가서 배를 타자고 했다. 병력과 군량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남한산성의 상황이 불안했던 것일까? 인조는 김류 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밀실에서 파천론이 다시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삼사의 언관들이 격렬히 반대했다.

1636년 12월15일 새벽, 인조 일행은 남한산성을 나와 강화도로 향했다. 하지만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고 비탈진 산길은 얼어붙었다. 말들이 미끄러지면서 어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인조는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길이 국왕을 알아 볼 리 없었다. 인조도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졌다. 신료들은 놀라 어가를 다시 돌렸다. 날씨마저 철저히 인조를 외면하고 있었다.

남한산성과 강화도

남한산성은 천험(天險)의 요새였다. 성곽의 가장 높은 누대에서는 도성과 살곶이(箭串場)가 한눈에 들어왔다. 더욱이 인조가 들어갔던 무렵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기온이 몹시 떨어져 성으로 오르는 길이 온통 얼어붙었다. 청군의 선봉이 제 아무리 '강철 같은 기마대(鐵騎)' 였다고 할지라도 어찌 할 수 없는 험지였다. 하지만 문제는 방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황망한 와중에 갑작스레 들어온 터라 수비할 군병도, 그들을 먹일 군량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 적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피신하는 문제를 놓고 조선 조정의 신료들은 날카롭게 대립했다. 사진은 강화성의 성벽.
문화재청 홈페이지

● "고립된 성 위험" 강화도행 주장 나와

일부 신료들이 남한산성에 들어오자마자 강화도로 가자고 주장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산성을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김류와 이식(李植)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김류는 고립된 성에 계속 있으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강화도 행을 강조했고, 이식은 오히려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면 적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견 대립은 서로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식이 먼저 "김류는 문재(文才)로 발신한 사람이라 일을 도모하는 것이 시원찮다." 며 자극했다. 김류는 발끈했다. "이식은 서생(書生)이라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 며 맞받아 쳤다.

강화도로 들어갈 시간적 여유를 앗아가 버린 장수들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장령(掌令) 이후원(李厚源)은 도원수 김자점을 군율로 처단하라고 요구했다. 그가 적과 접전 한 번 제대로 시도하지 않고, 보고조차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적이 서울로 직행할 수 있었다고 비난했다. 사헌부 신료들은 적을 막는데 실패한 부원수 신경원(申景瑗), 평안병사 유림(柳琳), 의주부윤 임경업(林慶業) 등과 도원수 김자점을 싸잡아 비난했다. 하지만 인조는 김자점 등을 군율로 다스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전쟁이 터지기 전, 적과의 싸움을 회피하는 장수는 엄벌하겠다던 엄포는 어디

론가 사라져 버렸다.

도성을 겨우 빠져 나와 어렵사리 산성으로 들어 왔던 후유증 때문인지 인조는 몹시 지쳐 있었다. 인조는 김류 등의 강청에 못 이겨 15일 새벽, 강화도로 가기 위해 산성을 나섰다가 발뒤꿈치에 동상까지 걸렸다. 수행하던 신료들은 부랴부랴 인조를 털방석으로 감싼 채 남문을 통해 성으로 돌아왔다. 인조는 남문에서 교자를 타고 행궁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인조가 동상이 걸린 이후, 강화도로 가자는 주장은 점차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고립된 산성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일부 신료들은 세자라도 강화도로 보내야 한다고 했고, 일부는 강화도 대신 남쪽으로 내려가자고 주장했다. 채유후(蔡裕後)는 국가의 회복은 오로지 영남과 호남에 달려 있다며 동궁(東宮)을 양남으로 보내라고 촉구했다. 동궁이 내려가면 군사를 모으는 것은 물론 사대부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며 호남으로 가는 것이 상책, 영남으로 가는 것이 중책, 강화도로 가는 것이 하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군의 의도를 오판하다



▲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塹星壇)

최명길이 마부대를 만난 뒤 올린 장계가 산성에 도착하자 조정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부대는 최명길에게 자신들이 깊숙이 들어온 이유를 조선과 화친을 다시 맺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다.

김류는 최명길의 장계를 토대로 상황이 정묘호란 당시와 비슷하고 '청군의 의도는 서약을 다시 맺는데 있는 것 같다.' 며 낙관론을 폈다. 김신국(金藎國)은 "그들 뒤에 후군(後軍)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로지 화친에 뜻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며 김류의 의견에 동조했다. 마치 화약을 맺기 위해 선봉대만 내려온 것처럼 가장하려 했던 마부대의 기만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인조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최명길이 마부대에 속은 것 같다며 김류 등의 낙관론에 대해 찜찜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주변에서 '화친' 을 운운하자 청군의 사자(使者)가 올 경우, 그들을 산성 안으로 들일지의 여부를 물었다. 사자 이야기가 나오자 이경증(李景曾)은 "청사(請使) 접대에 필요한 소는 구할 수 있는데 술을 구할 수 없어 고민" 이라며 그들과의 화친을 아예 기정사실로 여기는 발언을 했다. 청군의 침략 의도와 관련하여 이성구(李聖求)만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명을 공격하려는 홍타이지의 의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청군이 평양 이남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다.' 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1636년 12월15일 저녁, 청군의 사자가 산성 근처에 나타났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적이 코앞에 와 있다는 현실을 비로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김류는 인조에게 강화도로 피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성구도, 신료들을 산성에 두고 대장 10여인을 거느리고 빠져 나가면 남양(南陽)에서 배를 탈 수 있다고 인조에게 강화도로 가라고 채근했다. 인조의 표정은 어두웠다. "경들은 모두 어진 사대부들인데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니 개탄스럽다." 며 탄식을 내뱉었다. 잠시 후 신경진이 새로운 정보를 들고 나타났다. 청군이 이미 한강을 건너와 봉은사(奉恩寺) 근처에 진을 쳤다는 소식이었다. 인조는 갑자기 '국운이 이미 다했으니 치욕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올바르게 죽고 싶다.' 며 결연한 자세를 보였다. 어느 순간 강화도로 가자는 논의는 다시 가라앉고 있었다.

●김경징의 '멸공봉사(滅公奉私)'

신료들 가운데는, 영의정이자 도체찰사(都體察使)인 김류가 산성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강화도 행을 계속 고집하는 것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 12월15일, 사간 김홍욱(金弘郁), 주서 이도장(李道長) 등은 '김류는 가족들이 모두 강화도에 있기 때문에 대가를 옮기자고 청하는 것' 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월13일, 강화도를 책임질 검찰사(檢察使)로 김류의 아들 김경징(金慶徵)이 추천되었을 때 인조는 김류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류는 자신의 아들이 직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인조는 김경징을 검찰사로 임명했다.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인조는 인조반정의 원훈(元勳)이자 영의정인 김류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조의 이 결정은 엄청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무렵, 도성 안팎의 모든 사람들은 강화도로 들어가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여겼다. 당시 강화도로 가려면 양화진 등지에서 배를 타고 김포까지 간 다음 다시 배를 타고 갑곶 등지로 상륙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하지만 한강이 얼어 있던 상황에서 배를 이용하여 김포로 가는 것은 여의치 않았다.

자연히 육로를 통해 김포로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다. 문제는 이들을 강화도로 실어 나를 배편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김경징은 검찰사로서 배를 차출하고 그 배에 누구를 먼저 태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거머쥐었다.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생사여탈권이나 마찬가지였다.

김경징은 도성을 출발할 때부터 철저히 '멸공봉사(滅公奉私)'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인조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는 자신의 모친과 처를 옥교(屋轎)에 태우고 집안의 재물을 운반하기 위해 인부들을 동원했다. '양구기사(陽九記事)' 등에는 김경징 집안의 가솔과 50개나 되는 재물 궤짝을 운반하기 위해 경기도의 마부들이 거의 모두 동원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경징은, 말을 타고 가던 자기 집안의 비녀(婢女)가 말에서 떨어지자 노상에서 마부에게 매타작을 퍼부었다.

강화도로 가는 배에도 당연히 가족들을 비롯하여 자신과 친한 사람들을 먼저 태웠다. 왕세자빈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루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하물며 일반 사족이나 백성들은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김경징은 강화도의 방어와 그 섬으로 들어간 왕실 인척들의 안위를 책임질 그릇이 아니었다.

만몽한(滿蒙漢)의 정예들을 끌어 모아 침략해 온 청군 앞에서 국가의 안위를 책임졌던 당국자들 가운데는 김자점이나 김경징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비극이었다.

[병자호란] (24) 남한산성의 나날들

2013.01.27 23:24

남한산성의 나날들 I

인조의 가짜 아우 인질로 보냈다가 더욱 궁지에…

인조는 결국 강화도로 가는 것을 포기했다. 건강이 여의치 않은데다 주요 길목을 청군이 모두 봉쇄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강화도 행을 시도하다가 청군에게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 강화도 행을 계속 고집할 경우, 산성을 지키는 장졸들의 사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12월15일, 도체찰사 김류가 인조에게 계속 강화 행을 채근하고 있다는 소식에 산성에 모여든 병사들이 수성(守城)을 거부하며 술렁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제 죽으나 사나 남한산성에 운명을 걸어야 할 판이었다.



▲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피난했던 남한산성 행궁(行宮).행궁이란 임금이 임시로 거처했던 곳으로,남한산성 행궁은 발굴조사를 거쳐 최근 일부가 복원됐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인조, 군량 부족한데 지구전 계획 지시

당시 남한산성에 있던 병력의 숫자는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소 1만 2000에서 최대 1만 8000 정도로 추산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비교적 훈련이 잘 된 어영군(御營軍)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광주(廣州), 수원, 여주, 양주(楊州) 등지에서 끌어 모은 병력이었다. 조선 침략에 동원된 청군 병력은 대략 12만 정도로 보고 있다. 조선군은 이제 외로운 성에서 거의 10배 가까이나 많은 적을 상대해야 할 운명이었다.

비록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오합지졸들이 많았지만, 농성 초기의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적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컸던 와중에도 산성의 형세가 몹시 험준하다는 사실은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험준한 산성을 굳게 지키며 근왕병을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성을 등지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자.' 라는 주장도 분명히 있었다.

12월15일, 인조는 장수들에게 방어할 지역을 할당했다. 훈련대장 신경진(申景)에게 망월대(望月臺)를 지키게 하고,

호위대장 구굉(具宏)에게 남성(南城)을, 총융사(摠戎使) 이서(李曙)에게 북성(北城)을, 수어사(守禦使) 이시백(李時白)에게 서성(西城)을 맡겼다.

문제는 군량이었다.1637년 1월8일, 관량사(管粮使, 군량 담당관) 나만갑(羅萬甲)은 '애초 군량이 6000 석 정도였는데 이제 2800여 석이 남았다.' 고 보고했다. 인조가 입성한 다음날인 12월15일 아침부터 계산하면 24일 동안 대략 3200여 석의 양곡이 소비되었다. 하루 평균 130석가량의 군량이 없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12월15일을 기점으로 따져볼 때, 조선 조정이 남한산성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45일 남짓이었던 셈이다. 물론 갑자기 격변이 생겨 청군이 포위를 풀고 물러가는 사태나, 외부로부터 군량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말이다. 군량이 고갈될 날짜를 빤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하릴없이 시간만 보내며 지구전을 펼치면 안 된다.' 는 목소리가 있었다. 나만갑도 인조에게 보고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다.

하지만 인조는 "군량을 담당하는 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구전을 벌일 수 있는 계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군량을 이어댈 방도가 여의치 않았던 나만갑의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명길 등은 다시 화친을 모색

남한산성에 들어온 직후부터 최명길은 부산하게 움직였다. 산성과 청군 진영을 오가면서 꺼져가던 화의(和議)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부심했다. 무악재 부근에서 최명길을 만났을 때, 마부대 등은 강화를 다시 맺으려거든 왕의 동생과 대신(大臣)을 인질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최명길의 보고를 들었을 때, 조정은 종친 능봉수(綾峯守) 칭( )의 품계를 군(君)으로 올려 인조의 아우로 칭하고 형조판서 심집(沈)에게 대신의 가함(假銜)을 주어 적진으로 보내기로 했다.

임기응변이었다. 하지만 너무 안이하고 위험한 대처 방식이었다. 홍타이지는 심양을 출발하기 전에 내린 유시에서 '정묘년에 화약을 맺은 이후 조선이 자신들을 속였다.' 는 것을 침략 명분으로 내걸었다. 실제 그들은 정묘호란 당시에도 가짜 왕자를 내세워 자신들을 속인 것 때문에 조선을 불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조정에서는 '가짜 왕제(王弟)' 와 '가짜 대신' 을 보내는 것의 위험성을 문제삼은 사람이 없었다. 남한산성 농성 초기, 조정에는 '청군은 화약만 맺으면 곧 철수할 것' 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퍼져가고 있었다.12월16일, 심집 일행은 청군 진영으로 들어갔다.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심집은 임기응변에 능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청군 진영으로 가기 전 "나는 평소 말을 신실하게 해왔으니 오랑캐라고 해서 속일 수는 없다." 고 자신의 '소신' 을 말한 바 있다. 실제 마부대가 왕제와 대신의 진위(眞僞) 여부를 물었을 때, 겁먹은 심집은 숨기지 못하고 자신과 능봉수가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능봉수는 자신이 왕제라고 강변했지만 청군 지휘부는 믿지 않았다.

심집의 실토는 예기치 않은 희생과 부작용을 낳았다. 당시 역관 박난영(朴蘭英)이 청군 진영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마부대는 박난영에게 '심집의 말이 맞느냐.' 고 물었다.

박난영이 '능봉수의 말이 맞다.' 고 하자, 뒤에 속은 것을 깨달은 마부대는 박난영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 박난영의 비명횡사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었다. 그는 일찍이 광해군 말년부터 조선과 후금을 수없이 오가며 양국의 입장을 조율했던 '베테랑' 역관이자 외교관이었다.

'가짜 왕제' 때문에 격분한 청군 지휘부는 심집 일행을 퇴짜놓았다. 놀란 조선 조정은 좌의정 홍서봉(洪瑞鳳)과 호조판서 김신국(金藎國)을 청군 진영에 보내 '봉림(鳳林)과 인평(麟坪) 두 대군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겠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강화도에 있으니 미처 보낼 수 없다.' 고 다시 제의했다. 역시 임기응변 책이었다. 그러자 청군 지휘부가 역공을 취했다. 마부대는 '이제 왕세자를 보내지 않으면 화친은 없다.' 고 했다.

혹을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격이었다. 조선은 봉림대군 등이 강화도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청군 지휘부가 '왕자 카드' 를 접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소현세자(昭顯世子) 카드' 를 빼들었다. 섣부른 임기응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조선 조정은 다시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청군은 삼남지역 길목까지 차단하고

왕세자를 보내라는 청군 지휘부의 요구는 '화친이 곧 성공할 것' 이라는 막연하고 낙관적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더욱이 12월16일 청군은 산성을 포위했고, 일부는 판교(板橋)까지 나아가 삼남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차단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화친이 물 건너간 듯이 보이는 상황에서 청군이 산성을 포위하자 이런저런 추측과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청군 진영을 다녀온 윤휘(尹暉)는 청군의 행태와 관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의문점을 인조에게 토로했다. "신이 생각건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랑캐의 성품은 몹시 탐욕스러운데 어찌 된 일인지 피란민들의 물건을 일절 약탈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오는 아주 잘 정돈되어 있고, 전마(戰馬)는 멀리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괴이하고 흉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휘는 다른 신료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화이론(華夷論)의 입장에서 청군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이론의 눈으로 보면 청군은 당연히 '탐욕스럽고 야만적인 오랑캐답게' 행동을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대오도 정제되어 있고, 조선 피란민들을 함부로 약탈하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일부 신료들이 화친을 다시 추진하는 와중에 이경석(李景奭)은 적과 결전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 상놈 가운데 적의 목 1개를 벤 자는 양반으로 삼고 은 20냥을 주고, 목 10개를 벤 자에게는 첨사(僉使) 벼슬을 주자고 했다. 영의정 김류가 당장 제동을 걸었다. '고립된 성의 얼마 되지 않는 약졸(弱卒)들로써 싸움을 걸었다가 패할 경우 대책이 없다.' 는 이유를 내걸었다.
김류는 이어 최명길, 장유(張維) 등과 함께 인조에게 '세자를 적진으로 보내고, 홍타이지를 황제라고 불러야 한다.' 고 주청했다.
소식을 들은 예조판서 김상헌이 비변사에 나타나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죽여 버리겠다.' 고 호통을 쳤다.
인조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과연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남한산성에서의 사흘은 정신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남한산성을 공략하려는 청군 지휘부의 계책은 치밀했다. 그들은 성 주변에 참호를 파고 목책을 설치했다. 이미 1631년 홍타이지가 명의 대릉하성(大凌河城)을 공략할 때 사용했던 전술이었다. 성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그야말로 고사(枯死)시키려는 작전이었다. 그러면서 때때로 홍이포(紅夷砲)를 발사하여 돈대(墩臺)와 성첩(城堞)을 파괴하면 성안의 공포심은 극에 이르게 된다. 군량은 나날이 줄어드는데 보충할 방도는 없고, 학수고대하는 외부 구원병은 오는 족족 청군 복병들에 의해 궤멸되었다. 명장 조대수(祖大壽)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던 그 전술이 남한산성에서 재연될 판이었다.



▲ 1126년 금군(金軍)에 의해 유린당한 송(宋)의 수도 개봉(開封)에 남아 있는 황궁.
필자 제공

●김류, 인조의 탈출을 건의하다

청군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데, 구원군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고립된 산성에 갇힌 인조와 신료들은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소식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다.

청군 진영을 다녀온 사절들이 들고 온 소식에 조정의 분위기는 극과 극을 달렸다. 능봉수 일행이 '이제 세자를 보내지 않으면 화친을 논의할 수 없다.' 는 소식을 가져오자 조정의 분위기는 다시 침울해졌다. 화친이 물 건너가고 말았다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화친이 불가능하다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산성의 방어 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1636년 12월17일 도체찰사 김류는 성첩(城堞)을 지킬 병력이 부족하다며 상을 내걸어서라도 병사들을 빨리 모집하라고 촉구했다. 병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이런 판국에 도원수 김자점과 부원수 신경원(申景瑗)은 도대체 그 많은 병력을 이끌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휘하 병력을 이끌고 달려와 산성 방어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 아닌가? 인조는 답답했다. 급히 두 사람에게 교서(敎書)를 보냈다. '거가(車駕)가 바야흐로 포위된 성안에 있는데 안으로는 믿을 만한 형세가 없고 밖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 구원하러 오지 않는다. 나라의 존망이 경각에 달렸는데 화사(和事)는 이미 끝장났다. 경은 속히 병력을 이끌고 들어와 구원하라.' 하지만 김자점 등은 오지 않았다.

초저녁 무렵 김류를 비롯한 중신들이 인조에게 뵙기를 청했다.

김류는 인조에게 이제 탈출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랜 병사들을 뽑아 적을 기습하여 길을 열고, 인조가 옷을 갈아입고 탈출하자는 복안이었다. 인조는 반대했다. 적이 도성에 들어와도 화살 1발 제대로 쏴보지 못한 처지에 탈출 작전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김류는 남송(南宋) 고종(高宗)의 고사를 들고 나왔다. 고종은 1126년 금군(金軍)이 송의 수도인 개봉(開封)을 유린했을 때(정강의 변), 탈출에 성공했던 강왕(康王) 조구(趙構)를 가리킨다. 당시 포로가 되어 금으로 끌려갔던 휘종(徽宗)의 아홉째 아들이었던 그는 이후 제위에 올라 양자강 남쪽에서 송의 종사를 잇는 데 성공했다. 김류는 고종의 고사를 강조하면서 인조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화, 척화 논쟁이 다시 가열

인조는 다시 난색을 표했다. 청군의 복병이 곳곳에 깔려 있어 섣불리 시도할 경우 위험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자 장유(張維)가 화친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군이 '왕세자 운운' 한 것은 그들에게 화친할 의사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화친을 포기하면 고립된 성에 앉아 죽을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유도 이제 공공연히 주화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장유의 발언을 계기로 대신들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는 조짐을 보였다. 김류는 인조에게 종사를 위해 화(禍)를 완화시킬 계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조는 "위로는 종사를 위하고 아래로는 백관들을 위해 내가 할 일은 이미 다했다. 이제 대책은 경들에게 달렸다." 고 응수했다. 마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인조가 다시 대책을 묻자 장유가 말끝을 흐렸다. 그는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할 일' 이 있다고 했다. 왕세자를 인질로 보내자는 내용이었다. 김류는 '인질을 보내는 것은 예로부터 있던 일이고, 설사 세자를 적진에 보내도 심양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인조는 한숨을 내쉬며 신하들의 뜻이라면 세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왕세자 입송론(入送論)이 제기된 뒤 홍문관과 시강원(侍講院) 신료들이 인조에게 달려왔다. 이시해(李時諧)는 적은 지구전을 획책하려 들지 결코 화친을 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조를 만류했다. 그러면서 딴생각하지 말고 성을 지키며 적과 싸울 의지를 다지라고 촉구했다.

신료들은 왕세자를 오랑캐 진영으로 보내라고 주장한 자를 색출하라고 촉구하며 일제히 통곡했다. 그들은 예로부터 간신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은 화의(和議)에서 비롯되었다며 주화론자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국사를 망칠 것이라고 극언했다.

인조는 홍문관과 시강원 신료들이 물러간 뒤 대신과 비변사 당상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을 보자마자 인조는 울음을 터뜨렸다. '재덕이 변변치 못한 내가 본래는 잘해 보려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며 인조반정을 언급했다. '아, 폐조(廢朝) 시절에도 없었던 일을 당하고 말았구나! 나라의 윤기(倫紀)가 사라졌을 때, 여러 어진 이들과 함께 반정하여 보위에 오른 지 이제 14년인데 끝내는 견양금수(犬羊禽獸)의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변변치 못한 나 때문에 망극한 일이 벌어졌으니 경들은 어찌할 것인가?' 라며 울먹였다. 김류를 비롯한 신료들도 같이 통곡했다.

'폐조' 란 광해군 시절을 가리킨다. '명에 대한 의리를 외면하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양단을 걸쳤다.' 는 것을 빌미로 광해군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인조였다. 그런데 이제 '패륜아' 라고 매도한 광해군조차 겪지 않았던 '견양금수의 늪' 에 자신이 빠지게 될 줄이야? 인조가 무엇보다 뼈아파했던 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감정이 북받친 인조는 척화신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연소한 자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과격한 논의로써 끝내 이같은 화란을 부른

것이다. 당시에 만약 저들의 사자를 박절하게 배척하지 않았더라면 화란의 형세가 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인조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당시에는 자신도 척화신들의 주장을 정론(正論)으로 여겼으니 누굴 원망하겠느냐며 말끝을 흐렸다. 인조의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인조 "왕세자 보낼 수 있다"

인조는 홍서봉에게 청군 진영에 가서 적장을 만나 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전날의 일을 사과하고, 청군이 조금 물러나면 왕세자라도 보낼 수 있다고 제의하라고 했다. '왕세자를 보낼 수도 있다.' 는 인조 발언을 계기로 화친론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성구(李聖求)가 인조를 찾아왔다. 그는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사방의 근왕병을 불러들여 적과 결전을 벌일 태세를 갖춰야 적도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 화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화친을 청할 경우 오욕이 있을 뿐이니 군신 상하가 결사항전의 태세부터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헌 또한 결전이 없이는 화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동조했다.

맞는 말이었다. 고립무원에 군량마저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청군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싸움이었다. 이성구 말대로 이쪽에서 적을 위협할 만한 최소한의 '카드' 가 있어야만 적을 움직일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은 '무장들이 화의에 미혹되어 군량 걱정만 하고 있다.' 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미 부귀가 극에 이른 무장들에게 적진을 함락시키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12월17일 조정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적이 성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조선군은 발포하지 않았다. 어쨌든 화의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적진에 갔던 홍서봉 일행이 돌아와 화의를 추진하기가 어렵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청군이 증강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인조는 그만하라고 역정을 냈다. "방바닥이 너무 차서 늙고 병든 자들이 견디기 어렵다." 는 것이었다. 인조의 짜증처럼 산성의 하루하루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왕세자를 보내지 않으면 화친은 꿈도 꾸지 말라는 청군 지휘부의 요구가 있은 직후 성안의 분위기는 복잡했다. 여전히 화친을 시도해야 한다는 부류와 화친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한다는 부류로 나뉘었다. 결단은 쉽지 않았다.1636년 12월17일 청군이 성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음에도 도체찰사 김류는 발포하지 못하게 했다. 행여 청군을 자극하여 화친 시도를 망칠까봐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조선 편이 아니었다.

화친이든, 결전이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갈팡질팡할 경우 얼어 죽거나 굶어 죽기 십상이었다.



▲ 눈 쌓인 겨울의 남한산성 모습.
경기 광주시 홈페이지

●군량 고갈 · 동상환자 속출로 지구전 불가

포위가 길어지면서 남한산성의 형세는 날이 갈수록 고단해졌다. 성을 에워싼 청군의 압박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여러 가지 물자들이 고갈되고 있었던 점이었다.

남한산성에 몰아친 한파는 혹독했다. 갑자기 소집되어 들어왔던 병사들이 방한(防寒) 장구를 제대로 갖췄을 리 없었다. 그저 빈 가마니 하나를 방한복 삼아 두른 채 밤새도록 살을 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다. 이미 12월17일 성첩을 지키는 병사들이 추위 때문에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동상에 걸리는 병사들이 속출했다. 군량이 고갈되는 와중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동상에 걸리는 병사가 속출하자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군량을 비롯한 물자가 부족해지자 후유증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왔다. 당장 먹이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 전마(戰馬)들이 축축 늘어지기 시작했다. 굶주려 늘어져 버린 말을 타고 무슨 전투를 치를 것인가? 성으로 들어온 지 닷새도 되지 않아 극심한 추위와 물자 부족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가 도저히 곤란하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었다.

지구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퍼져가자 결전론(決戰論)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김상헌(金尙憲)을 비롯한 일부 신료들은 적과의 화친을 성공시키려면 전투를 치러 아군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었다. 시간은 이미 홍타이지와 청군 편이었다. 제대로 된 전투를 치러 어느 정도 타격을 주어야만 청군도 화친을 고려할 것이고, 화친의 조건 또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

청군과의 화의(和議)를 주도하던 최명길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은을 상으로 내걸어 용사들을 모집한 뒤, 그들을 시켜 적을 기습하자고 주장했다. 타격을 주어 곤혹스럽게 만들어야만 청군이 다시 강화를 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명길은 더 나아가 적정을 세밀하게 정탐한 뒤 광주(廣州)와 이현(梨峴)에 있는 청군 주둔지를 급습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인조 때 산성을 쌓는 데 크게 공헌한 이회(李晦)를 모신 사당인 청량당(淸凉堂).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안팎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인조는 두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는 기습 작전을 벌일 장사들을 빨리 모집하라고 지시했다.

●규모 작지만 수성 뒤 첫 승리 거둬 사기↑

싸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 서자 인조는 성을 사수하며 결전을 벌이기로 마음을 다잡았다.12월18일 인조는 친히 산성을 순시하면서 방어 태세를 점검했다. 서장대(西將臺-守禦將臺)까지 돌아본 인조는 성첩을 지키는 병사들을 위로하는 조처를 내렸다. 엄동설한에 분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군(中軍) 이하 장졸 가운데 6품이 안 된 자는 6품 실직(實職)을 주고,5품 이상은 순서대로 승진시키라고 지시했다. 또 성첩 수비군들에게 향후 10년 동안 전세(田稅)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인조는 이어 행궁(行宮) 주방에서 사용하던 은기(銀器)를 모아 병사들에게 상을 내리는 데 쓰라고 지시했다.

인조는 남문으로 거둥하여 대소 신료들과 장졸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유시문을 내렸다. '정묘년에는 종사(宗社)와 생령(生靈)들을 위해 임시로 화친을 허락하고 치욕을 감수했다. 지금 오랑캐가 황제를 참칭(僭稱)하고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므로 천하의 대의를 위해 그 사신을 배척했다가 이 같은 환란을 만났다. 이제 화의는 이미 끊어졌고 오로지 결전이 있을 뿐이다. 이기면 상하가 모두 온전할 것이요, 이기지 못하면 상하가 모두 망할 것이다. 저 오랑캐가 외로운 형세로 깊숙이 들어왔으니, 사방의 원병이 이어 달려오고 하늘이 돕는다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아비가 자식을 구하고 자식이 아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싸운다면 병력이 비록 적어도 적을 물리칠 수 있나니, 하물며 지금 우리는 많고 적들은 적음에랴!'

인조는 유시문에서 결연한 자세를 드러냈다.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의지는 결연했지만 청군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었다. 적군이 깊숙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그들의 병력이 조선군보다 적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12월15일 남한산성 부근에 도달했던 마부대 일행의 병력은 4000여명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산성으로 몰려드는 적병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조선 조정은 청군이 증강되고 있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고립된 상황에서 적정(敵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인조가 유시문을 내린 것을 계기로 성안의 분위기는 결전의 방향으로 돌아선 것 같았다. 더욱이 인조가 남문으로 갔을 때 전 참봉(參奉) 심광수(沈光洙)가 '최명길을 참수하여 화의를 끊고 백성들에게 사과하라.' 고 촉구했다. 입장이 곤란해진 최명길은 거둥 행렬에 있다가 자리를 피했다.

이날 어영부사(御營副使) 원두표(元斗杓)가 정예병 50여명을 이끌고 북문을 열고 나아가 적을 기습했다.

청군은 당황했고 조선군은 처음으로 적 6명을 살해했다. 산성으로 들어온 이후 거둔 첫 번째 승리였다. 아쉬운 것은 그들의 수급(首級 · 적군

의 머리)을 획득하지 못한 점이었다. 당시 청군은 전사한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가져가는 데 결사적이었다. 동료의 시신을 적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불문율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원두표 군의 승리는 성안의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청의 대군 몰려와도 깜깜한 조정

12월19일부터 23일까지 조선군은 성밖으로 나가 기습작전을 벌이는 등 소소한 전투를 계속 치렀다. 총융사(摠戎使) 구굉(具宏)과 어영별장(御營別將) 이기축(李起築) 등이 출전하여 전후로 청군 100여명을 죽였다.23일에는 어영군이 청군의 수급을 가져와 성 안에 높이 매달기도 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청군에 비해 조선군의 피해는 미미했다. 전후의 전투에서 10명 이내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각각 발생했을 뿐이었다.

인조는 수시로 성을 순시하며 장졸들을 위로하고, 전사한 장졸에게 휼전(恤典)을 베풀 것과 그 자손들에게 벼슬을 주라고 지시했다.

몇 차례의 작은 승리를 통해 청군과 싸워 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은 분명 큰 수확이었다. 또 몇 차례 당한 기습에 영향을 받았는지 12월20일과 22일에는 청군 지휘부가 역관 정명수(鄭命壽) 등을 보내와서 다시 화친을 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미 12월19일 오후, 청군의 좌익(左翼) 주력군 2만 4000명이 남한산성에 도착했다. 성안의 조선 조정은 이 같은 바깥의 변화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만 산성 주변에 포진한 청군 진영에서 불길이 오르고, 산성 서쪽의 먼 곳에서도 불길이 오르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그저 추측할 뿐이었다.

조선 조정은 여전히 근왕병이 오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시백(李時白)은 인조에게 열흘 정도만 버티면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에서 근왕병이 올라올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발언이었다.12월19일 인조는 강화유수(江華留守) 장신(張紳)과 강화도 검찰사 김경징(金慶徵)에게 납서(蠟書 · 밀랍으로 감싼 비밀 문서)를 보냈다. 도원수와 여러 지방의 관찰사, 병사(兵使)들에게 연락하여 근왕병을 이끌고 빨리 산성으로 오게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강화도는 남한산성과 달리 물길을 통해 다른 지역과 통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였다.

근왕병은 과연 올 것인가?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며 근왕병을 학수고대하는 사이 어느덧 병자년이 저물고 있었다.

[병자호란) -(25) 근왕병이 패하다

2013.01.27 23:28

근왕병이 패하다 ㅣ

팔도 근왕병 속속 기치 들지만 중과부적에 한숨만…

몇 차례 소소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고, 날씨가 추운 것도 그대로였다. 근왕병이 올 기약은 보이지 않는데 식량이 줄어들면서 조바심은 갈수록 높아졌다. 산성의 민심도 심상치 않았다. 성 밖으로 나가 전투를 치렀던 병사들 가운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비단 옷 입은 벼슬아치들은 후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왜 우리들만 사선(死線)으로 밀어 넣느냐?' 는 항변이었다. 이렇게 저렇게 안간힘을 써 보고 있었지만 청군의 포위망은 좀처럼 뚫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 남한산성의 숭렬전. 백제 시조 온조 임금과 남한산성 축성의 총책인 이서 장군을 모신 사당. 청이 침입하자 인조는 어영대장 이서로 하여금 성을 지키도록 하고 8도에 교서를 내려 근왕병을 모집했다.
경기 광주시 홈페이지

●명을 향한 丹心은 변함 없건만

1636년 12월24일, 진눈깨비가 내렸다. 이날은 명 나라 황제의 생일이었다. 이른바 성절(聖節)이다. 인조는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북경 황궁(皇宮)을 향해 절을 올렸다. 충성스러운 조선이었다. 청군에 쫓겨 손바닥만 한 산성에 갇혀 버린 상황에서도 황제에 대한 망궐례(望闕禮)는 거르지 않았다.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도 되지 않는다고 펄펄 뛰었던 것도 사실은 명나라 때문이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이 세상의 황제는 오로지 한 사람뿐이었다. 대다수 신료들은 명에 대해 충성과 의리를 지키려다가 조선이 이렇게 참담한 지경으로 내몰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선의

일편단심을 명나라는 과연 알고 있는 것일까?

진눈깨비가 비로 바뀌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성첩을 지키는 장졸들의 몸이 모두 젖었다. 인조는 세자와 함께 행궁 후원(後苑)으로 갔다. 기청제(祈晴祭)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향을 피우고 네 번 절을 올린 뒤, 축문을 읽었다.

"이 외로운 성에 들어와 믿는 것은 하늘뿐인데, 찬비가 갑자기 내려 모두 흠뻑 젖었으니 끝내는 얼어죽고 말 것입니다. 이 한 몸이야 죽어도 아까울 것 없지만 백관과 만백성이 하늘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날을 개게 하시어 우리 신민들을 살려 주옵소서."



▲ 숭렬전의 원래 이름은 '온조왕사'였으나 정조 19년(1795)에 왕이 '숭렬(崇烈)'이라는 현판을 내려 숭렬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인조는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울면서 계속 기도했다. 옷이 모두 젖어도 멈추지 않았다. 승지들을 비롯한 주변의 신료들도 비를 맞으며 같이 울었다. 승지들이 인조를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다. 대신들이 달려왔다. 영의정 김류가 어의(御衣)를 잡아당기며 만류한 뒤에야 인조는 다시 사배(四拜)하고 일어났다.

일어난 뒤에도 인조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둥 옆에 자리를 깔고 앉아 통곡했다. 인조의 처절한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는지 얼마 뒤 비가 그쳤다.

●근왕병 소식 전해지다

12월24일, 산성 안의 마초(馬草)가 고갈되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말에게 줄 먹이가 없는 이상 기마전을 벌이기는 글러버렸다. 바야흐로 조선군 장졸들은 말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날 체찰부(體察府) 군관(軍官) 임몽득(任夢得)이 희소식을 전했다. 충청병사 이의배(李義培)가 12월19일 병력 4000명을 이끌고 올라와 죽산(竹山)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전진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인조는 성의 형세가 한결 나아졌다고 기뻐했다. 김류는 충청도 군사에 이어 경상도 근왕병도 차례로 올라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성안의 분위기는 일시에 밝아졌다. 김류는 근왕병들이 성안의 형세를 잘 몰라서 전진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사대를 모집하여 죽산으로 보내자고 했다.

하지만 산성에서 보내는 전령이 죽산까지 도달한다는 보장은 없었다. 곳곳에 배치된 청군 복병들 때문이었다. 이미 충청병사가 보낸 전령이 산성 문 앞까지 다 왔다가 청군 복병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우울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충청도 근왕병이 산성 근처로 다가오기를 고대하고 있던 12월26일, 마침내 강원도에서 근왕병이 달려왔다. 강원감사 조정호(趙廷虎)에게 소속된 병력이었다. 그는 청군의 침략 소식을 들은 직후 도내 각 고을 수령들에게 병력 동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조정호는 병력을 이끌고 12월24일 양근(楊根 · 양평)으로 진군했다. 그는 양근에서 후속 부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원주영장(原州營將) 권정길(權井吉)을 선봉장으로 삼아 남한산성 쪽으로 먼저 진군하게 했다. 권정길 휘하에는 원주, 횡성, 인제, 홍천 출신의 병력 약 1000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권정길은 12월26일 병력을 이끌고 남한산성 부근의 검단산(檢丹山)까지 진출했다. 행군 도중 인제 출신 병사들이 청군 2명을 잡아 목을 베고 그들의 말을 노획해 왔다. 권정길은 청군의 목을 매달도록 하는 한편, 말을 잡아 병사들을 먹였다.

당시 검단산과 남한산성 사이의 평야 지대에는 청군 진영이 설치되어 있었다. 청군 진영 부근에서 진을 칠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한 권정길은 휘하 병력을 이끌고 검단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길 곳곳에 널린 눈과 얼음 때문에 병졸들은 미끄러지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악전고투 끝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검단산 정상의 병사들은 횃불을 밝혀 들고 포를 쏘았다. 남한산성을 향해 보내는 신호였다. 산성에서도 검단산 쪽으로 북을 치며 호각을 울려 호응했다. 얼마나 기다렸던 근왕병이던가.
권정길은 병사들에게 남초(南草 · 담배)를 나눠주어 사기를 북돋았다. 늦은 밤, 산성에서 왔다는 승려 한 사람이 권정길 앞에 나타났다. 그는 검단산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샛길을 알고 있다며 스스로 향도(嚮導)가 되겠다고 나섰다. 권정길은 그의 말을 믿었다.
권정길은 병졸들에게 군장(軍裝)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이튿날 아침 포위를 뚫고 산성으로 들어가려는 작전을 세웠다.

●권정길의 근왕병 패퇴하다

12월27일 아침, 권정길 부대는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인조와 조정이 남한산성에 고립된 이후, 청군의 포위망을 뚫어보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청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청군 2000여명은 나무로 만든 방패에 몸을 숨긴 채 조선군을 포위하려 들었다. 권정길 부대는 청군을 향해 일제히 조총과 화살을 쏘았다. 선봉에 섰던 청군들은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하기를 세 차례, 시간이 흐를수록 청군 측의 사상자는 늘어났다.
일단 물러났던 청군은 병력을 증원하여 다시 공격해 왔다. 전투가 한창일 때, 조선군 진영에서 병사 하나가 '화약이 다 떨어졌다. 빨리 더 보내달라.' 고 외쳤다. 군중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청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증강된 청군 병력의 공격에 조선군은 산 쪽으로 밀렸다. 전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비록 조총과 화살을 발사했지만 청군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선군의 퇴로는 미끄럽고 험준했다. 달아나는 병사들은 발을 제대로 디딜 수 없었다. 우왕좌왕하는 조선군을 향해 청군 기마대가 들이닥쳤다. 전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한 권정길은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찌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부하들이 다투어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권정길은 병력 대부분을 잃고 패주하고 말았다.
춘천으로 돌아간 권정길은 군관을 보내 흩어진 병사들을 모아 부대를 수습하려고 노력했다. 선봉장이었던 그의 부대가 패한 것은 강원도 근왕병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패전의 책임을 권정길에게 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의 악조건 속에서도 분전했다. 겨우 1000명 정도의 병력만으로, 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수만의 청군과 상대하기란 애초에 역부족이었다.
양근에 주둔하고 있던 조정호 휘하의 본대로부터 지원병이 왔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조정호의 본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또 남한산성의 조선군이 권정길 부대와 공동작전을 벌이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그것은 결국 당시 청군이 남한산성과 외부와의 연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왕병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각개 격파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권정길 부대의 패전 이후, 산성의 탄식이 더 커져 가고 있었다.

당시 근왕병들이 처해 있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청군의 포위망을 뚫고 남한산성을 구원하는 것은 애초부터 여의치 않은 일이었다. 우선 지방의 감사나 지휘관들이 병력을 모으고 행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소집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했고, 날씨가 추워 행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병사들은 대부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었다. 문관 출신이 많았던 지휘부 또한 전문적인 군사지식이나 병법(兵法)에 익숙한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다 보니 청군을 만나면 겁먹고 진군을 꺼리거나, 한 번 패할 경우 부하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 남한산성의 장경사(長慶寺).1624년 승려 각성(覺性) 등이 전국 8도의 승군(僧軍)을 동원해 성을 쌓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사찰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도면밀한 청군의 편제

병자호란 당시 조선 침략에 투입된 청군은 크게 4개 군(軍)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마부타(馬福塔)가 이끄는 선봉 부대는 압록강을 건넌 뒤 대로를 따라 곧바로 서울로 입성하여 인조를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서울과 강화도의 연결을 차단하여 조선 조정이 강화도로 파천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

예친왕(禮親王) 도도(多鐸) 등이 지휘하는 좌익군(左翼軍) 3만은 선봉대의 뒤를 받치며 서울로 입성하여 서울과 삼남 지방의 연결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다. 홍타이지가 직접 이끌었던 본진(本陣) 5만 4000은 좌익군의 뒤를 따라 남하하면서 의주, 안주, 평양, 황주 등지의 산성을 공략하고 인축(人畜)을 획득하는 임무를 맡았다. 예친왕 도르곤(多爾袞) 등이 이끄는 우익군(右翼軍) 2만 2000은 벽동(碧東), 창성(昌城) 등지의 성들을 공략한 뒤 임진강을 건너 강화도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선봉대의 돌격을 통해 조선 조정이 강화도나 삼남 지방으로 파천하는 것을 차단한 뒤, 후속 부대를 남하시켜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복안이었다. 아직 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조선의 항복을 받아 내겠다는 깜냥이기도 했다.

조선군은 초전에 이미 마부타가 이끄는 선봉군의 위세에 눌려 전의를 상실했다. 무엇보다 그들 철기(鐵騎)의 가공할 만한 전진 상황을 조정에 제 때 알리지 못하고, 또 돌격을 적절히 저지하지 못한 것이 큰 실책이었다.

청군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대였다. 병자호란을 일으키기 전까지 여러 차례 서정(西征)을 통해 명군이나 차하르(察哈爾) 몽골군과 싸워 실전 감각이 뛰어났다. 청군은 원정에 나설 때나, 명군과 그냥 대치하고 있을 때나 일상적으로 복병을 파견하여 적군 주둔지 주변의 사람을 포로로 잡아 납치했다. 이른바 착생(捉生)이 그것이다. 포로를 신문하여 적군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병자호란 당시에도 '착생'은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김자점 부대의 패퇴와 관망

조선 조정은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돌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청야견벽



(淸野堅壁) 작전을 구상했다. 청군이 이동하는 대로(大路) 주변의 병력과 백성들을 인근 산성으로 몰아 넣고 수성전(守城戰)을 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작전은 청군 선봉대로 하여금 거의 무인지경의 상태에서 돌격할 수 있게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졸지에 기습을 당한 서울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대로 주변 산성에 있던 조선군이 거꾸로 청군을 추격하여 서울로 올라와야 할 판이었다. 하지만 상경하려는 조선군은, 뒤따라 오는 청군의 본진과 좌우익군의 공격에 다시 노출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 북한산성의 모습.

일찍이 1619년 '심하(深河) 전투' 에 참전하여 패한 뒤, 후금에서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이민환(李民 은 조선군 방어 태세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야견벽 작전만으로는 청군의 돌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주에서 개성으로 이어지는 연변에 위치한 산성들은 대부분 대로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청군이 산성 공략을 늦추고 서울을 향해 곧바로 남하할 경우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환은 조선군도 적정한 수준의 기마병을 배치하여 그들의 돌격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민환의 경고처럼 대로에서 적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후유증은 그대로 나타났다. 도원수 김자점(金自點) 군을 비롯한 서북 지역의 병력 대부분이 청군의 후미를 쫓아야만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초기, 김자점은 황주의 정방산성(正方山城)에 주둔하고 있었다. 마부타가 이끄는 청군 선봉대를 그대로 놓아 주었던 그는 12월14일, 봉산(鳳山) 북쪽의 동선역(洞仙驛)에서 청 좌익군을 공격하여 소소한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홍타이지가 이끄는 대군이 남하하자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병력 수천을 이끌고 토산(兎山)으로 이동했다.

토산에서도 김자점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척후병을 두지 않은 채 안이하게 행군하다가 12월25일 도르곤이 이끄는 청군의 기습에 휘말린 것이다. 도르곤이 이끄는 청군은 행군하면서 수시로 '착생' 을 통해 조선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도르곤은 중화(中和)에서 조선인 포로를 신문하여 김자점 군의 이동 경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 북한산성의 금위영이건기비(禁衛營移建記碑).

상대에 대한 정보력의 차이는 그대로 승패에 반영되었다. 약 5000명에 이르던 김자점 군은 졸지에 병력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다. 김자점은 단기(單騎)로 도주하여 전장을 피했다. 선봉장 이완(李浣)이 이끄는 어영청(御營廳) 포수들이 분전하여 적장 한 사람을 사살하는 등 전과를 올렸지만, 이미 주장(主將)이 도주한 상황에서 전세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자점은 결국 남은 어영군 병력을 수습하여 양근(楊根)의 미원(迷原)으로 이동했다.

당시 미원에는 김자점 부대말고도 강원감사 조정호의 부대, 북한산 전투에서 패한 뒤 이동해온 유도대장(留都大將) 심기원(沈器遠) 부대 등이 합류했다. 모두 합치면 1만 7000에 달하는 적지 않은 병력이었다. 남한산성에 있는 인조와 조정은 이들이 청군의 포위를 뚫고 산성으로 들어와 주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김자점 부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청군이 이천과 여주 지역을 차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청군의 포위를 뚫어 보겠다는 의지가 약한 점이었다.

●전라도 근왕병의 승리와 철수

당시 일어났던 근왕병 가운데 두드러진 활약을 벌였던 부대가 전라병사 김준룡(金俊龍)이 이끌던 전라도 병력이었다. 전라감사 이시방(李時昉) 휘하에서 선봉장으로 종군했던 김준룡은 1637년 1월4일, 병력 2000을 이끌고 수원 광교산(光敎山)으로 이동했다.

김준룡 부대는 산 주변에 목책을 설치하여 청군의 돌격을 차단했다. 그리고 화기수를 전면에, 사수(射手)와 창검병을 후면에 배치하여 청군의 공격에 대비했다.1월5일, 청군 지휘관 양고리(楊古利)가 5천의 병력을 이끌고 공격해 오자 김준룡 부대는 집중 사격을 가하여 그들을 격퇴했다.

이튿날 양고리가 병력과 화력을 증강하여 다시 공격해 왔다. 이번에는 호준포(虎砲)까지 동원하여 조선군 진영에 맹렬한 포격을 퍼부었다. 선방하던 조선군은, 저녁 무렵 청군이 광교산의 후방을 우회하여 광양현감 최택(崔澤)이 맡고 있던 방어선을 급습하면서 수세에 몰렸다. 김준룡은 최택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유격군을 이끌고 청군을 향해 돌격했고, 전투는 순식간에 혼전 양상으로 변했다. 그리고 혼전 중에 조선군 화기수의 총탄에 적장 양고리가 쓰러졌다.

양고리는 홍타이지의 매부로서 병자호란 당시 조선군이 사살한 최고위급 적장이었다. 양고리가 죽자 청군 진영은 급격히 동요했다. 김준룡은 청군이 동요하는 틈을 놓치지 않았다. 병자호란 개전 이래 최대의 승리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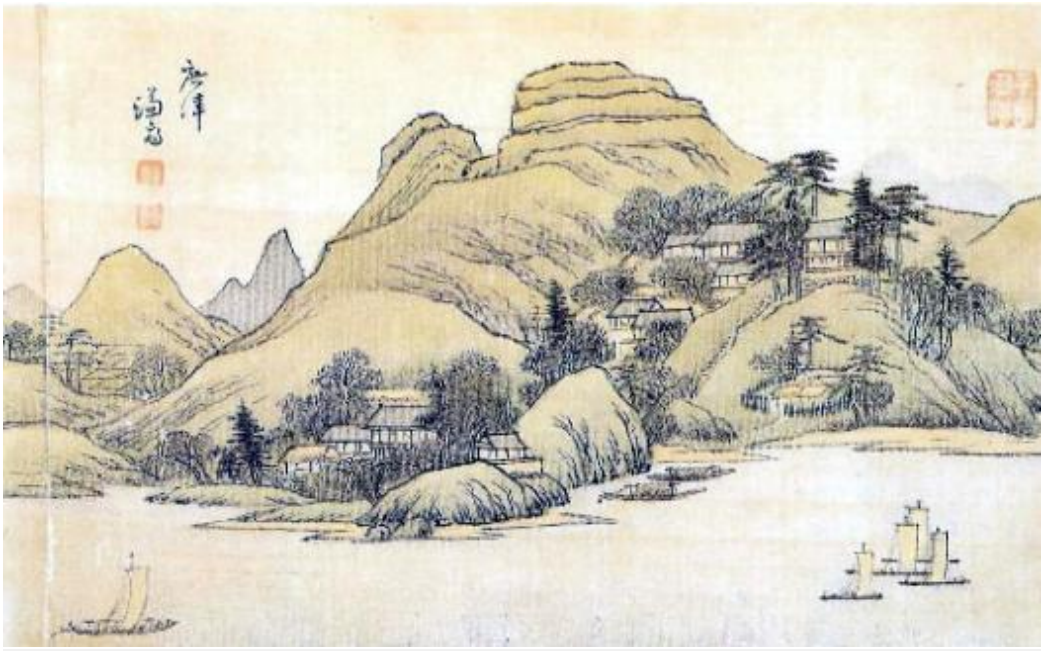
남한산성과 가까이 있는 광교산에서 날아온 김준룡의 승리 소식에 조정은 환호했다. 하지만 김준룡의 부대는 광교산에서 계속 버틸 수 없었다. 군량과 화약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준룡은 병력을 이끌고 수원 남쪽으로 철수했다.

아쉬운 대목이었다. 청군에 길목이 차단되어 근왕병 전체의 전력이 분산되었던 데다, 작전과 보급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지휘부가 없었던 탓이었다.

환호도 잠시뿐 산성은 다시 기다림의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남한산성의 스산한 연말

포위된 이후 남한산성 사람들은 바깥 소식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다. 근왕병이 근처까지 와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패하여 물러갔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산성의 분위기는 침울해졌다. 날로 어려워지는 산성의 사정을 바깥에 정확히 알리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청군이 산성 주변에 설치한 목책 때문이었다. 청군은 소나무를 베어 만든 목책과 목책 사이에 새끼줄을 연결하고 방울 등 쇠붙이를 매달았다. 조선군 전령이 목책을 넘으려 하면 어김없이 매복한 청군이 뛰쳐나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책은 서서히 산성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었다.



▲ 겸재 정선이 그린 광나루(광진)의 모습. 출처 '그림으로 본 옛 서울'(서울학연구소 펴냄).

● '술과 고기'의 굴욕

12월27일 조정은 청군 진영에 술과 고기를 보냈다. 세시(歲時) 인사를 하면서 적정(敵情)을 떠보려는 깜냥이었다. 대사간 김반(金槃), 승지 최연(崔衍), 교리 윤집(尹集) 등은 격렬히 반발하며 적진에 사람과 선물을 보

내자고 주장한 자의 목을 치라고 촉구했다. 인조는 김반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신을 보냈다가 혹시라도 억류될까봐 하급 관원을 한 사람 골랐다. 이기남(李箕男)이 그였다. 이항복(李恒福)의 서자인 그는 영리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그는 소 두 마리와 돼지 세 마리, 술 10병을 갖고 청군 진영으로 갔다. 하지만 영리한 그도 청군 진영에서 주눅이 들었는지 실언을 하고 말았다. 연말 인사차 왔다고 했으면 되었을 것을, '날씨도 추운데 우리 전하께서 옛정을 잊지 못해 특별히 술과 고기를 보냈다.' 고 했다.

청군 장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렸다. '하늘이 조선 팔도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술과 고기 등 모든 물자가 다 우리 것이다. 국왕은 지금 골짜기에 갇혀 있고 안팎이 가로막혀 신하들은 모두 굶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문득 획득한 물품을 국왕에게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지금 이 술과 고기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다. 도로 가져가 굶주린 너희 신료들에게나 주어라.' 그러면서 청군 장수들은 조선 근왕병들을 격퇴했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성세(盛勢)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이기남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다. 적정을 엿보려고 갔다가 도리어 적이 산성 내부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기남이 돌아온 직후 독전어사(督戰御史) 황일호(黃一皓) 등이 인조를 뵙자고 청했다. 황일호는 인조에게 빨리 공격하여 적의 기세를 꺾자고 촉구했다. 그는 당시 형세를 '주객(主客)이 뒤바뀐 상태' 라고 진단했다. 청군은 병력과 목책으로 산성을 포위한 채 느긋하게 '주인' 이 되어 기다리고 있는데, 아군은 근왕병도 들어오지 못하고 날로 피폐해져 가는 산성에서 '객' 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황일호는, 병사들은 사기(士氣)를 먹고 사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만 보내다가는 가만히 앉아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혹독한 추위 막을 가마니조차 부족

1636년 연말, 산성의 조선군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추위였다. 망루에 올라가 있는 군사들의 손이 곱아 활시위를 당기는 것은 고사하고, 서로 말도 제대로 나눌 수 없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유일한 '방한복' 이라 할 수 있는 빈 가마니(空石)조차 모든 병사들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사정이었다.



▲ 조선 제3대 임금 태종과 그의 비 원경왕후 민씨를 모신 헌릉.
서초구청 홈페이지

황일호는 산성의 주민들에게 벼슬을 팔거나 면천첩(免賤帖)을 팔아서라도 병사들에게 군막(軍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지 않으면 병사들이 얼어죽을 것이고, 아무도 싸우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자기 몸을 가리고,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에도 겨를이 없는 산성 주민들에게 무슨 물자가 있을 것인가.

도무지 해답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었다.12월28일, 술사(術士) 몇 사람이 '오늘은 싸우든 화의(和議)를 하든 모두 길한 날' 이라고 일진(日辰)을 뽑았다. 도체찰사 김류는 술사들의 얘기에 솔깃해졌다. 독전어사 황일호 등으로부터 빨리 결전해야 한다는 건의도 들었던 터라 병력을 뽑아 적을 기습하기로 결정했다.

이튿날 김류는 산성 북문 아래 골짜기에 있는 적진을 공격했다. 노살(勞薩) 등이 이끄는 청군은 골짜기 여기저기에 병력을 매복시키고 '미끼' 를 던졌다. 다름 아닌 포로로 잡은 조선인 노약자들과 가축들이었다. 그들을 본 김류는, 달려 내려가 공격하면 조선인 포로와 가축들을 구해올 수 있다고 여겼다.

●패전 책임 하위 무관에 전가해 원성

김류는 체찰부(體察府) 소속 장졸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하지만 일부 장졸들은 '함정' 일 수 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몸을 사렸다. 그러자 체찰부의 비장(裨將) 유호(柳瑚)가 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김류에게 건의했다. 유호는 머뭇거리는 장졸들에게 김류가 건네준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억지로 떠밀린 장졸들은 할 수 없이 달려 내려갔다. 매복한 청군은 처음에는 조선군이 포로와 우마(牛馬)들을 거두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적진이 비어 있다고 착각한 조선군 수백 명이 쏟아져 내려오자 청군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순식간에 혼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조선군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미 청군이 만든 '함정'에 빠져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갖고 있던 화약도 금세 떨어지고 말았다. 적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오판하여 애초부터 화약을 조금밖에 지급받지 못한 탓이었다. 화약을 더 달라는 고함과 아우성 속에 조선군은 거의 전멸하고 말았다.

산성 쪽에서 전투 상황을 지켜보던 김류는 조선군이 섬멸당하는 장면을 보고서야 초관(哨官)을 시켜 퇴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청군의 칼날 앞에서 유린되고 있는 장졸들이 가파른 오르막을 뛰어올라 퇴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극소수의 장졸들만 겨우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한마디로 '대형 사고'였다. 별장 신성립(申誠立), 지학해(池學海), 이원길(李元吉) 등 중견 지휘관 8명을 비롯하여 300명 이상이 전사했다. 가뜩이나 정예병이 부족한 산성의 현실에서 이들의 죽음은 너무 큰 손실이었다. 즉흥적이고 섣부른 작전이 부른 비극이었다. 그러나 패전의 진상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호는 전사자가 40명 정도라고 축소하여 보고했다. 김류와 유호의 책임이 제일 컸지만, 군사들을 제 때 물리지 못한 과오는 김류의 퇴각 명령을 전한 초관에게 전가되었다. 그는 참수되었다. 또 혼전 중인 조선군을 제 때 구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성장(北城將) 홍두표(洪斗杓)를 죽이려고 시도했다. 홍두표는 신료들의 구원으로 죽음을 겨우 면했지만, 패전 책임이 엉뚱하게 전가되는 와중에 병사들의 원성은 높아졌다.

●홍타이지, 남한산성 압박 본격화

이 싸움을 계기로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이제 누구도 나가서 싸우자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못했다. 더욱이 12월29일, 남하하던 홍타이지는 휘하 장수들을 먼저 도성으로 들여보내 숨어 있는 사람과 가축들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자신은 직접 남한산성 근처로 나아가 인조를 더욱 압박할 심산이었다.

12월30일은 바람이 몹시 불고 음산한 날이었다. 이날 하루 종일 청의 대군이 광나루, 마포, 헌릉(獻陵) 등지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산성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인조는 신료들을 불러모았다. 김류는 패전에 대해 사과하고, 적진에 사람을 보내자고 청했다. 패전을 계기로 다시 화의를 추진하려는 심산이었다. 김상헌이 당장 제동을 걸었다. 사간원 신료들도 오랑캐 진영에 사람을 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되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나만갑의 '병자록(丙子錄)'에 따르면 이 날 행궁 근처에 까치들이 모여들여 집을 지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길조(吉兆)라고 좋아했다. '길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디에선가 근왕병이라도 나타나 청군의 포위를 뚫고 산성의 난국을 타개해 줄 것을 암시하는 것인가. 실의에 빠진 산성 사람들은 까치집을 바라보며 그런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길조'가 나타난 이 날, 홍타이지는 탄천(炭川) 주변에 자신이 머물 진영을 설치했다.

1636년 12월30일, 남한산성 주변의 풍경은 스산했다.

[병자호란](26) 다시 화친을 시도하다

2013.01.27 23:32

다시 화친을 시도하다(Ⅰ)

조선 사신들 처음으로 홍타이지 '詔諭(조유:황제가 신료들에게 내리는 조서와 유시문)'에 네 번 절해

남한산성에서 고단한 나날을 보낸 것이 어느덧 17일, 병자년(丙子年)이 저물고 정축년(丁丑年)이 밝아 왔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청 태종 홍타이지는 탄천(炭川)에 진을 쳤다. 청군 병력이 30만이나 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산성에 대한 청군의 정찰은 훨씬 강화되었다. 홍타이지까지 산성 근처로 다가와 자리를 잡았으니 청군은 이제 모든 역량을 다해 조선 조정을 압박할 요량이었다. 조선군 근왕병들이 산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남한산성에서는 다시 화친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 김상헌 묘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상헌 묘의 묘비. 김상헌은 청군(淸軍) 진영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인조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최명길 · 김상헌 사신 파견 싸고 대립

1월1일 원단. 인조는 백관들을 거느리고 서쪽을 향해 망궐례(望闕禮)를 마쳤다. 이어 2품 이상의 신료들이 인조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다. 새해를 맞아 광주목사(廣州牧使) 허휘(許徽)가 쌀로 떡을 빚어 인조께 진상했다. 신하들에게도 얼마간씩 떡이 돌려졌다. 성첩을 지키는 장졸들에게도 '새해 선물'로 특식이 주어졌다. 삶은 콩과 말고기였다. 나만갑(羅萬甲)은 떡을 대하니 아침부터 눈물이 난다고 적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무엇인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조정은 비변사(備邊司) 낭청(郎廳) 위산보(魏山寶)를 청군 진영으로 보냈다.

이번에도 술과 고기를 들려 보냈다. 신년 인사를 겸하여 적정을 살펴보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청군 장수들이 조선 사신 일행을 대하는 태도가 영 달랐다.

사신 일행이 도착했을 때, 어떤 자가 위산보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들어가려 했다. 다른 자가 만류하여 겨우 멈췄지만, 태도는 여전히 뻣뻣했다. "황제께서 산성을 순찰 중이시니 우리가 함부로 받을 수 없다." 며 위산보 일행을 퇴

짜놓았다. 이제 조선이 사신을 보내는 여부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투였다.



▲ 옛 송파나루

도성에서 남한산성을 잇는 송파나루의 모습을 담은 겸재의 그림. 출처 '그림으로 본 옛 서울' (서울학연구소).

위산보가 돌아온 직후 인조는 신료들을 불러모았다.

먼저 청군의 군세(軍勢)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김류, 이홍주(李弘胄), 홍서봉(洪瑞鳳) 등 상당수 신료들은 청군이 군세를 과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성에서 내려다보면 청군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조선을 기만하기 위해 세력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료들은 홍타이지가 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갑갑한 현실 인식이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적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치이기도 했다.

최명길의 의견은 달랐다. 그는 청군이 이전부터 누차 '황제가 올 것'이라고 말해 왔던 것에 주목했다.

최명길은 '황제가 왔으니 조선 실정을 알리려 한다.'는 명목으로 청군 진영에 사신을 다시 보내 적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헌은 하루에 두 번씩이나 사신을 보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신국은, 근왕병들이 사신이 적진을 왕래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해이해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역시 반대했다. 하지만 인조는 최명길의 의견에 동조했다.

● **'최악의 상황' 예상 못한 화친론**

김신국(金藎國)과 이경직(李景稷)이 다시 청군 진영에 가서 화친을 청했다. 청장 마부대(馬夫大)는 역시 황제가 순찰 중이라는 핑계로 즉답을 피했다.

이튿날에도 조선 조정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황제가 진짜 왔는지, 황제가 온 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황제가 왔다는 것을 이유로 인조에게 출성(出城)하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가 분분했다.

김신국, 이경직, 홍서봉 세 사람이 청군 진영으로 다시 가기로 결정되었다. 인조는 그들에게 실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최명길은 나라가 보전된 뒤에야 와신상담(臥薪嘗膽)도 할 수 있다며 그들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김상헌은 적정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레 '와신상담' 운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다시 반박했다.

하지만 인조 또한 "강국도 약국에 거만하게 대할 수 없는데 하물며 약국이 강국에 뻣뻣하게 굴 수 있냐." 며 최명길을 두둔했다.

논란 끝에 예상되는 청의 요구 가운데 두 가지만은 따를 수 없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하나는 인조에게 성에서 나오라는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왕세자를 입송(入送)시키라는 요구였다. 이식(李植)은 화친을 추구하되, 그 내용은 철저하게 기존의 형제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이제 청과 화친하겠다는 방

침은 다시 확고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청이 과연 조선의 바람대로 따라줄 것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인조와 왕세자의 출성 거부를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은 그저 조선의 '희망 사항'일 뿐이었다.
홍타이지가 몸소 탄천까지 내려와 산성에 대한 압박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청이 '인조의 출성 불가'를 용인할 리 만무했다. 그럼에도 당시까지 비변사 신료들은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일부 신료들은 여전히 근왕병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김신국 등은 청군 진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마부대 등을 만나자 황제에게 전하는 문안 인사를 건넸다. '황제께서 풍설(風雪)을 무릅쓰고 먼길을 오셨으니 10년 형제의 의리상 염려가 되어 이렇게 찾아왔다.'며 분위기를 살폈다. '형제관계'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탐색하려는 의도였다.
잠시 후 용골대가 나와 누런 종이를 내밀며 황제의 조유(詔諭, 황제가 신료들에게 내리는 조서와 유시문)라고 일컬었다. 그러면서 조선 사신들에게 네 번 절한 뒤에 가져가라고 강요했다. 분위기에 압도된 김신국 등은 결국 네 번 절하고 그것을 갖고 돌아왔다. 참담한 심정이었다.
정묘호란 이후 후금과 형제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조선 지식인들은 마음 속으로는 의연히 그들을 '오랑캐'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랑캐의 칸(汗)'이 황제가 되고, 그가 내민 쪽지가 '조유'가 되고 '칙서(勅書)'로 변한 기막힌 현실을 직접 목도했다.

●형제→신하관계로 바뀐 현실에 경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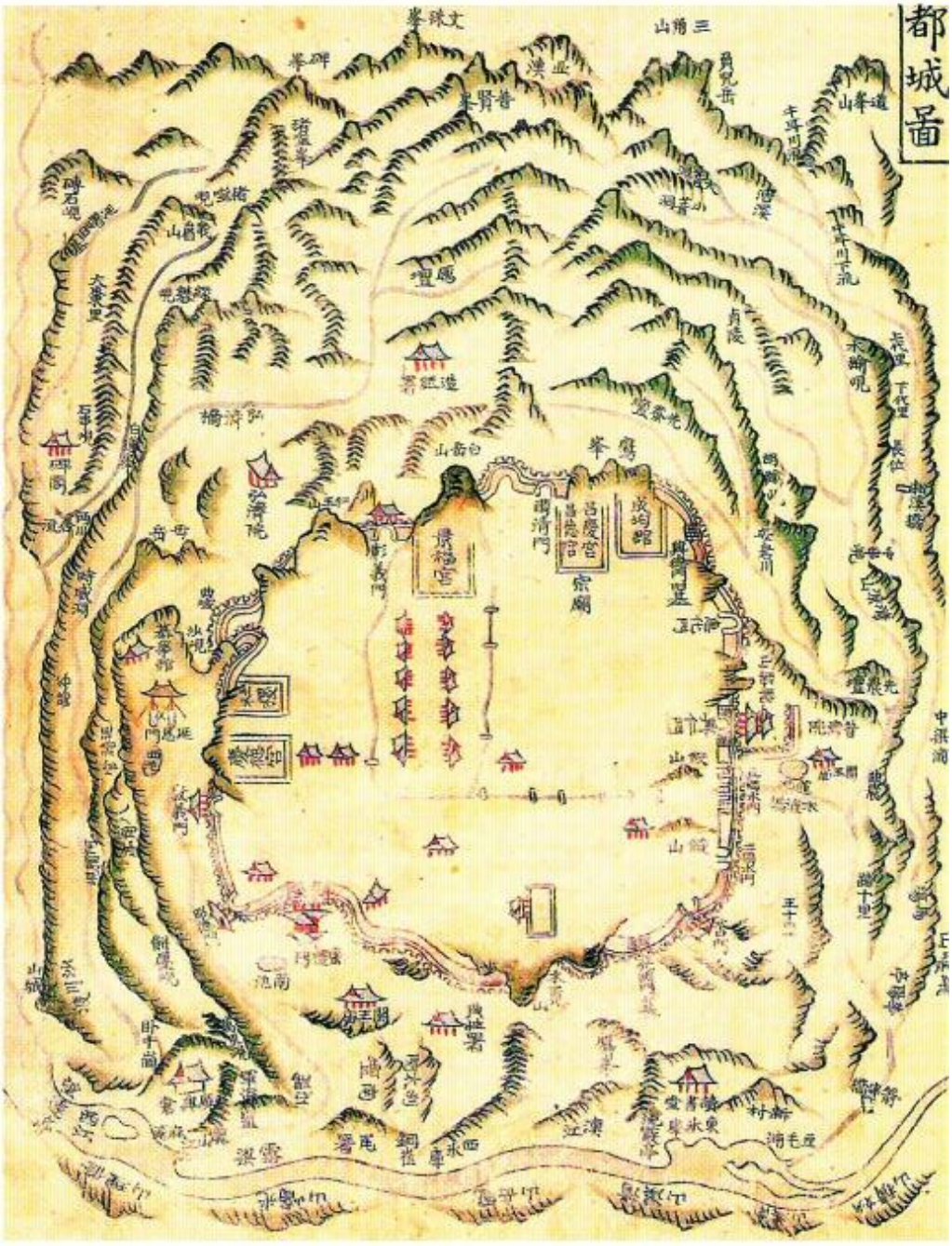
김신국 등은 인조를 알현했을 때, 모두 죽지 못하고 돌아와 송구스럽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홍타이지가 보낸 편지는 '대청관온인성황제(大淸寬溫仁聖皇帝)가 조선 국왕에게 초유(招諭)한다.'는 문구로 시작했다.
내용은 과거의 국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신들은 조선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조선이 명에 붙어 자신들과 적대했다는 것' 등을 비롯하여 조선에 대한 섭섭함을 열거했다. '청은 강하다고 뻐긴 적이 없는데, 약소국인 조선이 왜 대드냐?'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었다.
홍타이지는 특히 자신을 황제로 추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러 왔던 몽골 버일러들을 만나주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 과거 고려(高麗) 시절 요·금·원(遼金元) 세 나라에 신하를 칭하고 머리를 숙였던 조선이 지금은 왜 그리 뻣뻣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신을 보내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막상 홍타이지의 '조유'를 접했을 때 신료들은 경악했다.
답서를 보내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인조가 회의를 소집했을 때, 신료들은 머뭇거렸다. 누구도 섣불리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상헌이 나섰다. 지금 사죄해 봤자 저들의 노여움을 풀 수 없을 것이니 차라리 군사들에게 적서(賊書)를 보여주어 적개심을 고취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러자 최명길이 막아섰다. 홍타이지가 온 이상 대적하려 할 경우, 나라가 망할 뿐이라고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홍서봉이 절충안을 내놓았다. 답서에서 홍타이지를 부르는 명칭을 '제형(帝兄)'이라고 쓰자고 했다. 일각에서는 최명길, 장유(張維), 이식 세 사람에게 답서를 쓰게 하되,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엄혹한 현실에 밀려 화친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오랑캐가 '황제'와 '조유'를 운운하는 또 다른 '현실'을 직접 마주했을 때 조선 조정은 고민했다. 그리고 그 고민은 다시 망설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시간은 조선 조정을 기다려 주지 않았다.

다시 화친을 시도하다(II)

조선의 마지막 꿈 '오랑캐의 신하' 면했으면…

1637년 1월3일, 도성으로부터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다.12월 그믐과 정월 초하루, 몽골병들이 도성으로 몰려들어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약탈을 자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병자호란을 일으키기 전, 홍타이지는 휘하 장졸들에게 군기를 확립하고 함부로 약탈을 자행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시' 일 뿐이었다. 더욱이 몽골병들은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고 청에 귀순했고, 또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었다. 군기를 강조하여 그들의 '욕구' 를 언제까지고 묶어두기는 어려웠다. 자신들을 지켜 줄 군사도, 이끌어 줄 조정도 없는 상황에서 도성 백성들은 몽골병들의 분탕질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안쓰러웠지만 남한산성의 조정은 도성 사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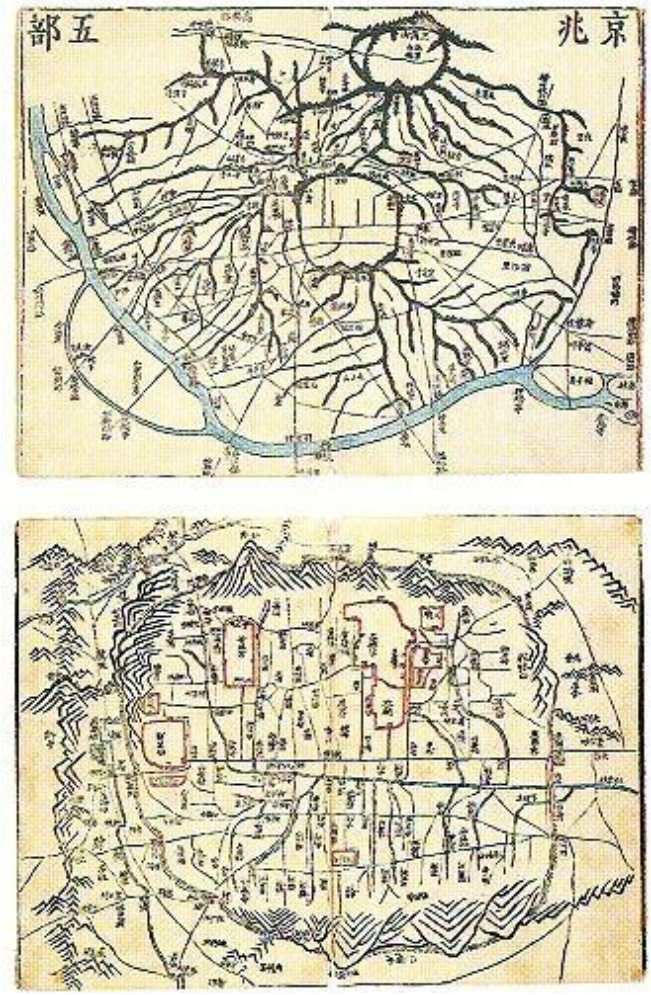
▲ 조선 후기 대표적인 지도첩 가운데 하나인 광여도(廣輿圖) 속의 도성도(都城圖). 도성의 백성들은 몽골병의 분탕질에 말못할 고초를 겪었지만, 남한산성의 조정은 그들의 절박한 사정을 돌어볼 여유가 없었다.
규장각 소장

●칭신(稱臣) 여부를 둘러싼 고민

1월3일, 화친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한 조정은 당장 홍타이지의 '조유(詔諭)'에 회답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조유를 건네받는 자리에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거부하지 못한 이상, 조선은 이제 '오랑캐의 신하'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인조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신들을 불러모았다. 회답서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영의정 김류가 입을 열었다. '나라가 살아남은 뒤에야 명분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장차 무슨 명분을 논하겠습니까?' 김류는 자신이 총대를 메겠다고 나섰다. 청에 대해 '칭신(稱臣)'하는 문제를 자신이 담당하여 '천하 후세의 죄인'이 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김류가 울자 인조도 울기 시작했다. 죽지 못하고 살아남아 망극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식했다. 남한산성에 들어온 뒤 벌써 여러 차례 눈물을 보인 인조였다. 숙부 광해군을 몰아내고 용상에 오를 적에만 해도, 아니 정묘호란 직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화도로 들어가지 못한 것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젠 오랑캐에게 신하를 칭하며 머리를 숙여야 할 판이었다. 눈물이 잦아질 만도 했다. 이홍주(李弘胄)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상 '대청황제(大淸皇帝)'라는 호칭을 써야 한다고 했다. 홍서봉은 한 걸음 더 나갔다. 지금 상황에서는 군부(君父)를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 저들의 지적대로 요금원(遼金元) 시절의 고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들에게 신속(臣屬)하는 것이 유일한 방도라는 주장이었다. 김신국은 두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선을 그었다. 그들에게 칭신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인조가 직접 홍타이지를 대면하게 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1월30일, 인조가 성을 나가서 항복할 때까지 조선 조정이 끝까지 피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다.



▲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속에 묘사된 도성도.
규장각 소장

장유(張維)의 의견은 조금 달랐다. 일단 '조유'에서 홍타이지가 질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하되, '칭신' 여부는 그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이식(李植) 또한 '대청황제'라는 칭호는 그냥 사용하되 '칭신'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료들은 답서의 서식(書式)과 시작하는 단어, 내용에 들어가는 글자 한 자 한 자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외로운 성에 갇혀 버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오랑캐'로 멸시해 온 여진족 추장에게 '칭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이었다. 논란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황제'임을 인정하다

고민과 논란 끝에 홍타이지에게 보내는 답서를 완성했다. 답서의 맨 앞에 '조선국왕은 삼가 대청국관온인성황제(大淸國寬溫仁聖皇帝)께 올립니다.'라는 표현을 썼다. 조선에 보내는 서신을 '조유' 운운하면서 '제국의 위엄'을 과시하려 했던 홍타이지와 청의 위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표현이었다.

답서는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소방(小邦)이 대국에 잘못을 저질러 스스로 병화(兵禍)를 불렀습니다. 특사(特使)를 보내 정성을 드리려 했으나 병과(兵戈)에 막혀 통할 길이 없었습니다. 황제께서 궁벽한 구석까지 오셨다는 소식에 의심과 믿음, 기쁨과 두려움이 엇갈렸습니다. 지난해 봄의 일은 소방이 그 죄를 사과할 길이 없습니다. 소방 신민들의 식견이 얕고 좁아 대국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조선의 고민이 형식과 내용 모두에 절절히 담겨 있었다. 눈앞에 닥친 망국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되, 자존심을 최대한 살리려는 몸짓이었다. '조유' 속에 넘쳐나는 홍타이지의 '질책' 내용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사죄했다.

주목되는 것은 호칭이었다. 홍타이지를 '황제'라고 불렀지만 조선을 '소방'으로, 인조는 '조선국왕'이라 했다. 맨 마지막에는 의연히 숭정(崇禎) 연호를 사용했다. '조선 국왕 신(臣) 모(某)'란 표현을 쓰지 않음으로써 '칭신'은 일단 거부했다. 또 청의 연호 대신 명의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명에 대한 충성 또한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담았다.

답서의 뒷부분은 홍타이지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죄가 있으면 치고, 죄를 뉘우치면 용서하는 것이 대국의 도리입니다. 정묘년의 맹약을 생각하고, 생령(生靈)을 불쌍히 여기시어 소방에게 새로워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대국이 용서하지 않고 기어이 병력으로 추궁하려 한다면 소방은 스스로 죽음을 기약할 뿐입니다.' 개과천선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여 청의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 홍서봉(洪瑞鳳), 김신국(金藎國), 이경직(李景稷)이 답서를 들고 다시 청 진영으로 갔다. 황제는 만나지 못했다. 답서를 접수한 마부대는 상의한 뒤에 회답을 주겠다고 했다.

●비변사의 독주에 대한 반발

상황에 밀려 화친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다. 우선 비변사의 몇몇 신료들이 중심이 되어 비밀리에 화친을 추진하는 것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비변사 신료들은 과거 척화·주화 논쟁 때처럼 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여 적진에 보내는 문서의 초안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 채 주고받았다. '인조실록'의 사평(史評)에는 승지와 사관(史官)이 보지 못하도록 소매에 넣어 출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이 상소했다. '우리는 참월(僭越)하게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는 오랑캐에 맞서 명나라를 대신하여 화란을 당하는 것'이니 '의열(義烈)에 당당하고 해와 달에 비춰도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의 국서를 태워버림으로써 장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화친을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답서를 보낸 다음부터 삼사(三司)의 관원들은 다시 최명길(崔鳴吉) 등 비변사 당상들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최명길에 대해, 적의 세력을 과장하고 화친을 주도하면서 나라를 치욕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류에 대해, 하는 일 없이 겁만 많아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유백증(兪伯曾)은, '칭신'한다고 해서 포위가 풀린다는 보장이 없다며 나라를 그르친 김류와 윤방(尹昉) 등의 목을 베라고 외쳤다. '조유'에 대한 답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었다.

인조는 최명길 등을 감쌌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보였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신료들 사이의 논란을 다시 방치할 경우, 화친의 시도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637년 1월 초, 청과 조선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그것은 홍타이지의 '조유'와 조선의 답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조선의 '꿈'은 청과의 형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비록 홍타이지를 '황제'라고 불러주었지만 그를 '조선의 황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명목상 '홍타이지의 동생'이자 '조선국왕'으로 남아 명과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홍타이지는 '조선국왕'이란 표현 대신 '신(臣) 이종(李倧 · 인조의 이름)'을, '숭정' 대신 자신들의 '숭덕(崇德)' 연호를 원하고 있었다. 누구의 꿈이 실현될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남한산성의 나날들(Ⅳ)

임금 이부자리도 없고 수라상 반찬은 닭다리 하나뿐

조선이 청군 진영에 보낸 국서에서 처음으로 '관온인성황제(寬溫仁聖皇帝)'라는 호칭을 쓰고, 과거의 '잘못'을 사과했지만 청군 진영에서는 회답이 없었다. 조선 조정은 초조해졌다. '황제'로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면 화친이 쉬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았던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청군의 입장에서는 바로 답장을 해 줄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조선의 국서 내용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었다. '황제'로 불렀으되 심복(心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시간은 청군 편이었다.



▲ 남한산성의 장경사(長慶寺). 인조 2년(1624) 남한산성 축조 때 승군(僧軍)의 숙식과 훈련을 위해 건립된 사찰이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그 많던 닭들은 어디로 갔을까?

청측의 회답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1637년 1월6일, 강원도관찰사 조정호(趙廷虎)와 함경도관찰사 민성휘(閔聖徽)가 올린 장계가 들어왔다. 조정호 휘하의 군병이 용진(龍津)에 머물며 대오를 수습하고 있다는 것, 함경도의 병력이

김화(金化)에 도착하여 산성을 구원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내용이었다.1월7일에는 도원수 김자점, 황해병사 이석달(李碩達), 전라감사 이시방(李時昉)이 보낸 장계도 도착했다. 하지만 모두 '남한산성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는 내용만 있을 뿐 언제, 어떻게 산성 쪽으로 진군해 온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1월8일, 답답해진 인조는 영의정 김류 등을 불렀다. 인조는 신료들에게 비변사에서 마련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신료들은 할 말이 없었다. 김류가 나섰다. "밤낮으로 생각해 보아도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저 바깥의 구원을 기다릴 뿐입니다." 김류는 그러면서 적진에 사람을 다시 보내 회답을 독촉하자고 건의했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신료들의 이야기에 인조도 할 말이 없었다. "병졸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성을 굳게 지키는 것이 급선무일 뿐이다." 라고 말했지만 도무지 힘이 실리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병사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식량을 비롯한 물자들은 하루하루 떨어져 가고 있었다. '병자록(丙子錄)' '양구기사(陽九記事)' 등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예외 없이 '닭다리'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 "이때 전하께서도 침구가 없어 옷을 벗지 않고 주무셨다. 밥상에도 반찬으로 다만 닭다리 하나를 놓았다.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새벽에 뭇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전혀 없고 어쩌다 겨우 있다. 그것은 필시 나에게 닭을 바쳤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닭고기를 쓰지 말도록 하라."

인조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반찬이 닭다리 하나뿐인 처지에서 어느 겨를에, 또 무엇으로 장졸들을 어루만질 것인가?

●참혹한 소식들

산성 안에서는 추위와 물자의 고갈을 걱정하고 있었던 데 비해 산성 바깥의 백성들은 청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었다. 청군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와 바깥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의 증언 내용은 참혹했다. 적진에는 포로로 잡힌 부녀자들이 무수히 많고, 적진 바깥에는 어린 아이들의 시신이 수도 없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다. 병자년 연말 이후 몽골병을 비롯한 청군의 겁략(劫掠)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나타난 참상이었다. 당시 청군은 서울 주변에서 포로를 획득하는 데 열중했다. 그 와중에 성인 남자들에 비해 기동력이 떨어지는 부녀자와 아이들 상당수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 남한산성 동문.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청군은 특히 젊은 여자들을 사로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다시 서술하겠지만, 인조에게 항복을 받고 심양으로 귀환했던 청군 지휘부 내부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조선 여성 포로'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청군의 대소 지휘관들 사이에서, 조선에서 포로로 잡아 끌고 온 젊은 여성들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뺏고 빼앗기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젊은 부녀자를 데려가려는 그들에게, 여자에게 딸린 아이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 어미는 진중으로 끌고 들어가고 아이는 죽이거나 바깥에다 유기하는 참혹한 상황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무리 참혹해도 포위된 산성에서 조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적과 결전을 벌일 능력도, 화친을 이룰 전망도 불투명한 처지가 되자 신료들은 다른 곳에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시도했다.1월8일, 예조는 온조왕(溫祚王)에 대한 제사를 다시 지내자고 청했다. 이미 한 번 지냈지만 정성이 부족했다며 중신을 보내 성의를 다하여 온조왕에게 가호(加護)를 빌자고 청했다. 예조는 또한 원종(元宗 · 인조의 生父 定遠君)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숭은전(崇恩殿)에도 신료를 보내 제사를 지내자고 했다. 인조는 숭은전에서 올리는 제사는 자신이 직접 주관하겠다고 나섰다.

포위된 성에서의 곤경이 길어지자 이러저런 이상한 행동을 벌이는 자들도 나타났다. 어영별장(御營別將) 김언림(金彦琳)이 보인 행태가 대표적이었다. 그는 1월9일 밤, 청군 진영을 습격하여 적의 수급(首級)을 베어오겠다며 성을 내려갔다. 이튿날 새벽, 그는 수급 두 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인조는 그가 세운 공을 가상히 여겨 면주(綿紬)

세 필을 상으로 내렸다.
그런데 그가 들고 온 수급 하나가 이상했다. 수급의 살은 얼어 있었고, 피를 흘린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수급의 모양이 청군의 머리처럼 보이지 않았다. 모두 의아해하고 있는데 출신(出身) 권촉(權促)이 수급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형 권위(權偉)의 수급이라는 것이었다. 권위는 며칠 전 북문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전사했는데, 당시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권촉은 형의 수급을 자신이 모셔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했다.
주변의 장졸들은 경악했다. 김언림은 청군의 수급이 아니라 조선군 시신에서 목을 베어 왔던 것이다. 조정에서는 김언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효시경중(梟示警衆 · 목을 베어 매달아 군사들을 경계함)'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다 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안의 장졸들에게는 여전히 용맹함이 강조되고 있던 분위기에서 빚어진 참혹한 '해프닝'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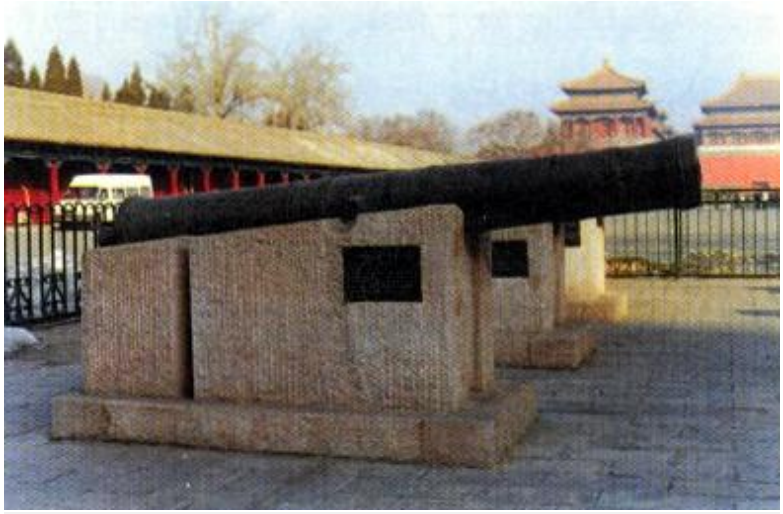
●다시 '재조지은' 을 강조하다

1월 초 남한산성의 동문(東門) 부근으로 진출하여 탐색전을 벌이던 청군은 1월11일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농성 중인 조선 조정의 의도와 예상되는 향후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강화도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군은 1월11일부터 산성 주변에 대한 압박을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 헌릉(獻陵)과 탄천 일대에 있던 병력 가운데 1만여명을 차출하여 수원과 용인, 여주와 이천 방면으로 각각 다시 배치했다. 근왕병이 남한산성으로 접근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동시에 산성의 북문과 서문 앞에 병력을 증강 배치했다. 상황은 더 엄혹해졌다
1월12일, 최명길 등이 국서를 들고 다시 청군 진영으로 갔다. 앞서 전달한 국서에 대한 회답이 없던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다시 써서 들고 간 국서의 내용 또한 공순했다. '소방은 바다 구석에 위치하여 오직 시서(詩書)만 일삼았지 전쟁은 몰랐습니다. 약국이 강국에 복종하고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어찌 감히 대국과 맞서겠습니까? 잘못을 용서하고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대국을 받들고 자손 대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머리를 숙였다.
문제는 명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한 부분이었다. '일찍이 임진년의 환란으로 소방이 곧 망할 뻔했을 때 명의 신종황제(神宗皇帝)께서 천하의 군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방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깊이 새겨 차마 명나라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조선은 '명이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베풀었듯이 청도 그렇게 해 달라.' 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청은 이미 '명=천하' 라는 인식을 팽개쳐 버린 지 오래였다.
어렵사리 고쳐 쓴 국서 속에 담긴 '재조지은' 을 해석하는 문제를 놓고 조선과 청은 새로운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힘겨운 화친 시도

淸, 화포 총동원 '무조건 항복-전원 옥쇄' 선택 엄포

조선이 상황에 떠밀려 화친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리한 조건에서 화친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는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조선은 청을 위협할 만한 '군사적 카드' 가 없었다. 근왕병이 오리라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희망 사항' 에 불과했다. 또 강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책임의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 필연적이었다. 그런데 '책임 소재' 를 규명하기 위한 공방전 또한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다. 청은 조선이 제시하는 논리와 입장을 자못 치밀하게 반박하고 있었다. 조선은 이래저래 화전(和戰) 양면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 청나라 군대의 대장군포(大將軍砲). 당시 청군의 화력은 획기적으로 증강돼 홍이포(紅夷砲)와 대장군포 등 중화기를 남한산성 앞에 배치했다.

●청, '명=천하' 인식을 부정하다

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놓고 벌인 논쟁에서 역사적 사례까지 끌어다가 조선의 논리와 입장을 반박했다. 청은 조선이, 홍타이지를 황제로 추대하는 데 동참하라고 권유하기 위해 왔던 몽골 버일러들의 편지를 접수하지 않은 것을 전쟁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몽골 버일러들과의 면담 자체를 거부했는데, 몽골과는 국서를 주고받은 전례가 없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미 1637년 1월2일, 홍타이지는 남한산성에 보낸 서신에서 조선이 내세운 명분을 반박했다. 그 핵심은 정묘호란 당시 인조와 조선 조정이 강화를 논의했던 상대가 자신의 조카와 제왕(諸王)들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후금 원정군의 사령관은 홍타이지의 이복형 아민(阿敏)이었고, 강화도를 왕래하면서 조선과 화친 교섭을 주도했던 사람은 한족 출신의 귀순자 유해(劉海)였다. 홍타이지의 반박에는 '정묘호란 당시에는 나의 부하들과 함께 화친 문제를 논의했으면서 작년에는 왜 똑같은 부하인 몽골 버일러들을 접견조차 하지 않았느냐?' 는 힐문이 담겨 있었다.

홍타이지는 이어 고려시대의 고사(故事)를 거론했다. 몽골 버일러들이 모두 원(元)제국의 후손이라는 것, 조선이 계승했던 고려가 원을 섬기고 해마다 조공했던 사실을 환기시켰다. 그런 몽골에 신속(臣屬)했던 고려의 후예인 조선이 몽골 버일러들을 접견하는 것조차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 청군이 사용하던 몽골어로 된 신패(信牌).

출처 정설청조십이제(正說淸朝十二帝)

조선이 1월13일에 보낸 국서에서 임진왜란 당시 명이 베푼 은혜(再造之恩) 때문에 그들을 배신할 수 없다고 했던 것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선은 '우리가 일본의 침략으로 망할 뻔했을 때 명의 신종(神宗) 황제께서 천하의 군사를 동원하여 구원해 주셨다.' 고 말한 바 있다.

1월17일에 보낸 답서에서 홍타이지는 '천하는 크고 나라는 많다. 너희를 구해준 것은 오직 명나라 하나뿐인데, 너희는 어찌해서 천하를 운운하는가? 명나라와 너희가 허탄(虛誕)하고 망령된 것은 끝이 없구나.' 라고 공박했다.

청은 대릉하(大凌河) 전투에서 승리했던 무렵부터 이미 명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상대적인 존재로 격하시키려고 시도해 왔다. 심지어 명을 남조(南朝), 또는 주조(朱朝,朱元璋이 세운 국가라는 뜻)라고 폄하해서 부르기도 했다. 그러니 명을 여전히 '천하' 로 여기고, 그들과의 기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청에 신복(臣服)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조선의 태도가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다.

●홍타이지, 신속(臣屬)할 것을 요구하다

1월17일에 보낸 답서에서 홍타이지는 작심한 듯 조선이 보낸 국서에 대한 반박과 비아냥, 그리고 협박하는 내용의 언사들을 쏟아냈다. 그는 자신의 거병(擧兵)이 전적으로 조선의 '잘못'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타이지는 먼저 인조가 1636년 3월 평안감사에게 보낸 유시문(諭示文)의 내용을 문제삼았다. 유시문의 내용 가운데 '장차 오랑캐와의 화친을 끊으려 하니 방어 태세를 강화하라.' 는 내용은 정묘호란 당시 맺은 맹약을 조선이 먼저 어겼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를 함락시킨 도르곤. 태조 누르하치의 14번째 아들인 그는 태종 치세에 중용돼 예친왕(睿親王)으로 봉해졌다.

홍타이지는 조선이 '소방은 바다 구석에 위치하여 오직 시서(詩書)만 일삼았지 전쟁은 몰랐습니다.' 라고 운운한 것도 맹렬히 비난했다. '전쟁을 모르는 나라' 가 왜 과거에 명을 도와 자신들을 공격하는 데 동참했느냐고 힐문했다. 그는 조선이 자신들을 가리켜 노적(奴賊, 천한 도둑이라는 뜻)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삼았다. '도둑(賊)이란 몸을 숨겨 몰래 훔치는 자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과연 도둑이라면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를 체포하지 않고 내버려두느냐?' 고 비아냥댔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홍타이지가 내세운 반박의 논리를 다시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단 그들이 제시한 과거의 '사실' 자체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다, 정보 수집 능력에서 그들에게 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조와 조선 조정의 '본심' 이 담긴 유시문을 자국 영토 안에서 용골대의 복병에게 탈취당한 것이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홍타이지는 조선의 '논리' 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회유와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 자신은 '형세를 따라 항복을 청하는 자는 무사히 보호하지만,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징벌한다.' 고 강조했다. 조선이 자신의 판도(版圖) 안으로 들어오면 적자(赤子)와 같이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은 사실상 조선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첫 문서였다. 이미 1월16일, 청군은 남한산성에서 잘 보이는 지점에 '초항(招降)' 이라는 두 글자가 크게 쓰여진 깃발을 세워 놓은 바 있었다. 바로 하루 뒤, 항복을 요구하는 답서를 보낸 것이었다. 홍타이지는 답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조를 직접 거론하며 다시 한번 채근했다. '네가 살고 싶

으냐? 그러면 성에서 빨리 나와 항복하라. 네가 싸우고자 하느냐? 그러면 성에서 빨리 나와 한 번 겨뤄보자. 하늘이 처분을 내리실 것이다.'

조선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조선이 보낸 국서에 대한 답변을 미뤄왔던 청의 본심과 요구 조건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무조건 항복하여 청의 신하가 되라.' 는 것이었다. 교섭을 잘 하면 정묘호란 당시 맺었던 '형제관계' 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조선의 판단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다.

●조선, 벼랑 끝으로 몰리다

인조는 홍타이지가 보낸 답서에 대응하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신료들을 불렀다. 홍서봉은 홍타이지의 답서 내용이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 신료들은 그들을 평소 '노적' 이라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사과하는 자세로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명길은 그들의 전력(戰力)이 증강되고 있는 것, 도르곤(多爾袞)을 중심으로 강화도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실제 당시 청군의 화력은 획기적으로 증강되고 있었다.1월10일, 두도(杜度) 등이 홍이포(紅夷砲)와 대장군포(大將軍砲) 등 중화기들을 남한산성 앞으로 끌고 와 배치했던 것이다.

이들 화기와 청군의 증원군은 본래 1월6일 임진강 북쪽까지 남하했다가 강의 얼음이 녹는 바람에 건너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강물이 다시 얼어붙었고, 증원군은 순식간에 산성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날씨까지 조선을 외면하는 형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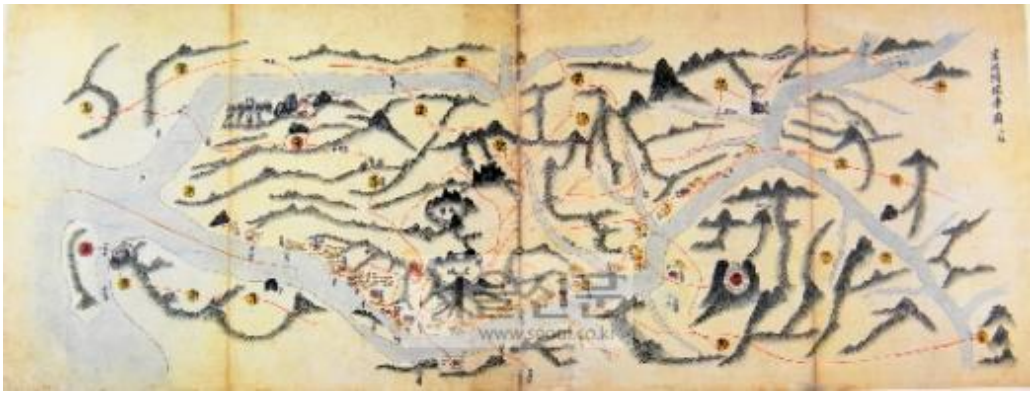
항복하라는 요구에 조선이 응하지 않을 경우, 홍이포의 포탄이 산성 안으로 날아올 판이었다. 이미 대릉하 공략전에서 홍이포를 비롯한 청군 화포의 위력은 결정적으로 발휘된 바 있다. 홍이포 포탄에 맞은 성의 돈대(墩臺)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끝까지 성을 사수(死守)하겠다던 명군의 의지도 같이 무너져 내렸었다. 홍타이지가 조선에 대해 노골적으로 항복을 종용했던 데에는 증원군이 도착하고 홍이포 등의 수송과 배치가 완료되었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조선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 '무조건 항복' 을 선택할 것인가? '전원 옥쇄(玉碎)' 를 각오하고 결전을 선택할 것인가?

벼랑 끝에 몰린 남한산성은 종사(宗社)의 운명을 결정할 최후의 선택을 앞에 두고 다시 술렁이고 있었다.

최명길 국서를 쓰고, 김상헌 그것을 찢다
항복형식 왈가왈부 하는 동안 포탄은 성안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청과의 교섭은 조선의 '항복 조건' 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변해갔다.1627년 정묘호란 당시 맺은 '형제관계' 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홍타이지는 사실상 '항복' 이나 마찬가지인 신속(臣屬)을 요구했다. '오랑캐' 를 황제로 섬겨야 하는 '현실' 을 코앞에 두고 신료들은 통곡했다. 하지만 '신속'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홍타이지는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올 것, 자신들과의 화의를 배척한 척화파(斥和派)들을 묶어 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홍이포(紅夷砲)을 발사하는가 하면, 강화도를 함락시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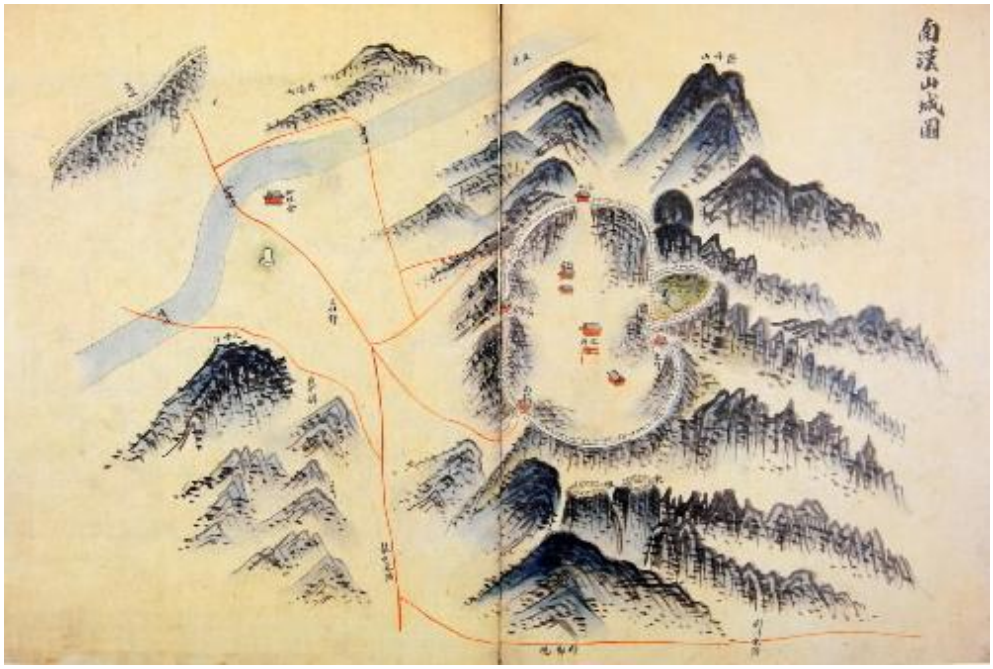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경강(한강)과 임진강 사이의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경강부임진도(京江附臨津圖). 중앙에 경성(京城)과 북한산성, 오른편에 남한산성, 왼편에는 강화도가 그려져 있다. 서울 주변의 군사 · 방어시설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참담한 사신들

이렇다 할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위해 청군 진영을 왕래하는 조선 사신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청군 진영에서는 홍타이지의 '노여움'을 풀고, 항복 조건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아부와 상찬(賞讚)을 늘어놓아야 했다. 자연히 산성의 척화파들로부터는 '오랑캐에게 고개 숙인 자', '대의명분을 저버린 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남한산성 부근을 간략하게 묘사한 남한산성도(南漢山城圖). 산성의 4대문과 옹성, 서장대(西將臺)가 표시돼 있다. 남문에서 삼전야(三田野)를 거쳐 송파진(松波津)에 이르는 길 중간에 있는 비석은 청태종 송덕비다.
출처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東國輿圖)

1월13일 청군 진영에 갔을 때, 조선 사신들은 청 측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최명길은 '황제는 참으로 관대하고 도량이 넓은 분입니다. 진실로 남한산성을 공격하여 도륙(屠戮)하고자 한다면 청군 또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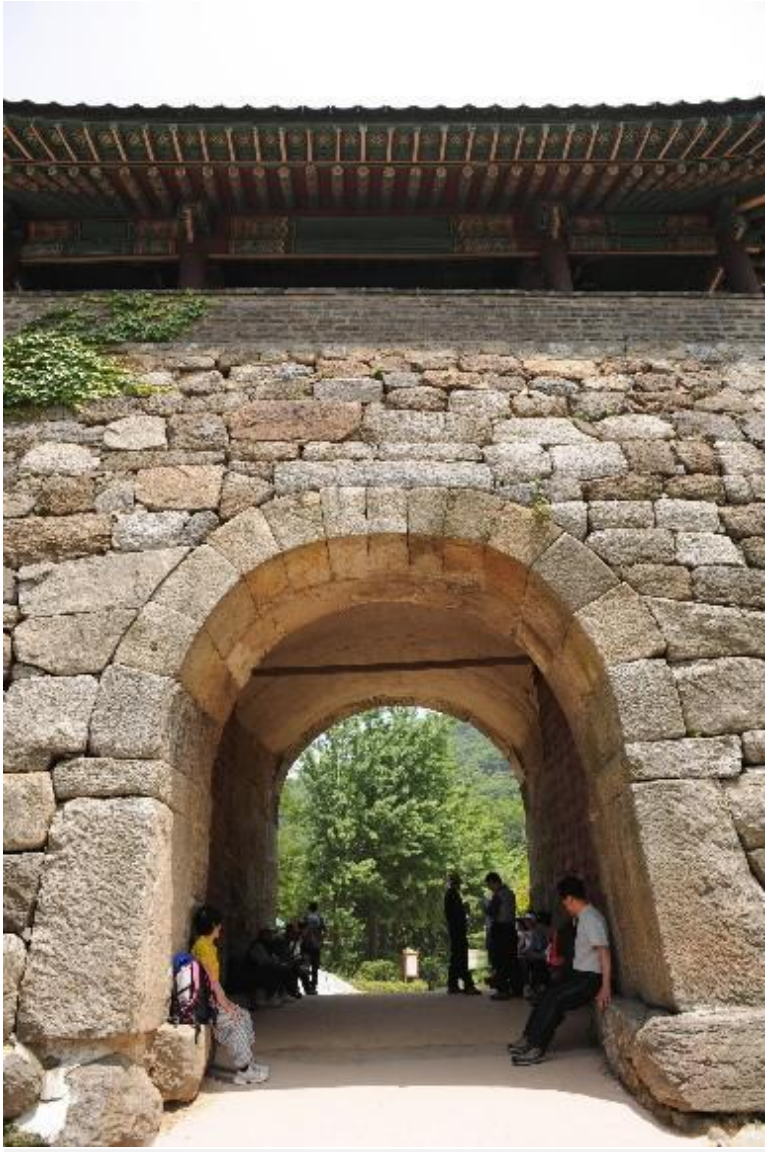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금과 신료들은 저항하다가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자결할 것이니 그대들이 입성하는 날,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시체 더미뿐일 것입니다. 그대들이 죄를 뉘우치는 조선을 용서한다면 영원히 은인이 되는 것이니 또한 좋은 일이 아닙니까?' 라고 청군 지휘부를 달래려고 시도했다.

홍서봉(洪瑞鳳)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 그들의 감성에 호소했다. 홍서봉은 직접 마른 풀을 집어 태우면서 청군 지휘관들에게 '이 풀이 비록 바짝 말랐지만 하늘이 비와 이슬로써 적셔준다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오. 오늘 조선이 그대들로부터 허물을 용서받는다면 황제는 하늘이 되고, 그대들은 비와 이슬이 되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

눈물겨운 노력이자 몸짓이었다. 산성에 대한 포위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호소이기도 했다. 하지만 청군 지휘관들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1월17일에 보내온 회답서에서 무조건 항복하고 신속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청의 신속(臣屬) 요구를 받아들이다

1월18일, 논란 끝에 최명길이 청 태종에게 보낼 국서의 초안을 완성했다. 비변사 신료들이 그것을 돌려보며 문구를 수정했다. 신료들은 초안 가운데 홍타이지를 '폐하(陛下)' 라고 호칭한 것을 지웠다. 내용은 당연히 지난번 보냈던 것보다 더 공손해지고, 스스로를 더 낮추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소방은 10년 동안 형제의 나라로 있으면서 오히려 대국의 운세(運勢)가 일어나는 초기에 죄를 얻었으니, 후회해도 소용없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원하는 것은 단지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구습(舊習)을 말끔히 씻고 온 나라가 명(命)을 받들어 여러 번국(藩國)과 대등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진실로 위태로운 심정을 굽어살피시어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허락하신다면, 문서와 예절은 당연히 행해야 할 의식(儀式)을 따를 것입니다.'



▲ 남한산성 남문. 병자호란 당시 인조 임금은 이 남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여러 번국과 대등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라는 구절이 내용의 핵심이었다. 아직 '신(臣)' 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홍타이지를 '황제' 로, 청을 '황제국' 으로 섬겨 군신(君臣) 관계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다. 정묘호란 당시 맺었던 형제관계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조선 스스로 접는 대목이기도 했다. 사실상 '항복'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인조가 성을 나가는 것만은 면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최명길은 이렇게 썼다. '성에서 나오라고 하신 명이 실로 인자하게 감싸주시는 뜻이긴 합니다만, 생각해 보건대 겹겹의 포위가 풀리지 않았고 황제께서 한창 노여워하고 계시는 때이니 이곳에 있으나 성을 나가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용정(龍旌)을 우러러 보며 죽음의 갈림길에서 스스로 결정하자니 그 심정 또한 서글픕니다. 옛날 사람이 성 위에서 천자에게 절했던 것은, 대체로 예절도 폐할 수 없지만 군사의 위엄 또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남한산성을 나가서 항복하는 대신 청 태종이 회군하는 날, 성 위에서 요배(遙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나마 인조의 체면과 위신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려는 몸짓이었다.

●김상헌 국서 내용 보고는 통곡

국서의 최종본을 완성하기 위해 최명길은 비변사에 머물면서 내용을 가다듬었다. 이 때 예조판서 김상헌이 들어와

내용을 보고는 통곡하면서 찢어버렸다. 김상헌은 인조에게 달려갔다. '저들과의 명분이 정해지고 나면 우리에게 군신의 의리를 요구할 것이니, 성을 나가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 성문을 나서면 북쪽으로 끌려가는 치욕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로부터 적군이 성 밑에까지 이르고서 그 나라와 임금이 보존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강(靖康)의 변(變)을 다시 볼까 두렵습니다.'

'정강의 변' 이란 1126년 금군(金軍)이 송(宋)의 수도인 개봉(開封)을 함락시킨 뒤, 태상황(太上皇) 휘종(徽宗)과 황제 흠종(欽宗)을 붙잡아 간 사건을 가리킨다. 휘종은 금의 오지인 만주로 끌려가 눈이 먼 상태에서 객사했고, 흠종 역시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조선이 처한 상황은 '정강의 변' 때 송이 처한 상황과 여러모로 흡사했다. 더욱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청군은 금군의 후예였고, 조선은 중국의 어느 왕조보다도 송을 존모(尊慕)해 왔다. 김상헌은, 신속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분명 성을 나가야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조와 왕세자 또한 휘종과 흠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김상헌은 일단 군신의 명분을 받아들이면 그나마 남아 있는 성 안의 결전 의지는 급속히 해체되어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신 관계' 에 반대하는 대다수 신료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이식(李植)은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보이면, 저들이 도륙하여 입성한 이후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 포위를 풀고 물러갈지도 모른다.' 는 예측을 내놓았다. 국서를 바로 보내지 말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내용을 다시 수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인조는 반문했다. '양식이 지탱하기에 충분하고, 병력이 적을 막을 만큼 강하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인조는 일찍 죽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며 탄식했다. 주변에 있던 신료들이 일제히 눈물을 떨구고, 인조 옆에 앉아 있던 소현세자의 통곡 소리가 서글프게 흘러나왔다.

●청군, 무력 시위를 벌이다

최명길이 다시 나섰다. 이제 신속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서를 보내는 것을 늦추자는 주장도 일축했다. 늦추자고 주장하는 신료들에게 '그대들이 사소한 것에 매달려 일을 이 지경으로 끌고 왔다.' 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몽롱한 상태에서 국사를 논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1월18일, 논란 끝에 완성한 국서를 갖고 청군 진영으로 갔다. 하지만 청군 지휘부는 국서 접수를 거부했다. 인조의 출성(出城)을 거부하는 내용 때문이었다. 사신들이 하릴없이 돌아오자, 비변사는 삭제했던 '폐하(陛下)' 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다시 보냈다. 1월19일, 홍이포 포탄이 성 안으로 날아들었다. 인조의 출성을 요구하는 무력시위였다. 처음으로 포탄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 산성은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다.

홍타이지는 또한 강화도를 공략할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조선 왕실의 가족들과 고관들의 처자식들이 피란해 있는 강화도를 먼저 함락시키면 남한산성의 '결전 의지' 는 결정적으로 꺾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이미 강화도를 공략할 배를 만들어 두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 인조가 나오지 않으면 항복을 받아줄 수 없다며 병선(兵船)을 건조하고 있던 청군의 압박 속에서 남한산성의 운명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병자호란] (27) 인조의 절박함과 홍타이지의 절박함

2013.01.27 23:37

인조의 절박함과 홍타이지의 절박함

인조, 반정 통해 얻은 지존 위신 잃을까 出城 회피

항복을 하더라도 산성에서 나가는 것만큼은 끝까지 피하고자 했던 인조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월20일 조선은 홍타이지에게 보낸 국서에서 처음으로 칭신(稱臣)했다. 찢고 다시 쓰는 우여곡절 끝에 작성한 국서였다. 하지만 홍타이지는 조선의 칭신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답서에서 인조에게 산성에서 나오라고 다시 강요했다. 출성(出城)하지 않으면 항복을 결코 받아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척화신(斥和臣) 두세 명을 묶어 보내라는 요구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그들의 목을 베어 '대국에 반항한 죄'를 다스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쯤 되면 '무조건 항복'이 아니었다.



▲ 기전도(畿甸圖). '기전'은 도성 주변을 일컫는다. 한강과 임진강, 삼각산을 비롯한 산, 각 성과 방어 진지의 모습 등이 잘 묘사돼 있다. 특히 서울 주변의 광주(남한산성), 수원, 개성, 강화 등과 파주, 교동, 영종도 등지는 붉은색으로 뚜렷하게 드러냈다. 조선시대 도성 주변의 형세를 명확히 보여 주는 지도다.
출전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

●홍타이지의 '절박함'

1637년 1월20일 남한산성 주변의 날씨는 음산했다. 아침부터 뿌연 안개 때문에 사방을 분간할 수 없더니 하루 종일 큰 눈이 내렸다. 칭신을 다짐하는 국서를 들고 청군 진영에 갔던 사신들은 날씨만큼이나 음산한 내용의 답서를 받아들고 돌아왔다.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인조가 성에서 나와야만 항복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 나오기 전에

청과의 관계를 파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척화신(斥和臣) 두세 명을 먼저 묶어 보내라는 것이었다.

'그대를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대가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자 은혜를 베풀려는 것이다. 짐은 바야흐로 하늘의 도움을 받아 사방을 평정하고 있으니, 지난날 그대의 잘못을 용서해 줌으로써 남조(南朝)에 본보기를 보이려 한다. 만약 간사하게 속이는 계책으로 그대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큰 천하를 어떻게 모두 속여서 취할 수 있겠는가?'

일단 인조를 안심시키려는 내용이었다. 인조가 우려하듯이, 그를 성밖으로 유인해낸 뒤 휘종(徽宗)이나 흠종(欽宗)의 경우처럼 청나라로 연행해 갈 생각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조선이 이미 칭신하여 자신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홍타이지가 인조에게 출성을 강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1636년 봄 만몽한(滿蒙漢) 출신의 신료들이 심양에 모여 홍타이지를 황제로 추대할 때, 조선 사신 이확(李廓)과 나덕헌(羅德憲)은 배례(拜禮)를 끝까지 거부했었다. 뿐만 아니라 '칭제건원(稱帝建元)' 사실을 알리려 조선에 갔던 용골대와 몽골 버일러 일행은 조선의 '박대'에 밀려 도망치듯 심양으로 돌아왔었다.



▲ 서양인이 그린 청군 무장(武將)의 모습. 왼쪽은 한인(漢人)이고 오른쪽은 만주인이다. 출전 '중국의 역사'(고단샤 펴냄).

대국 명조차 자신에게 벌벌 떨고, 막강한 차하르 몽골까지도 항복했는데 소국 조선은 끝까지 자신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것은 홍타이지의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뻣뻣한 태도는, 공유덕(孔有德)을 비롯한 한족(漢族) 출신 귀순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명의 번국(藩國)인 조선도 끝까지 고개 숙이기를 거부하여 명에 대한 의리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명의 신료들이 먼저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었다.' 는 비아냥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럴 경우, 한족 출신 귀순자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었다. '남조에 본보기를 보이려 한다.' 는 대목에서도 드러나듯이 홍타이지는 인조를 불러내 자신 앞에 무릎을 꿇려야 할 '절박함'을 갖고 있었다.

●인조의 '절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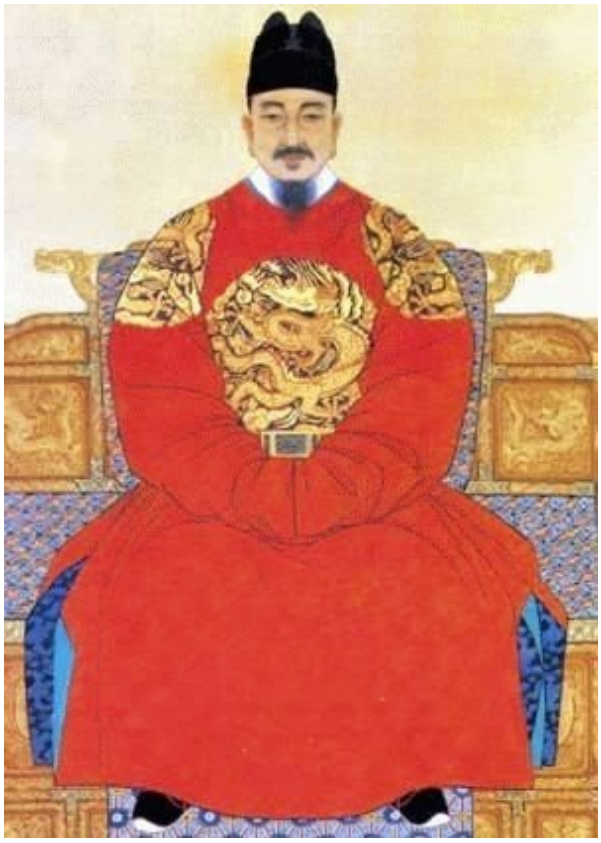
1월21일 인조는 청군 진영에 국서를 다시 보냈다. 이날의 국서에서 조선은 더 작아졌다. 인조가 신(臣)을 칭한 것은 물론 홍타이지를 '폐하'라고 부르고, 명의 숭정(崇禎) 연호 대신 청의 숭덕(崇德) 연호를 사용했다. '황제국' 청이 요구했던 것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이는 형식의 국서였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여전히 거부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출성 문제'였다. 인조는 출성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거듭 애원했다.

'오늘날 성안의 모든 사람들은 위태롭고 급박한 상황 때문에 귀순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에서 나가는 것만은 고려(高麗) 이래 없었던 일이라며 죽더라도 결코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성을 계속 독촉하신다면, 청군이 입성하는 날 산성 안에는 시체 더미만이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출성을 계속 강요할 경우, 성안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내세웠다. 인조는 그러면서 출성을 회피하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슬쩍 내비쳤다. '소방의 풍속은 잗달아 예절이 너무도 꼼꼼합니다. 임금의 행동이 조금만 이상해도 신하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 쳐다보며 괴상하게 여깁니다. 제가 출성할 경우, 나라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신하들은 필시 저를 임금으로 떠받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폐하께서 귀순을 허락하신 것은 소방의 종사(宗社)를 보전시키려 함인데, 이 한 가지 때문에 나라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한 채 멸망하고 만다면 그것은 폐하께서 돌봐 주시는 본 뜻이 아닐 것입니다.'


조선시대왕

인조가 출성을 끝까지 회피하려 했던 것은 대략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홍타이지가 자신을 심양으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또 하나는 지존(至尊)으로서의 위신을 잃어 이후 왕 노릇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었다.

인조는 반정(反正)이라는 비정상적인 정변을 통해 추대된 임금이었다. 인조를 옹립했던 신하들은 그가 분명 광해군보다는 훨씬 나은 임금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그를 선택했다. 하지만 인조가 산성에서 나가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을 경우, 그를 추대한 신하들은 인조의 처참한 몰골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쫓겨난 광해군에게 문제가 많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그래도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명분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신하들이 나를 과연 임금으로 계속 떠받들어 줄 것인가?' 인조로서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시나리오'였다. 인조가 홍타이지에게 출성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데에는 이 같은 '절박함'이 자리잡고 있었다.

●너도나도 박송(縛送)을 자원하다

'척화파를 묶어 보내라.'는 요구 또한 몹시 괴로운 것이었다. 홍타이지의 설명은 이러했다. '그들이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짐의 서정(西征)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조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서정'이란 명을 정벌하는 것을 말한다. 척화파가 청에 대한 저항을 '선동'하는 바람에 자신이 조선을 손봐주게 되었고, 그 때문에 궁극에는 명을 정복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명분이었다. 실제로는 조선 신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저항하려는 의지를 꺾고, 자신이 이제는 조선의 신료와 백성들까지도 건사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과시하려는 깜냥이었다.

척화파를 박송(縛送)하라는 조건이 알려진 뒤부터 신료들 가운데 자원자들이 줄을 이었다.1월22일 사간 이명웅(李命雄)이 제일 먼저 나섰다. '신도 화친을 배척한 사람입니다. 만의 하나 포위를 푸는 데 보탬이 된다면, 신자(臣子)의 직분과 의리로 피할 수 없는 일이니 먼저 나가고 싶습니다.'

이조참판 정온(鄭蘊)도 나섰다. '신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신이 죽음으로써 조금이라도 존망(存亡)의 계책에 도움이 된다면 어찌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예조판서 김상헌, 전 교리 윤집(尹集), 전 수찬 오달제(吳達濟), 부호군 윤황(尹煌) 등 자원자는 줄을 이었다.

마지막 결전을 벌이자는 주장도 나타났다. 김수현(金壽賢), 황일호(黃一皓) 등은 국서를 다시 써서 보내라고 촉구했다. '이제 노약자들을 먼저 죽이고, 남은 양식을 모두 태워 버린 뒤 날랜 장정을 뽑아 그대들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

고자 한다. 남한산성이야 완전히 망할지 모르지만, 남은 사람들은 들고일어나 자식은 아비의 원수를 갚고, 아우는 형의 원수를 갚고, 신하는 임금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대들은 부질없이 만대(萬代)의 원한만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인조는 청의 노여움만 더할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삼사(三司) 신료들의 면담 요청을 아예 거부해 버렸다.

1월22일 조정은 화친을 배척한 신료들에게 자수하라고 권고했다.1월 23일에는 수원(水原) 출신의 장수들이 정원(政院) 문밖에 몰려와 척화신들을 내보내라고 소리쳤다. 기막힌 일이었다. 산성의 대오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었다.

강화도가 함락되다(I)

海戰 경험 적은 淸軍 얕보다 허찔려 '철옹성 와르르'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가는 문제를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던 1637년 1월22일, 강화도가 함락되었다. 왕실 가족들과 조정 신료들의 처자들, 그리고 역대 선왕들의 신주(神主)가 피란해 있던 곳이 강화도였다. 인조와 조정 신료들이 외롭고 추운 산성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강화도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덕분이었다. 조선 군신들은 '변변한 수군도 없고 바다에도 익숙지 못한 청군이 강화도만은 어쩔 수 없을 것' 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강화도는 무너졌고 피란해 있던 피붙이들은 모두 청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남한산성의 조정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 강화부도(江華府圖). 강화도와 김포 통진 교동 일대와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그린 지도이다. 갑곶, 광성진, 월곶 등이 표시되어 있다. 출전 규장각 소장 동국여도(東國輿圖).

●강화도를 장악하라

홍타이지가 병자호란을 도발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인조의 입도(入島)를 막지 못할 경우 전쟁은 분명 길어지게 될 것이고, 속전속결로 '조선 문제' 를 해결하려 했던 구상도 헝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홍타이지는 청군 본진의 출발에 앞서 선봉 부대를 파견하여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했던 것이다.



▲ 갑곶 돈대의 모습.



▲ 갑곶나루의 모습.

1637년 1월 중순 홍타이지는 남한산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출성을 완강히 거부하는 인조를 제압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 위해 부심했다. 묘수란 다름 아닌 강화도를 함락시키는 것이었다. 홍타이지는, 강화도만 공취(攻

取)하면 인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청태종실록' 에는 홍타이지가 일찍부터 강화도 공략을 염두에 두고 병선(兵船)을 제작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는 부하들에게 1월21일 전까지 병선 제작을 완료하라고 독촉했다.

홍타이지의 지시를 받은 청군은 심양에서 철장(鐵匠)을 비롯한 장인들을 데려오는 한편 병선 제작에 돌입했다. 한강과 임진강 일대에 흩어져 있던 선박들을 끌어 모아 수리하고, 주둔 지역 주변의 민가를 헐어 뗏목과 배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병선을 운반하기 위해 동거(童車)라 불리는 작은 수레도 제작했다.

수군이 미약하고 해전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청군이 이렇게 병선을 제작하여 강화도를 직접 공격할 계획을 세웠던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그들은 강화도 주변에 대한 세심한 정찰을 통해 섬을 공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섬 주변에 배치된 조선군의 방어 태세가 그다지 견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청군 가운데는 수군을 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장수들이 있었다.1633년 수군과 함선을 이끌고 명에서 귀순해 왔던 공유덕(孔有德)과 경중명(耿仲明)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홍타이지는, 공유덕 등에게 수군을 이끌게 하고 홍이포(紅夷砲)의 화력을 적절히 활용하면 강화도를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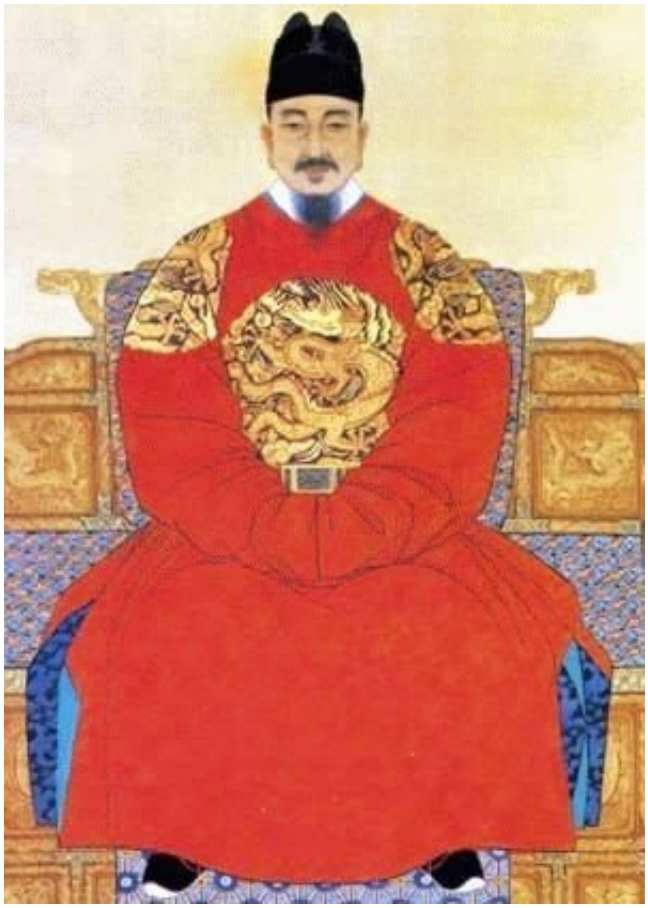
●무사안일에 젖은 강화도의 조선 지휘부

홍타이지는 1637년 1월18일까지는 강화도에 대한 공격을 유보했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와 항복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조가 나오지 않자, 홍타이지는 구왕(九王) 도르곤(多爾袞)에게 강화도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1월19일, 청군은 자신들이 제작한 작은 배 80척을 수레에 싣고 강화도로 출발했다. 당시 강화도 건너편에는 도르곤, 호게(豪格), 공유덕 등 청군 지휘부가 1만 6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대기하고 있었다. 청군은 1월21일까지 강화도를 공략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렇다면 강화도에 있던 조선군의 방어 태세는 어떠했을까? 당시 강화도 방어와 왕실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인물은 검찰사(檢察使) 김경징(金慶徵)이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는 강화도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가와 친지들만을 노골적으로

챙겨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강화도로 들어온 뒤에도 김경징의 행태에는 문제가 많았다.



그는 강화도를 그야말로 금성탕지(金城湯池)로 여겨 방어를 위한 군사적 준비를 거의 팽개치다시피 했다. 청군이 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청군 내부에 해전을 경험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경징은 광성진(廣城津) 부근에 약간의 수군을 배치했을 뿐, 다른 지역의 방어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강화도의 대안인 김포 주변을 감시하고, 그곳에도 병력을 배치하여 대비하는 것이 절실했지만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병자록' 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보면, 김경징은 날마다 잔치를 열고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일이었다. '금성탕지' 에서 오래 버틸 요량으로 주변의 육지 고을에서 곡식을 운반해 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저 강화도에서 오래 버틸 생각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주변의 신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방어 태세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그는 참견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다. 심지어 봉림대군(鳳林大君 · 후일의 효종(孝宗))조차 그의 위세에 눌려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인조의 어명에 의해 검찰사로 임명된 데다 그의 부친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체찰사(體察使) 김류였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상 강화도로 피신해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막강한 존재였다.

검찰사 김경징을 보좌해야 할 검찰부사(檢察副使) 이민구(李敏求) 또한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였다. 충청감사 정세규(鄭世規)가 근왕병을 이끌고 왔다가 죽자, 남한산성의 조정은 이민구를 대신 충청감사로 임명했다. 하지만 강화도에서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이민구는 갖은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충청도로 부임하는 것을 회피했다. '병자록' 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처삼촌(妻三寸)인 전 영의정 윤방(尹昉)의 '백' 까지 이용하여 끝내 부임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정작 강화도를 방어하기 위한 조처에는 손을 놓았던 것이다.

●무너지는 강화도

김경징을 비롯한 조선군 지휘부가 여전히 안일에 젖어 있던 1월21일, 심상치 않은 보고가 날아들었다. 통진가수(通津假守) 김적(金迪)으로부터 청군이 강화도를 향해 배를 운반하면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던 것이다. 김경

징은, 강물이 언 상태에서 배를 운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김적의 목을 베려고 덤볐다. 그가 허위 보고를 통해 군정(軍情)을 어지럽혔다는 명목이었다. 김경징은 청군이 동거를 이용하여 배를 육로로 운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갑곶(甲串)을 지키는 장수로부터도 똑같은 보고가 들어오자 김경징은 다급해졌다. 강화유수(江華留守) 겸 주사대장(舟師大將)인 장신(張紳)의 수군을 광성진에 배치하여 갑곶 연안까지를 방어토록 하고, 충청수사 강진흔(姜晉昕)이 이끄는 수군을 연미정(燕尾亭) 아래 갑곶에 배치하여 가리산(加里山)부터 월곶(月串)에 이르는 해안을 방어토록 했다. 또 한흥일(韓興一), 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 종묘령(宗廟令) 민광훈(閔光勳), 해숭위(海崇尉) 윤신지(尹新之) 등을 차출하여 강화성과 주변 포구 등지의 수비를 맡겼다. 그리고 자신은 강화도 수비군 1000여명을 이끌고 진해루(鎭海樓)에 지휘본부를 차렸다. 육지를 방어하는 지휘관들은 김경징 자신을 포함하여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문관과 종실들이 대부분이었다. 미리 방어 훈련을 실시해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임기응변밖에는 방도가 없었다.

김경징은 장병들에게 무기와 화약 등을 나눠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화약을 조금씩 분급하면서 그것을 일일이 기록했다는 것이다. 적의 상륙 시도가 임박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는 조처였다. 강화도가 함락될 경우, 화약 분급량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1월22일 새벽, 청군은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청군은 새로 건조하거나 수리한 선박 100여척에 50~60명씩의 병력을 분승시켜 공격을 개시했다. '청나라 오랑캐는 바다에 약하다.' 라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더욱이 청군의 일부 선박에는 홍이포까지 거치되어 있었다. 홍이포에서 포탄이 발사되자 조선군의 사기는 이내 꺾이고 말았다. 전투 경험도 없고, 사전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철옹성' 강화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청군은 강화도 공격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 도르곤(多爾袞)은 심양에서 데려오거나 한강 일대에서 사로잡은 조선인 선장(船匠)들을 활용하여 다량의 병선을 만들었다. 크기는 작지만 매우 빠른 배들이었다. 청군은 그 배들을 갑곶(甲串)까지 육로로 운반하여 조선군의 허를 찔렀다. 한강이 얼어 있던 당시, 강화도의 조선군 지휘부는 청군이 육로로 배를 운반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다 할 방어 태세를 갖추지 않고 오로지 천연의 험세(險勢)만을 믿고 또 믿었다. '준비된 군대' 의 의표를 찌르는 작전 앞에서 강화도가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갑곶 방어선이 무너지다

갑곶은 육지와 강화도를 잇는 바다의 폭이 매우 좁은 곳이었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작은 거룻배만으로도 건널 수 있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그럼에도 김경징 등은 갑곶 방어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청군이 상륙작전의 출발지를 갑곶으로 정한 것은 까닭이 있었다.



▲ 이상길의 신도비.

청군이 도해(渡海)를 시도하던 날 갑곶에 배치된 방어 전력(戰力)은 충청수사(忠淸水使) 강진흔(姜晉昕)이 이끄는 병선 7척과 수군 200명 정도가 고작이었다. 당시 해안 방어의 주력은 주사대장(舟師大將) 장신(張紳) 휘하의 수군이었는데, 광성진(廣城鎭) 부근에 머물고 있었다. 강화성 방어를 맡은 초관(哨官)들 대부분도 장신의 선단에 소속된 배에 타고 있는 상태였다.

1637년 1월21일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김경징은 장신에게 휘하의 수군을 갑곶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장신은 급히 선단을 움직였지만 마침 조금(潮水가 가장 낮은 때인 음력 스무사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조금 때문에 전진이 여의치 않았던 장신의 선단은 이튿날 새벽까지도 갑곶에 도착하지 못했다.

청군의 공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진흔은 중과부적인 상태에서도 분전했다. 적선 3척을 침몰시켰지만 자신의 배 또한 청군의 화살과 대포에 맞아 죽은 군졸이 수십 명이나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신의 수군이 도착했다. 장신은 정포만호(正浦萬戶) 정연(鄭) 등을 시켜 청군의 배후를 공격하도록 했다. 덩치가 훨씬 큰 조선 전함이 들이받자 적선 한 척이 침몰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많은 청군 병선들이 방향을 바꿔 자신의 선단을 향해 몰려

들자 장신은 겁에 질리고 말았다. 그는 갑자기 정연 등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하고, 광성진 쪽으로 방향을 틀어 도주하기 시작했다. 변변하게 싸워 보지도 않고 퇴각을 결정했던 것이다. 강진흔이 발을 동동 구르며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장신은 끝내 외면했다. '인조실록' 과 '병자록' 등에는 격앙된 강진흔이 장신을 질타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장신, 네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서도 어찌 차마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베어 죽이겠다." 하지만 장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정연 등은 전진하여 강진흔을 구원하려 했으나 장신의 위세에 밀려 물러서고 말았다. 갑곶 방어선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 강화도에서 순절한 이상길 영정.

●청군이 강화성을 포위하다

갑곶에서 강진흔의 수군이 무너지자 청군이 상륙을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해안에 복병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여 섣불리 건너오지 않았다. 척후병이 먼저 상륙하여 주위를 둘러본 뒤, 이렇다 할 저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다를 건넜다. 싸울 의지도 능력도 없던 김경징 등은 당황하여 해안의 병력을 이끌고 강화성 안으로 달아나려고 획책했다. 청군 대병력과 해안에서 직접 맞서봤자 승산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 호조좌랑 임선백이 봉림대군에게 달려가 호소했다. '어찌 천연의 요새를 버리고 허물어진 성안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나라의 존망이 이 한번의 싸움에 달려 있는데 대장이 물러나 위축되어 군사들의 마음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봉림대군도 김경징을 말렸지만 그는 이미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 이상길을 모신 충렬사.

지휘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해안에 배치된 병사들은 인근의 산 등지로 물러나 버렸다. 임선백은 봉림대군에게 진해루(鎭海樓) 아래를 비롯한 험한 곳에 진을 치고 결전을 벌이자고 건의했다. 그러는 사이에 갑곶 건너편에 있던 청군의 대병력은 이미 바다를 건너 상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병자록' 등에서는 '청군이 마치 나는 듯이 바다를 건너 달려들었다.' 고 적었다.

여러 곳에서 조선군의 산발적인 저항이 이어졌다. 중군(中軍) 황선신(黃善身)이 지휘하는 병력은 진해루 아래에서 적 9명을 살해하는 등 분전했다. 하지만 이미 청군에게 도해를 허용하여 사기가 저하된 데다 중과부적이었다. 황선신과 천총(千摠) 강홍업(姜弘業), 초관 정재신(鄭再新) 등 항전하던 말단 지휘관 대부분이 전사했다. 그럼에도 장신의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초관들은 바라만 볼 뿐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경징과 이민구는 이미 나룻배를 타고 장신의 배로 몸을 피했다. 그리고 도주했다. 격분한 천총 구일원(具一元)은 장신을 꾸짖고 물에 빠져 죽었다.

해숭위(海崇尉) 윤신지(尹新之), 전창군(全昌君) 유정량(柳廷亮) 등의 휘하에서 강변을 수비하던 병력들도 모두 바다나 산으로 달아났다. 전투를 해본 적이 없던 유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청군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갑곶 나루를 돌파한 청군은 사시(巳時 · 오전 9~11시) 무렵 강화성으로 밀려들었다. 청군은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종용했다.

성안에서는 원임대신 김상용(金尙容) 등이 중심이 되어 방어군을 배치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 조선군은 조총과 활을 쏘며 저항했지만, 집중 포격을 앞세워 몰려드는 청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미 강화성보다 몇 배나 견고한 대릉하성을 함락시킨 경험이 있는 그들이었다. 김경징 등 최고 지휘부의 오판과 태만, 그리고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수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상륙을 허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강화성의 북문(北門)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청군은 성안으로 밀려들었다.

●이어지는 자결, 그리고 죽음들

불과 한나절여 만에 강화성은 함락되고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저항하거나 도망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청군에게 희생되었다. 또 '오랑캐'가 몰려오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남문에 머물던 김상용은 화약 궤짝에 불을 질러 스스로 폭사했다. 그의 장렬한 죽음과 함께 문루도 사라져 버렸다. 김상용 말고도 우승지 홍명형(洪命亨), 도정(都正) 심현(沈俔), 봉상시정(奉常寺正) 이시직(李時稷), 주부(主簿) 송시영(宋時榮), 전 공조판서 이상길(李尙吉) 등이 자결했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대의를 내세워 순절한 것이다.

이시직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글은 비감했다. "장강(長江)의 험함을 잃어 북쪽 군사가 나는 듯이 건너오는데, 술 취한 장수는 겁이 나 떨며 나라를 배반하고 목숨을 지키려 드는구나. 파수(把守)가 무너져 만백성이 어육(魚肉)이 되었으니 하물며 저 남한산성이야 조석간에 무너질 것이다. 의리상 구차하게 살 수 없으니 기꺼운 마음으로 자결하려 한다. 살신성인하려 하니 땅과 하늘을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다. 아 내 아들아. 삼가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 돌아가 유해(遺骸)를 장사 지내고, 늙은 어미를 잘 봉양하거라. 그리고 깊숙한 골짜기에 몸을 맡겨 세상에 나오지 말라. 구구한 나의 유원(遺願)을 잘 따르기 바란다."

'골짜기에 몸을 맡겨 세상에 나오지 말라.' 이 한마디 속에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삶의 가치가 함축되어 있었다.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세상에 나아가 벼슬하는 것을 삼가라.'는 당부였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자신의 임무를 팽개쳤던 관인들 때문에 '도마 위의 고기'가 되어야 했던 수많은 생령들의 희생은 과연 어디서 보상받을 것인가?

강화도가 함락되던 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성인(成仁)을 도모했던 관인들의 이면에는 너무도 많은 보통 사람들의 처참한 죽음이 가리어져 있었다.

[병자호란] (28) 강화도의 비극

2013.01.27 23:41

강화도의 비극

강화도가 함락될 때 김경징, 이민구, 장신 등 조선군의 최고위 지도부는 바다로 도주하여 목숨을 부지했다. 강화도 방어를 책임진 그들은 멀쩡했지만,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연쇄적인 비극을 불렀다.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강화성에 있던 피란민들은 모두 '도마 위의 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청군은 성을 점령한 직후 군사들을 시켜 성호(城壕)를 헐어 버리고 행궁(行宮) 관사를 불태운 뒤, 성안에 있던 남녀노소들을 끌어냈다. 강화도의 이곳저곳에서 처참한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도망간 김경징, 삼대 여인들 모두 자결

비극의 손길은 먼저 여자들과 아이들에게로 뻗쳐 왔다. 청군이 몰려오자 여자들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다가, 혹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때로는 지아비와 아들의 강요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성구(李聖求)와 이지항(李之恒)의 처는 청군의 손에 죽었다. 권순장(權順長)과 그 집안 여자들의 죽음은 특히 참혹했다. 권순장은 김상용과 함께 불붙은 화약 더미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권순장의 아내는 자신의 목을 매기 전 세 딸을 먼저 목매어 죽게 했다. 권순장의 누이동생 또한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민성(閔)은 먼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고 자결했다.



▲ 정족산의 삼랑성(三郞城).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해 삼랑성이라 불린다.



▲ 강화도의 연미정(燕尾亭). 이 부근에서 병자호란 당시에 전투가 벌어졌다.



▲ 강화유수부 동헌 모습.



▲ 교동(喬桐) 읍성의 모습.
문화재청 홈페이지

비극은 김경징 집안의 여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경징의 모친(김류의 처), 아내(김류의 며느리), 며느리(김류의 손자며느리) 등 삼대의 여인들이 모두 자결했다. '인조실록' 에 따르면 김경징의 아들 김진표(金震標)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협박하여 자결하도록 했다고 한다. 자신의 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김진표의 처가 자결하자 김경징의 어머니와 처도 따라서 자결했다는 것이다.

청군에게 포로가 된 사람도 줄을 이었다. 청군은 젊고 고운 여인들을 사로잡느라 혈안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희생자가 속출했다.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유근(柳根)의 집에서는 열두 명,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俊謙)의 가족은 열한 명이 포로가 되었다. 한명욱(韓明勗), 정백창(鄭百昌), 여이징(呂爾徵), 신익융(申翊隆), 정선흥(鄭善興), 김반(金槃), 이경엄(李景嚴), 한여직(韓汝稷) 등 사대부가의 부인들이 모두 포로가 되었다.

일반 상민들의 피해도 참혹했다. 전쟁이 일어난 직후, 경기도 연안의 백성들 또한 다투어 강화도 주변의 섬으로 밀려들었다. 반상(班常)을 막론하고 '섬으로 들어가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는 믿음이 퍼져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 과 달리 청군이 상륙하고 강화성으로 몰려오자 그들은 앞다투어 마니산(摩尼山) 등지로 도주했다. 청군은 연일 병력을 풀어 마니산 일대를 수색했고, 백성들은 그 와중에 피살되거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왕세손의 비극

청군에 의한 살육과 자살이 속출하는 와중에 왕세손이 강화성에서 탈출에 성공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왕세손은 바로 인조의 손자이자 소현세자(昭顯世子)와 강빈(姜嬪)의 아들이었다. 인조와 소현세자를 이어 장차 보위(寶位)에 오를 인물이기에 청군이 사로잡으려고 혈안이 된 존재이기도 했다.

청군이 강화성으로 밀려들 때, 강빈은 상민(常民)의 복장으로 변복하고 여염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 강문성(姜文星)과 김인(金仁), 서후행(徐後行) 등 다섯 명의 내관(內官)에게 원손을 맡겼다. 그들은 원손을 업고 바닷가로 내달렸다. 청군은 추격해 오는데 내관 김인이 탄 말은 제대로 달리지 못했다. 위기일발의 상황이었다. 그들은 송국택(宋國澤)이 제공한 말로 바꿔 타고서야 겨우 해안에 이를 수 있었다. 마침 해안에는 배를 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원손은 우여곡절 끝에 교동(喬桐)을 거쳐 다른 섬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젖먹이 시절부터 이렇게 간난신고를 겪어야 했던 원손의 운명은 비극적이었다. 그는 강화성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항복 이후 볼모가 되어 끌려갔던 아버지 소현세자를 따라 심양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원손은 1645년 귀국했지만 아버지

소현세자는 급사했고, 어머니 강빈은 사약을 받고 죽었다. 그 자신 또한 왕세자 자리에 올라보지도 못한 채 숙부 봉림대군(鳳林大君 · 효종)에게 밀리고 말았다. 병자호란은 원손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것이다.

강화도 공략을 지휘했던 구왕 도르곤(多爾袞)은 강화성 점령 직후 역관 정명수(鄭命壽)와 김돌시(金乭屎) 등을 시켜 항복을 요구했다. 조선 측에서 원임대신 윤방(尹昉)을 보내 요구를 받아들이자, 도르곤은 휘하의 병력을 들여보내 정전(正殿)을 점거한 뒤 성안에 계엄을 실시했다. 그들은 조선 포로 가운데 지체가 가장 높은 세자빈을 엄중히 감시하는 한편, 호서(胡書)가 쓰여진 신표(信標) 수십 개를 만들어 성을 드나드는 조선 사람들을 통제했다. 신표가 있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여긴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려고 아우성을 쳤다.

도르곤은 강화도에서 사로잡은 왕실과 고관들의 가족을 앞세워 남
한산성의 저항 의지를 꺾어놓을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점
령 직후, 포로들에게 대한 대우는 괜찮은 편이었다. 특히 강빈 일행
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썼다. 강빈 일행을 이동시킬 때 병력을
풀어 호위하는가 하면, 지나는 길에 도랑이나 험한 곳이 있으면 길을 수리한 뒤 지나가도록 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청군 가운데 만주병들은 군율이 잡혀 있어서 탐욕과 음란함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몽골병이나 한병들은 달랐다. 특히 공유덕과 경중명 휘하의 병사들이 저지르는 겁략이 심각했다. 그들은 몽골병과 함께 곳곳을 뒤져 여자들을 잡아가고, 주단과 패물을 약탈했다.

강화도를 점령 한 지 9일이 되던 날의 정경은 처참했다. 청군은 포로들을 남한산성으로 몰고 가면서 대대적인 노략질을 감행했다. 관청과 여염에 불을 지르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도륙했다. 이날의 참상을 기록한 사서에는 '시체는 쌓여 들판에 깔리고 피는 강물을 이루었다.' 거나 '눈 위를 기어다니거나, 죽거나, 이미 죽은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아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는 등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군율 시행의 난맥상

그렇다면 강화도의 '참극' 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김경징 등은 어찌 되었을까? 항복 직후, 김경징 등에게 군율을 적용하여 극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조는 오히려 '김경징이 거느린 군사가 적었으며 장신은 조수(潮水) 때문에 배를 통제할 수 없었다.' 며 사형은 지나치다고 손사래를 쳤다. 인조는 김경징 등을 서쪽 변방에 유배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했다. 언관들의 반발과 비판이 그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에게 사형을 내렸다. 김경징에게는 끝까지 예우를 갖춰 사사(賜死)시켰다.

충청수사 강진흔(姜晉昕)도 참수되었다. '잘 싸우지 못하여 적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했다.' 는 것이 죄목이었다.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었다. 김경징이나 장신과 달리 끝까지 청군과 싸우려 했던 그였다. 그를 죽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청도 수영(水營)의 군관과 병졸들이 대궐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목놓아 울면서 강진흔의 원통한 정상을 비변사에 호소했다.

억울한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강진흔은 당당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함께 의금부에 갇혀 있던 김경징이 사형 결정 소식을 듣고 목놓아 울었는데 비해, 그는 태연했다고 한다. 오히려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옥졸에게 주며 '이것은 예리한 칼이다. 이것으로 내 목을 빨리 벤 뒤 네가 가지고 가라.' 고 했다는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그는 처형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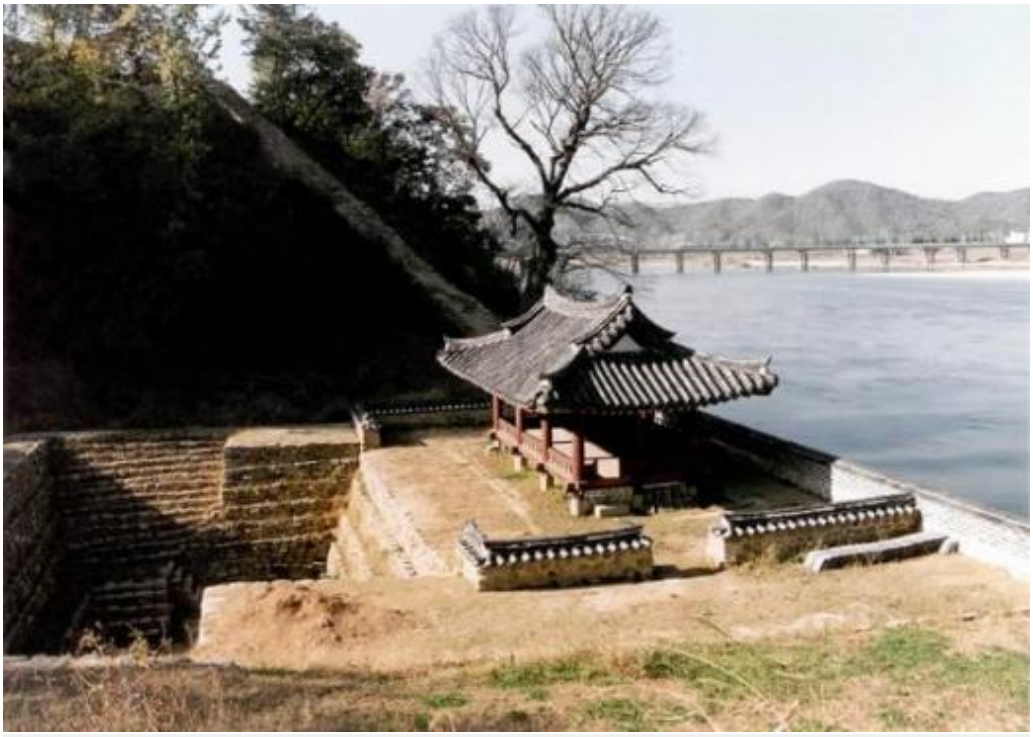
김경징의 죽음을 기록한 '인조실록 ' 사신(史臣)의 평가는 냉혹했다. 사신은 김경징을 가리켜 한낱 '광동(狂童)' 이라고 평가했다. '아는 것이 없고 탐욕과 교만을 일삼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자식을 김류가 잘못 천거하여 나라도 망치고 집안도 망쳤다.' 고 적었다. 하지만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강진흔이 김경징보다 심한 극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다. 강진흔과 김경징의 죽음. 그것은 분명 군율 시행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조선,항복하기로 결정하다

1637년 1월22일 강화도가 함락되었지만, 남한산성의 조정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조정은 이 때 청군이 또 다른 조건으로 제시한 척화신(斥和臣)을 잡아 보내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었다. 적진에 당도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몇 명이나 묶어 보낼 것인가? 인조나 비변사 신료들에게나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不忍之事)' 이었다. 하지만 앞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청군은 연일 인조의 출성을 독촉해댔고, 산성을 지키는 병사들의 민심도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었다. 결국 최명길과 김류 등이 이 끔찍한 '불인지사' 의 총대를 멨다.



▲ 조선시대 산성의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는 청주 상당산성(사적 제212호).경기도를 넘어 충청도 일원까지 남하한 청군은 공주 공산성을 비롯해 목천,청주까지 출몰해 겁략(劫掠)을 자행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 공주 공산성의 연지(蓮池).
문화재청 홈페이지

●척화신들에게 자수를 권하다

1월22일, 김류와 이성구(李聖求), 최명길 등이 입시했다. 척화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김류는 '척화신들의 논의가 과거에는 정론(正論)이었지만, 결국 나라를 그르친 죄를 범했으니 그들 스스로 적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명길은, 자신이 홍익한(洪翼漢)과 같은 집안이지만 종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를 묶어 보낼 수도 있다고 거들었다. 이성구 또한 '홍익한의 죄가 무겁다며 청군으로 하여금 처치하도록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고 했다. 인조는 너무 참혹한 일이라며 입장 결정을 유보했다.

삼사(三司)를 비롯하여 신료들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인조와 대신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이윽고 조정에서는 척화신들에게 자수하라고 촉구했다. '불인지사' 를 밀어붙이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고육책이었다.



▲ 전라감사 이시방의 영정.
문화재청 홈페이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 척화신 박송(縛送) 문제로 조정이 뒤숭숭할 때, 산성을 지키는 군관들과 병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1월23일, 수원과 죽산(竹山) 출신의 초관(哨官) 수백 명이 행궁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척화신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체찰부(體察府)로 몰려가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겁에 질린 체찰사 김류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며 속히 해산하라고 종용했다. 나만갑은 '병자록' 에서, 이날의 시위는 하급 지휘관들의 본심이 아니라 고위 무장들의 사주에 따른 것이었다고 적었다. 어쨌든 산성의 분위기는 내부 분열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척화신들을 내 놓으라.' 는 시위가 위력을 발휘했던 것일까? 이 날 조정은 청군 진영에 보낸 국서에서 척화신의 '처리' 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서에서 척화신으로 확실하게 언급된 인물은 홍익한이었다. 그는 당시 평양서윤(平壤庶尹)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산성에는 없었다. 국서에서는 '홍익한이 당초 가장 열렬히 척화를 주장했기에 평양을 맡김으로써 그로 하여금 대국 군대의 예봉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청군이 철군하는 날 평양 부근에서 그를 체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사실상 홍익한을 잡아 가라는 내용이었다.

●청군의 양동작전과 최후 통첩

1월23일, 청군은 양동작전을 펼쳤다. 조선이 척화신들을 묶어 보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남한산성에 대해 최후의 공세를 시작했다. 인조의 출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이 날 자정 무렵, 청군은 먼저 서문 방향으로 공격해 왔다. 그들은 운제(雲梯-성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성을 넘으려고 시도했다. 당시 서문 방면의 조선군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청군을 발견한 수어사(守禦使) 이시백(李時白)의 군관이 병사들을 깨웠다. 병사들은 올라오는 청군을 돌로 내려치고, 화포를 이용하여 공격했다.

새벽 두 시 무렵에는 망월대(望月臺) 쪽으로 몰려오는 청군을 신경진(申景) 휘하의 병력들이 물리쳤다. 서문과 망월성을 공격하다가 적지 않은 수의 청군이 죽었다.

1월24일에도 청군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구굉(具宏)이 지키고 있는 남성(南城)을 공격해 오자 아군이 조총을 쏘아 물리쳤다. 남성에서 물러난 청군은 망월봉(望月峯) 아래 홍이포를 설치해 놓고 산성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포격은 하루종일 계속되었다. 포탄은 행궁(行宮)까지 날아와 천장을 뚫고 바닥으로 깊이 처박힐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보였다. 행궁뿐 아니라 성첩의 많은 부분이 포탄에 맞아 허물어졌다. 산성 안 사람들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했다.

1월25일, 청군은 사람을 서문으로 보내 사신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덕형(李德泂)과 최명길 등이 청 진영으로 가자 용골대와 마부대는 협박을 늘어 놓았다. '황제가 내일 귀국하실 것이니 국왕이 출성하지 않는다면 사신은 다시 오지 말라.' 며 그 동안 받았던 국서를 모두 돌려 주었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이었다. 최명길 등은 변변하게 이야기를 꺼내 보지도 못한 채 돌아왔다.

최명길 등이 돌아온 뒤, 포격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 무렵 청군은 한편으로는 포격을 통해 산성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 넣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화도에서 사로잡은 조선인 포로 몇 명을 다그쳐 산성 쪽으로 급히 이동시키고 있었다.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증거' 를 제시함으로써 인조를 끌어 내려는 작전이었다.

이 같은 와중에 산성에서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었다.1월26일, 이번에는 훈련도감과 어영청(御營廳)의 장졸들이 행궁으로 몰려와 무력시위를 벌였다. 역시 척화신들을 붙잡아 청군 진영으로 보내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인조실록' 에 따르면 그들을 배후에서 사주한 주체도 신경진, 구굉, 홍진도(洪振道) 등 고위 무장들이었다. 시위를 벌이는 병사들은 해산하라는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 승지 이행원(李行遠)이 나서 나무라자 군사들은 눈을 부릅뜨며 '승지를 모시고 가면 적을 쳐부술 수 있을 것' 이라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김류는 '그들은 부모와 처자가 살육당했기 때문에 화친을 배척한 사람을 원수처럼 여긴다.' 고 나름대로 진단했다.

군사들이 난을 일으킬 기미까지 보이자 인조는 다급해졌다. 인조는 세자를 청군 진영에 보내겠다며 사신을 보내 통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세자의 출성을 통해 수습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 **'강화도 함락' 을 통고받다**

이 날 저녁 최명길, 김신국, 홍서봉 등이 청군 진영으로 갔다. 왕세자가 출성한다는 사실을 통고하기 위해서였다. 청군 지휘관들은 '국왕이 직접 나오지 않는 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며 여전히 선을 그었다.

이윽고 용골대 등은 최명길 일행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통고했다. 그들은 강화도에서 급히 데려온 종실 진원군(珍原君)과 내관 나업(羅業)을 보여 주면서 강화도를 함락시켰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들이 들고 온 봉림대군의 친필 편지와 윤방(尹昉)의 장계도 전해 주었다.

'강화도 함락' 소문이 전해지자 남한산성은 충격에 빠졌다. 인조를 알현한 자리에서 최명길은 봉림대군의 편지와 윤방의 장계가 위조되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조는 편지가 봉림대군이 쓴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분위기는 한 순간에 바뀌었다. 홍서봉, 김류, 이홍주, 최명길 등은

모두 인조의 '결단' 을 촉구했다. '신하된 자로서 감히 말할 수

는 없지만, 머뭇거리면 더욱 기고만장해진 저들에게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 는 것이 중론이었다. 인조는 차라리 자결하고 싶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왕실의 가족들까지 모두 인질로 잡혀 버린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 무기력함의 표현이었다.

이 무렵 구원군이 끊어진 것은 물론, 들려오는 것은 온통 우울한 소식뿐이었다. 당시 청군의 일부 부대는 이미 경기도를 넘어 충청도 일원까지 남하해 있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공주의 공산성(公山城)을 비롯하여 목천(木川), 청주

등지까지 출몰하여 겁략을 자행했다. 전라감사 이시방(李時昉)은 청주에 있다가 청군의 습격을 받아 옥천으로 피신해야 했다.

인조와 조정의 입장에서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캄캄할 뿐이었다. '강화도 함락' 은 절망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인조의 면전에서 물러난 최명길 등은 국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인조의 출성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다. 강화도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남한산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파국의 전야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가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왕실과 대신의 가족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버린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다. 하지만 출성(出城)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최악의 경우, 홍타이지가 자신을 심양으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척화신 가운데 누구를 뽑아, 몇 명을 보낼 것인지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한편에서는 사신을 보내 인조의 신변 안전을 확실히 보장받으려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척화신을 '낙점'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삼학사의 위폐를 모신 충남 부여의 창절사(彰節祠). 부여군 홈페이지

●出城을 결정하고 三學士를 '낙점' 하다

1월27일 김신국과 이홍주, 최명길 등이 국서를 들고 다시 청 진영으로 갔다. 이전에 가져갔던 국서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신(臣)은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 날을 머뭇거렸습니다. 이제 듣건대 폐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이라 하는데, 만약 스스로 나아가 용광(龍光)을 우러러 뵙지 않는다면 조그만 정성도 펼 수 없게 될 것이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이 바야흐로 300년 동안 지켜온 종사(宗社)와 수천 리의 생령(生靈)을 폐하께 의탁하게 되었으니 정성을 굽어살피시어 안심하고 귀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소서.' 국서의 내용은 공순하고 처절했다. 결국 남한산성에서 나가겠다고 '굴복 선언' 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삼학사와 김상헌, 정온의 위패를 모신 남한산성의 현절사(顯節祠). 문화재청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출성만은 면하게 해달라던 '호소' 는 사라지고 대신 인조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 달라는 요청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미 강화도마저 함락된 상황에서 출성을 거부하고 버틸 여력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인조가 출성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결을 시도하는 신료들이 나타났다. 예조판서 김상헌이 목을 매고, 이조참판 정온(鄭蘊)은 칼로 배를 찔렀다. 두 사람 모두 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산성에는 처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출성을 약속했음에도 청군은 포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혹시라도 조선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 같았다. 처절하고 황망한 분위기 속에서 인조와 대신들은 청군 진영으로 보낼 척화신의 숫자를 조율했다. '홍익한만을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홍타이지가 강화를 허락하지 않을 것' 이란 우려 속에 일각에서는 열 한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묶어 보낼 대상자로 김상헌, 정온, 윤황(尹煌), 윤문거(尹文擧), 오달제(吳達濟), 윤집(尹集), 김수익(金壽翼), 김익희(金益熙), 정뇌경(鄭雷卿), 이행우(李行遇), 홍탁(洪琢) 등이 거명되었다.

너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뺄 것인가? 이 '불인지사(不忍之事)' 를 둘러싼 논란 끝에 오달제와 윤집 두 사람만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들 두 사람과 당시 남한산성에 없었던 홍익한을 가리켜 보통 삼학사(三學士)라고 부른다.

●홍타이지, 항복 조건을 제시하다

1월28일 용골대가 홍타이지의 조유문(詔諭文)을 가지고 왔다. 조유는 '그대는 짐이 식언(食言)할까 의심하지 말라. 지난날 그대의 죄를 모두 용서하고 규례(規例)를 상세하게 정하여 군신(君臣) 관계를 대대로 이어가고자 한다.' 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홍타이지는 향후 인조와 조선이 준수해야 할 조건들을 제시했다. 맨 먼저 명나라와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명 황제가 준 고명(誥命)과 책인(冊印)을 반납하고, 명의 숭정(崇禎) 연호 대신 자신들의 숭덕(崇德) 연호를 사용하라고 했다. 조선의 '상국(上國)' 을 바꾸라는 요구였다. 이어 맏아들 소현세자와 둘째아들 봉림대군뿐 아니라 여러 대신들의 아들이나 동생들을 인질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인질들을 붙잡아 놓음으로써 조선의 '변심' 을 견제하겠다는 속셈이었다.

홍타이지는 또한 향후 자신이 명을 정벌할 때, 조선도 보병, 기병, 수군을 동원하여 원조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자신이 항복을 받고 돌아갈 때 가도(島)를 공격할 계획임을 밝히고, 조선이 전함 50척과 수군을 내어 동참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군과 화기수(火器手)를 조선으로부터 보충하여 명을 공격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 성절(聖節), 정조(正朝), 동지(冬至), 중궁천추절(中宮千秋節), 태자천추절(太子千秋節) 등 청

나라와 관련된 경조사가 있을 때는 대신을 파견하여 예물을 바치라고 요구했다. 심양으로 오는 사신이 지참하는 외교 문서의 형식, 조선에 오는 청 사신에 대한 의전과 접대 절차 등은 한결같이 과거 명나라에 행했던 구례(舊例)를 따르라고 요구했다.

특기할 것은 포로들과 관련된 조건이었다. 홍타이지는 '아군에게 사로잡힌 포로들이 압록강을 건너 청 영토로 들어온 뒤, 조선으로 도망쳐 오면 반드시 체포하여 청의 주인에게 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는 포로를 '우리 군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 얻은 성과'라고 규정한 뒤, 포로들을 데려오고 싶으면 정당한 가격을 치르라고 강요했다. 포로와 관련된 이 조항은 훗날 조선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남기게 된다.

홍타이지는 그 밖에 조선이 해마다 바쳐야 할 세폐(歲幣)의 수량을 제시한 뒤, '청의 신료들과 조선 신료들이 혼인을 맺을 것', '조선의 성들을 수리하거나 다시 쌓지 말 것', '조선에 사는 우량허(兀良哈) 사람들을 쇄환할 것', '일본과의 무역을 계속 하고 그들의 사신을 심양으로 인도해 올 것' 등의 조건도 같이 내 걸었다.

홍타이지가 제시한 항복 조건은 조선에 대해 이중 삼중의 그물을
쳐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조건'을 따를 경우 인조는 어렵
사리 왕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인조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다. 홍타이지는 유시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인조에 대한 협박을 빼놓지 않았다. '그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짐이 다시 살려 주었다. 짐은 망해가던 그대의 종사(宗社)를 온전하게 하고, 이미 잃었던 그대의 처자를 완전하게 해주었다. 그대는 마땅히 국가를 다시 일으켜 준 은혜를 생각하 라. 뒷날 자자손손까지 신의를 어기지 않도록 한다면 나라가 영원히 안정될 것이다.'

'국가를 다시 일으켜 준 은혜'란 조선이 명에 대해 그토록 고마워했던 '재조지은(再造之恩)'에 다름 아니었다. 이제 청은 조선의 항복을 코앞에 두고, 자신들이 조선에 대해 '재조지은'을 베풀었다고 역공을 취했던 것이다.

●오달제와 윤집을 적진으로 보내다

1월28일 저녁, 인조는 하직 인사를 하러 온 오달제와 윤집을 만났다. 인조는 두 사람을 보자 목이 메었다. '그대들의 본 뜻은 나라를 그르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구나.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인조는 결국 오열했다. 임금으로서 자신의 신하를 붙잡아 적진에 보내고, 적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참담함 때문에 울고 또 울었다.

윤집은 오히려 인조를 위로했다. '이러한 시기에 진실로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만 번 죽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이렇게 구구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달제는 의연했다. '신은 자결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는데, 이제 죽을 곳을 얻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신들이 죽는 것이야 애석할 것이 없지만, 다만 전하께서 성을 나가시게 된 것이 망극합니다. 신하된 자로서 지금 죽지 않으면 장차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인조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울음 섞인 소리로 자책과 회한,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쏟아냈다. '그대들이 나를 임금이라고 여겨 외로운 성에 따라 들어왔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인조는 오달제와 윤집에게 가족 사항을 물은 뒤, 자신이 그들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윽고 술을 내렸다. 이별주였다. 술을 다 마시기도 전에 승지가 아뢰었다. 사신들이 두 사람을 빨리 내보내라고 독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직을 고하는 두 사람에게 인조는 울면서 꼭 살아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출성을 코앞에 둔 남한산성의 밤이 슬픔 속에 깊어가고 있었다.

해가 빛이 없다

1637년(인조 15) 음력 1월30일,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가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항복했다. 일찍부터 여진족을 '오랑캐'이자 '발가락 사이의 무좀(疥癬)' 정도로 멸시해 왔던 조선 지식인들에게 그것은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았을' 기막힌 장면이었다. 인조와 신료들은 '오랑캐 추장'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를 행했다. 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가장 치욕스런 항복 의식이었다.

그것으로 '춥고 배고픈' 산성에서의 고통은 일단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조와 신료들, 조선 백성들 앞에는 몇 배나 더 아프고 처절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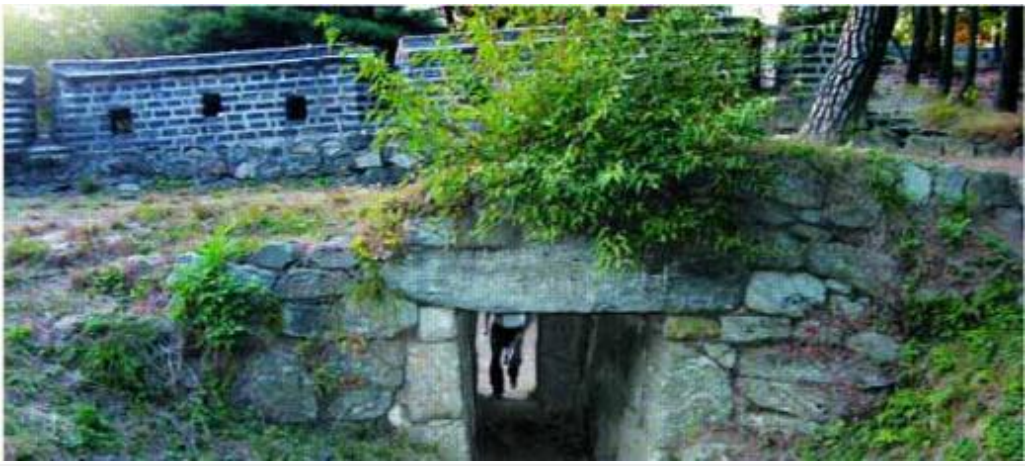


▲ 인조의 항복장면을 묘사한, 삼전도비 옆의 부조물. 인조는 소현세자와 신료들을 이끌고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례를 행했다.

●남색 융의를 입고 서문으로 나오라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가 항복하기로 결정한 뒤, 항복 의식을 어느 수준에서 행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1월28일, 김신국, 최명길, 홍서봉 등이 청군 진영에 갔을 때 전체적인 대강이 확정되었다. 용골대 등은 조선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제 1등 절목(節目)은 면제해 준다고 했다. 그것은 이른바 함벽여츤(銜璧輿)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었다. 함벽여츤이란 손이 뒤로 묶인 채 구슬을 입에 물고, 관을 메고 나아가 항복하는 의식을 가리킨다. 관을 메는 것은 항복하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좌전(左傳)' 에 보면 미자(微子)가 주나라 무왕(武王)에게 함벽여츤을 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선왕의 제기(祭器)까지 모두 바쳐 완전히 신하가 되어 복속하겠다는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었다.

'함벽여츤' 은 면제되었지만 청 측이 요구한 의식 내용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1월28일, 홍타이지의 칙서를 갖고 왔던 용골대는 조선 신료들과 항복 의식을 논의했다. 하지만 '논의' 라기보다는 '통고' 라고 하는 것이 정확했다. 용골대는 먼저 과거 조선이 명 황제의 칙서를 받을 때 어떤 의례(儀禮)를 따랐는지 물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음에도 조선 신료들을 떠보기 위한 질문이었다. 당시 청 진영에는 범문정(范文程)을 비롯하여 한족 출신 이신(貳臣)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명과 조선 사이의 외교 전례(典禮)에 밝았고, 그 내용을 홍타이지는 물론 만주족 관인들에게 훈수하고 있었다. 홍서봉이 '칙서를 가져온 명 사신이 남향으로 서고, 조선 배신(陪臣)은 꿇어앉아 칙서를 받았다.' 고 대답했다. 홍서봉이 조선과 명의 전례를 '실토' 하자 용골대는 자신이 남향하여 서서 과거 명 사신이 하던 방식대로 칙서 전달 의식을 재현했다. 칙서 전달을 마친 뒤 용골대는 동쪽에 앉고 홍서봉 등은 서쪽에 앉았다. 이 같은 좌차(座次) 또한 과거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왔을 때 했던 관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조선의 상국(上國)이 명에서 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례 상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 남한산성의 암문(暗門, 성벽에다 누각없이 만든 문).

용골대는 삼전도(三田渡)에 수항단(受降壇)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과 1월30일을 항복 의식을 행하는 날로 정했다는 사실을 통고했다. 그는 또한 항복하는 인조가 용포(龍袍)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문인 남문으로는 나올 수 없다는 것도 통고했다. 용골대는 인조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수행원은 500명을 넘을 수 없고, 호위하는 군사나 의장대를 거느릴 수도 없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적어도 홍타이지를 황제로 받들고 신속(臣屬)을 맹세하러 나오는 이상, 인조는 철저히 신례(臣禮)를 행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홍서봉 등이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용골대의 기세를 꺾기에는 이미 역부족이었다.

●인조,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다

항례(降禮)를 행하는 절차까지 정해지고 난 뒤 남한산성의 분위기는 침울했다. 일부 신료들은 '전하는 항복하시더라도 명에서 받은 옥새를 청 측에 넘겨서는 안 되고, 그들을 도와 명을 치는데 필요한 군사를 원조해서도 안 된다.' 고 눈물로 간언했다. 일각에서는 각 관아의 문서들을 모아다가 불태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평소 각사(各司)끼리 주고받던 문서에서 청인들을 가리켜 '적(賊)', 또는 '노적(奴賊)'이라 적어 놓은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윽고 1월30일이 밝았다. 산성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나만갑은 이 날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맨 앞에 '해가 빛이 없다(日色無光).' 고 적었다. 자신의 주군(主君) 앞에 닥친 치욕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일찍부터 용골대와 마부대가 나타나 인조의 출성을 재촉했다. 인조와 소현세자는 남색 융의(戎衣) 차림으로 남한산성의 서문을 나섰다. 인조의 뒤에 선 신료들 가운데서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청군이 양철평까지 들이닥치고, 강화도로 가는 피란길이 끊어졌다는 소식에 놀라 황망하게 산성으로 들어온 지 꼭 46일째 되는 날이었다.

홍타이지는 진시(辰時, 오전 7~9시)에 진영에서 나와 군기를 앞세우고 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삼전도를 향해 한강을 건넜다. 삼전도에는 아홉 단으로 높다랗게 쌓은 수항단과 크고 작은 황색 장막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인조가 50여명의 수행원들을 이끌고 산성 밖 5리쯤까지 왔을 때 용골대 등이 영접을 나왔다.

용골대 일행이 앞장서고 인조는 삼 정승과 판서, 승지와 사관(史官)만을 거느리고 삼전도를 향해 걸어서 나아갔다. 군사를 도열시켜 놓고 장막에서 기다리던 홍타이지는 인조 일행이 도착하자, 그와 함께 배천(拜天) 의식을 행했다. 청의 입장에서 '조선이 한 집안이 되었다.' 고 하늘에 고하는 의식이었다. 배천 의식을 마치고 홍타이지가 수항단에 오르자 인조는 그 아래 무릎을 꿇었다. 인조는 자신의 '죄' 를 고백하고 개과천선하겠다고 다짐한 뒤 소현세자와 신료들을 이끌고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를 행했다.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이었다. 예를 행한 뒤, 용골대 등이 인조를 인도하여 홍타이지 아래에 마련된 자리로 안내했다. 인조에게 항복을 받은 뒤 홍타이지는 '이제는 두 나라가 한 집안이 되었다.' 며 조선 신료들에게 활을 쏘아보라고 했다. 조선 신료들이 쭈뼛거리는 와중에 청나라 왕자와 장수들은 떠들썩하게 어울려 활을 쏘면서 놀았다.

이윽고 주찬(酒饌)이 나오고 음악이 울려 퍼졌다. 세 차례 술잔이 돌고 잔치가 파할 무렵, 청나라 사람이 개를 끌고 나오자 홍타이지는 직접 고기를 베어 개들에게 던져 주었다.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인' 모습이었다. 인조는 이런저런 치욕을 겪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왕이시여,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잔치가 파하자 강화도에서 끌려온 강빈을 비롯한 왕실과 대신들의 처자들이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례를 행했다. 곧 이어 용골대가 홍타이지의 선물이라며 초구(貂, 짐승 가죽으로 만든 방한복)를 가지고 와서 인조 이하에게 주었다. 인조는 그것을 입고 홍타이지 앞에 나아가 사례했다. 다시 두 번 무릎을 꿇고 여섯 번 머리를 조아렸다.

홍타이지는 이어 강화도에서 사로잡은 포로들과의 상면을 허락했다. 서로 만난 왕실과 대신들의 가족들이 부둥켜안고 울면서 삼전도는 순식간에 통곡의 바다로 변했다. 홍타이지가 신시(申時, 오후 3~5시) 무렵 자리를 뜬 뒤에도 인조는 밭 가운데 앉아 그들의 지시를 기다렸다. 해질 무렵에야 도성으로 돌아가라는 통고가 내려졌다. 인조는, 인질이 되어 심양으로 가게 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부부와 이별한 채 귀경 길에 올랐다. 송파 나루에서 배에 오를 때, 신료들이 다투어 먼저 건너려고 인조의 어의(御衣)를 잡아당기기까지 하는 소란이 빚어졌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었다.

인조가 청군 병력의 호위 속에 도성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포로들이 인조를 향해 울면서 절규했다.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시나이까?" 인조는 그 절규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밤 10시 무렵 창경궁으로 들어갔다. 인조의 생애에서 가장 길고도 처참했던 하루가 저물었다.

[병자호란] (29) 三學士의 최후

2013.01.27 23:44

三學士의 최후

인조의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로 상징되는 치욕적인 항복과 함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귀천을 막론하고 조선 사람들의 참혹한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인조를 대신해 볼모로 끌려가는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화친을 방해하여 전쟁을 불러왔다는 '죄목' 으로 연행되는 삼학사, 경향 각지에서 청군에 붙잡힌 수십만의 포로. 그들은 청군의 엄중한 감시 속에 심양(瀋陽)을 향해 걷고 또 걸어야 했다. 그들 앞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고통 속에 끌려가는 사람이나, 슬픔을 삼키며 그들을 보내는 사람이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통곡했다. 그리고 곧바로 삼학사의 죽음 소식이 날아들었다.



▲ 병자호란 당시 조선 조정에는 청에 끌려간 삼학사 말고도 많은 척화신(斥和臣)들이 있었다.사진은 대표적인 척화신으로 꼽히는 유계(유棨)의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충남 부여의 칠산서원.

●홍익한, 윤집, 오달제

삼학사 가운데 가장 연장이었던 홍익한(洪翼漢 · 1586~1637)은 당시 52세였다. 그의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진사 홍이성(洪以成)과 안동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습( )이었는데 뒤에 익한으로 개명했다. 이정구(李廷龜)의 제자였던 그는 1615년 소과(小科)를 거쳐,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공주에서 정시(庭試)에 급제했다. 이후 언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병자호란 직전 사헌부 장령(掌令)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윤집(尹集 · 1606~1637)은 당시 32세였다. 본관이 남원이었던 그는 현감 윤형갑(尹衡甲)과 황씨의 소생으로 일찍이 백형 윤계(尹棨)에게 수학했다.1627년 소과에 급제하고 1631년 별시(別試) 문과에 급제했던 그는 1636년 당시 홍문관 교리(校理)였다. 윤집은 김상헌의 조카딸과 결혼하여 3남을 두었는데, 후일 증손녀가 홍익한의 손자에게 출가하여 사후에 홍익한과 사돈 관계로 인연이 이어졌다.

▲ 삼전도비.

오달제(吳達濟 · 1609~1637)는 당시 29세였다. 그는 해주가 본관으로 오윤해(吳允諧)의 셋째 아들이자 영의정을 지낸 오윤겸(吳允謙)의 조카였다.1627년 소과를 거쳐 1634년 별시 문과에 급제했고, 병자호란 당시 홍문관 수찬(修撰)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병자호란 당시 조정에는 삼학사 말고도 많은 척화신들이 있었다. 윤황(尹煌), 유철(兪), 이일상(李一相), 유계(兪棨), 정온(鄭蘊), 조경(趙絅) 등이 그들이었다. 그럼에도 이 세 사람이 청군에 넘겨지는 '희생양'으로 낙점된 까닭은 무엇일까?그것은 홍타이지의 칭제건원(稱帝建元)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들이 누구보다 격렬하게 홍타이지의 '참월(僭越)'을 비난하고 주화신(主和臣)들을 성토했기 때문이다.

홍익한은 1636년 2월 '홍타지이가 보낸 사신의 머리를 베어 명나라에 보내든가, 그것이 싫으면 나의 머리를 베라.'는 극렬한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오달제는 1636년 10월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고 거리낌없이 화친을 시도하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최명길을 겨냥하여 직격탄을 날렸다. 윤집은 더 나아가 '명나라의 은혜를 배신하고 오랑캐와 화친을 주도하는 최명길은 진회(秦檜)보다 나쁜 자'라고 극언을 퍼부은 바 있었다.

●홍익한의 절개

청군이 철수할 때, 홍익한은 평양서윤(平壤庶尹)으로 있었다. 조정은 2월12일 증산현령(甑山縣令) 변대중(邊大中)을 시켜 홍익한을 적진으로 압송토록 했다. 변대중은 홍익한을 결박하여 심한 모욕을 주었고, 음식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홍익한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결박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조정은 청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그를 신속하게 압송했는데, 2월20일에 벌써 만주의 통원보(通遠堡)에 도착했다. 통원보의 청인들은 그가 끌려온 사연을 듣고 음식물을 내어 후히 대접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나만갑은 '병자록'에서 '개돼지 같은 청인들이 변대중 같은 조선 사람보다 훨씬 나았다.'고 통탄했다.

심양에 이르러서도 홍익한은 의연했다. 용골대가 그에게 '너의 나라 신료들 가운데 척화를 주장한 자가 퍽 많은데, 어찌 유독 너만 끌려왔는가?'라고 묻자 홍익한은 '작년 봄에 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소를 올려 너의 머리를 베자고 청한 것은 나 한 사람뿐'이라고 응수했고, 용골대는 웃으며 가버렸다고 한다.

홍타이지는 홍익한을 회유하기 위해 그를 별관에 가두고 연회도 베풀어 주려고 시도했다.

과거 수많은 명나라 이신(貳臣)들을 받아들인 경험이 있는 홍타이지의 입장에서 홍익한은 '전향' 시켜야 할 중요한 대상이었다. '조선의 골수 척화파까지도 결국 홍타이지의 은덕에 감화되었다.'는 소문은 향후 조선을 제어하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익한은 단호했다. 그는 글을 써서 자신을 회유하려는 홍
타이지의 기도를 정면에서 반박했다. '대명조선국(大明朝鮮國)의
잡혀온 신하 홍익한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감히 글로써 밝힌다. 지난해 봄 금나라가 맹약을 어기고 황제라 칭한다는 말을 들었다. 맹약을 어겼다면 이는 패역한 형제이고, 황제라 칭했다면 이는 두 천자(天子)가 있는 것이다. 한집안에 어찌 패역한 형제가 있을 수 있으며, 천지간에 어찌 두 천자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하여 본래 예의를 숭상하고 직절(直截)을 기풍으로 삼는 언관으로서 맨 먼저 이 논의를 주장하여 예의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상소 한 장을 올림으로써 가정과 나라에 패망을 초래하였으니 만 번 도륙당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달게 받을 뿐, 달리 할 말은 없다. 속히 죽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대명조선국의 신하.' 이 말 속에 이미 홍익한의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선의 신하이자 명의 신하이니 그대들 오랑캐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홍익한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다. 홍익한의 의지를 확인한 홍타이지는 곧바로 그를 처형했다.

●윤집과 오달제의 최후

윤집과 오달제는 청군 후발대에 이끌려 1637년 4월15일 심양에 도착했다. 홍타이지는 두 사람도 회유하려고 시도했다.4월19일 용골대가 두 사람을 앉혀 놓고 홍타이지의 말을 전했다. '너희들이 척화를 외쳐 두 나라의 틈이 생기게 했으니 그 죄가 매우 중하다. 죽여야겠지만 특별히 살려주고자 하니 처자를 데려와 이곳에서 살겠는가?'

윤집은 '난리 이후 처자의 생사를 알 수 없다.' 고 했고, 오달제는 '고통을 참고 이곳까지 온 것은 만에 하나라도 살아서 돌아가면 우리 임금과 노모를 다시 보기 위해서였다.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면 죽는 것만 못하다. 속히 죽여 달라.' 고 응수했다.

격분한 용골대는 그들을 묶어다 심양 서문 밖에서 죽였다. 청인들은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뒷날에도 뼈들이 쌓여 있는 형장에서 두 사람의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 집안의 종들을 시켜 초혼(招魂)하여 온 것이 전부였다.

오달제에게는 노모와 임신한 아내가 있었다. 심양으로 끌려갈 때 그가 남긴 시구(詩句)들은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다. 그는 인조와 노모를 생각하면서 "외로운 신하 의리 바르니 부끄럽지 않고/임금님 깊으신 은혜에 죽음 또한 가벼워라/이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홀로 계신 어머님 날 기다리는 거라오" 라고 읊었다.

아내에게 부치는 시도 절절하다. "부부의 은정 중한데/만난 지 두 해도 못 되었구려/이제 만리에 이별하여/백년 언약 헛되이 저버렸구료/땅 멀어 편지 부치기 어렵고/산이 첩첩하여 꿈조차 더디오/나의 살길 점칠 수 없으니/뱃속의 아이나 보호 잘하오"

윤집 집안의 사연도 처절하다. 병자호란 당시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있던 윤집의 형 윤계 또한 전란 중에 순절했다. 그는 의병을 일으켰는데 기습을 받아 붙잡히는 몸이 되고 말았다. 윤계 또한 청군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하다 혀가 잘리는 등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후손들은 왜란 당시 순절한 할아버지 윤섬(尹暹)과 윤계, 윤집의 글을 묶어 '삼절유고(三節遺稿)' 를 펴낸 바 있다.

어쩔 수 없이 죽이기는 했지만 청조는 이후 삼학사의 절의를 인정했다. 그들은 삼학사를 기리는 사당을 짓고 비석을 세웠다. 강희제(康熙帝)는 훗날 '조선이 명나라 말년에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은 것은 본받을 만한 일' 이라고 찬양한 바 있다. 삼학사로 대표되는 조선의 '절의' 는 청인들이 보기에도 분명 이채로웠던 것이다.

인조의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로 상징되는 치욕적인 항복과 함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귀천을 막론하고 조선 사람들의 참혹한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인조를 대신해 볼모로 끌려가는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화친을 방해하여 전쟁을 불러왔다는 '죄목' 으로 연행되는 삼학사, 경향 각지에서 청군에 붙잡힌 수십만의 포로. 그들은 청군의 엄중한 감시 속에 심양(瀋陽)을 향해 걷고 또 걸어야 했다. 그들 앞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고통 속에 끌려가는 사람이나, 슬픔을 삼키며 그들을 보내는 사람이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통곡했다. 그리고 곧바로 삼학사의 죽음 소식이 날아들었다.



▲ 병자호란 당시 조선 조정에는 청에 끌려간 삼학사 말고도 많은 척화신(斥和臣)들이 있었다.사진은

대표적인 척화신으로 꼽히는 유계(유棨)의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충남 부여의 칠산서원.

●홍익한, 윤집, 오달제

삼학사 가운데 가장 연장이었던 홍익한(洪翼漢 · 1586~1637)은 당시 52세였다. 그의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진사 홍이성(洪以成)과 안동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습( )이었는데 뒤에 익한으로 개명했다. 이정구(李廷龜)의 제자였던 그는 1615년 소과(小科)를 거쳐,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공주에서 정시(庭試)에 급제했다. 이후 언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병자호란 직전 사헌부 장령(掌令)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윤집(尹集 · 1606~1637)은 당시 32세였다. 본관이 남원이었던 그는 현감 윤형갑(尹衡甲)과 황씨의 소생으로 일찍이 백형 윤계(尹棨)에게 수학했다.1627년 소과에 급제하고 1631년 별시(別試) 문과에 급제했던 그는 1636년 당시 홍문관 교리(校理)였다. 윤집은 김상헌의 조카딸과 결혼하여 3남을 두었는데, 후일 증손녀가 홍익한의 손자에게 출가하여 사후에 홍익한과 사돈 관계로 인연이 이어졌다.

▲ 삼전도비.

오달제(吳達濟 · 1609~1637)는 당시 29세였다. 그는 해주가 본관으로 오윤해(吳允諧)의 셋째 아들이자 영의정을 지낸 오윤겸(吳允謙)의 조카였다.1627년 소과를 거쳐 1634년 별시 문과에 급제했고, 병자호란 당시 홍문관 수찬(修撰)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병자호란 당시 조정에는 삼학사 말고도 많은 척화신들이 있었다. 윤황(尹煌), 유철(兪), 이일상(李一相), 유계(兪棨), 정온(鄭蘊), 조경(趙絅) 등이 그들이었다. 그럼에도 이 세 사람이 청군에 넘겨지는 '희생양'으로 낙점된 까닭은 무엇일까?그것은 홍타이지의 칭제건원(稱帝建元)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들이 누구보다 격렬하게 홍타이지의 '참월(僭越)'을 비난하고 주화신(主和臣)들을 성토했기 때문이다.

홍익한은 1636년 2월 '홍타지이가 보낸 사신의 머리를 베어 명나라에 보내든가, 그것이 싫으면 나의 머리를 베라.'는 극렬한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오달제는 1636년 10월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고 거리낌없이 화친을 시도하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최명길을 겨냥하여 직격탄을 날렸다. 윤집은 더 나아가 '명나라의 은혜를 배신하고 오랑캐와 화친을 주도하는 최명길은 진회(秦檜)보다 나쁜 자'라고 극언을 퍼부은 바 있었다.

●홍익한의 절개

청군이 철수할 때, 홍익한은 평양서윤(平壤庶尹)으로 있었다. 조정은 2월12일 증산현령(甑山縣令) 변대중(邊大中)을 시켜 홍익한을 적진으로 압송토록 했다. 변대중은 홍익한을 결박하여 심한 모욕을 주었고, 음식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홍익한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결박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조정은 청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그를 신속하게 압송했는데, 2월20일에 벌써 만주의 통원보(通遠堡)에 도착했다. 통원보의 청인들은 그가 끌려온 사연을 듣고 음식물을 내어 후히 대접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나만갑은 '병자록'에서 '개돼지 같은 청인들이 변대중 같은 조선 사람보다 훨씬 나았다.'고 통탄했다.

심양에 이르러서도 홍익한은 의연했다. 용골대가 그에게 '너의 나라 신료들 가운데 척화를 주장한 자가 퍽 많은데, 어찌 유독 너만 끌려왔는가?'라고 묻자 홍익한은 '작년 봄에 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소를 올려 너의 머리를 베자고 청한 것은 나 한 사람뿐'이라고 응수했고, 용골대는 웃으며 가버렸다고 한다.

홍타이지는 홍익한을 회유하기 위해 그를 별관에 가두고 연회도 베풀어 주려고 시도했다.

과거 수많은 명나라 이신(貳臣)들을 받아들인 경험이 있는 홍타이지의 입장에서 홍익한은 '전향' 시켜야 할 중요한 대상이었다. '조선의 골수 척화파까지도 결국 홍타이지의 은덕에 감화되었다.'는 소문은 향후 조선을 제어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익한은 단호했다. 그는 글을 써서 자신을 회유하려는 홍타이지의 기도를 정면에서

반박했다. '대명조선국(大明朝鮮國)의 잡혀온 신하 홍익한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감히

글로써 밝힌다. 지난해 봄 금나라가 맹약을 어기고 황제라 칭한다는 말을 들었다. 맹약을 어겼다면 이는 패역한 형제이고, 황제라 칭했다면 이는 두 천자(天子)가 있는 것이다. 한집안에 어찌 패역한 형제가 있을 수 있으며, 천지간에 어찌 두 천자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하여 본래 예의를 숭상하고 직절(直截)을 기풍으로 삼는 언관으로서 맨 먼저 이 논의를 주장하여 예의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상소 한 장을 올림으로써 가정과 나라에 패망을 초래하였으니 만 번 도륙당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달게 받을 뿐, 달리 할 말은 없다. 속히 죽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대명조선국의 신하.'이 말 속에 이미 홍익한의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선의 신하이자 명의 신하이니 그대들 오랑캐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홍익한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다. 홍익한의 의지를 확인한 홍타이지는 곧바로 그를 처형했다.

●윤집과 오달제의 최후

윤집과 오달제는 청군 후발대에 이끌려 1637년 4월15일 심양에 도착했다. 홍타이지는 두 사람도 회유하려고 시도했다.4월19일 용골대가 두 사람을 앉혀 놓고 홍타이지의 말을 전했다. '너희들이 척화를 외쳐 두 나라의 틈이 생기게 했으니 그 죄가 매우 중하다. 죽여야겠지만 특별히 살려주고자 하니 처자를 데려와 이곳에서 살겠는가?'

윤집은 '난리 이후 처자의 생사를 알 수 없다.' 고 했고, 오달제는 '고통을 참고 이곳까지 온 것은 만에 하나라도 살아서 돌아가면 우리 임금과 노모를 다시 보기 위해서였다.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면 죽는 것만 못하다. 속히 죽여 달라.' 고 응수했다.

격분한 용골대는 그들을 묶어다 심양 서문 밖에서 죽였다. 청인들은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뒷날에도 뼈들이 쌓여 있는 형장에서 두 사람의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 집안의 종들을 시켜 초혼(招魂)하여 온 것이 전부였다.

오달제에게는 노모와 임신한 아내가 있었다. 심양으로 끌려갈 때 그가 남긴 시구(詩句)들은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다. 그는 인조와 노모를 생각하면서 "외로운 신하 의리 바르니 부끄럽지 않고/임금님 깊으신 은혜에 죽음 또한 가벼워라/이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홀로 계신 어머님 날 기다리는 거라오" 라고 읊었다.

아내에게 부치는 시도 절절하다. "부부의 은정 중한데/만난 지 두 해도 못 되었구려/이제 만리에 이별하여/백년 언약 헛되이 저버렸구료/땅 멀어 편지 부치기 어렵고/산이 첩첩하여 꿈조차 더디오/나의 살길 점칠 수 없으니/뱃속의 아이나 보호 잘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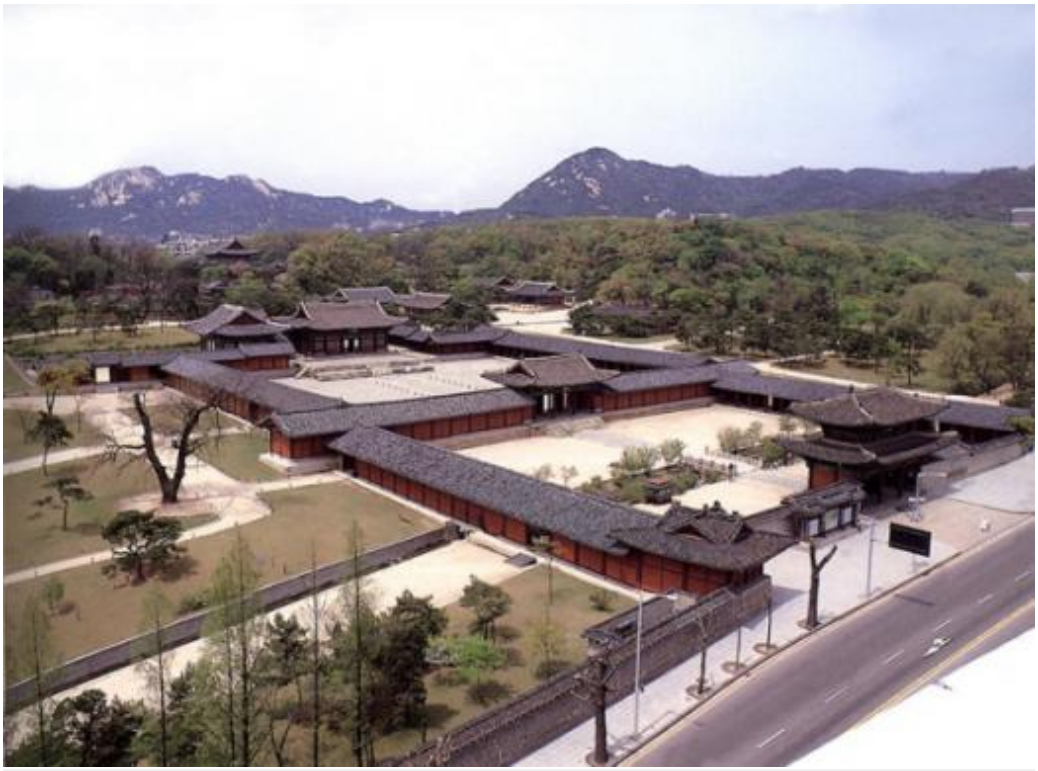
윤집 집안의 사연도 처절하다. 병자호란 당시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있던 윤집의 형 윤계 또한 전란 중에 순절했다.

그는 의병을 일으켰는데 기습을 받아 붙잡히는 몸이 되고 말았다. 윤계 또한 청군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하다 혀가 잘리는 등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후손들은 왜란 당시 순절한 할아버지 윤섬(尹暹)과 윤계, 윤집의 글을 묶어 '삼절유고(三節遺稿)' 를 펴낸 바 있다.

어쩔 수 없이 죽이기는 했지만 청조는 이후 삼학사의 절의를 인정했다. 그들은 삼학사를 기리는 사당을 짓고 비석을 세웠다. 강희제(康熙帝)는 훗날 '조선이 명나라 말년에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은 것은 본받을 만한 일' 이라고 찬양한 바 있다. 삼학사로 대표되는 조선의 '절의' 는 청인들이 보기에도 분명 이채로웠던 것이다.

처참한 나날들

인조가 항복의 예를 마치고 환궁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청군은 아직 철수하지 않았고, 그들은 조선 조정에 이런 저런 요구들을 쏟아냈다. 용골대와 마부대는 말을 탄 채 대궐을 무시로 들락거렸다. 그들은 홍타이지를 전송하는 데 예를 갖추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명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수군과 전함을 내놓으라고 닦달했다. 눈앞에 펼쳐진 전쟁의 상처는 참혹했다. 도성의 관아와 인가들은 불타고 여기저기서 시신들이 나뒹굴었다. 살아남은 어린애와 노인들은 굶어 죽거나 얼어죽기 직전의 상황에 몰려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 것인가. 어렵사리 목숨을 부지하고 종사를 보전했지만, 인조와 조정 신료들은 또 다른 '전장' 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 창경궁 전경.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의 예를 마치고 46일 만에 환궁했을 즈음, 도성 안에서 살아남은 이는 어린이와 노인들뿐이었다.



▲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살곶이 다리. 청군의 철수가 시작되자 포로로 끌려간 가족을 만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처참한 도성의 모습

인조가 창경궁으로 돌아온 것은 1월30일이었다.46일 만에 돌아온 궁궐은 궁궐 같지 않았다. 백관들은 흩어지고, 서

리들과 하인배들도 가족들을 찾아 떠났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 해도 누구에게 시켜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궁궐 바깥의 도성 모습은 참혹했다. 광통교 주변을 비롯하여 곳곳의 관아와 민가들은 불에 타버린 채 방치되어 있었다. 곳곳에는 참혹한 형상의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널려 있는 시신들을 보다 못한 한성부가 인조에게 건의했다. '백골(白骨)을 묻어 주는 것이야말로 왕정(王政)의 급선무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시신들을 차마 볼 수 없으니 남정들을 징발하여 매장토록 하소서'.

물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도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10살 미만의 어린애들과 70살이 넘은 노인들뿐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나마 그들은 굶주린 채 추위에 방치되어 죽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호조에서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노인들은 진휼곡을 풀어 구제하고, 아이들을 데려다 기르는 자에게는 노비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했다. 살아남은 자들, 그 가운데서도 그나마 힘이 남아 있는 어른들은 청군 주둔지 주변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청군의 철수가 곧 시작되려는 판에 포로가 된 가족들을 행여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조바심 때문이었다. 그들은 청군이 몰려 있던 살곶이(箭串) 부근이며, 마포 서강(西江)의 성산(城山) 부근으로 모여들었다.

당시 '청군 진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절반이 조선인'이라는 풍문이 돌 정도로 피로인(被擄人)들의 수는 엄청났다. 하지만 청군은 피로인들이 가족과 만나는 것을 엄중히 차단했다. 피로인들이 행여 청군 진영 바깥으로 나가려 하거나,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 두리번거리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청군의 철편(鐵鞭)이 날아들었다.

서강 등지를 오가며 피로인들의 참상을 목도한 나만갑은 '적진에는 이미 죽은 사람, 화살을 맞았는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 무엇인가를 기원하며 합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했다. 참혹한 장면이었다.

●거듭되는 인조의 굴욕

1637년 2월2일, 홍타이지가 철수 길에 올랐다. 아니 홍타이지의 입장에서는 개선(凱旋)하는 길이었다. 그는 피로인 호송과 가도(島) 공략 등 조선에서의 나머지 일들을 도르곤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맡기고 먼저 출발한 것이다. 살곶이에서 마장(馬場)을 거쳐 양주 쪽을 통해 북상하는 길을 잡았다. 홍타이지는 철수 길에서도 도르곤 등에게 수시로 전령을 보내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무엇보다 피로인들을 차질 없이 심양까지 끌고 오라고 강조했다.

인조는 홍타이지를 배웅하기 위해 거둥해야 했다. '인조실록'에는 '청한(淸汗)이 철군하여 북쪽으로 돌아가니, 상이 전곶장(箭串場)에 나가 전송했다'고만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인조는 홍타이지를 전송하면서 다시 한번 삼배구고두례를 행해야만 했다. 거듭되는 치욕이었다.

인조는 치욕을 삼키며 홍타이지를 배웅했다. 하지만 홍타이지가 멀어져 간 길 위에서는 '차마 못 볼 장면'들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피로인들을 끌고 가는 청군 부대가 홍타이지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청군은 조선인 피로인들을 세 줄로 세워 연행했다. 수백 명의 피로인들이 지나가면 그 뒤에 감시병이 붙고, 다시 수백 명을 줄 세워 끌고 가는 장면이 하루종일 반복되었다. 인조는 이 처참한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오던 길과는 다른 길을 잡아 도성으로 돌아와야 했다.

홍타이지가 지시한 상황은 용골대와 마부대가 대궐을 드나들면서 인조에게 전달했다. 그들은 먼저 가도를 공격하는 데 협조하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공유덕 등이 전선을 수리하는 데 협조하고, 조선의 수군도 동원하라고 했다. '요구'라기보다 사실상 '지시'이자 '명령'이었다. 한창 기세가 등등한 그들의 요구를 뿌리칠 처지가 아니었다. 조정은 당장 신천(信川) 군수 이숭원(李崇元)과 영변(寧邊) 부사 이준(李浚)에게 황해도의 수군을 이끌고 청군과 합류하라고 지시했다.

인조는 수군을 청군에게 보내라고 지시한 뒤, 호조참의 신계영(辛啓榮)을 급히 강화도로 보냈다. 선박을 수리한다며 서해 연안으로 간 공유덕 일행에게 강화도 등지의 주민들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명목이었다. 더욱이 당시까지 원손(元孫)이 청군을 피해 교동(喬桐)에 은신해 있는 상태였다. 한편에서는 청 측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한편에서는 그 과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전긍긍'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용골대 일행 가운데는 조선인 통역 정명수(鄭命壽)도 끼어 있었다. 그는 본래 은산(殷山) 출신의 노비였다. 일찍이 청에 투항한 뒤, 홍타이지의 신임을 받아 통역으로 조선을 드나들었다. 이제는 더 출세하여 어엿한 '상국의 통사(通使)'가 되어 조선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는 말을 탄 채로 창경궁을 드나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정명수에게나, 조선 신료들에게나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던 것이다.

●소현세자, 심양으로 출발하다

병자호란 직후, 인조는 갖가지 치욕과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런 그에게 무엇보다도 슬픈 일은 소현세자, 봉림대군과의 이별이었다.2월3일, 소현세자는 창경궁에 들러 부왕에게 인사를 올렸다. 하지만 그의 행차에는 청인 대여섯 명이 감시인으로 따라붙었고, 정명수는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성화를 멈추지 않았다.

2월8일 소현세자 일행이 떠나는 날, 인조는 창릉(昌陵) 근처까지 거둥하여 배웅했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만났을 때 백관들의 통곡 소리가 이어졌다. 인조는 세자 일행을 데려가는 도르곤에게 깎듯이 예의를 갖추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식이 이제 떠나니, 대왕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오랑캐'로 치부했던 청인, 그것도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청 왕자에게 자식의 모든 것을 맡겨야 했던 아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인조는 도르곤에게 또 다른 부탁을 빼놓지 않았다. '자식들이 궁궐에서만 자랐는데, 지금 들으니 여러 날 동안 노숙(露宿)으로 벌써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는 동안 온돌방에서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르곤은 그러겠다고 답한 뒤 출발을 채근했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절을 올려 하직하자 인조는 눈물을 쏟으며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 '지나치게 화를 내지도 말고 청인들에게 가볍게 보이지도 말라'. 백관들이 통곡하면서 소현세자의 옷자락을 끌어당겼다. 세자 일행은 신하들의 통곡 속에 심양으로 떠났다.

인조와 소현세자의 이별 장면 또한 눈시울을 적시지 않고는 읽기 어렵다. 애틋하고 슬픈 인조의 부정(父情)이 느껴진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심양으로 들어간 소현세자는 이후 인조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다. 청인들은 소현세자를 지렛대로 인조로부터 충성을 이끌어 내려 했다. '여차 하면 인조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소현을 즉위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그 와중에 인조와 소현세자는 서로 '경쟁자'가 되고 '정적'이 되어 갔다. 그 귀결이 소현세자의 돌발적인 죽음이었다. 병자호란은 그렇게 인조의 부자 관계부터 파괴시켜 가고 있었다.

[병자호란] (30) 가도의 동강진 무너지다

2013.01.27 23:47

가도의 동강진 무너지다

청은 병자호란을 통해 여러 가지를 얻었다. 우선 자신들을 끝까지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조선을 굴복시킴으로써 대외적으로 '제국' 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다른 측면의 소득도 짭짤했다. 망해가고 있던 명에게 조선은 가장 충성스러운 번국(藩國)이었다. 그런데 청이 조선마저 제압함으로써 명은 이제 고립무원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청은 또한 조선을 끌어들여 명을 공략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 조선의 군사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지만, 수군과 화기수들은 만만치 않았다. 청은 조선 수군과 화기수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그 첫 결과가 가도(島)의 함락으로 나타났다.



▲ 충북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충민공 임경업(1594~1646) 장군의 사당 충렬사.임경업 장군은 1637년 조 · 청연합군의 일원으로 가도에서 명군을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화재청 제공

●조선, 명 배신 위기에 처해

전세가 기울어 청에게 항복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을 때에도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오는 것만은 피하려 했었다. 하지만 인조는 결국 출성하여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런데 항복한 이후에도 인조나 조선 조정이 끝까지 피하려 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조선이 군사를 내어 청군을 원조하고, 명을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1637년 2월3일, 용골대와 마부대는 창경궁으로 인조를 찾아왔다. 그들은 조선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가도 정벌에 협조하고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 당시 인조나 조정은 서슬퍼런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조선은 당장 황해도의 병선 100척과 수군 3000여명을 징발했다. 징발 과정에서 민폐를 따질 겨를도 없었다. 평안병사 유림(柳琳)을 주장으로, 의주부윤 임경업(林慶業)을 부장으로 삼아 병력을 이끌고 철산 앞바다로 진격하도록 했다. 청군의 수군 지휘관은 이신 공유덕과 경중명이었다.1633년 명에서 선단을 이끌고 귀순해온 두 사람은 청군 가운데는 드물게 바다와 해전을 아는 장수들이었다. 홍타이지의 두 사람에 대한 총애는 각별했다. 선단을 이끌고 귀순해온

것에 감격하여 공유덕 휘하의 병력을 천우병(天佑兵), 경중명 휘하의 병력을 천조병(天助兵)이라 불렀다. 두 사람을 위해 심양에 거대한 저택도 새로 지어주었다. '천우' , '천조' 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홍타이지에게 두 사람은 '하늘이 청을 돕기 위해 보내준 장수들' 이었다.



▲ 충렬사에 있는 임경업 장군의 영정

바야흐로 천우군과 천조군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찾아왔다. 홍타이지는 조선에서 철수하면서 두 사람을 조선에 남겨 수군 전력을 정비하도록 했다. 용산과 강화도 일대에서 함선을 새로 건조하거나 수선하고, 조선 수군의 협조를 얻어내는 임무를 맡겼다. 조선을 굴복시킨 여세를 몰아 가도의 동강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1622년 모문룡이 처음 들어가 동강진을 설치한 이후 가도는 청의 서진(西進)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하지만 지척에서 빤히 바라보면서도 수군이 없고 해전에 익숙하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굴렀던 지난 15년이었다. 그런데 이제 동강진을 쳐 없앨 절호의 기회가 왔다. 공유덕과 경중명의 역량은 물론, 해전에 뛰어난 조선 수군까지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홍타이지는 '가도 함락' 이라는 승전보를 기대하면서 철수 길에 올랐다. 조선은 '오랑캐' 에게 붙어 명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았다.

●明 도독 심세괴의 순국

청군은 가도를 곧바로 함락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사정은 그
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지형이 험하여 전함의 접근이 어려운
데다 명군이 섬 주위에 화포를 배치하여 청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가도에는 도독 심세괴(沈世魁)가 군민 5만여명을 이끌고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조 · 청 연합군은 1637년 4월9일, 철산 앞바다를 출발하여 총공격을 개시했다. 선단을 셋으로 나눠 상륙을 시도했지만 험한 지형과 명군의 사격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공략이 여의치 않자 청군 지휘관 마부대 등은 임경업 등에게 묘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애초부터 내키지 않는 싸움에 동참하게 된 임경업 등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마부대 등은 회유와 협박을 반복했다. 임경업은 협박에 밀려 결국 묘안을 제시했다. '지형이 험한 북쪽 해안을 버리고 남쪽 해안으로 우회하여 공격하자.' 는 것이 핵심이었다.

마부대는 임경업의 계책에 따라 자신과 공유덕 등이 이끄는 청 수군을 남쪽으로 우회시켜 동강진을 배후에서 공격토록 하고, 조선군은 의연히 북쪽 해안에서 동강진의 정면을 돌파하는 작전을 썼다. 당시 명군은 철산 등 육지를 마주보고 있는 북쪽 해안의 방어에 주력하여 남쪽 해안에는 병력을 거의 배치하지 않았다. 청군은 결국 별 어려움 없이 남쪽 해안으로 상륙하여 동강진의 배후를 기습했고, 그와 동시에 조선군이 정면에서 공격해 들어갔다.

남과 북에서 협공을 받은 명군은 완강하게 저항했으나 전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엄청난 사상자를 낸 상태에서 심세괴는 잔여 병력을 이끌고 소달금(小達金)이라는 봉우리로 퇴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청군의 철기(鐵騎)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다. 마부대는 소달금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한편, 섬 안에서 대대적인 살육과 약탈을 자행했다. 청군에게 떠밀려 들어온 조선군은 고민에 빠졌다. 청군과 함께 살육과 약탈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옛정을 생각하여 시늉만 할 것인가? 조선군은 애초 섬에 도착했을 때, 배에서 내리는 것도 미적거렸었다. 그런데 나만갑은 '병자록'에서 조선군이 청군보다 더 심하게 한인들을 죽이고 약탈을 자행했다고 적었다. 작전권이 청군 지휘부에게 있고 그들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이상 조선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심세괴는 항복을 권유받았지만, '대명(大明)의 신하가 개돼지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며 청군의 칼날 아래 쓰러졌다. 휘하 병력 1만명가량도 목숨을 잃었다. 조선군의 공격에 놀란 일부 한인들은 '명이 조선에 무슨 잘못이 있기에 우리를 배반하고 적에게 붙어 우리를 참혹하게 죽이느냐?' 며 절규했다. 가도 함락 소식이 서울로 전해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한 시대의 종언

심세괴의 죽음과 함께 가도의 동강진은 결국 무너졌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명나라의 군진(軍鎭)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조선과 명, 그리고 후금이 뒤얽혀 있던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무너진 것을 의미했다.

인조대 내내 가도는 '뜨거운 감자' 였다. 모문룡을 비롯한 가도의 역대 지휘관들은 조선을 몹시 괴롭혔다. 수시로 군량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가도의 한인들은 무시로 청북 지역에 출몰하여 조선을 곤혹스럽게 했다. 정묘호란 이후에는 조선을 오가는 후금 사신들을 체포하려 드는가 하면, '조선이 명을 배신하고 오랑캐에게 붙었다.' 고 북경 조정에 참소했던 것도 그들이었다. 그럼에도 명을 '상국' 이자 '부모국' 으로 섬기던 조선은 싫은 내색 없이 그들에게 군량을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었다. 가도의 교란 작전과, 그것을 용인하는 조선의 태도에 후금은 격앙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데는 가도의 존재도 분명 한 몫을 했다.

그런데 가도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은 철저하게 명이 자멸(自滅)해 가는 모습과 닮아 있었다. 애초 모문룡은 가도에 들어가 '요동을 수복하겠다.' 고 큰소리쳤지만 그저 말뿐이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안주하면서 막대한 부를 챙기고, 안일에 빠져들었다. 자연히 후금(청)과 맞서겠다는 본래 목표는 실종되었다. 명 조정은 그것도 모르고 엄청난 군자금과 물자를 가도에 퍼부었다. 목표는 사라지고 부만 늘어나면서 자연히 파벌 다툼이 잦아졌고, 그 와중에 수차례 반란이 일어났다. 이제 가도는 청의 서진을 견제하는 거점은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날로 역량이 커진 청이 가도를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 일 뿐이었다.

가도의 붕괴는 조선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명의 분신' 이자 '충성의 대상' 이 사라진 것을 의미했다. 가도에 상륙한 조선군이 살육과 약탈에 가담했던 것은 기존 조 · 명관계의 파탄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조선이 '새로운 상국' 청에게 서서히 길들여져 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했다.

인조, 백성에 사죄하다

"나 때문에 죄없는 모든 백성에 화 끼쳐 책임 통감"

전란은 끝났지만 인조 정권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당장 도성 안팎에 버려져 있는 시신들을 치우고, 하나 둘씩 모여드는 생존자들을 구휼(救恤)하는 문제가 시급했다. 또 전쟁을 불러오고, 임금으로 하여금 일찍이 없던 치욕을 겪게 만들었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당장 척화신들의 '경거망동' 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척화신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흉흉한 민심을 달랠 수는 없었다. 백성들은 청군에게 죽고, 붙잡혀 끌려가고,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렸다. 그들의 아픔과 분노를 다독이려면 결국 인조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화약이 맺어지고 인조가 환궁한 직후 조정의 분위기는 미묘했다. 우선 무신들의 기세가 등등해졌다. 병조판서 신경진(申景)은 회의석상에서 문관들을 매도했다. "쥐새끼 같은 자들이 나라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 며 목청을 높였다. '쥐새끼 같은 자들' 이란 문관들, 그 가운데서도 척화신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 충남 논산에 있는 척화신 윤황(1572~1639)의 재실.

구굉(具宏) 또한 척화신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인조의 인척이자 반정공신이기도 했던 그는 "윤황(尹煌)이 척화(斥和)를 주장하여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그의 목을 베어야만 한다" 고 일갈했다. 일찍이 정묘호란 당시부터 후금(청)과의 화친 시도를 '적에게 항복하는 것' 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던 윤황을 정조준했던 것이다. 나만갑은 '기세가 오른 무인들이 문신들을 종이나 하인들처럼 여기고, 남한산성에서 내려온 것이 마치 무슨 중흥의 계기나 된 것처럼 여긴다.' 고 귀경 직후의 조정 분위기를 적었다.



▲ 병자호란 당시 사간(司諫)으로 척화를 주장한 조경(1586~1669)의 위패가 있는 경기 포천의 용연서원. 한국전쟁 때 강당과 동재 · 서재가 불타 사우(祠宇)만 남았다.
문화재청 제공

●벼랑 끝으로 몰린 척화신들

호전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점차 답답한 현실에 짜증을 내게 되고 편안한 것을 찾기 마련이다. 더욱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병사들을 이끌고 산성의 방어를 담당했던 무신들이 보기에 문신들, 그 가운데서도 척화신들은 목소리만 컸을 뿐, 성을 방어하거나 나라를 지키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만도 했다. 이미 1637년 1월, 지친 병사들 사이에서 '척화신을 묶어 보내라.' 는 시위가 일어난 바 있었다. 추위와 기아에 시달리던 그들에게는 거창한 대의명분보다는 당장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편안한 잠자리가 더 절실했다. 그럼에도 '전원 옥쇄(玉碎)를 각오하고 결사 항전하자.' 고 목소리를 높였던 척화신들의 주장이야말로 비현실적이고 우활(迂闊)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항복이 다만 '시간 문제' 가 되고, 청이 전쟁의 책임을
척화신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묶어 보내지 않으면 항복을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판에 척화신들의 결사 항전 주장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인조가 항복했던 직후, 도성의 민심은 척화파에게 부정적이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성으로 돌아온 백성들 앞

에 보이는 것은 시체가 나뒹굴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처참한 모습뿐이었다. 절망 속에 눈에 핏발이 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자신들을 유린한 청군에 대한 적개심과 아울러 대의명분을 앞세운 척화신들의 '경거망동'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망가졌다는 원망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2월19일 김류, 홍서봉, 이성구, 신경진, 최명길 등 대신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나라를 그르친 사람들의 죄를 따지는' 자리였다.

윤황, 이일상(李一相), 유황(兪榥), 홍전(洪), 조경(趙絅), 유계(兪棨) 등 척화신들의 '과오'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인조는 이들 모두의 관작을 삭탈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조경은 문외출송(門外黜送), 윤황 · 유황 · 홍전 · 유계 등은 유배, 이일상은 가장 무거운 절도(絶島) 정배의 명령을 받았다. 척화신 대부분을 조정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바야흐로 척화신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인조, 백성 원성에 위기감

척화신들을 처벌했지만 인조 또한 마음이 편할 수는 없었다.2월8일, 심양으로 끌려가는 소현세자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인조는 한 노파의 원망 섞인 통곡 소리를 들었다. '여러 해를 두고 강화도를 수리하여 백성들을 의지하게 했는데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더냐. 나라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날마다 술 마시는 것을 일삼아 백성들을 모두 죽게 했으니 이것이 누구 탓인가? 자식 넷과 남편이 모두 죽고 다만 이 몸만 남았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어찌 이런 원통한 일이 있단 말인가.'

가족을 모두 잃은 노파의 한탄은 사실 인조를 향한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이번 전란 때문에 삶이 망가진 모든 백성들의 원망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인조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2월19일 인조는 내외의 군인과 백성들에게 내리는 교유문(敎諭文)을 발표했다.

'덕이 부족한 내가 대위(大位)에 있은 지 15년에 오직 대의(大義)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뜻밖의 화를 만나 외로운 성에서 포위 당한 채 봄을 맞았다. 나는 지금 해진 갖옷을 입고 거친 밥을 먹는 것이 일반 천민과 다름이 없고,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은 천성인데 나는 지금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모두 북쪽으로 떠나보냈다. 돌아보건대 백성을 기르는 자리에 있으면서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화를 끼쳤다. 군사들은 전장의 원혼(魂)이 되게 했고, 죄 없는 백성들은 모두 포로가 되게 하여, 아비는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아비는 지어미를 보호하지 못하게 하여 가슴을 치고 하늘에 호소하게 하였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이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머금고 오장이 에는 듯하여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

솔직하고 처절한 내용이다. '나의 죄' 운운하면서 전란 발생과 백성들의 고통이 모두 자신 때문에 빚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백성들에게 머리를 숙인 국왕은 일찍이 없었다.

인조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다짐했다. '이제 묵은 폐단과 가혹한 정치를 모두 없애며, 사당(私黨)을 없애고 공도(公道)를 회복하며, 농사에 힘써 남은 백성들을 보전하려 한다. 그대 팔도의 신민들은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고, 상하 합심하여 어려움을 널리 구제할지어다.' 이제 잘 해보겠으니 도와달라는 당부이자 호소였다.

●의심받는 인조의 진정성

처절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과 성명'을 읽으면 인조는 분명 병자호란을 계기로 대오각성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성명 발표 전후 인조가 취한 조처들을 보면 그리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강화도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빼앗고, 엄청난 수의 백성들을 죽거나 포로가 되게 했던 장수들에게 군율 적용을 기피하려 했던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1637년 2월 삼사 신료들은, 특히 죄가 무거운 김자점 · 김경징 · 장신 등에게 엄격한 군율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종사를 위태롭게 하고 수많은 생령들을 죽거나 끌려가게 만들었느니 복주(伏誅)해야만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인조는 김경징과 장신에게 극형을 내리는 것을 꺼려했다. 신료들의 채근에 '김경징이 거느린 군사는 매우 적었고, 장신은 조수(潮水) 때문에 배를 통제할 수 없었다.'며 두 사람을 비호했다. 강화도를 방어할 준비를 내팽개쳤고, 함께 싸우자는 부하들의 호소도 묵살하고 달아났던 두 사람의 실제 행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이었다. 인조는, '제대로 정죄(定罪)하지 않으면 종묘사직의 영혼을 위로할 수 없고 신인(神人)의 분노를 풀

수 없다.' 는 신료들의 거듭된 요청에 밀려 마지못해 두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 하지만 김자점은 끝내 유배형에 그치고 말았다. 김경징과 김자점이 모두 인조를 왕위에 올려놓는 데 앞장섰던 공신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조의 태도가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을 비호하려 했던 인조의 자세는 '사당을 없애고 공도를 회복하겠다.' 던 교유문의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것이었다.

조선,혼돈 속 청의 번국 되다

청나라 "인조를 국왕에 봉하니 충성하라" 칙서

청군의 철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조정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그것은 전란을 불러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불거졌다.인조는 그 책임을 온전히 척화파들에게 돌렸다. '그들이 명분만 앞세워 경거망동하는 바람에 임금과 종사(宗社)를 불측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는 것이다.인조는 척화파들을 조정에서 내쫓고 최명길을 비롯한 주화파 대신들을 중용했다.척화신들을 옹호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주화파 대신들 가운데도 척화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이제 와서 척화신들만 희생양 삼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논리였다.하지만 '책임 공방' 에만 몰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혹했다.청측의 서슬은 여전히 시퍼랬고,감시의 눈길은 여기저기서 번뜩이고 있었다.조정은 결국 혼돈 속에서 점차 청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다.



▲ 종친부(宗親府).왕실과 종친의 일을 관장하던 기관으로 임진왜란 때 불탄 건물을 인조 4년(1626) 여름 다시 세웠다.원래는 경복궁 동쪽의 서울 소격동 기무사 터에 있었으나 1981년 화동 정독도서관 마당으로 옮겨 놓았다.
문화재청 사진

●전란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

1637년 3월21일 도승지 이경석(李景奭)이 나섰다.그는 조정에서 쫓겨난 윤황(尹煌)이나 조경(趙絅) 등의 이야기가 부당한 듯하지만,실제로는 국가의 대의(大義)를 지키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선처하라고 촉구했다.사간 김세렴(世濂)은 '윤황 등이 죄를 입어 조정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에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며 그들을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인조도 물러서지 않았다. '작년에 윤황 등이 헛된 명분에 매몰되어 실사(實事)를 도외시하는 부박(浮薄)한 행동을 저질렀다.' 며 사면 요청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3월26일 부제학 윤지(尹?),교리 정치화(鄭致和),윤강(尹絳) 등이 다시 들고일어났다.그들은 '윤황 등이 망령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어찌 유독 윤황 등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묘당(廟堂)의 책임입니다.' 라고 비변사와 대신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인조는 다시 격앙되었다. '작년 용골대 등이 왔을 때,그들이 우리에게 바로 표(表)를 받들고 칭신(稱臣)하라고 강요했다면 척화신들의 언동이 정당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척화신들이 망령되이 들고일어나 용골대의 목을 치라고 주장했다.그 이후 청에 사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은 국가를 도모하기 위한 권도(權道 · 임시 방편)였는데 이들이 한갓 큰소리로 저지하여 나랏일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고 일갈했다.인조는 척화파들이 앞뒤를 따져 보지도 않고 '참수(斬首)' 운운하면서 '오버' 했던 것이 청의 침략을 부르고,궁극에는 자신과 백성들을 끔찍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신료들도 다시 반격에 나섰다.6월21일 유백증(兪伯曾)은 영의정 김류(?) 등 주화파 대신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작년 가을 이전에는 김류 또한 화친을 배척하여 '청국(淸國)' 이란 말을 쓰지 말고 사신을 보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전하께서 '적이 깊이 들어오면 체찰사는 그 죄를 면할 수 없다.' 고 하자마자 주화(主和)로 돌아서 윤집(尹集) 등을 묶어 보내고 윤황 등의 죄를 다스리자고 했습니다.자신이 모든 책임을 맡아 임금이 성을 나가게 하고도 잘못을 인정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유백증의 반박에 인조는 입을 다물었다.

●주화파 최명길,인조를 위로하다

병자호란 직후 김류는 분명 인조에게 '뜨거운 감자' 였다. 전쟁 수행의 총책임자인 영의정이자 체찰사로서 김류가 보여준 난맥상이나 그의 아들 김경징의 과오를 생각하면 김류를 당장 내치는 것이 정상이었다.실제 삼사 신료들은 '종사를 망친 죄' 를 들어 김류의 관작을 삭탈하고 조정에서 쫓아내라고 촉구했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에 있는 이경석 묘소.

하지만 인조에게 김류는 분명 특별한 존재였다.그는 일개 왕손에 지나지 않았던 인조를 보위(寶位)에 추대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원훈(元勳)이었다.김류가 없었다면 '국왕' 인조도 있을 수 없었다.인조는 끝내 그를 버릴 수 없었다.더욱이 당시 인조는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은' 원죄 때문에 권위가 말이 아닌 상태였다.위기 상황이었다.위기 상황일수록 무조건 충성을 다하는 측근이 필요했다.인조는 결국 유백증 등의 탄핵을 무시하고 김류를 감싸주었다.

호란 직후 전란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 조정의 대소사를 주도한 사람은 단연 최명길이었다.환도 직후 우의정으로 승진한 그는 시종일관 주화론을 견지한 데다,전란 초 적진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담판을 벌여 인조에게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공로가 있었다.자연히 인조는 그를 신임했고,최명길은 전후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최명길은 5월15일 장문의 상소를 올려 인조를 다독이려고 시도했다.그는 상소에서 '지난번의 호란은 천지 개벽 이래 일찍이 없던 병란(兵亂)입니다.전하께서 융통성 없이 필부(匹夫)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셨다면 종묘사직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다행히 전하께서 묘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백성들의 바람을 따라 종묘사직의 혈식(血食)을 연장하게 되고 생령이 어육(魚肉)됨을 면하게 되었습니다.전하의 지극한 어짐과 큰 용맹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최명길은 인조가 순간의 굴욕을 참음으로써 종사가 유지되었으니 항복은 '치욕' 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 이었다고 찬양했다.

최명길은 이어 '전하께서는 이 일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하늘의 운세는 돌고 돌아,흘러가면 되돌아오기 마련이

며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회생하고 비(否)가 극에 달하면 태(泰)가 오는 법' 이라며 인조를 위로했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었다.' 는 자괴감 때문에 우울해져 있는 인조를 격려하고,그를 움직여 전란 후의 난제들을 풀어가 보려는 충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인조,홍타이지에게 다시 책봉 받아

사실 당시 조선의 처지는 '책임 공방' 에 몰두할 겨를이 없었다.당장 폭주하는 청의 압박과 이런 저런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도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병력을 뽑아 보내라.' '대신들의 자제를 빨리 들여보내라.' '도망친 포로들을 잡아 보내라.' '처녀를 뽑아 바쳐라.' 등등 요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미 1637년 3월21일 의주부윤 임경업이 장계를 올렸다.내용은 청이 곧 용골대에게 어보(御寶)를 들려 조선으로 보낸다는 소문이 돈다는 것이었다.그것은 다름 아닌 인조를 다시 책봉한다는 소식이었다.

용골대는 이제 '상국(上國)' 의 책봉사(冊封使)로서 조선에 오는 것이었다.조정은 비상이 걸렸다.원접사(遠接使)와 관반(館伴)을 선발하고 각 지점에서 그를 접대하는 문제를 놓고 법석을 떨었다.바로 과거 명사(明使)들이 왔을 때 접대를 준비하던 방식이었다.

이윽고 11월20일 용골대가 홍타이지의 칙서를 갖고 서울로 들어왔다.인조는 서쪽 교외까지 거둥하여 용골대 일행을 맞았다.칙서의 핵심은 간단했다. '왕이 전의 잘못을 뉘우쳤으니,이제부터는 네가 새로워지는 것을 아름답게 여길 것이다.이미 번봉(藩封)을 정하였으므로 전국(傳國)의 인(印)을 만들어 너를 조선 국왕으로 봉한다.이제 우리의 번병(藩屛)이 되었으니 황하(黃河)가 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泰山)이 숫돌처럼 닳도록 변하지 말라.'

'옥새를 내리나니 황하가 띠가 되고 태산이 숫돌이 될 때까지 충성을 다하라.' 는 내용이었다.인조는 삼전도에서 항복할 때,명으로부터 받은 옥새를 청측에 넘겨 주었었다.그리고 열 달이 지난 지금,청은 조선 국왕의 옥새를 새로 만들어 가져온 것이다.

인조는 '칙사' 용골대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린 뒤 홍타이지의 칙서를 받았다.홍타이지는 인조를 다시 조선 국왕으로 책봉한 것이고,조선은 청의 번국(藩國)이 되기로 다시 맹세하는 순간이었다.청은 철저히 과거 명의 행태를 흉내내고 있었다.

이튿날 신료들은 인조에게 하례를 올리고,전국에 대사령(大赦令)을 내렸다.황제의 칙서가 내린 것을 축하하는 조처였다.

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침울했다. '

책봉' 을 마친 용골대 일행은 다시 요구 조건들을 쏟아냈고,자괴감과 부담감 때문에 조선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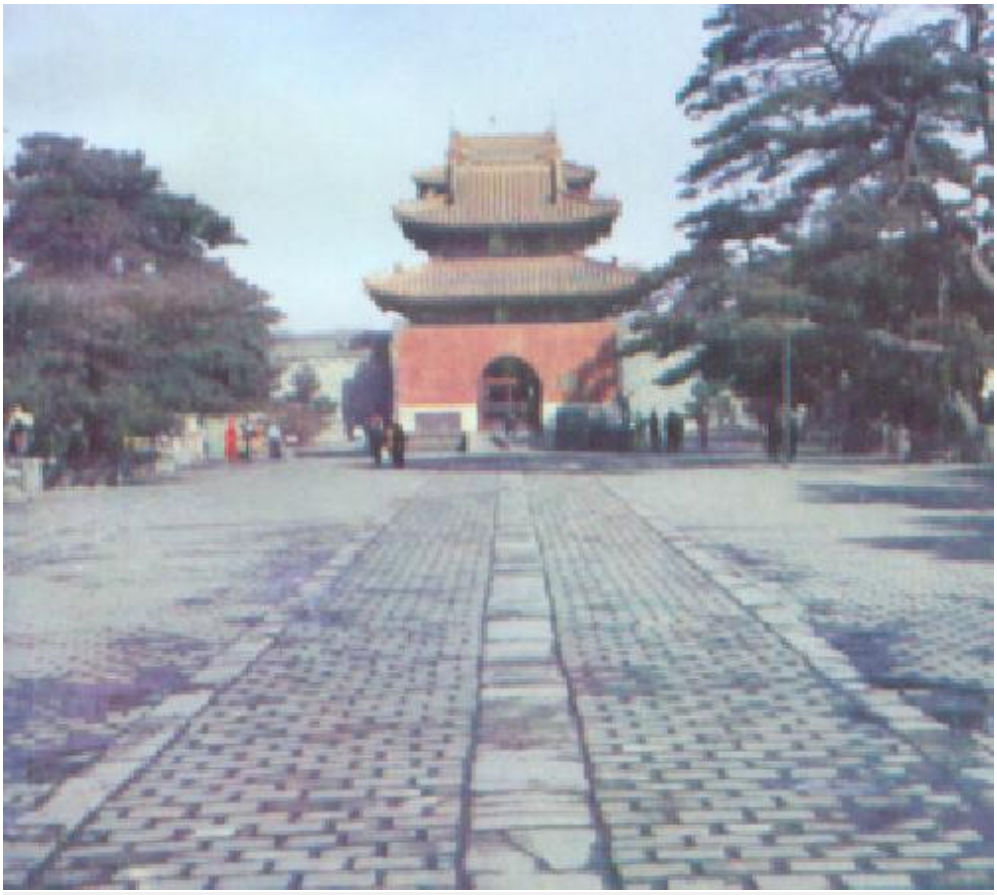
병자호란] (31) 포로들의 고통과 슬픔

2013.01.27 23:50

포로들의 고통과 슬픔 ①

50만명 '포로 사냥' 희생양… 사고 팔리는 노예로

'우리가 끌고 가는 조선인 포로들 가운데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탈출에 성공하는 자는 불문에 부친다.하지만 일단 강을 건너 한 발짝이라도 청나라 땅을 밟은 다음에 도망치는 자는 조선이 도로 잡아 보내야 한다.' 청 태종 홍타이지가 1637년 1월,항복을 받을 당시 조선 조정에 제시했던 포로 관련 조건이었다.참으로 무서운 조건이었다.당시 서슬 퍼렇던 청의 위협 앞에서 조선 조정은 약조를 어기기 어려웠다.실제 조선으로 도망쳐 온 포로들 가운데 도로 붙잡혀 청 측에 넘겨진 사람들의 운명은 가혹했다.그들은 '도망을 시도했다' 는 이유로 발뒤꿈치를 잘리는 혹형(酷刑)을 받았다.끔찍한 일이었다.참혹하기 그지없는 '포로 문제' 야말로 병자호란이 남긴 가장 큰 비극이자 인조정권을 계속 고민하게 했던 문제이기도 했다.



▲ 병자호란을 일으킨 청나라 제2대 황제 홍타이지(皇太極 · 1592~1642)가 묻힌 중국 선양(瀋陽)의 소릉(紹陵).청 황제의 무덤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1643년 조성하기 시작해 1651년 기본 건축이 완성되었고,이후에도 여러차례 보수와 증축이 이루어져 현재의 규모가 되었다고 한다.

●청의 포로에 대한 집착

병자호란 당시 청군에 붙잡혀 청나라로 끌려간 사람(被擄人)은 얼마나 될까.전쟁이 끝난 뒤,최명길은 가도(?島)의 명군 지휘부에 보낸 자문(咨文)에서 피로인의 수를 50만명으로 추정했다.쉽사리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이다.조선이 청의 침략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 측에 강조하기 위해 포로의 수를 부풀렸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나만갑(羅萬甲)이 '병자록'에서 '청군이 철수하는 동안 매번 수백 명의 조선인들을 열을 지어 세운 뒤 감시인을 붙여 끌고 가는 것이 하루 종일 지속되었다.' 거나 '뒤 시기 심양(瀋陽) 인구 60만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 사람'이라고 서술했던 사실을 염두에 두면 최명길의 추정이 과장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50만명은 안 될지 몰라도 적어도 수십만 명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인다.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에 있는 나만갑(1592~1642) 선생 신도비.선생은 병자호란의 참상을 인조 14년(1636) 12월12일부터 이듬해 2월8일까지 생생하게 기록한 '병자록'을 남겼다.
문화재청 제공

청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포로들을 끌고 갔을까.청은 일찍이 후금(後金)시절 이전부터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포로들을 획득하는 데 골몰했다.후금은 전투,납치 등을 통해 한인(漢人)과 몽골인들은 물론 조선인들을 잡아가곤 했다.그들은 후금으로 끌려가 농장 등지에서 노비로 사역되었다.신체가 건장한 자들은 군대에 편제되어 또 다른 전쟁에 동원되기도 하고,여자들은 궁중에 들어가 시비(侍婢)가 되기도 했다.특히 철장(鐵匠),야장(冶匠) 등 특별한 기능을 가진 포로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1627년 후금이 정묘호란을 도발했을 때,조선에 들어온 병사들 가운데는 일찍이 1619년 심하(深河) 전역에서 포로가 되었던 조선 출신 병사들도 끼어 있었다.

영역은 날로 늘어나는데 인구가 부족했던 후금은 이후에도 '포로 사냥'에 몰두했다.특히 1629년 이후 명을 수시로 공략하면서 매번 수만에서 수십 만의 한인들을 납치했다.그들은 후금의 새로운 인구가 되고,노동력이 되었다.따라서 병자호란 무렵에 오면,청은 이미 상당한 수의 한인 노동력을 확보한 상태가 되었다.이제 조선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은 단순히 노동력이라기보다는 돈을 받고 판매할 '무역 상품'으로서의 의미를 더 크게 지니게 되었다.

●포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이미 정묘호란 직후부터 조선은 청(후금)과 '포로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벌였다.특히 심각했던 것은 후금에 정착했다가 조선으로 도망쳐온 포로(走回人)들을 처리하는 문제였다.후금은 조선에 대해 주회인들을 조건 없이 돌려보내거나,아니면 그들의 몸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조선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하지만 조선은 후금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었다.

청과 조선은 포로를 바라보는 개념과 인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청은 포로를 '혈전(血戰)을 벌여 얻어낸 정당한 성과'로 인식했다.말하자면 피를 흘려 얻은 일종의 '소유물'이자 '재화'였던 것이다.따라서 포로들이 달아나는 것이나,달아난 포로들을 숨겨주고 송환하지 않는 조선의 행위에 대해 극도의 불만과 분노를 표시했다.

조선은 달랐다.정묘호란 직후의 기록을 보면,조선 신료들은 포로들이 도망쳐 오는 것을 '혈육과 고향을 간절히 그리는 마음 때문에 이루어진 부득이한 행동'으로 여겼다.따라서 주화인들을 붙잡아 후금으로 도로 넘겨주는 행위는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不忍之事)'이었다.나아가 도망 포로들을 붙잡아 보내라고 독촉하는 청의

요구를 '짐승 같은 오랑캐들의 탐욕에서 나온 행위'로 매도했다.



▲ 주회인들이 건넜던 압록강 수풍댐의 오늘날의 모습.

조선은 일찍이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본으로부터 포로를 송환해 왔던 경험이 있었다.1607년 이른바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를 일본에 보내 처음으로 데려온 이후 통신사가 갈 때마다 포로들의 송환 문제를 교섭했다.당시 대마도와 막부(幕府)가 포로들을 일부 돌려준 것은,조선의 원한을 다독여 국교를 재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어쨌든 일본과의 그 같은 경험을 통해 '포로 문제'에 대한 조선의 생각은 나름대로 굳어졌다. '똑같은 오랑캐임에도 일본인들은 포로 송환에 성의를 보였는데,만주족 오랑캐들은 어찌 이렇게도 잔인하단 말인가'.

자연히 조선 조정은 주회인 송환에 극히 소극적이었고,청의 압박이 몹시 강해진 상황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몇몇 주회인들을 잡아 보내 입막음을 시도하곤 했다.실제 정묘호란 무렵까지만 해도 후금 또한 '포로 문제' 때문에 조선을 끝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았다.아직 명과의 대결을 위한 준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데다,그런 상황에서 조선을 다시 공략하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에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사실상 '무조건 항복'을 통해 청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던 조선은,과거처럼 '혈육을 찾아 도망쳐온 포로들을 차마 잡아보낼 수는 없다.'는 식의 '호소'를 되풀이할 수 없었다.홍타이지가 제시한 조건에서도 드러나듯이 '포로 문제'를 둘러싼 청의 압박이 정묘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조선,속환(贖還)을 시작하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의 압박 때문에 주회인들을 숨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이 같은 상황에서 청에 끌려간 혈육들을 데려올 수 있는 길은 속환(贖還)이 거의 유일했다.속환이란 포로의 몸값을 청 측 주인에게 치르고 데려오는 것을 말한다.포로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인간 시장'이 서게 되었고,몸값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포로들은 일종의 '상품'이 되었다.

청의 용골대는 1637년 4월,심양에 도착한 소현세자(昭顯世子) 일행에게 속환에 대한 청 측의 방침을 통보했다.그들은 속환과 관련하여 '청군이 조선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한 뒤부터 심양에서 시작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즉 중간에서의 속환은 불가능하고,속환을 원하는 포로의 보호자가 직접 심양으로 올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소현세자는 이 내용을 4월13일 본국에 보고했고,조선 조정은 비로소 속환 준비에 나서게 되었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속환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하지만 그것은,전란 시기 행방불명된 혈육을 갖고 있었던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그 단적인 사례로 대사간 전식(全湜 · 1563~1642)의 경우를 들 수 있다.병자호란 중에 행방불명된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해 애를 태웠던 그는,아들이 죽은 것으로 치부하여 가짜 묘까지 만들어 장례를 치를 생각을 했다.하지만 속환이 곧 시작된다는 소식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이 심양에 포로로 끌려가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전식은 1637년 4월,심양에 사은사(謝恩使)로 가게 되어 있던 좌의정 이성구(李聖求)에게 아들을 찾아봐 줄 것을 부탁하기에 이른다.살아 있기만 하면 속환해 오는 데 드는 몸값 등은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자식을 비롯하여 헤어진 혈육들이 생존해 있기를 바라고,그들을 속환해 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조선 사람들의 비원(悲願)이었다.하지만 그 비원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높은 관직에 있거나,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웠다.바로 거기에 '포로 문제'를 둘러싼 또 다른 비극이 자리잡고 있었다.

병자호란 직후 청으로 끌려간 수많은 포로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한마디로 그들 피로인(被擄人)들은 시종일관 끔찍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그들의 고통은 청군에게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심양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심양에 도착한 이후에도,도망이나 속환(贖還)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또 조선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요컨대 청군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는 한,온갖 고통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로잡혀 끌려갈 때의 고통

포로들의 고통은 청군에게 붙잡히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도성이나 강화도가 함락되었을 때,수많은 사람들이 청군의 체포를 피해 달아나거나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었다.죽음은 슬픈 것이지만,죽은 사람들은 그나마 처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1637년 9월,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속환에 몰두하라고 촉구했던 예조좌랑 허박(許博)은 '포로가 되어 겪는 고통은 죽음보다 더 심하고,그것이 화기(和氣)를 해치는 것 또한 죽음보다 더 심하다.'고 말한 바 있다.

청군의 마수를 피하지 못하고 사로잡힌 사람들은 심양으로 연행될 때까지 청군 진영을 비롯한 주둔지 이곳저곳에 수용되었다.포로들이 사로잡혔던 시기는 한겨울이었다.당시 남한산성을 지키던 병사들 가운데서도 혹심한 추위 때문에 얼어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다.그런데 포로가 된 조선 사람들에게 적절한 식사와 잠자리가 주어질 리 만무했다.결국 수많은 포로들이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 중국 심양 백탑거리에 있는 라마교사원의 모습.병자호란 당시 포로가 된 여인 가운데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청군은 이들을 끌고 가면서 아이들은 죽이거나 내팽개치는 만행을 저질렀고 저항하는 여인은 살해되었다.

수용되어 있거나 심양으로 연행되고 있었던 시기에 포로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추위였다.이미 언급했듯이 1637년 2월8일,인조는 인질이 되어 심양으로 출발했던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전송하던 자리에서 청의 구왕(九王) 도르곤(多爾袞)에게 신신당부했다.심양으로 가는 도중 소현세자를 온돌방에서 재워 달라는 부탁이었다.인조는 그러면서 1월30일부터 시작된 열흘 남짓의 노숙 때문에 아들에게 이미 병이 생겼다고 호소했다.장차 조선의 지존(至尊)이 될 신분이라 상대적으로 우대 받고 있었던 소현세자의 상황이 이러할진대 나머지 일반 포로들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포로들은 수백명 단위로 열을 지은 채,엄중한 감시 속에 심양을 향해 행군했다.청군 지휘부는 탈출을 우려해 포로들이 행군하는 연로에서 조선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행여 접촉이나 탈출을 시도하는 포로들에게는 곧바로 철퇴가 날아들고 처참한 살육이 자행되었다.



대오(隊伍)를 유지하면서 걷는 과정은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당시 홍익한,윤집과 함께 척화(斥和)했다는 이유로 끌려갔던 오달제(吳達濟)는 '심양에 오기까지 60일 동안 옷을 벗지 못한 채 자야 했기에 온몸에 이가 들끓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여성 포로들의 슬픔

포로들 가운데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특히 더 처참했다.그들은 우선 사로잡힌 뒤 능욕을 당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또 많은 여성들이 청군의 능욕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특히 사대부 집안의 여인들이 대거 피란해 있던 강화도의 비극이 처절했다.강화도 함락 직후,청군의 체포와 능욕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여인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했다.워낙 많은 여인들이 몸을 던졌기 때문에 '여인들의 머릿수건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이 마치 연못 위의 낙엽이 바람을 따라 떠다니는 것 같다.'는

묘사가 나올 정도였다.

청군은 아이가 있는 여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다.젊고 예쁜 여자는 가리지 않고 끌고 갔다.당시 포로가 된 여인들 가운데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청군은 이들 여인을 끌고 가면서 아이들을 죽이거나 내팽개치는 만행을 저질렀다.저항하는 여인들은 살해되었다. '강도록(江都錄)' 을 비롯한 실기류(實記類)에 '포개진 시신들 사이로 젖먹이들이 어미를 찾아 기어다니며 울고 있다.' 는 처참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 같은 상황을 방증한다.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에 있는 홍학사 비각.병자호란 당시 삼학사의 한 분인 홍익한 선생의 충절을 기리고자 선생의 무덤 앞에 세웠다.
문화재청 제공

심양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여성 포로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다.당시 청군 장수들은 사로잡은 조선 여인들을 자신의 첩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그런데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자가 예쁜 여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강제로 빼앗는 사례가 있었다.또 만주족 출신 장수가 한족 출신 장수가 데리고 있는 여인을 빼앗는 경우도 있었다.조선 여인을 둘러싸고 쟁탈전이 벌어졌던 셈인데,이렇게 자신을 최초로 사로잡았던 장수로부터 또 다른 장수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성 포로들이 어떤 수난을 겪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졸지에 청군 장수의 첩으로 전락하여 심양에 도착한 여성 포로들에게는 뜻밖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그것은 다름 아닌 청군 장수의 본처들이 자행하는 투기(妬忌)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본처들 가운데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조선에서 온 여성 포로들을 참혹하게 학대하는 자들이 있었다.심지어 조선 여인들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거나 혹심한 고문을 가하는 여자들도 있었다.이 같은 사태는 청 조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다.1637년 4월,홍타이지는 도르곤 등 신료들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조선에서 데려온 여성들에게 계속 그런 짓을 자행하는 본처들이 있을 경우,남편이 죽었을 때 순사(殉死)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홍타이지까지 직접 나서서 본처들의 악행(惡行)을 근절하라고 했던 것을 보면 당시 여성 포로들에게 닥쳤던 고난이 얼마나 처참했던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속환(贖還)의 난맥상

청이 조선인 포로들의 속환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은 1637년 4월 이후였다.하지만 실제로는 청군이 철수 길에 올랐던 2월 초부터 이미 속환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청군이 철수에 앞서 자신들의 주둔지 부근에서 조선인 포로들을 '매매'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포로들을 직접 끌고 가는 것이 귀찮거나 돈이 필요했던 자들이 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항복했던 직후부터 청군이 철수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포로들의 몸값(贖還價)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청은 병자호란 이후 속환가를 은(銀)으로 계산했는데,당시 남자는 한 사람 당 은 5냥,여자는 3냥 정도였다.또 아무리 높이 잡아도 10냥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공식적인 속환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돌변했다.종전 직후 조선은 이성구(李聖求)를 사은사(謝恩使),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을 부사(副使)로 임명하여 심양에 파견했다.사실상 최초의 속환사(贖還使)였다.이들이 심양에 도착한 5월15일 이후 심양에서 '인간시장' 이 열렸다.

혈육을 데려가려는 소망을 품고 많은 원속인(願贖人)들이 심양으로 모여들었다.하지만 그들은 곧 절망하고 말았다.속환가가 최소 수백냥에서 천냥 단위로 폭등했기 때문이다.그것은 인신매매로 한밑천 잡으려는 청인(淸人) 소유주들의 탐욕과 그에 놀아난 일부 조선 고관들의 조바심과 무책임 때문이었다.한 예로 이성구는 자신의 아들을 1500냥에 속환했다.

헤어진 혈육을 하루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人之常情)' 이다.하지만 그들의 조바심은 몸값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뛰어버린 몸값을 마련할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속환의 희망을 이룰 수 없었다.최명길은 한 사람의 몸값으로 100냥을 넘기지 말 것과 청인들이 100냥 이상을 부를 경우,속환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몸값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일부 고관들은 사적 통로 등을 이용하여 여전히 높은 몸값을 치르고 있었고,나머지 사람들은 은을 마련하기 위해 집과 땅을 팔고,빚을 내기 시작했다.그렇게 속환가를 마련한 사람들이 심양으로 달려가게 되면서 다시 값이 오르는 악순환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속환은 '사람 장사' … 혈육 눈앞에 두고 돈 없어 눈물만

당시 포로들을 속환해 오는 방식은 몸값을 누가 마련하느냐에 따라 크게 사속(私贖)과 공속(公贖)으로 나눠지고 있었다.사속이란 일반 사민(士民)들이 스스로 마련한 몸값을 갖고 심양에 들어가 혈육을 데려오는 방식이었다.공속은 국가가 몸값을 대고 포로들을 데려오는 것이었다.어느 경우든 포로를 팔아 한 밑천 챙기려는 청인들의 탐욕,조선의 고관들이나 재력을 갖춘 사람들의 무절제 때문에 속환가(贖還價)는 날이 갈수록 치솟았다.거기에 속환 과정에서 부

정과 비리까지 더해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환은 그저 '남의 이야기' 가 될 수밖에 없었다.또 속환을 통해 돌아오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고통과 마주해야 했다.이래저래 포로들의 고통은 끝이 없었다.



▲ 단둥(丹東) 외곽의 변문진(邊門鎭) 팻말.변문(邊門)이란 단둥이 사실상 조선과의 국경임을 의미한다.

●속환의 문제점과 허박(許博)의 절규

몸값을 마련할 수 없는 사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속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었다.하지만 공속의 대상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전란 직후,국가의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에서 조정은 공속의 대상자를 종실(宗室),인조를 호종(扈從)했거나 남한산성을 지키던 군사들,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로 제한했다.종실은 왕실의 피붙이이기에 가장 우선적인 속환 대상이 되었고,남한산성을 지키던 군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국가 유공자' 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가가 몸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공속의 대상자도 아니고,비싼 속환가를 마련하기도 어려웠던 사람들은 결국 속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심양으로 달려갔지만 폭등해 버린 속환가 때문에 혈육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야 했던 사람들,아예 속환가를 마련할 방도가 없어 압록강 너머의 만주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처참한 장면이었다.

속환 자체가 사실상 무역으로 변질되면서 갖은 부작용과 부정 행위도 같이 일어났다.상인들 가운데는 심양을 왕래하며 '사람 장사' 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청인으로부터 포로를 싼값에 사서 조선에 돌아온 뒤,포로의 연고자에게 비싼 값으로 되파는 방식이었다.

실종된 혈육을 가진 사람들의 애끓는 심정을 악용하여 뇌물을 챙기는 관원들도 나타났다.당시 조정은 심양에 억류된 포로들의 명단을 청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른바 '피로인성책(被擄人成冊)' 을 만들었다.실종된 가족들의 생사를 알지 못해 발을 구르던 사람들에게는 '성책' 을 열람하는 것이야말로 속환을 위한 첫걸음인 셈이었다.하지만 당시 비변사에 보관되어 있던 '성책' 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상(堂上)이나 서리들이 뇌물을 받아 문제가 되었다.곤경에 처한 불행한 사람들을 등치는 파렴치한 행위였다.

이런저런 요인들 때문에 속환을 통해 포로들을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았다.누구보다 속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예조좌랑 허박(許博)은 1637년 9월,인조에게 만언소(萬言疏)를 올렸다.글자 수가 1만자에 이르는 장문의 상소였다.그는 인조에게 속환을 전담하는 기구와 관원으로 속환도감(贖還都監)과 속환사(贖還使)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몸값 마련을 위한 방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속환가로 충당되는 은을 마련하기 위해 은광(銀鑛)을 개발하고,벼슬아치들과 일반 백성들에게 속환의 절박성을 설명하여 성금을 거두라고 건의했다.허박은 또한 왕실과 조정이 절용(節用)에 솔선하고,속환 과정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고,속환가를 엄격히 제한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나라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속환에 나서라고 촉구하고,그렇지 않을 경우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이르고 그것이 궁극에는 조정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하지만 허박이 제시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수용되지 못했다.

●속환은 시들해지고,청의 압박은 강화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속환 대책은 점차 흐지부지되어 갔다.속환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되었다.조선 조정이 속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오히려 청 측에서 먼저 속환을 종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1641년(인조 19) 6월,용골대(龍骨大)는 심관(瀋館)의 조선 관리들에게 자신의 곤궁한 경제적 사정을 이야기한 뒤,자신이 데리고 있던 열 살 아이를 속환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 병자호란 당시 속환된 포로들이 돌아오던 단둥(丹東)의 오늘날 모습.끊어진 압록강 철교의 구교가 보인다.

속환 문제를 포함하여 포로들에 대한 조선 조정의 관심이 점차 시들해지고 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은 도망해 온 포로(주회인)들을 송환하라는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병자호란 당시 워낙 많은 수의 포로가 잡혀갔기 때문에 주회인의 수도 크게 증가해 있는 상태였다.청은 때로는 심양의 소현세자에게,때로는 직접 서울로 사신을 보내 주회인들을 잡아 보내라고 협박했다.

정묘호란 무렵,조선 조정은 '부모 된 자로서 고향을 찾아 도망쳐 온 자를 차마 잡아 보낼 수 없다.'는 인정론(人情論)을 들어 청측의 요구를 무마하고자 했다.하지만 병자호란 이후에는 이 같은 인정론이 통하지 않았다.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인조를 입조(入朝)시킨다.'고 하거나 '애초 산성에서 나올 때 왕을 교체하려 했는데,그러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 는 등의 풍문을 흘려 인조를 직접 압박했다.

인조와 조정은 청의 압박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각 지방의 수령들에게 주회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부작용이 속출했다.수령들 가운데는 책임을 때우기 위해 주회인이 아닌 사람까지 마구잡이로 붙잡아들이는 자가 있었다.도망친 주회인 대신 가족을 잡아들이기도 했다.붙잡힌 주회인들 가운데는 청으로의 압송을 기다리며 몇 년씩 감옥에서 고통을 겪는 자들도 있었다.

당연히 민심이 흉흉해졌다.1641년(인조 19),유례 없는 대한재(大旱災)가 일어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포로들을 도로 붙잡아 보내 하늘이 노했다.'는 수군거림이 나타나고 있었다.

●귀환 과정의 고통

청으로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속환 또는 도망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 행운아였다.하지만 그 '행운'도 잠시일 뿐 그들의 고통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다.우선 도망이나 속환을 통해 조선으로 귀환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다.도망자들은 낮에는 산 속 등지에 숨어 있다가 주로 밤을 이용하여 이동했다.당장 이동하는 도중에 굶어 죽을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또 산 속에서 맹수를 만나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다.

어렵사리 심양부터 진강(鎭江-오늘날의 단둥 · 丹東)에 이르는 만주 지역을 통과하더라도,압록강변에 이르면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변방 관리들은 청의 힐책을 우려하여 주회인들의 도강을 허용하지 않았다.

입국이 막힌 주회인들이 강물에 뛰어들거나 목을 매어 죽는 경우가 속출했다.1642년 2월,정언(正言) 하진(河?)은 '창성(昌城)과 삭주(朔州)의 압록강 줄기 위아래에 백골이 널려 있고,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들이 없다.'며 참혹한 실상을 증언한 바 있다.

'합법적인' 속환인들의 사정도 주회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그들 또한 만주를 통과하고,압록강을 건너 서울로 오는 도중 아사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이동하는 도중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1637년 윤4월,조정에서는 미곡을 통원보(通遠堡) 서편으로 운송하여 속환인들에게

공급하자는 대책이 제시된 바 있다.또 조선에서도 속환인들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따져 적당한 곳에 진제장(賑濟場)을 세워 구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성 포로들 가운데는 귀환 도중 납치되는 경우도 있었다.그 때문에 조정은 1637년 2월,포로들이 지나는 연로와 나루터 등지에 병력을 배치하고,사족 부녀들을 잡아가는 자들을 붙잡아 효시(梟示)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하지만 아사와 납치의 위험성 등 갖은 난관을 무릅쓰고 귀향에 성공한 여성 포로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그것은 다름 아닌 '실절(失節)한 여자' 라는 비판과 매도였다.병자호란 당시 포로들의 삶은 시종일관 참혹한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환향녀의 슬픔, 안추원과 안단의 비극

사대부 집안 환향 며느리들 대부분 버림받아 '두 번 눈물'

속환이나 도망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조선으로 돌아온 여인들(還鄕女) 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사족(士族) 부녀자들은 '오랑캐에게 실절(失節)한 여자' 라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고통받아야 했다.일부 신료들은 '속환되어온 며느리에게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할 수는 없다.' 며 이혼을 허락하라고 요구했다.출가했던 딸이 환향녀가 되어 돌아온 친정 부모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갔다.이혼을 섣불리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도 있었지만,대부분의 사족 환향녀들은 본래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다.피로(被擄)로 말미암은 슬픔과 비극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 산해관의 정문 천하제일관.명나라 홍무 10년(1381년) 세워진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으로 예부터 한반도에서 만주 방면으로 나가는 육상교통로의 관문이었다.

●환향녀의 이혼 문제를 둘러싼 논란

1638년(인조 16) 3월 조정에는 상반된 내용을 담은 두 개의 호소문이 올라왔다.억울한 사연을 인조에게 호소했던 주인공은 신풍부원군(新豊府院君) 장유(張維)와 전 승지 한이겸(韓履謙)이었다.그들의 호소는 모두 환향녀의 이혼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장유는 자신의 외아들 장선징(張善徵)과 속환되어 돌아온 며느리가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절한 며느리에게 선조의 제사를 계속 맡길 수 없으니 아들이 새 장가를 들 수 있게 해달라.' 는 것이 요지였다.한이

겸의 사연은 장유의 호소 내용과는 정반대였다.그는 '자신의 딸이 속환되어 왔는데,사위가 딸을 버리고 새 장가를 들려고 하는 것이 원통하다.' 며 인조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 행정구역으로는 친황다오시에 속하는 오늘날 산해관의 성 내부 모습.

한 사람은 시아버지의 입장에서,다른 한 사람은 친정아버지의 입장에서 전혀 상반된 호소를 하고 있는 셈이다.입장이 난처해진 예조는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해야 한다고 물러섰다.

좌의정 최명길이 나섰다.그는 먼저 임진왜란 이후의 고사를 떠올렸다. '제가 고로(故老)들에게 들었는데,왜란 뒤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당시 어떤 종실(宗室)이,송환된 아내와의 이혼을 청하자 선조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또 어떤 벼슬아치가 새장가를 든 뒤,본래의 아내가 쇄환(刷還)되자 선조께서는 후취(後娶) 부인을 첩으로 삼으라고 명하시고 본처가 죽은 뒤에야 후취 여인을 비로소 정실부인으로 올렸다고 합니다.그밖에 재상이나 고관들 가운데 쇄환되어 온 처를 그대로 데리고 살면서 자손을 낳아 명문 거족이 된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예(禮)는 정(情)에서 나오는 것이니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한 가지에 구애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명길은 단호했다.이혼을 허락하면 안 된다고 했다.이혼을 허락할 경우,수많은 부녀자들이 속환을 포기하고 이역에서 원귀(寃鬼)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조, 훈신(勳臣)의 독자 장선징에게만 특별히 이혼 허락

최명길은 또한 '속환을 통해 돌아온 부녀자들 모두가 실절했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끌려간 조선 여인들 가운데 청인의 회유와 협박에도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또 청인들 중에도 그런 조선 여인들의 절조에 감명 받아 함부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례를 들었다.최명길은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몸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쓰고서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는 사실을 들어 환향녀들을 무조건 '실절한 여자' 로 매도할 수는 없다고 했던 것이다.

'인조실록' 에는 장유와 한이겸의 상반된 호소 내용에 대해 최명길 이외의 다른 대신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하지만 최명길의 주장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그것은 '인조실록' 의 사신(史臣)이 최명길의 주장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던 것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최명길을 비판했던 사평(史評)의 핵심은 이렇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포로가 된 부녀자들은,비록 본심은 아니었지만,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결국 절개를 잃은 것이다.그러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사평에 따르면 환향녀들이 포로가 되면서 죽지 않았던 것 자체가 이미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 셈이다.

사평은 다시 최명길에게 화살을 돌린다. '실절한 여자를 다시 취해 부모를 섬기고, 종사(宗祀)를 받들며,자손을 낳고 가세(家世)를 잇는다면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최명길은 백년 동안 내려온 나라의 풍속을 무너뜨리고,삼한(三韓)을 들어 오랑캐로 만든 자이니 통분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 .환향녀의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대안

을 제시하려 했던 최명길의 주장은 철저히 매도되었다.
장유 집안의 '이혼 문제' 는 이후에도 다시 논란이 되었다.1640년(인조 18) 9월에는 장유의 아내가 예조에 다시 호소문을 올렸다.이번에는 호소문 속에 '며느리의 타고난 성질이 못되어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또 편치 않은 사정이 있으니 이혼시켜 주기를 청한다.' 는 내용이 있었다.당시 장유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이번에도 대신들의 의견은 일단 신중했다. '섣불리 이혼을 허락하면,부부 사이에 뜻이 맞지 않는 일이 있을 경우에도 너도나도 이혼하겠다고 나설 것' 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인조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이혼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장선징이 훈신(勳臣)의 독자임을 고려하여 특별히 그에게만 허락한다.' 는 내용이었다.하지만 그 파장은 컸다. 대부분의 사대부 집안들은,청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며느리들을 내쳤고 새로운 며느리를 맞아들였다.사족 출신 환향녀들은 대부분 버림받고 말았다.사책(史冊)에도 이 여인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이 가엾은 희생자들의 비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끌려가던 안단 "나를 죽을 곳에 빠트린다" 울부짖어

환향녀들의 운명은 가혹했지만,포로들 가운데는 끝내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속환해 줄 가족도 없고,가족은 있어도 경제적 능력이 없고,또 도망쳐 돌아올 여건도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청에 그대로 눌러앉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속환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던 와중에도 귀향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현종대에 도망쳐 온 안추원(安秋元)과 숙종대에 도망쳐 온 안단(安端)의 사연이 주목된다.
개성 부근에 살다가 1637년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포로가 되었던 안추원은 심양으로 끌려갔다.1644년 청이 입관(入關)에 성공하자 안추원은 주인을 따라 북경으로 흘러들어 갔다.그는 1662년(현종 3) 탈출을 시도했다가 한 번 실패한 뒤 1664년 다시 시도하여 조선으로 들어왔다.산해관을 통과하고 만주를 가로지르는 대모험이었다.
조선 조정은 28년 만에 탈출한 안추원을 고향인 개성으로 보냈다.하지만 개성에는 그를 품어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조정 또한 그에게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혈혈단신의 처지에 생계마저 막막해진 안추원은 결국 북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하지만 그는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책문(柵門)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안단의 사연은 더 기막히다.병자호란 당시 포로가 되었던 그 또한 심양을 거쳐 북경으로 들어가 사역되었다.안단은 1674년(숙종 즉위년) 자신의 주인이 행방불명되자 조선으로 탈출을 시도했다.포로로 붙잡혀 끌려간 지 물경 37년 만이었다.안단은 산해관을 통과하여 봉황성(鳳凰城)을 거쳐 압록강의 중강(中江)까지 오는 데 성공했다.하지만 강을 건너게 해달라는 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의주부윤은 그를 결박하여 봉황성으로 압송했다.청의 힐문을 의식한 조처였다.입국을 거부당하고 봉황성으로 끌려가던 안단은 "고국 땅을 그리는 정이 늙을수록 더욱 간절한데 나를 죽을 곳으로 빠뜨린다." 며 울부짖었다.
안추원과 안단의 사연은 처절하다.각각 28년,37년 만에 탈출에 성공했다.둘 모두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었지만,한 사람은 고국에서 결국 적응하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끝내 압록강을 건너지도 못했다.이들의 비극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 전란의 비극에 휘말렸던 수많은 생령들의 처참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전쟁을 다시 성찰해야 할 필연성을 새삼 절감한다.

[병자호란] (32.끝) 조선을 알았던 청, 청을 몰랐던 조선

2013.01.27 23:52

조선을 알았던 청, 청을 몰랐던 조선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갔다면 전쟁 양상 달라졌을 것"

조선이 병자호란을 맞아 일방적으로 몰리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청군이 조선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강적이었다는 점이다.청군은 병력의 수,무기 체계,전략과 전술,사기 등 모든 면에서 조선군을 압도했다.그들은 교전 경험도 풍부했다.1618년 무순성(撫順城)을 점령했던 이래 수많은 공성전(攻城戰) 경험을 갖고 있었다.



▲ 복원된 남한산성의 행궁.행궁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머물던 '임시 조정' 이었다.행궁의 복원을 맞아 병자호란이라는 '아픈 역사' 에서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마음가짐도 함께 '복원' 되기를 기대한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남한산성 공성은 1631년 홍타이지가 주도했던 대릉하(大凌河) 공략전과 흡사했다.대릉하전 당시 청군은 성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하고,산해관 쪽에서 몰려오는 명 지원군의 접근을 차단했다.
남한산성을 고립시키기 위해 판교와 광주 쪽에서 삼남으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한 것과 똑같다.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성 내부의 식량이나 연료가 떨어지는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수시로 투항을 권유하는 심리전을 폈던 것도 비슷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청이 이미 조선이 사
용할 '카드' 를 간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그들은 조선 조정이
유사시 강화도로 들어갈 것이라는 점도 1627년 정묘호란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청군은 그 때문에 서울을 신속히 점령하고 인조를 사로잡는 것을 전략 목표로 삼았고,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군의 청야견벽 작전을 무시하고 서울로 치달리는 속전속결 전술을 구사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병자호란 당시

조선이 저지른 실책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드러난다.우선 오랫동안 막대한 물력을 기울여 강화도를 정비했으면서도 정작 청군의 침입이 시작되자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명백한 과오였다.만약 인조와 조정이 강화도로 들어갔다면 전쟁의 양상은 확연히 달라졌을 것이다.

우선 해로를 통해 삼남 지방과 연결됨으로써 물자 조달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또 김경징 같은 용렬한 인물에게 섬의 방어를 맡기지도 않았을 것이다.삼남 지역의 수군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청의 배후에는 엄연히 명이 있었다.청은 '뒤를 돌아보아야 할(後顧)위험' 때문에 속전속결 전술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만일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갔다면 조선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후금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그러면 설사 강화(講和)를 맺더라도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화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역사에서 가정이란 부질없는 것이다.강화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내몰린 것은 결국 인조와 조선 조정의 실책이었다.적은 나를 아는데,나는 적을 모르고 거기에 안일하기까지 했던 정황이 불러온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1623년 3월 김류가 이끄는 인조반정의 거사군이 창덕궁으로 들이닥쳤을 때 광해군의 부인 유씨는 반문했다. "지금의 거사가 종사(宗社)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대들의 영달을 위한 것인가?" 반정세력은 거사가 성공하던 당일에는 그 뜻을 잘 몰랐을 것이다.

인조반정은 분명 나름대로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 정변이었다.그 주도 세력들이 광해군 집권기에 자행된 실정과 난맥상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도 인정할 수 있다.하지만 거기까지였다.반정공신들을 비롯한 주도 세력들은 집권 이후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 '광해군대의 부정과 비리'를 소리 높여 질타했으되,자신들 또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반정 이후 영달한 공신들 가운데 최명길과 이귀 정도를 빼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능하고 문제가 많았다.나아가 공(公)과 사(私)를 제대로 분별하지 않았다.청군의 침략 소식을 제때 보고하지 않고 저항마저 포기함으로써 청군의 신속한 남하를 방조했던 김자점,강화도 검찰사라는 감투를 자기 집안의 식솔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남용했던 김류와 김경징 등의 행적은 그 상징이었다.

인조는 그럼에도 김류와 김자점 등 공신들을 끝까지 편애했다.종묘사직을 도탄에 빠뜨리고,수많은 생령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들을 처벌하려 들지 않았다.청은 달랐다.그들은 전승국임에도 병자호란이 끝나자마자 '과거청산'을 철저히 시도했다.조선의 전장에서 과오를 저지르거나 태만했던 지휘관들을 가차없이 군율로 처벌했다.

사정(私情)에 눈이 멀어 공신들을 끝까지 비호한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훗날 인조 정권과 효종 정권을 뒤엎으려는 역모를 시도했던 심기원(沈器遠)과 김자점이 모두 공신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너무 역설적이다.

1627년의 정묘호란과 1637년의 병자호란을 돌아보면 오늘이 보인다.1627년은 상대하기 버거운 청의 전면 침략을 미봉책으로 잠시 멈춰 놓았던 해였다.

이후 10년은 당연히 '외양간을 고쳐야 했던' 시간들이었다.하지만 조선은 그러지 못했다. '개돼지만도 못한 오랑캐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총론'의 목소리는 높았다.그러나 그들의 침략을 막아낼 방도에 대한 '각론'은 존재하지 않았다.그 귀결이 처참한 항복이었고 수많은 환향녀와 '안추원', '안단' 등을 만들어 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역사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고 있을까? 1997년 혹심한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10년 만에 경제가 휘청대는 상황을 다시 맞은 것을 보면 도무지 그런 것 같지 않다.

1627년과 1637년,1997년과 2008년.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한다. "역사를 두려워하고,역사 앞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추위와 굶주림 속에 절망과 슬픔을 곱씹으며 심양으로 끌려가야 했던 수많은 선인들의 고통을 추념(追念)하며 글을 마친다.

한명기 명지대 교수

■ **"지금의 경제위기도 10년 전 IMF 원인 규명 미흡했기 때문" 연재 마치는 한명기 교수의 소회**

"병자호란(1636)은 10년 앞서 일어난 정묘호란(1627) 당시 조선에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뼈아픈 결과입니다.지금의 경제난국도 10년 전 IMF 외환위기 때 책임 소재와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되풀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한명기(46) 명지대 사학과 교수가 서울신문에 매주 연재한 기획시리즈 '아픈 역사에서 배운다-병자호란 다시 읽기'가 31일자로 마침표를 찍었다.2007년 1월11일 첫 회를 시작으로 꼬박 2년간 모두 104회에 걸쳐 철저히 사료에 입각해 병자호란에 얽힌 이야기를 꼼꼼히 풀어낸 한 교수는 "비극의 역사인 병자호란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잘못을 뿌리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든 반복된다는 교훈을 새삼 되새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 한명기 명지대 교수

한 교수는 수많은 민초의 죽음과 10만명이 넘는 포로를 발생시킨 병자호란의 원인이 조선 지배층의 무능과 무책임에 있다고 지적한다.정묘호란의 굴욕을 겪고도 이들은 명·청 교체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신속히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위정자들의 이같은 안이한 태도는 병자호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인조는 청태종에게 세 번 큰절을 하는 치욕을 겪었지만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환란을 자초한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소홀히 했다.일례로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인 김류는 아들 김경징의 안일한 처신으로 강화도가 함락돼 비난이 들끓는데도 자리를 보전했다.

반면 백성들의 고통은 극심했다.청으로 끌려갔다 탈출한 포로들은 다시 청으로 끌려가 발뒤꿈치를 잘리는 혹형을 당했다.안추원과 안단은 무려 28년,37년만에 탈출에 성공했지만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했다.조선으로 되돌아온 포로 여자들(환향녀)은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다.

한 교수는 "청에 항복한 이후에도 오랑캐라고 혐오하기만 했지 왜 당해야 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위기의 원인을 찾아 철저히 반성하고,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결여됐던 것이 조선이 동아시아 3국 가운데 근대화가 가장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확실히 극복하는 DNA가 부족한 것 아닌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자호란의 전말을 학술논문이 아닌 대중적인 글로 집대성해서 풀어쓴 사례는 드물다.한 교수는 "조선왕조실록을 기본으로 병자호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철저히 사료에 근거해 글을 썼다."고 밝혔다.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광해군' 등의 저서를 쓴 한 교수는 앞으로 임진왜란에 관한 대중서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했던 조선의 운명은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때문에 현재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다시 읽는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길이라고 한 교수는 강조했다.

글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사진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왕위에 올랐다고 가통까지 이은 것은 아니다 - 예송논쟁(4)

2013.06.19 15:13

동학사에 유학자들이 모인 이유

현종에 의해 예론이 금법이 되기 한 해 전인 현종 6년(1665) 송시열과 윤선거를 비롯한 이유태.송주석 등 서인중진들은 계룡산 자락의 동학사에서 만났다. 이들이 모인 목적은 율곡 이이의 '연보'찬을 위해서였으나 송시열의 기년복 주장에 대한 남인의 공세가 그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남인들에 대한 송시열의 감정은 예전보다도 악화되어 있었다.

송시열의 1년복설을 제일 먼저 공격한 인물이 사문난적의 당사자 윤휴였으니 송시열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다. 송시열은 이 모임에서 다시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몰았고, 윤선거는 12년 전 그랬던 것 처럼 재차 윤휴를 옹호했다. 송시열을 역적으로 모는 윤선도의 상소로 서인들이 분노하는 판국에 윤선거는 윤휴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런 윤선거의 태도에 송시열은 분개했다. 하지만 윤선거는 송시열과 윤휴 두 사람 사이의 화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서로를 적이 아니라 같은 유학자, 사대부로 보는 자세가 시급하다는 생각이었다. 송시열과 윤선거는 승려들의 시중을 받으며 날이 저물도록 언성을 높여 다투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송시열은 결론을 짓자는 태도로 말했다.

"이렇게 한가로운 언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습니다. 공은 시험삼아 말한다면 주자가 옳겠습니까, 윤휴가 옳겠습니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윤선거의 말문이 막혔다. 주자와 윤휴 둘 중의 한 명을 선택하라는 말이었다. 윤휴가 옳다고 대답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자신 역시 사문난적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가슴속에 갈들이 인 윤선거는 한참 생각한 후 입을 열었다.

"흑백으로 따진다면 윤휴가 흑이고 음양으로 따진다면 윤휴가 음이겠습니다."

"공이 지금에야 비로소 깨달았군요. 이는 사문의 다행이며 붕우의 다행입니다."

송시열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럼 윤휴와 절교하시겠소?"

윤휴를 흑이고 음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송시열이 계속 다그치자 윤선거는 발끈했다.

"흑과 음이라고 말한 이상 절교하지 않겠소?"

이 대답에 송시열은 득의양양했지만 윤선거는 마음이 크게 상했다. 윤선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윤휴를 음이라고 대답한 것은 윤선거 자신이 사문난적으로 몰릴 것을 두려워 한 대답이었지 마음속에서 나온 대답은 아니었다. 얼마후 윤선거는 송시열에게 편지를 보냈다.

"황산서원에서 흑백음양설로 말한 것은 윤휴의 사소한 부분을 가리킨 말이지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윤선거는 죽음을 앞둔 현종 10년(1669) 송시열에게 남인과의 화해를 종용하는 편지를 썼으나 보내지는 않았다. 그해가 기유년이므로 이를 '기유의서'라 하는데, 이 편지는 도리어 훗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는 한 구실을 한다.

온양 행궁에서 벌어진 싸움 - 송시열의 정적들-한때의 주인이었던 이경석

현종은 재위 10년 3월 왕대비 인선왕후 장씨와 부인 명성왕후 김씨, 그리고 네 공주와 함께 온양으로 향했다. 명성왕후 김씨가 괴증을 앓고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행차였다. 어의을 비롯 대부분의 신하들이 중궁의 온양 행차를 반대했지만 현종이 이를 강행한 것이었다. 현종은 그만큼 부인을 사랑한 인자한 임금이었다.

또한 조선의 임금 중 아주 드물게 오직 한 명의 부인에게만 정을 주었던 임금이기도 하다. 그는 15년 간의 재위 기간 중에도 김육의 손녀

이자 김우명의 딸인 명성왕후 김씨만을 가까이 했고 그녀에게서 숙종을 비롯한 1남 3녀를 낳았다.

그런데 현종은 온양의 행궁으로 행차하면서 군복인 홍융의에다 궁전을 차고 깃털을 꽂고 수레를 탄 차림으로 나타났다. 중궁의 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군복 차림에 수많은 군사들을 대동하고 온궁행을 강행한 것이었다. 그는 3월 15일에 서울을 출발해 이틀 후인 17일 온양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송시열과 이경석의 싸움이 벌어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다음달 3일 영부사 이경석은 현종에게 유행병이 창궐하고 재이가 연달아 나타난다며 조속히 수레를 돌려 서울로 올라가라는 상차를 올리면서 신하들이 행궁에 문안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지난날 조정에는 급히 물러나려는 신하들이 이어지더니, 오늘날 행궁에는 달려가 문안한신하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군부가 병이 있어 궁을 떠나 멀리 초야에 있으면 사고가 있거나 늙고 병들었거나 먼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도리에 있어서 이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의 기강과 의리에 관계된 것입니다."

'현종실록'의 사관은 이 기사에 "당시에 지방에 있는 여러 신하들 중에 한 명도 행궁에 나아온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경석이 이처럼 말한 것이다" 라고 부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차에 대해 송시열이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건은 이상하게 전개되었다. '현종실록'은 이경석의 상차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이경석의 문집인 '백헌집'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혹시 옛말에 '자기가 잘난 척하는 기색이 사람을 천 리 밖에서 거절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와 근사한 것인지요. 이 점은 전하께서 깨쳐 생각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난 척하는 기색이 사람을 천 리 밖에서 거절한다'는 구절은 임금이 신하 대접을 박하게 하여 신하를 오지 못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서 임금을 은근히 꾸짖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 상차를 받고 발끈할 사람은 국왕 현종이어야 했다. 그러나 발끈하고 나선 인물은 송시열이었다.

"신이 병을 무릅쓰고 길을 떠났으나 몸이 이상하여 길가로 물러나 엎드려 조양하면서 다시 길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때마침 도성에 머물러 있는 대신의 차자를 얻어 볼 수 있었는데 논척한 바가 매우 준엄하여 비록 곧바로 신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어찌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겠습니까."

송시열은 상차의 내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적하는 것으로 단정했다. 송시열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판부사 송시열도 마침 병이 나서 현종이 부르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전의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경석의 상차가 자신을 비유해 배척하는 것으로 단정짓고 상소를 올렸다.

"신이 삼가 생각해 보니 옛날 송나라 손종신같은 이는 '오래 살고 강녕하여(수이강)' 한때의 존숭을 크게 받기는 하였지만, 의리를 알고 기강을 진작시켰다는 일컬음은 받을 수없었으니, 도리어 어떤 이는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매우 용렬하고 비루한 자가 있어서 행실이 보잘 것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으니, 뭇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며 비웃었겠습니까. 지금 신이 당한 일이 불행히도 이와 비슷합니다."

송시열이 예로 들은 송나라 손종신은 손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경석을 빗대어 비난하기 위해 끌어들이 인물이었다. 금나라의 침략을 당한 송나라는 황제 흠종이 포로로 잡혀가는 정강의변을 맞게 되는데, 이때 금나라로 잡혀갔던 송나라의 대신이 손적이었다. '오래 살고 강녕하여'란 말은 송시열이 만든 말이 아니라 '주자대전'에 나오는 표현응로서 주희가 손적이 금나라의 비위에 맞는 글을 써준 것을 비판하며 사용한 말이다. 송시열이 손적을 빗대 '오래 살고 강녕하여'란 표현을 쓴것은 이경석이 삼전도비문을 지은 데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이경석이 삼전도비문을 썼다는 비난은 서인족에서 편찬한 '현종개수실록'의 사관도 "경석이 일찌기 인조 대에 대제학으로서 명에 따라 삼전도의 비문을 지었기 대문에 시열이 소에서 언급한 것이었는데, 말이 너무 박절했으므로 논자들이 병되어 여겼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삼전도비문을 둘러싼 시비

현재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삼전도비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 년 전인 1637년(인조 15: 정축년) 병자호란 패전의 표시로 세워졌다. 그 해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의 서문을 열고 항복의 상징인 남융복 차림으로 소현세자와 대신들을 거느리고 삼전도록 내려왔다. 인조는 청 태종이 앉아 항복을 받는 자리인 수항단을 향해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궤구복, 즉 삼배구고두의 항복례를 치렀다. 청나라는 수항단 자리에 '대청황제공덕비'를 세울 것을 요청했는데, 세자와 왕자를 볼모로 보내는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항복한 조선의 처지로서는 청나라가 공덕비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해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비 축조의 감독이 청나라 사신이었던 것은 이 당시 청과 조선의 위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한 예일 뿐이다.

당시 조선의 사대부 중에 비문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는 송시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였다. 외교문서는 예

문관 대제학이 짓게 되어 있었으나 마침 대제학이 결원이었으므로 인조는 예문관 제학 이경석을 비롯해 몇몇 문장가들에게 찬술의 임무를 주었다. 이경석 외에 장유. 이경전. 조희일 등 4명이 그들이었다. 이경전은 와병중이어서 나머지 3명이 비문을 지어 바쳤는데 그중 조희일은 자신의 것이 채택되지 않도록 일부러 조잡하게 짓는 수를 부려 제외되고 이경석과 장유의 문장을 가지고 검토하게 되었다. 청나라는 장유의 글에는 잘못된 비유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이경석의 글을 지목하면서 내용이 너무 소략하니 개찬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때 이경석에게 비문의 개찬을 요구한 인물은 다름 아닌 국왕 인조였다.

"지금 나라의 존망이 이것에 달려 있다. 춘추시대 월 임금 구천이 오나라의 신하 노릇을 했지만 끝내 오나라를 멸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훗날 나라가 일어서는 것은 오직 비문으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세가 더욱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다."

인조의 간곡한 청을 뿌리칠 수 없었던 이경석은 청나라의 구미에 맞게 비문의 내용을 고쳐 지었다.

'오직 상제의 법칙만이 위엄과 덕을 함께 펴도다. 황제께서 동을 정벌하시니 그 군사 10만이로다'라는 등 청 태종을 극구 찬양하는 구절은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찬양이 이경석의 본심이 아님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이경석은 송시열 못지 않은 반청인사였다.

오래 살고 강녕하여

이경석은 효종 1년 청나라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
효종이 즉위 후 왜구 창궐을 빌미로 성지를 보수하고 무기를 정비하려 한 것과, 조서에 표류한 한인들을 명나라에 돌려보낸 것이 조약 위반이란 이유로 청 사신 6명이 한꺼번에 조선에 온 것이었다. 청나라가 국경 근처에 군사를 주둔시켜 무력 시위를 병행하면서 전쟁이 목전에 닥친 상황이었다. 효종은 크게 놀라 밤새 자지 못하고 여러 신하를 인견해 의논했는데, 당시 조야에 "장차 청나라 군사가 닥쳐오면 머리를 깎이는 욕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말이 횡행하면서 사대부 집안에서는 이삿짐을 싸는 등 인심이 흉흉했다.

이때 영의정으로 있던 이경석이 해결을 자청하며 나섰다.

"저들이 만일 무리한 일로 힐책할 경우 신이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무사하다면 신이 어찌 감히 몸 하나를 아끼겠습니까."

이에 효종이 감탄했다.

"경의 나라를 위한 정성이 간절하다 할 만하다."

이경석은 청나라 사신을 맞기 위해 청천강을 건너던 중 시 한 수를 읊었다.

한밤에 충신한 마음으로 강을 건너니
이 마음 오직 귀신만 알 뿐이로다.

청의 사문사는 영의정 이경석과 여러 중신들을 남별궁에 세워놓고 북벌계획을 사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석은 끝까지 국왕 효종의 입장을 두호하고 다른 관련자들을 감싸주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였다. 이에 청나라 사신은 이경석을 '대국을 속인 죄'로 몰아 극형에 처하려 했다. 효종이 그의 구명을 간청하며 통역 정명수를 통해 막대한 뇌물을 사신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경석은 이때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이다. 이경석은 겨우 목숨은 부지했으나 의주의 백마산성에 위리 안치되어 앞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1년을 백마산성에 갇혀 지낸 이경석은 조건부로 겨우 석방되었다. 청 황제가 내건 그의 석방 조건은, "영원히 서용하지 않는다" 였으니 청나라가 그를 얼마나 증오했는지를 알 만하다.

이런 이경석을 삼전도비문 찬술자로 손적에 비유해 비난하고 나섰으니 뜻 있는 선비들이 혀를 차는 것은 당연했다. 다투기 1년 전만 해도 송시열은 이경석을 비판하지 못했다. 훗날 윤선거의 강화도 사건을 비판할 때도 그랬듯이 송시열은 사건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자신과 사이가 틀어지면 공격하는 성향을 자주 보여 빈축을 샀던 것이다.

송시열과 다투기 1년 전인 현종 9년에 이경석은 현종에게 인신의 최고 영예인 안석과 지팡이, 즉 궤장을 하사 받았다. 선조 때 남인 명재상 이원익이 받은 이래 처음의 영광이었다. 현종은 궤장연에 풍악을 내렸고 영상 정치화 등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참여하여 축문을 지어 이를 축하했다. 이대 축문을 지은 대신 중에 송시열도 있었다. '궤장연서'가 바로 그 글이다.

"경인년(효종1년) 나라의 존망이 당장 판가름나게 되었는데, 이해에 밝은 자들은 팔짱을 끼고 물러서서 월나라 사람이 진나라 사람의 말라 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공만이 홀로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며, 도용하지 않아 나라가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임금의 대우가 더욱 융숭하고 선비들의 마음도 따랐으며, 하늘의 도움을 받아 '오래 살고 강년하여' 끝내 성상의 은혜와 예를 입었으니 어

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궤장연에 참석한 그 누구도 송시열의 '궤상연서']가 이경석의 삼전도비문 찬술을 은근히 비난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이경석을 비난하는 상소에 잉 구절이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송시열이 '오래 살고 강녕하여'란 말로 이경석을 송나라 손적에 풍자했음을 이때야 비로소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송시열의 이경석 비판은 어느 측면으로 보아도 그의 실수였다. '현종실록' 사관의 말처럼 이경석은 송시열이 아니라 "이상진 등 몇몇 사람 때문에 차자를 올린 것" 인데 송시열은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크게 노해 이경석을 즉각 비난한 것이었다. 이는 송시열 특유의 결벽증이겠지만 그가 한미한 산림 처사였을때 여러 차례 이경석을 찾은 전력 때문에 더욱 비난을 받았다. 선조 28년 (1595)생으로서 선조 40년 (1607) 생인 송시열보다 열두 살 많았던 이경석은 송시열을 조정에 나오도록 여러 차례 이끌어준 장본인임이 잘 알려져 있었으므로 송시열의 비난 상소는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송시열과 송준길, 즉 양송은 한미하던 시절 이경석을 주인으로 삼아 서울에 오면 베옷과 짚신을 신은 초라한 차림으로 그의 집을 찾았다. 이때 이경석은 한 나라의 정권을 장악한 신분임에도 일개 산림처사에 불과한 이들에게 자신을 낮추어 선비를 속으로는 송시열의 처사가 지나침을 불평하면서도 그의 위세에 눌려 감히 겉으로 드러내고 말하지는 못했다.

송시열이 자신을 공격하는 차자를 올린 뒤에도 이경석은 송시열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차자를 올려 자신의 처지를 해명하면서 송시열에게 배척당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청했다.

"신이 망령되어 올린 차자를 송 판부사는 자신을 지목한 것으로 오인한 것 같습니다. 차자 중에 '지난날 조정에는 급히 물러나려는 신하들이 이어지더니, 오늘날 행궁에는 달려가 문안한 신하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한 구절이 어찌 송 판부사를 지목한 것이겠습니까, 신의 마음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심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경석이 원래의 차자가 송시열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오자 송시열의 처지는 더욱 궁색해졌다. 공공연하게 말은 못해도 송시열이 지나쳤다는 비난이 일었다. 송시열은 물론 이런 비난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판서 송규렴에게 편지를 보내 이경석과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공박했다.

"오늘날 나의 상소를 보고 이경석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를 꾸짖고 분하게 여겨 배척하지만, 그 사람이야 시골에서 군자 소리 듣는 위선자(향원)의 심리로 청인의 세력을 끼고 일생을 행세합니다. 만약 경인년(이경석이 백마산성에 갇힌 해)의 일이 아니면 개도 그의 똥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송시열을 비난하는 박세당

그러나 이경석은 송시열의 이런 비난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 이런 대응이 결과적으로 사대부들 사이에 이경석의 품위만 더욱 높여 준 것이 사실이다. 이경석이 무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사건은 수그러들었지만 약30여 년 후인 숙종 29년(1703) 논쟁은 재연된다. 이경석은 이 사건 2년 후인 현종 12년(1671) 사망했는데 후에 소론인 서계 박세당이 이경석의 신도비문을 지으면서 이경석의 생애를 극찬하고 송시열을 비난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때는 송시열도 숙종 15년(1689) 이미 사망한 후였으므로 송시열을 따르는 노론과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경석 신도비문은 '색경'의 저자 박세당의 마지막 저술이기도 했다. 마음먹고 쓴 글이었으므로 박세당의 송시열 비판은 강력했다. 박세당은 이경석을 '노성인', 송시열을 '상서롭지 못한 인간(불상인)'으로 비유했다. 박세당은 이경석의 삼전도비문 찬술을 인조의 간곡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옹호하면서, 그럼에도 이경석은 사촌형 이경직에게 편지를 보내 '글을 배운 것이 후회스럽다'고 자괴했음을 부기하기도 했다.

박세당은 나아가 이경석을 '봉황', 송시열을 '올빼미'에 비유하여 풍자하기도 했다. 이경석 신도비문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자 송시열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노론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섰다. 노론은 신도비문 자체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세당의 유배를 청했다.

김상헌의 손자이자 노론인 김창흡은 이경석을 이렇게 비난했다.

"그의 기개와 절개가 못난 것으로 따지면 삼전도비문에서는 청인들을 극력 칭찬하였으며, 그의 의견이 허술한 것으로 따지면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의 부묘(남편의 묘 옆에 무덤을 쓰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성균관 관학 유생 180여 명은 김창흡의 논리를 그대로 따 박세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세당은 위로 주자를 능멸하고, 아래로 송시열을 욕하였으며 주자를 부족한 곳에 두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고자 했으니 이 어찌 유학의 변괴와 오도의 난적이 아니겠습니까."

박세당이 '사변록'에서 주희의 '사서집주'를 비판하고 새로운 해석을 가했다는 빌미로 사문난적으로 모는 것이다. 비록 사문난적으로 몰린 것이 직접적 계기는 아니지만 이미 25년 전쯤인 숙종6년(1680)에 윤휴가 사형당한 전례가 있으므로 사문난적으로 몰리면 일단 위험한 일이었

다. 게다가 '사변록'은 아직 간행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사변'에 지나지 않는 글이었다. 노론 예조판서 김진구, 부제학 정호 등은 이경석 비문과 '사변록'을 말살시켜야 한다고 주청하여 [사변록]을 수거해 말살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세당의 삭탈관직과 유배를 청하여 그를 전라도 옥과현에 유배 보내라는 명령을 받아냈다. 현종 초년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진출한 박세당은 이조판서를 역임하는 등 역량을 인정받았으나 송시열 등 노론의 배척을 받자 관직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학문에만 몰두한 인물이었다.

이런 인물이 송시열을 비판한 비문 하나로 유배에 처해지게 됐는데, 박세당의 문인들이 극력 구원에 나서 유배만은 겨우 면할 수 있었다. 삭탈관직되어 집으로 돌아온 박세당은 다음해인 1704년 8월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경석 신도비문과 '사변록'은 수장되고 불에 태워지는 등 박세당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다. 박세당 같은 전직 고위관료이자 유명 학자가 송시열을 비판한 몇 글자 때문에 비참한 처지에 처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대부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노론의 반대당 소론은 분개하였다. 이경석의 손자인 임파현령 이하성이 논쟁에 가세했다. 그는 이경석의 산전도비문 찬술을 이렇게 변호했다.

"임금의 욕됨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한 몸을 돌아볼 수 없다 하여 꾹 참고 비문을 지으라는 명을 받들었습니다." 또한 송시열이 여러 번 이경석의 은혜를 입었음을 밝혔다.

"신의 조부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 산림에 숨어 있는 어진 선비를 등용하는 데 힘썼습니다. 송시열은 이때 전 참봉으로서 학문과 행실로 이름이 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추천하여 좋은 벼슬을 시켰으며, 그 후에도 글을 올리거나 경연에 나오면 항상 임금에게 송시열을 불러 예로써 대우하시라고 아뢰었습니다. 효종대왕께서 왕위를 이으시고 신의 조부가 영상이 되었을 때에도 송시열과 당시의 명사들을 등용하여 새 정치를 여는 데 돕게 하였으며, 송시열 역시 신의 조부를 주인으로 섬겨 서울에 들어오면 예고도 없이 베옷과 짚신 차림으로 찾았는데, 신의 조부는 대등하게 대우하여 선비에게 자신을 낮추는 예를 다하였습니다."

이하성이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송시열이 이경석에게 여러 번 은혜를 입었음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 심지어 송준길마저도 송시열의 이경석 비판 소식을 듣고 섭섭한 기색을 나타냈을 정도였다. 이하성은 송시열의 처신이 앞뒤가 다르다며 비판했다.

"송시열이 신의 조부가 삼전도비문을 지었을 당시부터 비평과 논란을 같이 하고 서로 사귀지 않았다면 신의 조부를 비난한 것이 바른 의견은 아닐지라도 산림처사로서 고결한 의논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송시열은 신의 조부가 삼전도비문을 지은 수 년 후에 천거를 하자 서로 사모하고 좋아했습니다. 송시열이 베옷 입은 선비의 차림으로 대신의 집을 찾은 것은 도를 즐겨하여 선배를 스스로 따른 것이 아닙니까? 이때 시열이 신의 조부에 대하여 높여서 예우하고 칭찬하는 말이 자자했는데 이는 그의 마음이 심중에서 따랐던 것이 아닙니까?"

이하성은 송시열이 큰 인물로 성장한 다음에 이경석을 배척했다고 비난했다.

"송시열의 명망과 지위가 신의 조부와 같게 되고 기세가 성해지자 서로 논란할 때 감정이 생기고, 알력하는 데서 틈이 일어나 점점 의심하고 갈리게 되었으며, 투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성은 송시열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 춘추대의는 원래 송시열이 자처한 것입니다. 춘추대의의 중한 점은 오랑캐를 물리치는 데 있으므로 대의를 붙들고 대의 아닌 것을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경인년의 변(이경석이 백마산성에 갇힌 일) 때 이만이 청인의 위협에 겁내어 임금을 잊어버렸으니 왕법으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인이 그가 정직하다고 칭찬하면서 그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열이 신의 조부와 대립하려고 다시 이만의 벼슬길을 열어주고 좌우로 주선하여 주었습니다. 이만이 정직하다는 청인들의 말을 시열이 받들어 따른 것이 이처럼 지극하였으니 춘추대의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만은 효종 즉위 초 경상감사로서 왜의 정세가 의심스럽다는 장계를 올렸다. 그런데 조선은 이 보고를 빌미로 성지와 무기 수선을 청했다. 청나라가 이를 북벌의 증거로 삼아 사신을 파견하여 조사하자, 이만은 표류한 한인들을 명나라로 돌려보낸 사실을 조정의 책임으로 돌려 청 사신에게 정직하다는 칭찬을 받은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이만은 청 사신이 돌아간 후 조정으로부터 추고를 받았던 인물인데 이하성은 이런 이만을 추천한 인물이 송시열임을 비꼼으로써 송시열의 춘추대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비꼬았던 것이다.

"아! 전에 시열과 좋아하다가 끝까지 잘 보전한 이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오늘날 사대부 중에서도 그에게 욕을 먹지 않은 이가 드물지만 다만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하성은 송시열이 효종의 능비인 영릉 비문을 지으며 굳이 온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북벌의 일을 적어 화를 초래했다고 비난하는 등 송시열의 여러 일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송시열의 문인들과 노론 당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송시열의 수제자인 찬선 권상하와 부제학 정호 등은 물론 노론 생원 윤양래 등 94명의 태학생들은 송시열을 옹호하는 상소를 오리고, 소론 나량좌는 박세당을 옹호하는 나서 또다시 조정 공론이 둘러 갈라졌다.

영의정을 역임한 소론 남구만은 사건이 발생한 7~8년 뒤인 숙종37년(1711) 이경석을 지지하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이경석의 처지로서 삼전도비문을 지은 것이 불가한 일은 아니다. 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장유만큼은 아니다. 그런데 송시열이 장유는 극히 칭찬하면서 이경석은 끝내 용서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심 때문이다."

남구만은 박세당의 '사변록'을 둘러싼 시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변록'은 상자 속에 넣어둔 초고에 불과한 것으로서 박세당이 죄를 얻은 근원은 아니다. 그의 옳고 그름은 이경석 신도비문으로 한정해야 할 뿐, '사변록'은 공중을 나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대저 그를 죄 주려는 까닭은 신도비문에 있으면서 엉뚱한 '사변록'을 들고나오니, 이야말로 '뜻은 동쪽에 있으면서 말은 서쪽에 있다'는 것이다. '사변록'시비는 원래 한번 웃고 말 정도이니 어찌 여러 말로 변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며느리 장사 때 시어머니의 상복은?

1674년(현종 15)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왕후 장씨가 세상을 떠났다. 만 56세의 나이였으나 당시 만 50세의 자의대비 조씨가 아직도 살아 있었던 것이 제2차 예송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5년 전의 제1차 예송논쟁이 아들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의대비 조씨의 상복기간을 둘러싼 논란이었다면 제2차 예송논쟁은 며느리 인선왕후가 죽었을 대 역시 자의대비의 상복기간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이는 15년 전에 벌어졌던 제1차 예송논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문제였다.

즉 효종을 큰아들로 보면 인선왕후도 큰며느리이므로 기년복을 입어야 하지만 효종을 둘째 아들로 보면 둘째 며느리이므로 대공복(9개월복)을 입어야 했던 것이다. 처음 예조에서 1년복으로 결정했던 것이 문제를 더욱 불거지게 했다. 예조판서 조형과 참판 김익경은 자의대비의 복제를 1년으로 의정한 다음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신 등이 어제 상복에 관한 절목 중에서 대와대비의 복제를 1년으로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가례복도'와 명나라 제도를 보니 큰며느리의 상복은 기년이고, 그외 며느리의 복은 대공(9개월)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효종대왕 국상 때 대왕대비께서 이미 중자의 상복인 기년복을 입으셨으니 지금의 복제는 9개월이 맞는데 경황이 없어 경솔하게 1년으로 아뢰었으니 황공합니다."

예조는 대공으로 절목을 고쳐 바쳤다.

현종이 대답했다.

"알았다. 성복 때에도 이런 잘못이 있을지 염려되니 담당자인 예조정랑을 잡아다가 죄를 정하라."

일견 사소해 보이는 이 사건이 현종의 명령으로 금지되었던 예송 논쟁을 되살리며 급기야 정권이 뒤바뀌는 미증유의 사태로 발전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자의대비의 복제는 대공으로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인선왕후 사후 5개월 만인 그해 7월 대구 유생 도신징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논쟁이 재연되었다.

"신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충정 때문에 어리석고 미천한 신분을 헤아려 보지도 않은 채 천리길을 달려와 엄한 질책을 받게 되더라도 신의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이 넘어 근력이 쇠약한 데다 불꽃 같은 더위를 무릅쓰고 오다가 중도에서 병이나 지체하는 바람에 집에서 떠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간신히 도성으로 들어와 보니, 말씀드릴 기회는 벌써 지나 이미 발인한 뒤였습니다. ...대왕대비께서 인선왕후를 위해 입는 복에 대해 처음에는 기년복으로 정하였다가 나중에 대공복으로 고쳤는데 이는 어떤 전례를 따라 한 것입니까? 대체로 큰아들이나 큰며느리를 위해 입는 복은 모두 기년복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국조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해년(효종 사망해) 국상 때에 대왕대비께서 입은 기년복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국조 전례에 따라 거행한다'고 해 놓고, 오늘날 정한 대공복은 또 국조 전례에 벗어났으니, 왜 이렇게 전후가 다르단 말입니까."

일개 유생인 도신징이 이미 시행중인 대왕대비의 복제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었다. 효종의 국상 때 〈체이부정〉의 위험성 때문에 장자나 중자 모두 1년복으로 되어 있는 경국대전을 인용해 1년복으로 정한 편법을 공격한 것이다. 그때는 효종을 장자로 대우해 자의대비가 1년복을 입은 것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왜 효종비를 차자부로 대우해 9개월복을 입느냐는 반론이 도신징 상소의 핵심이었다. 그의 주장은 서인의 이론적 모순을 지적한 것이었고 이 점이 의문스럽기는 현종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송이 다시 살아났던 것이다.

현종도 이제 서른네 살의 장년이었고 그동안 예론에 대해서도 연구를 계속해 스스로의 의견을 지니게 되었다. 현종의 생각에 자의대비의 복제를 1년복으로 정했다가 다시 9개월복으로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이는 서인들이 모후를 차자부로 여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는 나아가 15년 전에도 서인들이 부왕 효종의 종통을 부인한 것인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

바로 이런 논리적 약점 때문에 당초 서인들이 장악한 승정원이 도신징의 이 상소를 봉입하지 않으려 했다. 그만큼 이 상소가 지닌 폭발성

을 우려했던 것이다.

"신이 대궐문 앞에서 이마를 조아린 지 반 달이 지났는데도 시종 기각을 당하기만 하였으니, 국가의 언로가 막혔으며 백성의 목숨이 장차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이 말하려 하는 것은 오늘날 복을 낮추어 입은 잘못에 대한 것일 뿐인데, 정원이 금령을 어기고 예를 논한다는 말로 억압하면서 받아주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아, 기해년의 기년복에 대해서는 경상도 선비들이 올린 소로 인해 이미 교서를 반포하고 금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공복에 대해서는 금령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레 막아버리니 승정원의 의도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어찌 앞뒤가 서로 틀린가

이 상소를 본 현종은 좌부승지 김석주를 불렀다. 김석주는 현종의 장인 김우명의 조카였으니 현종과는 외사촌 관계였다. 김석주는 대동법 논쟁 때 송시열과 치열하게 싸운 김육의 손자였다. 김육의 청풍 김씨와 송시열의 은진 송씨는 대동법 논쟁뿐만 아니라 김육의 묘지에 수도를 쓴 문제로 다시 논쟁이 벌어져 사이가 크게 벌어져 있었다.

김육의 두 아들인 김우명과 김좌명은 부친의 묘지에 수도를 썼는데, 수도는 석실을 만들거나 산허리를 잘라 길을 내는 것으로 왕실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형식이었다. 이를 송시열이 공격하고 나섬으로써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는 대동법 논쟁 때 한당과 산당으로 갈라졌던 두 세력을 더욱 멀어지게 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김석주는 서인이면서도 남인과 가깝게 지냈다. 정확히 말하면 남인보다는 현종의 비인 명성왕후 김씨가 사촌이었으므로 왕실과 가깝게 지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김석주는 현종에게 허목의 상소와 유세철, 1,400여 명의 연명 상소, 그리고 〈의례주소〉의 〈참최장〉등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정리해 보고하는데, 이는 모두 남인들의 주장이었으므로 사실상 제1차 예송 때 3년설이 맞다는 보고나 마찬가지였다. 현종의 입장에서는 3년설의 지지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왕조국가에서 왕통의 계승은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치이자 질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종은 도신징의 상소와 김석주의 보고를 검토했다. 현종은 이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후 대신들을 불러 물었다.

"대왕대비의 복제를 기년복에서 갑자기 대공복으로 바꾼 데는 무슨 곡절이 있는가?"

"기해년에 이미 기년복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다 기억은 못하지만 〈고례〉(주례등 중국 고대의 예법)가 아닌 〈국제〉를 써서 1년복으로 정했다고 기억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대공복도 또한 〈국제〉에 따라 정한 것인가?"

김수홍이 대답했다.

"그때 송시열의 의견은 '〈고례〉는 마땅히 이렇지만 당시는 〈국제〉를 써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종은 김수홍의 대답이 지닌 모순을 놓치지 않았다. 고례의 기년복은 장자가 아니라 중자의 복이었다. 반면 '국제'는 장자와 중자의 구분없이 기년복으로 되어 있었다. 제1차 예송논쟁 때 〈고례〉를 사용한 것이라면 기년복은 장자가 아닌 차자, 즉 중자의 복이 되는 것이다.

"기해년에 항상 정태화가 '마땅히 〈국제〉를 써야 한다.'고 하여 판중추부사 송시열과 의논해 기년복으로 결정했었다. 이번 국상에 〈고례〉를 쓰면 대왕대비의 복제는 무엇이 되겠는가?"

답변이 궁색해진 김수홍이 겨우 대답했다.

"〈고례〉로 하면 대공복입니다."

"기해년에는 〈국제〉를 쓰고 지금은 〈고례〉를 쓰니 어찌 앞뒤가 서로 틀린가?"

"기해년에도 고금의 예법을 참고했고 지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때는 〈국제〉를 썼는데 그 뒤 문제가 되어 다툰 것은 〈고례〉대로 하자는 것이었다."

현종은 김석주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이미 15년 전의 기억을 살리고 있었다. 민유중이 나섰다.

"기해년에는 고례와 국제를 참고해 인용했습니다."

현종이 다시 물었다.

"이번 복제를 국제대로 하면 어떤 복이 되겠는가?"

김수홍이 대답했다.

"국제에 장자부의 복은 기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종의 추궁이 점점 날카로와졌다.

"그렇다면 오늘의 복제가 〈국제〉와는 어떤 관계에 있단 말인가? 이 점은 놀랄 만한 일이다. 기해년의 복제는 〈국제〉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민유중이 대답했다.

"〈국제〉가 우연히 그러했습니다. 기해년에 대신들이 의논할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행한 것은 〈고례〉였을 뿐입니다."

민유중의 대답은 자기 모순이었다. 기해년에는 〈국제〉라면서 기년복으로 정한 것이었다. 현종이 이 모순을 놓칠 리가 없었다. "기해년에 조정에서 결정한 것은 〈국제〉를 좇은 것이다."

김수홍도 모순된 의견에 가세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례〉로 결정했으므로 다투는 사람이 저렇게 많았습니다."

현종은 김수홍의 이 말을 놓치지 않았다.

"〈고례〉대로 한다면 장자의 복은 어떠한가?"

김수홍은 아차 싶었으나 이왕 내친걸음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

"참최 3년복입니다."

이 대답은 제1차 예송논쟁 때 서인들이 겉으로는 〈국제〉대로 장자의 기년복으로 했다면서 실상은 〈고례〉에 따라 차자의 기년복으로 정했다는 자인에 다름 아니었다.

현종은 비로소 도신징의 상소를 김수흥에게 내보였다. 도신징이 상소를 올린 지 13일 만이었다. 현종은 말했다.

"나는 기해년(제1차 예송논쟁)의 복제는 〈국제〉를 쓴 것으로 안다. 지금 논란이 있으니 금번의 복제가 기해년 복제와 어떻게 닮았고 다른지를 의논하되 원임대신은 물론 육경(6판서).삼사 장관을 모두 불러 의논해 보고하라."

서인들은 미로에 빠진 격이었다. 현종이 원하는 대답은 '〈국제〉에 따르면 기년복'이라는 것이었다. 이 경우 과거 3년복이 아닌 1년복을 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남인의 공세가 따르겠지만 집권당이므로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인들은 결코 이 길을 택하지 않았다. 영의정 김수흥.판중추 김수항.이조판서 홍처량.병조판사 김만기.호조판서 민유중 등이 의논한 후 올린 계사는 분명하지 않았다.

"기해년 복제를 정할 때의 대신들이 전후 순서를 실록에서 상고해보니 정희왕후(세조의 비)는 덕종과 예종에게 모두 기년복을 입었으나 문정왕후(중종의 비)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국제〉에는 장자와 중자를 구분하지 않고 '기년복'으로 되어 있으며 기해년에 처음 복제를 의논할 때도 장자와 중자를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3년복이란 반론이 나오면서 논의가 분분해졌으나 여러 번 회의한 끝에 〈국제〉에 따라 기년복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장자와 중자를 구별해 장자에게는 참최복을 입고 중자에게는 기년복을 입는 것은 중국의 〈고례〉요, 장자와 중자를 구별 않고 모두 기년복을 입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입니다. 기해년에 처음부터 〈국제〉를 쓰기로 했는데 후에 〈고례〉를 주장하는 신하들이 있었지만 역시 〈국제〉대로 기년복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서인 대신들의 결정은 15년 전의 기년복은 〈국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의대비가 무슨 근거로 대공복을 입어야 하는지였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다. 15년 전처럼 〈국제〉를 인용했다면 이는 둘째 며느리의 복이었다. 〈고례〉를 인용했다면 기해년에는 〈국제〉를 인용했는데 지금은 왜 〈고례〉를 인용하느냐는 물음이 뒤따를 것이다. 서인 대신들은 곤혹스러웠다.

급서하는 현종

현종은 서인들이 의정한 대공복을 기년복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집권당 서인에게는 국왕의 명령보다 당론이 더 중요했다. 현종은 서인들이 임금이 아니라 자기 당의 영수인 송시열을 더 따르는 정당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들이 반격하기 전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 예론의 주무 부서인 예조의 판서, 참판, 참의, 정랑 모두를 하옥했으며, 9개월설을 주장한 영의정 김수흥을 춘천에 부처하였다. 신중한 성품의 현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였으나, 그렇다고 물러날 서인들은 아니었다. 근 50여 년 이상을 집권한 정당이었던 것이다. 즉각 서인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서인 승지 이단석과 교리 조근이 입대를 청하자 그 이유를 짐작한 현종이 꾸짖었다.

"내 심기가 매우 불편한데 대면을 청한 것은 무슨 일 때문이가. 대신을 위해서가 아닌가. 군신의 의리가 매우 엄한데 너희들은 이 점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인가."

국왕의 손발이 되어야 할 승정원의 승지와 홍문관 교리가 국왕이 아닌 자당을 위해 국왕을 압박하는 지경이었다. 현종이 입대를 거부하는데도 이들은 물러서지 않고 차자를 올려 노론 영수 김수흥을 구하면서 현종을 비난했다.

"장자와 중자에 관한 의논은 오늘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 또 이 말이 옳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으시면 그만인데 이로써 대신을 귀양 보내

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좌해야 할 승지와 교리가 임금보다 당론을 좇는 현상에 현종은 분노했다.

"차자의 말은 내가 매우 놀랍게 여긴다. 기해년에 갑과 을이 다투어 변론할 때 조정에서 〈국제〉를 사용하였으나 장자와 중자의 구별이 없으므로 그렇게 처리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해년에 갑과 을이 변론한 것들을 주워 모아 대왕대비의 복제를 강등하려고 꾀하였다."

그래도 서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승지와 교리의 차자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에는 양사(사헌부.사간원)가 나서 현종을 압박했다. 장령 이광적과 지평 유지발이 예조에 대한 심문과 김수흥의 중도부처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현종은 더욱 분노했다.

"너희들의 계사에 내가 심히 놀랐다. 양사의 대간은 마땅히 엄한 말로 예론을 그릇 이끈 자들을 죄 주기를 청해야 하는데도 도리어 죄인을 구하려고 하는구나. 지금의 양사는 직책을 다하지 못한 자들인데 어찌 낯 들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겠느냐. 이들을 함께 삭직해서 내쫓으라."

현종이 이처럼 강력히 나가는데도 서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에는 좌의정 정지화가 직접 나서 김수홍을 옹호했다. 지금껏 배후에서 젊은 서인들을 움직이다가 현종이 듣지 않자 중진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현종이 정지화의 청도 거부하자 판중추 민유중, 좌참찬 이상진, 김만기 등 서인 중진들이 줄줄이 나서 김수흥을 옹호했다. '임금에게 박하고 어느 누구에게 후하게 한단 말인가'란 현종의 힐난이 이유 있는 비난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 와중에 서인 대사간 남이성이 현종에게 직접 도전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예론에 있어 을의 설(1년설)을 주장하는 자가 모두 나라에 충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갑의 설(9개월설)을 주장하는 자가 모두 임금에게 박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전하께서 노여움을 잊고 용서하신다면 지금 대신들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남이성은 '사종지설'을 인용하며 자의대비는 대공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종과 인선왕후의 적통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조정을 장악한 서인들이 모두 당론에 따르면서 현종은 고립되었다. 왕권에 도전한 대신들을 탄핵해야 할 대간의 장관이 대신들을 편들고 국왕에게 대드는 판이었다.

현종이나 서인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선왕의 적통을 부인하는 세력들에게 국왕이 양보할 수는 없었다. 그럴 경우 현종 자신은 물론 이제 겨우 열다섯 살밖에 안되는 어린 세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랐다. 자신을 내쫓고 소현세자의 아들을 세울수도 있는 일이었다. 현종은 대사간 남이성의 맹점을 공박했다.

"갑과 을의 설이 절충되지 못했을 때에는 그 후한 의논(1년복)을 좇는 것이 옳겠는가? 박한 의논(대공복)을 좇는 것이 옳겠는가? 감히 박한 의논을 좇아 대신에게 아부하였으니 이는 임금이 없는 자의 말이다. 멀리 절도로 귀양보내라."

현종이 남이성을 진도로 귀양보내자 삼사는 일제히 들고일어나 남이성을 옹호했다. 15년 전 윤선도가 "나라의 권력이 신하(송시열)에게 있고 위의 임금에게 있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현실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또한 서인들을 데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다.

현종은 정권을 갈아치우기로 했다. 현종이 향리인 충주에 있던 남인 허적을 영의정으로 삼은 것은 집권당을 교체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다. 남인을 영상으로 삼은 이 조치에 서인들은 놀랐다. 다른 자리도 아닌 영의정 자리를 남인이 차지한 것이었다. 국왕 현종이 서인들에게 반감을 갖고있는 터에 정권마저 남인에게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랐다. '체이부정'이 역모의 논리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 서인들의 공포에 휩싸인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때 이변이 발생했다. 서인을 내쫓고 남인을 등용하던 현종이 갑자기 급서한 것이다. 제2차 예송논쟁 와중인 재위 15년 8월 18일이었다. 현종의 처음 병명은 복통에 불과했으나 점점 심해져 8월 10일 이후에는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현종은 조금만 기운을 차리면 영상 허적이 언제 충주에서 오는지를 물을 정도로 정권교체에 집요한 관심을 보였다. 드디어 8월 16일 허적이 서울에 올라오자 현종은 거의 혼수상태에서도 관복을 갖추고 만나는 예의를 갖추었다. 그때가 8월 17일로서 부왕 효종처럼 못다한 일을 남기고 승하하기 하루 전이었다.

허적이 증세가 좀 덜하시냐고 묻자 현종은 덜한 것 같지 않다고 답한다. 그날 약방에서 시약청을 개설하자고 청하니 현종은 약방이 가까운 곳으로 옮겨왔으니 시약청까지 개설할 필요는 없다며 거절하다가 재차 아뢰자 허락했다. 허적은 약방 도제조를 겸하게 되자마자 승전색을 시켜 왕비에게 병상을 지키는 사람들을 갈아 치울 것을 권한다.

"상의 병세가 저런데도 곁에서 모시는 자가 환관들뿐이어서 증세의 경중도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청풍부원군 김우명, 예조판서 장선징, 청평위 심익현이 오늘부터 좌우에서 모시게 하소서."

현종의 장인 김우명과 매제 심익현, 그리고 남인 장선징으로 하여금 병실을 지키게 하자는 요청이었다. 허적은 분명 현종의 급작스런 와병에 인위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는지를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현종은 혼수상태에 빠졌고 끝내 세상을 떴다. 재위 15년 34세의 한창 나이였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2013.01.27 19:30

1. 전쟁의 배경

577년 북주에서 양견이라는 인물이 나와 북중국을 중심으로 581년 수왕조를 개창하였다. 수는 이 여세를 몰아 10년도 안된 589년에는 남조의 진(陳)마저 병합하여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수는 외형적인 천하통일을 달성시킨 후 그 이름에 걸맞는 내면적이고도 실제적인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수 문제는 이를 위하여 노력한 인물로 후대에 이를 평하여 '개황의 치'라 부르고 있다. 당시 북방에서 돌궐의 힘이 강해지자 수는 이간책을 써서 돌궐을 분리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서돌궐은 서역지역으로 물러나고 동돌궐은 수나라의 보호하에 수의 척후역할을 하고 있었다. 중국 통일왕조의 출현으로 고구려의 관심은 한반도의 한강 유역에서 만주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고구려는 581년부터 4년동안 해마다 사신을 파견하였고, 585년에는 남조의 진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수의 등장에 따른 정보수집 및 국제관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듬해인 586년에는 수도를 환도에서 장안성(長安城 : 평양)으로 옮겼다. 589년 수가 진을 멸망시키자 수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사를 정비하고 곡물을 비축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무기제조 기술자를 비밀리에 매수하여 병기를 수리하고, 수문제가 파견한 사신을 가두어 정보누설을 막았다. 또한 자주 국경지대에 기병을 파견하여 중국 변방인을 살해하며 불안의식을 높였으며 사신을 파견하여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였다.

고구려와 수와의 쟁패는 '요동확보'의 문제였다. 요동은 철 생산지로서 무기와 생산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위치였으며, 북과 서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제압하는데 용이한 군사적 이점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598년 영양왕은 강이식 장군을 고구려 병마도원수로 삼아 정병 5만의 병력을 이끌고 임유관(산해관)으로 향하게 하고, 먼저 말갈병 1만으로 요서를 침공해 들어갔다가, 수의 영주 총관 위충의 반격을 받고 일단 후퇴하였다. 고구려의 선제공격을 받고 크게 노한 수 문제는 동년 2월에 그의 넷째 아들인 한왕 양량을 원수로 임명하여 수륙 30만명으로 고구려를 정벌토록 하였다. 6월에 출발한 수나라 육군은 임유관을 나와 고구려로 진군하던 도중 요수에서 때마침 장마와 홍수를 만나게 되었다. 수나라 해군은 주라후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산동반도의 동래로부터 평양으로 쳐들어가는 것같이 보이게 하였지만 실은 군량보급선을 이끌고 요수에 이르러 임유관으로 나오는 육군에게 군량을 보급하기 위한 수송작전이었다.

이와 같은 수의 계략을 미리 간파한 강이식 장군은 수군을 이끌고 해상으로 진출하여 수의 군량보급선을 급

습, 이를 격파함으로써 수의 병참선을 절단시키고, 휘하 전군에게 군령을 내려 성벽을 굳게 지키고 수나라 군에게 대응치 않도록 하였다. 수나라 군은 군량이 다 떨어지고 때마침 장마를 맞아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군사가 속출하자 9월에는 군사를 거두어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구려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수군을 수륙에서 추격하여 수군을 무찌르고 많은 군사장비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이 때 죽은 군사가 10중 8, 9였다고 한다.

수의 고구려 원정의 기본전략은 전통적인 방법의 답습이었다. 첫째,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최종목표를 완전 포위공격한다. 강력한 군세에 압도된 적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항복하게 될 것이며, 불응하면 강공하여 이를 점령하고 나아가 전원 포로로 하여 중국 내지에 사민시킨다. 둘째, 수륙합동작전을 최우선의 작전으로 한다. 고구려의 원정로는 3천여 리 이상이었으므로 군량의 보급이 큰 애로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구려의 성을 함락시켜 비축미를 노획하거나 후방에서 육로나 해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해군의 활동은 군량미의 수송작전에 이용하였다. 또한 상대국이 전선에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수도의 방비력이 소홀해진 틈에 최종목표를 공격하는데 있었다. 셋째, 속전속결을 원칙으로 한다. 양국의 주 전투지역은 요동지방으로 음력 6, 7월 사이가 우기이고, 또 8, 9월부터 다음해 2, 3월 까지는 동계시기였다. 장마와 대설이 작전과 수송 모두에 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작전은 동계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기 이전의 2, 3개월의 짧은 시간에만 가능하였다.

고구려는 견고하게 축성된 성을 거점으로 유사시에는 식량과 적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성안으로 가져가 수비하는 견벽청야(堅壁淸野) 전술을 수행하였다. 요하,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의 하천과 횡격실의 고지군은 방어에 유리한 점을 고구려에 제공해 주었으며 이 천연적인 방어벽과 인공적인 산성을 상호 연결하여 방어선을 설정하고 있었다.

400여년 만에 중국에 나타난 통일 왕조. 이것은 그동안 고구려를 중심으로 했던 동아시아의 질서에 새로운 위협을 의미했다. 새롭게 세력을 키우려 하는 수나라와 전통의 강국 고구려. 두 나라 간에 긴장감이 높아갈 무렵, 수나라로부터 한 장의 국서가 날아들었다.

"넓은 하늘 밑은 다 짐의 신하가 되는 것이니, 이제 고구려왕을 내쫓고 관리를 보내 다스리고자 한다. 그러나 왕이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행실을 바꾼다면 짐의 좋은 신하이니 어찌 달리 관리를 두랴. 짐이 왕의 허물을 문책하려 한다면 장군 하나만 보내도 족하지만, 그래도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려하니 왕은 반드시 짐의 뜻을 알고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도록 하라." - 〈수서〉

수나라의 황제인 문제가 고구려왕을 신하로 칭하며, 수나라에 굴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고구려가 마치 자신들의 속국인양 거만한 태도를 취한 이 국서는, 사실상 수나라의 선전포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이 같은

수나라의 행동에 대해, 〈조선상고사〉에는 당시 고구려의 상황을 전하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기원전 597년은 고구려 영양왕 8년이요, 수의 문제가 진을 병합하여 중국을 통일한지 17년 되는 해이다. 수는 이즈음에 고구려와 자웅을 다투고자 고구려를 지극히 업신여기는 내용의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글을 보내왔다. 영양왕이 이 모욕적인 글에 크게 노하여 여러 신하들을 모아 회답의 글을 보낼 것을 의논하니, 강이식이 이같이 오만무례한 글은 붓으로 회답할 것이 아니라 칼로 회답할 것입니다 하고 곧 개전하기를 주장하였다."

수 문제의 국서가 온 이듬해인 598년. 고구려의 군대는 요하를 건너 수나라로 진격한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16년 전쟁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2. 전쟁 원인

(1) 조양지역의 중요성

수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출발한 고구려 군대는, 요서로 향한다. 목표가 된 지역은 영주. 지금의 조양이었다. 고대에 조양은 여러 나라가 쟁탈전을 벌인 요지였다. 조양이 중요했던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권 때문이었다. 6세기 무렵, 조양에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시장이 들어서 있었다. 조양을 차지하게 되면, 이처럼 거대한 시장권과 교역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곳은 동북아시아를 분할하고 있던 각 나라간의 세력 다툼에서도 중요했다. 특히 고구려와 수나라에 있어서, 영주(지금의 조양)를 중심으로 하는 요서 지역은 완충 지대인 동시에 끊임없는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다. 요서를 장악하는 것이 곧, 세력의 확장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조양은 진출 내지는 반드시 장악해야만 하는 곳으로 그렇지 못하면 다음단계에 본토나 내륙이 침범 내지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이다. 차지를 안 하면 반드시 그보다 몇 배의 댓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 거기를 잃는다는 것은 곧바로 경계선이 안으로 후퇴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진출과 방어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양은 대단히 의미가 중요한 곳이었다. - 이성제 교수(전쟁기념관 선임연구원)

그런데 수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요서는 고구려의 세력권 아래 있었다. 597년 수 문제가 보낸 국서에도, 이 같은 정황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 당시 요서가 고구려의 영토는 아니었지만, 고구려는 이곳을 차지하고 있던 말갈과 거란에 대해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요서지방이 고구려의 세력권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고구려성의 존재다. 중국의 사서인 〈자치통감〉에는, 요수 서쪽에 고구려 성 무려라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고구려가 이 성에서, 요수를 건너는 자들을 감시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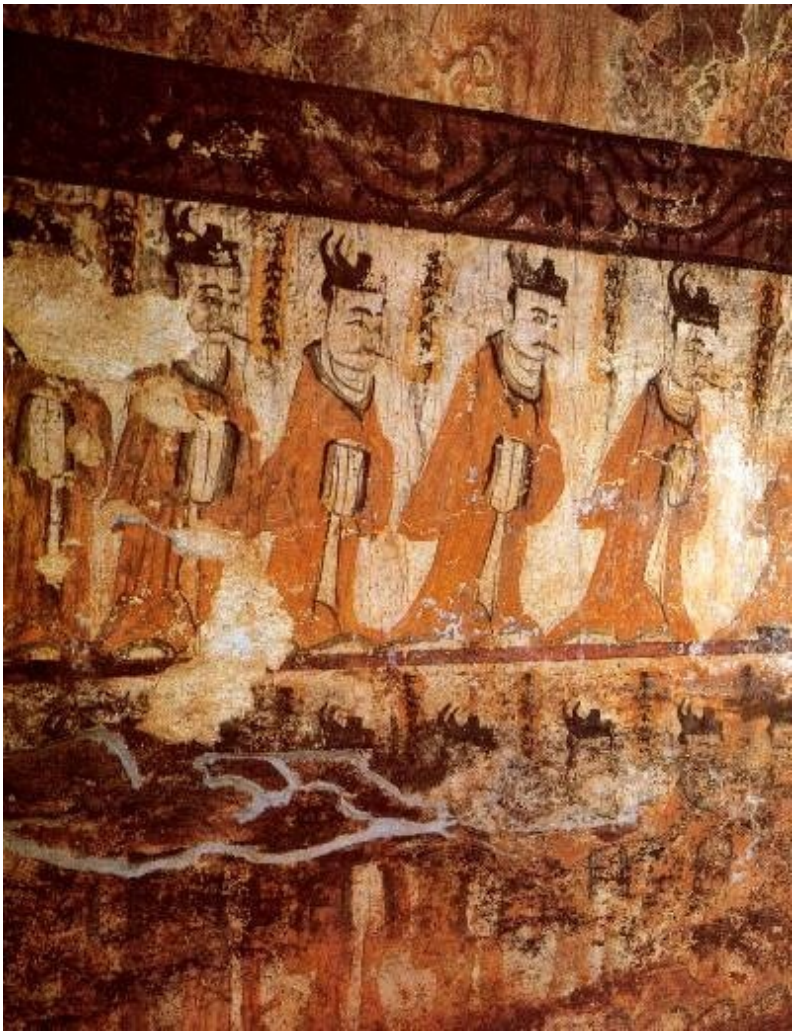
중국남북조시대 때 고구려는 요동을 거의 다 장악했었고 요서는 고구려 영토는 아니었지만 소수민족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수민족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영주를 중심으로 한 요서지방이 고구려의 영토는 아니지만 그 세력권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왕소부 교수(북경대 사학과)

중국의 역사서 신당서는 조양의 옛 지명인 유성에 고구려 시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곳 유성에서 고구려는 북방민족에게 농산물이나 철을 수출하고 말과 가죽류를 수입했다. 중국과는 말, 황금, 화살 등을 수출하고 비단 장신구등을 수입했다. 중개 무역권도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6세기 후반, 수나라가 고구려의 지배 아래 있던 요서지방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수나라의 거점이 된 곳은,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조양이었다. 583년, 수나라는 조양의 소수민족 세력을 토벌한 뒤 영주 총관부를 세운다. 이후에 문제는 넷째아들 양을 병주 총관으로 임명한 뒤 52주를 다스리게 하고, 여기에 영주를 포함시켰다. 수나라 4대 총관의 하나였던 병주의 군사력이 영주총관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주의 군사력을 키운 것이다. 당시 이미 개전논의가 한창인데 수나라가 갑자기 확장 증강하는 것을 보고 고구려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598년, 고구려의 영주 공격은 수나라가 요서의 지배권을 넘보도록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2)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

평남 덕흥리에서 발견된 한 고분 벽화는 무척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준다.





13군 태수들이 유주 자사에게 인사드리는 모습. 연군태수, 범양태수, 어양태수, 상곡태수, 광령태수, 대군태수, 북평태수, 요서태수, 창려태수, 요동태수, 현도태수, 낙랑 태수, 대방태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3군이 유주에 속하며 거느리는 현은 75개이고, 유주의 소재지는 광계이며 지금의 소재지는 연국인데, 덕양으로부터 2, 3백리 떨어져 있다. 이 벽화를 통하여, 당시 광개토대왕 때 일시적이나마 고구려가 중국 화북 지방까지 점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 최무장, 임연철 편저, 〈고구려벽화고분〉, 신선원, 1990, p306~p309

2) 이형구, 〈한국 고대문화의 기원〉, 까치, 1991, p198

이 무덤의 주인은 고구려의 진이란 사람이다. 그가 유주지역의 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13명의 부하태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태수들의 지역이 벽화 속에 정확히 기록 되어 있다. 벽화에 기록된 열세 지역은 모두 지금의 북경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 이것은 5세기 초 고구려가 중국의 북경지역을 장악할 정도로 강성했다는 증거였다. 이때 고구려가 이렇게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중국이 대단히 혼란한 5호 16국 시대였기 때

문이다. 이 시기를 틈타 고구려가 중국에 진출하였던 것이다.

또한 고구려 제 19대왕인 광개토대왕비를 통해 우리는 고구려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고구려 사람들은 광개토왕을 가리켜, 왕중의 왕인 호태왕이라고 불렀다. 또 이 비석에는 끊임없는 정복 활동을 통해 대제국을 건설한 광개토왕의 업적이 화려하게 기록돼 있는데, 그런 광개토왕을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太王 恩澤 皇天 威武 四海"

태왕의 업적은 황천에 달하고 위력은 사해에 떨쳤다.

함경남도의 한 절터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금동판에는 당시고구려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삼가 이 탑을 만들었으니, 5층으로 새기고 상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원하건대 왕의 신령이 도솔천으로 올라가 미륵을 뵙고 천손과 함께 만나 모든 생명이 경사스러움을 입게 하소서.....?화 3년 세차 병인 2월 26일 ?술 초하루에 기록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천손'이라는 용어이다. 발해 문왕이 일본에 국서를 보내면서 스스로 '천손'이라고 일컫었는데,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은 당시 당나라의 천자나 일본의 천황을 보고 발해가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금동판이 증거가 되었고, 고구려 시대 때 만들어진 후 발해 시대에도 사용된 것이다. 발해 시대에는 최고 통치자를 '천손'이라고 불렀다는 점과, 발해 왕실이 고구려 왕실의 용어를 그대로 계승해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송기호〈발해를 찾아서〉,솔,1993,p.272-p.275

고구려 유물에 나타난 기록, 태왕, 사해, 천손과 같은 말들은 바로 고구려가 천하를 지배하는 중심 국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고구려에 비해 수나라는, 비록 중국을 통일했다고는 하나 나라를 세운지 겨우 17년에 불과했다. 그런 수나라가 고구려를 신하의 나라로 칭한 것을 고구려는 그냥 보아 넘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고구려가 수나라 공격에 동원한 병력은 1만. 그것도 고구려의 정예 부대가 아닌 말갈군이었다.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작정을 하고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무력행동에 대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수나라의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가 영주 지방을 선제공격한지 석달 만에, 수나라는 30만 대군을 조직해 대대적인 고구려 원정에 나선다. 그야말로 신속하기 이를 데 없는 대응이었다.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를 조직하고 각종 물자를 조달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612년, 제 2차 전쟁 때 수나라의 양제는 고구려에 선전포고를 하고도 1년이 지나서야 실질적인 공격에 나섰다. 그런데 문제가 30만이라는 대군을 일으키는데 불과 석 달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것은 수나라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렇다면 수나라의 문제는 왜, 고구려와의 전쟁을 원했던 것일까?

(3) 수 문제의 왕조의 정통성 확보

분열돼있던 중국을 400년 만에 통일하는 업적을 이뤘지만, 문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원래 북주의 왕 정제의 외할아버지였던 그는, 어린 나이의 정제를 대신해 실권을 휘두르다가 581년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다. 때문에 집권 초기에는, 수많은 비판과 반란에 시달려야 했다. 〈자치통감〉에는 문제의 등극과정에 대한 당시의 평가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황제는 본래 공덕이 없는 사람으로, 천하를 사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문제는 신하들에게조차 황제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 대부분이 북주 왕조에서 문제와 같은 서열에 있었기 때문에, 반감이 더욱 컸던 것이다. 당시 수나라의 명문 귀족 양소는 공공연하게 자신을 천자로 칭했다고 전한다. 당시의 귀족들 간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황제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다. 때문에 문제는,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통일왕조의 위엄을 과시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 장안에 새로운 성을 건설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하나였다. 581년 수나라를 세우고 장안에 도읍한 문제는 이듬해부터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장안성이라 불리는 대흥성이다. 수 문제는 북주에서 수를 세운 것을 혁명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새 수도를 지었다. 또 전국을 통일하고 국가가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옛 직함 대흥공을 따서 대흥성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또 문제는 594년, 서른 권에 이르는 〈황수영감지〉를 편찬하게 한다. 〈황수영감지〉는 민간가요와 불경 등에서 신왕조의 정통화 논리를 추려 모으고 수나라의 정치적 이상을 집약해놓은 책이었다. 왕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문제가 택한 또 하나의 방법은 대외원정이었다. 수나라를 세운 이후, 문제는 돌궐, 거란 등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다. 전쟁을 통해 왕조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망을 얻고, 신하들을 통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같은 대외 원정 사업의 마지막에, 고구려가 있었다. 수나라의 중국 통일 전까지 동아시아 최대의 강국으로 군림해온 나라 고구려를 정복한다면 수나라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할 수 있을 터였다.

당시에 고구려는 막강한 나라였다.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돌궐이 이미 수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수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던 셈이다.
- 왕소부 교수(북경대 사학과)

이 같은 분위기에서, 수나라와 고구려의 일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598년 6월, 고구려가 영주를 공격한 지 석 달 만에 수 문제는 넷째아들 양량과 개국공신 고경 등을 지휘관으로 하는 대규모 원정군을 조직한다. 병력의 수는 무려 30만! 국력을 총동원한 대공세였다.

604년 수 양제가 즉위하자 고구려 정벌론이 다시 대두하게 되었다. 양제에게 고구려 원정의 명분을 제공해 준 것은 백제와 신라가 수에게 고구려 출병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즈음 한반도 안에서는 한강 유역의 지배권 쟁탈을 둘러싸고

삼국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리하여 고구려와 적대관계에 있던 백제 무왕(武王)이 607년에 사신을 수에 보내 고구려 출병을 요청하였다. 다음해인 608년 신라의 진평왕도 수에 고구려 원정을 제의하였다. 이에 수 양제는 고구려 정벌에 대한 명분을 가지게 되어 고구려 정벌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다.

수양제는 고구려 정벌에 앞서 변방의 수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만리장성을 보수하는 대공사를 벌인다. 그리고 대대적인 신무기 개발을 명령하였다. 당시 개발된 공성무기에는 소차, 전호피차, 발석차, 운제, 당차, 팔륜누차 등이 있었다. 소차는 엘리베이터처럼 움직이면서 성안의 동태를 살피는 정찰용 차량이다. 전호피차는 성벽 가까이에 접근해서 땅을 팔 수 있도록 만든 장갑무기이다. 터널을 만들어서 성안으로 몰래 진입하려 한 것이다. 발석차는 수백가닥의 줄을 한꺼번에 잡아당겨서 거대한 돌을 날려 보내는 무기이다. 운제는 높은 성벽을 오르기 위해 40미터의 사다리를 펼칠 수 있도록 고안한 무기다. 당차라는 강력한 무기도 개발됐다. 당차는 거대한 쇠망치를 앞뒤로 흔들어 성벽이나 성문을 파괴한다. 또 수십 명의 군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팔륜누차도 개발했다.

그리고 610년 1월에 대운하가 완성되었다. 이것은 동도의 낙양을 중심으로 북쪽은 탁군, 남쪽은 여항에 이르는 전장 2천Km의 남북을 연결하는 대공사로, 이를 통하여 전국 각지에서 소집된 군사들과 전쟁물자들이 탁군으로 소집되었다. 이러한 4년여의 준비 끝에 612년 정월 113만 3천 8백 명의 대군이 탁군을 출발했다. 군량을 수송하는 인원은 그 2배에 달하였다고 한다.

수양제의 정벌군은 3월 14일 요하에 도착하였다. 요하를 건넌 수양제가 요동성을 포위하자 고구려 군은 성문을 닫고 굳세게 수비하는 농성작전에 들어갔다.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항복을 가장하여 수군의 공세를 일단 완화시킨 다음 전투력을 재정비하여 다시 수군에 대항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수의 장수들은 양제로부터 독단행위를 금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었으므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족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두세 차례 되풀이하면서 고구려 군은 거의 2개월 동안을 버티어냈다.

요동성 전투가 전개되는 동안 수의 해군은 총사령관 내호아의 지휘 아래 황해를 건너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 612년 6월 고구려 군과 접전하게 되었다. 고구려 수군사령관 건무(建武 : 영양왕의 아우로 영류왕)는 수적으로 우세한 수의 해군과 정면대결을 피하고 유인작전으로 격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해전을 피하고 대동강을 거슬러 온 수군을 평양성 60리 밖에서 저지하다가 평양성으로 후퇴하면서 외성 안의 빈 절에 500여 명의 결사대를 매복시켜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초의 승리에 도취한 수의 해군은 정예병 4만 명을 선발하여 총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해군만의 단독공격을 감행하였다. 고구려군은 별도로 1개 부대를 출동시켜 내호아의 공격군과 접전하면서 고의로 패주하였고, 이에 내호아 군은 패주하는 고구려 군을 추격하여 평양성 외성 안에 들어가 흩어져서 약탈을 자행하고 전리품 탈취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매복 중이던 고구려 군이 수군을 급습하였고 약탈에 정신이 팔린 수군은 기습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참패를 당한 수군은 철수하여 다시는 상륙작전을 감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수의 육군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수 양제는 요동 전선의 교착과 수군의 결정적 패배로 고구려에 대한 수륙협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구려 수도 함락을 생각하게 되었다.

좌·우 24개 군 가운데 후방 예비대 9개 군으로 평양을 직접 공격하는 별동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예비대는 전투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아 결정적 시기에 작전에 투입시키려는 최정예 부대였다. 별동대의 총사령관은 우문술이었고 총 병력은 30만 5천 명에 달하였다. 군량의 현지 조달이 불가능할 것을 예상하여 요서를 출발할 때 병사와 군마가 각자 1백일 동안 먹을 식량과 무기 및 천막 등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바람에 1인당 3석에 해당하는 무게가 되었다. "식량을 버리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목을 벤다."고 엄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몰래 버리는 사례가 속출되어 압록강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군량이 거의 바닥난 실정이었다. 고구려에서는 적정을 살피기 위해서 을지문덕이 거짓으로 항복의사를 밝히고 적진에 들어갔다. 출정 당시 양제가 "만약에 고구려 왕이나 을지문덕이 오면 즉시 사로잡아라."고 하였으므로 곧바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위무사 유사룡이 굳이 이를 반대하므로 돌려보내고 말았다. 우중문은 곧 후회하여 추격하자고 했으나 우문술은 군량이 거의 떨어진 상태이므로 철군할 생각이었는데 우중문이 노하여 말하기를 "장군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능히 소적을 격파하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황제를 대하시겠소!" 하고 질책하였다. 처음에 양제는 우중문의 지략이 뛰어나다 하여 전군의 지휘관에게 그의 명령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지휘권만이 우문술에게 있었으며 실제적인 작전 지휘권은 우중문에게 줌으로써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운영하지 못하고 나아가 두 지휘관의 불화마저도 노출되고 있었다. 우문술이 부득이 그의 의견을 좇아 압록강을 건너 을지문덕을 추격하기 시작하였으나, 을지문덕은 우문술의 군사들이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알고 수군을 더욱 지치게 만들기 위해 접전할 때마다 고의로 패주하는 후퇴작전을 전개하였다. 우문술군은 하루에 일곱 번을 싸워 번번이 승리하자 승리에 도취되어 계속 추격, 살수(撒水:청천강)를 건너 평양성 밖 30리 지점에서 산을 의지하여 영채를 설치하였다. 이때 을지문덕은 적장 우중문을 조롱하는 시 한수를 지어 보냈다.

神策究天文 그대의 신기한 전략은 천문을 알았고,
妙算窮地理 기묘한 계책은 지리를 통달했네.
戰勝功旣高 싸움에 이겨 공은 이미 높았거든,
知足願云止 만족할 줄 알아 이제 그만 그치시오.

이에 우중문도 답서를 보내어 항복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자 을지문덕은 거짓 항복의 뜻을 전하였다. 고구려 군이 성벽에 항복의 깃발을 세워놓고 "5일 말미를 주면 국가의 문서를 정리해 가지고 나가서 따르겠다." 하기에 수군은 공격을 중지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5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거듭 독촉했더니, 다시 10여 일이 지나 고구려군은 "내호아의 수군도 참패당하고 식량도 바닥이 났을 터인데 그대들은 무엇을 바라고 또 기다리는가?" 하더니 요해지를 점거하여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우문술군은 고구려의 전략에 말려들었음을 깨닫고 철군을 단행하였다.

우문술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방진(方陣)대형으로 행군하였다. 수군은 싸우면서 퇴각하여 동년 7월 24일 살수에

도착하였다. 병력이 절반쯤 도강했을 무렵, 고구려군은 도하중인 수군의 후면을 급습하였다. 그리하여 수나라의 전군은 일시에 무너졌고 산산이 흩어져 도망하고 말았다. 결국 퇴각 끝에 요동에 귀환한 병력은 겨우 2,700명이었으며, 병기와 장비를 비롯하여 기타 군수품 일체를 모조리 ?어버렸다.

내호아의 수군은 8월 중순경에 우문술의 육군이 참패당했다는 소식과 귀국명령을 듣고서 함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퇴각하였으며, 8월 25일에는 크게 진노한 수 양제가 총사령과 우문술을 위시해서 패전한 장수 전원을 결박해 가지고 귀국길에 올랐다. 우문술은 그의 아들 우문사급이 양제의 딸 남양공주의 사위라는 인연으로 죽음만은 면해서 서인이 되었다. 장군 우중문은 패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옥중에서 분사하였다.

수 양제는 제 1차 전쟁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하여 이듬해인 613년 정월 2일 조칙을 내려 천하의 군사를 모두 징발하여 탁군에 집결시키고 요동에 있는 옛 성을 수리하여 군량을 저장하게 하였다. 1차전의 패전책임으로 폐서인이 된 우문술을 재등용하여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2차전의 작전계획은 기본적으로 1차전과 동일하여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평양성을 협공하는 것이었지만 1차전의 작전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 평양성 직접공격과 함께 이 공격로 선상에 있는 고구려의 각 성을 각개 격파하는 작전이었다. 이는 공격시에는 안전한 병참선을 확보하고 후퇴 시에는 안전한 퇴각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둘째, 일선 지휘관들에게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셋째, 고구려의 장점이 산성에 의존하는 청야입보 전술임을 간파하여 고구려의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특수 장비와 특수 인원을 준비하였다. 특수인원은 건장한 인원 중에서 엄선된 자원병으로 특수부대를 편성, 특수 임무시 동원하였고, 특수 장비로는 비루당(飛樓糖), 운제(雲梯), 충제(衝梯), 지도(地道)와 같은 공성무기를 총동원하였다. 비루당은 성 안을 탐지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다락을 얹은 수레로 그 위에 높은 사다리를 걸어놓았으며, 운제는 성을 오르는 데 사용하는 사다리, 충제는 성안을 들여다보고 공격할 수 있는 15장(丈)이나 되는 장대이며, 지도는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는 장비였다. 넷째로 육군은 고구려 공격로를 2개로 선택하였다. 한 공격로는 부여도를 거쳐 신성(新城: 요녕성 무순)을 공격하며, 다른 공격로는 요동성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해군은 단독행동을 금지하고 육군과 평양성 수륙공진을 위해 출동 대기상태로 준비시켰다.

수군은 3월 4일 동경인 낙양을 출발하여 4월에 요하를 건넜다. 우문술이 지휘하는 수군은 공성무기를 총동원하여 요동성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였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이에 새로운 공성무기인 누거(樓車)를 만들어 진격하려고 할 찰나 중국 본토에서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급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병부시랑(兵部侍郞:국방차관) 곡사정이 평소부터 양현감과 교분이 두터웠던 관계로 불안한 나머지 고구려로 망명하고 말았다. 반란보고를 받은 수양제는 5월 28일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구려군은 망명해 온 곡사정의 제보로 수군이 퇴각한 것을 알았지만 유인작전의 가능성으로 즉시 추격하지 못하다가 2일이 지난 후

비로소 수천 명으로 철수하는 수나라 군대의 후미부대를 공격하여 수천 명을 사살하였다

수 양제는 양현감의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대원정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과 반란군이 일부 잔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제는 두 차례의 고구려 원정이 실패함으로써 크게 수치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고구려 원정에만 관심을 쏟아 양도와 강남에 각각 10만군의 반란군이 세력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14년 2월에 고구려 원정론을 내놓았다.

3차 전쟁의 작전계획 역시 수륙협공작전을 전개하였으나, 1 · 2차전과는 달리 요동성 점령에 중점을 두어 해군이 평양으로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선 요동반도에 상륙하여 육군 작전을 지원한 후 평양을 공격토록 하였다. 수의 육군은 동원정비에 시간을 허비하여 요하를 건너기도 전에 여름 장마철을 맞이하였다. 예상치 못한 장마로 인해 평양에 대한 협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양제는 회군을 결심하고 그 명분을 찾고 있었다. 사실 고구려 측에서도 해마다 수군을 맞이하여 전 국력을 기울여 싸우다 보니 지쳐있었다. 양제가 3차 원정에 나서자 고구려는 사자를 보내 국왕의 입조를 조건으로 망명해 있던 곡사정을 수나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양제가 크게 기뻐하며 고구려의 화해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어 수나라 군대는 회군하게 되었다.

고구려와 수나라는 598년의 임유관 전투로부터 614년의 수 양제의 3차 전쟁에 이르기까지 17년 동안 네 차례의 전쟁을 치렀다. 막강한 국력을 기반으로 한 수의 군사력에 비해서 고구려의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열세하였다. 수나라군은 수적인 절대적 우세와 고구려 군에 못지않은 정예병을 동원시키고도, 수나라군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전쟁에서 매번 패하고 말았다.

수의 패전 원인은 첫째, 작전지휘계통의 확립을 소홀하게 한 점이었다. 일선 지휘관에게 작전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 통제식으로 작전을 지휘함으로써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또한 지휘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양분시킴으로써 지휘의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전투력의 분산을 자초하고 말았다.

둘째, 병참보급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다. 대규모 병력에 필요한 군량을 장거리에 걸쳐 지원하는 수송 작전은 전쟁수행과 직결된 문제였다. 수나라는 사전에 대운하를 이용, 군량을 전진기지에 비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군량을 전선에 보급하는데 있어 함선과 같은 대량운송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수레와 같은 소규모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단기작전 위주로 전쟁을 수행하였다. 고구려군의 청야입보 전술은 수군에게 군량의 현지조달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군량부족은 수나라 패배의 큰 원인이었다.

이에 반해 고구려의 승리 요인 중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견고한 산성 축조술의 발달이다. 대체로 성을 단위로 한 고구려의 지방행정능력은 고도로 발달하여 평 · 전시를 막론하고 주민통제가 철저했다. 게다가 오랜 전쟁 경험을 토대로 군사요충지에 견고한 성을 구축하고 전쟁에 대비해 식량과 군수물자를 항상 비축하고 있었다.

현재 남아 있는 백암성 성벽은 높이가 높은 성벽 4~10미터, 원래의 높이는 15미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릉 지역의 능선을 따라 성벽을 구축한 백암성은 가장 높은 곳에 총 지휘소인 장대를 설치했다. 성 내부는 반 구릉 지대로 한쪽 면은 태자하를 끼고 있고 그 안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백암성의 다른 한쪽은 200미터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고구려의 성은 이렇게 최대한 자연지형을 이용했던 것이다. 고구려의 성은 축성법도 독특했다. 성벽아래는 마치 계단처럼 차곡차곡 안으로 돌을 들여 쌓고 있었다. 성벽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성벽을 넘어오는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 고구려 성은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치. 백암성은 60미터 간격으로 거대한 치가 설치돼 있는데, 치의 간격은 화살이 미치는 사정거리를 정확히 계산한 것이다. 적군이 성벽을 오르면 고구려 군은 곧바로 공격에 나선다. 치가 설치된 성에서는 세 방향에서의 공격이 가능하다. 성문 진입이 어렵다는 점도 고구려성의 특징이다. 성문은 반원형 성벽으로 감싸여 있고, 그 안에 들어온 적군은 꼼짝없이 갇힌 채 화살공격을 받게 된다.

이 산성들을 중심으로 대중국 방어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제 1방어선은 요하 유역과 요동반도 남단에서 동북으로 뻗은 천산산맥 방어선이었다. 요서 10성, 무려라성, 요동성, 신성, 안시성, 건안성 등이 대표적인 산성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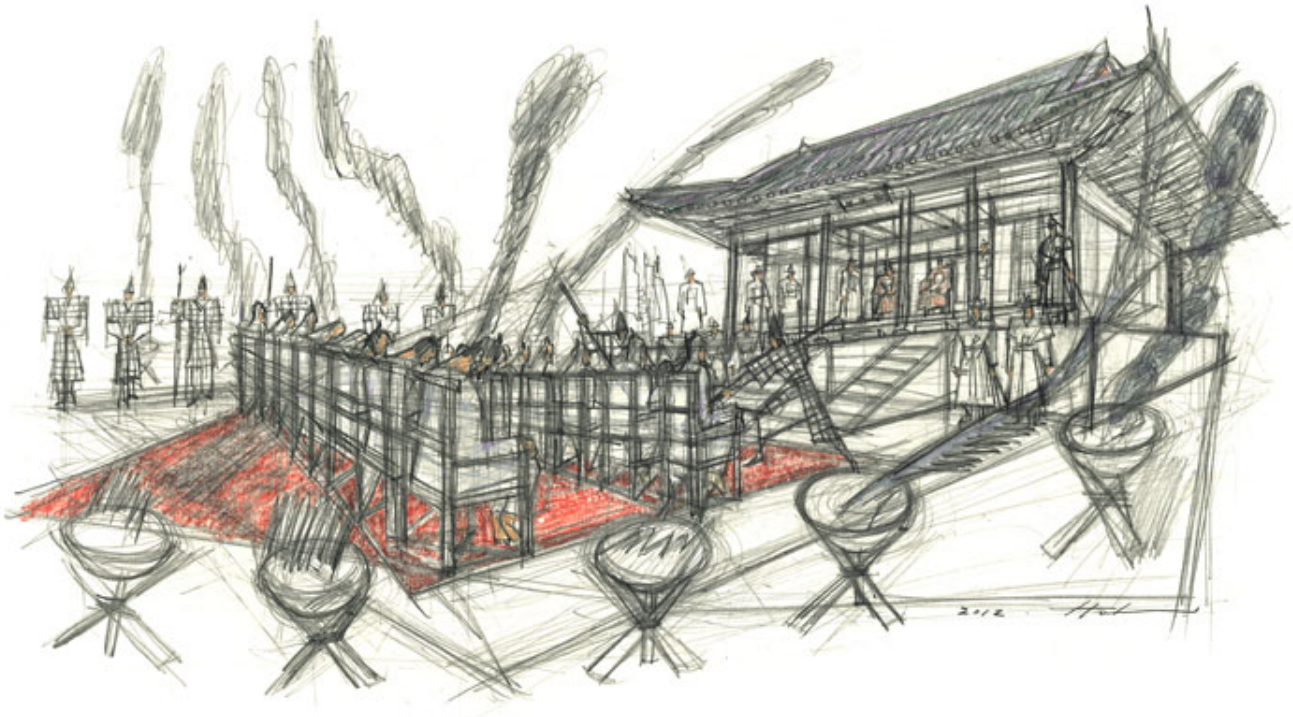
제 2방어선은 압록강 선상의 산성들로 수도로 침입하는 적들을 막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으로 전환하여 적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에 이용된 산성들이었다. 오골성, 박작성, 오녀산성, 위나암성, 백마산성, 국내성 등이 대표적인 산성들이었다.

제 3방어선은 수도방위를 위한 산성이었다. 평양의 대성산성은 내성, 외성, 나성의 3중으로 견고한 성곽을 축조하여 최후의 방어선으로 저항하였다.

둘째로는 우수한 군사전술을 들 수 있다. 고구려가 산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이 청야수성전술이었다. 고구려는 수성전술뿐만 아니라 적의 본거지를 날랜 말로 달려 치는 원거리 기동습격전도 감행하였다. 또한 평상시 첩보전술을 통해 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전쟁에 대비하였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임기응변적인 기만전술을 사용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셋째, 고구려는 전쟁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고구려는 요동과 한강 유역의 2개의 전선을 회피하기 위해서 백제 및 신라와 적절한 동맹을 맺어 남방전선을 안심시켰다. 수나라와의 관계에서도 화 · 전 양면정책을 추진하여 전쟁을 위한 방비책을 준비하였다. 넷째로 군사 지휘관들의 탁월한 작전 지휘능력을 꼽을 수 있다. 각 성의 성주는 관할지역내의 작전에 독립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전황의 추이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일반 민은 군과 다름없이 말타기, 활쏘기 등과 같은 기술에 숙달되어 있었다. 험준한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인은 생활수단이 대부분 수렵활동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기술에 잘 숙달되어 있어 유사시 단결된 힘을 발휘하였다.

조선전기 4대사화

2013.01.26 22:22



사화(士禍)는 조선 전기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다. '선비들의 피화(被禍)' 라는 의미의 그 사건은 발생한 해의 간지를 따라 무오(1498, 연산군 4년) · 갑자(1504, 연산군 10년) · 기묘(1519, 중종 14년) · 을사사화(1545, 명종 즉위년)로 불린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사화는 그 규모와 원인 · 과정 · 결과 등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사화	발생년도	내용	결과
무오사화	1498년 (연산군 4년)	즉위 직후부터 강력한 왕권 행사를 표방해 삼사와 계속 갈등을 빚던 연산군이 김일손의 사초와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매개로 삼사를 처벌한 조선 최초의 사화.	김종직 일파를 비롯한 삼사 대신 등 52명이 피화됨. 삼사의 활동이 일단 약화되어 왕권의 영향력이 커짐.
갑자사화	1504년 (연산군 10년)	무오사화 이후 폭정과 황음에 빠져가던 연산군이 대신과 삼사를 아우른 신하 전체를 대상으로 자행한 거대한 숙청. 폐모 사건에 대한 보복과 맞물리면서 피화 규모가 매우 커짐.	대신과 삼사를 포함한 239명의 인원이 처벌된 대규모의 옥사. 극형과 함께 재산몰수의 경제적 처벌도 병행됨.
기묘사화	1519년 (중종 14년)	조광조를 중심으로 삼사에 포진해 정국공신 삭훈과 현량과 시행 등의 급진적 개혁정치를 추진하던 기묘사림에 대한 국왕과 대신의 숙청.	조광조가 사사되고 그 일파가 처벌됨. 삼사의 위상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일어난 사화라는 측면에서 무오사화 이후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삼사의 기능이 제도적으로 안정되고 있음을 반증.
을사사화	1545년 (명종 1년)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외척간의 갈등. 그동안 주로 삼사의 활동과 관련해 전개된 이전의 사화와는 성격과 내용이 매우 다름.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이 윤임의 대윤 세력과 이언적, 권벌 같은 주요 대신을 숙청함.

•각각의 사화를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각 사화의 여러 측면을 객관적으로 살펴 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간략한 내용 때문에 일일이 밝히지는 못했
이 글의 많은 부분은 여러 선행 연구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

조선 왕정의 특징

전근대의 보편적 정치체제는 왕정이었다. 그 까닭은 그 시대의 기본 원리가 신분제도였다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전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인 신분(身分)은 말 그대로 '몸의 구분'을 기준으로 사회를 구획하고 운영한 제도였다. 몸
으로 바뀌지 않는 몸을 기준으로 삼은 그 구분은 그러므로 지배신분과 피지배신분이 본원적이며 영구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엄중한 선언을 담
이었다.

신분제도에서 이런 유일한 외형의 '차이'는 현실의 수많은 '차별'로 이어졌다. 신분은 그 밖의 거의 모든 가치를 포괄적으로 귀속시켰
'고귀한' 신분 집단의 구성원들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 사회적 지위, 문화적 향유 같은 탐스러운 세속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독점한 것
다.

왕정은 신분제도의 세습성과 배타성과 일원성을 최고 수준에서 집약한 체제였다. 왕정에서 지배자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오직 국왕뿐이었
왕의 혈통적 세습성과 가치의 독점력은 지배신분의 그것을 훌쩍 뛰어넘었다.

조선에서도 국왕과 신하의 상하관계는 엄정하고 확고했지만, 왕권의 실질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졌다. 그런 현상
형식적으로는 중국의 책봉을 받는 제후국이라는 사실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왕권이라는 기본적 성격은 다양한 부수적 현상을 수반했다. 거기서 가장 주목된 것은 삼사(三司)였다. 삼사는 조선시대 정

를 이해하는 관건의 하나로 평가된다.

삼사의 기능과 제도적 확립

널리 알듯이 삼사는 사헌부(司憲府) · 사간원(司諫院) · 홍문관(弘文館)이다. 이 세 관서는 관원에 대한 감찰과 국왕에 대한 간언, 그리고 여러 에 대한 자문을 각각 주요한 임무로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서로의 임무를 넘나들면서 활동했고, 그 결과 '삼사'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어떤 변화의 실질적 효과를 가늠하는데 핵심적 사항은 제도의 성립이다. 현실의 변화와 필요가 오랫동안 축적되면 어떤 제도의 성립으로 귀결 즉 제도는 다양하고 가변적인 현실적 요구를 집약한 균일하고 고정된 조문(條文- 규정이나 법령)인 것이다. 제도로 성립되지 않을 때 현실적 와 요구는 오래지 않아 사그러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의 제도가 확립된 중요한 계기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하 대전)]의 최종적 완성(1485, 성종 16년)이었다. [대전]의 첫대 '이전(吏典)'은 주요 관서들의 기능과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한 조문(條文)으로 시작된다. 그 내용은 간략하고 때로는 다소 모호하지만, 각 관 고유한 임무와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전]의 완성으로 삼사를 포함한 주요 관서의 본원적 기능은 국법에 보장된 불가침의 영역 편입된 것이었다.

국왕과 신하(주로 대신)를 비판하고 제어하는 삼사의 기능이 제도로 확립된 것은 조선 정치의 중요한 특징을 형성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국 왕권을 더욱 제약했고, 대신과 삼사의 긴장과 대립을 일상화했다. 그러나 동시에 활발한 토론을 촉진하고, 권력의 절대화를 방지했다.

이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이런 체제는 국왕이 상위에 군림하면서 대신과 삼사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수준 높은 유교정치로 발전할 수 있는 었다. 일단 이런 변화는 조선 중앙정치의 중요한 특징이자 긍정적인 발전으로 생각된다.

중앙관직의 운영 원리 1 — 임무의 규정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다른 측면은 중앙관직의 운영 원리다. 그것은 관원 개인의 정치적 · 사상적 성향보다는 해당 관서의 기본적인 임무 관원의 활동을 일차적으로 규정했고, 신하들의 관직은 늘 순환한다는 두 가지 사실이다.

앞서 말한 대로 각 관서의 임무는 상징적이든 구체적이든 [대전]에 규정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관원은 자신의 임무를 선택할 수 있던 아니라 국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었다.

중앙 정치의 핵심은 국왕과 신하였다. 신하는 대신(주로 2품 이상)과 삼사가 그 중심을 구성했다. 대표적인 대신인 의정부(의정~참찬)와 육 서)의 임무는 정부의 상위에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심의하고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런 기능에 충실하려면 지나치게 원칙적인 태도를 고수하기보 현실의 다양한 조건에 대응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그런 고위직에 오르기까지 여러 관서를 거치면서 풍부한 경 쌓은 원숙한 나이의 관원이었다. 그들이 대체로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낸 데는, 개인의 독자적인 여러 성향보다는 이런 객관적 조건 좀 더 우선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삼사의 조건은 사뭇 달랐다. 그들의 기본 임무는 간쟁과 탄핵이었다. 이런 비판적 임무는 현실의 여러 변수를 너그러이 고려하기보다 칙과 논리에 입각한 엄격하고 견결한 태도를 요구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그들의 나이와 품계도 그런 태도를 형성하는데 무관하지는 않 것이다.

중앙관직의 운영 원리 2 — 긴밀한 인적 연속성

그러나 중요하게 기억해야할 측면은 대신과 삼사가 긴밀한 인적(人的) 연속성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유망한 관원들체로 비슷한 경로를 거쳐 고위직으로 승진했다. 그 핵심적 경로는, 청요직(淸要職)이라는 이름이 알려주듯이, 삼사였다.

조선시대의 주요 인물 중 절대 다수는 삼사를 거쳐 대신이 되었다. 실제로 성종~중종대 의정부 · 육조의 대신 중 대부분(50~90%)는 삼사를 인물들이었다. 이것은 새롭거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조선의 많은 관원은 젊은 나이에는 삼사에 근무하면서 탄핵과 간쟁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그 뒤 나이를 먹고 품계가 올라 대신면 그 관직에 합당한 현실론적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컸다. 이것은 순환론적 견해로 지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하다. 곧 언급하겠지만, 이런 측면은 '훈구-사림' 문제를 이해할 때도 숙고해야 할 사항이다.

중앙관직의 운영 원리 3 — 빈번한 인사이동과 재임용

아울러 이 시기의 인사 행정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주의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빈번한 인사이동과 재임용의 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조선시대 전체를 조사해보지는 못했지만, 이 글의 주요 대상인 성종 · 연산군 · 중종대 의정부 의정~참찬의 임기는 각각 26.4개월-15.2개월-15로 변화했다. 같은 기간 육조 판서는 14.5개월-16.1개월-6.8개월이었고, 삼사 장관(대사헌 · 대사간 · 부제학)은 6.3개월-4.2개월-3.3개월이었러니까 삼사 장관의 임기는 이미 성종 때부터 반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중종 때 와서는 석 달마다 교체된 것이었다.

적지 않은 관원이 한번 파직되었다가 같은 관직에 다시 임명되는 순환적 인사가 점차 고착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주목할 만하다. 중종 때의 장관은 3분의 1 이상(37.4%)이 그렇게 임용되었다.

재직 기간의 단축과 재임용의 증가라는 독특한 현상의 발생과 고착은 특히 삼사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떤 관서의 빈번한 인사거의 만성화에 가까울 정도로 일반적인 일이었고, 파직된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시 그 관직에 임용되는 구조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삼사는 기본적으로 파직의 위험성이 큰 관서였다. 그런데 그 관원은 과감한 탄핵과 간쟁을 제기한 것과는 거의 무관하게 그 관직에 오래 머못할 것이 예상되었지만, 일단 파직된 뒤에도 다시 그 자리에 임명될 확률이 적지 않았다(또는 다른 관직으로 승진할 수도 있었다). 그렇디관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삼사의 영향력이 크게 제고되었지만 중앙정치의 갈등도 고결국 사화의 발발로 귀결된 이 시기의 정치사는 이런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훈구-사림' 문제의 이해

앞서 말했듯이 이런 측면은 이 시기의 정치사를 '훈구-사림'의 이분적 구도로 설명하는 통설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1970년대 이후적으로 제기된 그 학설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서로 이질적인 두 세력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 시기의 역사상을 설명하면서, 후자가 여러 난관겨내고 전자를 극복함으로써 역사의 발전을 이룩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 뒤 커다란 지지와 학문적 영향력을 얻어온 이 이론은 지배세력의 교체와 역사의 발전을 정합시켜 설명함으로써 조선시대사의 전개과정을

적으로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그것은 일제시대 이후 번져간 식민사학(특히 당파성론(黨派性論)과 정체성론(停滯性論))을 학문적 차
서 극복함으로써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사상(韓國史像)을 수립하는데 중요하게 공헌했다.

이런 학문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만, 일정한 논리적 · 실증적 허점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 학설은 대체로 대신을 '훈구' 에 연결시키
사를 '사림' 과 동일시해 이 시기의 여러 양상을 해석해 왔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대신과 삼사는 그 임무가 본원적으로 달랐고, 그런 차
해당 관원의 개인적 성향이나 조건보다 일차적인 규정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관직은 매우 신속하고 복잡하게 변동했지만, 긴밀한 인적
성 위에서 운영되었다.

실제로 동일한 사람이 삼사일 때와 대신일 때 같은 사안에 상반된 의견을 개진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또한 출신 가문과 지역은 물론 사회
적 배경도 비슷할 것으로 볼 수 있는 형제끼리도 서로 비판하고 의견의 충돌을 빚는 경우도 보인다. 그때 그들은 각각 대신과 삼사로 근무하
었다.

이런 구체적 사례들은 '훈구' 와 '사림' 이라는 고정된 개념보다는 대신과 삼사라는 관직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 접근해야 할 필요를 알려
요컨대 임무의 고정성과 관직의 가변성, 그리고 인적 연속성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만 사화를 포함한 조선시대 정치사를 좀더 합리적이며 설
있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와 현실은 상호 영향의 관계다. 현실의 변화와 요구는 제도의 성립을 가져오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는 다시 현실을 바꾸어간다. [대
완성이라는 중요한 제도적 완성부터 조선 최초의 사화(1498, 연산군 4년)까지는 13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제도의 완성과 정치적 파국이라는
된 현상이 인접한 이런 국면은 그 본질을 깊이 탐구해야 할 필요와 흥미를 던져준다. 포괄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삼사라는 중요한 제도가 현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었다. 그 지난한 실험을 통과하면서 조선의 정치제도는 독자적이고 원숙한 면모를 갖추어갔다.

참고문헌: 에드워드 와그너, 이훈상 · 손숙경 옮김, [정치사적 입장에서 본 조선시대 사화의 성격],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정두희, [조선시대의 대간연구], 일조각, 1994;김범,
[사화와 반정의 시대], 역사비평사, 2007.

글 김범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선시대 정치사와 사회사를 전공하고 있다. 저서에 [사화와 반정의 시대](2007), [연산군-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2010), 번역서에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유형원과 조선후기](제임스 B. 팔레 지음, 2008)가 있다.

발행일 2012.01.19

[테마리스트]

사초를 매개로 삼사에게 경고한 조선 최초의 사화

무오사화

무오사화(戊午士禍)는 조선의 역사에서 '사화' 라는 이름이 붙은 첫 사건이다. 이것은 그 사건이 기존의 문제들보다 그만큼 독특하 인식되고 평가되었다는 방증이다. [경국대전]의 완성(1485, 성종 16년)부터 최초의 사화까지는 13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제도의 정비 등의 폭발이라는 상반된 현상이 인접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그 제도의 어떤 부분(또는 전체)이 현실에 쉽게 적용되지 못하고 마찰을 을 암시한다.

물론 무오사화에는 연산군과 유자광(柳子光)을 비롯한 일부 대신들이 개입했다. 이런 측면은 현대의 이론적 도움을 받아 '훈구' 와 돌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앞선 글에서 말했듯이 그 통설은 일정한 실증적 · 논리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연산군은 그때 정을 본격화하지 않았고, 뒤에서 보듯이 무오사화의 피화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런 측면들은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해야 려준다.

성종대의 정치적 유산

앞서 말했듯이 성종 때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경국대전]의 완성이었다. 그로써 삼사를 비롯한 주요 관서들의 기능은 국법에 보장된 으로 편입되었다.

이런 제도적 규정은 치세 중반 이후 삼사를 육성해 기존의 대신을 제어하려는 성종의 정치적 포석과 맞물리면서 점차 현실에도 적용 이 적절한 조정력을 행사하면서 대신과 삼사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체제가 형성된 것은 조선 전기 정치의 중요한 변화이자 발전이었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판은 좀처럼 제어되지 않으며, 계속 격화되는 속성을 가진다. 삼사의 활동도 그랬다. 성종 후반 삼사의 위상은 지 팽창했다. 붕어하기 직전 성종은 당시의 정국을 "두 마리 호랑이가 싸우는 것 같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라고 개탄했 종 25년) 5월 5일). 성종은 삼사의 활동을 제도로 보장하고 현실에서도 용인(과 후원)했지만, 현실적 갈등을 말끔하게 봉합하지 못한 감한 것이었다.

삼사의 위상 제고는 유교 정치의 이상에 다가간 의미 있는 발전이었지만, 국왕과 대신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현상이 분 직후부터 왕권 강화에 남다른 관심과 의지를 보이 연산군에게는 더욱 그랬다. 성종 후반부터 삼사의 강력한 탄핵에 계속 시달려온 의 생각에 동의했다.

국왕과 대신은 당시의 가장 커다란 폐단이 삼사라는데 합의했고, 그들의 행동을 '능상(凌上)' 으로 규정했다. '윗 사람을 능멸한' 이 단어는 연산군대의 거의 모든 사안을 관통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었다. 무오사화는 그 기준을 적용한 첫 번째 정치적 숙청이었다

정치적 갈등의 고조

치세 초반부터 연산군 · 대신과 삼사는 **수륙재**[1](水陸齋)의 시행, 외척 · 내시의 임용과 포상, 폐모(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추숭 사안에서 충돌했다. 스스로 인정했듯이 삼사는 연산군이 즉위한 이래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상소를 올려왔고(1496년 3월 14일), 사 기간은 57일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1497년 4월 25일).

삼사는 자신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 사직했다. 사직은 60~70번에서 1백 번까지 지속되기도 했다(1497년 6월 예전에 없던 현상이었다. 연산군도 이런 삼사의 행태에 큰 분노를 거듭 표명했지만, 그들은 좀처럼 제어되지 않았다.

대신과 삼사의 갈등도 증폭되었다. 특히 대신을 겨냥한 삼사의 탄핵이 매우 거칠어졌다는 사실은 유의할 만하다. 1497년(연산군 3년) 둥과 번개가 치자 장령(정4품) 이수공(李守恭)은 삼정승과 찬성이 사람답지 않기〔不人〕 때문에 재변이 일어난 것이라고 탄핵했다. 사간(종3품) 최부(崔溥)는 삼정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녹만 축내고 있다고 탄핵했다(2월 14일). 이런 삼사의 비판에 조금이라 신들은 즉각 사직했다.

삼사에 대한 대신들의 대응도 격화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영의정 노사신(盧思愼)이었다. 그는 대간을 하옥하라는 왕명을 ' 단" 이라고 칭송하면서 이런 대간의 습속은 현명한 군주가 뜻을 둔 뒤에라야 제거할 수 있다고 아뢰었다(1495년 7월 7 · 19일).

이런 노사신의 발언은 삼사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정언 조순(趙舜)은 "노사신의 고기를 먹고 싶다" 는 극단적인 표현을 년 7월 21일). 30세의 정언(정6품)이 70세의 전직 영의정에게 투사한 이 표현은 대신과 삼사의 관계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 하게 보여준다.

이로써 연산군대 초반 국왕 · 대신 · 삼사의 상호관계는 명확해졌다. 국왕은 삼사의 강력한 언론활동을 가장 심각한 폐단인 능상으로 ; 대신들은 거기에 깊이 공감했다. 국왕은 삼사의 언론을 계속 불만스럽게 생각했고 강력히 경고했지만, 삼사는 좀처럼 제어되지 않았 신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탄핵했고, 일부 대신들은 거기에 강력히 반발했다. 연산군대 최초의 커다란 정치적 파국인 무오사화는 국왕고 하고 삼사가 그 대척점에 자리잡은 상황적 맥락에서 발발한 것이었다.

사화의 시작

무오사화는 연산군 4년 7월 1일에 시작되었다.
파평부원군 윤필상(尹弼商), 선성부원군 노사신, 우의정 한치형(韓致亨), 무령군 유자광이 비밀스러운 일을 아뢰기를 청하고 도승지 신 에게 출입을 관장케 하니 사관은 참여할 수 없었다. ……곧 의금부 경력 홍사호(洪士灝)와 도사 신극성(愼克成)이 경상도로 급파되었 람들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다.
이 기록이 보여주듯이 사화는 소수의 대신들이 어떤 일을 비밀리에 보고하고 국왕이 재가하면서 급작스럽게 발발했다. 이렇게 시작된 달 27일 주요 연루자들의 처벌 내용을 확정해 전교(傳敎- 임금이 명령을 내림)함으로써 일단락 되기까지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 추국이 시작된 시점부터 계산하면 20일도 되지 않았다. 즉 그것은 돌발적으로 일어나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전격적으로 마무리된 사 다. 사건의 이런 외형은 무오사화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절제된 목표를 가진 정치적 숙청이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의 하

사화의 전개 1- 김일손의 사초

무오사화는 크게 세 단계로 전개되었다. 그 사건은 김일손의 사초에 세조와 관련된 불충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혐의로 시작되어, 그오 관원 · 선비들이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문제로 확대되었다가,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발견되면서 사제관계를 결성해 역사와 현실에 역심(逆心)을 품은 사건으로 규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김일손(金馹孫)은 의금부 관원들이 파송된 지 열흘만에 도성으로 압송되었고, 즉시 추국과 신문이 진행되었
김일손의 사초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된 부분은 세조와 관련된 서술이었다. 그것은 단종 · 사육신 · 소릉(昭陵- 단종의 모후인 현덕 〔顯
의 능) 같은 중대한 정치적 사안부터 홀로된 며느리를 취하려는 패륜에 가까운 세조의 개인적 행동까지 대단히 민감한 문제들을 건드
그리고 그 끝부분에서는 김종직이 과거를 보기 전에 꿈을 꾸고 느낀 것이 있어 [조의제문]을 지어 충분(忠憤- 충의 때문에 일어나는
부쳤다고 쓴 뒤 전문(全文)을 인용했다(7월 13일).

연산군은 이런 불충한 사초를 쓴 까닭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이것은 반심(反心)을 품은 것이 분명한데, 어째서 너는 세조의 후손이
는 조정에서 벼슬했는가?"

김일손은 반역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문제된 내용은 이런저런 사람들에게서 들었
거나 자신의 소박한 판단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정보를 제공했다고
김일손이 지목한 인물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신들의 말을 김일손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반박했다(7월 12 · 13일). 사실은 쉽게 확인
되지 않았고, 책임의 소재는 혼미해졌다.



조선의 9대 국왕인 성종의 치세를 기록한 실록이다.
(연산군 1년) 영의정 노사신 등의 건의로 편찬에 착
년 3월에 인쇄가 완료되어 사고에 봉안되었다. 편찬
1494년에 김일손이 제출한 사초와 거기에 실린 김종
의제문' 은 무오사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출처
앙연구원〉

그동안 거의 모든 논란의 핵심에 서 왔던 삼사가 등장한 시점은 이때였다. 이번에
도 그들의 논점은 국왕의 판단과 상당히 어긋났다. 홍문관과 예문관은 사초의 내
용보다는 국왕이 실록을 열람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좀더 중시한 것이었다. 그러
자 연산군은, 사화의 본질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발언인데, "반드시 어떤 사정
(事情)이 있기 때문" 이라면서 즉시 국문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의 행동대로 대
간은 홍문관과 예문관의 만류는 그 직무상 당연한 일이라고 변호했지만, 국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7월 13일).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문제될 소지가 객관적으로 농후한 상황에서
도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왕의 행동을 저지한 삼사의 자세는 달리 생각하면 피의
자들을 감싸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일단은 "어떤 사정" 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했지만, 연산군은 그런 측면을 간과하지 않았다. 이런 국왕의 생각
은 그 뒤 좀더 분명하게 실체를 드러내면서 이 사화의 본질을 구성했다.

사화의 전개 2-붕당의 단초

사화는 김일손의 사초에 담긴 불온한 내용의 출처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확대되었다(이하의 내용은 7월 14일). 국왕과 주요 대
연루된 인물들의 집을 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거기서 이목(李穆)과 임희재(任熙載. 임사홍의 넷째 아들)가 주고받은 편지가 발견되었
는 현실 정치와 국왕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다(현재의 통설에 따르면 대표적인 '훈구세력' 으로 분류될 임사홍의 아들인 임희재
깊이 연루되었다는 이런 사실도 그 통설에 일정한 실증적 허점이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 증거를 본 연산군은 "이제 군소배(群小輩)가 붕당을 만들어 재상과 국사(國事)를 비판하니 통렬히 징계해 그 풍습을 개혁하라"
국왕은 이 사건이 김일손이라는 개인의 사초에서 발원한 고립적 문제가 아니라 그와 교유한 일군의 집단이 붕당을 결성해 국사와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그런 연관의 혐의를 그동안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걸림돌이었던 삼사까지 확장했다. “실록을 열람해서는 안된다는 말 러날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사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삼사가 붕당에 관련되었다는 의심도 점차 짙어지고 있다는 이런 측 념할 필요가 있다.

윤필상 등 사화를 주도한 대신들도 국왕의 판단에 동조했다. 이로써 김일손이 압송된 지 사흘 만에 사화의 범위는 상당히 확대되었 변화했다. 국왕과 대신은 이 사건을 일군의 집단이 붕당을 결성해 국사와 재상을 비난한 범죄로 파악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측면 는데, 거기가 삼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판단도 조금씩 구체화되어 갔다. 이제 조선 최초의 사화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그 [조의제문]의 발견과 해석이었다.

사화의 전개 3- [조의제문]의 발견과 해석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글 중의 하나일 [조의제문]은 김일손이 압송된 지 나흘만에 사건의 전면에 등장했다(7월 15일). 그것은 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 존재는 이미 이틀 전 김일손의 공초(供招-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함)에서 알려진 상태였다 틀 동안 그 문서는 그 진의가 분석된 뒤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된 것이었다.

그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유자광이었다. 그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발견한 뒤 구절마다 풀이해 이런 부도(不道)한 말을 한 사람을 벌하고, 그 문집과 판본을 소각하며 간행한 사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 김종직의 영정. 그는 항우에게 죽 김종직의 시문집 [점필재집]. ‘점필재(□畢齋)’는 김 음을 당한 회왕을 추모하는 ‘조의제문’을 통해 세조의종직의 호다. 무오사화를 겪으며 김종직의 글 대부분이 왕위찬탈을 비난하였으며, 생전에 작성한 이 글로 인해 불타버린 가운데 남은 글들을 수습하여 간행한 것이 현 김일손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이 대거 사화에 연루되어 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출처:한국학중앙연구원〉 고초를 겪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무오사화의 발생과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신하는 유자광이었다(물론 최종적이며 최대의 결
사람은, 왕정의 원리와 맞물려, 국왕인 연산군이었다). 일찍이 성종 때 유자광은 김종직과 묵은 원한이 있었는데, 이극돈(李克墩)이
와 관련된 문제를 상의하자 그 사건의 함의를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감지해 사건의 확대를 주도했다(7월 29일).

그는 김종직의 문집에서 [조의제문]을 지적해 추관(推官- 형조의 관리)들에게 두루 보이면서 "이것은 모두 세조를 지목한 것이니,
은 모두 김종직이 가르쳐 이룬 것" 이라고 말하고는 즉시 주석을 달고 구절마다 해석해 국왕에게 쉽게 알도록 했다(7월 29일).

즉 그는 김종직과 김일손의 연결고리를 발견함으로써 사초에 나타난 불온한 생각의 연원을 찾아냈고, 피의자들을 김종직의 제자라는
안에 포획한 것이었다. 국왕은 [조의제문]에 대한 유자광의 해석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세조께서 일찍이 김종직을 불초(不肖)하다고
종직은 그것을 원망해 이렇게 글을 지어 기롱하고 논평한 것이다(7월 16일)."

이로써 그동안 다소 혼미했던 사건의 진상은 분명해졌다. 이 사건은 김종직의 문하에서 교육받은 일군의 집단이 스승의 불온한 생
그들 내부에서 교류하고 확대함으로써 역사와 현실을 부정한 범죄로 규정된 것이었다. 이제 필요한 일은 그 교유의 범위, 즉 붕당의
내는 것이었다.

심문과 진술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국왕은 "사악한 잡초(邪穢)를 깨끗이 없앨 작정" 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고 대신들은 "성상의
다" 면서 전적으로 호응했다(7월 17일).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사악한 잡초' 로 표현된 관련자들의 범위를 논리적 수사와 강압적
확정하는 것이었다. 그 대체적인 얼개는 김종직의 제자들과 임희재가 '선인(善人)' 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었다.

김일손은 신종호(申從濩) · 조위(曺偉) 등 김종직의 제자 25명의 명단을 밝혔다(7월 17일). 이극돈의 진술(7월 19일)과 [조의제문]에
이뤄졌다. 연루자들을 확정해 형량을 선고하는 최종적 결론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도출되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안에서 중요한 발
삼사가 다시 등장한 것은 이 시점이었다.

삼사의 연루

앞서도 삼사는 실록을 열람하려는 국왕의 행동을 저지했고, 국왕은 그들에게 '어떤 사정' 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혐의를 둔 바 있
그런 의심은 곧 확실한 증거를 얻었고, 즉각적이며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졌다. 그 계기는 김종직에게 적용할 사후(死後)의 형벌을 결
다. [조의제문]이 발견되어 그 함의가 해석된 뒤 정문형(鄭文炯) · 한치례(韓致禮) · 이극균(李克均) 등 거의 모든 신하들은 김종직이
므로 **부관참시**[2](剖棺斬屍)의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거기에 제동을 건 집단은 대간이었다. 집의 이유청(李惟淸)과 사간 민수복(閔壽福) 등은 [조의제문]이 매우 부도하
참시해도 부족하다고 전제했지만, 이미 죽었으므로 작호를 추탈하고 자손을 폐고(廢錮)시키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
이다. 앞서와 비슷하게, 대간의 기본적인 입장은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법률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연산군은 이런 대간의 태도를 앞서 의심했던 '어떤 사정' 의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는 대간의 상소에 표시를 달아
이면서 "김종직의 대역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이렇게 논의하니 비호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고 대노했고, 즉시 체포해 국문하라고 지시
삼사가 모두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나장(羅將- 의금부에 소속된 사령) 10여 명이 철쇄(鐵鎖)를 가지고 한꺼번에 들려드니 모두

다(7월 17일)."

이것은 이 사화에서 삼사가 직접 처벌된 최초의 사례라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만하다. 나흘 전 실록의 열람에 반대했을 때와 마찬
대간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므로 극한적인 추죄(追罪)는 불필요하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산군은 바로 그런
김종직 일파와 붕당으로 연결되어 비호하려는 확증으로 파악했다. 국왕은 대간에게 형장을 때리고 신문하라고 지시했다(7월 21일).

이 사건을 계기로 사화의 주요한 처벌 대상은 김종직 일파와 삼사라는 두 부류로 좁혀졌다. 그들의 공통된 죄목은 서로 붕당을 맺어
과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었다. 연산군은 이 계기를 이용해 그동안 불만스러웠던 대간의 행태를 일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제 대
는 대체를 아는 자를 선발해야 하며, 이전의 대간처럼 불초하거나 연소한 자들은 절대 임명하지 말라(7월 24일)."

나아가 국왕은 국무에 관련된 발언과 기록 전체를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연산군은 승정원에서 출납하는 공사(公事)를 누설해서는 안
에게 하교했으며, 기록을 맡은 주서청(注書廳)에는 조정 관원들이 번잡하게 출입해 모든 공사를 알게 되니 앞으로는 출입을 금지시
다. 사관은 이 조처가 나랏일을 비판한 김일손의 행태를 연산군이 대단히 싫어했고, 외부인들이 김일손에 관련된 일을 알지 못하게
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7월 26일).

요컨대 김일손과 김종직의 불온한 문서에서 촉발된 사화에는 삼사도 적지 않게 연루된 것이었다. 전자의 죄목은 사제 관계를 매개로
에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고, 후자는 그런 그들과 붕당을 맺어 비호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즉 그들의 공통된 죄목은 붕당과 능
왕은 이 사화를 계기로 삼사의 행동을 교정하고 새로운 선발 지침을 하교함으로써 그동안 가장 불만스러웠던 집단을 자신의 의도와
려고 시도했다. 이런 측면은 사화의 마지막 단계인 연루자들의 처벌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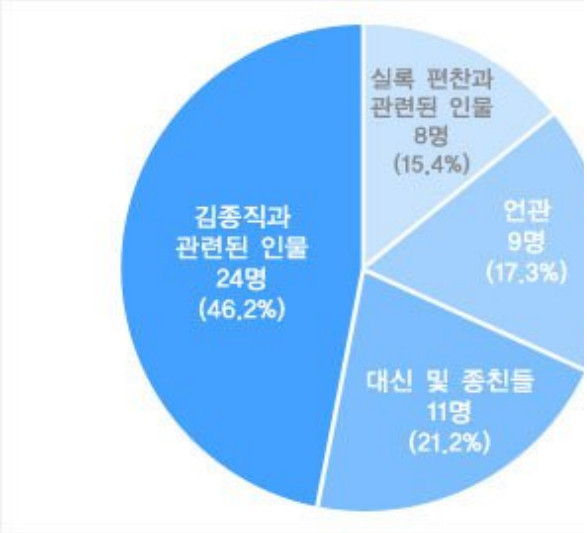
연루자들의 처벌

처벌은 신속하게 집행되었다. 우선 김종직의 문집과 그 판본을 전국에서 수거해 소각했다(7월 17일). 특히 중앙에서는 조정 관원들이
종직의 문집을 모두 압수해 궁궐의 뜰에 죄수들을 모아놓고 불태우는 '의식'이 거행됐다(7월 22 · 23일).

연루자들의 형량은 곧 결정되었다(7월 26일). 대상은 모두 52명이었는데, 사형 6명(11.5%), 유배 31명(59.6%), 파직 · 좌천 등이 15명(2
류되었다. 이런 실제의 형량은 조선 최초의 사화라는 거대한 상징성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무거운 형벌인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사후에 처벌된 김종직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욱 줄어든다)은 앞서 말한 대로, 이 사화가 상당히 제한적인 숙
후의 전체에게 상징적인 경고를 보내려는 심층적 의도를 가진 사건이었다는 판단의 중요한 논거가 될 것이다.



무오사화 피화인의 형량



무오사화 피화인의 구성

피화인(被禍人)들의 구성 또한 유의할만하다. 그들 중에서 김종직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은 24명(46.2%)으로 절반에 약간 못 머지는 언관(9명, 17.3%)이나 실록의 편찬에 관련된 부류(8명, 15.4%), 또는 대신과 종친들이었다(11명, 21.2%). 이 사화의 주요한 기 는 이극돈도 파직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무오사화의 피화인에서 김종직 일파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절반을 넘지 않 적으로는 그들과 무관한 부류가 오히려 더욱 많았던 것이다. 이런 측면 또한 이 사화의 표면적 요인과 처벌 대상은 사초와 김종직 일 내면적 의도는 다른 부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증이 될 것이다.

사화의 분석

사화의 조짐은 그것이 일어나기 1년 전쯤부터 감지되었던 것 같다. 단편적인 사례지만, 1497년 8월 4일(계유) 시강관 이과(李顆)는 서는 대간의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까지 하시니 앞으로 대간을 죽이는 일이 있지 않을까 두렵다" 고 말했다.

앞서 보았듯이 국왕과 주요 대신들은 당시 삼사의 행동에 매우 커다란 불만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그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을 노리고 있었다.

[연산군일기]에서는 그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상이 사화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뭉치게 하고 국왕을 항상 울분에 게" 만들어왔다고 썼다. 김종직 일파는 문건이 발견된 이후 그런 집단과 합치되는 부류로 지목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실체가 드러나 었다. 그 집단은 "명예를 노리고 윗사람을 업신여기며 국왕의 행동을 제어하는 문신(또는 문사)들" 이었다.

그들의 실체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는 우선 신수근이 기화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 유자광과 이극돈은 김종직 · 김 개인적 원한이 분명히 있었지만, 신수근은 그렇지 않았다. 그가 증오한 대상은 자신의 출세에 반대한 삼사였다. 즉 신수근은 사초 문 원한스럽게 새겨두었던 삼사의 지난 행동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사화의 확대에 유일하게 반대한 노사신의 발언도 중요하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는 사초 문제로 촉발된 사건이 유자광의 주도로 사람들까지 대거 투옥되는 사태로 번지자 그런 변질을 강력하게 저지했다. 그가 보호하려던 부류는 "조정에서 청론(淸論)하는 선비 이었다.

이 사화에 삼사가 중요하게 연루되었다는 정황은 연산군과 대신들의 발언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사화를 마무리한 직후 국왕은 그 원인과 책임을 대간에게 돌렸다. "선비들이 결탁해 붕당을 만들어 악행을 저질렀지만, 대간이 용렬해 탄핵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초의 한 것이다(8월 3일)."

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 대간이 처벌되었다는 사실을 경고하듯이 상기시켰다. "요즘 대간이 망령되게 종묘 사직의 중대사를 의논하 받았다(8월 7일)." 즉 연산군은 그동안 거의 모든 국사에 개입해 온 삼사가 정작 김종직 일파의 역모적 사건처럼 진정으로 중요한 지 못했거나 그들을 옹호하려는 그릇된 붕당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옥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주요한 처벌 대상이 되었 이었다.

사건 직후 유배된 대간을 석방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문형 · 한치형 · 성준 등 대신들은 "언관들이 죄는 크지 해 잘못 생각한 것이니 용서하자" 고 건의했다(11월 10일). 사건 1년 여 뒤 영의정 윤필상 등 삼정승도 "무오사화 때 대간이 잘못된 죄로 처벌되었지만 다른 뜻은 없었으니 용서하자" 고 아뢰었다(1499년 10월 7일). 대신들도 이 사화로 언관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정한 것이다.

요컨대 무오사화는 김종직 일파와 삼사라는 두 집단을 동시에 처벌하고 경고한 복합적인 사건이었다. 치세 직후부터 삼사와 끊임없이 왕과 주요 대신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권력 행사가 제한되는 불만스러운 상황을 타개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김일손의 사초가 발견된 것은 바로 그 시점이었다. 기화세력은 김종직 일파와 삼사를 능상과 붕당이라는 공통된 죄목으로 연결시켰고 논리를 현실적 숙청으로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사화의 발발에 동의한 신수근의 행동과 처벌의 확대에 반대한 노사신의 판단은 그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처럼 치밀하고 정교한 정치적 고려와 행동을 구사한 기화세력은 이 사화를 전면적인 숙청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제한적이며 상징적 무리했다. 물론 그런 경고의 궁극적 대상은 이 사건의 심층적이며 본질적인 원인인 삼사였다. 삼사의 그릇되고 과도한 언론활동을 교 공통된 목표 아래 서로 제휴한 국왕과 대신들은 이로써 의미 있는 일차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왕과 신하라는 본질적인 차이상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삼사를 일단 제압한 연산군이 자신 향을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 괴리는 더욱 커졌고, 정치세력의 상호관계와 정국의 전개양상도 크게 변화했다. 이런 결과는 갑자사화라는 더 큰 파국이었다.

참고문헌: 에드워드 와그너, 이훈상 · 손숙경 옮김, [정치사적 입장에서 본 조선시대 사화의 성격],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권연웅, [연산조의 경연과 사화], [구곡 황종동교수 정년기념 사학논총], 1994;김범, [연산군– 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 글항아리, 2010.

1. **수륙재**(水陸齋): 국왕의 구병(救病)이나 장수 · 명복 등을 비는 목적으로 드리는 불교식 제례.
2. **부관참시**(剖棺斬屍): 죽은 사람의 관을 부수고 시체의 목을 베는 형벌.

글 김범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선시대 정치사와 사회사를 전공하고 있다. 저서에 [사화와 반정의 시대](2007), [연산군-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2010), 번역서에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유형원과 조선후기](제임스 B. 팔레 지음, 2008)가 있다.

[테마리스트]

폭정과 황음에 빠진 국왕이 자행한 거대한 폭력

갑자사화

1504년(연산군 10년)의 갑자사화는 6년 전의 무오사화와 여러 측면에서 사뭇 다른 사건이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239명(사형 · 부 51.1퍼센트)이라는 피화인의 규모가 보여주듯 전면적이고 가혹한 숙청이었다. 또한 무오사화가 국왕과 대신이 연합해 주도한 제한적 주어 갑자사화는 폭정과 황음(荒淫)에 침윤되어가던 국왕이 신하 전체를 대상으로 자행한 거대한 폭력이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폭 점을 형성했다.

강화된 왕권

무오사화 이후 중앙 정치가 변화한 것은 자연스러웠다. 가장 주요한 현상은 삼사의 위축이었다. 국왕이 대간을 날로 심하게 제압하자 에 임명되기를 꺼려 결국 유순하고 나약한 성품을 가진 김영정(金永貞)이 대사헌에 발탁되었다는 기사는 그런 정황을 잘 보여준다(1 일). 연산군은 "오늘에야 대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면서 이런 변화를 흡족해했다(1498년 7월 15일).

이처럼 사화 이후 삼사가 상당히 온순해짐으로써 국왕(과 대신들)은 자신의 정치적 구상을 한결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에서 국왕은 결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그는 강화된 왕권을 정치나 제도의 개혁 같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사치 · 사냥 · 연회 · 음향 적인 사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연산군은 후자와 관련된 자신의 욕망을 제한 없이 실현하는 것이 바로 능상의 전제적인 왕권의 행사라는 자신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관건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뛰어난 지도자와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질적 사안과 지엽적 문제를 정확히 구분해 인력과 재원을 효 시키는 능력이다. 이런 중대한 판단 착오는 연산군을 폭군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논거가 될 것이다.

왕권의 일탈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은 사치 · 사냥 · 연회 · 음행의 탐닉, 금표(禁標) 설치와 민가 철거, 발언의 통제 같은 일탈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런 행위의 궁극적인 결과는 정무의 태만과 지나친 재정 지출에 따른 민생의 파탄이었다.

재정 지출은 무오사화 이듬해인 1499년부터 세출(20만 8522석 1두)이 세입(20만 5584석 14두)을 초과했다. 1501년(연산군 7년)에는 이른바 '신유공안(辛酉貢案)' 을 제정해 기존의 공납을 크게 늘림으로써 민생의 부담과 재정의 유용은 급격히 늘어났다.

정무에 태만한 것은 당연했다. 국왕은 사냥 · 연회 · 음행 등을 더욱 거침 없이 즐겼다. 또한 그런 방종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궁궐 주변의 민가를 철거하고 국왕에 관련된 발언을 철저히 통제했다. 이런 현상은 재위 8~9년부터 크게 증가했다.

갑자사화 이후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만, 신하들은 아직 간쟁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었다. 왕권의 일탈이 심각해질수록 간언도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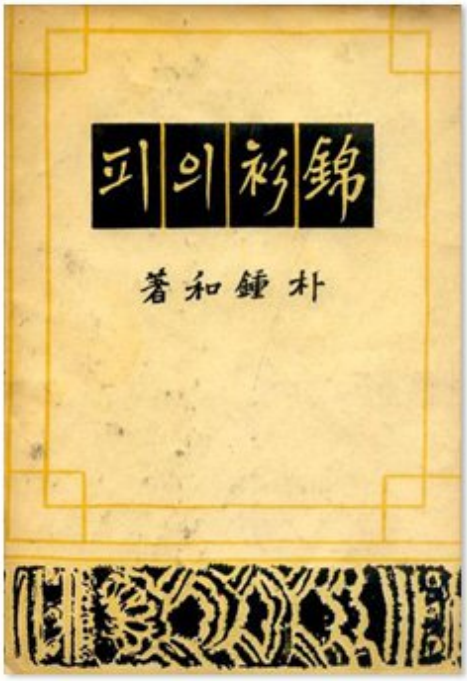


조선의 제 10대 국왕 연산군의 치세를 기록한 [연신
표지다. 1506년(중종 1년) 11월에 편찬이 시작되어
종 4년) 9월에 완성되었다. 폐위된 국왕의 기록이기
'실록'이 아닌 '일기'로 불렸다.

삼사와 대신의 간쟁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이 집중한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확연한 것이었다. 삼사는 다시 간쟁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오
었던 삼사가 재기할 수 있었던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연산군이 제공한 것이었다.

좀더 주목되는 측면은 대신들의 태도 변화였다. 대신들도 국왕의 일탈을 자주 강력히 간쟁했고, 결과적으로 삼사와 비슷한 입장에 서
다. 본원적으로 긴장과 비판의 관계에 있던 대신과 삼사가 같은 의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폭정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두번의 사화를 주도한 연산군의 시대는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아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였다. 1935년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박종화의 역사소설 [금삼의 피] 또한 갑자사화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대신들이 본격적으로 간언에 참여한 시점은 1499년(연산군 5 그 해 3월 27일 좌의정 한치형, 우의정 성준, 좌찬성 이극균, 건, 좌참찬 홍귀달, 우참찬 신준 등 주요 대신들은 10개 항0 상소를 올렸다. 그 핵심은 국왕의 사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년(연산군 8년) 3월에 삼정승 한치형 · 성준 · 이극균이 올린 10조도 주목된다. 그 제목대로 당시의 폐단을 집약한 그 상소 한 재정 유용의 중지였다.

대신과 삼사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국왕은 점차 고립되었 국왕은 이런 변화의 원인을 성찰하지 않았고 그런 결과에 더 만을 느꼈다. 그는 무오사화가 간접적 경고에만 그쳤기 때문 폐단이 삼사뿐 아니라 대신들에게까지 만연된 것이라고 분석 서 이제는 무차별적이고 직접적인 숙청이 필요하다고 결단하

갑자사화를 꼭 1년 앞둔 시점에서 연산군은 능상의 해악이 신 에 만연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대간의 말을 들어주 정승이 말하고, 정승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육조가 말한다. 위에서 하는 일이라면 기어이 이기려고 해서 쟁론이 끝이 없다 간이 사체를 헤아리지 않고 말하는데 대신도 따라서 말하니 줄 수 없다" 고 지적했다(1503년 3월 16일). 고립된 국왕의 분 한 숙청으로 이어졌다.

사화의 촉발

널리 알듯이 갑자사화의 발단은 국왕의 하사주를 이세좌(李世佐)가 엎지른 실수(1503년 9월 11일)와 손녀를 입궐시키라는 왕명을 홍 즉시 따르지 않은 사건이었다(1504년 3월 11일). 연산군은 이런 대신의 행동을 능상의 표본으로 지목했다.

주목할 사항은 이번에도 국왕의 근본적 분노는 삼사를 향해 있었다는 것이다. 연산군은 이런 무엄한 능상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삼사를

능상에서 촉발된 사건은 곧 폐모 사건의 보복으로 번졌다. 3월 20일 연산군은 성종에게 참소해 폐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한 아들 안양군(安陽君)과 봉안군(鳳安君)을 창덕궁으로 압송해 폭행했다. 아울러 사건의 전말을 조사했는데, 공교롭게도 갑자사화의 발단 인물인 이세좌와 홍귀달이 모두 연루되어 있었다(이세좌는 사사할 때 승지였고, 홍귀달은 폐비할 때 승지였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은 능상의 연원이 깊고 오래며 그 실체는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이라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을 것이다.

사화의 분석

갑자사화의 규모와 방식은 매우 거대하고 참혹했다. 피화 대상은 현직 대신과 삼사를 아우른 거의 모든 신하들을 넘어 이미 사망한 대되었으며, 그 방식도 일반적인 처형 외에 부관참시, **쇄골표풍(碎骨飄風)**[1], **파가저택(破家瀦宅)**[2]처럼 극한적인 형벌이 적용되었다

239명의 피화인 중에서 사형과 옥사(獄死) · 부관참시의 극형을 받은 부류는 절반이 넘었다(122명, 51.1%). 이것은 무오사화보다 압

(그 피화인은 모두 52명이었고 그 중에서 사형은 6명이었다).

피화인을 관직에 따라 나누면 대신(20명. 17.9%)보다 삼사(92명. 82.1%)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질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대신의 피 명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사화의 발단을 제공한 두 인물이 모두 대신이었고, 연산군이 '갑자육간(甲子六奸)'이라고 지목한 이극균(좌 (예조판서) · 윤필상 · 성준 · 한치형(이상 영의정) · 어세겸(좌의정)은 모두 당대 최고의 대신들이었으며, 부관참시된 한명회 · 정창손 · 심 정) · 이파(찬성) 등도 전대를 대표하는 훈신이었기 때문이다.

갑자사화와 관련해 흥미로운 양상 하나는 이런 직접적인 극형과 함께 재산 몰수라는 경제적 처벌도 병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의 고갈된 재정을 보충하는 것이었다. 재산 몰수는 추쇄도감을 따로 설치할 만큼 철저히 진행되었고 대부분 국고로 귀속되었다.

폭정과 폐위

200명이 넘는 대규모의 인원을 참혹한 방법으로 처벌하는 거대한 폭력으로 신하들을 완벽하게 제압한 연산군은 그 뒤 자신의 욕망을 지 않고 자유롭게 현실화할 수 있었다. 반정으로 폐위될 때까지 꼭 2년 반 동안 연산군이 보여준 행태는 황음(荒淫- 함부로 음탕한 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갑자사화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정치적 비극의 하나일 것이다. 그 사건은 조선의 중앙정치에서 항존했던 수많은 정치적 숙 여러 측면에서 두드러진 차별성을 가졌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갑자사화에서 가해자는 국왕 한 사람이었으며 피해자는 대신과 삼사를 중심으로 한 거의 모든 신하들이었다는 사 말해서 그 사건은 '선비(사림)들의 피화'라는 의미의 '사화'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묶인 무오 · 기묘 · 을사사화와도 여러 측면에서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무오사화는 국왕과 일부 대신들이 김종직 일파를 명분으로 삼사에게 경고한 사건이었다. 뒤에서 살펴볼 기묘사화(151 중심으로 한 기묘사림의 급진적 개혁정치를 정지시킨 국왕과 대신들의 전격적인 숙청이었으며, 을사사화(1545)는 주로 신하들끼리의 이런 측면은 각 사화를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그 사건들을 매개로 한국사의 중요한 통설의 하나로 자리 사림론'을 재고해야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요컨대 갑자사화는 수많은 정치적 숙청 중에서도 대단히 처참하고 기이한 사건이었다. 무오사화의 원인과 본질이 상당히 복잡하고 심 견주어, 그것은 권력의 자의성(恣意性)과 자율성을 혼동하면서 전제왕권의 몽상과 황음에 침윤되어가던 국왕이 행사한 폭력의 극점이 다. 실제로 그렇게 됐지만, 그런 거대한 만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수단은 강제적인 폐위밖에 없었을 것이다.

연산군의 폭정으로 조선의 중앙 정치는 개국 이후 가장 심각한 파탄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거치면서 삼사의 위상은 더욱 강 이은 기묘사화가 삼사의 영향력이 가장 증폭된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런 측면을 뒷받침한다. 연속된 사화는 한 제도가 현실에 되는 과정의 지난함을 표본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문헌: 에드워드 와그너, 이훈상 · 손숙경 옮김, [정치사적 입장에서 본 조선시대 사화의 성격],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송수환, [갑자사화의 새 해석], [사학연구] 57, 1999;김범, [연산군- 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 글항아리, 2010.

1. **쇄골표풍**(碎骨飄風): 뼈를 부숴 바람에 날리는 형벌.
2. **파가저택**(破家瀦宅): 집을 파괴하고 그 터에 물을 대 연못으로 만드는 형벌.

글 김범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임진왜란,420년 전 이 땅을 피로 얼룩지게 했던 슬픈 역사

2013.01.25 23:06

임진왜란,420년 전 이 땅을 피로 물들인 역사

되 뇌이고싶지 않은 치욕의 역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日 외상〉

수일 전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日 외상이 독도와 관련,"할 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요. 그는 1월24일 오후 중의원 본회퓻【□ 행한 올해 외교방침 연설에서 한국과의 외교 관계와 관련,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인 만큼 미래지향적으로 대국적 견지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서 그는 작심한 듯 독도 영유권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끈기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日 외상의 도전적인 이번 발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니,이를테면 임진년에 보내온 일본의 망언 1호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42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수모를 다시 한번 돌아 보고, 향후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이 불행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한.중.일의 오늘과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평화로운 우리의 미래를 바라는 뜻에서 가급적 소상히 역사의 뒤안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은 1592년(임진년, 선조 25)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부터 시작되어 1598년(선조 31)까지 6년간 이어진 전쟁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왜란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국가 간의 전쟁' 이므로 이러한 명칭은 옳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은 개전 초반에 한성을 포함한 한반도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였으나,개전 1년여만에 창원 이남으로 패퇴하였으며, 결국 조선군과

의병의 강렬한 저항, 명나라의 지원,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조선수군의 대 활약상 등에 의해 완패하여 완전히 철수하였던 조.일 전쟁이었으며,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왜군을 물리친 3국간의 전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제1차 침략을 **임진왜란**, 1597년의 제2차 침략을 **정유재란**(丁酉再亂)이라고 구분했습니다.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당시의 연호를 따서 **분로쿠 · 게이초의 역**(文祿・慶長の役)이라고 부르고 있으며,중국에서는 당시 명나라 황제였던 만력제의 호를 따 **만력조선전쟁**(萬曆朝鮮戰爭),또는 **만력동정**(萬曆東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북한의 학자들은 임진왜란을 **임진조국전쟁**(壬辰祖國戰爭)으로 칭한다 합니다. 여하튼 임진왜란은 조선시대 최대의 사건이었으며 정치 · 문화 · 경제와 일반 백성들의 생활과 언어, 풍속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군의 침략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15세기 후반부터 유럽 상인들이 일본에 들어와 신흥 상업도시가 발전되어감에 따라 종래의 봉건적 지배권을 강화하던 시기,국내 통일에 성공한 일본은 센고쿠 시대(사회적,정치적 변동이 계속된 내란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무렵 난립한 다이묘(지방의 영토를 소유,권력을 누렸던 영주)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외부로 방출시킴으로써 국내 안정을 도모하고,신흥 상업세력의 억제를 위하여 대륙을 침략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590년 센고쿠 시대를 종식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가 간파쿠(關白 : 일본 천황을 대신 정무를 총괄하는 당시 최고의 관직) 자리를 그의 양자인 도요토미 히데쓰구(豊臣秀次)에게 물려주었던 것은,도요토미 히데요시 당자는 신분이 미천하여 쇼군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태합(太閤)이라 칭하고,야욕을 동아시아 정복으로 확장하려 했다는 설도 있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 진출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1585년이며,쓰시마 도주에게 조선정벌 준비를 명한 때는 이미 1587년의 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 출병했던 다이묘들은 대부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충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왜란 이후 도요토미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조선에 출병하지 않았던 대표적 다이묘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쉽게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도요토미는 1591년 쓰시마 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를 통해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 등을 사신으로 파견,가도입명(假道入明 : 명나라를 정복하려 하니 조선이 길을 내 달라.)이라는 침략명분으로 삼았지요. 그러나 조선은 명나라와 오랜 동맹을 적으로 돌릴 수 없었고,일본이 명나라를 정복할 때 조선의 길만 빌릴 리가 만무하여 왜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도요토미는 재차 대마도주를 통해 교섭을 청하였고 교섭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침략할 뜻을 내비치며 조선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선 조정에서는 1590년(선조 23년)에 교섭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일본의 실정과 도요토미의 저의를 살피기 위하여 황윤길(黃允吉)을 통신사로,김성일(金誠一)을 부사(副使),허성(許筬)을 서장관(書狀官 : 기록 담당)으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하기에 이릅니다. 1591년 음력 3월 통신사 편에 보내온 도요토미의 답서에는 정명가도(征明假道)란 문자가 있었기에 그 침략의도가 분명하였으나 조선의 사신으로 파견된 관리들의 견해는 당파로 인해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당시 서인을 대표했던 황윤길은 '반드시 병화(兵禍)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으나 동인을 대표한 김성일은 '그러한 정황이 없다'며 황윤길의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조정은 물론 민심을 동요하게 하는 등 당파싸움이 망국의 길로 치닫게 했습니다. 이에 당시 집권세력으로서 백성들의 동요를 원하지 않았던 동인의 조선조정은 침략기미가 없다는 김성일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지요. 조선조정이 국론을 통일하지 못한 채 갑론을박하는 동안 일본의 침략계획은 무르익어 갔던 것이나,무능한 조선조정에도 왜의 침략을 예견한 유성룡 등이 이순신과 원균을 천거하여 수군을 정비,전란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상황

이쯤해서 조선의 정치상황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는 개국 후 100여년 동안 창업을 주도했던 개국공신,이후 세조의 집권을 도왔던 공신집단,그 후손들로 형성된 훈구파 세력과 더불어 왕조의 안정과 융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훈구파의 장기집권으로 부패가 심해졌고,변화를 추구하던 사림세력이 등장하여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사회질서의 재정립을 강조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신진 사림세력과 기존의 훈구세력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되었고,이러한 마찰은 성종대에 이르러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파를 삼사의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표면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중엽에 이르는 근 반세기 동안에 무오사화,갑자사화,기묘사화,을사사화 등 네 차례에 걸친 사화(士禍 : 조선 시대, 당파 싸움으로 사림 출신의 조정 관리 및 선비들이 반대파인 훈구파에게 몰려 탄압을 받은 사건)가 일어나 사림파 신진 세력들은 큰 타격을 받는 가운데 정국이 부침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국불안의 영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 신분제도와 군역제도가 무너지면서 권문세도가에 의한 농장의 확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이와 때를 같이하여 공납제도까지 문란해지는 등 사회 전반이 동요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무렵 조선조정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실 척신들의 정권 쟁탈전이라 할 수 있는 을사사화(乙巳士禍 : 1545년 문정왕후의 아들 환이 명종에 즉위) 가 발생하였으며 사림세력 역시 내부분쟁으로 인해 상호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났지요. 그 후 명종이 모후의 섭정에서 벗어나 직접 왕권을 행사하게 되자 외척 세력이 정치의 중심에서 제외되었고, 명종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신진 사림세력이 국정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신진 사림세력은 선조대에 이르러 다시 동인,서인 양대세력으로 분열되어 정국불안이 거듭되던 시기였습니다.

한편 조선외교는 일본과 교린(交隣)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대원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말부터 왜구는 한반도 해안지대를 빈번하게 침범.약탈하였기 때문에,조선조정에서는 수군의 군사력강화를 위해 대포와 전함 등을 대량 생산하여 왜구를 소탕해 왔으나, 그래도 왜구의 약탈이 계속되자 이를 보다 근원적으로 방비하기 위해 1419년(세종 1년),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항복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탈이 어려워진 일본이 평화적인 무역관계를 요청해 오자,부산,울산 등 일부 항구 등을 개방하여 교류하는 한편,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며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

조선과 명나라 관계를 도약할 수 없는 일,양국관계는 '책봉-조공체제' 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기본적으로 책봉-조공 체제하에 조선이 명나라를 섬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군신 · 상하관계였으므로 조선은 제후국으로서 예절과 명분에 합당한 불평등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명나라 황제에 의한 조선 국왕 책봉의 수용, 명나라 연호(年號 : 군주 국가에서 임금이 즉위하는 해에 붙이던 연대적인 칭호)의 사용, 정례적인 조공 등 제후로서의 의무 등이 부과되었지요. 하지만 명나라의 조선에 대한 사소한 내정간섭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사학계의 주된 견해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태조의 조선국왕 인정문제와 여진족문제,조공문제 등으로 양국간 크고 작은 분쟁이 잦았으며,특히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요동 정벌을 계획하면서 명나라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15세기까지는 명나라와의 조공관계하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대결을 시도할 정도로 주체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16세기에는 사대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이 많아졌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명에 대한 사대주의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양국관계가 평화롭게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은 명나라에 연간 3회 이상의 조공을 주장하면서까지 자주 접촉아여 그들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조.명 양국간 통상은 15세기 말부터 조선의 농업발달로 중국산 견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명나라로부터 대량의 비단과 원사가 유입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간 무역이 활발했던 것은 조선의 은광개발과 일본으로부터의 은 유입을 가속화했으며,이러한 은이 매개체가 되어 조 · 명 · 일 삼국 사이의 무역구조가 정착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16세기까지의 양국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이었으나,명나라가 자주성을 침해할 정도로 압력을 행사할 시엔 저항도 불사하였으며, 명이 강국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안위를 위한 사대.자주외교 기조를 유지하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국방력에 대하여

그렇다면 조선의 국방력은 어느정도였을까요.? 기본적인 병역제도는 노비를 제외한 16세 이상 60세 이하에 이르는 양인의 정남(正男 : 장정)이면 누구에게나 병역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남은 정병(正兵 : 현역 군인)으로서 실역을 마치거나, 보인(保人 : 보충역)으로서 실역 복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두 가지로 구분되었으며,이와 같은 원칙을 전제로 크게 중앙군인 경군(京軍)과 지방군인 향군(鄕軍)으로 편성되었다 했습니다. 중앙군은 태조3년(1394)부터 세조 초기까지 약 60년간의 개혁을 거쳐 의무병인 정병을 비롯하여 무과시험으로 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중앙군은 정예부대와 왕족,공신 및 고급관료들의 자제들로 편성된 특수병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복무기간에 따라 품계와

녹봉을 받았으며,지방군인 향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구분,국방상 요지인 영(營),진(鎭)에 주둔하면서 변방 방어에 종사하거나 일부 병력은 교대로 수도에 상경,도성을 수비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군제였습니다. 이같은 방위 체제는 일본과 여진족 등 야만족들이 소규모의 노략질을 자행하던 시기에 방어병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잇점을 지니고 있었기에 큰 전란을 겪지 않았던 조선조정으로서는 국방력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은 건국 2백여년간 이렇다 할 전란이 없었기에 상비군제에서 병농일치의 예비군체제였습니다. 여진족과 다툼이 빈번한 북부지방과 남부의 수군은 상비군이 유지되었지만, 기타 지방에서는 문서상으로만 병력이 존재하고 실제로는 군역을 부과하지 않았고,사람을 사서 대신 군대에 보내거나 군포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군수포(放軍收布)나 대역납포(代役納布)가 성행함으로써 요즈음 말로 병역비리가 성행했다는 것이죠. 특히 기병의 경우에는 상비군으로서 비교적 많은 경험을 쌓았으나,임진왜란시 주력군이었던 보병의 경우에는 병역제도가 문란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조짐이 있다고 생각한 조선정부는 나름대로 군비를 강화하는 한편,여러 무장을 발굴하고 성곽을 보수하는 등 임전태세를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특히 경상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는 그 이전 전란의 참혹함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에 많은 저항이 뒤따랐다는 것이지요. 경상감사 김수와 전라감사 이광의 경우,이들이 선조의 명을 받고 성곽을 수리하고 병장기를 정비하는 등 전쟁준비를 서둘렀으나 지방에서는 부역이 너무 가혹하다는 상소가 빗발쳤기 때문에 탄핵으로까지 몰아가는 세력이 있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제1부 끝)**

임진왜란 직전 왜(倭)의 군사력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는 1558년부터 강력한 정치,경제개혁을 시작하였거니와 그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분야는 검지(檢地:토지측량)라는 토지개혁과 가타나가리(刀狩〈도수: 칼사냥〉:백성 신분의 대도권〈帶刀權〉-칼을 차고 다니던 권리를 박탈하는 병농 분리정책)라는 무기 몰수정책이었습니다. 도요토미는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검지장과 구니에즈(지도)를 제출케 하여 토지를 측량하였고,수확고를 조사하여 전국의 생산력을 쌀로 환산하는 '고쿠다카(石高)제'를 실시하였으며,다이묘들에게는 고쿠다카에 상응하는 군역을,농민들에게는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고쿠다카에 상당하는 조세를 납부케 하였습니다.



〈그림 : 이나바 산을 오르는 히데요시〉

이러한 개혁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세력에게는 황무지를 경작토록 하였던 바,이것이 계기가 되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임진왜란에 불참하게 되었고,도요도미 사후 정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전화위복이 되었으니,아이러니한 역사의 단면이라 하겠지요. 이와 같은 가타나가리는 농민들에게서 무기를 몰수하고 농민의 신분을 명확히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1591년에는 '히토바라이(人掃)령' 을 내려 신분상의 이동을 금지하고 사농공상의 신분을 확정함으로써 병농분리라는 개혁정책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세기 중엽의 센고쿠시대(戦国時代:중앙정부의 무능으로 군웅이 할거,서로 다투던 시대)에 이르러,전투양상이 대규모의 집단 보병전술로 전환됨에 따라 전투주체도 소수의 특정한 영웅이 아닌 보병중심의 밀

집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아시가루(足經〈족경〉:평상시에는 잡역을 담당하다 전시에는 아시가루조(組)에 속하여 보병이 되는 최하층 병졸)라는 경장비 보병이 출현하여 전투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16세기 중엽에 조총(철포)과 화약이 전래되면서부터 철포부대인 철포조와 궁사 부대인 궁조로 편성되어 공격의 주역을 맡았다 했습니다.

당시의 전국 다이묘 세력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와 같은 전술변화를 이용,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한 사람이 다름아닌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였습니다. 1575년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다케다(武田)군과의 나가시노(長篠)전투에서 조총을 보유한 보병을 주력으로 다케다군의 기병을 격파함으로써 전술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후 1582에 이르러 도요토미는 전투 부대의 병종을 기병과 보병의 두 가지로 대별하였고,사무라이대장(侍大將)의 지휘하에 기병,총병,궁병,창검병 등의 단위대를 편성,각조의 지휘관으로 기사,보사 등을 두도록 군제를 개편하였다는 것이죠.

이 때의 일본군은 부대를 3진 또는 4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법으로 채택하였으며,제1진의 기병이 2개부대로 전개,포위태세를 갖추면 제2진의 총병이 적의 정면에서 조총을 쏘며 돌격하는 전략.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어서 제3진의 궁병이 진격하면 제4진의 창검병이 뒤따라 돌진하여 백병전을 벌이는 병법이었습니다. 비(非)전투요원으로서는 소인(전령),하부(수송),의사,승려(부대특성에 따라 서양에서 파견된 신부가 담당하기도 했음:지휘관인 다이묘가 그리스도교 신도일 경우) 등이 전투부대의와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요토미는 이같이 진일보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1586년경부터 대규모의 선박건조계획을 추진하여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이미 1천여척의 전함을 확보한데 이어,종전 무렵에 이르러서는 3천여척이라는 대규모의 선단을 보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인 1591년에는 사이카이도(西海道),난카이도(南海道),산요도(山陽道),산인도(山陰道) 등의 일부 지역에 33만명에 달하는 병력동원령을 내려 실전을 익히는 전술훈련을 하며 전쟁준비를 하고 있었그럼에도,조선조정에서는 적정을 제대로 탐지할 정보능력이 없었다니 저들의 침략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명나라의 정치적 상황

이쯤해서 당시 명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68년 개국한 명나라는 15세기 초인 영락제[永樂帝.태종(太宗),1403-1424)]에 이르러 강성대국의 면모를 갖추었으나,그가 죽은 후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1449년에는 정통제(正統帝.영종〈英宗.〉가 몽골의 오이라트를 친정하다 패전,포로가 되었던 '토목의 변' 을 계기로 나라의 위세가 점차 약화됨으로써,집권층 내부 기강마저 무너지고 있었지요. 16세기에 이르러 환관의 발호로 정치가 더욱 혼미해짐에 따라 전국이 반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이 무렵부터 기

세를 떨치기 시작한 왜구가 명나라 해안지대를 수시로 침략하곤 했었지요.



〈15세기 영락제 재위시 명의 영토〉

이에 명나라 황실은 북쪽으로부터는 몽골족의 침입을,동남쪽 해안으로는 왜구의 침입을 막느라 곤욕을 치뤄야 했으며,이와 같은 외세의 압력은 자연히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만력제[(萬曆帝).신종(神宗)1573-1620]가 등극했던 10여년간은 장거정(張居正〈1525-1582〉: 전국적인 호구조사 및 토지조사를 시행하여 지주들의 횡포에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개혁정책을 추진한 명나라 제일의 정치가)이라는 참신한 정치가의 등장으로 다시 중흥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장거정 사후 기득권층인 개혁 거부세력(지주와 부유층)이 거세게 준동하자,실의에 잠긴 만력제는 국사를 돌보지 않고 매사를 환관에 일임하다시피 했습니다. 따라서 명나라 정국은 또다시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업친데 덮친 격으로 닝샤(寧夏.영하)에서 일어난 몽골의 항장(降將) 보바이(知拜)의 반란을 위시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민란을 평정해야 했으며,후일 임진왜란으로 곤경에 처한 조선을 돕기 위해 원군을 파병,엄청난 전비를 국고에서 충당해야 했던 것도 명이 멸망해 가는데 촉진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조선.왜와의 관계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취한 명나라와 조선의 교역은 조공무역 형태로 이루어졌던 바,이는 명나라의 황제가 주변 국가의 왕을 임명하는 책봉의 대가로 해당 국가들은 조공을 통해 황제에게 헌상물을 바치는 형식이었습니다. 조선으로부터 견직물과 고려인삼 등을 조공물로 받으면 명나라에서는 그 대가로 고급 견직물과 도자기,서적,약재 등을 답례품으로 하사했지요. 이러한 조공무역은 조선이 더 남는 장사를 했던 것으로,이는 조공 횟수를 둘러싼 두 나라의 주장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에 3년에 1회의 조공무역을 주장한 반면,조선은 거꾸로 명나라에 1년에 3회의 조공무역을 주장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조공무역은 제후국에서 황제국에 일방적으로 진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후국에서 조공을 보내면 제국(帝國)에서는 그에 대해 하사품을 내리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으나,하사품이 조공품보다 더 귀하고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조선 사절단의 체제비와 물품운반비 등을 황국인 명나라측에서 모두 부담하였었다니,이문이 남는 교역이었던 것이지요. 이는 황제국(皇帝國)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방도였지만 여하튼 조공무역은 제후국에게 더 이로운 제도였던 것만은 확실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선과는 달리 명나라는 일본측의 조공을 그리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404년

명나라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 10년에 한번씩 조공을 오되 인원을 200명 이내로 제한하며,칼을 휴대하고 입국하면 도둑으로 간주하여 죄를 묻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뿐만아니라.무역거래 장소도 절강성의 닝보(寧波.영파)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명이 일본에 엄하게 제한했던 것은 유황,구리,칼 등 일본의 물품이 명나라에서 특별히 필요한 물품이 아니었던데다 일본 천황이 아닌 지방의 다이묘(영주)들이 주로 방문했기 때문이며,체류비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지요.

그 후 16세기 초부터 일본의 규슈지방 상인들이 명나라 복건성 쪽 항구에서 은을 지불하고 옷감을 구매하는 무역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상인들까지 절강성,복건성 등지에서 상행위가 빈번해지자 명나라에서는 이들을 축출하면서 일본 상인들도 함께 몰아냈습니다. 1547년 이후부터는 일본의 조공선이 명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은 아오먼(澳門,마카오)을 근거지로 교역할 수밖에 없었으며,그 결과 일본상인 후원을 받는 왜구의 해적활동이 명나라와 조선을 대상으로 더욱 극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의 중개무역을 통해 명나라 상품을 사들이는 것이 번거롭게 되자 명과의 공식적인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이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랐으나 조선으로서는 이러한 부탁을 외면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시 정권을 잡은 후 임진왜란 이전까지 명나라와 교역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고,교역이 성사되지 않은 것 또한 왜가 조선으로의 침략을 감행한 원인중 하나가 되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명나라 군제를 살펴보자면 개국초부터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절충한 위소제도(衛所制度 : 중국 명대〈明代 : 1368~1644〉에 국방을 위해 전국 각지에 주둔시켰던 군대)라는 군제를 채용했습니다. 위소의 최소 단위는 백호소로 정원은 병사 100명과 지휘관인 총기 2명,소기 10명 등 총 112명이었으며,1위의 병력규모는 5,600명이었고, 여러개의 위를 합쳐 도지휘사사라는 군단을 형성하였습니다. 여러 도지휘사는 중앙의 오군도독부 소속이었으며,위소의 병사들은 평시엔 군사훈련에 임하다 전시에는 중앙군인 총병관의 지휘하에 전투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16세기 전반기까지 명나라는 전국에 16곳의 도지휘사 등에 소속된 493개의 위,2,593개의 소가 있었으며,315개의 수어천호소가 있었고,그 병력은 총 329만여명의 대병력었다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황제의 친위군으로서 궁성 수호를 담당하는 금의군 15만여명이 황제를 보위하였습니다. 그러던 1449년의 앞서의 '토목의 변'을 계기로 위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병모집을 통한 병력을 보충하여 북방의 몽골족과 동남 해안지역에 출몰하는 왜구를 격퇴시키도록 했지요.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정치혼란과 군의 전투력이 약화된 시점에 조선 파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부 끝)

임진왜란의 주요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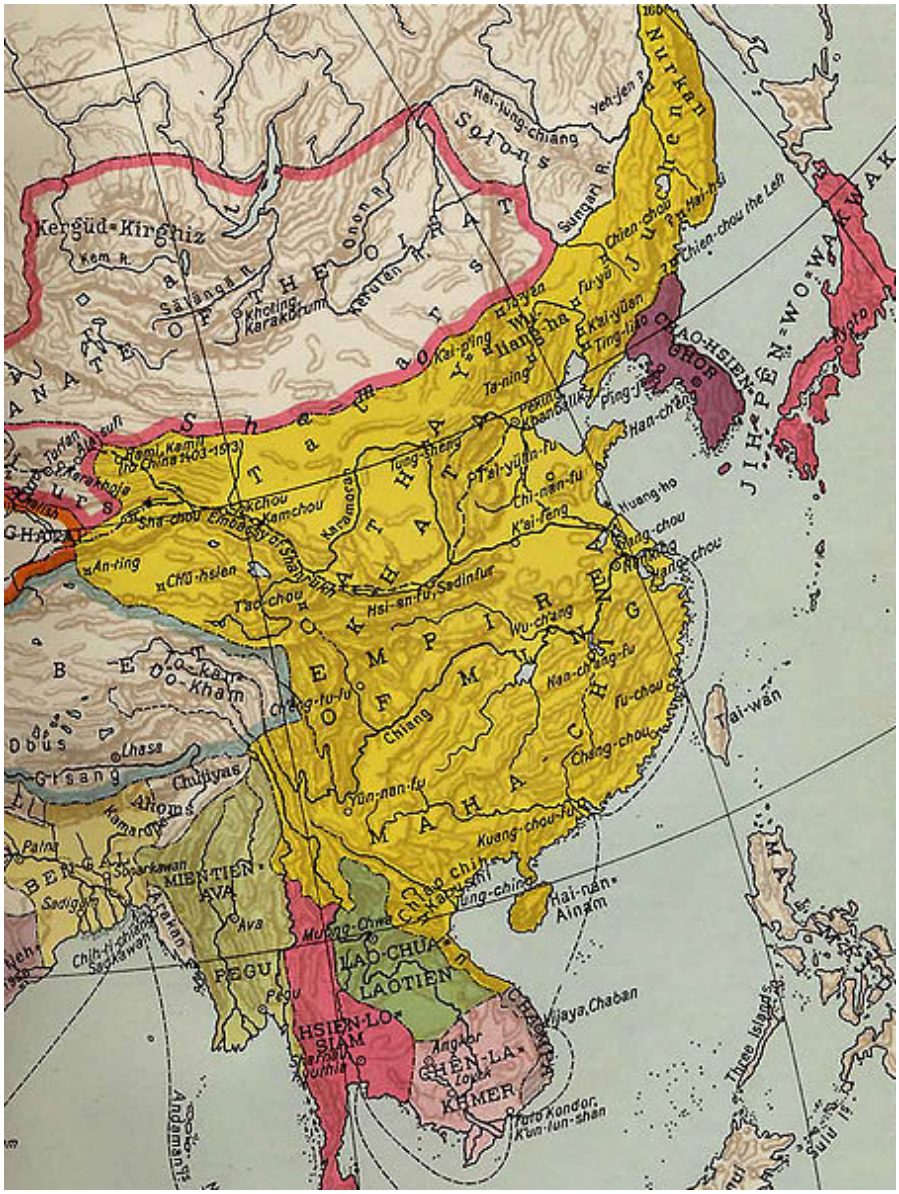
왜군의 침략과 조선의 일방적 패퇴

1592년 음력 1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쓰시마섬 도주에게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에 복속할 것과 명나라 정복을 위해 일본군의 길잡이를 맡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쓰시마 도주는 명나라 정복을 위해 길을 빌려달라는 말로 바꾸어 조선에 교섭을 해 왔으나 조선은 들어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한 것까지가 앞서 언급 내용입니다. 교섭이 결렬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음력 4월13일 약 20만명의 왜병으로 하여금 조선을 침략케 하였던 바,이 날 정발(鄭撥)이 지키는 부산진성과 송상현(宋象賢)이 지키던 동래성이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음력 4월24일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서 일본군에 패하고,10일만에 경상도 방어선이 무너졌으며,음력 4월28일엔 믿었던 도순변사 신립장군이 충주의 탄금대에서 왜군에게 패하여 전사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때 왜군 주력인 육군은 종래 일본 사절단이 조선에서 이용하던 세갈래 길을 따라 북상하고,수군은 조선 남해와 황해를 돌아 물자를 조달하면서 육군과 합세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선봉으로 한 제1군은 부산 · 밀양 · 대구 · 상주 · 문경을 거쳐 충주에 이르렀고,제2군은 가토 기요마사(■度寥□)의 인솔하에 울산 · 영천을 거쳐 충주에서 제1군과 합세하며 파죽지세로 진군하였습니다.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의 제3군이 김해와 추풍령을 넘어 북상해 오니,이에 놀란 조선 조정은 한양을 떠나 북쪽으로 피신하기에 바빴습니다. 음력 5월2일 일본군 제1군과 제2군은 개전한지 20일만에 충주 · 여주를 거쳐 한양을 본거지로 삼았으며,음력 5월17일엔 도원수 김명원을 임진강 전투에서 격파한 뒤,고니시 유키나가군은 평안도로,가토 기요마사군은 함경도를 경유,한반도 북부까지 넘보게 되었지요. 음력 6월13일,평양이 함락되자 다급해진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잘 조련된 왜군에 비해 실전경험과 방어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조선군은 왜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도 전쟁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한다 했으나 오랜 기간 평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던 중에 당한 날벼락,왜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병영을 이탈할 정도였습니다. 대규모의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전시계획은 있었으나 제대로 실전에 적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구지역의 경우엔 전시계획대로 군대가 소집되어야 했으나,책임자 이일이 도착하기도 전에 왜군이 진입하였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왜군의 침략에 대비하여 축조한 대구읍성은 방어에 쓸모가 없었으며,이일은 자신이 지휘할 군병과 제대로 조우하지도 못한 채 패주하기에 바빴습니다.



〈명4대 황제(영락제) 재위시의 명,조선,왜〉

조선 조정의 피난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감에 따라 조선 조정은 여러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믿었던 신립장군의 패배는 한양의 인심을 극도로 동요시켰으며,선조는 마침내 조정대신과 더불어 한양을 떠나 개성 · 평양 방면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고,두 왕자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을 함경도와 강원도지역으로 보내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토록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으나,선조가 한양을 비운 것을 알게 된 노비들이 그들의 노비문적(文籍)이 보관된 장례원(掌隷院:노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과 형조에 불을 질렀고,이 때문에 궁궐이 모두 불타 없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군 선발대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까지 궁궐이 제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며칠 뒤 후발대가 도착했을 때 불타 없어졌다는 일본측의 기록으로 볼 때,노비들에 의해 궁궐이 전소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조정에서는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에게 도성의 수비 책임을 맡겼으나,결국 1592년 5월3일 수도 한양은 손쉽게 적에게 함락되고 말았지요.

당시 일본에서는 성이 함락되면 성주는 할복자살하는 게 상례였고,성의 주민들도 항복함으로써 해당지역이 평정되는 것이 전쟁시 그네들의 기본 관례였으나 이와는 달리 조선의 경우엔 왕이 도성을 비운 채 피난을 떠났음에도 전국 각지의 의병(백성)들이 맹렬히 저항하자 왜군들은 민초들이 정복자에 저항한다는 사실에 대해 당혹감과 심대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백성이란 단순히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는 영지에 속한 부속물 혹은 농노나 전리품이란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었고,이러한 차이를 몰랐던 그들은 조선정복 후 현지에서 보급품과 급료 등의 비용을 충당하려했던 전쟁운용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왔지요. 예나 지금이나 평상시엔 무지랭이 같던 민초들이 유사시 들고 일어나면 그 위력이 과히 폭발적이었음을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지요.

한양을 떠난 선조일행은 임진강을 건넌 후 왜군의 추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나루터를 불태우고 적군이 도강하지 못하도록 배들을 가라앉혔지만,왜군이 한강 이남까지 진격해 오자 다시 피난길을 떠나야 했으며, 개성을 거쳐 평양에 이르러 급기야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기에 이릅니다. 그후에도 왜군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개성함락한 후 황해도 방면으로 진격해 오자,위기를 느낀 선조일행은 또 다시 몽진길에 들어서야 했지요.그런 와중에도 또 하나의 조정인 분조를 꾸려 왕세자로 책봉된 광해군 주도하에 각지를 순회하며 의병 봉기를 촉구하였고,의병들을 국가의 정식군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병농일치의 군사제도였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였으며,의병장에게 관직을 수여함으로써 무과에 급제해야만 현감 이상의 관직을 가질 수 있었던 관리와 대등한 대우를 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의병장에 대한 관직 우대는 기존 무과급제를 통해 정식으로 장수가 된 자들과 알력이 빈번하였는데,이러한 알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김덕령 모함사건(임진왜란시 의병장이었으나 무고에 의해 29세(1596년)로 고문 끝에 옥사한 것으로 전해짐)이었습니다. 여하튼 광해군의 주도하에 각지의 사대부와 백성들을 대상으로 근왕병을 모집하고 군량미를 확보함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명나라 장수들도 광해군의 업적을 극찬하였으며,전국 각지의 의병들이 왜군의 무기와 식량 보급로, 통신망 등을 차단하는 전과를 거둠으로써 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었고, 조선 관군이 재기하는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육전에서의 연이은 패퇴와는 달리 이순신(李舜臣)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압도적인 화력과 탁월한 전술을 앞세워 1592년 5월 사천전,6월의 당포해전,7월에는 한산도에서 왜군을 격파함으로써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었지요. 이로써 왜군은 병력과 군수품 수송이 어려워지게 되었고,조선수

군과 의병들의 전과가 더욱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기록에 의한 의병들의 주요 활약상을 대충 살펴보면,조헌(趙憲)은 충청도 옥천(沃川)에서 궐기하여 청주에 주둔하던 왜군을 축출한 여세를 몰아 금산지역의 일본군을 공격하다가 전사하였고,곽재우(郭再祐)는 경상도 의령(宜寧)에서 거병하여 의령 · 창녕(昌寧) 등에서 적을 물리친 바 있으며,진주에서 김시민(金時敏)과 함께 왜의 대병을 격퇴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호남지역의 고경명(高敬命)은 전라도 장흥에서 거병하여 은진까지 북상하였다가 금산성에서 일본군과 격전 끝에 전사했으며,김천일(金千鎰)도 호남에서 거병하여 수원을 근거지로 왜군과 싸우다 진주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던 기록이 돋보입니다.

한편 함경도지방에서 활약하던 정문부(鄭文孚)는 경성(鏡城) · 길주(吉州) 등을 회복하고 왜군이 주둔하고 있던 함경도를 수복하는데 크게 공을 세웠습니다. 묘향산의 노승 휴정(休靜)은 격문(檄文)을 팔도의 승려에게 발송하였으며,그의 제자 유정(惟政)으로 하여금 2천여명의 승병을 이끌고 평양 탈환에 공을 세워 도총섭(都摠攝)에 임명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제자 처영(處英) 역시 승병을 모집하여 전라도 일원의 권율(權慄)장군 휘하에서 전공을 세웠던 것으로 보아 뜻있는 사회 저변층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어섰음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왜란중에도 전국최대의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역이 비교적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김시민의 제1차 진주성 전투,권율의 이치전투(梨峙戰鬪 : 전북 금산 근처에서 조선군과 왜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에서 왜군에게 크게 승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왜군의 전체적인 전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왜군의 작전에 차질을 빚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순신 장군(차후 상술할 예정)이 육지로부터 왜군의 내습을 걱정하지 않고 해전에 전념하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명나라 지원군의 개입

한편,의주로 몸을 피신한 선조가 명나라에 조선의 위급함을 알리며 원군을 요청하자,명나라 조정에서는 찬반여론이 비등하였으나,병부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의 주장으로 자국의 영토에까지 전쟁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선을 침략한 왜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게 되었지요. 일설에 의하면 조선왕 선조가 의주까지 쫓겨왔다는 급보를 받은 명나라에서는 너무나 단시간에 조선반도가 왜군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군을 파견하기 앞서,예전 조선에 사신으로 다녀와 선조의 얼굴을 알고 있던 사람을 의주로 급파,진짜 조선왕 선조가 맞는지 확인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명나라는 왜병들의 조선침략 목표가 종국에는 명나라를 도모함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

라 왜란발발 몇 해 전 조선의 역관이 한 중국인 여성을 홍등가로부터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공교롭게도 그 여성이 후일 병부상서인 석성의 부인이 되었고, 조선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화급함을 들은 석성의 부인이 병부상서를 설득함으로써 단시간내에 지원군을 파견하는데 크게 힘을 실어 주었다는 후문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후일 성호 이익이 그의 저서에서 임진왜란의 최고의 공신이 석성이고 그 다음이 이순신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니 그 일화는 사실인 듯합니다. 여하튼 명의 요동지역 부총병(療養副總兵) 조승훈(祖承訓)은 초기 5천여명의 원군을 이끌고 평양성까지 진격하였으나,연이어 평양성 공격에 실패하게 되자 명나라에서는 심유경(沈惟敬:명나라 병부상서 석성이 비밀리에 파견한 인물)을 평양에 파견,왜장 고니시 유기나와에게 화의를 제안토록 했습니다. 여기서 명의 무장 심유경이란 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592년 8월17일 심유경은 선조를 만난 자리에서 명나라가 70만명을 파병준비중이라 거짓 보고했으며,왜군의 요시토시(宗義智) 등과 강화교섭을 시도했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한 채,공허한 외교술로 삼국(三國)을 크게 혼란스럽게 했던 위선적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듬해 명나라의 사신으로 왜국을 방문,도요토미와 면담한 적이 있었던 바 당시 도요토미는 다음 4개항을 명나라에 요청했다고 합니다.① 명의 황녀를 일본의 후비(後妃)로 삼게 해줄 것 ② 감합인(戡合印 : 무역증인[貿易證印])을 복구할 것 ③ 조선8도 중 4개도를 왜국에 할양할 것 ④ 조선 왕자와 대신 12명을 인질로 삼게 할 것.

이 것이 이른 바 최초의 한반도 분할론일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남북으로 허리가 잘린 분단국 씨앗이 된 비극의 원초였던 것 같습니다. 심유경은 이러한 요구를 명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허위 보고했으나,거짓이 탄로나게 됨으로써 명으로부터 문책이 두려워 일본으로 망명하기 위해 남쪽 방향으로 도주하다 의령 부근에서 명나라 장수 양원에게 체포되어 '황제를 기만한 죄'로 처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도하에 4년에 걸쳐 진행된었던 강화협상은 물거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각설하고,1593년 1월에는 이여송(李如松) 등이 이끄는 4만여명의 명군이 조선군과 합세하여 평양을 수복하였고,기세가 꺾인 왜군은 한양으로 퇴각해야 했습니다. 이같이 명군이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명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 되기도 했습니다. 왜란발발 1년 후 조선은 정규군 17만5천을 운용하고 있었고,왜군은 도합 15만 중에서 7만명 이상이 전사한 상태였으며,전선도 경상도 남부로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왜군은 전세가 불리할 때마다 명나라에 강화를 요청하였고,위험 부담없이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명군은 조선의 공세적 요구를 묵살하며 왜군과의 강화에 응했다는 것이죠.

왜군의 패퇴와 종전

이후 전황이 불리해진 왜군이 화의를 서둘렀고 명군도 벽제관 전투에서의 참패를 겪은 연후라 종전을 원했으므로 화의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삼국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조선이 화의를 반대하자 교섭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왜군이 앞서 언급한 4개항 등을 요구함으로써 3년에 걸친 화의교섭이 결렬되었으나 교섭과정에서 왜군에 납치되었던 조선의 두 왕자가 귀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남해안에 주둔해 있던 왜군이 1597년 다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이른 바 정유재란(丁酉再亂)입니다. 그러나 전장은 예전과 같이 그들이 의도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군 병정들도 전열을 재정비하였으며,명나라 원군 역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조.명 연합군이 직산 소사평에서 일본군을 대파함으로써 북상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모함에 의해 파직되었던 이순신장군이 백의종군하며 명량해전에서 왜군을 대파하면서 세불리를 간파한 왜군은 다시 남해안 일대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1597년 12월말부터 1598년 1월초에 걸쳐 조.명연합군이 수차에 걸쳐 울산의 왜군성 등을 공격하니 본국의 보급로가 원활하지 못했음은 물론,그들의 우두머리인 도요도미의 급사로 인해 극비리에 철수를 시작함으로써 7년 동안 이 땅을 피로 물들게 했던 왜란이 종식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략적인 임진왜란 스토리에서 우리 민족의 성웅(聖雄) 이순신장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이후 별도로 엮어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3부 끝]

420년 전 임진왜란의 역사 -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이순신 장군에 대해 논하기 전에 당시 '임진왜란 ' 전.후 조선을 통치했던 선조와 그의 주변세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순찰사 성영의 장계에 ' 의졸을 통솔하고 군사를 모집하는 사람이 혹 자신을 호위하기 위해 군사를 데리고 있기도 하고 ,또는 서로 통섭되지 않고 상급자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 '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큰 폐단입니다. 관원들이 물자를 낭비하며 사치를 누리고,양호(兩湖:호서[湖西]와 호남[湖南]의 두 지역. 충청도와 전라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의 여러 장수들이 공적인 일에 사리(私利)를 경영하며,그 종족과 친지들이 주군(州郡)에 가득합니다." 이상은 ' 선조실록 '의 일부...

선조실록에 의하면,중앙은 물론 지방 관아에 부정비리가 만연했었다는 기록입니다. 어찌 보면 왜군의 침략을 초기에 막지 못한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왕의 통치철학을 엿볼 수 있겠지요. 어느 사가의 촌평에 의하면 "한석봉이 선조의 취향에 따라 그의 서체를 바꿔 갈 정도로 선조가 붓글씨의 대가" 였다 했습니다. 특히 선조의 친필이라는 속리산 법주사 소장 병풍의 초서체는 한석봉을 능가한다는 설도 있고...여하튼 선조의 현란하고 비실용적인 글씨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찬사를 받을 일이나,국가를 경영하는 왕이 붓글씨에 도취되어 있었으니,모든 사대부가 서도연마에

탐닉했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재위했던 기간이 ' 조선을 특히 어둡게 했던 시대 '라고 혹평하기도 합니□. 선조 뿐만 아니라 문을 우대하고 무(武)를 경시했던 시문(詩文)놀이 시대가 200여년간 계속되면서 임진.정유.정묘.병자호란 등을 당했을 때 무기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백성과 조정을 고난에 찌들게 하였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습은 정조대왕대에 와서야 실용적인 글씨체로 바뀔 수 있었고,군사분야의 이치탐구(理致探究)에 전념하였던 충무공 이순신과 달리 시문놀이와 붓글씨 쓰기에 빠져있던 문관들은 왜군이 이 땅을 침략했을 당시 육지와 바다를 불문,전쟁수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문관들은 전형적인 무관의 자리였던 병조와 비변사(備邊司 : 조선시대,군국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까지 차지하고 전쟁을 지휘하였기에 당시를 문문백관시대라 했던 것입니다. 8도의 감사,부사,목사,현령,현감 등 거의 모든 관직을 문관들이 독차지한 가운데 작전을 수립,지휘하는 과정에서 무관들을 하인 부리듯 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끝났어야 될 임진년의 왜란이 7년대란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경상감사나 동래부사만이라도 무관이 맡았었더라면 '전쟁 초기 왜군에게 그토록 처참하게 밀리진 않았을 것' 이라며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시 왜병들이 사용하던 조총)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다는 것은 전쟁에 대비,거북선과 학익진법을 개발했으며,전쟁이 발발하자 주어진 권한의 범주에서라도 무너진 국가기강을 회복시켜 나갔고,그러한 과정을 '난중일기 '라는 위대한 기록으로 후대에 남겼기에 위대한 스승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를 지내며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다를 제패함으로써 전란의 역사에 결정적인 전기를 이룩한 명장이며,모함과 박해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일관된 우국지정과 고결한 인격이 온 겨레가 추앙하는 의범(儀範)이 되고 있기에, 다시 한번 장군의 족적을 더

듬어 보려는 것입니다.

장군의 출생과 가족관계

이순신장군의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해(汝諧). 아버지는 정(貞)이며, 어머니는 초계변씨(草溪卞氏)... 장군의 가문은 고려 때 중랑장(中郞將)을 지낸 이돈수(李敦守)의 후손으로 조선에 들어와 7대손 변(邊)이 영중추부사와 홍문관 대제학을 지내는 등 주로 문관벼슬을 이어온 양반계급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인 10대손 백록(百祿)이 기묘사화의 참변을 겪게 된 뒤 장군의 부친은 관직의 뜻을 버리고 평민으로 지내려 했음으로 가세가 빈곤하였던 것이지요. 장군은 1545년 음력 3월8일 당시 한성부 건천동(서울시 중구 인현동)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엄한 가르침하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장군 전사 후 정경부인(貞敬夫人)이 되었던 부인 상주방씨(尙州方氏.보성군수 진(震)의 딸)와의 사이에 회(薈)·열·면(□) 등 아들 3형제와 딸을 두었고,서자로 훈(薰)·신(蓋) 그리고 2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노량해전에 참전했던 회는 현감,열은 정랑(正郞)이었으며 면은 난중에 왜적과 싸우다 전사했고,훈과 신은 무과에 올랐던 것으오 전해지고 있으며,장군의 두 형이 모두 요절했기 때문에 조카들을 친자식과 같이 돌보았다고 합니다. 22세부터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던 장군은, 28세 되던 1572년(선조 5년) 훈련원별과(訓鍊院別科)에 응시했으나 달리던 말에서 낙마,다리에 부상을 당함으로써 등과에 실패했었으나,

그뒤 1576년 봄 식년무과에 급제하여 12월 귀양지로 여기던 함경도 동구비보(童仇非堡)의 권관[權管.조선시대 변경의 진보(鎭堡)에 두었던 종 9품의 수장(守將)]으로 부임했으며, 1579년 2월 귀경하여 훈련원봉사가 되었고, 그해 10월에는 충청병사의 막하 군관으로 전임되었고, 이듬해 7월 발포수군만호[(鉢浦水軍萬戶.조선조 외관직(外官職)으로 정4품 무관직)]가 되었습니다. 1582년 1월 군기경차관 서익(徐益)이 발포에 와서 군기를 보수하지 않았다고 장군을 무고한 탓에 첫번째로 파직되었으나,그해 5월 다시 임명되어 훈련원봉사직에 재직하였습니다.

1583년 7월 함경남도 병사(兵使) 이용의 막하 군관으로 전근, 10월 함경북도 건원보(乾原堡) 권관으로 오랑캐 토벌에 공을 세워 11월에 훈련원참군이 되었으나 15일 장군 부친 별세로 휴직했다 합니다. 1586년 1월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종6품직(從六品職)으로 종래의 부사(副使))]에 임명되었다가 북방 오랑캐들의 침범이 있자 16일만에 다시 함경도 조산보병마만호(造山堡兵馬萬戶)로 천거되었지요. 이듬해 8월에는 녹둔도둔전관(鹿屯島屯田官)에 겸임중일 때 섬의 방비를 위하여 증병을 요청했으나,병사(兵使) 이일(李鎰)이 장군의 청을 외면한 상태에서 오랑케의 기습을 당했고,이때 패한 죄로 하옥된 적도 있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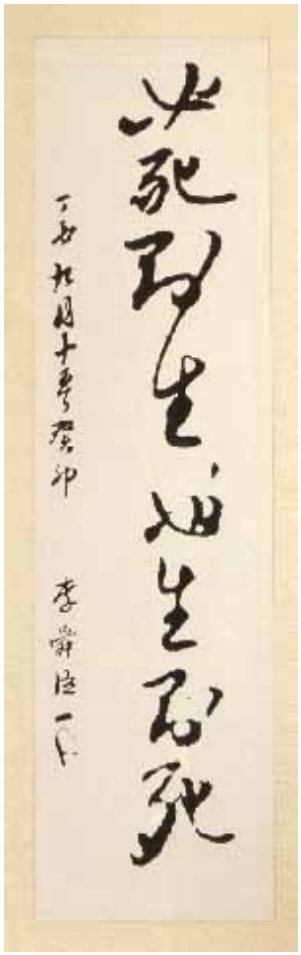
장군은 1589년 2월 전라도순찰사 이광(李洸) 휘하의 군관이 되었고, 또 순찰사의 주청으로 조방장(助防將)을, 이어 11월에는 선전관도 겸직하였으며 12월에는 정읍현감에 제수되었지요. 이듬해 만포진수군첨절제사(滿浦鎭水軍僉節制使)에 임명되기도 했으나, 대간들의 반대로 임용이 취소되었다가, 임진왜란 발발 1년전인 1591년 2월 진도군수에 전보되기 직전인 2월13일 정읍 현감에서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 : 지금의 여수) 절도사직에 부임케함으로써 조선의 역사를 바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참으로 놀라운 것은 육군이 아닌 수군장수로,그것도 종6품에서 정3품 당상관으로 7단계

를 도약하는 발탁인사였습니다.

일찍이 서애 유성룡(柳成龍)은 율곡 이이(李珥)가 이조판서로 재직 당시 이순신 장군을 소개하려했으나, 이순신은 율곡이 자기와 성씨가 같은 문중이라 하여 그와 조우하는 것까지 사양할 만큼 청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순신 장군을,오직 말타고 창칼 쓰는 육군으로만 군경력을 쌓아온 장군을,수군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군 요직에 기용할 착상을 했을까요.! 그야말로 누구도 발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인사였습니다. 만약 이순신을 통상의 방식대로 육군장수로 활약하게 했더라면 오늘의 충무공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에 인사가 왜 중요한지와 유성룡의 혜안이 놀랍기만 합니다.

장군이 땅에 태어난 후 53년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어둡고 무능했던 '조선' 이란 나라가 6년7개월 동안 明과 倭의 틈바구니에서 위난에 허덕이던 이 민족을 구하신 분이지요. 그 시대를 살다간 지식인 율곡 이이는 당시의 조선을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 라고 탄식했고,전란 중 5년간 영의정(전시수상)직에 봉직하는 동안 온몸으로 조선의 분할을 막았던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은 '이 필시 하늘이 도와서 나라를 보존했노라' 는 상소문을 선조에게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300년후 일제35년,그 후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한반도에 살고있는 우리들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가들은 유성룡과 이순신의 만남이 조선으로서는 '숙명' 이었고,모든 시대를 초월한 '가장 위대한 만남 '이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유성룡이 없는 이순신이 있을 수 없고,이순신을 생각지 않는 유성룡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만남은 조선으로서는 아주 큰 행운이었던 것이지요. 율곡의 표현대로 ' 조선이 나라가 아닐만큼 무능 '했어도 인물이 있어 인물을 알아보았기에 사직(社稷)이 이민족(異民族)이 아닌 우리 한민족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발굴한 유성룡을 조선조 5백년을 대표하고도 남음이 있는 정치리더십을 갖춘 위인으로 평가하는 것이겠지요.



이순신 장군의 친필휘호(필사즉생 필생즉사)

소설속에 인용된 임진왜란,서민들의 삶

'임진왜란,에 관한 자료들을 유심히 보노라면,저 자신 이땅에서 우리말 우리글을 쓰며 동족끼리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자랑스럽기에 앞서 부끄럽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故 월탄 박종화님이 쓴 소설 ' 자고가는 저 구름아 '에 나오는 구절의 일부로,임진왜란 초기 왜병의 한양 접수가 임박하게 되자 임금인 선조가 화급히 피난길을 떠난 직후 도성의 성난 민심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 커다란 진동과 함께 태산더미 같던 근정전(勤政殿),인정전(仁政殿),사정전(思政殿) 등 우람한 궁궐의 전각들이 삽시간에 불길속으로 넘어박히고 있었다. '

대궐에 불을 지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왜적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지하천의 대우를 받던 종의 결찌(곁붙이)였다. 그들은 1백년 2백년 양반한테 받았던 박해와 설움과 원한을 오늘 새벽 임금이 없는 하루 아침에 쾌하게 씻어버리려는 것이었다. 종들은 당대의 자기한 몸 뿐만아니라 대대로 종이 되어 내려와야만 했다. 아비도 종이요,할아비도 종이요,증조할아비도 고조할아비도 종이었다. 자기 자신도 종이지만 제몸에서 자식과 손자와 딸과 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 종의 신세가 되는 비참한 운명을 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얼굴이 예뻐도 종년이요,학식이 있어도 종놈이요,인격이 높아도 종의 자식이었다.

"종은 사람이 아니라 한 개의 물건이었다. 오히려 물건은 귀한 것도 있고 보배도 있지만 종은 짐승이나 매 일반이었다. 짐승이라도 개와 같았다. 개를 주거나 팔듯,사람이건만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팔았다. 돈을 갖고 매매를 하니 문서가 있게 되었고,장례원(掌隷院)이라는 곳을 두어 이 사람들(종)의 문서를 보관하고 이들의 행동을 관장하게 하였다. 장례원은 노예를 관장한다는 뜻이다. 천년의 원한을 품은 노예들은 임금이 대궐을 비우고 덜아나는가 하면 상전(上典)이 집을 버리고 달아나자 활개를 치고 고함을 지르며 일제히 일어났다. 그들은 맨먼저 자기네들의 종문서를 보관해 둔 장례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장례원의 창고속에서는 종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다. 김가.이가.최가.홍가 누구의 문서를 말할 것도 없이 다 같은 운명에 놓여 있었던 학대와 박해를 대대로 받아온 몸서리쳐지는 종의 문서였다. 그들은 문서를 추리고 가려낼 필요가 없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횃불을 종의 문서가 쌓여 있는 창고속에 던졌다. 고조할아비,증조할아비,할아비,아비,자기 자신의 이름과 몸의 낙인(烙印)이 찍혀진 종문서에 훨훨 불이 붙기 시작하자 노예들은 손벽을 치며 고함을 지르고 환호성을 올렸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끔 조상들의 해골들이 장례원 곳간속에서 비틀거리며 춤을추며 나오는 모습이 비쳐졌고,,,"

"상전의 매질에 비명횡사했던 아비의 해골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오는 것 같았다. 서방님한테 유혹을 당해서 몸과 마음을 고스란히 바쳤다가 아씨마님의 투기로 손가락 끝마다 유황(硫黃)을 칠하고 불을 질러서 염통의 피가 끓어서 죽었다는 예쁜 고모 아줌마의 얼굴이 방긋 미소를 풍기며 광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았다. 산더미같이 쌓인 종의 문서는 삽시간에타오르기 시작했다. 장지로 책을 만들어 기록해 놓은 종의 장부인 것이다. 선반마다 가득가득 쌓아놓은 수백권의 책이 종들의 호적원본이었다. 기름에 절여진 노예장부는 검은 연기를 뿜으며 창고 천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당시 서민들의 서러운 삶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왜란초기 한양을 비우고 임진강을 건너 가까스로 평양성에 머물고 있던 선조는 왜군이 대동강 인근까지 압박해 온다는 급보에 다시금 북쪽을 향해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선조와 조선 조정이 평양성을 사수하겠다던 백성들과의 약조를 어기고 야반도주한다는 소문에 몰려든 민중들이 선조 일행을 향해 울부짖는 장면을 월탄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아 평양성을 내버릴테면 진작 버리고 달아날 것이지,백성들을 속여 사수하겠다고 맹세까지 해놓고 너희 놈들만 살짝 달아나면 우리들만 왜놈들의 밥이 되란 말이냐.? 옳다 우리들을 속여서 피난갔던 사람들까지 불러들여 놓고 너희들만 달아난단 말이냐." ...

"요놈의 새끼들 너희들 먼저 죽어보아라. 백성들이 식칼과 몽둥이를 들고 앞을 막으니 백관과 선조의 얼굴은 백지장이 되었고,성난 백성들의 눈은 벌겋게 뒤집힌 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람마다 악에 받혀서 머리털이 빳빳이 곤두섰다. 그러자 금관자(金貫子:상투틀때 상투를 보호하기 위해 당줄에 꿰는 작은 구슬)를 붙인 대관 한사람이 충성스런 마음에서 '이놈들,무엄하고 무식한 놈들아,종묘의 신주시다,어디다 감히 발을 대고 짓밟느냐'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말을 채쳐 들어가며 아직도 영문을 모른 채 양반행세를 하며 곤두가래침을 뱉던 옛버릇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에 백성들은 몸씨 흥분하기 시작했다." ...

"요놈의 새끼 봐라,금관자를 단 도둑놈의 새끼들아, 장하다! 금관자를 달고서도 왜놈 한명 막아내지 못한 주제에 누구를 보고 호통치는 거냐. 기껏 한다는 짓들이 임금에게 백성을 버려둔 채 도망치자는 게냐.? 몽둥이를 든 백성 하나가 금관자를 단 대감의 말 정강이를 힘껏 후려쳤다. '여우보다도 못한 쥐새끼같은 놈아 네깐놈이 호령을 해,맛좀 보아라,요놈의 새끼' 그러자 수많은 난민들이 와~ 소리를 치면서 몰려들어 대감을 짓밟으니 갓 양태와 망건이 떨어져 나갔다. 금관자의 대감은 졸지에 얻어맞고 짓밟혀 대가리가 터진 채 맨상투 바람으로 구사일생 행궁안으로 쫓겨들어 갔다." ...

"그러니 임금의 어가도 더 나가지 못하고 급히 행궁안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임금 일행이 행궁 안으로 쫓겨들어가는 것을 본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행궁을 에워싸기 시작했고,관복을 입은 대관들만 보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이놈들아 어디로 달아나는 게냐. 왜놈들의 손에 다 같이 죽자.!' 며 울부짖는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행궁 문앞에서 통곡으로 이어졌다. '백성들이 피난갔다 다시 돌아온 것은 상감께서 이 땅을 사수하자고 맹세했기 때문,우리들은 어린 자식,노부모 모시고 다시 평양성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상감께서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정녕 왜놈들한테 몰살될 것입니다." ...

"갈테거든 우리 모두를 죽이고 가든지,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을 데리고 가시오.한 노인의 외침이 들리자 젊은이 어린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다시 백성들의 한패는 잠겨진 행궁문을 들부수기 시작했고,이에 와지끈 우지끈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행궁문안 조당에 있던 대신들의 얼굴빛이 샛노랗게 변한 채 황망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만약 난민들이 행궁 대문을 부수고 조수 밀듯 들어온다면 큰일, 왜적한테 죽기전에 난민들한테 뭇매를 맞아 죽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으나 속수무책,임금 이하 조정의 대신들은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선조임금 신상의 위험이었다.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행문밖으로 뛰쳐나간 유성룡대감이 큰소리로 외치기를 '상감께서는 결코 평양성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 이라며 가까스로 성난 군중을 진정시켰다. 그렇지만 이튿날 새벽 임금선조는 평양 백성들을 두 번째 속이고 의주를 향해 은밀히 말을 달렸다." 했습니다. 후일 의주에 도착 후에도 선조임금이 한양으로의 환궁을 미루며 아예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에 영원히 내부(內附:조국을 버리고 명에 귀화)하려했던 것도, 송도와 평양 등의 피난길에서 백성들로부터 호되게 당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4부 끝)

한국인의 성웅, 이순신장군의 발자취

이순신장군을 알아야 – 이 땅의 슬픈 역사를 反芻하지 않기 위해



다시 우리의 성웅 이순신장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91년 2월13일 정읍 현감에서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 : 지금의 여수) 절도사직에 부임 후 이후부터의 얘기로 이어집니다. 장군께서는 무능한 조정과 왜구의 내침을 예측하였기에 영내 각 진지마다 군비를 점검하는 한편,후일 철갑선의 세계적 선구(先驅)로 평가될 거북선[龜船]의 건조에 착수하는 등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좌수사 취임 이듬해인 1592년 3월경에는 이미 새로 건조한 거북선에서 지자포(地字砲:사정거리 500m 이상 장거리포) 등의 사격틔쳄□ 거듭하며 닥쳐올 왜란에 대비했습니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1592년 4월 13일 일본군 병력이 도합 2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침략전쟁인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왜선 90여척이 부산 앞 절영도에 와 닿았다"는 경상우수사 원균(元均)의 통첩과 "왜선 350여척이 벌써 부산포 건너편에 와 있다"는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의 공문을 받은 즉시 장계를 올리고,4월15일 순찰사와 병사,그리고 전라우수사 이억기(李億祺)에게 신속히 공문을 발송했지요.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반성을 위한 전쟁기록)에 의하면,경상우도 수군은 왜병의 부산상륙을 알면서도 싸우려 하지 않았고,놀란 원균은 함대와 화포, 군기 등을 바다에 침몰,유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후 원균은 전라좌도 수군의 구원을 청했으나,이순신 장군은 맡은 바 경계가 있음을 이유로 영역을 넘어 출동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태가 위급하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광양현감 어영담(魚泳潭),녹도만호 정운(鄭運) 등 휘하 장령들과 충분한 찬반논의를 거친 끝에 출전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지요. 4월27일에 올린 구원에 출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赴援慶尙道狀.부원경상도장)에서 '출전 명령'을 시달해 줄

것을 주청한 후 전라좌도의 수군, 즉 이순신 장군의 함대가 경상도 해역에 출동을 감행하였고,왜군과의 해전사에서 연승하는 기록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1차 출전으로 5월4일 새벽 전선(戰船 : 판옥선) 24척과 협선(挾船) 15척 등 모두 85척의 함대를 이끌고 출동, 5월7일 옥포(玉浦)에 이르러 3회의 접전에서 왜선 40여척을 섬멸하는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가선대부(嘉善大夫:종2품 명예직으로 현직과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그만큼 예우해 준다는 의미)에 승서되었고, 제2차 출전인 5월 29일 사천해전(泗川海戰)에서 적탄에 맞아 왼쪽 어깨에 중상을 입었으나 그대로 독전(督戰), 6월 5일의 당항포해전(唐項浦海戰) 및 6월 7일의 율포해전(栗浦海戰) 등에서 모두 72척의 적선을 무찔러 자헌대부(資憲大夫:명예직 정2품[下階]으로 예우)에 추서되었습니다.

제3차 출전인 7월 8일의 한산해전에서는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의 일본함대를 견내량(見乃梁 : 지금의 거제군 시등면)에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 학익진(鶴翼陣)의 함대 기동전법으로 급선회하여 일제히 포위 공격함으로써 적선 73척 중 12척을 나포하고 47척을 불태웠던 바 이 전공으로 정헌대부(正憲大夫: 명예직 정2품 상계(上階)에 올랐습니다. 이어 7월10일의 안골포해전(安骨浦海戰)에서는 적선 42척을 분파했습니다(한산도대첩). 이 때부터 왜 수군은 전의를 상실하여 바다에서는 싸우려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은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순신장군은, 9월1일 부산포(釜山浦) 해전에서 적선 100여척을 격파함으로서 왜군에게 치명상을 입혔고,1593년 7월14일 본영을 여수에서 한산도로 옮겼고,8월 15일부터 삼도수군통제사에 겸직되었습니다. 전시 민생문제 해결에도 남다른 관심을 표명한 장군은 피난민들을 돌산도(突山島:여수시 돌산읍에 속한 섬)에 거주하게 하였으며,장기전에 대비, 둔전(屯田:군량미 확보를 위한 토지)을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1594년

3월4일 두번째 당항포해전에서 적선 8척을 분파하였고,9월 29일의 장문포해전(長門浦海戰)에 이어 10월 1일에는 곽재우(郭再祐) 등과 연합,장문포의 왜군을 수륙으로 협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피난길에 올랐던 선조의 어가 행렬(출처:위키백과)

1595년 2월 27일 조정에서는 이순신과 원균사이의 불화를 감지,원균을 충청병사로 전직시켰으나,이듬해 원균의 중상과 모함이 조정 내의 분당적(分黨的) 시론에 심상치 않게 파급되어 우유부단한 선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 11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막하 간첩 요시라(要時羅)가 경상우병사 김응서(金應瑞)를 통하여 도원수 권율(權慄)에게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오래지 않아 다시 바다를 건너올 것이니, 그날 조선수군이 이를 잡도록 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이고, 이 요시라의 간계가 조정에 보고되자,귀가 얇은 선조와 간신들은 장군이 그의 계책에 따를 것을 명했다는 것이지요.

1597년 1월21일 도원수 권율이 직접 한산도를 방문 요시라의 헌책대로 출동 대기하라는 명을 전했으나, 이순신은 그것이 왜군의 간계(奸計)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출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원수 권율이 육지로 돌아간 지 하루 만에 웅천(熊川)에서 장군에게 알려오기를 "지난 정월 15일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이미 장문포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측 기록에도 그가 정월 14일에 서생포(西生浦 : 울산 남쪽)에 상륙한 것으로 되어 있어 왜장 가토는 도원수 권율이 독전차 한산도에 내려온 것보다 6일전에 이미 상륙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전연승하던 이순신 장군을 불러 고문했던 선조

그럼에도 조정에서는 "왜장을 놓아주어 나라를 저버렸다"는 식으로 모함함으로써 장군을 파직시켰고, 장군은 3월 4일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가혹한 문초 가하며 죽이자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가고 있

을 무렵,판중추부사 정탁(鄭琢)이 올린 신구차(伸救箚 : 구명 진정서)에 힘입어 도원수 권율 막하에 백의종군(白衣從軍)하라는 하명을 받고 특사되기에 이릅니다. 4월1일 28일간의 옥고 끝에 석방된 장군이 충남 아산에 이르렀을 때,어머니의 부음소식을 들었으나 죄인의 몸이었기에 잠시 성복(成服:상복을 입음)하고 바로 전장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한편 원균이 이끄는 조선함대는 7월 16일 칠천량(漆川梁)에서 일본수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참패했습니다. 그러자 함선을 버리고 육지로 피신한 원균은 왜병의 추격을 받아 살해되었거니와, 이번에도 김응서 및 권율을 경유한 요시라의 같은 계략이 적중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전황은 정유재침의 다급한 사태에 엄청난 파탄이 초래되었으나, 조정은 속수무책이었고,자진해서 수군 수습에 나선 이순신 장군은 8월3일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되어,칠천량에서 패하고 돌아온 전선들을 거두어 재정비,독려함으로써 출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기록(명량대첩 장계초록)에 의하면 8월24일 어란(於蘭) 앞바다로 12척을 이끌고 나왔는데, 명량해전(鳴梁海戰) 당일에는 13척이 참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군은 8월29일 명량(속칭 울돌목)의 문턱인 벽파진(碧波津)으로 진을 옮겨, 9월15일에 우수영 앞바다로 함대를 대기시킨 후에 각 전선의 장령들을 소집,"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고,살고자 하면 도리어 죽는다.(必死則生 必生則死)' 고 했거니와,한 사람이 길목을 지킴에 넉넉히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사기를 북돋아줌으로써 9월16일 이른 아침 명량해협으로 진입한 적선 200여 척과 사력을 다하여 싸울 수 있었습니다.

왜군에 비해 조선수군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 마침내 왜군의 해협 통과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수군이 왜수군의 서해 진출을 결정적으로 저지하여 7년 전쟁에 역사적 전기(轉機)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임진년의 '한산도대첩'과 정유년의 '명량대첩'은 그 전략적 의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량해전은 박해와 수난과 치욕스러움의 역경을 극복한 이순신 장군의 초인적 실존(實存)으로 치러진 것이기에 그 의의가 더 크다하겠습니다.

일본측의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시 소수의 병력으로 조선육군을 물리친 와키자카 야스하루 (脇坂安治)라는 왜장은 명예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사무라이였다 했습니다. 왜란 당시 왜장 중에서도 몇 안되는 명장에 속했는데, 그러한 명장이 예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순신 장군에게 한산도 해전에서 대패한 후 그 충격으로 1주일간 식음을 전폐한 채 고통스러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수를 몰랐다. 단지 해전에서 몇 차례 이긴 그저 그런 다른 조선장수 정도였을 거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내가 겪은 그 한번의 이순신 그는 여느 조선의 장수와는 매우 달랐다."

와카자카의 독백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나는 그 두려움에 떨려 음식을 몇 날을 먹을 수가 없었으며 앞으로의 전쟁에 임해야하는 장수로써 나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고 고뇌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번 이순신 장군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조선수군과의 전투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고,가장 좋아하며 가장 흠숭하는 사람도 이순신,가장 죽이고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가장 차를 함께 마시고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적군 장수마저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명장인데 선조와 주변 신하들만은 달랐습니다.



간신배들이 득실대던 조선조정에서는 전투중인 장군을 불러들여 1개월 내내 형언키 어려운 고문을 일삼았으며 그도 모자라 사형으로까지 몰고 갔다니 나라가 망하지 않은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장군이 범상한 사람이었다면 그 울분으로 인해 조정이나 백성을 생각할 턱이 없었겠으나 지친 상태에서도 이끌고 백의종군,12척의 배로 또다시 왜군을 대파했다니 참된 겨레의 스승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97년 10월14일 셋째 아들 면이 아산에서 왜적과 싸우다 전사했다는 비보를 접한 이후 장군의 심신이 매우 쇠약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와중에도 1598년 2월18일 고금도를 본거지로 선정,삶이 힘든 백성들의 생업을 챙겼던 장군이었습니다.

1598년 8월19일,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급사했다는 전갈에 당황한 왜군 지휘부는 일제히 철군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순천에 주둔중이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순신 장군에게 뇌물을 보내며 퇴각로의 보장을 애걸했으나,장군은 '조각배도 돌려보내지 않겠다'(片帆不返)는 결연한 태도로 이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조 · 명연합함대는 11월18일 밤 10시경부터 노량해역으로 진격, 다음날 새벽까지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소오 요시토모(宗義智), 다치바나 도오도라(立花統虎)등이 이끄는 500여척의 적선과 치열한 야간전투

를 계속하여 승리를 이끌었다니 장군의 초인적인 전투능력을 필설로 어찌 다 표기할 수 있으리오.

1598년 11월19일 새벽,진두지휘하며 독전중이던 이순신 장군이 왼쪽 가슴에 적의 탄환을 맞고 전사하셨습니다. "싸움이 바야흐로 급하니,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지만, 장군의 의자살설(擬自殺說)에 의하면, 마지막 싸움인 노량해전에서 '투구를 벗고 선봉에 나섰다'는 것이지요. 지난날 위태로운 전투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한번도 패함이 없었던 장군이 자기 몸을 보전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서애 유성룡 - ‘징비록’에서 "순신은 말과 웃음이 적은 사람"

이순신 장군의 영구는 마지막 진지였던 고금도를 떠나 12월11일경 아산에 도착,이듬해인 1599년 2월11일에 아산 금성산(錦城山)에 안장되었으나,전사 16년 후인 1614년(광해군6) 지금의 아산시 음봉면(陰峰面) 어라산(於羅山)에 이장(移葬)했다고 전해집니다. 전사 후 우의정이 증직되었고, 1604년 10월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에 녹훈되고 풍덕부원군(豊德府院君)에 추봉되었으며 좌의정에 추증되었습니다. 1643년(인조21) 충무(忠武)의 시호가 추증되었고,1706년(숙종32) 아산에 현충사(顯忠祠)가 세워졌고,1793년(정조17) 7월1일 정조대왕의 하명으로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장군에 관한 얘기를 마치면서 그 분의 인품을 빼놓을 수 없는 일, 서애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순신은 말과 웃음이 적은 사람이었고, 그의 바르고 단정한 용모는 수업근신하는 선비와 같았으나, 내면으로는 담력이 있었다"고 그의 인품과 용모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순신 장군의 진(陣)중에 머문 일이 있었던 고상안(高尙顔 : 당시 현감)이 그의 언행과 지혜로움에 탄복하면서도, “그의 용모에서 복을 갖추지 못한 장수'(非福將也)로 느꼈다.” 고 술회했다 합니다. 또한 수개월간 진중 생활을 같이했던 명나라 수군 진린(陳璘,1543년~ 1607년) 제독도 이순신 장군을 다음과 같이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지를 주무르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은 공이 있다.(李舜臣有 經天緯地之才 補天浴日之功)” 고 했으며, 명나라 황제에게 이순신의 공적을 자세히 보고하여 명나라 조정에서 도독인(都督印)을 비롯한 팔사품(八賜品:명 황제 신종이 충무공 이순신에게 내린 8종류의 유물)을 내리기도 하였지요. 장군이 육필로 남긴 ‘난중일기(亂中日記)’에 따르면 그는 찾아오는 막하 장령들과 심야까지 국사를 논했고, 틈 나는대로 막료들과 활쏘기를 즐겼으며 바쁜 진중생활 속에서도 시가(詩歌)를 읊었고,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가야금을 즐겨 뜯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군은 ‘난중일기’를 통해 거리낌없는 사실의 기록, 당일의 날씨, 꿈자리 음미, 어머니를 그리는 회포와 달밤의 감상, 투병생활, 또 애끓는 정의감과 울분, 박해와 수난으로 점철된 7년 전란의 진중 일상사를 남겼지요. 그 기록내용이 지니는 사료학적 가치는 물론 일기문학으로서도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난중일기’는 그 친필원본이 61편의 장계(狀啓)와 장달(狀達)을 담은 필사원본 ‘임진장초(壬辰狀草:난

중일기 부록)’와 함께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어 현재 아산 현충사에 보존되어 있으며,이 외에도 이순신 장군의 문필은 여러 편의 시가와 서간문을 남겨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끝]

〈지금까지의 글을 쓰는데는 서애 유성룡 위대한 만남(송복 저),이순신과 임진왜란(이순신 연구회),위키백과,박혜일(朴惠一)님의 글 등 여러문헌을 참고했습니다.〉

옛 우리 이야기-2

블로그 B.S 의 빛을 찾아서 http://blog.daum.net/bes365

저자 베스

발행일 2013.10.02 09:41:18

Daum 블로그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